

# 派越韓國軍戰史

(1964. 9~1966. 3)

第一卷 上 (改訂版)

國 防 部



為駐越韓國軍戰史

聖戰萬里

一九六七年十二月

大統領

朴正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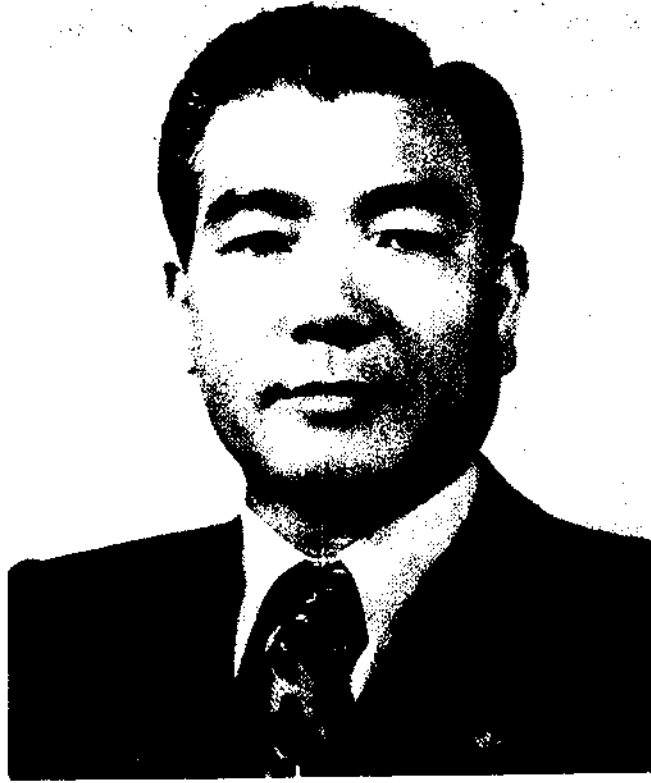






大統領 朴 正 熙





國防部長官 盧 載 鉉



國防部次官 李 敏 雨



合同參謀會議 議長  
陸軍大將 金 鍾 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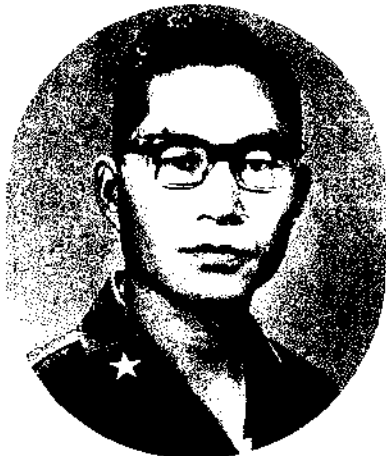
首都師團長 兼  
派越韓國軍司令官  
陸軍少將 蔡 命 新  
(1965. 8. 15 就任)



海兵 第 2 旅團長  
海兵准將 李 鳳 出  
(1965. 8. 30 就任)



韓國軍事援助團長  
陸軍准將 曹 文 煥  
(1965. 1. 29 就任)



軍需支援司令官  
陸軍准將 李 範 俊  
(1965. 8. 23 就任)



海軍輸送團隊司令官  
海軍大領 李 應 基  
(1965. 7. 12 就任)

## 序 文

史上 最初의 海外派兵이란 歷史的인 英斷을 내리신 朴大統領 閣下께서는 그 당시 諭示를 통하여 우리의 눈 앞에서 한 友邦이 共產侵略의 犧牲이 되는 것을 坐視할 수 없다는 韓國國民의 正義感과 斷平한 決意으로써 越南을 지원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越南派兵을 통해 自由우방의 安全保障을 위한 支援國의 위치에 밋밋이 서게 되었으며, 平和와 秩序의 조속한 恢復을 촉진하기 위한 友情의 奉仕정신에서 이 나라로 하여금 自由와 繁榮을 누릴 수 있도록 支援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뜻을 같이한 友邦國이 실제로 行動하기 시작한 65年度의 現地정세는 人間의 生命과 自由와 秩序를 威脅하는 可恐한 暴力이 亂舞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世界 赤化를 노리는 國際共產主義者들이 印支반도를 出口로 삼고 越盟과 이른바 「民族解放戰線」을 앞세워 越南의 각 지역을 거의 席捲한 까닭에 國家의 存立마저 뒤흔들리는 위급한 狀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渦中에서 우리 과월韓國軍은 熱帶地方의 諸般 惡條件을 무릅쓰고 勇戰감투하여 赫赫한 戰果를 거두고 無敵 韓國軍의 名譽를 세계에 誇示하였습니다. 그 以後 休戰과 더불어 友邦軍이 전수하자 이미 오래전부터 機會를 노리고 있던 越盟軍의 急襲으로 越南은 短時日內에 敗亡하고 말았으니, 그 敗因이 兵力이나 장비의 劣勢에 있는 것이 아니라, 越南國民의 總和安保 態세의 未備에 基因되고 있음을 우리는 전코 看過할 수 없습니다.

즉, 休戰이후 越盟軍의 再復에대한 對備策이 不實하였고, 自己 나라의 國防을 他力에 依存하는데에는 限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國論이 分裂됨으로써 힘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었으며 또한 軍部の 腐敗로 因하여 戰意를 喪失한데 그要因이 있었던 것입니다.

自由越南이 敗亡의 悲劇을 겪은지 어느 새 4年이 흘러간 오늘, 소련의 戰鬪艦이 西太平洋을 누비고 中·蘇의 支援를 받는 北僞가 南侵도발의 兇計를 露骨化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美地上軍이 철수하는 複雜多端한 周邊 정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越南의 敗因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國力培養과 戰力증강에 더욱 拍車를 加하여 물설틈 없는 總力安保 態세를 鞏固히

하여야 하겠읍니다.

돌이켜 보면 越南의 최후는 순수한 人道主義的 視角에서 派兵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衝擊을 주었으며 그러하기에 年輪이 더 해 갈수록 한나라의 宿命으로 돌리기에 는 너무나 뼈저린 教訓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어느 時代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先驅的인 使命을 지닌 者는 여러가지 逆境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本卷에서는 滅共戰線의 先鋒이 된 卅월 韓國軍의 第1陣이 侵略者를 무찌르는데 獻身하면서도 盟邦을 위해서는 언제나 慈悲로운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人道정신을 越南땅에 심어 준 발자취를 收錄하엿읍니다.

특히 이미 發刊된 「派越韓國軍戰史」 第1, 第2 卷은 越南戰이 進行中인 67, 68 兩年度에 편집한 탓으로 杜撰이 없지 않아 戰史編纂委員會에서 다시 添削을 加하여 우리가 自進하여 과병한 擧族的 矜持를 浮刻시키는데 力點을 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戰歴과 血痕으로 얼룩진 증언이 總力安保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멀리 南溟에서 散華하신 英顯의 冥福을 삼가 祈願하는 바입니다.

1978년 9월 25일

國防部長官 盧 載 鉉

## 發 刊 辭

1960年代에 접어들어 越南戰이 本格化되자 東南亞의 自由國家들은 共同의 힘으로 安全平和를 守護하려는 連帶的 사명감에서 越南공화국을 支援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政府는 이와 같이 自由友邦과 步調를 같이하여 建設 및 醫療지원부대를 파월한데 이어 전투부대까지 追加로 增派하는 등 自發的인 支援에 앞장 섰습니다. 그렇지만 赤化統一의 野望을 달성하기 위하여 高度의 戰爭준비를 갖추고 南侵의 好機를 노리고 있는 北傀와 指呼之間에 對陣하고 있는 現實에서 幾萬의 兵力을 海外 멀리 파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好餌를 던져주는 契機가 될지도 모른다는 杞憂에서 덜어 놓고 反對하는 一部の 偏見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好事家流들의 甲論乙駁을 무릅쓰고 派兵을 단행한 것은 이웃집 越南의 火災를 坐視할 수 없다는 우리의 道義感에서 발벗고 나섰을 뿐 아니라 共產徒黨들과의 遊擊戰에서 一面 싸우면서 一面 戰技를 鍊磨하는 것은 一旦 有事時에 對應하기 위한 國軍의 實戰經驗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遠大한 眼目에서 取하여진 英斷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大義名分과 아울러 實戰技倆을 익히고자 國防史上 처음으로 파월된 우리 國軍은 初期의 緒戰을 果敢하게 전개함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我軍과의 接觸을 意圖적으로 忌避하게끔 戰況을 유리하게 轉換시켰습니다. 더군다나 外國에서 처음으로 陸海空軍 및 海兵隊를 統合한 指揮體制를 갖추고 作戰을 成功的으로 수행한 것은 實로 刮目할 功績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國軍이 強靱한 精神力과 勇猛스러운 鬪志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戰略戰術의 技倆에 있어서 우수한 資質을 갖추고 있음을 實證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 國軍의 發展史上 매우 貴重한 一面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回顧하건대 友邦軍과 똑 같은 裝備를 가진 同數의 우리 國軍이 越南땅의 征戰에 從事하였더라면 그 戰果가 과연 어떠하였으랴 하는 것을 類推할 때에 萬感이 交至하는 것이며, 우리 國軍이 진실로 잘 싸웠는데에 아무런 異論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緒戰의 裝飾은 그 以後에 있는 數많은 戰鬪를 勝利로 이끈 出發點이 되

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더욱 公正한 史筆이 加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初期의 活動을 엮어 이미 發刊된 派越韓國軍戰史 제 1, 제 2 권은 史實記錄에 未洽한 부분이 許多할 뿐만 아니라 公開될 수 없는 恥部를 無批判하게 드러내는 한편 심지어는 事實을 歪曲한 記錄이 있는 등 빛나는 功勳을 오히려 冒瀆한 대목이 點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輿論도 적지 않고 또한 編史者로서의 良識이 許諾하지 않으므로 우리 靑島한국군의 찬란한 殊勳과 業績을 精確하고 昭詳하게 分析 評價한 正史를 後世에 길이 남긴다는 使命感에서 이미 發刊된 제 1, 제 2 권을 廢棄하고 改訂版을 내기로 決定된 바 있어서 여기에 먼저 제 1 권의 上卷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改訂版을 펴 냄에 있어서 舊卷에서는 全혀 着想하지 못한 제 1, 제 2 次 先發隊 및 연락장교단의 활동과 韓國군사원조단이 派越하기 까지의 過程과 그 以後의 活動相, 그리고 누락된 채로 빛을 보지 못한 主要戰鬪 몇가지를 多角的인 側面에서 考察하여 收錄하게 된 것은 改訂版을 내게된 뜻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으로 自負하는 바입니다.

元來 編史에 있어서 史實을 보는 限目的 定立이 매우 重要할 뿐 아니라 恒時 客觀的 敎理를 發掘하는데 史筆의 力點을 두어야 함은 再言을 必要치 아니합니다. 그러한 見地에서 당시의 數 많은 公式記錄과 參戰者들의 證言을 通하여 가장 信憑性 있고 品位 높은 正史를 編纂하고자 休日의 延長勤務와 平日의 自宅執筆을 例事로한 編纂委員 各位의 勞苦에 대하여 다시 한번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1978년 9월 25일

國防部 戰史 編纂 委員會

委員長 李 焜 錫



# 凡 例

1. 이 제 1권(上)은 이미 발간된 제 1권의 改訂版으로서 64년 9월 22일 韓國군사원조단이 越南에 첫 발을 디운 以後부터 66년 3월 31일까지의 大小작전과 支援부대 및 心理戰활동을 수록하였다.

2. 본권의 體制와 순서는 총괄적인 概說에 이어, 章, 節로 구분하고 節 이하는 「공문서 분항 표기법」에 따라 作戰일시와 建制부대 순위로 기술하였다.

例, 節—1.2.3.4.

項—가. 나. 다. 라.

目—(1).(2).(3).(4).

款—(가).(나).(다).(라)

그以下—1, 2, 3, 4

ㄱ, ㄴ, ㄷ, ㄹ

3. 작전과 전투의 명칭은 그 규모를 근거로 2개대대 以上の 전투는 作戰으로, 1개대대(+) 以下는 戰鬪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作戰과 戰鬪名에는 「』」를, 작전명령과 지시에는 『』를, 첩보와 口述에는 「』」를 표시하였다.

4. 文章은 한글을 위주로 使用하되 讀者의 이해를 쉽게하고 착각이나 誤讀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漢字와 外國語를 적절히 驅使하였으며 그 混用의 구분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定하였다.

가. 概說과 章 및 節까지의 제목은 漢字로 기술하고 固有名詞인 國名(越南, 越盟, 例外) 人名, 地名, 兵器名 등은 原語에 充實하기 위하여 英字 또는 越南語로 표기하였다.

나. 固有명사에 있어서 國名과 특정한 固有原名(部隊명칭, 作戰명칭 등)은 大文字로 하고 人名, 地名, 河川名, 溪谷名 등은 첫字만을 제외하고 小文字로 표기하였다.

例, 國名	CAMBODIA	
特定固有名	AMERICAL 사단	TOAN THANG 작전
兵器名	M16	
人名	Collins	
地名	Saigon	
山名	Hon Ba	
江名	Song Da Rang	
溪谷名	Suoi Cai	

다. 그러나 固有명사 표현에 있어서 二重語로 표현하기 쉬운 山名, 河川名은 ( ) 안에 漢字로 그 뜻을 밝히되 그 뜻을 포함하지 않은 명사에는 山 또는 江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혼동하기 쉬운 外國語 또는 용어에는 ( ) 안에 그 뜻을 명백히 밝히거나 완전한 單語를 사용하였다.

例, Hon Mot (山)……………Hon 또는 Nui 는 越南語의 山을 뜻함.

Da Chong 山

Song Hoi An (江)……Song 또는 Soui 는 越南語의 河川을 뜻함.

Dong Bo 江

특공대(Sapper)

작전지역(AO)

라. 그밖에 地理, 地形, 方向 등을 지칭하는 名詞(例, 省, 市, 郡, 邑面, 半島, 高地, 高原, 道路, 橋梁, 河川, 東, 西, 南, 北등)와 一般的인 어휘 가운데에서 한글로서는 얼른 그 뜻을 알기 어려운 單語(例, 我軍, 友軍, 敵軍, 舊正, 四方, 四周등)는 漢字로 統一하여 기술하였다.

5. 文章의 難解性을 피하고 發音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널리 알려진 普遍化된 外來語는 한글로 기술하되 “ ”를 표시하였다.

例, “부비트랩” “크레모어” “헬리콥터” “정글” “로켓트”등

6. 我軍 및 敵軍의 제급과 성명은 당시의 제급을 기술하되 我軍은 이름(漢字)을 먼저 쓰고 다음에 제급을, 敵軍은 제급을 먼저 쓰고 다음에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例, 我軍——朴敏鍾 대위

敵軍——소위 Nguyen Van Thanh

7. 度, 畝, 衡의 단위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거리, 길이——m, mile. 넓이——km<sup>2</sup>, 무게——kg, ton, L/B. 너비, 길이(합치것)——B/F.

8. 綜合戰果 및 損失란에 있어서 上은 장교, 下는 사병으로 구분하였다. (例,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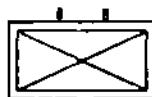
9. 時間표시는 4단위 (例, 08.10)로 표시하되 8時 10分으로 읽는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베트남은 VC로 기술하되 베트남으로 읽는 것을 前提로 하였고 高地는 △로 표시하되 (例, △173) 173高地로 읽는것을 前提로 하여 기술하였다.

10. 부대(+) 부대(-)의 (+)는 增強된 부대를, (-)는 減少된 부대를 표시한것이며, 마을(1)(2)와 통제선 (1)(2)와 목표의 “1” “가”는 그 (1) “가”까지 읽는것을 전제로 기술하였다.

11.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 하여 본문안에 삽입하고 要圖는 色版으로 하여 별책으로 收錄하였고 狀況圖의 표시에 있어서 我軍은 黑線, 敵軍은 複線으로 구분하였다.

例, 我軍은 →

敵軍은 ⇨



12. 파쉴 韓國軍의 指揮官 사진은 作戰을 계획 또는 統制지휘한 당시의 指揮官만을 수록하였다.

13. 本 戰史는 파쉴 韓國軍 각 부대에서 보내온 각종 통계, 보고 및 戰史자료와 越南戰에 참전한 귀국장병의 面談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술하였으며 그밖에 韓·美·越 기타 나라에서 발간된 新聞, 雜誌, 文獻 기타 간행물을 광범위하게 引用하였다.

# 派越 韓國軍戰史 第1卷(上) 目次

序文 國防部長官 盧載鉉  
發刊辭 戰史編纂委員會委員長 李炯錫  
凡例

## 概 說

1. 國際情勢와 ASIA의 諸問題 .....( 21 )
2. 越南戰의 要因과 그 背景 .....( 31 )
3. 各國의 支援政策 .....( 35 )
4. 聯合軍의 參戰 .....( 44 )

## 第1章 一般 戰況

1. 越南의 地勢와 氣候.....( 51 )
2. 敵의 動向 .....( 55 )
3. VC의 實態.....( 60 )
4. USA의 越南戰介入과 初期戰略.....( 69 )
5. 越南軍의 現況 .....( 77 )
6. 友邦軍의 參戰과 主要作戰.....( 82 )

## 第2章 韓國軍의 派越經緯

1. 越南政府의 支援要請과 派兵經緯.....( 89 )
2. 國軍派越의 歷史的意義 .....(110)

## 第3章 先發隊 및 連絡將校團의 活動

- 要 旨.....(115)

1. 編成 및 參加者	(116)
2. 任務 및 活動	(116)

## 第4章 韓國軍事援助團의 活動

要 旨	(189)
1. 統制部隊 및 隸屬部隊 指揮官	(190)
2. 編成 및 任務	(190)
3. 部隊活動	(203)

## 第5章 派越 韓國軍司令部의 創設

要 旨	(257)
1. 編成 및 單位部隊 指揮官	(258)
2. 作戰指揮權	(259)
3. 作戰概念	(261)

## 第6章 第1作戰期

要 旨	(273)
1. Phung Son 戰鬪	(274)
2. Nui Ca Du(山) 戰鬪	(280)
3. 靑龍 언개 1號 戰鬪	(291)
4. Luc Le 戰鬪	(305)
5. Binh Lam 戰鬪	(316)
6. Kien Thanh 戰鬪	(321)
7. Qui Nhon半島 探索戰	(332)
8. 秋收 保護戰	(341)
9. Phu Lac 戰鬪	(354)

## 第7章 第2作戰期

要 旨	(369)
-----	-------

1. Luat Chanh 戰鬪	(370)
2. 셋별 3號 戰鬪	(378)
3. 青龍 1號 作戰	(384)
4. 前進 1, 2, 3號 戰鬪	(421)
5. 飛虎 1號 戰鬪	(455)
6. 飛虎 2號 戰鬪	(471)
7. 飛虎 3號 戰鬪	(488)
8. 飛虎 5號 作戰	(496)
9. 飛虎 6號 戰鬪	(501)
10. But 溪谷 奇襲戰	(550)
11. 在求 1號 戰鬪	(555)
12. 青龍 2號 作戰	(560)
13. 在求 2號 戰鬪	(589)
14. 花郎 2號 戰鬪	(652)
15. Nam Tang 奇襲戰	(668)
16. 번개 66—3號 作戰	(676)
17. Nui Hoc Khe(山) 埋伏戰	(707)
18. Hoa Son (3) 戰鬪	(712)
19. 猛虎 5號 作戰	(719)

## 第 8 章 軍需支援司令部的 活動

要 旨	(801)
1. 部隊編成 및 單位部隊 指揮官	(802)
2. 各 機能別의 支援活動	(806)
3. 其他 部隊活動	(822)

## 第 9 章 海軍輸送團隊의 活動

1. 參加艦艇 및 主要指揮官	(847)
2. 越南沿岸의 主要地誌	(847)
3. 敵의 動向과 聯合軍의 活動	(849)

4. 輸送團隊의 全般的인 概況 .....(851)
5. 海上 輸送作戰의 概況 .....(854)

## 第10章 心理戰

- 要 旨 .....(865)
1. 敵의 心理戰 樣相 .....(866)
  2. 聯合軍의 心理戰概況 .....(868)
  3. 韓國軍의 心理戰活動 .....(871)

## 附 錄 吳 附 表

### 附 錄

#### 作戰命令 및 演說文·外交文書

1. 作戰命令.....(887)
2. 大統領 談話文 .....(891)
3. 韓·美 軍事實務 約定書.....(892)
4. 부러운覺書.....(897)
5. 越盟의 平和4條件 .....(899)
6. 南 VIET NAM 解放戰線 綱領.....(899)
7. 解放戰線 5原則.....(900)
8. 越南 軍事停戰 協定文.....(900)

### 附 表

1. 職位表.....(909)
2. 殊勳者 名單 .....(913)
3. 戰死者 名單 .....(917)
4. 年 表.....(924)
5. 人名索引.....(927)

# 概 說

1. 國際情勢와 ASIA의 諸問題
2. 越南戰의 要因과 그 背景
3. 各國의 支援政策
4. 聯合軍의 參戰





## 概 說

### 1. 國際情勢와 ASIA의 諸問題

62년 10월의 CUBA 危機를 고비로 平和共存의 不可避함을 共認한 美·蘇 兩國은 다음해에 Moscow에서 歷史的인 核禁止협정을 締結함으로써 戰後 처음으로 東西관계를 核戰爭의 危機로부터 한걸음 緩和된 이른바 武裝平和의 段階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非戰爭상태를 背景으로 그동안 助成되어온 東西진영의 內部的 葛藤이 차츰 露呈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到處에서 龜裂을 나타내었으니 그 좋은 예가 西方진영에서의 De Gaulle의 反撥과 共產世界에서의 中·蘇대립이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兩陣營에서 똑같이 自體內部的 波動이 거칠게 휘몰아치고 있을때 63년 6월5일 Kennedy 美大統領의 暗殺과 64년 10월 Khrushchev의 失脚이 豫期치 않게 벌어지자 이른바 KK時代의 終末과 더불어 兩陣營은 제각기 內部整備과 再編成의 陣痛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因하여 끈덕지게 持續된 冷戰은 比較的 小康상태를 維持하는듯이 보였다.

그러나 印支半島에 있어서 Ngo Dinh Diem 政權이 무너진 以來로 混迷를 거듭하던 越南 政세가 2次에 걸쳐 惹起된 Ton Kin 灣事件으로 急激하게 事態변화를 일으키자 越南戰은 마침내 本格化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越南共和國에 대한 自由友邦의 支援이 적극적으로 推進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美·蘇·中共은 제각기 立場을 달리한 錯雜미묘한 三角관계의 反應을 보이면서 越南戰에 對處하고 있었으므로 東西間에 모처럼 무르익으려던 小康상태는 또다시 그 이상의 險惡한 사태로 돌변할 可能性을 孕胎한 가운데 全世界의 耳目은 이에 집중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64 및 65年度에 걸쳐 世界情勢변화에 直接간접으로 連繼관계를 보인 主要各國의 動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K** : 64년 10월 15일에 있는 總選舉에서 13년만에 Wilson이 이끄는 勞動黨이 勝利하였다는 점에서 內外的으로 큰 衝擊을 주었다. 그러나 議席數에 있어서 겨우 4席을 더 차지한 僅少한 差로 辛勝하였기 때문에 Wilson 內閣의 壽命은 길지 못할 것이라는 疑問을 던져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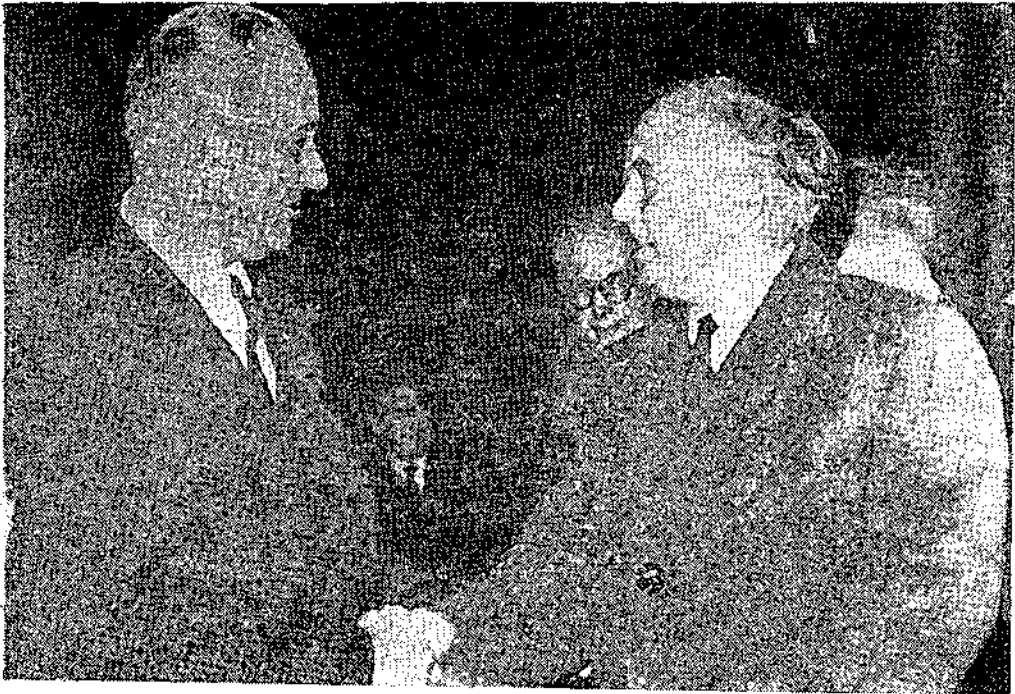
는 가운데 複雜하고도 미묘한 많은 懸案문제를 짊어지고 出帆하였다.

즉, 對內문제에 있어서 가장 核心은 經濟정책이며 그중에서도 國際收支의 엄청난 赤字를 메꾸어야 하고 또한 國際通貨기금의 긴급借款과 輸入제한조치를 講究하여야 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黨內에 도사리고 있는 左派의 動向에 對處하는 문제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對外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國際관계의 再調整과 새로운 秩序형성에 焦點을 두고 外交 활동을 展開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國內 經濟정책의 成功이 關鍵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實相 Willson內閣은 出帆하자마자 外相을 USA에 파견하여 大西洋同盟의 단결을 다짐하였으며 또한 12월初에는 首相自身이 직접 訪美하여 Johnson 大統領과 多邊의 核戰力에 關하여 折衝하였으며 다음해 4월 15일에 또다시 訪美하여 越南문제를 協議하는 등 적극적인 活動에 나섰다.

한편 USSR의 새로운 執權者들도 Willson 政權에 接近하고자 65年初에 Kosygin 首相이 訪英한데 答禮하여 Willson 首相은 Moscow를 訪問하여 兩國의 首腦회담을 벌이는 등 活潑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中·蘇대립의 緩和가 거의 無望한 이 시기에 實現된 이 會談은 그나



Johnson 美大統領을 방문한 Willson 英首相(우)

름대로 國際정세의 進展에 적지않은 影響力을 미친 것으로 불이되었다.

**FRANCE** : 56년이래 NATO를 不信하고 그 閣僚理事會를 一蹴하며 NATO는 우리의 主權과 利益에 반대된다고 辛辣한 拒否論을 펴기시작한 De Gaulle은 既存 世界질서에 不信을 표시하고 EUROPE의 第3勢力化를 표방함으로써 FRANCE의 國際의지위를 浮上시키는데 새로운 轉機를 가져왔다.

비록 初期단계이기는 하나 65년도에 人工衛星발사에 成功함으로써 世界에서 세번째의 宇宙國으로 跳躍한 事實을 놀라운 國力の 伸張에 결부시켜 생각한 그는 이른바 FRANCE의 榮光회복에 自信을 가진듯 獨自의인 核軍事力과 防衛체제의 創設을 基本理念으로 내세우면서 西方同盟의 테두리 안으로부터 果敢하게 벗어나 自主의인 利益을 追求하는데 全力投球하였다.

따라서 그는 中共을 승인하고 USSR과의 交易을 增進시키는 등 從來의 西方세계가 志向하던 路線을 意圖的으로 박차고 USA가 NATO 強化의 一環으로 추진하는 多邊核軍 創設 계획을 正面으로 반대하는 한편 WEST GERMANY와 穀物價格문제로 대립되자 EEC脫退를 不辭한다는 威脅까지 서슴치않는 強硬한 自主路線을 지향하였다.

그러자 同年 12월 13일에 열린 NATO閣僚理事會는 집단安全保障主義와 國家主義와의 대립을 솔직하게 露呈함으로써 NATO는 그야말로 崩壞의 危機에 直面하였다. 또한 De Gaulle은 農業基金문제에 대한 반대를 口實로 삼아 5개국과 맞서오다가 끝내 理事會에서 철수함으로써 EEC마저 같은 運命의 危機를 맞이하는 등 그의 旋風은 이르는 곳마다 즐기차게 휘몰아쳤다.

더군다나 다음해 1월 8일 尙後 7년간의 大統領職에 就任한 그는 2월 21일에 가진 記者회견을 통하여 말하기를 『EUROPE에 대한 USA의 支配權을 拒否하며 NATO 條約기구의 滿了期日인 1969년 4월 4일까지 USA軍이 FRANCE에서 물러가든지 FRANCE의 指揮權아래 들어오든지 擇一하라』는 爆彈宣言을 함으로써 NATO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存亡의 岐路에 서게되었다.

아름은 民族의 獨自性을 찾아 FRANCE의 榮光을 再現시키려는 De Gaulle의 旋風은 第3勢力의 基調를 형성함과 아울러 多元의인 國際질서 改編에 一大轉機를 가져온것마는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고 볼 때 尙後의 進전이 크게 注目되지 않을 수 없었다.

**WEST GERMANY** : Rhein강의 奇蹟을 誇示하며 세계제 2의 貿易국가로서 繁榮一途를 치달고 있던 WEST GERMANY는 차츰 景氣가 후퇴하면서 物價高와 Inflation 傾向을 나타

내어 豫算面에서 이해에 468億 Mark의 赤字를 보이자 다음해부터는 건축財政을 強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需要억제를 목표로한 金融긴축은 投資억제의 副作用을 물고 왔기때문에 生産증가를 阻害하여 價格昂騰을 초래함으로써 戰後의 經濟復興에 神話的존재로 浮刻되었던 Erhard Ludwig 首相의 名聲은 차츰 退潮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同年 9월 19일에 실시한 總選舉에서 그런대로 再執權한 同首相은 大西洋主義者로서 일찌기 多邊의 核軍力을 主張하였을뿐 아니라 美·英을 중심으로한 西歐諸國의 結束을 摸索함으로써 「大西洋에서 Ural까지」를 提唱하는 De Gaulle의 EUROPE 第1主義에 正面으로 맞섰다.

그는 自國의 安全保障을 FRANCE보다는 USA의 核力에 依存하는 것을 훨씬 마음 든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主張을 되풀이 強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De Gaulle 大統領은 WEST GERMANY가 그에게 맞서 美·英路線을 支持하는 태도를 보이자 마치 報復하듯이 WEST GERMANY에서 輸入하는 農産物가격을 引下하라고 強要하였으나 200萬農民으로부터 많은 支持를 얻은 Erhard首相으로서는 선뜻 이에 應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와같은 立場을 看破한 De Gaulle은 더욱 壓力을 加하여 만약 年內에 이에 不應하면 歐洲共同市場은 불문이고 歐洲통합에서도 離脫하겠다고 위협하였다.

WEST GERMANY는 Berlin 문제와 統獨문제 등 複雜한 문제가 있으므로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USA와 提携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經濟的으로 歐洲共同市場을 無視하는 繁榮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FRANCE와 등 질수 없는 難處한 立場에 있었다.

어제든 Erhard Ludwig는 FRANCE와 美·英과의 틈마구니에 끼어 이를 어떻게 調整하며 打開할 것인가가 문제였으며 이에 못지않는 또하나의 重要課題는 Neo Nazi黨인 國家民主黨이 차츰 政界의 그늘에서 浮上하기 시작하였다는 새로운 傾向이었다.

즉, 지난 9월 19일의 聯邦總선거에서 不過 2%의 支持밖에 얻지 못하였던 것이 11월 6일의 州選舉에서 69席 가운데 8席을 얻어 갑작스럽게 政界에 발돋움 하기 시작한것이다.

元來 GERMANY 문제에 대한 外勢干涉의 排除와 새로운 軍總司令部의 設치를 主要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黨의 勢力이 두드러지게 伸張되고 있는 새로운 傾向은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WEST GERMANY의 將來를 내다볼 때 매우 念慮스러운 現像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AFRICA 지역** : 검은 大陸으로 알려진 AFRICA도 東西관계의 거센 입김에 影響을 받은듯 政變의 소용돌이가 거칠게 휘몰아쳤다. 그중에서도 世界의 耳目을 집중시킨것은 CONGO 共和國의 “쿠데타”와 RHODESIA의 一方的 獨立선언이었다.

즉, CONGO 共和國의 육군사령관 Mobutu Joseph 中將은 65년 11월 25일에 電擊적으로 無血 “쿠데타”를 일으켜 Casabubu 大統領과 Kimba 首相을 追放한 다음, Mobutu 自身이 집권하여 心腹인 Mulnamba 大領을 首相으로 한 舉國內閣을 수립하였다.

이 “쿠데타”의 遠近因은 한마디로 Casabubu 大統領과 臨時首相이었던 Chompbe 와의 오랜 權力다툼에 있었다. 즉 Casabubu 大統領은 反目관계에 있던 Chompbe 臨時首相을 해임하고 Kimba 를 首相으로한 內閣을 수립하였으나 Chompbe 派가 多數 차지하고 있는 議會에서 새 內閣에 대한 信任을 얻는데 실패하자 그는 다시 Kimba 에게 組閣을 위임하고 議會의 信任을 강제로 獲得하려고 기도하였다.

이와같이 兩派의 權力鬭爭이 극도에 達하자 Mobutu 中將은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自身이 執權한 다음, Casabubu 前大統領과 Chompbe 前臨時首相을 제거한 兩派의 指導級人士들을 끌고루 登用한 舉國內閣을 組織하는데 성공하였다.

새로 執權한 Mobutu 大統領이나 Mulnamba 首相은 다른 AFRICA 國家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強硬한 反共主義者이므로 USSR은 前例없이 CONGO의 新政權을 支持하는 한편, 中共도 또한 Mobutu를 非難하는데 화살을 집중하였다.

Mobutu는 執權하자마자 RHODESIA의 白人政權에 대한 石油禁輸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에 맞서기 위한 AFRICA 團結機構인 OAU軍에 CONGO軍을 配置할 用意이 있다고 發表하는 등 젊은 大統領으로서 汎 AFRICA的인 印象을 새롭게 浮刻시키는데 力走하였으나 政界의 複雜한 事情에 비추어 보아 그의 앞날이 순탄스럽다고 樂觀할 수만은 없었다.

한편 같은해 11월 11일에 RHODESIA 首相인 Smith lan 이 UK 政府의 意圖를 無視하고 一方的으로 獨立을 宣言함으로써 AFRICA 大陸에서 前例가 없는 일을 敢行하였다.

아무리 獨立抗爭을 벌인 被壓迫민족이라 할지라도 獨立할 때에는 舊 宗主國과의 合意下에 獨立을 宣布하는 것이 常例인데 RHODESIA 의 경우에는 UK 와의 合意도 없었을뿐 아니라 雙方間에 있었던 協商이 決裂된 가운데 一方的으로 獨立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法律上으로 본다면 11월 11일 이후 Smith lan 은 이미 RHODESIA의 首相이 아닐 뿐더러 이 나라에는 UK의 主權을 대표하는 Gibus 總督 以外에 合法的인 政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解釋할 수 있다.

元來 이 나라는 政治的으로 黑白의 差가 甚한데다가 61년에 制定공포한 憲法에 依하면 白人이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있는 酉長등 極少數의 AFRICA人만이 參政權을 갖고 있으므로 政治는 모두 白人이 支配하고 있었다.

UK의 勞動黨정부는 이 憲法을 AFRICA人의 參政權을 擴大하는 方向으로 改正하고 싶어 하나 이와는 달리 白人政權은 그들의 支配를 永久化하는 方向으로 修正하고 싶어하였다. 그런가하면 AFRICA人들로서는 根本的으로 1人 1票의 參政權을 부여하는 憲法으로 改正하려 하므로 만약에 그들의 意向대로 된다면 이 나라에 대한 支配權을 喪失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念慮한 UK는 AFRICA人을 說得하여서라도 現행憲法을 擁護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었다.

그러나 AFRICA人들이 이를 拒否하였기 때문에 白人政權은 UK를 排除한채 一方的으로 獨立을 宣稱하고만 結果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事態가 벌어지자 UK는 白人政權을 억압하기 위하여 軍警에 대한 援助를 斷絶하는 등 制裁를 加하는 한편, 다른 AFRICA諸國도 이 政權을 타도하고자 온갖 壓力을 넣었던 것이다.

아랍은 RHODESIA 政權의 出現은 검은 大陸에 있어서 하나의 病的인 존재이며 이로 말미암아 언제 動亂으로 번질지 모르는 不安스러운 狀況에 있었다.

USA : 65년 11월 3일에 실시한 大統領선거에서 壓勝한 Johnson 大統領은 안팎으로 複雜多端한 문제들을 안고 白廳館의 主人이 되었다. 그가 짊어진 宿題 가운데 가장 重大문제는 核싯발을 갖게된 中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한 더 이상 버려둘 수 없는 越南戰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그리고 NATO를 비롯한 西方세계의 防波堤가 이제 USA의 領導에 따르지 않고 遠心運動을 전개하고 있는만큼 이를 再調整하여야 하는 문제등 頭痛꺼리가 山積하고 있었다.

특히 10월中旬에 連鎖的으로 일어난 세가지의 激變 卽, Khrushchev의 失脚과 中共의 核實驗 성공, 그리고 UK 勞動黨의 執權등은 USA의 對中共정책을 매우 複雜하게 만들었다.

中共의 核保有가 곧 USA에 대한 威脅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隣接국가에 미치는 政治的 心理的 影響을 無視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USA가 가장 警戒하는 것은 中共과 USSR이 그들에 대한 하나의 敵對的인 核勢力으로 甦지는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Khrushchev 失脚 이후의 事態진전으로 볼 때 中·蘇의 대립이 쉽사리 好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보다도 Washington의 外交關係者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中共과

國府에 관한 美·英·佛의 意見이 調整되지 못하고 있는 點이었다.

아름은 Johnson 行政府는 Khrushchev의 失脚뒤에 등장한 Kremlin의 새 權力層의 동향에 비상한 關心을 토으면서 앞으로는 從來의 對蘇정책을 修正하지 않고 계속 접근하여 自己편에 끌어들여 中共을 더욱더 孤立시켜 세계로부터 封鎖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밖에 또하나의 當面문제는 NATO 國家間의 混線과 越南戰의 惡化를 들 수 있는데 과거 USA는 NATO 強化의 一案으로 多邊核軍의 創設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De Gaulle의 反對와 이 계획을 좀더 신중히 추진하자는 UK 정부의 制動에 걸려 遲延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Johnson 行政府에 있어서 問題中의 문제는 越南戰의 處理였었다. 國內外的으로 미묘한 政治力學의 活舞臺가 되고있는 越南戰의 解決을 위하여 USA가 擇할 수 있는 方途는 戰爭 확대이나 協商이나 아니면 現狀을 유지하느냐의 三者이다.

따라서 이때까지 和戰 兩面정책을 펴면서 和를 위하여 戰을 斷行하였으나 越盟이 내건 協商조건이 너무나 距離가 멀기 때문에 軍事的 壓力을 加重시켜 왔던 것이다. 믿을만한 消息通에 依하면 USA는 年內에 20萬名線에 가까운 兵力을 投入할 것이라고 傳하여지는 가운데 전투는 漸進的으로 激化一路를 더듬어갔다.

USSR : 64년 10월 16일에 발표된 Khrushchev의 失脚은 全世界에 충격을 주었으나 그 原因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Kremlin의 새 執權者들은 그를 왜 몰아냈는지를 充分히 說明하지 않으면서도 出帆하자마자 對內外정책의 基本방향에 큰 變化가 없음을 누차 강조하였다.

즉, 對外的으로 東西의 平和공존을 새삼 다짐하고 對內的으로는 集團指導의 강조와 共產 deologic의 重視 그리고 政策의 科學的인 검토등에 重點을 둘 것을 明白히 하였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Khrushchev가 失脚된 主要이유중의 하나로 看做되는 中共과의 대립이 多少 緩和되었다고는 하나 根本的으로 解消되었다고 할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點이었다.

中共이 人民報와 紅旗를 통하여 Khrushchev의 罪相을 폭로하면서 Kremlin의 새 執權者들에게 Khrushchev 路線을 速히 清算하라고 強硬히 요구하는 등 새로운 挑戰을 試圖하였으나 Brezhnev와 Kosygin 등 새 權力者들은 中共에 대한 새로운 政策을 아직 確立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東歐의 各共產국가와 各國의 共產黨이 Khrushchev의 退陣에 動搖를 보이

자 이들과 一連의 會談을 통하여 그들의 對外정책에 큰 變動이 없음을 누누히 說明하고 이들을 安心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USSR은 USA나 中共과는 달리 東南亞 諸國의 中立化와 同지역에서의 美·中 兩大 勢力의 弱화 그리고 親 USSR을 목적으로한 그들 中心의 基盤을 굳히는데 重點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65年初 Moscow에 南 VETNAM 民族解放戰線 대표부의 설치를 許容하는가 하면 2월에는 Kosygin 首相이 越盟을 방문하고 會談을 갖는등 密接한 關係를 表面化하면서 이들을 支援할 것을 明白히 하였다.

한편 對內정책에 있어서 企業의 利潤追求와 軍費감축 등 대담한 經濟정책을 펴는데 重重要하므로써 Khrushchev 以前의 施策을 뒤엎는 것같은 印象을 풍겼으나 그러나 Bolshreviki 革命 이후 50년에 가까운 共產체제가 이미 土着化된 現승에 있어서 Stalin 時代의 還元은 不可能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Kremlin의 主人은 바뀌어도 Khrushchev가 追求한 對內外정책에 큰 變動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中共 : 64년 10월 16일에 있는 제 1 차 核實驗의 성공으로 國際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中共은 美·蘇 兩陣營에 대하여 漸進적으로 제 3 勢力으로서의 影響力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Hanoi를 방문하여 Ho Chi Minh의 歡迎을 받는 劉少奇



그뿐만 아니라 UN에 대하여 中共의 合法的權利가 회복되고 國府를 逐出하기 까지에는 UN 및 UN과 關聯된 어떤 會議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氣焰을 吐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USA의 侵略을 기다리고 있으며 帝國主義의 侵略을 反擊粉碎하기 위하여 中共에 대한 직접侵略을 歡迎한다는 등 극히 挑戰的인 言辭를 내뱉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當面된 심각한 問題는 中·蘇 및 中·印 國境문제이며 저니와 특히 中·蘇 국경 분쟁은 언제 武力충돌로 擴大될지 모르는 艱박한 狀況에 있었다.

中共의 核裝備가 재대로 갖추어지면 그들은 USA에 대해서보다도 먼저 中·蘇 국경을 넘을지도 모를만큼 USSR에 대한 敵對意識이 強하며 이로 말미암아 Moscow와 北平間에는 사늘한 冷氣가 감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中共은 USSR에 대한 鬭爭을 公公然히 表面化하여 所謂 美帝의 압력으로 부터 世界人民을 보호하기를 躊躇하는 修正主義者들과 끝까지 싸울것을 闡明하고 USSR의 對西方정책에 대하여 帝國主義가 존재하는限 武器와 전쟁없는 世界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런데 中共은 그당시 몇가지의 失敗로 크게 體面을 깎아었는데 그 하나가 INDONESIA에서 65년 9월 30일에 있는 共產 “쿠데타”의 失敗였다. 이에 따라 中共은 그 報復으로 INDONESIA에 대한 援助와 通商을 단절하고 70%의 工程을 마친 紡織工場건설의 원조를 중지하는 한편 그들의 技術者를 철수시켰다.

또한 亞阿諸國이 INDIA와 PAKISTAN間에 벌어진 紛爭時에 中共이 取한 好戰的인 태도에 反感을 가지고 그 이후 冷淡한 反應을 보이자 이해 11월에 ALGERIE에서 開催 예정이던 제 2차 亞阿會議를 연기하였다.

한편 中共은 東南亞에 대하여 USSR의 影響力을 막는데 안간힘을 쓰는 한편 그들의 政治的 經濟的 지위를 確保하는 동시에 USA와 투쟁하는 共產國家의 支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즉 64년 4월부터 5월사이에 劉少奇가 越盟과 北傀를 방문하고 中·蘇紛爭에 있어서 自己들에 대한 支持를 강화하면서 對美투쟁을 위한 軍事지원을 確約하는 한편 THAILAND의 所謂 民族解放軍에 대한 支援마저 公公然히 선언하였다.

이와같이 中共은 左衝右突格으로 世界도처에서 紛爭의 씨를 뿌렸는데 이러한 태도는 당분간 그대로 계속할 것으로 展望되었다.

**INDIA** : 人口 4億 5千萬을 거느린 이 나라의 首相 Nehru가 64년 5월 27일에 死亡한것은 INDIA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衝擊을 준 슬픔이었다.

Radhak와 Himalaya의 紛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宿命的 痼疾인 貧困을 解決하지 못한채 그는 가버렸다.

中立外交를 指向하는 가운데 Washington과 Moscow를 똑같이 드나들면서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보잘것없는 INDIA가 世界문제에 큰 影響力을 휘두르도록 이끈것이 바로 Nehru였으며 그러하였기 때문에 New Delhi의 길은 USSR이 鋪裝하여주고 Ganges江의 Dam 工事は USA가 맡는등 表裏不同한 外交路線을 드러내었다.

Nehru의 死後 그 後繼者 선출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混線이 있었으나 結局에는 Shastri 無任所相이 首相으로 선출되어 INDIA를 이끌어 가게 되었으나 그 앞길은 險難한 것이었다.

**INDONESIA** : 65년 9월 30일에 있는 共產“쿠데타”는 이해에 世界여러곳에서 惹起된 事件中에서도 가장 耳目을 집중시킨 事件이었다 .

만약에 이 “쿠데타”가 成功하였더라면 이 나라의 赤化는 물론이고 東南亞 전체가 직접적인 共產위협에 直面하게 되었을 것이며 더군다나 越南에 있어서 VC의 勝利를 손쉽게 촉진시켰을지도 모른다.

多幸하게도 共產黨 PKI와 그 同調者 8萬 5千名은 陸軍과 回教徒들에게 殺害되고 黨首 Iditt도 被殺되었다는 風聞이 나돌았으나 確認되지 않았다.

그 이후 PKI의 “쿠데타”를 꺾은 軍部와 Sukarno 大統領間에 權力투쟁이 벌어지자 Sukarno는 Nasacom 體制의 堅持를 외치면서 軍部に 압력을 加하였으나 이 나라의 實權者는 事實上 Nasution 國防相이며 Sukarno는 다만 名目上의 國家元首에 不過하므로 그의 이러한 압력은 그다지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는듯이 보였다.

Nasution은 이미 Sumatra에 軍政을 펴고 Java를 陸軍의 安保통제하에 두는 동시에 Jakarta에 空挺隊를 진주시켜 全國을 軍支配下에 넣었다.

그러나 反面에 Sukarno는 아직도 Nasution을 副統領職에 올려놓으려는 軍部の 압력에 屈服하지 않고 건디었다.

그런데 9월 30일 事態이후의 對外정책을 보면 反帝, 反殖民地라는 基本路線에는 變化가 없으나 細部的으로 검토하여 보면 상당한 變質을 가져왔다.

한편, Sukarno는 꾸준히 北平과의 關係개선에 안간 힘을 썼으나 力不足으로 이렇다 할 成果를 거두지 못한듯이 보였으며 MALAYSIA와의 對決정책도 상당히 褪色하여 서로 協商을 통한 對話를 주고 받게끔 緩和된 氣味를 보였다.

또한 USA와의 關係도 많이 改善된 徵兆가 보였으며 이대로 가면 USA의 원조를 받게될

可能性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때 共產“쿠데타”의 失敗는 오로지 中共에게만 가장 뼈아픈 打擊을 준 셈이 되었다.

## 2. 越南戰의 要因과 그背景

### 가. 印支戰의 背景

印度支那半島는 제 2차 世界大戰의 終結과 더불어 새로운 紛爭의 씨를 孕胎한채 새 歷史의 幕을 열기 시작하였다.

즉, 45년 8월 15일 日本의 無條件항복으로 越南에서 Bao Dai 政權이 무너지고 政治의 空白期間이 생기게 되자 이 機會를 포착한 Ho Chi Minh(胡志明)은 그가 일찌기 反佛, 反日 獨立운동을 위하여 이끌어온 Viet Minh(越南獨立聯盟)을 機關으로 이해 9월에 Hanoi에서 越盟政權을 수립하였다.

한편, Potsdam 協定에 따라 日本軍에 대한 武裝해제를 목적으로 北緯 16°線을 境界로한 北쪽에는 中國軍(國府軍)이, 南쪽에는 UK軍이 각각 進駐하였다. 그러나 聯合軍은 該協定에 違背되기는 하였으나 越南에 대한 FRANCE의 統治權을 인정함으로써 다음해 1월에 FRANCE軍이 UK軍과 교체하여 南部越南에 進駐하였다.

그 이후 同國은 그들의 既得權을 주장함으로써 Haiphong 港에 上陸한 다음, 北部越南에 進駐한 中國軍과 협상끝에 越南全域을 그들의 植民地로 다시 掌握하게 되었다.

그런데 越盟에 이미 獨立을 宣言하고 合法정부임을 自處하는 Ho Chi Minh 政權이 하나의 障礙세력으로 남아있게 되자 FRANCE는 同政權에 압력을 加하여 武裝해제를 강행코자 하였으나 頑強하게 抵抗하므로 Ho Chi Minh과 協商끝에 Ton Kin과 An Nam 및 Cochine China를 分立시키고 여기에 LAOS와 CAMBODIA를 合친 印支聯邦을 成立시키자고 주장하였다.

反面에 Ho Chi Minh은 Ton Kin과 An Nam 및 Cochine China를 통합한 統一路線을 주장함으로써 雙方의 對립이 硬化되자 FRANCE는 Ho Chi Minh 政權과는 妥協하지 않겠다고 宣言하는 동시에 亡命中인 Bao Dai 皇帝를 擁立하고 나섰다.

이리하여 FRANCE와 Ho Chi Minh政權과의 關係가 극도로 惡化된 46년12월에 Haiphong

지역에서 越南人과 FRANCE 駐屯軍과의 衝突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導火線으로 불붙기 시작한 전투는 全國에 波及되어 마침내 그 이후 8년간에 걸친 淒絶한 印支戰이 계속되었다.

이와같이 印支半島에서 武裝충돌이 惹起되자 FRANCE는 이를 國際共產主義에 대한 反共戰이라고 선포하고 쏘지역에 걸친 전투를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는데 開戰초기에는 兵力 또는 裝備面에서 優勢하였으나 Cochine China의 再支配를 意圖的으로 强行함과 더불어 國民大衆에게 信望이 없는 Bao Dai를 皇帝로 擁立한 것이 非共產系인 民族主義 勢力의 支持를 받지 못한 主因으로 作用함으로써 作戰수행에 많은 困難을 겪게 되었다.

이와 反面에 Ho Chi Minh은 戰爭中에 共產主義의 本色을 위장하고 그들의 宣傳과 工作 활동을 保留하는 대신 傳統的인 民族主義를 내세우면서 民族主義者들과 中間 階層의 庶民대중에게 迎合되는 活動을 벌임으로써 이들을 自己들편에 끌어 들이는데 큰 成果를 거두었다.

거기다가 49년末 때 마침 中國大陸을 席捲한 毛澤東軍이 中·越 國境線에까지 진출하면서 越盟에 대한 援助를 제공하게 되자 이에 힘입은 Ho Chi Minh軍은 다음해 부터 FRANCE 軍에 대한 攻勢를 보다 強化할 수 있는 與件을 갖추게 됨으로써 그 압박은 더욱 加重되었다

이와같이 戰爭의 樣相이 급속하게 擴大되고 越盟에 대한 支援勢力으로서 中共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FRANCE軍이 弱勢에 물리게 되자 USA는 該軍에 대한 援助에 나섬으로써 마침내 FRANCE를 대신하여 南部越南에 대한 後見者의 立場에 서게 되었다.

이때 USA는 印支半島의 全域이 共產主義者들의 手中에 들어가는 것을 크게 憂慮한 나머지 現事態가 더 惡化되기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南部越南에 대한 직접간접의 經濟 및 軍事 援助를 제공함과 아울러 FRANCE軍에 대한 軍事援助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戰況이 날로 不利하게 進展되자 USA는 直接的인 軍事介入까지 고려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中共軍의 介入을 招來함으로써 世界大戰을 誘發하기 쉽다는 杞憂에서 UK가 이에 적극 반대하면서 Eerlin 4개국 外相會議時에 中共을 포함한 5개국과 그밖에 關係國을 포함하는 會議를 개최하는데 USA가 受諾하도록 說得끝에 마침내 東南亞문제에 관한 Geneva 會議를 가지게끔 되었다.

한편, 中國全域을 席捲한 뒤를 이어 越盟을 支援할 수 있는 餘力を 보임으로써 國際的 지위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中共은 越南에서의 FRANCE軍의 全面的인 降伏을 내세우는 越盟을 說得하여 FRANCE의 平和협상에 응하도록 慫慂하였다.

이무렵 中共의 支援으로 戰力を 증강한 越盟軍은 점차 戰局의 主導權을 잡고 FRANCE 軍을 壓迫함으로써 54년 3월 13일부터 北部 LAOS 國境 附近의 要衝인 Dien Bien Phu에

대한 全面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FRANCE軍이 不利한 狀況에서 苦戰하고 있을때 한편에서는 Geneva 會談이 열려 雙方間의 협상이 進行되고 있었다. 그러던중 바로 5월 7일에 FRANCE軍의 마지막 堡壘인 Dien Bien Phu에서 該軍이 大破되어 同要塞가 함락되자, 이를 契機로 7월 20일에 이른바 Geneva 協定이 調印됨으로써 8년간에 걸쳐 계속된 印支전쟁은 北緯 17°線을 軍事分界(DMZ)로 南北으로 兩斷되는 運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 나. 越南戰의 要因

54년 4월부터 Geneva에서 印支전쟁을 終結시키기 위한 會談이 進行되고 있는동안 Ho Chi Minh 政權은 FRANCE의 統治下에 있는 越南의 全지역을 赤化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러한 陰謀는 이해 7월 21일 Geneva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北緯 17°線을 境界로 FRANCE軍은 그 以南으로, 越盟軍은 그 以北으로 각각 철수할 때 은밀하게 行動化하였다.

즉, 越盟軍은 北部로 철수할 때 共產精髓분자 數千名을 秘密工作員으로 南部에 잔류시켰는데 이는 Ho Chi Minh 政權이 장차 實施하게 될 南北總선거에 대비하여 前衛의인 伏兵으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Hanoi 政權은 철수하는 越盟軍을 따라 北部로 이동한 南部人들에게 눈을 돌려 이들을 재 훈련시켜 계속 南部에 침투시키는 동시에 殘留한 秘密工作員들과 合流시켜 地下조직을 形成토록 하고 政治宣傳에 注力케 하는등 이들의 計劃의인 음모는 이미 이 當時부터 積極적이고도 廣範圍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들은 59년까지 地方組織網을 활용하여 反美, 反政府세력을 포섭한 다음, 이들과 統一전선을 形成하여 武力투쟁을 전개한 끝에 政權을 탈취한 然後에는 共產統一을 달성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 計劃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의 行動이 國際輿論에 迎合되도록 假裝하기 위하여 南部의 反美, 反政府활동은 마치 越盟과는 관계없이 南部越南人이 自發的으로 內部에서 일어난 正當한 활동이며 또한 이들은 共產黨 아닌 各界各層의 人士들로 聯合구성된 듯한 印象을 주는데 모든 宣傳수단을 動員하였다.

그리하여 60년 12월 20일에 「南部越南 民族解放戰線」을 結成하였을 때 선언하기를 「南部越南의 各界人民, 各階層, 各民族, 各黨派, 各團體, 宗教家, 著名人士들은 그 政治的인 傾

向 如何에 불구하고 서로 단결하여 美帝와 그 앞잡이 集團의 統治를 타도하며 獨立, 民主, 平和, 中立을 實現하고 祖國의 平和통일을 도모한다」라고 떠버렸다.

그러나 同解放전선은 其實 越盟勞動黨이 치밀한 計劃下에 主導한 것으로서 그 근거는 이 보다 3개월전인 9월중에 Hanoi에서 열린 제 3차 勞動黨대회에서 提起된 2개의 當面課題속에 越盟의 社會主義 革命달성과 아울러 越南解放이 명시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越盟 및 南部越南의 共產主義者들이 점차로 全國的인 地方조직망을 확대하고 있을 무렵, 이들 보다도 먼저 民主정부를 수립한 Ngo Dinh Diem이 反共을 통한 安保유지에 어느정도 實效를 거두는듯이 보였으나 時間이 흐를수록 獨裁的 族閥정치로 변질하여 彈壓정책을 強行함에 따라 反政府세력을 더욱 跋扈시키는 결과를 自招하였다.

이리하여 越盟이 南部에 잔류시킨 秘密工作員과 北部에서 南派된 再訓練요원을 주축으로 이에 野合한 民族세력과 不平분자들이 漸次 聯合세력으로 組織化되어 反정부 武裝蜂起를 통한 抵抗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反政府 抵抗운동은 마침내 全國的으로 波及되어 警察과 群衆이 武力충돌하는 非常事態에 이르렀을때 Duong Van Minh 소장이 主導한 軍事革命이 63년 11월 1일에 惹起됨으로써 Ngo Dinh Diem 政權은 무너지고 臨時정부가 樹立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不過 3개월을 넘기지 못한채 제 2차 軍事“쿠데타”가 일어난데 이어 계속 軍事“쿠데타”가 連發됨으로써 이 나라의 政局이 견잡을 수 없는 混沌속에 말려들어가자 越盟政權은 이때를 南部赤化의 好機로 삼고 本格的인 武力침공을 자행하였다.

즉, 組織的으로 大量의 兵力과 武器 및 彈藥 그리고 각종 軍需물자를 南으로 密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輸送通路는 通稱 胡志明통로(Ho Chi Minh Trail)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 “루트”는 越盟의 Mu Gia로부터 시작하여 LAOS 領域으로 들어가 Me Kong 江을 타고 CAMBODIA 國境에 이르러 여기서 다시 CAMBODIA와 LAOS 國境線을 따라 越南內로 通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USA는 越南이 越盟政權의 음흉한 策略으로 차츰 侵蝕의 幅이 확대되어가자 過去의 間接지원에서 直接지원으로 轉換하여 55년 1월 1일부터 軍事援助를 개시함으로써 Ngo Dinh Diem 政權의 反共투쟁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情況은 好轉되지 않은채 不利한 暗影이 더욱더 길어지는 傾向을 보이자 2월부터 軍事顧問團을 파견하여 越南軍에 대한 軍事훈련을 擔當 함으로써 實質的인 對共戰力の

向上을 꾀하였다.

그 이후 61년 5월부터 軍事顧問團을 大幅 증원하여 支援態세를 積極化한데 이어 同年 12월 11일에는 드디어 “헬리콥터” 증대를 파월한데 이어 다음해 2월 8일에는 美軍事援助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從來의 後見人的인 姿勢에서 직접 參戰단계로 轉換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美軍의 參戰에도 불구하고 戰況은 계속 不利하게 전개되었을뿐만 아니라 反政府세력을 糾합한 VC의 책동으로 政局의 不安이 加重되는 가운데 軍事革命이 惹起됨으로써 Ngo Dinh Diem 政權은 급기야 崩壞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軍事革命委員會가 발족되고 臨時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그 이후에 連이어 發生한 軍事“쿠데타”의 惡循環으로 말미암아 政治정세가 混迷의 破局으로 말려 들어가는 가운데 64년 5월 2일에 Saigon港에 碇泊중이던 美輸送船이 VC에 依하여 擊沈된데 이어 8월 2일과 4일에 제1,2차 Ton Kin灣事件이 일어남으로써 越南戰은 드디어 본격적인 擴戰단계로 접어들었다.

### 3. 各國의 支援政策

#### 가. USSR의 對 越盟支援

南方으로 進出하려는 이른바 USSR의 南進정책은 歷史적으로 오랜 背景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제2차 世界大戰 이후에 USSR은 南下정책을 積極化하여 50년에 北傀로하여금 韓國전쟁을 挑發케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자 다시 東南亞 諸國을 對象으로 所謂 平和攻勢의 위장아래 接近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는데 그 實證으로 55년 11월과 12월중에 Khrushchev 黨 第1書記와 Bulganin 首相이 INDIA—PAKISTAN—BURMA 등을 巡訪한 事例를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USSR은 이해부터 東南亞의 非同盟 中立國을 대상으로 經濟원조를 開始하였는데 이것은 非同盟 中立國을 그들편에 끌어 들이는 한편, 이地域과 自由主義 諸國과의 政治的 經濟的 유대관계를 차단하는 두가지의 目的을 동시에 達成하려는데 그底意가 있었다.

또한 USSR은 中共과의 國境 분쟁이 激化되면서부터 東南亞 諸國이 中共편에 달려들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또하나의 目的을 위하여 所謂 平和공존이라는 美名아래 經濟원조까지 하기

로 나섰다.

이들의 對東南亞정책에 있어서 特徵的인것은 USA나 中共에 比하여 表面에 잘 나타나지 않고 陰性的으로 操縱하는 点이라고 하겠는데 특히 越盟을 支援하는데 그들 나름의 음흉한 利害打算이 있었던 것이다.

즉, 越盟을 支援함으로써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큰 損失을 받지않고 平和와 民族해방의 先導者로 行勢할 수 있을뿐 아니라 中共을 南北 兩面에서 牽制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65년 6월 이후에 美軍의 北爆이 단행되어 Hanoi 및 Haiphong이 凄慘하게 破壞됨으로써 作戰수행에 困難을 받게 되었을 때 Ho Chi Minh이 共產諸國에 軍事支援을 호소하자 USSR은 즉각 이에 呼應하여 軍事원조를 斷行한 事實은 바로 그들의 속셈을 드러낸 좋은예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65년초에는 Moscow에 越南民族해방전선 代表部의 설치를 許容하고 또한 2월에는 Kosygin 首相이 越盟을 방문하여 繼續的인 支援을 確約하는 한편 美軍의 北爆은 美帝國主義의 侵略행위라고 非難하면서 越盟의 對美투쟁을 鼓舞하고 激勵하였다.

한편, 이해 4월에 Le Juang 第1書記를 首班으로 한 越盟대표단이 USSR을 訪問하였을때 共同聲明을 통하여 「越南民族해방전선이야말로 越南人民의 意志와 念願의 眞代辯者이고 越南人民의 唯一하고 合法的인 대표로서 認定한다」라고 밝히면서 越盟과 主從關係를 이루고 있는 同 해방전선까지 겹드려 支持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 이후에 USSR를 訪問한 ASIA 및 AFRICA 諸國 首腦와의 共同성명에서도 越南戰은 侵略戰이 아니고 民族解放戰爭이라고 규정하면서 同 해방전선의 合法性을 共認하려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USSR은 各共產國家와의 사전協議를 통하여 66년 3월 1일에 Moscow 協議會를 개최하고 이에 參席한 19개국 代表들을 煽動하여 USA를 非難하는 동시에 越盟에 대한 支援을 다짐하는 共同성명을 채택하는 등 越盟支援을 共產世界의 一致된 當面과제로 集約하는데 앞장 서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볼 때에 USSR은 越盟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支援하는 것같이 보였으나 其實은 실속없는 外交上의 虛禮를 표시한데 不過하였으며 이는 USSR이 그럴 수밖에 없는 立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그들은 USA가 參戰한 越南戰에 말려들어 對決할 意思가 없었을 뿐더러 현재 유지되고 있는 美·蘇間의 平和共存 분위기를 沮害하는 過激한 行動표시를 하고싶지 않는것이 그들의 本心이었다.



따라서 越南戰의 和平문제가 擡頭되었을 때에도 USSR은 共產혁명과 平和共存정책을 同時에 追求하는 米묘하고도 矛盾된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象徴적으로 나타낸 것이 65년 6월 23일에 Kosygin 首相이 말한바 「USSR은 越南문제 調整의 權限을 부여받지 않고있으며 또한 調整에 뒤어 들 意思도 없다」라는 率直한 聲明이었다.

그러면서도 USSR은 Hanoi와 Haiphog에 대한 美軍爆撃이 강화되자 共產陣營의 盟主로서 抗議하는 文書를 66년 7월 9일에 USA 政府에 보내면서 전투擴大의 危險을 警告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USA가 같은해 11월 23일에 USSR에 대하여 反駁하기를 「Hanoi 및 Haiphong에 대한 폭격은 越盟으로부터 車輛과 船舶에 依하여 越南에 密送되는 物資輸送量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은 越盟의 侵略계획이 擴大되었다는것을 實證하는것이므로 越盟의 貯油시설을 爆撃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USSR이 石油製品을 越盟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兩國間의 反目으로 말미암아 相互間의 관계가 갑자기 惡化됨으로써 Paris의 平和會談에까지 投影的인 影響을 미치어 한때 會談은 膠着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USSR은 共產革命정책과 平和共存정책이라는 二律背反的인 兩面정책을 끈덕지게 追求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越盟을 支持하여 共產陣營의 領導者的 체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USA의 戰力을 消耗시키는 敵對행위를 恣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美軍과의 直接대결을 회피하기 위한 平和共存정책을 펴는등 두개의 얼굴을 번갈아 내어밀면서 政治的, 軍事적으로 실속을 채우려는 陰謀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汲汲하였다.

#### 나. 中共의 對 越盟支援

國土의 全域을 席捲하고 政權을 수립한 中共은 50년도에 勃發한 韓國전쟁에서 北傀가 敗亡直前의 危急한 狀況에 몰리자 즉각 百萬의 兵力을 투입함으로써 UN으로부터 侵略者라는 烙印을 찍힌바 있었다.

그 이후 中共은 INDIA・自由中國 기타 隣接國에 대하여서도 크고 작은 여러차례의 紛爭을 일으켜 ASIA를 制覇하려는 野望을 露骨化하는 一方으로 東南亞 諸國을 대상으로 經濟 및 軍事원조를 供與하는 등 많은 影響力을 미쳤다.

이들의 政治外交는 이른바 互惠평등과 主權 및 領土의 相互존중이라는 原則에 입각하여

어떠한 國家와도 外交關係를 맺으면서 平和共存 정책을 펴나간다는 매우 合理的인듯한 方針을 내 세우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USSR과는 50년 2월에 友好同盟과 相互원조 條約을 체결하고 國交關係를 유지하는듯 하였으나 그 이후 國境문제로 대립되기 시작하자 兩國은 거의 敵對關係로 硬化되었으며 USSR이 中共에 대한 報復조치로 60년부터 원조를 중단하자 사태는 더욱 惡化되었다.

그 이후 非同盟 17개국이 65년 3월에 Belgrad會議를 개최하고 越南문제를 解決하기 위한 前提조건 없는 協商을 關係各國에 促求하기로 決議하고 4월 1일에 USA와 USSR에 그들의 呼訴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USA는 歡迎하였으나 USSR과 越盟은 이를 默殺하였다.

그런데 8월 1일에 YUGOSLAVIA의 Tito 大統領과 INDIA의 Shastri 首相이 會談을 갖고 USA의 北爆중지를 前提로 VC도 참가하는 國際會議를 열자고 촉구하자 中共은 Tito와 Shastri는 USA의 앞잡이라고 非難하는등 左衝右突의 狂態를 부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中共은 ALBANIA와 긴밀한 友好關係를 맺는 한편, 6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劉少奇가 越盟과 北傀를 親善방문하여 USSR의 影響력을 牽制하는 반면에 그들 自身에 대한 支持도를 강화함으로써 이 地域의 主導權을 장악하려 하였다.

아름은 中共은 ASIA의 連帶성과 平和5原則이라는 美名아래 東南亞 諸國에 대한 政治經濟공세를 개시하여 非共產 政權과의 유대를 確立하려고 안간 힘을 傾注하였는데 이는 歐美 世력과 USSR의 東南亞 진출을 동시에 遮斷하는 반면에 그들의 政治的 經濟的 優位를 노린 데 그 底意가 있었다.

따라서 中共은 軍事面에서 그 力量을 急速度로 증강시키면서도 東南亞 諸國에 대하여서는 平和공세의 위장아래 互惠共榮을 위하여 협조하는듯한 태도를 表示하였으며 또한 政治面에서 獨裁的인 權力政治의 基盤을 강화하면서도 東南亞 諸國에 대하여서는 긴밀한 連帶와 平等關係를 위하여 注力하는듯한 二重構造의인 外交矯態를 보였다.

그리하여 中共은 ASIA·AFRICA의 非同盟국가들이 中心이 된 集會가 열리자 이를 奇貨로 삼고 自國의 國際的지위와 發言權을 強化하면서 互惠平等과 相互협조를 통한 平和유지를 基本으로 하는 이른바 Bandoeng 精神의 守護者로 行勢하려 하였으며 이를 행동으로 實證하기 위하여 그들의 外交使節이 56년과 57년에 걸쳐 越盟—CAMBODIA—INDIA—BURMA—PAKISTAN—AFGHANISTAN—NEPAL—CEUYON 등 東南亞 및 南 ASIA 일

대를 방문하여 微笑外交의 씨를 뿌렸다.

그러나 57년 後半期부터 이들은 好戰의인 侵略근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59년에 TBET에서 惹起된 叛亂사태 이후에는 더욱 그 根性を 露骨化함으로써 그동안에 쌓은 友好關係를 度外視한채 INDIA와 LAOS에 대하여 壓力을 加하는 등의 추태를 부렸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높이 찬양하던 이른바 Bandoeng 會議의 10개 원칙을 依紙化하는가 하면 다음해부터는 東南亞에서뿐 아니라 美·蘇를 상대로한 對決태세를 表面化하였다.

그러하여 越盟이 越南을 侵略함과 더불어 LAOS에까지 그 魔手를 뻗치자 이를 적극 支援하여 武器를 비롯한 各種물자를 供給하는가 하면 THAILAND의 所謂 民族解放軍에 대하여 支援할 뜻을 公公然히 선언하고 나아가서는 該國의 東北部에 있는 一部 農村지역에 “테러”分子들을 침투시켜 殺害와 破壞行脚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事態는 비단 이 지역에 限定된다고 斷定할 수 없었으며 MALAYSIA를 비롯한 東南亞 어느 지역이든 차례차례로 이들의 검은손이 뻗치게 될 것으로 豫想케 하였다.

따라서 中共으로서는 現實의으로 進行中에 있는 越南戰을 그들의 勢力伸張을 위한 突破口로 삼기 위하여 越盟을 最大限으로 이용하면서 印支半島의 全域은 물론이고 그 周邊국가까지 漸進의으로 그들 影響下에 左之右之하려고 策동하였다.

특히 이들은 越盟이 越南을 赤化하기 위한 “게릴라”戰을 展開하자 物心兩面으로 支援하여 經濟원조와 交通, 通信機關의 建設 그리고 軍備확장을 위한 支援에도 적극 注力하였으며 最近에 이르러 戰況이 惡化되자 地戰戰鬪用의 小火器와 大砲等 重火器까지 공급하였다.

그러면서도 中共은 越盟의 內政干涉이나 戰爭에의 직접介入은 하지않고 있는데 이것은 越南民族이 傳統의으로 품고있는 中國人에 대한 反感을 자극할 念慮가 있다는 點과 美軍과의 正面대결을 回避하겠다는 點 그리고 所謂 平和5原則에 立脚한 平和공존 정책을 指向하고 있음을 宣傳하려는 것이 그 眞意였던 것이다.

아름은 中共은 그 이후에도 계속 越盟과의 紐帶를 굳게하면서 東南互 諸國에 진출하기 위한 前進기지로 삼고 自國의 勢力을 伸張확대하는데 手段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 다. USA의 對 越南支援

제 2차 世界大戰 직후만 하더라도 USA의 관심은 EUROPE에 쏠리고 있었으나 이러한

USA의 ASIA 정책에 變化를 가져온 것은 50년에 일어난 韓國전쟁과 그 이후에 勃發한 印支戰爭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PHILIPPINES의 Fook團 出沒을 비롯하여 THAILAND를 제외한 東南亞 全域에서 共產軍의 武力抗爭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USA는 不得已 이 지역에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實相 그들은 韓國전쟁의 經驗에 비추어 USSR과 中共이 언제가는 東南亞에서 戰爭을 도발할 可能性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러던차에 印支전쟁이 惹起되자 드디어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에서 別로 놀라운 사태로 보지는 않았으나 이 전쟁에서 FRANCE軍이 敗北한데는 큰 衝擊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USA는 FRANCE를 대신하여 東南亞를 共產침략의 威脅으로부터 막아야 하며 이것이 곧 그들 自身의 安保에 직결되는 마땅한 處事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ASIA의 自由諸國과 相互防衛조약 또는 安全保障조약을 체결하고 軍事 및 經濟원조를 제공하면서 이 地域의 反共戰力を 整備강화함과 아울러 集團防衛체제를 鞏固히 다져 나가는데 노력하였다.

즉, PHILIPPINES에 대한 軍事원조를 促求하는 동시에 駐屯 美軍을 증강함과 아울러 印支에 대한 軍事使節團을 파견하였다. 또한 越南—CAMBODIA—LAOS 등지에 軍事원조를 단행함과 아울러 THAILAND와도 經濟技術援助협정 및 軍事협정을 맺었으며 또 自由中國에 대한 防衛를 더욱 堅固하게 다지는 한편, 東南亞 集團防衛 체제로서 SEATO를 確立시켜 이 지역에 대한 安全을 保障할것을 公約하고 나아가서는 美太平洋 제 7艦隊의 巡航으로 ASIA 沿岸 諸國을 共產軍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保護하기 위한 軍事정책을 驅使하였다.

특히 USA의 對東南亞 정책은 中共封鎖에 根幹을 둔 것으로서 이의 特性을 요약하면 첫째 中共으로부터의 직접간접의 武力行使 또는 威脅에 對抗하기 위하여 同盟國을 원조하며 둘째 共產主義의 壓力에 能動的으로 對항할 수 있고 國民의 安全을 보장할 수 있는 有能한 政權수립을 지원하며 셋째 自由中國의 防衛를 뒷받침하고 臺灣지역에서의 中共의 武力行사를 방지하는데 그 力點이 두어져 있었다.

따라서 結果적으로 볼 때 USA는 中共封鎖의 一環으로 越南戰에 參전한 것이 되므로 어느 意味에서는 韓國—臺灣—印支半島에 걸친 USA의 防衛線中에서 다만 印支半島에 불이 붙었을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USA는 결코 越南戰이 확대되거나 長期化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며 可及的이면 適當한 조건과 雙方의 合意에 依한 線에서 停戰되기를 希望하였기 때문에 65년 2월 7일 최초의 北爆을 단행하기까지는 越南에 潛入한 VC를 擊碎하는데 集中하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北爆이후에 VC에 依한 美軍基地 공격과 Saigon에서의 美軍宿營 爆破등 報復행위가 잇따라 惹起되자 USA는 兵力을 단계적으로 增派하는 동시에 66년 7월부터는 Haiphong과 Hanoi에 대한 爆擊을 개시함으로써 戰況은 急進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USA가 兵力을 增派한 것은 越南戰을 조속한 時日內에 勝利로 마무리 하자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보다는 軍事的 壓力을 통하여 越盟을 協商의 路로 誘導함으로써 전쟁을 速히 終結지으려는데 그 眞意가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은 USA가 實質的인 交戰단계에 들어가기전에 수차례 걸쳐 Hanoi 政權의 協商意圖를 타진한 事實과 그 이후에도 계속 協商의 門戶를 개방하고 언제든지 그들과 妥協할 用意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立證하는 것이다.

그 事例을 들면 USA는 UN 총회 議長인 ITALY의 Pan Pani 外相을 통하여 平和협상의 意思가 있음을 越盟側에 反映시켜 줄것을 요청끝에 65년11월11일 越盟側에서 Ho Chi Minh 大統領과 Fuan Pan Ton 首相이 ITALY側 대표와 會晤를 가졌는데 그결과 Ho Chi Minh은 全越南戰線의 停戰과 USA軍의 增強中止가 實現되고 Hanoi側의 4개條件에 포함된 Geneva 協定을 준수하는데 同意한다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意向을 이해 11월 17일에 Johnson 美大統領에게 傳達하였다.

이에 대하여 Rusk 美國務長官은 같은 해 12월 4일에 Pan Pani 議長에게 回答하기를 「첫째 USA는 어떠한 條件도 없이 어떠한 政府와도 協議할 用意이 있다는 點에 變함이 없으며 둘째 Geneva 協定을 지키는 것은 좋으나 55년 4월에 提示한 越盟의 4개條件이 同協정의 正當한 해석에 根據를 두고 있다는데 同意할 수 없으며 특히 越南內의 문제를 VC의 綱領에 따라 一方的으로 處理하려는 것에 同意할 수 없다. 세계 Hanoi 政權이 4개條件을 固執하기전에 無條件 會晤할 用意이 없는가를 Hanoi側에 照會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Pan Pani 議長은 同월 13일자로 Rusk 國務長官의 回答내용을 Hanoi側에 보였으나 그들은 이를 正式으로 拒否하는 동시에 USA가 4개條件을 우선 受諾하지 않는限 協商에 應할 必要가 없다고 反駁하였다.

그 이후에 Johnson 美大統領은 McNamara 國防長官으로부터 越盟正規軍의 南侵增大에 대비하여 이들을 沮止하고 越南을 防衛하려면 兵力을 大幅 增派함과 아울러 B-52 機에 依한

적극적인 北爆이 必要하다는 報告를 받았으나 새로운 強硬策을 取하기 전에 可能的 平和解決의 手段을 講究하는데 힘쓴다는 觀點에서 越盟에 다시금 協商에 臨할 수 있는 機會를 주기 위하여 Xmas 에는 北爆을 中止하도록 命命하였다.

그러나 Ho Chi Minh 은 번번이 이를 拒否하였기 때문에 USA의 平和노력은 보람없이 水泡로 돌아아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美政府는 越南戰을 平和의로 終結지으려는 그들의 立場과 政策을 世界各國에 認識시키기 위하여 65년 12월 29일을 始發點으로 特使를 派遣함으로써 越南戰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USA의 對越南정책을 밝히는 동시에 相對國의 意見を 打診하기도 하였다.

즉, Harriman 美巡廻大使는 갑작스럽게 Warsaw 에 直行한데 이어 YUGOSLAVIA—INDIA—PAKISTAN—UAR 共和國—THAILAND—日本—AUSTRALIA 등을 방문하는 한편 Goldberg 美 UN 大使는 Rome 에서 法皇 Paul 6世 및 ITALY 政府首腦와 會談한 다음, De Gaulle 大統領과 Wilson 首相과도 會談하였다.

또 美大統領補佐官은 CANADA의 政府首腦와 會談하였으며 Mang 國防次官은 MEXICO 政府當局과 협의하고 Williams 國務次官補는 MOROCCO—ALGERIE—TUNISIA 를 비롯한 AFRICA 諸國을 巡訪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Goldberg 美 UN 大使는 다음해 1월 5일에 USA가 年末年始를 期하여 各國에 特使를 보낸데 대한 說明과 아울러 UN 加盟國의 協力을 요구하는 書翰을 U. Thant UN 事務總長에게 발송하였다.

한편, PHILIPPINES의 Marcos 大統領 취임식에 參席한 Humphrey 美副統領은 歸路에 日本—韓國—自由中國—越南 등을 방문하고 USA의 對越南정책을 說得하였으며 또한 USSR 에는 駐蘇 美大使를 通하여 理解를 촉구하는등 廣範圍한 說得의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USA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越盟과 中共은 이를 越南전쟁을 擴大하기 위한 煙幕행위라고 非難하는 一方, 越盟外務省은 1월 4일에 聲明을 발표하고 從來부터 그들이 提示한바 4개 條件을 포함한것에 基礎를 두지않는 限 平和협상에 應할 수 없다고 攻駁하였다.

이와같이 USA는 수차례 걸쳐 越盟과 협상을 벌이기 위한 試圖에 노력하였으나 그럴때마다 Ho Chi Minh 으로부터 拒絶당하자 6월말부터 北爆을 한층 강화하고 Hanoi 및 Haiphong 地域의 油類貯藏시설을 비롯한 越盟의 心臟部를 強打함으로써 後방國民의 厭戰思想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Hanoi 指導層으로 하여금 勝算이 없는 自殺的인 戰爭을 하고 있음을 自覺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Hanoi 政權이 爆擊後 20일이 經過되었을때 비로소 USA의 平和협상을 明白히 拒否하는 태도를 表面化하자 그들이 協商에 應할 때까지 北爆의 강화를 비롯한 보다 적극적인 軍事행동을 취하겠다고 壓力을 加하였다.

그러자 越盟은 66년 7월 17일 USA에 대한 最後까지의 抗爭을 다짐하면서 모든것을 불태우고 모든 國民을 죽이더라도 決코 屈服하지 않을 것이라는 發惡的인 反應을 보이는 한편 越盟의 國防最高회의는 聲明을 통하여 豫備役장병의 召集을 포함한 國民總動員令을 내리고 總力戰으로 最後의 一人까지 싸울것을 公表하였다.

그러나 越盟이 強硬하게 抵抗하면 할수록 USA는 보다많은 兵力과 장비를 투입하여 中共과 東歐 共産국가의 越南戰개입을 견제하면서 越盟의 孤立化를 꾀하였다.

따라서 越南戰線에 투입된 美軍兵力은 65年末로서 16萬을 넘었으며 이밖에도 USA의 支援호소에 따라 韓國軍을 비롯한 AUSTRALIA軍, NEW ZEALAND軍, PHILIPPINES軍, THAILAND軍 등이 追加됨으로써 越南戰은 國際戰化의 傾向을 보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中·蘇나 그밖의 東歐 共産국가들이 직접 派兵할 徵候는 보이지 않았다.



越南女人에게 구조되어 물을 마시는 VC부상병

如何든 Johnson 大統領은 越南의 戰勢를 逆轉시키는 한편, USA 의 反戰여론을 轉換시키면서 強力한 軍事행동과 一貫된 政策으로 越南戰을 조속하고 榮譽롭게 마무리 하려고 果敢하게 대처하였다.

66년 1월 3일 白雲館에서 Humphrey 副統領이 발표한 越南에 대한 USA의 公的입장(United States Official Position on VIETNAM)이라는 聲明은 USA의 對越南정책을 明白하게 밝힌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東南亞의 平和를 위한 妥當한 基盤은 51년 및 62년의 Geneva 協定이다.

(2) 우리는 非同盟 17개국이 提議한바 있는 前提조건없는 會談을 환영한다.

(3) 우리는 Johnson 大統領이 明確히 한바와 같이 無條件협상을 환영한다.

(4) 敵對行爲의 중지는 會談에 있어 事前討議의 主題가 될 수 없다.

(5) 越盟의 4개조건은 他方이 提議할 수도 있는 其他조건과 함께 討議될 수도 있다.

(6) 우리는 東南亞에 USA의 基地를 願하고 있지 않다.

(7) 우리는 平和가 실현된 後 越南에 美軍을 撤去시키는 것을 願치 않는다.

(8) 우리는 越南人에게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政府가 수립되도록 越南에서의 自由選舉를 支持한다.

(9) 越南의 再統一문제는 越南人 自身들의 自由로운 선택에 依하여 越南인들이 결정한다.

(10) 東南亞諸國은 萬一 그들이 願한다면 非同盟 또는 中立이 될 수 있다.

(11) 우리는 戰爭보다도 東南亞의 再建을 위하여 우리의 資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만일 平和만 실현된다면 越盟도 우리가 最少 10億\$을 제공할 예정인 地域개발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12) 만일 Hanoi가 一旦 侵略을 중지하기로 결정한다면 VC의 대표도 參加하여 그들의 意思를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그렇게 困難한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라고 이미 Johnson 大統領이 言明한바 있다.

(13) 우리는 他方에서 만일 北爆을 중지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던 平和的인 노력에 관한 아무런 示唆나 暗示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平和를 위한 조치로서 北爆을 中止하겠다는 것을 公開的으로 또는 직접, 接觸을 통하여 말해 왔었다』

以上과 같이 USA는 平和提議에 대하여 언제든지 받아 들일 수 있는 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越南共和國의 發展을 위하여 最大의 配慮를 하였다.

USA는 이와같이 平和문제에 대하여 幅넓은 收容태세를 보이는 반면에 越盟이 侵略행위





"벨리폼터"로 作戰지역에 投下된 美軍

를 중지하지 않고 이를 계속하는 限 어떠한 樣相의 挑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強力한 軍事 행동으로 對應하며 勝利를 쟁취하는데 盡力할것을 明白히 하였다.

#### 4. 聯合軍의 參戰

Johnson 美大統領의 對越南정책은 신중하게 調節된 단계적 擴戰으로 集約되는데 이것은 中共과 USSR을 刺戟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漸進的으로 軍事행동을 강화하여 越盟 및 VC 을 高립시키고 自滅케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越盟의 支援을 받는 VC의 跳梁이 날로 증대될뿐 아니라 越盟으로부터 越南에 潛 侵하는 正規軍 및 非正規軍이 점차로 激增하는 추세를 보이자 USA 는 이를 壓迫하기 위하 여 美제 7 함대를 越盟海域으로 急航시켜 海岸일대를 哨戒함으로써 VC에 대한 越盟의 海上 보급을 차단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事實上의 海上封鎖를 단행하였다.

그러던 중 64년 8월 2일 越盟의 PT艇 3척이 Ton Kin 灣 公海上을 航海中인 美구축함

Maddox 號에 대하여 魚雷 공격과 砲擊을 가한데 이어 4일에도 再次 美 Tunerjoi 號에 대하여 同類의 공격을 가하자 다음날 美航空母艦 Constellation 號와 Ticonderoga 號가 이海域에 급파되어 艦載機와 艦砲에 의한 反擊과 더불어 越盟內의 油類 저장소에 집중적인 空中 폭격을 가함으로써 戰況은 本格的인 局面으로 접어들었다.

USA는 對越南지원에 있어서 61년 以前까지 顧問役割과 장비의 供給에 그쳤으나 그이후부터 支援의 규모를 大幅 증가시키던 중 VC의 跳梁이 極甚하여지자 65년 3월부터 地上軍을 增強하기 시작하여 이달 5일에 美해병제 3사단 제 9연대의 제 3대대를 Da Nang 지역에 上陸시킨데 이어 5월 3일에는 美제 173공수여단을, 또한 7월 12일에는 美제 1사단 제 1여단을, 그리고 同월 29일에는 美제 101공수사단 제 1여단을 계속 進駐시켰다.

이와같이 地上軍을 계속 增派함에 따라 7월 20일에 파월 美軍事顧問團을 美軍事援助司令部로 개편하여 作戰指揮체제를 強化하는 한편, 越南戰의 특수狀況에 適應한 새로운 機動打撃부대로서 美제 1공중기갑사단을 中部高原의 An Khe—Pleiku 지역에 進出し킴으로써 本格的인 作戰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인 8월 2일과 4일에 Ton Kin 灣事件이 惹起되자 USA는 그 報復조치로 北爆을 개시하였으며 그 뒤에 Pleiku의 美軍기지와 Tuy Hoa 給油시설이 VC에 依하여 奇襲을받자 12월 29일에 美제 25사단을 追加 증파하여 作戰규모를 확대함으로써 65년말 현재 美地上軍은 184,000명으로 增加되었다.

한편 Johnson 大統領의 呼訴에 따라 自由우방 各국으로부터 越南共和國에 대한 支援이 느시되어 AUSTRALIA 軍은 65년 5월부터 사령부를 포함한 1개대대와 支援부대등 1,000명을 파월한데 이어 同년 8월에는 수송기 6대를 비롯한 空軍 85명을 증원한 다음, 9월에는 戰鬥支援부대 350명을 파월하였으며 다음해 4월까지 步兵 2개대대를 追加 增派하였다.

또한 NEW ZEALAND 軍은 65년 7월부터 1개 포병중대와 후방支援隊등 150명을 파월하였으며 PHILIPPINES 軍은 同년 3월부터 心理戰班과 醫療班 등 對民支援隊 60명을 支援한데 이어 66년 9월까지 對民建設支援부대 2,000명을 추가 增派하였다.

또한 우리 韓國軍은 64년 9월에 제 1이동외과병원과 跆拳道교관단을 파월한데 이어 65년 3월에는 한국군사원조단(비둘기部隊)과 海軍輸送團隊를, 그리고 同年 9월과 10월에 걸쳐 海兵제 2여단과 首都사단 그밖에 支援부대를 각각 參戰시켰다.

또 THAILAND 軍은 64년 9월부터 支援하기 시작하여 空軍支援隊 17명을 파월하였으며 이밖에도 65년중에 사단급 戰鬥부대를 추가 增派하였다.



敵陣에 肉迫하는 한국군 병사들

또한 自由中國軍은 64년 10월부터 心理戰隊 20명을 派越함으로써 USA 를 비롯한 7개국에서 參戰한 聯合軍의 규모는 크게 增大되었다.

이와같이 美軍을 主軸으로 한 聯合軍이 形成됨에 따라 統一된 戰略원칙에 依한 作戰수행을 必要로 하게 되자 基本방침으로서

첫째 : 地上作戰을 果敢하게 遂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3단계로 區分하여 다음과같이 實施하였다.

제 1 단계 — 基地開設과 아울러 主要시설의 設치를 위하여 戰術責任 지역내의 敵을 撲滅한다.

제 2 단계 — 敵의 奇襲공격을 事前에 牽制하기 위하여 縱深깊은 수색정찰을 실시함으로써 戰術責任지역을 확장한다.

제 3 단계 — 越南정부의 統治능력의 恢復을 위하여 戰術責任지역 밖에서 敵에 대한 과감한 攻擊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 空軍力으로 越盟의 軍事목표를 爆擊함으로써 VC에 대한 越盟의 支援根源을 파괴한다.

즉 北爆을 통하여 다음 目的을 달성하는 것이다.

- (1) 越南人の 士氣를 진작시키고
- (2) 國民의 反共熱意를 앙양하며
- (3) 越盟의 兵力 및 보급물자의 供給을 차단 내지 擊滅하고
- (4) 越盟의 指導者로 하여금 戰爭을 계속하는 것이 無謀함을 認識시킴으로써 협상에 應하게 한다.

세째 : 戰爭으로 荒廢한 農村의 再建사업을 원조한다.

USA는 越南사태를 軍事作戰만으로 解決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豫見하고 이미 54년 이래 農村재건계획을 援助하여 왔었다.

즉, 聯合軍이 감행하고 있는 軍事작전은 越南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教育, 保健, 福祉, 農業분야 등 모든 計劃의 바탕이 되는 國內治安의 確保에 있으며 이를 成就하려면 結局에는 農村사업과 같은 非軍事활동의 成敗여하에 달려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름든 聯合戰線을 형성한 友邦軍은 4개군단으로 分割된 各지역에 배치되어 作戰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配置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제 1군단지역에는 越南軍 2개사단과 美海兵 제 3사단이 作戰하였으며 이들 部隊를 統率하기 위하여 越南 제 1군단사령부와 美海兵 상륙군사령부가 Da Nang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 2군단지역에는 越南軍 2개사단과 美제 1 空中기갑사단 및 제 101空輸사단이 配置되었으며 이 地域은 戰略上 要衝地이므로 彼我間에 熾烈한 전투가 連日 전개되었다.

또한 이 地域에 韓國軍의 首都사단과 海兵제 2여단이 배치되어 作戰을 감행하였다.

이들 各부대와의 有機的인 協調를 위하여 越南제 2군단사령부가 Pleiku에 位置하고 있었으며 Na Trang에 美제 1 야전군사령부가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首都管區를 포함한 제 3군단 지역에는 越南軍 3개사단과 美제 1사단 및 美제 173空輸여단이 作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Me Kong 三角洲를 포함하고 있는 제 4군단지역에는 越南軍 3개사단이 作戰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Can Tho에 軍단사령부가 位置하고 있었다.

이것을 要約컨대 據點확보와 索敵격멸을 作戰의 至上목표로 설정한 聯合軍은 65년 이후 防禦와 공격의 同時併用 임무를 遂行하던서 戰局의 主導權을 掌握함으로써 越南戰의 조속한 終結을 목표로 緻密하고도 果斷性있는 作戰을 전개하였다.

# 第 1 章

## 一 般 戰 況

1. 越南의 地勢와 氣候
2. 敵의 動向
3. VC의 實態
4. USA의 越南戰介入과 初期戰略
5. 越南軍의 現況
6. 友邦軍의 參戰과 主要作戰



## 第1章 一般戰況

참조 : 상황도 제1~3호

### 1. 越南의 地勢와 氣候

#### 가. 地 勢

越南은 Far Asia 大陸의 東南쪽 즉, Indochina 반도의 東端에 위치하여 北쪽은 中共의 廣西, 廣東, 雲南지방과 接하고 西쪽은 LAOS 및 CAMBODIA 와 國境을 이루며, 東쪽의 海안선은 北쪽으로 Ton kin 灣, 中央은 南支那海, 그리고 南部는 Borneo 海르 부터 Thai 灣에 각각 沿하여 있다.

越南人들은 흔히 그들의 나라를 가리켜 「두개의 쌀 바구니가 목도 兩끝에 달린 形狀」이라고 일컫는바, 이는 安南산맥을 따라 가늘고 길게 내려뻗은 國土의 南과 北, 兩끝에 각각 Mekong 삼각주와 紅河 삼각주의 두 곡창지대가 있고 여기에 人口와 文化가 물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런데 越南의 地勢는 매우 착잡하나 다음의 5개 지역으로 大別된다.

(1) **Mekong 삼각주** : Mekong 江 하류에 전개되는 이 삼각주는 北部의 紅河 산각평야와 쌍벽을 이루는 南部越南의 要部이다. Mekong 江은 Tibet 高原에서 發源하여 中國을 거쳐 BURMA 와 LAOS 간의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다가 다시금 LAOS 와 THAILAND 사이를 지나 CAMBODIA 의 首都인 Phnom Penh 에서 두 갈래로 分流되는 데 이곳이 바로 Mekong 삼각주의 정상이 되어 이 江으로 말미암아 Delta 를 형성하며, 이 平野가 비옥하므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人口가 稠密하다.

(2) **安南산맥** : 이 산맥은 LAOS 에서 발단하여 Song Ca(江)의 上流인 LAOS 국경으로부터 평행선을 이루면서 南쪽으로 뻗쳐 標高 1,300~1,700m 의 連峯을 형성하고 있다.

이 山脈은 東쪽으로 협소한 海岸平야에 급경사를 이루고, 西쪽으로는 LAOS 와 CAMBODIA 兩國의 Mekong 流域으로 절진적인 完경사를 形成한다. 越南국내로 확장되는 이 山脈의 北

쪽부분은 협소하고 기복이 심하며, 그 南쪽은 中部高原을 이루는데 이 高原은 다시금 北部와 南部로 나누어 北으로는 Ban Me Thuot 부근으로 부터 280km 北쪽인 Ngoc An 까지 포함하며, 여기에는 熱帶관엽수림이 무성한 反面에, 高原의 南쪽은 Dalat 가 中心地로서 高山지대에는 주로 常綠樹가, 또 저지대에는 대나무 등이 자라고 야채재배에도 적합한 토질을 형성하고 있다.

(3) 中部평야 : 이 평야는 Mekong 삼각주로 부터 海岸線을 따라 北쪽으로 紅河삼각주 까지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비옥하여 主食인 쌀 재배가 잘 되며, 海岸線을 따라 單線철도가 부설되어 있고 비교적 양호한 제 1번道路가 Saigon 에서 Hanoi까지 뻗어 있다. 海岸線에는 양호한 항구가 많으나 특히 Cam Ranh 灣은 천연적인 자연항구로 戰略的인 가치가 매우 높다.

(4) 紅河 삼각주 : 紅河는 中國의 雲南省에서 발원하여 Hanoi 北西까지 거의 一直線으로 흐르다가 이와 平行하여 흐르는 黑河 및 門河와 合流하여 Hanoi 를 거쳐 Ton kin 灣에 流入하는데 이 江의 泥土로 말미암아 下流에서 Delta 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이 삼각주는 극히 낮은 平野로서 海拔 11m에 불과하며 이곳 平野에는 米作지대로서 Me kong 삼각주와 마찬가지로 人口密集현상을 보이고 있다. 江下流에는 주요 港口인 Haiphong 이 있으며 여기를 中心으로 운하조작이 이 삼각주의 사방에 통하고 있다.

(5) 北部山岳 지대 : 紅河 삼각주 平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는 東南部가 얇고 北部가 높으며 北西側에서 安南산맥과 연결된다. 이 山岳지대는 東部지역을 제외하고 交通路가 미개하여 河川이 중요 交通수단이 되고 있으며, 海岸線에 있는 Mon Cay에서 기복이 심한 山岳이 中國과의 국경선을 따라 北西方으로 뻗고 있는데 이 지역은 中國과의 오랜 通路로서 그들의 侵透路 및 商人들의 왕래通路가 되어오기도 하였다.

歷史的인 배경을 보면 百年間의 FRANCE 統治下에서 이 나라는 3개의 地域으로 분할되었다. 즉, 北端의 쌀 바꾸니는 Hanoi 를 首都로 하는 Ton kin 보호국으로 알려졌고 中間부분은 安南보호국으로서 그 首都는 옛 王都인 Hue 市이다. 그리고 南쪽의 쌀 바꾸니는 Cochine (交趾)이라 불려 Saigon 을 首都로 하는 FRANCE 의 직할 식민지였다.

FRANCE 가 Indochina 전쟁을 끝맺은 1954년, Geneva 협정에 依하여 越南은 全國土의 中間에 해당하는 北緯 17°線을 따라 兩斷되었다. 이 分界線을 起點으로 하여 그 線의 양쪽으로 5km 썩의 空白지대를 非武裝 地帶(DMZ)化 하였다.

南部越南은 행정구역상 44個省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道와 비슷한 行政區이지



만 道보다는 훨씬 작고 郡보다는 크다.

(6) 이 나라의 未開性·특히 交通, 通信의 未開發은 지방적 隔離의 주요원인이 되고있다. 例로서 幹線도로는 불과 몇개에 불과한데 가장 크고 중요한 道路는 제1번 道路로서 Saigon 에서부터 休戰線을 거쳐 Hanoi 까지 올라간다. 제14번 道路는 Saigon 에서 Darlac 을 거쳐 高原지대까지 구불구불 달리며, 제4번 道路는 Mekong 삼각주 지방에서 首都로 식량이 수송 되는 生命線이다.

鐵道는 제1번 道路와 併行하는 狹軌의 單線뿐이다. 그러나 南部越南은 Mekong 삼각주에 집중되어 있는 3,500miles 의 運河와 水路가 있어 중요한 交通과 수송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항구로는 바다와 연결되는 Saigon 港과 제2의 都市인 Da Nang 港 및 Cam Ranh 港 이 있으며 空港으로는 Saigon 市 외곽의 Tan Son Nhut 가 유일한 國際的인 규모이다.

## 나. 氣 候

越南의 氣候는 南과 北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다. 즉, 緯도가 약간 높은 Ton kin 지방은 크게 分類하면 亦是 熱帶지만 暖帶와 비슷한 기후이며, 安南以南이 熱帶기후에 속하고 특히 Mekong 삼각주 지역은 常夏의 지대이다.

그러나 全域을 통하여 南部 ASIA 의 계절풍(Mon Soon)의 영향이 현저하여 전형적인 계절풍 기후를 나타낸다. 대체로 5월 부터 10월까지는 雨期이며 11월 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乾期인데 그 전형적인 지역은 Mekong 평야와 Ton kin 평야이며, 山岳지대는 安南山맥의 영향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

氣溫에 있어서는 Saigon 이 最低 20.8°C(1月平均), 最高 34.5°C(4月平均)로 年較差가 적는데 比하여 北部의 Hanoi 는 最低 14.4°C(1月 平均), 最高 33.7°C(7月 平均)로 年較差가 19.3°나 된다. 계절풍은 대체로 韓國과 같이 차고 건조한 北東계절풍(11月~다음해 3月)과 高溫多濕한 南西, 南, 南東계절풍(5月~10月)이 年間에 규칙적으로 交替한다.

또한 冬季 계절풍이 가장 강한 때는 대개 11월에서 다음해 1月 初旬까지인데 그 中心 위치의 이동과 ASIA 대륙에서 생기는 高氣壓의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Ton Kin 灣과 安南山脈의 東斜面에 冷氣를 띤 北東風이 분다.

이 季節은 1月末頃이 되면 急速히 減退하고 風位는 東方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5월부터 夏期계절풍으로 變하기까지는 風速이 느리고 일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또한 11

月부터 다음해 3月 중순까지의 계절풍은 덥고 습한 南支那海를 통과하는 동안에 차츰 변질 되어 越南해안에 도달될 때에는 오히려 습기를 머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Ton Kin 灣의 Vinh 으로부터 Nha Trang 南方 Padaran 岫(岬)에 이르는 해안과 인접 山岳지역의 東斜面은 이 기간중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이 계절풍은 점차 弱化되기 때문에 전지역의 강우량은 차츰 減少된다.

乾期 기간중 특수한 현상으로 中·越 국경에서 南部의 Nha Trang 에 이르는 해안 低地에는 持久性 厚層雲의 형성으로 2~3일간씩 계속되는 안개와 가랑비의 현상으로 航空작전에 큰 지장을 준다. 또한 3月에서 5月 初까지는 乾期가 雨期로 변하는 시기로 最少로 감소되었던 습도와 降雨量은 점차로 증가하며, 특히 이 기간중 越南 전역에 걸쳐 최고의 기온을 나타내는 越南 특유의 기상상태가 된다.

#### 다. Qui Nhon 및 Tuy Hoa 의 地勢와 氣候

韓國軍 전투부대인 首都사단 및 해병제2여단의 진출책임지역인 Qui Nhon 과 Tuy Hoa 지역은 越南의 中部평야지대에 속하나 그 西部는 安南산맥지대에 接하고 있으며 대략 아래지역으로 區分된다.

(1) 平野지대 : Qui Nhon 北西쪽에 展開되는 이 지대는 安南산맥으로부터 發起한 Song Con(江)의 流域으로서 이 江은 平野의 中央部位에서 10여개의 大小 하천으로 分岐되어 Qui Nhon 灣에 流入한다. 한편 Tuy Hoa 南西쪽에 펼쳐진 平野는 또한 安南산맥에 根源을 둔 Song Ba(江)의 流域지대로서 이 江은 이 平野의 中央部位를 흐르다가 Tuy Hoa 市 바로 南쪽을 지나 南支那海로 流入한다.

이러한 平野지대에는 熱帶性 식물에 둘러싸인 大小부락이 散在하고 있으며 田畚 및 경작자가 비옥하다. 治水와 灌溉시설이 잘 되어있지 못하여 兩期中에는 河川이 氾濫하는 경우가 많다. 反面에 乾期에는 水量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河床을 드러내게 되며 그 河床의 兩岸에 沿하여 密生한 각종 식물은 河川의 浸蝕작용을 방지해주고 있다.

平野지대에 散在하고 있는 마을들은 周邊지면보다 보통 0.5~1m 높은 지대에 있으며 草家 또는 FRANCE 式 洋屋 등이 小單位로 마을을 形成하고, 各家屋마다 야자수, 대나무, 仙人掌 기타 열대성 식물로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2) 海邊 沙場 : Qui Nhon 北方과 Tuy Hoa 南方의 海岸지대는 熱帶性 기후조건과 海洋

계절풍의 영향으로 거의가 砂丘지대를 形成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에는 키가 작은 雜木, 仙人掌, 雜草 등이 군데군데 자라고 熱沙風이 가끔 인다.

(3) 山岳“정글”지대 : Qui Nhon 남쪽과 Tuy Hoa 南쪽에는 安南山脈의 支脈이 뻗어있어 海拔 600~1,500m의 전형적인 密林地대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잎이 넓은 闊葉樹 및 가지돋힌 雜木과 넙쿨이 얽혀 있으므로 이러한 밀림지대에서의 空中 및 地上관측은 매우 어려워, 步兵부대의 기동에 많은 制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 潛動하는 敵은 現地 지형에 숙달하고 있기때문에 그들의 비밀 軍事基地로 連하는 通路를 부분적으로 개척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지형에 따라서 一部 편성부대의 군사시설(훈련소, 병원, 무기 및 식량보급소)과 築城진지를 구성하고 있다.

Qui Nhon 北쪽 Pong Son 으로부터 南쪽으로 Qui Nhon 과 Nha Trang 및 Cam Ranh지역의 일반적인 氣象상태는 5월부터 10月 기간중에 南風과 南東風이 불고 11월부터 다음해 3月間은 北東 혹은 北西風이 불며 10月과 이듬해 4月の 환절기간에는 대체로 경미한 바람이 일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된다.

年間 강우량은 1,000~3,500mm로서 그 變化가 많으며 비가 많은 기간은 9월부터 다음해 1月 사이이다. 비는 대체로 9월부터 11月 사이에 소나기나 暴雨가 쏟아지며, 12月에서 1月 사이에는 가랑비가 많이 내린다.

氣溫에 있어서는 年中 가장 더운 期間이 5월부터 8月 사이이며, 平均온도는 33.3°C이다. 가장 서늘한 期間은 12月에서 다음해 1月까지로서 平均 26.6°C이고 최저는 17°C이다. 氣溫差는 年中 平均 7~14°C로서 그다지 심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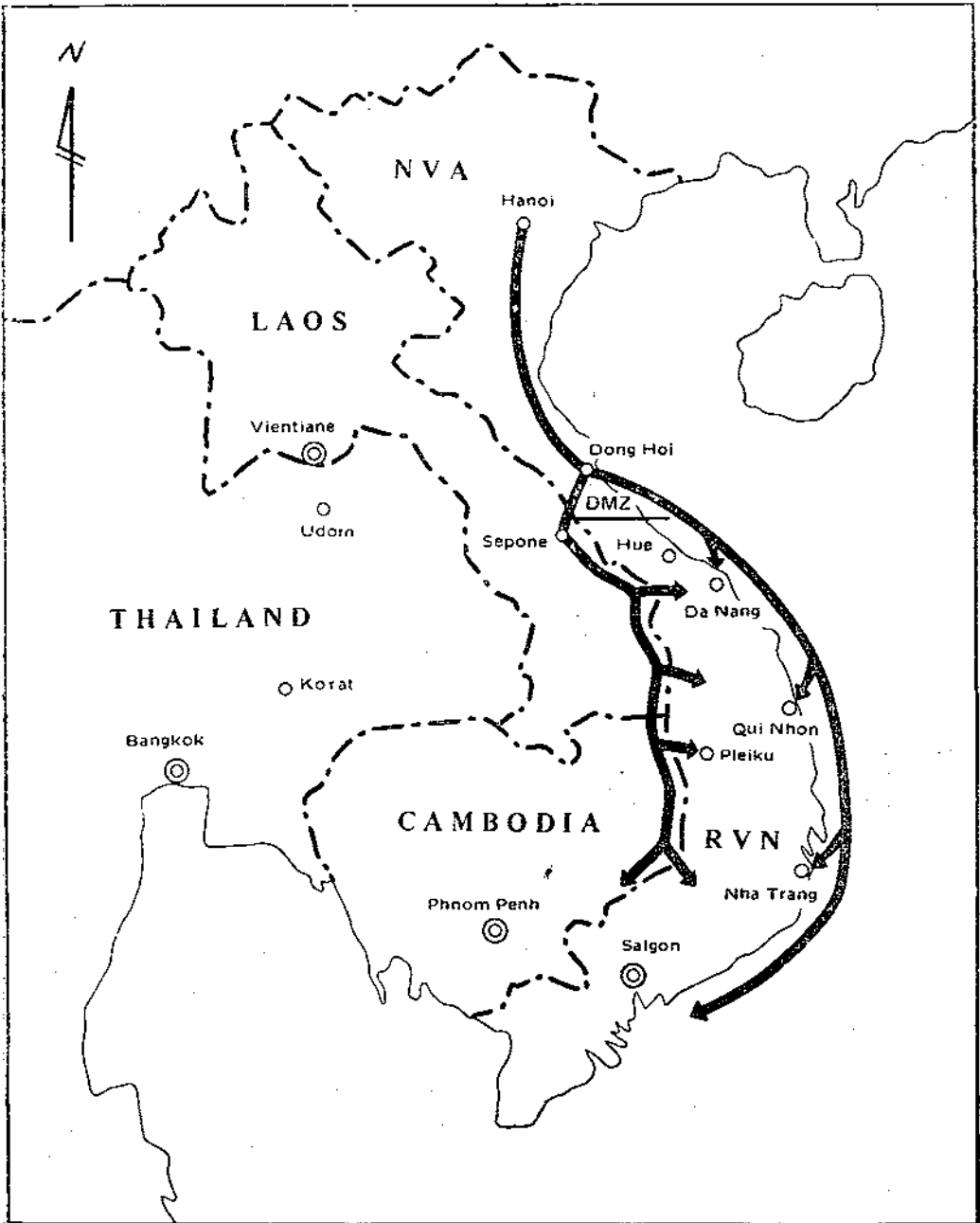
## 2. 敵의 動向

### 가. 中共과 USSR 의 軍事支援

Hanoi 와 北京과 Moscow 의 삼각관계는 越盟의 對越南 전략계획과 추진방법에 따라 그 원조 및 지원의 폭이 다르며 또 상호이해의 농도와 관련되어 冷戰의 기류가 교차되었다.

中共과 USSR, 이 兩國은 같은 共產국가이면서도 對USA 관계 以上으로 냉정한 對立관계를 계속하면서 越盟에 對한 원조의 우선 순위면에서 각기 상이하였다.

狀況圖 제 1 호 越盟軍 侵透路



USSR과 USA의 관계는 核전쟁을 회피한다는 상호 默示 아래 敵對關係가 아니라 對決關係에서 越盟을 지원하였으나 中共은 USSR과는 달리 오로지 印支戰을 통하여 그들의 소위 人

민전쟁 전략의 實現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 해방전쟁 전략은 ASIA에서 USA의 영향력을 弱化시키고 세계 開發途上國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方法으로 추진하여 나갔는데 그 理由는 당시 中共이 USA와 대등한 대결관계에 있지 못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간접적인 침략을 통하여 1차적으로 ASIA에서의 세력권을 확장시키려는데 있었다.

한편 당사자인 越盟과 VC은 오로지 한가지 목적인 對越南 적화 전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추구해 나가려는 意志와 이의 조속한 實現에만 몰두하였는 바 本卷 概說에 이미 中共과 USSR의 東南亞정책에 對한 언급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軍事的인 원조에 관하여만 약술한다.

(1) 中共의 援助 : 中共의 對越盟 군사원조는 韓國戰爭에서 停戰협정이 成立된 1953년 7월 以後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힘입은 越盟은 FRANCE軍에 對한 壓力을 증대하여 軍事的 승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1954년 7월에 체결된 休戰협정에서 유리한 立場에 놓이게 되었다

그 뒤 越南戰이 시작되면서 中共의 對越盟 지원사정은 USSR의 그것보다 不透明하였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진바로는 그들의 對越盟 군사원조 가운데 60mm 박격포를 위시하여 경기관총과 “로켓”발사대(RPG) 및 소총과 이에 수반되는 彈藥과 지뢰 등의 폭발물과 식량이 主種目を 이루었는데 이같은 物資는 越盟을 경유하여 VC 손에 들어 갔다.

1964년까지 中共의 기술자 및 鐵道건설관계자가 延 30,000명이 越盟에 出入하였으며 1965년에는 中共軍 2개대대가 Hanoi-Haiphong 一帶의 紅河지구에 進出하였고 高射砲사단과 鐵道兵사단이 投入되었으며 1966년에는 MIG 17型 戰鬥機 60대가 제공되었는데, USSR 製 인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物質的 원조 以上으로 中共이 重視하고 있는것은 所謂「美帝國주의의 침략에 對한 VIET NAM 人民의 正義의 戰爭」에 對한 精神的 支援이라고 할 것이다. 그 根底에는 「武器는 戰爭의 중요한 要件이기는 하지만 人民戰爭에서 決定的 的의를 갖는 것은 武器가 아니라 人民의 투쟁이다.」라는 이론으로 뒷받침하였는데 勿論 上述한 이론바 「人民戰爭論」이 物質的 원조를 내포하고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中共이 USA의 最新武器에 대항할만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立場을 변명한 것이기도 하다.

(2) USSR의 援助 : 1963년 CUBA 事件 이후, 越南戰에 대한 USSR의 태도는 融通性 있는 硬軟不編정책을 保持하였는데 이는 USA에의 刺戟을 고려하여 熱戰을 避하려는데 있었다 한편 越南에서 당면한 USSR의 立場 및 共產국가권에 있어서의 “헤게모니” 쟁탈 문제와

聯關하여 점차 肥大해져가는 中共에 대한 견제문제와 弱少국가의 투쟁을 지원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大義명분과 더불어 장차에 있어서 亞阿지역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조심성 있는 태도를 보여 오다가 1964년 10월에 Khrushchev가 失脚한 뒤부터 弱少국가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越盟에 對한 적극적인 援助태도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政治 및 經濟的인 것과 軍事的인 武器원조의 形式으로 區分되었다.

그 例로서 1965년 1월에는 越南민족해방전선 代表부의 USSR 설치를 인정하였으며, 2월에는 Kosygin首相이 Hanoi를 방문한데 뒤이어 4월에는 Le Duan 越盟 노동당 제 1書記가 Moscow를 방문하여 經濟的, 軍事的 원조의 약속을 내용으로 하는 共同聲明이 발표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실제적인 支援은 1955년 以後 1965년까지 도합 365,000,000 \$에 達하는 經援 以外에도 越盟에 90基를 헤아리는 地對空유도탄(SAM Missile)을 設置하였으며, MIG-17, 19型 戰鬥機 50台와 21型 15台 및 IL-28型 爆擊機 5台를 비롯하여 각종 戰車와 野砲 등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는 모두 USSR이 1965년 2월, USA의 北爆시작 以後에 제공한 까닭에 세계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같이 USSR이 Khrushchev 시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對越盟지원태세에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은 ASIA를 위시한 後進지역에서 UK를 비롯한 FRANCE 등의 植民地 지배 세력이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USA의 군사력 또한 漸減하는 추세로 造成된 「힘의 空白」 지대에서 中共의 獨走를 견제하고 나아가 東南亞 一圓에 그들의 海洋力의 발판(軍港)을 마련하려는 戰略의 일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越 盟

### (1) 越盟의 軍事力과 越南侵透

越盟은 1945년 Geneva 협정에 따라 그들의 兵力을 北緯 17度線 以北으로 철수시킬때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赤化통일정책에 따라 共產열성분자 多數를 南部越南에 잔류시켜 共產조직을 확장하는 한편 北部에 그들의 軍事조직을 強化하면서 外面으로는 계속 平和공세의 술책을 썼다.

1960년 以後 이들은 赤化의 적극수단의 첫단계로 政治 및 軍事基地를 설정하여 소위 그들의 解放區域을 확고히 한 뒤에, 다음 단계로 武力으로 越南정부군을 攻擊하여 守勢에 몰아넣은 다음, 최종단계에서 越南정부군 및 이를 지원하는 聯合軍을 打擊하여 越南전역을 장

악코자 企圖하였던 것이다.

과거 北部越南에 進駐한 日本의 支配를 받던 時期에 北部越南에서 左翼지하 단체로서 發足한 越盟인민해방군을 母體로 成長한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다음해 1946년에 그 兵力규모는 不過 50,000명이던 것이 1960년에 이르러서는 正規軍을 비롯한 地方軍과 民兵, 도합 250,000명으로 急膨脹하여 보병 40개 연대로 증강하였으며 PT-76型 전차를 비롯하여 각종 裝甲차량만도 1,000台 以上을 보유하고 在來型 高사포가 1,500문에 達하였다.

또 海軍은 총병력 27,500명으로서 各種 함정 38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空軍은 병력 3,500명에 MIG-15, 17, 21型 戰鬥機 도합 90대 外에 소수의 수송기와 연습기 등 모두 180~200台的 항공기를 보유하였다.

이와같은 兵力 및 장비의 증강추세에 있던 越盟軍은 그들의 특별훈련소에서 越南侵透공작에 必要한 政治교육과 軍事훈련을 받은 分子들을 제70수송대로서 LAOS를 거쳐 越南內로 계속 潛入시켰으며 이와는 별도로 海上침투로를 통하여 工作員과 武器를 비롯한 각종 보급物資를 수송하였다.

이와같이 南部로의 侵透를 계속 꾀한 이들은 1959년에서 1960년 기간에는 每月 1,800~2,700명 정도를 南下시켰으나 聯合軍의 參戰이 本格化된 1965년에는 每月 4,800명 수준이 Ho Chi Minh 통로와 非武裝地帶(DMZ)를 넘어 南部에 침투하여 그들의 前進基地를 구축하는 등 赤化야욕을 불태웠다.

## (2) 越盟의 戰略

1960년 9월에 Hanoi에서 개최된 제3차 勞動黨 대회에서 당원에게 부과한 두 가지 임무는 「北部越南의 사회주의 혁명의 達成과 南部越南의 解放」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南部越南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즉, 「南部越南에 있어서의 革命은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에 이르는 모든 형태를 가지며, 극히 活動的이면서도 유연성 있는 鬭爭을 統合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大衆의 革命的인 힘을 育成, 強化, 擴大해야 하는 장기간에 걸친 困難하고 복잡한 투쟁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大會에서 越盟공산주의자들은 「廣範한 民族통일전선」의 結成을 要求하고 이要求가 있는지 3개월 뒤인 12월 20일에 VC은 「越南민족해방전선」의 結成을 宣言하였다.

그런데 VC은 越盟의 指令에 의하여 「越南민족해방전선」을 만들어 越南에서의 反政府 활

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인 것처럼 가장하였는데 事實上 南部越南에 있어서의 共產軍의 모든 活動은 越盟 노동당 중앙위원회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越南민족해방전선」은 南部越南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越盟의 指令下에 赤化의 도구로 이용된 것임은 再言을 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의 戰略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越南에서 그들의 政治 및 軍事基地를 確固히 하기 위하여 地下조직을 結成한다.

둘째, 이 組織을 核心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反政府的 정치공작과 더불어 武力역량을 준비한다.

셋째, 武力으로써 政府를 顛覆하고 外勢를 물리친 다음 VC의 통일전선에 입각한 聯合政府를 구성하고 共產통일을 達成한다.」

### 3. VC의 實態

#### 가. 成長과 組織

VC의 政治단체인 「越南민족 해방전선」이 正式으로 結成된 것은 1960년 12월 20일이지만 이 해방전선의 母體구실을 한 反政府분자의 기구와 이를 뒷받침 하는 越盟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적인 치밀한 工作은 前述한 바와 같이 8年間의 Indochina 전쟁이 종식되고 北緯 17° 線을 경계로 南北으로 분단된 1954년 7월의 Geneva 협정이 체결된 직후이다.

즉 越盟은 1954년의 南과 北의 分割로 南部越南에서 활동하던 越盟軍이 北部로 철수할때 선발된 共產굴수분자를 그대로 잔류케 하여 장차 있을 南北통일시에 助力토록 하였으며 이들이 곧 1955년 10월에 수립된 Ngo Dinh Diem 정권에 저항하는 VC의 母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越南정부군 및 이를 支援하는 우방 聯合軍과 對抗하는 큰 勢力으로 成長하게 되었다.

그런데 北部越南에서의 共產주의자들은 그들의 侵略준비로서 軍隊를 재조직하는 한편 南部越南에서의 VC의 反政府 行동을 추진토록 하였으니 Hanoi 정권이 VC에게 내린 指令의 要旨은 「첫째, 많은 住民을 포섭하여 反政府 폭동을 일으킬 것. 둘째, 大衆생활의 혼란을 조성하여 政府의 시책을 비난할 것. 셋째, 병사들을 農夫로 가장시켜 要所에 분산, 배치하고 필요한 무기를 은닉, 저장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 나. 政治的인 組織

越南에 있어서 VC의 政治的인 組織은 Hanoi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方針을 수립, 결정하여 再統一部(Reunification Department)를 통하여 對南공작본부에 지령을 발하고, 工作 본부는 이를 구체적인 命令으로 작성하여 下部기구에 전달한다.

工作본부 밑에는 6개의 地域區와 Saigon—Cholon 및 Gia Dinh 특별지구가 있다. 이들 각 지구위원회는 사무국과 연락, 선전, 훈련, 활동, 인사부 등의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예하에 있는 各省에는 동일한 기구가 편성되어 이러한 “피라미드” 체제의 底邊에는 개개의 黨 세로가 地理的인 조건에 의하여 사회적 및 직업적인 두 개 집단으로 區分, 조직되어 있다.

#### 다. 軍事的인 組織

VC의 군사문제는 越盟 국방성과 人民軍 총사령부의 소관사항이며 노동당의 엄중한 감독을 받고 있다. 이 소관사항에는 작전계획과 훈련계획을 비롯하여 정규부대의 配置 및 보급품의 조달과 군사통신 및 전술상의 비밀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VC의 軍事조직은 Hanoi의 전면적인 指令에 의하여 VC 군사활동의 여러 分野를 支配하고 있는 政治기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위로는 對南工作 본부로부터 아래로는 최하 말단부락에 이르기까지 각급 정치본부에는 모든 군사활동을 감독하는 군사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같이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서로 結合시킨 것은 共產주의자들의 전반적인 任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는 또한 軍에 對한 政治적 지배를 확고히 하려는데 있다.

이들 VC은 세가지 종류의 形態로 분류되는바 첫째, 主力軍으로서 비교적 訓練수준이 높은 職業군인으로 편성되었으며 여기의 간부급은 越盟軍 정규장교들이며 중대, 대대, 연대로 편성되어 있다. 둘째, 地方軍으로서 이는 주로 향토출신의 VC과 越盟에서 侵透한 一部 越盟軍으로 구성되었으며 獨立된 지방단위 부대로 운영되고 때에 따라 主力軍을 增援하는 것이 특징인데 1965년 初에 주력군 및 지방군은 도합 9개 연대, 30개 대대, 189개 중대 및 110개 독립소대로서 兵力數는 45,000명으로 推算되었다. 셋째, 민병유격대로, 이들의 特徵은 표면상 일반 民間人으로 가장하고 있으면서 必要에 따라 전투에 임하며, 일단

有事時에는 主力軍과 連關된 전투에 참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총수나 안내원 또는 보급 물자의 운반을 맡게 되는데 越南全域에 도합 60,000~80,000명이 潛據한 것으로 推算되었다.

### 라. VC 主力軍의 編成과 裝備

VC 主力軍은 지구위원회(一名, 管區위원회)로부터 지휘를 받으나 명령계통은 지방위원회를 利用한다. 이 지방위원회 指揮者의 대부분은 越盟에서 南下한 정규군 간부들이다. 이들의 지휘계통은 매우 복잡하고 단일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면에서도 고정된 火力수준을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은데 그 例로서 火器에 있어서 越盟으로부터 직접 보급된 것을 비롯하여 抗佛戰에서 노획한 武器와 美·越軍과의 전투에서 얻어낸 것들을 混用 사용하는 까닭에 友軍의 火力에 比하여 매우 열등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들의 中隊급 以上の 병력, 장비의 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대 : 연대는 각각 300~5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3개 보병대대와 1개 중화 대대 및 개의 지원중대(고사포, 통신, 공병, 수색,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경비소대가 연대본부의 경비임무를 맡고 있다. 연대의 火力지원은 중화기대대가 담당하고 있는데 81mm 박격포중대와 75mm 무반동총중대 및 1개의 12.7mm 기관총중대 각 1개로 구성되어 도합 병력은 1,400~2,000명으로 되어있다.

(2) 대대 : 대대는 3개의 소총중대와 1개의 火器중대 및 3개의 통신소대와 수색 및 공병소대로 편성되어 있다.

(3) 소총중대 : 중대는 보통 60~130명의 병력으로서 3개의 소총소대와 1개의 火器소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대는 60mm 박격포 분대와 57mm 무반동총 분대 및 30mm 기관총 분대로 편성되어 있다.

### 마. VC의 戰術

VC의 戰術 역시 共產軍 유격전술의 일반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특히 抗佛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戰爭경험을 기초로 하여 越南戰실정에 적응하는 “게릴라”戰法을 사용하고 있다.

즉, 毛澤東의 「持久戰論」과 越盟 국방상 Vo Nguyen Giap의 「人民戰爭」에 관한 3단계 方式 등을 骨子로 하여 이를 現實에 맞도록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戰法은 전형적인 “게릴라”戰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有利한 狀況下에서는 強하게 攻撃을 敢行하고 不利할 때에는 소규모로 분산 退避한다. 부대이동은 주로 夜間을 利用하여 주로 夜暗을 利用하여 攻勢를 取한다. 我軍이 前進할 때에는 후퇴하고, 방어할 때에는 교란토록 하며 피로하였을 때에 攻撃하고 撤收할 때에는 추격하며 모든 狀況下에서 速度와 警戒, 그리고 奇襲과 기만에 主眼을 두고있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들의 몇가지 유형별 전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攻 擊

### (가) 埋 伏

VC의 埋伏은 가장 효과적인 攻撃전투의 하나이다. 埋伏의 목표는 주로 移動하는 부대, 차량부대, 정찰대, 철수부대 및 선박 등 각종부대에 행하여진다. VC은 기습의 효과를 노리기 위하여 埋伏隊을 은밀히 배치한 뒤, 소수의 병력을 友軍과 접촉시킨다. 일단 접촉이 이루어지면 신속히 철수하여 埋伏지점으로 友軍을 유인한다. 그들 VC의 埋伏隊은 大小路 및 河川邊, 이밖에 부대가 移動할만한 통로변, 또는 예기할 수 없는 場所에 배치하며, 이들은 면밀한 埋伏계획으로 철저하게 예행연습을 한 연후에 실행에 옮긴다.

예를 들면 첫째로, 移動병력에 대한 埋伏에 있어서는 我軍부대가 위치한 지역 부근의 부락에서 흔히 발생하며 마을을 出入하는 정보요원과 순찰병 및 연락병 또는 外出隊에 對하여 살상 또는 로로할 목적으로 공격하는데 VC은 이때에 我軍병사들이 마을에 들어갈때 또는 歸隊할 때 행동한다.

둘째로, 차량부대에 對한 埋伏에 있어서는 單一 차량에 대하여서는 地雷나 기타 장애물을 利用한다. 일단 차량을 정지시키고 수류탄으로 신속하게 攻撃하여 武器를 노획하고 차량을 파괴한 뒤에 퇴피한다. 많은 차량이 移動할 때에는 先頭차량과 중간 및 後尾차량을 지뢰로 攻撃하여 進退하지 못하게 파괴한 다음 攻撃한다.

셋째로, 전투부대에 對한 埋伏에 있어서는 可用한 모든 方法을 사용하여 事前에 我軍의 활동상황을 탐색한다. 전투부대가 強하여 공격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게릴라”와 협조하여 소부대로 편성, 분산하여 擾亂행동으로 대항하며, 소규모 전투부대에 對하여서는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兵力을 集結시켜 攻撃을 감행한다.

네째로, 전투용 舟艇에 대한 埋伏의 경우에는 河幅이 좁고 굴곡을 이루고 있는 河川邊에 매복하여, 對岸이 모래로 되어 있거나 승격할 舟艇병력이 上陸가능한 곳에 地雷를 설치하

기도 하고, 또 이동하는 舟艇에 對하여서는 주로 “로케트” 또는 무반동총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 (나) 襲 撃

습격은 分隊급에서 聯隊급에 이르기까지 使用하는 VC의 전형적인 攻擊전법이다. 이 방식은 두가지 基本형태로 區分된다. 奇襲에 依한 것은 습격부대가 방어부대에 比하여 열세한 兵力일 때 取하는데 이 때에는 신속성과 기도비닉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힘에 의한 襲撃은 행동이 시작되는 시간에 따라 다시 細分되는데 日沒後에 감행되는 것은 보통 敵으로 하여금 陣地이탈을 強要하는 것이며 未明에 실시되는 것은 殺傷에 主眼을 두는 것이다. 또 이러한 습격에는 擾亂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我軍을 혼란케 하여 그들의 殺傷지대로 유인하기도 하며 때로는 視界가 制限되거나 惡天候下에서는 陽動을 互用하면서 侵透를 꾀하기도 한다.

### (2) 防 禦

VC의 방어는 我軍의 攻擊과 奇襲 및 埋伏으로 부터 避하는데 主眼을 두고 있다. 後方에 배치된 VC의 경계부대는 主力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追擊하는 我軍을 지연시킨다. 또한 도처에 伏兵을 배치하여 我軍의 前進를 방해하며 번번히 住民들 속에 들어가 正體를 숨기는 것이 일수이다.

VC의 潛據장소는 주로 天然 또는 地下동굴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많다. 이들은 人員과 裝備를 은닉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견고하게 구축된 地下동굴을 가지고 있으며 그 出入口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서 적발 또는 탐지해 내기가 어렵다. 특히 出入口는 주위 환경과 自然物을 利用하여 조화시키고 있다. 家屋의 경우 정원이나 家畜의 우리, 쌓아놓은 짚더미, 울타리, 우물과 집 주위의 도랑이나 뚝 등을 골고루 利用한다.

또한 교묘하게 구축된 洞窟은 便利한 은닉장소로 상당한 시간동안 地下에 머물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洞窟은 많은 굴곡과 총계별로 되어 있으며 換氣구멍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我軍 탐색대에 발간되면 즉시 수류탄이나 연막탄을 入口에 폭발시키고 비상出口를 통하여 退避한다.

뿐만 아니라 VC은 작전지역 전역에서 광범위한 방어진지를 形成하는데 我軍에 依하여 奇襲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陣地로 일단 철수하였다가 夜間공격으로 전환하며 이들의 防禦특징은 상호지원과 중심방어로서 各個兵士는 철저한 위장과 자연적인 은폐 및 엄

제물을 최대한으로 利用한다.

### (3) 夜間 戰鬥

#### (가) 夜間 행동을 위한 準備節次

VC은 夜間행동에 앞서 작전지역에 對한 세밀한 첩보수집과 地形을 분석 研究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可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友軍에 對한 첩보는 地方 세포조직을 통하여 입수하며 얻어진 첩보는 세밀히 분석된다. 이들은 接近路, 撤收路, 또는 友軍의 배치상황과 火器의 위치 및 장애물 등에 관한 자세한 정찰약도를 작성하여 행동을 계획한다.

偵察대원은 정찰부대 요원과 첩보제공자인 지방 “게릴라”로 구성된다. 보통 이들에게 부여되는 任務와 고려될 요소는 接近路和 撤收路 그리고 障礙物과 利用할 수 있는 시설을 비롯하여 주변의 상황과 友軍의 배치상태 및 火力의 위치 등이며 모든 정찰대원은 상황을 숙지하여 각자의 行動을 능동화 한다.

이들의 夜間행동시기는 근거리의 경우에는 20.00를 기준으로 하여 행동을 시작하며 목표 지역이 다음날 02.00까지 도착할 수 없는 거리는 가급적 회피하는데 이는 友軍을 신속히 攻撃한 연후에 그들 基地로 돌아갈 시간의 여유를 고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遠거리를 移動할 경우에는 보통 23.00에 행동을 시작하여 다음날 02.00까지로 하나 상황이 긴박할 때에는 黎明까지 行進을 강행하는데 이러한 行動은 友軍의 추격을 받을 때에 取하는 것이다.

#### (나) 夜間 이동

VC은 이동할 때에 集團을 避하고 分隊단위로 분산하여 分隊長 책임하에 선정된 통로를 따라 이동한다. 移動間 의심스러운 場所를 발견하게 되면 分隊長은 즉각 분대원을 정지시키고 警戒에 임하게 한 뒤에 2~3명을 대동하고 은밀히 接近하여 그 情況을 확인한 然後에 소대장에게 보고한다. 만일 友軍의 潛伏擦를 적발하면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한 뒤에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통칙으로 되어있다.

훈련된 VC 兵士들은 夜間에 1km를 20분에 行軍하며 移動間에 병사간의 거리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앞에 가는 兵士가 보일정도의 거리를 取하며 識別을 위하여 反射物이나 여러가지 포지를 부착한다.

#### (다) 夜間 攻擊

VC은 夜間을 利用하여 我軍을 攻擊하며 달이 없는 음력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의 기간

을 주로 많이 利用한다. 이 기간중 敵은 中隊단위의 夜間攻擊을 敢行한다. 이런 경우에 중대는 火力지원소대와 打撃부대 및 교란부대 그리고 “게릴라”로 편성된다.

火力지원소대는 1m 간격으로 行軍하여 목표 전방 100m 까지 접근하며 논둑이나 堤防을 利用하여 火器를 거치하고 壕를 구축한다. 보통 中隊長 명령에 따라 射擊하며 중대장이 함께 位置한다.

打撃부대는 각 分隊別로 2~3명씩 사격조를 편성하여 개울이나 田畓을 利用하여 가능한 限 목표에 접근한 다음 사격하게 되며, 攪亂부대는 1~2개 분대로 편성하여 我軍을 打撃부대로 유인하는 任務를 담당한다.

#### (4) 特殊戰

VC이 越南 전역에서 적용하는 非正規戰의 특수한 양상 가운데 地雷 및 “부비트랩” 戰術은 가장 주목을 끌만하다.

이와같은 戰法은 敵이 과거 佛印전쟁以後 20여년간 “게릴라”戰을 통하여 각종 폭발물 및 장애물의 제조와 취급기술을 익힌 德澤으로 놀랄만큼 능숙한 面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越南의 特殊한 지형과 유격전을 展開하기에 유리한 狀況속에서 持久戰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利用 가능한 모든 物資를 현지에서 획득, 사용하므로 友軍작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들은 USSR과 中共을 위시한 共產國들이 지원하고 있는 각종 상비를 교묘한 手法으로 模倣 또는 變形하여 使用함은 勿論, 현대과학에 비교가 되지 않는 原始的인 僞裝으로 識別에 곤란을 느끼게 하는 특유한 성능을 발휘케 하여 友軍에게 殺傷과 恐怖 및 신경과민을 조성케 하는데 이들은 地雷를 매설하거나 제거하는 權限이 最下級 단위부대 지휘관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家屋이나 洞窟 등 아무곳에서나 간단한 道具만 갖추면 簡易공장을 만들어 地雷 및 “부비트랩”을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 (가) 地雷

敵은 차량과 선박 및 항공기 등의 裝備 파괴와 人命살상을 목적으로 物體의 접촉과 伏兵의 조정에 依하여 폭발하는 地雷(機雷 포함)를 사용하는데 그 種類는 DH-10 파편지뢰를 비롯하여 그 數가 50여종에 達하는바 이러한 地雷는 주로 友軍의 前方과 側方 및 後方지역과 空輸부대 착륙지대 그리고 上陸해안과 特殊부대의 침투지역을 포함한 광범한 지역에 사용되며 특히 對人 및 對車輛을 標的으로 埋設되는 地雷는 그 폭발위력 및 위험도가 크기와 種類에 따라 다르다.

이地雷 가운데 引繫철선식은 地下에 埋設되거나 地上에 설치되건간에 引力, 순발 및 마찰발화 장치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引繫철선은 기묘하게 잘 위장되어 찾아내기가 어려우며 또한 電氣式 장치 지뢰는 敵이 이를 埋設하고, 음폐된 場所에 埋伏하다가 목표가 나타나면 폭발시킨다. 이 폭발장치는 友軍부대 또는 友軍의 차량에 최대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위치에 다달았을 때 건전지 또는 手動발전기로 폭발시킨다.

또 索引철선식 지뢰의 경우에는 敵의 指令폭발장치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引力 분리장치나 마찰식 발화장치에 연결시키고 음폐된 場所에 잠복하였다가 표적이 埋設 지점에 접근하면 폭발시킨다.

그리고 壓力장치 지뢰는 주로 對人 및 對戰車 지뢰에 사용하며 이 지뢰는 일단 埋設되면 探知하기가 매우 困難하다.

敵은 이러한 여러가지 지뢰들을 大路와 細路에 埋設할 때에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으면 여러가지 기교를 부려 속임수를 쓴다. 그 예를 몇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VC은 흔히 友軍의 보급로를 遮斷하기 위하여 道路上에 구멍을 파놓고 退避한다. 그뒤 友軍이 이 구멍을 적발하여 메우면 VC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 메워진 구멍에地雷를 매설한다.

또 VC은 道路에 여러개의 구멍을 파놓고 그중 몇개의 구멍에만地雷를 埋設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메운다. 그런데 이 방법은 我軍의 지뢰탐지반이 몇개의 구멍을 탐색하여도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探索을 中斷하게끔 하는데 着眼한 欺瞞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地雷가 매설된 것으로 가장하여 어떠한 物件, 혹은 흙 등을 쌓아올려 주의를 그곳으로 끌게하고 그 부근에 실제地雷를 매설한다.

이밖에 水中지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河川상의 각종 선박을 파괴하거나 我軍이 물을 건널만한 깊이의 개천 바닥에 引力式 및 壓力式 또는 기타 폭발장치를 설치하며 때로는 폭발물을 나무토막에 매달아 江上에 띄우기도 하고 혹은 작은 배에 달아매어 水路 중앙으로 흘러 보내기도 한다.

이러하여 표적이 지나갈 때에 폭발되도록 하며 友軍의 舟艇이 배를 수상히 여겨 검색할 때 폭발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敵은 해협에서도 각종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각각 相異한 水深에 따라地雷를 설치하기도 하고 배가 정박하는 항구에 潛入하여 배 밑 부분에 폭발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 (나) “부비트랩”

“부비트랩”(Ecooby Trap)이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物體에 動作을 加하였을 때에 人

命에 損失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즉, 友軍의 작전에 대한 隱匿된 저항수단으로서 아무런 의심 없이 接近하여 부주의한 행동 또는 무관심한 행진중의 상대자에게 손실을 주도록 만들어진 소규모의 장애물을 뜻하는 것이다.

이 “부비트랩”은 人類역사의 시초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VC의 “부비트랩” 사용법과 위장술은 매우 숙달되어 있다는 것이 정평이다. 이 VC의 “부비트랩” 사용법은 간단한 것으로부터 아주 복잡한 장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 폭발성과 비폭발성으로 區分하여 前者는 사용되는 物資의 형태가 수류탄이나 포탄 또는 TNT 등으로서 友軍에게 큰 손실을 주며 後者は 竹槍이나 鐵槍 및 毒화살, 이밖에 첩판 등으로서 友軍의 행동을 제한할뿐만 아니라 보통 以上の 피해를 주나 폭발성 “부비트랩”과 混用할 때에는 그 효과가 매우 크다.

### 1. 폭발성 “부비트랩”

VC은 전투나 태업에 이르기까지 폭발물 “부비트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방법은 극히 간단한 것으로부터 아주 복잡한 장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부비트랩”은 地雷와 같은 발화장치와 信管을 가지며 點火時에도 지뢰와 같은 方法으로 사용한다. 我軍을 地雷지대로 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VC의 유인術策에도 역시 이 “부비트랩”이 사용된다.

敵은 이와같은 “부비트랩”을 地雷와 함께 設置하는 경우가 많고 建物の 出入門과 창문 또는 각종 家具를 비롯하여 걸음으로 보기에 兵士들의 好奇心을 자극시키는 物件 및 생활필수품에 장치한다. 뿐만 아니라 敵은 友軍의 機動路나 接近路 및 오솔길이나 나무가지 등에 설치하거나 장치하여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 2. 비폭발성 “부비트랩”

이 비폭발성 “부비트랩”도 地雷와 비슷한 方法에 依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設置장소도 동일하다. 이 “부비트랩”은 원칙적으로 人員을 대상으로 設置하며 여러가지 形態를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資材는 現地물자나 자연환경을 利用하여 음해되고 있는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부비트랩”은 위장하기 쉬운 지대에서 흔히 지뢰와 함께 사용하는데 큰길이나 오솔길을 따라 移動하는 行軍부대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개활지나 흙탕으로 된 小路는 파진 구멍을 위장시켜 주며 우거진 초목은 많은 함정을 가리워 준다.



越南戰에서 사용되는 VC의 “부리트랩”의 量이나 型(種類)에는 그 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地雷 壓力式이나 引力式 및 電氣式 그리고 壓力순발식 등이 많이 利用되고 있다.

## 4. USA의 越南戰 介入과 初期戰略

### 가. 越南戰 介入

美군사고문단이 越南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韓國전쟁이 발발한지 4개월 뒤인 1950년 10월 10일이다. Francis G. Brink 준장을 단장으로 한 美군사고문단(US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 Indochina)은 최초 越南을 비롯하여 LAOS 와 CAMBODIA 가 共產주의자의 손에 넘어가는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努力하고 있는 FRANCE 軍을 지원하기 위한것이 주임무로 되어 있었는데 1954년 2월 12일에 John W. O. Daniel 중장이 團長으로 부임하면서 이 기구는 US Military Assistance Advisory Group Vietnam 으로 변경되어 Geneva 휴전협정 以後인 同年 11월부터는 人員도 점차 증강되었으며 越南정부군에 對한 訓練을 本格化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北部의 越盟은 1954년에서 1958년까지 그들의 共產주의 체제정비와 경제개혁 등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南部越南내에서의 “게릴라”활동이나 “테러”에는 크게 손을 쓰지 못하다가 1959년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들의 폭력에 依한 “테러”행위가 고개를 틀기시작하더니 1960年 初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平均 10名 정도의 越南지방 官리가 살해되었으며 Mekong Delta 지역에서는 밤에는 VC이 支配하고 낮에는 政府軍이 장악하는 奇現象이 벌어졌다. 또한 1961년 7월 8일에는 Frederick E. Nolting 주월 美大使의 승용차가 Saigon 市內의 Pasture 거리를 지날때 괴한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에 그치고 만 事件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 事件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그 뒤 美國은 400명의 Green Berets 특수부대를 越南에 密派한 것을 비롯하여 고문단 人員을 漸增하였는바 이는 당시 Khrushchev 의 『USSR 은 全 세계의 민족해방전선을 뒷받침 하겠다. (1961. 1. 16)』는 발언을 하나의 挑戰으로 간주하는 한편 世界도처에서 확대 一路에 있는 左傾된 民族解放 세력을 막기 위하여 核戰爭과 局地戰 및 特殊戰에 柔軟하게 對應하겠다는 이른바 「柔軟戰略」에 立脚하여 創設되고 非正規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이 특수부대를 投入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본 Kennedy 대통령의 決斷에 依하여 취하여진 것이다.

그 뒤 Kennedy 대통령이 暗殺되고 그를 계승한 Johnson 대통령은 戰爭확대가 아니면 撤退하는 양자택일을 해야할 입장에 있었는데 당시 美國內의 一角에서는 越南戰에 對한 反戰 여론이 머리를 돌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冷戰의 기류가 뿌리박고 있던 때이므로 아직도 反戰여론이 크게 일지 않은 反面에 越南에서의 美軍의 活動은 越南軍의 비전투지원을 담당하는 “헬리콥터”부대를 비롯한 越南상공에 대한 감시 및 정찰과 沿岸에 대한 순찰 등 그 활동범위와 영역이 증가되어 共產勢力을 制壓하는데 奏功하고 있을 때였다.

이런 漸進추세에 있던중 1964년 8월 2일에 Ton Kin 灣 公海上을 遊戈하던 美구축함 Maddox 號가 越盟 어뢰정 3隻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이를 뒤인 4일에 또다시 同함정과 Tuerjoy 호가 越盟 어뢰정에 依하여 공격을 받자 Johnson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에 항공모함 Constellation 호와 Ticonderoga 호를 이 해역으로 出動케 하는 한편 『越盟의 지정된 군사 목표물을 攻撃하라』는 命命을 美태평양함대사령부에 하달하였다.

이에 두 航空母艦에서 발진한 A-4 Skyhawks 機와 F-4 Phantom 機들은 一齊히 越盟上空으로 출격하여 Vinh 지역의 유류저장소 90%를 파괴하는 한편 越盟 어뢰정 25隻을 격침하였다.

이와 함께 Johnson 대통령은 美議會에 대하여 戰時권한을 요청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決議案이 채택됨으로써 戰爭의 擴大는 표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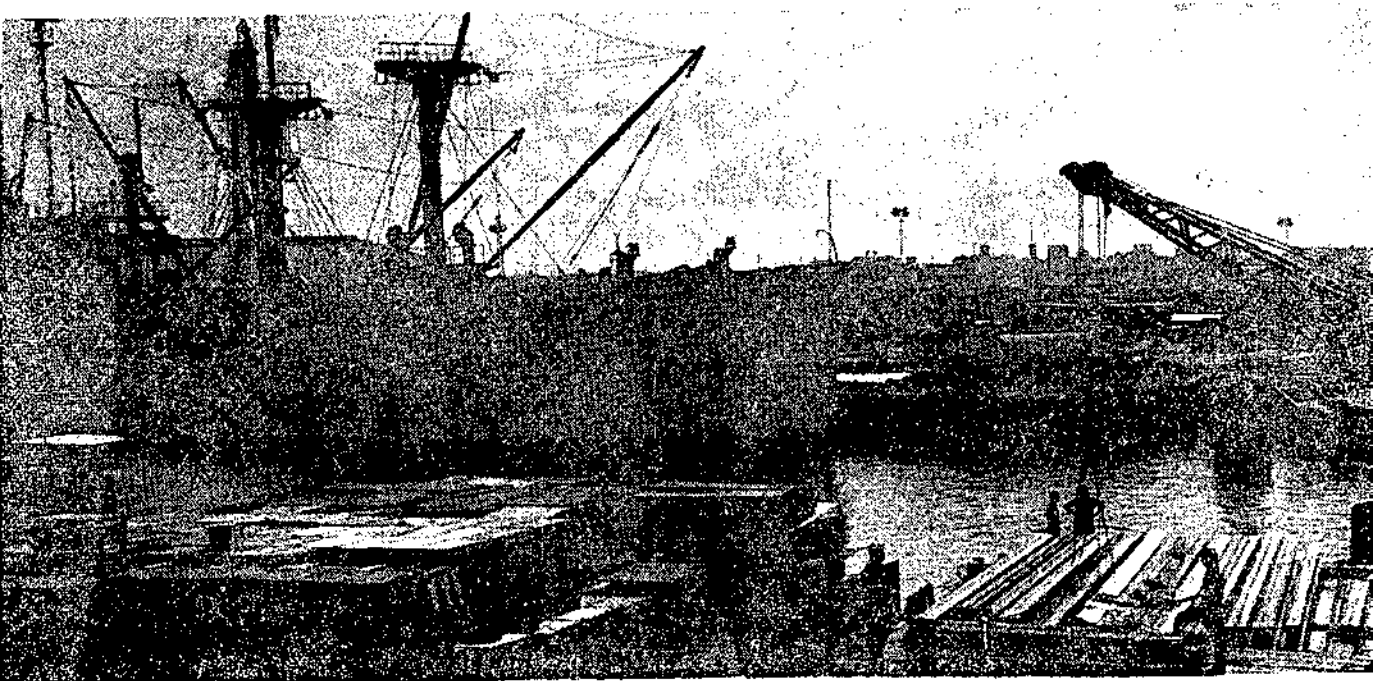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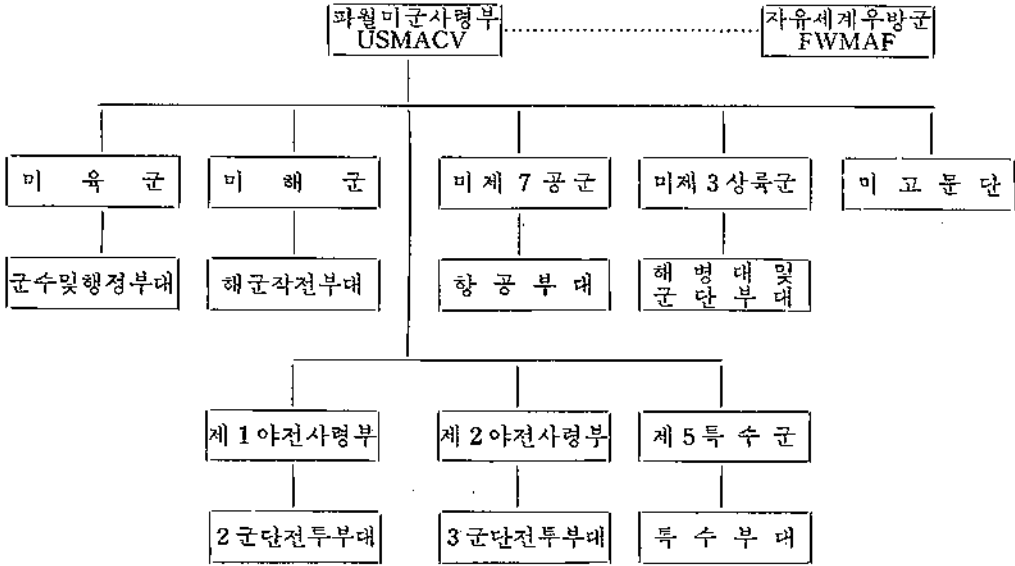
美군사원조고문단은 이미 7월 20일부로 William C. Westmoreland 대장 指揮下에 美軍事원조사령부(US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로 改編되었으며 이에따라 중전의 군사원조고문단은 물론, 새로 展開되는 전투부대가 US MAC-V 휘하에 들어갔다.

美軍의 첫 전투부대는 1965년 3월 5일에 美해병제3사단 제9연대의 제3대대가 Da Nang 지역에 상륙한 것을 위시하여 同年 5월 3일에는 美제173공수여단이 또한 7월 12일에는 美제1사단 제1여단이, 그리고 7월 29일에는 美제101공수사단 제1여단이 속속 越南으로 進出하였으며, 美地上軍 운용의 새로운 작전개념하에 訓練 및 裝備된 “헬리콥터” 기동부대인 美제1공중기갑사단(1st Cavalry Division(Airmobile))이 本土의 Fort Benning 으로부터 越南의 中部高原인 An Khe—Pleiku 지역에 投入됨으로써 전투병력의 증강은 本格化되었다. 이에 앞서 美제7함대는 3월 28일부터 越南해안에 對한 감시작전에 착수하였으며 이리하여 同年 12월 29일에 美제25보병사단이 展開된 것을 포함하여 1966년 5월 1일 現在 美軍의 兵力은 도합

252,000명에 達하였다.

派越美軍機構圖

범례 — 지휘계통  
 ..... 협조계통



美軍의 軍需물자가 越南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 나. 初期 戰略

Johnson 대통령은 그의 1965年度 年頭敎書에서 USA는 越南을 지킬 것이라는 단호한 決意를 표명하였는바 USA의 對越南 전략의 목표는 어디까지라도 中共의 진출을 막고 더 나아가 共產주의의 팽창 내지 武力침략을 저지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戰略배경에는 USA가 東南亞를 상실하는 경우 太平洋에서의 戰略체계가 弱화됨은 勿論, 그들이 約束한 自由우방의 弱少國을 보호한다는 大義名分과 신뢰를 저버리는 結果가 되며 이와 더불어 세계도처에서 유사한 사태가 惹起될 위험성이 크다는 배려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USA는 越南戰에 USSR이 적접 介入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가정아래 이 戰爭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되 中共에 대하여서는 越南戰에 介入하는 경우 韓國戰爭때와 같은 所謂「聖域」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警告하여 이들의 出兵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USA自身도 越南戰으로 말미암은 苦衷이 매우 컸는바 그들의 國力으로 보아 越南戰을 이끌어 나가는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끝을 내다볼 수 없는 戰爭樣相에 엄청난 人命損失과 戰費消耗를 내면서 期約없는 불작난을 持續해 나갈수도 없는 일이고 越南戰을 계기로 보다 큰 戰禍가 誘發될 위험성을 내다보지 않을수 없으며, 한편으로 國內에서는 一部 지식인들의 反戰여론이 야기되고 국제적으로는 U. Thant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非同盟國들이 休戰과 北爆중지를 促求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情況下에서 Johnson 대통령은 和戰양면정책을 取하여 1965년 4월 7일에 「越南 문제의 무조건 협상을 提議하고 이 協商이 成功的으로 결말을 보게 될 경우 越盟을 포함한 東南亞諸國의 개발을 위하여 10億 \$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어 7월 28일에는 越南문제의 平和的 해결을 위한 UN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越盟은 그들의 共產化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平和 해결 4개원칙」에 관한 主張을 고집함으로써 협상의 進展을 보지 못한채 USA는 1966년 2월 7일을 期하여 擴爆을 개시, 勝利를 얻을때까지 必要한 모든 代價를 무릅쓰고라도 初志를 貫徹할 것을 行動으로써 立證하였다.

USA는 이와같은 名分下에 감행되는 北爆이 국제법상 正當한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이는 越盟이 Geneva 협정을 위반하고 越南의 安全을 위협하는 限, 이를 阻止하기 위하여 取하는 正當한 행위로서 계속할 것이지만 만일 越盟이 同협정을 준수하여 越南침략을 中止한

다면 그들도 이러한 北爆을 中止 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같이 USA가 택한 越南戰에 대한 강경정책은 어디까지라도 和平실현의 촉진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단계적인 擴戰으로 이를 打診하여 나간다는데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겠다. 그런데 USA가 「戰爭 주도권의 장악」이라는 전쟁개념 아래 세가지로 요약된 戰略의 形態는 첫째가 據點의 確保요, 둘째가 北爆의 擴大요, 셋째가 索敵擊滅이었으니 다음에 이것을 詳述하기로 한다.

### (1) 據點의 確保

美軍의 據點 확보 方針은 共產軍의 策동과 술책을 억제하는 최선의 保障策으로 고려되었



美軍이 "벌리콧터"로 越南軍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는데 주로 海岸지역에 連하여 있는 주요 基地를 근거로 하여 그 지역을 점차 확대코자 함에 있었다.

이에 따라 美軍의 전투부대들은 越南에 進出하는대로 이 基地를 근거로 하여 防禦와 攻擊의 二重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地上과 空軍의 據點은 陸路와 鐵道가 복구되지 아니한 狀況下에서 주요 수송수단의 역할을 담당함은 勿論이요, 비행장 수비의 一役을 맡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 展開하는 전투부대들은 風土에 익숙하는대로 基地를 벗어나 「索敵擊滅」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주요 據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Phu Bai** : Hue 市로부터 北쪽으로 10miles 떨어진 北端의 海岸기지로써 越南의 옛 都邑地이며 共產軍의 政治的 구미를 볼구거한 대상이다. 非武裝地帶에서 南쪽으로 50miles 되는 이 지역에 美해병대 1개대대를 配置하였는데 이들은 최초 비행장시설을 경계하고, 越盟의 “레이더”를 방해하며 共產軍의 군사통신을 도청하는 美軍의 전자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나) **Da Nang** : 越南 제2의 都市인 市外廓에 자리잡은 이 비행장은 越盟을 強打하고 越南內의 지상전투를 지원하기 위한 戰鬥목적기들이 離着陸하며 이밖에 해상보급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잠재적 교두보인 항만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美해병 제3상륙군이 배치되었다.

(다) **Chu Lai** : Da Nang 市 南쪽의 海岸線上에 있는 이 基地는 砂丘와 벌판위에 놓여져 있다. 美軍은 이 地域에 “알미늄”판 활주로를 깔고 越盟에 對하여 空襲을 敢行하고 지역주변에서 暗躍하는 VC을 攻擊할 수 있는 보조기지로 使用하였는데 여기로부터 西쪽 및 南쪽은 Quang Ngai의 “게릴라”소굴로 이름이 나있다. 여기에는 증강된 美해병 1개연대가 上陸하여 基地주변에 展開하였다.

(라) **Qui Nhon** : 越南 제2군단 전술지역의 해안도시로서 최초로 美해병1개대대와 陸軍수송1개중대가 陣地를 점령하였는데 1965년 10월에 韓國軍수도사단이 Binh Dinh 省의 전술책임지역을 引受하였다. 여기에 있는 漁港은 中部越南의 대부분을 감제하는 高原으로 통하는 주요 陸上路인 제19번道路가 시작되는 해안으로서 FRANCE나 越南 및 USA의 군사전략가들은 한결같이 西部高原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지적하였는 바 印支戰 당시 FRANCE軍 제100전투단이 이 道路에 連하여 참패를 당한바 있다.

(마) **Nha Trang** : Qui Nhon 南쪽으로 240km 떨어진 이 港口도시는 東海岸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鐵道 및 陸路의 幹線과 연결되어 軍需기지로 定하여졌는바 美제1보병사단

의 1개대대가 基地를 방어하였으며 최초 美地上전부대의 작전을 통제 및 지휘하는 美軍 기동부대(US Task Force Alfa)의 사령부가 위치하였다.

(바) **Cam Ranh** : Nha Trang市 바로 南쪽에 자리잡은 이 半島는 ASIA에 있어서 “요꼬하마(橫濱)”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深海 자연항구로서 손꼽히는바 이 지역의 砂丘를 밀어 부쳐 비행장 基地를 건설하는 한편 埠頭는 탄약과 연료 및 보급품의 집적소로서 活用되도록 건설되었다. 여기에는 美제 101공수사단 제1여단 兵力이 배치되었다가 1965년 10월에 韓國해병 제2여단이 基地경계를 위하여 陣地를 引受하였다.

(사) **Vung Tau** : 海岸기지 가운데에서 가장 南端에 위치하고 있는 이 基地는 首都 Saigon의 門戶로서 美제 173공수여단 예하부대가 배치되었다. 이곳은 美육군의 軍需 및 항공정비창과 海軍의 합선수리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Saigon 南쪽의 전지역을 위한 重要지원기지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1964년 9월 派越된 韓國軍의 第1移動外科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 **Bien Hoa** : Vung Tau로부터 江을 따라 올라가면 거대한 空軍기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주로 越南공군을 위한 基地이기도 하다. 한편 美전략공군사령부에 의하여 유동적인 작전을 포함한 美軍의 주요 항공기지로 활용되었다. 이곳은 海岸이 아닌 沼澤地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共產軍의 出沒이 잦았는바 美제 1보병사단 제2여단이 基地 外廓의 경비를 맡았으며 西쪽 外廓지역인 Di An에는 韓國군사원조단(建設지원단의 前身)이 자리잡았다.

(자) **Tan Son Nhut** : Saigon市 外廓에 있는 비행장 基地로서 국제공항을 겸하였다. 美·越軍부대 본부가 여기에 자리잡았으며 越南에 있어서 美軍 활동의 中心地 역할을 하였다. 美軍의 항공기 臺數가 300을 넘었으며 민간航空機를 포함하여 一日 平均 1,000회 이상의 離着陸을 기록하는 세계에서 가장 분명한 비행장의 하나로 꼽혔다. 또한 여기에는 美공군과 육군항공대 및 공병 그리고 군수지원 부대의 본부와 사령부 등이 위치하였다.

## (2) 北爆의 擴大

美軍의 北爆은 Ton kin 灣 사태 以後 1964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점차 擴大一路에 있었는데 USA의 越南戰 강경론자 및 一線지휘관들은 戰爭이론상 聖域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敵이 戰意를 잃을때까지 하늘과 바다와 지상에서 계속 戰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것만이 당면과제임을 강조하고 특히 敵의 戰爭수행 형식이 Ho Chi Minh 통로를 利用하여 증강된 兵

력과 物資를 南으로 침투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越盟에 對하여 그들의 전쟁지원을 중단하도록 끈기있는 壓力을 加하기 위하여 北爆을 擴大하여야 한다는 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즉, 1966년 上半期中 南下된 敵兵力과 物資는 그 前년에 比하여 兵力은 120%, 物資는 150%로 각각 증가된 추세를 보였다.

本是, 北爆의 목적은 越盟으로 하여금 平和협상에 응하도록 壓力을 加하는데 더 큰 比重을 두고 있었지만 그밖에 부수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北爆의 성과에 대하여서는 그 견해가 반드시 긍정적인것만은 아니나 일단은 共產軍의 戰力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은 勿論이요; 이와같은 結果는 友軍의 損失을 減少시키는 이득도 뒤따랐다.

이같은 北爆은 Guam島에서 出擊하는 B-52 중폭격기를 비롯하여 주로 美제7함대의 艦載機와 越南內의 空軍 및 THAILAND의 空軍기지에서 出擊하는 美軍機로써 斷行되었는 바 1966년 6월 현재 1日 延出擊회수는 400회 이상을 기록하였다.

美軍의 北爆 초기의 목표는 敵의 部隊 집결지와 武器탄약창을 비롯하여 大小의 軍事시설과 油類저장소 그리고 Rada Site와 Missile Site 및 발전시설 등이었는데 1965년 2월 以後부터는 道路와 橋梁 및 鐵道와 運河등이 포함되었으며 1966년 6월25일부터는 Hanoi와 Haiphong 등 소위 聖域 주변의 貯油所와 Ton kin 灣의 敵 海상세력까지 망라함으로써, 越南戰을 새로운 局面으로 이끌어 갔다. 이러한 北爆확대는 Ho Chi Minh 정권을 打倒한다든가 都市와 그 人口를 灰燼化하거나 또는 殺傷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越盟의 經濟활동을 마비시키는데 있었던 것도 아닌 點에서 制限의 폭격 영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 (3) 索敵 擊滅

1965年度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據點확보에 주력하던 美軍은 전투부대의 본격적인 增派와 더불어 이해 後半期부터는 索敵擊滅(Search and Destroy)戰으로 전환하였으며 다음해로 접어들어서는 대규모의 압박섬멸전으로 轉換하였다.

美軍의 초기전술은 VC의 기습을 받는대로 효율적인 방어와 격퇴에 치중하였으나 敵의 “先打一退散(Hit and Run)”하는 戰法에 말려드는 결과가 되어 지역확보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자 대병력을 投入하여 山岳지역에서 VC과의 決戰도 不辭한다는 작전개념아래 空輸기동력을 主動으로 하는 先制攻擊을 展開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작전배경에는 “정글”지역에 共產軍부대를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그들의 勢力을 척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은거지를 中心으로 住民에게 “테러”를 加하고 強制로 住民을 징발하여 兵力보충을 도모하



는 등 그들의 책동을 진압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敵의 基地를 공격하면 그들을 友軍의 유리한 전투지대로 끌어내어 섬멸할 기회를 捕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空中기동력의 우수성은 오히려 험악한 山岳이 지니고 있는 障礙를 극복할 수 있다는 作戰概念에 그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와같은 美軍의 적극개입과 기동력을 앞세운 대부대에 의한 索出, 擊滅戰은 특히 1965年度 10월에 中部高原지대에서의 Plei Me와 Ia Drang 전투에서 敵의 대규모 병력을 과감하게 무찌름으로써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는데 과거 印支戰 당시 FRANCE軍을 제압하였던 越盟 정예부대가 이 전투에서 참패한 以來 급기야는 그 다음해인 1966年度の 그들의 雨期공세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成果를 거두었다.

## 5. 越南軍의 現況

### 가. 越南軍의 成長過程

제2차 세계대전이 終熄된 다음 FRANCE는 인도지나의 소유권을 主張하면서 越南으로 再進駐하였다. 얼마되지 않아 Ho Chi Minh軍과의 충돌이 벌어지자 同軍에 대항하는 越南人 傭兵부대가 필요함을 認識하고 1946년 6월에 越南人으로 編成된 3개소대를 처음으로 創設하였는바 이것이 越南軍의 母體가 되었다. 그 以後 FRANCE는 1949년에 Bao Dai 皇帝를 王位에 올려놓자 前記 越南人 고용부대는 名目上 독립국가의 軍隊가 되어 3개대대로 증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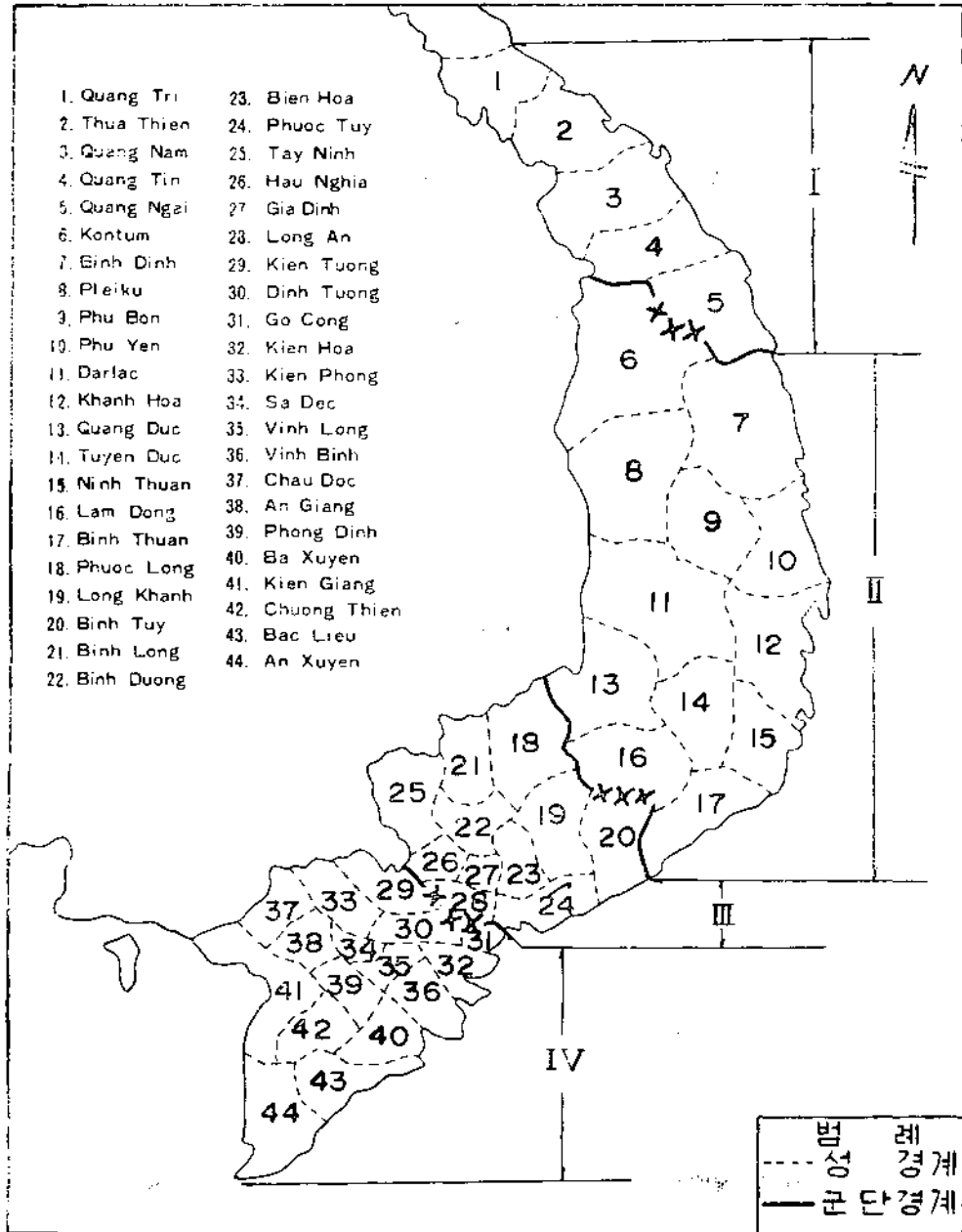
1952년부터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 同軍은 1954年 Geneva 휴전협정 당시에 이르자 그 兵力이 45,000명으로 늘어나 3개연대와 數개의 독립부대로 增編되었다. 이리하여 상기 3개연대 전투단중 1개 전투단은 Hanoi에, 또 다른 전투단은 Hue에, 그리고 나머지 1개 전투단은 Saigon에 각각 駐屯하여 FRANCE軍과 함께 Ho Chi Minh軍을 상대로 전투하다가 休戰이 되자 Hanoi 지역의 전투단은 北緯 17度線 이남으로 철수하였으며 1955年 Ngo Dinh Diem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계속 兵力을 증강하여 나가다가 1966年 初에는 그 兵力이 도합 590,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 나. 組織과 編成

越南軍은 美軍專고문단의 지도 아래 훈련되고 육성되었으며 1964年 以後 부터는 중전의

統一성이 없던 부대들이 軍團, 師團, 각 독립부대 그리고 陸, 海, 空軍 및 地方軍과 民兵 隊로 편성되었다.

狀況圖 제 2 호 越南省 및 我軍戰術區域圖



軍의 組織은 單一編制로서 陸·海·空軍이 총사령관인 合同參謀회의 의장의 직접 指揮下에 놓여졌으며 陸軍의 각 軍團사령관과 海, 空軍 사령관은 자기 독자적인 指揮權을 가지고 휘하 부대를 指揮하였다.

(1) 地上軍: 越南軍은 군사적인 면에서 4개군단 전술책임지역으로 區分하고 있는바 제 1군단은 北쪽으로 Da Nang을 中心으로 5개 省을 管장하고 있으며 제2군단은 Pleiku를 中心으로 11개 省을, 또 제3군단은 Saigon을 中心으로 11개 省을, 그리고 제4군단은 Can Tho를 中心으로 16개 省을 管장하고 있다.

이 4개군단 예하에는 10개의 보병사단과 機動예비대인 1개 공수여단, 그리고 1개 해병여단과 4개의 특수대대로 編成되었다.

이밖에 非正規軍으로서 地方軍과 民兵隊가 있는데 地方軍(Regional Forces)은 省 전역 어디에나 移動, 배치할 수 있는 각 省長 指揮하에 있는 部隊이고, 民兵隊(Popular Forces)는 자기 거주지인 부락과 面을 防衛하는 郡守指揮하의 部隊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중대급 규모로 편성된 民間人 비정규 특수임무부대(CIDG)가 있는데 이는 1960년에 USA의 중앙정보국(CIA)에 依하여 창설되고, 위에 美軍 특수부대에 編入되어 國境 부근의 요새화 된 基地에 배치되어 국경 감시를 주임무로 하였다.

(2) 海軍: 작전부대인 海上부대와 河川부대 및 海안시설부대로 구성 되었으며, 海상부대는 수송선인 LST를 비롯하여 護送船과 掃海艇을 保有하며 河川부대는 순찰선을, 그리고 海안시설부대는 보급단과 造船所 등의 支援부시를 각각 두었다.

(3) 空軍: 5개의 전술비행단으로 構成되었으며 이들의 主要 基地는 Tan Son Nhut를 비롯하여 Bien Hoa와 Da Nang 및 Can Tho에 자리잡고 있었다.

#### 다. 兵力과 裝備

越南軍은 1964年初에 192,000명에서 1966年 6月30日 現在, 육군 277,643명, 海軍 13,527명, 공군 16,426명, 海병 6,827명, 지방군 및 民兵隊 272,851명으로 總합 587,000명 수준에 達하였다. 裝備로서는 地上軍은 105mm 내지 155mm 曲射砲를 비롯하여 81mm 및 4.2'' 중박격포와 57mm 내지 75mm 무반동총의 重火器를 保有하고 개인 기본火器는 M1과 CAR 소총이다.

또 海軍은 LST 3隻을 비롯하여 掃海艇 및 巡察船 등 모두 250隻에 總 33,850ton이었다.

이밖에 공군은 A—E(Sky Raider)機를 비롯하여 Jet 연습기인 T—28機 등 각종 전투기 140대와 수송기 30대, 기타 180대로 도합 350대에 달하였다. 그러나 越南戰의 擴大 推移와 越南軍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前記한 兵力과 裝備는 점차로 증가일로에 있었다.

### 라. 初期 作戰

1955年 10月 26日 Ngo Dinh Diem이 이끄는 越南공화국이 출범하면서 四大사회악을 果敢하게 제거하여 국민의 환영을 받았으나 1958년부터는 族閥독재체제로 전락하여 점차 부패하여지고 국민으로 부터의 信任을 상실하더니 1963年 11月 1日 Duong Van Minh소장의 軍事 “쿠데타”로 말미암아 정권이 넘어진 다음 마치 春秋戰國시대의 모양으로 7회에 걸친 軍部 “쿠데타”의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軍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病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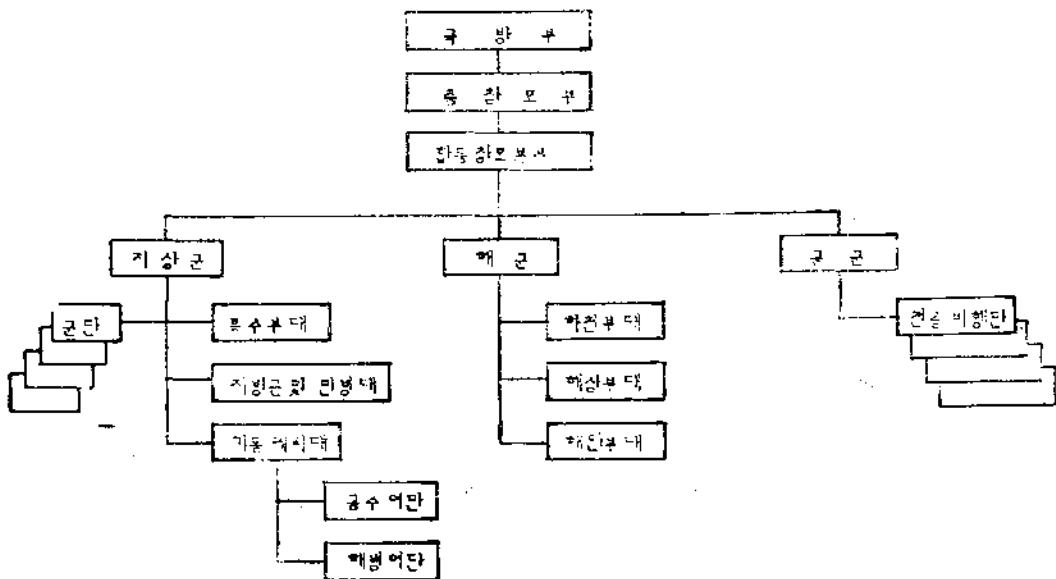
越南軍 장교들은 軍隊를 指揮하여 戰爭을 수행하는 以外에 官公署의 長을 지내면서 國民을 統治하며 越南 전역의 省長은 領官장교가, 또 郡守級은 尉官장교가 보직되었는데 이들 地方의 行政官署長들은 국민들에 對하여 權力을 남용하였으며 “쿠데타”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때마다 권력을 더욱 휘둘러 국민에게 봉사하는 입장보다도 국민 위에 君臨하여 支配하는 立場에 있기가 일쑤여서 국민들로부터 敬遠되는 傾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兵士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國內戰에서 士氣가 떨어져 근무이탈자가 속출하였는데 1964年 7月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戰死者가 2,020명인데 比하여 부대근무이탈자가 8,550명에 이르던 것이 1965年 1월부터 6월까지의 같은 기간중에는 전사자가 2,720명인데 부대근무이탈자는 17,970명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1964年으로부터 1965年의 기간중 越南 정부군이 敵과의 對戰에서 勝利한 例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도리어 慘敗의 戰例가 여러차례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例를 들자면 1964年 10月 初부터 12月 下旬 사이에 CAMBODIA 국경 부근에 있던 VC 主力인 C—56, 58 兩연대가 海岸지대의 Phuoc Tuy 省으로 원거리 移動을 敢行한끝에 越盟에서 避難하여 집단마을(戰略村)을 形成한 Binh Gia 부락을 一時에 유린하였다. 이 사태에 接하자 越南 특공부대가 이 마을을 탈환코자 延 3日間の 攻撃을 폈으나 여의치 않자 越南해병대대가 증원되었다. 그러자 共產軍은 인근의 고무나무 농원과 “정글” 지역으로 철수하여 사전에 그들이 마련해 놓은 陣地로 숨어들어간 다음 노출된 越南軍을 생존자 하나도 없을만큼 완전히 섬멸하고 말았다. 이듬해인 1965年 6月 10日에는 Saigon 北東쪽 Phuoc Long

省의 Dong Xoai 지역에서 越南軍중 가장 훈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공수여단의 1개대대가 VC 2개연대에 의하여 유린된 民間 비정규 특수임무부대(CIDG) 기지를 탈환코자 投入되었다가 前記「Binh Gia 비극」과 똑같은 치명적인 打撃을 받았다. 또 같은 기간중에 규모는 작지만 Quang Ngai—Kien Hoa—Ba Xuyen— Binh Long—Binh Duong 등지에서 여러차례 치명적인 敗北의 苦盃를 마셨으니 실로 1964年 8월부터 1965年 6월까지의 기간은 마치 1949年の 中國대륙에서 數的으로는 우세한 國府軍이 戰意를 잃고 中共軍에 쫓겨 揚子江 以南으로 敗退의 달음질을 치고 있던 것과 흡사한 狀況의 연속이었다.

越南軍이 兵力面에서나 裝備面에서 敵에 比하여 훨씬 우세하였으나 이와같이 여러작전마다 連敗를 면치 못한것은 전투기술의 결함에 있는것보다는 軍事“쿠데타”의 連發로 軍의 紀綱이 해이하여져 이로 말미암은 內的인 不安요소로 精神戰力이 弱화된 결과 여기에 영향을 입은 住民들의 軍에 對한 非協調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니 『“게릴라”는 결코 전쟁에서 홀로 勝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相敵을 潰滅시킨다.』라는 敎訓을 실증한 것이기도하다.

越 南 軍 의 現 況 圖



## 6. 友邦軍의 參戰과 主要作戰

### 가. 友邦軍의 參戰

越南軍에 대한 군사지원은 최초 USA가 적극 參戰하여 越南軍 재건에 힘을 기울였으나 정부군이 혼미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USA는 自由방위국과 더불어 地上軍 전투부대를 최대한으로 投入하여 越南軍이 전투력을 회복하도록 시간여유를 두고, 聯合軍이 主力이 되어 VC 섬멸에 박차를 加하는 것이 상책일 것으로 보고 越南정부와 더불어 友邦國에 對하여 多角的인 원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友邦國들 가운데 越南을 돕고자 결정을 본 국가는 1966年 6月 現在 41개국에 이르렀는데 이중 군사 원조국가는 USA를 포함한 7개국이며 이밖에 非軍事원조 국가는 31개국에 達하였다.

여기에 비군사 원조국을 제외한 軍事원조국가의 參戰 및 支援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韓國軍 : USA 다음으로 가장 많은 兵力을 파병한 韓國은 1964年 9월에 移動의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요원 140명을 파견한데 뒤이어 1965年 2월에 韓國군사원조단(건설지원부대) 병력 2,000명을 파병하였으며 同年 10월에 전투부대인 首都사단과 해병제2여단 및 이를 지원하는 군수지원부대를 증파하였으며 1966年 9월에는 제9사단을 비롯한 해군수송진대 및 공군지원단이 추가 파병되었다.

(2) AUSTRALIA 軍 : 1965年 5월에 사령부를 포함한 보병 1개대대와 지원부대 등 1,000명이 파견되었으며 同年 8월에는 수송기 6대를 포함한 공군 85명이 지원되고 9월에는 전투 지원부대 병력 350명이 증파된데 이어 다음해 4월에는 지원부대를 포함한 보병 2개대대가 파병되었다.

(3) NEW ZEALAND 軍 : 1965年 7월에 1개포병중대 병력 156명을 파병, AUSTRALIA 軍과 함께 작전에 參加하였다.

(4) THAILAND 軍 : 1964年 9월에 공군수송기 요원 17명을 파견하였으며 이어 전투부대인 사단급 병력을 증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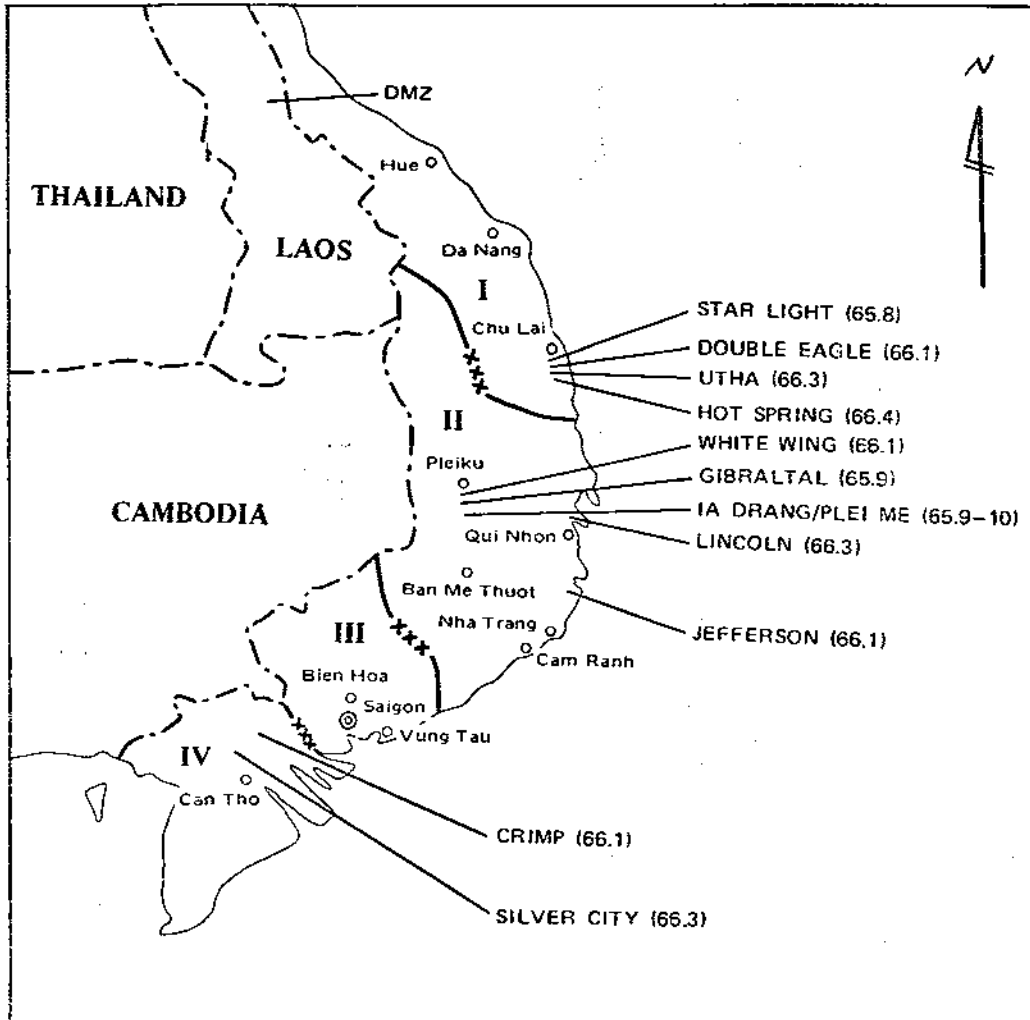
(5) PHILIPPINES 軍 : 1965年 3월에 4개 陸軍의료반을, 또 4월에는 심리전반을 파견하였으며 다음해 9월에는 2,000명 규모의 대민건설지원부대를 파견하였다.

(6) 自由中國軍 : 1964年 10월에 심리전단 요원 20명을 파병하여 越南軍에 대한 “게릴라” 전 교육 및 교문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聯合軍의 主要作戰

1965年 3月 8일에 美軍의 첫 地上 전투부대인 美해병제3사단 제9연대의 선발부대가 越南에 上陸하고 同月 28일에 美제7艦隊가 越南해안에 대한 哨戒임무를 담당하면서 부터 美軍

狀況圖 제 3 호 聯合軍의 主要作戰





越南戰에 參戰한 自由友邦軍

의 전투부대가 계속 增派되었는바 期間中 主要부대로서는 前記 美해병 제3사단을 비롯하여 제173공수여단과 제1보병사단 그리고 제101공수사단과 제1공중기갑사단 및 제25보병사단이었으며 이 밖에 友邦軍으로서 1965年 6月 2日에 AUSTRALIA軍부대의 선발대가, 또 7月 21日에는 NEW ZEALAND軍 포병대가 각각 派越되었으며 韓國軍은 해병제2여단(靑龍부대)이 10月 9日에 또 首都사단(猛虎부대)이 同月 22日에 越南에 到着하였다.

이와같이 聯合軍은 兵力증강과 더불어 主要 基地를 確保한 다음, 이해 下半期 부터 自由 越南 정부의 통제지역 확장이라는 당면과제를 위하여 共產軍에 대한 섬멸전을 展開하기 시작하였는데 主要작전 명칭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STAR LIGHT** 작전 : 美軍이 越南戰에 參戰한 以來 첫 전투로서 越南 北部지역인 Quang Ngai省 Chu Lai에 上陸한 美해병제3사단 제9연대(-)가 1965年 8月 17日에 上陸用 舟艇과 “헬리콥터”를 利用하여 同基地 南쪽의 VC 소굴로 알려진 Batangan 반도 및 內陸의 山岳지대에 奇襲상륙작전을 展開하여 VC 700명을 사살함으로써 縮戰을 장식하였다.

(2) **GIBRALTAL** 작전 : 9月 28일부터 3일간에 걸쳐, 美제1공중기갑사단의 An Khe 지역 배치를 위하여 美제101공수사단 제1여단이 An Khe—Pleiku 지역 주변에 출몰하는 VC를 격멸한 작전으로서 共產軍 226명을 사살하였다.



(3) **IA DRANG/PLEI ME** 작전 : 美제1공중기갑사단이 An Khe에 進出하여 본부基地를 건설하던중 越盟軍 3개연대 병력 6,000명이 Pleiku 南西쪽의 “정글”지대에 集結하면서 이 가운데 1개연대가 Plei Me 부근의 民間비정규 특수임무부대(CIDG)를 奇襲코자 계획하였다. 이는 敵이 이 특수임무부대를 유린한 다음, Pleiku市를 장악하고 이어 여세를 몰아 제 19번 道路를 따라 海岸까지 攻路하려던 兇計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에 10月末에서 11月初에 이르는 2週間に 걸쳐 美제1공중기갑사단의 1개여단이 Plei Me 지역을 탐색한 결과 敵의 大兵力이 Ia Drang 계곡에 몰려들고 있음을 확인하자 1개대대 병력을 “헬리콥터”로 敵陣에 空中기동으로 投入하여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B-52 중폭격기가 美地上전투부대를 지원하는 첫 先例를 기록하면서 도합 1,300명을 사살하였는데 殘黨은 CAMBODIA 국경선을 넘어 퇴각하였으며 美軍은 300명의 전사자를 내었다.

(4) **CRIMP** 작전 : 1966年 1월에 美제173공수여단과 AUSTRALIA군연대 제1대대가 CAMBODIA 국경선 부근인 鐵의 三角地에서 VC 2개대대 규모를 섬멸하기 위하여 空中기동작전을 展開하여 共産軍 400명을 사살하였다.



Bong Son 南쪽에 美空軍이 폭격하고 있다

(5) **WHITE WING** 작전 : 1월 25일에 美제1공중기갑사단의 1개여단과 韓國軍 首郜사단의 2개대대 및 越南공수단이 Binh Dinh 省 Bong Son 南쪽에서 聯合작전을 展開하여 2월 12일까지 750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400명을 체포하였다.

(6) **JEFFERSON** 작전 : 美제101공수사단 제1여단과 韓國軍 해병제2여단 및 越南공수부대가 聯合하여 1월 1일부터 Tuy Hoa 지역의 VC 1개연대를 색출 격멸코자 대대적인 작전을 展開하여 韓國軍 단독으로 445명을 사살하고 Tuy Hoa 곡창지대에 대한 敵의 침투를 저지 하였다.

(7) **DOUBLE EAGLE** 작전 : 1월 末에 제1군단지역인 Quang Ngai 省 南西쪽에서 美해병 제3사단의 연대상륙단(RLT)규모와 越南 제2보병사단의 1개연대가 聯合작전을 展開하여 Quang Ngai 市로 부터 Chu Lai에 이르는 제1번 公路를 확보하는 동시에 VC의 地下시설을 파괴하였는데 이 작전에서 150명의 共產軍을 사살하였다.

(8) **UTHA** 작전 : 美해병제3사단의 1개 전투단과 越南 공정대 4개대대가 3월 4일부터 6주간에 걸쳐 Quang Ngai 市 北西에서 聯合작전을 展開하여 地下陣地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敵연대규모를 強打하여 537具의 遺棄시체를 확인함으로써 지난해에 있었던 中部지역의 IA DRANG 작전의 성과와 비교되었다.

(9) **SILVER CITY** 작전 : 美제173공수여단과 AUSTRALIA 軍 및 越南軍 특수부대가 聯合하여 3월 20일부터 Saigon 北東쪽 50km에 있는 전투지대 “D”의 밀림에서 VC 1개연대와 치열한 攻防戰을 벌여 300명을 사살하고 敵의 연대본부로 간주되는 장소를 점령하여 각종 화기 155정과 文書 약간을 노획하였다.

(10) **LINCOLN** 작전 : 美제1공중기갑사단이 3월 下旬부터 Pleiku 지역 부근에서 跳梁하는 越盟軍 연대를 躐躐하기 위하여 “헬리콥터”에 의한 空中기동 작전을 펴 敵 1개대대가 地下基地에 潛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포병火力の 集中強打로 한 場所에서 158具의 遺棄시체를 확인하고 CAMBODIA 국경선 밖으로 敗退하는 兵群을 추격하여 320명을 추가 사살하는 한편 98정의 각종 火器를 노획하였다.

(11) **HOT SPRING** 작전 : 美해병제3사단 예하부대와 越南 제2보병사단 예하부대가 聯合하여 Chu Lai 南쪽의 Batangan 半島 一圓에서 VC 1개연대의 격멸을 목표로 작전중 4월 22일 歸順者로부터 귀중한 첩보를 얻어내어 20시간에 걸친 血戰끝에 350명을 사살하고 공용화포 14문과 개인화기 100정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第 2 章

# 韓國軍의 派越經緯

1. 越南政府의 支援要請과 派兵經緯
2. 國軍派越의 歷史的意義



## 第 2 章 韓國軍의 派越經緯

### 1. 越南政府의 支援要請과 派兵經緯

#### 가. 第 1 移動外科病院 및 跆拳道教官團

1963년 11월 1일에 惹起된 軍事革命으로 Ngo Dinh Diem政權이 물러나고 Minh소장이 軍事革命委員會 委員長 兼 首相에 就任하였으나 3개월을 넘기기도 전에 또다시 제2차의 軍事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越南의 政局은 混迷의 渦中에 말려들어갔다. 그러자 지난 60년 12월 20일에 所謂 越南民族解放戰線(FLN)을 결성한 以來로 地方조직을 強化하는데 血眼이 된 VC는 越盟과의 從屬관계를 維持하면서 政局의 混亂을 加一層 助長하며 越南정부의 統治지역을 유린하기에 온갖 策動을 다하는듯이 보였다.

이와같이 事態의 推移가 急速度로 險惡化되자 USA는 이미 Ngo Dinh Diem政權 當時부터 實施하여온 間接的인 援助에서 直接的인 支援으로 轉換하여 다음해 12월 11일에 “헬리콥터” 2개중대를 派越한데 이어 62년 2월 8일에는 正式으로 軍事援助司令部를 設치하였다.

또한 同월 14일에 Kennedy 美大統領이 地上軍의 派越을 斷行할 것이라는 公式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6,000명의 兵力이 急派되어 3월 22일부터 처음으로 探索활동과 防禦戰을 開始하는 한편 越南軍에게 戰鬪機 30대를 提供하는등 積極적인 支援에 나섰다.

그러나 Ngo Dinh Diem政權의 顛覆에 잇따라 反復된 2차에 걸친 軍事“쿠데타”로 政府의 統治能力이 弱化됨에 따라 VC의 “게릴라”活動은 갑작스럽게 全國에 波及되어 深刻한 사태를 빚자 Johnson 美大統領(63년 6월 5일 Kennedy 大統領의 暗殺로 繼承)은 64년 5월 9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25개 自由우방에 대하여 越南共和國을 積極 支援하여 줄것을 呼訴하였다.

그러자 越南사태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注視하고 있던 우리政府는 美國의 對越南정책과 同呼訴내용을 支持하는 한편 同월 12일에 國務總理로부터 國防部長官에게 非戰鬪부대를 派越할 方案을 研究작성하라는 指示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國防部는 非戰鬥부대 派越計劃案을 수립하고 5월 21일에 國家安全保障會議의 審議를 거쳐 1개 移動外科病院(130명)과 跆拳道教官團(10명)을 파견키로 原則的인 合意를 보자 곧 陸軍으로 하여금 派兵에 따르는 諸般준비에 착수토록 하였다.

한편 合同參謀會議 議長 金鍾五大將은 7월 9일에 UN軍司令官 Howze大將을 방문하고 韓國側의 派兵計劃案을 전달한데 이어 다음날 國防部長官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同意要請書를 正式으로 同大將에게 발송하였다.

〔親愛하는 Howze大將

前日 合同參謀會議 議長 金鍾五大將이 貴下를 방문하고 協議한바있는 增強된 1개 移動外科病院과 跆拳道教官團의 파월에 관한 大韓民國정부의 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大韓民國政府는 上記부대를 越南정부가 要請하면 파견하기로 決定하고 늦어도 1964년 8월 말까지는 出發할 수 있도록 現在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部隊를 貴下의 作戰指揮下로부터 解除하여 越南에 파견하는데 貴下의 同意를 求하고자 합니다.

海外에 部隊를 파견하는 것은 우리 政府로서는 이번이 처음인바 앞으로 많은 問題點이 惹起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같은 諸問題點을 解決함에 있어서 貴下의 積極적인 協調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國防部는 國本 일반명령(육) 제29호(1964. 7. 13)에 依據하여 同월 15일 00.01부로 육군第7後送病院을 母體로한 제1移動外科病院을 창설한 다음, 初代 病院長에 李亨洙중령을 補任하는 한편 跆拳道教官團을 편성하고 團長에 白駿基소령을 任命하였다.

그리고 同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派越에 대비한 諸般준비작업과 教育훈련을 實施하도록 措置하였는데 바로 이무렵인 15일에 越南首相으로부터 支援을 呼訴하는 다음과 같은 公翰이 주월 韓國大使에게 전달되었다.

『大韓民國 國務總理 閣下

越南정부와 全國民은 이 瞬間에도 극심한 試練에 當面하고 있습니다. 共產國家의 使噉과 支援을 받고있는 侵略으로부터 우리의 自由獨立 및 이 나라의 存立 그 自體가 심한 威脅을 받고있습니다. 이 侵略은 LAOS에 對하여도 동시에 敢行되고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만 危險한 狀況을 빚고있는 것이 아니라 東南亞 諸國의 安全保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한 이는 全自由세계의 平和와 安全保障에도 직접적인 威脅이 되는 것입니다.

合法的인 防衛의 名目과 自由를 防護하기 위한 이 決戰에 臨하고 있는 越南共和國은 多數의 友邦국 가로부터 物心兩面의 支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侵略者의 兵力과 그手段方法이 增加됨에 따라 激화된 戰況에 直面하고 있는 이때 寬大하고 고마운 援助는 現在로서 더욱 增加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越南에 대한 大韓民國 國民과 政府의 友情 및 權利와 自由원칙에 대한 尊重心에 호소하면서

越南정부와 國民을 대신하여 本人이 이 Messegi를 보내게 됨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VC과의 對戰에 있어서 勝利를 거두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地域에 平和를 다시 가져오게 하시고 自由國民의 基本權利를 尊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貴政府가 可能的 適時의 支援을 제공하는데 同窓하여 주실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同情과 人類團속에 대하여 全越南國의 謝意를 事前에 表明하는 바입니다. 즉 同情과 人類團속이라는 것은 그 意味와 重要性으로 보아 戰鬪中에 있는 우리 國民에게 無限한 價値의 物心兩面 支援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本人은 閣下에게 最大의 敬意를 表하는바입니다.

軍事革命委員會 委員長 兼 首相

Nguyen Khanh

다음날 國防部는 지난 10일에 주한 UN군사령관에게 전달한 韓國軍의 파월同意要請에 關하여 Howze大將으로부터 兵力의 파월에 同意함과 아울러 軍需支援에 協調하겠다는 要旨의 回翰을 받았다. 또한 金鍾五大將은 17일에도 再次 Howze大將과 協議끝에 다음 事項에 同意하였다.

- 『(1) 越南정부에서 正式 支援요청이 있는 即時로 韓·美 연합先發隊를 現地に 파견하여 宿營 및 軍需支援등 諸般문제에 關하여 美·越 兩軍 當局과 協議하도록 한다.
- (2) 派遣부대는 越南정부의 正式支援요청이 있은後 6週日 이내에 出發하도록 한다.
- (3) 部隊輸送에 있어서 韓國海軍의 LST2척을 使用한다.
- (4) 파월된 現地부대와의 連絡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 韓國 空軍輸送機를 使用할 수 있게 한다.』

以上과 같이 韓·美間의 協調사항에 同意하자 政府는 派兵에 따르는 64년도(9월 1일~12월 31일)의 所要豫算으로서 總額 14,857,900원(手當10,808,700원, 被服費 476,800원, 輸送中食費 156,400원, 旅費 1,363,000원, 官營料金 24,200원, 需用費 347,200원, 辦公費 1,591,600원)을 策定하였다.

또한 政府는 憲法 제56조 제2항의 規定에 따라 國軍파월에 關한 同意要請案을 22일 國會에 提出하여 31일에 열린 제44회 國會 제13차 本會議에서 同意를 얻었는데 그 同意요청의 本文과 理由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共產侵略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있는 越南共和國을 支援하고자 大韓民國과 越南共和國間의 協議 또는 大韓民國정부가 定하는 期間까지 將兵 130명으로 構成된 1개 移動外科病院과 10명의 將校로 組成된 跆拳道指導員을 越南共和國에 파견한다. 同意要請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自由陣營의 共同的 敵인 共產침략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있는 越南의 現사태는 韓國의 安全保障에 間接적으로 影響을 주는것이므로 韓國은 自由우방인 越南共和國을 支援할 必要가 있다.

둘째 韓國戰爭 당시 自由우방의 絶對的인 支援을 받은 바 있는 韓國은 自由우방의 共產위협을 共同으로 除去할 道義적인 義務가 있다.

세계 1964년 5월 9일 USA政府는 韓國을 포함한 25개 自由諸國에 대하여 越南共和國을 支援하여 줄 것을 正式으로 호소한 바 있다.

네째 越南정부는 1964년 7월 15일 軍事支援을 요청하는 呼訴文을 正式으로 韓國정부에 보내왔다. 다섯째 憲法 제4조의 精神에 立脚하여 韓國은 國際평화의 維持와 侵略전쟁의 否認을 위하여 越南共和國을 지원할 必要가 있다.

한편 國防部는 派越부대와 美·越軍과의 相互支援이 圓滑히 이루어지도록 사전協議하기 위하여 李勲燮준장 以下 5명의 韓·美 將校로 구성된 先發隊를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現地에 派遣하여 韓·越 및 韓·美 軍事實務者 約定書(第3章 參照)를 締結하였다.

이리하여 派越에 대비한 諸般與件을 갖추자 該부대는 9월 11일에 LST(北漢號)便으로 釜山港을 出發한 다음, 同월 22일에 越南땅에 첫발을 내디디었는데 그 이후에 政府는 該부대의 國際的지위를 保障하고자 10월 31일 주월 申尙澈大使를 通하여 越南정부를 代表한 Wanh Huy Quat外相으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確認覺書를 받았다.

『本人은 越南지역내에서 共產侵略의 擊退와 국제平和 및 安全을 守護하기 위하여 越南共和國에 대한 韓國의 支援에 關하여 당시 越南共和國 首相과 大韓民國 國務總理 間에 1964년 7월 15일 및 8월 3일字로 交換된 誓翰에 대하여 提及하고자 하는바입니다.

本人은 前記 交換서한에 連關하여 兩國政府의 代表者 間에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約定사항을 確認할 수 있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1. 越南共和國 政府의 請願에 依하여 大韓民國 政府는 兩國間의 友好관계를 증진하는데 可能한 範圍內에서 越南共和國을 위하여 全的인 援助를 제공함에 合意한다.
2. 越南共和國 政府는 주월 大韓民國 外交館長의 監督下에서 운영될 卽時 韓國軍事원조단의 作戰에 필요한 要員이 越南共和國內에 入國할 것에 合意한다(以下 團이라 稱한다.)
3. 本團의 機能은 兩國 政府間에 合意된 分野에서 越南정부에 대한 원조를 提供하는데 있다.
4. 越南共和國 政府는 1950년 12월 30일字 Saigon에서 署名한 所謂 5者會談(附表제 호 參照)의 條約規定에 依한 美合衆國의 任務 및 要員과 동등한 特典, 免除 및 利益을 本團 및 團員에게 附與함에 合意한다.
5. 本團의 全員은 越南共和國 法律을 준수하며 越南內의 政治性格의 모든 活動을 避한다.
6. 越南共和國 政府는 越南內에서의 本團 및 團員에 대하여 충분한 安全保護를 하도록 必要한 조치를 取한다.

前記 約定사항에 대한 大韓民國정부의 回答으로서 兩國 政府間의 約定을 맺으며 本約定은 그 回答을 접수한 날로부터 施行하는 것으로 看做하려는 바입니다.』



## 나. 韓國 軍事援助團

1964년 8월 2일과 4일에 發生한 Ton Kin灣事件 직후에 Johnson 美大統領이 美軍에 대한 지속적인 暴力行爲는 단순한 防禦에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果敢한 報復을 隨伴하게 될 것이라고 警告하자 VC은 이에대한 反擊으로 同年 11월 1일에 Bien Hoa 美空軍基地를 侵襲하여 B-52機 27대를 破壞하고 또 12월 24일에는 Saigon에 있는 美軍將校宿舎를 폭파하여 100餘名の 死傷者를 내게하였다.

이와같이 挑發手法이 惡辣化되자 USA는 從來의 소극적인 支援태세에서 적극적인 對應段階로 轉換하기 위한 조치를 講究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한 12월 18일에 Brown 駐韓 美大使는 朴正熙大統領을 訪問하고 越南사태에 대한 USA정부의 태도를 밝힌 다음, 韓·美 兩國이 越南戰爭을 勝利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主導的인 役割을 하여야하며 그러한 境地에서 韓國軍을 追加로 증파하여 주실 것을 進言하였다.

그러자 朴大統領은 이를 받아들여 同월 20일에 國防部長官에게 兵力증파에 關하여 研究報告할 것을 指示함에 따라 國防部는 즉각 이에 대한 研究에 着手하는 한편 合同參謀會議議長 金鍾五대장은 同월 22일부터 數次에 걸쳐 UN군사령관 Howze大將을 방문하고 派兵에 따르는 諸般사항을 協議끝에 다음事項에 合意한다는 硃書를 받았다.

- 「(1) 增派兵力은 이미 派된 第1移動外科病院과 跆拳道教官團을 포함한 部隊로서 (가) 軍事援助團本部 (나) 1개 自體警備大隊 (니) 1개 陸軍野戰工兵대대 (르) 1개 陸軍野戰工兵整備班 (로) 1개 陸軍輸送중대 (리) 1개 海兵工兵중대 (스) 海軍 LST 1척등 2,000명의 範圍內에서 派遣
- (2) 增派부대에 대한 諸般 軍需支援
- (3) 越南까지의 部隊輸送 및 連絡업무를 위하여 運행될 海軍 LST와 空軍輸送機에 대한 燃料제공
- (4) 先發隊의 파진」

以上과 같은 兵力의 增派에 同意함과 아울러 現地에서의 軍需支援에 協調하겠다는 Howze大將의 硃書를 根據로 國防部는 陸海空軍 참모총장 및 海兵隊司令官으로 구성된 軍務會議를 개최하고 增派부대의 原則的인 문제를 議決한데 이어 具體的인 參謀協調사항을 討議하기 위하여 12월 27일과 31일에 合同參謀本部의 機密室에서 各軍 關係官회의를 열었다.

이 會議에서 派兵부대 및 團本部의 編成내용과 出發예정일 및 携帶장비 그리고 指揮체계와 所要豫算등 廣範圍한 문제를 討議하였다.

이와같이 增派부대의 基本문제가 決定段階에 접어든 다음해 1월 2일에 越南정부는 제2차

追加支援을 호소하는 다음과 같은 公翰을 정식으로 우리政府에 보내왔다.

〔大韓民國 外務部長官 閣下〕

1964년 7월 15일 字 越南共和國 首相 兼 軍事革命委員會 委員長 Nguyen Khanh장군이 大韓民國 國務總理 閣下에게 보낸 共產侵略에 對抗하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支援을 요청한 公翰을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그後 越南共和國는 大洪水를 만나 國內施設에 막대한 被害를 입었습니다. 越南軍은 平定課業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自體後方지원을 擔當하면서 被害지역 再建에 參與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越南軍은 현재 漸次로 攻勢的으로 轉換하는 對共鬪爭의 重大時期에 臨하고 있기때문에 純粹한 軍事의性格을 띠고 있지않는 課業에는 힘쓰지않고 全的으로 平定과업에만 注力하는것이 極히 必要한 것입니다. 韓國정부에 대한 1964년 7월 15일 字 呼訴를 다시 하면서 越南共和國政府는 上記 支援分野에 대하여 韓國정부로부터 조속한 時日內에 可能한 모든 援助가 來眷되기를 희망합니다.

韓國軍은 훌륭한 軍事의 자질과 높은 氣魄을 수차 誘示한바 있기 때문에 上記와같은 援助는 크게 歡迎받을 것이며 또한 共產侵略者로부터 勝利를 獲得하는데 크게 貢獻할 것입니다.

本人은 閣下께서 公翰을 韓國정부에 提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閣下에게 最大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越南共和國

外務長官 Pham Tang Lam]

한편 國防部의 指示에 따라 陸軍은 육본작 제381.2호(1965. 1. 4)로 「비둘기 計劃」을 수립하고 1개 自體 경비대대와 1개 野戰工兵대대 그리고 1개 輸送중대 및 1개 戰野工兵整備班과 團本部를 포함한 支援勤務隊를 파견키로 하였으며 海軍은 LST 2척(812 및 813함을 派遣하되 812함을 支援團에 殘留시킴)을, 海兵隊는 1개 工兵중대를 각각 差출키로 하였다.

또한 陸軍은 제1군사령부에 指示하여 派越부대에 대한 教育훈련을 擔當하도록 하자 제1군은 教育芻書 제1호(1965. 1. 8)를 下達하는 동시에 파월美軍司令部로부터 派韓된 訓練官을 中心으로 韓·美 聯合訓練團을 조직하고 이들의 訓練指導에 依하여 제1단계로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제2단계로 2월 2일부터 19일까지 教育훈련을 實施키로 조치하였다.

이와 並行하여 國防部는 增派부대와 現地의 美·越軍과의 協調체제 그리고 軍需支援과 指揮權문제 등 事전에 妥結하여야할 諸般사항을 折衝하기 위하여 先發隊를 파견키로 決定하고 이미 제1차 先發隊長으로서 活動한 李勳燮중장 以下 7명의 將兵을 1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現地에 파견하여 韓·美 및 韓·越 實務者協定과 아울러 非常時의 撤收協定을 締結(第3章 參照)토록 함으로써 增派부대로 하여금 任務를 完遂할 수 있는 諸般與件을 마련한 이외에 本隊의 現地활동에 도움이 될 많은 參考 자료를 提示토록하였다.

또한 國防部는 國軍부대의 海外追加派遣에 관한 同意要請案이 1월 8일에 열린 제3회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자 同월 15일 제47회 臨時國會에 上程하였는데 이는 18일부터 外務 國防 兩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를 거쳐 同월 25일에 國防分科委員會를 通過한 다음, 28일에 열린 제7차 本會議에서 在席 125명중 可 106, 否 11, 棄權 8이라는 壓倒的인 多數票로 可決되었다.

그런데 國會에 제출한 同意主文과 要請의 理由는 다음과 같다.

### 1. 同意主文

가. 越南共和國을 支援하기 위하여 兩國間에 協議 또는 大韓民國정부가 定하는 期間까지 1964. 9.

11 日 以前 1개 移動外科病院 및 跆拳道要員 140명外에 自體整備兵力을 포함한 工兵 및 輸送부대 등 非戰鬥부대를 2,000명 範圍內에서 派遣한다.

나. 上記부대를 派遣하는데 要하는 1965년도 所要豫算은 政府豫算外에서 조치한다.

### 2. 同意要請의 理由

가. 共產主義에 依하여 侵略을 받고있는 越南의 現事態는 好轉을 보지못하고 더욱 惡化一路에 있으며 우리나라 安全保障에도 直接間接으로 重大한 影響을 미치고있다.

나. 大韓民國정부는 1964. 7. 15 越南首相으로부터의 支援을 요청하는 呼訴文에 依하여 먼저 1개 移動外科病院 및 跆拳道要員 140명을 1964. 9. 11 越南으로 派遣하여 現在까지 所任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고 있는바 1965. 1. 2 越南共和國 外務長官으로부터 支援增派를 呼訴하여 왔다.

다. 韓國은 韓國戰爭 당시에 友邦 16개국 특히 美國의 絶對的인 支援으로 戰爭勃發時에 UN軍을 韓國에 急派하여 우리나라를 危機로부터 救出하여준 友邦 16개국의 恩惠에 보답하고 東南亞細亞를 共產侵略으로부터 救出함으로써 東北亞細亞의 恒久的인 平和와 自由를 確保할 義務와 責任이 있으므로 韓國은 급속한 時日內에 가능한 追加的인 援助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國防部는 다음해 1월 14일에 參謀 機密室에서 제3차 國防部 및 各軍 實務者會議를 개최하고 제2차 會議以後의 進行사항을 檢討함과 아울러 國會의 豫想 質疑사항에 대비하는 한편 指令제2호(1965. 1. 28)로 增派부대를 다음과같이 配屬하였다.

「(1) 派遣되는 陸軍 1개 警備대대 및 1개 陸軍野戰工兵대대와 1개 陸軍輸送自動車중대 및 海兵제 1 獨立工兵중대를 1965. 2. 1 00. 01附로, 그리고 海軍 LST 812 및 813함을 派遣하되 그중 812함을 本國出發과 동시에 軍事援助團에 配屬한다.

(2) 이미 派遣된 陸軍제 1移動外科病院과 陸軍跆拳道教官團은 援助團의 指揮所 開設과 동시에 이에 配屬한다.

(3) 團本部要員 및 海兵제 1獨立工兵중대는 1965. 1. 30까지 陸軍제 6사단에 移動집결한다.」

이와같은 國防부의 指令과 때를 같이 하여 陸軍은 1월 27일 00. 01附로 陸軍 제 27사단 제 79연대 제 1대대를 제 101警備대대로, 陸軍 제 1101野戰工兵團 隸下에서 제 127野戰工兵대대를,

陸軍 제505輸送運用團 제235輸送自動車대대 隸下에서 1개중대를 제801輸送自動車중대로 各 改編토록 지시하였다.

이어 國本일반명령(육) 제5호(1965. 1. 29)로 步兵 제6사단에서 團本部를 창설하고 이를 비둘기部隊로 命名하는 동시에 團長에 金弘圭준장을 任命하였으나 健康上의 理由로 解任하고 曹文煥준장을 一般命令 제44호(1965. 1. 29)로 初代團長에 任命하였다.

그 이후 2월 5일에 同사단 練兵場에서 國防部長官과 陸海空軍참모총장 및 海兵隊사령관을 비롯한 內外人士와 派越장병 全員이 參加한 가운데 結團式을 가진 다음, 2월 9일 서울運動場 野球場에서 베풀어진 歡送大會에 참가하였다.

朴正熙大統領을 비롯한 三府要人과 派越장병가족 그리고 많은 서울市民들의 歡送을 받으며 25대의 空軍機편대가 祝賀비행을 하는가운데 大會를 마치자 部隊는 大會場을 出發하여 東大門—鍾路—世宗路—中央廳까지 市街行進한 다음, 다시 原隊로 복귀하여 出國指示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派越에 必要한 모든준비를 完了하자 國防部 指令 제3호(1965. 2. 5)로 하달된 梯隊編成에 따라 先發將校團(육군8명, 海兵隊1명)은 참모장 宋澤龜대령의 引率下에 2월 13일 京畿道 烏山에서 美輸送機 C-130便으로 出國하였으며 先發梯隊인 團本部 및 支援勤務隊의 一部兵力和 整備대대본부 및 1개警備중대 그리고 陸軍 1개工兵중대 및 陸軍 제801輸送自動車중대등 583명은 제101警備대대 副大隊長 宋仲鎬소령의 引率下에 海軍 LST 3척(團에 配屬된 LST除外)에 탑승한 다음, 同월 14일에 國防部에서 追加지시한 海軍艦艇 2척의 護衛를 받으며 釜山港을 떠났다.

또한 本隊인 경비 및 工兵 兩대대의 主力과 海兵 제1獨立工兵중대(同중대는 2월 26일에 縣里에서 浦項의 原隊로 복귀한 다음, 重裝備 및 操作兵과 其他貨物만을 3월 3일에 九龍浦에서 海軍 LST에 搭載하였으며 그뒤 同艦艇은 本隊의 貨物을 積載한 LST와 航路를 같이하여 鎮海에서 釜山을 거쳐 3월 11일에 尙越하고 中隊兵力은 列車便으로 仁川에 이동하여 本隊와 合勢함)등 1,283명은 제101警備대대장 李光魯중령의 指揮下에 3월 10일 美海軍輸送艦 T-AP에 탑승한 다음, 美第7艦隊소속 艦艇과 同艦載機의 護衛를 받으며 이날 16.00에 仁川港을 出航하였다.

한편 曹文煥단장을 비롯한 指揮部要員은 3월 11일 08.00에 美 C-140機便으로 金浦空港을 떠난 다음, 沖繩를 거쳐 越南에 進出함으로써 제2차 增派병력은 모두 出國하였다.

그이후 現地에 도착하여 活動을 개시한 團은 部隊운영상 自體警備兵力의 補強을 비롯하

여 軍需機能과 醫療支援능력을 擴充하고자 이를 國防部에 建議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무렵인 3월 23일에 越南정부는 VC들의 蠻行으로 大部分의 道路 및 橋梁과 鐵道가 破壞됨으로써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輸送手段이 麻痺되어 救護활동과 補給支援은 물론이고 食糧과 醫藥品 그리고 建築資材와 避難民수송에 크게 支障을 받고있는 實情을 우리政府에 호소하면서 艦艇을 骨子로한 追加증원을 요청하여왔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한 4월 1일에 訪越한 國防部長官은 越南政府要路와 岾文煥단장으로 부터 兵力의 補強과 艦艇의 增派를 요청받고 歸國한 즉시 各軍 關係官會議를 소집하고 增派案을 檢討끝에 (1) 建設 및 醫療增援에 106명, (2) 警備兵力의 補強을 위하여 205명, (3) 海上輸送增援에 LSM 2척과 乘務員 149명 都合 460명을 추가 派遣키로 決定하는 한편 이에 대한 準備指示를 5월 1일(합작작 952.42호) 電通제36호로서 陸軍 및 海軍에 하달하였다.

또한 國防部는 이 增派要請案을 6월 3일에 열린 제47회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同월 17일 제50회 國會에 上程한 다음, 國防部長官은 國防分科委員會에서 要旨 다음과 같이 提案說明하였다.

「첫째 軍事援助團은 차원 美軍司令部와 越南軍當局的 二元體制에 依하여 軍需支援을 받고있는 만큼 그 節次와 업무처리 過程이 複雜하므로 軍需機能을 補強하여야 하며 또한 醫療업무가 날로 激增하므로 活動능력의 增援이 要請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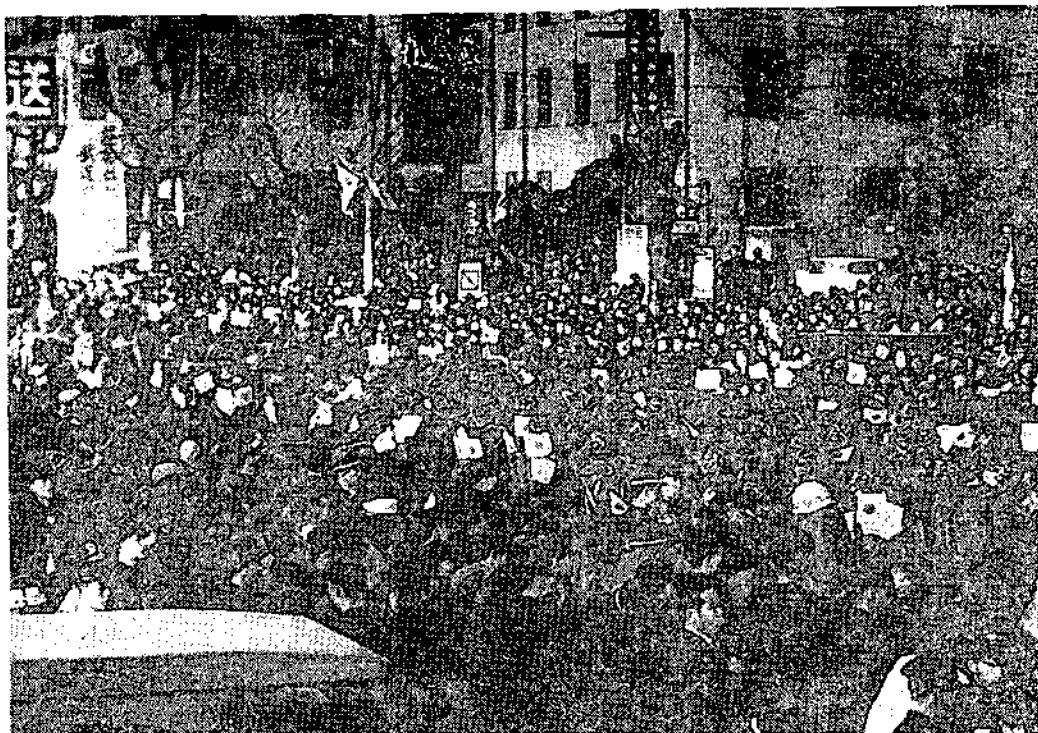
둘째, 警備兵力에 있어서 團의 宿營地경비와 作業場의 경계 그리고 輸送間의 警戒에 現1개 大隊兵力으로서는 不足한뿐 아니라 團의 活動지역을 1km半徑으로 부터 3km半徑으로 擴張함에 따라 1개 警備중대의 증가가 要請된다.

셋째, VC의 無謀한 破壞行爲로 大部分의 道路와 橋梁 그리고 鐵道등 交通수단이 麻痺되어 食糧 및 醫療藥品과 建築資材 그리고 避難民을 海上으로 輸送하는 艱難에 없으므로 艦艇의 增援이 要請하다.」 이러한 提案說明이 있은다음, 票決에 붙인 결과 在席 14中, 可 12, 否 1, 棄 1로 同意를 얻자 國防部는 指令제5호로 增援부대의 梯隊편성과 아울러 出發지시를 하달함으로써 3개 梯隊의 陸軍병력이 6월 27일 美輸送機便으로 金浦空港에서 출발하고 海軍 LSM 2척(609 및 611함)이 同월 29일에 鎮海에서 出航하였다.

이로써 1964년 9월 11일에 제1移動外科病院 및 跆拳道教官團의 파실을 嚆矢로 시작된 越南共和國에 대한 支援은 前後 7회에 걸쳐 추가됨으로써 都合 2,554명으로 增員되었다.

#### 다. 首都 師團

1964년 8월 2일에 발생한 Ton Kin灣 事件이래로 擴戰期에 접어든 越南戰은 그뒤 65년



서울市民들의 歡送을 받으면서 市街행진하는 파월장병들

2월7일에 美海軍機에 依한 北爆이 개시되고 이어 3월중에 美地上軍 60,000명이 파월될데  
잇따라 AUSTRALIA 步兵대대와 韓國軍事援助團 2,000餘名이 추가派越되는등 友邦軍의  
支援이 積極化됨으로써 戰況은 새로운段階로 轉換하였다. 이러한 時期인 6월 14일에 越南  
정부로부터 1개戰團사단의 增派를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公翰이 우리政府에 보내왔다.

「大韓民國 國務總理 閣下

Saigon 1965. 6. 14

閣下 本人은 越南共和國과 越南共和國軍을 代表하여 大韓民國정부에 越南의 對共투쟁을 援助하기 위  
하여 1개戰團사단을 派遣하여주시길것을 正式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越南共和國 國民은 大韓民國 國民들이 本國에 제공하여주시신 高貴한 원조에 대하여 매우 感謝하고 있  
읍니다.

閣下께 最大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Phan Huy Quat

越南首相」

그러자 國防部는 6월 23일에 一般命令 제11호로 合同參謀本部內에 越南에 대한 軍事支援을 專擔하는 暫定機構로서 企劃團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다.

「越南共和國 支援을 위한 企劃團

1. 任務

- 가. 增派부대의 편성 및 部隊목록 建議
- 나. 과월 韓國軍事援助團의 指揮權 關係연구
- 다. 增派부대에 關한 UNC 및 USFK와의 協調
- 라. 기타 增派부대에 關聯된 事項연구

2. 企劃團 構成

- 團長 육군소장 孫 熙善(合參 作戰局長)
- “ 육군소장 玄 錫朱(陸本 軍需參謀部次長)
- “ “ 李 秉衡(陸本 作戰參謀部次長)
- “ 육군준장 李 世圭(合參 作戰局次長)
- “ “ 李 純俊(陸本 人力管理處長)
- “ 해병대령 鄭 泰錫(海兵 제1연대장)
- “ “ 劉 國泰(海兵 監察監)
- 幹事 육군대령 黃 永時(合參 作戰課長)
- 補佐官 육군중령 韓 萬浩(合參 統合編成指導官)」

以上과 같이 설치된 企劃團은 6월 26일 09.00에 合參 機密室에서 제1차會議을 소집하고 各軍에 示達할 과월부대 編成指針초안을 討論한 다음, 同월 28일 09.00에 열린 제2차會議에서 同지침을 確定한 然後에 이날 11.00부터 열린 제1차 韓·美 聯合會議에서 이에 合意를 보자 國防部는 指令제8호로 同지침을 다음과 같이 各軍에 下達하였다.

- 『1. 증파兵力은 60萬兵力 Ceiling 內에서 편성한다.
- 2. 戰鬥부대는 既存부대에서 差出함을 原則으로 하고 기타 支援부대는 認可된 兵力 Ceiling內에서 改編 및 장설한다.
- 3. 派越부대의 규모는 1개 師團(增強)으로 육군사단(—1개연대) 및 해병대 1개연대와 同支援부대로 하며 總兵力은 18,500명을 基準으로 한다.
- 4. 派越부대는 2개의 特殊任務부대로 構成되며 各各 獨立작전이 可能하도록 편성한다.
- 5. 部隊전성은 平時 T/O의 100%를 基準으로 한다.
- 6. 裝備는 韓國軍의 平均수준을 維持하되 使用효과가 적은 장비는 使用효과가 큰 것으로 代替한다.』

이와같이 戰鬥부대를 派越하기 위한 措置가 着着 進行되고 있을때 越南정부로부터 재차 支援요청을 호소하는 公翰이 보내왔는데 이는 越南정부에 變革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即 6월 14일에 10명의 將星으로 구성된 國家指導委員會가 發足되어 議長에 Thieu소장이

就任한데 이어 同월 17일에 Nguyen Cao Ky 空軍司令官을 首相으로한 新內閣이 수립됨에 따라 지난 6월 14일에 우리政府에 요청한 戰鬥사단 派越을 追認하기 위한 要式절차로서 다음과 같이 보내온 것이었다.

「大韓民國 國務總理 閣下

本人은 越南共和國와 越南軍事委員會를 代表하여 本人의 前任者 Phan Huy Quat博士가 首相의 職位로서 1965. 6. 14 大韓民國정부에 正式으로 발송한 要請, 即 對共투쟁을 援助하기 위하여 韓國軍 1개 戰鬥사단 派遣要請書를 이에 確認하는 榮光을 가집니다.

越南國民은 大韓民國이 제공하여주신 高貴한 원조에 對하여 韓國國民들에게 매우 感謝하고 있습니다. 閣下께 本人의 最大의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越南共和國 首相

空軍준장 Nguyn Cao Ky」

國防부와 주한 美軍司令部 間에 1개 戰鬥사단과 이에 必要한 支援부대를 파월하기 위하여 協議중에 越南정부로부터 재차 戰鬥사단의 支援요청을 確認하는 前記 公翰을 받은 국방부는 同派越案이 7월 2일에 열린 國務會議에서 議決되자 國會에 上程할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파월작업을 本格化하였다. 즉 國防부는 編成지침에 따라 육군 1개 步兵사단(-1개연대) 및 海兵 1개연대와 3개의 105mm 砲兵대대를 파견하는 한편 이들 部隊에대한 軍需支援은 파월美軍 및 越南軍의 施設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支援부대는 파월韓國軍부 대를 충분히 支援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도록하고 海兵隊에 대한 支援부대의 能力을 超過 하는 所要는 육군에서 支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陸軍 및 海兵隊로하여금 7월 6일 17.00까지 部隊편성案을 提出함과 아울러 9월 15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聯隊단위로 出國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따라 陸軍 및 海兵隊에서 제출한 編成案을 檢討하기 위하여 이날 合參에서 제2차 韓·美 聯合會議를 개최한데 이어 同월 8일에도 제3차 會議를 열고 同問題에 關하여 協議하였다.

그 이후 同월 12일에는 파월美軍司令部에서 合參에 파견된 연락장교단(Mcdonald중령 이하 4명)을 포함한 주한美軍司令部와의 韓·美 聯合會議를 개최하고 同문제를 비롯한 指揮權 문제와 統合사령부 設置문제등을 討議끝에 陸軍에서 제시한 戰鬥사단인원(海兵隊 3,525명 포함) 13,939명과 軍需支援司令部요원 3,415명 都合 17,354명에 合意한 이외에 補充병력으로 400명을 認可받게 되었다.

한편 國會에 제출한 同意要請은 慎重論과 反對論으로 많은 論難이 있었는데 그 論旨는 첫



께 우리나라가 越南戰에 깊이 關與한다면 中立國은 물론이요 對UN外交에 있어서 不利한 處地에 놓이게 될 것이며 둘째, 韓·越間에 相互防衛조약이나 集團安全保障조약을 맺은것도 아니고 또한 韓國戰爭때와 같이 UN의 決議가 있는것도 아닌 立場에서 派兵하는것은 名分上 부당하며 세계 休戰線을 境界로 北傀軍과 對峙하고있는 現況에서 戰鬪사단을 파월하는것은 國土防衛力을 弱화시키는 結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反對論과 더불어 甚至於는 請負戰爭이라는 自虐論과 反對를 爲한 反對의 暴論이 없지 않은듯 하였으나 그 反面에 戰鬪부대의 派越을 高次元의 眼目에서 그 意義를 높이 評價하는 다음과 같은 論調가 沸騰하였다.

즉 첫째 戰鬪부대의 派越은 國軍의 裝備 現代化를 促進하는 발판이 되는 동시에 部隊의 增編으로 國防力을 強化하게 된다. 둘째 韓國軍의 實戰力量을 内外에 誇示할 수 있는 好機가 되는 동시에 國威를 宣揚하게 될 것이다. 세계 越南戰線은 韓國의 休戰線과 직결된 제2의 戰線이므로 韓·越 兩國은 共同의 敵과 싸움으로써 血盟으로서의 紐帶를 鞏固히 하여야 하며 理念과 現實을 같이하는 이웃집 火災를 坐視하고 罔不關焉하는 것은 우리의 民族的인 正氣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名分論이 支配的으로 作用한 끝에 8월 13일에 열린 國會本會議의 票決결과 贊成 101, 否決 1, 棄權 2라는 壓倒的인 多數票로 可決되었다.

그리하여 追加파월이 確定되자 國防部는 同월 25일에 陸軍에서 建議한 部隊 編成案을 承認하고 陸軍으로 하여금 派越부대를 選定 報告하도록 指示하였다.

그러자 陸軍은 7월 30일에 部隊目錄으로 首都사단사령부 제1연대, 機甲연대, 首都사단 포병사령부, 제60, 제61 및 제628 등 3개포병대대 그리고 軍需支援사령부를 指定하여 報告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指令제7호로 연락장교단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파견하여 이들로 하여금 現地를 답사하고 주월韓國大使와 긴밀한 協調下에 越南軍 및 파월美軍當局과 戰鬪부대의 任務 및 軍需支援문제 그리고 指揮權문제등을 協議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李世鎬소장을 團長으로한 5명의 將星과 1명의 領官장교가 파월되어 外交활동은 벌인끝에 韓·越 및 韓·美 實務者約定(第3章 參照)을 締結한 다음, 歸國하였다.

또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增派부대를 위한 一般計劃을 具體的으로 작성하여 8월 19일에 示達하였으며 人員은 陸作作 제381.2호에 依據하여 선발하고 不足時에는 全軍에서 補充토록 하였는데 그 選拔방침은 다음과 같다.

### 『將校 選拔方針』

1. 中領級 以上은 戰鬪 經驗者

2. 指揮官 및 參謀는 該職位 有經驗者 및 現職者
3. 評定成績이 優秀한 者
4. 補修課程 成績이 良好한 者
5. 身體規格 乙以上인 者
6. 重懲戒以上の 처벌을 받지 아니한 者
7. 停年 1年 以上인 者
8. 秘密取扱 認可者
9. 現階級에 準한 補修課程을 履修한 者

#### 士兵 選拔方針

1. 可及的 長期 服務者
2. 身元이 確實한 者
3. 國卒 以上인 者
4. 13개월以上 軍服務 可能者(但 派兵目的으로 長期 服務志願者 除外)
5. 該軍事特技 分野의 優秀者
6. 下士官은 可及的 下敎隊의 履修者
7. 家庭環境이 좋은者(無緣故者 및 獨者 考慮)』

#### 第1軍에서의 追加 選拔方針

1. 小隊長은 該分野의 經驗이 6개월 以上인 者
2. 小隊長은 可及的 陸士出身
3. 先任下士, 嚮導와 分隊長은 軍 및 軍團 下士官敎育隊의 履修者
4. 共用火器 射手는 1등射手 以上인者
5. 前科가 없고 處罰받지 않은者
6. 可及的으로 跆拳道의 經驗者
7. 扁足 및 夜盲이 아닌者
8. 30歲 未滿인者
9. 個人火器 2등射手 以上인者
10. 技術分野는 該分野 6개월以上の 經驗者
11. 砲兵은 砲兵학교 卒業者
12. 運轉兵은 可及的 A級인者

이리하여 人員選拔과 部隊편성작업이 進行되고 있는동안 合參에서는 T/O에 따르는 人員을 調整끝에 9월 21일 合作作 제952. 42-775호로 兵力규모를 首都사단 9,850명, 軍需支援 사령부 3,554명, 補充兵 268명 都合 13,672명으로 確定함으로써 海兵隊병력 4,218명을 포함한 總兵力 17,890명으로 編成하였다.

그뒤 9월 22일 派越부대를 위한 一般計劃수정 제2호에 依據하여 9월 25일附로 과월 韓國 軍司令部가 創設됨에 따라 이에 所要되는 152명을 追加함으로써 陸軍병력은 都合 13,824명으로 增加되었다.

이와같이 人員調整작업이 마무리되자 國防部長官은 8월 16일에 初代 師團長에 蔡命新소장을 內定하고 大統領에게 上申하는 한편 다음날인 17일에 指令 제10호로 과월 戰鬪부대에 要旨 다음과 같은 準備命令을 내렸다.

- 『1. 部隊편성은 國防部指令 제8호의 編成指針概念에 기준하여 施行할 것이며 輸送梯隊는 3개梯隊로 하되 最初梯隊는 海兵隊와 기타 必需的 部隊로하고 제2, 제3 兩梯隊는 陸軍부대와 統合司令部로서 海上輸送한다.
2. 派越부대는 原則的으로 30일간의 教育훈련을 實施하여야하며 海兵隊는 과월陸軍사단에 配屬되어 統合指揮를 받는다.』

한편 陸軍本部는 一般命令 제31호로 戰鬪부대에 대한 支援부대로서 軍需支援司令部를 9월 1일附로 創設하고 또한 合作作 제1912—112호로 제6野戰病院을 後送病院으로 그 名稱을 變更하는 동시에 과월憲兵중대는 제6憲兵大隊을 母體로 1개중대를 差出토록 指示하였다.

이어 陸軍本部는 8월 28일에 首都사단을 제1군에서 配屬해제하여 陸軍참모총장 直轄로 하는 동시에 9월 4일까지 指定된 장소에 集結토록 하였는데 首都사단은 洪川에, 軍需支援司令部는 龍門에, 제103工兵대대는 橫城에, 그리고 輸送부대는 春川에 各各 集結하여 部隊整備작업과 아울러 30일간의 教育훈련에 들어갔다.

教育훈련 內容은 一般學科 火器學 그리고 戰術學에 置重되었으며 그밖에 政訓, 軍隊禮節, 內務教育, 跆拳道, 安全教育, 情報 및 防諜, 補給관리, 軍法 및 軍紀 등 廣範圍한 분야에 걸쳐 實施되었다.

한편 陸軍은 教育훈련중에 裝備와 軍需支援상태를 點檢한 결과 많은 缺陷이 指摘되었으므로 이를 整備보강하기 위하여 各技術兵科의 이동整備班을 편성하고 延 9,289명을 動員함으로써 裝備 7,657개를 補修完了하였다.

이리하여 部隊편성과 教育훈련 그리고 整備작업을 完了하자 合參에서 이미 시달한 梯隊編成계획에 따라 제1梯隊는 6,668명(海兵여단, 砲兵1개대대 및 1개포대, 陸軍工兵 1개중대 海兵憲兵1개소대, 軍需支援司令部의 一部, 제2梯隊 先發隊)으로, 제2梯隊는 6,581명(步兵1개연대, 師團砲兵사령부, 軍需支援사령부의 一部, 제3梯隊 先發隊)으로, 제3梯隊는 4,107명(步兵1개연대, 포명1개대대 및 1개포대, 師團사령부 直轄隊一部, 軍需支援사령부)으로 編成함으로써 出國준비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國防部는 9월 21일 指令제12호로 國軍戰鬥부대 越南派遣지시와 더불어 各軍의 協調 사항을 다음과같이 下達하였다.

### 『國軍戰鬥部隊 越南派遣』

#### 1. 狀況

越南情勢(省略)

#### 2. 任務

國防部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면서 國軍戰鬥부대를 越南에 파견하여 越南共和國를 支援한다.

#### 3. 實施

##### 가. 概念

##### (1) 越南까지의 輸送

(가) 韓國 海軍輸送艦 및 美 海軍輸送艦

(나) 少數의 指揮部요원 및 先發隊요원은 美軍 MATS便

(다) 各梯隊 出發日: 指令제10호(1965.8.16)參照, 但 先發隊는 別途지시

##### (2) 파월 韓國軍부대 編成(圖表 參照)

##### (3) 作戰

越南共和國정부의 國家平定계획을 支援하기 위한 作戰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派遣된 부대는 既存약정 및 指令에 依據한 任務를 계속 수행한다.

##### 나. 陸軍 參謀總長

(1) 파월하는 海兵부대를 1965.9.25 00.01附로 配屬을 해제한다.

(2) 陸軍 首都사단(-1)을 1965.9.25 00.01附로 파월 韓國軍사령부에 配屬하라.

(3) 部隊파견을 위한 國內輸送(派越 한국군사령부 포함)을 담당하라.

##### 다. 海軍 參謀總長

(1) 可用한 輸送 艦艇 便으로 護衛함정의 護送下에 越南까지 파견부대의 一部를 수송하라.

##### 라. 海兵隊 司令官

(1) 陸軍에 配屬하였던 파월 海兵隊를 1965.9.25 00.01附로 陸軍에서 配屬해제함과 동시에 海兵 제2여단을 파월 한국군사령부에 配屬하라.

(2) 派越부대의 國內輸送을 담당하라.

##### 마. 파월 韓國軍 司令官

(1) 1965.9.25 00.01附 陸軍 首都사단(-1) 및 海兵제2여단을 배속한다.

(2) 越南에서 指揮所를 開所하는 동시에 파월 韓國 군사원조단을 配屬한다.

(3) 파월 韓國軍부대를 統合지휘하여 越南共和國 정부의 國家平定계획을 지원한다.

(4) 參照: 韓·越 및 韓·美 軍事實務 約定書

##### 바. 파월 韓國 軍事援助團長

(1) 파월 韓國軍司令部가 越南에서 指揮所를 開所함과 동시에 파월 韓國軍司令官의 指揮를 받으



다음 朴大統領은 파월韓國軍司令官兼 猛虎부대장 蔡命新소장에게 司令部旗를 授與하였으며 이어 大統領의 諭示와 國防部長官 및 UN軍司令官 그리고 派越장령가족 대표의 歡送辭가 있은다음, 파월將兵의 武運을 祈願하는 가운데 幕을 내렸다.

이리하여 10월 16일에 제2梯隊가 釜山港을 떠난 다음, 蔡命新소장을 비롯한 指揮本部요원 49명은 10월 20일에 金浦空港에서 美輸送機便으로 出國한데 이어 同월 26일에 제3梯隊가 釜山을 出航함으로써 首都사단과 支援부대의 파월은 一旦 매듭을 지었다.

## 라. 海兵 第2旅團

韓國 軍事援助團이 파월된 직후부터 海兵隊司令官은 가까운將來에 海兵전투부대를 파월하게 될것으로 豫想하고 이에 미리 對備하기 위하여 65년 5월 12일 司令部內의 既存機構인 政策研究委員會를 보강하는 동시에 이에 派越부대의 편성方案을 研究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에따라 作戰教育局에서는 司令官의 指示사항과 政策研究委員會의 연구方案을 根據로 파월부대의 人員 및 장비와 부대增減에 따르는 3개의 方案을 수립한 다음, 6월 4일 작전準備命令 제1호로 第1上陸師團長에게 1개 聯隊편성 및 先發隊구성과 特別教育훈련계획을 樹立하되 이미 시달된 教育훈련계획을 變更하여 派越부대를 爲主로 教育훈련을 實施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師團에서는 제2연대를 母體로한 準備작업이 開始되었는데 이 聯隊는 지난 韓國 戰爭당시에 東西海의 島嶼와 海岸封鎖임무를 遂行하던 島嶼부대를 母體로 편성되었으며 戰爭중에 많은 實戰경험을 쌓은 聯隊였다.

이와같이 改編작업을 서두르고 있을때 越南共和國 정부로부터 6월 14일자로 우리 政府에 1개 戰鬥사단의 增派를 요청하는 公翰을 보내오에 따라 合同參謀本部內에 파월업무를 專擔하는 企劃團을 설치하자 海兵隊에서는 鄭泰錫, 劉國泰 兩대령을 團員으로 파견하여 이에 參與토록 하였다.

그뒤 7월 2일에 열린 國務會議에서 派兵案이 議決된데 이어 合參의 企劃團에서 研究검토한 부대編成案이 주한 美軍司令부와 合意된 다음, 國防部指令 제8호로 그 指針이 하달되자 海兵隊司令부는 7월 15일 從前에 이미 作成한 연대전성안을 補充하여 海兵제4831호로 새로운 연대전성안을 國防部에 제출하였다.

한편 派兵同意요청안이 8월 13일에 열린 國會 本會議의 同意를 얻은 다음, 同월 16일에

國防部指令 제10호로 準備지시가 내리자 海兵隊에서는 부대目錄으로서 (1) 海兵제1상륙사단 제2연대 (2) 同사단 포병연대 제2대대 (3) 同사단 醫務대대 제2治療 및 收容중대 (4) 同사단 본부대대의 一部 (5) 同사단 근무대대의 一部로 指定하고 國防부에 제시하는 한편 教育指針을 하달하고 人員편성과 裝備點檢 및 整備작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國防部에서 越南現地를 답사함과 아울러 美·越 兩軍으로부터의 軍需支援과 相互협조관계를 事前에 妥協하기 위하여 李世鎬소장을 團長으로한 연락장교단을 8월 18일에 파월하게되자 海兵隊에서는 金然翺준장을 이에 포함시켜 諸般 現地실정을 調査보고토록하였다.

이어 8월 19일에는 現地에서 支援받게될 陸軍支援부대에 대한 意見을 文書化하여 陸軍참모총장에게 제시하고 輸送, 兵器, 兵站, 通信, 工兵, 彈藥, 治療 그밖에 155mm砲 등 支援부대와의 協調사항을 折衝하였다.

한편 最初의 派越연대장으로 임명된 鄭泰錫대령은 同월 27일에 作戰장교를 대동하고 首都사단을 방문하여 兩者間에 필요한 協力사항에 대하여 最終적으로 타결하였다.

이때 지난 8월 18일에 파월된 연락장교단이 歸國하여 보고하기를 首都사단은 Qui Nhon에, 海兵연대는 Cam Ranh에 각각 分離주둔하여 作戰임무를 遂行하게 될것이라고 하자 海兵隊에서는 指揮官을 准將으로한 旅團규모를 파월하는것이 獨立작전에 適切할 것으로 판단하고 旅團으로 增編하는 編成案을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國防部로부터 국본일반명령(해) 제5호로 9월 20일을 期하여 部隊名을 海兵 제2연대(靑龍部隊)으로 改稱하는 동시에 旅團長을 自隊에서 准將으로 任命하라는 指示가 내려 初대여단장에 李鳳出준장이 任命되는 동시에 참모장에는 연대장으로 任命되었던 鄭泰錫대령이 就任하였다.

또한 8월 31일부로 海兵부대를 支援할 陸軍의 1개 野戰工兵중대와 155mm 砲兵중대(都合 397명)가 配屬지시를 받고 9월 6일에 浦項에 도착하자 곧 海兵부대와 같이 파월에 對備한 教育훈련에 들어갔다.

이 教育훈련은 師團教育指示 제4—65호로 下達되어 이미 지난 7월부터 제1차 特殊교육을 6개단계에 걸쳐, 그리고 제2차교육을 5개단계에 걸쳐 各各 實施한바 있었다. 즉,

제1단계 : 7월 1일부터 7일까지 個人교육을,

제2단계 : 同월 8일부터 14일까지 分, 小隊 및 中, 大隊單位 野外宿營훈련을,

제3단계 : 同월 15일부터 21일까지 山岳훈련을 爲主로한 聯隊전투훈련 및 野外機動연습을,

제4단계 : 同월 22일부터 31일까지 大隊 및 聯隊의 野外演習과 對“게릴라”作戰 및 中隊單

位的 晝夜間 전투훈련을,

제5단계 : 8월 2일부터 7일까지 密林地대 작전과 車輛 및 徒步間 即刻초치훈련 그리고 對 “게릴라”作戰과 “헬리콥터”訓練을,

제6단계 : 同월 8일부터 21일까지 海洋훈련과 M1檢定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어 제2차 教育의 제1단계는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제2단계는 同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단계는 同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4단계는 同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5단계는 同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제1차 教育內容을 反復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人員選拔에 있어서 強靱한 精神力의 所有者를 뽑는데 重點을 두고 무엇보다도 海兵의 傳統에 立脚하여 透徹한 海兵정신을 갖춘 장병을 기준으로 選拔하였으며 그방침은 大體로 首都사단의 選拔기준과 同一하였다.

이와같이 人員편성과 教育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浦項의 訓練기지에서 9월 20일 10.00에 朴正熙大統領을 비롯한 三府要人과 주한 外交使節 및 韓·美 兩軍의 高位將星 그리고 派越장병가족과 많은 浦項市民들이 參席한 가운데 結團式을 舉行하였는데 이 式典에서 部隊創設命令인 國本일반명령(해) 제5호(1965. 9. 20)가 朗讀된 다음, 大統領으로부터 靑龍部隊旗가 李鳳出여단장에게 授與된데 이어 大統領의 諭示와 旅團長의 答辭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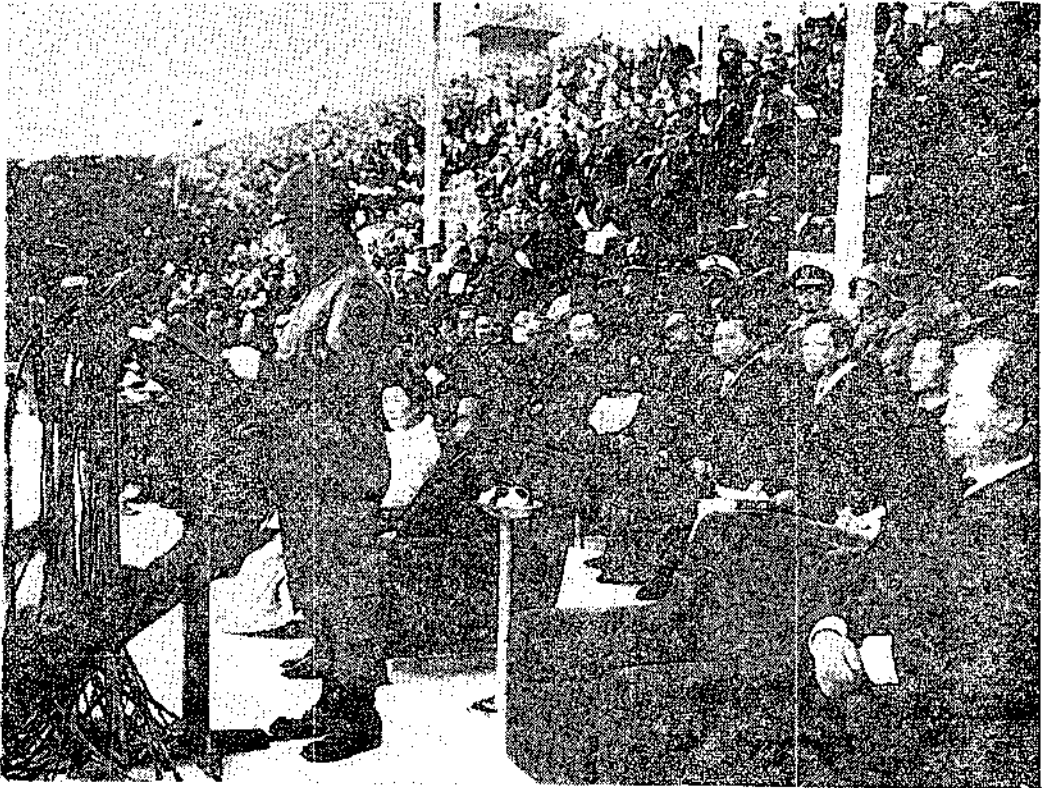
이리하여 諸般준비를 完了하고 結團式을 마치자 國防部는 同월 21일 指令 제12호로 出國命令을 내용으로한 陸海空軍참모총장 및 海兵隊司令官 그리고 파월 韓國軍司令官과의 상호 協調사항을 示達하였으며 이에따라 同여단은 10월 2일 列車편으로 浦項을 출발하여 釜山에 도착한 다음, 3일에 第3埠頭에서 陸軍先發隊와 함께 釜山市民들의 歡送을 받으면서 美海軍의 輸送艦편으로 向越하였다.

#### 마. 海軍 輸送團隊

第1移動外科病院과 跆拳道教官團의 파월에 이어 韓國 軍事援助團을 增派하게되자 國防部는 指令 제2호(1965. 1. 28)로 派越부대의 配屬과 支援사항을 各軍에 示達하였는데 그중 “나”項에 海軍參謀總長에 대한 指示사항으로서 LST 2척을 派越하되 그중 812함(위봉호)을 本國출발과 동시에 軍事援助團에 配屬시켰으며 이것이 越南정부의 海上輸送을 支援하기 시작한 嚆矢였었다.

그뒤 越南정부로부터 海上수송을 위한 艦船증파를 요청하여오자 國防部는 海軍에 命令하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林正熙大統領 임의하에 거행된 과월장병 餞送大會에서 答辭하는 曹煥煥단장

여 LSM 609함(월미호) 및 611함(능라호)과 더불어 장교 42명, 사병 493명 都合 535명을 派遣한 然後에 同월 12일에 海軍수송단대를 창설하고 初代사령관에 李應基대령을 任命하였다.

이어 同년 10월 31일에 LST 812함(위봉호)을 歸國시키고 813함(수용호)을 이에 代替하였으며 다음해 2월 17일에는 LSM 609함(월미호) 및 611함(능라호)을 歸國시키고 새로이 LSM 605함 및 607함을 과월한 다음, 首都사단 및 海兵제2여단의 追加과월과 더불어 海上輸送업무가 증가되자 國防部는 海軍에 指示하여 LST 807함(운봉호) 및 LST 808함(덕봉호)을 새로이 增派하였다.

이와같이 과월된 艦船의 數가 增強되자 國防部는 일반명령 제23호(1966. 2. 23)로 該團隊를 分隊로 增編하는 동시에 『白鷗부대』로 命名한 다음, 建設支援團에서 配屬해제하여 과월 韓國軍司令部 直轄로 獨立시킴으로써 海上輸送지원을 위한 運營의 效率化에 拍車를 加하였다.

## 2. 國軍 派越의 歷史的意義

越南戰은 理念대립으로 因한 同族間의 紛爭인 동시에 中·蘇의 背後操縱에 依한 世界赤化戰略의 一環으로 도발된 自由主義 對 共產主義의 對決場이다.

따라서 中·蘇 兩國이 各各 焦點을 달리한 立場에서나마 共產越盟을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支援하는데 對하여 USA를 비롯한 自由友邦 諸國이 越南共和國을 援조하며 直接交戰에 參與하는것은 越南의 共產化를 阻止하는것이 곧 自由世界의 安全과 平和를 守護하는데 直結된다고 看做하였기 때문인것이다.

韓國戰爭 이후 休戰線 以北의 全國土를 要塞化하고 全人民의 武裝化를 촉진시켜 再侵略의 挑發준비를 갖춘 北傀로부터 끊임없는 威脅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現實的인 危險부담을 무릅쓰고 越南共和國에 對한 支援을 위하여 國軍의 파일을 斷行한것은 政治 經濟 軍事的인 次元에서 共通된 利害得失과 大義名分을 肯定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國軍의 파일을 斷行한 그意義는 果然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살펴보기로한다.

### 가. 政治的 意義

첫째 越南에 對한 共產侵略은 世界赤化戰略의 一環으로서 恣行된것이므로 이를 阻止하지 못하면 印度支那반도는 물론이고 隣接한 自由諸國마저 不遠한 將來에 그들의 威脅을 받게 될것이다. 따라서 越南의 崩壞는 곧 自由陣營의 斜陽을 뜻한다고 볼때에 越南의 방위는 곧 모든 自由友邦의 安全과 平和수호에 相通되는 것이다.

둘째 共產侵略에 對항하는 自由越南을 友邦諸國이 共同으로 지원하고 함께 싸우는것은 곧 集團安保체제를 堅固하게 구축하는 契機가 되는 동시에 그럼으로써 共產侵略者들에게 自由諸國의 어느 한國家도 敢히 侵略할수없다는 制動的인 作用을 미치게 함과 아울러 自由友邦의 一致된 反共결속을 誇示하는 結果가 될것이다.

셋째 越南派兵은 韓國戰爭당시에 우리나라의 自由를 위하여 參戰한 友邦國의 友誼에 報答하는 동시에 滅共戰을 위하여 共同運命의인 連帶感에서 聯合戰線을 形成한다는 道義的인 血盟관계를 行動으로 實證하는 것이다.

네째 國軍의 파일은 곧 韓國國民의 斷乎한 反共決意를 내외에 闡明하는 結果가 됨으로써



마원장병 들을 激勵하는 朴正熙大統領

韓國의 國際的 지위를 不動의 것으로 浮刻시켰다.

다섯째 北傀의 끊임없는 挑戰的 威脅을 받는 가운데서 派兵한것은 그만큼 國力의 餘裕를 誇示하는 것이 될뿐아니라 北傀와의 間接的인 對決태세를 示威하는 한편 全國民의 反共정신을 한층 굳게 結束시켰다.

여섯째 越南과병은 中立을 指向하는 제3국 및 非同盟세력과 UN에 대한 韓國의 外交的인 입장을 不利하게 할것으로 豫상하였으나 65년 12월 21일 제20차 UN總會에서 行하여진 韓國統一決意案에 대한 票決結果는 贊成 61, 反對 13, 棄權 34라는 絶對的인 多數票로 可決된 사실과 또한 親共的인 INDONESIA가 65년 9월 30일에 발생한 共產“쿠데타”이래 反共國家로 急旋回한 사실 그리고 親中共 勢力圈에 屬하였던 AFRICA의 GHANA 및 DAHOMEY 그리고 中央 AFRICA등 左傾國가가 革命과 함께 反共路線을 標榜하고 中共과의 關係를 斷切한 사실등 모든 國家의 情勢가 變化된것을 考察하건대 韓國의 派兵조치는 國際外交上 失보다도 得이 더욱 많았다는 것을 肯定할 수 있다.

일곱째 國軍의 一部兵力이 派越함에 따르는 國內 防衛力の 減少를 보충하기 위하여 豫備사단의 戰鬥師團化와 아울러 主한 美軍의 駐屯을 延長시킨 동시에 政治的으로 韓國에 대한 美國의 防衛公約을 再確認함으로써 韓半島의 政世安定을 적지않게 造成하였다.

### 나. 軍事的 意義

첫째 越南戰에서의 實戰경험을 通하여 國軍의 戰術戰技를 向上시킨 동시에 反共思想과 滅共闘志를 鞏固하게 다질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둘째 共產軍과의 交戰을 通하여 그들의 戰略戰術의 長短點을 익힘으로써 이들과 一脈상 통한 北僞의 戰略戰術을 分析 파악하여 對應策을 開發하는데 一助가 되었다.

셋째 建軍이래 처음으로 異國땅에서 陸海空軍 및 海兵隊를 통합한 指揮체제를 갖추고 作戰을 成功的으로 수행한 經驗을 쌓았다.

넷째 派越 한국군은 美軍의 物量爲主의 機動打擊 戰略에 步調를 같이하여야 할 立場에 있으면서도 共產軍의 “게릴라”戰略을 逆用한 이른바 分擊戰略을 개발시킨 獨創的인 中隊戰術기지의 運用으로서 敵에게 단 한번도 陣地나 기지가 窺視되거나 喪失됨이없이 그들의 侵攻을 모조리 격파하고 말았으며 可謂 所向無敵의 聲譽를 높인바 컸었다.

다섯째 派越 한국군은 戰鬥員 全員이 心理戰요원이 되어 武力戰과 더불어 心理戰을 並行함으로써 平定課業을 보다 效果的으로 촉진시킨 동시에 心理戰의 領域을 넓히고 그 有用價値를 重視하는 傾向을 가져왔다.

여섯째 派越兵力으로 因한 國內 防衛力の 減縮을 補強하기 위하여 3개 豫備사단을 戰鬥師團化할 수 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兵器와 장비를 新型으로 交替하는 結實을 맺게하였다.

일곱째 우리나라 歷史이래 처음으로 他國을 征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려는 友邦의 困役을 돕기 위하여 萬里鵬程에 우리의 青年武人들을 진출시켜 異域땅의 瘴癘를 마다하지않고 能히 勇猛性을 떨쳐 自由民을 愛導하였는바 이는 眞實로 曠古未曾有의 一大盛事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第 3 章

# 先發隊 및 連絡將校團의 活動

### 要 旨

1. 編成 및 參加者
2. 任務 및 活動



### 第3章 先發隊 및 連絡將校團의 活動

#### 要 旨

越南共和國 정부의 軍事支援요청에 따라 130명으로 편성된 第1移動外科병원과 10명의 跆拳道教官團을 파월케되자 國防部는 越南의 現地사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美·越 兩軍과의 圓滑한 상호 支援체제를 確立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18일에 指令 제 1호로 先發隊를 파견하였다.

이에따라 李勳燮준장을 隊長으로한 장교 3명과 美軍장교 2명으로 구성된 先發隊는 같은해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越南에 더부르면서 多様な 軍事의교활동을 전개한 끝에 파월 韓國軍으로 하여금 맡은바 所任을 다할 수 있는 基底的인 與件을 妥結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그 以後에 越南 정부의 추가 支援요청을 받아들여 비둘기部隊를 主軸으로한 韓國軍事援助團을 파월하게 되자 國防部는 다음해인 1965년 1월 7일에 指令 제 1호에 依據하여 제 2차 先發隊를 파견기로 決定하고 現地활동의 重任을 勸察하여 제 1차 先發隊長으로서 經驗을 쌓은 李勳燮준장을 다시금 隊長으로 任命하는 동시에 隨行員으로서 6명의 장교와 2명의 士兵을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先發隊는 1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美·越 兩軍의 實務者와 數次에 걸친 會談을 통하여 비둘기部隊의 駐屯地 및 基本임무와 作業의 優先순위 그리고 活動범위와 警備문제를 비롯하여 美·越 兩軍과의 効率的인 협조체제를 確立하는데 많은 成果를 거두었으며 특히 自主的인 작전 指揮權문제와 아울러 非常時에 對處한 支援문

제에 따라야 韓·美 兩軍의 實務者約定 또는 秘密협정을 체결하는 등 長期眼目的 對應策을 講究한 다음 귀국하였다.

또한 越南정부의 戰鬥부대 支援요청에 따라 首都사단 및 海兵 제 2여단을 派越케되자 國防部는 전투부대의 海外파견이 國防史上 처음으로 실시되는 重大性에 비추어 本格的인 軍事支援이라는 次元에서 韓·美·越間의 긴밀한 協議체제가 確立되어야 함을 切感하고 同년 6월 19일에 指令 제 7호로서 연락장교단을 현지에 파견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李世鎬소장을 團長으로한 將星 5명과 領官 장교 1명 그리고 美顧問官 1명으로 구성된 연락장교단이 同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Saigon에 滯留하면서 美·越 兩軍의 實務者와 情報, 作戰, 人事, 軍需등 各분야에 걸친 多角的인 協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結果 兩 전투부대의 駐屯地와 戰術책임지역의 設定 그리고 作戰間의 상호 支援체제와 情報제공등 諸般사항을 妥結하였으며 특히 작전 指揮權문제를 둘러싸고 雙方間에 一大激論을 벌여 한때는 決裂의 破局에까지 이르렀으나 끝내 韓國군에 대한 指揮權은 韓國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그以外的 諸般문제는 韓國군 사령관이 現地에 부임한 然後에 韓·美·越 三者間의 同意에 따라 決定한다 라는 伸縮性있는 線에서 妥協을 볼으로써 파월 韓國軍의 憲章인 軍事협정은 마침내 締結되었던 것이다.

## 1. 編成 및 參加者

### 가. 第1次 先發隊

대장	육군준장	李	勳	燮		"	육군대위	魚	秀	福
대원	육군대령	金	永	逸		UN軍司 및 美 제 8 군將校 2명 隨行				

### 나. 第2次 先發隊

대장	육군준장	李	勳	燮		대원	해병중위	權	奇	範
대원	육군대령	金	永	逸		"	육군병장	金	鐘	龍
"	육군소령	金	永	麟		"	육군일등병	金	福	春
"	육군중위	安	昌	和						

### 다. 連絡 將校團

단장	육군소장	李	世	鎬		대원	육군중령	徐	영	원
단원	육국준장	金	容	侏		"	육군중위	安	昌	和
"	육군준장	李	勳	燮		(現地 IMAO에서 臨時 派遣됨)				
"	육군준장	李	範	俊		"	美 육군대령	Blewett		
"	해병준장	金	然	翔		(合參 首席顧問官)				

## 2. 任務 및 活動

### 가. 第1次 先發隊 (1964년 8월 26일~9월 8일)

國防部는 1964년 7월 18일에 指令 제 1 호로 越南현지에 先發隊를 파견키로 決定하자 隊長에 合同참모본부 軍需企劃局次長 李勳燮준장을 任命함과 아울러 隊員으로서 장교 2명과



美軍장교 2명을 隨行케 한 다음 이에 다음과 같은 任務를 부여하였다.

### 先發隊長에게 賦與하는 任務

『다음 先發隊長에 賦與하는 任務(착안점)은 일반적인 指針이며 이에 局限하는 것은 아님. 이 기간 중 韓·越 및 韓·美間에 惹起되는 많은 문제점을 解決 내지는 妥善하는데 重點을 指向할것.』

#### 1. 人事분야

- 가. 派遣기간중에 不規則인 交代방법은?  
事故로인하여 本國에 송환되는 장병의 수송문제(美航空機 이용문제)
- 나. 派遣부대장병의 法的지위 및 身分보장문제
  - (1) New Zealand 軍隊와 越南과의 協定관계는?
  - (2) 美軍 및 기타국과의 協定관계는?
- 다. 將兵의 福祉문제(오락, PX, 군사우편 관계)
- 라. 現地 民間人의 雇傭문제
  - (1) 가급적 韓人 僑胞(言語관계상)
  - (2) 越南當局에서 身分을 보장하는 者
- 마. 駐屯지역의 機關長을 만나 앞으로의 便宜를 협조.
- 바. 駐屯地域의 地方사정을 상세히 파악할 것.
- 사. 派遣군인이 營外에서 事故를 일으켰을 경우 피해補償 절차문제.

#### 2. 情報분야

- 가. 주월武官과 派遣隊長과의 관계
- 나. 大略的인 彼我정세의 파악
- 다. 주월武官을 연락장교로 任命하는 문제

#### 3. 作戰분야

- 가. 派遣부대의 指揮權.
  - (1) 파견부대와 越南군대와의 관계.
  - (2) 파견부대와 美軍事援助司令部와의 關係.
  - (3) 跆拳道 指導要員의 指揮문제.
  - (4) 파견부대와 주월大使館과의 관계.
- 나. 跆拳道 指導要員의 配置문제에 關하여 協議할 것.
- 다. 部隊警戒대책.
  - (1) 越南政府로부터는 어떻게 支援을 받을 것인가?
  - (2) 警戒대책에 關하여 越南정부로부터 어느정도 무엇을 支援을 받을 것인가?
  - (3) 三重 鐵條網의 構築여부.
  - (4) 警戒병력 문제와 警戒범위.
  - (5) 越南정부로부터 충분히 警戒를 받도록 교섭할것.

(6) 警戒부대의 兵力과 裝備量도 파악할것.

- 다. 美軍과 越南軍에 연락장교를 파견할 必要性여부.
- 마. 越南軍의 연락장교를 病院에 配置하도록 교섭.
- 바. 戰術的 面에서 本 部隊 駐屯地의 位置평가.
- 사. 移動外科병원과 大使館과의 無電機 설치여부(無電機 종류)

(1) 通信수단의 現地 解決가능성 與否.

(2) 營內통신은 自隊책임하에 할것.

(3) 外部(營外)通信網도 支援되도록 할것.

(가) 移動外科병원과 越南軍과의 通信.

(나) 移動外科병원과 美軍司令部와의 通信.

(다) 移動外科병원과 大使館과의 通信.

(4) 上記 有無線網에 대하여 解決할것.

#### 4. 軍需분야

가. 現地 美·越軍으로부터 받게 될 모든 軍需물자의 支援根據를 가능한限 확인할것

나. 收容患者의 給食, 被服 및 수송을 越南정부가 담당하도록 交涉.

다. 제3종補給 및 醫藥品의 補給문제.

라. 裝備, 整備지원문제.

마. 跆拳道교관의 給食문제

바. 현지 物價指數.

사. 각종裝備 受領절차.

(1) 각종裝備의 수령장소(현지 病院에서).

(2) 각종裝備의 수령시일.

(3) 각종裝備의 수송.

(4) 각종裝備의 설치.

(5) 각종裝備에 대한 3,4단계의 整備절조.

아. 規定휴대량 (PLL) 및 修理부속품의 補給전망.

자. 通信의 補充보급

차. 醫藥品 및 소모품 所要量의 補給전망.

카. 淨水 Trela 및 冷房장치의 事前설치.

타. 電氣 水道料金の 清算요령(必要하다면)

파. 英顯업무의 遂行절차 合意.

하. 救急車(Ambulance)를 포함한 輸送지원계획.

각. 血液銀行 운영문제.

낙. “벨리콥터”支援(行政 및 患者수송).

닥. 장교, 간호장교, 사병宿所의 決定(장소 및 시설).

- 략. 軍醫 및 看護장교 宿所의 별도 警戒계획(性別로 合宿).
- 략. 主副食의 現地획득方案 및 우리에게 맞는 炊事시설.
- 략. 本隊 도착 직후부터 取食이 가능하도록 교섭.
- 략. 患者수송계획 및 절차.
- 략. 特殊患者의 治療 및 후송.
- 략. 民間人환자의 治療문제.
- 략. 患者記錄서류의 규격(韓·美·越의 비교).
- 략. 本隊도착후 港口로부터 現地병원까지의 輸送계획 및 途中경계.
- 략. 現地 軍병원의 운영현황 파악.
- 략. 下船지점의 現地답사.
- 략. 裝備수령자의 標識 및 수령절차 確認.
- 간. 파견요원의 檢疫 및 豫防주사문제 協議.

#### 5. 其 他

- 가. 上記事項의 韓·美·越間의 合意내용을 可能한限 文書화된 合意書를 가지고 올것.
- 나. 先發隊中 귀국자를 통하여 本國에 보고할것.
- 다. 파견요원이 現地에서 熟知할 사항.』

以上과 같은 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先發隊는 8월 26일에 金浦空港을 出發한뒤에 9월 8일까지 越南 Saigon에 머무르면서 美·越 兩軍의 實務者와 懸案문제를 討議하였는데, 특히 力点を 두고 추진한 것은 病院의 位置選定과 警備문제 그리고 要員에 대한 寢食 및 補給사항이 었다.

그런데 美軍側은 病院의 位置로서 이미 Soc Trang을 內定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空軍의 戰略的 橋頭堡일뿐 아니라 南部越南의 野戰지역으로서 主要視되므로 移動外科병원의 運營 목적과 任務에 비추어 볼때 가장 適合하다는 것이 그 理由인듯 추측되었다.

이에 反하여 越南軍側은 病院의 不足으로 극심한 隘路를 겪고있는 此際에 파월된 韓國軍의 野戰병원을 되도록이면 地理적으로 活用하기 편리한 Saigon 周邊에 설치하되 My Tho—Can Tho—Vung Tau 등 3개지역에 있는 越南軍병원이 患者의 激增으로 크게 困難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支援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주장하면서 그중의 1개지역을 選定할것을 提議하였다.

이와같이 美·越 兩側의 意見이 대립되자 事態는 韓國軍側의 意思여하에 따라 決定것게 되었는데 이때에 李熙燮준장은 무엇보다도 病院의 安全유지에 主眼點을 두고 擇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情勢는 매우 流動的이고 錯雜한데다가 自體경비 能力이 充分치 못한 病

院의 실태에 비추어 優先 安全유지를 前提要件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李준장은 申尙澈대사와 武官 李大鎔대령의 訪問을 받아 Soc Trang을 비롯한 My Tho—Can Tho—Vung Tau등 地域을 綿密하게 航空 또는 地上 偵察한 끝에 Vung Tau가 그 중의 安全지역으로 判斷되었으므로 여기에 설치할 것을 提議함으로써 마침내 이곳으로 落着되었다.

그밖에 病院의 新築과 運營에 관하여 적지않은 論難이 있었을뿐 아니라 警備와 給食문제에 있어서도 意見대립을 빚었으나 그럴 때마다 李준장은 美軍側이 反對하면 越南軍과 個別 접촉하여 그들의 同調를 얻은 다음에 美軍側을 納得시키는데 힘쓰는 反面에 越南側과 對立될 때에는 美軍側을 個別설득하여 그들과의 共同主張으로 越南側을 承服시키는등의 妙法으로 三者間의 完全타결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9월 5일에 마침내 實務者 合意書에 署名하였는데 韓·越·美間에 그리고 韓·美間에 各各 맺은 合意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韓·越·美 實務者級 合意書

越南에 있어서의 科員 韓國軍事支援團(次後 團으로 呼稱)의 運營을 돕기위한 數차례의 會晤를 통하여 支援團의 先發隊長, 越南국방부대표자 및 科員 美軍事支援사령부의 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合意를 보았음.

##### 1. 病院의 신축

越南정부는 Vung Tau에 1개 病院을 構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韓國移動外科병원(次後 病院으로 呼稱)은 계획된 病院구축이 完了될때까지 Can Tho에서 運營한다.

##### 2. 病院의 운영

가. 病院은 60病床운영을 基準으로 한다.

나. 越南정부는 病院운영에 필요한 行政, 軍需 및 施設을 支援하기 위하여 行政要員을 과견한다.

다. 韓國정부는 技術支援을 제공한다.

라. 最初지역에 있어서의 支援은 本隊 도착후 病院長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마. 病院운영을 위한 民間人 雇傭者에 대한 勞賃支給, 處遇, 身元, 經歷, 忠誠度 및 모든 行爲는 越南정부가 責任을 진다.

3. 醫療 및 후송

가. 60日의 後送방침을 基準으로 하며 民間人을 포함한다.

나. 모든 治療는 本病院이 갖는 技能범위내에서 실시된다.

4. 施設의 설치

가. 病院, 宿所 및 炊事場을 비롯한 모든 施設은 本病院이 도착할때까지 越南정부에 依하여 완료된다.

나. 裝備설치는 病院長과의 협조하에 越南정부의 支援으로 이루어진다.

다. 病院 및 一般施設의 계속적인 整備유지는 病院長의 요청에 따라 越南정부에 依하여 제공된다.

5. 入院患者에 대한 보급

入院患者에 대한 모든 行政 및 補給지원은 越南정부에 依하여 제공된다.

6. 警 備

施設 및 病院요원에 대한 警備는 越南정부에 依하여 제공된다. 충분한 警戒兵 및 事前대책이 越南정부에 依하여 제공되며 必要한 경우 病院長의 요청에 따라 追加的인 警戒병력이 越南정부에 依하여 제공된다.

7. 跆拳道지도요원

가. 이 要員은 3개반으로 編成, 1학급 100명 内外로서 敎官요원 養成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指導要員이 현지도착후에 越南정부와 再협조한다.

나. 道場, 敎育보조자로 및 기타 跆拳道 훈련에 必要한 모든 施設 및 자료는 越南정부에 依하여 제공된다.

1964년 9월 5일

Saigon에서 署名

준장 李 勳 燮

준장 Hoang Van Phung

준장 FA. Osman Ski

한국군사지원단

越南國정부

과월 美軍事원조사령부

선발대 대표

국방부대표

대표

韓·美 實務者級 合意書

1. 大韓民國정부는 越南정부의 反遊擊작전 수행을 돕기위하여 1개 移動外科병원 및 跆拳道

道 指導요원으로 구성되는 韓國軍事支援團을 越南에 제공한다. 이 韓國軍事支援團은 卍월 美軍事支援司令部의 作戰통제하에 두게 된다.

2. 韓國이동의과병원장은 韓國정부에 依하여 수여된 秘密取級구분을 명시하는 韓國軍事支援團의 명단을 卍월 美軍事支援사령부에 제시한다.
3. 다음과 같은 範圍에서 美國 軍事요원에게 보통 제공되는 支援이 韓民軍요원에게 제공된다.

- 가. 宿所 食堂시설, 但 家族을 위한 施設은 除外한다(제4項 給食支援欄 참조).
- 나. 개인화기, 彈藥 및 장비.
- 다. 國內 醫務 및 齒科치료.
- 라. 屍體 적종의 준비를 포함하는 屍體거치장 근무.
- 마. 美軍측에서 운영되는 버스, Sedan, Taxi 및 航空機를 포함하는 國內(越南)수송.
- 바. 既存계통을 통한 韓國으로의 군사우편 및 書信의 송달.
- 사. 既存 APO 및 FPO 신설.
- 아. 國內通信.
- 자. 國內 PX 및 食料品 施設團 상품은 購買者의 사용에 필요한 量으로 제한된다.
- 차. 規定된 休養여행을 포함하는 特別봉사.
- 카. 身分증명서.
- 타. 도착과 동시에 國內現況설명.

#### 4. 給養物

제1種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軍援계통을 통하여 제공된다.

- 가. 韓國移動外科병원요원.

(1) 越南軍총사령부 J-4는 越南軍부대에 日常 제공되는 基本給食品目(쌀, 소금, 설탕, 식유, 차)을 韓國 移動外科병원 要員에게 供給하기로 약속하였다.

(2) 追加적인 手當이 보통 韓國軍에게 供給되는 기타 品目を 위하여 제공된다. 이 手當은 美國식료품 施設의 Doller Credit 및 Piastre Imprest fund를 포함하게 된다. 適當한 額數가 適用되는가를 알기위하여 月間검토를 실시한다.

- 나. 跆拳道요원

給食은 宿所지역에서 제공된다. 卍월 美軍事支援司令部 관리부장에게 證憑書를 제출함으로써 地方의 장교식당에 月間報償을 하게 된다.

## 5. 裝備, 補給品 및 軍需근무

越南軍總사령부 J-4는 韓國移動外科병원을 위하여 軍事援助計劃에 依한 必要的 裝備, 補給品, 차량 정비 및 기타 軍需근무와 그외의 國內자산을 提供하기로 약속하였다. 支援되는 裝備는 越南정부에 속하게 된다.

韓國移動外科병원이 철수할 수 있는 裝備는 到着時의 品目 및 그後 韓國정부로부터 공급된 品目에 限한다.

6. 現在에 있어서 파월 美軍事支援司令部는 緊急후송, 긴급歸國 혹은 靈顯移送을 위하여 韓國까지 航空수송을 제공할 權限은 갖고 있지 않다. J-4는 太平洋地區사령부로부터 이 權限을 獲得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大韓民國政府는 美國 軍事요원에 許容되는 權利, 特權 및 免稅조치가 한국군요원에게 도 許容되기 위한 양해를 얻기 위하여 越南정부와 協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8. 이 實務者級 合意書는 實務者級에서의 一般的인 合意를 말하며 大韓民國政府 및 美合衆國間의 正式 國家間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 군사지원단 대표

준장 李 勳 燮

파월 미군사원조사령부 J-5

소장 Adams

“ J-4

준장 Osmanski

以上과 같이 署名한 合意書중 病院의 신축에 있어서 計劃된 過程이 完了될때까지 Can T에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移動外科병원은 파월 당초부터 Vung Tau에 설치되었다.

이리하여 歷史上 처음으로 異國에서의 野戰醫療支援과 跆拳道의 指導를 담당하게된 第1 移動外科병원과 跆拳道교관단의 활동을 뒷받침할 韓·美·越 三者間의 實務者約定을 成功的으로 맺는 先發隊는 다음날인 9월 6일에 越席을 떠나 一路 歸國의 길에 올랐다.

## 나. 第2次 先發隊 (1965년 1월 8일~2월 15일)

越南정부의 追加支援요청에 따라 제 2차 增派부대로서 1개 陸軍野戰工兵대대 및 1개 육군 경비대대와 1개 陸軍수송중대 그리고 1개 陸軍工兵야전정비반 및 1개 海兵工兵중대와 海軍 LST 1척을 主軸으로한 韓國軍事援助團을 파월케되자 국방부는 다음해인 1965년 1월 7일에 指令 제 1호에 依據하여 李勳燮준장을 隊長으로한 7명의 先發隊를 現地에 파견하여 構

勢現況을 조사하는 동시에 美·越 兩軍과의 協調사항을 妥結케 하였는데 이에 부여된 任務는 다음과 같다.

### 先發隊長에게 賦與하는 課業

#### 1. 作戰분야

가. 部隊任務 및 配置될 지역.

- (1) 陸軍野戰공병대대 및 海兵隊공병중대의 任務 및 주둔 지역.
- (2) 陸軍경비대대의 任務 및 예상 주둔지.
- (3) 陸軍수송중대의 任務 및 配置될 지역.
- (4) 海軍 LST가 수행할 任務 및 其他.
- (5) 警備能力에 비추어 中隊이하의 分割주둔을 可及的 制限하도록 交渉한다.
- (6) 韓國軍 각부대는 兵科 固有의 임무만을 수행하게 하고 특히 警備대대는 韓國軍부대(自體경비능력이 없는 部隊)의 警備임무를 담당하도록 US MAC-V와 協定을 체결한다.
- (7) LST 파견의 必要性 與否와 運用을 如何히 할것인가의 檢討.

나. 援助團本部の 位置

- (1) 韓國大使館과 US MAC-V와의 連絡 및 韓國軍부대의 指揮를 위하여 Saigon에 위치하도록 交渉(可及的 US MAC-V와 같이).
- (2) 團本部는 自隊의 防衛力이 없으므로 可及的이면 陸軍경비대대 本部和 같이 位置하도록 한다.

다. 援助團本부가 사용할 建物指定

自隊의 防衛가 容易하도록 民間과 隔離된 建物획득을 推進.

라. 本部和 韓國軍 각부대와의 通信方法해결(有無線 및 文書通信).

마. 援助團本부와 越南軍과의 協調관계.

바. 第1 移動外科병원과 跆拳道교관단의 實情 파악.

사. 韓國軍 각대대本部(工兵 및 警備대대本部)는 파월 軍事援助團本부와 같은 地點(특히 警備대대)에 位置하도록 交渉할것.

아. 追加的인 增員與否의 필요성.

#### 2. 軍需분야

가. 韓國軍의 武器가 파월 美軍 및 越南軍의 武器와 同一한 종류인가? 萬若 種類가 相異할때의 彈藥支援 및 補充보급문제.

나. 韓國軍의 裝備가 파월 美軍 및 越南軍의 裝備와 同一한 種類인지? 萬一 種類가 相異할때의 整備支援문제(野戰정비 및 其他정비).

다. 派遣부대 不足장비의 補充문제.

라. 廢장비의 處理문제.



다. 韓國軍人の 入院 및 後送문제.

※ 本國후송을 要하는 人員을 제외하고는 韓國 第1 移動外科병원에 入院하도록 推進.

바. 각종 補給수령절차 및 Form과약.

사. 모기장을 越南도착 直後에 支給받을 수 있게 措置.

아. 彈藥을 휴대할 必要性의 與否검토.

### 3. 人事분야

파월 韓國軍事援助團이 越南도착 直後에 各自에게 Perdiem(手當)이 支給될 수 있도록 措置, Perdiem을 羨貨로 支拂하도록 요청.

### 4. 其 他

가. 韓國輸送艦이 사용할 港口 및 운항절차.

나. 入港後 주둔지까지의 輸送계획 및 給養대책.

다. 주둔지에 到着될때까지의 警戒대책 요구 및 非常時의 대비를 위한 彈藥휴대 基準量.』

以上과 같은 任務를 賦與받은 先發隊는 1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越南에 체류하면서 美·越 兩軍과의 協調사항을 妥結하고 協定을 체결하는 한편 이미 파월된 제1 移動外科병원 및 跆拳道교관단의 實情을 파악하여 一部の 先發隊員으로 하여금 먼저 歸國報告토록 함으로써 本隊의 파월에 參考자료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隊員은 現地에 殘留하였다가 本隊에 合流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하여 先發隊는 1월 8일 金浦空港을 떠나 10일에 Saigon에 도착하였는데 Tan Son Nhut空港에서 越南軍 需需處長 Dam대령과 美軍側의 Evans Smith대령 그리고 주월 韓國大 使館附 武官 李大鎔대령의 迎接을 받았다. 이어 다음날인 11일부터 日程表에 依據한 活動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날에는 파월 美軍事援助사령부에서 現況을 청취하고 참모장 Stillwell소장, 군수참모 Osmanski준장, 민사참모 Adams소장과 各各 人事를 나눈 다음, 곧 이어 越南軍중사령부를 방문하여 現況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越南軍總司令部의 說明은 友邦軍대표에게 마땅히 提示해야될 全般에 걸친 包括的인 戰況이 아니라 一般 來訪者에게 行하는 儀禮的인 要約설명에 不過하므로 李준장은 直感的으로 釋然치않은 懷疑를 느꼈으나 앞으로 있을 보다 큰 問題해결에 신중하게 對處할 조심스러운 생각에서 아무런 表示도 하지 않았다.

이어 越南軍참모총장 Minh소장과 作戰참모 Thang준장을 차례로 방문하였는데 이때 李준장에게 全般的인 戰況설명을 하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Thang준장은 간단하게 人事를 나누었을 뿐, 一切 緘口無言이었다.

그러자 李勳燮준장은 侮蔑을 당한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超然한 態度로 「作戰현황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鄭重하게 말하였다. Thang준장은 마지못하여 現況板에 圖示된 各軍단의 配置상황을 간단히 言及하고는 다시금 沈默을 지키는 것이었다.

作別人事를 하고 廳舍를 물러나온 李준장은 그와같은 態度는 決코 意識的인 作爲가 아니라 長久한 被壓迫생활에서 惰性化된 排他性이 隱然中에 露出되었으리라는 善意의 理解를 하던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그들과의 協議過程이 순탄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豫感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이어 다음날 下午에 美軍側과 제 1차 會議를 개최하고 軍需사항에 關하여 협의하였다.

14일에 李준장은 人事次 파월美軍司令官인 Westmoreland大將을 禮訪하고 韓國側의 基本方針을 傳達하기를 「첫째 韓國軍부대의 指揮權은 韓國軍의 指揮官이 가지되 作戰統制權은 파월美軍司令官에게 委任하러는 것이 本國의 方針이다. 둘째 增派되는 部隊는 兵科固有의 性格에 부합되게 非戰課任務만을 遂行케 하여야 한다. 셋째 駐屯地는 被害復舊를 위한 再建지역으로 하되 安全地域에 位置하여야 하며 넷째 越南에 上陸後 目的地까지 移動하여 部隊를 散開할때까지의 整備를 美軍側이 擔當하여야 한다. 다섯째 增派부대는 韓國軍의 平均保有장비만을 휴대하므로 不足장비를 現地에서 補充받아야 한다. 여섯째 파월美軍을 위하여 本國과 越南間의 航空輸送에 있어서 美軍用항공기(MATS包含)便을 利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要旨의 說明을 하였다. 그러자 同大將은 韓國軍의 圓滑한 任務遂行을 돕는 見地에서 大體로 그와같은 方向으로 노력할 뜻을 비치었다.

그런데 이날 늦게 最初의 韓·美·越 聯合會議가 열리게 되어있으므로 李준장은 이에 參席하러하였으나 韓國軍의 作戰指揮權을 美國側에 委任한다는 내용을 越南軍側이 알게되면 畢竟 이를 반대할것이므로 이로因하여 會議壁頭부터의 對立이 激化될것으로 豫測되자 當분간은 三者間의 聯合會議에 不參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는 現地偵察을 구실로 聯合會議의 參席을 延期하는 한편 美軍側으로 하여금 越南軍側과 協議하도록 慫慂하면서 美軍側과의 兩者會談만을 進行시켰다. 그런데 이들과의 會談에 있어서도 몇가지 事項은 좀처럼 妥結되지 않았는데 그중 論難을 거듭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不足裝備의 補充에 關하여

美軍側은 주장하기를 到着直後의 裝備補充은 現地事情上 不可能하며 이를 充當하기까지는 最小限 3개월 내지 6개월이 所要되므로 裝備뿐만 아니라 그 修理附屬品까지 휴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對하여 李准장은 「平均保有장비 以上の 裝備는 國內사정상 휴대할 수 없으니 반드시 現地에서 支援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正常的인 節次만으로 獲得하려 하지 말고 緊急 조치를 取하면 日本—沖繩—Philippines 등지에서 支援이 不可能할것도 없지 않겠는가, 만약 그것도 如意치 않다면 美本土에서 充當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2,000명에 대한 장비의 在庫量이 그렇게도 없다는것이 말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하였다.

## 2. 駐屯地와 幕舎에 關하여

美軍側の 計劃案에 依하면 과월 韓國軍事援助團의 주둔지는 Di An으로 內定되고 있었으나 工兵대대만은 Da Nang에 주둔시키기로 되어있었다.

그 理由는 東海岸일대를 掩襲한 颱風 Saraho의 被害를 復舊하는 것이 戰術上 先決문제이므로 Da Nang에 駐屯시켜 제 1차적으로 復舊공사에 착수케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越南軍側이 李准장에게 非公式的으로 示唆하기를 「首都防衛를 위한 戰術的 次元에서 볼때에 Soigon外廊을 연결하는 環狀道路의 개설 또는 擴張공사가 時急하므로 한국군의 工兵부대는 首都圈에 위치한 Di An에 駐屯시켜야 할것이다」라고 말한바 있었다. 따라서 李准장은 그와같은 越南軍側의 示唆를 想起하면서 支援團은 自體防禦力이 充



申尙澈대사(우) 및李大鎬대령(좌)과 함께 My To지역을 시찰하는 李勳燮중장(중앙)

분치 못한 非戰鬪부대이므로 可及的이면 分割주둔을 避하고 같은 地域에 集結주둔하여야 한다는 見地에서도 그들이 示唆한 Di An이 한국군의 安全을 위하여 有利하다고 判斷되었기 때문에 美軍側の 意見에 反對하기로 決心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申尙澈대사와 武官 李大鎔대령의 諮問을 받아 5개 候補地에 대한 情勢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訪越中인 孫熙善소장 및 李龍준장과 함께 數次에 걸쳐 空中 또는 地上정찰을 실시하였다. 그 結果 주둔지를 Di An으로 內定하고 美·越 兩側과 協議한 끝에 마침내 이곳으로 落着되었는데 이날 武官 李大鎔대령은 Di An으로 內定하기 까지의 狀況判斷결과를 先發隊長의 日日報告에 兼하여 要旨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 보고 제17호 (1965. 1. 29)

1. 금일 오전에 손장군과 이장군이 예정대로 선정된 5개 후보지역을 공중 및 지상정찰하여 선발대장 이장군과 수차 협의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음. 5개 지역중 제 1 후보지역이 가장 적합함.

가. 제 1 후보지역의 일반적 개요

- (1) 본대 작전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 (2) 반경 4km 주위내에 비교적 “정글”지대가 적으며 개활지임.
- (3) 기존시설이 있으며 현재 월남 155mm곡사포병대대의 본부와 포대가 있음. 기존 시설이 하나도 없는 타지역에 비하여 차지점이 기존시설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본대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설의 보수, 보충 및 시설이 요구됨.
- (4) 공병보급 및 정비시설과의 거리 및 교통은 양호함.
- (5) 민간부락으로 부터 떨어져 있음.
- (6) 타지역에 비하여 경계가 비교적 유리함.

나. 문제점

모든면에 있어서 타지역보다 유리하나 실제 본대가 우용될때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1) 영내에 민가가 수호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자대경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 (2) 현재 급수원은 민간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철도시설의 급수탑에서 운반사용되며 자대내에 급수원이 없음.

(3) 목욕시설, 변소 등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으며 기존시설도 50%는 대규모 보수후에야 사용가능함.

다. 제1후보지점이 결정되면 이상의 문제점을 30일경 있을 한·미·월 三者회담에서 강력히 해결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의 시설보수 및 신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천막시설에 수용될것임(後略).

무관 육군대령 李 大 鎔

(선발대장이 일일보고를 겸함)

한편 幕舎에 관하여 美軍側은 그들의 모든部隊가 天幕을 使用하고 있으므로 한국군도 天幕을 使用할것을 要求하였으나 李준장은 이에 反對하고 半永久的인 建物を 新축하여 줄것을 提議하였다. 그러나 모든 美軍부대가 現實的으로 天幕을 사용하고 있는데, 唯獨 한국군에게만 半永久的인 幕舎를 新축하여 달라는 것은 事理에 어긋나는 提議라는 것을 그는 모르는바 아니었으나 그러나 일찌기 熱帶性 氣候속에서 生活한 經驗이 없는 한국군으로서 是 建康유지에 적지않은 支障을 받을 것으로 念慮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妥結하는대는 越南軍側을 說破하는 것이 捷徑이라고 판단한 李준장은 越南軍 軍수참모 Bui Huu Nonh준장과 秘密회담을 열고 幕舎에 관하여 協調를 요청하기를 「越·美 兩軍은 體質的으로 熱帶性기후에 適應할 수 있으나 韓國軍은 그렇지않다. 設使 晝間에는 어쩔 수 없이 熱氣를 참아가며 고된 建設작업을 遂行한다 치더라도 夜間에는 充分한 睡眠으로 疲勞를 풀어야하는데 天幕으로서 充分한 睡眠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問題點을 提起한 다음, 이어서 韓國의 氣溫 및 濕度分布 統計表를 제시하면서 「韓國軍에게 提供한 建物は 한국군이 撤收한 後에는 越南정부의 財産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즉 美軍側에 建築資材를 요청하여 越南정부에서 新축工事を 담당해주면 結果的으로 한국군의 作業能率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越南정부의 財産이 增加되는 一舉兩得의 結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끝을 맺자 Nhon준장은 快히 이를 應諾하였다.

1월 24일에 제1차 韓·美·越 聯合회의가 열렸을때 이문제를 韓·越 兩側이 共同으로 提議하자 美軍側은 어쩔 수 없이 이에 同調함으로써 마침내 半永久的 幕舎를 新축하게 되었다.

### 3. 給食 및 PX 利用에 關하여

韓國軍에 대한 給食문제는 제1차 先發隊의 討議過程에서도 韓·美間에 적지않은 論難이

있었으나 당시의 파월 人員이 小規模였기 때문에 韓國側의 요구는 어렵지 않게 貫徹될 수 있었다.

그러나 今次의 파월로 兵力의 規模가 擴大되자 美軍側은 당초부터 打算的인 限目에서 韓國측의 要求를 強硬하게 견제하려 하였다.

즉 파월한국군에 대한 給食은 原則的으로 韓國내의 將兵과 同一水準으로 策定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主張은 어느意味에서 韓國人의 實情과 地方的인 食性을 仔詳하게 配慮한 好意的인 처사로 看做할 수도 있겠으나 其實 美軍側의 底意는 韓國人과 美國人은 根本的으로 生活수준의 隔差가 있으므로 韓國內에서의 生活程度에 맞추어 同一水準으로 묶어버리겠다는 多分히 差別意識이 作用한 듯한 처사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美軍側의 意圖的인 牽制에 違和感을 느낀 李준장은 論駁하기를 「共同戰線에서 함께 싸우는 友邦軍間에 給食의 差等を 둔다것은 戰鬥員들의 士氣에 惡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으며 또한 人道的인 次元에서 볼때에 不當한 處事일뿐만 아니라 現實的으로 跆拳道교관단은 때로는 美軍부대의 營內를, 或은 越南軍의 營內를 轉轉하면서 活動하고 있는데 活動舞臺가 바뀔때마다 別途로 韓食을 取해야 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不便하겠는가? 그보다는 美軍과 同一한 水準으로 給食하면 活動場所가 美軍부대이건 越南軍부대이건 相關없지 않겠는가? 이는 비단 跆拳道교관들뿐 아니라 다른 支援부대에도 該當되는 共通문제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美軍側은 「差別을 두려는 意圖는 전혀 없다. 다만 두가지 觀點에서 提議한 것인데 그 첫째는 韓國人의 生活習性을 配慮하고, 둘째 戰費를 可及的이면 節約하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변명하였다.

이때에 李勳燮준장은 다시 말하기를 「나는 韓國에서의 美軍과 越南에서의 美軍을 比較해 보고 큰 差異가 있다는 印象을 받았다. 파월美軍은 그동안 果敢한 作戰을 展開함으로써 平定지역을 擴大하는데 크게 寄與한 반면에 적지않은 人命과 物質의 손실을 입었으나 秋毫도 지칠줄 모르고 勇敢하고 끈기있게 奮戰하고 있다. 특히 파월美軍들은 越南의 傳統的인 慣習과 禮儀範節을 배우고 익혀 越南人을 理解하고 그들을 돕는데 眞摯하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感動하였다. 그토록 美軍들은 越南을 위하여 誠實하게 最善의 援助를 하는데도 그들은 美軍들의 참뜻을 달갑지않게 여길뿐 아니라 오히려 미묘한 反感마저 가지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原因이 果然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美軍들은 過去 移動外科병원이 파월했을때 韓國軍은 仁術을 假裝하고 美軍들의 앞잡이로 파월되었다고 VC들이

惡宣傳했듯이 美軍에 대한 一般的인 反感현상은 바로 VC들의 謀略中傷에 基因한 것으로 생각하겠으나 其實 그 要因은 다른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韓國과 美國은 生活수준의 隔差가 있는만큼 그 水準에 根據하여 差別給食을 한다는 바로 그러한 自尊的인 優越意識때문에 美軍들은 아무리 獻身的이고 熱誠的으로 봉사해도 越南人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기는 姑捨하고 거의 蛇蝎視하는 傾向이 있다. 美國은 越南전쟁에 參戰한 以來 많은 人命을 犧牲하고 또 莫大한 物資를 아낌없이 消耗하면서도 友邦軍에 대하여서는 人색하기 그지없다. 美軍과 함께 生命을 받쳐 싸우는 韓國軍에게 設使 쓰고 남을만큼의 補給을 한다고해서 남은 物資를 韓國에 가지고 가겠는가? 萬若 物資가 남는다면 그것으로 越南피난민과 戰爭이재민을 돕는, 이른바 對民활동을 展開할수도 있을 터이니 結果的으로 一石二鳥의 成果를 거두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끝을 맺었다.

이와같은 忠告的인 見解에 美軍側은 적지않은 刺戟을 받은듯 給食문제는 다음 會議에서 結末을 짓겠다고 말한 다음, 會議場을 떠났다.

그뒤날 열린 聯合회의에서 韓國軍에 대한 給食은 美軍과 同一한 水準에서 提供한다는데에 美軍側이 同意함으로써 이 문제는 마침내 段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李준장은 美軍과 同一한 水準의 給食만으로서는 韓國人의 體力유지에 支障을 받게 되리라는 念慮에서 韓國人의 生理에 알맞는 固有의 食량이 追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越南軍側과 個別교섭 끝에 쌀, 소금, 설탕, 식유, 차 등 5種의 基本食량을 越南軍으로부터 제공받기로 合意함으로써 給食面에 있어서는 어느나라 軍隊보다도 풍족한 支援을 받게 되었다.

또한 PX利用에 있어서 韓國軍도 美軍과 동등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要求하였으나 美軍側은 運營규정상 不可하다고 이를 拒否하였다.

그러자 그 管理權이 美太平洋 지구사령부가 掌握하고 있음을 알아낸 李준장은 때마침 거기에서 파월된 Prange해군중령을 만나 折衝하였으나 그도 亦是 運營규정을 내세워 難色을 표명하기에 그는 「그 運營규정은 언제 制定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同중령이 「1952년에 制定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李준장은 「1952년이던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당시에 美軍이 越南戰에 參戰하리라고 豫測했었는가? 또 美國의 요청에依해서 韓國軍이 파월되리라고 想像할 수 있었는가?」라고 追窮하듯 따져 물은 즉 그는 「그당시에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계면쩍은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李준장은 다시금 말을 이어 「바로 그點이 重要的 것이다. 어떤 原則이나 어느規定이건간

에 狀況에 따라 變할 수 있고 修正할 수 있는 融通性이 있는 법이다. 말하자면 狀況變化에 따라 適宜하게 變更하고 修正할 수 있는 것이 規定이며 原則인 것이다. 어느 意味에서는 時代의 추세에 따라 適切한 應變조치를 취하는데 現代의 意味의 운영과 管理의 妙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그는 파월 美軍司令部측과 協議하여 利用가능하도록 努力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문제는 그 뒷날의 會議에서 아무 異議없이 通過되어 美軍側의 찬동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 4. 指揮權 및 非常時 撤收에 關하여

作戰指揮權을 에워싼 韓·美·越 三國間의 異見은 意外로 심각하게 대립되어 會議벽두부터 暗礁에 부딪혔다.

1월24일에 제1차 3者회의가 열린 席上에서 越南軍측은 주장하기를 「한국군은 越南정부의 요청에 따라 越南을 支援하기 위하여 파월된 것인만큼 原則적으로 越南軍의 作戰통제하에 隸屬되어야 하며 제3국의 作戰指揮權은 그 부대가 배치된 地域의 越南군단장이 掌握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韓·美 兩側은 똑같이 強硬하게 반대하면서 政策的으로 韓·美·越 三者대표자로서 구성된 三者會議기구를 설치하여 이 會議에서 부대의 位置·任務·運營 등 基本방침에 關하여 協議결정 할것을 力說하였다.

그런데 實相은 越南軍側보다는 美軍側이 보다더 絶실하게 한국군에 대한 統制權을 掌握하려고 하였으나 越南軍측이 先手を 써서 統制權의 掌握을 내세우자 美軍측은 이를 牽制하기 위하여서도 獨自의인 指揮權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韓國측의 意見에 同調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같이 三者의 意見이 서로 엇기게되자 李 准장은 이를 打開하기 위한 妙方으로서 「國家的 次元에서 볼때에 한국군은 마땅히 獨自의인 指揮權을 保障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部隊는 戰鬥부대가 아닌 後方支援부대이며 또한 部隊운동에 필요한 軍需지원을 全적으로 美軍에 依存하는 實情을 勘案하여 表面上으로는 獨自의인 指揮權을 享有하는 동시에 內實에 있어서는 美軍통제하에 隸屬시키되 필요한 責任만을 지지는 이른바 折衝式의 指揮체제를 갖는 것이 한국군으로서 보다 現實的이고 實利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파월 美軍司令部의 참모장 Stillwell소장과 秘密裡에 만나 그 문제를 論議한 다음, 이날의 進行狀況을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打電보고 하였다.



## 보고 제12호 (65. 1. 25)

## 1. 작전통제

가. 제 1 차 3자회의에서 월남군측 대표는 제 3 국의 작전통제권을 배치하는 지역의 군단장에게 쓸것을 주장하므로 선발대장 및 파월미군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회의는 중단되고 25일 다시 논의키로 되었으나 월남측의 사정으로 금일 회의를 갖지못함.

나. 한국측과 파월미군은 조정책으로서 한·월·미 3자 대표로서 구성된 3자회의를 설치하고 이회의에서 부대의 위치·임무·운영등 기본방침에 관하여 협의 결정토록 하고 해당지역의 군단장과는 다만 협조관계에 두도록 주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방침을 견지하겠음. 단 미측과는 사실상 파월미군의 작전통제하에 두고 필요한 책임을 질것을 파월미군 참모장과 비밀리에 협의한바 있음.

## 2. 부대임무 및 위치

어제 실시한 3자회담에서 제 3 군단지역(Saigon부근)으로 일반적인 합의는 보았으나 공사의 우선순위와 확실한 위치는 미·월측의 의견대립으로 결말을 보지 못하였으며 실무자 회의의 건의를 받아 그회의에서 결정토록 되었음.

3. 금일 보고되는 내용은 부대의 안전과 3국간의 관계를 위하여 극비로 취급할 것이 요망됨.

4. 병 26일 월남측이 요청할때 3 자회의와 현지정찰을 하게되어 있음.

선발대장 준장 李 勳 燮

以上과 같이 多角的인 側面에서 指揮權문제를 妥結하려고 試圖하였으나 越南軍側의 主張이 一貫하여 強硬하므로 李준장은 韓·美·越 三國間의 利害關係를 意識하지 않은 超然한 자세에서 美·越 兩側대표에게 韓國군이 獨自的인 指揮權을 保有하여야 할 必要性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였다.

「우리가 指揮權의 保障을 요구하는 것은 大乘의次元에서 몇가지 妥當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韓國군의 派越은 越南정부의 要請과 美國의 自由諸國에 대한 呼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共產軍의 侵略으로 存亡의 危機에 逢着하고 있는 越南을 盟邦으로서의 道德的 義理에서 支援하고 援助하고자 參戰한 것이다.

따라서 越南에 대한 派兵은 國家對 國家의 대등한 次元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過去 韓國 전쟁의 경우와 같이 UN이라는 超國家的 機構에 의하여 參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設使

作戰指揮의 一元化가 戰略戰術의 大原則이라 하더라도 이에 優先하여 主權國家로서의 大義名分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見地에서 指揮權의 隸屬은 不合理한 처사인 것이다.

둘째 盟邦을 支援하기 위한 道義精神에서 參戰하였으나 戰爭에는 損失과 冒險이 隨伴되므로 어느 國家이든 贊反兩論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現像은 韓國이나 美國이나 그밖에 어떠한 國家에 있어서나 同一한 것이다.

따라서 領導者나 一部の 國民들이 越南에 대한 支援에 贊成하면서도 現實的으로 派兵을 斷行하지 못하는 國家가 相當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바로 國內의 政治의 事情과 輿論때문인 것이다.

한例로서 Philippines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한국보다도 먼저 연락장교단을 越南에 파견하여 事前協議를 추진하였음에도 不拘하고 한국군이 派越된 現今까지도 派兵을 實現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國內의 政治의인 利害관계 때문인 것이다.

또한 美國의 경우를 살펴보면 Johnson 大統領은 大規模의 兵력을 果敢하게 越南戰에 參戰시켜 그동안 많은 人命과 莫大한 物資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事實이 美國內外에 傳播되자 Johnson 行政府의 處事を 非難하는 輿論이 激烈하게 沸騰하게 되어 마침내 美行政府는 그 窮餘之策으로 自由諸國에 대하여 越南을 共同支援하여 줄것을 호소하였다.

이와같이 이미 派兵한 국가는 勿論이고 이제부터 派兵하려는 국가도 錯雜한 國內사정으로 말미암아 派兵을 斷行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操心스럽게 情勢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形便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版局에 파월하는 軍隊가 越南軍이나 제 3국의 統制下에 隸屬된다면 파병을 反對할 國內輿論은 더욱 深刻化될것이 自明하다. 그러므로 指揮權의 隸屬如何는 곧 派兵의 可否를 刺戟함으로써 反對여론의 紮地를 더욱 擴大시키는 동시에 派兵意向을 가진 政府로 하여금 이를 斷行할 수 없는 窮地에 몰아넣는 結果밖에 되지않을 것이다. 따라서 美·越 兩側은 이러한 側面을 충분히 參酌하고 指揮權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李준장의 說得力있는 理論전개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美·越 兩軍대표는 「그러면 어떠한 代案이 있어야 하겠는데 三國의 軍隊가 하나의 目的달성을 위하여 圓滿히 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方策은 무엇인가」라고 反問하였다.

그러자 同준장은 다시 말을 이어 「韓·美·越 三軍의 現地사령관이 對等한 위치에서 한국군에 대한 政策的인 原則문제를 協議결정하는 三者合議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

랄직한 案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國際軍事政策會議기구를 설치하여 이른바 Troika制度(註 Russia 特有的 말(馬) 3匹이 이끄는 설매에 比喩하여 한 機關에 3명의 長을 두어 서로 牽制케 하는 制度)의 合意에 依하여 한국군에 대한 政策的인 문제를 決定케하면 3國軍의 協調관계는 圓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確信한다」라고 말끝을 맺었다.

이말을 들은 美·越 兩軍대표는 多少 懷疑的인 反應을 보일듯하다가 充分히 檢討할 價値가 있는 提案으로 생각하였음인지 다음 會議에서 다시 檢討하자고 말한 다음 散會하였다.

그뒤에 이 指揮權문제는 여러차례의 會議를 통하여 甲論乙駁하였으나 끝내 우리측의 提案에 合意를 보아 韓國軍에 대한 指揮權은 한국군사원조단장에게 있으며 三者의 合議기구로서 國際軍事援助機構(IMAO)를 설치하여 한국군에 대한 문제를 三者의 合意에 依하여 決定토록 한다는 結論에 도달하였다.

이리하여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 指揮權문제가 一段落됨에 따라 기타 附隨的인 案件은 거의 순탄스럽게 타결되었다.

그러나 李준장으로서는 또 한가지 念慮하지 않을 수 없는 要件이 있었으니 그것은 非常사태에 對備한 卍월 한국군의 安全撤收 문제였었다. 實相 當時의 越南은 政治, 軍事, 經濟的으로 매우 불안하고 流動的인 狀況에 놓여 있었다.

즉 1963년 11월 1일에 軍事革命으로 Ngo Din Diem政權이 崩壞된이래 1964년 1월 30일에 제 2차 軍事 “쿠데타”가 勃發하였으며 이어 佛敎徒와 學生에 依한 反政府의 群衆示威가 連日 惹起됨으로써 首相이 更迭된데 이어 이해의 1월 27일과 2월 19일에 또다시 軍事 “쿠데타”가 連發하는 등 政治정세는 건잡을 수 없는 混亂속에 말려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物價는 急騰하고 經濟질서는 그야말로 破綻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美軍의 大量投入으로 戰況은 多少 好轉된듯하나 前後方 戰線의 境界가 不透明한데다가 國民大衆의 殆半이 容共의이며 反政府的인 傾向이 있는 등 諸般情況을 綜合분석하건데 앞날의 展望을 樂觀하기에는 너무나도 錯雜하고 忒모하였다.

이러한 時點에서 充分한 自體경비능력을 保有하지 않은 한국군을 더구나 安全에 대한 美·越軍側의 確固한 保障策이 없는 現實下에서 駐屯케하는 것은 마치 火藥庫앞에서 춧불을 켜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에 戰況이 極限狀況에 突入함으로써 卍월 美軍이 緊急 撤收하지 않을 수 없는 非常사태에 直面하였을 때에 果然 卍월 한국군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한국군의 撤收와 이에 대한 責任은 果然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分明히 미리 想定하여야할 問題點이었다.

이와같이 非常事態하의 對備策을 念慮한 同준장은 이것은 本國에서 부여받은 任務外의 사항이므로 關與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賢者は 항상 最惡의 경우에 對備한다」라는 古言을 想起하면서 美軍側으로부터 非常時의 安全철수에 관한 確固한 보장을 받기로 決意하였다.

다음날 李勳燮준장은 非常事態에 직면하였을때에 美軍과 꼭같이 한국군을 優先的으로 撤收시키는데 협조한다는 美軍側의 約定을 骨子로한 協定書의 草案을 가지고 파월美軍司令部의 參謀長 Stillwell 소장을 방문하였다.

同준장으로부터 이에 關한 提案설명을 들은 Stillwell소장은 매우 못마땅한 表情을 지으면서 「作戰의 一元化에는 끝까지 反對하면서 獨自的인 指揮權을 保有하여야한다」라고 力說하던 貴官이 이제 와서 非常時의 긴급철수에 美軍이 責任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니 事理에 어긋나는 要求가 아닌가」라고 反駁하였다. 李준장은 Stillwell 소장을 相面하기전에 畢竟 그런식의 論駁이 있을 것으로 豫想한 터이므로 淡淡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作戰指揮權문제는 이미 韓·美·越 三者의 合意에 依하여 結論을 맺은바 있다. 그 問題에 있어서 美·越 兩側이 우리의 提議를 받아들인 것은 論理的인 妥當性을 肯定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論外로치고 이案件을 別個의 문제로 다루어야 옳을것이다.

貴官도 알다싶이 韓·越 兩軍에 대한 모든 軍需支援을 美軍側이 擔當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平常時의 作戰활동은 全的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反面에 非常時의 撤收에는 責任을 질수없다면 이야말로 自家撞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거듭 말하거니와 한국군이 獨自的인 指揮權을 行使하겠다는 것은 美軍側의 作戰방침을 意圖的으로 無視하고 우리의 멋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主權국가로서의 體面을 유지하면서 美·越軍과의 聯合작전에 誠實하게 寄與하겠다는 大乘의次元에서 主張한 것이다.

따라서 韓·美軍은 平常時나 非常時를 막론하고 運命을 같이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見解에서 非常철수의 保障責任을 明白히 約定하자는 것인즉 이는 美軍側의 當然한 義務라고 생각한다.」

이말을 들은 Stillwell 소장은 熟考하는듯 하다가 제 3국에 一切 公開하지 않는 秘密협정을 前提條件으로 마침내 應諾하였다.

그리하여 이 提案을 마지막 고비로 순탄치 못한 産苦를 치룬 軍事협정은 同월 7,8일에 각각 署名되었는데 韓·越 軍事實務者 협정은 7일 17.00에 그리고 韓·美 軍事實務者 협정과 1級 秘密문서로 된 非常時 軍事협정은 다음날인 8일 18.30에 署名되었다.

그런데 이때 調印된 三者間의 軍事協정서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韓·越 軍事實務者 協定書

1. 大韓民國 정부는 共產主義者들의 使賊로 因한 越南內의 叛亂 및 侵略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회복키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各構成부대로서 조직된 大韓民國 軍事援助團(以下 ROK MAC—V 라 稱한다)을 越南共和國에 파견한다.

이부대들은 越南정부의 派兵요청 趣旨와 大韓民國정부의 派兵목적에 實하기 위하여 兵科固有의 性格에 의한 非戰鬪임무만을 수행하며 특히 警備부대는 自體防禦능력이 不充分한 ROK MAC—V부대의 警備支援을 제공하는데만 사용된다.

- 가. 軍事援助團본부 및 本部근부대.
- 나. 1개 육군工兵大隊.
- 다. 1개 육군警備大隊.
- 라. 1개 해병工兵中隊.
- 마. 1개 육군수송自動車中隊.
- 바. 海軍 LST 1척.
- 사. 1개 육군移動外科病院(既과월).
- 아. 跆拳道教官團(既과월).

2. 越南內에 있어서 ROK MAC—V要員의 權利, 特權 및 免除에 관하여서는 1964년 10월 31일 越南共和國 주재 大韓民國 大使와 越南共和國 外務部長官 사이에 交換된 外交문서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3. ROK MAC—V의 指揮權은 大韓民國정부에서 任命한 軍指揮官에게 있으며 MASH부대장에게 있었던 MASH와 跆拳道교관단에 대한 指揮權은 ROK MAC—V부대장이 越南에 도착즉시 그 隸下로 統合된다.

4. ROK MAC—V 각부대에 대한 適切한 統制체계를 障키위하여 이를 위한 國際軍事支援(IMA) 方針會議(Policy Council)를 설치한다. 이會議는 越南軍참모총장(議長), US MAC—V 參謀長 및 ROK MAC—V 部隊長으로 구성되며 이會議에는 各實務者級대표들을 포함한다. 이 會議는 越南軍, US MAC—V 및 ROK MAC—V 代表間에 相互 合意된 바에 따라라 ROK MAC—V 運營의 概念을 發展시키고 이를 규정하며 ROK MAC—V 각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一般의인 作業과 任務 및 部隊위치와 部隊이동등을 保障하는 것을

그 基本機能으로 한다.

5. ROK MAC—V 각부대는 方針회의에서 相互 合意된바에 따라 國家平定계획에 立脚한 復舊사업 또는 對民支援활동등 非戰鬥임무를 수행한다. 越南에 이미 파견된 MASH와 跆拳道교관단은 既存협정에 규정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MASH와 跆拳道교관단을 제외 한 기타 ROK MAC—V부대는 ROK MAC—V 指揮官밑에 集結되어 獨立운영한다. ROK MAC—V의 특수한 作業 또는 警戒임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方針회의의 決定에 따라 越南부대를 增援받을 수 있다.

6. 大韓民國 水路輸送船舶의 指揮權은 ROK MAC—V부대장에게 있다. 이 船舶의 輸送 능력은 越南의 對民활동지원을 위하여 合同輸送 割當위원회에서 割當된 바에 따라 사용 된다.

7. 越南軍은 ROK MAC—V에 연락장교단을 설치한다. 이 연락장교단은 通信, 連絡, 通譯 또는 (1) 越南地方 行政官吏 (2) 越南軍부대장 (3) ROK MAC—V活動지역내의 住民 등에 대한 支援요청 혹은 필요한 協調등의 諸般문제에 있어서 ROK MAC—V부대장을 補佐할 책임이 있다. 越南軍 연락장교단 構成에는 砲兵장교를 固定배치시키며 이 砲兵장교는 동시에 航空支援장교의 役割을 담당한다.

## 8. 警 戒

가. ROK MAC—V부대장은 모든形態의 VC武裝공격에 對備하여 自體防禦할 수 있도록 對備하여야 한다. 이 攻擊에는 純粹한 軍事的인 공격과 軍사와 관련된 政治的인 공격(例 亂暴한 示威)도 포함된다.

나. ROK MAC—V는 自體警戒를 할 수 있도록 自隊작전을 위한 活動지역을 割當받으며 이 活動지역은 圖上과 地形上으로 明確히 설정되어야 한다.

다. ROK MAC—V부대장은 이 規定된 活動지역내에서는 그 地方責任 越南軍부대장 또는 行政官吏와 협조하여 (1) 宿營地 또는 作業지역에 警戒哨所를 設置운영한다. (2) 宿營地 또는 作業지역 周圍의 偵察 및 潛伏활동을 實施한다. (3) 武裝부대의 攻擊을 목적으로 ROK MAC—V부대 活動지역에 침투하는 경우에는 이를 設멸한다

라. ROK MAC—V부대는 規定된 活動지역 밖에서는 射擊할 수 없다.

마. ROK MAC—V부대는 活動지역 밖에서는 追擊작전을 할 수 없다.

바. ROK MAC—V부대는 가능하면 越南空軍 또는 砲兵지원을 받는다.

사. 越南軍은 越南軍 主要부대 指揮官 또는 地域부대장을 指名하여 晝夜間을 막론하고

部隊宿營地 또는 作業場에 있어서 事故가 있을 때에 ROK MAC—V부대에 대하여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항상 對備시켜 놓는다. 壓倒的인 VC의 攻擊을 받았을 경우 등 緊急狀況下에서는 ROK MAC—V 각부대는 戰場에 있어서의 努力의 統一性과 ROK MAC—V 活動지역의 安全을 회복키 위하여 越南軍 增援부대장의 指示에 順應하여야 한다.

아. ROK MAC—V부대장은 亂暴한 示威에 對抗함에 있어서 다음 各方策을 適用하여야 한다.

(1) 部隊營內 앞에서의 亂暴한 示威

(가) 宿營地의 營內 또는 울타리안에는 越南語로된 다음 標識板을 固定揭示하여야 한다.

“軍事分界線出入禁止”

“Rank—gisi quan—Su, Cam Vout qua”

(나) 亂暴한 示威의 境遇

1. 즉시 地方軍 또는 行政官에게 通報하여 支援을 받는다.

2. 示威群衆을 故意的으로 分散 또는 刺戟하지 말 것이며 越南官吏의 示威群衆 分散을 돕지 말 것.

3. 萬若 示威群衆이 규정된 軍事分界線을 넘어서 ROK MAC—V부대를 攻擊하면 地方軍 또는 行政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限하여 傳統的인 示威鎮壓 方法을 사용하여 示威群衆을 逐出한다. 地方面長 또는 準建투책임지역 부대장급 이상만이 이 要請을 할 수 있다.

4. 示威群衆의 攻擊에도 불구하고 地方軍 또는 行政官吏가 適時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ROK MAC—V부대장은 부대에 배치된 越南軍 연락단으로 하여금 群衆에게 解散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연락단의 3회에 걸친 解散호소가 있을 후에도 示威群衆이 계속 공격하면 ROK MAC—V부대장은 越南軍연락단의 同意를 얻은다음 示威群衆을 逐出할 수 있다.

5. 규정된 順序에 따라 다음 方法을 사용한다. 물撒布, 催淚彈, 棍棒, 帶劍, 空中을 향한 空砲彈 發射, 地面을 향한 空砲彈발사 등이며 보다 苛酷한 方法은 기타 輕한 方法을 사용한 후 效果가 없을때에 限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모든 경우에 狀況이 許容하면 示威群衆에 관한 記錄을 하고 寫眞을 촬영하여야 한다.

(2) 作業場에 있어서의 示威

(가) 上記 제 8 항 아(1)(나)의 1. 및 2.를 適用한다.

(나) 示威群衆이 ROK MAC-V부대를 攻擊하려고 할때에는 ROK MAC-V는 地方軍 또는 行政官吏의 요청이 있은후에 傳統的인 示威鎮壓방법을 사용하여 群衆을 逐出하여야 한다. 地方面長 또는 准戰鬪責任지역 部隊長級 이상만이 이요청을 할 수 있다.

(다) 上記 제 8 항 아(1)(나)의 4, 5, 6을 適用한다.

자. 다음의 各경우에는 ROK MAC-V에 發砲가 허용된다.

(1) 部隊활동 地域內

(가) 武裝부대의 攻擊이 있을때.

1. 部隊宿營地에 대한 攻擊
2. 部隊이동중의 攻擊
3. 狙擊받는 경우
4. 攻擊徵候가 보이는 집결과 VC의 攻擊준비

(나) 亂暴한 示威.

上記 제 8 항 아 細項에 규정된 狀況에서만 發砲할 수 있다.

(2) 部隊활동 地域外

正當防衛를 위해서만 發砲할 수 있다.

차. ROK MAC-V부대에 대한 示威群衆의 攻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越南軍연락단 또는 越南軍 當局의 要員이 現場에 없는 경우에는 그 부대는 가장 신속한 方法으로 越南당국에 通報하여야 하며 이들이 到着時까지의 自衛는 上記 규정된 諸方法으로서 한다.

카. ROK MAC-V부대는 事前결정된 活動지역내에서는 情報 및 心理的分野에 대한 能動的인 방책을 취할 수 있으며 地方官吏와 적절한 事前협조가 있어야 한다.

타. ROK MAC-V부대와 越南間의 通信網은 越南軍이 설치운영하며 그 構成網은 다음과 같다.

(1) ROK MAC-V부대와 軍作戰지역(DTA) 또는 軍團作戰지대(CTZ)등의 適切한 指揮官間의 通信網.

(2) 航空 및 砲兵支援團 通信網은 砲兵 前方관측장교 兼 航空支援장교에 의하여 사용



된다.

(3) 隣接부대간의 橫的인 通信網은 연락단이 사용한다.

파. 越南軍은 ROK MAC—V의 安全 및 ROK MAC—V의 能力이 現在의 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必要한 警戒대책을 제공할 責任이있다.

#### 9. 軍需支援

ROK MAC—V에 대한 補給 및 勤務支援은 美 GAP(Giant Aid Programs)의 適用조항의 範圍內에서 相互 合意된바에 따라 既存인가문서 및 正當한 所要根據등에 立脚한 請求행위에 依하여 越南軍이 제공한다.

越南軍총사령관은 다음 各支援을 ROK MAC—V에 제공할것을 同意한다.

##### 가. 補給支援

(1) 美 軍援(MAP)根源 또는 기타 越南根源으로 부터 ROK MAC—V임무수행에 必要로하는 장비 및 補給品 (ROK MAC—V는 大韓民國軍의 平均保有 장비를 지참하며 이장비는 越南軍을 통하여 支援받을 수 있도록 越南軍 保有장비와 同一한 또는 最小限 類似한 장비를 持參한다).

(2) 越南軍에 支援되는 同一한 기준에 依하여 운영수준과 安全수준 및 規定후대량 (PLL)의 획득 및 지속적인 維持(ROK MAC—V는 補充을 위하여 所要되는 期間을 考慮하여 各보급품의 基本후대량을 持參할 것이다).

(3) 越南軍에 支給되는 同一한 基準에 依한 基本식량품목(쌀, 소금, 설탕, 식유, 차).

(4) 賦與된 임무와 작업을 計劃대로 수행함에 있어 必要한 工事자재.

(5) 越南軍과의 補給행위는 직접 Saigon基地廠 또는 가장 가까운 野戰補給廠과 去來한다(ROK MAC—V는 補給廠과 직접 去來할 수 있는 施設 및 補給능력을 가진다)

##### 나. 整備支援

(1) ROK MAC—V의 自體整備능력을 超過하는 整備의 支援.

(2) ROK MAC—V 海軍 LST는 越南軍 海軍장비시설에서 정비된다.

##### 다. 施設

越南軍은 相互 合意된 部隊주둔지 工事계획서에 의거하여 ROK MAC—V 주둔지 設立을 위하여 必要로 하는 土地와 部隊人員을 수용키 위한 施設을 提供할 것에 同意한다. ROK MAC—V 先發隊 수용을 위한 既存시설의 補修는 2월 25일 頃까지는 完成시

킬 것이며 既存시설의 完全補修와 부족한 追加的 시설의 增築(PREFAB 사용함)등 ROK MAC—V의 完全수용을 위한 工事は 1965년 3월 25일頃까지는 全部완성시킨다. ROK MAC—V부대장은 이 工事に 있어 越南軍을 支援하기 위하여 先發隊人員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方策을 취한다. ROK MAC—V의 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部隊시설의 維持와 보수는 越南軍이 제공한다.

10. ROK MAC—V에 의하여 越南으로 持參되는 장비의 所有權은 ROK MAC—V에 있다. 戰鬥 또는 正常 磨耗로 因하여 修理불가능한 정도로 使用이 不可하게 된 장비는 美軍援(MAP)에서 제공된바에 의거 越南정부에서 種類로 代置된다.
11. ROK MAC—V는 매일 部隊員 名單을 작성하여 越南軍總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名單에 記載될 사항은 部隊員의 姓名, 계급, 軍번, 地理的위치, 越南에 入國 또는 出國한 日宇 그리고 大韓民國정부에서 認可한 秘密取扱 구분등이다.
12. ROK MAC—V要員의 醫療支援은 原則的으로 ROK MASH로 후송된다. 但 狀況이 危急하거나 ROK MASH의 能力이 부족할때에는 美軍後送계통의 支援을 받는다.
13. ROK MAC—V의 團長은 上記 제11항에서 통보된바 現在 배치된 人員外에 ROK MAC—V활동과 관련있는 韓國人의 越南入國을 事前에 越南軍總사령관과 협조할것에 同意한다.
14. 越南정부는 ROK MAC—V에 대하여 國內通信사용을 제공한다.
15. 越南軍은 ROK MAC—V가 任務수행상 必要한 경우 地方雇傭人을 제공한다.
16. 1964년 9월 5일 韓·越 兩國 대표자간에 체결된 MASH와 跆拳道교관단에 관한 協定書는 本協定書上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有效하다. 本協定書에 相互 合意하며 1965년 2월 7일 相互 署名한다.

준장 Bui HUU Nhon

越南軍代表

준장 李 勳 燮

韓國軍事支援團 先發隊長

### 韓·美 軍事實務者 協定書

1. 大韓民國 정부는 共產主義者들의 使賊로 因한 越南內의 叛亂 및 侵略을 擊退하고 이 地域에 있어서의 國際平和와 安全을 恢復키 위하여 主로 다음과 같은 部隊로서 組織된 大韓民國 軍事援助團을 越南共和國에 파견한다. 이 部隊들은 越南정부의 派兵요청취지와 大韓民國정부의 派兵목적에 忠實하기 위하여 兵科固有의 성격에 의한 非戰鬥임무만을 遂行하며 특히 警備부대는 自體防禦능력에 불충분한 ROK MAC—V부대의 警備支援을 提供하는

에만 사용된다.

- 가. 軍事援助團본부.
- 나. 1개 陸軍工兵대대.
- 다. 1개 陸軍경비대대.
- 라. 1개 陸軍수송自動車중대.
- 마. 1개 海兵工兵중대.
- 바. 海軍 LST 1척.
- 사. 1개 근무대대.
- 아. 陸軍移動外科병원.
- 자. 跆拳道교관단.

2. ROK MAC—V의 指揮權은 大韓民國정부에서 任命한 부대장에게 있으며 ROK MAC—V要員에 대한 作戰統制權도 ROK MAC—V部隊長을 통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ROK MAC—V의 각부대에 대한 適切한 統制체계를 保障하기 위하여 이를위한 國際軍事支援(IMA)方針회의를 설치한다. 이 會議은 越南軍총참모장(議長) US MAC—V참모장 및 ROK MAC—V부대장으로 構成되며 各級 實務者 대표도 포함한다. 이 會議은 ROK MAC—V운영에 대한 概念을 발전시키고 이를 規定하며 ROK MAC—V각부대에 影響을 미치는 一般의인 作業임무 및 부대위치와 部隊이동 등을 保障하는 것을 그 基本機能으로 하며 이 方針회의의 決定에 있어서 越南軍은 越南정부 機關의 立場에서, US MAC—V는 第三國 支援軍의 協調者 立場에서 ROK MAC—V는 大韓民國의 權威에 立脚하여 各各 同意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事項을 指針으로 하여 方針회의는 ROK MAC—V 各부대 任務遂行에 最善으로 貢獻할 수 있는 統制 및 協調조치를 결정한다.

가. ROK MAC—V部隊가 地域的으로 作戰에 관련되는 境遇 그 部隊의 규모와 構成은 各各 條件에 따라 相異하겠으나 그 地域司令官에게 順應하여야 한다.

나. 作戰을 効果的으로 수행키 위하여 地域的이 아니고 機能的으로 單一 運用통제를 要하는 支援을 제공할 ROK MAC—V부대는 그 機能을 감독하기 위하여 任命된 責任者 또는 그 機能수행 부대장의 作戰統制下에 놓인다.

다. 單一지역 또는 機能上의 部隊長과 日日활동에 관한 긴밀한 協調를 必要로 하지 않는 技術과 軍需 및 行政支援을 제공하는 ROK MAC—V부대는 IMA方針회의의 決定에 따라 운영된다. ROK MAC—V의 空軍(航空機)과 海軍(船隻)은 越南空軍과 海軍의 對民

支援활동을 支援하며 그 任務는 合同輸送制當위원회 또는 기타 指定된 合同기관에 依하여 부여된다.

3. 上記 제 2 항의 各分項의 규정에 依據 다음사항이 適用된다.

가. ROK MAC-V 부대는 IMA 方針회의에서 相互 同意한바에 따라 國家平定계획에 依한 復舊 또는 對民支援활동과 같은 非戰鬥임무를 수행케 한다. 越南에 이미 파견된 ROK MASH와 跆拳道교관단은 既存 협정서에 규정된바에 따라 운영을 繼續한다.

이를 除外한 기타 ROK MAC-V 부대는 ROK MAC-V 부대장 밑에 集結되며 獨立 운영된다. ROK MAC-V의 특수한 作業 또는 警戒임무를 支援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方針會議의 결정에 따라 越南軍부대의 增援을 받을 수 있다.

나, 大韓民國 水路輸送 船舶의 指揮權은 ROK MAC-V부대장에게 있다.

4. US MAC-V는 US MAC-V와 ROK MAC-V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IMA會議에서 決定된 조치에 협조하고 統制한다.

5. 一般支援에 있어서 US MAC-V는 ROK MAC-V에 대하여 보통 美軍에게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支援을 제공한다.

가. 越南軍에서 제공하는 5種의 基本 食糧(쌀, 소금, 설탕, 식유 및 차) 이외에 US MAC-V 司令官은 ROK MAC-V에 대하여 美軍에게 供給되는 同一한 基準의 食糧을 제공한다.

食費의 一部分에 속하는 Piastre額을 設定하여 上述한 美軍基準 食糧의 拂出을 不可能케하는 狀況이 있을때 越南市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前에 ROK MASH에 관하여 체결한 協定書 중에서 食糧에 관한 조항은 本條項으로 대신한다. 韓國人의 독특한 地方的 육구를 充足시키기 위한 食糧品目은 美軍根源에서 제공치 않는다.

나. ROK MAC-V 要員은 ROK MAC-V부대장의 요청에 依據하여 美軍休養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다. PX施設

(1) ROK MAC-V 要員은 개인의 所要品을 구입키 위하여 美軍PX시설 또는 國際軍 事支援 PX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125명 또는 그 이상의 人員이 集團의으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ROK MAC-V부 대장은 自隊 PX시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施設을 위하여 필요한 品目은 美 海軍 PX에서 供給한다.

다. 食堂 宿所 및 俱樂部의 施設

(1) ROK MAC-V要員은 美軍食堂, 宿所 및 俱樂部를 使用한다.

(2) 125명 또는 그 이상의 人員이 集團的으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ROK MAC-V부대장은 自隊食堂, 宿所 및 俱樂部를 設치 運營할 수 있다. 여기에 必要한 消耗品目은 美軍계통에서 供給한다.

마. ROK MAC-V要員은 美軍宗教시설을 利用할 수 있다.

바. ROK MAC-V要員은 美軍郵便시설을 利用할 수 있다.

사. 靈顯의 輸送준비를 포함하는 葬禮근무를 제공한다.

아. 國內수송을 위한 既存버스, 세단, Taxi 및 航空機 등 美軍에서 運營하는 수송手段의 제공.

자. ROK MAC-V가 그 任務수행상 必要로하는 越南과 大韓民國 間의 美軍既存 通信 시설의 사용을 提供한다.

차. 個人身分증명서의 發付

6. ROK MAC-V부대장은 上記 제 5항 다, 라, 바 細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그 施設의 使用이 許可된 者는 美軍에게 適用되는 同一한 규칙 규정 및 條件에 부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同意한다.

7. 軍需支援에 있어서 US MAC-V는 正當한 所要 및 請求에 의거하여 ROK MAC-V에서 필요로 하는 支援을 提供한다.

가. ROK MAC-V는 US MAC-V의 요청이 있으면 그 말은바 任務를 効果的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資料를 提供하여야 한다. 즉 ROK MAC-V부대장은 適切한 TO&E와 TA表를 제출하여야 하며 US MAC-V는 이를 檢討한 後 任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不足品目の 보충 또는 追加的으로 소요되는 品目を 決定한다. COMUS MAC-V는 追加的으로 소요되는 品目を ROK MAC-V에 제공하기 위한 必要한 措施를 취하며 또한 RVNAF에서 獲得불가능한 TA品目 및 其他 보급품을 相互 同意할 수 있는 認可문서 또는 規定認可量에 依據 계속적인 支援을 提供한다. ROK MAC-V는 美軍이나 RVNAF의 支援가운데에서 ROK MAC-V에게만 있는 독특한 所要의 支援을 할 수 없다는 것에 同意한다.

나. ROK MAC-V에 의하여 越南으로 持參된 장비의 所有權은 ROK MAC-V에 있다. 戰鬥 또는 正常 磨耗로 인하여 修理가 불가능할 정도로 使用이 不可能하게 된 장

비는 보충되며 그 補充品의 所有權은 ROK MAC—V로 인계된다.

라. 越南軍총사령관에 의하여 규정된 ROK MAC—V의 不動產 및 宿所에 관한 條項은 ROK MAC—V부대장 및 사령관이 각각 受諾할 수 있는 條件이며 US MAC—V는 ROK MAC—V부대의 人員 수용, 健康과 福祉를 위하여 適切한 基準의 시설이 되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支援을 제공한다.

마. ROK MAC—V부대장은 部隊人員의 醫療를 위한 필요한 醫務支援을 제공한다. 但 狀況이 위급하거나 ROK MASH의 收容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美軍醫務계통으로부터 後送醫療를 받는다.

#### 8. 國外輸送

US MAC—V는 ROK MAC—V要員과 ROK MAC—V의 활동과 關聯이 있는者に 대한 美軍수송기관 利用을 美軍과 同一한 條件으로 利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이 수송에는 ROK MAC—V要員의 交替, 本國으로의 召喚, 死亡한 者의 靈願의 後送, ROK MAC—V와 關聯있는 者의 방문 또는 檢閱, 긴급철수 및 後送을 포함한다.

#### 9. 經理協定

가. COMUS MAC—V와 ROK MAC—V부대장은 ROK MAC—V 各 부대의 部隊基金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發展시킬 것을 同意한다.

나. COMUS MAC—V는 越南內에 있어서의 認可된 ROK MAC—V要員에게 支拂하는 費用은 越南內에 있는 美軍시설에서 US\$로 換金할 수 있도록 ROK MAC—V부대장에게 便宜를 제공한다.

다. 기타 모든 經理관계의 協定은 별도 協定에 의한다.

10. COMUS MAC—V는 ROK MAC—V要員이 越南領海에 도착하여 下船한 다음 目的地에서 배치를 完了할 때까지의 충분한 警戒를 제공할 수 있도록 越南軍사령관과 협조한다.

11. ROK MAC—V부대장은 每月 부대원 名單을 작성하여 US MAC—V사령관 앞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 通報書에 기재될 사항은 部隊員의 姓名, 계급, 군번, 地理的 위치, 越南에 出入國한 日字 그리고 大韓民國에서 인가된 秘密취급인가 等級구분 등이다.

12. ROK MAC—V部隊長은 上記 제11항에 의거 보고된 현재 배치된 人員外에 ROK MAC—V의 活動과 關聯있는 韓國人의 越南入國을 事前에 US MAC—V사령관과 협조할것에 同意한다.

13. ROK MAC-V와 COMUS MAC-V는 本協정서에 기재된 機密근무 또는 情報내용의 漏泄 또는 妥協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保安조치를 취할 것을 同意한다.

14. ROK MAC-V와 COMUS MAC-V는 越南내에 있어서 雙方의 軍人 또는 部隊중업원에 의하여 발생된 物資의 파괴, 人員의 傷害 또는 死亡 등에 관하여 相互 訴請을 하지 않기로 合意한다.

15. 協定書

가. 本 協정서는 署名이 끝나는 즉시 軍事實務者 一般協정서의 効力을 가지며 兩國 政府間의 협상을 통한 國家間의 批准을 필요로 한다. 本 協정에 署名한 雙方의 어느 쪽이든지 本 協정의 全部 또는 一部에 관한 再協商을 90일 전에 書面통보함으로써 할 수 있다.

나. 1964년 9월 5일 ROK MASH에 관하여 大韓民國과 US MAC-V의 代表者間에 署名된 實務者 協정서는 本 協정서에서 별도로 規定하지 않는 限 계속 効力을 가진다. 本 協定書는 1965년 2월 8일에 署名함.

육군 소장 R.G. Stillwell

육군 준장 李 勳 燮

US MAC-V 참모장

ROK MAC-V선발대장

軍事 協定

1. 과월美軍事支援司令官(COMUS MAC-V)과 大韓民國 軍事支援團의 先發隊長은 各己 1965년 2월 8日 Saigon에서 調印한 “一般軍事協定書”의 正當性과 効力을 인정한다.

2. 越南共和國內의 政治的 또는 軍事的, 不安定으로 因하여 上記 第1項에 明示된 韓·美 軍事一般協정서 第2項 및 第3項의 適用을 불가능케 하는 緊急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COMUS MAC-V는 大韓民國 軍事支援團長(ROK MAC-V)과 그 예하부대에 對한 作戰統制權을 行使한다.

1965. 2. 8

越南共和國 Saigon에서 調印함

육군 소장 R.G. Stillwell

육군 준장 李 勳 燮

US MAC-V 참모장

ROK MAC-V先發隊長

※ 韓·美 兩國 以外의 他國에 公開 不可함.

以上과 같이 軍事協정서에 調印한 李勳燮준장은 그동안에 積은 協議過程을 文書로 整理

하는 한편 派兵計劃 當局이나 파월장병들에게 귀중한 參考자료가 될 越南의 政治, 軍事, 經濟 情세에 關하여 調查 분석한 報告書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9일에는 美·越 兩軍司令部를 차례로 訪問하여 Westmoreland대장을 비롯한 Throckmorton, Stillwell, Adams, Osmanski, Minh, Nyon, Dong 등 高位將星과 作別의 人事를 나누었다.

이리하여 지난 1월 8일에 서울을 出發한 以來 33일 간에 걸쳐 활동한 先發隊長으로서의 任務를 끝마치고 2월 10일 10.30에 Saigon을 떠나 故國으로 向하였다.

#### 다. 連絡將校團 (1965년 8월 18일~9월 8일)

비둘기部隊의 파월에 追加하여 越南정부로부터 戰鬪부대의 增派요청이 있자 國防部는 現地조사와 아울러 美·越軍과의 協調관계를 事前에 協議하기 위하여 1965년 6월 19일에 指 令 제 7호로서 연락장교단을 派越키로 하고 李世鎭소장을 團長으로한 5명의 將星과 1명의 領官장교 그리고 1명의 美顧問官(대령)을 團員으로 任命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任務를 부여하였다.

#### 『連絡將校團長에게 賦與하는 任務』

##### 1. 情報분야

- 가. 越南全般에 關한 敵情을 收集하라.
- 나. 豫想 주둔지 周邊의 敵情 및 地形을 把握하라.

##### 2. 作戰분야

- 가. 增派되는 部隊任務를 確認하고 배치될 地域을 現地踏査하여 결정한다.
- 나. 增派부대의 編成(大略的으로 韓·美間에 協議한다)을 建議.
- 다. 作戰指揮權 關係를 明確히 協議한다.
- 라. 援助司令部의 位置결정.

韓國大使館과 US MAC-V와의 連絡 및 파월한국군 諸部隊와의 指揮를 위하여 Saigon에 위치 하도록 교섭하고 결정한다.

- 마. 美軍事援助司令部와 韓國軍 各부대와의 通信方法의 협의.

##### 3. 人事분야

- 가. 越南 到着日로부터 各自에게 Perdiem을 支給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나. PX用으로 託送한 國產담배, 맥주, 日用品등에 대한 越南國의 通關문제와 代金清算문제의 協議.



다. 駐 Saigon 韓國軍 經理支援 기구설치 및 協調에 대한 事前토의.

#### 4. 軍需분야

가. 增派부대에 대한 全般的인 軍需支援문제(越南軍 및 美軍).

(1) 軍需支援체계의 檢討

(2) 韓國軍 軍需支援부대 編成에 關한 意見.

나. 增派부대를 收容하기 위한 施設문제.

다. 派遣부대 不足장비의 補充문제.

라. 韓國軍의 整備능력을 초과하는 追加的인 整備支援문제.

마. 廢장비의 處理문제.

바. 裝備의 戰鬪손실 處理문제.

사. 現地에서 不必要한 장비와 T/A品目の 파악 및 特殊장비의 補給문제.

아. 彈藥유대량의 適正수준의 결정(可能하면 小口徑彈의 b/l만 携帶토록 交渉).

자. 增派時 修理부속과 日用消耗品 및 事務用 消耗品の 最少 유대량의 協調.

차. 事務室의 備品은 可及的 現地에서 受領토록 교섭하고 炊事器具(韓國של等)의 必要性 검토.

카. 携帶차량에 대한 第3種 補給品の 유대必要性 與否의 確認.

타. 軍需分野의 現國內 調辨品目중 現地에서 보급될 수 있는 品目の 確認報告.

파. 韓國 海軍船舶의 귀국시 副食品目 補給에 대한 明確한 協約(이미 支援을 받고 있음).

하. 과월 한국군에 대한 現地 美·越 兩側의 財政的 支援범위의 擴大교섭(例, 民事補償, 部隊운영비 등).

#### 5. 其 他

가. ROK MAC-V의 實態파악.

나. 越南도착후 任地에 배치될때까지의 警戒대책요구.

다. 韓·越 軍事實務者 協定書(1965.2.7)를 基準하여 修正 및 補完토록 協議한다.

라. 韓·美 軍事實務者 協定書(1965.2.8)를 基準하여 修正 및 補完토록 協議한다.』

한편 국방부는 연락장교단의 構成과 거의 때를 같이한 6월 23일에 국방부 일반명령 제II호로 越南에 대한 軍事支援업무를 計劃하고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計劃團을 合同參謀本部내에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計劃團과 연락장교단은 戰鬪부대의 과월을 앞두고 諸般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연락장교단이 現地에서 妥結하여야할 問題點을 廣範圍하게 熟議하고 있을 때 과월 美軍 司令部로 부터 韓國軍 計劃當局과의 協議를 위하여 McDonald중령외 3명의 연락장교단이 訪韓하여 合同參謀본부의 關係官 및 計劃團과 수차에 걸쳐 連席會議를 열고 전투부대의 과월에 關聯된 諸般문제를 討議하였다.

그런데 이 會議에서는 대체로 校業的인 事項만을 合意하고 作戰指揮權을 비롯한 몇가지

主要문제에 대하여서는 双方의 意見을 交換하는데 그쳤으며 具體的인 事項은 韓國軍側의 연락장교단과 美·越軍側의 實務者가 현지에서 協議하여 결정을 짓도록 되었다.

이리하여 연락장교단(장, 李世鎬소장)은 8월 18일에 金浦空港을 출발하여 19일 16.30에 Saigon의 Tan Son Nhut空港에 도착한 다음, 곧 申尙澈 韓國大使를 방문하고 現地정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08.30에 團一行은 越南軍의 合同參謀本部 참모장 Vien준장을 예방하고 現況설명을 들은 다음 14.00에는 파월 美軍事援助司令官 Westmoreland大將과 副司令官인 Throok Morton중장 및 참모장 Rarsen소장 그리고 關係참모들을 찾아 人事를 나누었다.

이어 美軍側으로부터 全般的인 現況 설명을 청취하였는데 이때에 마지막 順序에서 모든 파월 友邦軍의 指揮系統을 一目瞭然하게 表示한 機構圖를 보이면서 파월 한국군은 이미 파월 美軍司令部에 隸屬되고 있는듯이 설명하였다.

이를 본 李소장은 內心으로 美軍側이 한국군의 作戰指揮權을 掌握하는데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直感하고 즉각 美軍側에 대하여 「方今 나에게 提示한 機構圖表는 누구와 合意한것인가」라고 質問하였다.

그러자 美軍側은 解明하기를 「아무와도 合意한것은 아니며 다만 自己들의 試案을 보여드린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答辨하자 李소장은 「그렇다면 이 문제는 韓·美 兩軍間에 別途로 討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分明하게 言及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指揮統制權을 掌握하려는 美軍側의 底意를 牽制할 것을 含蓄性 있게 示唆하였다.

한편 李소장은 이날 午後에 美·越軍側과의 妥結을 効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各團員의 任務를 實務分野別로 나누어 金容然준장에게 軍需분야를, 李範俊준장에게 人事, 福祉분야를 金然翔준장에게 情報 및 海兵관계를 그리고 李勳燮준장에게 作戰 및 協定條約文관계로 專擔케 하였다.

着越 3일째인 21일이되자 團은 전날까지의 經過사항을 電通 제 1호로 국방부에 報告한 다음 09.00부터 越南軍 제 3군단사령부를 방문한데 이어 Di An의 韓國軍事援助團과 Vung Tau의 제 1 移動外科病院을 차례로 視察하고 團長 曹文煥준장과 病院長 李亨洙중령으로부터 각각 戰鬪부대 파월에 대한 現地 指揮官으로서의 意見을 들었는데 이때에 曹文煥준장으로부터 「앞으로 韓國軍에 대한 主副食費는 한국정부를 통하여 支拂한다는 美國務省의 指令이 있은듯 하므로 政府對 政府의 正式교섭이 提起될것으로 展望된다」라는 非公式보고를 받았다.

한편 國際軍事援助處(IMAO)의 美軍대표인 Cook대령으로부터 「파월 한국군은 파월 美軍司令官의 指揮統制下에 隸屬되도록 이미 美·越 兩軍間에 合意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지난 7월 12일에 訪韓한 美軍側 연락장교단이 合參 作戰企劃局長 主管下에 열린 韓·美聯合會議에서 韓國軍側이 표명한 意見에 根據한 것이다」라는 傳言을 듣자, 그 事實의 眞否를 確認하는 同時에 指揮權문제에 대한 本國의 指令을 받기 위하여 電通報고 제 2호로 要旨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問議하였다.

### 『보고 제 2호(8.21)』

1. Bien Hoa에 있는 월남 제 3군단사령부를 방문하고 지역내의 정세를 파악함.
  2. Di An의 ROK MAC-V와 Vung Tau의 ROK MASH를 시찰하고 증파부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3. IMAO의 US MAC-V대표 Cook대령 언명에 의하면 파월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에 있어 미·월간에 있어서는 美제1야전사령부(FFC)의 작전통제하에 두도록 완전합의 하였다고 함. 이는 7월 12일 합참 작전국장 주관하에 실시된 제 2차 한·미 회의에서 한국측 J-3의 의견에 입각한 것이라고 함(회의록 참조).
  4. ROK MAC-V단장의 비공식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군에 대한 주부식비를 한국정부를 통하여 지불한다는 미국무성의 지령이 있었다는바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측과 정식 교섭이 제기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만일 이 문제가 본국에서 제기되어 이것이 실현된다면 현재의 수준을 확보키 곤란하며 정액급식의 형식으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현지 물가추세와 미측의 저의로 볼 때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오는 23일 한·월 및 한·미간에 최초의 회의가 있을 것임.』
- 이상과 같은 問議사항에 대하여 國防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回信이 있었다.

### 『전문 제70호 (8.23)』

1. 연락장교단장 보고 제 2호(65.8.22)접수함.
2. 상기 보고중 제 3항 파월한국군 작전통제문제에 있어서 IMAO 미측대표 Cook대령이 언명했다는 7.12 합참 작전국장 주관하에 실시된 회의에서 미 FFC작전통제하에 두는데 한·미간 완전 합의했다는 것은 미측의 잘못된 이해로 믿으며 동일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토의되었음. 파월한국군 통합사령부의 필요성과 파월한국군의 작전통제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정적으로 한국사단이 미 FFC의 작전통제를 받을때의 한예를 들었을 뿐이며 이 회의에서 US MAC—V J-3소속 Mcdonald중령은 귀대후 한국군의 의견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임.

### 3. 본국에서 지령받은 방향으로 교섭을 적극 추진할 것.』

다음날 休日(日曜日)을 맞아 韓國大使館을 再次 방문한 團一行은 申尙澈大使로부터 最近의 現地정세를 보다 昭詳하게 설명들은 다음, 앞으로 越南政府側과 協議하게될 被害補償案에 대하여 意見を 交換하였다.

또한 23일에는 08.30부터 제 1차 韓·越 및 韓·美회의를 各各 개최하였으며 下午에는 3개국 代表와 實務者의 聯合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美軍側에서 참모장 Rarsen소장, 작전참모 Deputy준장, 군수참모 Crowley준장이, 越南軍側에서 작전참모부장 Thang준장, 작전참모 Phong준장이 그리고 韓國軍側에서 連絡장교단 全員이 참석하였다. 여기에서 上午에 舉論된 사항을 主題로 討議한 결과 이렇다할 妥結을 보지못한 가운데 첫會議의 幕을 내렸는데 이날 三者間에 제시된 意見의 差異가 너무나도 懸隔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協議過程에 있어서 相當한 迂餘曲折을 예상케하였다.

특히 이 會議에서 한국군에 대한 指揮權문제와 비둘기부대의 駐屯地 이동문제가 舉論되자 연락장교단은 主張하기를 「비둘기부대의 駐屯地는 이미 同부대의 파월에 앞서 現地에 도착한 先發隊(장, 李勳燮준장)와 美·越軍의 實務者間에 체결한 約定書에 違背될뿐 아니라 一事不再理의 原則에 어긋나는 提議이다」라고 反駁하면서 舉論하는것 조차 拒否하였다.

이와같이 作戰指揮權 및 비둘기부대 이동에 대한 基本的인 意見差異로 會議劈頭부터 雙方의 不協和가 싹트기 시작한 사실을 重視한 團長 李世鎬소장은 문제의 難航으로 말미암아 다른 枝葉의인 事項마저 連鎖反應으로 遲延되지 않을까 念慮한 끝에 各團員에게 은밀히 指示하기를 「문제의 舉論을 可及的 回避하도록 主導하면서 餘他문제를 優先的으로 妥結하는데 치중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날의 會議가 끝나자 그 結果를 다음과 같이 國防部에 打電하였다.

### 『보고 제 3호 (8.23)』

1. 금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제 1차 한·월 및 한·미회의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오전중의 회의를 기초로하여 3개국대표와 실무자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있었음.

2. 이 회의에서 월남군 및 미군측이 제시한 여러가지 문제중 한국측과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것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아측의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가. 작전사항

- (1) 한국사단이 월남에 도착과 동시에 파월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며 파월 미군사령관은 미군 기동타격부대(Task Force Alfa)사령관을 통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단, 한국군통합사령관이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을 갖는다(미군측 의견이며 이는 월남군측과 합의된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2) 통합사령관의 지휘소는 사단 사령부가 되는 반면에 Saigon에 연락단을 설치한다.
- (3) 비둘기부대의 현임무를 중단하고 제 3군단 지역내의 타임무로 이동전환하는 것을 계의함.
- (4) 현 비둘기부대에 예속되어 있는 해병 1개공병중대를 선발대 작업을 위하여 Cam Ranh으로 이동시키고 그뒤에 해병 제 2여단이 도착하면 그 부대에 합류시킨다.
- (5) 해병 제 2여단의 작전통제에 관하여서는 거리와 당면한 통신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부대를 미군 기동타격부대 사령관의 직접 작전통제하에 둔다. 그러나 이 점은 한국군 사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군수사항

- (1) 본국에서 선발대로 공병 1개중대를 사전에 Qui Nhon에 이동시킨다.
- (2) 하화작업을 위하여 차량과 운전병을 각제대보다 3~5일전에 도착하도록 한다.
- (3) 제1종은 비 부패성 품목을 파월 미군사령부 예산으로 한국에서 조변 보급한다고 하며 한국군을 위한 식단(Menu)을 별도 작성중이라고함(이는 현 수준보다 저하시키려는 미군측의 저의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명일부터 구체적인 협의를 갖겠음).
- (4) 월남군측은 중전에 쌀등 5개품목을 지원하던 것을 쌀만을 월남측에서 제공하고 기타는 미군측이 담당할 것이라고함(이에 대한 미군측의 보장은 없음).
- (5) 천막은 폐제상의 천막을 휴대할 것을 요망함(미본토에서 사단(-) 도착 3주후에 지원가능하기 때문임).

3. 상기 사항들은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아측의 기본방침대로 관철시키도록 계속 노력중임.

4. 작전사항은 암호로 작성 NR 265로 송신하겠음.』

다음날 24일에는 08.30부터 越南軍 및 美軍側과 個別的인 접촉을 벌이면서 懸案문제를 協議하였으나 연락장교단側은 作戰指揮權 및 비돌기部隊 이동문제에 대하여 一切 言及을 回避하면서 餘他문제만을 協議하는데 焦點을 두고 會議를 進行시켰다.

한편 李소장은 會議의 進行狀況을 관찰하면서 추측하기를 美軍側이 作戰指揮權문제와 비돌기部隊의 이동문제를 계속 論議하려고 하는데는 韓國側이 받아들일 수 없는 釋然치 않은 底意가 있는 것으로 看破하였다.

즉 指揮權의 一元化라는 單純한 次元에서 본다면 韓國軍에 대한 統制權을 掌握하려는 美軍側의 主張은 論理的인 名分이 있다고 하겠으나 비돌기부대의 移動문제만은 妥當한 理由가 없는 無謀한 主張으로 看做하였다.

그 根據로서 첫째 美軍側은 당초 비돌기부대를 追後 瓦解되는 戰鬥부대에 合流시켜 Qu Nhon에 주둔시키려 하였다가 韓國軍側이 이에 반대하자 그 代案으로 제 3군단 管轄內의 他 지역에 移動할것을 主張한 點, 둘째 現주둔지인 Di An은 제 3군단 管轄內에서 比較的의 安定지역이므로 非戰鬥부대인 비돌기部隊에 適合한 주둔지라는 것을 認知하면서도 漠然하게 其他지역으로 移動할것을 提議한 點.

以上の 두가지 點에서 美軍側의 提議를 不當하고 無定見한 것으로 評價한 李소장은 內心으로 「美軍側은 비돌기部隊를 현재의 駐屯地보다도 더욱 敵情이 險惡한 未平定지역에 移動케하면 基本임무인 建設 및 醫療활동에 그치지않고 不可避하게 地域平定과업에도 손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一石二鳥의 實利를 거둘 수 있다는 多分히 政略的인 打算이 作用한 좁은 所見이다」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李소장은 指揮權과 駐屯地이동 問題에 대하여 그들이 어떤 方式으로 固執하든 期必코 納得시켜 韓國측의 意圖에 同調하도록 努力할것을 決心하는 한편 其他문제에 대하여서는 速決主義로 妥結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날 會議에서 給食문제가 論議되었을때에 美軍側은 「과월 韓國군에 대한 給食은 韓國정부가 自擔하여야 할것이다」라고 主張하자 軍需관계를 담당한 金容然준장이 말하되 韓國군은 越南정부와 더불어 美國의 요청에 의하여 과월되고 또 될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給食은 越南軍을 支援하는 美軍側이 그와 同一한 支援義務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韓國정부가 自擔하라는 主張은 不當한 것이다」라고 反駁하였다.

또한 韓國군 統合司令部 설치문제가 論議되었을때 연락장교단側이 미리 준비한 500여명의 T/O 편성표를 提示하자 美軍側은 大驚失色하면서 연락단의 規模도 充分할 것인데도 必要이상의 要求를 한다고 指摘하고 10여명의 연락단으로 縮少편성할 代案을 提示하라고 要

諸하는등 雙方間의 意見은 事事件件 隔差를 드러내었으므로 앞으로 많은 論難이 있을 것으로 豫想되었다. 匱은 이날의 會談가 끝나자 討議過程에서의 문제점을 要約하여 다음과같이 국방부에 報告하였다.

#### 『보고 제 4 호 (8. 24)

1. 증파부대 요원과같이 예상손실병력에 대한 보충병을 동시에 파월할 것을 제의했던바 파월 美軍司令部 J-1은 동의하였으며 주한 UN군총사령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니 서울에서 UN군총사령부에 적극 추진바람.
  2. PX에 국산품을 납품하는 문제를 제의하였던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으며 필요한 품목의 종류(5~10개품목)를 제시해달라고 하니 이에대한 추가 지시바람.
  3. 증파부대의 PX설치는 약 1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필요한 일용품을 휴대하도록 조치바람.
  4. 월남내에 있어서의 휴양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의하였던바 인원의 부족으로 곤란하다고 하며 한국의 건설업자의 투입을 요구하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므로 이에대하여 본국에서 미군측 요로를 통하여 적극 추진바람.
  5. 군용지도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FM101-10에 의거한 기본휴대량을 청구하면 부대 출발전에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서울에서 조치바람.
  6. 작전지역내에서의 작전지휘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미군사령관이 형유하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되었음.
  7. 한국군통합사령부 설치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우선 제 1 단계로 400~500명의 규모에서 상호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8. 병기분야에 대한 T/E를 검토 완료하였음.
  9. 급수 Trailer는 현지에서 지원 불가능하므로 한국에서 조변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임. ¾ 및 ½ton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tank의 설계와 견적을 속히 송부바람.
  10. M2 Car소총 교체에 대하여 T/E에 반영시켰으나 해병대 297정, 육군 627정을 현지에서 보충받도록 되었음.
  11. 한국군에 대한 급식수준을 미군보다 저하시키려는 저의가 보이므로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지에서 보급받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着越한지 7일째인 25일에 연락장교단 一行은 日程계획에 따라 Pleiku에 있는 越南제 2 군

단사령부 및 隸下 제3 機甲大隊를 視察한 다음, 곧 Da Nang으로 옮겨 越南제1 軍단사령부와 美해병 제3 師단사령부 및 隸下 제9 연대를 각각 訪問하고 作戰現況을 淸취한 다음 Saigon으로 復歸하였다.

다음날 26일에는 部隊의 豫想주둔지역인 Qui Nhon과 Cam Ranh지역에 대한 地形偵察을 하게 되어있었으나 越南國家元首인 Thieu議長이 비둘기部隊를 訪問한다는 傳言을 받아 豫定 變更하고 이에 同行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部隊와 工事場을 두루 視察한 다음, Thieu議長과 함께 午餐會를 가졌는데 이자리에서 李소장은 비둘기部隊의 運營이 越南정부와 利害관계가 있는만큼 駐留地의 移動에 關하여 그와 相議하는 것이 좋을듯 생각되어 그에게 進言하기를 「비둘기部隊가 그 任務를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地理的으로 Di An이 가장 適合한 駐屯地라고 생각되며 이駐屯地의 適合性與否는 곧 越南의 國家利益을 左右하는데 影響을 미칠것으로 본다 그런데 美軍側은 他지역으로 이동할것을 主張하는바 貴下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質問하자 그는 즉석에서 「越南정부로서는 비둘기부대의 現任 務 및 位置를 變更시키지 않겠다」라고 言明함으로써 美軍側의 主張에 反對할 뜻을 비치었다.

연락장교단의 主張에 분명하게 同意한 Thieu議長의 言質로 보아 次後에 있을 韓·美·越 聯合會議에서 비둘기부대의 駐屯地는 韓國側의 意見대로 落着될 것이 豫想되었다.

이날 視察을 마치고 Saigon으로 돌아간 團은 Thieu議長과의 面談을 포함한 이날의 進展 狀況을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報告하였다.

#### 『보고 제 6 호 (8.26)』

1. 09.00부터 18.00까지 월남국가 원수 Thieu의장과 건설장관 및 申尙澈 대사와같이 비둘기부대 공사장 및 숙영지 건설상황을 시찰하였음.
  2. 시찰중 현 비둘기부대 이동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던바 Thieu장군은 월남정부측으로서는 비둘기부대의 현임무 및 위치를 변경시키지 않을 것에 합의하였음. 미측으로부터는 먼저 보고한 바와같이 제3 軍단 지역내의 다른곳에 이동하는 문제를 제기받은바 있으나 금일 월남측과 합의된 선에서 앞으로 토의시 관찰시킬 예정임.
  3. 군수문제는 병참 및 공병부대의 실무자간에 토의중에 있음.
  4. 통합사령부의 편성 및 장비표를 미측에 제시하여 협의중에 있음.』
- 27일에 團은 日程計劃에 따라 전투부대의 豫想주둔지역을 偵察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날



07.00에 航空機편으로 Saigon을 출발하여 Qui Nhon에 도착하였다.

이어 越南 제22사단을 방문하고 現況을 청취한 다음 10.00부터 6시간에 걸쳐 Qui Nhon 海岸지대로부터 Binh Khe에 이르는 제19번道路를 空中정찰한 다음, 다시 車輛으로 地上정찰을 실시한 끝에 사단 및 연대전술지휘소의 位置를 選定하였는데 이 地域은 一部를 除外하고는 대부분이 海岸과 평탄한 地形을 이루고 있어서 部隊배치와 警戒가 비교적 쉬울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地域의 일부는 私有地이므로 買收문제에 있어서 韓·美·越間에 多少의 異見이 있기는 하였으나 곧 圓滿히 妥結될것으로 展望되었다.

다음날 團은 Nha Trang에 있는 美機動打撃部隊(Task Force Alfa)와 해병 제2여단의 豫想주둔지역을 視察하기 위하여 07.00에 Saigon을 떠나 現地에 도착한 다음 곧 同부대사령부를 방문하고 現況을 청취한뒤에 앞으로 해병 제2여단이 駐屯하게될 Cam Ranh Bay의 候補地를 空中 또는 地上정찰하였으나 位置를 確定치못하고 次後에 개최될 韓·美·越 聯合會議에서 최종決定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어 團一行은 機動打撃부대로 돌아가 파월 한국군이 담당할 任務에 關하여 協議하였는데 그結果 團長 李世鏡소장과 사령관 Larson소장 間에 合意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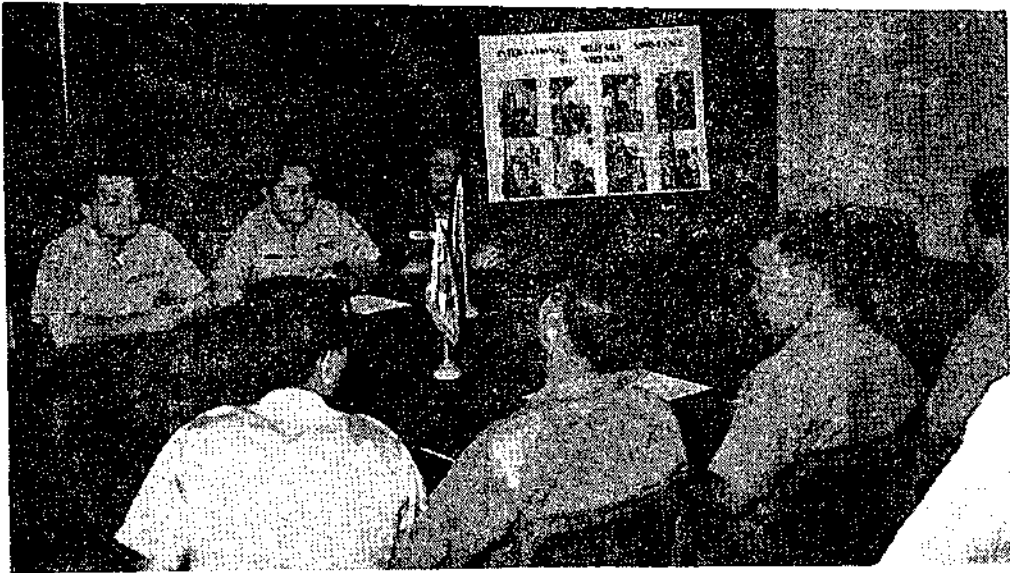
1. An Khe에 주둔하는 美空中機甲사단과 協力하여 제19번道路를 確保하며
2. Qui Nhon과 Cam Ranh의 港灣 및 空軍기지의 防禦를 위한 外廓경비를 담당함으로써 兩半島를 確保한다.
3. 兩地域이 安定되면 이곳을 基地로하여 他地域의 VC를 擊滅하는 한편 越南軍을 支援한다.]

以上과 같이 合意한뒤에 Larson사령관은 말하기를 「해병 제2여단을 自己의 指揮統制下에 隸屬시키겠다」라고 提議하였다. 그러나 연락장교단側이 끝내 反對함으로써 이문제는 명호부대에 대한 指揮統制權 문제와 함께 未決된채로 追後의 協議사항으로 移越되었다.

29일 休日(日曜日)을 맞아 團은 韓·美 및 韓·越間에 맺게될 實務者 約定書를 起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作業을 李勳燮준장의 主管으로 推進하였다.

다음날 30일에 團一行은 申尙澈大使와 함께 越南 國防部長官을 禮訪하고 懸案문제에 대한 意見을 交換하였다.

이어 韓·美 및 韓·越 實務者間에 分野別로 會議를 개최하고 越南軍側에 被害補償에 關하여 協議할 것을 要求하였으나 이는 外務部의 所管이며 軍部에서 論議할 문제가 아니라고



韓·越 兩軍代表들이 討議하는 光景(우로 두번째 李世鎬소장)

回避하므로 이에 대한 妥結은 당분간 어려울것으로 내다보였다.

한편 美軍側에서도 이 문제는 韓·美 兩政府間에 協定을 맺어야할 性質의 案件이라고 主張함으로써 越南軍側의 意見에 同調하는 立場을 취하므로 團은 이問題의 協議를 次後로 미루었다가 機會를 보아 餘他の 案件과 더불어 一括妥結하기로 作定하였다.

또한 美軍側은 이날 會議에서 韓國軍의 指揮統制權문제를 再論하려고 企圖하였는데 그論旨의 내용은 韓國군은 韓國軍統制司令官의 指揮를 받되 사단은 美機動打撃部隊사령관의 統制下에 隸屬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연락장교단側이 一貫하여 반대하자 다른 協議사항도 함께 묶이게되어 좀처럼 進陞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美軍側이 비둘기부대에 配屬되어 있는 海軍工兵 1개중대를 海軍 2여단의 先發隊로서 Cam Ranh지역에 移動시켜 새로운 任務를 賦與하려고 提議하자 團의 一員인 金然翊 海軍준장이 이를 極口 反對함으로써 指揮權문제는 갈수록 어렵게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편 統制司令部의 機構 및 편성에 있어서 연락장교단이 이미 提示한 1안(T/O 500명)을 擧論하였으나 美軍側은 如前히 必要이상의 엄청난 規模라고 指摘하면서 150명의 規模로 축소할것을 慫慂하였다. 그러나 韓國軍側이 이를 반대하자 그들은 折衷案으로서 운전병, 경비병, 행정要員(打字兵) 炊事兵등을 削減하고 이에 充當할 越南民間人을 雇傭하되 그 人

件費를 負擔하겠다고 提議하였다.

이에따라 團은 美軍側의 折衝案을 받아들여 제 2안으로서 300명 規模의 편성표를 提示하였으나 또다시 그들이 反對함으로써 끝내 結論을 맺지못하였다. 또한 이날 給食문제가 學論되자 美軍側은 한국군에 대한 給食은 自國에서 支援받아야 한다는 지난 會議時의 主張으로부터 크게 後退하여 제 2안으로서 A-Ration을 支給하겠다고 修正案을 내놓았으나 團側이 또다시 이를 拒絶하자 美軍側은 「그렇다면 都大體 한국군이 要望하는 給食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質問하였다.

이때에 李소장은 「우리가 要求하는 것은 美戰鬪부대와 同等한 水準의 給食인 것이다. 즉 A-Ration으로 局限할 것이 아니라 戰鬪間에는 C-Ration을, 또 非戰鬪間에는 後方부대와 똑같이 A-Ration을 支給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美戰鬪부대에 A-Ration을 支給하든 C-Ration을 支給하든 或은 補給事情이 惡化되어 급게되든 如何든 美戰鬪부대와 同等한 支給을 要望할뿐이며 決코 그 以上の 給食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率直하게 말하자 그 直線의인 主張에 美軍側은 더 이상의 反論을 餘地가 없음을 自覺하였음인지 마침내 韓國側의 意見を 받아들이기로 結論을 맺고 다만 輸送間의 給食만은 계속 檢討한 다음에 最終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軍需分野에 있어서 제 2, 제 5種에 대한 支援문제를 協議한 끝에 派越直後의 30일간은 補給받을 수없으므로 출발시에 本國에서 휴대하도록 合意하는등 많은 進展이 있었으나 앞으로 折衝하여야될 未合意사항이 적지않게 남아 있으므로 團은 이날의 結果와 아울러 軍需분야의 未決사항으로 말미암아 예정보다 10일가량 滯留기간이 遲延됨을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31일 團一行은 戰鬪부대의 위치와 作戰지역 그리고 附帶施設을 결정하기 위하여 파월 美軍司令部의 作戰참모부 要員과같이 이미 候補地로 豫定된 Nha Trang 및 Qui Nhon지역을 航空정찰하였는데 最終결정은 다음날의 韓·美·越 聯合會議에 미루기브 하였다.

한편 被害補償문제가 停滯상태에 놓인채 좀처럼 進展되지 않자 團一行은 Westmoreland大將을 방문하고 越南軍側이 外務部所管이라는 理由로 이 문제에 대한 協議를 迴避하고 있다는 事實과 이는 三國의 軍事實務者間에 충분히 妥結될 수 있는 문제이며 萬若에 이 문제가 解決되지 않는다면 전투부대의 派越은 進展될 수 없을 것이라는 點을 進言하였다. 한편 團은 申尙澈대사로 하여금 外交의次元에서 이 問題를 주월 美大使와 協議하도록 하였다.

또한 團은 當初에 8월 31일까지 現地에서의 任務를 完了하고 9월 1일에 歸國하게 되어있

었으나 아직도 未決사항이 있으므로 그 完結을 위하여 부득이 파견기간을 5일간 延長할 것을 국방부에 建議하였다.

9월 1일에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등 各分野 別로 實務者회의가 계속 進行되었는데 특히 이날 美機動打擊부대(TFA)로부터 「9월 15일 이전에 사단참모로 구성된 計劃團으로서 장교 10명 사병 10명 都合20명과 해병대 計劃團으로서 장교 6명 사병 5명 都合 11명을 각각 派越하기 바란다」라는 요청을 받아 團은 참모 또는 參謀補佐官級으로서 英語와 打字기술에 能通한 人員을 선발하여 파월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또한 團은 이와 더불어 국방부에 建議하기를 해병대에 指示하여 副指揮官을 長으로 하는 100명정도의 先發隊를 9월 20일~25일 사이에 出國할 수 있도록 준비에 着手하게 하였다.

한편 이날 會議에서 통합사령부의 設置문제가 다시금 論議되자 美軍側은 지난 會議時에 團이 提示한 300명規模의 제 2 안을 거의 度外視하고 장교50명, 사병 100명 都合 150명 規模로 縮少하기 바란다는 從前의 主張을 反復하면서 警備요원 및 通信요원 등 勤務요원의 一部를 越南人으로 代置하고 이들에 대한 人件費를 그들의 豫算에서 支拂할 것임을 提議하였다.

그러자 團은 勤務요원의 一部를 越南人으로 代置한다 하더라도 그 規模는 最少限 25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再強調하였다.

또 이날 會議에서 韓·越 約定書의 草案을 檢討하기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韓國側의 草案에 合意를 보았으나 被害補償문제에 있어서 越南軍側은 如前히 兩國의 外務當局間에 協定을 맺어야 한다는 從前의 提議를 再確認하면서 可及의이던 이 문제의 論議를 回避하려는 態度를 보이므로 團은 이와같은 越南軍側의 主張을 申尙澈大使에게 再次 反映시켜 政府間의 折衝을 併行케 하였다.

그런데 이날밤 늦게 越南軍의 작전참모인 Thang소장이 李世鎬소장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말하기를 「한국군은 眞心으로 獨自의인 作戰指揮權을 願하는가 萬若 한국군이 眞正으로 願한다면 初志를 굽히지 말고 期必코 貫徹시키도록 하라」고 傳하였다.

Thang소장으로부터 豫想치 않은 忠告를 받은 李소장은 作戰指揮權을 에워싸고 韓·美·越間에 微妙한 相關관계가 얽혀있음을 看破하고 Tang소장의 忠告와 이에 相反된 美軍側의 底意와의 函數관계가 果然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분석한 끝에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렸다.

美軍側은 表面上의 名分으로 指揮의 一元化를 표방하면서 韓國軍에 대한 指揮權의 掌握을 主張하고 있으나 其實에 있어서 그 底意는 越南軍을 비롯한 各軍의 統制權을 한손에 掌

握하고 任意로 指揮하려는 心算으로 내다보았다.

즉 지금까지 美·越軍의 兩立된 指揮體制로 因하여 여러가지의 弊端과 不便을 겪은 美軍 으로서는 무엇보다도 指揮權의 一元化가 時急하다고 切感되자 此際에 韓國軍에 대한 統制權을 管掌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越南軍에 대한 統制權마저 吸收하려는 底意로서 韓國軍의 隸屬을 끈질기게 主張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또한 李소장은 越南軍側의 忠言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萬若 韓國軍이 美軍統制下에 隸屬 되면 美軍側은 이를 例證으로 삼고 畢竟 越南軍에 대한 指揮權마저 管掌하고자 할것이므로 韓國軍의 自主的인 指揮權行使는 곧 越南軍의 指揮權 確保에 直結된다고 看做함으로써 韓國軍側의 주장에 同調하는 忠言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밖에 이날 會議에서는 軍需분야의 T/E, T/A문제를 비롯하여 携帶장비와 事務用備品 및 炊事도구 그리고 野戰天幕 및 給水車등 附隨的인 문제를 廣範圍하게 討議한 결과 團이 提議한 사항에 대체로 同意를 보았으며 특히 統合사령부와 本國 및 各隸下부대와의 通信은 美軍의 回路를 사용하되 美軍과 同一한 優先순위에 依據하여 운영하며 또한 放送局설치에 있어서 卽時 美軍사령부가 最大限의 裝備지원을 하기로 約定하였다.

그런데 給食을 비롯한 軍需분야의 諸문제가 거의 團의 주장대로 落着될 展望이 보이자 李소장은 內心 多幸스럽게 여겼으나 美軍과 同等한 洋食爲主의 給食만 으로서는 未洽하며 地方的 食性を 充足시킬 수 있는 別途의 給食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越南軍側을 說得하여 韓國人의 傳統的인 食性に 알맞는 給食을 追加지원받기로 決心하고 이날 午後늦게 金容然준장을 帶同한 다음 越南軍참모장 Thanh소장을 訪問하여 提議하기를 「韓·越 兩國은 같은 東洋文化圈에 屬한 友邦이다. 兩國은 民族性과 生活양식에 있어서 共通點이 많을 뿐더러 특히 兩國民은 米穀을 主食으로 하고있다. 卽時 韓國軍에 대한 給食은 美軍과 똑같은 支援을 받게 되어있으나 韓國人의 體力은 洋食만으로 支撐할수가 없으며 地方的인 食性の 充足이 不可避하다. 그러므로 같은 東洋文化圈의 友邦이라는 立場에서 쌀을 비롯한 主副食을 越南側에서 支援할 것을 要請한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Thanh소장은 같은 文化圈에 屬한 友邦이라는 말에 유다른 親密感을 느낀 듯이 卽席에서 快諾하고 別途의 給食支援을 確約하였다.

이로써 韓國軍은 美軍과 同等한 給食을 받는 以外에 越南軍側으로부터 쌀, 소금, 설탕, 식유, 차등 5種의 基本식량을 補給받게 되었는때 實相 이에 所要되는 資金은 美軍으로부터 越南軍에 支援하는 것이기 때문에 根源的으로는 美軍의 支援을 받는 結果가 되는 셈이기는

하나 어찌든 한국군은 追加的으로 傳統的인 地方的 食性を 充足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2일에도 韓·美軍의 實務者회담은 계속되었는데 이날 會議에서는 주로 指揮權문제와 統合사령부의 設置에 대하여 論議되었다. 특히 指揮權에 대하여 雙方間의 討論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活潑하게 전개되었는데 美軍側은 從前의 論旨를 반복하면서 現국제군사원조기구(IMAO)를 폐지하고 한국군을 美機動打撃부대(TFA)의 作戰統制下에 隸屬시켜야 함을 거듭 強調하였다.

그러나 團은 이에 맞서 國際軍事援助機構를 存置시켜 이機關을 통하여 한국군의 任務, 統制, 作戰지역에 관한 方策을 三者 合意制로 운영할것을 主張하였는데 특히 이 會議에서 李勳燮준장은 말하되 「이 사람은 지금까지 數次에 걸쳐 한국측의 立場을 說明하였는데도 不拘하고 끝내 이를 納得하지 못하는 貴官들의 心理를 理解할 수 없다. 한국군의 作戰활동에 대한 原則的인 문제를 三者로 구성된 援助機構에서 合意制로 결정케함은 곧 우리軍에 대한 實質的인 統制力을 事實上 行使할 수 있는 體制가 되는데도 不拘하고 期於코 美軍指揮下의 隸屬을 表面化함으로써 國家的인 名分과 體面을 박탈하려는 眞意가 都大體 무엇인가」라고까지 抗辯하였으나 끝내 合意點에 이르지 못한채 閉會하였다.

한편 團의 一員인 李範俊, 金然翔 兩준장은 말은바 所任을 完了하고 이날 航空機便으로 귀국하였다.

9월 3일에도 殘留中의 團一行은 美軍側과 實務者회담을 개최하고 未合意사항을 계속 討議하였는데 이날 會議에서 軍需分野사항은 거의 妥結하고 被害補償문제도 原則的으로 合意를 보았으나 다만 法制上の 節次와 財源捻出에 多少의 意見차이가 있었으므로 申尙澈大使로 하여금 外交계통을 통하여 結末을 짓도록 委屬하였다.

또한 統合사령부의 設置문제에 雙方間에 論難을 거듭한 끝에 모든 軍需支援과 근무및 경비에 必要한 雇傭員의 人件費를 美軍側에서 負擔한다는 前提下에 마침내 장교 70명 사병 160명 都合 230명 규모로 落着되었다.

그러나 指揮權문제는 如前히 意見대립으로 交錯상태에 빠진채 좀처럼 進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연락장교단의 一員으로 隨行한 合參首席顧問官 Blewett대령이 李世鎬소장에게 은밀하게 提議하기를 「모든 문제를 한국군측의 要求대로 하되 作戰指揮權만은 美機動打撃부대의 統制下에 隸屬시키고 다만 雙方의 約定을 秘密첩정으로 체결하여 公開하지 않도록 하면 韓國의 對外的 體面에 하등 支障이 없지 않겠는가」라고하자 李소장은 激昂된 語調로 一喝하기를 「貴官은 우리 연락장교단의 一員으로 이 會議에 참석하지 않았는가 그렇

다면 우리의 주장에 同調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나는 연락장교단장을 辭退하는 限이 있더라도 實官들의 주장에 同意할 수 없다. 都是 우리의 眞意를 理解하지 못하고 一方的인 주장만을 되풀이 固執하는 實官들을 相對로 協商하는것은 無意味한 徒勞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宣言하고는 一行과 함께 退場하자 會議는 決裂되고 말았다.

이어 宿所로 철수한 團은 이날의 狀況을 국방부에 報告함과 아울러 이에 添加하여 指揮權 문제가 끝내 妥結되지 않을 경우에는 協定체결을 保留하고 一旦 歸國할 것을 建議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보고 제13호 (9.3)』

1. 급일 오전중 US MAC—V측과 지휘권 문제에 관하여 재차 토의하였으나 US MAC—V측은 여전히 현 한국의 제8군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파월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US MAC—V사령관의 직접 통제하에 둔다는 방침을 계속 주장하며 IMAO제도를 전투사단 파월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IMAO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타협의 여지가 없음.
2. 계속 우리측의 기본방침인 IMAO제도의 필요성을 설득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나 만일 합의 불가능할시는 협정체결을 보류하고 정책적으로 철수할것을 건의함.
3. 군수문제는 대체적으로 합의 되었으며 부분적인 미합의점은 귀국하여 재검토후 재협의토록 함.
4. 피해보상문제는 한·미, 한·월 실무자 협정서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분제이기 때문에 신상철 대사로 하여금 외교계통으로 협의토록함.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는 원칙적으로 합의되고 있으나 양측의 법절차 문제와 재원의 엄출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따라서 외교계통에 의한 교섭 시간이 필요함.』

以上과 같이 보고한 電文中 2項에 「만일 合意 불가능할 시는 협정체결을 보류하고 政策的으로 철수할것을 건의함」이라고 한데는 其實 李소장 나름대로의 政略的인 心算이 있었다.

즉 그는 한국측의 모든 通信은 파월美軍通信 기관에서 取扱하므로 그들이 이 通信文을 接受하면 연락장교 단의 初志一貫된 주장과 電文에서 밝힌바 未合意時에는 協定체결을 保留하고 철수한다는 斷乎한 決意와 態度를 살살이 알게 됨으로써 그들 스스로 自己들의 주장을 撤回하고 團이 提議한 協定條件에 어쩔 수 없이 呼應할 것으로 내다 보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날 午後늦게 上記의 電文을 받은 국방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回信이 있었다.

『전문 제76호 (9.3)』

1. 지휘권 문제는 계속 해결토록 절충하되 해결 불가능시는 미결상태로 하고 귀국할것. 기타 합의된 사항은 즉시 실천가능하도록 가협정서 또는 각서로서 체결할것.

2. 귀단 보고 제11호 제5항에 언급된 피해보상문제는 그동안 군사실무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성문화하여 교환하고 국가간의 외교조약관계를 현지 대사에게 이관하면 본국 외무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3. 파월한국군을 지휘하며 월남에서 한국군을 대표할 통합사령부 명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가. 우리말 : 파월한국군사령부

나. 영문 : REPUBLIC OF KOREA FORCES VIET NAM

4. 부여된 임무를 조속 종결하고 예정된 귀대일내에 귀국할 것.』

9월 4일에는 兩側의 代表가 不參한 가운데 實務者들만이 會同하여 雙方間에 맺을 約定書의 草案을 각각 審議하였는데 韓·美 實務者들은 縣案中의 指揮體制部分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一括하여 檢討함으로써 事實上의 최종審議를 끝내었다. 특히 이날에는 Saigon과 서울 間의 通信網에 대하여 論議한 결과 電話 및 無線은 各 1 回線씩 설치할 것에 意見이 一致되었다.

한편 이날 會議가 거의 끝날 무렵에 美軍側은 느닷없이 給食문제에 言及하여 「韓國軍에 대한 給食은 貴官들이 요구한대로 美軍과 同等한 수준에서 支給하기로 合意를 보았는데도 越南軍側에 쌀을 비롯한 5種의 基本食糧을 別途로 요구하였으니 이는 二重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抗議하였다.

그러자 金容然준장은 答辯하기를 「그 문제는 이미 合意를 본것이므로 再論하지 않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傳統的인 地方的食性이 있다. 이 慣習的인 食性을 充足시키지 못하면 體力의 維持에 支障을 받게되므로 우리의 이와같은 特殊사정을 理解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體力維持에 異狀이 발생함으로써 正常的인 戰鬪力을 발휘할 수 없게 되기를 貴官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論駁하자 美軍側은 이에 首肯하며 同意하였다. 9월 5일 最終日을 맞아 問題의 作戰指揮權에 대한 實務者 會談을 열었는데 이에 美軍側에서는 參謀副長인 Abbey준장이, 韓國軍側에서는 李勳燮준장이 參席하였다. 이 會議에서 Abbey준장은 말하기를 「韓國軍의 作戰統制權은 파월美軍司令官에게 委任하되 파월 韓國軍司令官이 到着과 同時에 이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國際軍事援助(IMAO)會議를 開催한다」라



고 하였다.

그러자 李준장은 即刻 반대하면서 「韓國軍의 作戰指揮權을 卽時 美軍司令官에게 委任한다고 굳이 勸박을 必要가 있느냐 이를 文書化하지 않더라도 韓國軍司令官이 도착後 任務遂行過程에서 얼마든지 處理할 수 있지 않겠는가 軍事上 指揮權의 一元化는 妥當하다 하더라도 韓國의 政治的 次元에서 볼때 이는 許容될 수 없는 것이므로 文書上으로 固定化시켜서는 안된다」라고 頑強하게 應酬하였다.

Abbey준장은 다시 말하기를 「韓國軍司令官이 도착後에 選擇할 수 있는 方法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韓國軍의 單獨作戰이며 둘째로 卽時 美軍司令官의 統制下에 들어가는 것이며 셋째로 越南軍의 統制下에 隸屬되는것 中의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韓國軍은 越南軍의 指揮下에 들어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獨自的으로 任務를 수행하겠다는 것인가 萬일에 後者の 것이라면 都是 한국군은 獨立作戰의 能力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여 李준장은 「獨立作戰의 能力與否를 是非하기 이전에 國家主權과 關聯된 政策的인 次元에서 생각하여야 할 問題이므로 처음부터 美軍의 指揮下에 들어간다고 文書上으로 明示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시 拒否하자 그는 제2案을 提議한다고 前提한 다음 「그렇다면 指揮權문제만은 秘密협정을 체결하면 國家의 體面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兩者間에 秘密협정을 맺어 제3국에 秘密로 하자는 案을 勸誘하였다. 이 말을 들은 李준장은 더욱 強硬한 語調로 一蹴하면서 반대의 理由를 들어 說明하기를 「첫째 兩國大統領이 言約한 派兵의 基本精神에 違背되며 둘째 指揮官의 權限을 제한하는 不當한 처사가 되며 셋째 連絡國에는 秘密協定을 체결할 權限이 賦與되어 있지 않다」라고 闡明하였다.

그러자 美軍側은 一齊히 總退場하고 새로운 代表團으로 交替한 다음, 下午에 會議를 숙개하였으나 兩側의 意見은 여전히 對立되었으므로 指揮權문제를 除外한 기타事項에 限하여 約定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리하여 既定성된 約定書에서 指揮權문제를 削除하고 이날 16.00에 韓·越間의 協定에 이어 韓·美間의 協定에 각각 署名함으로써 部分的이나마 一旦 매듭을 지었다. 그런데 다음날의 歸國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19.00경에 美軍側의 연락장교가 찾아와서 「Westmoreland 大將이 급히 李世鎬소장을 만나고자 한다」라고 傳하므로 李소장은 李勳燮준장과 通譯장교 安昌和중위를 대동하고 卽時 美軍司令部로 直行하였는데 이때에 卞素와는 달리 謹嚴하게

正裝한 Westmoreland대장은 李勳燮준장을 除外하고 李世鎬소장과 단둘이서 만나자고 하기에 李소장은 安昌和中위만을 데리고 그의 居室로 들어갔다.

그런데 同대장이 李勳燮준장을 除外시킨데에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즉 李勳燮준장은 과거 先發隊長으로 파월되었을 당시부터 美·越軍의 統制下에 한국군이 隸屬되는 것을 頑強하게 反對하였을 뿐 아니라 今次의 會議過程에서도 一貫하여 拒否한 사실을 報告를 통하여 이미 昭詳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李준장과 協議하는 것은 徒勞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作戰指揮權문제를 에워싸고 韓·美·越間에 意見대립이 紛紛하였던 過去의 經緯를 李勳燮준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은바 있는 李世鎬소장은 그 自身도 이 문제에는 確固한 所信을 가지고 反對한 立場이므로 同대장이 어떠한 態度로 나오든 反論을 펼 마음의 準備를 充分히 가능하고 있었던 터였다.

아울러 李소장을 맞이한 同대장은 沈重한 姿勢로 發言하기를 「한국의 參作戰企劃局長인 孫熙善소장이 지난번 訪韓하였던 우리의 연락장교단과의 연합회의 席上에서 파월한국군이 美軍司令官의 統制下에 隸屬되는 것을 無上의 榮光으로 생각한다고 言及함으로써 指揮權문제를 異議없이 肯定的으로 받아들였다는 報告가 있었으므로 이 문제는 이미 結末을 본 것으로 알았는데 貴官은 어찌하여 反對하는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李소장은 答辨하기를 「孫熙善소장이 그러한 發言을 하였다는 말을 이 사람은 처음 듣는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당시의 韓·美 聯合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孫熙善소장의 發言經緯에 대하여 알수있는 立場에 있지 않다」라고 딱칼라 否認하였다.

李소장은 一旦 強力하게 否認은 하였으나 그러나 內心으로는 甚히 當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난 8월 21일에 비둘기部隊를 시찰할때 同行하였던 國際軍事援助處(IMAO)의 파월美軍司令部 대표인 Cook대령이 한국군에 대한 作戰指揮權문제는 지난 7월 12일에 한국의 參作戰企劃局 主管下에 열린 韓·美 聯合會議에서 이미 合意한바 있다」라고 申明하였을때 이를 確認하기 위하여 즉각 국방부에 照會한 결과 그것은 美軍側의 잘못된 理解라는 다음과 같은 해명回信을 받은바 있었는데 또다시 孫소장의 發言내용이 是非의 焦點으로 擡頭되었기 때문이다.

즉, 국방부 전문 제70호(8.23)로 連絡장교단이 接受한 回信전문중 제2항에 「파월한국군 작전지휘문제에 있어서 IMAO 미측대표 Cook대령이 언명했다고한 바 7.12 합참 작전국장 주관하에 열린 韓·미연합회의에서 한국군을 미제1야전군사령부 작전통제하에 두는데 完전합의했

다는 것은 미측의 잘못된 이해로 믿으며 동일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토의되었음. 파월한국군 통합사령부의 필요성과 파월한국군의 작전통제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정적으로 한국군사단이 미 FFC의 작전통제를 받을때의 한 예를 든것뿐이며 이 회의에서 US MAC—V J-3 소속 Mcdonald중령은 귀대후 한국군의 의견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던 것임.]

以上과 같은 解明이 있었기 때문에 그 發言내용에 대한 是非는 一段落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此際에 새삼스럽게 再言及하니 李소장으로서는 畢竟 당시의 會議에서 어떤 釋然치않은 發言이 있었던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孫熙善소장의 發言내용은 당시 파월 美軍司令部의 연락장교단을 이끌고 韓國에 파견된 Mcdonald중령이 合參에서 개최한 韓·美軍 實務者회의를 마치고 그 結果를 Westmoreland大將에게 報告할때에 訛傳되었거나 아니면 당시의 會議席上에서 行한 孫소장의 發言을 美軍側이 誤譯한데 起因한것이 아닌가 추측되었다.

이에 당시의 會議錄中 그 一部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 韓·美 連合會議 會議錄(第一次)

日時 : 65. 7. 12 10. 45~12. 20

場所 : 合參 會議室

參席者

韓國側 : 合參 作戰企劃局長 소장 孫 熙 善

同 次長 준장 李 世 圭

同 企劃課長 대령 金 奉 權

同 作戰課長 대령 黃 永 時

同 通信電子課長 대령 李 鍾 燮

美國側 : Col Langston, Col Blewett,

Lt Col Povick, Lt Col Jale,

Lt Col Durst, Maj Cartis(IMAO)

質疑應答내용

(전략)

局長一人이 8일 越南주재 韓國武官으로부터 받은 報告에 依하면 US MAC—V의 IMAO 파견 Cook대령으로부터 접수한 文書와 또한 其他 確認된바에 依하면 指揮權관계는 確定된

바없으며 이는 韓·越 兩정부 및 서울과 Saigon주재 美大使사이에 協議결정하도록 되어있음.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事前協議없이 一方的으로 한국군을 US MAC—V의 作戰指揮下에 들어가도록 決定한 것은 理解할 수 없는 處事라 하겠음.

Maj Curtis—勿論 최종결정은 政府級에서 協定에 依하여 成就될 것이며 이는 國務省에서 담당할것임. 다만 우리는 軍事實務者로서 이를 研究발전시키는데 不過함.

(중략)

局長—指揮權관계에서 우리가 考慮할 사항이 두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大義名分論이고 또 하나는 實務의인面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實際 軍事面에서는 US MAC—V의 作戰指揮를 받는 것이 나 個人생각으로는 無妨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大義名分으로 볼때에 越南共和國의 요청에 依해 越南을 도우려간 우리가 越南側과 사전協議없이 US MAC—V 作戰指揮下에 들어간다는 것은 再考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韓國側案을 소개할터이니 今明間 귀국할 4명의 연락장교를 한자리에 모아주면 指揮權관계 및 統合司案을 具體的으로 설명하겠다.

Col Langston—연락장교단의 Schedule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돌아가서 協議한 후 再次 會合할 수 있도록 하겠다. 今日 오후 아니면 明日 오전으로 준비하겠다.」

韓·美 連合會議 會議錄(第二次)

日時：65.7.12 15.30~17.50

場所：合參 會議室

參席者

韓國側

合參 作戰企劃局長 소장 孫 熙 善

同 次長 准장 李 世 圭

同 企劃課長 대령 金 奉 權

同 作戰課長 대령 黃 永 時

同通信電子課長 대령 李 鍾 燮

美軍側

Col Langston

Col Blewett

Lt, Col Mcdonald (US MAC—V)

Lt, Col Parsous

Lt, Col Laekson (CINCPAC)

Maj Cartis (IMAO)

### 質疑應答내용

作戰課長—午前에도言及이 있었지만 韓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관계에 대하여 越南과 美國間에 상호合意된 것이 있는가?

Mcdonald중령—우리는 軍事面에서의 指揮權關係를 考慮하고 있으며 政治面에서의 指揮權關係는 大使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根本적으로 越南軍側은 聯合司令部를 願치않고 있으며 美·越間의 협조에 基礎를 두고 作戰하고 있다. 然이나 協調에 있어서 支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중략)

局長—結論적으로 크게 세가지部分으로 나누어 오늘 의 討議를 要約설명하겠다. 첫째 指揮權關係에서 우리는 순수한 軍事的立場에서 實利面을 따진다면 오래동안 美軍과 聯合작전을 같이 해온 經驗에 비추어 美軍의 作戰指揮下에 있는것이 效果的이며 支援도 適切히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른다. 또한 US MAC—V司令官은 本人도 지나면 訪越時에 相面한 존경하는 분이거 때문에 그분 指揮下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나 大義名分上으로 볼때 우리가 越南政府의 요청을 받고 援助하러 가면서 越南側과 사전協議없이 美軍의 作戰指揮下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國民들이나 國會에서 論難될것은 물론 越南軍側에서도 願치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聯合軍사령부의 設치를 越南정부에 主張할 예정이며 만일 이 案이 受諾되지 않으면 第2案인 IMAO를 常設化하여 운영할것을 提議하겠다.

이 案은 越南側에서 受諾할 수 있는 案인지 모르겠으나 戰鬪부대의 作戰統制에도 適合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早晚間 결함이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다시 우리는 第一案을 主張하게 될것이고 越南側에서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 以外에도 考慮될 수 있는 몇개 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統帥사령부의 作戰機能은 例를들면 韓國軍의 第1野戰軍이 직접 美 제 8군으로부터 作戰指揮를 받는 관계로 韓國의 육군본부는 作戰機能에 관한 報

畧를 適時에 받지 못하고 監督도 할 수 없는 位置에 있게 된다. 이런일을 없애기 위하여 ROK MAC-V는 假令 韓國師團이 US Field Command에 配屬된다고 假定할때 最初에는 ROK MAC-V의 指令으로 US Field Command에 配屬되어 作戰統制를 받도록 指示하며 作戰關係보고를 US Field Command에 함과 동시에 ROK MAC-V에 提出케 함으로써 作戰監督을 함과 아울러 기타 隷下 부대에서 받은 報告와 함께 綜合하여 本國에 보고하게 된다. 즉 이것은 國家的 監督과 越南 및 US MAC-V와 協調하게 됨을 意味하며 이렇게 되면 戰鬥 사단에 不必要한 作戰 干涉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師團長으로 하여금 作戰에만 專念케 할 것이다(美側全員 同感表示) 세계 統合司令部의 편성은 軍團級司令部에 准한 것이다(후략).

Lt Col McDonald—具體적으로 詳細하게 설명해주어서 質問의 餘地가 없다. 歸任後 最大로 反映시키도록 努力하였다.

Col Langston—우리가 疑問을 가졌던 點을 解明해줌으로써 完全히 理解하였다. McDonald중령은 US MAC-V에 歸任하여 最大로 反映시키도록 努力하기 바란다.』

以上の 會議錄에서 窺察할 수 있듯이 指揮權문제에 대한 美軍側の 言及은 孫熙善소장의 發言내용을 그들 나름대로 便宜하게 解釋한데서 비롯된듯 하였다.

아롱은 Westmoreland大將은 自己가 指摘한 孫熙善소장의 發言내용을 李소장이 全적으로 否認하자 그는 잠시 沈黙을 지키다가 다시 問기를 「貴官은 純粹한 軍人の 立場에서 作戰指揮權의 一元化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李소장은 「그동안 數次에 걸쳐 열린 韓·美 兩軍의 實務者會議를 통해서 우리의 立場을 충분히 理解하셨을줄 안다. 이 사람은 個人資格으로 訪越한것이 아니라 韓國의 合參을 代表한 立場에서 여기에 와있으므로 純粹한 軍入의 立場에서 어찌 말할수 있겠는가? 나는 將軍께 反問하겠는데 美國의 合參에서는 모든 作戰을 純粹한 軍入의 立場에서 樹立하는가? 作戰이란 國家의 政策的次元에서 수립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政治的 側面에서 樹立할 수 있는 反面에 純粹한 戰略戰術的 見地에서 計劃될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答辯하였다.

그러자 同大將은 「韓國이 國際上의 體面때문에 美軍에 隸屬될 수 없다면 表面上 獨自의인 指揮權을 가진것처럼 行勢하되 內幕으로 나에게 指揮權을 委任하는 그러한 內容의 1級秘密 協정을 맺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얼마전에 李勳燮준장에게 提議한 Abbey준장의 論旨와 꼭같은 主張을 하였다.

그러나 李소장은 如前히 強硬한 태도로 一貫하면서 韓國은 엄연한 獨立國家이므로 決코 美軍指揮下에 屬할 수 없다는 것을 反復하여 強調하였다.

同大將은 다시 말하기를 「都大體 한국군은 單獨作戰의 能力이 있다고 보는가? 空軍도 海軍도 없고 또 火力도 弱한 實情에서 어떻게 單獨作戰이 可能한가, 美空軍, 美海軍, 美砲兵의 支援을 받지 않고서는 作戰이 不可能한 處地에 있지 않은가? 오히려 韓國軍은 自體의 安全을 維持하는데 있어서나 또한 萬若의 非常事態에 直面했을때의 安全撤收를 위해서나 美軍指揮下에 隸屬되는 것이 有利할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것이 論理上 妥當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은근한 壓力을 加하였다.

그러자 李소장은 沈重한 語調로 말하기를 「우리 韓國側이 獨自의인 作戰指揮權을 掌握해야 한다고 主張하는데는 大義名分上 어쩔 수 없는 몇가지의 理由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첫째 韓國軍의 派兵은 朴大統領閣下의 勇斷에 의하여 實現된것이다. 즉 韓國의 國會에서 派兵의 承認與否를 에워싸고 與野間에 贊反兩論으로 激突을 벌이다가 野黨이 總퇴장한 가운데 議決한만큼 어려운 過程을 극복하고 斷行된 것이다.

이것은 곧 血盟관계에 있는 美國의 요청에 적극 協調하는 동시에 友邦인 越南을 진정으로 도우려는 朴大統領閣下의 強靱한 意志와 굳은 信念을 行動으로 實證하였음을 意味할 것이다.

따라서 眞正으로 美國에 협조하고 성심으로 越南을 돕는다는 참뜻이 名實相符하게 浮刻되려면 韓·美·越 三軍은 어디까지라도 同等한 相關관계에 놓여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萬若 韓國軍이 美軍의 指揮下에 隸屬되면 韓國은 마치 美國의 그늘밑에서 美國의 동에 업혀 越南을 支援하는 꼴이 될것이므로 이는 朴大統領께서 決斷한 派兵의 眞意에 어긋나는 結果가 될것이다.

둘째 한국이 越南을 援助하는 것은 換言하면 自主權國家가 對等한 自主權國家를 支援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한국군이 美軍의 統制를 받게되면 獨立國家로서의 體面을 喪失하게 되므로 結果自으로 한국이 誠心으로 越南을 도우려는 國際上의 名分을 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세계 北傀를 비롯한 共產國家들은 韓國軍이 美帝國主義者들의 走狗로서 越南에 대한 侵略전쟁에 加擔하고 있으며 이는 傭兵으로서 請負戰爭을 하고 있음을 實證하는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惡宣傳을 하고 있다.

이러한 版局에 韓國軍이 美軍의 統制下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美國의 傭兵으로서 請負戰



연락장교단 一行

쟁을 하고있다는 決定的인 印象을 주게 되므로 그러한 主張이 事實과는 相反된 虛偽의인 惡宣傳이라는 것을 明白히 反證하는 意味에서도 우리의 獨自의인 指揮權이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우리는 지난 韓國전쟁을 통하여 많은 敎訓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貴重한 敎訓을 얻은것은 相互의 協調관계 었던 것이다.

16개국의 聯合軍이 하나의 作戰目的을 遂行하는데 効果的으로 寄與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相互間的의 協調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韓國과 美國은 血盟間이므로 本質的으로 잘 協調될 수 있는 相關관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韓·美間의 協調를 통하여 圓滿하게 解決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가?

따라서 越南戰에 있어서도 韓·美軍은 굳이 指揮體制를 一元化하지 않더라도 恊同히 協調關係를 維持하면서 目的한바 任務를 効果的으로 遂行할 것으로 確信한다. 이 사람은 將軍의 指揮能力和 美國의 指導力量을 누구보다도 높이 讚揚하는 바이며 決코 不信하거나 過少評價하기 때문에 指揮체계의 一元化를 反對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우리 韓國이 當面하고 있는 內外정세의 背景과 國際上의 大義名分에 비추어볼 때 우리에게 獨自의인 作戰指揮權을 賦與하는 것이 賢明한 處事라고 믿기 때문에 將軍의



主張에 反對할 따름이다.

萬若 韓國軍이 美軍의 統制下에 隸屬된다면 韓國과 美國은 다같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兩國의 共通된 利益을 위하여 그리고 兩軍의 名譽를 더욱 빛내기 위한 政策的次元에서 우리의 主張을 快히 받아들일 것을 將軍께 進言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李소장의 說得力있는 言及을 默默히 듣고있던 同대장은 「지금 參謀會議중이니 함께 參席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同席을 請하였다. 그러자 李소장은 「아무 준비없이 왔으니 辭讓하겠다」라고 하니 그는 「準備없이도 괜찮으니 잠깐만 參席하기 바란다」라고 再次 勸하기에 그는 하는 수 없이 待機하고 있던 李勳燮준장과 安昌和중위를 帶同하고 參謀會議場에 들어갔다.

때마침 거기에는 一般 및 特別參謀 全員이 參席한듯 30餘名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同대장은 李소장一行을 옆자리에 앉힌다음, 말하기를 「한국군의 用兵문제에 關하여 李소장과 충분히 協議한 結果 한국군에 대한 指揮통제는 韓·美·越 3軍대포로 구성된 IMAO(國際軍事援助處)에서 協議결정케 되었으니 참모장은 이를 骨子로한 軍事約定書를 작성하라」고 參謀長 Rarsen 소장에게 指示한 다음 退場하였다.

그러자 李世鎬소장도 李勳燮준장에게 「Rarsen소장과 協議하여 約定書를 작성하라」고 指示하고 곧 會議場을 떠났는데 이때가 20.55이었다.

이날밤 李勳燮준장과 Rarsen소장은 指揮權문제를 骨子로한 包括的인 約定書를 작성하기 위하여 深夜까지 作業하였는데 이자리에서도 Rarsen소장은 實務者의 立場에서 言及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統制權은 마땅히 美軍에 隸屬시켜야 한다」라고 執拗하게 파고 들었으나 李준장은 「韓·美間에 있어서 指揮權이 무슨 問題꺼리가 되는가 美軍이 主軸이 되어 作戰을 전개할때에는 한국군은 기꺼이 美軍指揮下에 들어갈것이고 또 反對로 한국군을 主力로한 作戰을 벌일때에는 當然히 美軍은 한국군의 統制를 받아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表面上으로 指揮權의 所在를 못박아 둘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狀況에 따라 臨機應變的으로 主從關係를 이루도록 融通性있는 협조體制를 갖추게 하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設使 多少의 문제가 發生한다고 假想하더라도 그것은 兩軍의 野戰司令官이 그때 그때에 協議하여 適切하게 處理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指揮權문제는 韓·美 兩側의 野戰軍司令官에게 一任하면 그것으로 圓滿하게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說破하였다.

이리하여 韓·美의 約定 骨子は 「한국군에 대한 指揮통제는 파월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라는데에 集約되어 作成됨으로써 다음날 아침내 最終 署名키로 되었다.

한편 李世鎰소장은 迂餘曲折을 거듭하던 指揮權문제가 드디어 一段落되자 이날밤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打電하였는데 이는 연락장교단이 派越이래 16번째의 마지막 電文報告였다.

**보고 제16호 (9.5)**

1. 그간 적전통제권 문제로 기티문제까지 미결상태로 있었으나 9월 5일 21.00에 US MAC—V사령관과 직접 토의 끝에 우리의 주장대로 IMAO기구를 존속시키도록 합의되었음.
2. US MAC—V측과의 실무자 협정은 9월 6일 08.30에 서명토록 합의함.
3. 월남군측과의 실무자 협정은 9월 5일 16.00에 서명하였음.
4. US MAC—V측과의 실무자 협정 군수부록은 9월 5일에 서명하였음.
5. 이것으로 연락장교단은 임무를 완료하고 9월 6일에 출발, 9월 8일에 NWA기편으로 김포에 도착할 예정임.]

다음날 9월 6일 08.30에 李世鎰소장과 美참모장 Rarsen소장은 마침내 約定書에 署名하고 이튿날 Tan Son Nhut空港에서 李소장과 越南軍참모장 Tran Ngoc Tam소장은 다시 만나 指揮權문제를 追加한 韓·越 約定書에 最終 署名함으로써 三者間의 軍事협정은 모두 大團圓의 幕을 내렸다.

그런데 三者間에 체결된 約定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韓·美 軍事實務 約定書**

1. 大韓民國정부는 越南共和國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越南內에 共產主義者들의 使噓와 支援에 의한 叛亂 및 侵略을 격퇴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自由와 安全을 회복하고 國際平和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戰鬥 및 戰鬥支援부대와 行政사령부로 구성된 大韓民國軍을 增派한다.
  - 가. (派越한국군사령부 以下 한국군사령부로 略稱한다.) 및 直轄부대
  - 나. 1개 陸軍보병사단(一)
  - 다. 1개 海兵연대
  - 라. 1개 野戰支援사령부.
2. 增派되는 戰鬥부대는 越南共和國정부의 增派요청취지에 따라 越南共和國정부의 國家平定계획을 支援함에 필요로 하는 作戰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파견된 韓國軍부대 및 人員들은 既定 約定에 立脚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3. 大韓民國정부로부터 파견된 파월 한국군의 指揮權은 大韓民國정부에서 任命한 한국군 사령관(COM ROKF—V)에게 있다. 既파견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ROK MAC—V부대장에게 賦與된 指揮權은 새로 설치 任命되는 한국군사령관이 越南에 도착과 동시에 統合管掌한다.
4. 한국군, 越南軍, 그리고 US MAC—V間的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고 한국군 隸下 各부대의 適切한 統制체제를 保障하기 위하여 現行 國際軍事援助機構를 存續운영한다.  
이 機構의 구성은 越南軍 合同참모총장(議長) 한국군사령관 및 US MAC—V사령관으로서 구성되며 이 機構에는 各實務者級 대표를 포함한다. 이 機構의 基本기능은 한국군 各부대의 任務 統制 및 作戰지역 등에 관한 方策을 결정하는데 있으며 이 機構에서의 결정은 각 정부 代表에게 相互 同意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韓國軍, 越南軍 및 美軍의 利害관계에 관한 方針上的 문제는 필요에 따라 國際軍事援助정책회의에 上程된다.
5. 한국군에 의하여 捕虜된 VC 혹은 VC 容疑者는 한국군에 拘留되어 있는 동안 Geneva 協定の 諸규정에 따라 취급되며 可及의 신속히 指定된 越南軍 審問所 혹은 시설에 인계한다.
6. 한국군과 US MAC—V는 그들의 任務수행상 직접 間接으로 필요로하는 情報를 相互 제공 또는 交換하며 US MAC—V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情報활동을 協調支援한다.
7. US MAC—V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地圖 및 航空사진과 所要의 情報자료를 제공한다.
8. 파월 한국군사령관은 그 部隊員에 대하여 越南共和國에 도착전과 到着後 및 部隊展開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事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教育에는 한국군과 越南국민 및 政府 사이에 可能한限 최대의 友好관계를 保障하기 위한 越南의 歷史, 風俗 및 傳統등과 關聯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目的을 위하여 US MAC—V사령관은 許容되는 범위내에서 한국군사령관에게 紹介 및 教育자료를 제공한다. 이 計劃에 관하여 한국군사령관은 越南軍 당국과 協調한다.
9. 軍需支援  
US MAC—V는 美軍부대의 기준과 同一한 軍需기준에 의거하여 한국군을 支援한다. 細部的인 軍需支援계획과 韓國軍이 携帶할 補給品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別途 約定에 의한다.  
가. US MAC—V는 相互 同意할 수 있는 認可문서와 규정 認可量에 따라 한국군의

T/A에 수록된 品目 및 越南軍계통을 통하여 支援받을 수 없는 장비와 補給品の 支援을 제공한다.

한국군은 賦與된 任務를 効果的으로 完遂할 수 있도록 그의 隸下 各부대가 所要하는 支援을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US MAC-V가 필요로 하는 장비 및 編成表(TO & E) 認可表(T/A) 그리고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US MAC-V는 한국군이 任務수행을 위하여 必要로 하는 TO&E 및 T/A를 수정하는데 同意한다.

나. 한국군에 의하여 越南에 投入된 장비(艦艇포함) 및 補給品の 所有權은 한국군사령부에 있다.

戰鬪 또는 기타 不可避한 事由로 忘失되었거나 戰鬪 正常磨耗 및 불가피한 事由로 修理 불가능할 정도로 使用 불가능케 된 한국군의 장비 및 補給品은 같은 種類로서 보충되며 이의 所有權은 한국군사령부로 移轉된다.

이와같이 같은 種類로 代置된 장비 以外에 越南軍援계획이나 美軍계통에서 제공된 장비의 所有權은 그 장비를 제공한 根源에게 있다. 한국군에게 所有權이 없는 장비를 越南으로부터 撤收함에는 US MAC-V사령관의 事前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 US MAC-V는 美軍에게 공급되는 同一한 기준金額을 초과치 않는 同一한 水準의 食糧을 한국군에게 제공한다. 韓國人의 독특한 地方的 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食糧은 美軍根源에서 제공치 않으나 그러나 美軍은 韓國港灣으로부터 越南共和國까지의 그러한 品目の 수송을 제공한다. 이에대한 細部사항은 軍需 및 財政부록에 포함시킨다.

라. US MAC-V는 한국군과 同一한 條件下에 作戰중인 美軍戰鬪부대에 제공되는 것과 同一한 수준으로 한국군사령부 이하 各構成부대에 대한 兵員의 宿所 健康 그리고 福祉를 줄 수 있도록 協調하고 필요한 支援을 제공한다.

마. US MAC-V는 狀況이 危急하거나 한국군의 能力을 초과하는 醫療支援을 한국군이 요구할 때에는 美軍과 同一한 기준과 節次에 依하여 美軍계통으로 後送診療를 하여야 한다.

바. US MAC-V는 한국군 要員이 必要로 하는 國內수송을 美軍과 同一한 條件과 優先순위에 의하여 제공한다.

사. 國外輸送

US MAC-V는 한국군 要員과 한국군의 活動과 關聯있는 者 및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物資에 대한 國外수송기관 利用을 美軍과 同一한 條件과 優先순위에

依하여 利用하는 것에 合意한다 이 輸送에는 한국군 要員의 交替, 本國으로의 召喚 死亡한 者의 靈顯의 後送, 한국군과 關聯있는 檢閱團의 輸送, 緊急후송 또는 한국군의 긴급철수등을 포함한다. 기타 所要는 個別的으로 考慮한다. 한국군은 自體수송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利用한다.

아. 한국군은 4단계 整備까지 수행한다. 한국군 및 越南軍의 能力을 超越하는 장비의 整備支援은 相互 合意할 수 있는 文書 및 支援수준에 따라 US MAC-V에서 제공한다. 戰鬥 혹은 正常磨耗 또는 기타 正當한 理由로 修理할 수 없을 정도로 使用不可하게된 TO&E 및 T/A장비는 補充한다.

자. US MAC-V는 美軍부대와 同一한 기준의 部隊에 休養시설을 제공할것을 同意한다.

차. US MAC-V는 通信, 수송, 警備 및 필요한 民間雇傭人을 포함한 勤務지원을 US MAC-V에서 제공한다는 前提下에 230명(장교 70명 사병 160명)의 범위내에서 Saigon에 설치될 한국군사령부를 支援한다. 이 司令部에 필요한 建物, 宿所 및 食堂등의 所要不動産은 越南軍에서 支援하며 이에 필요한 事務用 보급품 및 備品과 장비 그리고 本約定書에서 한국군에게 제공키로된 其他 支援등을 제공한다. 越南軍에서 이와 같은 不動産을 제공할때까지 한국군은 IMAO 建物內의 事務室을 잠정적으로 利用한다.

#### 10. 人事勤務

US MAC-V는 한국군에 대하여 보통 美軍에게 제공되는 同等한 基準條件 및 水準의 다음과 같은 支援을 제공한다. 이 施設의 사용이 許可된者는 美軍에게 適用되는 同一한 규칙, 규정 및 條件의 適用을 받는다.

가. 美軍 Rest and Recuperation 計劃에 參與

나. 美軍 宗教시설의 利用

다. 美軍 PX시설의 利用

한국군은 125명 또는 그 이상의 人員이 集團의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 隣近 美軍 既存 PX시설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自體 PX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施設에서 販賣된 品目は 越南에서 PX운영을 責任지고 있는 美軍機關에서 供給한다.

US MAC-V는 이 美軍기관이 한국군의 地方的인 嗜好에 맞는 品目を 10가지 범위내에서 한국으로부터 購入하여 供給하는 것에 同意한다.

라. 美軍食堂, 宿所 및 俱樂部 시설의 利用.

과월 한국군 要員은 美軍食堂, 宿所 및 俱樂部를 사용한다. 125명 또는 그 이상의 人員이 集團的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 한국군은 自隊食堂, 宿所 및 俱樂部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施設의 운영에 必要한 消耗性 品目은 美軍기관에서 償還制로 공급한다.

마. 越南內에서 수송을 위한 既存 美軍버스, Sedan, Taxi 및 航空機 등 美軍에서 운영하는 수송수단의 사용.

바. 美軍 우편 施設의 利用

과월 한국군 要員은 指定된 美軍 우편수집소와 大韓民國 서울 軍郵시설간의 公文 및 個人書信(1종부터 4종까지) 送達을 위한 無料 “封印과우치” 制度를 사용한다.

사. 葬禮勤務

한국군은 適切한 價値에 따르는 靈顯의 處理를 위하여 師團에 靈顯登錄 및 수집소를 설치 운영한다. 靈顯處理用 보급품은 US MAC—V에서 제공하며 한국으로 後送되어 追後 安置될 遺骸는 美軍 後送계통을 따라 수송한다.

아. US MAC—V는 美軍계통을 통한 한국군의 醫務後送 및 한국군의 活動과 關聯된 기타 연락업무를 支援협조하기 위하여 越南과 한국간에 필요한 한국군 연락장교를 배치할 것과 이들 연락장교에 대하여 이와같은 職責을 맡은 美軍과 同等한 支援를 제공할것에 同意한다.

자. 한국군은 各個人에게 사진을 附着한 英文으로 번역된 身分證明書を 발부한다. 이 身分證은 上述한 美軍의 諸奉仕 시설에서 適用된다.

차. 한국군사령부에서 認定하는 한국從軍記者는 美軍從軍記者의 待遇에 準한다.

11. 한국군을 위한 通信支援은 別途 約定書에 依한다.

12.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사령관과의 經理문제는 別途 約定書에 따른다.

13. US MAC—V사령관은 한국군部隊가 그 特定한 지역에서 展開 完了할때까지의 警戒責任을 진다.

14. US MAC—V는 한국군 예하 各部隊에서 任務수행상 必要로하는 通譯官 및 一般雇傭人을 제공한다. 이에關한 節次는 上述한 經理約定에 따른다.

15.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사령관은 越南國內에 있어서 各己 自國의 從業員에 依하여 발생된 訴訟權을 相互 포기한다. 戰鬪 또는 非戰鬪활동시 한국군이 加한 越南정부

나 個人的 財産 및 人命被害의 補償은 別途 約定書에 따른다.

16.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사령관은 軍法會議 또는 他軍과의 行政的 訴訟에 依하여 필요한 證言과 또는 通譯官등의 可能的 支援을 제공함에 있어 充分한 協調를 할것에 同意한다.
17.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사령관은 本約定書에서 제공된 秘密조항 勤務 혹은 諜報등의 漏泄과 妥協을 방지하기 위한 必要的 조치를 취할것에 同意한다.
18. 1950년 五者協定の 條項에 依하여 美軍이 취득한 同一한 權利. 特權 및 免除를 한국군에게도 適用시킨다는 것을 여기에 記錄한다.

19. 約定書

가. 本約定書는 合法的으로 權限이 賦與된 將校에 依하여 署名되며 雙方이 合意한 一般軍事實務 約定書를 成立시키고 또한 効力を 발생한다. 本約定書는 大韓民國과 美國정부의 適切한 代表間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雙方은 共히 90일전에 事前通報를 함으로써 本約定書의 全部 혹은 一部에 關한 再協商을 요청할 수 있다.

나. 1964년 9월 5일 大韓民國과 US MAC-V 代表間에 依하여 連署된 移動外科병원에 關한 軍事實務約定書는 本約定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限 계속 有効하다.

다. 1965년 2월 8일 大韓民國과 US MAC-V 代表間에 依하여 連署된 ROK MAC-V 에 關한 軍事實務約定書는 本約定書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限 계속 有効하다.

本約定書는 1965년 9월 6일에 署名한다.

韓國軍 代表

派越 美軍司參謀長

육군소장 李 世 鎬

육군소장 W.B.Rarsen』

『韓·越 軍事實務 約定書

1. 大韓民國정부는 越南共和國정부의 요청에 依하여 越南內에서의 共產主義者들의 使賊와 支援에 依한 叛亂 및 침략을 격퇴하여 이 地域에 있어서의 自由와 安全을 회복하고 國際 平和에 寄與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戰鬪부대로서 구성된 大韓民國軍을 增派한다.

가. 파월 한국군사령부 및 直轄부대.

나. 陸軍 2개 步兵연대(增強), 海兵 1개 연대(增強) 및 1개 野戰支援司令部로서 구성된 1개 戰鬪師團(增強).

2. 增派되는 戰鬪부대는 越南共和國정부의 한국군 增派요청 취지에 따라 越南共和國정부

의 國家平定계획을 支援함에 必要로하는 作戰임무를 수행하며 既과견된 한국군부대와 人員들은 既存約定에 立脚한 各己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3. 大韓民國정부로부터 과견된 한국군의 指揮權은 大韓民國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

4. 既과견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ROK MAC-V 부대장에게 賦與된 指揮權은 새로 設置 任命되는 한국군사령관이 越南에 도착함과 동시에 統合 管轄한다.

5. 越南內에 있어서의 한국군要員에 대한 權利, 特權, 義務 및 免除에 關하여서는 1964년 10월 31일 越南 駐在 韓國大使와 越南共和國 外務部長官사이 에 交換된 外交文書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앞으로 政府間에 새로운 約定을 맺어 그때부터는 그에 따른다.

6. 한국군 戰鬥부대가 戰術責任지역을 割當받았을때 한국군 作戰부대장의 權限은 越南정부로부터 모든 友邦國家軍의 부대장에게 賦與한 것과 同等한 權限을 享有한다.

7. 한국군에 依하여 捕虜된 VC 혹은 VC容疑者는 한국군에 拘留되어 있는 동안 Geneva 協定の 諸規定에 따라 취급하고 可及的 신속히 指定된 越南軍審問所 혹은 施設에 인계한다.

8. 한국군과 越南軍은 各己 임무遂行上 직접 間接으로 必要로 하는 情報를 相互 제공 또는 交換하며 越南軍은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情報활동을 協調 支援한다.

9. 越南軍은 한국군이 必要로하는 地圖 및 航空사진과 所要의 情報수집자료를 제공한다.

10. 越南軍은 한국군사령부에 연락장교단을 설치하고 必要한 梯隊에 연락단을 배치한다. 이 連絡團은 越南行政官吏, 越南軍부대장 및 한국군부대의 戰術責任지역 또는 活動지역 내에 居住하는 住民등에 關한 諸般문제에 있어서 한국군부대장을 補佐할 責任이 있다.

11. 가. 軍事目的上 요구되는 범위내에서 한국군은 다음과 같은 通信網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部隊內의 通信시설.

(2) 越南軍당국과 事前협조후 越南內의 固定放送局.

(3) 其他 放送受信시설

(4) 越南地方부대장과 事前협조후 訓練 및 非常時의 通信시설.

나. 한국군 각부대와 越南軍 및 必要한 越南官公署間의 通信網은 한국군 부대장의 요청에 依하여 越南軍이 能力범위내에서 設置운영한다.

12. 軍需支援



한국군에 대한 補給 및 勤務지원은 美國원조불자로서 越南軍이 사용하고 있는 共通장비 및 補給品에 대하여 越南軍과 同等한 水準에서 다음과 같이 支援한다.

가. 補給基準

- (1) 1종—越南軍에게 支給되는 同一한 기준의 쌀.
- (2) 2, 4종—越南軍과 同一한 水準의 安全수준, 운영수준 및 규정휴대량의 設定 및 계속적인 補充보급.

나. 整備支援

- (1) 4급이상의 整備支援.
- (2) 과월한국군 海軍艦艇의 정비支援은 越南해군의 整備능력에 따라 支援.

다. 施設

- (1) 越南軍은 相互, 合意된바에 따라 한국군 각부대 駐屯地 所要土地를 제공한다.
- (2) 한국군 戰鬥보병사단은 寢食 및 勤務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天幕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 (3) 한국군 戰鬥보병사단 駐屯地 建設工事는 越南軍 戰鬥부대와 同一한 기준에 의하여 越南軍이 제공한다.
- (4) 越南軍은 Saigon에 위치하는 한국군사령부의 土地 및 收容시설을 제공한다.

라. 醫務支援

한국군에 대한 醫療支援은 原則적으로 한국군 醫療계통으로 後送되며 狀況이 危急하거나 한국군의 能力이 不足할때에는 美軍後送계통의 支援을 받는다.

13. 한국군에 의하여 越南으로 携帶된 장비(艦艇포함) 및 補給品의 所有權은 한국군사령부에 있다. 戰鬥 또는 기타 不可避한 事由로 亡失되었거나 戰鬥, 正常磨耗 및 기타 不可避한 事由로 修理불가능한 장비 및 補給品은 美軍援에서 제공된바에 의거 越南정부에서 그종류로 代置되며 그 所有權은 한국군사령부로 移轉된다.

이와같이 同一種類로 代置된 장비외에 越南軍援계획이나 美軍계통에서 제공된 장비의 所有權은 그 장비를 제공한 根拠에 있다.

14. 輸 送

國內수송은 越南軍지역 軍需사령부(地域수송처), US MAC—V 및 한국군 代表團의 협조를 통하여 제공한다.

15. 越南軍은 한국군이 必要로하는 遞譯官을 제공한다.

16. 한국군사령관은 越南軍에게 姓名, 계급, 군번 및 所屬부대등을 포함한 全 파월한국군의 名單을 송부할 것에 同意한다. 파월한국군은 追後 變更되는 人員을 越南軍에게 통보한다.
17. 한국군사령관은 파월 한국군과 關聯있는 한국인의 越南入國을 事前에 越南軍총사령관과 협조할것에 同意한다.
18. 越南軍과 한국군 當局은 本約定의 범위내에서 相互 交換 또는 一方에게 제공된 秘密 문서, 勤務 혹은 諜報의 漏泄 혹은 妥協을 방지하기 위한 相互 同意할 수 있는 必要한 조치를 취한다.
19. 한국군 要員에 依하여 加해진 越南共和國정부 또는 國民의 物자 및 人命被害의 補償에 關한 사항은 韓·越 兩國정부 當局間에 別도 協商에 依한다.
20. 1964년 9월 5일 및 1965년 2월 7일에 韓·越 兩國의 軍事代表間에 連署된 軍事實務約定書들은 本約定書에서 別도로 規定한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有效하다. 本約定書에 相互合意하며 1965년 9월 5일 相互 署名한다.

한국군 대표

월남군 대표

육군소장 李 世 鎬

육군소장 Tran Ngoc Tam

#### 韓·越 軍事實務 約定書 追加事項

1965년 9월 5일 체결한 韓·越 軍事實務約定書에 다음과 같은 事項을 追加할것을 合意한다.

파월한국군 (以下 한국군이라 呼稱한다), 越南軍 그리고 US MAC-V間에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고 한국군 隸下各부대의 適切한 統制체제를 保障하기 위하여 現行 國際軍事援助機構를 存續 운영한다.

이 機構의 구성은 越南軍合同參謀총장(議長), 한국군사령관, US MAC-V사령관으로서 구성되며 이 機構에는 各實務者級 代表를 포함한다.

이 機構의 基本기능은 한국군 各부대의 任務, 統制 및 作戰지역등에 關한 方策을 決定하는데 있으며 이 機構에서의 결정은 各政府대표가 相互 同意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韓國軍, 越南軍 및 美軍의 利害관계에 關한 方針上的 문제는 必要에 따라 國際軍事援助政策會議에 上程된다.

1965년 9월 6일 同意하며 이에 署名한다.

한국군 대표

월남군 대표

육군소장 李 世 鎬

육군소장 Tran Ngoc Tam

以上에서 明文化된바와 같이 韓·美·越 間에 合意된 事項은 곧 파월 한국군의 行動綱領을 規制한 礎石的인 約定이며 나아가서는 파월 한국군의 命運에 直結되는 憲章과 다름바 없는 것이다.

8월 18일에 派越된이래 9월 8일까지 22일간에 걸쳐 現地에서의 迂餘曲折을 겪으면서 급기야 韓國軍이 뜻하는바 目的과 美·越軍과의 円滿한 協調체제를 確立하는데 寄與한 團一行은 9월 8일에 歸國의 途上에 올랐다.

## § 參戰者의 證言

연락장교단 장 李 世 鎬 소장

(1977년 12월 1일 14.40~16.50 陸軍參謀總長室에서 증언, 당시 大將)

연락장교단을 이끌고 越南 Saigon에서 活動하던 당시를 回顧하면 感觸 그야말로 無量하다. 세로이 파월되는 戰鬥부대의 作戰指揮權문제는 연락장교단이 派越되기 以前부터 美軍側이 은근히 示唆하고 있었던만큼 現地에서의 協議過程에서 크게 論難될것으로 覺悟는 했었다.

그래서 越南에 도착후 美軍側과 接觸할때마다 指揮權문제에 對해서는 아예 雜論하지 못하도록 忌避하는 方向으로 會談을 誘導하면서 다른 分野의 事項을 續續 結末을 짓는데 힘썼다.

그러나 美軍側은 機會가 있을때마다 끈질기게 그 問題를 들고나와 韓國軍에 대한 統制는 파월 美軍司令官의 指揮下에 一元化되어야 한다고 頑強하게 固執하였으나 本官은 목이 달아나는 限이 있어도 이에 反對한다고 強力하게 맞섰다.

結局에는 Westmoreland大將과의 正面對決에서 本官은 끝내 그를 說得하고 우리의 主張을 貫徹시키는데 成功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率直히 말하면 美軍側이 主張한 作戰權의 一元化는 越南戰의 主役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로서

當然한 것이며 이는 戰術上의 大原則이라는 것을 우리도 十二分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獨自의인 作戰權의 保有를 一貫하여 主張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가 處해 있던 內外情勢에 비추어 國家政策의 次元에서, 또는 軍事의 側面에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明白히 해야할것은 美軍과 韓國軍은 作戰概念에 있어서 根源의으로 相異한 立場에 있었다는 點이다. 即 美軍은 高度의 超現代的 武器와 장비로서 大體의인 機動作戰을 전개함으로써 戰爭을 早速히 승리로 歸結시키자는데 目標을 두었으나 韓國軍은 野戰병員, 跆拳道要員 그리고 비돌기部隊등 純粹한 建設支援부대의 파월로 始發했듯이 越南정부의 平定課業수행에 寄與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었으므로 韓國軍은 文字 그대로 平和의 役軍으로서 參戰했다는 點에 格別한 意味가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越南戰에 參戰한 이래 8년간에 3,000餘名의 戰死者를 내었는데 이는 勿論, 祖國을 위하

여 그리고 亞細亞와 世界평화를 위하여 散華한 高貴한 獻身에 分명하다. 그러나 8년간을 통한 戰歿장병의 數가 國內의 安全事故에서 發生하는 1년간의 死亡者數와 비슷한 적은數에 不過했던 그 要因이 果然 어디에 있었는가를 注意깊게 생각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 제 1, 2차 선발대장 李勳 燮 준장

(1978년 2월 6일 13.10~15.30 大韓石炭公社 社長室에서 증언, 豫, 준장)

제 1, 2차 先發隊長과 연락장교단원 그리고 파월사 副司令官 兼 참모장 等 4차에 걸쳐 파월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던 任務는 제 2차 先發隊長과 연락장교단원으로 活動한 일이었다. 특히 作戰指揮權문제는 비둘기部隊의 파월을 앞두고 제 2차 先發隊長으로 現地에 갔을 때 크게 論難되었으나 나는 美·越 兩側을 脫破하는데 온갖 努力을 다한 끝에 마침내 우리의 主張을 貫徹시키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 問題는 戰鬥부대의 파월을 앞두고 李世鎬소장을 團長으로한 연락장교단이 派越되었을 때 다시금 協商의 焦點으로 浮上하여 크게 問題化되었으나 끝내 美軍側으로 하여금 우리의 意見에 同調하도록 說服하였다.

實相 제 1 移動外科병원과 跆拳道교관단의 파월을 앞두고 제 1차 先發隊長으로서 現地에 갔을 때에는 파월兵力이 小規模이므로 美·越軍側과의 協議는 比較的 순탄스럽게 마무리 되었으나 비둘기部隊를 파월할 때에는 兵力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美·越 兩側과의 折衝에 있어서 적지않은 波瀾이 惹起되었다.

當時 나는 무엇보다도 部隊의 安保에 力點을 두고 推進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指揮權문제에 있어서 美軍統制下の 한국군 隸屬을 強要하는 그들의 主張을 꺾고 한국군의 獨自의 指揮權 保障에 同意하도록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다음에 非常

한마디로 要約하면 萬若 우리 韓國軍이 獨自의 人 作戰指揮權을 保有하지 못하고 파월 美軍의 統制下에 예속되었다면 越南전쟁의 樣相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며 이로 말미암아 韓·美 兩國은 다같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이른바 小食大失의 結果를 免치 못했을 것이다.

時 한국군의 緊急철수를 美軍이 責任자라는 提案을 할 때에는 事理에 맞지않는 엉치없는 主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當時의 越南정세가 來日을 樂觀할 수 없는 混迷하고 錯雜한 狀況에 있었던 만큼 이른바 不可豫測의 要素를 豫見하여서라도 萬일의 경우에 對備한 安全 撤收保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多幸히도 한국군은 8년간의 血戰끝에 無事히 凱旋하였으나 한나라의 軍隊가 生面不知의 他國에 파견될 때 모든 뒷받침의 根源이 되는 軍事協定の 產婆役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重要하고도 어려운 일인가를 回想해보니 저금도 그 任務의 重壓感속에서 어찌 所任을 다할 수 있었는지 實로 無量한 感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나는 그 當時에도 切實히 느꼈고 또 現在도 그때의 懷抱를 잊지않고 있지만은 國際的인 軍事關係란 대단히 微妙하고도 難澁한 問題라는 事實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友邦國間의 軍事관계라 할지라도 表面上의 善隣的인 유대 意識만으로서서는 쉽게 妥結되지 않는 미묘한 相關관계가 自然發生的으로 얽히기 때문에 이러한 領域에 대한 깊은 知識과 力點을 平素부터 研究開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國力에 있어서나 軍事力에 있어서

世界속의 上層序列에 끼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언제 또다시 國際線上에서의 軍事활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國防大學院에서 國際的인 軍事관계나 國家間의 聯合作戰에 隨伴되는 諸般

問題 그리고 軍事外交上的 專門知識 등을 學問的으로 探求하여 高級장교들은 누구나 그 素養과 能力을 習得하도록 制度化하고 努力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제 2 차 선발대원 金 永 麟 소령

(1977년 12월 2일 建設産業株式會社 專務室에서 豫, 소령)

비둘기부대 幟員으로 選拔되었다가 變更되어 先發隊員으로서 추勳勳장을 모시고 金浦空港을 떠난 것이 1월 8일이었다. Manila에서 一泊한 다음날 Saigon으로 向하고 있을 때 李장군을 비롯한 隊員一同의 얼굴에는 緊張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Saigon에 도착하자 Tan Son Nhut空港에는 越南의 軍高位階과 韓國大使館의 武官인 李大鎔대령이 나와 우리一行을 迎接하였다. 指定된 Hotel에 旅裝을 풀고 다음날부터 분주한 活動이 시작되었다. 着越後의 첫週間に US MAC-V와 越南軍司令部에서 作戰現況에 대한 실명을 청취한 다음 1월 12일에 第1次로 靑島 美軍側과의 會議가 있었고 14일午前에 Westmoreland대장을 禮訪한 다음 午後에는 다시 韓·美軍 實務者會議을 가졌다. 1월 24일에 처음으로 韓·美·越 連合會議가 개최되어 비둘기부대의 任務가 決定되자 淸州屯地의 選定을 위하여 “헬리콥터”便으로 空中정찰에 나섰다. 그 結果 Di An을 비롯한 5개 지역을 對象候補地로 內定한 다음, 이에 대한 評價書를 작성하였는데 李장군께서는 現地の 諸般정세와 地理的 輿件으로 보아 가장 安全지역으로 판단되는 Di An을 最適地로 提議하였는데 이 Di An을 決定하기까지 李장군께서 얼마나 苦心하고 努力하셨는지 그 光景이 지금도 생생하게 記憶된다.

그뒤에도 여러차례 3개國軍의 實務者會議을

통하여 많은 문제가 討議되었는데 때로는 激論과 爭戰으로 深刻하게 對立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아름은 難航을 거듭한 끝에 대체로 韓國側의 要求와 主張이 貫徹되어 마침내 軍事協定판에 署名하는데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任務를 다친 李장군께서 歸國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IMAO의 美側 實務者들이 나의 房에 찾아와 그동안 受苦했다는 人壽를 하면서 會議에 얽힌 여러가지 所感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즉 李장군은 한가지 문제에 執着하면 끝장을 볼때까지 諦念을 모르는 剛直하고 意志가 強한 個性的인 人物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事實 李장군에 대한 그들의 寸評은 너무나 的中한 것이었다. 그동안 軍事協定을 맺기까지 李장군이 겪으신 苦楚는 形容키어려울만큼 많았었다.

특히 美軍側이 頑強하게 拒否했던 非常時의 撤收에 대한 秘密협정을 맺은것은 李장군이 아니면 成就될 수 없는 外交의 成功이었다.

이와같은 李장군의 숨은 功勞는 그뒤에 8년간에 걸쳐 계속된 한국군의 派越에 하나의 里程標를 세운 至大한 成果라고 찬양해 맞이않는 바이다.

## § 逸 話

연락장교단이 Saigon에 到着하여 活動하기 시작할지 꼭 10일째가 되는 8월 27일에 李世鎬소장을 비롯한 團一行은 앞으로 파월될 戰鬪부대의 駐屯地를 選定하기 위하여 파월 美軍側에서 計劃한 Qui Nhon지역과 Binh Khe지역을 空中 및 地上정찰하기로 되어 이날 07.00에 美偵察機로 Saigon을 出發한 다음, 10.00에 豫定대로 Binh Khe飛行場에 도착하였다.

이때 飛行場 東北쪽 地域에서 요란스럽게 砲擊이 進行중이었는데 이것은 美 제 1機甲空輸사단을 An Khe에 進駐시키기 위한 제 19번 道路의 開通작전이었으며 이에 美 제 173空輸사단의 1개 대대와 越南軍 1개 대대가 投入되었다.

團一行은 豫定대로 Binh Khe地域에 대한 偵察을 마치고 돌아가려 할때 李世鎬소장이 An Khe方面으로 進擊中인 友軍의 作戰實況을 보고싶으니 案内하라고 美將校에게 要請하였다. 그러자 그는 危險지역이므로 그만 두는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挽留하였다.

그러나 李소장의 거듭된 要請에 그는 하는 수 없이 案内에 나섰는데 이때 團一行과 더불어 美參謀副長인 Abbey준장도 同行하였다. An Khe方面의 제 19번 道路邊에는 때때로 作戰中인 美·越軍의 警戒兵들이 곳곳에서 있었으며 砲兵 및 “헬리콥터”가 出動을 기다리고 있는 光景이 보이기 도 하였다.

2km쯤 갔을때 VC이 破壞한 橋梁옆으로 迂回路를 開設中인 美工兵들의 活動相이 보였으며 이로부터 다시 2km쯤 가보니 友軍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울창한 樹林만이 음산한 雰圍氣를 자

아내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An Khe에 이르는 고갯길이 始作되는데 이로부터 다시 여러개의 고개를 넘어갔는데도 友軍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이때 未審적계 생각한 美案內장교가 無電으로 알아본즉 作戰指揮本部는 이미 An Khe를 훨씬 지나갔으며 지금 團一行이 當到한곳은 危險지대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美案內장교는 더 말할것도 없고 Abbey준장도蒼白한 얼굴로 唐慌하였다. 그러나 李世鎬소장은 表情하나 變치않고 오히려 沈着하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더 가보자고 固執하였다. 美案內장교는 唐慌하다못하여 와들와들 떨면서 어찌 할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李소장은 「都大體 貴官은 An Khe에 가본일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그는 「全然 가본일이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라고 對答하자 李소장은 「가본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案内하는가!」라고 叱責하듯 말하면서 車를 돌리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一行은 오던길로 車를 돌려 얼마후에는 Qui Nhon으로 無事히 되 돌아갔다.

이런事實을 傳聞들은 美將校들은 모두가 혀를 차면서 驚愕을 禁치 못하는 것이었다. Saigon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航空機에 올랐을때 同行하였던 Abbey준장은 李소장에게 「당신같은 분은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아까 同行하였을때 정말 혼이 났다」고 實坦하는 것이었다.

李世鎬소장의 指揮官다운 大膽성과 銳敏한 狀況판단이 없었던들 同一行은 꿈쩍없이 VC의 捕虜가되어 悲劇的인 越南戰爭이 낳은 또하나의 異變과 不幸을 演出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 第 4 章

# 韓國軍事援助團의 活動

### 要 旨

1. 統制部隊 및 隸屬部隊 指揮官
2. 編成 및 任務
3. 部隊活動





## 第 4 章 韓國軍事援助團의 活動

참조: 상황도 제 4, 5호

### 要 旨

越南政府의 支援요청에 따라 建國이래 最初로 韓國軍의 派越이 決定되어 陸軍제 1 移動外科病院 및 陸軍跆拳道教官團은 1964년 9월 22일 Saigon 에 上陸한 다음, 同病院은 Vung Tau에 移動하여 28일에 始務式을 舉行하였으며 跆拳道教官團은 4 개班으로 나누어 Nha Trang—Thu Duc—Dalat—Vung Tau에 각각 配屬되어 곧 附與된 活動을 展開하기 시작하였다.

그以後 越南정부의 제 2차 支援요청에 따라 陸軍제 101경비대대, 陸軍제 127野戰工兵대대, 陸軍제 801수송자동차중대, 本部支援勤務隊(本部, 通信, 兵器, 兵站, 醫務) 및 海兵제 1 독립공병중대, 海軍수송단대동 2,000餘名으로 편성된 非戰團 부대를 追加 派越케 되어 이를 韓國軍事援助團으로 命名하고 初代團長에 裴文煥중장이 任命되었다.

이어 部隊편성과 아울러 所定의 教育訓練을 마친 該團은 1965년 3월 16일에 Saigon에 上陸한 다음, 駐屯地인 Di An에 移動하여 指揮所를 開所 하였으며 이미 派越된 陸軍제 1 移動外科病院 및 陸軍跆拳道教官團을 配屬 받았다. 이리하여 越南 政府의 復舊사업과 聯軍의 平定課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建設 및 醫療를 基本으로한 支援活動을 開始한 團은 錯雜하고도 不安定한 駐屯地의 周圍情勢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現地의 地形에 익숙치 못한 立場에서 派越된채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役軍으로서 與件의 不備와 條件

의 未裕을 克服하여 맡은바 任務를 遂行하였다.

그러나 自體警備能力이 微弱한 團은 이의 補強이 緊要하므로 追後에 경미 1 개중대의 增派를 비롯하여 數次에 걸친 增員이 있음으로써 맡은바 任務를 보다 効率의으로 遂行할 수 있는 體制의 補強을 期할 수 있었는데 越南정부의 追加요청에 의하여 首都사단과 海兵제 2여단이 4월말에 따라 韓國軍司令部가 창설되자 團은 建設支援團으로 改編되었다.

그以後에도 團은 基本任務인 建設 및 醫療支援과 心理戰 및 宣撫활동을 통한 對民支援을 自體的으로 計劃수립하여 多樣하고 積極적인 活動을 展開하였으며 특히 建設支援에 있어서 戰術道路인 제 4번 A道路의 新設 및 補修工事와 Bien Try—Lar Thieu—Bung—Di An 등 各地의 國民學校教室을 新築 또는 補修하고 또한 Di An—Lai Thieu 에 現代式 病院과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하여준 以外에도 Dong Hou에 教會를 建立하는등 宗教의 領域에까지 支援의 손길을 뻗었다.

그뿐만아니라 醫療支援에 있어서는 卓越한 醫術과 慈愛로운 奉仕로써 數많은 患者를 治療하였으며 또한 民事心理戰에 있어서도 精誠어린 救護 활동과 親善行事를 베풀어 越南 국민들에게 깊은 感銘을 줄으로써 韓·越 兩國의 善隣의인 紐帶를 돈독히 하는 同時에 祖國의 威容과 國軍의 舊業을 宣揚하는데 顯著한 功績을 쌓았던 것이다.

## 1. 統制部隊 및 隸屬部隊 指揮官

### 가. 統制部隊

한국 군사원조단 장 준장 曹 文 煥

### 나. 隸屬部隊

제101경비대대	장 중령 李 光 魯	본부중대	장 대위 崔 誠 日 (1965년 6월 20일부터)
제 1 중대	장 대위 申 佑 湜	해병제 1 독립공병중대(배속)	장 소령 朴 東 奎
제 2 중대	장 대위 金 興 洙	제 801 수송자동차중대	장 대위 姜 德 遠
제 3 중대	장 대위 權 相 集	제 1 이동의과병원	장 중령 李 亨 洙
화기중대	장 대위 姜 東 淳	"	장 중령 宋 益 薰 (1965년 10월 1일부터)
제 5 중대(배속)	장 대위 沈 基 哲	태권도교관단	장 소령 白 駿 基
제 127 공병대대	장 중령 姜 俊 彥	"	장 소령 崔 東 輝 (1965년 9월 3일부터)
	장 중령 吳 炳 珠 (1965년 6월 25일부터)	해군수송단대	장 대령 李 應 基 (1965년 7월 12일부터)
제 1 중대	장 대위 李 永 宰		
제 2 중대	장 대위 金 在 基		
제 3 중대	장 대위 崔 成 日		
	장 대위 嚴 讚 鎔 (1965년 6월 20일부터)		
본부중대	장 대위 李 萬 述		

## 2. 編成 및 任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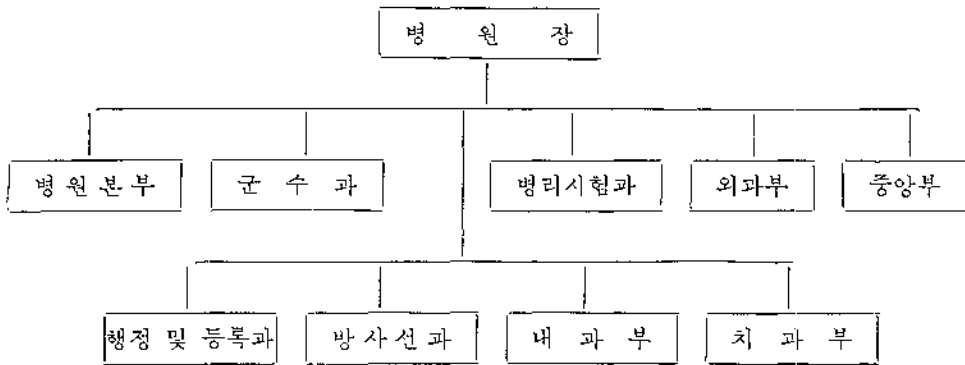
### 가. 第 1 移動外科病院 및 跆拳道教官團

越南정부의 支援요청에 따라 國軍부대의 파월이 決定되자 國防部는 1개 移動外科病院과

跆拳道教官團을 파견하기 위한 諸般조치를 取하는 한편 陸軍으로 하여금 同病院 및 團編成에 着手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國本일만명령(육) 제29호(1964.7.13)에 依據하여 7월 15일 00.01附로 京畿道 楊州郡蘆海面倉洞(現 서울特別市에 編入)에서 육군第7後送病院을 母體로 第1移動外科病院에 대한 創設作業이 시작되었다.

規模에 있어서 60 Bed의 收容能力을 갖춘 同病院은 自體整備요원 24명을 포함한 將校 34명(軍醫 19명, 醫政 6명, 通譯 3명, 看護 6명)과 士兵 96명 都合 130명으로 編成되었으며 初代 病院長에는 李亨洙 중령이 任命되고 다음과 같은 編制를 갖추었다.



한편 跆拳道教官團은 領官 1명 尉官 9명 都合 10명의 將校로 編成하고 團長에 白駿基 소령이 任命되었다. 그런데 韓國의 跆拳道가 海外에 進出하기는 이것이 세번째이며 1959년 3월에 陸海空軍 및 海兵隊의 鍊武示範團(團長以下 17명)이 東南亞을 巡訪中에 越南정부의 要請에 따라 Saigon을 비롯한 各地를 1개월간 巡廻하면서 示範한것이 그 嚆矢였다.

그 이후에 또다시 越南정부의 要請에 따라 韓國의 固有武術인 跆拳道를 普及함과 아울러 韓·越 兩國의 紐帶를 鞏固히 하기 위하여 육군소령 南泰熙外 3명의 教官團이 1962년 12월 23일부터 1년간 越南 육군步兵學校에서 活動하였으므로 正式으로 派越되기는 이번으로 第2次가 되는 셈이다.

이와같이 두번째 파견教官團의 編成작업이 마무리되고 教官要員이 選拔되자 陸本 教育計劃에 依하여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派越에 對備한 教育訓練을 실시한 다음, 國防部는 8월 28일에 指令 제 2호로 同病院 및 教官團에 대한 任務를 다음과 같이 附與하였다.

附1. 大韓民國정부는 增強된 1개 陸軍移動外科病院과 陸軍跆拳道教官團으로 구성된 韓國軍事支援團을 파견하여 共產侵略으로 威脅을 받고 있는 越南共和國에 대한 醫療支援과 跆拳道指導를 한다.

2. 軍事支援團은 주월 韓國大使館 및 越南정부 그리고 과월 美軍당국과 密接한 協調를 유지한다.
3. 軍事支援團은 과월 軍事援助司令部(US MAC-V)로부터 支援받는다.
4. 軍事支援團은 Saigon에 到着과 동시에 大韓民國 國防部 指揮下에 두되 주월 韓國大使館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以上과 같은 任務를 附與받고 諸般準備를 끝마친 軍事支援團은 9월 11일에 海軍輸送艦(LST)으로 釜山港을 出發하여 22일에 Saigon에 上陸한 다음, 25일에 駐屯地인 Vung Tau에 이동하여 28일에 越南육군 靜養病院에서 始務式을 舉行하고 10월 13일부터 醫療業務를 開始하였다. 그런데 國防部는 團本部의 機構를 別途로 設置하지 않고 現地の 最先任者인 病院長으로 하여금 暫定的으로 團長을 兼하게 하였는데 同病院은 韓國軍事援助團의 派越과 더불어 이에 配屬되었으며 그 이후 9월 30일로 病院長 李亨洙중령의 任期가 끝나자 2代 病院長에 宋益薰중령이 就任하였다.

한편 跆拳道教官團은 4개組로 나누어 Nha Trang의 越南해군 士官學校와 Thu Duc의 육군步兵學校 그리고 Dalat의 육군士官學校와 Vung Tau의 幼年學校에 각각 配屬되어 普及활동을 開始하였으며 團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職 責	階 級	姓 名	段 級
團 長	소 령	白 駿 基	7 단
團 員	대 위	朴 良 主	4 단
"	"	郭 周 煥	3 단
"	"	秋 高 逸	3 단
"	"	林 慶 換	2 단
"	중 위	李 大 熙	3 단
"	"	金 奉 圭	3 단
"	"	劉 亨 善	4 단
"	"	金 修 練	3 단
"	"	任 承 海	3 단

그이후 韓國軍事援助團의 과월과 더불어 教官團은 제 1 移動外科病院과 함께 이에 配屬되었으며 또한 9월 2일로서 團의 任期가 끝나자 崔東輝소령을 團長으로한 제 3차 教官團이 交替되어 각각 5개 지역에서 普及활동을 繼承하였는데 團員名單과 配置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 역 별	직 책	계 급	성 명	단 급
Saigon	단 장	소 령	崔 東 輝	4 단
Thu Duc (보병학교)	조 장	대 위	孫 福 奎	4 단
Saigon (경찰학교)	교 관	대 위	姜 錫 元	3 단
"	"	중 위	鄭 永 先	4 단
"	"	"	金 東 培	4 단
Nha Trang (해사)	조 장	대 위	洪 淳 喆	3 단
"	교 관	중 위	李 승 직	1 단
Dalat (육사)	조 장	대 위	安 根 輝	3 단
"	교 관	중 위	蘇 炳 敏	3 단
Vung Tau (유년학교)	"	대 위	朴 鍾 烈	3 단

#### 나. 韓國 軍事援助團 (비들기部隊)

越南政府의 제 2 차 支援요청에 따라 2,000餘名으로 편성된 非戰鬥부대를 後方지역의 復舊建設과 對民支援을 위하여 파월하게 되자 國防部는 各軍 參謀總長으로 構成된 軍務會議를 開催하고 派兵에 따른 諸般事項을 數次에 걸쳐 審議檢討하는 한편, 合作 제921.21호(1964.12.28)로 各軍으로 하여금 派越부대를 12월 31일까지 編成하고 다음해 1월 10일을 前後하여 出國할 수 있게 對備하라는 準備命令을 下達하였다.

이에 따라 陸軍은 육본작 제381.2호(1965.1.4)에 의한 「비들기計劃」을 수립하고 1개 警備대대와 1개 野戰工兵대대, 그리고 1개 輸送自動車중대와 團本部를 비롯한 支援勤務隊를 派遣키로 하였으며 海軍은 LST 2척(812 및 813艦중에서 812함은 支援團에 殘留함)을, 海兵隊는 1개 獨立工兵중대를 각각 差出키로 하였다.

또한 陸軍제 1 군사령부는 陸軍本部로부터 이미 시달된 教育指針에 準하여 教育覺醒 제 1 호(1965.1.8)를 派越부대에 下達하는 동시에 파월 美軍司令部로부터 特別히 파견된 訓練官(美軍少領)을 中心으로 韓·美 聯合訓練團을 組織하고 이들의 訓練指導에 依하여 제 1 단계로 1월 8일부터 29일까지 越南紹人和 精神教育, 그리고 射擊과 小部隊훈련을 실시토록 한다음, 제 2 단계로 2월 2일부터 19일까지 「비들기作戰」이라는 名稱으로 對遊擊戰術과 특수 部隊警戒훈련을 실시토록 하였다. 한편 國防部는 指令 제 2 호(1965.1.28)로 派越부대의 配屬과 支援事項을 要旨 다음과 같이 各軍에 下達하였다.

『1. 파월 韓國軍事援助團에 配屬될 各 부대와 支援事項을 다음과 같이 指示한다.

가. 陸軍參謀總長

(1) 增派되는 陸軍부대를 1965. 2. 1, 00. 01附로 軍事援助團에 配屬시킨다.

(2) 增派되는 陸軍 및 海兵부대를 위한 統合教育훈련을 담당한다.

나. 海軍參謀總長

증파되는 海軍부대로 LST 2척을 파월하되 그중 812艦을 本國출발과 동시에 軍事援助團에 배속시킨다.

다. 海兵隊司令官

(1) 증파되는 海兵工兵 중대를 1969. 2. 1, 00. 01附로 軍事援助團에 配屬시킨다.

(2) 증파되는 海兵제 1 獨立工兵중대를 京畿道縣里에 위치한 陸軍제 6 사단 地域으로 1965. 1. 30까지 移動集結 시킨다.

라. 파월 韓國軍事援助團長

(1) 配屬

다음 部隊는 1965. 2. 1, 00. 01附로 배속한다.

(가) 軍事援助團 本部

(나) 陸軍 1개 野戰工兵대대

(다) 陸軍 1개 警備대대

(라) 陸軍 1개 輸送自動車중대

(리) 海兵 1개 工兵중대

(2) 海軍부대(LST1척)는 本國出發과 동시에 배속한다.

(3) 다음 部隊는 軍事援助團 本部의 指揮所 開所와 동시에 배속한다.

(가) 陸軍제 1 移動外科病院

(나) 陸軍跆拳道教官團

(4) 軍事援助團 本部要員은 1965. 1. 30까지 縣里에 位置한 陸軍제 6 사단 地域으로 移動集結시킨다.

(5) 軍事援助團長은 配屬받은 陸軍 및 海兵隊의 各部隊현황을 隨時 보고한다.

마. 第1 移動外科病院長

파월 軍事援助團本部 指揮所 開所와 동시에 軍事援助團에 배속한다.

바. 跆拳道教官團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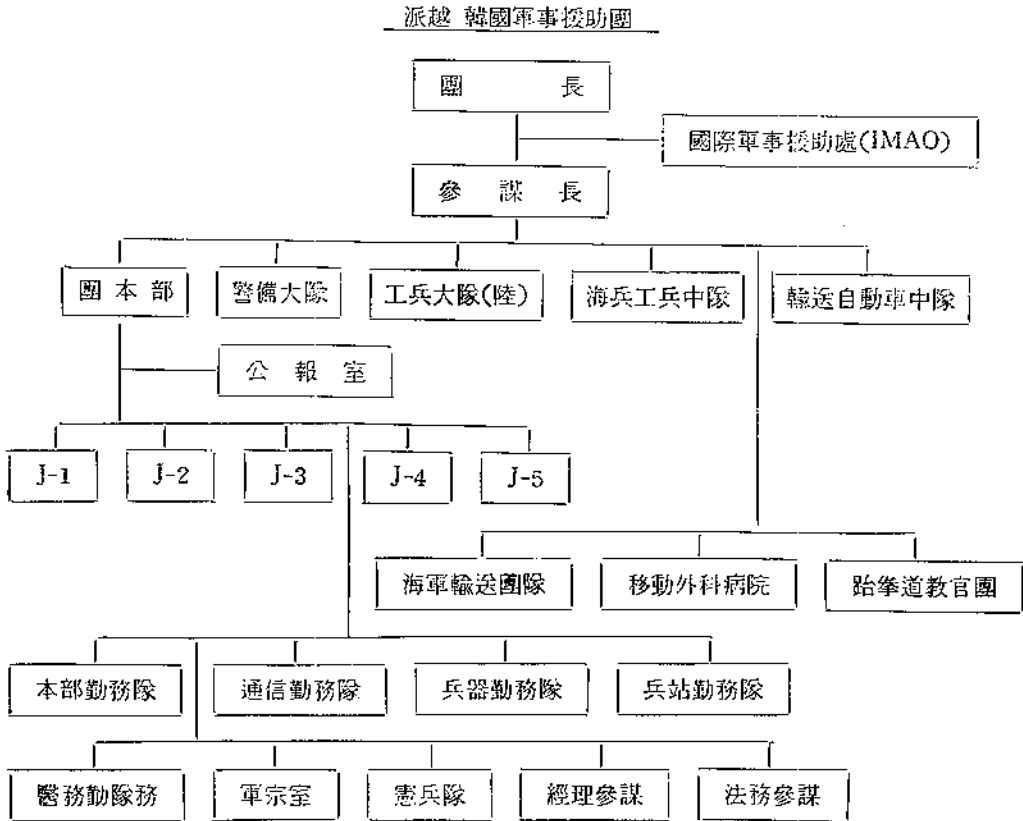
파월 軍事援助團本部 指揮所 開所와 동시에 軍事援助團에 배속한다.

사. 協調指示

陸軍參謀總長 및 海兵隊司令官은 海兵工兵중대의 教育기간중 軍需支援을 相互 協調하며 同중대는 陸軍제 6 사단으로 移動時에 工兵重裝備를 除外한다.』

이에 따라 陸軍은 國本일반명령(육)제 3 호(1965. 1. 30)에 依據 1월 27일 00. 01附로 육군제 27사단 제 79연대 제 1 대대를 제 101警備대대로, 陸軍 제 1101戰鬪工兵團 隸下에서 제 127野戰工兵대대를, 陸軍 제 505輸送運用團 제 235輸送自動車대대 隸下 1개 중대를 제 801輸送自動車중대로 각각 改編하였다.

또한 國防部는 陸軍의 部隊改編에 併行하여 이들 부대를 統轄할 指揮本部의 設置를 위하여 일반명령 제 2호(1965. 1. 27)로 韓國軍事援助團 및 本部勤務隊의 編制를 示達하고 이와 併를 같이하여 國本일반명령(육) 제 5호(1965. 1. 29)로 陸軍제 1군 責任下에 제 6사단에서 團本部를 創設하도록 指示하는 동시에 이를 비둘기部隊로 命名하였으며 示달된 編制는 다음과 같다.



또한 國防部는 團長에 金弘圭준장을 任命하였으나 健康上의 이유로 解任하고 曹文煥준장을 國防部 一般命令 제 44호(65. 1. 29)로 發令, 초대 團長으로 任命하였다.

陸軍本部에 설치된 派越軍 編成委員會의 委員으로서 計劃수립에 參與하고 있던 曹준장은 團長으로 赴任하자 과월 美軍司令部에서 과견된 訓練官(美軍少領)으로부터 越南의 殆半이 赤化되어 매우 不安한 狀況에 직면하고 있다는 情勢보고를 받았다.

한편 그는 派越부대 중에서도 警備대대가 主軸이므로 이의 人的구성을 重視하고 陸軍제 27사단 主管下에 進行中인 제101警備대대의 편성에 關心을 갖고 初代 제101警備대장으로

任命된 李光魯중령을 帶同하고 대대요원에 대한 身上과학과 訓練정도를 點檢한 결과 그 人的 구성이 너무나 貧弱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제 1 군사령관 張昌國대장에게 建議하여 各軍團에서 1개 중대씩 差出한 다음, 個中에서 警備대대의 所要人員을 選拔토록 함으로써 8,000 餘名의 對象人員中에서 (1) 身長 160cm以上 (2) 國民學校 以上の 卒業者 (3) 한가지 以上の 運動特技를 가진 者를 기준으로 選拔하였다.

특히 特技兵은 陸參謀總長에게 建議하여 제 1, 2軍 管轄下의 技術兵科 부대에서 廣範圍하게 選拔토록 조치함으로써 兵員의 質의水準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曹준장은 部隊編成에 있어서 人的構成에 직접 關與하는 한편, 이미 시달된 제 1 군사령부의 教育覺書에 準하여 訓練하되 對遊擊戰術과 透徹한 精神力, 그리고 強靱한 體力向上을 目標로 連日 教育訓練에 專念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越南정세는 매우 悲觀的이며 深刻한 不安에 直面하고 있으므로 파월은 곧 주검의 길이다」라는 風聞이 流布됨으로써 派越장병들은 적지않게 動搖하는 氣色을 보이는가 하면 一部 派越장병 가족들은 部隊에까지 몰려와서 派越을 挽留코자 하는 事態를 빚기도 하였다.

또한 一部の 新聞放送이 國會에서 派兵을 強硬하게 反對하는 野黨議員들의 發言 내용을 報道함에 따라 이에 적지않게 同調하는 움직임이 있기도 하였다.

또 한將校의 夫人은 그 夫君에게 파월을 拒否할것을 呼訴하였으나 그 夫군은 오히려 血書를 써서 派越을 自願하는가 하면 또다른 몇몇 將校는 家族들에게 最後의 遺言狀을 남기는등 千態萬像의 點景을 빚었다. 이러한 現象은 모두가 越南情勢에 너무나도 어두웠을뿐 아니라 事態를 把握하지 못함에서 派生된 것이었다.

아름든 이와같은 錯雜한 狀況에서 部隊를 編成하고 人員을 選拔하여 教育訓練을 強行한다는 것은 실로 容易한 일이 아니었으나 曹준장은 派越장병들에게 뚜렷한 目的意識과 使命感을 갖게 하는데 腐心하였다.

따라서 그는 越南의 情勢가 어찌되었든간에 必勝의 信念을 堅持하고 敵에게 侵襲의 虛點을 보이지 않는 防禦태세와 附與된 任務완수를 위한 徹底한 教育훈련에 臨한다면 必然코 所任을 완수할 수 있다고 確信하고 教育훈련중 파월장병들에게 屢屢히 強調하기를 『越南정세는 매우 錯雜하고 流動的이다. 더군다나 우리는 越南정세에 대해서 아는바가 쏘히 없으며 地理와 地形에 對해서도 거의 豫備知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派越의 길은 곧 주검의 길이라고 斷定하는 것은 敗北主義의인 被害妄想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國家와 國軍을 대표한 榮譽과 責任을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強靱한 精神力과 鞏固한 防禦태세를 갖추면 능히 成功的으로 任務를 遂行하고 凱旋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永遠히 빛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警戒와 防禦에 最大의 노력을 集中해야 할 것이며 특히 部隊가 駐屯地에 定着하기까지의 3段階 過程에 特別히 留意하고 萬般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제 1段階는 先發隊가 豫定 駐屯지에 到着하기까지이며 제 2段階는 本隊가 艦艇으로부터 上陸할 때까지, 제 3段階는 駐屯地에 到着하여 陣地를 구축하고 作戰태세를 完備하기까지의 3週間이 가장 重要な 時期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强調사항은 數次에 걸쳐 反復되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將兵들은 漸次로 派越의 隊列에 けん것을 肯定하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들 將兵을 激勵하기 위한 各界各層의 訪問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立法, 司法, 行政府의 有力人士들은 물론이고 政黨 社會단체 代表들까지 連이어 部隊를 찾았다. 個中の 一部官吏나 著名人士들은 將兵들의 士氣를 振作시키기 위하여 意圖的으로 言及하기를 『부디 맡은바 任務를 완수하고 無事히 凱旋하라 그러면 그때들이 願하는 職場에 꼭 就職을 시켜주겠으니 잘싸우고 돌아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全國民의 關心과 耳目이 集中된 가운데 제 1 단계 教育을 마치고 이어 제 2 단계 훈련過程에 접어든 2월 5일에 陸軍제 6사단 練兵場에서 國防長官과 陸海空軍 參謀總長 및 海兵隊司令官을 비롯한 內外人士와 派越장병 全員이 참가한 가운데 韓國軍事援助團의 結團式을 거행하였다.

한편 國防部는 指令제 4호(2.25)로 團長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任務를 下達하였다.

1. 韓國軍事援助團은 共產侵略에 依하여 威脅을 받고 있는 越南共和國을 支援하여 別命이 있을때까지 越南정부가 요청하는 國家平定계획에 立脚한 對民支援사업을 擔當한다.
2. 自衛를 위한 作戰임무를 遂行한다.
3. 任務遂行을 위하여 越南정부 및 파월 美軍援助司令部와 그밖에 必要한 機關과 協調한다.
4. 可能な 限 越南國民과의 親善을 圖謀하여 韓·越 國民間의 紐帶강화에 努力한다.
5. 越南에서의 任務遂行 및 作戰統制와 그밖의 現地行動은 1965년 2월 7일 및 8일에 各各 맺은 韓·越 및 韓·美 軍事實務者 約定書에 依據한다.』

以上과 같이 諸般준비를 갖추고 任務를 받은 다음, 國防部の 梯隊編成 指示에 따라 先發隊는 2월 13일 참모장 宋澤龜대령의 引率下에 京畿道 烏山에서 美輸送機 C-130편으로 出國하고 本隊는 2개 梯隊로 나누어 제 1 梯隊는 제101警備大隊 副大隊長 宋仲鎬소령 引率下에 14일 釜山港을 떠났으며 제 2 梯隊는 警備大隊長 李光魯중령 引率下에 3월 10일 16.00에 美海軍 輸送艦 T-AF로 仁川港을 出發하였다.

또한 團長을 비롯한 指揮部要員은 11일 08.00에 美 C-140機편으로 金浦空港을 떠나 沖繩를 거쳐 Saigon에 進出하였다. 한편 3월 16일 早朝에 本隊의 제 2梯隊가 Vung Tau 南方 60mils海上에 이르자 Saigon에 先着한 曹준장은 美 “헬리콥터”便으로 艦上에 到着하여 이들을 迎接하 다음, 本隊를 이끌고 越南정부의 主權로 Saigon에서 베풀어진 歡迎大會에 參加하였다. 이 大會에서 Pham Huy Quat 越南首相을 비롯한 内外人士와 數 많은 市民들로부터 歡迎을 받았다.

歡迎行사가 끝나자 곧이어 市街行進이 있었는데 이것은 當初 申尙澈大使와 曹준장과의 事前協議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實相 治安이 平穩치 않은 未知의 異國땅에서 部隊의 市街行進을 단행한다는 것은 一種의 冒險이 아닐 수 없었으며 만약에 不祥事가 惹起되던 이는 指揮官의 情勢誤判이거나 아니면 지나친 展示效果를 노린 無謀한 처사로 指揮責任을 免치 못한다는 것을 曹준장 自身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政略의 次元에서 失보다 得이 더 많으리라고 判斷한 끝에 이를 實施하기로 決心하고 國防長官에게 建議하여 사전承諾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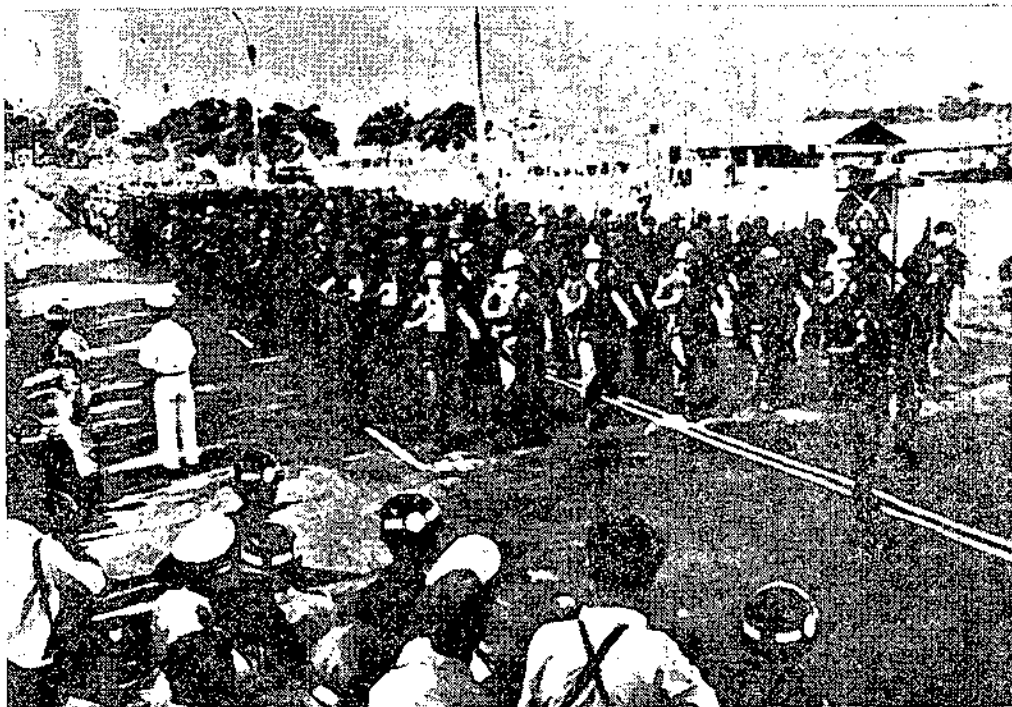
그런데 뜻밖에도 越南軍部가 이에 反對하였으므로 한때 韓·越 兩軍의 指導者間에 微妙한 霧圈氣가 감돌기도 하였으나 이미 國防長官의 承認을 받은 뒤였으므로 軍部는 이를 默過할 수 밖에 없게 되어 行進은 마침내 斷行키로 되었다.

그런데 曹준장이 安全上의 危險과 越南軍部의 反對를 무릅쓰고 行進을 決行코자 한데는 그럴만한 事由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첫째 行進을 통하여 韓國軍의 威容을 Saigon市民들에게 보임으로써 體力的으로나 精神的으로 越南軍과 共產軍에 比하여 越等하다는 印象을 주는 동시에 이러한 輿論이 越盟軍 및 VC과 그 追從者들에게 傳播될 것이다.

둘째, 비둘기部隊는 戰鬥부대가 아닌 支援부대인데도 不拘하고 戰鬥부대 못지 않은 것을 實證함으로써 韓國內의 戰鬥부대는 보다 더 越等할 것이라는 上昇效果的인 映像을 浮刻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ass Communication을 통하여 韓國軍의 鬪志旺盛한 모습이 널리 報道됨으로써 自由友邦의 越南支援이 現實의으로 積極化추세에 있음을 實感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共產側으로 하여금 危懼意識을 갖게 하는 반면에 越南에 대한 友邦諸國의 支援意慾을 鼓舞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見地에서 行進을 敢行코자 한 것인데도 越南軍部는 意圖의으로 이를 牽制하려 하였는데 그 底意는 추측컨대 첫째 韓國軍의 市街行進은 마치 越南戰爭의 主役이 韓國군



Saigon 市街를 行進하는 비둘기部隊

으로 代替된 듯한 印象을 줄 것이며, 둘째로 그러한 印象을 줌으로써 자칫하면 越南은 마치 제 3국의 植民地화된 것 같은 曲解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行進은 마치 占領國에 대한 進駐軍의 入城과 같은 느낌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多分히 그들 特有的 排他心理와 被害妄想이 作用한 듯이 보였다.

아궁든 部隊는 예정대로 市街行進을 開始하여 2時間餘에 걸쳐 Saigon市內의 中心街를 누웠는데 鵬程萬里의 蒼波를 헤치고 派越된 韓國軍이 步武堂堂하게 行軍하는 것을 沿道에서 지켜본 數萬의 市民들은 同質의인 東洋人으로서의 素朴한 親近感을 느끼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威壓感을 느끼는 듯이 보였으니 이땅에서의 前無後無한 이 行進은 적지않은 反響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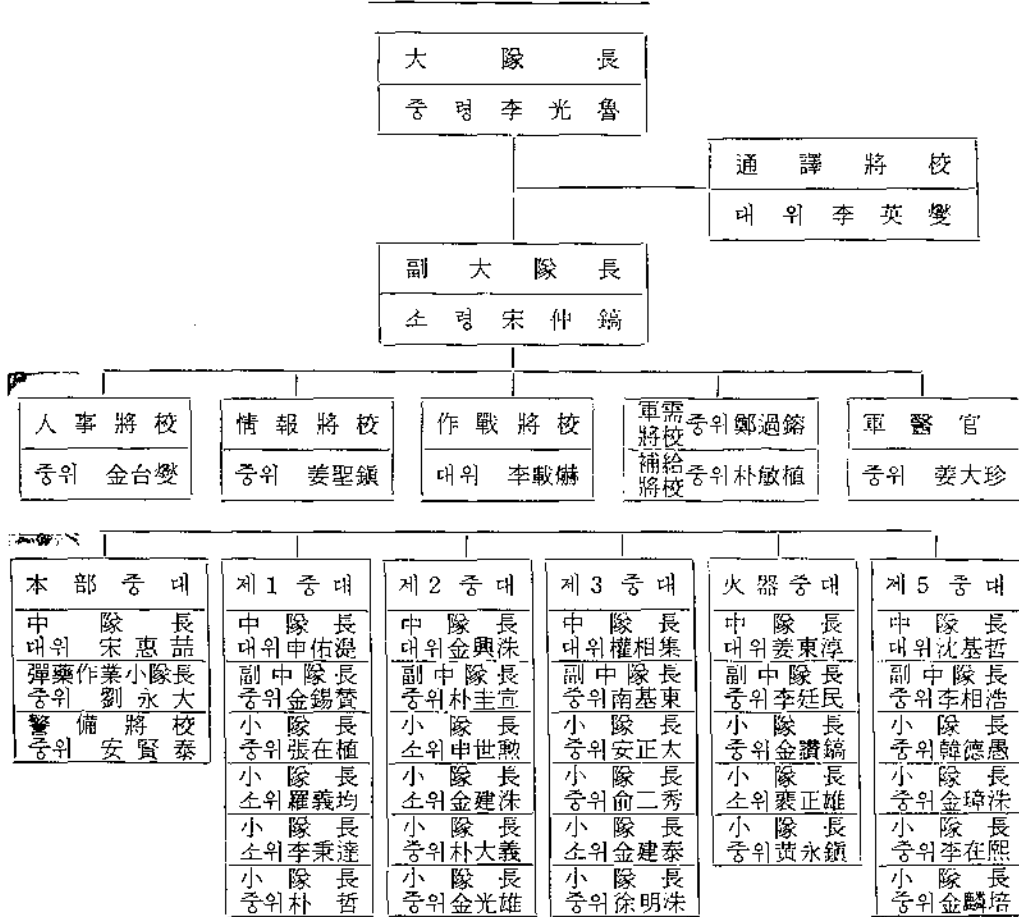
그리하여 行進을 끝마친 部隊는 이어 小型 木炭列車 편으로 Di An에 進出하여 先發隊와 合勢하는 한편 이날 19.00부터 指揮所를 開所하였다.

그以後 4월 1일에 國防部長官이 訪越하자 曹文煥준장은 軍需機能 및 醫療能力과 自體警備兵力의 補強을 建議함으로써 追後에 國防部 일반령 제 9호(1965. 6. 8)로 團本部에 장교

8명 사병 10명의 增員이 있었으며 또한 일반병령 제22호(1965.6.21)에 따라 陸軍제27사단 隷下에서 1개중대(6/161)가 改編되어 제101警備대대 제5중대(장, 沈基哲대위)로 派越되는 同時에 大隊本部에도 32명이 增員되었다.

派越當時의 제101警備大隊 職位表는 다음과 같다.

第101警備大隊 職位表



한편 政府는 韓國軍事援助團의 設置를 合法化하기 위하여 6월 21일 大統領令 第2163號로 다음과 같이 設置令을 公布하였다.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駐 越南共和國 韓國軍事援助團 設置令을 이에 공포하다.

大 統 領 朴 正 熙

196年 6月 21日

大統領令 第2163號

### 駐越南共和國 韓國軍事援助團 設置令

第1條 (設置) 越南共和國의 對共作戰을 支援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 소속하에 駐越南共和國 韓國軍事援助團(이하 “援助團”이라 한다)을 둔다.

第2條 (構成) 援助團은 團本部와 필요한 部隊로서 構成한다.

第3條 (團長, 副團長 및 參謀長)

- (1) 團本部에 團長과 參謀長을 두되 필요에 따라 副團長을 둘 수 있다.
- (2) 團長은 現役 將官級 將校중에서 國防部長官이 補하고 副團長과 參謀長은 現역 將官級 장교 또는 領官級 장교로서 補한다.
- (3) 團長은 國防部長官의 命을 받아 團務를 統轄하며 그 隸屬 또는 배속된 부대를 指揮감독한다.
- (4) 副團長은 團長을 補佐하며 團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행한다.
- (5) 參謀長은 團長과 副團長을 補佐하며 그 命을 받아 參謀업무를 調整 감독한다.

第4條 (參謀部署)

- (1) 團本部에 필요한 參謀部署를 둔다.
- (2) 參謀部署의 설치 및 그 업무分掌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第5條 (隸屬 및 배속부대) 援助團에 隸屬 또는 배속되는 부대의 編成 기타 필요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第6條 (定員)

- (1) 團本部에 將校, 准士官, 하사관 및 兵(이하 “軍人”이라 한다)과 軍屬을 두되 그 定員은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 (2) 前項의 軍인과 軍屬은 소속 上官의 命을 받아 擔當한 업무를 處理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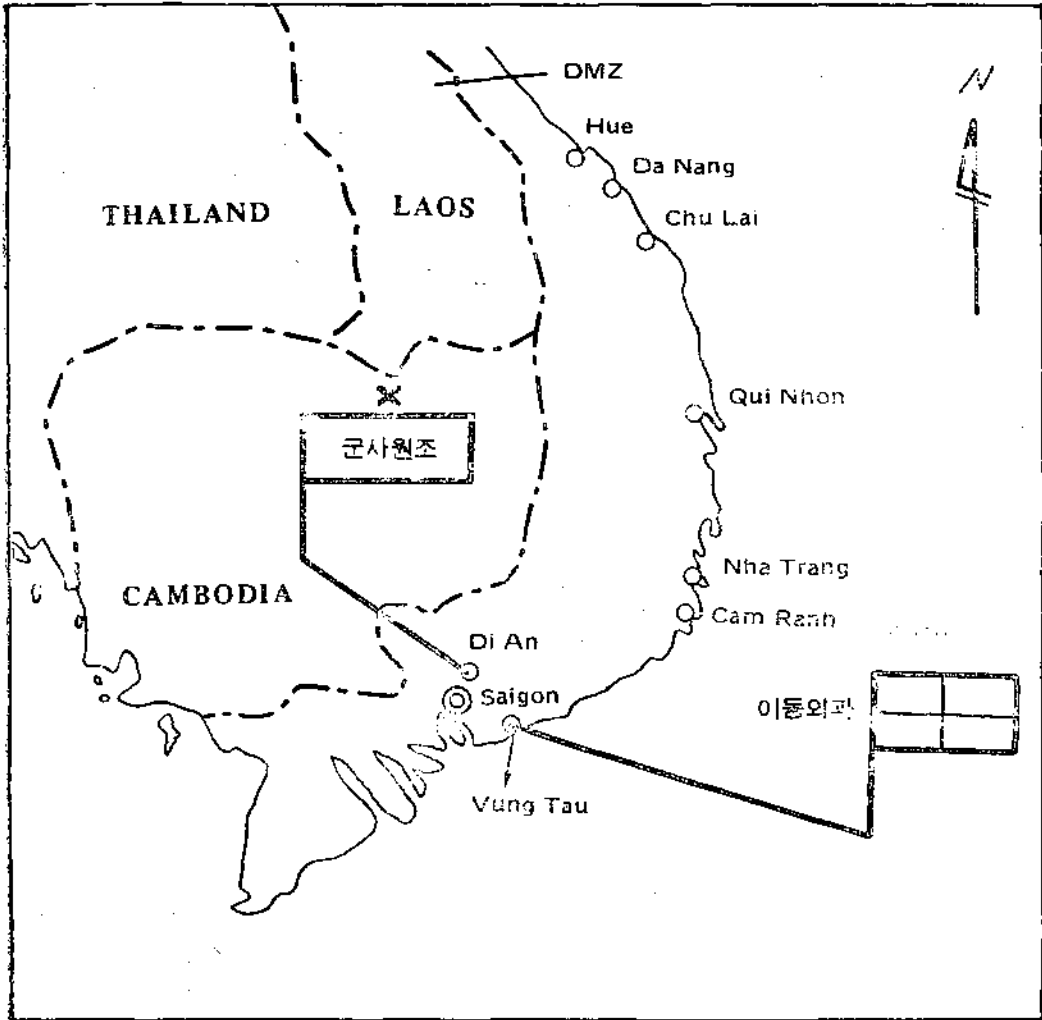
#### 附 則

- (1)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2) (經過措置) 이 令 施行당시의 在籍 韓國軍事援助團은 이 令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또한 國本일반명령(육) 제25호(1965. 6. 25)로 추가增員이 있었으며 또 7월 9일에는 海軍 LSM 2척[609함(월미)과 611함(능라)]을 增派함에 따라 同월 12일에 海軍수송단대를 創設하고 初代사령관에 李應基대령을 任命하였다. 그이후 國本일반명령(육) 제38호(65. 9. 24)로 또다시 增編하는 등 4회에 걸친 追加增編을 實施한데 이어 同월 25일에 在籍 韓國軍司令部가 創設됨에 따라 團은 同日附로 그 名稱을 建設支援團으로 變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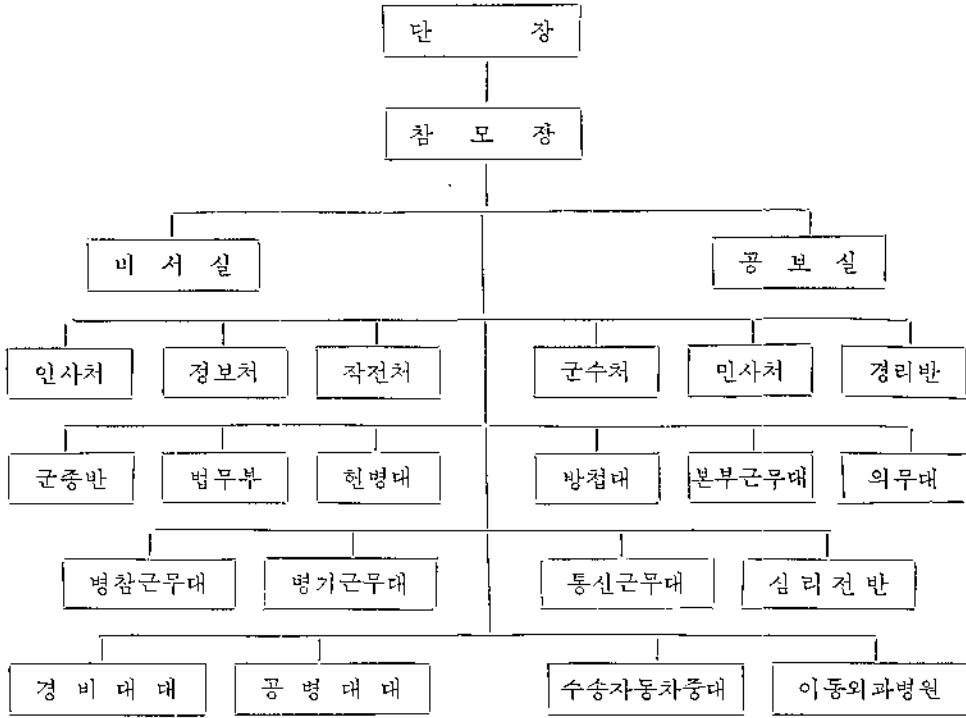
또한 다음해 2월 17일에 國防部는 團에 配屬된 海軍輸送團隊의 LSM 609함(월미)과 611함(능라)을 本國으로 復歸시키고 LSM 605함 및 607함을 새로이 配屬시켰다. 한편 國防部는 海軍수송단대의 任務가 增大되자 日반명령 제23호(66. 2. 23)에 依據하여 海軍輸送分隊(白鷗부대)로 增編하는 동시에 團의 配屬을 解除하고 在籍 韓國軍司令部의 直轄부대로 獨立시켰다.

狀況圖 제4호 韓國軍事援助團 配置圖



그以後 卽時 韓國軍司令部는 戰鬥부대의 派越과 더불어 韓國군의 駐屯지역이 廣範圍하게 擴大되자 指揮體制의 確立을 위하여 團에 配屬된 海兵 제1獨立工兵중대를 直命제 2호(66. 3.17)로 解除하고 이를 海兵제 2여단에, 그리고 여단에 配屬되었던 제103工兵대대 제3중대를 首都사단에 각각 原隊復歸시켰다.

이에 따라 陸海軍 및 海兵隊장교로 構成되어 있던 參謀中 陸軍을 除外한 海軍 및 海兵隊 장교는 모두 白鷗, 靑龍 兩부대로 轉屬됨으로써 機構가 縮少改編 되었는데 그 編制는 다음과 같다.



### 3. 部隊 活動

駐屯地인 Di An은 越南제 3 군단의 管轄로서 Saigon北西쪽 22km에 位置하고 있으며, Bien Hoa省 Di An郡廳의 所在地이다.

이 地域에는 東側方에 Dong Nai江이 北에서 南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西側方에서 北으로부터 南으로 뻗은 Saigon江과 같이 Nah Be江에 合流된다. 또한 標高 30 m의 野山과 고무農場이 殆半을 차지한 평탄한 地帶이므로 雨期에도 거의 洪水가 없으며 氣候는 雨期和 乾期로 兩分되어 乾期는 11~4월까지, 雨期는 5~10월까지이며 降雨量은 6월에 最高에 達하여 350mm에 이를때가 있고, 또 氣溫은 3~4월에 가장 높은 攝氏 41°C까지 上昇한다.

主要道路로서는 Saigon—Bien Hoa를 連結하는 제1번道路와 高速道路인 제 1번 A道路가 北으로 越盟까지 通하고 있으며 人口는 30,000명 內外로서 이중 VC의 同調者가 6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部隊의 幕舍 주변에는 越南의 鐵道廳舍와 많은 民家들이 隣接하고 있는데다가 良民

과 VC 및 그 同調者를 分別하기 어려운 狀況이므로 對民支援활동에 優先하여 部隊의 防護에 注力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曺文煥준장은 團結과 責任完遂를 指揮의 二大方針으로 삼고 무엇보다도 部隊警戒에 力點을 두는 한편 建設 및 醫療활동을 通하여 住民들과의 紐帶를 鞏固히 하도록 示達하였다.

한편 同준장은 中隊長級 이상의 指揮官들에게 恒時 強調하기를 『우리는 非戰鬪부대이다. 그러나 非戰鬪부대라고 해서 敵이 度外視하거나 攻擊대상에서 除外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非戰鬪부대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할지 모른다. 敵이 노리는 攻擊대상은 언제나 相對的이며 그들은 恒常 我軍의 脆弱點을 엿보고 있다. 따라서 나의 虛點은 곧 그들의 侵攻을 誘發시키는 要因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單純히 일하는 支援부대이기 때문에 武裝이나 警備에 소홀히 해도 無妨하리라는 安易한 思考方式을 버리고 그야말로 建設의 役軍이자 戰鬪능력을 兼備한 精銳부대라는 것을 自負하고 警戒태세에 徹底를 期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工兵부대가 作業場에 進入할 때에는 먼저 警備兵力을 現地에 投入하여 地域일대를 探索한 然後에 이들의 四周防禦속에서 作業하도록 하였으며, 또 輸送부대를 運行할때에도 警備병력을 前後에 배치할것을 強調하였다.

또한 그는 兵器나 車輛의 Bumper에 英字로 記入된 部隊名을 모두 한글로 修正하도록 指示함으로써 이후 「비둘기」로 表記된 車輛이 처음으로 越南人들의 視線을 끌게 되었다.

이것은 他國軍과의 識別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單純한 이유에서 措置한 것은 아니며 當面된 錯雜한 情勢에 비추어볼때 이는 些少한 일이기에는 하나 반드시 必要한 일이라 생각한 끝에 措置한 것이었다. 卽 越盟과 VC들은 夙韓國軍에 대하여 갖은 謀略中傷으로 惡宣傳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韓國軍은 美帝國主義의 傭兵으로서 越南을 強占하기 위한 請負戰爭을 하고 있다고 더무니없는 非難을 퍼부었다.

이러한 共產側의 捏造된 虛偽宣傳에 眩惑되어 一部 越南국민들 가운데는 한국군을 意識的으로 蛇蝎視하거나 懷疑의인 눈으로 釋然치 않게 보는 傾向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그릇된 認識을 拂拭하기 위한 하나의 方便으로서 그는 이와같은 措置를 취하였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모든 武器나 車輛의 標識를 美軍과 똑같이 英字로 表記하면 直感的으로 自主性을 喪失한 國籍없는 軍隊와도 같은 印象을 주거나 아니면 自國語를 사용할 權能이 剝奪된 隸屬의인 傭兵으로 認識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主體性을 돋보이게 하고 他國軍과의 대등한 立場에서 自主的 役割을



하고 있음을 内外에 闡明하는 意味에서도 部隊名을 한글로 表記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措施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아름든 團은 駐屯地에 定着하자 自主의인 立場에서 能動的으로 越南共和國을 支援하고 있다는 毅然한 面貌를 誇示하면서 陣地구축에 着手하는 一方, 철저한 臨戰태세를 갖추는데 注力하였다.

그런데 團이 파월된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越南정부의 追加요청에 따라 韓國정부가 戰鬥부대의 파월을 檢討중에 있다는 消息이 傳하여지자 파월 美軍司令官 Westmarland대장은 申尙澈大使와 賈文煥준장에게 要望하기를 「앞으로 韓國軍의 戰鬥부대가 Qui Nhon에 上陸하게 되면 韓國軍軍援助團도 그곳에 移動하여 合勢하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同大將의 唐突한 發言에 賈준장은 瞬間的으로 當惑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內心으로 생각하기를 「同大將이 團의 移動을 慫慂한데는 必是 作戰上의 利害문제에 얽혀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그 底意를 分析하기를 「戰鬥부대와 非戰鬥부대를 모두 Qui Nhon지역에 合勢토록하여 戰力을 集大化함으로써 그들의 戰略概念에 符合된 이른바 大量的인 機動打擊작전에 韓國군을 最大限度로 活用하려는데 있을 것이다」라고 判斷하였다.

申大使와 賈준장은 이와같은 要望이 韓國軍側의 意思와는 距離가 먼 偏見에 根據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하고 이에 反對하였는데 賈준장은 同大將에게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開陳하였다.

「첫째 韓國군은 美國정부와 越南정부의 要請에 따라 派越되었으나 窮極的으로는 越南共和國의 復舊사업을 支援하는데 主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越南側의 要請을 尊重하여 首都圈 内外廓의 戰術道路 新設工事を 優先順位로 着手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順位로 工事を 推進하려면 現在의 駐屯地가 舍當할 것이다.

둘째, 韓國大使館이 Saigon에 있을뿐 아니라 僑胞의 大部分이 首都圈內에 居住하고 있으므로 이를 保護하기 위한 政策的인 配慮에서도 가장 가까운 지역인 Di An이 適當한 것이다. 어느나라 駐屯軍을 莫論하고 自國의 同胞과 駐在公館에 대한 保護를 意識하지 않는 軍隊가 있겠는가.

셋째, 團의 駐屯地와 作業優先順位를 變更하는 것은 이미 先發隊(장, 李勳燮 준장)에 의하여 締結된 韓·越 및 韓·美 軍事實務者 約定書(1965.2.7 및 2.8 締結)에 違背되는 處事이다.」

이상과 같은 反論을 注意깊게 聽取한 同大將은 韓國軍의 立場을 비로소 首肯한듯 그이후

로는 駐屯地 문제에 대하여 一切 再論하지 않았다.

한편 團은 暎준장의 命令대로 駐屯地에 定着한 後 2週以內에 陣地구축과 아울러 作戰준비태세를 마무리한 다음, 綿密하게 周邊정세를 分析하면서 計劃된 支援활동을 展開하기 시작하였다.

## 가. 支援 活動

### (1) 醫療 支援

9월 25일에 Vung Tau에 到着한 第1 移動外科병원은 곧 越南육군靜養병원으로부터 任務를 引受받자 즉각 醫療활동을 展開하기 위한 準備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同病院이 위치한 前方에 VC Mountain이라는 野山이 있는데 이는 VC들의 潛動據點으로 惡用되고 있으며 또한 海岸을 따라 東北 8km에는 그들의 蟠踞地가 있으므로 同病院은 언제나 VC의 動向을 意識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自體防護를 위하여 病院주변에 6개所의 警備哨所를 설치하고 全兵力을 3개組로 編成하여 晝夜로 警戒하는 一方, 醫療활동을 展開하여야 하므로 그 苦衷이 컸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9월 28일에 始務式을 가치고 開院준비에 힘쓴 同病院은 10월 12일까지 100명을 收容할 수 있는 病棟과 事務室, 內科, 外科, 齒科, 放射線科, 眼科등의 診察, 治療室 및 手術室을 각각 마련하고 다음날 13일에 越南軍 醫療陣의 能力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外科 및 神經科 患者 14명을 引受받아 처음으로 治療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短時日內에 開院준비를 서두른 만큼 施設과 장비의 不足으로 허다한 隘路에 逢着하였으나 모든 難關을 克服하면서 卓越한 醫術을 發揮함과 아울러 誠心誠意를 다하여 奉仕하였으므로 同病院의 活動相은 곧 越南各地에 傳播되어 그 名聲은 漸次 높아갔다.

그리하여 韓國軍 및 越南軍 病者와 負傷兵은 두말할 것도 없고 一般民間人 患者도 治療하는 一方, VC의 負傷者에게까지 손을 뻗쳐 治療하는등 寬容과 慈悲를 베풀어 韓·越間의 友誼를 增進하고 紐帶를 強化하는데 적지않은 成果를 거두었다.

더군다나 비둘기部隊가 파월된 뒤에는 Di An市內와 隣接 戰略村에까지 隨時로 軍醫官을 巡訪시켜 對民 無料治療를 實施하였으며 다음해 3월 24일부터 團本部 醫務勤務隊에서 結成한 軍醫官 1명과 衛生兵 3명으로 된 對民診療班을 Di An에 常駐시켜 뛰어난 醫術솜씨와

아울러 精誠어린 奉仕로서 兩國間의 善隣의인 土黨를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에 따라 越南軍은 勿論이고 一般國民들까지 크게 感動하여 病勢의 輕重과 距離의 遠近을 가릴것 없이 患者가 每日같이 줄을 이어 물러드는 盛況을 이룸으로써 한국 軍醫官은 俗稱 「미이한 박사」(越南語의 한국醫師)로 日常話題에 오르내릴만큼 信賴와 존경을 받는 人氣上昇의 存在가 되었다.

그리하여 同병원이 1964년 10월 13일로부터 醫療활동을 開始한 이래 다음해 3월 末까지 實施한 治療人員은 都合 16,665명에 達하였으며 內容別 實績은 別表와 같다. [參照, 本章 末尾의 統計 (1)(2)]

## (2) 跆拳道 普及

제 1 移動外科病院과 함께 파월된 跆拳道教官團은 任務의 効率的 遂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信條를 設定하고 活動을 展開하였다.

(1) 우리는 跆拳道의 修練으로 心身을 鍊磨하여 反共의 礎石이 되자.

(2) 우리는 信義와 謙遜을 生命으로 相互團結하여 正義의 使徒가 되자.

以上과 같은 信條를 基調로 活動을 開始한 團은 派越直後인 23일에 주월 韓國大使館이 主催한 歡迎大會에서 最初의 示範을 通하여 그 妙技와 強靱한 精神力을 發揮함으로써 參觀한 越南政府요인들과 各外國使節, 그리고 數많은 市民들로부터 熱烈한 喝采를 받았다. 이어 26일에 越南軍 最高사령부에서 열린 韓·越 跆拳道 關係官회의에서 團의 基本계획에 關한 指針과 組編成에 따르는 配置지역 그밖에 段階別 教育과정을 비롯한 諸般사항을 決定하였다.

이에 따라 團은 Saigon을 中心으로 4개 組로 編成한 다음, 各各 配置되었는데 그 地域은 Thu Duc의 越南陸軍步兵學校, Dalat의 陸軍士官學校, Nha Trang의 海軍士官學校 그리고 Vung Tau의 幼年學校이며 各지역 單位로 실시하게 될 段階別 教育計劃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各組는 細部指導計劃을 作成하고 諸般준비를 갖춘 다음, 10월 19일 Thu Duc에 있는 越南육군步兵學校에서 申尙澈大使와 雷文煥團長, 그리고 越南軍대표와 跆拳道教官團 그밖에 많은 越南軍警과 跆拳道 志望生들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한 指導開始式을 거행하고 各組別로 任地에 赴任하였다.

과거 鍊武示範團(1959.3)의 파월에 이어 第1次 跆拳道教官團(1962.12)의 指導活動을 通

段 階	時 間	獲得可能級數	防禦能力
기 초 교 육	300	7 급	1 : 1 승리
제 2 단 계	600	5 급	2 : 3 승리
제 3 단 계	900	3 급	1 : 2 승리
제 4 단 계	1,000	1급 또는 초단	1 : 3 승리

하여 越南人들은 이미 한국跆拳道의 놀라운 妙技에 感動되어 당시부터 그 技倆을 익히려는 靑年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諸般事情으로 그 機會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此際에 敎官團의 派越이 알려지자 越南軍警과 一部 靑年들은 苦待하던 好機會를 맞이한듯 熱狂的으로 歡迎하였다.

특히 先天的으로 體質이 弱한 越南人들은 같은 東洋人인베도 그들보다 越等하게 강한 韓國人의 體力에 刺戟을 받아 體位의 向上을 위해서나 自己防衛를 위하여 跆拳道의 修練은 有益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越南軍 敎育總本部長은 跆拳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었다.

『軍人에게 있어서 肉體的인 鍛鍊보다는 精神的인 修鍊이 더욱 重要하며 그러한 見地에서 各軍은 모두가 跆拳道를 修習하여 健全한 精神力을 涵養하여야 한 것이며 跆拳道는 一種의 宗教의 信仰과 같은 것이다.』

以上과 같이 讚揚하면서 跆拳道의 修鍊을 勸奨할만큼 이들의 關心度는 매우 높았으며 더군다나 示範을 통하여 韓國人의 強靱한 體力과 神技와도 같은 妙術을 目擊한 뒤부터 이에 魅惑된 越南人들은 韓國人을 만나면 으레이 跆拳道가 몇段이냐고 묻는 것이 人事말처럼 常例化되었다.

아름다운 越南軍警과 靑年들의 歡迎裡에 指導활동이 점차로 軌道에 오르자 團은 직접적인 指導에만 그치지 않고 이의 土着化를 위하여 越南跆拳道협회(장, Phan Van Cuu 중령, 名譽 3段)를 發足시키고 技術的 助言과 심사, 그리고 鍊武試驗과 大會의 개최등을 支援하는 동시에 協會의 顧問役割을 통하여 跆拳道의 越南化에 많은 努力을 기울였다.

그런데 이 協會는 다음해 2월에 越南정부의 正式認可를 받아 合法的인 機能을 發揮할 수 있게 되었으나 協會委員들의 經驗不足과 未熟한 管理로 말미암아 한때 深刻한 運營難에 逢着하였다.

그러자 團은 後見者的인 從來의 立場에서 한걸음 前進하여 直接運營에 參與하는 등 積極

의인 管理지도에 盡力함으로써 마침내 協會의 基盤을 堅實하게 다져 놓았다.

이리하여 Saigon市內에 처음으로 1개의 民間道場이 新設됨을 契機로 다음해 2월초까지 5개의 道場이 增設되었으며, 그밖에 地方에서는 Dalat—Nha Trang—Vung Tau—Qui Nhon 등지에 각 1개씩 設置함으로써 全國에 都合 9개의 道場으로 擴大되었는데 團은 이의 效率的인 運營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週間に 1회씩 巡迴訪問하면서 技術指導에 계속 盡力하였다.

한편 團에서 育成한 越南경찰 所屬의 有段者 6명이 Saigon—Bien Hoa兩地의 警察局 教官으로 配置되어 活動함으로써 그들의 自立的 能力을 誇示하였으며 이밖에 Saigon大學을 비롯한 各高等學校에서도 教官團의 直接 指導를 要請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跆拳道를 修習하려는 熱意가 漸次 越南의 全地域에 波及될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해에 團의 指導로 所定の 教育過程을 마치고 排出된 人員은 軍人有段者 24명, 有級者 644명과 警察有段者 4명 및 有級者 4명 都合 676명으로 늘어났다.

### (3) 建設 支援

當面된 建設支援 가운데 急需을 要하는 것은 首都圈에 이르는 戰術道路신설 및 擴張工事を 비롯하여 各種 公共시설의 復舊와 對民建設공사이다. 따라서 團은 이 建設支援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그 基本指針을 첫째 團의 主力을 集中하며, 둘째 信賴性있고 堅固하게, 셋째 期日內의 完遂라는 세가지에 두고 陸軍제127野戰工兵대대 隸下 4개 중대와 海兵에서 配屬된 제1獨立工兵중대를 各各 專門 分野別로 分業化하여 제1, 제3 兩중대와 海兵제1獨立工兵중대를 土木工事に, 그리고 제2중대를 建設工事に 注力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工兵부대는 駐屯地에 도착하자 즉각 部隊防禦계획에 依據한 鐵條網架設과 陣地구축에 拍車를 加한 끝에 完工豫定日보다 앞당겨 3월 25일까지 마무리 함으로써 本營의인 作戰활동을 展開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와같이 早期에 自體 防禦障地 공사를 끝내었기 때문에 그이후 4월 2일에 있는 VC의 奇襲을 效果的으로 擊破할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4월 友邦軍代表로 구성된 國際軍事援助處(International Military Assistance Office = IMAO)가 8일에 Saigon에서 창설되어 構成國인 越南, 韓國, USA, 自由中國, THAILAND, PHILIPPINES, AUSTRALIA, NEW ZEALAND등 8개국의 軍代表가 이에 참가한데 이어 27일에 이 IMAO에서 最初로 韓·越·美의 工兵 關係官會議를 開催하고 援助團이 擔當할 工

事의 優先順位와 裝備의 補充문제를 協議한 結果 4월 1일부터 제 1차로 駐屯地와 Di An間을 連結하는 제 4번 A道路補修에 着手하기로 決定한 以外에 美軍側으로부터 “후론트로라” 1대, 撒水車 2대, 10ton “로라” 1대, 18“울로라” 1대, “담푸트럭” 8대를 支援받기로 合意를 보았는데 이 會議에 參席한 關係官은 다음과 같다

韓國軍側

作戰補佐官 金 淳 學 소령 (團本部)  
 通譯장교 安 和 善 소령 (IMAO派遣)  
 作戰장교 金 永 麟 소령 (工兵대대)

美軍側

國際軍事援助處 美軍側派遣 工兵장교

越南軍側

陸軍工兵次監(대령)  
 國際軍事援助處 越南軍側 派遣장교

그런데 支援키로 合意된 裝備中 一部는 3월末까지 引受하여 4월 1일부터의 工事に 투입되었으며 工兵부대는 이 工事を 嚆矢로 活動을 開始한 以來 다음해 3월末까지 都合 27件的의 工事を 推進하였는데 期間中の 月別實績은 다음과 같다.

4월 : 지난 3월 30일 10.00에 Saigon에 있는 美大使館앞에서 VC-黨이 爆彈 20~25l/b를 폭과하여 16명의 死亡者와 163명의 負傷者를 내게 하자 團은 警備態勢를 強化하는 한편, 제127野戰工兵대대(장, 姜俊彦 중령) 제 1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1일부터 最初의 工事인 제 4번 A道路 補修에 着手하였다.

駐屯地로부터 Di An에 이르는 全長 2.5km의 道路를 幅 7.2m로 擴張보수하는 이 工事は 派越直後의 團現況을 視察次 매마침 訪越한 金聖恩 國防部長官 一行과 申尙澈大使 및 파월美軍司令官 Westmorland大將, 그리고 越南軍參謀副長 및 Di An郡守와 曹文煥團長 그밖에 많은 郡民들이 參席한 가운데 이날 10.00에 起工式을 舉行함으로써 그 序幕을 올렸던 것이다.

한편 式을 마치고 施工의 첫손을 내기에 앞서 工兵대대장 姜俊彦 중령은 各중대장을 召集하여 指示하기를 『工事中에 언제 敵의 奇襲이 있을지 豫測할 수 없으니 作業中에도 恒常 警戒에 注力하여 즉각 戰鬪態세로 轉換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強調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深夜에 駐屯地에 대한 VC의 첫 奇襲이 恣行되자 그 다음날부터 曹團長의



Di An에 開所한 診療所에 患者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고 있다.

特命으로 部隊의 防禦 陣營을 全面的으로 再調整하게 되어 各중대의 幕舍를 分散 再配置하는 同時에 防禦진지도 새로이 補強하기 위한 作業이 10餘日間에 걸쳐 強行되었다.

이에 따라 1일에 着工한 道路補修는 一旦 中斷되었다가 12일부터 다시 續行된 끝에 30일에 마무리하고 이날 10.00에 數 많은 内外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最初의 竣工式을 舉行함으로써 韓國工兵의 솜씨를 誇示하였는데 이 工事に 延人員 367명과 裝備로서 “담푸트럭” 27대, “로라” 13대, 3/4ton “트럭” 6대, “크레인” 12대, “부르도저” 17대, “구레이다” 20대를 動員하였다.

한편 제 1 중대를 除外한 其他중대는 防禦진지 前面의 視界청소를 위하여 7일부터 19일까지 延 416명을 投入하였으며 또한 鐵條網 架設을 위하여 16일부터 26일까지 延 150명을, 地雷埋設을 위하여 26일부터 29일까지 延 30명을, 差出한 以外에 狀況室구축과 鐵道廳의 進入路 補修에 延 410명을, 그리고 Dong An마을의 民家補修를 위하여 延 200명을 動員하는 등 파월 첫달에 적지 않은 實績을 남겼다.

한편 團團長은 訪越中인 國防部長官으로부터 主월 韓國大使館의 警備임무를 海兵工兵중

대에 附與하라는 指示를 받고 同중대장 朴東奎소령에게 『15일부터 1개분대를 大使館에 派遣하여 警備任務를 擔當케 하라』고 命令하고 다음과 같이 強調하였다.

『Saigon에는 世界各國의 使節들과 友邦軍의 指揮本부가 集結하고 있으므로 한국군의 一舉 一動을 注目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美大使館이 VC에 依하여 복과된 慘事가 있었던만큼 韓國大 使館도 언젠가 그들의 奇襲을 받을지 豫측할 수 없다.

따라서 恒常 強靱한 精神과 철통같은 警戒태세를 갖추고 禮節에 밝은 行動으로 勤務에 充實함으로 써 우리의 威容을 誇示하도록 派遣되는 隊員들에게 制式訓練과 禮節, 그리고 突發事態에 대비한 즉각 處置능력을 철저하게 教育시켜 派遣하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指示를 받은 朴東奎소령은 警備兵들의 責務가 重大함에 비추어 그 人員選拔에 있어서 (1) 身長이 165cm 以上이고 (2) 體格이 健壯하며 (3) 容貌가 端正하고 (4) 霸氣가 旺盛하며 (5)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者에 基準을 두고 嚴選한 다음 制式과 禮節, 그리고 突發事態下의 即刻處置사항에 대한 教育訓練을 10餘日間에 걸쳐 實施하고 1개분대를 派遣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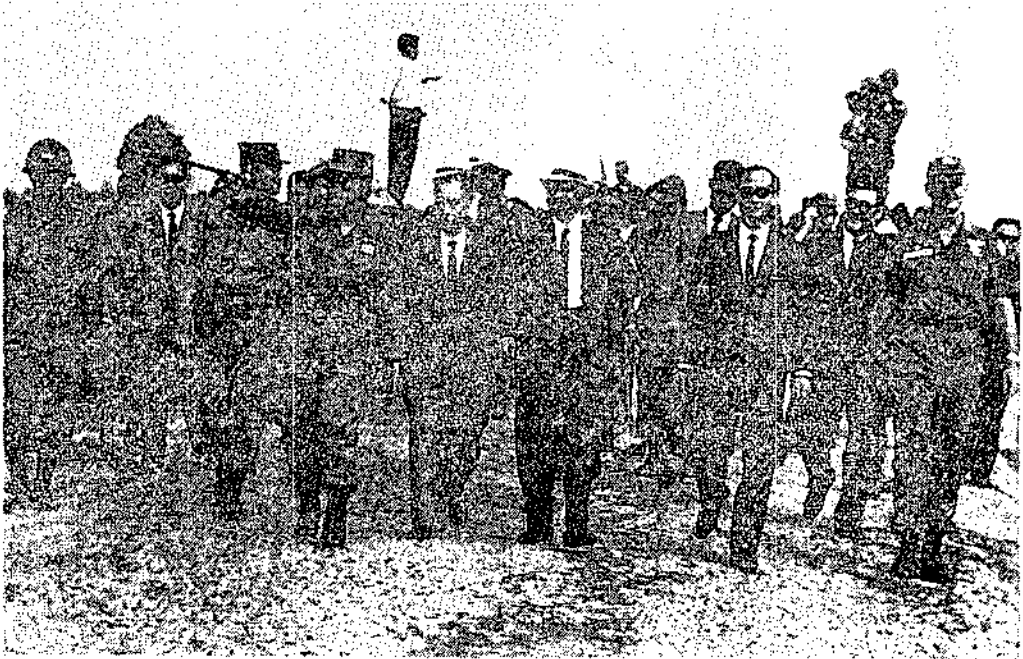
그런데 派遣된 이들의 精神姿勢와 勤務態度, 그리고 步哨의 正式交代 節次등 全般에 걸쳐 模範적이기 때문에 申尙澈大使는 「처음으로 진짜 軍隊를 보았다」라고 讚揚하였으며, 또 한 韓國大使館앞을 通行하는 越南人들과 外國人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正門哨所의 海兵警備兵들의 一舉一動을 求景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佛像처럼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 毅然하고 節度있는 動作에 感嘆할만큼 이들에 대한 好評이 藉藉하게 傳播되었다.

5월 : 제 1 중대는 4일부터 제 2 차로 제 3 번 道路上的 老朽橋梁을 “콩크리트”로 改造하기 위한 工事に 着手하였다. 길이 21m, 幅 8m인 이 橋梁은 6월 中旬에 完工할 豫定으로 이달 중 64%의 進捗을 보였다.

제 3 중대(장, 崔成日 대위)는 6월 下旬의 完工을 目標로 10일부터 길이 38m, 幅 10m의 木造橋梁을 “콩크리트”로 改修하는 工事を 施工하였으며 이달중에 50%의 工程을 마쳤다. 또한 同중대는 이와 並行하여 14일부터 全長 8km, 路幅 10m의 제 3 번 道路補修에 손대기 시작하였는데 9월 中旬에 마무리할 計劃인 이 工事は 路面에 깔기 위한 紅土를 駐屯地로부터 20餘km 떨어진 敵情이 活潑한 Saigon江口의 採土場에서 運搬하여야 하는 難工事이기는 하나 중대는 꾸준히 作業을 進行시켜 이달末 現在 18%의 進捗을 보였다.

海兵제 1 독립공병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10일부터 제 1 차로 제 19 번 道路補修를 開始하였는데 戰術道路로서 重要視되는 이 道路中에서 4.5km의 區間을 幅 8m로 擴張하는데 所要되는 紅土를 20km 距離의 採土場에서 危險을 무릅쓰고 搬入하는 등 隘路를 무릅쓰고 65%





李孝祥 議長, 申尙澈 大使, Westmorland大將이 땀눈장의 案內로 開通 “테이프”를 끊고 다리를 通過하고 있다.

의 實績을 보였다.

6월 :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지난달 4일에 着手한 제 3번 道路上의 橋梁工事を 계속 推進中 16일에 파월美軍司令官 Westmorland大將이 曹團長의 案內로 作業現場을 視察하였으며 그뒤 加一層 拍事를 加함으로써 着工한지 50일만인 23일에 드디어 完成하였다.

따라서 비둘기部隊가 騰物하는 最初의 橋梁을 뜻있게 記念하기 위하여 「비둘기橋」로 命名하고 다음날 24일에 竣工式을 舉行하였는데 이 式典에는 때마침 訪越한 李孝祥 國會議長을 비롯하여 申尙澈大使와 曹文煥團長 그밖에 美·越 兩軍의 高位將星과 Di An郡守등 많은 内外入士가 參席하여 開通 “테이프”를 끊었다.

또한 同중대는 이 工事後 並行하여 14일부터 제 3번 道路上의 老朽교량을 길이 9m이고 幅 6m의 “콘크리트”로 改修하는 工事を 開始하였는데 이는 다음달 下旬에 完成할 예정으로 이달중에 27.5%의 進陞을 보였으며 29일부터는 同道路의 暗渠工事を 동시에 併進시켜 다음달 初旬의 完成을 目標로 이달末 현재 6%의 實績을 올렸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첫 對民支援으로써 Bien Try學校의 2개教室 新築工事を

14일부터 着手하였으며 다음달 下旬頃에 매듭지를 計劃으로 이달중 44.9%의 工程을 進陟시켰다.

제3중대(장, 崔成日 대위)는 지난달 10일에 着工한 제3번道路上的 老朽교량을 길이 38m이고 幅 10m의 “콩크리트”로 代替하기 위한 工事を 그동안 꾸준히 추진 끝에 24일에 完了하였다. 비둘기橋에 이어 「大韓橋」로 命名한 이 橋梁의 竣工式은 24일에 現地에서 舉行되었는데 이 式典에는 李孝祥 國會議長을 비롯한 內外人士와 隣近住民들이 참석하여 開通의 祝意를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이 橋梁이 完成되기까지 延 1,898명의 人員과 “담푸트럭” 411대, “부르도저” 6대 “콤부렛샤” 22대, “크레인” 10대 등 裝備를 投入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14일에 着手한 全長 8km, 幅 10m의 同道路補修工事を 그동안 橋梁改修와 더불어 併進시켜 이달末 現在 35%의 進度를 보였다.

海兵제1獨立工兵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지난 5월 10일에 施工한 제19번 道路의 4.5km 區間을 幅 7m, 두께 20cm의 紅土로 擴張補修하기 위하여 20km의 採土場에서 운반하는데도 그동안 끈기있게 推進끝에 16일에 完結되었으며 이에 延 1,052명의 兵力과 “담푸트럭”을 비롯한 名種 裝備 429대를 使用하였다. 또한 同중대는 제 6,8번 兩道路에 대한 5km區間的 盛土작업을 17일에 始作하였는데 특히 제 8번 道路는 3km에 達하는 울창한 密林地대와 고무나무밭을 鋳어야하는 難工事인데다가 敵情 판단에 依하면 VC 1개대대의 蟬踞地로 알려진 中央지대를 通過하여야 하는 危險度가 높은 工事이므로 隊員들은 萬반의 警戒態勢下에서 作業을 進行시켜 이달末 現在 21%의 實績을 올렸다.

이밖에도 同중대는 駐屯地의 예비指揮所를 建立하기 위하여 18~23일까지 延 99명의 人員과 “콤부렛샤”를 비롯한 8대의 裝備를 動員하였다.

7월 : 曹文煥團長은 1일에 工兵대대장에게 부대의 保安에 支障을 미치고 있는 駐屯地周邊의 密林을 81mm迫擊砲의 有効射程거리 밖에까지 除去할 것을 目標로 「伐木작업」을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5일附로 제 2대 工兵대대장으로 赴任한 吳炳珠 中령은 具體的인 作業計劃을 수립하고 各중대로 하여금 2일부터 28일까지 實施할 것을 示달하였다.

지금까지 部隊 주변의 密林을 除去하기 위하여 枯葉劑를 公중撒布하거나 불을 질러 燒却하였으나 이로 因하여 農作物(고무나무)에 被害로 중으로써 草大한 補償金을 支拂하여야 하는데 그 엄청난 金額(3年生 한그루의 時價는 越南貨 4,000 piastar, 韓貨 8,000원임)을 勘當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兵力과 裝備를 動員하여 密林을 除去하는 作業을 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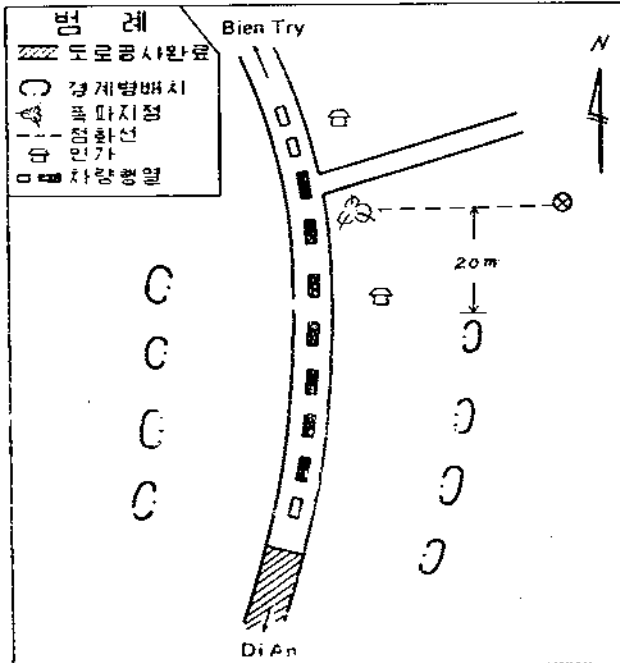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이렇게 部隊周邊의 密林을 모조리 除去하자 我軍진지의 前方 200m 地點까지 VC들이 과  
놓은 땅굴이 여기저기에 露出되었으며 그 땅굴 속에는 炊事道具를 비롯한 사격練習用 標的  
등 各種裝備가 있는가 하면 땅굴 周邊에는 無數한 地雷가 埋設되어 있음이 確認되었다.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지난달 14일에 始作한 길이 9m이고 幅 6m의 「아리랑橋」를  
延 1,394명의 人員과 “담푸트럭” 111대, “카고” 34대, “콤푸렛샤” 12대, “크레인” 2대 등  
裝備를 使用끝에 20일에 完成하였으며 또한 지난 29일에 並行착수한 제 3번 道路의 暗渠  
工事に 延 82명의 人員과 裝備 5대를 投入하여 이달 5일에 完結되었다. 이어 제 4번 A 道路  
의 暗渠工事を 19일에 開始하여 24일에 完了하였는데 直徑 60cm, 길이 7m의 이 작업에 延  
人員 166명과 裝備 10대를 投入하였으며 그밖에 같은 期間에 駐屯地의 整備庫 2棟을 鐵板  
지붕과 內部木造로 補修하는데 延 162명과 “담푸트럭” 5대를 動員하여 매듭을 지었다.

제 2 중대는 지난 14일에 施工한 Bien Try 學校의 工事場을 向하여 2일 07.50에 部隊를 出  
發한 다음, 駐屯地로부터 東北方으로 2.2km地點을 車輛行軍中 경비 1개소대의 搭승車輛이  
通過하고 이어 中隊長 金在基 대위 以下 5명이 同乘한 指揮車가 지나갈 刹那에 VC이 미리

狀況圖 제 5 호 地雷爆發地點 略圖



架設한 電氣式 雷管 TNT 20l/b  
의 地雷가 폭발하여 중대장 이하  
5명이 輕傷을 입었다.

그러나 중대는 이러한 가운데  
서도 作業을 續行하여 마침내 24  
일에 完結짓고 學校當局에 移讓  
하자 郡守를 비롯한 學校教職員  
과 兒童들은 太極旗를 흔들며 隊  
員들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였다.  
그런데 이 工事에는 그동안 延 2,  
244명의 兵力과 “담푸트럭” 140  
대, “믹사” 2대, “부르도저” 6대  
“콤푸렛샤” 6대가 投入되었다.

제 3 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지난 5월 4일에 시작한 제 3번 道

路의 擴張補修를 계속하여 67.8%의 進度를 보였다.

해병제 1 독립공병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지난 17일에 施工하기 시작한 全長 3km의 제 6 및 제 8 번 道路補修를 계속 推進함으로써 이달末 現在 80%의 實績을 올리고 한편, 2일부터 28일까지 部隊周邊에 있는 3.2km<sup>2</sup>의 密林을 除去하기 위한 「伐木작업」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12일 낮 點心時間에 警戒兵을 제외하고 各소대 別로 一定한 場所에서 取食中 갑자기 “부르도저”가 位置한데서 요란한 爆음이 들렸다. 이때 中隊長 朴東奎소령은 즉각 各小隊를 散開시켜 戰鬥隊形을 갖추게 한 다음, 3명의 斥候組를 派遣하여 現場을 경찰수색케 한 結果 VC들이 나무가지에 裝置한 “부비트랩”의 一部 引繼線이 눈에 띄지 않은채 “부르도저”에 걸터 있다가 마람으로 나무가 흔들리는 瞬間, 폭발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반약에 點心時間이 좀더 늦었더라면 그 附近에서 作業하고 있던 兵力이 死傷을 입었을 것이 分明하였으나 奇蹟적으로 危機를 免한 셈이었다. 이날 제 2소대는 作業中인 15.20에 密林속에서 길이 2.3m이고 直徑이 16cm인 비단 구렁이(越南語로 “뽕나”라고 하며 約 150歲로 推定된다고 함)를 사로잡아 서울昌慶苑에 寄贈하였다.

8월 :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해병제 1 獨立工兵중대(장, 朴東奎소령)와 合同으로 13일부터 제 2 번 道路補修를 開始하였는데 年末에 完成豫定인 이 工事は 幅 10m, 길이 7km의 區間을 두께 23cm의 紅土와 자갈 15cm로 鋪裝하는 것으로 이달중 延 1,291명의 兵力과 各種裝備 163대를 投入하여 25%의 實績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26일에 越南의 國家元首인 國家指導委員會 Tieu議長이 2명의 隨行員을 帶同하고 部隊를 訪問하였다가 曹團長의 案内로 工事場에 들러 作業中의 工兵들을 慰勞激動 하였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Di An國民學校의 一部가 不意의 火災로 燒失되어 深刻한 教室難에 허덕이고 있다는 實情을 알게 되자 2개 教室을 新築하기로 決定하고 2일부터 이 에 着手하여 延兵力 422명과 “담푸트럭” 32대, “카고” 1대, 3/4ton “트럭” 15대 등 重裝備를 動員함으로써 20일에 마침내 完成하고 學校當局에 移讓하였다.

또한 同중대는 이와 並行하여 2일부터 駐屯地의 倉庫 4 동과 出入門 48개 및 窓門 40개, 그밖에 建物の 지붕改修에 着手하여 이달중에 91%의 實績을 올리는 한편 Di An公設運動場에 어린이 놀이터를 附設하기로 決定하고 20일부터 이 工事を 시작하였다. 다음달 下旬에 매듭지을 豫定인 이 놀이터에는 “씨소” 5개, 쌍그네 4개, 외그네 5개, 休息所 1개, 미끄럼대 2대 등 越南에서는 보기드문 多彩로운 施設을 갖추게 될 이 工事は 56.9%의 進歩를 보였다.

또 同중대는 Di An病院의 擴張工事와 아울러 給水 “탱크” 및 排水管시설을 30일부터 施工하였는데 다음달 下旬에 完了할 計劃으로 이달末 現在 5%의 實績을 나타내었다.

제 3 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지난 5월 4일에 着工한 제 3 번 道路의 補修작업을 그동안 自力取得이 如意치 못하여 거의 中斷하였다가 이달부터 다시 續行中 6일 15.00에 道路의 左側方에 있는 密林속에 潛伏한 VC으로부터 狙撃을 받아 金宗龍하사가 現場에서 戰死하였다

海兵제 1 獨立工兵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지난 6월 17일에 開始한 全長 3km의 제 6, 제 8 兩道路의 補修를 11일에 마무리하고 이날 開通式을 舉行하였는데 그동안 延人員 1,870명과 “담푸트릭” 389대, “구레이다” 30대, “크레인” 30대, “로라” 15대를 投入하였으며, 이로써 同중대는 派越이래 두번째의 戰術道路를 補修한 實績을 올린 것이다.

한편 16일 08.00에 工事兵力을 引率하고 駐屯地를 出發하여 平常時와 같이 作業場을 向하던 中隊長 朴東奎소령은 갑자기 不吉한 豫感이 들어 地雷除去작업도 하지 않은 다른 路로 行路를 바꾸었다.

이때 VC들은 그 전날밤에 同中隊가 늘 다니던 通路兩側에 “크레모아” 地雷 2개를 埋設하고 이날 아침에 通過하기를 待機中이었으나 朴東奎소령은 이와같은 敵의 陷穽이 있을것 같은 豫感を 느끼고 側面으로 迂回하는 通路를 따라가면서 銳意 觀察한 結果 VC들이 은폐한 채로 同중대의 通過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目擊하였다. 그러자 中隊長은 즉각 中대를 三面으로 散開시킨 다음, 集中射撃을 加하니 豫期치 않게 逆襲을 當한 VC들은 密林속의 撤收路를 따라 慌급히 退避하므로 그들의 潛伏地點을 덮쳐 若干의 裝備와 手榴彈 5발을 노획하는 한편 周邊일대를 探索끝에 埋設된 對人地雷 6개를 除去하였는데 만약 同중대가 平常時의 道路로 行軍하였더라면 數 10명의 死傷者가 發生하였음이 分明하였다.

그러나 中隊長의 銳敏한 戰術感覺과 狀況判斷으로 이들 未然에 防止하였을 뿐 아니라 敵의 企圖를 事前에 暴露시켜 그들을 窮地에 몰아 넣음으로써 潛伏의 庸劣性을 自覺케 한 反面에 狀況의 變化에 따라 當意即妙의 方略을 즉각 斷行하는 我軍의 優秀性을 誇示하였다.

한편 同중대는 駐留地 주변의 울창한 “정글”과 그 奧地에 VC이 構築한 것으로 推定되는 潛據地를 拔本하기 위한 視界清掃 작업을 이달중에 竣進시키는 一方, 13일부터 제 1 중대와 合同하여 새로이 제 2 번 道路보수에 着手하였으며, 또한 17일에는 正門앞과 營內의 道路보수에, 그리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中대의 前方 450m에 竹槍을 설치하기 위한 工事を 推進하는 등 防禦陣地의 補完과 支援工事を 아울러 進行시켰다.

9월 : 대대장 吳秉珠 중령은 1일 各중대가 作業場에 出動하기 直前인 07.00에 全장병에게

달하기를 『派越이때 우리 大隊에서 2명의 戰死者를 내었는데 그 要因은 敵의 “부비트랩”에 依한 것이다. 敵은 앞으로도 이러한 奸巧한 方法으로서 我軍의 損失을 強要할 것으로 豫測되니 作業現場에서의 行動은 勿論이고 특히 作業場에 進入하기까지 萬般의 警戒 태세를 갖추고 不意의 事態에 對備하라』고 強調하였다. 이에 따라 各중대장은 隸下 各소대장에게 敵의 “부비트랩”에 對備한 예비知識과 除去方法에 關한 要領을 機會教育을 통하여 소대원에게 徹底하게 周知시키는 데에 注力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해병제 1 독립공병중대와 合同으로 지난 13일에 시작한 제 2 번 道路工事に 이달末 現在 延人員 3,622명과 各種장비 351대를 投入하여 26.5%의 進도를 보였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지난달 2일에 開始한 Di An 어린이 놀이터와 30일에 着手한 病院補修를 마무리하고 22일 10.00에 各各 竣工式을 거행하였는데 이 式典에 團長을 비롯하여 Di An郡守 및 病院長과 美·越 兩軍의 關係官 그밖에 많은 郡民들이 參席하여 開場 “테이프”를 끊었다.

그런데 岡놀이터에는 “씨소”, 쌍그네, 외그네, 休息所, 미끄럼대, 율타리, 國旗揭揚臺, 평행봉, 鐵棒臺, 씨름장, 변소, 正門 “아취”등 多彩로운 娛樂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開場 첫날부터 어린이들의 人氣를 독차지하였는데 50일만에 完成한 이 工事に 延人員 628명과 各種裝備 56대가 投入되었다. 또한 病院은 建物の 補修에 그치지 않고 給水 탱크와 上水道시설을 併設함으로써 近代式 面貌를 갖추게 되었으며 21일만에 매듭지은 이 工事에는 延人員 520명과 裝備 41대가 投入되었다.

또한 同중대는 Binh Dinh省 Lai Thieu에 2개 病院을 新築키로 하고 20일 동시에 着手하였으며 11월의 竣工을 目標로 이달末 현재 18%와 22.2%의 進도를 보였다.

한편 同중대는 Lai Thieu國民學校 當局으로부터 教室의 增築을 要請 받고 2일부터 이 工事を 推進함으로써 이달末 現在 17.3%의 實績을 올리는등 지난 어느달 보다도 눈부신 活動을 展開하였다.

제 3 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지난 5월 4일부터 계속 推進한 全長 8km의 제 3 번 道路擴張공사를 이달末 現在 延人員 7,679명과 各種장비 2,320대를 動員하여 81.85%의 進도를 보였는데 이는 年內에 完工할 예정이었다. 또한 同중대는 戰略村 事務室 건축공사를 20일부터 着手하여 이달중 延人員 271명을 動員하고 裝備 19대를 使用함으로써 37.53%의 進歩를 보였으며 같은날 또 하나의 Lai Thieu 국민학교 新築工事に 着手하여 이달중 13.93%의 工程

을 마쳤다.

해병제 1 독립공병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지난달 13일에 제 1 중대와 합동으로 착공한 제 2 번 道路補修를 이달중 26.05% 進展시켰으며 年內에 開通시킬 예정인 이 工事는 7km를 補修하는만큼 次後의 交通에 크게 活用될 것으로 보였다. 이밖에도 同중대는 營內의 道路補修를 걸드려 進行시키는 한편 부대前方의 視界淸掃를 위하여 40명의 兵力과 重裝備 13대를 投入하였다.

**10월** :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海兵제 1 독립공병중대와 共同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着工한 全長 7km의 제 2 번 道路工事を 現地사정으로 17일부터 中斷하였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지난달 20일부터 施工하기 시작한 Binh Dinh省 Lai Thieu 病院 2개소의 新築공사를 이달末까지 계속 竝進시켜 각각 80%와 70%의 進度를 보였으며 또한 같은날 착수한 Lai Thieu國民學校 2개教室의 新築工事도 이달末까지 70%의 工程을 마쳤다.

또 同중대는 이와 竝行하여 Bung學校의 4개教室을 新築기로 決定하고 11일부터 施工하였으며 이는 3월初에 完成할 計劃이었다.

제 3 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지난 5월 4일에 着工한 이래 계속 推進한 全長 8km의 제 3 번 道路補修를 이달 29일에 完工하고 30일 10.00에 峇團長을 비롯한 美·越 兩軍의 高位將星 및 Di An郡守등 内外人士와 그밖에 많은 郡民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通式을 거행하였다.

約 6개월間에 걸쳐 끈기 있게 進行시킨 이 工事に 그동안 延人員 4,879명과 “담푸트력” 403대, “부르도저” 165, “구래이다” 38대, “로라” 26대, “폼푸렛샤” 4대등 重裝備를 投入하였으며 이 道路와 連結된 3개의 老朽교량을 「비둘기橋」, 「大韓橋」, 「아리랑橋」등 새로운 “콩크리트” 橋梁으로 改修한데다가 이제 道路마저 말끔히 補修되자 開通첫날부터 이를 利用하는 運行車輛의 往來가 頻繁하였다.

또한 同중대는 지난달 20일에 開始한 Lai Thieu國民學校의 新築공사와 아울러 같은날 竝行하기 시작한 Lai Thieu戰略村 사무실의 新築工事を 이달중에도 繼續하는 한편 27일부터 또 하나의 戰略村사무실 新築에 着工하였다.

그런데 이 戰略村은 越南정부의 村落再建計劃에 따라 지난 4월이래 強力히 推進한 政策의인 課業으로서 그 主目標은 積極적인 社會 및 經濟開發계획을 통하여 國民의 絶對的인 支持를 획득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이 戰略村을 確保함으로써 첫째 VC의 軍事力을 制壓하고, 둘째 社會, 經濟, 政治的 土臺를 구축하여 地域內에 있는 VC의 殘存勢力을 剔抉하며,

세계 民兵隊를 主軸으로 村落을 防護하는 동시에 政府의 統治權을 恢復시켜 國立警察에 依한 治安을 確立유지하고, 北越 VC의 統治지역을 政府의 統治지역으로 轉換시키는 것으로 이 戰略村에 대한 支援은 緊要한 意味를 지니는 것이다.

해병제 1 독립공병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제 1 중대와 合同으로 推進中인 全長 7km의 제 2 번 道路공사를 現地事情으로 7 일부터 中斷한 反面에 지난달 27일부터 부대周邊의 視界 淸掃를 위하여 開始한 “정글” 除去작업을 꾸준히 續行하여 7일에 마무리 하였다.

또한 同중대는 지난 5~6월에 제19번 道路의 一部區間을 補修한바 있었는데 이달 11일부터는 그 나머지 區間에 대한 補修를 始作하는 동시에 지난 6,7,8월에 補修한 제 8 번 道路의 一部區間도 並行키로 하고 11일부터 이에 着工하였다.

한편 중대장 朴東奎 소령은 그동안의 功績을 높이 評價받아 25일에 曹文煥 團長으로부터 國務總理의 表彰狀을 받았다.

11월 :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海兵제 1 독립공병중대와 協同하여 8월 13일부터 推進한 全長 7km의 제 2 번 道路공사를 지난 10월 7일에 現地사정으로 中斷하였다가 이달부터 再次 進行시켰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9월 2일에 착공한 Binh Dinh省 Lai Thieu病院 2棟의 신축 工事를 9일에 完了하고 10일 現지에서 竣工式을 거행하였다.

6개 病室과 其他시설을 갖춘 이 2棟의 病院신축에 그동안 延 2,014명의 兵力과 “담푸트릭” 119대, “막사” 2대등 많은 裝備를 動員끝에 드디어 完成하였는데 10,40부터 病院 앞뜰에서 舉行된 竣工式에는 매마침 訪越中인 陸軍參謀總長 金容培大將을 비롯하여 國際軍事援助處 議長인 Tran Ngoc Tam少將과 曹文煥團長, 그리고 李澤根 주월 韓國公使와 Di An郡守 등 많은 内外人士와 郡民들이 參席하였다.

人口 30,000명에 不過하면서도 Di An보다도 富村인 Lai Thieu에 처음으로 現代式 施設을 갖춘 2개의 病院이 한국군에 依하여 동시에 竣工된만큼 마을全體가 온통 祝祭의 霧圍氣로 들떠 있었으며 同病院의 産婆役을 遂行한 제 2 중대원들에게 越南人들은 진심으로 感謝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 보였다.

式典에 參席한 金容培大將은 祝辭를 통하여 『韓國軍이 세워놓은 이 아담한 診療所가 Lai Thieu 住民들에게 길이 길이 有益하게 利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자 場內의 越南人들은 일제히 拍手을 보내며 이에 呼應하였다. 또한 國際軍事援助處 議長인 Tran Ngoc Tam소장은 韓國工兵의 功勞를 致賀하며 作戰補佐官 金淳學소령 外 25명의 有功장병 가슴에 越南정부가 授與하



는 名譽勳章을 달아 주었다.

또한 曹文煥團長은 지난 10월 1일附로 제 2대 病院長으로 就任한 宋益薰중령에게 指示하여 Di An病院에 이어 제 2의 民間診療所가 된 同病院에 軍醫官 1명과 衛生兵 3명을 固定 배치하여 對民診療에 힘쓰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同중대는 같은날 施工하기 시작한 Lai Thieu國民學校 2개教室을 이달 24일에 마무리하고 25일 10.00에 同校의 校庭에서 韓·越 兩軍의 關係官과 教職員 및 生徒들이 참석한 가운데 竣工式을 거행하였으며 이 工事を 위하여 그동안 延人員 1,111명과 “담푸트럭” 52대, “빅사” 3대 등 重裝備를 投入하였다.

또한 同중대는 지난달 11일에 착수한 Bung學校의 4개教室 新築工事に 이달중에도 꾸준히 힘을 기울여 많은 進展을 보였다.

제 3중대(장, 嚴讚鎭 대위)는 제 2중대가 착공한 Lai Thieu國民學校의 教室 新築工事와 步調를 같이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또 하나의 Lai Thieu國民學校 1개棟을 着工한 이래 50일만인 9일에 完成하고 다음날 10.00에 竣工式을 올렸다.

60명의 學生을 收容할 수 있는 教室 2개를 新築하는데 그동안 延人員 902명과 各種의 重裝備 56대를 動員하였으며 이어 29일부터 “An Binh Tanh”學校의 教室 2개를 新築하기로 作定하고 이에 着手하였는데 이 教室도 60명을 收容할 수 있는 規模로서 다음해 2월에 竣工 예정이었다.

또한 同중대는 지난달 27일에 施工하기 시작한 Lai Thieu戰略村의 事務室 建立에 延 735명의 兵力과 裝備 33대를 使用한 끝에 25일에 竣工式을 거행하였는데 越南政府가 戰略村에 대한 支援을 政策的으로 重視하는데 步調를 맞추어 團이 自發的인 支援의 손길을 펼쳐 事務室을 建立하자 政府當局은 흐뭇한 反應을 보였다.

海兵계 1 獨立工兵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제 1중대와의 共同작업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着工한 以後에 現地사정으로 잠시 中斷하였다가 지난달 中旬부터 제차 손을 댈 제 2번 道路工事を 이달중에 계속 推進하여 많은 進展을 보였다.

그런데 이 工事に 所要되는 紅土를 부대로부터 20km 떨어진 Saigon江口의 採土場에서 搬入하기 위하여 7일에 金基濤하사와 鄭載鎬명장이 現地에 差出되어 作業中 17.30에 VC 7명으로부터 急襲을 받고 彼我間에 交戰이 벌어졌다.

이때 敵彈이 巧妙하게도 金下士의 허리에 찬 手榴彈에 命中하였으나 手榴彈은 폭발하지 않고 하아얀 煙氣만 내뿜자 金하사는 재빠른 動作으로 手榴彈을 내던져 폭발시켰다.

實로 危機一髮의 刹那였으나 金하사의 瞬發的인 조치로 九死一生하게 된 셈이었다.

그런데 通例에 비추어볼 때 銃彈이 手榴彈에 命中하면 그 瞬間에 폭발하기 쉬우므로 그 는 어쩔수 없이 爆死하였을 것이며, 設或 手榴彈에 命中하지 않았더라도 허리 部分을 貫通 했을 것이 分明한 理致인즉 이야말로 天佑神助의 奇蹟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同중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제17번 道路의 一部 區間工事와 같은날부터 竝行 한 제8번 道路補修를 모두 매듭지어 제9번 道路는 5일에, 제8번 道路는 11일에 각각 竣工式을 거행하는 한편 8일부터 3일간 戰略村의 民間家屋 4棟을 아울러 補修하였다.

**12월** : 제1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이달 중에도 海兵제1 獨立工兵 중대와 더불어 제2번 道路補修를 계속 推進하였다.

제2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18일부터 Dong Hoa에 있는 Catholic教 信徒들의 與望에 따라 派越後 처음으로 教會堂을 新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起工하였는데 150餘名을 收容할 수 있는 규모에 傳統的인 Catholic教의 建築樣式을 考慮하여 設計된 이 教會堂은 다음해 1월 中旬에 完成할 豫定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 信徒들은 教會堂이 없어서 天幕속에서 禮拜를 보아왔으나 이제 所望의 教會堂을 建立하기 시작하자 벌써부터 큰 期待를 걸고 竣工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또 同중대는 繼續공사인 Bung學校의 4개 教室도 아울러 竝行시켜 이달末 현재로 48%의 進度를 나타내었다.

제3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지난달 29일에 착공한 An Binh Tanh學校의 2개 教室공사를 이달에도 續行함으로써 42%의 工程을 進陟시켰는데 Lai Thieu로부터 西北쪽으로 2km에 있는 이 學校공사는 다음해 2월에 매듭지을 計劃이었다.

海兵제1 獨立工兵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제1중대와 더불어 지난 8월 13일 이래 續行한 제2번 道路보수를 이달중 꾸준히 推進하는 한편, 대대의 附屬建物과 목욕탕 및 鐵條網을 架設하고 이밖에도 民家1棟을 지어 제공하는 등 對民支援에 적극 寄與함으로써 이해의 歲暮를 뜻있게 마무리 하였다.

**1966년 1월** : 새해를 맞아 대대장 吳秉珠중령은 이해의 基本計劃을 樹立하는 한편 韓·美·越軍間의 協調사항을 討議하기 위하여 13일 15.00부터 國際軍事援助處(IMAO)에서 개최된 關係官會議에 參席하여 主要事項을 決議하였으며 參席者와 討議要旨 및 決議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參席者

## 韓國軍側

파월韓國軍司令部 작전참모	중령 姜 炳 會
建設支援團 作戰참모	중령 康 哲
제127野戰工兵대대장	중령 吳 秉 珠
제127野戰工兵대대 作戰장교	소령 金 永 麟
通譯장교(제101警備대대에서 派遣)	소령 李 英 燮

## 越南軍側

國際軍事援助處(IMAO)	중령 Song
同	대위 Lai
建設支援團파견 連絡장교	소령 Khu
越南軍 最高司令部	대위 Su
同	중위 Son
同	소위 Nguyen

## 美軍側

國際軍事援助處	중령 Cope
---------	---------

## 2. 討議 요지

- 가. 1966년도 支援事業은 戰略村 건설에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며,  
 나. Bien Hoa北方의 工事는 距離와 警戒문제로 再考하여야 할 것이며,  
 다. 道路공사를 위한 撒水車 2대를 韓國軍側에 支援할 것이며,  
 라. 이해의 全工事지역에 대한 偵察과 警戒는 韓國軍側이 擔當하되 工事場에의 案內는 越南側이 擔當할 것이다.  
 마. 지난해에 補修한 제 4번 A道路는 交通量의 輻輳로 자갈 또는 “아스팔트” 鋪裝工事が 시급하며 이 鋪裝공사를 제 2 및 제 3번 道路工事보다 優先하여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 3. 決議 내용

- 가. 1966년도 工事期間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末일까지로 한다.  
 나. 戰略村 中心의 공사를 推進한다.  
 다. Bien Hoa 北方 지역의 공사는 再考한다.

라. 道路工事用 撒水車 2대를 越南軍側이 韓國軍에 제공한다.

마. 제 5번 A道路 鋪裝工事を 66년도 工事에 挿入한다.

바. 工事의 全地域에 대한 偵察은 1월 17일~18일 兩日間에 실시하며 案內는 Di An 및 Lai Thieu 兩郡에서 담당하고 偵察 및 警戒는 韓國軍이 실시한다.

以上과 같은 決定에 따라 대대는 새해의 工事を 과감하게 推進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이달의 計劃사업을 계속 展開하였다.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해병제 1 독립공병중대와 共同으로 지난 8월 13일에 착공이 래 續行한 제 2번 道路를 5개월단인 이달 8일에 마무리하고 이날 10.00에 좌월 한국군사령관 蔡命新 소장과 國際軍事援助處 議長 Tran Ngoc Tam소장을 비롯하여 密文煥團長과 Di An郡당 등 많은 內外人士와 郡民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通 “테이프”를 끊었다. 路幅 10m, 全長 7km에 達하는 이 道路工事を 위하여 그동안 延인원 10,782명을 動員하고 各種 장비로서 “담푸트럭” 1,064대, 3/4ton “트럭” 81대, “부르도저” 211대, “구레이다” 250대, “로라” 133대, “콤포렛샤” 4대를 投入하였다.

또한 同중대는 10일부터 Lai Thieu~Bung間을 연결하는 全長 4km의 제12번 道路보수를 連日 推進中 18일 08.15에 駐留地를 출발한 同중대가 08.45에 Lai Thieu北方 2km의 工事場에 도착하였다. 곧이어 作業을 開始하려 할때 道路邊 西쪽 3m에 “크레모어”를 설치하고 東側의 丘陵에 숨어 은밀히 動靜을 살피던 VC 1개소대 規模가 14.30에 이들 爆發시킴과 동시에 일제히 射擊을 加하였다.

그러자 我軍은 즉각 이에 應酬함으로써 10分間에 걸친 交戰끝에 金八株 상명이 戰死하고 重傷 1명, 輕傷 5명의 損失을 입었다. 同중대는 이러한 接戰에도 不拘하고 이 工事を 계속 進展시켰으며 다음달 中旬頃의 完結을 目標로 이달중 45%의 實績을 올렸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시작한 Dong Hoa의 Catholic教會 공사를 드디어 12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다음날 10.00에 베풀어진 竣工式에 團長과 Di An郡守 그밖에 多數의 敎人들이 참석하였다.

제 3 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지난 11월 29일부터 開始한 An Binh Tanh學校 2개 教室을 거의 80% 進陟시켰으나 18일 夜間에 VC에 依하여 爆破되었으므로 다음날부터 즉각 再工事に 착수하는 한편 지난 12월 13일부터 推進한 Bung學校의 4개 教室 新築공사를 이달중에 兼行하여 各々 52%의 進度를 보였다.

2월 :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지난달 10일에 着工한 Lai Thieu~Bung間을 잇는 全長

4km의 제12번 道路보수를 이달에도 續行中 28일 15.40에 VC이 我軍의 道路工事を 妨害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화구(길이 3.5m, 幅 1.5m)를 埋設하다가 그 옆에 묻힌 種類未詳의 地雷가 爆發하여 7명의 重輕傷者를 내었는데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명장 徐 기 석 左右 大腿部(重傷)  
 “ 조 봉 남 顔面部, 下腿部(重傷)  
 상병 李 금 룡 右胸部, 頭部( “ )  
 일병 金 무 응 左下腿部, 顔面部( “ )  
 상병 朴 인 택 顔面部(輕傷)  
 일병 孫 순 단 右足部( “ )  
 일병 金 순 광 右전막( “ )

中隊는 이에 微動도 하지 않고 工事を 계속하여 이달중 78%의 工程을 進陞시켰으며, 다음달 8일의 完成을 目標로 더욱 拍車를 加하였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시작한 Bung學校의 4개 教室工사를 계속 進陞시켜 이달末 現在로 96%의 工程을 마쳤다.

제 3 중대(장, 嚴讚鎔 대위)는 駐留地內의 整備庫 2棟을 신축키르 하고 3일부터 着工하였는데 이는 다음달 下旬에 마무리할 豫定이었다. 또한 同중대는 지난 11월 29일에 손을 낸 An Binh Tanh學校의 2개 教室이 거의 竣工단계에 이르렀으나 16일 深夜에 VC에 依하여 無慘하게 폭파되었으므로 즉각 再工事を 實施끝에 마침내 18일에 매듭짓고 19일 10.00에 때마침 訪越한 國會 國防分科委員 一行과 實團長을 비롯한 韓·越 兩軍의 關係官과 學校長 및 教職員 그리고 同校의 學生들이 多數 參加한 가운데 竣工 “데이프”를 끊었으며 그동안 延兵力 1,710 명과 重裝備로서 “담푸트럭” 89대, “미사” 2대, 용접기 2대가 投入되었다.

海兵제 1 獨立工兵중대(장, 朴京奎 소령)는 제 3 중대와 協동하여 3일부터 철조整備庫의 신축에 着手하였으며 이는 다음달 8일에 끝마칠 計劃이었다.

3월 :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지난 1월 13일에 着工한 이래로 계속 進行시킨 제12번 道路보수를 完了하고 8일 10.00에 開通式을 올렸으며 全長 4km의 이 道路는 戰術上의 價値뿐만 아니라 地域일대의 發展에 動脈의 구실을 하게될 것으로 보였으며 그동안의 工事に 延 3,47명의 兵力과 “담푸트럭” 750대, “부르도저” 20대, “구레이다” 46대 “로라” 26대가 使用되었다.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施工한 Lai Thieu西北 2km의 Bung

學校 4개 教室을 마침내 완성하고 3일 10.00에 團長과 Lai Thieu 郡守, 그리고 學校長 및 教職員과 同校의 生徒 다수가 參席한 가운데 竣工 및 移讓式이 거행되었는데 式典에서 學校長으로부터 제 2 中대장 金在基 大위에게 感謝의 뜻을 象徵하는 記念贈物이 贈呈되었다.

그런데 이 공사에는 延兵力 2,012명과 장비로서 “담푸트럭” 100대, “로라” 2대, “크레인” 1대, “막사” 5대가 投入되었다.

제 3 中대(장, 嚴讚鎔 大위)는 지난달 3일부터 착수한 整備庫 2棟의 新築工事を 22일에 完了하였으며 同공사에 延人員 695명과 231명을 그리고 輜 장비 30대 및 18대를 各各 投入하였다.

海兵隊 1 獨立工兵中대(장, 朴東奎 소령)는 지난달 3일에 제 3 中대와 동시에 철조 整備庫의 新築工事に 착수하여 8일에 마무리 하였는데 이 공사에 延人員 574명과 裝備로서 “담푸트럭” 56대, “크레인” 9대, “막사” 6대, “구레이다” 1대, “로라” 1대를 各各 動員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 127 野戰工兵대대(장, 吳秉珠 중령)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建設支援 活動을 展開하기 시작한 이래 이해 3월 末까지 道路補修 6개 지역에 總 29km를 施工한 것을 비롯하여 道路暗渠와 老朽橋梁개수 各 3개소, 學校教室 16개, 어린이 놀이터 設置 1개소, 病院新築 및 補修 3개소, 戰略村事務室 2개소, 教會신축 1개소, 民家보수 5동, 倉庫신축 5동, 그밖에 夜間射擊場, 예비指揮所의 建立과 視界清掃, 철조망架設, 地雷埋設 작업을 벌이는 등 多樣的한 工事を 完成하였다.

그리하여 越南의 日刊新聞들은 비둘기部隊의 活動을 讚揚하여 大書特筆로 報道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1) 7월 10일 字 Saigon Post外 2개 新聞은 비둘기部隊가 建設한 橋梁을 VC이 爆破함으로써 住民들을 激憤시키고 있다.
- (2) 8월 10일 字 自由新聞은 비둘기部隊는 소갈이 일만하고 親切하다.
- (3) 8월 30일 字 自由新聞은 越南정부 統治下의 Dong An 部落은 越南軍보다 오히려 비둘기部隊와 더욱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 (4) 9월 5일 字 自由의 3개 新聞은 비둘기部隊는 越南에서 神秘스러운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 (5) 9월 7일 字 建設의 5개 新聞은 비둘기部隊는 武器없이도 戰爭에 이길 수 있다.
- (6) 9월 8일 字 建國의 6개 新聞은 비둘기部隊의 診療는 民衆에게 福을 주고 있다.

## (4) 輸送 支援

제801輸送自動車중대(장, 姜德遠 대위)는 한국군사원조단의 隸下부대로서 Di An에 到着하자 즉각 基地와 防禦障地를 구축하는 한편 附與된 基本任務인 兵力 및 軍需物資의 輸送과 아울러 工兵부대를 支援하여 道路, 橋梁, 學校, 運動場, 事務室등 建設작업에 소요되는 資材와 醫療물자를 輸送하였다.

즉, 同중대는 派越된 3월中旬부터 즉각 本格的인 活動을 개시하였는데 輸送活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前提要件이 되는 것은 駐留地를 中心으로한 活動지역 全般에 걸친 廣範圍하고도 正確한 交通網의 狀況把握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때 戰況이 流動的이고 治安상태가 不安定할뿐 아니라 大部分의 交通路가 密林의 中央 또는 그 沿邊을 通過하기 때문에 敵의 伏兵과 地雷埋設이 용이한 地理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車輛운행에 있어서 크나큰 威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對應策으로서, 첫째 最大限度의 速度로 運行되어야 할 車輛자체의 性能, 둘째 道路의 良質與否에 拘碍없이 最大速度의 安全運行이 可能的 運轉技術, 셋째 敵의 奇襲에 대비한 充分하고도 效果的인 防禦裝備의 保有, 넷째 如何한 狀況下에서도 故障이 發生치 않는 徹底한 車輛整備등을 必須的인 要件으로 삼고 이의 確保維持에 盡力하였다.

그러하여 때로는 運行中에 敵의 奇襲을 받기도 하고, 또는 敵이 埋設한 地雷와 “부비트랩”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損害를 입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隘路와 難關을 克服하고 말은

輸送 實績(2½ton)

구분 원별	人 員			貨 物			총주과거리 (km)
	대수	인 원 수	주과(km)	대수	수량(ton)	주과(km)	
3				325	1,240	21,332	21,332
4	7	809	3,281	430	1,403	24,239	27,520
5	133	2,345	8,983	526	1,763	25,996	34,979
6	315	2,538	10,736	660	1,992	32,325	43,061
7	322	3,656	8,568	648	1,964	30,981	39,549
8	333	3,166	5,256	661	1,770	27,568	32,824
합계	1,180	12,514	36,824	3,250	10,132	162,441	179,265

바 任務에 熱誠을 다하였는데 卞월 이래 8월末까지의 主要 輸送實績은 上記表와 같다.

### 나. 民事 心理戰

在來의 戰爭은 熱戰 一邊倒의 武力戰에 偏重하였으나 現代戰은 正規戰과 非正規戰을 配合하는 一方으로 多樣한 心理戰을 併行하는 이른바 複合的인 모든 手段을 適用하는데 그 特性이 있다고 할 것이다.

越南戰은 思想과 理念의 對立이 물고은 同族相殘의 葛藤이며 거기다가 前後方의 限界가 分明치 않고 良民과 共產軍을 判別할 수 없을만큼 混迷한 狀況에서 漸次 그 樣態가 擴大되어 가므로 이러한 情況에서는 武力戰과 더불어 心理戰의 効用이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다.

韓國軍은 建國이래 처음으로 派遣되었을 뿐 아니라 當面정세와 地理 및 地形에 익숙치 못하므로 住民의 信賴와 支持, 나아가서는 協調를 背景으로 하지 않는 限 所期의 作戰成果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曹文煥團長은 그와같은 諸般狀況을 勘案하여 敵의 武力侵襲에 대비한 철저한 防禦태세를 갖추는데 注力하는 一方 그들의 心理戰術을 銳意 分析집토했으면서 이에 對處한 效果的인 對敵 對民 心理戰활동을 전개하는데 着眼하였으며 이는 韓國軍의 民事心理戰의 源泉的인 기틀을 이룩한 主因이 되었다.

#### (1) 敵의 心理戰

敵의 心理戰은 所謂 毛澤東의 遊擊戰術에 源泉的인 基幹을 두고 있으므로 이른바 「물과 고기」의 關係라는 論理가 支配的인 概念으로 反映되고 있다. 中共이 井崗山에서 建軍의 礎石을 다지기 시작한 이래로 陝西省 北方에서의 對國府軍作戰을 비롯하여 抗日時期的 八路軍과 新西軍에 依한 對日軍作戰, 그리고 다시 제 2 차大戰後의 對國府軍작전등 모두가 心理戰을 基調로 한 遊擊戰으로 一貫하였다.

따라서 中共은 組織內에 黨을 最高優位로한 政治機構를 두고 軍의 理念統制를 비롯한 侵略지역의 對民지원을 전개하였으며 心理戰에 있어서도 自體內에 대한 心理戰과 對敵心理戰 그리고 對民心理戰의 三大要素에 指向하되 그중에서도 民事心理戰에 가장 力點을 두고 注力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中共의 構造的인 特性을 背景으로 生成된 VC의 心理戰機構는 越盟勞動黨의 指令



에 依據하여 中共의 軍事顧問에 따라 心理戰을 恣行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末端組織體를 통한 心理戰의 效果를 重視하고 面支會에 28명으로 구성된 宣傳敎理課를 두어 研究實踐케 하는 한편 郡에는 6명, 省에는 45명, 그리고 軍事지구에는 35명을 編成하여 活動토록하고 있는데 越南에서의 目標은 美軍철수를 強요하고 反美思想 및 政府와 國民과의 離間을 煽動하는데 狂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VC의 心理戰활동을 側面에서 支援하기 위하여 USSR, 中共, 北傀가 적극적으로 加擔하고 있으며 그밖에 몇몇 共產國家도 VC을 合法政府로서 認定하려는 動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北京, Hanoi 및 Moscova放送을 통한 活動과 傳單에 의한 宣傳을 恣行하고 있으며 이해末 現在 이들의 傳單을 回收한 것만으로도 4회에 32매에 達하였다. 그런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大體로 韓國軍의 歸順을 慫恿하고 鄉愁心을 불러일으켜 戰鬥意慾을 低下시키는 동시에 反美鬪爭을 煽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最近에 이르러 北傀의 放送과 Hanoi의 放送을 通하여 對越南방송을 積極化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Hanoi放送은 12월 1일부터 우리말 放送을 개시하여 每日 2回式 韓國軍을 對象으로 한 虛偽선전과 煽動煽情을 펴하고 있는데 그 內容이나 手法은 北傀의 放送과 難兄難弟의 樣相을 보이고 있었다.

## (2) 聯合軍의 心理戰

聯合軍의 心理戰기구는 越南제 3군단 統制下에 한국군, 美軍, PHILIPPINES軍, AUSTRALIA軍, NEW ZEALAND軍등 6개國軍의 聯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1964년 5월에 Johnson美大統領의 命令에 따라 越南에 있어서의 모든 USA心理戰 活動의 책임을 1953년에 創設되어 運營中에 있는 美公報院長에게 委任하자 여기에 이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機構로서 設置된 JUSPAO (Joint United States Public Affairs Office)와 그밖에 越南정부 및 越南軍의 心理戰機構와 상호 밀접한 협조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이 機構의 任務를 살펴보면 越南정부 및 越南軍의 心理戰기구는 軍官民에 대한 反共思想을 鼓吹하는 동시에 軍紀의 確立과 士氣 및 忠誠心의 昂揚을 圖謀하는 反面에 VC에 대하여 共產主義의 不當性を 暴露하고 士氣를 低下시켜 歸順을 勸告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活動하고 있었다.

한편 聯合軍의 心理戰機構와 USA의 合同心理戰機關은 共產軍의 侵略을 糾彈하며 그 不當性和 非人道的 行態를 暴露하는 동시에 越南戰에 參戰한 自由友邦軍의 眞意를 理解시키

는데 力點을 두고 그 機能을 發揮하였다.

또한 各機構의 現제를 살펴보면 越南軍은 總司令部에 人事作戰參謀部와 同格으로 政治戰參謀部를 두고 여기에서 心理戰업무를 管掌하고 있으며 예하 各軍團에 心理戰局이 配屬되어 있고 各 師단은 心理戰대대를 保有하고 있다.

이리하여 各軍團의 心理戰局은 心理戰을 專擔하는 美顧問團과 合同군무를 하면서 첫째 心理戰理論을 發展시키고, 둘째 越南軍의 心理戰계획과 對民 및 VC에 대한 心理戰活動을 발전시키며, 셋째 越南軍의 民事活動計劃을 發展시키는 동시에, 넷째로 總司令部 및 예하部隊에 印刷物과 “라디오”放送 및 齣報를 통하여 戰略戰術活動을 위한 宣傳자료를 提供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JUSPAO는 過去の USIS-V와 越南정부의 通信장비 및 技術지도를 提供하고 있는 USOM의 通信關係機構도 引受하여 本格的인 心理戰활동을 展開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으며 이후부터 越南에 滯留하는 USA의 民間心理戰要員과 軍事心理戰요원은 共同政策下에 긴밀하게 協調하면서 尙 美軍司令部的 政治參謀部에 心理戰을 위한 政策指針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JUSPAO의 運營資金은 年間 350萬 \$이며 人員編成은 USIS, MAC-V, USOM에서 年 間 150명의 USA人事務職員과 約 400명의 越南僱傭人으로 構成되었고 施設은 本部印刷所를 비롯하여 4개 主要都市의 敎化所와 各省에 있는 野戰勤務所로 되어 있다.

또한 JUSPAO는 7개의 美·越協會에 대한 USA의 支援계통을 모두 管掌하여 越南뿐만 아니라 汎世界的인 活動을 전개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었는데 그 計劃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越南정부의 心理戰部에 대한 計劃운용 및 技術的인 協議와 物資원조를 提供한다.
- (2) 越南國의 國內無線網을 포함하여 映畫제작소, 印刷所, 그리고 Saigon所在 越南語 新聞의 發展을 圖謀한다.
- (3) 越南의 20개 省에서 發刊되는 新聞部數의 增刊과 地方放送局의 運營을 돕는 한편 映 畫 “필름”, “포스타”, 雜誌 傳單등의 配布와 文化演藝隊의 地方공연을 돕는다.
- (4) VC의 歸順勸告 活動에 있어서 그들의 親戚을 통하여 “라디오”放送, 傳單撒布, 航空 用 擴聲機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歸順한 VC들을 계속 돕는다.
- (5) 越盟에 대한 계속적인 航空폭격을 強行할 것이라는 警告와 아울러 共產主義의 不當 性和 Hanoi指導者들의 蠻行을 暴露하며 또한 越南정부 및 聯合軍의 成功的인 政策을

제시하고 越盟과 比較한 越南의 社會發展과 經濟計劃을 收錄한 傳單을 大量으로 越盟 및 VC지역에 撒布한다.

(6) 世界各處에 있는 USIS를 통하여 新聞, “라디오”放送, 發刊物, 映畫 “필름”등을 계속 제공하며 越南정부의 海外勤務員에 대하여 公報교육을 支授하며 公報任務를 위한 越南靑年들의 海外과건을 돕는다.

이상과 같은 計劃목표를 達成하기 위하여 聯合軍의 心理戰기구는 越南제 3군단 戰術지역 내의 10개省에서 活動하였는데 이에 한국군은 2명의 軍醫官을 中心으로한 1개 醫療班을 과견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窶與하였다. 기간중 한국군이 聯合心理戰 활동에 貢獻한 實績은 다음과 같다.

제 1 차 : 이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에 걸쳐 Long An省 일대의 住民 13,892명을 對象으로 醫療活動을 전개한 결과 2,021명을 治療하는 한편 救護品으로서 쌀 230포, 콩 18포, 식유 190통, 비누 200개등을 전달하고 傳單 및 “포스타” 245,113매를 配布한 以外에 放送 및 演藝團의 위문公演을 2차에 걸쳐 實施하였다.

제 2 차 : 9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Long Khanh省 일대에서 3,500명의 住民을 대상으로 2,868명을 治療하는 한편 쌀 98포, 밀 105포, 우유 583포, 식유 449통, 衣類 13포, 비누 175개를 救護品으로 전달한 以外에 傳單 및 “포스타” 97,990매를 配布하고 放送 및 演藝團의 公演을 2회에 걸쳐 베풀었다.

제 3 차 :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간에 걸쳐 Binh Duong省 일대의 住民 5,155명을 대상으로 醫療활동을 벌인 끝에 2,419명을 治療한 實績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救護品으로서 쌀 165포, 옥수수 103포, 우유 966포, 食油 774통, 菓子 1,950봉을 나누어준 以外에 傳單 및 “포스타” 38,202매를 配布하고 映畫上映과 放送을 2회 실시하였다.

제 4 차 : 10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Hau Nghia省 일대에서 87,092명의 住民을 對象으로 診療한 結果 2,200명의 實績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救護品으로서 쌀 130포, 밀 380포, 옥수수 372포, 우유 312포, 食油 67포, 衣類 84포, 침구 17포를 各各 支給한 以外에 傳單 및 “포스타” 23,000매를 配布하고 映畫 및 放送을 2회에 걸쳐 實施하였다.

제 5 차 :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Long Khanh省 일대에서 3,200명의 住民을 대상으로 한 醫療활동을 推進한 結果 1,200명을 治療하였으며 그밖에 쌀 300포, 안떡 100포, 옥수수 100포, 우유 500포, 食油 250통, 식염 30포, 國產담배 100갑, “프코렛”菓子 15箱子를 救護品으로 공급하는 한편 傳單 및 “포스타” 35,000매를 配布한 以外에 演藝

團公演과 아울러 航空擴聲機에 의한 對敵放送을 12월末까지 8週間에 걸쳐 실시하였다.

제 6 차 : 새해를 맞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에 Hau Nghia省內에서 對象인 員 8,581명중 988명을 治療하는 한편 보리 150포, 밀 300포, 옥수수 250포, 衣類 15포를 無償支給한 以外에 傳單 및 “포스타” 24,896매를 배포하고 演藝團의 公演과 아울러 放送을 1회 實施하였다.

### (3) 韓國 軍事援助團의 心理戰

團은 JUSPAO 및 越南정부를 비롯한 越南軍 心理戰대대와 과월 美軍의 心理戰班과 協調하여 주둔지 및 工事場지역인 Di An과 Lai Thieu 兩郡일대를 中心으로 心理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活動은 概 1 移動外科 病院의 派越과 더불어 이미 始作되어 團의 派越을 契機로 本格化되었으며 活動의 目標로서 越南정부의 施策을 最大限으로 支援하기 위한 團의 임무와 活動사항을 理解시키고 韓·越間의 親善과 紐帶를 強化하며 越南주민과 VC과의 關係를 斷絶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따라서 團은 이미 工兵부대의 建設支援과 病院의 醫療활동으로서 實質的인 民事心理戰에 着手하였거니와 그밖에도 救護品の 分配와 姉妹結緣에 의한 助力 및 農耕지원과 映畫, 演藝公演 및 親善行事, 그리고 傳單 및 “포스타”의 配布등 多樣하게 活動하였다.

한편 團은 이와같은 心理戰活動을 보다 効率的으로 展開하기 위하여 Saigon에 설치된 越南語학교에 將兵들을 派遣함으로써 3개월씩 越南語를 익히게 하였다.

이러한 活動에 있어서 韓國軍은 다른 友邦軍보다도 有利한 條件을 지니고 있거니와 그 첫째는 體貌와 生活風習, 그리고 思考方式이 거의 類似한 같은 東洋人이라는 點이고 그 둘째는 越南人들은 FRANCE의 統治下에서 거의 1世紀동안 支配를 받아왔기 때문에 白人에 대한 嫌惡感이 강한 반면에 같은 黃色人種으로서의 同質意識이 作用함으로써 韓國人과의 接近이 容易하다는 點이다.

그러하여 團의 心理戰활동은 越南人이나 VC들에게 큰 影響力을 미치었으며 다른 友邦軍보다도 越等한 成果를 거두었던 것이다. 기간중 실시한 心理戰활동에 있어서 建設支援과 醫療활동, 그리고 跆拳道普及을 除外한 其他分野의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單撒布 : 團이 撒布한 傳單은 JUSPAO 地方代表部를 통하여 受領한 다음, 새로운 建設사업에 着手할때 그 地域일대의 住民을 對象으로 撒布하였는데 新年을 앞둔 12월에 集中

的으로 538,700메를 뿌렸다.

**姉妹結緣** : 주둔지 또는 工事場 주변의 各學校와 戰略村의 發展的인 土蓋를 이룩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團 隸下 各중대 單位로 姉妹結緣을 맺어 相扶相助의 유대強化와 아울러 隣隣의인 友誼를 돈독히 하였으며 이해달 現在 4개의 戰略村 및 3개의 學校와 結緣을 맺었는데 이 式典에는 韓·越軍 關係官과 地方有志 및 住民들이 參席하였다.

또한 이 式典에서 團으로부터 救護品이 전달되고 次後에 계속하여 도와줄 支援내용을 발표하는 동시에 軍樂隊演奏와 跆拳道의 示範으로 이날의 行事を 한층 浮彫시켰다.

**救護活動** : 團은 越南의 戰爭罹災民과 極貧者를 위하여 자매結緣時에 많은 救護品과 膳物을 전달하였으나 이러한 善心을 平常時에도 發揮하여 將兵들이 節約한 主副食을 이해달 現在 31,298kg을 救護對象者들에게 支給하는 한편 農民들에게 養豚餌料로서 殘飯 7,534.6드람을 提供하였으며, 그밖에도 우물과주기와 보습기支援, 그리고 清掃를 實施한 이외에도 변소, “사위장”등 衛生시설을 마련해 주는등 多樣하고도 積極적인 救護활동을 벌여 한국군의 人道主義정신을 널리 宣揚하였다.

## 다. 作戰 活動

### (1) 敵의 跳梁狀況

越南정부가 1961년 10월에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하고 兵力을 大幅 增強하기 시작하는데 並行하였듯이 越盟軍의 對越南침투도 해마다 增加되는 추세에 있었으며 VC도 또한 兵力을 늘려 이해초 現在 123,000명으로 增大된듯 보였다.

越盟軍은 戰略戰術上的 要衝地域인 中部越南에 主力을 두고 제19번 道路를 차단하는데 嚴重함으로써 越南자체를 兩分하여 聯合軍의 作戰努力을 分散시키는 동시에 Saigon을 孤立化시키려 하였다.

더구나 越南이 第1次 軍事革命이후 계속된 政局의 不安 및 軍部內의 派閥갈등과 佛教徒 및 學生들에 依한 反政府 시위로 慣性的인 混亂속에 빠지자 이를 奇貨로 VC은 더욱더 反美, 反政府煽動에 갖은 策略을 다하는 한편 그들의 支持세력을 急速히 擴張시키려는데 血限이 되었다.

특히 團의 주둔지인 Di An地域에는 越盟正規軍의 제165A연대 제3대대 隸下 1개중대와 地方 “계릴러”인 C-63중대, 그리고 團隊號미상의 2개소대 및 2개분대가 流動하면서 不規則

的으로 小規模의 侵襲을 恣行하였으며 또한 Lai Thieu지역에는 제165A연대 제2대대 이하 1개중대와 제3대대 제1, 제3兩중대, 그리고 地方 “게릴라”인 團隊號미상의 1개소대 및 6개분대가 出沒하면서 團의 活動을 위협하는 한편 隣近의 巨大한 空軍기지인 美戰略空軍 사령부를 압박하는데 注力하였다.

## (2) 友軍의 活動狀況

美軍은 越南戰에 參戰한 이래 戰略戰術의 目標로 첫째 據點의 確保, 둘째 北爆의 擴大 그리고 셋째로 索敵擊滅에 두고 海岸에 連하고 있는 主要기지를 根據로 漸進的으로 兵力을 增強하였으며 韓國軍의 首都사단과 海兵제2여단의 파월을 契機로 共產軍에 대한 一大殲滅 작전을 本格化하였다.

그리하여 北部지방의 Hue市에 海병 1개대대를 駐屯시켜 17°線으로부터 南下하는 越盟軍의 主力을 牽制함과 아울러 地域일대의 VC를 擊破하는데 注力하는 한편 港都인 Da Nang과 Chu Lai에 각각 海병제3上陸軍과 海병 1개연대를 配置하여 越南제1군단과 더불어 LAOS接境의 胡志明 通路를 거쳐 海岸지역의 主要都市를 席卷하려는 共產軍의 陰謀를 擊碎하는데 盡力하였다.

또한 Qui Nhon에 海병 1개대대와 육군수송 1개중대를 駐屯시켜 Pleiku를 中心으로 活動하고 있는 越南제1군단 隸下部隊와 連繫하여 戰術上의 要衝地인 An Khe일대를 執拗하게 攻擊하려는 敵을 制壓하였으며 이해 10월에 이 地域의 漁港을 瞰制하는 高原에 直結된 제 19번 道路와 더불어 Binh Dinh省을 戰術責任지역으로 掌握하기 위하여 首都사단이 進駐하자 이 地域을 引繼하였다.

또 Nha Trang과 Cam Ranh지역에 제1보병사단의 1개대대와 제101공수사단의 제1여단을 각각 投入하여 首都圈의 內外廓을 壓迫하는 敵을 一掃하기 위한 作戰을 展開中인 越南제3군단과 共同戰線을 形成한 가운데 中部海岸으로부터 內陸에 이르는 共產軍의 跳梁지역을 收復하는데 專念하였다.

그리고 Vung Tau와 Bien Hoa에 제173공수사단 隸下部대와 제1보병사단 제2여단을 進入시켜 Can Tho를 根據地로 활동하는 제4군단과 더불어 南部地方을 威脅하려는 敵의 流動을 制壓하는데 中樞的인 作用을 하였다.

특히 Bien Hoa에 大規模의 美戰略空軍基地를 구축하여 北爆은 물론이고 越南內의 制空權을 掌握 유지하면서 地上軍을 有機的으로 支援하는데 눈부시게 活躍하였다.

### (3) 我軍의 作戰活動

駐屯地인 Di An에 도착한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 중령)는 晝文煥준장의 命令에 副應하여 2週間 이내에 陣地구축을 마무리하는 한편 作戰태세를 완비하는데 總力을 집중하였다.

團長은 本國을 出發하기 以前부터 恒常 強調하던 事項을 駐屯地에 도착과 동시에 麾下 全장병에게 再次 喚起시키면서 力說하기를 『團은 警戒와 防禦에 最大의 노력을 集中해야 하며 本國을 出發하기 전에 가장 重要한 고비로 指摘했던 3段階中 出發隊가 豫定주둔지에 到達하기까지의 첫단계와 本隊가 船舶으로부터 上陸할 때까지의 둘째 段階를 無事히 넘겼으니 남은 고비는 陣地를 구축하고 作戰태세를 完備하기까지의 2週間인 3段階가 무엇보다 重要한 時期라고 본다. 더구나 VC은 奇襲을 嚮行하기까지 15日間에 걸쳐 攻擊對象에 대한 偵察을 反復하다가 勝算을 確信하게 되면 비로소 侵攻을 斷行하는 것이 通例이므로 그들의 偵察기간인 15日間에 우리는 陣地구축과 作戰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그의 判斷은 果然 的中하여 團이 주둔지에 進出한지 18일째가 되던 4월 2일에 最初의 奇襲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團은 이미 陣地구축을 마무리하고 作戰태세를 完了한 直後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01경비대대는 作業場의 工兵부대를 警護하는 한편 매일 駐屯地 주변에 대한 수색偵察 및 埋伏활동을 反復함으로써 建設工事의 圓滑한 推進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간 중 54회에 걸친 敵과의 交戰에서 적지 않은 戰果를 올려 戰鬥부대에 못지않는 戰技와 鬪志를 誇示하였는데 月別 作戰활동은 다음과 같다.

4월 : 團長 晝文煥준장은 지난 3월 25일부터 5~6명 또는 1개 분대로 推算되는 敵과 偵察隊가 거의 매일같이 駐屯地 부근에서 은밀히 潛動하고 있다는 報告를 받자 隷下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 및 제127野戰工兵대대장 姜俊彥중령, 그밖에 單位부대 指揮官에게 指示하기를 『敵의 小規模병력이 빈번하게 駐屯地주변에 出沒하는 것은 我軍의 處를 노려 侵襲을 恣行하려는 偵察로 分析된다. 따라서 敵은 앞으로 10~15일 以內에 반드시 奇襲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以前까지는 敵의 偵察隊를 포착하더라도 一切 射擊해서는 안되며 別命이 있을 때까지 그들의 動向을 銳意 監視하고 엄중히 警戒하라』고 言及하였다.

團長이 이와같이 敵에 대한 射擊統制를 내린 이유는 지난 2월 7일에 Saigon에서 韓國軍 대표인 先發隊長 李勳燮준장과 越南軍대표인 Nyon준장 사이에 締結된 韓·越軍事實務者협정을 誠實하게 遵守하려는 데 있었으며 同協定書의 제 8項“라”에 「ROK MAC-V부대는 規定

된 活動지역 밖에서는 射擊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마”에는 「ROK MAC-V부대는 活動지역 밖에서는 追擊작전을 할 수 없다」라고 明示되어 있기 때문에 이 條項을 意識하여 慎重하게 對處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設使 團의 對敵攻擊이 이 條項에 抵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國際間에 必要 이상의 物議를 惹起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國際社會的 次元에서 또는 國際倫理的 眼目에서 한국군은 大義名分에 合致되는 行動에 徹底를 期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를테면 專守防禦에만 注力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曹團長의 事前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各哨所와 搜索偵察隊는 VC의 出現을 目睹하면서도 一切 射擊을 加하지 않고 즉각적인 反擊태세만을 갖춘채 그들의 動向을 銳意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2일 夜暗에 이르자 駐屯地에 대한 그들의 橫行이 갑작스럽지 빈번하여지면서 尋常치 않은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은 21. 10에 各哨所로부터 敵의 偵察兵으로 추측되는 4~5명이 通過하였다는 報告를 받은 다음, 21. 40에 또다시 敵의 1개분대규모가 出現하였다는 報告를 받아 즉각 曹團長에게 狀況보고를 하고 계속하여 敵情을 注視하고 있던중 22. 30에 또다시 敵의 1개소 대규모가 接近하고 있음을 確認하자 재차 曹團長에게 報告하였으나 이때 團에서는 夜間參謀會議를 開催中이었다.

이후 22. 50에 이르자 駐屯地의 北西方 1km의 潛伏哨所로부터 重機關銃으로 무장된 1개 중대 規模의 敵이 接近하고 있다는 報告와 동시에 이 哨所에 대한 敵의 攻擊이 시작되고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敵의 60mm 追擊砲 사격이 집중되었다.

그러자 모든 有線網과 電線은 切斷되어 營內는 一瞬에 暗黑化하였으며 이러한 敵의 포격은 20분간에 걸쳐 40~50發이 集中되었는데 그중의 大部分은 경비대대 수송부에 彈着되고 1발은 中央의 團本部 옆 無電通信所에 炸裂하였다.

이때 曹團長은 긴급命令을 내려 『모든 將兵은 즉각 壕속에 들어가 戰鬥隊形을 갖추고 各單位隊長은 部隊를 장악 指揮하라』고 하였다.

寸刻을 다투는 危機였으나 將兵들은 一絲不亂하게 機敏한 動作으로 호속에 뛰어 들어가 전투隊形을 갖추었다. 平素에 就寢할때 木寢 옆에 彈띠와 小銃, 그리고 被服을 한데 묶어 놓았다가 一旦 有事時에 묶어놓은 띠를 들고 天幕주변에 준비된 호내에 뛰어 들어가도록 訓練되었기 때문에 모든 장병들은 寢床을 박차고 단숨에 호내에 뛰어 들어갈 수 있었으며 또한 各天幕間에는 地下로 交通線가 連結되어 있었기 때문에 暗黑 속에서도 混亂없이 機敏



한 行動을 할 수 있었으며, 또 그럼으로써 作戰의 統制가 容易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편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은 敵의 砲擊이 시작되는 刹那, 즉각 호내에 들어가 예하 各중대를 장악하고 狀況을 판단하기에 努力중이었는데 이때 대대장과 함께 있었던 情報장교 姜星鎭 중위는 敵의 포탄이 熾烈하여 咫尺을 分揀할 수 없는 暗黒속을 무릅쓰고 沈着 對담하게 행동하여 대대장실에 있던 電話를 호속에까지 끌어다가 連結함으로써 대대장과 團長과의 交通을 可能케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一旦 砲擊이 멈추자 敵은 駐屯地의 三面으로부터 일제히 포위망을 壓縮하면서 肉迫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團長으로부터 『反擊을 開始하라』는 號令과 함께 我軍의 集中사격이 開始되고 60mm 및 81mm 迫擊砲사격도 指向되었다.

그러자 駐屯地의 四周에 구축한 土城과 鐵條網을 넘어 侵入하려던 敵은 그들보다 越等하게 強力한 火力으로 應酬하는 我軍의 반격에 衆寡不敵임을 自覺한듯 마침내 01.30부터 退避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이 한국군에 대하여 最初로 시도한 侵攻은 여지없이 失敗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 戰鬪에서 敵의 遺棄시체 1具를 確認한 이외에 多發銃 1정, “크레모어”地雷 2개, 手榴彈 1개, 多發銃彈 23발을 노획 하였으며 다음날 激戰現場에 敵의 流血자국이 狼藉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30餘名이 負傷을 입은채 潰走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이러한 痕跡은 매마침 從軍記者로서 取材次 團을 訪問한 東洋通信의 李志雄記者와 서울 新聞의 鄭仁亮記者 그리고 韓國日報의 崔奎莊記者가 實地로 目擊하고 國內新聞에 크게 報道하였다.

그런데 이 戰鬪에서 我軍은 重輕傷 11명의 損失을 입은 以外에 3/4ton 및 21/4ton “브릭”

#### (1) 重傷者

군 번	계 급	성 명	소 속
11167520	상 병	김 등 규	공 병 대 대
11198501	상 병	신 산 응	〃
11353538	일 병	곽 태 만	〃
11322850	일 병	박 재 욱	〃
11324164	일 병	최 일 출	〃
11380777	이 병	고 도 병	〃

## (2) 輕傷者

군 번	계 급	성 명	소 속
34201	대 위	이 단 술	공 병 대 대
9631437	중 사	민 만 기	"
11064909	하 사	이 재 혁	"
11247170	상 병	서 명 석	"
11249509	일 병	임 춘 응	경 비 대 대

5대 및 “라지에타” 3개 “다이아” 3개 등 裝備의 被害를 보았으며 重輕傷者의 名單은 以上과 같다.

다음날 曹文煥團長은 과월이래 最初로 겪은 이번 戰鬪의 經過를 分析한 結果 我軍이 輕微한 損失을 입은가운데 敵의 奇襲을 粉碎할 수 있었던 요인을 첫째, 埋伏哨所로부터 早期에 敵情보고가 있었다는 點과 둘째로 夜暗의 奇襲을 받았는데도 敵으로 하여금 營內에 侵入하지 못하게 阻止한 것은 그만큼 夜間射擊術이 현저하게 向上된데 있었던 것으로 判斷하고 앞으로 어떠한 敵의 侵攻이라도 능히 擊碎할 수 있는 自信心을 가졌다.

그러나 曹團長은 또 한편으로 이번 交戰을 통하여 切實하게 느낀 教訓으로서, 첫째 모든 電話線을 地下로 埋設하여야 하며, 둘째 平常時 無電機를 철저히 點檢하고, 셋째 차량과 幕숨을 보다 넓은 空間지역에 疎散시켜야 하겠으며, 넷째 潜伏哨所의 射擊시기와 撤收路를 사전에 明確히 指定하여야함을 느끼고 즉각 모든 支援사업을 당분간 保留시키는 동시에 部隊防禦계획을 全面的으로 修正하여 短時日內에 補充하도록 各隊에 示達하였다.

그런데 綜合적으로 分析하건대 敵이 今般의 奇襲을 恣行한 主목적은 대마침 訪越한 國防部長官을 겨냥한 威脅攻擊으로 보였으며, 또한 團의 防禦태세와 對應能力을 試驗하기 위한 探索을 兼한 것으로 看做되었다.

아울러 今般의 敵侵에서 얻은 教訓을 거울 삼아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中령)는 補充作業에 全力을 집중하는 한편 보다 徹底한 수색정찰을 실시한 結果 이렇다할 接敵사항이 없었으나 23일에 敵이 埋設한 “부비트랩”에 接觸되어 제1중대(장, 申佑湜 대위)의 聾雲奎 중사가 韓國軍이 派越 이래 最初로 戰死하였다.

5월 : 敵은 지금까지의 越南軍에 대한 奇襲에서 적지 않은 戰果를 거둔 前例에 自慢心을 품고 韓國軍에 대하여도 安易하게 類推한 끝에 지난 4월 2일에 最初의 一擊으로 團을 強襲하

였으나 意外의 참패를 당한데 크게 萎縮된듯 이달중에는 比較的 敵情이 閑散하였다.

그러나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 중령은 15일 早朝에 각중대장에게 強調하기를 『敵은 지난번의 첫攻擊에서 失敗한데 衝擊을 받고 士氣가 低下된듯 小康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戰力을 補強하기 위한 準備過程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며 머지않아 捲土重來의 報復이 있을것으로 豫測된다. 따라서 보다 엄중한 警戒태세를 갖추고 行動하도록 모든 隊員들의 警覺心을 提高하는데 힘쓰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工兵부대의 作業활동을 警備하는 一方 매일같이 駐留地 주변에 대한 수색偵察과 埋伏활동을 反復하던중 8일 14.00에 제 2 중대(장, 金興壽 대위)의 崔수길병장이 密林속에 潜伏한 VC의 狙擊을 받아 現場에서 戰死하였다.

그러자 중대는 전투隊形으로 散開하여 附近일대를 살살이 探索하였으나 敵影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6월** : 工兵부대의 作業이 漸次로 적극화되고 工事場의 範圍가 보다 廣範圍하여 짐에 따라 警備대대의 活動부담은 날로 增大되어 갔으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대는 전달과 다름없이 地域일대에 대한 수색偵察과 埋伏을 계속 전개하였다.

한편 12일 Saigon에서는 Pham Huy Quat를 首班으로 한 民政內閣이 軍部에 政權을 이양한데 이어 14일에는 10명의 將星으로 構成된 國家指導委員會가 發足되어 議長에 Tieu少將이 就任하였으며 또한 17일에는 Nguyen Cao Ky 空軍司令官이 首相으로 就任하여 新內閣을 樹立하는등 政局은 순가쁘게 激變하고 있었으나 駐留地 주변의 敵情은 比較的 小康상태를 유지하였다.

諜報에 依하면 부대의 外廓지대에서 敵의 小規模 出沒이 有은듯하나 이달중에는 한번도 接敵이 없었으며 그들은 急變하는 政局의 推移를 暫定기간 褻瀆하다가 그 歸趨에 따라 이에 適應한 政戰兩略의 術手を 쓸 것으로 推測되었다.

**7월** : 지난 4월 上旬이래 敵의 跳梁은 다소 低調하였으며 더구나 지난달은 Saigon政局의 不安을 觀望하는듯 하였으나 이달들어 活氣를 되찾은듯 적극적으로 流動하였다. 즉, 2일 제 127工兵대대 제 2 중대(장, 金在基 대위)가 Bien Try學校의 教室신축을 위하여 中隊長의 指揮下에 3/4ton “트럭” 1대를 포함한 9대의 輸送차량으로 07.50에 부대를 出發한 다음, 駐留地로부터 西北方 2.2km이며 Di An으로부터 北方 1.8km 地點에 이르렀을때 警備 1개소대의 先導차량이 通過하고 그 뒤를 따르던 指揮차량(3/4ton트럭)이 지나갈 刹那에 道路右側 2m地點에 VC이 裝置한 地雷(電氣式 雷管을 사용한 TNT 20 l/b)가 폭발하여 車輛이 半破



탐색대를 지휘하는 李光魯 중령

되고 탑승한 中隊長 金在基대위 以下 5명이 輕傷을 입었다.

그러자 즉각 대대본부에 無電보고 하여 警備 1개소대를 追加 急派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行進中인 경비소대와 工兵제 2중대 全員을 즉각 戰鬥대형으로 散開시켜 地域일대를 搜索하였으나 아무런 端緒도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爆破事件이 발생한지 2시간 後에 同중대 보다 15분 앞서 이 道路를 通過하여 作業場에 도달한 海兵제 1 독립공병중대(장, 朴東奎 소령)가 工事를 進行하면서 附近일대를 搜索偵察中 容疑者 1명을 체포하고 訊問한 끝에 바로 이체가 제 2중대의 行進차량을 폭파한 VC인 것으로 判明되어 곧 越南警察에 引繼하였으나 다음날 이체는 釋然치 않는 理由로 越南경찰에서 釋放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爆破로 말미암아 發生된 輕傷者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중대장 대위 金在基	병장 金동식	병장 朴호수
병장 禹재근	일병 馬연상	

한편 卍文煥준장은 이 爆破事件의 顛末을 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으로부터 報告받고 綿密하게 狀況을 分析끝에 다음과 같은 教訓을 隸下 각 指揮官에게 示達하여 이를 實踐에 옮

기도록 하였다.

- (1) 作業場으로 通하는 未鋪裝도로에 對한 地雷探知를 철저히 할 것.
- (2) 工事場 주변에 對한 警戒兵의 철저한 觀測.
- (3) 車輛行進中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지역은 隨時로 下車하여 周圍를 탐색한 다음 區間 前進할 것.
- (4) 車輛의 뒷 座席을 除去하고 左側에 모래麻袋를 設置할 것.
- (5) 作業場으로 進入할 때에는 統制點을 設定하고 作業場別 行軍時間을 매일 變更할 것.
- (6) 行軍間에 必히 一定한 車輛間隔을 유지할 것.

以上과 같은 指示사항을 받은 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은 각 중대장에게 이 요지를 實行하도록 強調하는 한편 工兵제 2중대의 爆破事例를 喚起시키면서 附言하기를 『工事場에 對한 VC의 潛動이 增加추세에 있으니 敵의 활동 可能지역에 對한 수색偵察을 強化하라』고 示達하였다.

이에 따라 이달중 4차에 걸친 수색정찰을 強行하였으며 제 1차는 7일에 제 3중대(장, 權相集대위)가 實施하였으나 이렇다할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어 제 2차로 圖作命 제 8호에 依據하여 제 5중대(장, 沈基哲 대위)가 14일 08.00에 駐留地를 출발한 다음, 西北方 2.5km의 Ap Dong (4)에 이르러 제 2소대를 左側方으로 제 3소대를 右側方에, 그리고 제 1소대를 中央으로 進출시키면서 탐색하다가 10.10에 駐留地로부터 西北쪽 4km의 Ap Tay에 이르렀을때 제 3소대의 前面 100m에 蟄伏한 VC 2명으로부터 小銃사격을 받았다.

그러자 소대는 즉각 戰鬪대형으로 散開한 다음, 集中사격을 加하니 그들은 北쪽 密林속으로 退散하므로 同소대는 계속 附近일대를 探索하면서 前進中 11.10에 Ap Tay (4)西側쪽의 “정글”지대에서 또다시 分隊규모의 VC과 遭遇하여 피아간에 銃擊戰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제 3소대 火器분대의 崔東熙 일병이 敵彈에 맞아 重傷을 입은 가운데 戰鬪는 10분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이들이 狀況의 不利 깨달은듯 南西쪽의 密林속으로 慌급히 潰走하자 소대는 이들의 뒤를 추격하면서 “정글”속을 精密탐색끝에 Ap Tay南西쪽 300m에 VC이 構築한 길이 40m, 直徑 8m의 陣地를 수색한 結果 多發銃실탄 및 KAR소총실탄 6발과 手榴彈 1발을 비롯하여 文書 16件과 被服類 69점, 越盟旗 2매 그밖에 雜多한 物品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이는 我軍의 進攻에 當황한 나머지 버리고 逃避한 것으로 推定되었으며 노획한 文書는 VC의 新聞과 手帖, 그리고 身分證과 人物사진이므로 즉각 대대본부로 後送하였다.

이에 제 5중대는 敵이 이 地域에 계속 蟠踞하면서 附近의 마을을 威脅할 것으로 推

斷하고 다음날에도 密林속을 탐색하다가 그들이 裝置한 “부비트랩” 1개를 除去하고 跡跡하였다.

한편 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은 제 5 중대가 以上과 같이 敢行한 제 2 차 수색偵察 結果를 分析검토 끝에 얻은 敎訓과 이에 대한 方策을 다음과 같이 曹文煥團長에게 報告하였다.

즉 敎訓으로서는 駐屯地 周圍의 茂盛한 樹木과 “정글”로 말미암아 사격과 觀測에 많은 制限을 줄뿐 아니라 “부비트랩”의 事前발견과 無電通信의 維持, 그리고 前進中の 方向유지가 매우 困難하다는 點이었다.

또한 이에 대한 是正策으로서 (1) “정글”로 因한 前方觀測과 射擊의 制限으로 敵의 正確한 位置와 射擊方向을 파악하기 困難하므로 小銃사격 보다는 被害半徑이 큰 火器 즉 M79 榴彈發射機의 사용이 效果적이다. (2) “정글”內에서는 이미 開設된 小路밖에 利用할 수 없으므로 機動空間에 制限을 받아 火力의 集中이 困難하므로 小隊單位 以下の 兵力으로 여러 方向에서 수색偵察을 실시하는 것이 效果적이다. (3) “부비트랩”과 “크레모어”를 爆發하기 위하여 은밀히 潛伏한 敵을 索出키 困難하므로 軍犬의 活用이 效果的이다. (4) 現在 使用中인 AN/PRC-10無電機는 “안테나”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정글”속에서의 行動에 많은 制限을 주며 또한 通達距離가 4~6mils이므로 交信에 많은 制限을 받기 때문에 小型 高性能 無電機로 交換되어야 할 것이다. (5) 이 地域일대는 特徵적인 地形地物이 없는 平坦한 “정글”지대이기 때문에 方向유지가 困難하므로 地圖보다는 最新 航空사진에 依한 事前 地形연구와 “헬리콥터”에 依한 空中誘導가 必要할 것이다.

한편 제 3 차 수색偵察은 18일에 제 2 중대(장, 金興洙 대위)의 1개분대가 哨所를 交代하기 위하여 附近 일대에서 實施한데 이어 20일에 제 5 중대(장, 沈基哲 대위)의 2개소대가 部隊의 北西쪽 1.8km에 있는 Ap Tay附近的 臥地線에서 VC 2개분대 規模가 橫行하고 있다는 諜報에 따라 이를 捕捉하고자 이날 08.10부터 行動을 開始하였다. 그리하여 09.50에 “정글”地帶입구에 이르렀을때 10m前方의 茂盛한 樹林사이에 構築한 敵의 陣地로부터 사격을 받자 沈基哲대위는 1개분대를 敵의 退路로 豫想되는 左側方으로 迂回시키는 한편 1개소대를 正面으로 直衝케 함으로써 彼我間에 치열한 交戰을 벌인 끝에 마침내 敵을 擊退시키고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이는 直徑 15m로서 四方에 個人壕가 있고 그 사이에 2m 길이의 通路가 連結되어 있었다.

이 戰鬪에서 VC이 사용한 被服 및 非常藥品을 노획하였으며 陣地주변에 流血이 狼藉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3~4명의 VC이 負傷을 입은채 退散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反面

에 我軍은 許載春 일병이 重傷을 입은 以外에 朱洪燮, 崔光男 일병이 各各 輕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中隊는 이어 그들의 個人壕와 通路를 再使用치 못하도록 焚燬한 다음, 地域일대를 계속 탐색하다가 13.05에 歸隊하였다.

도한 계 4 차의 수색정찰과 더불어 이 地域의 茂盛한 “정글”을 芟除하기 위하여 海兵隊 1 獨立공병중대(장, 朴東奎 소령)는 20일부터 卽時 美軍司令部의 協調下에 枯葉작전을 展開중 “정글”지대로 通하는 小路邊에 埋設된 地雷 2개를 除去하고 아울러 약간의 文書를 노획하였다.

8월 :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은 駐屯地주변의 設定과 아울러 VC들의 跳梁을 사전에 制壓하기 위하여 各중대로 하여금 自體계획에 依한 수색偵察을 反復하여 強行토록 하였으나 接敵이 없는 가운데 平穩을 維持하였다.

9월 : 제101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은 지난 달과는 달리 이달초부터 駐屯地의 北쪽 6km에 있는 Hoa Rua “정글”地帶에 重火器로 武裝한 VC D-900대대와 同 C-303, C-304, C-63중대가 跳梁하면서 團을 目標로한 侵攻준비에 狂奔하고 있는듯 하다는 諜報를 入手하자 敵의 侵襲을 先制擊破하는 동시에 Lai Thieu에 이르는 제 2번 道路工事場의 安全을 圖謀하고 나아가서는 豫想되는 VC의 迫擊砲 放列地點을 事前에 粉碎하기 爲하여 제 1, 제 3 兩중대를 主軸으로 한 探索戰을 敢行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 1, 제 3 兩중대를 11일 06.00부터 行動을 始作케하여 目標지역인 北西쪽의 Ap Dong—Ap Tay外廓의 “정글”地帶에 이르자 제 1 중대를 作戰지역 北쪽에 遮斷부대로 配置한 다음 제 3 중대(장, 權相集 대위)를 主攻부대로 “정글”의 南쪽으로부터 北上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중대는 07.00까지 目標에 도착하여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면서 地域일대를 탐색중 07.55에 樹林속에 盤據한 1개분대의 VC으로부터 射擊을 받고 즉각 對應하자 이들은 南쪽의 密林속 깊숙히 潛走하였다.

한편 主攻부대인 제 3 중대(장, 權相集 대위)는 제 1 소대를 中央으로, 제 2 소대를 左側方으로 그리고 제 3 소대를 右側方으로 梯隊간격을 維持하면서 北進케 하던중 中央으로 進出하던 제 1 소대가 07.25에 雜木과 가지렁쿰이 뒤엉킨 丘陵에 이르렀을때 敵의 “크레도아”攻撃을 받아 소대장 安正泰중위 外 6명이 重輕傷을 입었다.

그러자 중대장 權相集대위는 各戰傷者들을 空中掩護中인 “헬리콥터”便으로 後送시키는 한편 左側方의 제 2 소대로부터 1개분대를 中央으로 轉進시켜 그 일대를 滿探케 하던중

07.40에 “정글” 兩側方에서 40명으로 推算되는 敵으로부터 輕機關銃 및 自動小銃의 疾撃을 받게되자 狀況의 危急함을 大대장에게 急報하는 동시에 M79를 비롯한 全火力을 指向시켜 45분간에 걸친 熾烈한 近接戰을 展開하였다.

이때 大대장은 當面된 狀況으로 보아 제 3중대의 北進은 보다 많은 損失을 招來할 것으로 판단하고 同중대장에게 命令하기를 『北上을 中止하고 現위치에서 敵의 南下를 阻止하라』고 指示한 다음 제 1중대장에게 命令하여 『現遮斷線에서 즉각 轉換하여 南下하면서 地域內의 敵을 섹출 격파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 1중대장은 大대장에게 『現狀況에서는 地形地物에 대한 正確한 觀測은 勿論이고 方向 조차 識別하기 어려우므로 급히 航空사진을 보내주기 바란다』라고 建議하므로 大대장은 情報장교 姜星鎭중위에게 “절” 車便으로 航空사진을 제 1중대장에게 傳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姜星鎭중위는 지난 4월 2일 夜間에 있었던 團에 대한 VC의 첫 侵攻時에 電線의 切斷으로 營內가 暗黑같이 캄캄한 가운데 敵의 迫擊砲彈이 集中되는 狀況인데도 不拘하고 壕 속의 大대장에게 電話를 連結시킴으로써 團長과 大대장과의 交信을 可能케 한바 있었다.

그는 이날도 大대장의 命令을 받자 즉각 航空사진을 携帶하고 절車로 제 1중대를 向하고 疾走하였는데 敵情이 明確하지 않을 뿐더러 地形조차 不明한 곳을 突進끝에 마침내 사진을 傳達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리하여 제 1중대의 南進이 敢行되어 제 3중대와 兩面 挾攻이 벌어졌으나 敵은 勝算이 없음을 自認한듯 我軍과의 正面對決을 避하여 은밀하게 左側方으로 退散한 것으로 判斷되 있으며 그들이 抵抗하던 小路邊에 많은 流血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8명 程度의 死傷 者를 낸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리하여 부대는 수색을 마치고 11.00에 귀대하였다.

한편 重傷을 입은 제 1소대장 安正泰중위는 “헬리콥터” 便으로 제 1이동 外科病院에 後送 中 08.45에 散華함으로써 한국군이 파월이래 將校로서는 最初의 戰死者로 記錄되었으며 그 밖의 戰傷者는 다음과 같다.

제 1소대	하사	金	영	수	胸部좌편	銃傷
”	상병	金	영	선	左大腿部	”
”	”	李	희	우	右側關節	”
”	병장	金	상	덕	左側	”
”	일병	高	홍	기	左大腿部	”



제 1 소대 일병 張 중 본 左側關節 銃傷

10월 : 지난달 이래 駐屯地 주변에 대한 敵의 跳梁이 頻繁하여지자 韓文煥단장은 1일 06.30에 隸下 各대대장과 單位부대 指揮官을 召集하여 言明하기를 『猛虎 및 靑龍부대가 지난달에 타철되자 敵은 한국군에 대한 壓力을 加增하기 위하여 지난달 이래 駐屯地주변의 跳梁을 激化시킬 微族을 보이고 있는듯하다. 따라서 各級 指揮官은 至今까지의 經驗과 敵情判斷에 立脚하여 보다 철저한 防禦태세를 갖추고 VC을 索出擊滅하는 동시에 計劃된 支援사업에 더욱 拍車를 加하라』고 強調하였다.

그런데 駐留地부근에 對한 潛動을 強化하기 시작한 敵은 14일을 期하여 더욱 露骨的으로 出沒하였으며 특히 이날 20.30에 VC 2개소대 規模가 部隊로부터 南쪽으로 2.5km에 있는 密林地대에 散發的으로 橫行하였는가 하면 21.50에는 無反動銃과 自動小銃으로 武裝한 VC 1개중대 規模가 Binh Hoa로부터 西쪽으로 1.8km의 樹林地대에 出現하였다가 Ap Chanh南쪽 600m의 越南地方軍 哨所를 急襲한 다음, 22.25에는 方向을 急轉시켜 Ap Tay로 移動하는등 離合集散이 頻繁하였다.

이어 敵은 이날밤 子正을 期하여 數미상의 兵力으로 再次 Binh Hoa로부터 西쪽 2km에 있는 閑村에 潛入한 다음, 住民들을 威脅하고 食糧을 奪取하였다.

이와같은 情況을 파악한 대대장 李光魯중령은 事態의 推移가 尋常치 않음을 내다보고 敵이 團에 대한 侵襲을 企圖하기 전에 이를 埋伏으로 邀擊하고자 前哨중대인 제 1 중대장에게 命令하여 潛伏組를 配置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 申佑湜대위는 제 2 소대로부터 9명의 埋伏隊를 差出하여 羅義均소위로 하여금 이를 指揮케 함으로써 21.00부터 Ap Tay北쪽 外廓에 潛伏組를 설치하였다. 이날 氣象은 낮한때 소낙비가 내리다가 곧 개이기 시작하더니 夜間에는 半月의 微光아래 氣溫은 攝氏 25°C이고 南東風이 가볍게 불어 潛伏에 適合하였다.

따라서 소대는 行動에 아무런 支障을 받지 않고 潛伏지점에 進入한 다음, 埋伏태세를 갖춘지 20분뒤에 哨所의 左側 100m로부터 57mm 無反動銃의 支援과 함께 集中的인 銃擊을 받았는데 火力으로 보아 VC 2개분대 規模로 추측되었다.

그러자 羅소위는 命令이 있을때까지 射擊하지 말것을 號令하고 敵이 近接하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어 我軍의 反應이 없음을 알게된 敵이 連續사격을 加하면서 一步一步 接近하자 羅소위는 중대장을 通하여 美航空機의 照明지원과 대대의 81mm迫擊砲 지원사격을 요청함과 동시에 一齊사격을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彼我間의 交戰과 더불어 暫時後에는 美航空機의 照明과 아울러 81mm迫擊砲가 哨

所의 左側方 100m 일대를 뒤덮는 가운데 接戰이 最高潮에 이르자 敵은 攻擊을 시작한지 40분만에 夜暗을 利用하여 “정글”奧地로 退散하였다.

이 戰鬪에서 鄭덕윤병장이 重傷을 입은 이외에 崔경원병장과 徐상조상병이 輕傷을 입고 後送되었으며 歸隊에 앞서 戰場을 수색한 結果 5~6명의 敵이 死傷한 것으로 推測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편 埋伏隊가 復歸後 中대장 申佑湜대위로부터 戰鬪經過 보고를 받은 대대장 李光魯중령은 埋伏隊가 期待하였던 成果를 거두지 못한 要因을 分析검토 끝에 다음과 같은 教訓을 얻었다. (1) 埋伏隊員은 射擊術이 우수하고 忍耐力과 鬪志力이 강한 士兵으로 선발되어야 하며 (2) 장차 豫想되는 地形을 選定하여 諸般狀況을 假想한 事前훈련을 하여야 하며 (3) 敵은 야간行軍時에 “정글”속의 小路를 縱隊로 충분한 個人거리를 유지하면서 移動하므로 埋伏隊員의 個人거리를 5~10m 間隔으로 配置하되 自動火器를 配置하는 것이 效果의이며 (4) 砲兵火力和 地雷埋設로서 “정글”속으로 逃避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는 조치가 講究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대대장은 곧 團長에게 報告하는 한편 隸下 各중대장에게 示達하여 次期作戰에서는 前轍을 밟지 않도록 對備케 하였다.

11월 : 團長 曹文煥중장은 지난 10월중에 敵의 侵掠行態가 積極化된 傾向을 나타내자 全般에 걸친 敵情을 綜合분석한 다음 團의 威容을 間接的으로 誇示하기 위하여 長距離의 차량行軍을 斷行키로 다짐하였다.

특히 그는 지난 3월 16일에 비둘기部隊가 Saigon에 最初로 上陸하자 市街行進를 斷行함으로써 한국군의 鬪志가 旺盛함을 印象깊게 浮刻시킨 事實을 想起하면서 장병의 威容을 다시 한번 보임으로써 越南국민은 勿論이고 이를 窺察한 것으로 推測되는 VC 또는 그 同調者들로 하여금 威壓感을 느끼게 하기 위한 一種의 敵前시위를 敢行하기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1일 06.30에 경비대대장 李光魯중령 指揮下에 제 1, 제 2, 제 3, 제 5, 4개 중대에서 將校 10명과 士兵 372명을 1/4ton 指揮車를 비롯한 2 $\frac{1}{2}$ ton “트럭” 21대에 分乘시켜 Bien Hoa에서 出發케 한 다음, 제 1번 道路上으로 Song Dong Nai(江)를 거치 Dong Hoa—Thu Duc—Hiep Binh Xa—Saigon江—Gia Dinh—Saigon에 이르는 16km를 行進케 하였는데 越南에서 外國軍에 依한 集團의인 車輛行軍이 試圖되기는 最初의 일이었으며, 특히 Bien Hoa—Saigon間的 陸路運行을 禁忌로 여겼던 美·越軍은 不安한 治安상황을 무릅쓰고 이와같은 차량行軍을 斷行한 사실에 一驚한듯 보였다.

한편 경비대대는 이달중에도 각 중대별로 駐屯地 주변에 대한 수색정찰을 續行하였으나

지난달과는 달리 敵의 潛動은 극히 低調한 편이었다.

**12월** : 이달에도 경비대대는 각중대로 하여금 工兵중대의 工事활동을 保護하기 위한 警戒 임무를 遂行케 하는 한편 小規模의 兵力으로 駐屯地 주변 또는 工事場 부근에 대한 埋伏과 정찰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團의 心理戰장교인 金淳學소령과 士兵 2명이 心理戰활동을 위하여 救護品을 受領 分配하고 團의 宣傳用 傳單에 挿入할 工事場사진을 攝影코자 17일 09.10에 靑車로 부대를 出發하여 Lai Thieu로 向하였다. 그리하여 09.15에 An Binh Xa로부터 西쪽으로 2.2km에 이르렀을때 VC 6~7명이 道路右側에 미리 埋設한 地雷를 폭발시켜 그 餘波로 靑의 行進速度가 늦어지는 刹那에 100m西쪽에 있는 獨立家屋에 潛伏한 VC으로부터 自動 및 CAR小銃에 의한 集中사격을 받아 高炳吉하사 및 劉龍洙명장이 頭部貫通으로 戰死하고 金淳學소령이 重傷을 입은 이외에 CAR小銃 2정과 KS-4 “카메라” 1개를 被奪당하고 “靑”차에 若干의 破損을 입었다.

이와같은 突發사태가 벌어지자 運轉兵의 無電急報로 대대로부터 2개 小隊가 急派되어 地域일대를 精探하였으나 敵은 이미 潛跡하고 없었다. 그러나 대대는 이 敵이 次後에도 頻繁하게 地域일대를 橫行하면서 奇襲行脚을 恣行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속 地域一圓에 걸친 廣範濶한 수색정찰을 展開하였으나 끝내 포착하지 못하였다.

**1966년 1월** : 派越이후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團은 將兵 모두가 送舊迎新의 心機를 가다듬고 지난해의 계속사업에 加一層 拍車를 加할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이달에도 꾸준히 탐색 및 埋伏을 실시하였다. 특히 工兵대대 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는 이달 12일부터 Lai-Thieu—Bung (4km間)에 이르는 제 12번 道路의 보수 工事에 착수하였는데 이 道路는 車輛이 通過할 수 없는 狹少한 小路인데다가 兩側에 두성한 “정글”이 있으므로 觀測에 制限을 주는 險難한 地域이었다.

同중대는 施工이래 每日같이 出動하던 중 18일에도 경비 제 3 중대(장, 權相集 대위)의 2개 소대와 함께 08.15에 駐屯地를 出發하여 08.45에 工事場인 Lai Thieu 2km北쪽에 도착한 다음 道路邊의 巨木을 伐開하기 위하여 경비 1개 분대 兵力을 배치하고 地域一圓을 警戒보통 하였다. 이어 工兵소대가 指目된 巨木을 폭과 除去하려고 40m背後에서 통과 TNT를 가지고 接近하려 할때 道路西쪽에 미리 “크레모이”地雷를 설치한 VC 1개 소대 規模가 그 반대 方向의 숲속에 潛伏하고 있다가 地雷를 폭발시킴과 同時에 일제 사격을 集中하였다. 그 瞬間 工兵제 1 중대의 金八滌상명이 戰死하고 趙圭完일명이 重傷을 입은 이외에도 李相日상

병과 경비 제 3중대의 권진호,朴동수 兩상병, 그리고 김기철,李정제 兩일병이 輕傷을 입었다.

이때 工兵제 1중대와 경비 2개소대는 즉각 戰鬥隊形으로 散開하면서 應戰하는 한편 대대 본부에 急報하자 대대장으로부터 이 事實을 報告받은 團長 曹文煥준장은 경비 및 工兵 兩대대장을 대동하고 非常待期병력 1개소대를 指揮하여 現場에 출동하였으나 敵은 이미 退避한 뒤였다. 그러자 曹團長의 命令으로 地域일대를 精探하면서 그들을 追跡하였으나 捕捉하지 못하였다.

한편 21일에 團의 交代兵力이 2개梯隊로 나누어 Saigon의 Tan Son Nhut空港으로 車輛運行中 제 2梯隊의 行列이 市內 Phan Than Gian과 Hai Da Trung 兩街의 交叉路에 이르렀을때 Treump Hotel의 6층에 潛伏한 VC 2명이 舊正을 맞아 市民들이 傳統的인 慣習에 따라 요란하게 爆竹을 터뜨리는 騒音を 奇貨로 車輛行列에 小銃사격을 加하였다. 그러나 即刻의 人 對應조치로 損失없이 空港에 到着하였는데 實은 그 전날 正午를 期하여 雙方間에 舊正休戰이 成立되어 이날까지 發効中인데도 이를 違反하고 白晝에 銃擊을 加하였던 것이다.

2월 : 제 1중대의 제 2소대(장, 金亨先 소위)는 Di An—Bung間 道路上에서 작업하는 工兵부대의 警戒를 위하여 3일 2<sup>1</sup>/<sub>2</sub>ton 車輛 2대에 分乘하여 部隊를 出發한 然後에 目的地인 Lai Thieu의 無名高地 200m앞 삼거리에서 하차하여 道路右側方에 2개분대를, 左側方에 1개분대를 散開하여 橫隊隊形으로 탐색중 右側方의 제 1분대장 崔炳斗하사가 鐵路부근에 이르렀을때 80cm 가량의 褐色電線을 발견하자 “크레모어”의 導火線으로 판단하고 全隊員에게 警告하는 한편 소대장에게 報告하였다.

이에 따라 現場에 도착한 소대장의 指揮에 따라 파헤친 結果 “크레모어”地雷로 確認되었으므로 이를 즉각 爆破하였다.

또한 다음날 경비제 3중대(장, 權相集 대위)의 제 1소대(장, 徐明洙 중위)는 Lai Thieu地域에 대한 偵察任務를 附與받고 07.30에 駐屯地를 出發하여 마을 入口에서 下車하자 각 분대를 6명씩 編成한 다음, 제 1분대를 鐵道넘어에, 제 2분대를 鐵道와 道路사이에, 제 3분대를 道路邊에, 그리고 제 4분대를 道路 건너편에 각각 進入시켰으나 아무런 異常이 없었다.

이윽고 晝食시간이 되어 각 분대별로 食事を 마치고 제 1분대장 金碩萬하사는 未審 積은 豫感이 번득여 警戒지역의 附近을 帶劍으로 쫓아가면서 살살이 살피다가 靑色의 引繼綴線이 路面에 浮上한 것을 발견하고 즉각 소대장에게 보고한 다음,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니 種類未詳의 地雷로 確認되었으므로 13.25에 이를 爆破하였다.

한편 제12번 道路補修를 위하여 工兵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가 連日 出動中 16일에 이에 대한 偵察과 警備임무를 위하여 경비제 3 중대(장, 權相集 대위)는 이날 早朝에 駐留地를 떠나 09.00에 作業場의 1.5km前方에 도착한 다음 道路의 右側에 제 1, 제 2 兩소대를, 左側에 火器 및 제 3 소대를 散開하여 工事場으로 進入케한 然後에 곧 壕溝를 구축하기 시작한 끝에 11.50에 完了하였다.

그런데 이날 氣象은 淸明하고 氣溫은 36°C까지 上昇하여 作業에 支障을 줄만큼 무더웠다. 제 1 소대 제 1 분대의 小銃手인 尹희보상병은 이날의 人員調整上 火器소대(장, 孔文奎 중위)에 臨時 배속되어 13.00에 飢餓을 끝마친 다음 다시 壕溝에 들어갔으나 渴症을 느껴 自己의 水筒을 모조리 비우고도 滿足할 수 없어서 隣接한 壕의 李수산 병장으로부터 물을 얻어 마시려고 13.15에 그 壕溝에 들어갈 刹那 前方의 “정글”로부터 VC의 狙擊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자 壕溝에 있던 李수산병장과 尹성노상병은 즉각 壕溝으로 몸을 낮춘채로 은폐하였으나 그瞬間 또 한발의 銃彈이 3m앞에 날아들었다. 이때 30m 後方을 순찰하고 있던 소대장은 그 銃聲을 듣고 즉각 그 方向을 목표로 連續 집중사격을 가함과 동시에 사격開始를 號令하고 中隊長에게 報告하는 한편 尹희보병장을 壕溝으로 끌어들였으나 그는 重傷이었다

이때 VC이 狙擊한 地點으로 판단되는 “정글”을 向하여 我軍의 집중사격이 5분간 계속되다가 敵의 反應이 없자 그 地點에 進入하여 精探하였으나 아무것도 索出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17일에도 제12번 道路工事を 目的으로 工兵제 1 중대(장, 李永宰 대위)와 함께 이를 警護하기 위한 경비제 1 중대(장, 申佑湜대위)와 配屬된 제 3 중대 제 3 소대가 駐留地를 출발하였다. 08.50에 目標에 도달하자 제 1 중대장 申佑湜대위는 제 2 소대와 配屬된 제 3 중대의 제 3 소대를 右側方에 제 1, 제 3, 兩소대를 左側方에 散開하여 前進中 越南民兵隊의 情報장교로부터 이 地域에 數未詳의 VC이 跳梁하고 있다는 情報를 入手하였다.

그러자 중대장은 100m前方의 울창한 密林을 VC의 蟠踞地로 推定하고 이를 向하여 각 소대를 躍進케 하다가 09.15에 右側의 제 2 소대로 하여금 그 前方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가리운 丘陵에 指向하여 威脅사격을 가하게 한 다음 다시 北上하였다. 09.30에 同소대 제 1 분대 차남진병장이 대나무 숲속으로 통하는 小路邊에서 靑色의 導火線을 찾아내고 綿密하게 살피본 結果 手榴彈으로 製造된 “부비트랩”으로 確認되었으므로 이를 除去하였다.

이어 中隊長은 각 소대를 督勵하여 目標로 急進케 하다가 右側方에 또다시 未審적은 雜木 숲이 나타나자 제 2 소대로 하여금 5분간의 連射를 가하게 한 結果 200m前方의 큰 나무가 혼

들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報告를 받고 즉시 現隊形으로 迂回進中 10.45에 密林奧地에서 “크레모어” 1발의 爆음이 들렸다.

이때 中隊長은 密林속에서 畢竟 VC이 潛動하고 있는 것으로 心證을 굳히고 제 2소대를 右로, 제 3소대를 左로 迂回시키는 한편 제 1소대와 제 3중대의 제 3소대를 中央으로 直衝케 하였다. 이때에 제 3중대의 제 3소대 具원용명장이 “부비트랩” 1개를 目擊함과 때를 같이하여 제 2소대 제 3분대의 金澤淵하사가 導火線 및 “땃데리” 8개를 노획하였다.

또한 제 3소대의 申東鮮하사와 辛應起병장, 그리고 盧逸來상병이 11.10에 거의 같은 지역에서 그물형태 引繼綴線으로 연결된 “부비트랩” 4개를 제거하였다.

또 경비제 5중대(장, 沈基哲 대위)는 工兵제 2중대(장, 金在基 대위)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着手한 Bung學校의 4개教室 工事場의 경비임무를 賦與받고 이에 2개소대를 抽出키로 決定되자 兩소대장에게 強調하기를 『첫째 障礙物에 조심하고, 둘째 敵의 奇襲에 대한 即刻조치에 留意하며, 셋째 進入路 및 陣地주변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展開하고, 넷째 工事와 警備의 僞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제 3소대장 李載熙중위는 07.40에 3개분대장을 불러 分隊의 進入路와 배치지역을 示達하고 中隊長의 強調사항을 각 분대원에게 周知시키도록 아울러 言及하였다. 이리하여 中隊는 工兵제 2중대를 警護하면서 08.20에 分대를 出發하였는데 途中의 路上에서 中隊長은 VC의 傳單文을 얻게되자 全중대원에게 警告하기를 『이 傳單은 VC이 이 地域에서 跳梁하고 있다는 證據이므로 放心하지 말고 四周를 警戒하라』고 促求하였다.

이어 09.50에 目標에 도착한 中隊는 이미 下達된 命令에 依據하여 配置를 完了함과 同時에 警戒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제 3소대장 李載熙중위가 11.00에 제 1분대장 孫東俊하사에게 配置지역에 대한 偵察을 展開할 것을 命令하자 그는 分대를 橫隊隊形으로 散開하고 探索에 나섰다.

그런데 暫時後 分대장은 큰 古木의 近方을 탐색하던 朴實宜상병이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 거리는 것을 보자 即時 달려가 朴상병과 함께 綿密하게 觀察끝에 “부비트랩”을 설치한 爆發物로 確認되었으므로 즉시 中隊長에게 報告함과 아울러 「障礙物 발견!」 信號를 올려 分隊員의 一部를 前方警戒에 臨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兵力으로 하여금 地域內에 대한 細密한 地雷탐색을 敢行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北西쪽으로 조심스럽게 探索전진하던 成煥京상병이 同一한 폭발물을 探知하였으므로 中隊長에게 追加 보고한 다음, 그의 指示에 따라 爆發시켰다.

한편 경비제 2중대(장, 金興洙 대위)는 제 3중대의 1개소대를 配屬받아 工兵제 1중대(장, 李永宰 대위)가 지난 1월 10일에 施工한 Lai Thieu~Bung間을 잇는 제12번 道路擴張공사장의 警備를 위하여 28일 09.10에 作業현장에 도착하자 地雷탐지와 아울러 周邊의 探索을 끝내고 계획된 布陣을 完了하였다.

이에 따라 工兵제 2중대는 10.30부터 工事を 推進中 15.40에 VC이 道路공사를 妨害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화구(길이 3.5m, 幅 1.5m)埋沒작업에 착수한 刹那 그들이 대화구 옆에 巧妙하게 設置한 種類未詳의 地雷 1발이 폭발되어 作業中이던 工兵 4명이 重傷을 입고 3명이 輕傷을 입었다.

그러자 경비제 2중대장 金興洙대위는 즉각 배속된 제 3중대의 1개소대로 하여금 掩護태세를 갖추게 하는 동시에 2개소대를 道路의 兩側方으로 轉進시켜 地域일대를 精密탐색케 하였으나 아무런 端緒도 포착하지 못하였다.

3월 : 경비제 1중대(장, 申佑湜 대위)는 工兵제 2중대가 推進中인 제12번 道路工事場의 경비를 위하여 6일 07.40에 工兵과 함께 부대를 出發한뒤 08.35에 目標인 Lai Thieu쪽 400m에 도착하자 그 一帶에 대한 偵察을 끝낸다음, 計劃에 의한 배치를 完了하고 警戒태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16.40에 道路右側 100m의 “정글”로부터 作業中인 工兵을 向하여 4발의 銃擊이 더해지자 中隊長은 즉각 그 方向을 목표로 사격을 命令함으로써 輕機 및 小銃에 의한 720발을 集中시킨다음, 2개소대를 이끌고 탐색을 전개중 17.15에 北西쪽 100m에서 또다시 狙擊을 받자 探索隊를 그 方向으로 轉進시켜 추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行方을 장추었으므로 中대장 申佑湜대위는 探索隊를 철수시켜 工兵隊와 함께 歸隊할 準備命令을 내렸는데 이때 모든 隊員이 乘車하고 順次的으로 出發하는데 行列의 後尾車輛에 마지막으로 乘車하려던 제 2소대 제 1분대장 趙德熙하사가 VC의 伏兵으로 推測되는 1명이 道路로부터 右側方으로 80m 떨어진 樹林속에 潛伏한채 狙擊한 5발중의 1발이 右側어깨에 맞아 輕傷을 입었다.

이때 中대장 申佑湜대위는 日沒이 迫頭한 時點에서 그 敵을 追擊하기는 無謀하다는 판단에서 全車輛의 運轉兵에게 最大의 速度로 運行할 것을 號令하였다.

그런데 이날의 狀況을 대대장 李光魯중령으로부터 報告받은 曹文煥단장은 다음날 各參謀 및 各單位部隊長을 소집한 指揮官會議에서 說明하기를 『지난달 以來 잇따른 被襲事件의 前後經過狀況을 일일하게 分析할 때에 大部分의 境遇 我軍이 徹底한 對備策을 소홀히 한데 起因하였다고 보

있으며 今般의 狀況에 있어서도 첫째 疑心되는 “정글”地域에 事前에 砲사격으로 制壓하여야 하며, 둘째 撤收時에는 警戒배치 지역으로부터 最小限 300m 떨어진 地點까지 一旦 徒歩로 移動한 다음에 乘車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指摘한 다음, 이어서 『人間은 누구나 千慮의 一失을 犯할 수가 있기는 하나 過去에 겪은 敎訓을 다시 한번 再檢討하여 全장병이 다같이 鎧袖一觸의 信念을 가다듬고 加一層 奮發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끝을 맺었다.

그런데 曹文煥준장은 3월 14일로서 파월滿期가 되었으므로 15일 12.00에 麾下 全指揮官과 장병이 練兵場에 堵列한 團長離就任式에서 告別人事를 한다음, 2대 團長으로 就任한 崔泳龜 준장에게 指揮權을 引계하고 一路 故國으로 向發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01경비대대장 李 光 魯 中령

(1978년 4월 4일 陸軍 제 9사단장실에서, 당시 소장)

派越中에 느낀 點이 많으나 그 中에서도 우리 韓國軍은 大義名分이 分明한 目的意識이 설정되던 어떠한 環境에서도 難關을 초월하여 뛰어난 團結力과 敢闘정신을 發揮할 수 있는 潛在力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허기 때문에 派越 기간중에 命숨에 不服從하거나 規則을 違反하는 將兵은 볼 수 없었으며 모두가 部隊의 安全이 곧 나의 安全이라는 連帶意識에서 自發的으로 警戒任務에 忠實하였으므로 指揮官의 부대統率이 容易하였다.

특히 曹文煥단장은 첫째도 警戒요, 둘째도 警戒라는 엄중한 指示를 내리고 그 自身이 滿廉剛

直함을 率先垂範하였기 때문에 麾下 장병들은 모두가 그를 尊敬하고 信賴하였다.

따라서 團長이하 모두가 그토록 혼한 外製電氣用品을 購入하거나 돈을 벌겠다는 貪念은 姑捨하고 부질없는 功名心에 불타거나 報復을 바라는 黑心을 秋毫도 갖지 않고 오직 命숨에 服從하여 韓國軍으로서의 矜持와 名譽를 빛내고 無事히 任務을 수행한 다음, 歸國하겠다는 一念밖에는 없었으니 이러한 點으로 볼때 韓國軍은 外國에 派遣되어 어려운 環境에 處했을때 그 眞價를 더욱 찬란하게 浮刻시키는 優秀한 資質의 軍隊라고 자랑하고 싶다.

#### 海兵第1獨立工兵중대장 朴 東 奎 소령

(鄭采浩 編著 나의 海兵時節에서 발췌, 豫 中령)

비둘기部隊의 宿營地 前方은 密林이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이를 除去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VC의 砲彈洗禮를 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부대의 安全을 위하여 最小限 81mm砲의 有効射程距離의 밖에까지 密林을 없애버리기로 하였는데

曹文煥 團長으로부터 부대의 陣지구축은 늦어도 2週間이내에 끝내라는 嚴命이 있었으므로 이 期間內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르도저”를 앞세우고 “정글”과 싸우기를 10餘日, 마침내 作業을 끝내고 보니 亦是 豫測 한대로 VC들은 우리의 陣地前方



200m地點까지 땅굴을 파놓고 侵襲의 機會를 노리고 있었음이 確認되었다.

海兵工兵중대가 遂行한 道路工事は 제 3번, 제 19번, 제 8번 道路등 許多하나 그 中에서도 3km에 達하는 叢林과 고무밭을 뚫는 제 8번 道路는 VC의 1개대대 潛據地로 되어있는 中間지대를 貫通하여야 하는데 저는듯한 暴炎下에서 警戒태세를 갖춘채 作業을 進行하기란 難事中的 難事가 아닐 수 없었다.

越南軍을 비롯한 어떠한 軍隊도 敢히 이 地域에 進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만큼 敵情이 活潑한 이 未開拓地에 進出하여 道路를 開設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越南정부는 未平定

지역에 대한 作業을 選別的으로 이룰기 部隊에 賦與하였으므로 陸軍工兵부대는 數次的 接戰을 겪었으나 우리中隊는 敵情이 險惡한 地域에 配屬되었는데도 단 한번도 交戰없이 工事を 完遂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제 8번 道路上에서 틀림없이 VC과의 接戰이 있을 것으로 豫測하고 萬發의 決戰태세를 갖춘채 1개월동안에 걸쳐 作業을 推進하였는데도 아무런 交戰없이 工事を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을 回想하면 우리中隊는 宿命的으로 運이 좋았거나 아니면 VC들이 우리 海兵의 威容에 萎縮되어 스스로 挑戰을 提議한 敗北意識의 所致였을지도 모른다.

### IMAO 連絡將校 安 昌 和 중위

(1978년 5월 9일 鐵道廳 運輸局長室에서, 豫 대위)

韓國軍의 과월은 美國政府가 韓國을 위한 政治外交의 次元에서 推進한 것이다 하더라도 實際로 파월된 初期의 韓國軍은 그러한 美國의 配屬가 거의 反映되지 않은 處女地에 투입된 것 같은 狀況에 있었으므로 韓國軍의 現地 指揮官들은 매우 勞心焦思하며 苦悶하였다.

즉 協定上으로는 國家對 國家의 道德的 眼目에서 파월후의 韓國軍을 合理的으로 處理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實地에 있어서는 前提되어야 할 要件이나 具備되어야 할 條件이 엄청나게 未檢함으로써 많은 蹉跌을 빚었다.

아를테면 初期의 韓國軍은 收容태세가 거의 整備되지 않은 狀況에서 派越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指揮官들은 부대의 設置, 運用, 그리고 作戰활동

에 있어서 豫想이외의 고된 試練을 겪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見地에서 볼때 韓國軍의 派越을 앞두고 1,2次的 先發隊長으로서 韓·美·越間에 가로놓인 錯雜하고도 微妙한 相關關係를 卓越한 外交力과 銳利한 策略으로 打開하고 協定을 맺은 李勳燾준장의 功勞는 實로 크다고 하겠으며, 또한 最初의 現地 指揮官으로 赴任한 曹文煥준장은 協定과 現實이 부합되지 않는 狀況에서 隘路와 難關을 극복하면서 韓國軍의 能動的인 活路를 開拓하고, 그 土靈를 樣樣함으로써 追後의 戰鬥부대 派越에 橋頭堡의인 基礎를 다져놓은 동시에 韓國軍의 信義와 威容을 처음으로 萬邦에 돋보이게 한 빛나는 功績을 남겼다고 讚揚하고 싶다.

## § 逸 話

### 衛兵에 出入을 拒否당한 副統領

이들기部隊의 衛兵이 너무도 嚴格하여 좀처럼 出入할 수 없다는 所聞은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正門의 衛兵은 部隊의 將兵을 除外하고는 誰何를 莫論하고 團長의 許諾없이 出入시켜서는 안된다

는 嚴命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徹底하게 遵守하였다.

越南戰이 漸次로 擴大될 무렵인 1966년 2월 10일에 美國의 Humphrey副統領이 파월 美軍의 活動相을 視察하기 위하여 Sargon에 도착한 다음, 美軍기지를 巡訪하던 途中인 11일에 느닷없이 비둘기部隊를 찾았다.

元來 公式日程에는 12일에 同部隊를 訪問키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豫定을 變更하고 사전通告도

없이 部隊에 當到하여 正門을 通過하려 하였다.

그러자 正門의 衛兵은 一言之下에 안된다고 拒否하면서 通過시키지 않자 警護車의 美憲兵이 Humphrey 副統領이니 빨리 通過시키라고 一喝하였으나 그 衛兵은 눈 하나 까먹않고 一貫하여 拒否하였다. 한참동안 彼此間에 옥신각신 하였으나 結局에 Humphrey 副統領은 公式日程에 따라 訪問키로 하고 車를 돌려 오던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別表 (1) 醫療業務統計 (1965.3~1966.3)

환자구분	총치료인원	입원환자	후송환자	퇴원환자	사망	외래환자
韓國軍	565	34	126	382	23	2,935
越南軍	634	55	54	493	32	11,048
民間人	158	17	26	106	7	1,325
合計	1,357	106	206	981	62	15,308

別表 (2) 患者發生統計 (1965.3~66.2)

과별	월별	총계	1965										1966	
			3	4	5	6	7	8	9	10	11	12	1	2
내과		8,636	475	639	712	616	1,034	825	304	724	825	794	609	652
외과		10,407	833	839	1,089	1,040	1,109	932	730	760	858	846	635	736
피부과		8,951	929	687	499	462	1,448	927	745	774	758	763	550	409
치과		890	15			42	208	127	62	92	85	77	96	86
기타		815	60	46	61	37	64	81	86	70	102	103	71	34
합계		29,699	2,312	2,211	2,361	2,197	3,863	2,892	2,327	2,420	2,655	2,583	1,961	1,917

## 第 5 章

# 派越 韓國軍司令部의 創設

### 要 旨

1. 編成 要 單位部隊 指揮官
2. 作戰指揮權
3. 作戰觀念



## 第 5 章 派越 韓國軍司令部의 創設

참조 : 상황도 제6, 7호  
부 록 제1, 2호

### 要 旨

1965년 2월 3일, VC이 Pleiku, Tuy Hoa 兩市의 美軍 급유소를 습격하여 美軍 116명을 殺戮하고 비행기 16대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파괴한 問罪의 뜻으로 美해군기가 越盟의 Dong Hoi 기지를 폭격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Ton Kin灣 사건以來 6개월간 보류되었던 北爆이 재개된바, 이를契機로 VC의 再犯 “태러”와 美軍機의 보복폭격이 몇차례 되풀이 되다가 드디어 同年 3월 2일부터 美·越 兩軍機의 越盟내 군사기지에 대한 본격적인 大手術이 시작되었다. 이어 6월 28일부터 派越 美軍이 越南의 지상전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戰勢는 擴大一略을 치닫게 되었으며, 韓國에서도 越南을 돕는 자유우방의 一員으로 전부부대를 과병하게 되어 10월에 首都사단과 해병 제2여단이 Qui Nhon과 Cam Ranh에 각각 상륙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5일에는 이미 越南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韓國군사원조단을 포함한 派越한국군의 통합지휘를 위하여 파월한국군 사령부를 서울의 筆洞에서 창설하고 10월 25일 Saigon으로 移動케 한 다음, 전투 및 지원부대를 統솔 지휘토록 하였다. 그런데 韓國軍의 현지 작전지휘권 문제는 전투

부대의 派兵이 결정되는 당시부터 적지않은 迂餘曲折 끝에 선발대의 연락장교단의 활동(제3장 참조)으로 체결된 韓·越과 韓·美의 兩군사실무자약정서(65.9. 5~6)에 의거하여 3개국 군사대포로 구성되는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FWMAPC)의 결정에 따라 군사령관이 自主的인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군사령부에서는 작전을 전개함에 있어 연합군이나, 美軍의 전술을 따르지 않고 越盟戰의 특수성에 適應할 수 있는 獨自的인 전술개념을 定立하고 군사활동과 심리전을 병용하면서 전술 책임지역을 점차로 확대하여 나가려는 方式을 採擇하였다. 特히 派越한국군은 주민과 VC을 분리하여 敵의 遊動근거지를 芟除하는데 主眼을 두고 이를 위한 거점으로서 중대(+ )규모의 전술거지를 要地에 설치하여 군사 및 민사심리전의 核心기지로 활용하였는데, 이것이 奏効하여 從來의 양상을 一變하는 契因의 하나가 되었으며 마침내 연합군측에서도 이러한 기본방침의 妥當性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 1. 編成 및 單位部隊 指揮官

### 가. 軍司令部의 任務 및 編成

派越 한국군사령부는 대통령령 제2226호(65. 6. 29) 및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65. 9. 20)에 의거하여 국방부 직속부대로 1965년 9월 25일에 창설되자 초대사령관으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蔡命新 소장이 補任되었다. 同사령부의 임무는 발족과 동시에 하달한 訓令 제1호(65. 9. 25)로써 명시된바, 그 要點는 다음과 같다.

- 『1. 派越한국군은 越南공화국정부의 요청(越南 수상의 전투사단 파병요청 서한 : 65. 6. 14)에 의하여 越南공화국의 국가평정 및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한다.
2. 派越한국군 사령관은 陸下한국군을 통합지휘하여 越南공화국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使賊과 支援에 의한 叛亂과 侵略을 鎮壓하여 越南공화국의 자유와 安定을 恢復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
- 가. 派越한국군이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와 통세체계 및 작전지역은 韓·越·美 3國의 軍대표로 구성되는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정책회의에서 결정된다.
- 나. 수도사단(-) 및 해병제2여단은 越南으로 進出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 다. 건설지원단은 군사령부가 越南에 지휘소를 개설하는 동시에 사령관의 지휘하에 들어가며, 피해지역 재건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또한 군사령관의 주요기능은 同훈령 부록“하”(지휘권 관계)에 함의되었는데, 派越한국군을 대표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고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정책회의의 상임위원의 一員으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예하 및 배속부대의 人事와 財政지원을 관장한다. 또 군사령부와 작부대와의 통신망을 유지하고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越南軍과 派越軍 當局者와 협조한다. 이러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령부의 편성은 창설以前의 母體인 韓國군사원조사령부의 편성개념(제4장 참조)에 立脚하여 合同참모제로 구성되었다. 이와같은 창설과정을 끝마친 군사령부는 곧 작전명령 제1호(65. 10. 24)로써 전투부대 및 사령부를 越南으로 移動케 하였는데 그 要點는 다음과 같다.

- 『1. 상황 : 概說 및 제1장 一般戰況 참조.
2. 派越한국군은 越南공화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越南으로 進出한다.
3. 首都사단(-)은 9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이에 Binh Dinh省의 Qui Nhon과 Binh Khe로 이동하라.
4. 해병제2여단은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이에 Khanh Hoa省의 Cam Ranh으로 이동하라.

5. 본부근무대는 10월 20일까지 사령부 및 직할부대를 통합하여 Saigon으로 이동하라. 잔여후속 부대를 별도 지시에 의거 이동시켜라.』

이에 따라 10월 20일 사령부의 제1梯隊(사령관 以下 94명)가 Saigon에 도착하는 즉시 임무수행에 착수하였다.

- (1) 군사령부 편성표 : 별지 #1 참조.
- (2) 首都사단 편성표 : 별지 #2 참조.
- (3) 해병제2여단 편성표 : 별지 #3 참조.

### 나. 單位部隊 및 指揮官

군사령관 소장 蔡命新

首都사단장 군사령관 겸무

해병제2여단장 준장 李鳳出

건설지원단장 준장 曹文煥

해군수송단대장 대령 李應基

## 2. 作戰 指揮權

韓國軍의 전투부대 파월이 결정되자 越南軍과 파월美軍이 서로 지휘권을 獨占하려는 珍無類의 片貌를 보인바 있었지만 3개국 군사실무자협정의 締結로서 一段落되었거니와, 首都사단(-) 및 해병제2여단이 현지에 상륙한 직후부터 다시 이 문제가 꼬리를 물고 적지않은 混迷相을 露呈하기도 하였다. 즉 파월美軍사령관 Westmoreland 대장은 그 당시 파월한국군이 건설지원단을 합쳐 도합 25,000명에 불과한 병력인데도 불구하고 Saigon—Cam Ranh—Qui Nhon의 3개지역에 분산 전개한 點을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自主的인 지휘권을 가지면 연합군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장이 될 것이라 하여 「指揮統一」의 원칙에 따라 지휘권을 美軍에게 넘겨줄 것을 提議하는 것이었다. 이에 군사령관은 전술의 원칙상 지휘를 통합할 必要性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휘권을 송두리째 移讓한다면 공산측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肅兵」이라는 그들의 宣傳을 合理化하게 된다는 點과 그밖의 獨立國家의 威信과 軍

의 士氣등에 미치지 될 달갑지 못한 事由를 들어 이를 一言之下에 拒絕하고 이 문제를 再論치 않기로 합의의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擧論되기에 앞서 군사령부에서는 兩전부 부대르 하여금 파월미군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TAOR)을 인수케 하는 작전명령(제2호: 65-10.25)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상황: 생략

2. 파월韓國軍은 越南공화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전투부대의 基地를 확보하고 피해지역 재건을 계속 지원한다.
3. 수도사단(一)은 Qui Nhon—Binh Khe를 中心으로 하는 地域에, 해병제2여단은 Cam Ranh를 中心으로 하는 지역에 각각 基地를 설치하여 할당된 전술책임範圍內의 敵을 擊滅하고 차기작전을 준비하라.
5. 자유세계 군사원조정책회의의 합의에 따라 담당지역내의 敵을 一掃할때까지 수도사단(一) 및 해병제2여단을 파월美軍야전군사령부(FFV)의 작전통제하에 둔다.』

그런데 이 명령의 제4항은 작전지휘권과는 관계없이 한국군이 생소한 異國의 兵要地誌를 파악하고 越南실정에 適應할때까지의 暫定的인 方便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지의 美軍야전부대 지휘관과 야전군사령관이 비록 兩전부대가 그들의 작전통제하에 들기는 하였지만 지휘권이 분리되어 있는 까닭에 任意로 運用할 수 없다는 不便을 理由삼아 지휘권문제를 다시 들먹거리므로 早晚間에 明決한 決斷이 내려져야 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령관은 파월美軍사령관에게 그의 예하 야전지휘관과 幕僚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을 提議하였으며, 이 회의석상에서 韓國軍이 獨立된 지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까닭을 說破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越南戰은 군사적인 側面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政治的인 見地에서 大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韓國軍이 自主的인 지휘권을 갖지 않는다면 韓國이 자진하여 赴援한 擧國의인 自約에 먹칠을 하게되고 또 越南을 위한 出血의 奉仕가 아니라 美國을 위한 「諸負戰爭」이라는 非難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韓·美兩國은 물론이요 자유우방 騎士道의 名分도 또한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高次元에서 美軍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一考의 價値조차 없다.
2. 파월한국군이 작전지휘권을 自主的으로 행사한다고 하여 일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연합군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차질을 自招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友情있는 協調로써 能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Westmoreland 대장은 군사령관의 주장이 千萬可當하다고 承認하고 그의 麾下 지휘관과 참모들로 하여금 이에 承服할 것을 要求함으로써 이 지휘권문제는 드디어 落着을 보게 되었다.

파월韓國軍의 지휘계통도: 별지 #4 참조.



### 3. 作戰 概念

파월한국군의 작전개념은 파월美軍의 전술과는 그 軌를 달리한 獨特한 것으로서 越南정부의 전쟁수행방침의 核心인 「村落再建」계획(一名: 평정 계획)에 바탕을 두고 現地戰의 특장을 감안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越南정부의 「村落再建 계획」과 파월美軍의 地上戰의 構想과 전술적 운용을 먼저 취급한 다음 파월한국군의 작전개념에言及키로 한다.

#### 가. 越南共和國의 村落再建計劃

越南 정부는 1961년부터 所謂 「민족해방전선(NLF)」의 “지밀터”들이 全國의 규모로 猖獗하게 되자 우선 이를 剿滅하는 것을 急先務로 하여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僻村의 주민을 일정한 지역에 모아 大單位 부락을 건설하여 정부통제하에 들게 하려는 이른바 「戰略村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이 국가평정계획의 先決要務가 되었다. 본시 이 계획은 同年 10월 Kennedy 대통령의 特使로서 訪越한 Taylor 대장의 構想인바, 다음해인 62년 3월부터 시작하여 18개월간에 7,500개소의 전략촌을 건설하여 全人口의 三分의 二인 1,000萬의 주민을 收容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의 施行과정에서 계획상의 誤謬가 드러나고 VC의 妨害와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기되다가 1963년 11월 1일 군사“쿠데타”로 말미암아 Ngo Dinh Diem 政權의 붕괴와 더불어 所期の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뒤 軍部の “쿠데타”와 “테모”의 頻發로 政局이 不安하여 평정계획에는 손을 쓰지 못하다가, 1964년에 美원조사절단(USOM)의 지원을 받아 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정부법령(제 64호: 65.1.5)으로 이를 公布하였다. 그런데 이에선 「平定」이라는 語彙를 「村落再建」으로 代置한 구체적이고 의욕적인 것이었다. 이리하여 同年 5월부터 파월美軍의 지원하에 現場에 拍車를 加하였는데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1. 村落再建의 定義: VC의 군사행동을 제압하고 정치적인 조적을 換骨源始하는 軍, 警, 民의 三者中心으로서 정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全國 45개省을 地方의 특색이 保全된 상태로 정부의 管轄하에 들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定義의 촌락개건은 군사 및 정치의 두가지 局面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군사문제는 VC

의 군사체제를 粉碎하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收復하여 VC 지지세력을 정부시책에 呼應하는 새로운 팀으로 키우는데 목표를 두는 一方 그들의 首鼠兩端의 통치력을 抹殺하는데 있다. 정치적인 局面은 군사행동으로 광악한 지역의 주민을 軍警의 협조로 보호하고 계몽선도로써 VC을 敵對視하도록 鼓舞하고 정부에 忠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촌락재건은 항상 VC과 국민을 목표로 전개하는 정부의 窮徑目標이다.

## 2. 村落再建의 段階 : 촌락재건은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전개한다.

### 가. 제1단계 : VC의 군사력 제압.

이 단계에서는 VC의 조직적인 活動力을 制壓하고 그들의 정치, 군사체제를 抹殺하기 위하여 선정된 목표내에서 發露하는 勢威로써 正規軍을 中心으로, 地方軍과 民兵隊의 團台된 힘을 集結하여 지역내의 殘存 VC을 索出한다.

### 나. 제2단계 : 점령지역의 防守

前段階에서 확보한 지역에 지방행정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만큼 질서가 유지되고 이를 발판으로 정부의 통치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근의 未收復지대를 奪取하는 軍警民의 협조된 활동을 꾀한다. 이 단계에서는 軍隊(地方軍 포함)가 점령지내 부근에서 작전을 전개하며 마을을 防守할 民兵隊가 常駐하면서 局地경계를 담당한다. 한편, 주민이 정부에 대하여 順從하는 반응을 보일 때에는 有力人士를 지방자치기관에 가담케 하여 VC의 細胞조직을 拔本塞源한다.

### 다. 제3단계 : 社會發展

경찰이 治安을 專擅할 수 있을 정도로 安定되고 촌락재건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을 期하기 위하여 實踐하는 단계로서 행정기관이 根底가 되고 軍隊가 이를 育成토록 한다. 이 단계의 목표는 지방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生業과 自由를 保障함으로써 他的 先驅가 되게 한다.]

이러한 촌락재건계획이 시행된지 5개월 뒤인 10월에 兩전투부대가 越南에 상륙하였을 때에는 Saigon과 各省都 그리고 郡廳소재지가 겨우 越南정부 통치하에서 命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정부관할지역에서도 VC의 橫行이 極甚하고 야간에는 그들의 天下로 탈바꿈하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정부를 不信하는 風潮가 澎湃하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VC이 이러한 지방의 都邑을 強奪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이른바 그들의 3단계 戰略(防守—抵抗—反擊)에 의한 결정적인 時機가 到來할때까지 이 지역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보급물자를 조달하는 自家市場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나. 派越 美軍의 地上戰 構想

Kennedy 대통령은 61년 10월에 그의 특사로 訪越한 Taylod 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

음해 2월에 파월 美군사령관단을 同군사원조사령부로 개편하고 사령관으로 Harkins 대장을 임명하였으며, 12월에는 파월美軍을 12,000명 규모로 증강하였다. 이는 新生國에서 공산주의자들의 使嗾로 跳梁하는 所謂「민족해방전선(NLF)」을 제압하려는 叛亂對抗戰略(Counter insurgency Strategy)의 일환으로 越南軍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契機로 USA는 FRANCE가 실패한것과 똑같은 “제릴러”戰의 어려운 상황에 適應할 구체적인 방책도 세우지 못한채 끝없이 넓은 參戰에 이르는 門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뒤 Ngo Dinh Diem 정권의 沒落과 함께 가실줄 모르는 정치적인 소용불이 속에서 越盟軍과 VC에 依한 紛爭이 계속되자 64년 4월에 Johnson 대통령은 파월 美군사원조사령관을 更迭하고 Westmoreland 대장을 새로 임용하였다. 그리하여 同年 7월에는 파월美軍이 30,000명線으로 增強되고 다음해(65년) 3월에는 Da Nang 비행장을 防守하기 위하여 美해병 2개대대가 現지에 상륙하였으며, 뒤를 이어 美軍의 전투부대와 자유우방의 연합군이 派兵되었다.

이 時点(65년 4월)까지의 파월美軍은 基地確保戰略(Enclave Strategy)에 의거하여 沿岸 지대의 주요군사기지를 據령하고 橋頭堡와 병참 및 전투지원시설인 비행장과 통신소 및 포진지를 防守하면서 이를 中心으로한 半徑 50mils 以內의 범위에서 越南軍을 지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主가 越南軍이고 從이 美軍인 제한된 참전이였다. 이러한 틈을 타 越盟軍은「胡志明 通路」를 이용하여 越南에 침투하고 이에 鼓舞된 VC이 그들과 合勢하여 중부고원지대의 Pleiku—Con Tum을 主據臺로 越南의 兩斷을 確保하였다. 또 지방의 都邑을 제외한 全域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對항하는 越南軍이 交戰할때마다 慘敗를 거듭함으로써 國家의 存立마저 위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파월美軍의 防守위주의 기지확보전략으로서는 이러한 難局을 타개할 수 없을뿐더러 단지 越南軍의 敗北頻度를 遞減하는 目的 方便에 지나지 못하였다. 이에 파월美軍사령관은 美지상군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세워 5월 8일 이를 Washington에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6월 8일 美국무성의 鑒明에 이르기를 『파월美군사령관이 越南軍의 상대적인 立場을 강화하는데 必要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美軍을 戰鬪에 投入할 수 있는 權限을 그에게 부여한다.』라고 함으로써 美지상군이 직접 越南戰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同대장의 3단계로 구분된 攻勢 移轉을 위한 작전개념을 一瞥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段階：기지를 확보한다.

2. 제2段階：기지의 防守를 위하여 輕砲(105mm 곡사포) 사정거리 以內에서 작전을 전개하며 越南軍과 연합하여 원거리 전투경찰과 공격을 決行한다.

3. 제3段階: 越南軍이 필요로 할때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며 본격적인 反擊으로 移行한다. 이와 동시에 海안선 기지의 安畵이 保全되면 內陸으로 移動하여 기지확보를 목표로 작전을 전개한다.』 이러한 작전개념을 一名「索敵—擊滅 戰略(Search and Destroy Strategy)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이는 防守(기지확보)에서 攻勢로 轉移할때에 싸움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하여 機先을 제압하는 方式으로「索敵—擊滅」의 方式을 取하는 것이 通則이기 때문에「戰略」이라고 부르는것은 恰當하지 않은성 싶다. 이 개념을 美軍방성이 승인하자 卅월美軍사령관은 越南戰을 終熄시킬 과정을 다음과 같이 構想하였다.

- 『1. 제1단계에서는 65년 末까지「敗色을 挽回」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美軍과 연합군을 투입한다.
2. 제2단계에서는 66년 上半期에 전술책임지역내의 敵을 擊碎하고 越南정부의「村落再建」계획을 補充하기 위하여 美軍과 연합군으로 전략적 要衝에 對한 公세로 移行한다.
3. 제3단계에서는 前段階 이후에도 敵이 계속 저항한다면 1년이나 1년반 동안에 그들을 敗北시키고 기지를 覆滅한다.』

이를 忖度컨대 派越 미군은 근본적으로 持久戰 方式을 採擇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卅월美軍사령부에서는 이러한 작전개념과 構想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卅월美軍의 전술적 運用(Tactics and Techniques for employment of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Vietnam)을 수립하여「지시 525—4 : 1965. 9. 17」로 하달하였는데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 『1. 概要

- 가. 越南軍을 도와 공산주의자를 敗北시키고 惹起될수있는 暴動을 진압하여 越南전체가 정부 통치하에 들어가도록 한다.
- 나. 越南戰은 군사전인 동시에 정치전이다. 정치전이라는 이유는 이 전쟁의 최상의 목표가 국민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정부정책에 呼應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平和롭고 安定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여 주는데에 있기 때문이다.
2. 戰略: 越南정부와 美軍이 VC를 격멸하고 越南정부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하여 3단계로 구분한다.
  - 가. 제1단계 : VC의 공격을 阻止하고 그들의 根源을 拔本塞源한다.
  - 나. 제2단계 : 공세로 移行하여 敵을 擊碎하고 선정된 최우선지역을 平定한다.
  - 다. 제3단계 : 越南 전역을 정부의 統治圈에 들도록 점진적으로 恢復한다.
3. 戰略의 3단계를 완수하기 위한 군사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군사 및 통신시설을 防守하며 VC 兵群과 그 거점을 攻陷한다.
  - 나. 平定의 前提로 VC의 潜在力이 있는 특정지역의 수복을 목표로 탐색을 벌이고 恢復된 지역의 항구적인 保全策을 강구한다.
  - 다. 기동타격대를 강화한다.
  - 라.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항공지원(전술 및 행정)과 해군에 依한 海안감시와 해상침투

阻止 그리고 上陸 및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 전술적 운용의 세부사항은 생략)』 이에 따라 파월 美軍은 그들 特有의 전투방식인 고도로 발달된 기동장비와 강력한 지원 火力을 무제한으로 활용하는 物置작전의 특색을 발휘하기 위하여 人口가 조밀한 郡邑지대를 越南軍이나 기타 연합군에게 一任하고 山岳지대와 17° 停戰線 부근의 가장 敵情이 많은 戰略의 要衝에서 주로 越盟軍을 상대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 다. 派越 韓國軍의 戰術的 運用

##### (1) 作戰 概念

파월 美軍의 작전개념이 越南정부의 「村落再建」계획에 바탕을 둔 것이었거니와 파월 韓國軍의 그것도 이 範疇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지만 派兵규모가 적은 관계로 비당된 책임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제1段階 : 전술책임지역(TAOR)의 防守를 위한 據點을 구축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부대를 배치하며 전술기지를 설치하여 기지주변에 대한 전투정찰과 탐색을 전개한다.
- ②. 제2段階 : 攻勢로 移行할 발판을 굳히는 것을 목표로 책임지역내의 敵지배지대를 수복한다. 이를 위하여 중심깊은 정찰과 탐색을 전개하면서 所在의 敵을 擊碎하여 점령지역의 勘定을 期함으로써 전술지역 밖으로의 공격태세를 가다듬는다.
- ③. 제3段階 : 대부대 작전을 전개하여 전술책임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地境線밖에 있는 敵의 主力을 擊滅하는 한편, 담당지역내의 安定을 期하도록 越南당국의 「村落再建」계획을 지원한다.』

##### (2) 戰術的 運用의 指導腹案

군사병관은 이러한 3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VC과 주민을 分離하는데 主眼을 둔 전투부대의 전술적 운용에 대한 지도복안을 세웠다. 즉 이른바 毛澤東의 혁명理論을 教條로 삼고 그의 “저릴러”戰法을 준용하는 VC의 근거지를 覆滅하는데에 力點을 둔것인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敵과 주민을 分離시켜 “게릴러”의 溫床을 顛覆하는 한편 그 행동범위를 壓縮한다.
- ②. 孤立되고 弱화된 敵을 先制로 공격하되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投入한다.』 이와같은 지도방침의 焦點이 되는 「VC과 주민의 분리」를 期하는 方策이 곧 중대전술기지 개념이다. 이는 전술책임지역내의 要地나 VC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수복할 목적으로 선정된 목표부근에 중대(+ )규모의 전술기지를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敵을 一掃한 다음 그들이 다

시는 주민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 중대전술기지는 공격과 防禦 및 민사심리전의 核心이 되는 單位기지로써 파월韓國軍이 개발한 自主的인 전술개념인 바, 그 설치에 對한 일반지침은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1. 敵의 연대규모 공격에 최소한 48시간 以上 지탱할 수 있도록 진지를 構築하고 소요되는 탄약과 식량을 비축한다.
2. 기지는 포병의 지원사정권에 설치하며 기지간의 간격은 탐색과 야간매복으로 補強한다.
3. 기지는 모든 작전행동과 越南당국에 依하여 推進되는 「村落再建」계획을 지원하는 據點으로 활용한다.』

그런데 兩전투부대가 현지에 상륙하여 이 지침에 따라 중대전술기지를 설치하자 파월美軍과 越南軍이 한결같이 중대규모의 기지로서는 敵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최소한 대대단위의 기지와 代替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意見提示는 兩전투부대가 越南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을뿐만 아니라 현지사정에 생소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술개념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取한데 대한 憂慮의 표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時日의 흐름에 따라 이 방식이 VC를 擊碎하고 「村落再建」계획을 지원하는데 적지않게 奏効하자 연합군도 이 중대전술기지개념의 適當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파월美軍은 이를 가리켜 「火力據點(Fire Base)」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 (3) 作戰 周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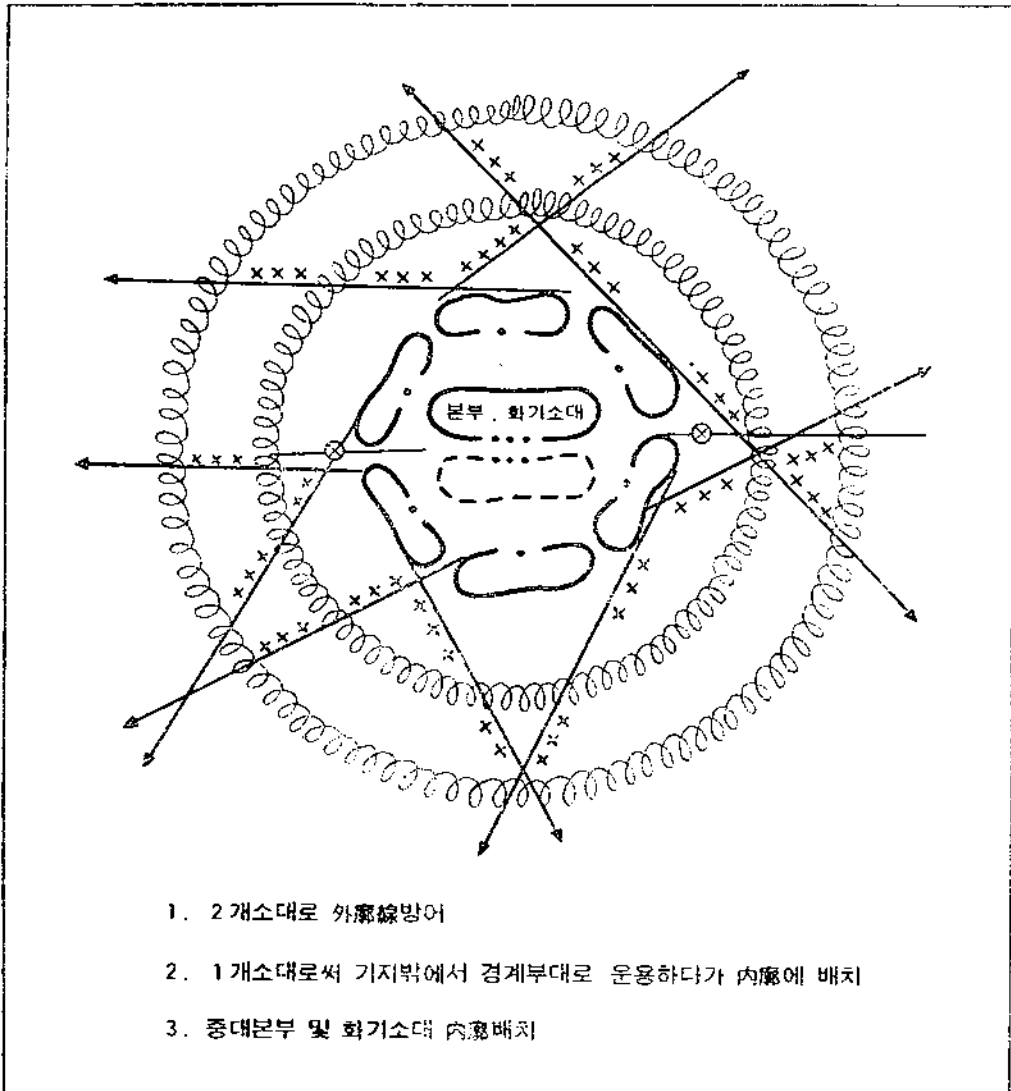
兩전투부대는 군사령부의 작전개념에 立脚하여 단계별로 군사 및 대민심리전을 병행하였으므로 작전주기 또한 3개期로 구분되지만 해병제 2여단은 Cam Ranh—Tuy Hoa 일대에서 파월美야전군사령부의 통제하에 주로 연합작전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전투형태의 발전과정을 구별하기 곤란하여 여기에서는 首都사단의 작전주기를 위주로 취급하였다.

(가) 第1作戰期: 兩전투부대가 담당지역에 부대를 배치하고 派越미군으로부터 전술책임 지역을 인수한 뒤의 2주일간, 다시 말하면 上陸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한 전투가 이에 該當된다. 이 기간에는 전술기지를 構築하고 주로 중대급 이하 단위부대가 현지의 지형과 敵情에 適應하는데 留意한 것이 었다. 또 전투훈련을 兼한 야간매복과 정찰 및 탐색을 실시하였는데, 계획상의 誤謬와 시행간의 錯誤를 거듭하면서 각개장병의 戰技가 숙달되어 가는 가장 어려운 여러가지 難關을 극복한 기간이기도 하다.

(나) 第2作戰期: 그동안 소부대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兵要地誌 그리고 어느정도 연마된

전투技倆을 바탕으로 攻勢에서 功勢로 跳躍한 期間으로서 65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22 일까지의 전투가 이기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전술책임지역 내의 선정된 VC 지배하의 지대를 복포로 중대 및 대대규모의 전투를 벌이다가 연대규모의 작전을 전개한 바, 장병들이 勝利의 確信을 갖게 되고 현지실정에 숙달하여 VC전술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戰法이 연구개발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期로 移行할 基盤을 다지고 민사심리전의 實効를 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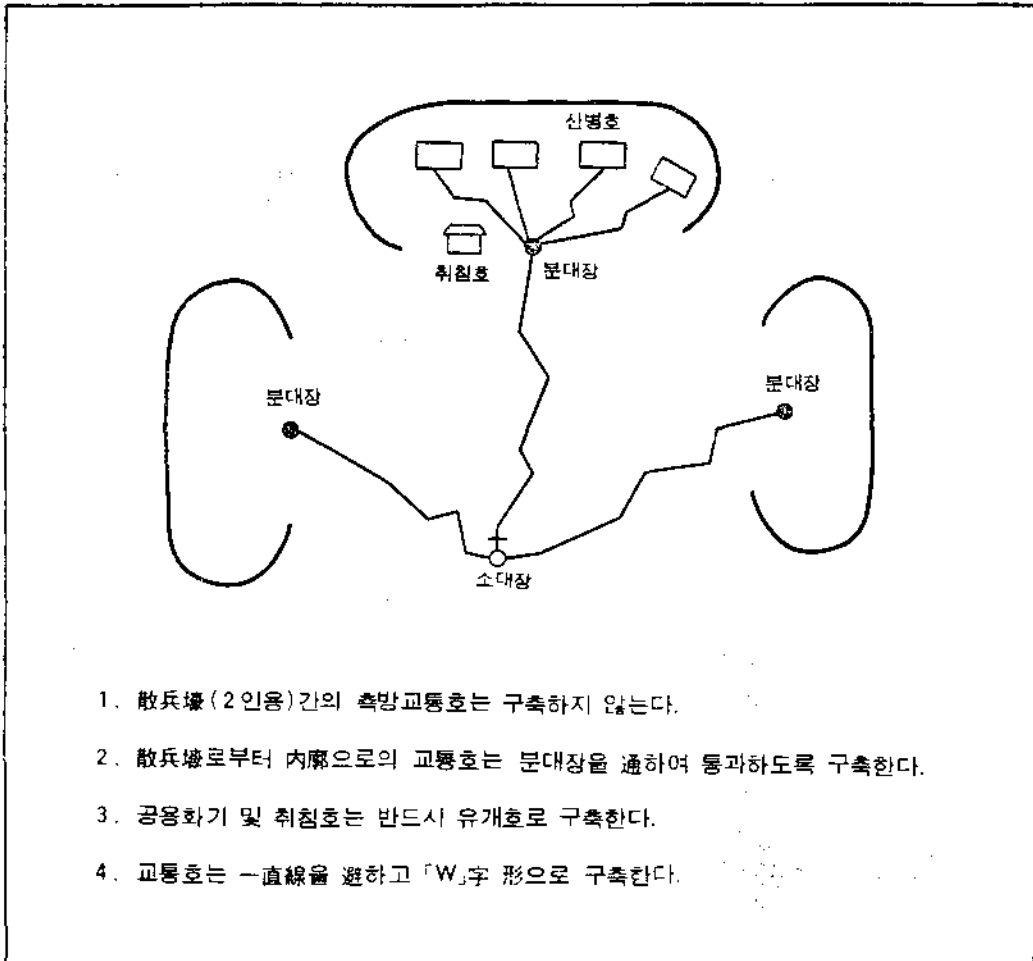
狀況圖 제 6 호 各種壕의 構築



있으므로 연합군은 물론 敵도 과월한국군의 전투력을 인정하게 된다.

(다) 第3作戰期 : 66년 3월 首都사단이 최초로 전개한 사단규모작전인 「猛虎 5號」를 嚆矢로 73년 3월 撤軍할때까지의 7年동안 벌인 작전이 이 期에 포함되는데 전투의 主導權을 장악하여 전술적임지역의 확대와 地境線밖에 있는 敵의 근거지를 목표로 사단 및 師작전이 전개되고 이와 병행하여 소부대활동이 계속된다.

狀況圖 제 7 호 壕의 構築方法









# 第 6 章

## 第 1 作 戰 期

### 要 旨

1. Phung Son 戰鬪
2. Nui Ca Du(山) 戰鬪
3. 青龍巖개 1號 戰鬪
4. Luc Le 戰鬪
5. Binh Lam 戰鬪
6. Kien Thanh 戰鬪
7. Qui Nhon 半島 探索戰
8. 秋收 保護戰
9. Phu Lac 戰鬪



## 第6章 第1作戰期

### 要 旨

65년 9월 파월 韓國軍의 전투부대가 越南에 상륙한 당시의 戰況은 到處에서 越南軍이 敗하고 勝乘長驅한 VC의 橫行이 滋甚하였다고 要約할 수 있다. 즉 數個의 중요도시와 一部의 요충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要地와 要域이 그들의 손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軍部마저도 政治的인 分裂로 衰盡相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現地에 進出한 軍司令部는 越南戰을 수행할 韓國軍의 進술개념을 3段階로 구분하여 作戰을 展開한 바 이 3段階(제 5장 參照)가 各作戰의 轉換期를 가름하는 時期와 符合되는 것이다.

第1期에는 전투부대가 派越한 당시부터 同年 11월 30일까지의 大小전투가 포함되는데 주로 戰術책임 지역의 방어와 訓練을 겸한 小部隊전투를 전개하면서 現地상황에 적응하고 各개 장병의 戰技를 연마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수도사단은 異域山河의 특수성과 戰鬪 경험부족에서 惹起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사단작전처에 戰史장교를 보임하였으며, 現地에 上陸한 뒤부터는 그로 하여금 戰鬪현장에 나아가 勝敗의 원인과 問題點을 분석하고 나타난 敎訓을 즉시 全部隊에 전파하여 이에 대한 시정책과 “제일더”전술에 대처한 戰法을 강구하였다.

이 1期에 제 1연대는 越南중부의 淸淸지인 Binh Dinh省의 Go Boi로 移動中 VC의 夜襲을 擊退한 바, 이 전투가 사단최초의 交戰으로서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인 「Phung Son전투」이다. 이로 말미

암아 自信을 갖게 된 연대는 그 뒤 중대급전투인 「Lue Le전투」를 치루고 「Binh Lam전투」에 이어 「Qui Nhon 半島탐색전」(一名 전진작전)을 展開하여 進술責任지역을 掌握하였다. 또 제 1기작 연대는 Binh Khe郡에 駐留하여 중대단위 戰術基地를 편성하고 11월 17일 VC의 支配下에 있는 Kien Thanh에 前哨진지를 설치하다가 我軍의 전투력을 試驗키 위하여 挑戰하는 1개분대 규모의 VC를 擊滅하였다. 이어 Hoa Hiep盆地에서 韓·越연합으로 「秋收保護戰」을 전개하여 心理戰을 겸한 대민지원에 힘쓰기도 하였으며 이 段階의 終盤에 이르러서는 대대규모전투인 「Phu Lac전투」를 전개하여 VC 31명을 사살하고 5명을 포로 하였다.

해병 제 2여단은 Cam Ranh에 上陸한 즉시 聯合軍의 供給시설 防護임무를 인수하여 제 1번公路와 鐵路 및 港灣을 警戒하였으며 수도사단과는 달리 처음부터 美제 1야전사령부의 統制下에 연합작전을 展開한 것이 特徵이다. 이러한 까닭에 여단이 전개한 作戰은 事實상 期別로 발전단계를 구분기가 困難하지만 前의상 軍司令部의 作戰期에 포함하였다.

期間中 여단은 「Nui Ca Du(山)전투」와 「번개 1, 2, 3호 전투」를 展開하여 地帶內의 VC를 擊滅하면서 空中기동과 “정군”탐색에 대한 戰技를 익히고 海兵이 지닌 特性을 살려 항상 豫備隊를 운용하여 敵이 頑強할 경우 反擊내지 拔攻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었다.

# 1. Phung Son 戰鬪 (1965년 10월 29일 부터 1965년 10월 30일 까지)

참조 : 사항도 제 8 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b>我 軍</b>			<b>敵 軍</b>	
(1) 統制部隊			(2) 參加部隊	
제 1 연대			제 3 중대 장 대위 張世東	
제 1 대대 장 중령 裴貞信				
	(改名 : 貞道)			
<b>地方 VC 1개소대 規模</b>				

## 나. 戰鬪 前의 概況

10월 21일 03.00 Qui Nhon港에 上陸한 제1연대는 美 제101공수사단으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하기 위하여 서서히 北上하여 동월 28일에는 Nui Ky Son과 △184一帶에 도착하자 3일간 宿營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대대는 여기에 임시陣地를 陣設하고 사주방어를 위주로하는 기지경계에 들어갔다. 제1대대는 Xuan My와 Phung Son 및 △184를 담당하여 該高地 정상에 중화기중대를, 그로부터 이어지는 능선에 제2중대를, 右 兩전방(Phung Son 方向)에 제1, 제3중대를 각각 散開하여 宿營 및 임시 警戒초소를 構築케 하였는데 이때 美 제7연대 제2대대로부터 『Phung Son 및 Ky Son은 敵性부락으로서 여기에는 1개소대 규모로 추산되는 VC이 潛入하여 韓國軍의 進路행동을 探知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대대는 VC들은 침투행동에 能하다는 말을 數次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한번도 接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그들의 術數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戰術책임지역(TAOR)을 인수하지 아니한 단계이니 만큼 情況이 분명치 않은 敵에 對한 선제공격은 時期尙早라고 판단하고 우선 警戒에만 專力하였다.

이리하여 該대대 예하 각중대는 각자의 담당지역에서 소대별로 경계에 임하였는데 28일 오전에 제3중대에서 한 병사가 총기오발사고를 저지르자 중대장 張世東 대위는 즉시 대대에 報告하여 이 병사의 일개급을 降等시켰으며 또 같은날 밤 영내를 순찰중, 경계근무중인 병사들이 잠달을 하므로 즉시 근무자를 교체하고 다음날 全병사를 集結시킨 다음 말하기를 『故 MacArther 장군의 “전투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는 병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敵이 언제 挑撥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서 夜間경계근무중 잡담을 한다는 것은 이미 敵에게 我軍의 위치를 폭로한 것과 다를바 없으니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각 병사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進退원칙에 입각하여 慎重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적하고 근무자 2명을 一罰百罰의 본보기로懲戒함으로써 군기를 確立하여 장병들의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戰鬪지역은 제1번公路와 Dam Thi Nai(灣)의 中間인 Go Boi平野 하단으로서 Phung Son과 그 西쪽 500m 떨어진 △184사이에는 제442번道路가 있고 이 도로를 따라 南쪽으로 13km 내려가면 Qui Nhon市에 다다른다. 중대까지와 道路間에는 논이 있고 그는 두렁에는 雜草가 무성하며 군태군태 습지가 있어 敵이 接近 및 退避하는데는 유리한 條件을 이루고 있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이 전투는 首都사단이 파월한뒤 최초로 敵과 交鋒한 戰鬪로서 이를 遁하여 我軍은 제아무리 VC이 遊擊행동에 숙달되었다 할지라도 能히 이를 擊破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自信感을 안겨 주었다는데 보다 큰 意義가 있다. 전투는 주로 深夜에 이루어진 바 29일과 30일밤 사이 2회에 걸쳐 VC들이 夜間기습을 시도하는 것을 제3중대의 제2 제3, 兩소대가 각각 擊退하였으니 前者를 “Phung Son 제1차전투”라하고 後者를 “Phung Son 제2차전투”라고 이름하여 取扱하였다.

##### 第1次 戰鬪 (10월 29일 21.00~30일 02.30)

대체로 맑은 날씨가 가끔 구름이 끼었고 29일은 陰歷 10월 6일인 黃昏에 이미 上弦달이 떠 있었다. 중대장 張世東 대위는 중대의 警戒지역을 다시 區分하여 △30의 左右능선에 제2소대를, 그로부터 南쪽의 △60까지에 제3소대를 그리고 제1중대와의 地境 北쪽에 제1소대를 配置하고 중대책임지역내에 露積된 대대 전투에비보급품은 화기소대의 一部로서 감시케 하였다. 전방 3개소대는 각각 3개분대를 제1선에 배치하고 1개분대로서 제2선에서 支援하는 방식을 取하였으되 초소 및 청음초는 운용치 않았다. 이에따라 제3소대는 제1, 제2, 제3의 3개분대를 △60頂上과 그 右側능선에 배치하여 Phung Son方向에 焦點을 두고 潛伏케 하였는데 上弦달이 中天을 넘었을 무렵, 마을로부터 제442번道路를 통과하여 접근하는 一群의 무리를 捕捉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그들이 200m전방의 △20를 넘어 다가서기를 기다린 다음, 유효사거리내에 들어오는 刹那, 사격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山戰水戰을 다 겪

은 터이라 달빛으로 말미암아 自身들의 위치가 드러날것을 미리 예측한듯 몇번인가 抵抗하더니 이내 △20를 迂回하여 退却하므로 소대장은 즉시 射擊을 통제하고 중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다음, 現地에서 그대로 潛伏하였다.

한편 이러한 情況을 接한 대대장 裴貞信 중령은 『달밤임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병력이 接近한 것은 我軍의 위치를 파악키위한 行動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즉시 각중대장을 불러 指示하기를 『이번 交戰은 敵이 아군의 警戒태세의 虛實을 알아보기 위하여 取한 行動일이 틀림없으며 필시 再侵할 것으로 判斷된다. 따라서 각 중대는 사격統制를 철저히하여 白兵戰을 할 수 있는 거리까지 誘引한 다음 一彈으로 一敵을 사살하도록 하라.』고 強調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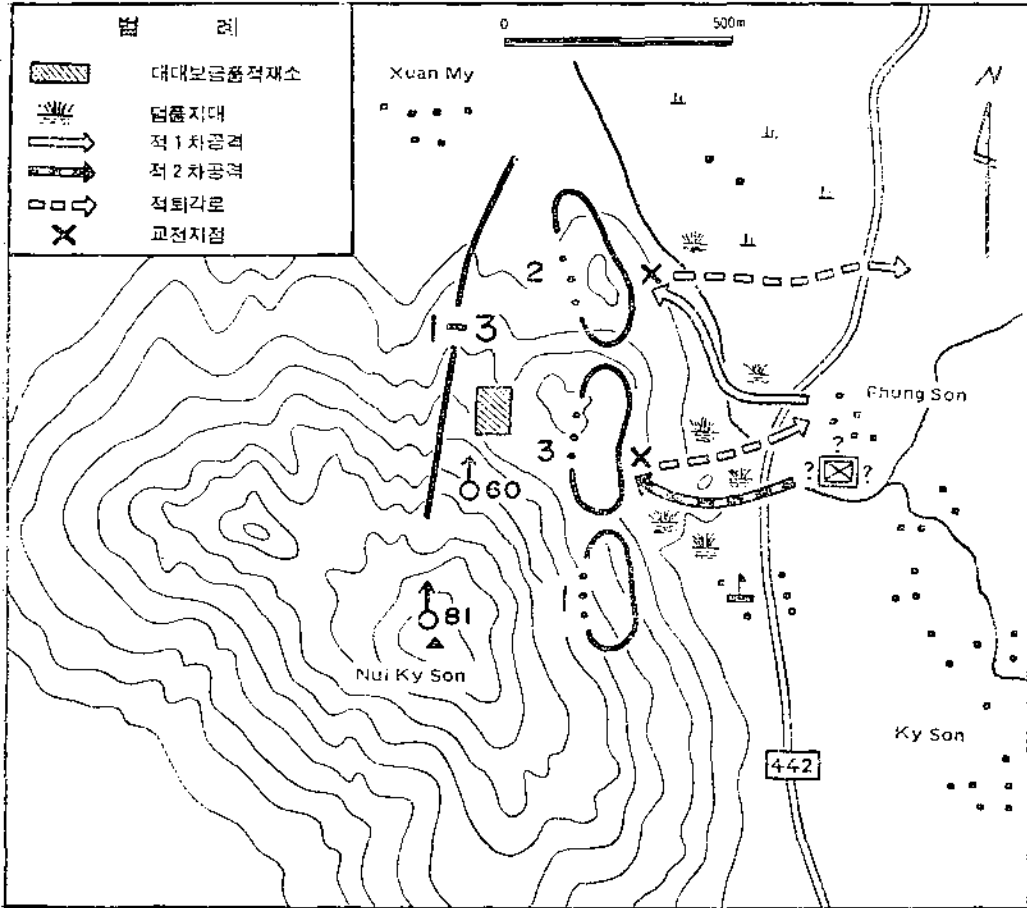
이윽고 子正이 지난지 20분뒤에 上弦달이 巨山에 기울자 漆黑같은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제3소대 제2분대의 150m前方에서 잡초 덩불을 따라 움직이는 VC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에 該분대 安潤玉 이병은 그들의 행동을 注視하면서 약정된 信號로 徐南植상병과 高光培 일병에게 연락함과 同時에 이를 분대장을 거쳐 소대장에게 알렸다. 소대장은 지체없이 각분대장에게 최근거리까지 유인한 다음, 一彈必殺할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安潤玉 이병은 敵이 제3분대와외의 中間지역으로 이동하므로 그들과 같은 方向으로 은밀히 다가서는데 이때 徐상병과 高일병도 着劍한 銃을 운겨쥐고 있었다. 그런데 VC들은 물이코인 논은 소리없이 횡단한 다음, 10m 전방에있는 바위뒤에 숨은채로 動靜을 살피는듯 하더니 이내 제2, 제3 兩분대의 地隙사이로 다가서기 시작하였다. 이때에는 이미 上弦달이 전지 오래인지라 夜間조준사격이 困難함을 깨달은 安이병은 徒手格鬪를 兼行할 心算으로 대기하다가 VC의 목이 총끝에 닿을 거리에 이르른 刹那, 방아쇠를 당겼으나 너무 긴장한 탓인지 격발되지 않으므로 잠시 머뭇거리는데 바로 뒤에 潛伏한 高일병이 호기를 놓칠세라 單發로 1명을 사살하고 다시 총구를 돌려 나머지 VC에게 側射를 加하였으며 또 徐상병 역시 그들이 당황하는 瞬間을 틈타 着劍의 紫光一閃으로 敵의 심장을 꿰뚫으니 짧은 悲鳴을 남긴채 쓰러졌다. 이리하여 1차탐색으로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둠을 이용하여 掩襲하려던 敵은 一擊을 받아 황급히 물러나가 논두렁에 얼드리는 것이었다.

한편 중대에서는 60mm박격포의 照明彈을 발사하였으나 제1탄이 불발되자 곧 제2탄을 피운바 그로부터 7분뒤에 照明이 시작되고 곧이어 대대의 81mm박격포도 이에 가담하니 徐상병 以下 3명은 즉시 돌격을 決行하였는데 이때 그들은 죽은者의 병기만 회수한채 허겁지겁 潰退하고 말았다. 이 一戰에서 소대는 遺棄시체 2구를 확인하고 소총실탄 18발과 폭약 뇌관 5개 및 TNT 10l/b을 노획하였다.



狀況圖 제 8 호 Phung Son 戰鬪



第2次 戰鬪 (10월 30일 22.20)

前날밤 2명의 VC을 사살하여 사단 戰果 제1호를 기록한 張世京 대위는 敵의 再侵에 대비하여 야간전투에 罅隙이 없도록 미비된 진지를 보강하였다. 薄暮에 이르자 각소대는 전날과 같은 지역에서 夜間경계에 들어갔는데 22.20에 제2소대가 전방 灌木숲으로부터 달빛을 등지고 接近하는 우리들을 포착하였다. 잠시뒤 괴한 2~3명이 작은 도랑을따라 제3분대 방향으로 移動하므로 즉시 신호총을 당겨 연락하였다. 이때 該분대의 安일병은 달빛아래 夜間조준사격이 可能한 10m거리까지 접근하였을때 방아쇠를 당겼는데 제1탄이 불발되자 곧 응급처치한 다음 제2탄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그들도 安일병의 위치를 알아차리고 俯伏하면서 應射하는 것이었다. 이터한 景況이 잠시 진행되는 동안 중대의 60mm 박



接近하는 敵에게 집중사격을 加하고 있다

적로 조명이 떠오르고 분대장의 號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격이 集中되니 건디지 못한 敵은 退走하기 시작하였는데 同분대 金상병이 단독으로 追擊하므로 소대장은 그들의 유인 술법에 발려들 것을 고려하여 이를 제지한 연후에 경계태세를 가다듬었다.

#### 라. 戰鬥 後의 概況

중대의 占領지역에는 대대의 彈藥, 식량, 방독면等 각종 補給品이 野積되어 있었다. 이 交戰이 끝난 다음 노획한 雷管과 폭약 및 도화선등과 그밖의 여러가지 징후를 분석한 결과 敵은 이 地域에 宿營한 我軍의 警戒태세를 확인한 兼 대대보급품을 모두 彈藥인 것으로 誤認하고 이를 폭파하여 그 混亂을 틈타 戰果를 확대함으로써 我軍의 銳氣를 꺾고자 회책한 것이라고 推斷되었다. 이는 그들이 아군을 僚軍과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速斷하고 輕率한 결과 以卵投石임이 되고 말았으니, 이를 契機로 그들은 我軍을 다시보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대대장 裴貞信(改名貞道)중령은 전투지대를 돌아본 다음 지휘관 과참모들에게 이르기를 『이번 제3중대의 전투는 지금까지 淸아온 전투력을 가늠하는 尺度가 되는 한편 야간전투에 能하다고 自負하는 VC의 弱대를 겪음으로써 全將兵에게 自信과 必勝의 信念을 불려 일으키는 매우 값진 결실을 맺게하였다. 특히 該중대는 交戰間에 엄정한 사격준기를 유지하였으며 인접중대 역시 사격통제를 철저히하여 兇敵必殺의 자세를 堅持하였다는 것은 우리국군이 美國이나 FRA

CE 및 越南에 청전한 어느군대보다도 強히되는 것을 認識해 준 것이다. 그리고 칭찬하고 이어서 이 전투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전훈을 분석 토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敵을 擊退하였다고 방심하지 말라.

제1차 전투시 VC은 21.3C에 一隊를 몰고 제5중대 제2소대를 攻擊하였으나 실패하자 달이 진 01.20에 다시 소수의 병력으로 隱密한 침투를 시도하였다. 즉 그들은 我軍이 한번 擊退시킨 다음의 緩慢되 기쉬운 심리상태를 이용코자 하였으며, 다음날인 제2차 침투역시 이와 비슷한 虛點을 노리고 제2소대 경계구역을 뚫고 擾亂하려던 것으로 判斷되나 該중대는 이들의 奸計를 오히려 逆利用하여 擊滅한 것이다.

(2) 敵이 接近하면 최대한 유인하여 그들의 발목을 잡으라.

이 전투에서 我軍이 성공한 가장 큰 要因은 바로 이 점이다. 敵은 추진에 我軍의 전투력과 警戒태세를 파악한 연후에 夜間에 3區에 걸쳐 침투하였다. 그러나 兵士들은 추호도 勇氣가 없이 그들이 3m 앞까지 다가섰을 때 비로소 백병전으로 2명을 시살하였으나 그들은 겁에 질려 退却하였다. 이는 평소에 야간사격술과 接近戰을 위주한 근접전투의 罪狀을 연미한 結果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障礙物설치 및 초소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즉 중대 급편전차 正區에 철조망과 대인지뢰 및 조명지뢰 등이 부설되지 않았으며, 전투 전날 진지를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운초와 진복초소등을 운용하지 않았던 까닭에 침투한 敵을 殲滅할 기회를 拮抗할 수 없었다.

(4) 야간에는 狀況에 알맞는 무기를 사용하라.

비록 敵을 충분한 거리까지 유인하였다 할지라도 소총(반자동 소총)은 敵 1명만을 시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개병사의 위치가 드러난다. 이번 전투에서 수류탄이나 “크랙모어”를 시전에 준비하여 사용하였더라면 더욱 좋은 성과를 안겨 주었을 것이다.

(5) 병기손질을 철저히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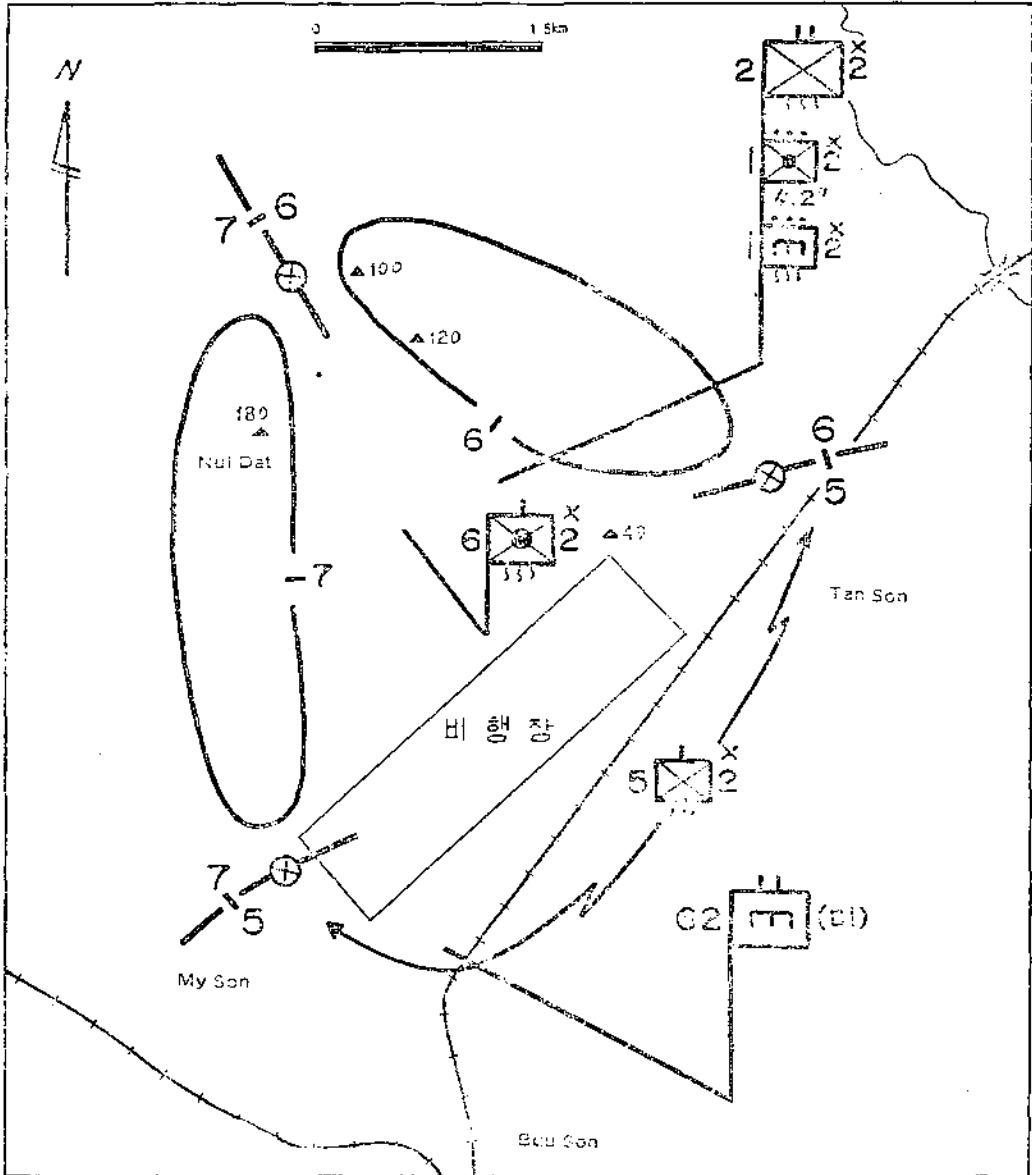
전투초일에 一隊의 敵과 중격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咫尺의 거리까지 접근한 敵을 최초사격이 격발능되어 好機를 逸失한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또한 중대의 60mm 박격포 照明彈이 불발되어 다음조명이 밝혀지기까지는 7분이나 경과한 탓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살된 者의 병기를 회수하여 도주할 기회를 준 것이며 제2차 전투 역시 제1탄이 불발되어 我軍의 위치를 드러내게 하였다. 따라서 병기는 제2의 生命이니 항상 내뿜같이 이끼고 닦아서 次後부터는 이로 말미암은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綜合 戰果(損失없음)

사	살	노			획	
		TNT	뇌	관	소총실탄	도 화 선
2		10 l/b	5		18	5m



狀況圖 제9호 Buu Son飛行場 擴張工事 現場 警戒



중대 地境線으로 숨어드는 VC 2개 분대 규모를 격퇴하였다. 그 다음날 대대장은 越前郡으로부터 Nu Ca Du(山) (Buu Son 비행장 東쪽 5km)를 奪取하여 Phan Rang 일대의 截斷을 期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다. 이에 吳允晉 중령은 3개 중대장과 戰地참모를 대동하고 Phan Rang 일대를 공중정찰하다가 Nui Ca Du(山) 上空에 이르렀을때 3회에 걸친 대공사격을 받아 탑승한 "헬리콥터"의 무전기가 파괴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대대장은 該高地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를 공격할 계획에 착수하였다. Nui Ca Du(山)의 標高는 비록 319m에 불과하지만 부근 일대의 평야에 屹

요한 유일한 高地인 까닭에 Ninh Thuan省廳 소재지인 Phan Rang과 Buu Son비행장을 비롯한 一圓을 睥睨하고 제1번도로를 제압한다. 뿐만 아니라 同비행장에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同高地 상공을 통과하게 되는 技術적인 要衝이다. 이런 까닭으로 실사 該비행장의 확장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치더라도 이 高地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연합군의 활동에 적지않은 제한을 줄 것이 自明하니 故宇 그대로 「눈 위의 혹」과 같은 존재라 아니 할 수 없었다.

Phan Rang 일대에는 Ninh Thuan省 VC위원회 산하의 5개중대가 潛動하고 있으며 Nui Ca Du(山)에는 그들중의 정예분자 1개소대(+)가 6~7명씩 1개조가 되어 高地內의 자연동굴과 요소마다 구축된 전초에 蟄伏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시 同高地는 「佛印戰爭」 당시(1953년)에 FRANCE軍의 대대규모 전투단이 8회에 걸쳐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또 그 뒤에 越南軍이 여러번 이를 탈취코자 하였으나 끝내 실패하지 못하였다. 이를 奇貨로 여기에 응크린 VC들은 이해 6월부터 10월까지의 5개월간에 부근일대에 주둔한 우군에 對하여 도합 248회에 걸친 夜襲과 대공사격을 자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放火와 激濁을 일삼으며 白晝에도 이른바 세금을 징수하는 掠奪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등 안 하무인격으로 날뛰고 있었으나 이 지역을 防守하는 越南 지방군은 축수무책이었다.

## 다. 戰鬥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대대장 吳允晉 중령은 Nui Ca Du(山)를 정찰한 다음 사관을 만들어 地形을 살피는 한편 越南 관계기관으로부터 兵要地誌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그밖에 드러난 여러 가지 징후와 과거 越南軍이 同高地에서 치른 전투의 교훈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장은 이 전투를 재래식 방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준비사격을 보류하고 은밀히 침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습에 主眼할 것인가 하는 2개 懸案을 두고 深慮하였다. 이 결과 目標의 지형과 소재의 敵이 동굴과 “벙커”에 潛據한 까닭에 砲火로서 이를 제압할 수 없을 것이므로 後者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海兵의 전투력이 實로 이 一戰의 결과로서 평가받게 될 것이므로 신중을 期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事由와 또 현지에서 처음 감행하는 전투이니만큼 경험을 얻는데 專力하고 이와 併行하여 越南軍과 협력하여야 하므로 아군이 숙달한 방식인 공격준비사격으로서 당면의 敵을 교란한 연후에 擊衝키로 하였다. 이러한 심사숙고 끝에 대대장은 Ninh Thuan省長 및 美軍과 협조한 다음 공격의 지도복안을 세웠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전투의 명칭을 「白鯨」이라고 이름하였으나 目標의 地名이 VC의 근거지로서 악명이 높았던 탓으로 「Nui Ca Du(山) 전투」라고 불리우게 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題

名을 그렇게 稱하기로 한다.

1. 11월 4일 11명에 증강된 1개중대로서 Nui Ca Du(山)를 탈취한 後에 이를 Ninh Thuan省 지방군에게 인계한다.
2. 배속된 同營의 지방군 2개중대로 하여금 目標의 南北 양측방을 차단케 하며 越南 陸軍의 “장크” 부대 1개중로서 그 東쪽 해안(Dam Nai)으로 탈출하는 分子들을 강타케 한다.
3.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며 戰鬪態에 의한 목적을 互用한다.
4. 4.2”중박격포, 106mm무반동총 兩소대로 하여금 공격부대를 근접지원케 한다.
5. 공간간에 越南軍 심리전요원에 의한 귀순권고방송을 병행한다.
6. 대대 전술지휘소에 韓·越 연합지휘본부를 설치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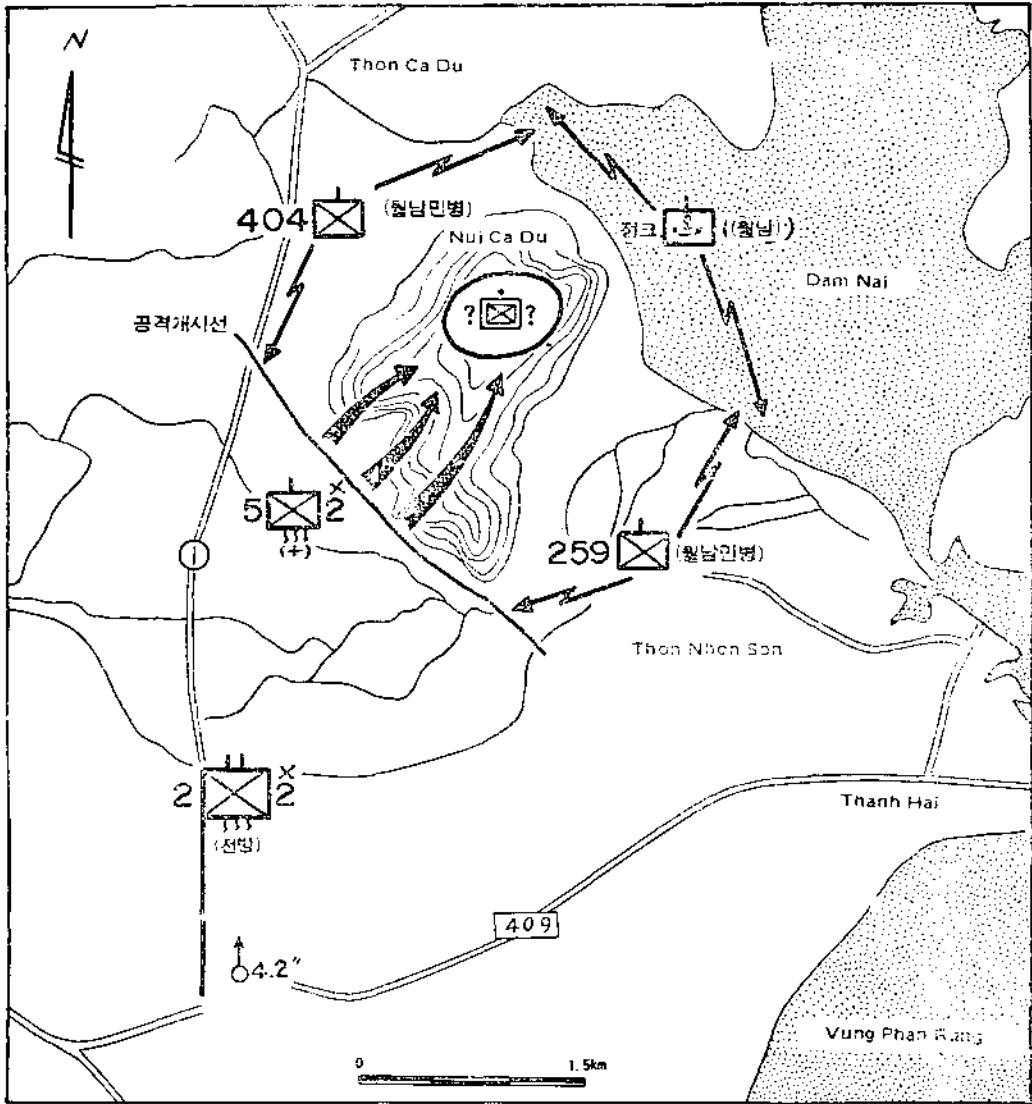
이에 따라 대대장은 早速하기 以前부터 山岳중대로서 특수훈련을 強行하여 戰技를 연마한 제5중대를 공격부대로 삼고 제7중대의 제1소대와 공병중대(육군)의 제2소대를 배속하였으며 또 대대 전술지휘소를 Phan Rang 北쪽 교외의 제1번도로와 제409번도로가 교차하는 부근(북쪽 南쪽 4km)에 개설키로 하였다. 한편 越南側에서는 11월 3일역 제259, 제404 兩 지방군중대를 대대에 배속하는 동시에 “장크”부대의 1개중대를 이날밤에 Dam Nai入口(Vung Phan Rang)에 待機시킴으로써 공격태세가 갖추어졌다.

## (2) 戰鬪 實施

11월 4일(D일) : 이른 새벽부터 안개가 지옥하고 가랑비가 계속되어 雨季의 특징인 이른바 Crachin Condition 현상의 持續으로 말미암아 항공지원이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대는 曉天에 행동을 시작한 바, 공격부대인 제5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Nui Ca Du(山) 南西端의 와지선을 따라 이어진 무명도로에 구획된 공격개시선에 도착하는 즉시 右로부터 제3, 제2, 제1소대 順으로 산개하고 배속된 제7중대의 제1소대와 越南지방군 1개소대를 지원소대로서 一線소대 중앙 후미에 控衛하였는데 벌써 泉騎들의 覇氣는 敵陣을 삼키고 있었다.

한편 대대 전술지휘소는 공격중대가 산개할 무렵에 계획한 장소로 移動하였으며 4.2”중박격포소대가 同지휘소 근방에 砲를 방열하고 또 공격부대를 후속하면서 근접지원할 106mm무반동총소대와 81mm박격포반도 지정된 장소에서 화력지원 태세를 가다듬었다. 그런데 여기는 敵의 81mm박격포의 사정권내에 들어있는 까닭에 萬에 하나라도 그들이 야군의 기도를 눈치 챌다면 공격이 시작되기도 前에 그들의 砲火로 말미암아 대대의 지휘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었다. 대대장 및 允諒 중령은 이를 예측하였으나 전투의 추이를 가짜이에서

狀況圖 제10호 Nui Ca Du(山) 戰鬪



적시하면서 一觸即發의 태세를 갖추므로써 기필코 초지를 일관하고야 말겠다는 뜻에서 取한 조치였다.

이윽고 07.10에 항공폭격과 105mm포사로 빛 4.2"중박격포에 의한 공격준비사격이 目標를 강타하기 시작하더니 그로부터 30분간에 걸쳐 Nui Ca Du(山) 일대를 온통 爆焰으로 휩쓸었다. 그런데 기상관계로 전폭기 1대가 지형을 잘 못 식별하여 Naipam彈을 81mm박격포 반이 포진한 일대에 투하한 탓으로 丁裕成 일병이 전사하고 탄약수 朱錫根 일병 以下 4명



이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니 愛惜한 일이었다. 이때에 박격포 사수 盧承 상병은 左肩에 파편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火焰속에서 신음하는 전우를 구출하여 응급 치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건졌다. 그러나 자신은 위생병의 初療를 받은 다음 후송하라는 반장의 권유를 뿌리치기를 『사수인 내가 후송되면 누가 砲를 쏘느냐!』라고 외치고는 사격을 계속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공격초동에 발생한 우발사태로 말미암아 장병의 銳氣가 적지않게 침체된 듯 하였으나 盧상병의 책임감과 중대장의 수습策으로 곧 전의를 회복한 중대원의 얼굴에는 오히려 살기마저 감도는 듯 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준비사격이 集注되는 동안에 Dam Nai(목포 東쪽 海上)를 制扼中인 越南 “장크”중대는 해안으로 탈주하는 分子들을 포착하는대로 기관총사격을 퍼부어 제압하면서 해상으로의 退路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목포의 南北 양측면을 포위한 越南 지방군 2개중대의 책임구역내에서는 VC의 退却이 있을법 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08.10에 砲擊이 끝나자 중대는 곧 공격개시선을 뛰어넘고 목포를 向하여 進出한바, 右一線의 제3소대는 南쪽 稜線에, 左一線의 제1소대는 西쪽 산등성에 달라 붙고 또 중앙소대인 제2소대는 兩稜線 사이에 있는 溪澗으로 진입하였으며 중대본부와 지원소대가 이를 후속하였다.

그로부터 20분위에 ---線의 3개소대가 와지선을 거쳐 喬木과 岩石이 점철된 지대에 들어섰을때부터 敵의 저항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동굴과 견고하게 구축된 “방커”에 蟄伏한채로 자동화기를 위시한 여러 火器로써 상상 以上の 화력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에 對應한 야군의 鐵火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로 수류탄을 亂投하는 近迫戰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溝中에서 제1소대는 숲속에 있는 자연동굴에서 불을 뿜는 자동화기로 말미암아 잠시 진출이 저지되어 熾烈한 총격을 교환중 尖兵 曹奉植 상병이 경기관종의 엄호하에 개빨리 약진으로 동굴입구에 육박하여 화염방사기의 熱焰을 굴안으로 集注하여 제압한 다음 유기 시체 4구를 現認하는 즉시 이를 파괴하였다. 소대는 곧 진격을 재개하여 Nui Ca Du(山)의 主峯인 △319 北쪽 5부稜線으로 우회하다가 갑자기 동굴속에 잠복한 一群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이에 소대장 鄭在源 소위는 제1분대장 趙永一 하사로 하여금 이를 直衝케 하고 나머지 분대로써 화력을 지원케 하였다.

이때에 趙하사는 쏟아지는 탄알도 아랑곳하지 않고 挺進先登하여 수류탄의 집중각열로써 3명을 쓸어뜨리자 그의 기세에 눌린 VC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중의 6명은 부상한 듯 피를 흘리면서 숲속으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곧이어 趙하사는 동굴을 占據한 다음 지

체없이 그들을 추격하였으나 潰走하던 1명이 던진 수류탄이 폭발하여 右下肢에 파편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며 소대장도 姜寶奎 하사가 분대장으로 지휘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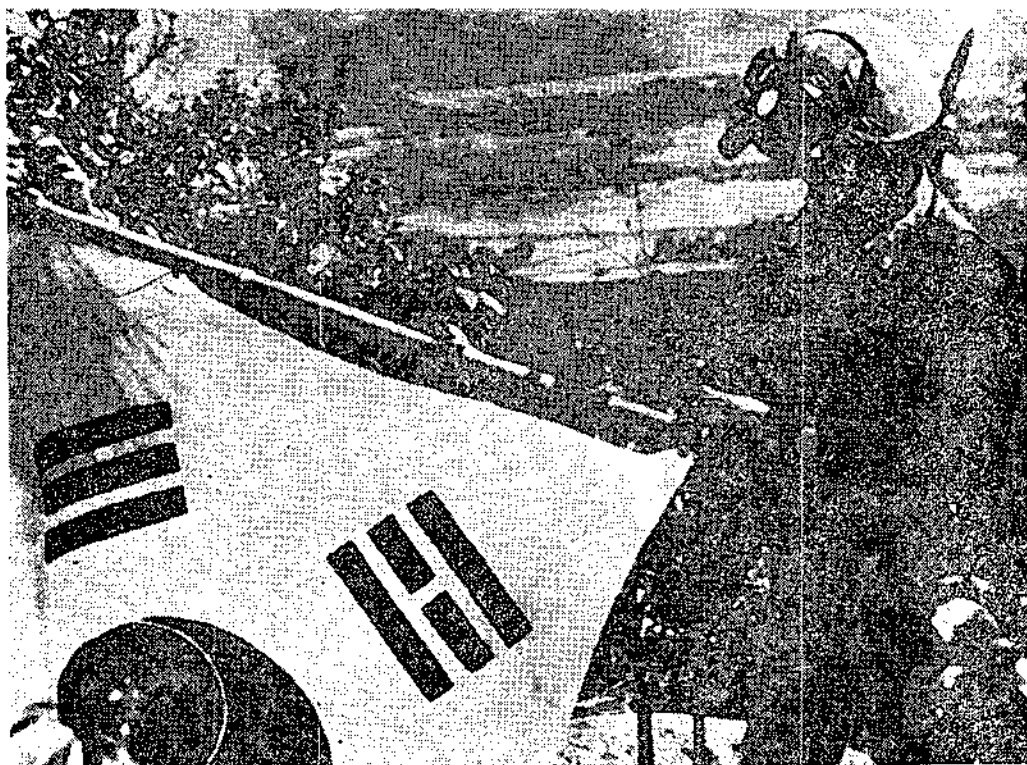
이무렵 李洪吉 소위가 거느리는 제2소대는 벽돌로 구축된 “빙커”를 파괴한 연후에 △160를 거쳐 △200(主峯 南쪽 500m)로 楔鋒을 돌렸다. 한편 제3소대장 鄭又植 소위는 南쪽 능선의 頂上인 △140를 목표로 진격하다가 3부稜線에 있는 寺院안으로 逃走한 VC들과 근접전끝에 이를 격파하고 同頂上을 누빈 연후에 △200 南쪽의 △170를 손아귀에 넣었다.

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3개소대가 계획한 중간목표를 모두 奪取하자 여기에서 일단 대열을 정돈한 다음 제1소대로 하여금 △200를 공격하는 제2소대를 掩護케 하고 한편으로 제3소대로서 主峯의 東쪽 斜面(海岸쪽)을 탐색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소대는 △200 8부능선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分子들과 적전끝에 2명을 사살하자 견디다 못한 VC들이 潰走하고 말았다. 곧이어 제1소대가 該소대를 조원하여 최종목표인 △319(主峯)를 擊衝하고 제2소대는 여기에서 所在의 敵을 사적으로 제압하였다.

또 제3소대는 △170를 석권하자 지체없이 東쪽으로 훑어 내려가 해안가짜이에 있는 寺院과 그 근방을 누빈 다음 제2소대가 휩쓴 小徑을 따라 반복탐색하면서 △319의 東斜面으로 진출하여 그들의 側背를 엄습하였다. 그런데 同高地의 7부능선일대는 경사도가 甚할 뿐만 아니라 집채만큼 큰 岩石과 덩굴과 잡목이 뒤엉킨데다가 새벽부터 계속 내리는 가랑비로 말미암아 미끄럽기 때문에 등반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동굴과 “방커”에 숨은 VC들이 치열한 총격으로 한사코 버티므로 공격이 저지되어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進擊방향을 바꾸어 突衝하는 경황이 여러번 되풀이 되어 그야말로 一進一退의 육박전이 4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생각하기를 『이 마지막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越南軍의 覆轍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곧 각소대장에게 호령하되 『各自 그 자리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말고 과감하게 공격하라. 우리 해병과 조국의 명예가 이 일전에 걸려있음을 銘肝하여 기필코 목표를 탈취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장의 결의에 다시 한번 총대를 움켜 쥔 중대원들이 끈기있게 압력을 加하면서 조금도 늦추지 않고 한발 한발 육박한 끝에 마침내 頂上을 점령하고 미리 준비한 太極旗를 높이 제양하였는데 이때가 15.55이었다.

이로써 「佛印戰爭」이 勃發한 1947년 以來 아직까지 한번도 점령하지 못한 이 處女地요충이 드디어 姜仁秀 대위가 지휘하는 驍騎들의 鐵靴밑에 유린되고 만 것이다. 전투간에 조장



Nui Ca Du(山) 정상을 탈취한 海兵이 태극기론 게양하고 있다.

鄭又鉉, 李相權 兩 상병과 배속된 공병중대(육군)의 제2소대 분대장 金永培 하사의 활약이 눈부셨다. 한편 중대장은 제2소대가  $\Delta 200$ 를 점령하자 곧 지원대인 제7중대의 제1소대와 越南 지방군 1개소대를 거느리고 여기로 진출하여 최종목표가 함락되는 즉시 이를 越南軍에게 인계하였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4개소대의 隊伍를 가다듬게 한 연후에 VC의 거점을 복멸하는 원칙에 徹하기 위하여 同高地의 의심나는 곳을 정밀한 탐색으로 누비면서 下山키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장이 퇴각하는 分子들을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조처를 取하지 않았던 것은 僚軍이 예상되는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소대는 西斜面을 담당하고 제2소대는 北東麓을, 또 제3소대는 해안(東쪽)을 각각 책임지고 누비기 시작하였으며 끝이어 제7중대의 제1소대는 主峯으로부터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진출하여  $\Delta 120$ 를 석권한 연후에 17.40에 제1번도로의 계획된 장소에 집결함으로써 이 전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날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대대 전술지휘소에서 전투경과를 지도하다가 目標를 점령한 것을 확인한 다음 Cam Ranh으로 복귀하였다.

라. 戰鬪 後의 概況

대대는 Buu Son비행장 확장공사 현장을 경계중 Phan Rang과 同비행장을 監視하는 要地인 Nui Ca Du(山)를 揮劍一下에 탈취하여 이를 越南軍에게 引계하였다. 이로써 Ninh Thuan省 VC의 先초거점의 하나가 我軍의 手中에 들어가게 되고 連合軍의 主要기지인 Buu Son비행장의 安全이 保障되었다. 뿐만 아니라 Phan Rang으로부터 Cam Ranh에 이르는 육로의 動脈인 제1번도로의 차량통행을 방해하던 癌이 제거되었으므로 近間에는 VC이 이 부근에 발붙이지 못하였다.

이 전투는 越南軍이 12년간에 걸쳐 該高地를 탈환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撤軍하다시피 한 것을 我軍이 증강된 1개중대로써 불과 하루동안에 僚軍의 숙원을 이루어 준데 더욱 의의가 크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我軍의 전투력이 높게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뒤 밝혀진 바에 따르면 我軍이 目標을 공격할 때에 이를 三周에서 에워싼 越南 지방 軍은 포위망내로부터 탈주하는 VC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조치를 取하지 않았다고 한다. 擘만 아니라 오히려 主要한 路목이나 要所에는 兵力을 배치하지 않고 表面상으로 遮斷線을 引 것 같이 주민 까닭에 所在의 敵이 퇴각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주지 않았다고 하니 마치 僚軍이 그들과 同 上통한 듯 한 인상을 풍기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越南軍과의 連合작전에 對한 問題가 제기되고 이 결과 될수있는 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대대는 이 전투를 끝마친 2일 뒤인 6일에 Buu Son비행장 警備임무를 마무리하고 Thon Hoa Da로 복귀하여 책임지대내에서 流動하는 VC들을 剿滅하다가 「靑龍 1호 作戰」에 참가하였다.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사  日	현  지  과  괴			전  死	전  傷
	대  형  동  굴	“  浬   커 ”	소  형  동  굴		
9	9	1	90	1	7

註 : 1) 전투상보에 依하면 情況에 따라 窟내부를 탐색하지 못하고 이를 擘과한 까닭에 유기사제 15 具가 그 속에 매몰 된 것으로 推定하고 있으나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전과에 포함 하지 않았다.

2) 전상에는 輕傷者 3명을 포함하였다.

## § 戰 訓

## 周到綿密한 計劃과 根氣있는 攻擊

대대가 Nui Ca Du(山)를 공격하기 위하여 이에 對한 情報을 수집할 때 越南軍側은 자진하여 호응하였다. 그 까닭은 Phan Rang 一圓을 늘워 협하는 同高地를 이 기회에 我軍의 힘을 빌어 그들의 오랜 念願을 풀어 보려고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事由로 목표로 지형과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대대장은 주도 면밀한 전투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오랫동안 VC이 장악하던 근거지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에 廣接한

제5중대 장병들의 꼭 이기고 말겠다는 전의가 응결되어 防守에 유리한 지형에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敵을 根氣있게 한발한발 옥박하면서 擊碎하였다. 이와 같이 왕성한 공격정신 바로 그것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要諦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난 18년간 FRANCE軍이나 越南軍이 同高地에 籠據한, 불과 1개소대규모를 拔本하지 못한 요인은 아군이 이 전투에서 發揚한 것과 같은 끈기와 감투정신의 결여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 研 究

## 越南軍과의 聯合作戰

이 전투는 목표로 특징상 Phan Rang일대를 防守하는 越南지방군과 연합하여 작전행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아군이 先鋒이 되어 Nui Ca Du(山)를 탈취하였으나 예상되는 敵의 퇴로를 僚軍이 차단한 까닭에 포위망 밖으로 탈주하는 分子들을 추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僚軍이 오히려 전과를 확대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自招한 셈이 되고 말았다. 대개 언어와 전통과 작전개념이 相馳하는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결속되었을 때에는 前記한 장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군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경험한바 있다.

그런데 越南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越南 주민은 일반적으로 사상적인 확고한 신념이 결핍되고

사명의식도 박약하다. 그러므로 外國軍이 그들을 돕고자 VC을 공격하면 배타적인 민족성에서 유발되는 잠재의식이 작용하여 VC이 敵이기 이전에 동족이라는 감정에 사로 잡히는 사례가 非一非再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VC을 변호하는 행동으로 豹變되는 듯하다. 여기에서 일부 小人輩들은 眼前의 小利에 현혹되기도 하고 또 목적의식이 희박하고 군인정신이 결여된 부류들은 VC의 보복을 두려워 한 나머지 연합군과의 友誼와 約條와 나라에 對한 의무를 저버리고 기밀을 敵에게 누설하거나 은밀히 內通하는 듯 한 兆朕이 드러나는 事例가 許多하였다.

따라서 越南軍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할 때에는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항이 그들의 손을 거쳐 敵에게 누설 되었을 지라도 미

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對應策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작전이 시작되는 1~2시간 전에 갑자기 목

표나 기동형태를 변경하거나 D일을 연기 혹은 앞당기는 등 작전의 규모와 특징에 副應하는 편법을 미리 강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參戰者의 證言

### 해병 제2여단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

(1977년 11월 1일 해병 제9732부대장실에서, 당시 준장)

우리 대대는 Cam Ranh에 上陸하는 즉시 Thon Hoa Da 일대를 防守中 여단 계획의 일환으로 Phan Rang 부근에 있는 Buu Son 비행장 확장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이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南東쪽(5km)에 Nui Ca Du(山)라고 불리는 標高 319m의 高地가 있는데 山 전체가 岩石과 "정글"로 뒤덮인 險固하기 이룰데 없는 VC의 소굴이었다.

同高地는 과거 FRANCE軍이 8개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하였으나 이를 점령하지 못하였으며 또 그 뒤에 越南軍도 12년간에 걸쳐 공격하였지만 끝내 탈환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Phan Rang과 Buu Son 비행장이 늘 여기에 潛據한 敵의 砲火의 위협을 받았으며 제1번 도로를 운행중인 차량이 자주 습격을 받음으로써 병참선이 차단되는 등 연합군의 작전행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었다.

우리 대대가 Buu Son에 도착하여 비행장 주변의 要地를 점령하고 경계태세를 가다듬고 있을 때에 Ninh Thuan省長이 나를 찾아와 Nui Ca Du(山)를 탈취하여 줄 것을 간청하는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 도착한 날 이미 該高地를 장악하지 않으면 Phan Rang 一圓의 防守와 戡定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터이라 「佛印戰爭」이래 점령하지 못한 요충인 만큼 우리 해병이 이를 탈취

한다면 더욱 의의가 클 뿐더러 韓國軍 전체의 勳威를 드높이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니 한번 해볼만 하다고 단안을 내리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리하여 파월하기 이전부터 山岳戰에 대비하여 특수훈련으로 戰技를 연마한 덕분에 「山岳중대」라는 별칭을 가진 제5중대(장, 姜仁秀 대위)로써 이를 공격키로 하고 D일을 11월 4일로 결정하였다.

공격당일 未明에 행동을 시작하자 본인은 현지에서 처음 전개하는 전투인데다가 越南軍과 연합하여 전개하는 전투이므로 우리의 기도가 사전에 드러나지 않았나 하고 몹시 심려하였다.

전투간에는 敵의 저항도 완강하였거니와 가랑비와 울창한 숲이 視界를 제한하고 가파른 경사도와 岩石이 진격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 예정보다 늦게 頂上을 탈취하였다.

당시 우리 勇士들이 어느새 준비하였는지 太極旗를 휘날리는 감격적인 장면이 망원경에 비쳤을 때에는 감개무량하기 이룰데 없었다. 본시 Nui Ca Du(山)는 나에게 부여된 책임지대 밖에 있으므로 이를 공격할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越南側의 간청에 호응하여 그들의 係累中의 宿題를 일격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전기가 높히 인정받게 된것에 對하여 나는 矜持를 갖는다.

3. 靑龍 번개 1號 戰鬪 (1965년 11월 8일 부터  
1965년 11월 14일 까지)

(번개 2, 3號 戰鬪 包含)

참조 : 별책부도 제 3,4 호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제 2 소대 (배속)
해병 제 2 여단 장 준장 李 鳳 出	여단 공병중대 제 3 소대(배속)
(2) 參加部隊	여단 포병대대 제 7 중대(배속)
제 3 대대 장 중령 全 政 男	장 대위 權 泰 明
제 9 중대 장 대위 成 炳 文	수도사단 포병 제 628 대대
제 10 중대 장 대위 韓 國 道	제 1 포대(155mm)
제 11 중대 장 대위 劉 南 圭	장 대위 崔 基 泰
81mm 박격포소대	(3) 協力部隊
장 대위 金 鍾 世	美제 117 항공 중대
106mm 무반동 총소대	美제 118 항공 중대
장 소위 金 在 寅	美제 2 비행사단 전폭기 1개 편대
여단 4.2" 중박격포중대	美제 502 공수보병여단 제 2 대대
敵	軍
VC, 제 86 대대 Su Long 중대	VC, 제 86 대대 지역 중대
VC, 제 86 대대 (K-71 대대) 제 2 중대	VC, 제 90 특공대대 一部
VC, 제 86 대대 團隊號 미상 1개 중대	

나. 戰鬪 前의 概況

(1) 敵情

敵은 Cam Ranh 灣과 Nha Trang 을 위협하기 위하여 Tuy Hoa-Hon Ba (△1,361 郡界稜線)-Nui

Hon Xuan(△412)—Dui Ba산맥—Nui Man Hon(△1,304)等地에 산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美·越軍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白鯨작전」이후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그들의 軍事力은 4개 정규VC(MF)대대와 지역별로 10개 지방VC(LF)중대 및 9개 지방VC(LF)소대로서 총兵力이 2,486명으로 推算되었다. 이뿐만아니라 이웃한 Khanh Hoa省과 Ninh Thuan省에도 3개의 정규VC대대(MF)와 團隊號 未詳의 “게릴라”集團(1,330명 추산)들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은 勢力이 점차 擴大하여짐을 계기로 Dien Khanh—Nha Trang外廓—Vinh Xuong 等地에서 새로운 전략촌을 지배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Nha Trang 北西쪽 15km 떨어진 Hon Gia Lu(山) 일대에 까지 VC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이 내려와 하부조직을 扶植시키고 곡식을 強奪하는 一方, 友軍의 보호 아래에 있는 주민의 추수를 妨害할 목적으로 지역내 주요도로나 橋梁들을 폭파하는等 그들의 暴惡性이 그 極에 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VC의 殘虐이 加重됨에 따라 여단은 이 지역의 敵情을 살살이 파악코자 제반 情報기관을 집중한 결과 그들은 VC, Su Long중대와 同K-71대대 제2중대 및 Phu Yen省으로부터 移動한것으로 알려진 단대호 미상의 1개중대 그리고 1개지역중대가 모여 VC 제86대대를 編成中에 있으며,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대로는 그 北쪽에 水中과괴능력을 보유한 VC 제90특공대대로서 兵力은 500명 以上으로 추산되었다.

## (2) 友軍

其間 자체방어전성을 끝내고 전술책임지역내의 敵을 擊滅한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비록 책임지역外 廓일지라도 前者와 같은 敵이 도사리고 있는限 Dien Khanh과 Cam Ranh灣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들을 陸, 空 兩路로 기습할 것을 결심하자, 곧 美제1야전사령관 Stenly R. Larson소장과 協議하였는데 그 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攻撃부대는 청룡부대 제3대대이다. 美제502공수여단 제2대대는 Suoi Tan에서 Phan Rang으로 移動하는 즉시 전투를 支援할 준비를 갖추며, 美제117항공중대는 공격부대를 직접 지원한다. 美제2비행사단은 전술항공을 지원하며 청룡부대 제2대대의 1개중대는 反擊부대로 참가할 준비를 갖춘다.』

## (3) 地形

전투지역은 Dien Khanh崑의 西쪽 일부로서 Hon Long(△1,342)에 流源을 둔 Song Dong Gang(江)과 一名 北 Cai江이라고 불리우는 Song Cho(江) 및 南 Cai江이 한데모여 Song Cai(江)로 合流되는 주변일대이다. 들에는 대부분의 田畠이 황금불결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로 30~60cm 높이의 목과 마을의 담장으로 사용되는 灌木들이 여겨저기 보였다. 그러나 東쪽과 西쪽에는 Hon Giu(△924)와 Hon Gia Lu(△521)가 있고 이로부터 뻗은 高地群은 平均 40°의 경사각을 이루며 그중에서도 Nui Nghe(△114)는 지대내의 소로와 Song Cai(江) 合流지역을 廠制하는 전술상의 要地이다.

## 나. 戰鬥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Nha Trang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敵의 규모가 대대급以上임을 勘案하여 敵



情을 다시 연구 분석하고 우발사태에 對한 대비책을 마련하자 즉시 제2, 제3 兩대대와 관계참모들을 소집하여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敵情 : 생략

2. 友軍

가. 美제502공수여단 제2대대가 Suoi Tan으로부터 Phan Rang으로 移動하여 예하 제2대대의 임무를 인수한다.

나. 美제117항공중대는 제한된 공수支援을 제공한다.

다. 美제2비행사단의 전술항공기 1개편대가 항공支援한다.

3. 여단은 65년 11월 8일 06.00를 期하여 “가” (Song Cai(江) 合流지역—Dien My—△208—Hon Gia Lu(△521)) 및 “나” (Nui Hon Ngang(△256)—Nui Chua(△284)) 지역 일대의 敵을 捕獲 設 멸코자 한다.

4. 제3대대

가. 배속

(1) 4.2''중박격포중대 제2소대

(2) 포병 제7중대(105mm 곡사포)

(3) 공병중대 제3소대

나. 8일(D일) 09.00以前까지 1개중대를 Suoi Cat(1) 마을 고무나무 밭으로 移動시켜 자대계획에 의거 공중 기동하라.

다. 2개중대(+)를 차량으로 撥動시켜 目標 1~1과 同1~2를 攻擊하되 Nui Lo Beo(山)에 정찰 據點을 확보하라.

라. 11일 黎明에 目標 2를 攻擊 점령하고 “나”지역의 VC을 覆滅하라.

5. 제2대대

가. 6일 12.00에 美제502공수여단 제2대대에 현행임무를 인계하고 7일 12.00까지 제3대대의 전술 책임지역을 인수하라.

나. 여단체비로 1개중대병력을 차출하여 의명 出動준비를 갖추고 대대基地에 대기시켜라.

6. 포병

가. 포병대대는 제7중대(105mm곡사포)를 제3대대에 배속하라.

나. 제628대대 제1포대(155mm곡사포 4문)는 일반지원하라.

다. 공격준비사격은 H-20부터 H-5사이에 실시하라.

7. 통신중대는 8일 08.00까지 여단과 제3대대 전술지휘소에 유선을 가설하라.

8. 여단전술지휘소 : 현위치.』

이와같은 명령을 수령한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6일 05.00에 移動준비를 갖추고 대기하다가 美제502공수여단 제2대대가 도착하자 06.00에 Phan Rang基地를 출발하여 제3대대 지역으로 이동하는 즉시 제5중대를 여단 예비로 차출하여 의명 출동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自隊 명령을 예하부대에 下達한 다음 7일 12.00에 鐵路와 제1번공로 및 Dong Pa Thin基地 경계임무를 제2대대에 넘겨주고 출동준비를 갖추는데 이때 美제 502공수여단으로부터 『저대대의 敵이 流動하고 있다.』라는 通報를 接하였다. 이에 대대장 全政男 중령은 『敵은 我軍의 공격 企圖를 看破하였는지도 모른다. 奇襲효과를 최대한 달성치 못하면 이 전투의 成功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자 즉시 여단에 건의하기를 『VC 제86대대가 지대를 이탈하려한다. 대대는 全兵力을 공중機動시켜 이들을 急襲코자한다.』라고하여 그 승락을 받았다. 이리하여 대대는 다시금 전투계획을 바꾸어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갖추었는데 수정된 계획의 要점은 다음과 같다.

#### 『1. 敵情 ; 생략

2. 美제 117, 제 118 兩항공중대가 대대를 직접 지원한다.

3. 대대는 8일 06.00에 공중기동하여 Dien Khanh西部에서 流動하는 VC을 擊滅코자 한다.

4. 이 전투는 2段으로 區分하여 실시한다.

가. 제1단 : 신속한 機動으로 “가”지역 일대의 敵을 捕捉 殲滅한다.

나. 제2단 : 11일 08.00를 期하여 “나”지역의 敵을 覆滅한다.

#### 5. 제9중대

가. 배속 : 대대통신소대 파견대

나. 중대는 目標 1~1(海拔 100m 무명고지)을 攻奪하고 고갯길에 2개소대 규모를 추진하여 제10중대를 掩護하라.

#### 6. 제10중대

가. 배속 : 화염방사기 1개반, 대대 통신소대 파견대

나. Chua Da Mai를 공격개시선으로하여 目標 1~2(△114)를 攻擊하라.

#### 7. 제11중대

가. 배속 : 81mm박격포 1개소대, 화염방사기 1개분대, 대대 통신소대 파견대

나. 08.00에 공중기동하여 着陸지역에 降着하는 즉시 주변일대를 확보하고 제2세대의 着陸을 掩護하라.

다. 제9, 제10 兩중대가 攻擊을 개시하면 Song Dong Gang(江) 下流에 전개하여 目標 1~3(Nu Nghe)을 攻擊하라.

8. 공중기동의 우선순위는 제 11, 제9, 제10중대 順이며 기타부대는 공격부대를 후속한다.

9. 대대전술지휘소는 공중기동이 완료되는 즉시 Dien Khanh의 越南軍 기지에 개설한다.

### (2) 戰鬥 實施

#### 第1段 (11월 8일~10일)

이 段階에서는 Song Dong Gang(江)을 中心으로한 東, 西의 高地群을 探索하여 VC의 야

전병원을 찾아내고 Song Cai(江) 합流지역을 수복하였다.

**11월 8일(D일)**: 이날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氣溫은 최고 33.4°C, 최저 17°C로 溫度의 차이가 심하였다.

대대는 06.00에 공중기동계획에 의한 “헬리콥터” 離陸지역(고부나무밭)에 集結하자 08.00부터 공수를 개시하였는데 이때 着陸지역에는 美제2비행사단의 전술항공기 1개편대가 15분 동안 航爆을 실시한데 뒤이어 Sui Hiep에 방열한 포병 제7중대의 105mm와 여단에 배속된 수도사단의 제628대대 제1포대 155mm폭사포 4문이 鐵火를 퍼붓고 있었다. 12.00에 제10중대가 離陸하자 대대는 Dien Khanh의 제420번道路邊으로 移動하여 전술指揮所를 개선하는 즉시 배속된 4.2"중박격포소대로 하여금 전투부대를 支援케 하였다.

(가)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 08.00에 20대의 “헬리콥터”에 분승하여 Thon Khanh Xuan東쪽에 着陸하는 즉시 제1소대를 마을 방향에, 제2소대를 Song Dong Gang(江)邊에 散開하고 제2제대의 着陸을 掩護하였다.

13.00에 제10중대가 機動하여 攻擊개시선에 전개하자 중대는 즉시 Song Dong Gang(江)을 공격개시선으로하여 目標 1~3(△114)을 奪取한 다음 제2소대로 하여금 Song Cai(江) 합流지역을 探索케 하였다. 이에따라 소대는 Dien My로 向하는 小路를지나 雜木 숲에 이르러 인공동굴 2棟을 찾아내었는데 여기에는 10餘名분의 밥과 식량 및 의류등이 널려있으므로 VC들이 潛伏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에 埋伏하여 철야하였다.

한편 중대는 VC의 痕跡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경기관총으로 增強한 제1소대의 1개분대를 小路邊에 潛伏케 하였는데 22.00에 포병대대 제7중대가 대대火力計劃에 의거 敵의 예상접근로상에 제압포격을 가하다가 1발의 至近彈으로 말미암아 埋伏中인 화기소대 제1반 洪建杓 병장이 腹部관통상을 입었다.

(나)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10.00에 2個梯隊로 나누어 Thon Khanh Xuan(洞)에 着陸하는 즉시 제11중대의 掩護下에 Song Dong Gang中流를 점령하고 目標 1~1(△105)을 攻擊하였다. 13.00에 △38를 넘어 目標 남단까지 前進한 중대는 敵의 철조망障物지대에 봉착하였는데 이때 마침 美제2비행사단 소속 전폭기 2대가 △105 後斜面에 爆撃을 가하자 중대는 즉시 장애물을 폭파하면서 突進하여 目標를 점령하였으나 거기에는 Hon Gia Lu(△521) 방향으로 退却한 敵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중대는 再編成에 들어가는 한편 제1소대와 60mm박격포반을 고갯마루 건너 △45에 추진 배치하여 제10중대의 攻擊을 掩護케 하였다. 16.00에 중대는 정찰 據點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1중대 점령지로 내려가 Nui Lo Beo(△42)를 席捲하자 Song Cai(江)를 向하여 陣地를 구축하고 Thon Xuan Lam(洞)에서 流動하는 VC를 擊滅할 목적으로 雜草에 둘러싸인 2개의 湖水沿邊에 1개분대씩의 埋伏隊를 배치하였다.

(다)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도 2개梯隊로 區分하여 Chua Da Mai에 도착하는 즉시 右一線에 제2소대를, 左一線에 제1소대를 展開하고 제3소대를 支援소대로하여 Song Dong Gang(河)를 따라 目標 1~2(Dien My北쪽 △114: 첩보판단으로는 VC 제90특공대대 일부 兵力이 潛據中인 것으로 推斷)를 攻擊하였다.

15.00에 제9중대의 掩護下에 목표를 奪取한 중대는 該高地 北쪽 8部능선에서 동굴을 探索하여 TNT 5l/b와 수류탄 2발을 노획하였다. 이윽고 주변탐색을 마친 중대는 Song Dong Giang上流를 건너 제9중대가 席捲한 고갯길에 들어서자 該중대의 뒤를따라 Nui Lo Beo(山) 北쪽으로 進入하였다.

11월 9일(D+1): 대대장 全政男중령은 Dien My 北쪽 山岳에 潛跡하여 계속 流動中인 제90특공대대 一部와 △105에서 據點을 확보하고있는 VC들은 전날 我軍의 攻擊으로 分散 퇴각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VC 제86대대 제3, 제4 兩중대가 蟠踞中인 것으로 判단된 Hon Gia Lu(△521)에 잠적하였을 것이라고 推斷한 나머지 다시금 公중奇襲을 계획하여 여단에 보고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黎明에 “헬리콥터”着陸지역인 Hon Gia Lu(山) 左側 무명고지에 포 砲火力을 集中케하는 한편 제11중대에 배속된 81mm박격포 소대를 제9중대로 배속변경하고 該중대로 하여금 목표 1~5(Hon Gia Lu)를 攻擊케 하였다.

한편 대대전술지휘소에는 여단장 李鳳出 준장의 案內를받아 陸軍참모총장 金容培 대장이 도착하여 11.00부터 20분간 本전투의 現況을 淸취하였다.

(가)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81mm박격포소대를 배속받는 즉시 Nui Lo Beo(△42)에 정찰據點을 확보하고 2개의 探索隊를 편성하여 △35와 Thon Xuan Lam에 出動시켰다.

제1탐색대(장, 安一燮 소위)는 Suoi Da Mai(河) 合流지역을 徒涉하여 △35를 점령하자 방향을 轉換하여 △30를 探索中, 江北쪽으로 潛行하는 VC 6명을 目擊하였다. 이에 探索隊는 즉시 이들의 進路를 차단하고 射擊을 集中하여 4명을 斃시켰는데 현지에는 屍體는 수 통과 裝具類만 몇가지 떨어져있을 뿐이었으므로 安一燮 소위는 곧 「이는 남은 殘敵이 그들의 동료를 이끌고 洞內에 숨었을 것이다.」라고 직감하고 이를 第2探索隊에 通報하였다.

한편 제2탐색대(장, 朴定秀 중위)는 Thon Xuan Lam에 도착하여 일부병력을 Thon Phu Coc으로 돌리는데 이때 제1탐색대의 通報를 받았다. 이에 탐색대장 朴定秀 중위는 1개분대



가옥을 탐색하는 청룡부대 병사들

규모의 병력으로 現地를 遮斷케 하고 나머지 15명을 직접지휘하여 그로부터 西쪽으로 2km 떨어진 작은부락을 포위하는 즉시 精探한 결과 움막에서 腹部관통상 및 頭蓋骨이 깨어진 VC의 遺棄屍體 3具를 찾아내었다.

(나)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제11중대 제3소대를 配屬받자 그중 1개분대를 제1소대에, 나머지 3개분대를 중대본부에 배치하였다.

09.00에 중대는 目標 1~4(Hon Ngan)를 攻奪하기 위하여  $\Delta 216$ 를 中間목표로 정한 다음 右一線에 제2소대를, 左一線에 제3소대를 그리고 제1소대를 支援소대로하여 攻擊을 개시하였다. 13.00에  $\Delta 216$ 를 지나 目標 1~4를 占領한 중대는 再編成한 연후에 제11중대 제3소대를 배속해제하고 該소대가 본대와 連繫하기 위하여 Hon Gia Lu( $\Delta 521$ )로 探索을 병행 前進하는 것을 掩護하였다.

(다)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 黎明에 제3소대를 제10중대에, 81mm박격포소대를 제9중대에 각각 配屬한 중대는 着陸지역에 대한 砲擊이 끝나기를 기다려 “헬리콥터”로 目標의 南西쪽 무명高地에 降着하는 즉시 現위치를 공격개시선으로하여 目標 1~5(Hon Gia Lu)를 攻擊하였다.

11.20에 高地의 北쪽에서 壕를 構築하던 제2소대(장, 黃演萬 소위)가 Song Dong Gang上

流로 退走하는 1개분대 규모의 VC을 目擊하자 중대장은 곧 105mm곡사로 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該소대로 하여금 추격케 하였으나 추정射殺 2명일뿐, 屍體를 확인치 못하자 제2소대를 北쪽에, 제1소대를 南쪽에 그리고 화기소대를 제10중대에 배속하였던 제3소대와 連繫토록 한 연후에 敵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여 陣地를 구축케 하고 한밤을 지새웠다.

11월 10일(D+2): 대대장은 제10중대로 하여금 目標 1~2를, 제11중대는 目標 1~6(△208)을 각각 攻擊케 하고 대대전술지휘소에 位置한 4.2''중박격포중대 제2소대를 제9중대 偵察기지로 공수하여 攻擊부대를 직접支援케 하였다.

(가) 제9중대는 제2소대로 하여금 4.2''중박격포중대 제2소대의 着陸을 掩護케 하였는데 Song Cai(江)邊으로부터 對空사격이 집중되므로 즉시 제1, 제3 兩소대를 出動시켰다. 제1소대는 Thon Phu Coc 일대와 Song Cai(江)邊을 探索하여 인공동굴에서 암호문서를 노획하자 곧 現地에 埋伏하고 제3소대는 Song Cai(江)合流지역을 渡河하는 즉시 Thon Canh Son(洞) 北쪽일대를 탐색한 다음 복귀중 崔방문 병장이 3개의 人工동굴을 찾아내어 이를 爆破하였다.

(나) 제10중대: 전투初日에 공격한 바 있는 目標 1~2를 再攻擊하라는 명령을 받은 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중대를 3개대로 편성하고 Hon Ngon(△216) 北쪽 8部稜線을 공격계시선으로 하여 突進하였다. 즉 제1대(돌격소대)는 趙英辰 소위가, 제2대(탐색소대)는 金信重 소위가 지휘하여 目標의 東쪽과 北쪽으로 각각 우회 攻擊하고 중대장은 제3대를 직접지휘하여 제1, 제2 兩隊를 支援하는 一方, 目標의 南쪽을 攻擊기로 하였다.

제1대는 開闊地를 지나 △114 東쪽으로 突進하는데 여기의 地形이 岩壁으로된 急傾斜인 데다가 바위마다 이끼가 끼어 있어서 前進이 곤란하게 되자 第2隊방향으로 우회하는데 이때 數 未詳의 VC으로부터 銃擊을 받았다. 이에 제1대는 즉시 火力을 집중하여 이들을 制壓한 다음, 目標로 直衝하였다. 한편 第2隊는 △114 西쪽을 探索中 제1대가 밀어닥치자 방향을 轉換하여 目標의 배후로 돌아 探索을 병행 공격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이 이끄는 第3隊는 △114 南쪽 7部稜線에서 철조망으로 담이 쳐져있고 그안에 岩石으로 構築한 4層으로된 大型 人工동굴이 있는 것을 目擊하자 즉시 이를 包圍하고 관찰한 결과 入口가 四方으로 4개가 있고 길이가 60m나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곧 부중대장 梁英澤, 포반장 安在河 兩중위 및 金榮彥 소위, 金甲述 중사에게 命令하여, 병사 2명씩을 이끌고 各層의 入口로부터 내부를 探索케 한 결과 화염방사기 2문과 TNT 40l/b 및 수류탄 3발을 노획하였으며 특히 1層에서는 醫藥서적과 藥品을 비롯하여 주사기, 청진기 기타 VC본부로부터 病院으로 보내는 文書

등을 찾아냄으로써 여기가 VC의 야전치료소임을 알게되었다. 目標 1~2에서 再編成을 마치고 防禦에 들어간 중대는 19.00가 되자 제9중대가 확보하고 있는 정찰據點으로 移動하여 △42 北쪽에서 潛伏하였다.

(다)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 : Hon Gia Lu(△521)에서 徹夜한 중대는 黎明을 期하여 目標 1~6(△208)을 攻擊하였는데 接敵이 없자 제1소대를 探索隊로하여 Song Dong Gang 上流계곡과 3支流가 합류되는 곳을 뒤진 연후에 歸隊하였다.

19.00에 중대는 제2소대를 척후대로 하여 山路를따라 Nui Nghe(山)에 복귀하자 第2段으로 移行할 준비를 갖추었다.

#### 第2段 (11월 11일~14일)

대대장 全政男 중령은 第2段전투지대를 欺騙하기 위하여 04.00부터 2시간동안 제1단지대의 各目標에 산발적인 포병화력을 加하는 한편 05.00에 병력을 移動시켰다. 이 段에서는 Dien Khanh邑內에 扶植된 VC의 細胞들과 제일 가까운 위치(Nui Hon Ngeng)에서 相互 연락을 취하는 VC들을 擊滅하였다.

11월 11일(D+3) : 이날 氣象은 대체로 맑은 날씨였으나 높은 구름이끼고 氣溫은 최고



李鳳出어단장(左)이 제3여대 진술지휘소에서 대대장 全政男 중령(右)을 격려하고있다.

34°C까지 올랐다.

대대는 06.00에 제9중대로 하여금 目標 2~1(△256)을 攻擊케함과 동시에 제10중대를 Hon Mot(山) 北西쪽으로 移動시켜 北쪽으로부터 접근하는 VC을 擊滅케하고 제11중대는 1개소대로 하여금 Nui Hon Ngang(山) 南端을 차단하여 제9중대의 攻擊을 掩護케 하였다.

(가)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나”지대의 △92로 移動하자 右一線에 제2소대를, 左一線에 제1소대를 散開하여 目標로 直衝하였다. 그러나 目標 2~1인 △256 일대가 열대성 原始林으로 덮여있는 까닭에 陸, 空路의 보급지원이 곤란하였으며 또 13.00인데도 불구하고 樹影에 가리워 四方을 식별키 어려울 정도로 어두었으므로 중대는 하는 수 없이 東쪽 5部 稜線으로 내려가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그런데 19.00에 Thon Da Dien Tay으로부터 數 未詳의 VC이 草木을 헤치며 接近하여 銃擊을 加하자 제3소대는 즉시 이들을 擊退하였는데 交戰中 소대에 배속된 경기관총 제3반탄약수 鄭순도 일병이 부상하여 후송되었다.

(나) 제10중대는 Hon Mot(海拔 25m) 北西쪽에 진출하자 目標 2~1과 △186의 中間지역을 차단하고 埋伏中 △186로부터 단대호 이상의 VC 1개분대규모가 중대본부를 奇襲하였다. 그러자 중대장은 즉시 제3소대로써 背後를 차단케하고 60mm박격포반으로 돌격소대를 急編하여 그들의 중앙부를 擊衝케하니 敵은 Mot溪谷에까지 退却하였는데 이때 우회한 제3소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뒤를 덮치자 敵은 四散潰走하고 말았다. 중대는 이 交戰에서 遺棄屍體 1具를 확인하고 M79유탄발사기 1정과 소총실탄 300발 및 Nha Trang일대의 我軍 군사시설배치도를 노획하였는데 지도에는 美軍기지의 변경내용 및 VC의 攻擊, 침투방향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文牘을 대대에 보고하고 차단진지에서 徹夜잠복하였다.

(다)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는 07.00에 81mm, 4.2" 兩박격포소대를 배속하고 제9중대의 정찰據點을 인수하여 대대에버대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제1소대를 出動시켜 目標 2~1의 南쪽 道路邊을 차단케 하였다.

13.00에 제9중대가 目標를 奪取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중대는 探索을 병행하면서 △84로 移動中, Song Cai(江)邊에서 2인용 고무“보트”를 타고 도주하는 怪漢에게 위협총격을 加하여 이를 제포하였는데 이들은 大型식통에 옥수수를 써서 운반중이었으므로 VC동조자로 판단하고 押送하였다. 이윽고 △84에 진출한 중대는 제1소대와 合勢한 다음, Nui Hon Ngang(山) 西쪽에서 진지를 준비하고 潛伏하였다.

**11월 12일(D+4) :** 각중대는 現위치에서 정찰거점을 확보하고 주변일대를 探索 하였다.

(가) 제9중대는 전날 敵이 出沒한 Thon Da Dien Tay(洞)에 제2소대를 내보내 探索케 하



였으나 索敵치 못하자 敵의 야간기습에 대비하여 壕를 마련하는 한편 제1소대에서 2개분대 규모의 埋伏隊를 편성하여 Thon Da Dien Nam(洞) 入口와 湖水邊에 埋伏시켰다.

(나) 제10중대는 전날 차단진지로부터 東쪽 1km 떨어진 Hon Mot와 △186中間에 정찰據點을 마련하고 주변을 探索한 다음, △20와 Nui Hai(△45)에 2개분대 규모의 매복대를 配置하였다.

해가 기울 무렵에 Suoi Giang Huong(河) 上流로부터 3명의 VC이 銃擊을 가하자 이들을 埋伏隊가 있는 곳으로 誘引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이미 氣味를 看破하였는지 숲속에서 서성대더니 곧 退却하고 말았다.

(다) 제11중대는 전날 逮捕한 VC용의자가 많은량의 옥수수를 찌서 운반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VC들이 蟻踞하고 있는 증거라 判斷하고 제2소대를 “가”지대에 投入하여 Nui Lo Beo(山) 南쪽 일대를 精探케 하였다. 그러나 索敵치 못하고 복귀하자 13.00에는 다시 제3소대를 埋伏隊로 하여 Song Cai(江) 모래사장과 Nui Lo Beo(山) 南쪽 湖水 및 그 北쪽 溪谷 그리고 Song Cai(江)合流지역에 내보내 철야잠복케한 결과 23.00에 江으로부터 Nui Lo Beo(山)로 潛行하는 VC 1명을 捕虜로 잡았다.

**11월 13일(D+5)**: 이날은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어 視界에 제한을 주었으나 10.00부터는 滿月이 淸명하였다.

대대장은 目標 2~2(Nui Chua)가 Suoi Cai Dai An(河)과 Suoi Giang Khanh(河)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Dien Khanh으로 通하는 양호한 道路까지 있어 여기가 敵의 本據地일 가능성이 크다고 推斷하고 제10중대로 하여금 이를 攻擊케 하는 한편 제11중대도 支援부대로서 出動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곧 該지역의 VC이 退却하려면 Nui Mu Rua(△84)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여기를 目標 2~3으로 設定하여 제9중대를 出動시켰다.

(가) 제9중대는 07.00에 Nui Chua(山)를 통하는 道路로 移動하는 즉시 제1소대로 하여금 目標 2~3을 攻擊케 하고 나머지 兵力으로는 그 南쪽 Suoi Cai Dai An(河)과 Suoi Giang Huong(河) 사이를 차단토록 하였다.

Dap Da쪽에 산개하여 Nui Mu Rua(山)를 攻擊한 제1소대는 12.00에 目標를 席卷하였는데 이때 目標 2~2를 공격하는 제10중대로부터 敵의 退却통보와 거의 同時에 한무리의 怪漢들이 Suoi Cai Dai An溪谷을 따라 도주하므로 즉시 제1, 제2 兩分대를 投入하여 그들의 退路를 차단케 하였다. 그 결과 제1분대장 朴金錫 하사는 8명을, 제2분대장 金允新 하사는 11명을 각각 逮捕하자 곧 복귀시키고 제10중대가 Nui Chua(△284)를 占領하고 再編에 들어

갈때까지 該高地에 대기하다가 중대로 돌아갔으며 16.00에 중대는 대대집결지로 移動하자 Hon Mot(山)와 Thon Dai Dien Nam(洞)에 1개소대씩을 각각 埋伏시켰다.

(나)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중대본부와 포반병력을 뽑아 1개소대로 增編한 다음, 該소대로 하여금 目標 2~2의 攻擊발판이되는  $\Delta 260$ 를 점령케 하였다. 08.00에 該高地로 이동한 중대는 右一線에 제1소대를, 中央에 제3소대를 그리고 左一線에는 제2소대 및 增編소대를 散開하여 目標를 直衝하였다. 그러던중 제1소대는 VC 1명을 追擊하다가 동굴을 探索하여 中共製 방망이수류탄 1발과 탄약을 노획하였고 제3소대는 北東쪽으로 退走하는 一群을 擊斃하였는데 이들은 Suoi Cai Dai An(河)을 徒涉하므로 즉시 제9중대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윽고 目標를 奪取한 중대는 제9중대의 뒤를따라 Nui Hon Ngang(山)에 진출하자 그 南麓에서 露營하는 한편 제1소대를 제421도로에 내보내어 夜間통행자들을 檢索케 하였다.

(다)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는 제1, 화기 兩소대와 포반을 警備據點( $\Delta 84$ )에 대기시켜 제10중대 增援병력으로 控置하고 남은 제2소대로 하여금 Thon Xuan Lam(洞)과 Nui Nghe(山)를 偵察케 하였으나 敵을 찾지못하자 전날부터 埋伏中인 제3소대를 Song Cai(江)邊쪽 Thon Xuan Lam(洞)—Thon Phu Coc(洞)—濁渴된 河川으로 移動시켜 다시금 철야배복케 하였다.

11월 14일(D+6) : 대대장 全政男 중령은 지대내의 敵이 거의 擊滅되었거나 불뿔이 敗退하였을 것이라고 判斷하고 各중대장에게 제10중대 據點인  $\Delta 122$ 와  $\Delta 40$ 사이의 제421번도로邊에 集結하라고 命命하였다. 이에따라 제9중대는  $\Delta 40$ 로, 제11중대는 8Imm 및 4.2'' 박격포소대를 배속 해제함과 동시에 埋伏中인 제3소대를 복귀시키고  $\Delta 122$  南端으로 이동하였다.

13.50에 대대는 31대의 車輛便으로 부대전제순에 따라 Dong Ba Thin기지로 復歸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 『번개 1호전투』를 完了한 여단은 계속하여 번개 2, 3호 전투를 決行하게 되었다. 즉 여단은 Cam Ranh灣과 Nha Trang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安全한 방어임무를 遂行하기 위하여 전술책임지역 外廓인 Tuy Hoa와 Vung Ro灣부근에 있는 VC연대규모의 本據地를 공격키로 결심하고 美제1야전사령관 Stenly R. Larson 소장 및 Nha Trang 越南軍 부대장과 協議한 끝에 韓·美·越 연합작전을 계획하였다. 出動부대는 제2, 제3 兩대대와 越南軍 2개대대이고 美軍은 航空과 艦艇 및 砲兵을 동원하여 陸, 海, 空 3路로 기습공격을 감행키로 한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제3대대는 「번개 1호전투」가 끝난 8일뒤인 11월 22일에 여단의 主攻으로서 海路공격을 맡게되자 제9중대를 선발대로 차출하는 즉시 美해군 LST 1157艦으로 Cam Ranh港을 출항시켜 Tuy Hoa로 機動케 하였으나 갑작스러운 暴風雨로 말미암아 艦艇이 坐礁되는 등 불발사태가 잇따랐으므로 上陸하지 못하고 海上대기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대장 全政男 중령은 Dong Ba Thin기지를 제1대대 제2중대에 인계하고 나머지병력을 지휘하여 車輛便으로 Nha Trang에 진출하자 美해군 LST 1167艦에 乘艦하였는데 갑자기 風浪이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에 출동을 보류하고 Nha Trang비행장 南쪽 Vinh Truong으로 移動하여 日氣가 개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때는 시기적으로 越南의 雨期인 까닭에 2일이 지나도록 暴風이 멎지않자 하는 수 없이 海上에 投擲 대기중인 제9중대를 복귀시키고 1주일을 더 기다리다가 11월 30일 작전이 무기연기되자 12월 1일에 Dong Ba Thin기지로 돌아갔다.

한편 대대가 진출책임지역을 10여일간 비우게 되자 기회를 노리던 지방VC들이 惡天候를 이용하여 Suoi Hiep과 Suoi Cat마을을 침습하여 식량을 強奪하고 Cu Thanh橋의 爆破를 꾀하였으므로 대대장은 즉시 여단에 건의하여 연합작전에 대기중인 병력으로 「번개 2호 전투」를 展開하였다. 즉, 대대는 제2대대의 제6, 제7 兩중대에 기지정계를 맡기고 Dien Khanh으로 이동하는 즉시 “헬리콥터”로 공중기동하였다.

제9중대는 제1번공로 東쪽 Nui Bung Binh(△422)—Hon Co(△262)—Hon Cau(△352)를, 제11중대는 Hon Ngang(△232)—Nui Thi(△72)—△224—Suoi Cay Sung(河)를 각각 探索하였다. 3일간 계속된 이 전투에서 제9중대는 VC용의자 14명을, 제11중대는 28명을 각각 체포하고 그들의 陣地2개소를 폭파하였으며 수류탄 2발과 활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가 끝나던 날(12월 11일) 여단으로부터 새로운 命令이 下達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Nha Trang 北쪽의 高地群이 Dam Nha Phu灣과 연결되어있고 Nha Trang 市街地를 敵制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1번공로와 鐵路를 제압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諜報에 따르면 여기에는 VC뿐만아니라 일부 越盟軍까지 潛藏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대대는 12월 12일 黎明을 期하여 여기를 攻擊하라.』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대대는 군장을 풀사이도 없이 바로 出動하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이지역에서 다시 「번개 3호 전투」를 展開하였다.

제9중대는 Hon Kho—Hon Ngang일대를, 제10중대는 △252—Hon Du Bac(山)—제1번공로와 제421번도로 삼거리를 探索하고 제11중대는 Vinh Luong과 Hon Thong(山)을 攻擊 점령하는 즉시 Suoi Tan(1)으로 복귀하여 12월 17일 제2대대가 『청룡 1호 작전』 제1단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1번공로및 鐵路의 경계임무를 인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VC용의자 55명을 체포하고 창과 활을 1개씩 노획하였다.

「번개 1,2,3호 전투」를 끝마친 대대는 금명간에는 Nha Trang주변에 대한 VC의 침습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제1번공로 및 鐵路를 警戒하다가 同年 12월 22일 Dong Ba Thin기지로 복귀하는 즉시 부대를 整備하고 25일 黎明에 다시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移動하여 「청룡 1호작전」 제2단계에 참가하였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전투명	戰 果							損 失 전 상
	사 살	V C 용의자	노 회				문 서	
			소총및화 염방사기	수류탄	실 탄	활및창		
번개 1호전투	5	26	3	7	300		20	3
번개 2호전투		42		2		1	5	
번개 3호전투		55				2		
<b>합 계</b>	<b>5</b>	<b>123</b>	<b>3</b>	<b>9</b>	<b>300</b>	<b>3</b>	<b>25</b>	<b>3</b>

§ 參戰者의 證言

제 3대대장 全 政 男 中령

(1978년 6월 1일 대한나이론(株) 대구공장 직업훈련소 소장실에서 : 당시 훈련소장)

『번개 1,2,3호 전투』를 최초 諜報에 의하여 계  
획했을 때와의 판단과 比較한다면 所期의 戰果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보다도 重要한 것은 進술책임지역 內  
외의 VC을 몰아내고 책임 지역을 확장하여 友軍  
활동에 安全을 도모하였으며 次期작전(청룡 1호  
작전 以後)을 爲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있었다

는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본다.

즉, 대대 全將兵들은 “정글”과 열대성 原始林  
에 들어가 전투를 하여본 경험이 없는지라, “번  
개전투”야 말로 대대의 戰鬪力을 한층더 強하게 하  
고 戰友상호간에 단결을 이룩해준 契機가 되었다  
고 보는 것이다.

## 4. Luc Le 戰鬪(1965년 11월 11일)

참조 : 상 황 도 제11, 12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敵 軍	
(1) 統制部隊		(2) 參加部隊	
제 1 연대		제 1 중대	장 대위 李 學 健
제 1 대대	장 중령 裴 貞 信 (改名 : 貞道)		
		地方 VC	

## 나. 戰鬪 前의 概況

이 戰鬪는 首都사단이 파월하여 美軍으로부터 작전지역을 引受한 以來 중대규모로서는 최초로 시도한 探索戰이다.

## (1) 戰鬪 背景

제1연대 제1대대는 1965년 10월 23일 美제101 공중기동사단 및 美해병 제3여단 제7연대의 예하대대가 Qui Nhon 橋頭堡를 확보한 가운데 上陸하여 사단사령부에서 2일간의 부대정비를 끝마치고 동월 26일 Phung Son 지역에 있는 美제101 공중기동사단 예하 제327여단 제1대대의 作戰지역을 인수하기 위하여 부대이동을 시작하였다. 동월 08.00에 제1중대(6/170명) 및 제4중대(1/130명)를 先發隊로 移動케 하고 이어 다음날 主力인 제2 제3 兩중대(15/245명)가 08.35부터 09.50 사이에, 그리고 제2 제4 兩중대의 殘餘병력과 배속된 연대전투지원 중대의 4.2" 중박격포반(10/266명)이 이날 10.50까지 Ky Son 北麓에 미련된 집결지로 移動하여 대대본부를 中心으로 東쪽과 西쪽에서 제1 및 제3 兩중대가 警備하는 가운데 美軍의 作戰지역을 引受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즈음 이 지역에서 流動하던 敵은 我軍이 Phung Son 지역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非常한 판

심을 갖고 注視하는것 같았다. 즉 대대가 同地域에 移動한지 3일뒤인 同월 29일 VC는 我軍의 경제상대를 시험하여 보려는듯 精銳분자를 제3중대 진지에 침투시켰으나 여지없이 潰滅되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그 다음날인 30일과 31일 兩일에 제2 및 제3兩중대의 本대장급 이상이 Xuan Phuong 및 Kim Dong에 있는 美제329 공중기동사단 예하부대 기지에서 각각 합동근무를 하고 이어 다음날 11월 1일에 上記 兩중대의 主力이 美軍기지를 正식으로 引受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美軍이 맡고있는 전술책임지역(TAOR)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이하하여 대대는 전술지휘소를 Ky Son山 北麓에 開設하고 제1 및 제4 兩개중대가 대대본부를 警戒하는 가운데 Am Phu江을 사이에 두고 그 南쪽에 있는 Xuon Phuong—Kim Dong—Kim Dai일대를 제2중대가, 그리고 該江 北쪽 Go Boi에 제3중대가 각각 進駐함으로써 Go Boi平野의 中心部 一角에 橋頭堡를 확보하였다.

당시 대대가 확보한 지역을 비롯하여 越南軍이 장악하고 있는 Qui Nhon—Tuy Phuoc—An Nhon 등의 市邑을 제외한 대부분의 地域은 VC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敵에 關한 情報은 미지수인데다가 생소한 지역에 投入된지 불과 1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내에 치음으로 戰鬪에 임하므로 그 누구도 戰術面에서 최선의 方法을 채택한 사람은 없었고 오직 各個병사로부터 모든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責任을 지고 미숙한 敵情과 生소한 地形에 熟達하는 것이 當面과 時중 時急히 요구되었다.

## (2) 敵의 狀況

Song Tan An(江)—Song Am Phu(江)의 두江이 Go Boi平野의 중간을 東西로 흘러 Qui Nhon灣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江의 北쪽 一帶는 제1번道路邊을 제외한 나머지 平野지대의 沃土와 마을등은 VC이 거의 占據하고 있으며 該江의 南쪽일대도 Qui Nhon 및 Tuy Phuoc부근을 제외한 卍이상의 地域이 그들의 支配下에 있는 실정이었다. 當面한 敵은 상기 兩江의 流域에 散在한 마을과 濕地 및 平野지대의 사탕수수밭에 발판을 두고 流動하는 지방 “게릴라”의 일부로서 그들의 兵力數는 2개중대규모로 推算되었다. 이들은 我軍이 該지역을 인수하자 心理戰의 효과를 펴하려는듯 야간이면 기지주변에 擾亂사격을 集中하고 隣近 巷間에 VC旗를 게양하는등 惡辣한 手法을 시습치 않았다.

## (3) 我軍의 狀況

제2대대는 美海兵 제3여단 제7연대 예하대대가 맡고 있던 Phu Tai를 인수한뒤 전술책임지역 南端에 있는 Cu Mong고개를 扼守하면서 사단사령부 외곽경계를 담당하고 또 제3대대는 Nam Tang에 集結하여 自隊의 警戒와 아울러 사단사령부 방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제1기갑연대는 現地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부대를 정비하면서 제19번道路에 沿한 Binh Khe에 전개하는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美軍은 Qui Nhon地域에서 我軍을 掩護하다가 다른地域으로 移動하고 越南 제22사단 제41연대가 Phu Cat北쪽에서 國道 제1번道路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중이며 점차 機先을 挽回하고 있었다. 그러나 我軍은 전투경험이 없는데다가 익숙치 못한 지형과 流動的인 敵情下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투하기 어려웠고 또 이것이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였다.

#### (4) 戰鬪 地域의 特徵

전투지역내에는 Song Tan An(江)이 濕地와 田畚, 사탕수수밭이 點綴된 평야를 東西로 흐르고 있으며 河川 兩岸에는 대나무숲이 우거진 마을이 산재하고 있고 마을과 마을사이에는 넓은 田畚과 濕地 그리고 亂灘과 같이 영커있는 細流등이 彼我間의 機動에 제한을 줄 것이 예상되었다. 특히 Luc Le는 Song Tan An(江)과 無名의 河川이 합류되는 三角地에 있는 까닭에 三面이 江에 둘러 쌓이고 東쪽은 넓은 개활지로 形成된 까닭에 外部로 부더의 侵入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地形조건을 갖추고 있다.

#### 나.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대대장 襄貞信(改名: 貞道) 중령은 美軍으로부터 이 地域을 引受하는 즉시 가장 時急히 해결하여야할 문제는 제441 및 제442번道路를 완전히 개통하는 것이었는데 주간에 VC의 狙擊으로 통행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注力하는 한편 據차로 基地를 推進시켜 安定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自身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作戰계획의 구상과 아울러 情報를 入手하는데 노력하던 차에 믿을만한 첩보를 入手하였다.

그에 따르면 『70여세의 유력한 VC幹部가 潛入하여 叢叢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인바 이는 그저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대대가 이 지역을 引受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그들의 간부가 파견되어 勇계를 劃策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틀림없이 同調세력을 糾合하여 我軍기지를 기습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先制로서 그 一黨을 剔抉키로한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대대본부 경계에 입하던 제1중대를 同임무로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1. Luat Chanh—Luc Le에 潛入하여 暗躍하는 敵은 지하조직망을 強化하면서 虛實을 틈타 我軍기지를 기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 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1월 11일 04.00를 期하여 Luat Chanh 一帶에서 潛動하는 敵을 索出 擊滅하려 한다.
3. 제1중대
  - 가. 배속: 탄약작업소대(11월 10일 17.00附)
  - 나. 11일 夜間을 利用하여 은밀한 徒步기동으로 目標를 포위한 後에 이를 探索하라.
4. 포병火力은 요청에 따라 支援한다.

## 5. 협조지시

- 가. 소총실탄은 2기수를 휴대하라.
- 나. 대대와 중대간의 무선망은 AN/PRC-10을 사용하라.
- 다. 各團령사에게 渡河用 “로프”를 휴대케하라.

## 6. 대대전술지휘소는 Ky Son에 개설한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하달한 대대장은 이에 追加하여 이르기를 『작전지역에 投入된지 불과 7일밖에 안되지만 그간 散發의인 接敵에서 유감없이 싸웠다. 特히 최초로 敵과 부딪친 Phung Son 전투에서 高度로 능숙하다는 그들의 침투를 여지없이 駭破한 실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여 주기바란다』라고 激勵하였다.

한편 전투명령을 수령한 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기습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兵力을 3개조로 편성하였는데 제1조를 화기소대 및 탄약작업소대로 하고 제1, 제2 兩소대를 제2조로 그리고 제3소대를 遮斷組로 區分하여 敵을 포위 격멸키로하고 유사한 地形에서 演習을 하는중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 (2) 戰鬪 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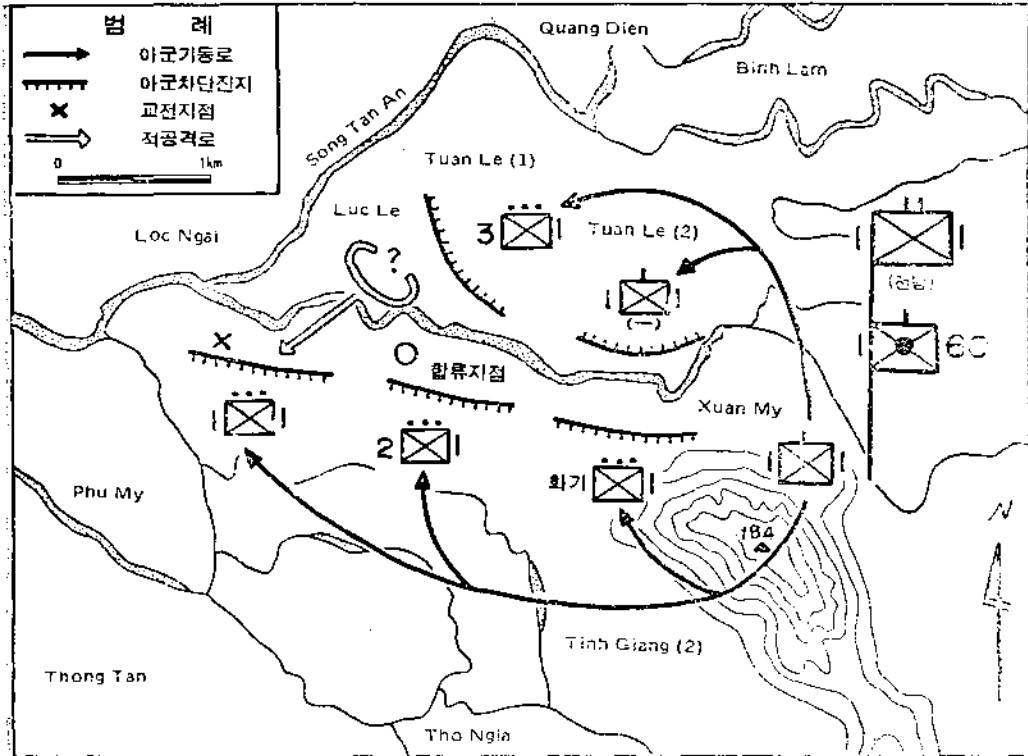
11월 11일 04.00에 중대는 제1소대를 선두로 하여 機動을 시작하였다. Tin Giong (1) 西쪽 300m分岐點에서 제1소대와 제2소대를 Luat Chanh (1)로 進出케 하고 제3소대를 Lu Le西쪽으로, 그리고 탄약작업소대를 Tuan Le로 각각 移動케 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後續부대인 화기소대를 Tin Giong (1)로 前進케 하였다. 이윽고 Luc Le西쪽으로 迂回한 제3소대가 敵의 예상退路를 차단하자 제1, 제2兩소대와 화기소대는 無名의 하천南岸에서, 제3 및 대대탄약작업소대는 江北에서 各各 계획된 지역을 포위하여 探索하였으나, 아무런 徵候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恐怖에 질린 婦女子들만 남아 있을뿐이었다. 이들은 我軍이 묻는 말에 일체 緘口無言으로 作戰에 협조하려는 눈치는 조금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리하여 대대에서 계획된 전투는 일단 끝났으니 復歸하기 위하여 사전에 約定된 Luat Chanh 北쪽의 河川邊으로 제1, 제2, 제3 各소대를 集結토록 하였으며 화기소대와 대대탄약작업소대는 기지에 復歸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 제2, 제3 各소대는 約定된 장소로 集結中에 있었다. 이때 제1소대의 선두에서 전진하던 제2분대장 鄭奇烈 하사가 無名의 河川대안에 潜伏한 수미상의 敵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고 負傷을 입었다. 이리하여 「Luc Le戰鬪」는 그 序幕을 열었다.

틀림없이 제3소대가 接近하리라 믿었던 곳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니 즉각 상황을 判斷치



狀況圖 제11호 Luc Le 戰鬪(其一)



못하고 혹시 友軍間의 잘못된 交戰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對岸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敏捷하게 사라지는 VC을 目擊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즉시 제 3소대를 呼出하였으나 應答이 없었다.

한편 그는 부상자가 생겼다는 보고를 接하자 즉각적인 전투지휘보다는 眞傷兵 처리에 當 급증이 더 앞섰다. 이와 동시에 하늘을 찌르는 듯한 射擊소리(이때 兵士들은 對岸을 向하여 亂射하였다)에 通信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狀況 파악을 위하여 하천 沿岸에 있는 대나무 숲속으로 뛰어들어 갔는데 이때에 제3소대는 敵이 바로 뒤에, 그리고 중대장은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전통신이 杜絶되어 결국 특안에 든 敵을 놓쳐버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대나무숲 속에서 대대 및 예하소대를 呼出하기 30분, 끝내 通할수 없음을 확인한뒤 무너진 지붕위에 올라가 겨우 통신을 회복하고 대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支援포격을 요청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포병사격의 安畧을 고려하여 제1, 제2 兩소대를 200m 뒤로 물러서게하

고 제3소대를 東쪽으로 이동시킨 다음 對岸의 사탕수수밭에 鐵火를 퍼부었다. 한참뒤 사격의 延伸과 더불어 재차 제3소대를 前進시켜 Luc Le 北西쪽을 遮斷케 하고 제2소대로서 敵을 포위하고자 近岸으로 接近케 하였는데 그들은 이때에도 최초 사격지점에서 재차 射擊을 加하였으며 그외 兇彈에 제2소대 제1분대장 李正茂 하사가 부상을 입었다. 이와같은 景況을 지켜보던 中대장은 제2소대로 하여금 河川을 渡河하여 突擊하라고 호령하였다. 이리하여 該소대는 各自가 휴대한 “로프”를 이용하여 渡河를 감행하였는데 渡河지점을 잘못 選定한 탓으로 몇몇 兵士가 물에 빠져 익사직전에 救出되는등 혼란을 빚기도 하였으며 渡河를 끝마치는데 2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제3소대는 하늘 위에는 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茂盛한 숲속에서 地圖판독은 커녕 方向유지도 못한채 지시된 地點으로부터 500m 東쪽으로 移動한 탓으로 敵의 퇴로를 차단하려던 계획이 실제로는 退路를 열어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때 제1소대와 같이 행동하면서 예하소대를 지휘하던 中대장은 그가 휴대한 소대와 中대망의 AN/PRC-6 무전기가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으므로 焦燥하기 시작하였다.

中대장은 잘 통하지도 않는 무전기를 내어 던지고 대대망 무전기(AN/PRC-10)로서 中대를 지휘하기로 決心하고 대대본부로 하여금 中대를 呼出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取한뒤 傳令을 포함한 1개분대를 제3소대 및 화기소대로 보냈으나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威興차 사격이된 뒤부터 더욱더 中대장은 초조와 憤怒가 치밀었다. 이러기를 2시간, 내려쬐이는 暴陽 밑에서 이마의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눈을 뜰수가 없고 渴症에 물을 마구 마시면서 계속 예하대를 호출하는데 努力끝에 제2소대가 敵이 최초사격한 지점에 進迫하여 現場에서 18세 가량의 重傷을 입은 민간인 소년을 捉거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때 中대장은 善良한 주민이 다친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민간인에게 損失을 끼쳤으므로 모두 가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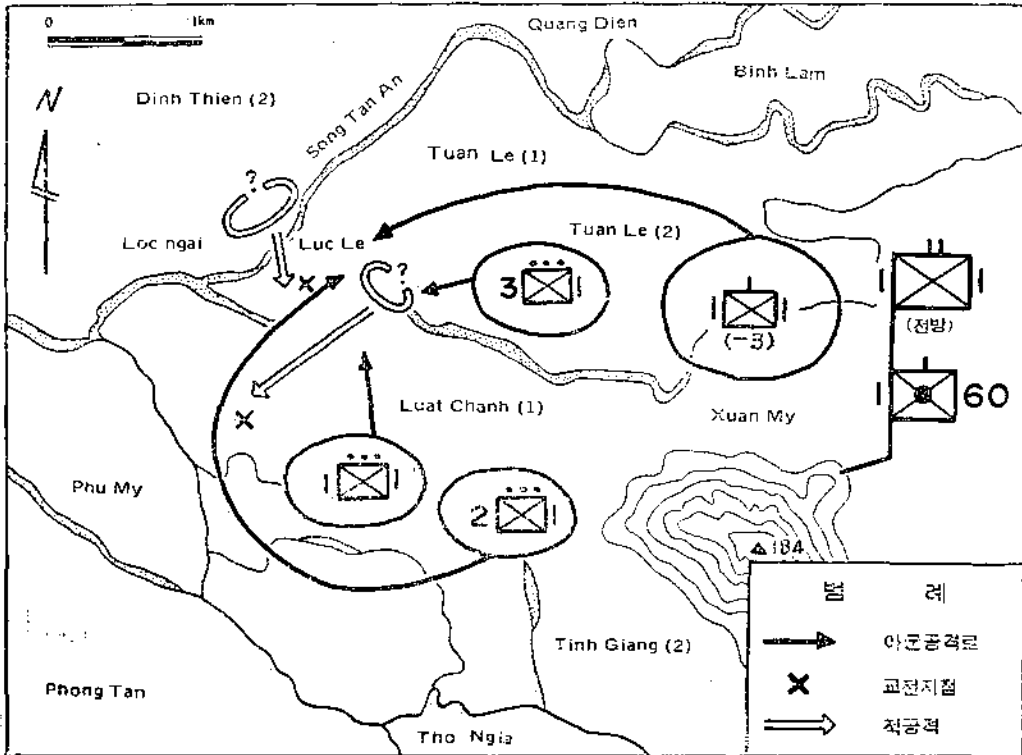
그후에 判明된바 그는 민간인으로 가장한 VC임이 확인되었다. 初戰에서 陣痛끝에 부대를 정비한 中대장은 『제2소대는 사탕수수밭을 突破하여 제3소대와 합세한 다음 Luc Le일대를 探索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제1소대로 하여금 左側方을 警戒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2소대장 鄭豊田 중위가 거느린 探索隊는 사탕수수밭과 우거진 숲으로 말미암아 地形이 잡잡하여 사격과 機動에 제한을 줄것이 예상됨에 따라 北쪽으로 迂回하여 유리한 지형을 選擇한 연후에 돌격하겠다는 계획아래 진출 한 것이 그만 敵의 虎口에 들어가고 말았는데 地圖上에서는 실오리같은 細流였으나 실제로는 河幅이 넓은 큰 河川이었

다. 소대는 이 개활한 곳을 통과하려다가 Tan An江 對岸에 潛伏한 敵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고 1명이 또 負傷을 입게되자 당황하기 시작하였으며 兵士들은 눈뚫에 遮蔽한채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소대장은 부상자에게만 은 신경을 쏟고 또다른 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支援요청만을 하였다. 한편 중대장은 이따금 들려오는 敵의 銃擊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날의 미숙한 전투지휘를 반성하면서 주간전투의 終結을 맺기위하여 서두르고 있던 참에 어디선가 중대를 呼出하는 무전기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소대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갖은 努力끝에 할 수 없이 는 가운데의 높은 곳에 올라가 겨우 제2소대의 狀況을 확인하고 긴급히 화기소대를 呼出하여 제3소대와 合勢한 다음 該소대의 복귀를 엄호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그는 제2소대가 渡河한 지점으로 달려갔다.

한편 대대장에게 Say江 對岸의 敵狀況을 보고한바 渡河가 困難할 뿐만아니라 점차 날이 어두워지니 주간전투를 보류하고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곧 救急“헬리콥터”를 요청하여 제2소대지역으로 急派하였다. 그런데 該소대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

狀況圖 제12호 Luc Le 戰鬪(其二)



한 同機는 30분간이나 上空을 헤메던 끝에 간신히 그의 장소를 알아내고 急降下 착륙을 하려던 瞬間이었다. 對岸으로부터 빗발치듯 敵의 사격을 받자 雙方間에 치열한 銃擊戰이 벌어졌으며 “헬리콥터”는 즉시 離陸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부상자 후송이 성공한줄 알고 安心하였는데 대대본부로 부터 『부상자 後送을 위하여 着陸을 강행하려던 美조종사와 軍의관이 부상을 입고 돌아갔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하는 수 없이 제2소대로 하여금 부상병들을 徒手로 운반하여 최초 渡河지점으로 集結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한편 掩護배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무전기의 感을 간신히 조절하여 하달한 명령에 차질이 생겨 제2소대가 화기소대의 方向으로 돌아갈줄이야! 이때 敵은 제2소대의 後尾를 사격하였다. 雙方間에는 또한차례 치열한 交戰이 벌어졌으며 四面에서 VC의 銃擊이 集中되었다. 이때부터 그나마 送受信되던 무전기의 不通으로 제2소대와의 交信은 완전히 杜絶되었다. 땅거미지는 越南에서의 첫 野戰의 밤이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눈이 빠지게 기다린 제2소대는 간곳이 없었으며 그렇다고 이러한 夜陰에 誘導부대를 차출하기에는 매우 困難하였다.

고요한 벌판에서 無電機 호출소리에 我軍의 위치가 폭로되어 VC들은 兵士들의 얼을 뺏으려는데 점점 가까이 接近하였다. 晝間부터 한대의 대대망 송수신기로서 소대지휘를 위하



號令과 더불어 突進하는 제1중대 병사들

여 사용하던것이 이제는 兩便 모두 周波數의 조정이 困難하게 되었다. 이때의 心情을 그는 『생각하면 몸서리 나도록 괴로웠다. 부하를 잃어버린 슬픔, 나는 예하소대를 찾기전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決心하고 그날저녁 이 벌판에서 晝間의 戰勢를 雪辱挽回하기 위한 一戰을 작오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하였다.

長시간이 흘렀으나 제2소대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중대장은 『제1소대장은 유리한 埋伏지역을 점령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계속 交信에 노력하였지만 헛수고였다. 하는수 없이 예하대 呼出을 포기하고 대대본부로 하여금 소대호출을 의뢰한 몇분뒤에 『殘餘소대 이상없이 Thin Giang 東쪽 제42번道路上으로 집결중! 중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제1소대와 같이 夜間행군을 強行하였다. 금방이라도 수류탄이 날아들것 같은 극단의 緊張을 느끼며 行軍한지 2시간만에 殘餘소대와 合勢한 다음 대대基地에 복귀완료한 때는 밤 1시30분이었으며 雪上加霜으로 부상자들을 긴급 後送기 위하여 대대본부에 着陸하려던 “헬리콥터” 1대가 기관고장을 일으켜 機體가 全燒되고 美軍 3명이 순직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번 전투에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敵도 상당한 打撃을 받은듯 該지역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뒤에 밝혀진바 Luat Chanh (1)에 潛入한 武裝兵群은 지방 “게릴라”로서 그들은 Tuy Phuoc郡 VC 위원회의 지령하에 我軍기지를 기습하여 저들의 力量을 誇示하려 하였으나 我軍의 先制공격으로 그 企圖가 挫折되었다고 한다. 대대는 이 전투를 끝마친 이틀뒤에 Luat Chanh (1)에 侵透한 一隊인 것으로 推斷되는 武裝分子들이 Binh Lam에 出現하였다는 첩보를 入手하는 즉시 제1중대를 再投入하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戰 果	損 失
	용 의 자 체 도	전 상
부 대		
제 1 연대		
제 1 중대	1	4

## § 研 究

## 指揮의 熟達

이번 전투에서 敵을 捕捉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 敵과 부딪혔을때 즉각 조치

둘째 : 敵戰術의 연구 不足

셋째 : 負傷兵의 처리

네째 : 共用화기의 휴대

다섯째 : 副次的인 통신수단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문제는 必히 교육과목에 넣어 짚드시키되 이를 活用하고 適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敵의 사격을 받았다. 이때 소대장은 즉각 어떠한 행동과 조치를 취하느냐? 중대장, 대대장, 亦是 同一하다고 본다. 또한 부상자가 생겼을때 兵士들이 부상자 주위에 모여들 것이다. 이때 敵은 露出된 兵員에게 集中 사격을 가할 것이며 負傷者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이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自己 부하를 평소와 훌륭한 전투원으로 훈련하였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간단할 것이다.

敵이 눈앞에 있을 때와 視野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경우 後者처럼 危險하고 不安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小銃은 대개가 구식 단발총이고 대부분이 100~150m 거리에서 射擊을 한다. 이때 처음 사격을 받고 敵에게 뛰어들었다면 다음 彈丸을 장전하는데 소요되는 時間내에는 敵앞에 接近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은 제2彈의 조준사격을 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應射만 하고 있다가 前進하려면 敵의 照準사격에 부상을 입기 일수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도 장전을 한후 사격자세를 取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는 果敢한 지휘조치가 요구된다.

둘째로 중요한 문제는 敵戰術의 연구부족에서 苦戰을 빚지 못한것 같다. 初戰에서 接敵치 못한 제1, 제2 兩소대는 제3소대와 접촉하기 위하여 無名의 河川近岸으로 進出中 對岸에 잠복한 敵으로부터 狙擊을 받고 포병사격을 要請하였는데 이때 포사격의 안전을 고려하여 兵力을 接敵線으로부터 물러서게 한다음 사격의 연신과 더불어 제2소대로서 포위 기동코자 前進케 하였는데 이때 敵은 我軍의 一舉一動을 관측한듯 側方에서 기습사격을 加하였다. 그들은 我軍을 不利한 地形으로 誘引하여 손실을 강요하려 하였다. 이경우 그들의 術策을 올바르게 判斷하여 제1소대를 推進시켜 제2소대를 掩護하였다면 이와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중대는 60mm 박격포 및 57mm무반동총을 휴대치 않음으로써 최초 接敵時에 신속한 火力지원을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포병사격을 요청하는 시간과 병력을 물러서게 하는등 不必要的인 時間을 그들에게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戰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와 같은 弊例는 戰關회과정에서 敵情 및 地形분석을 철저히 履行치 않는데 있으며 特히 指揮의 未熟에서 招來된 것이라 하였다. 더욱이나 越南戰과 같이 “정글”과 茂盛한 숲속에서 流動하는 VC의 능숙한 狙擊術에 대비하여 중대가 보유한 唯一의 직접 및 曲射화기는 近거리지원 및 즉각조치 그리고 敵의 潛伏이 예상되는 據點에 위협을 주는 데 있어 60mm박격포와 57mm무반동총은 “게릴라” 覆滅에 尤호적절한 武器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常夏의 나라 越南과 같이 高溫多濕한

기후조건하에서 장비의 손질은 하루에도 몇번을 반복하여야 한다. 特히 부분품이 精密한 무전기는 습기에 취약하며 “정글”속에서의 통달거리는 極히 制限을 받는다.

이번 전투에서 본마와 같이 無線통신의 杜絶은 指揮가 마비되고 또한 釜中之魚와 다를바 없는 敵을 놓쳐버린 쓰라린 경험은 사전에 기계고장

및 通信장애에 대비한 副次的인 대책을 강구치 않은데 결정적인 要因이 있었다고 思料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이번 전투에서 얻은 敎訓일 것이며 이는 自身の反省과 아울러 깊이 연구하며 숙달시키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고 適用함으로써 戰場에서의 손실을 최소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중대장 李學健 대위

(1977년 12월 13일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교수부 교수실에서 : 당시 대령)

65년 11월 11일 내가 지휘한 제1중대가 派越後 중대규모로서는 최초로 展開한 Luc Le戰鬪에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損失까지 본 쓰라린 경험은 부끄럽기만 하다. 더욱이나 독안에 들었던 敵을 놓쳐버린것을 생각하면 憤痛이 더지고 이보다도 억울했던 때는 없는것 같다. 당시 우리 중대는 作戰지역에 投入된지 1주일 밖에 안되는 날이었다. 대대장으로 부터 Luat Chanh에 70여 세의 有力한 VC간부가 潛入하여 兇計를 꾸미고 있으니 곧 出動하여 그 一黨을 剿討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우리중대는 夜暗을 利用하여 은밀한 機動으로 該지역을 포위하고 2 시간에 걸쳐 縝探하였으나 敵의 徵候를 발견치 못하였다. 이리하여 일단 전투를 마무리하고 復歸次 메하소대를 約定된 지역으로 集結케 하였는데 이때 제1소대가 無名의 河川兩岸으로 진출중 對岸에 있는 사탕수수밭에 潛伏한 수미상의 敵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고 제2분대장이 負傷을 입었다. 이에 당황한 소대원들은 무차별사격을 集中하면서 對抗하였으나 지형상不利한 위치에서 精確한 사격을 加하지 못

하였으려 오히려 그들의 狙擊이 비교적 精確하였고 我軍을 固着시켜 손실을 尙요하려는듯이 보였다. 狀況이 不利함을 판단한 나는 긴급히 포병火力을 요청하는 동시에 兵力을 뒤로 물러서게한 다음 사격이 延擱되자 제2소대를 渡河시켜 제3소대와 협조된 攻撃을 同時에 하였는데 무전통신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않아 독안에 들었던 敵을 놓쳐버린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다.

이 전투를 끝내고 평가된 보고에 따르면 최초 接敵時 과감하게 지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敵을 捕捉할 수 있었던 機會를 상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派越初에 있어서 불투명한 敵情과 익숙치 못한 지형에서 더욱이나 敵戰術에 대하여 깊이 아는바 없이 精確한 判斷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험과 敎訓이 살이되고 뼈가 되어서 그뒤 如何한 상황하에서도 그들의 術策에 즉각 對應할 수 있는 實力을 쌓았고 戰技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隣接한 僚軍으로부터 莫強한 韓國軍이란 칭찬과 더불어 “정글”과 늪지대를 다음대로 手기는 勇名을 誇示하였다.





전수행에不利할 뿐만 아니라 VC을 索出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Luc Le전투를 끝마친 다음 부대정비중에 隣近주민으로 부터 『Binh Lam에서 流動하는 VC 徒黨을 目擊하였다』 라는 첩보를 入手하고 즉시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에게 이기회에 Luc Le전투의 困厄을 雪辱하여 보겠다고 간청한바 대대장은 1개 소대만을 投入키로 하는 조건으로 同戰鬪를 승인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제 3소대를 探索隊로 選拔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口頭명령을 하달하였다.

- 『1. Cay My江 南岸 일대에서 流動하는 敵은 我軍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려고 狂奔하면서 虛實을 탐타 중대基地를 夜襲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 중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Cay My江 南岸 일대에 침투한 武裝分子를 索出격멸 하려한다
3. 제 3소대(57mm무반동총 및 60mm박격포 各 1개반 배속)는 11월 13일 日出前에 은밀히 機動하여 Xuan Phuong과 Tu Thuy를 連하는 Cay My江 南岸 일대를 포위한 後에 依命 탐색하라.
4. 포병火力지원은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5. 중대와 소대간의 무선통신망은 AN/PRC-6을 사용하며 任務 완료할 때까지 개방하라.
6. 중대 관측소(OP)는 Ky Son산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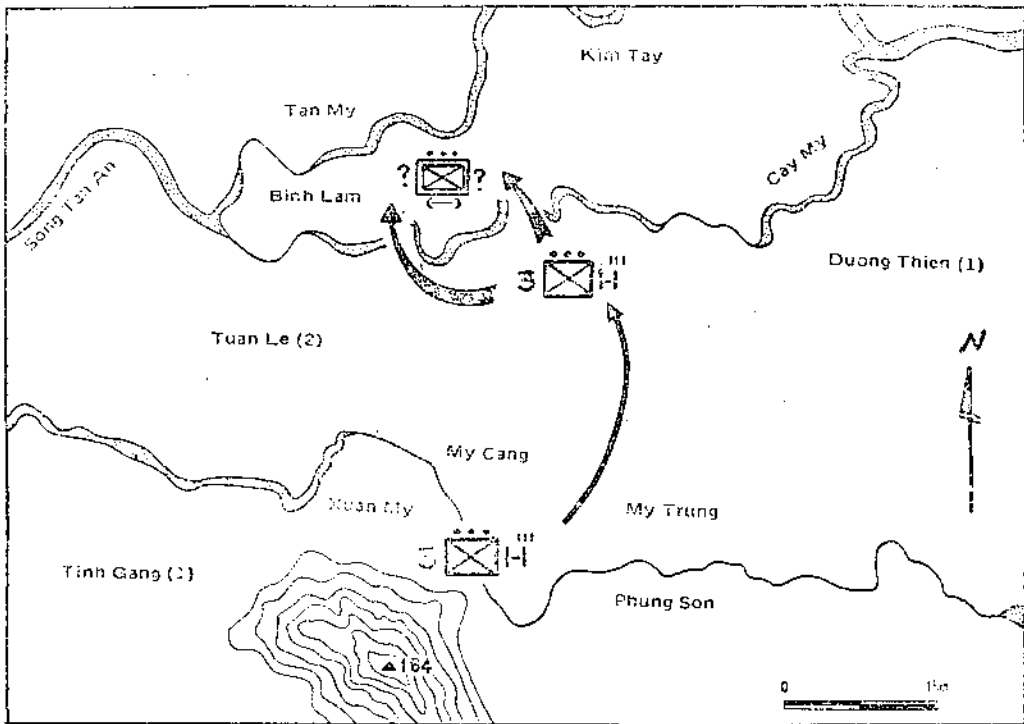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명령을 하달한 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제 3소대장 蔡熙宜 중위와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들을 帶同하고 Ky Son山으로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부터 戰鬪지역까지는 3km의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目標를 俯瞰할 수 있었으며 대략적인 機動路 및 마을의 구조를 확인하고 戰鬪에 임하였다.

### (2) 戰鬪 實施

11월 13일에 Ky Son山 南麓에 자리잡은 중대기지 연병장에 제 3소대원들은 緊張속에서 목록히 集結하여 04.10에 출동준비 완료를 보고 하였다.

이자리에서 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다음과 같이 激勵하였다. 『이제 出發이다. 우리는 제 1연대의 제 1중대 용사들임을 잊지말자. 전투의 勝敗는 해야 알겠지만 용기와 자신을 갖는 者는 벌서 이기고 있다함을 명심하고 행동하라. 危急할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고 自信있게 행동한다면 반드시 살길이 나타나는 것이다. 恒時 사격과 機動을 연결하고 사격으로써 敵을 制壓하라. 『Luc Le戰鬪』의 쓰라린 교훈을 되풀이 하지 말자.』라고 하였다.

狀況圖 제13호 Binh Lam 戰鬥(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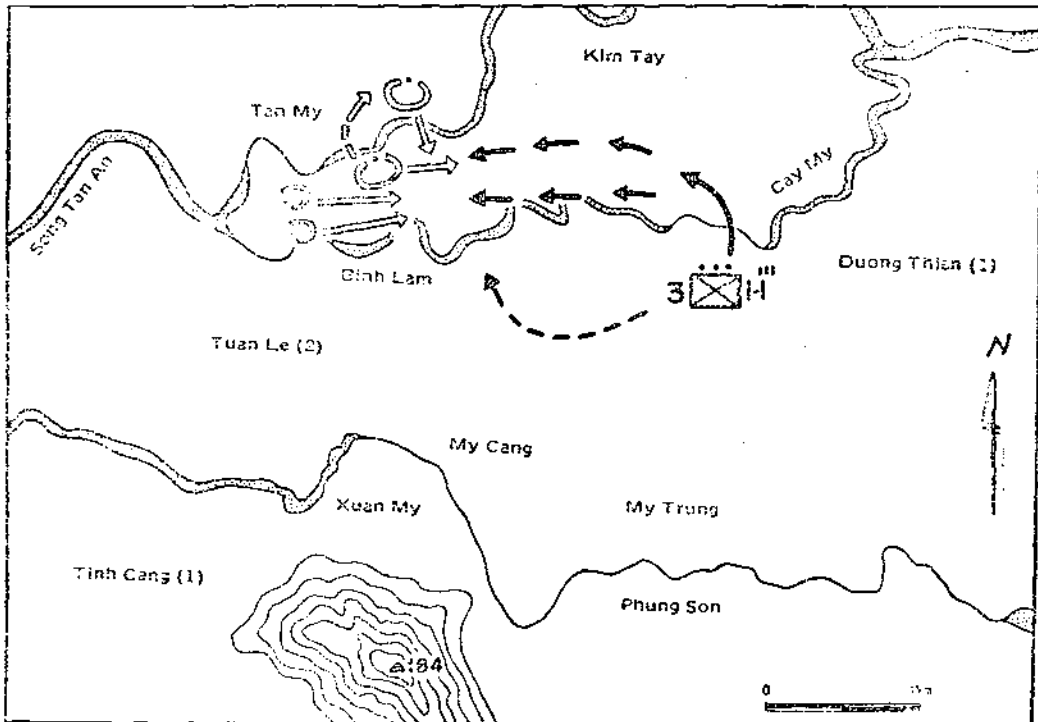
05. 00正刻 드디어 出發시간이 되자 소대장 蔡熙宜 중위가 거느리는 探索隊는 비교적 양호한 小路를 따라 2列중대를 유지하고 인근주민들이 눈치 채지 않도록 정속보행으로 攻擊대기지점인 Xuan Phuong (1)東쪽 外廓으로 進出하였다. 멀리서 가끔 울리는 擾亂사격소리를 들으며 예정시간 보다 10분 빠르게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제 1분대를 右側에, 제 2분대를 左側에 그리고 제 3분대를 中間에 두고 화기분대 및 배속된 57mm무반동총과 60mm 박격포 兩개반을 제 2분대에 後繼시켜 Xuan Phuong에 突入한다음 探索하였으나 敵의 徵候를 발견치 못하였다. 이때 Ky Son山에서 부대를 지휘하던 중대장은 無電을 통하여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중대의 계획은 Xuan Phuong에서부터 南下하여 Cay My江을 渡河한 다음 河川線 南岸을 따라 Tu Thuy로 進擊키로 되어있었다.

이에따라 소대는 계획된 徑路를 踏破하면서 Xuan Phuong 西쪽 外廓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다. 尖兵으로 부터 『前方 200m지점에 있는 小流邊 숲속에서 이상한 物體가 움직이더니 Binh Lam쪽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소대장은 狀況을 判斷한 결과 敵의 斥候兵으로 推測되자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즉시 追擊하였다. 이리하여 南下하던

兵力을 깨물려 2列중대를 유지하고 逐次的으로 개활지를 횡단하여 Binh Lam 西쪽 外圍으로 進迫하였다. 소대장 蔡熙宣 중위는 이틀전 「Luc Le전투」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면서 신중을 期하여 攻撃기로 하였다. 地形上으로 보아 Binh Lam은 Am Phu江과 Cay My江의 分岐點인 三角地에 있으므로 三面이 江에 둘러 쌓여 있어 敵은 방어에 유리한 반면 攻者는 마치 虎口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위험부담이 많았다.

소대장은 한동안 묵묵히 地圖를 바라보다가 『제1, 제2兩분대 Am Phu江 쪽으로! 제3 및 화기분대는 나를 따르라!』고 호령하면서 Cay My江에 沿한 숲속으로 進入하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Binh Lam을 南과 北쪽에서 포위하여 一齊히 突撃하였으나 敵影이 接하지 못한 바 變변이 蕩然을 하자 兵士들은 失望의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을 直感한 소대장은 즉시 兵力을 散開하여 四周방어를 取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Cay My 江과 Am Phu 江 分岐點 일대를 探索코자 제1분대를 前進케 하였다. 뒤이어 제2분대가 따르고 제3 및 화기분대는 이들을 掩護하면서 개활지를 횡단하려는 순간, 右一線에서 前進하던 제1분대가 前方 150m에 있는 獨立가옥에 潛伏한 수미상의 敵으로 부터 集中사격을 받았다.

狀況圖 제14호 Binh Lam 戰鬪(其二)



이리하여 彼我間에 치열한 交戰이 벌어졌으며 이때 陣頭에서 突擊을 외치던 分隊長 尹範英 하사가 兇彈에 맞아 頭部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後送中 애석하게 숨졌다)

이를 目擊한 分대원들은 격분하여 敵陣으로 突進하였는데 이때 소대장은 竝進하던 제 3 및 화기분대를 合勢시켜 그들의 진지에 肉迫하려는 순간에 側方과 Tan An 江 對岸에서 빗발 치듯 집중사격을 받음으로써 攻擊이 頓挫되었다.

狀況이 尋常치 않음을 판단한 소대장은 즉시 제 1, 제 2 兩分대를 前面에, 그리고 제 3 및 화기분대를 재빨리 側面에 산개하여 對峙한 徒黨들을 牽制케 하는 동시에 後續한 57mm 무반동총으로 하여금 前方의 獨立가옥을 目標로 強打케 하였는데 이때에 가옥앞에 있는 야자수에 포탄이 命中하면서 VC 1명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目擊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 1, 제 2 兩分대를 突擊케 하니 가옥에서 저항하던 무리들은 退却하고 側方の 銳氣도 鈍化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보고를 接한 中대장은 포병사격을 요청하여 그들의 退路를 制壓하였으나 시간은 이미 17.00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Binh Lam의 平野지대에 점차 夕陽 노을이 몰들기 시작하자 더이상의 進擊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이 전투를 마무리하고 復歸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포병의 掩護를 받으면서 19.00에 基地로 돌아갔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전투를 끝마친 뒤 밝혀진 바에 의하면 敵은 11일에 展開된 「Luc Le 전투」에서 打撃을 입고 該지역에서부터 退却한 一隊인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Cay My 江—Am Phu 江 流域에 산재된 마을에 潛入하여 我軍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부대를 정비중에 있었으며 다음 攻擊목표를 Go Boi에 있는 推進기지(제 3 중대 제 1, 제 2 兩소대가 駐留)를 기습할 兇計를 꾸미다가 先制로 決行된 이번 전투로 말미암아 그 企圖가 挫折되고 該지역에서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이리하여 中대는 계속 그들의 行跡을 注視하면서 소부대활동으로 牽制하다가 12월 7일 대대계획의 一環으로 전개될 「생별 3호 전투」에 참가하였다.

## 6. Kien Thanh(An Chanh) 戰鬪 (1965년 11월 14일 부터 1965년 11월 20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 15 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p style="text-align: center;"><b>我 軍</b></p> <p>(1) 統制部隊</p> <p>제 1 기갑연대</p> <p>제 2 대대 장 중령 <b>金 容 振</b></p>		<p>(2) 參加部隊</p> <p>제 6 중대 장 대위 <b>李 泰 一</b></p>
<p style="text-align: center;"><b>敵 軍</b></p> <p style="text-align: center;">地方 VC</p>		

### 나. 戰鬪 前의 概況

연대는 이달 15일에 2제1공중기갑사단으로 부터 전술책임지역(TAOR)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는즉 시 사단계회의 일환으로 제1斯작전을 마무리 짓고자 각부대의 기지보강에 注力하는 한편 다음달 부터 시작되는 제2期작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Binh Dinh 省 정보기관에서 제보된 정보에 따르면 『越盟 제325사단 예하의 1개연대(단태호 미상)가 Suoi Beo(河) 상류일대의 鯨 鱓지대로 이동하여 Binh Khe 郡에 위치한 韓國軍에 對한 공격을 획책하고 있는듯 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곧 야군이 현지에 도착한지 日淺한 까닭에 兵要地誌에 어두울 뿐만아니라 그들이 長拔로하는 유 격전에 대응하는 戰技가 아직은 미숙한 상태에 있으니 만큼 이를 틈타 야군의 전투력을 시험할 兼 Qui Nhon 港으로 부터 중부고원지대에 이르는 유일한 兵站線인 제19번도로를 위협하려는 兇計로 보였 다. 이에 연대장 申鉉錄 대령은 이밖에 나타난 여러가지 徵候를 종합분석끝에 제19번도로와 평행선을 이루면서 東流하는 Song Con(江) 건너편(北쪽)의 VC 지배지역에 1개중대규모를 동원하여 예상되는 敵 의 접근로를 制扼하고 아울러 여기를 다음 작전期부터 전개하게 될 중대 및 대대규모 전투의 거점의 하나로서 활용키로 다짐하고 제2대대장으로 하여금 Suoi Beo(河)가 Song Con(江)에 흘러드는 Kien Thanh 일대를 탈취하여 이를 확보케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該지대의 四周를 俯瞰하는 △83를 중대기지 설치 예정지로 선정하고 여기에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를 투입키로 작정하자 곧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同高地는 Song Con(江) 對岸(800m 北쪽)에 있으므로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대主力으로부터 즉각적인

救援을 받기 힘들 뿐더러 그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평야와 그 북東쪽에 있는 岾岳지대까지는 越南행 정당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적성지역인데다가 이 일대에 點在한 巷里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미 오래전에 피난하였으나 VC에게 동조하는 分子들과 그들의 가족이 은신하고 있는 까닭에 越南관계기관의 事前승인 없이는 함부로 작전행동을 펼 수 없는 구역이었다.

이러한 事由로 我軍의 활동범위가 제한될 것이 예상되는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여기에 중대기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該高地가 북쪽으로부터 침습하는 武裝兵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전술상의 要地이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로서는 아군이 越南에 상륙한 뒤의 3~4주간에는 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警戒하는데에 專力하였으나 이제는 이와같은 符勞의 벼리를 벗어나 중대 규모의 적극적인 정찰과 탐색으로 移行하여 澈底지대내에서 潛動하는 敵軍의 조직적인 도발을 격퇴할 만큼 현지사정에 숙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VC의 전법을 어느정도 터득한 터이므로 비록 고립된 외딴 지역일지라도 1개 중대 규모로서 기지를 마련한다면 그들이 대대 규모로 공격하더라도 能히 救援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지탱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 인접 제1연대의 제1대대는 제6중대를 “헬리콥터” 편으로 Qui Nhon 半島에 공중투입하여 「前進 전투」를 감행하고 있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준비명령을 받은 다음날(12일) Kien Khanh 일대를 항공정찰한 연후에 중대기지 설치에 따른 자신의 腹案을 세웠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83는 Song Con(江) 북쪽에 있으므로 배수의 진을 치는 격이 되는 까닭에 敵의 대대 규모가 이를 포위하더라도 최소한 72시간은 견딜 수 있도록 유리한 지형을 활용하여 전고한 진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2. 同高地에서 東쪽(800m)으로 이어진 무명고지(標高 65m: 以下 “가”高地라 稱한다)는 敵이 침투하는데 유리한 접근로가 될 것이므로 射界가 좋은 곳을 擇하여 잠복지역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중대가 목표를 점령하기 전에 지상정찰을 실시하여 高地 및 부근일대의 지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Song Con(江)의 수심과 도섭이 가능한 지점을 찾아낸다.
4. 정찰은 최초 소대 규모로서 所在의 武裝分子들의 반응을 살핀 연후에 다음날부터 2일간에 걸쳐 중대 全兵力을 투입한다. 정찰간에 각소대의 배치지역과 기타부서의 위치를 미리 결정한다.
5. 기지구축작업과 탐색을 병행한다.」

이와같은 방안이 확정되자 중대장은 정찰 첫날에 자신이 직접 1개소대를 지휘키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Song Con(江)의 수심을 미리 확인할 兼 지대내의 敵情을 알아보기 위하여 該江 南쪽(1km)에 있는 Thu Thien Thuong(전락촌)에 들러 여기를 防守중인 越南민병대와 협조키로 하였다.

## (2) 戰鬪 實施

偵察(11월 13일~15일 : D일~D+2) :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13일 早曉에 4개소대장 및 관측장교와 제2소대(장, 李暉潤 소위)를 거느리고 기지를 출발하였다. 얼마뒤에 Thu Thien Thuong 주민이 朝飯을 들고 있을 무렵에 제501번도로(Song Con江 南쪽 沿邊) 부근에 이르자 곧 전투대형으로 산개한 다음 제2 소대장으로 하여금 Song Con(江)의 도섭지점을 偵察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장이 직접 마을로 들어가 越南민병대원에게 江 건너편의 적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다만 江 北쪽에서 VC이 자주 遊動한다는 정도로서 敵의 團隊號나 규모 및 장애물 부설지대 등에 對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는바가 없었다.

한편, Song Con(江)을 정찰하던 제2 소대장은 수심이 1.5m 정도이며 流速이 빠르나 能히 도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83가 눈앞에 보이는 지점에서 李暉潤 소위로 하여금 水泳에 能한 兵士 몇명을 뽑아 尖兵으로서 먼저 江을 건너 대안에서 엄호태세를 갖추게 한 後에 나머지 兵力을 3개組로 나누어 1개組를 제501번 도로변에 산개케 한다음 도섭하였는데 敵前에서 목까지 차는 물속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또 徒涉間에 몇차례에 걸쳐 銃擊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앞은지점을 찾아내는 등 다음날부터 계속될 정찰에 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잠시뒤에 △83 南麓에 이른 尖兵으로부터 “부비트랩”이 부설된 장애물지대를 적발하였다는 보고를 接한 중대장은 이를 제거하는 한편 主力으로서 高地를 向하여 進出케 하였다. 이윽고 頂上을 손아귀에 넣은 다음 능선과 小路정찰에 專力하나, 부근일대에 蟄伏한 分子들이 저격할 법 한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중대장은 생각하기를 『소색의 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군의 당돌하리 만큼 대담한 행동을 의아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은밀하게 동정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일도 정찰이 계속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挑戰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다음날의 탐색예정지대를 지정한 後에 日沒이 이르러 Song Con(江)을 건너 기지로 되돌아갔다.

날이 바뀌어 14일에는 중대 全兵力을 동원하여 黎明에 江을 도섭하자 곧 계획대로 △83와 그 東쪽의 “가”高地를 누웠는데 VC 2개분대규모로 추측되는 一隊이 중대 후미를 은밀히 뒤따르면서 아군의 행동을 살피는 兆朕이 들어났으나 끝내 그들의 정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景況을 응시하던 중대장은 VC들이 공격할 시기를 추단하기를 『우리의 虛點이 들어가기 쉬운 기지로 복귀할 무렵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이에 대비한바, 아나나

다르랴 西山에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기관총을 亂射하는데 그 火力의 강도로 보아 1개분대(+) 규모로 추산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이 VC들로 부터 先制로 공격을 받은 것은 중대가 현지에 도착한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여 이때를 기다리던 터이므로 一彈이 날아들자마자 곧 응사하니 그로부터 5분뒤에는 총격이 멎고 對峙한 敵은 숲속에 숨은채로 아군의 동정을 엿보는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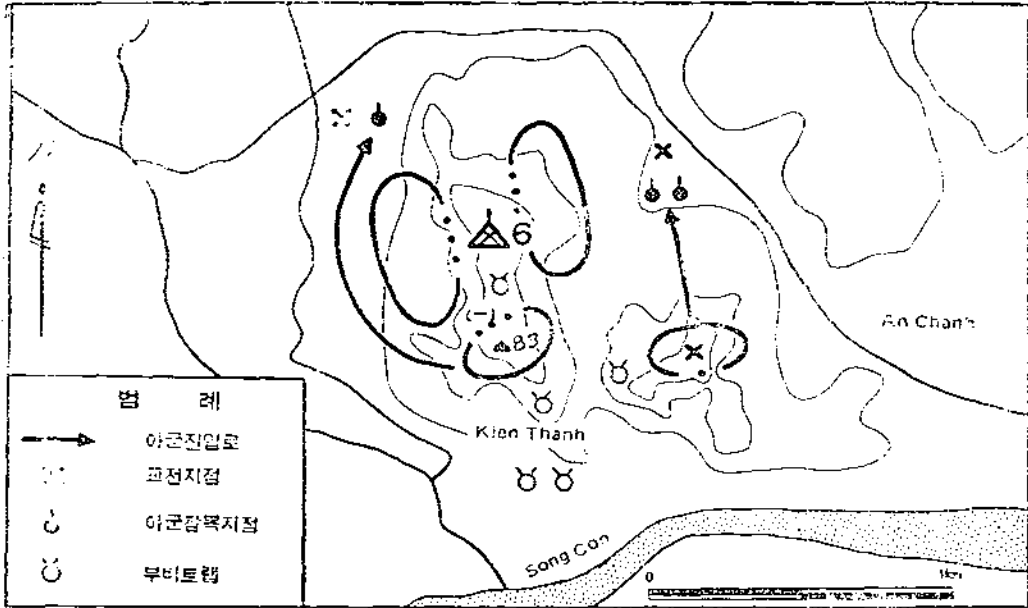
한편 대대장은 이러한 情況을 接하는 즉시 중대장에게 이날밤은 현위치에서 잠복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李泰一 대위는 8부능선과 예상되는 그들의 流動路를 制壓하였다. 이날밤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음산한 적막이 감도는데 숲속의 要所마다 兵士들의 총철된 눈망울이 뻔뻔할 뿐이었다. 날이 밝자(15일) 중대장은 鄭文基 중위(화기소대장)로 하여금 와지선과 부근의 마을들을 탐색케 하고 나머지 소대로써 3회에 걸쳐 △83와 “가”高地를 살살이 뚫이면서 각소대의 부서대로 책임구역을 배당하고 地境線을 구획한 연후에 落照에 이르러 기지로 되돌아갔으며 다음날 이동준비 사항을 점검하였다.

**基地構築**(11월 16일~20일 : D+3~D+7) : 16일 중대는 드디어 △83로 移動하게 된바, 중대主力(배속된 중화기중대의 경기관총, 81mm 박격포 兩소대 포함)과 기지구축에 소요되는 築城자재 및 장비를 “헬리콥터”편으로 空輸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착륙지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所在의 敵을 제압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1개소대를 지휘하여 未明前의 어둠을 헤치면서 Song Con(江)을 건너는 즉시 同高地 南麓에 착륙지역을 마련하고 정상을 向하여 進出하는데 난데없이 側背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나 그들의 所在은 아직도 杳然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지체없이 1개분대로써 착륙지역을 경계케 하고 나머지 兵力을 휘몰아 데치한 分子들이 潛伏한 듯한 숲으로 楔衝하자 그들은 저항을 포기함인지 곧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중대장은 그들의 행동이 미심쩍게 여겨지자 일단 추격을 보류하고 착륙지역과 頂上에 이르는 稜線일대를 정밀하게 탐색한 결과 지난 밤사이에 VC들이 배설한 여러가지 종류의 장애물과 “부비트랩”을 찾아내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군이 이용하기 쉬운 通路와 각소대의 배치예정구역 및 집결예상지역에 부설된바 장애물들의 量과 설치된 규모로 미루어 보아 소대규모의 兵力이 동원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景況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중대主力은 계획한 시간에 공증기동으로 지정된 책임지대로 진입한 다음 진지구축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각소대별로 1개분대규모로서 부근일대의 탐색과 경계를 병행케 하였다. 이동중에 李泰一 대위는 진지작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에게 이르되 『VC를 이기고 그들을 擊碎하려면 지금 맘을 풀려야 한다. 우리는 故園을



狀況圖 제15호 Kien Thanh 戰鬪



떠날때 무엇을 뱉세했는가? 越南에서 太極旗를 휘날리며 용맹을 떨치고 살아서 돌아오겠다 라고 온 국민들에게 다짐하지 않았나! 여기는 바로 敵地이니 우리를 노리는 VC들이 부근에 숨어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잔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더욱 경계를 스펀리 할 수 없으며 시간을 쪼개어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걱정하면서 장병들의 驚覺心을 일깨워 주고 야간전투에 대비하여 잠복조 배치구역을 선정하였다.

이날밤에는 짙은 구름이 뒤덮인 탓으로 暗幕이 어느때 보다도 빨리 드리워져 陰濕한 소슬바람이 정적을 더 하는데 夜二更부터 日明에 이르도록 敵은 총격과 凶暴한 행동으로 아군의 반응을 살피면서 유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작개병사들은 야간진지에 배치되기전에 중대장이 力說한 『우리는 아직도 현지지형에 숙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敵의 술수도 모르며 진지 또한 구축중이니 만큼 그들의 유인행동에 발려들지 말아야 한다. 만약 VC의 침습하던 10m까지 접근하기 전에는 전대로 사격하지 말고 箝摸하다가 一彈으로 一敵을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강조한 사항을 준수한 까닭에 微動도 하지않고 잠잠하였으니 제아무리 詐術에 能하고 현지에 숙달한 VC인들 敢히 접근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가”高地 交鋒 : △83에서 이틀째(17일)를 맞이한 중대는 전날에 이어 진지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날부터는 守勢的인 경계에서 적극적인 탐색으로 移行하여 부근 일대

의 의심나는 지역에 力點을 두고 누비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金泰熙 소위가 거느리는 제3소대의 1개분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 쏘이는 正午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가”高地 숲속을 뒤흔고 있었다. 얼마 뒤에 山頂성에 올라 섰을때 벼랑간 頂上으로부터 총탄이 날아들었는데 이는 金소위가 現地에서 다섯번째로 부딪치는 VC의 저격이었다. 재빨리 산개한 대원들이 즉각 응사하면서 대치한 分子들을 向하여 약진하자 그들은 例의 「先打一分散」의 교리대로 흩어져 退走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와같은 상투적인 수법은 싸움터에서 남달리 銳利한 金소위를 眩惑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짧게 호령하자마자 右前方(南쪽)의 稜線을 거쳐 단숨에 山頂에 올라서는 즉시 敗走하는 VC들에게 급사를 퍼부었는데 이때에 1명이 총탄에 맞은듯 쓰러지더니 곧 대나무숲으로 기어드는 것이었다. 때마침 뒤따르던 소대 전령 2명이 소대장과 합세하였다. 金소위는 전령 秋富根일병의 M1소총과 바꿔쥐고 白兵을 휘둘러 進擊하다가 숲 건너편의 An Chanh으로 敗走하던 敵으로부터 총격을 받은바, 그들의 반악하는 양상이 심상치 않을 뿐더러 그 규모 또한 증강된 1개분대규모로 추측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추격조와 지원조로 편조하여 분대장으로 하여금 현위치에서 掩護케 한 다음 추격조를 이끌고 突衝하자 전디지 못한 VC들은 다시 숲속으로 退走하고 말았다. 이윽고 대나무숲을



제3소대원이 退走하는 敵을 追擊하고 있다.

뒤진 연후에 공동묘지에 다달았을때에 여기에 잠복한 1명이 갑자기 金소위를 겨누고 쏘 一彈이 컷전을 스쳐갔다. 그는 곧 그 者를 사살하려 하였으나 『이 者를 사로잡아 적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숨돌릴 사이도 없이 던쳐 그 者가 二彈을 쓸틈도 주지않고 俘獲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者는 앞서 金소위가 퍼부은 총탄에 맞아 顔面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있었다. 여기에서 SKS소총 1정과 미처 던지지 못한 수류탄 2발을 노획한바 이것이 연대가 越南에 상륙한 이래 처음 올린 戰果 제1호였다. 이러한 접전에서 제3소대장이 VC를 사로잡음으로써 이때까지 狙擊과 退散의 유격방식을 깨뜨리는 방법을 체험하지 못한 까닭에 매번 敵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VC의 그림자만 쫓던 격이 되고 말았던 중대원이 비로소 VC의 正體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니 金泰熙 소위의 행동은 實로 全중대원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敵을 무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心機를 북돋아 주었다.

**An Chanh 潜伏** : “가”高地의 일전에서 제3소대장 金泰熙 소위가 敵을 擊碎한것을 계기로 의기가 앙양된 중대원이 一心하여 각자 맡은 부서의 일에 더욱 열중한 덕덕으로 진지구축 작업은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와같은 부하들의 모습을 눈여겨 살피던 중대장은 奮心의 미소로써 필승의 신념을 굳히게 되었다. 제3소대의 접전이 끝나자 중대장은 該高地와 그 주위의 地形을 다시한번 踏査하고 이밖에 드러난 여러가지 情況을 종합분석끝에 당면한 敵이 이날밤에 여기를 거쳐 침습할 公算이 크다고 내다보고 이 기회에 그들의 弱點을 꺾어 아군의 要害를 보여 주리라고 다짐하였다.

이리하여 이날밤에 △83에 이르는 예상되는 접근로의 요소마다 야간매복조를 배치한바 “가”高地를 담당한 제1소대장 金相雲 소위는 소대 선임하사관 張三先 중사를 잠복대장으로 하여 1개분대로서 北쪽 와지선(500m) 일대에서 잠복케 하였다. 이에 따라 張중사는 제2분대를 거느리고 정상에서 待機하다가 어둠이 깃들 즈음 溪澗을 따라 北쪽으로 내려갔다. 한참 뒤에 마을(An Chanh) 어귀 小流연변의 三岔路를 제압할 수 있는 관목덤불가에 이르는 細路와 20m 간격을 두고 平行線을 이루도록 30m 區間에 작개병사를 배치하고 자동소총을 左端(北쪽)에 거치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준비를 끝마치고 대북한지 30분 뒤, 어딘지 모르게 긴장된 분위기가 高漲되는 가운데 北쪽으로부터 검은 물체가 한발 한발 다가서는 것이 자동소총사수 金相烈 상령의 眼膜에 비쳤다. 그는 곧 신호줄을 당긴바 대원들은 모두가 야간잠복중에 처음으로 敵을 對하는 터인지라 물을 끼얹은듯 고요한데 금시 터질듯한 중압

것이 팽창되어 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지고 초조하기만 한데 어느새 **김상병** 정면의 관목덤불 위로 VC의 머리하나가 불쑥 나타나더니 그 뒤를 이어 5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살상지대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소총조 앞에서 南쪽으로 △83를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것이었다. 약간 당황한 **김상병**은 곧 정신을 차려 **張중사**의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10m 앞에 이르자마자 부사수와 더불어 수류탄을 던지고 급사를 퍼부었으며 이에 隣接한 대원들이 집중사격으로 제압하였다. 사격이 시작되자 **張三先** 중사가 약정된 신호를 올리니 곧 잠복지역 上空에서 조명탄이 炸裂하였는데 이때에 急衝을 모면한 分子들이 潰走하는 것이 보였다. **張중사**는 때를 놓칠세라 이를 추격하다가 그들이 細川 넘어로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유기시체 2具를 찾아내고 CAR 및 M1 소총 각 1정과 실탄 65발 그리고 수류탄 1발과 문서 약간을 노획하였다. 얼마뒤 照明이 멎는 즉시 **張중사**는 미리 준비한 예비잠복 지역으로 은밀히 옮긴 다음 한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화사한 햇빛이 떠오르자 잠복지를 박차고 뛰어나간 대원들은 交鋒현장과 근방일대를 반복 탐색한 연후에 계획된 徑路를 따라 △83로 되돌아갔다. 한편 岡高地에서는 전날 주간전투에 이어 야간잠복에서도 敵을 격파하자 잠복조를 맞이하는 중대원들 모두가 흥분을 표시 못하였으며 炸燬의 陽光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여기로 이동한지 3일째 되는 이날(18일)에는 벌써 중대기지 구축작업이 일단락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다음날부터 진지보강과 장애물의 증설 그리고 射界청소 구역의 확대등의 부수적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83 南東쪽의 Kien Thanh과 “가”高地 西편의 An Chanh 兩마을을 3일간에 걸쳐 살같이 뛰지면서 VC이 발붙일 여지를 남김없이 뿌리뽑은 다음 Suoi Muong Van Phong(河)(△83 北쪽 800m) 연변으로 楔鋒을 들렸다.

**Suoi Muong Van Phong(河) 潜伏** : 20일 중대는 Song Beo(江)의 한갈래가 Suoi Muong Van Phong(河)과 합류되는 강둑 일대를 탐색하다가 부근에서 VC이 자주 遊動한듯한 흔적을 적발하였다. 그런데 여기는 Nui That(山)(△83 北西쪽 6km)에 根據地를 둔 武裝分子들이 Truong Dinh(△83 北쪽 1.4km)에 蠶據中인 지방 VC의 先導로 江줄기를 따라 南下하여 Song Con(江)을 거쳐 제19번도로에 이르는 접근로의 길목으로서 이를 要扼한다면 能히 以 寡擊衆할 수 있는 요지였다. 중대장은 이러한 지형의 利點을 확인한 다음 이날밤 여기에 잠복조를 배치하여 그들의 동정을 살피기로 다짐하고 제1소대장 全相雲 소위에게 이 趣旨로 지시하였다.

이에따라 소대장은 계획된 잠복지역 일대의 地形을 參照하여 1개분대를 배치하고 △83北

麓에 청음초 兼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지원대로서 1개분대를 推進기로 하는 자신의 복안을 중대장에게 건의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리하여 落照 1시간뒤(19. 20)에 제3분대를 지정된 지점으로 進入시키고 청음초를 설치하였다.

이때 잠복조인 제3분대는 중대기지(△83)를 日沒 1시간뒤에 출발한 까닭에 行進하기 쉬운 江邊(Song Beo江 下流) 모래사장을 따라 一列중대 대형으로 이동한 결과 그로부터 1시간 뒤에 指示된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暗黑으로 말미암아 물체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곧이어 잠복태세를 갖추려고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게 수미상의 一隊이 南下하는 것과 충돌하였는데 이때에 그들과의 거리는 7m에 불과하였으니 주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동소총조는 右側方(東쪽)으로 산개중에 있었다.

猝地에 敵과 맞부딪친 분대장은 그들보다 먼저 수류탄을 던졌으나 당황한 나머지 영겁경에 『얼드려』라고 호령하였으니 實로 이 행동이 대치한 敵을 격멸할 호기를 逸失케 한 실수였다. 그들 또한 我軍의 所在를 확인하지 못한듯이 그때까지 아무수도 못쓰고 있던터에 이 한마디를 듣고 소리나는 방향에 어지러히 수류탄을 던지더니 지체없이 분산하고 말았다. 이러한 불과 1분 남짓한 交鋒에서 분대장이 顔面에 파편상을 입고 뒤로 물러서고 부분대장이 분대를 수습하면서 그들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한편 소대장 쏜소위는 잠복지역에서 閃光이 비치더니 폭음이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약정된 신호를 보내지 않으므로 情況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잠복조의 위치가 노출될 것을 勘考끝에 계획된 조명을 보류시킨 연후에 1개분대를 이끌고 급거 陣장으로 달려나가 잠복조와 합세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잠복조의 所在가 敵에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부근에는 야간전투에 합당한 地形이 없기 때문에 곧 중대기지로 복귀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중대는 △83에 중대기지를 구축한 다음 기지주변에 散在한 마을 하나 하나를 탐색하여 소재의 敵을 驅逐하면서 指定지역을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Vinh Loc(△83 西쪽 1.8km)—Thuan Hoa (1)(同 北쪽 3km)—My An(同 北東쪽 4km)—Nhon Thuan(1) (同 東쪽 5km)의 40km<sup>2</sup>의 책임구역울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며 Song Beo(江)를 따라 침투하는 VC들을 제압한 까닭에 제19번도로의 安全한 통행이 보장되었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에 對한 선무활동을 併用하여 그들로 하여금 我軍을 신뢰하고 越南행정당국에 협력하도록 啓導하는 동시에 安居樂食할 수 있겠끔 전력한 결과 越南 관계기관으로부터 敵性이라고 경원되던 주민들이 오히려 아군과의 친선을 맺고 교환하는 것을 자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그들속

으로 새군과도 같이 파고드는 VC들을 색출하고 遊擊의 발판을 剷除하다가 제1중대에 同基地를 인계한 다음 Hoa Loc(西쪽 8km : Song Phu Dong 河口)로 이동하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사 살	포 로	노		획	전 상
		개인화기	수류탄	실 탄	
2	1	3	3	56	1

§ 戰 訓

輕敵하지 말라

중대는 Song Con(江) 北쪽의 敵地에 뛰어들어 △83에 중대기지 신설과 탐색을 병행하다가 “가” 高地에서 潛動하는 VC를 격파한데 이어 야간 잠복으로 침습을 시도하는 分子들을 강타함으로써 敵의 驕氣를 꺾고 이를 계기로 전투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로써 중대원의 戰意가 高揚되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VC의 전투능력을 輕視하게 된듯하였다. 이리하여 20일에는 Suoi Muong Van Phong(河) 연변에 야간잠복조를 배치한바, 여기서 예상되는 敵의 주요접근로를 제압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야간전투에서 한번도 交戰한 경험이 없는

분대장의 지휘하에 1개분대를 투입하였다. 더군다나 잠복조의 출발시간이 1시간이나 지연된 탓으로 계획된 線에 미처 산개하기도 전에 VC과 맞부딪치게 되고 또 분대장의 과실로 대치한 敵을 擊退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비록 강적이라도 두려워 하지않는 豪膽心을 갖는것은 바람직하나 그것때문에 輕敵하기 쉬운 싸움터의 심리현상을 참작하여 소규모의 잠복조를 배치할 경우에도 彼我의 技術을 비교하여 能히 敵을 擊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參戰者의 證言

제 1기갑연대 제 6중대장 李 泰 一 대위

(1977년 11월 21일 서울 城東區 金湖洞에서 : 당시 東洋保險會社員, 중령으로 퇴역)

우리는 1965년 11월 1일에 Qui Nhon에 上陸하여 기지를 마련하는 한편 현지사정과 VC의 戰法

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무진 애를 썼다. 이리하여 그로부터 2주일 뒤인 14일에는 Song

Con(江) 北쪽의 VC 지배지역의 要地중의 하나인 △83에 중대기지를 신설키 위하여 첫발을 들여놓게 된바 내가 지휘하는 제6중대가 이를 책임지게 되었다. 나는 △83를 偵察하는 첫날에 기여코 여기에서 敵을 무찌르고 밟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지형과 적정을 주의깊게 살핀 결과 背水の陣을 치게 되므로 VC의 도발이 빈번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는데 이 추측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그러나 우리 兵士들이 여기로 이동하기 전에는 VC들로부터 先制로 공격을 받은적이 있었고 실

전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그들의 「狽擊分散式」의 유격방식을 깨뜨리지 못하던차 마침내 제3소대장 金泰熙 소위가 VC를 俘獲하였으며 뒤를 이어 제1소대의 張三先 중사가 이끄는 야간잠복조가 潛動하는 敵을 擊破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전과는 비록 보잘것 없었지만 우리에게 VC를 격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연대가 적극적인 공격행동으로 轉移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제 1기갑연대 제 6 중대 제 3 소대장 金泰熙 소위

(1977년 11월 18일 제28사단 수색대대장실에서 : 당시 중령)

우리가 越南에 도착한 뒤의 1주일 동안에는 모든 것이 생소한데다가 언어마저 통하지 않으므로 매우 고전하였다. 그러나 사단 작전처의 戰史장교들이 交戰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답사하여 敗仗의 요인을 가려내고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신속하게 작개장병에 이르기까지 전파하였으므로 戰團부대는 실패한 前敵을 踏襲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案出하는데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 결과 실전경험이 없는 장병의 전기가 나날이 연마되어 현지어전에 빨리 숙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越南에서 韓國軍이 初戰부터 百戰不屈의 精軍強兵으로서 僚軍은 물론 敵으로 하여금 인정케하는 主因이었다고 본다.

우리 중대가 11월 14일에 越南軍이 생각조차 못하던 △83에 중대기지를 설치코자 뛰어 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피와 땀의 結晶이었다. 당당시 Song Con(江)을 건넌 첫날부터 소재의 武裝分子들이 저격과 유등의 술수로써 우리를 위협하다가 17일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발하는 것이었다. 이날(17일) 正午에 “가”高地에서 敵의 총격을 받았을 때 나는 이 기회에 그들을 擊碎함으로써 중대원에게 VC의 正體를 보여주고

“게릴라”를 무찌르는 본래를 보여 줘야겠다고 다짐하는 즉시 달려들어 1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풍교를지도 이것이 연대전과 제1호를 기록하게 되어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 송구스럽거만 하였다. 그러나 이 일전이 우리중대 뿐만아니라 연대 전장병에게 전투의 자신감을 갖게 한대 對하여 矜持를 갖는다.

나는 越南戰에서 사격통째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切感한 까닭에 이를 부하장병에게 강조하며 싸움터에서 이길 수 있는 精兵 육성의 指標로 삼고 있다. 즉 전장에서 敵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하지 말것이며 반드시 조준하여 一彈에 一敵을 쓰러뜨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발사격은 禁라고 있는바 이는 실탄만 낭비할 뿐더러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 쉽고 드 전투간에 어려운 재 보급문제가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美軍과 같은 불탕위주의 전술개념이 타탕을 두고 전투하는 방식에는 등회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전투경험에 비추어 부하의 사격군기를 확립하고 敵과 맞부딪혔을 때 사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지휘판단이 能히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한다.

## 7. Qui Nhon 半島 探索戰 (1965년 11월 16일 부터 1965년 11월 17일 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16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敵 軍	
(1) 統制部隊 제 1 연대 장 대령 金 珽 雲	제 2 포대 장 대위 金 相 賢 포병제 628 대대 제 2 포대 장 대위 韓 明 熙	(3) 協力部隊 美제 3 海兵여단 “헬리콥터” 중대	地方 VC
(2) 參加部隊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제 6 중대 장 대위 丁 萬 吉 포병제 60 대대			

### 나. 戰鬪 前의 概況

이 전투는 派越後 처음으로 增強된 중대규모의 空中기동 및 陸海空의 연합작전을 展開한것이 그 特徵이다. 전투지역은 Qui Nhon 半島인데 同地域에 據點을 두고 定着하고있는 VC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1개중대로 추산되는 武裝兵群이 不期로 出沒하면서 半島內의 요소에 交通호 및 火器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入手된 諜報는 없었고 오직 항공사진에 나타난 地形분석 및 公중정찰로 敵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전투에 임하였다. Qui Nhon 半島는 길이 20km, 幅이 6km이며 海岸線과 北쪽 일대를 제외한 部分은 거의 전부가 山岳으로 形成되어 있다. 平均 標高 200~300m의 登高선이 半島의 南端 까지 뻗어 있으며 北쪽은 Phu Cat山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能步로서 接近하기 쉬운 뿐만아니라 海上으로부터 侵透할 수 있는 地形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Qui Nhon灣 於口에 있는 Qui Nhon 市는 南北으로 海岸을 따라 발달한 國道제 1 번道路와 中부 국경교원지대에 있는 軍事도시로서 重要기지인 PleiKu에 이르는 제 19번道路와 交叉되는 交通의 중심지이며 罪需물자 보급지로서 軍事상으로 보아 그 重要성의 비중이 높은 港口도시인데 여기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Qui Nhon 半島이기 때문에 敵이 이곳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本戰鬪의 目的이었다. 半島內의 山岳지대에는 우거진 가지덩굴과 樹木이 크지는 않지만 徒步부대의 機動에 많은 제한을 줄것으로 예상되었으며 海岸은 岩石과 돌출이 많으므로 潛伏에 유리하였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연대장 金斑雲 대령은 아직 숙달치 못한 敵情과 지형 및 기후 그리고 VC의 戰術과 기타 여러가지 애로를 지닌 채 무엇보다도 時急한 것은 Qui Nhon市를 위협하는 同半島를 장악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作戰을 구상한 끝에 과당성있고 野心에 찬 空中기동작전을 결심하고 이를 사단장 蔡命新 소장에게 建議한바 그 承認을 받음으로써 이 전투를 敢行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우선 “헬리콥터”를 비롯한 航空폭격 支援을 사단에 요청하는 한편 참모들로 하여금 機動 및 火力계획을 수립케 하고 自身은 美海軍의 海岸순찰대를 방문하여 我軍 작전에 협조하여 주기를 요망하였다. 또한 半島의 南端에서 탐색중인 越南지방군(RF)을 방문하여 敵의 예상退路를 遮斷하여 줄것을 아울러 협의하는 등 上級 및 인접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作戰지역에 대한 空中정찰과 航空사진분석에 의한 敵시설을 연구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1. 1개 중대의 兵力으로 추산되는 단대호 미상의 VC은 Qui Nhon半島에 不時로 出沒하면서 Qui Nhon市 및 연합군의 港灣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 越南지방군(RF) 2개 중대가 半島 南端 끝에서 探索을 하고있다.
3. 越南 및 美진술공군은 요청에 따라 支援할 것이다.
4. 포병제60대대 및 同제628대대에서 각 1개 포대가 전투부대를 직접지원한다.
5. 연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1월 16일 06.30을 期하여 증강된 1개 중대를 空中기동으로 投入하여 所在의 敵을 捕捉격멸하려 한다.
6. 제 2 대대
  - 가. 16일 06.30 1개 중대(+)를 空中기동으로 Qui Nhon半島 중부 일대에 전개하여 探索 및 埋伏을 수행하라.
  - 나. 攻擊중대는 탐색을 끝마치는데로 復歸하되 1개 소대 규모를 殘留해북측에서 現地に 殘留하고 殘留해북대의 복귀는 D+1일 別순에 의거 실시한다.
7. 협조지시

- 가. 소대단위 까지 AN/PRC-10 무전망을 사용하라.
- 나. 사격시 居住 민간인의 손실이 없도록 유의하라.
- 다. 전투간 探索 및 遮斷부대간의 통신유지물 긴밀히 하라.
- 라. 지원포병부대와 “헬리콥터” 기동부대와의 통신망을 설정하라.
- 마. 전투는 통제된 地域에서만 실시한다.
- 바. 殘留소대는 埋伏지역을 탐색한 연후에 급편진지를 준비하라.

8. 연내전술지휘소는 제 1 대대기지에 개설한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 6 중대를 機動부대로 選定하고 該중대에 기관총 및 81mm박격포 각 1개반을 배속하는 한편 분대장급 이상 지휘자들에게 실제로 작전지역을 空中정찰시켜 機動路를 숙지케 하였다. 特히 처음으로 전개하는 공중기동전투이므로 機動間의 혼란을 防止하기 위하여 “헬리콥터”의 搭乘편성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즉 보병부대편성의 최소단위인 分隊는 9명인데 比하여 UH-1H“헬리콥터”에는 조종사, 부조종사, 사수 2명을 除外한 完全무장한 兵員 6명이 탑승할수 있기 때문에 建制를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着陸직후의 脆弱性에 대비하여

첫째 : 가능한限 建制를 유지하면서 탑승하되 제1, 제 2번機에 탑승한 소중분대의 殘餘인원 6명을 제 3번機에 탑승시키며 잠정적인 분대장을 임명한다.

둘째 : 着陸時 이 3대의 “헬리콥터”는 同一장소에 降着하며 안정시기에 이르렀다고 判斷될때 제 3번機에 탑승한 잠정분대는 즉시 原건제분대장의 지휘하에 들어간다.

셋째 : 각소중수로 하여금 各者가 제 0번 “헬리콥터”의 0번좌석이라는것 까지 알수 있도록 반복한다.

네째 : 共用화기와 兵員 및 기본탄약은 必히 동일한 “헬리콥터”에 搭載한다.

이와같은 方法을 채택하고 탑승요령을 숙달케 한다음 15일 최종적으로 전투부대와 支援 및 배속부대장을 集合시켜 人員 및 梯隊편성과 휴대장비의 重量조정, 그리고 着陸後의 進出방향과 火力협조의 시간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의문 나는 문제 및 요구사항을 확인한 다음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여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各個병시에 이르기까지 임무를 숙지케 하고 自信을 갖게 하였다.

(2) 戰鬪 實施

D-1일(11월 15일)부터 퍼붓기 시작한 포병의 鐵火는 작전지역을 철사없이 強打하고 아울러 美空軍의 戰爆機가 驟雨와 같은 熱湯을 集注하였다.

11월 16일(D 일) : 이날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리므로 전투를 일단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점차 氣象이 좋아질 展望이 보이자 예정한 대로 敢行키로 하였다. 그러나 氣象이 不順한 까닭에 계획된 航空폭격은 保留되었다. 05.30부터 포병의 攻擊지원사격은 一齊히 불을 댕하면서 “헬리콥터”의 着陸지점과 예상되는 敵의 據點을 制壓하였다. 이윽고 제 6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기동부대를 3개 梯波로 편성하여 제 1 梯波로서 중대본부 및 제 3 소대가 出發하였다. 포병의 攻擊준비사격이 進行되는 가운데 機動부대는 Qui Nhon 上空을 통과하여 半島의 東쪽 해안을 따라 北上하다가 포병사격의 中止와 더불어 着陸을 試圖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격이 계속된 탓으로 예정시간 보다 30분 늦은 07.00에 美軍이 조종하는 “헬리콥터”는 着陸지점이 아닌 모래사장에 着陸함으로써 큰 混亂을 빚었는데 “헬리콥터”의 “푸로펠라”폭풍으로 비산하는 砂塵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었고 兵器는 먼지에 뒤덮여 自動내지 半自動을 不能케 하였으며 부대는 露出되었다.

뜻하지 않은 混亂에 直面한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즉시 着陸지점으로부터 500m떨어진 丘陵의 숲속으로 兵力을 散開하였다. 이때의 狀況을 그는 그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에 敵이 該지역 부근에 있었다면 機動부대는 全滅하였을 것이다』라고 회상하였다. 곧이어 30분뒤에 제 2 梯波로 편성된 제 2 소대가 같은 장소에 着陸하려는 것을 안전지대로 유도하였다. 08.00에 마지막으로 제 2 소대 및 81mm박격포와 기관총兩개반이 LZ-2에 着陸하여 敵의 退路로 예상되는 Nui Gioc Ngua(山) 일대를 차단하고 한편으로 美海岸순찰대가 東쪽 해안을 경계하는 가운데 제 1 소대는 西쪽 해안을 따라 南進하였으며 제 3 소대 및 중대본부는 主攻축선인 東쪽 해안에 沿한 稜線을 따라 探索하면서 南쪽으로 進擊하였다. 비교적 평탄한 西海岸을 따라 南進하던 探索隊는 별다른 어려움을 받지않고 進出할 수 있었으나 제 3 소대는 무거운 鎗탄과 兵器를 걸머지고 急傾斜와 가시덤굴을 헤치면서 進擊하였다.

半島內的 樹木은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정도인 반면에 울창하여 한사람이 빠져 나가지조차 어려웠고 2~3m 앞을 바라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와같은 地形에서 각개병사들은 선두의 兵士가 개척한 통로를 따라 進出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空中에서 이를 目擊한 대대장은 즉시 중대장을 呼出하여 側衛 및 後衛를 강화케하고 兵力이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는 한편 1개분대의 兵力으로는 東쪽 海岸의 岩石지대를 探索하면서 主攻과 병진토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이 직접 거느리는 中강된 제 3 소대는 半島의 중간 高地와 해안선에 중점을 두고 精探하면서 南進中 12.30에 尖兵으로부터 『敵의 “장크”를 自擊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앞으로 進出하여 VC으로 推測되는 수미상의 一黨이 帆船 5隻에 나누어 타고 退避하는 것을 觀望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상당한 遠거리에 있으므로 自隊의 火力으로는 미치지 못할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大동한 포병관측장교로 하여금 포사격을 요청케 하는 한편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제 6 중대의 관측소에 進出하여 狀況을 파악하고 곧 美海軍순찰대로 하여금 그들을 追擊하여 擊破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風浪이 심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이윽록 西海岸을 따라 南下하던 제 1 소대는 Ngang Sa 北쪽 3km지점의 小路邊에서 그들이 구축한 것으로 推測되는 交通壕 및 火器陣지와 散兵壕 12개소를 파괴하고 南進을 계속하였다.

전투지역 南쪽에 있는 Nui Gioc Ngua(山) 一帶에서 제 2 소대가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半島의 東 西쪽에서 南下하는 전투부대간의 거리가 단축되자 중대장은 我軍간의 誤認사격이 있을지 모르므로 상호간의 위치를 約定된 신호로써 연락을 유지 하면서 進擊을 계속도록 하였다. 이윽고 14.00에 主攻인 제 3 소대 및 중대본부는 Nui Gioc Ngua(山)에 進出하여 제 2 소대와 합세하였다. 중대장은 여기에서 제 3 소대로 하여금 東쪽 海岸線을 探索케 하고 제 2 소대를 차단임무로부터 해제와 同時에 1개분대를 빼내어 △ 90에 殘置하여 차단에 임하도록 하는 한편 同소대의 殘餘병력을 직접 거느리고 所謂 죽음의 마을이라고 일컫는 Hoi Loc(廢墟)으로 進擊하였다. 불과 1km남짓한 거리였으나 濕地와 茂盛한 숲을 헤치고 前進하기 1시간 30분만에 該마을 외곽까지 進出하였는데 주위는 조용하고 陰散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마을 入口에 一部の 兵力을 남기고 내곽으로 進入하였다.

오랫동안 방치된 廢墟에는 키를 넘는 숲이 우거지고 제멋대로 倒壞된 가옥의 殘骸가 앙상하게 남아 있을뿐이었다. 중대장은 잠시 주위를 살피다가 이상한 예상이 들었으므로 廢家를 살살이 뒤지게한 결과 그밑 地下동굴에 潛伏한 VC용의자 18명을 검거하였다. 그들은 廢家의 마루밑 또는 울타리에 한몸이 들어가가지조차 어려울 정도의 개인호를 파고 그 위에 草木으로서 교묘하게 위장하였으므로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2시간동안 精探을 계속하다가 다음 행동으로 옮겼다.

海岸線으로 이르는 小路를 따라 So Cay Me로 進出하여 갯벌에 우거진 갈대밭을 누비던 중 방금 사람이 지나간듯한 발자국을 追跡하다가 드디어 그들의 所在를 포위하고 투항하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當面한 VC들은 이에 應하지 않을 뿐더러 窮鼠反噬格으로 수류탄을 던지면서 必死的인 脫出을 시도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兵力을 橫隊로 산개하여 抵抗하는 무리들을 捕獲할 目的으로 『可用한 火力

으로 위협하면서 그들을 海岸線으로 밀어부쳐라』고 호령하였다. 이리하여 兵士들의 自動火器와 小銃의 소낙비를 그들의 頭上에 퍼부우니 그들은 顯眊할 틈조차 없이 미리 마련하여 두었던 것으로 推測되는 漁船을 타고 脫出하려는 一黨 3명을 사살하였다. 이무렵 西海岸을 따라 南下하던 제 1소대는 Bay Ngang Sa를 突破하고 Nui Han(山)으로 進迫中이었으며 西進中인 제 2소대는 16.30에 該소대와 合勢하였다. 한편 狀況진전을 지켜보던 大隊장은 時間이 있는대로 Hoi Loc南쪽의 濕地帶를 踏破코자 하였으나 어느덧 夕陽이 明滅하므로 주간 戰鬥을 終結키로 하고 中대장에게 복귀토록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제 1소대는 Nui Han(山)에 1개분대를 埋伏케 하고 나머지 兵力은 現地에서 “헬리콥터”로 復歸하였으며 제 2소대는 Nui Gioc Ngua(山)로 空輸되어 제 3소대와 合勢한 다음 該소대와 배속된 重火器반은 기지로 돌아가고 제 2소대는 戰鬥부대가 모두 復歸한 것처럼 가장한 가운데 夜陰을 이용하여 Nui Gioc Ngua(山)와 Nui Eo Vioc(山) 일대에 埋伏하였다. 殘留한 埋伏隊의 임무는 我軍이 없는것 처럼 기만하여 流動하는 VC을 打擊하려는 것이 었다. 特히 殘留 隊부대가 潛伏한 兩개지역은 VC의 예상되는 退路인바 여기에 埋伏하여 전과를 확대코자하였다. 그러나 이날밤 接敵이 없자 다음날 08.00에 복귀케 함으로써 兩日間의 전투를 모두 끝마쳤다.

#### 라. 戰鬥 後의 概況

이 戰鬥을 끝마친뒤에 連行된 VC용의자를 審問한 결과 Qui Nhon半島 일대에는 VC 2개중대규모의 兵力이 不期로 出沒하면서 Qui Nhon 港에 정박중인 연합군 함선 및 부두에 山積된 軍수물자를 파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攻擊前에 我軍의 빈번한 公중정찰 및 攻擊준비사각으로 말미암아 我軍의 기도를 눈치챈듯 그들 대부분이 攻擊전날과 당일 退却하였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美海岸경비대의 해상 차단도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최초로 空輸기동 및 陸海空의 연합전투를 전개함으로써 차후 수행될 작전에 많은 敎訓을 남겼다. 特히 이번 전투에서 Qui Nhon半島內의 VC 同調세력을 瓦解시켰으므로 점차 該地域에 반불일 곳을 상실한 VC은 그 後에 는 出沒회수가 줄어들었으며 이와 아울러 生소한 지역을 익힌 我軍은 수시로 埋伏과 探索을 강화함으로써 Qui Nhon半島를 장악하게 되었다.

綜合 戰果(損失없음)

구분 부대	戰 果	
	유 기 시 체	용 의 자
제 1연대 제 9중대	3	18

## § 戰 訓

### 奇襲 効果의 喪失

이번 戰鬪에서 본바와 같이 正規의인 작전형태 그대로 攻撃前에 항공폭격을 비롯한 포병의 공격 준비사격을 集中하였으므로 奇襲의 효과는 상실되었다. 즉 押送된 VC용의자가 진술한바와 같이 그들은 我軍의 공격기도를 豫知하고 退却한 것이었다. 特히 越南戰에서는 敵情이 流動的이며 VC은 우세한 敵과의 正面대결을 가급적 避하는 것

이 通例이다. 따라서 그들을 打撃할 수 있는 妙策으로는 그들의 술책을 逆用하는데 있으며 또한 이 전투와 같은 空中기동을 감행하는 경우에는 우선 我軍의 기도를 최대한으로 비닉하여 攻撃준비사격은 치열하면서도 短시간내에 그리고 敵의 退路를 차단한 연후에 신속한 機動으로 衝撃을 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砲兵과 機動部隊間의 協調

포병과 “헬리콥터” 機動부대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전투에서 空中 機動부대는 Qui Nhon 上空을 통과하여 東쪽 海岸을 따라 半島에 접근하여 着陸준비를 갖추었으나, 계속된 포병사격으로 말미암아 예정시간 보다 30분 늦게 着陸하였다. 特히 “헬리콥터”의 機動에 있어서 進入방향

(Elying Route) 및 시간과 포병사격시간과는 緊密히 협조되어야 하는데 이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뻔 하였다. 따라서 포병사격은 必히 “헬리콥터”기동부대와 協조되어야 하며 既計劃사격은 물론 임시목표사격에 있어서도 사격시간과 標的 및 포병의 위치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헬리콥터”의 誘導

派越後 최초로 전개된 공중기동에 있어서 事前에 면밀한 계획아래 遂行되었다고 하지만 美軍이 조종하는 “헬리콥터”는 착륙지점이 아닌 모래사장에 着陸하였으므로 混亂을 빚었다. 이는 美軍과의 言語 不通에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誤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先着機에는 반드시 “헬리콥터”의 誘導兵을 탑승시키되 美軍과의 言語 소통이 가능한 者를 선발하여

야하였다. 特히 越南에서의 戰鬪형태가 거의 空中기동 및 美軍의 支援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을 勘考할때에 그들의 過誤로 작전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따라서 美軍과의 연합작전시에는 충분한 협조는 물론 의 사소통을 고려하여 작전행동에 잘못이 없도록 留心을 要한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6 중대장 丁 萬 吉 대위

(1977년 12월 22일 합참 본부장 보좌관실에서 : 당시 대령)

제 1 연대가 越南에 上陸당시 Qui Nhon을 비롯 韓 Tuy Phuoc—An Nhon동지의 主要市邑만

겨우 장막한 상태였으며 Go Boi平野의沃土와 崑山岳은 VC의 支配下에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제 1대대가 Am Phu江南쪽 Go Boi平野의 일부분을 확보하고, 제 2대대는 사단의 전술책임지역 南端에 있는 Cu Mong고개一帶를 그리고 제 3대대는 Nam Tang에 各各 전술지휘소를 확보하여 점차 지역내의 敵定을 擴張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된다. 당시 우리 중대는 제 5중대가 Cu Mong고개에 배치된 가운데 該중대를 掩護하면서 지역탐색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11월 10일 대대장으로 부터 呼出되어 出頭하였던바 출동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자리에서 전투지역과 敵에 관한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연대장으로부터 현재로서는 아는바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 焦燥하기만 하였다. 3일뒤인 11월 13일 正式으로 작전명령을 받았는데 증강된 중대규모로서 최초의 空中기동을 감행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地上전투는 派越하여 지휘한 경향이 있지만 “헬리콥터”의 空中기동을 지휘하는 것은 처음이며 派越前 洪川에서 “헬리콥터”의 搭乘훈련과 着陸時의 전개요령을 짚든 것이 고작이었다.

이제 막상 생소한 地域인 배다가 敵에 관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投入된다는 것을 들으니 더욱더 긴장되었다. 그러나 任務가 莫重함을 느끼게 되자 이날부터 該지역에 대한 지형분석과 아울러 敵에 관한 첩보를 入手하는데 努力끝에 얻은 첩보는 同半島내에 固定되어 있는 VC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不期로 出沒한다는 미확인 첩보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중대는 11월 16일 3개梯波로 편성된 空中기동을 시작하였다.

배가 거느리는 제 I梯波가 Qui Nhon上空을 통과하여 南支那海로 빠져나간 다음 半島의 東쪽 海岸을 따라 北上하다가 陸地에 着陸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砲兵의 공격 준비사격이 中止되지 않은 탓으로 예정시간보다, 30분 늦게 着陸한데다가 雪上加霜으로 계획된 작목지점이 아닌 모래 사장에 着陸함으로써 일어난 砂塵으로 혼란을 가져왔으며 兵器의 대부분이 自動 내지 半自動을 불능케 하였을 뿐만아니라 兵力이 露出된 상태에서 위험한 局面에 놓이기도 하였다. 만약에 이때 그 부근에 敵이 潛伏하고 있었다면 機動부대는 큰 打撃을 받았을 것이다. 多幸하게도 敵은 이미 退却하였기 때문에 위험을 도면한 결과가 되었다. 이날 전투에서 所期의 성과를 얻지못하였으나 혼란의 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史料된다. 또한 처음으로 전개된 空中기동 및 陸海空의 연합작전을 수행함으로써 次期 전투에 큰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越南戰과 같이 敵情이 流動的인 狀況下에서 正規戰法 그대로 攻撃前에 공격준비사격과 空中목적을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我軍의 기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격이되며 기습의 효과를 상실하기 일수이다. 따라서 “게릴라”를 擊滅하는 要道는 敵을 기만하여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는데서 所期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나 이 戰鬥과 같이 空中기동작전을 展開할 경우에는 多樣的 방법으로 我軍의 작전기도를 비닉하되 攻撃준비사격은 熾烈하면서도 短시간내에 그리고 機動은 신속히 기습적으로 감행하여 敵이 退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며 遮斷효과를 위한 침투방법을 연구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8. 秋收 保護戰 (1965년 11월 19일 부터 1965년 11월 21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17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연대수색중대 장 소위 金 茂 維
제 1 기갑연대장	대령 申 鉉 錄		제 2 소대(배속)
(2) 參加部隊			포병 제61대대
제 2 대대	장 중령 金 容 振		제 2 포대 장 대위 張 洪 烈
제 5 중대	장 대위 李 權 馥		제 3 포대 장 대위 金 振 奎
제 7 중대	장 소위 張 亮 熙		越南지방군 1개중대(배속)
	제 3 소대(배속)		越南민병대 1개소대(배속)
		敵	軍
		Binh Dinh省 地方 VC	

### 나. 戰鬥 前의 概況

사단장 蔡命新 소장은 6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국방부 指 令 제10호(65년 6월 28일)에 따라 예하 제1연대(장, 金瑛雲 대령) 및 제1기갑연대(장, 申鉉錄 대령)를 Qui Nhon에 上陸시킴으로써 越南 이동을 종결지었으며 11월 3일 제1연대로 하여금 美제 101공수사단의 작전지역인 Qui Nhon北 西쪽 일대를 인수케 하고 11월 7일에는 제1기갑연대로서 美해병 제7연대의 작전지역인 Binh Khe郡 南部 일원을 인수토록 하였으며 연대와의 전투지경선은 Van Thuan에서 An Nhon市까지는 제1반도로를, 그 南쪽은 An Nhon郡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이 맡은 작전지역을 Qui Nhon을 中心으로 Binh Khe郡 일원에 이르는 1,400m<sup>2</sup>의 曠濶한 평야로서 南支那海와 接하고 南·北·西쪽은 밀림과 가시덤불이 무성한 300m—1,200m의 高地郡으로 둘러 쌓여 敵의 潛動이 頻繁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Qui Nhon市를 起點으로 Con江의 南岸을 끼고 Binh Khe를 經유하여 CAMBODIA에 이르는

제19번도로는 該사단을 비롯하여 중부 越南의 高原지대에 전개하고 있는 美軍과 越南軍에 對한 유일한 보급로가 되어있다.

本 전투지역인 Binh Khe郡 Hoa Hiep邑은 四周가 山으로 둘러싸인 직경 2.5km원형의 작은 盆地로서 西쪽으로는 Nui Dong Tre(山)—Hon Giac(山)—Hon Giang(山)등 平均 600m 이상되는 험준한 山岳지대이고, 北에는 Nui Ngang(△334)이, 南에는 Nui Gung(△492)이 屹立하였으며 Con江 支流인 Phu Phang江이 그 南端을 스쳐 南西쪽에서 北東쪽으로 흐른다. 여기 또 하나의 支流인 Soui Dong Tre(江)는 Hoa Hiep 일대에서 여러 갈래의 細流와 합쳐 Nui Ngang(山)과 Nui Dong Tre(山) 사이를 通하여 Binh Khe郡에서 Can江에 합류한다. 작전지역내에는 양호한 도로가 없으며 Hoa Hiep에서 제19번도로와 연결되는 稀少한 小路가 있을 뿐이고 山麓에는 바나나가 栽培되며 평야는 Binh Khe郡에 있어서 가장 풍요한 곡창지대이긴 하나 이 주위 山岳지대에 거점을 두고 遊動하는 “게릴라”들의 약탈과 橫暴가 滋甚한 까닭에 이곳 주민들은 제19번도로 주변의 정부보호지역으로 피난하여 生計를 이어간다 該지역을 담당한지 日淺한 연대로서 이 전투를 시급히 決行케 된 연유는 13일 Binh Khe郡 지방有力. 人士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이곳 주민들이 경작한 양곡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 기간만이라도 “게릴라”를 逐出하여 달라는 간청에 이어서 Hoa Hiep 일대의 피난민들이 이 지역을 전술책임지대로 담당한 제5중대장 李權讓 대위에게 連判하여 歎願하므로 연대장 申鉉銖 대령은 본 작전을 展開키로 決心하고 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전투는 군사적인 목적에 앞서 越南 국민과의 紐帶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대민관계를 더 중요시한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군을 비롯한 越南 軍官民이 일체가 되어 파월 최초의 연합작전을 펴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越南 지방군 1개중대와 민병대 1개소대가 동원되었고 Binh Khe郡 행정기관 및 경찰관들도 추수를 위한 주민 동원에 앞장서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으며, 작전기간중 주민들이 시종 VC에 대한 提報에도 적극 협조하였는데 그들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거의 정확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기간중 계속 비가 내리 작전에 지장을 주었으나 밀림지대에 있어서 雨期의 氣象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 함으로써 차기작전에 有用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연대장 申鉉銖 대령은 11월 7일 該지역을 인수 담당하는 즉시 중대 단위로 전술기지를 점령하고 강력한 거점을 위한 전면 사주방어에 들어갔다. 基地內에는 縱橫으로 연결된 交通호 및 개인호를 구축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주에 장애물(철조망, 지뢰, 早期경보기)을 설치하고 경계초소를 추진 운용함으로써 敵의 은밀한 접근에 대비하는 한편 고도의 야간사격술을 연마하는데 力點을 두었으며 敵이 10m 앞까지 다가섰을 때 一彈으로 쓰러뜨리도록 강조하였다. 特히 야간경계에 砲 및 항공기에 依한 협조된 조명사격을

최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전면방어 태세를 갖춘 연대는 敵의 박격포 射程을 고려하여 기지 주변 일대에 분대 또는 소대단위규모의 偵察 및 埋伏 활동을 벌여 적극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초기단계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지나친 근접전을 강조한 탓으로 我軍포격을 제한하기도 하였지만 強力한 敵의 攻撃이 없었던 관계로 이러한 虛實은 露呈되지 않았다. 또한 지형에 익숙한 그들의 유인 전술과 저격 및 장애물(부비트랩, 지뢰, 함정)에는 아주 脆弱할 뿐만 아니라 言語가 통하지 않는데다가 경험과 戰技가 숙달하지 못한 탓으로 일반주민과 똑 같은 服裝을 한 VC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렇듯 기지방어에 주력하던 연대는 派越된지 불과 1週日도 채 못되는 11월 19일부터 3일간 Hoa Hiep 일대에서 遊動하는 VC을 剿討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추수를 보호하는 본 전투를 위하여 越南지방군 1개중대와 민병대 1개소대를 제2대대에 배속하여 대대장 金容振 중령으로 하여금 이 作戰을 展開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적정 : 전투전의 개황 참조.

2. 대대의 東쪽은 제1대대가, 西쪽은 제10중대가 이 전투를 지원한다.

3. 포병 제61대대의 제2포대가 대대를 직접지원한다.

4. 전투간 아래 부대가 대대에 배속된다.

가. 연대수색중대 1개소대.

나. 越南지방군 1개중대.

다. 越南민병대 1개소대.

5. 대대는 11월 19일부터 동월 21일까지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Hoa-Hiep 邑 일대의 추수작업을 보호하고 所在의 敵을 색출하는데로 격멸한다.

6. 제5중대

가. 배속 : 越南민병대 1개소대.

나. 중대는 19일 06.30을 期하여 Hao Hiep 일대에 潜伏中인 武裝兵群을 殲滅하고 주민들의 추수를 보호하라.

7. 수색중대 1개소대.

가. 배속 : 제7중대 화기소대의 1개분대(57mm 무반동총).

나. 소대는 11월 19일 06.30까지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하여 △366를 점령한 다음 南西쪽 일대를 경계하라.

8. 越南지방군 중대는 11월 19일 06.00까지 Hoa Hiep(4) 東쪽 Dong Le에 집결한 다음 Phu Phong 江北쪽 계곡을 따라 Hoa Hiep (3)까지 진출하면서 탐색과 차단을 병행하라.

9. 제7중대는 11월 19일 05.00까지 화기소대의 1개분대 (57mm 무반동총)를 연대수색중대에 배속하고 1개소대 병력을 대대 예비로서 19일 06.00까지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시켜 명에 의거 공격할 준비태세를 갖추라.

10. 협조지시

가. 배속된 越南민병소대로 하여금 지역내 민간인 통제와 안내 및 마을내에 잠복한 VC을 색출케 하라.

나. 야간에는 예상되는 敵의 접근로에 잠복조를 배치하라.

다. 공격개시선은 07.30에 통과하라.

라. 배속된 越南동역관을 최대로 활용하여 민간인으로부터 접수된 첩보를 즉시 대대에 보고하라.

마. 탄약은 1기수씩 휴대하며 요청에 따라 추진보급한다.

바. 작개 병사에게 수통 2개씩을 휴대케 하라.

사. 통제선 “가”까지 진출하던 일단 대오를 정돈할 것이며 그 앞으로의 進擊은 별당에 의한다.

11. 대대전술지휘소는 Hoa Son (3)北쪽 無名高地에 개설한다.』

이러한 명령을 수령한 관계부대는 즉시 전투준비에 착수하였으며 越南지방군중대와 同 민병소대에도 하달되었다. 그런데 작전을 하루 앞둔 18일 최종결토회의에 임석한 연대장 申鉉銖 대령은 越南지방군 및 민병대로 말미암아 我軍의 기도가 누설될 公算이 있다고 내다보고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1. 전투개시일을 연기한다고 越南군측에 통보한다. 但 명령이 있을 때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게 한다.

2. D일의 통제선 “나”를 “가”로 변경한다.』

(2) 戰鬪 實施

本 전투는 Binh Khe郡 南쪽 4km 떨어진 Hoa Hiep郡 일대에서 전개된 것으로서 제5중대와 越南민병대 1개소대를 공격부대로 하고 연대수색중대 1개소대와 越南지방군 1개중대가 차단부대로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該지역내에서 遊動하는 “게릴라” 1개중대 (+) 규모를 驅逐한 韓·越 연합전투인바 전투간에 敵의 主力은 이미 Nui Dong Tre(山) 西쪽으로 退避하고 극소수의 VC들과 산발적으로 접전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VC 3명을 사살하고 VC 용의자 16명을 檢擧하였으며 AK소총 1정과 M16 실탄 및 기관총실탄 각 200발을 노획하는 동시에 동굴 10개소를 폭파하는 반면 我軍도 전상자 1명을 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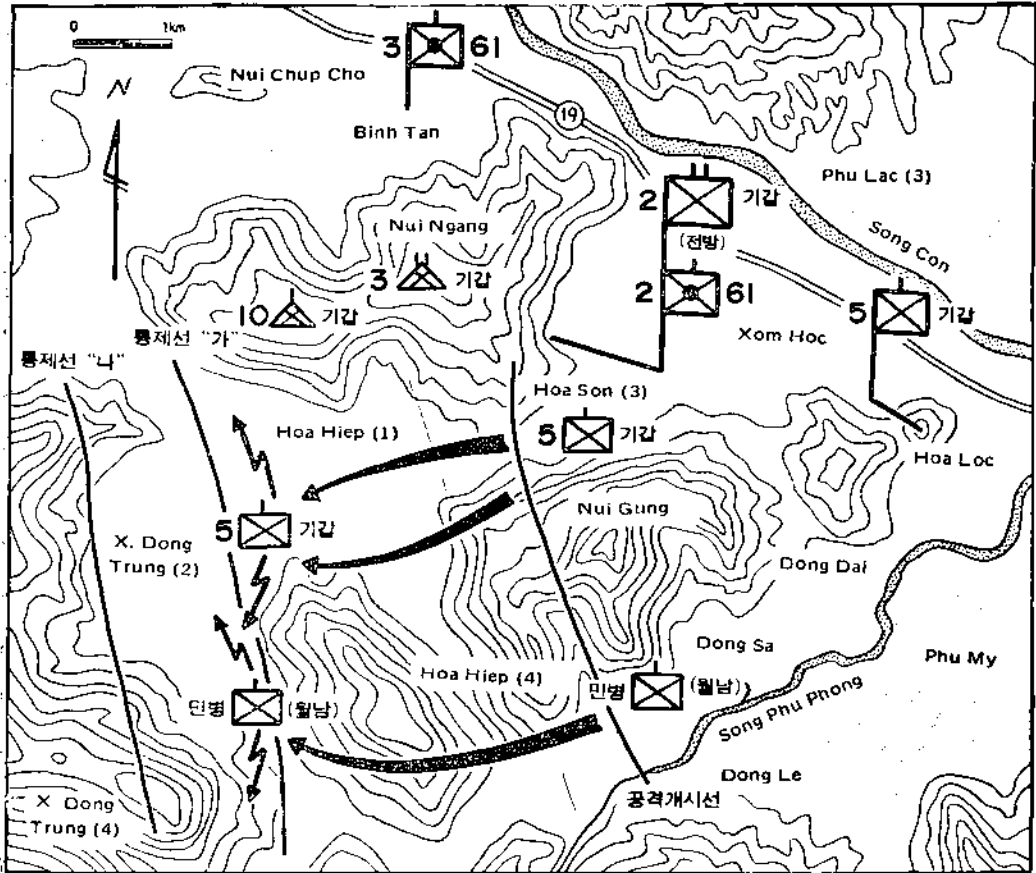
11월 19일(D 일): 이날의 기상은 연일 내리던 비가 그치지 않아 徒歩이동하는데 매우 힘들었으나 때때로 비가 멎어 “헬리콥터”비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대대는 05.30부터 06.30 사이에 포병 제61대대의 제2, 제3 兩포대로 하여금 제압사격을 가하게 하고 제5중대와 越南민병소대를 공격대기지점(Hoa Son (3) 東쪽 500m)에 進入케 하였다. 그리고 차단부대인 연대수색중대 제2소대는 07.30에 현지에서 “헬리콥터”로 △366에 설정한 착륙 지역에 降着케 하고 越南지방군중대(136명)도 06.30부터 행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대전술지휘소를 Hoa Son (3) 北쪽 無名高地에 개설하고 대대관측소를 △366에 추진함으로써 파월 이래 최초로 展開되는 本 戰鬪의 幕이 올랐다.

(가)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이날 05.00에 현지에서 출발하여 06.30에 공격대기지점인 Hoa Son (3) 東쪽에 도착하였으며, 05.00까지 Binh Khe郡廳에 집결한 越南민병소대(33명)는 동지역에 도착하자 중대에 合勢하였다.

여기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중대는 제1소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Hoa Hiep (1)를 경유, 통제선 “가”까지, 제3소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Hoa Hiep (2)를 거쳐 통제선 “가”까지 각각 탐

狀況圖 제17호 秋收 保護戰



색케 하고 제2소대를 지원소대로서 후속케 하였으며 越南민병소대로 하여금 파견된 통역관과 함께 該지역내에서 추수작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통제와 용의자를 색출케 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계획을 세운 중대는 포병제61대대 제2, 제3兩포대의 공격준비사격이 작렬하는 가운데 07.3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공격개시선에서 통제선 “가”에 이르는 지역은 Hoa Hiep (1), (2), (3)의 民家가 이어진 평야지대로서, 肥沃한 田畠에는 五穀이 무르익어 黃色들판을 이루고 이 사이에 Dong Tre江이 南쪽에서 北쪽으로 여터 갈래의 小河川이 영키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흘러간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분별없이 遊動하면서 藥탈과 焚蕩를 일삼는 VC“게릴러”의 橫暴에 견디다 못하여 비옥한 농토와 정든 고향을 버리고 정부보호지역인 제19번도로 주변으로 피난하여 移住中이므로 이 아담하던 村落들은 폐허처럼 잡초만 우거져 VC들의 온상지대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부락수색에 중점을 두어 各소대로 하여금 越南민병대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드디어 07.30에 공격개시를 알리는 적색오성 신호탄이 오르자 일제히 공격개시선을 突破한 兩소대는 草原을 헤치고 五穀이 무르익은 들판을 누비면서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Hoa Son (3)에서 Hoa Hiep (1)에 이르는 村家를 낱낱이 精探하던 중 12.35에 추수중인 주민으로부터 Hoa Hiep (1) 北쪽에 VC 1개중대규모가 출현하였다는 제보를 接하였다. 중대장은 즉시 그 일대에 포격을 집중케 한 다음 Hoa Hiep (1) 일대를 탐색하는 제1소대(장, 李坤洙 소위)로써 이를 急襲케 하였으나 VC들은 이미 潰散하고 없었다.

이무렵 Hoa Hiep (2)쪽을 探索하던 제3소대(장, 金鉉 소위) 제1분대가 △366와 마을 사이의 灌木지대를 누비다가 50m 앞 덩굴을 헤치며 潰走하는 數未詳의 VC를 목격하고 그 뒤를 쫓아 100m까지 추격하였으나 지형지물에 익숙한 그들은 어느새 遁避하여 종적을 알 수 없었다. 이 때 분대장 孫鎬植 하사는 『필시 이 근방에 그들이 隱遁할 수 있는 거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단하고 四方을 세밀히 살피다가 左側方 30m 앞 숲속에서 움막 비슷한 독립가옥을 찾아내었다. 孫下士는 즉시 분대원을 散開시킨 다음 엄호를 당부하고 單身으로 포복 전진하여 앞에 이르렀을 무렵 독립가옥 뒤 야자수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계속 注視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접근하다가 휘어진 큰 나무가지에 VC 1명이 隱身하여 저격자세를 取하면서 분대원들이 매복한 行方을 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一彈으로 사살하였는데 이것이 이 전투의 첫戰果였다. 그뒤 분대는 계속하여 독립가옥과 그 일대를 살살이 뒤진 끝에 그들이 버리고 간듯한 쌀과 衣類등을 찾아내어 소각하고

AK소총 1정과 소총실탄 200발을 노획하였다.

이렇듯 중대는 한차례 敵과의 접촉이 있는 연후에 Dong Trung (1)에서 Hoa Hiep (3)에 이르는 통제선 “가”까지 4km에 걸쳐 이어진 촌락을 누웠으나 집적이 없는 가운데 이 線에서 작소대별로 산개하여 추수작업 경계로 移行하였다. 야간에는 Hoa Hiep (2) 北쪽 無名高地(200m)를 점령하고 四圍방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제3소대의 일부 병력을 뽑아 고지 南西쪽 하단과 北쪽 300m의 길목을 埋伏으로써 制扼케 하는 한편 間歇적으로 통제선 “나”일대에 교란사격을 가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나)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 제2소대(장, 金茂雄 소위)는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에서 57mm 1개분대를 배속받아 火力을 增強한 연후에 07.00부터 공격준비를 갖추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날씨 관계로 비행이 곤란하여 대기중이었는데 08.30에 비가 멎었으므로 “헬리콥터”로 저공기동하여 △366에 降着하였으니 이 때가 09.00였다.

여기에서 隊伍를 가다듬은 소대는 該高地 西쪽에 있는 無名高地(200m)를 점령하고 사주를 경계하는 한편 제1분대를 뽑아서 西麓에 배치하여 차단케 하였으나 日沒에 이르도록 VC과의 접촉을 보지 못한 채 야간경계로 전환하였다. 한편 Dang Sa에 집결한 越南지방군 중대는 06.30에 이곳을 출발하여 Phu Phang江 北岸을 끼고 Dong Le 北쪽 谿澗과 Hoa Hiep(4) 東쪽 수림지대를 정탐하면서 南側方을 차단한 연후에 야간에는 Hoa Hiep (3) 西麓으로 轉進하여 철야하였는데 제5중대와의 無線이 두절된 탓으로 차단선이 連繫되지 못하였다.

(디) 이러한 행동이 전개되는 사이에 Hou Hiep 일원의 주민 900명이 이른 새벽부터 제19번도로 주변에 雲集하여 各己의 경작지로 向發하려고 서둘렀다. 잠시 뒤 Binh Khe郡에서 동원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작업을 시작한 마 10.00에는 벌써 통제선 “가”부근의 경작지에서도 벼베기와 탈곡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으며 17.00에 작업을 끝마치고 철수할 때까지 VC의 侵襲은 없었다.

한편 대대는 연대에서 지원받은 2 $\frac{1}{2}$ Ton차량 30臺를 동원하여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수송하는 동시에 거두어 들인 糧穀 450石을 피난민 거주지역인 제19번도로 주변으로 운반하였다.

**11월 26일(D+1)**: 이날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야간에 민간인들이 제보한 정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Hoa Hiep 일대에서 遊動하던 VC 1개중대규모가 我軍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리고 Dong Trung (2) 北쪽 200m에 위치한 樹林地대의 거점에 隱遁하여 我軍의 동정을 살피면서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所在의 敵을 선제공격으로써 격파키로 決心한 대대장은 제5중대로 하여금 공격 준비를 갖추게 하고 09.30부터 포병제61대대 제2, 제3 兩포대로써 鐵火를 퍼붓게 하는 한편 항공폭격도 아울러 요청하였다. 이와 동시에 Hoa Son (3) 東쪽에서 대대에비로 대기중인 제7중대 제1소대를 제5중대 점령지역인 Hoa Hiep (2) 北쪽 無名高地에 10.00까지 進入시켜 제5중대의 공격을 掩護케 하였다.

(가) 제5중대는 이날 未明부터 탐색준비를 갖추던중 대대장으로부터 통제선 “나” 北西쪽 Dong Trung (2)에 隱遁한 敵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지원소대인 제2소대(장, 朴晟煥 소위)를 右一線으로 Hoa Hiep (2) 北西쪽을 迂回하여 後側背에서 挾攻케 하고 제3소대(장, 金炫 소위)를 左一線을 삼아 Hoa Hiep (2)에서 直衝케 하였으며 제1소대(장, 李崑洙 소위)를 지원소대로 現위치에 控置하여 상황에 따라 投入키로 하였다. 그리고 60mm와 81mm박격포를 Hoa Hiep (2) 北쪽 無名高地 전사면에 布陣케 하였다.

이에 對하여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그 證言에서 밝히기를 『박격포는 高地후사면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이 때 전사면에 포진케 한 것은 敵의 火力을 무시하고 取한 조치로서 첫째로 觀測 兵이나 射手들이 중대의 進擊을 바라보면서 상황의 진전에 따라 즉각 射擊토록 하려는데 있었고 둘째로 공격목표가 불과 1.5km 앞에 있는 까닭에 VC이 潰走하면 직접 관측하면서 효과적으로 制壓하고 응통성 있게 대처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처음 시도하였는데 효과적이 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태세를 갖춘 중대는 포병 兩포대와 美전폭기 2臺가 번갈아 가며 예상되는 敵의 隱遁지역을 強打하는 가운데 10.00를 期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Hoa Hiep (2)에서 直衝키로 한 제3소대는 Dong Trung (2)까지의 開豁地에서 前進이 비교적 順調로 있었지만 北西쪽을 우회공격하는 제2소대는 500m에서부터 무성한 樹林地대를 이룬데다가 VC들이 설치한 “부비트랩”과 함정에 부딪쳐 몇차례씩 前進이 지연된 탓으로 進擊이 늦어져 제3소대와 步調를 맞출 수가 없었다. 더구나 樹林地대 50m앞에 이르렀을때에는 VC들이 산발적으로 銃격을 加하면서 소대의 進路를 가로막았다.

이에 소대장 朴晟煥 소위는 이 상황을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포격을 요청한 바, 이 때 제3소대를 후속하면서 공격을 지휘하던 李權馥 대위는 박격포의 熱火를 집중케 하고 소대장에게 지시하기를 『VC의 수효가 얼마 안될 것이니 가용한 火力을 퍼부으면서 突入하라, 만약 突擊이 좌절되면 제1소대로 하여금 超越공격케 할 것이니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고 호명하였다.

이 때를 回想하여 중대장 李대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되 『제3소대의 후비에서 兩소대의 進擊을 지휘하였는데 兩소대간의 거리는 400m 밖에 안되었으므로 肉眼으로도 제2소대가 前進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2소대가 樹林地대에 접근할 무렵 VC들이 사격을 加하였으나 그 총성으로 보아 극소수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대로서는 VC과의 실전경험이 없는데다가 울창한 밀림지대에서 싸워야 하는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에 선듯 突擊하라고 명령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박격포화를 集注케 하고 제2포대 및 제3포대에 砲擊을 요청한 다음 제2소대장 차소위에게 공격토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제2소대의 進擊이 늦어지자 중대장은 挾擊을 단념하고 제3소대만으로 목표를 공격케 하였다.

이무렵 제3소대(장, 金 鉉 소위)는 Hoa Hiep (2) 西쪽 河川을 徒涉하고 Dong Trung (2) 北東쪽 공격대기지에서 제2소대의 진출을 기다리다가 중대장으로부터 단독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아 작분대를 중대로 산개하여 우거진 숲속을 헤치며 목표 50m 앞까지 進擊하였으나 VC들은 산발적으로 사격을 加할 뿐이었다. 이에 소대장 金 鉉 소위는 VC의 主力이 我軍의 포격과 목격을 避하여 Dong Tre山쪽으로 潰退하고 소수분자들이 산발적으로 저항하고 있는것으로 비다보고 병력을 휘몰아 일제히 突入끝에 목표를 점령하였는데 金 소위가 예측한대로 VC의 主力은 이미 退却한 다음이었으며 곳곳에 피흘린 흔적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이 敵의 거점을 覆滅한 소대는 진지 3箇所와 古屋밑에 교묘하게 만든 “터널”식 동굴 4개소를 파괴하고 식량 7톤을 소각한 연후에 北西쪽 100m 후미진 골짜기를 탐색하다가 나무 사이로 潰走하는 VC 2명을 목격하였다. 이 때 선두에 선 제1분대장 孫鎬植 下士가 제빨리 뒤쫓아 그들을 사살하였으나 무기는 어디에 은닉하였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北西쪽을 우회한 제2소대장 朴巖煥 소위는 樹林地대에서 저항하는 VC들을 擊破하고 진출하면서 함정과 “부이트랩”을 제거하느라고 공격대기지에 도착한 때는 제3소대가 目標을 점령한 뒤였으므로 同목표 北쪽 지대를 누비며 탐색을 벌여 용의자 6명을 색출하였다. 16.00에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제3소대와 함께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17.30에는 Hoa Hiep (2) 北쪽 無名高地 후사면에서 흩어진 장구를 가다듬고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나) 연대수색중대 제1소대는 이날도 △366 南西쪽 無名高地에서 차단과 탐색을 併行하다가 지하 동굴 3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제7중대 제1소대(장, 張弼熙 소위)는 Hoa Son (3) 東쪽에서 대기하다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08.00에 현지를 출발하여 Hoa Hiep (1)을 거쳐 10.00에는 Hoa Hiep (2) 北쪽 無名高地 후사면에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제5중대의 공격을 掩護하다가 14.00부터 그 北西쪽 灌木지대를 누비던중 數未詳의 VC으로부터 저격을 받자마자 이를 추격하였으나 지형에 익숙한 VC들은 사격을 加하고는 潛跡하였으므로 그



住民들의 秋收를 保護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있다.

들이 潛據한듯 한 동굴 1개소를 파괴하였다. 또 越南지방군 중대는 이날 Hoa Hiep (3) 南쪽수림지대의 遮斷을 계속하면서 탐색을 併行하였으나 敵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11월 21일(D+2) : 기간중 Hoa Hiep 일대의 VC를 구축하여 추수작업이 활발히 進陞되었고 지역내에서 그들의 跳梁도 거의 없었다.

이에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지역 외곽선에 對한 경계에 力點을 두고 추수작업에 종사하는 주민보호에 專力키로 하는 반면 탐색은 벌이지 않기로 하였다.

(가)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전날밤 Hoa Hiep (2) 北쪽 無名高地 하단에서부터 △ 366에 이르는 要害마다 병력을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하면서 철야하였으나 이날 未明까지 VC이 침투하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중대는 지역내의 탐색을 다시 벌이려고 준비중 대대장으로부터 『탐색을 보류하고 외곽선 경계에만 專力하면서 추수작업하는 주민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대는 각소대를 통제선 “가”에 산재하여 외곽선을 경계하다가 11.00에 Hoa Hiep (2) 西쪽 전담에서 추수하던 민간인들이 Dong Trung (2) 東쪽에 VC 1개중대(-)규

모가 出現하였으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는 보고를 접한 중대장 李權瓚 대위는 60mm 및 81mm 박격포를 集中하는 동시에 포병의 지원을 받아 그들을 潰散시켰으며 17.00에는 본 전투를 마무리 짓고 도보로 기지에 복귀하였다.

(나) 越南지방군 중대는 전날밤 Hoa Hiep (3) 南쪽 지역을 차단하면서 철수준비를 갖추고 이날 07.00에 대대전술지휘소에 접절한 다음 09.10에 원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7중대 제1소대는 Hoa Hiep (1)에서 Dong Trung (1)에 이르는 외곽지대를 차단하다가 16.03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 제1소대도 전날과 다름없이 △366의 北西쪽 無名高地에서 南西쪽 외곽선을 要扼한 연후에 16.40를 期하여 “헬리콥터”로 기지에 복귀함으로써 본 전투의 終幕을 내렸다.

기간중 추수에 동원된 연인원은 3,500명에 達하였으며 1,180섬의 나락을 추수하여 반출하는 성과를 올려 대민친선을 더욱 敦篤케 하였다.

#### 다. 戰鬥 後의 概況

연대는 1개중대 병력으로서 敵에게 我軍의 一觸即發하는 威力을 과시하였으며 본 전투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지역 東쪽 8km 떨어진 Phu Lac에서 전개한 전투를 통하여 VC 31명을 사살하고 5명을 俘虜로 하는 전과를 올리게 되었다.

한편 인접 제1연대(장, 金瑛雲 대령)는 11월 16일 Qui Nhon半島에서 “前進”전투를 벌여 사살 11명 용의자 28명을 색출하였다.

####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사 살	용 의 자	AK소총	소총실탄	기관총실탄	동굴폭과	전 상
3	16	1	200	200	10	1

## § 參戰者의 證言

## 제 1기갑연대 제 5중대장 李 權 馥 대위

(1977년 10월 7일 특전사 제5공수여단에서, 당시 대령)

11월 7일 Hoa Hiep 東쪽 지역을 전술책임지대로 인수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제19번도로주변에 파란중인 Hoa Hiep주민들이 경작한 양곡을 추수할 수 있도록 該지역내의 VC를 逐出해 달라고 陳情하여 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懇請을 받아들여 추수보호에 목적을 둔 까닭에 본 전투는 군사적인 面보다는 對民 關係를 더 重視하였다. 그러므로 전투지역내에서 포위망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퇴로차단도 하지 않고 오로지 正面에서 공격하여 통제선까지 밀고 갔다. 바꾸어 말하면 지역내의 VC를 쫓아버리고 추수하는 민간인 경계에 만 치중하였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투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민간인들이 추수하는 지역내에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VC들이 농민을 가장하고 침투하여 추수하는 척하다가 我軍에게 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총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쫓아가 탐색하면 추수하는 주민들 뿐이었다.

그리하여 은닉한 무기를 찾으려고 살살이 근방을 뒤져보아도 감춘 흔적을 찾지 못하곤 하였다. 다행히도 越南민병소대의 협조로 저격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애로가 많았다. 그리고 VC용의자 색풀에 있어서는 越南통역관들이나 민병소대원들이 後患을 꺼려서인지 소극적이어서 주민과의 식별이 어려웠다. 더구나 작전경험이 없어 그들이 설치한 장애물("부비트랩", 지뢰, 함정)탐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하늘이 보

이지 않는 "정글"속에서의 전투도 처음 겪어 보는 것이어서 총성만 들어도 병사들은 위축되어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였다.

이번 탓으로 다음 날 통제선 "나"를 공격할 때 제2소대르써 北西쪽을 迂回 挾擊토록 하였으나 밀림지대에 부딪쳐 正面을 直衝하는 제3소대보다 前進속도가 여간 늦지 않아 挾擊을 단념하고 제3소대 단독으로 공격케 하여 점령하였다.

본 전투에서 특기하고 싶은 것은 박격포 방열 위치이다. 통상 정규전에선 高地 후사면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전투에서는 전사면에 포진케 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敵의 화력을 무시하였고 관측병이나 사수들이 我軍의 進擊路를 바라보며 근접사격을 가하게 하였으며 VC들이 潰走하는 것을 직접관측하면서 포격케 하려는 의도에서 取한 조치였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본 작전의 목적이 추수에 있었던만큼 주민들이 경작한 양곡 전부를 거두어 들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70~80%정도 밖에 추수작업이 진척되지 않았는데도 추수가 다 끝났다고 하기에 의아하게 여기면서 만일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전투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렇게 남겨 놓아야 VC들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약탈과 橫暴가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 제 5 중대 제 3 소대장 金 鉉 소위

(1977년 10월 6일, 당시 소령)

첫날은 공격개시선에서 분대별 중대로 산개하여 통제선 “가”까지의 촌락을 탐색하였으나 VC의 저항이 없었는데 Hoa Hiep (2)에서 △366 사이를 누비며 탐색하던 제1분대가 도주하는 VC 1명을 추격끝에 사살하였다. 다음 날 통제선 “나”쪽에 VC 1개중대규모가 집결하였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공격명령을 받는 즉시 소대를 이끌고 전방 河川을 도하한 다음 Dong Trung (2) 東쪽까지 진출하였으나 北쪽을 우회한 제2소대가 밀림지대에서 저항을 받아 진출이 늦어진 탓으로 우리 소대 단독으로 공격케 되었다. 포격과 폭격을 퍼부은 연후였지만 중대규모의 VC을 상대로 “정글”속으로 공격해 들어간 건 처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오하고 소대를 휘몰아쳐 들어갔다. 그런데 目標 50m 앞까지 접근하여도 敵의 저항이 없었으며 다만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소총사격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때라고 판단하고 가용화력을 集中하며 목표에 突入하여 점령하고 四周방어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제1분대를 뽑아 그 일대의 탐색을 벌이게 하였는데 목표 左側方 50m 수림속에서 도주하는 VC 2명을 추격끝에 사살하였으며 古屋밑에 교묘하게 만든 “터널”식 동굴속에서 점심을 저어먹고 있는 VC용의자 6명도 사로잡았다.

16.00에 중대장의 命令에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였지만 여기에서 敵진지 3개소와 동굴 4개소를 폭파하고 白米 7ton을 소각하였다. 이 기회에 전우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용감하고 기민한 행동만이 전투에서 살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捷徑이며 이는 越南戰에서 실전을 通하여 얻은 교훈이다.

1개소대가 4개분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소대는 제1분대만이 잘 싸웠고 또 戰功을 올렸다. 그렇다고 다른 분대들은 전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싸움에 임하여 더구나 생소한 이역땅에서 異民族과의 전쟁터에서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敵과 부딪치면 죽이지 못하면 죽기 마련인 것이 전쟁이기도 하다. 제1분대가 가는 곳마다 전투에서 전과를 올리고 잘 싸운 것은 오직 분대장 孫鎬植 하사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기지와 용감성을 지녔기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정글”속을 탐색하다가 VC을 발견하면 정확한 판단과 민첩한 동작으로 분대원을 지휘하고 앞장서서 그를 뒤쫓아 사살하곤 하였다.

본 전투에서도 孫下士는 두차례나 單身으로 VC을 뒤쫓아 3명을 사살하였으며 이것이 이 전투에서 얻은 전과의 전부다. 유독 孫下士가 追躡하는 쪽에만 VC들이 있을리도 없고 또 孫下士의 눈에만 VC들이 보일 까닭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孫下士가 용감하고 민첩한데다가 판단이 빨라 나타난 VC은 한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성과를 거두게 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파월 기간중 孫하사는 그 戰功을 높이 평가받아 勳무, 화랑, 인헌 훈장을 차례로 받았지만 그 공로로 우리 소대도 중대로 잘 싸우는 중대로 높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

벌써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孫下士가 지금 무얼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지만 그 용감하고 기민했던 모습은 잊혀지지 않고 눈에 선하다. 많은 戰友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본 받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 9. Phu Lac 戰鬪 (1965년 11월 30일 부터 1965년 12월 2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 18 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제11중대	장 대위	李寅秀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申鉉銖	제 3 중대	장 대위	李元洋
(2) 參加部隊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金大憲
제 5 중대	장 대위	李權馥			

### 敵 軍

地方 VC, 2개 대대(단대호 未詳) 規模

### 나. 戰鬪 前의 概況

본 전투지역인 Phu Lac과 Kien My는 Binh Khe郡廳 소재지인 Khu Pho와 Con江의 교량을 사이에 두고 그 北쪽 1km에 있다. 이 지대의 北쪽은 VC의 본거지로 惡名 높은 Nui Ngang(山)—Hon Xong(山)—Nui Huu Giang(山) 등 600m에서 700m에 達하는 高地가 연이어 고원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열대성 특유의 식물들이 울창하여 視界와 행동에 제한을 주며 南, 東, 西 三面은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穀倉지대를 이루었다. 그리고 평야를 西쪽에서 東쪽으로 꿰뚫고 南支那海에 流入하는 Can 江은 南北으로 갈라진 支流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 많은 細流를 안고 얽혀 있다. 또한 Qui Nhon을 起點으로 하여 Con江의 연안을 끼고 Binh Khe를 경유 CAMBODIA에 이르는 제19번도로는 彼我兩軍에 對한 유일한 보급로를 이루고 있다.

본 전투지대내에 산재한 Kien My와 Phu Lac (1), (2), (3)은 戰略村으로서 越南민병대가 지키고 있으며 연대는 Con江 南쪽지대를 전술책임지대로 전개하고 있는 까닭에 이 지역은 VC의 遊動이 잦아 戰略村을 기습 또는 약탈하고 주민 납치등 그 橫暴가 날로 滋甚하였다. 더구나 본 전투가 실시될 무렵은 추수도 거의 끝나 식량조달을 위한 潛動이 日益 격심하여 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Kien My戰略村은 11월 30일 拂曉에 VC 1개중대 규모의 기습을 받았을 때에 방수에 임한 민병중대의 普防으로 이들을 일단 격퇴하였으나 退却하면 VC들이 후속부대를 증강하여 대대규모로써 強襲을 거듭하자 越南민병중대

는 衆寡不敵으로 이 전략촌을 그들의 手中에 넘겨주고 Con江을 도섭하여 Khu Pho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렇듯 Kien My를 失陷한 Binh Khe군수는 군정소재지인 Khu Pho도 위급에 處하게 되어 연대장 申鉉鍊 대령에게 이 전략촌의 탈환과 Phu Lac 일원의 VC를 殲滅하여 줄 것을 거듭 간청하였으며 연대는 이를 받아들여 본 전투를 계획 실시하게 되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연대는 11월 7일 現전술책임지대를 인수하고 중대 단위로 전술기지를 점령케하여 전면 방위에 注力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기지내의 진지와 교통호 및 개인호를 구축하는 동시에 四周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敵의 은밀한 접근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敵情을 수집분석한 결과 Nui Ngang(山) 일대에 據點을 둔 VC들이 Suoi Beo(江)연안에 우거진 灌木 사이를 뚫고 Con江 北쪽지대 Thuan Hoa와 An Chanh을 비롯한 村落에 潛滲한다는 것과, Nui Huu Giong(山)과 Hon Xang(山)에 본거지를 마련한 VC들이 Con江 상류의 東岸과 그에 接한 초원지대와 樹林地대를 뚫고 Binh Khe郡 일원에 潛動할 가능성이 길다고 판단을 내려 제2, 제3兩대대에 각각 1개중대씩 뽑아 전초진지를 구축하여 이에 대응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제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를 Suoi Beo(江) 하류 An Chanh 西쪽의 △83에 전초진지를 마련케 하였으며, 제3대대장 崔炳授 중령은 제11중대(장, 李寅秀 대위)를 Binh Khe 北東쪽의 Nui Hanh San(山)에 배치하여 예상되는 退路를 制扼케 하였다.

이렇듯 Con江 北쪽 양면에 2個중대로써 전진진지를 구축하여 일층 기지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11월 30일 拂曉를 期하여 VC 1개중대가 Kien My전략촌을 기습하였으며 계속 병력을 증강한 그들은 1개대대규모로써 거듭 強襲을 시도하자 여기를 防衛하던 越南민병중대(4개소대)는 이를 擊退하지 못하고 07.00에 該전략촌을 그들 手中에 넘겨주고 Con江을 도섭하여 Khu Pho(Binh Khe군청 소재지)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危急에 직면한 Binh Khe군수는 연대장 申鉉鍊 대령에게 동전략촌의 탈환과 Phu Lac 일대의 VC를 擊滅하여 달라고 거듭 간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수의 요청을 수락한 연대는 이를 공격할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적정 : 전투전의 개황 참조

2. 연대는 現임무를 수행하면서 Kien My에 침투한 VC을 擊滅하고 同진략촌을 탈환한 다음 Phu Lac 일대의 敵을 剿討하러 한다.
3. 제 2대대는 1개중대로써 Kien My를 공격 탈환하고 Phu Lac 일대의 VC을 殲滅하라.
4. 제 3대대는 1개중대를 Phu Lac(3) “A”江 西岸에 推進케 하여 遮斷토록 하라.
5. 공격전 지원사격은 없으며 포병지원은 현지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6. 공격개시 시간은 11월 30일 11.00이다.
7. 연대전술지휘소는 변동없다.』

위와 같은 작전명령을 받은 제 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Kien My 전략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지를 설정한 제 5중대로 하여금 공격토록 하였으며 제 3대대장 崔炳授 중령은 Nui Hanh San(山)에 배치한 제 11중대로써 차단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 (2) 戰鬪 實施

11월 30일(D일) : 이날은 비교적 청명한 날씨여서 기동에는 快適하였다. 그러나 공격 임무를 받은 제 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Kien My를 奪取한 敵情이라든가 Phu Lac 일대에서 遊動하는 VC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제 5중대에 공격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한편으로 연대 작전주임 李 孝 소령에게 敵況을 탐지하여 알려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런데 작전주임도 VC 1개대규모가 Kien My를 기습한 것과 그 곳을 防守하던 越南민병중대(4개소대)가 Khu Pho에 철수한 것 以外의 情況은 아는 길이 없었다. 이 때를 회상하여 작전주임 李 孝 소령은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당시 연대는 파월된지 얼마 안된 때라 진술지대내의 진지구축과 교통호 및 개인호 작업에 注力하느라고 대대나 중대는 담당 지대 以外의 적정이나 지형은 파악할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Kien My는 전략촌으로서 越南민병대가 방수하는 지역이라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를 失陷한 Binh Khe군수의 지원요청을 물리칠 수 없어 공격키로 하였는데 이때 越南민병대로부터 敵情과 地形을 소상히 淸취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針小樵大 격으로 과장하기 때문에 증잡을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의 병력손실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 1개중대로써 공격케 한 것이 작전계획상 오류를 범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그때의 실정으로서서는 抽出할만 한 兵力도 없었다. 지형과 상황을 아는 越南민병대와 연합작전을 맺더라면 손실도 적었고 戰鬪도 거두었을 것이지만 그들과의 연합작전은 마음 내키지 않았으며 그럴 여유도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거니와 대대는 이러한 가운데 불과 2시간의 여유를 두고 제 5중대를 뽑아 공격부대로 삼았으니 그 준비에 있어서 소홀한 점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제 3대대장 崔炳授 중령도 연대 작전명령에 따라 Nui Hanh Son(山)에 배치한 제 11중대를 뽑아 09.30에 현지를 출발시켜 12.00까지



Phu Lac(3) 東쪽 “A”江 연안에 進出한 다음 차단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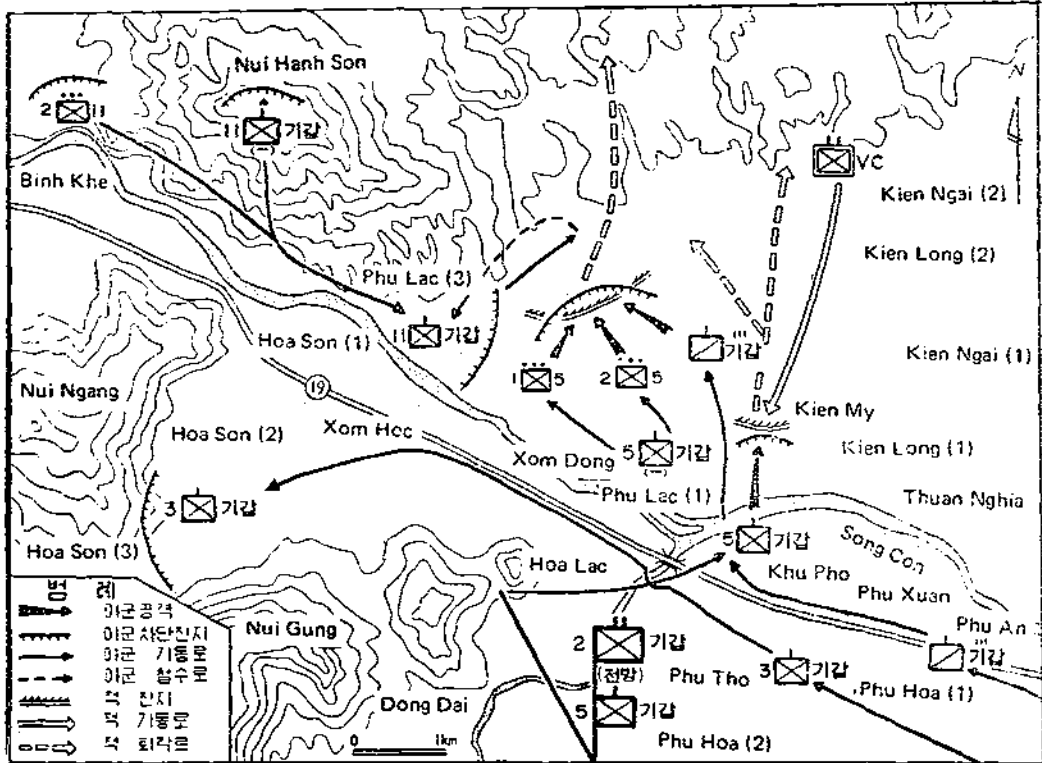
(가) 제 5 중대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Hoa Hiep 일원의 주민 추수보호를 위한 3일간  
의 전투를 치르고 기지로 복귀하여 방어진지 구축에 專力하고 있었는데 이날 08.30에 공격  
명령을 받고 각소대를 집결시켜 전투준비를 갖춘 다음 09.30를 期하여 도보로 기지를 출발  
Khu Pho 北쪽 Con江邊에 進出하였을 때에는 이미 해도 中天에 떠오른 11.00였다. 34°C~  
35°C를 헤아리는 찌는듯한 暴陽속을 헤치며 이 곳까지 달려온 중대는 단숨에 江을 뛰어넘고  
싶었지만 對岸에 키를 넘는 淸木들이 깔려 敵兵의 매복이 安성마춤인데다가 江幅이  
200m를 넘어 假橋를 이용하다가는 필시 그들의 狙擊을 면치 못하리라고 판단한 중대장 李  
權馥 대위는 병력을 沿岸에 산개한 연후에 제 1 소대에서 1개분대를 抽出하여 假橋 상류쪽  
의 水深이 얇은 곳을 택하여 도십케 하였다. 제 1 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소대원중에서 수영  
에 자신 있는 사병 5명을 뽑아 제 2 분대장 朴康夫 하사로 하여금 이들을 이끌고 渡江토록  
하였다.

그런데 江幅에 비하여 수심이 얇아 도십하기에는 비교적 용이하였다.

이리하여 손쉽게 Con江을 건너 朴康夫 하사는 沿岸 일대의 관목속을 헤치면서 탐색하였  
으나 그들이 埋伏한 흔적이 없어 무전으로 이상 없음을 알리자 중대主力은 假橋를 건너  
Kien My南쪽 100m에 산개한 다음 제 1 소대로 하여금 同진락촌의 東쪽을 迂回하여 敵情을  
偵察케 하였다. 이 때에 제 1 소대는 同마을 東쪽 30m까지 접근하여 마을 등정을 살피보았  
으나 人跡이 엿보이지 않았다. 이에 소대장은 VC들이 전락촌내의 交通호에 潜伏하였으리  
라고 추단하고 우선 부락 東쪽끝 외딴집 세채를 포위하고 수색한 결과 용의자인듯한 민간인  
3명을 검색하여 신문하였던 바, 그들 진술에 따르면 『VC 30餘名이 이날 07.00에 侵入하여 식량  
을 비롯한 여러가지 물자를 擄奪한 다음 10명의 淸년들을 납치하여 北쪽으로 逃走하였다.』라고 하  
였다.

李崑洙 소위는 이러한 상황을 중대장에게 보고한 연후에 마을을 살살이 뒤졌으나 敵  
影을 찾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Kien My 전락촌을 11.30에 점령한 중대는 여기에서 隊伍  
를 가다듬고 12.30에 Phu Lac(2)에 對한 공격에 나섰다. 이 때 중대는 제 1 소대를 西쪽으로  
迂回 挾擊케 하고 제 2 소대로 하여금 Kien My에서 直衝토록 하였으며 제 3 소대를 예비로  
후속케 하여 V字대형으로 進擊하였다. 그리고 화기소대에서 57mm 두반동총 1정과, 경기  
관총 1개반을 뽑아 제 2 소대에 배속시켜 화력을 增強하였다. 그런데 제 2 소대가 전진하는  
지대는 끝없이 펼쳐진 水畚으로서 이미 추수가 끝나 차폐물 하나 없는 허허 벌판이었으며

狀況圖 제18호 Phu Lac 戰鬪



다만 가로, 세로의 논둑이 얽혀져 敵의 사격을 막을 수 있는唯一한 은폐물이었지만 露出된 상태로 전진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進擊路에서 소대는 평범한 행군대형인 중대로 水畚 사이의 小路를 따라 前進하여 Phu Lac(2) 80m 앞까지 접근하자 朴晟煥 소위는 소대를 산개하여 공격준비를 갖추면서 敵情을 탐지하려고 막 호령을 내리려는 찰나, 이마을 東쪽에서 느닷없이 기관총탄환이 비오듯 쏟아져 창졸간에 사병 2명이 戰死하고 8명이 負傷을 입었다.

이와같이 不時에 기습을 받은 소대는 논둑에 산개하였으나 기관총과 함께 쏘대는 소총화력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소대는 그야말로 進退兩難의 境地에 물리고 말았다. 이렇듯 危局에 직면한 소대는 가용한 火力을 集注하면서 57mm 무반동총으로 敵의 기관총진지를 擊破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설치한 기관총진지가 견고하여 좀처럼 擊破되지 않고 더욱 鐵火를 뿜어댔다. 이에 소대장 朴晟煥 소위는 이 狀況을 보고하고 포병 및 항공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 이때 실전을 지휘한 朴晟煥 소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되 『Kien My를 無血점령하였기 때문에 Phu Lac(2)에 殘敵이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병력일 것으로 추단하고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더구나 視界를 가로막는 遮蔽物 하나 없는 논둑이라 논둑 小路를 따라 마음 놓고 前進하다가 Phu Lac(2) 앞 80m 지점에서 높음이 은닉설치한 기관총에 걸려 뜻밖에 손실을 보게 되었다.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앞뒤에서 쓰러지고 그 아우성치는 비명소리는 지금 생각만 하여도 毛骨이 竦然하다. 그때 바로 옆에 눈썹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이 눈썹에 의지하여 마구 쏘아대는 총탄을 피하면서 응사하였고 부상병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들의 火力으로 미루어 보아 1개 중대 이상의 VC들이 그곳에 미리 마련한 진지와 교통호에서 소대가 前進하여 다가가는 것을 바라보다가 산개하려는 순간을 노려 일제히 사격을 추가하였을 것이다.

소대는 이미 배속받은 57mm 무반동총과 기관총으로 그들의 진지를 擊破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극도로 사기가 저하된 사병으로서의 전투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상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增援을 요청하였다.』라고 밝혔으며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제 2소대와 300m 거리를 두고 뒤따라다가 敵의 기관총에 걸려 제 2소대의 공격이 頓挫된 것을 바라보고 即時 제 3소대를 투입할 결심을 세웠으나 그때 敵의 火力으로 보아 중대 이상의 병력으로 추산되었으며 Phu Lac(2)는 전략촌으로서 VC의 潛入을 막기 爲한 방어진지와 마을내부에 중형으로 교통호가 마련된 곳이어서 이를 逆으로 이용하는 그들을 무모하게 공격한다면 오히려 손실만을 自招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우선 포격과 함공폭격을 하여 紛雜한 연후에 쳐들어가기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여하튼 중대장의 요청에 따라 15분후부터 포병 제61대대 제 2, 제 3 兩포대는 포격을 퍼붓기 시작하였으며 14.30부터 美전폭기 2대가 Phu Lac(2) 상공을 누비며 猛爆하였다. 이와 같이 포격과 폭격이 계속되는 사이에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여러차례 사격연신을 요청하고 Phu Lac(1)쪽을 迂回한 제 1소대와 挾擊코자 할 즈음이던 美전폭기가 다시 날아와 폭격을 추가한 하여 중대장이 시도한 돌격은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지원부대로 急遽 증원된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가 16.00에 중대 右側에 進出하였으며 美전폭기의 폭격도 멎어 중대는 연대수색중대와 병행하여 同마을에 突入하였는데 이 때에는 VC들이 我軍의 포격과 폭격을 견디다 못하여 潰散한 뒤였으므로 저항없이 墜降하였으니 이 때가 16.30이었다.

이리하여 이곳을 奪還한 중대는 마을을 수색하여 용의자 17명을 색출하여 압송하였으며 CAR소총 1정과 실탄 30발, 그리고 수류탄 4발을 노획하고 동부락 西쪽지대를 탐색하다가 눈썹에 가설된 “부비트랩” 3개소와 독립가옥 밑에 교묘하게 부설한 동굴 2개소를 焚破한 연후에 18.00를 期하여 Phu Lac(1)로 물러나 야간 경계로 移行하였다.

(나) 이날 戰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申鉉鍊 대령은 제 5중대의 공격이 좌절되었다는 보고를 接하고 즉시 연대수색중대를 急進시켜 이를 赴援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수색중대는 연대전술지휘소 후방에 집결하여 13.00에 차량편으로 출발하여 Khu Pho를 거쳐 14.00에 Con江岸에 도착하였으며 여기에서부터 도보로 假橋를 건너 Kien My西쪽 水田 사이의 小路를 따라 계속 進出하였다. 그리하여 16.00에 Phu Lac(2) 南쪽

제 5 중대 右側方에 도착한 중대는 그곳에서 대오를 가다듬은 연후에 제 1 소대를 右一線으로 삼고 제 2 소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제 5 중대와 併行 공격키로 하였다. 이무렵 14.30부터 1시간 30분 동안 Phu Lac 일대를 強打하던 美전폭기의 폭격도 끝나 一舉에 穿貫突入하여 該부락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抗拒하던 VC들은 폭격을 避하여 遁走한듯 곳곳에는 그들이 흘린 피의 흔적만이 눈에 띄일 뿐 遺棄屍體 하나 찾지 못하였다. 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VC들이 필시 Nui Ngang(山)쪽으로 潰退하였으리라고 내다보고 제 1 소대(장, 徐完秀 소위)로 하여금 이를 추격토록 하고 제 2 소대(장, 金茂雄 소위)로써 北東쪽 초원지대를 탐색케 하였다.

이윽 따라 追擊에 나선 제 1 소대는 제 1, 제 2, 제 3 분대를 산개하고 화기분대는 소대장과 함께 후속하여 Nui Ngang(山)쪽을 지향하여 躍進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소대가 “정글” 지대 앞까지 탐색을 벌이면서 다가갔는데 이무렵 Nui Ngang(山) 南端에서 VC들이 산발적으로 소총과 기관총 사격을 加하여 진로를 遮斷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소대는 60mm 박격포 3門으로 그들을 제압하면서 “정글”속에 뛰어들어 樹林속을 헤치고 전진하다가 불과 10m도 못가서 喬木 밑에 설치한 “부비트랩”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계속 追擊을 강행코자 하였으나 하늘을 치솟는 巨木과 엉클진 나무들이 얽혀져 寸步를 옮기기 어려웠으며 翻陽도 이미 西山마루에 걸터 수림속은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하였으므로 더 以上 쫓지 못하고 말았다.

한편 제 2 소대(장, 金茂雄 소위)는 草原지대 탐색에서 “부비트랩” 장애물지대 5개소를 파괴하고 용의자 13명을 색출하여 압송한 다음 18.30를 期하여 제 1 소대와 함께 Kien My로 되돌아가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이 Kien My는 이날 未明에 VC들이 侵襲하였다가 潰退한 곳인지라 夜哨를 이용한 그들의 再襲이 예상되므로 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항공지원을 얻어 間歇적으로 용의지역에 조명탄을 투하토록 하여 制扼하였는데 深夜를 틈타 그들은 산발적으로 소총사격을 加하면서 침투를 노리기도 하였으나 중대는 位置의 露出을 우려하여 이에 응사하지 않고 다만 60mm 및 81mm 박격포의 조명탄으로 이를 견제하였다.

연대 수색중대 제 1 소대장 徐完秀 소위는 그 證言에서 이르기를 『1개대대규모의 VC이 기습 탈취하였던 곳이라 夜哨를 틈타 반드시 奇襲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야간경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要所마다 兵力을 埋伏하고 항공지원을 받아 조명탄을 투하폭파시켜 그들을 견제하였는데 子正 무렵부터 놈들이 산발적으로 소총사격을 加하므로 긴장상태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우리는 위치 탄토를 염려

하여 응사하지 않고 60mm 박격포로 조명탄을 발사하여 위협을 주기만 하였다.』라고 하였다.

(다) 제11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제 1 소대(장, 徐龍源 중위)를 Binh Khe 北東쪽 Nui Honh Son(山) 南麓에 배치하고 제 2 소대(장, 金連泰 소위)를 Huu Giang(1) 北西쪽 Con江 연안에 推進하여 山岳지대와 Con江 연안 灌木 사이를 뚫고 潛入하는 VC를 要扼하다가 이날 작전명령에 따라 기동준비를 갖추고 09.30에 현지를 출발하여 Con江을 끼고 소로를 따라 Phu Lac(3)을 거쳐 12.00까지 “A”江 하류 西岸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同江 하류에서부터 Phu Lac(3)에 이르는 線에 각소대를 산개하여 차단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 5 중대의 공격이 저지되어 포병제61대대의 제 2, 제 3 兩포대의 지원사격이 熾烈할 무렵인 12.30에 Phu Lac(2)에서 항거하던 VC들이 砲火에 밀려 뿔뿔이 흩어져 北上 潰走하는 것을 “A”江 越便에서 肉眼으로 바라보면서도 江을 도섭하여 이를 直衝하지 못하고 다만 81mm 및 60mm 박격포만 퍼부었다. 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증언에서 말하되 『중대가 “A”江 연안에 도착하자마자 Phu Lac(2)쪽에서 退却하는 VC를 목격하고 곧 “A”江을 건너 그를 추격하려고 하였지만 거리가 멀어 渡江하는 사이에 그들이 北쪽 密林지대로 遁避하여 증적을 찾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림속에서 저격을 加한다면 지형이 불리한 우리는 손실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追擊을 단념한 다음 박격포격을 集注하여 北走를 저지하였다. 결국 VC들은 北上진로가 차단되어 Phu Lac(2)쪽으로 되돌아 도망쳤다.』라고 밝힌 바 있지만 여하튼 제11중대의 차단은 그 첫 출발부터 效果面에서 볼 때 無爲로 끝나고 만셈이다.

이어 14.30부터 美전폭기 2대가 번갈아가며 猛爆을 계속한 1시간 30분 동안에 중대는 “A”江을 도섭하여 그들을 포착 격돌하지 않고 박격포격을 加하는 것으로 그쳐 VC들이 손쉽게 退散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대작전주임 李 喆 소령은 그의 證言에서 말하되 『본 전투에서 제11중대를 공격대대인 제 2 대대에 배속하지 않고 “A”江 下流에서 차단입무만 수행토록 함으로써 戰場과악이 어려웠을 것이며 제 3 대대장이 기지에서 연대장의 지시를 받아 중대를 지휘해야 하는 지휘 절차상의 결함이 차단부대로서의 效能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다음으로 敵과 接觸하였을 때에 과감하게 制획을 변경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하려는 하급지휘관의 판단력과 주동적 태세가 확립되지 못한데도 그 失敗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 중대를 지휘한 李寅秀 대위는 證言하되 『본 전투가 끝난 뒤에 중대의 차단입무수행은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대로서는 작전명령에 따라 지시된 장소에서 차단을 계속하였다. 戰況의 推移에 따른 적절한 지시명령이 없었으며 공격부대에 배속되지 않은 탓으로 공격중대와 연계가 안되고 戰況과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였다.

그 뒤에 중대는 제 5 중대와 연대수색중대가 Phu Lac(2)를 점령한 다음에야 대대장 명령

에 依하여 “A”江을 도섭하고 Phu Lac(2) 北쪽 村落을 탐색하였으나 이미 VC들이 퇴각한 후이어서 그들이 설치하고 간 “부비트랩” 3個所를 제거하고 용의자 15명을 체포하여 압송하였으며 日沒이 가까워지자 다시 “A”江을 건너 원위치로 복귀하여 야간경계에 임하였다.

(라) 이렇듯 Phu Lac(2)에서의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즈음인 15.00에 Binh Khe군 수로부터 Hoa Hiep(2) 北西쪽 500m 떨어진 樹林地대(제 5 중대 전술책임지대 西쪽)에 VC 1개대대 규모가 출현하였다는 첩보에 따라 연대장 申鉉錄 대령은 제 1 대대에 1개 중대로써 該지대에 潛入한 VC을 剿討케 하였던 바, 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예비로 控置한 제 3 중대로 하여금 이를 공격케 하였다. 이에 따라 기동준비를 갖춘 제 3 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15.30에 차량편으로 현지(대대전술 지휘소 : An Thanh(3))을 출발하여 16.30에 Hoa Hiep(3)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Hoa Hiep 일대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추수보호를 위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어서 VC의 潛入과 退路에 대한 지형판단이 쉬운 곳이다.

그러므로 이 지대에서 潛動하는 그들은 Dong Tre江을 도하하지 않는 限 전술지대내로 潛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北쪽으로 退却할 수도 없는 곳이다. 이에 중대는 Hoa Hiep(3) 北쪽 無名高地에 進出하여 각소대를 산개하고 박격포를 同高地 후사면에 布陣하여 예상되는 侵入路와 退路를 制扼하였다. 그러나 VC들은 이러한 중대의 속셈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이 日沒時까지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아 중대는 야간경계로 移行하여 일층 경계를 강화하였다.

**12월 1일~2일(D+1~D+2) :** 전날 Phu Lac 일대의 VC을 擊退한 3개중대는 이날도 該지대의 탐색을 계속하였다. 특히 중대와 중대가 탐색지대를 서로 교차하면서 누비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밀탐색을 벌였으나 접적이 없었다.

(가) 제 5 중대는 前夜에 Phu Lac(1)에서 철야하다가 이날 08.00부터 Phu Lac(2)로 轉進하여 同마을 北쪽지대를 연대수색중대와 교차탐색을 벌여 가옥 밑에 교묘하게 만든 동굴 2개소를 격파하고 용의자 7명을 압송하였을 뿐 접적을 보지 못한채 17.00에 Kien My로 되돌아가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그런데 이곳은 간밤 연대수색중대가 경계에 임할 때도 深夜에 VC들이 산발적으로 소총사격을 加하고 침습을 꾀한데여서 경계에 專力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要所에 박격포로 조명탄을 間歇的으로 발사하고 주변 侵入路에 兵力을 埋伏시켜 밤을 지새웠는데 VC들의 조짐은 없었다.

중대는 翌日(12월 2일 D+2)에도 계속하여 該전략촌을 扼守하다가 17.00에 기지로 복

귀함으로써 본 전투의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나) 연대수색중대는 Kien My에서 철야 要扼하다가 이날(D+1) 08.00에 Phu Lac(2) 北東쪽으로 轉進하여 제 5 중대와 교차탐색을 벌여 용의자 3명을 검색하고 동굴 5개소를 파괴한 다음 17.00를 期하여 원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A”江 沿岸에서 宿營하면서 차단하던 제11중대도 이날 08.00에 “A”江을 도섭하여 Phu Lac(2) 北西쪽 일대를 탐색하였으나 接敵을 보지 못한 가운데 용의자 3명을 俘獲하고 동굴과 “부비트랩”을 색출한 다음 17.00에 기지로 돌아갔다.

(다) 제 3 중대는 前夜 Hoa Hiep(3) 北쪽 無名高地에서 Dong Tre江을 사이에 두고 그 西쪽 수림지대에 거점을 마련한 VC과 對峙하다가 그들이 渡江을 기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안 일대를 차단하는 동시에 北上潰走할 수 있는 길목을 제압하면서 밤을 지새웠으나 이날 未明까지 산발적으로 소총사격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이날도 중대는 該高地에서 박격포격을 加하여 그들을 견제하였는데 해가 기울 무렵까지 兆朕이 없으므로 필시 VC들이 밀림 사이를 뚫고 本據地인 西쪽 Nui Dong Tre (山)과 Hon Giae(山)으로 退却한 것이리라고 推斷하고 18.00에 同高地에서 기지로 복귀하였다.

#### 다. 戰鬪 後의 概況

본 전투는 Binh Khe군수의 요청을 풀리칠 수 없어 不得已 전개한 것으로서 Kien My와 Phu Lac 일대의 VC를 擊破하여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연대로서는 派越이래 병력손실을 가장 많이 본 전투이었다. 더구나 2명의 전사자와 11명의 전상자를 내면서도 실지 전투에서는 VC 1명도 사살하지 못하고 용의자만 52명을 체포하는 것으로 그쳤다.

該전투지대에 있어서도 연대가 복귀한 다음 越南민병대가 다시 防衛에 임하게 되자 Nui Ngong(山)과 Nui Huu Giang(山)에 본거지를 둔 VC들이 「先打一分散」의 전법을 常用하여 이 지역을 계속 노리므로 Con江을 사이에 둔 Binh Khe군청 소재지인 Khu Pho가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에 越南側에서는 韓國軍이 該지대를 전담하여 그들을 擊破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연대로서도 이 지역은 전술지휘소와는 5km 밖에 안되는 곳에 있으므로 不安을 면치 못하는데다가 제 6 중대를 An Chanh 西쪽 △83에 推進하여 전초진지를 구축한 상황하에서는 該지대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인수키로 하고 于先 연대수색중대로 하여금 要扼케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제 1 소대(장, 徐完秀 소위)를 Kien My에 배치함으로써 向後 該지역은 비교적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이무렵 인접 제 1연대(장, 金瑛雲 대령)는 「Luat Chanh전투」(12, 4~5)를 벌여 8명을 사살하고 4명을 俘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유기시체	부	회		회		전 사	전 상
	포	로	용의자	칼빈소총	칼빈실탄		
31	5	52	1	30	4	2	11

※ 遺棄屍體 31具는 전투상보에 記載된 것을 轉載하였는데 포격 및 폭격의 추정임.

※ 捕虜 5명은 용의자 중에서 判別한 것임.

### § 戰 訓

#### 警戒와 掩護

本 전투에서 제 5중대 제 2소대는 Phu Lac(2) 80m 앞까지 충분한 경계와 엄호대책 없이 중대로 진출하다가 적의 기관총 집중사격을 받아 2명이 전사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손실을 보았다.

접적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는 최대한의 분산과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전술의 기본원칙을 違背한데서 입은 손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전투출동 裝備裝具點檢表(체크리스트) 作成비치

이번 전투시 긴급출동함으로써 예비 “뱃터리” 를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개시 2시간후부터 무전교신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각개 병사들은 수류 2개씩 휴대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행하

지 않은 병사들이 있었다. 중대장은 전투출동시 준비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반드시 작성 비치하여 만전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 指揮官의 果敢한 決斷力과 判斷力

本 전투에서 차단임무를 띤 제11중대는 VC들이 포격과 폭격에 쫓겨 逃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를 포착 殲滅하려 하지 않고 작전명령상

지시된 江 越便에서 박격포로 退路를 차단코자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기갑연대 작전주임 李 孝 소령

(1977년 11월 7일 高麗大學 학도군사훈련단장실에서, 당시 대령)

派越된지 얼마 안된 연대로서는 廣範한 전술지대의 진지공사 및 교통호 굴착작업에 힘을 기우릴 때라 本 전투에 투입할 병력이 없는 실정이었지만 越南側 요청을 물리칠 수 없어 전개키로 하였으며 Kien My를 防守하던 越南民兵중대의 提報로는 VC 1개대대규모라고 하였지만 신빙성이 없었고 先打後分散의 전법을 상용하는 “게릴라”의 方式으로 보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1개중대로서 수색을 벌이게 하고 1개중대로서 遮斷키로 하였는데 제 5 중대가 Phu Lac(2)로 向하여 進出하다가 그들의 기관총 사격을 받아 공격이 좌절되고 증원을 요청하므로 연대수색중대를 赴援케 하고 포와 항공지원을 받아 그 일대를 강타케 하여 공격토록 하였다.

목적이 계속될 무렵 北上 潰退하는 VC을 차단부대인 제11중대가 捕捉 격멸하였어야 할 터인데 派越後 처음으로 揆數하게 된 同 중대는 경험 부족으로 과감하게 이를 選擊하지 못하고 “A”江 越領에서 박격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그쳐 이들의 도주를 가능케 하였다. 물론 제11중대와의 거리가 멀었고 도강해야 하는 어려운 點들이 있었던 것으로서 초기에 있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보지만 현지지휘관이 전환 推移에 따른 정확한 판단과 과감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하였다면 많은 전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여하튼 이 전투는 심의회에서도 실패한 전투로 論難이 많았으나 이를 거울삼아 차후전투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 제5중대장 李 權 馥 대위

(77년 10월 21일 특전사 제5공수여단에서, 당시 대령)

11월 30일 Kien My戰略村이 VC 1개대대규모의 기습을 받아 失陷되자 이를 공격탈환하라는 작명을 09.00 가까워서 받았으며 09.30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하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기지에 배치한 각소대를 집결시켜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라고는 30분 밖에 없어 敵情이나 地形에 對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出戰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웃은 이야기이다.

이때에 준비의 소총로 무전기 예비 “밧테리”도 휴대하지 못하여 2시간 뒤부터는 交信을 못하였으니 어처구니 없었다. 다행히도 Kien My를 復

襲한 VC들이 물자를 掠奪하여 가지고 退走한 다음이라 銃 한 방 안쏘고 점령하였지만 Phu Lac(2)를 공격하던 제 2 소대가 80m 앞 논밭에서 기관총의 집중사격을 받아 사병 2명이 戰死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눈 앞이 캄캄하였다. 그 때에 눈독만 열에 없었더라면 소대는 전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듯 進退兩難의 위기에 처하여 가용한 火力을 집중 응사하였는데 VC들은 전락촌의 진지를 이용하여 각종 소총까지 쏘았는데 그 火力으로 미루어보아 1개중대는 닦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에 비소대를 投入하여 超越공격을 감행하려던 계획을 留保하고 포 및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증원부대를 긴급요청하였다. 포격과 폭격이炸裂할 때 사정연진을 요청하고 Phu Lac(1)쪽을 迂回한 제 1 소대와 함께 突擊을 決行코자 할 즈음이면 전폭기가 번갈아 상공에서 폭격을 加하곤 하여 몇차례의 시도도 모두 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연대수색중대가 증원된 다음 폭격이 끝

나 병행공격하여 突入하였는데 이 때에는 VC들이 潰散한 연후이므로 한놈도 사살하지 못하였다.

特記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급을 요하는 전투라 할지라도 전투부대가 공격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며 敵情이나 지형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라리 전투를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제 5 중대 제 2 소대장 朴 晟 煥 소위

(1978년 1월 25일 제 35사단 제 103연대에서, 당시 중령)

이 戰鬪는 사전계획에 依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Kien My가 VC의 奇襲으로 失陷되자 당시 Binh Khe 郡守의 要請에 따라 갑자기 전개하게 되어 敵情이나 지형도 전혀 파악 못하고 전투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격에 나설 때부터 不安한 상태이었는데 막상 Kien My를 接敵없이 탈환하고 보니 이전 아무것도 아니라는 안도감에 사로 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만심에서 Phu Lac(2)를 공격할 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1개분대 엄호로 증대로 쳐들어가다가 同마을 80m앞에서 VC의 집중사격을 받아 2명이 戰死하고 8명이 負傷을 입었다. 나는 이 위급한 상황을 중대장에게

보고하려고 눈뚱 뒤에 은신한 無懼兵쪽으로 달려 갔는데 이 때 무전병이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하고 외쳤다. 나는 무의식중에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무전병쪽을 바라보는 순간 敵의 火力이 集中되어 무전기는 박살나고 무전병도 치명상을 입고 후송도중에 이덕땅에서 숨졌다

10유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가끔 그때를 回想할 때마다 그 위급을 견겨주고 유명을 달린 그 戰友를 애뜻하게 그리곤 한다. 자기만 눈뚱 뒤에 숨으면 생명의 위험은 안 받는다. 그러나 소대장을 살리려고 위험을 알리고 가버린 그 숭고한 전우애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 參戰者의 略歷

### 제 1 기갑연대 제 5 중대장 李 權 馥 대위

1937년 4월 15일 : 서울 龍山 출생  
漢城고등학교 졸업  
陸士 16期 수료  
1965년 9월 6일 : 제 1기갑연대 제 5중대장  
1968년 8월 26일 : 제 5사단 제 36연대 작전주임

1971년 11월 6일 : 제 3사단 제 23연대 제 2대 대장  
1973년 7월 7일 : 陸軍大學 교관  
1977년 5월 1일 : 제 5공수여단 부여 단장

# 第 7 章

## 第 2 作戰期

### 要 旨

1. Luat Chanh 戰鬥
2. 淸龍 3號 戰鬥
3. 青龍 1號 作戰
4. 前進 1,2,3號 戰鬥
5. 飛虎 1號 戰鬥
6. 飛虎 2號 戰鬥
7. 飛虎 3號 戰鬥
8. 飛虎 5號 作戰
9. 飛虎 6號 戰鬥
10. But 溪谷 奇襲戰
11. 在求 1號 戰鬥
12. 奔龍 2號 作戰
13. 在求 2號 戰鬥
14. 花郎 2號 戰鬥
15. Nam Tang 奇襲戰
16. 번개 65—3號 作戰
17. Nui Hoc Khe(山) 埋伏戰
18. Hoa Son (3) 戰鬥
19. 猛虎 5號 作戰



## 第 7 章 第 2 作戰期

### 要 旨

이 期에는 65년 12월 1일부터 66년 3월 31일까지 展開한 전투와 작전이 포함된다.

軍司令官은 이 期로 轉移할때 그의 作戰方針을 闡明하기를 『敵으로 하여금 我軍이 어떠한 方法으로 나올까 判斷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에게 守勢를 強要하라』고 적극적인 攻勢를 強調하였다.

이에 따라 首都사단은 전술責任 지역을 東으로 Qui Nhon半島로부터 西로 Binh Khe郡의 Throung Giang(3) 일대까지 그리고 南쪽 Cu Mong고개로 부터 北쪽 Song Am Phu(江)까지의 1,200 km<sup>2</sup>를 安定시키는 한편 Go Boi平野로 銳鋒을 돌려 VC支配下의 200km<sup>2</sup>를 收復하였다.

제 1연대는 韓·美·越연합작전의 一環으로 증강된 1개대대를 Phu Cat 및 Phu My兩郡에 投入하여 VC사살 285명과 “로케트”砲 및 기관총등을 노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在球村」을 건설하여 피난민들에게 安穩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盟邦을 위한 博愛精神을 具現하였다. 또한 연대는 「飛虎 1, 2, 3, 5호 작전」을 전개하여 VC 56명을 사살하고 Song Go Cham(江)以南지역을 收復하였으며 특히 「미호 6호전투」에서는 돌격전법을 감행하여 VC 196명을 사살하고 기관총을 포함한 소총 38정을 노획함으로써 VC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는 반면 사단장병들에게 必勝의 信念을 가능하게 하였다.

제 1기감연대는 「前進 1, 2, 3호 전투」로 지방 VC 26명을 사살하였으며 「화랑 2호 전투」때에는 1개중대가 대대규모의 敵과 交戰하여 VC 12명을

사살한 반면 6명이 戰死하고 22명이 부상하는 苦戰을 치루기도 하였다. 이에 연대는 즉시 「번개 66~3호 작전」을 다시 展開하여 VC 106명을 사살하고 33명을 捕虜하였으며 “로케트”砲와 개인 화기등을 노획함으로써 전술책임지역 內의 VC을 몰아내고 지역을 安定시켰다.

이러한 大小전투에서 戰技를 닦아 自信을 갖게 된 사단은 Binh Dinh省 VC의 根據地인 Phu Cat 山岳지대를 攻略할 前哨戰으로서 Go Boi平野를 確保하기 위하여 사단규모인 「명호 5호 작전」을 展開하였다. 즉, 사단의 北쪽 지경선이 구획된 Song Dai An(江) 일대와 그 北쪽의 Phu Cat山岳지대 入口인 My Thuan溪谷까지 進격하여 敵을 深山幽谷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重要 食糧供給源을 차단하였다. 이 작전의 결과는 VC 331명을 사살하고 287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박격포를 비롯한 화기 29정을 노획하였다. 특히 作戰地域 內에서는 2,000여명의 住民이 越南행정부의 勸誘구역으로 피난함으로써 VC의 影響力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立證하였다. 本是 이 作戰은 責任지역을 확장한 것이므로 「第 3 作戰期」에 속하지만 3月中에 展開되었으므로 여기에 수록하였다.

한편 해병 제 2여단은 美제 1야전사령부 計劃의 一環으로 Tuy Hoa로 移動하여 「청룡 1.2호 작전」을 展開한 결과 VC사살 668명과 포로 34명 그리고 “로케트”砲 3문을 비롯하여 각종화기 47정을 노획하였으나 我軍도 전사 71명과 전상 188명의 損失이 있었다.

# 1. Luat Chanh 戰鬪 (1965년 12월 4일 부터 1965년 12월 5일 까지)

참조 : 상황도 : 제 19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敵 軍	
(1) 統制部隊			포병제 60대대
제 1 연대 장 대령 金 斑 雲		제 3 포대 장 대위 韓 濟 龍	
(2) 參加部隊			포병제 628대대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제 3 포대 장 대위 金 鍾 鎬	
제 6 중대 장 대위 丁 萬 吉			
敵 軍		地方 VC	

## 나. 戰鬪 前의 概況

軍事上 주요병참선인 제1, 제19, 제441번의 3개 道路의 分岐點을 중심으로 散在된 Luat Chanh—Luc Le—Dai Loc—Binh Lam 일대에서 嚴梁하는 敵은 비교적 잘 훈련된 VC으로서 그의 兵力은 2개중대규모로 추산되었다. 그들은 我軍이 확보한 기지를 據點으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며 적극적인 攻勢단계로 전환하자 劣勢를 감추려는 듯 안간힘을 다하여 발악적인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즉 그들은 “제 밀러”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我軍기지에 대한 擾亂사격을 비롯하여 제1, 제19번의 兩道路를 운행하는 보급수송차량을 기습하고 道路 및 橋梁의 파괴와 住民의 재산을 약탈하는등 夜盜의 行脚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뿐만아니라 12월에 들어서자 聖誕節을 前後하여 전국적인 攻勢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地域에서도 그들의 挑發 징후가 高潮되었다. 이에 연대장 金斑雲 대령은該지역이 제1대대 책임지역이므로 同 대대로 하여금 이 전투를 遂行케 하는것이 마땅하겠으나 任務가 過重하여 부득이 제2대대로 하여금 제1, 제19번 道路 分岐點에서 流動하는 徒黨들을 先制로서 剿討키로 하였다.

작전지역은 無數한 마을과 田畠이 펼쳐진 平野지대인데 敵은 이지역에 발판을 마련하고 “제 밀러”의 보급 및 인적자원을 보충하고 아울러 情報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방어전성은 대부분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계획된 작전중 90% 이상이 마을과 平野에서 전개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行動의 근원을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넉넉히 알수 있다. 따라서 我軍의 接近을 눈치 채면 곧 住民들 속에 潛跡하므로 索敵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특히 Luat Chanh 주위는 개발하여 我軍의 機動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제 2대대는 제 1 단계 작전기간중 戰術책임지역을 확보하여 지형의 숙달과 敵情 파악에 努力하였으나 제 2 단계로 전환하면서 부터는 이미 편성된 기지를 據點으로 삼고 그 범위를 넓혀가며 我軍의 軍事시설을 위협하려는 敵을 과감히 剿討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方針을 세운 대대장 李弼朝중령은 Cu Mong고개의 扼守에 중점을 두고 부대지휘에 專日이 없던차에 연대장 金珽雲 대령으로부터 제 1 및 제 19번의 兩道路의 分岐點에서 流動하는 敵을 擊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이 지역이 제 1 대대의 책임지역이므로 생소한 地帶인데다가 敵情 또한 모연하므로 우선 제 1 대대장을 방문하여 地形 및 敵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該지역에 대한 圖上연구 및 지형을 분석하는 한편 偵察隊를 은밀히 投入하여 VC의 動靜을 探知하는데 努力한 결과 마침내 VC 2개분대규모가 Luat Chanh에 滲入하여 兇計를 꾸미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 一黨을 打撃할 妙策을 강구한 끝에 결심한 것은 夜間공격으로 기습키로 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 『1. Luat Chanh—Dai Loc 일대에 潛伏하면서 流動하는 敵은 我軍에 관한 情報를 探知하면서 지역내의 주요군사시설 및 제 1, 제 19번 兩道路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2. 연대전투지원중대의 106mm무반동총, M55대공포, 4.2" 중박격포 각 1개반이 12월 3일 02.00附로 대대에 配屬된다.
3. 전투간 포병제 60대대 및 同제 628대대에서 各1개포대가 砲대를 직접지원한다.
4. 대대는 現임무를 수행하면서 12월 14일 부터 15일 까지 Luat Chanh—Dai Loc 일대에서 遊動하는 VC을 捕捉격멸하려 한다.
5. 제 6 중대
  - 가. 배속 : 제 8 중대 81mm박격포 1개반, 연대전투지원중대 106mm무반동총, M55대공포, 4.2" 중박격포 各 1개반
  - 나. D-1일(12월 4일) 18.00까지 Dai Loc (1), (2)를 확보한 다음 5일 날이 새기 전에 1개소대로

써 Say江 南岸 일대를 차단하고 殘餘소대로는 Luat Chanh (1)을 포위하여 소재의 敵을 覆滅하라.

6. 대대전술지휘소는 △92에 개설 한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兵力운영을 遮斷과 包圍를 併行하여 打撃하는 방식을 適用키로 하고 다음과 같은 기동계획을 세웠다. 첫째 제 1소대는 중대 右一線으로서 D-1일에 Dai Loc (1)을 확보하고 D일 黎明에 은밀히 기동하여 Luat Chanh (1) 南쪽으로 進出한다. 둘째 제 2소대는 중대 左一線으로서 57mm무반동총 1개반을 배속 받은 다음 D-1일 18.00까지 Dai Loc (1) 北쪽 일대에 進出하여 埋伏하다가 D일 黎明에 Luat Chanh (1) 西쪽으로 機動하여 攻撃개시와 동시에 제 1소대와 並行공격 한다. 셋째 제 3소대는 遮斷부대로서 57mm무반동총 및 81mm박격포 각 1개반을 배속 받은 다음 D-1일 18.00까지 Dai Loc (2)로 進出하여 D일 날이 새기전에 Luat Chanh (1) 北쪽의 江邊일대를 遮斷하라. 이와같은 계획을 수립한 중대장은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여 예행연습하는 한편 夜間행동에 필요한 교육 및 裝備의 정비등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 (2) 戰鬥 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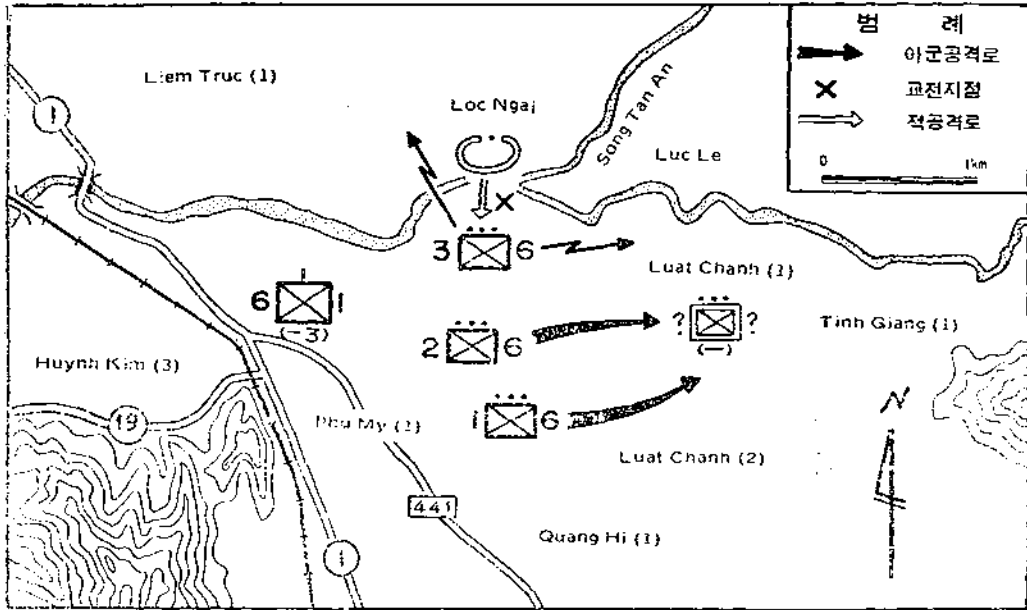
중대는 D-1일(12월 4일) 17.00부터 行動을 개시하였다. 2½ ton車輛 8대에 分乘한 兵力 수송대열이 南北으로 뻗은 제 1번道路를 따라 北上하여 제 1 및 제 19번道路의 交叉지점에 進出하였다. 점차 薄暮에 이르자 往來하는 차량도 뜸 하여지고 人跡도 드물기 시작할 즈음인 一作戰지역에서는 19.00부터 通行이 금지됨— 18.00에 下車지점에서 부터 西쪽으로 700m 떨어진 △92를 佔領하고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Go Boi平野의 넓은 벌판에 어둠이 짙어지자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제 3소대를 Dai Loc (2)로 進出케 하는 동시에 그는 제 1, 제 2兩소대를 지휘하여 Dai Loc (1)로 進出하여 急進진지를 준비하고 警戒에 임하였다. 上陸後 첫 야전의 밤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砲聲(我軍의 擾亂 사격)과 마을을 지키는 越南민병대 및 地方軍들이 쏘아대는 (越南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과 주요시설은 그들이 방어하면서 夜間에는 無差別로 사격하는 것이 通例임)曳光彈이 캄캄한 밤하늘을 繙弄으면서 멀리 사라져가는 것이었다. 더우거나 이날밤은 제 1번道路邊에 가까운 곳에서 發射한 듯한 銃소리가 부산한 가운데 兵士들은 묵묵히 銃을 움켜쥔채 四周경계중 19.30에 제 3소대 지역에서 交戰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銃聲에 긴장한 중대장은 즉시 제 3소대장을 無電으로 呼出하여 확인한바 소



狀況圖 제19호 Luat Chanh 戰圖



대장 金正熙 중위는 Dai Loc (1) 일대에서 제1, 제2兩분대의 배치를 끝내고 제3분대를 河川線에 의하여 예정된 埋伏지역에 投入하려는 순간이었다. 夜暗속에서 이동하는 정체를 명자 5명을 目撃하는 즉시 이들을 追尾하였다. 그들은 四方을 두리번 거리면서 江邊에 接近하더니 미리 마련하여 둔 듯한 小型선박을 타고 渡江하려는 것을 정지시켰으나 이에 不應하면서 수류탄을 集中 투척하고 脫出하려하므로 부득이 사살하였으며 가벼운 상처를 입은 1명을 捕獲하였다. (追後에 모두 VC으로 判明되었다)

이어 同분대는 埋伏지역이 폭로된 것으로 豫測하고 該지역에서부터 300m 떨어진 東쪽으로 移動하여 急造진지를 마련한 다음 警戒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皎皎한 月色下的 對岸 숲속에 그들의 一味徒黨인 것으로 推測되는 武裝兵群이 出現하더니 사격을 集中하였으므로 彼我間에 치열한 交戰이 벌어졌다. 이와 같은 보고를 접한 중대장은 즉시 배속된 4.2' 및 81mm박격포로서 強打하는 동시에 間斷없는 照明지원으로 그들의 기습에 대비하였다.

중대장은 곧 戰果 및 損失의 有無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전개된 狀況을 종합하여 검토 分析한바 그들의 伏兵에 발각될 확률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에게 전투의 기도가 폭로된 이상 이 전투를 다음날 日出과 동시에 보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계획대로 전투를 續行하되 四周방어를 강화하여 그들의 誘引에 留意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각소대로 하여금 서로 掩護하면서 徹夜경계토록 하였다. 이윽고 東녁이 흰이 트일 무렵에 중대장은 제 3소대장 金正勳 중위를 호출하여 은밀한 機動으로 Luat Chanh 北西쪽을 遮斷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同소대는 埋伏지역에서부터 東쪽으로 移動하여 일부의 兵力을 Song Tan An (江) 沿岸에 배치하고 殘餘분대를 이 江과 交叉되는 無名의 河川에 沿하여 埋伏케 하였다. 잠시뒤 05.30에 曉霧를 헤치면서 主攻인 제 1, 제 2 兩소대는 各各 左右에서 攻撃개시선을 向하여 前進하였다.

계획된 시간전에 제 1소대는 공격개시선을 절령하였으나 병진하던 제 2소대는 전진중 夜陰속에서 2명의 怪漢이 숲속으로 退避하는 것을, 전소대가 이들을 追跡한 탓으로 前進속선에서 이탈하여 본대와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때 중대장이 거느린 제 1소대는 공격개시선에 進出한지 20분이 경과되었으나 제 2소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한채 날은 흰이 트이기시작 하였다. 초조와 긴장속에서 제 2소대를 호출하기를 30분, 攻撃시간은 임박하였다. 계획된 시간인 06.00가 지났으나 該소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계획을 바꾸기로 하였다. 즉 Luat Chanh (1) 北西쪽에서 遮斷에 임하던 제 3소대를 攻撃에 가담 시키기로 하고 該소대의 임무를 해제하는 동시에 西쪽에서부터 東쪽으로 進出케 하였으며 제 1소대로서 Luat Chanh (1)의 東側方を 急



夜間埋伏中인 제 1연대 제 5중대 병사들

衝기로 하고 行動으로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이때 제 2 소대로부터 보고가 들어온 바 2명의 倭漢을 進跡中이라는 것이다.

그의 所在를 확인하니 계획된 進路로부터 500m 이탈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중대장은 즉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 1, 제 3 兩소대가 Luat Chanh (1)을 東西 兩쪽에서 포위하고 있을때 제 2 소대는 이 兩소대보다 30분 늦게 畧勢하여 마을안으로 들어가 探索하였으나 별다른 戰果를 거두지 못하고 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교통호 및 방공호에서 수류탄과 소총 실탄 若干을 노획하였을 뿐이었다. 잠시뒤에 중대장은 兵力을 마을 밖으로 돌려서게 한 다음 반 북탐색기로 하고 분대별로 책임지역을 분담시켜 중점적으로 집 天井과 벼집단 및 사탕수수밭 그리고 마을 주위의 竹林을타리며 집 집을 둘러싼 가시나무 울타리— 越南 特有的 농촌풍경은 마을 단위로 바깥쪽에 무성한 나무로 울타리가 쳐있고 各戶마다 가시나무로 둘러 쌓여 있어 二重의 防柵을 하고있다. — 등을 살살이 뒤지게 한 결과 地下동굴과 방공호에 숨어 있는 VC용의자 13명을 連行하였으며 공산주의에 대한 宣傳, 煽動 간행물 若干을 押收하였다.

한편 대대 전술지휘소에서 戰況을 검토 分析한 대대장은 該지역에 潛伏하던 VC은 我軍의 攻撃기미를 눈치채고 다른곳으로 移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同중대를 Luat Chanh (1) 北쪽으로 進出케하여 無名의 河川線에 沿한 숲속을 探索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중대장은 곧 兵力을 거느리고 Luat Chanh (1) 北쪽으로 빠져나가 제 1 소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Tinh Giang (1) 北西쪽의 河川線 일대를 그리고 左一線인 제 3 소대를 Tan An江과 小河川의 交叉点 東쪽 沿岸으로 進出케 하는 동시에 제 2 소대를 中間 지대에 投入하여 精探한 결과 接敵은 없었으나 그들이 사용한 痕跡이 보이는 움푹 7개소를 파괴하였으며 地下동굴에 은닉된 각종포탄 120발을 노획하고 精探을 계속하다가 12.00에 전투를 終結짓고 기지로 복귀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 戰鬪를 끝마친뒤 捕虜한 VC을 審問한 결과 그들은 Luat Chanh (1)을 中心으로 주변에 潛伏하다가 我軍의 進擊을 探知하고 이를 본대에 연락하려던 때인데 마침 산개중에 있던 제 3 소대에 捕捉되어 殲滅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결과 我軍의 기도비닉은 中途에서 旋露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감행된 夜間공격이야 말로 敵으로 하여금 밤은 결코 “게릴라”의 獨舞였가 아님을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守勢를 강요하게끔 되었다. 이리하여 적극적인 攻勢로 전환한 대대는 책임지역내의 戡定지역을 점차로 擴大함으로써 Go Boi 평야에서 眼下 無人格으로 橫行하던 그들의 그림자도 덜지 않은 앞날에 자취를 감출것이 예견되는 가운데 계속 그들에게 압력을 加하다가 12월 19일 연대계획의 일환으로 연대에서 최초로 감행된 대대규모의 「飛虎2호 전투」를 決行하였다.

綜合 戰果(損失없음)

구 분 부 대	戰 果			
	사 살	捕 虜		鹵 獲 포 탄
		포 로	용 의 자	
제 1 연대 제 6 중대	4	1	13	120

§ 研 究

獨斷 活用

1. 5일 黎明攻擊을 위하여 중대는 D-1일 최 초집결지에서 夜陰을 이용하여 攻擊대기지점으로 進出하는 즉시 主力은 Dai Loc (1)에서 대기하고 遮斷組인 제 3소대는 Dai Loc (2)로 진출 중 流動하는 VC과 부딪쳐 一黨 4명을 撲滅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대의 기도비닉은 中間에서 폭 로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敵이 我軍의 攻擊기도를 探知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고 가상할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예측을 不許할 것이다.

더우거나 전투후 捕獲한 VC의 진출에 따르면 潛伏한 分子들이 我軍의 進擊기도를 豫知하고 본대에 연락차 돌아가는 길에 제 3소대에 捕捉되어 擊滅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볼때 제 3소대 장이 取한 조치는 적절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과

연 그가 정확한 상황판단을 갖고 그같은 처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特히 이진투의 목적은 어디까지 Luat Chanh (1)에 潛伏한 VC을 기습공격 하는데 主眼을 둔 이상 流動的인 그들의 動態에 대한 확고한 판단없이 더구나 중대장에게 상황보고도 하지 않은채 소대장 獨斷으로 상황을 처리하려는 경향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5일 제1, 제2兩소대는 攻擊대기지점으로부터 공격개시선을 절명하기 위하여 竄進中 제 2소대는 本然의 임무를 망각하고 夜陰속에서 출현한 怪漢을 追跡함으로써 중대의 機動계획에 차질을 가져왔고 該소대는 예정된 攻擊시간 보다 30분 늦은 뒤에 探索에 가담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怪漢의 정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의 존재가 戰鬪에 큰 영향을 준 要因으로는 생각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該소대는 이미 攻擊행동으로 전환하였으 며 最短시간내에 공격개시선을 占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中途에서 2명의 倭漢이 나타났다고 하여— 실사 그들이 VC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遮跡한 사실은 지휘자의 誤判에서 招來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그들의 정체를 확인함으로써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확고한 所信이 있다면 먼저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바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분대兵力으로서 牽制케 하

였다면 本然의 임무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을 것이다.

狀況의 여하에 따라 소부대 지휘자의 獨斷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으나 流動的인 敵情과 미숙한 지형에서의 獨斷활용은 慎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투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每晝를 소대장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며 자칫하면 大害를 그르치는 要因이 되기도 할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6 중대장 丁 萬 吉 대위

(1977년 12월 22일 합참본부장 보좌관실에서 : 당시 대령)

이 전투를 우리중대가 수행한 動機는 다음과 같다.

당시 제 1대대는 책임지역이 廣大한데다가 接敵이 많았고 사실상 임무가 過重하였다.

이때문에 제 1대대장 裴貞富 중령은 연대장 金斑雲대령에게 1개중대의 배속을 요구하였다. 그의 腹案은 Ky Son (山西) 海岸線에 가까운 눈지대에 있는 △29에 1개중대규모를 배치하여 該지역의 安定을 圖謀하여 준다면 그의 兵力을 集中的으로 운영하여 Tan An—Am Phu—Cay My 江 流域에서 流動하는 2개중대 규모의 VC을 全滅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2대대 역시 Cu Mong고개의 扼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見解차이로 이를 實現치 못하다가 연대장의 決心으로 제 2대대의 1개중대를 何時라도 제 1대대에 지원할 준비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이리하여 우리중대가 제 1대대지역에 들어가 이 戰鬪를 벌이게 되었는데 제 1 및 제 19번 道路의 分岐點에서 流動하는 VC은 비교적 혼란이 잘 되었으며 Tan An 江北쪽의 VC 조격力點은 매우 강력하였다. 특히 該江 北쪽에서 倭透한 VC은 南岸에 散在된 Luat Chanh—Dai Loc에서 流動하면서 道路 및 我軍의 보급수송차량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지역의 안정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擊滅하려면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主眼으로하여 戰果를 擴大할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夜間공격을 敢行하였으나 遮斷의 임무를 띠고 참투하던 제 3소대가 부대 배치 중 그들과 부딪쳐 交戰함으로써 夜襲의 企圖가 복로되어 결국 所期의 目的을 달성치 못하였다.

이 전투후 該지역에서 敵의 猖獗이 날로 심하여 마침내는 우리중대가 11월 20일 Phu My에 基地를 설치하고 이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2. 셋번 3號 戰鬪 (1965년 12월 7일)

참조: 상황도 제 20 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	제 1 중대	장 대위	李 學 健	
제 1 연대 제 1 대대 장		포병 제 60 대대			
중령 裴 貞 信 (改名: 貞道)		제 3 포대	장 대위	韓 濟 龍	
(2) 參加部隊		敵 軍			
		地方 VC			

### 가. 戰鬪 前의 概況

대대는 연대작전개념에 立脚한 제 1 단계 기간중 본격적인 攻勢로 轉換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서 기지경계를 強化하는 한편 극도로 脆弱한 Song Say(江)—Song Tan An(江)—Song Am Phu(江)—Song Cay My(江)에 沿하여 散在된 Luc Le—Luat Chanh—Dai Loc—Binh Lam 地域을 차례로 安定化하였으며 다음 目標을 Am Phu江 北쪽의 未踏地에 대한 개척에 主眼을 두고 전투를 수행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11월 19일 제 1 중대를 Go Boi로 移動시켜 제 3 중대의 제 2, 제 3 兩소대가 확보중인 前進기지를 인수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역내의 戡定을 擴張하게 되었는데 Am Phu江 北쪽은 越南戰이 勃發한 以來 지금까지 越南軍 및 美軍이 한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다.

이 지역은 元來 VC의 지배지역으로서 越南 당국은 該지역의 住民을 소개시키는 한편 입주를 제한하고 만약에 이 지역에 殘存하거나 出沒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무차별사격을 加하여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름진 沃土와 마을은 主人을 잃고 廢墟가 되었으며 자랄대로 자란 잡초와 무성한 숲과 그리고 爆擊 및 砲擊이 할키고간 상처 투성이의 險難한 지역에 潛伏하면서 流動하는 武裝兵群을 捕捉하여 剿討하기란 매우 어려운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중령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潛動을 조기에 探知하는 것이 작전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또한 지역내의 戡定을 앞당길수 있다는 확

신을 갖고 情報網의 확립을 서두르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그는 우선 友好的인 민간인을 포섭하고 이들로 부터 民心의 動向과 VC의 動靜을 偵探한바 드디어 2개분대규모로 推算되는 赤拘가 Tan Giang (1), (2)에 侵透하여 暗躍中이라는 정보를 入手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先制로 이를 擊破키로 하고 同戰鬪를 제 1 중대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다.

전투지역은 제 1 중대기지로 부터 北西쪽으로 2km 떨어진 Tan Giang (1), (2) 일대인데 이지역은 Am Phu 江과 Cay My江의 合流지점이며 Qui Nhon灣에 接하여 있으므로 水路가 發達되었으며 또 제442번道路와 隣接한 까닭에 여기를 확보함은 곧 Am Phu 江 南쪽의 평야는 물론 Qui Nhou市를 防 守하는데 유리하였다. 따라서 VC은 오랫동안 여기를 占領코자 血眼이었으나 이들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Am Phu 江口를 봉쇄하고 아울러 무제한 포격지대로 설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기도가 좌절되었다. 그리고 該지역의 주민은 대부분 소개되었으나 갈곳 없는 零細 농어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VC 에게 동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該지역에 침투한 敵은 陸路 및 海上을 이용하여 脫出하기 쉬운 반면에 我軍은 目標까지의 空間이 개활하므로 기도비닉에 제한을 줄것이 예상되었다.

## 나.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대대장 裴貞僞(改名: 貞道)중령은 입수된 諜報를 종합하여 분석한바 지역내에 潛入한 武裝兵群은 Am Phu江과 Qui Nhon灣 北端의 西쪽 內陸面에 接한 늪지대에 據點을 두고 跳梁하는 지방“게릴라”의 一部로 추단되었으며 이들은 這間에 주로 我軍이 Go Boi西쪽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기회를 틈타 Tan Giang에 은밀히 침투하여 我軍의 後方을 노리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敵의 微候를 엄밀히 검토한 대대장은 전투기도를 비닉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陽動을 병행한 전투를 전개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 『1. 지역내에 침투하여 跳梁하는 敵은 我軍이 出動한 虛를 틈타 중대基地를 기습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2. 포병제60대대 제 3 포대가 火力으로 支援한다.
3. 대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2월 7일 03.00를 期하여 Tan Giang (1), (2)에 침투한 敵을 急襲하여 擊滅하러 한다.
4. 제 1 중대는 12월 5일 12.00附로 대대경계 임무를 해제하는 동시에 依命 출동준비를 갖추라』

이상과 같은 명령을 하달한 대대장은 이에 추가하여 이르기를 『VC은 我軍의 接近을 눈치 채면 正面 대결을 피할것이 예상된다. 특히 그들은 유리한 지형에서 狙擊을 加하고 신속히 退却할 공산이 크니 우선 退路를 차단한 연후에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라』고 강조하였다.

## (2) 戰鬥 實施

D-2일 (12월 5일) 12.00에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중령으로 부터 『12월 7일 黎明을 期하여 Tan Giang (1)을 急襲하라』는 攻擊명령을 받은 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대대본부 경계에 임하던 2개소대의 兵力을 복귀시켜 出動준비를 갖추게하는 한편 D-1일 1개소대의 偵察隊를 늪지대의 Pho Dong (2)에 침투시켜 該지역을 探索하는 것 처럼 가장 하면서 Tan Giang 一帶의 지형 및 마을의 구조와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偵察한 다음 기동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제 1소대를 兩分하여 1/2 兵力은 소대장 지휘하에 Go Boi 北쪽에 배치하고 나머지 兵力은 선임하사의 인솔하에 날이 새기 前까지 Tan Giang (1)과 同(2)의 中間을 차단한다

둘째 : 제 2소대 主力으로 D일 黎明에 Song Am Phu(江) 沿岸을 따라 은밀히 Tan Giang (1) 西쪽 外廓에 進出한 다음 攻擊개시와 동시에 東쪽에서 부터 西쪽으로 急襲한다.

셋째 : 제 3소대를 지원대로 확보하는 한편 화기소대 및 중대본부는 Song Am Phu(江) 南岸에서 각각 사격으로 掩護하다가 상황 진전에 따라 제 2소대와 합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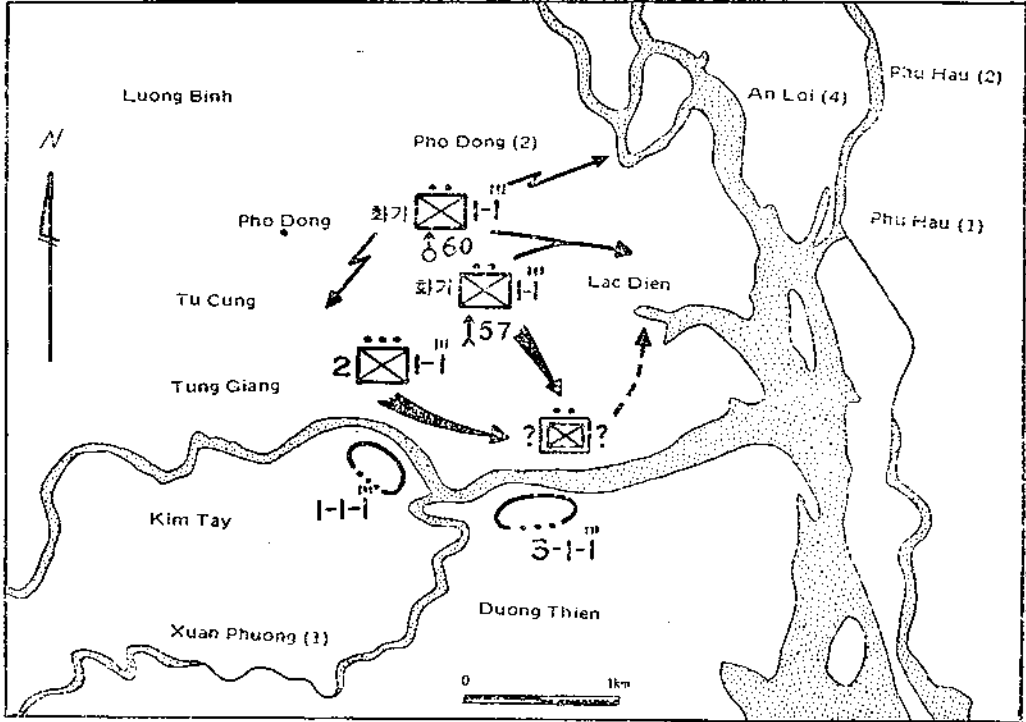
이와같은 계획을 대대장이 承認함으로써 중대는 곧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한편 대대장은 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소개문제를 타협코자 Tuy Phuoc 郡守를 찾아가 我軍의 전투에 협조할 것을 요망하였으나 그의 답변은 該지역이 入住제한지역일 뿐만아니라 그들은 VC에게 同調하는 分子들이므로 敵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이날 대대장은 그들의 태도에 다소 不滿이 있었지만 이에 介意치않고 소신대로 주민들을 소개키로 다짐하였다.

12월 6일(D일) 03.00에 기지 연병장에 정렬한 兵員과 야간행동에 필요한 위장 및 防音장치를 점검하고 제일 먼저 遮斷임무를 띤 제 1소대를 先發시킴으로써 이동이 개시되었다.

제 1소대장 金成燮 소위가 거느린 遮斷組가 Go Boi 西쪽 外廓을 벗어난 다음 여기에서 부터 소대장組는 Tan Giang (1) 北쪽으로 進擊하고 선임하사組는 Tan Giang (1)과 同(2)의 中間을 각각 차단하였다. 이윽고 04.00에 主攻인 제 1소대는 Am Phu江 北岸을 따라 은밀히 Tan Giang (1) 南쪽으로 迂回하여 攻擊대기지점을 점령하였다. 한편 30분 늦게 出發한 중대장은 殘餘소대를 거느리고 Go Boi南쪽에 설정된 徒涉場으로 빠져 나아가 Am Phu江을 徒涉한 다음 이 江과 Cay My江 合流지점 西쪽에 제 3소대를 東쪽에 화기소대 및 중대본부를 배치함으로써 Tan Giang (1)을 三面에서 포위하고 攻擊개시 시간까지 대기하였다. 얼



狀況圖 제 20 호 셋번 3號 戰團



마뒤에 東녁이 흰이 트일 무렵에 Tan Giang (1) 건너편 江邊에 위치한 중대본부에서는 대 등한 越南민병대원으로 하여금 對民방승을 시작케하였다.

『攻撃개시 50분전 VC을 제외한 住民들은 단시간내에 마을을 떠나라!』고 疎開를 권고 하였다. 초조한 마을으로 50분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反應이 보이지 않자 하는 수 없이 江邊에 수삼 발의 砲彈을 퍼부어 위협하였는데 이것이 奏効하여 男負女戴한 住民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을 入口에서 대기한 越南민병대원들이 이들을 檢索한 다음 擧動이 수상한者 12명을 進行 하였다.

한편 대대전술지휘소(Tac, CP)에서 주민에 대한 소개상황을 보고 받은 대대장 裴貞信 (改名: 貞道)중령은 계획대로 攻擊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5.00에 3개소대가 Tan Giang (1)을 三面에서 포위한 가운데 제 3소대의 攻擊組가 直衝하였다. 探索組와 掩護組로 구분된 공격부대는 外廓지대에서부터 內廓으로 살살이 뚫리던중 수상한者 1명이 退避하는 것을 追擊하였으나 그는 死力을 다하여 竹林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이때에 한 兵士가 그를 追擊하여 地下동굴에 숨는 것을 投降하기를 권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고 對抗하므로 부득이 수류탄을 投入한 연후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확인하니 그는 이미 숨져 있



Go Boi마을로突進하는 병사들

었으며 이 동굴로 부터 연결된 교통호를 探索끝에 그들의 地下 據點임을 확인한바 이 동굴에서 부터 연장된 교통호는 마을 밖으로 빠져 나갈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교통호의 附近에 어지럽게 흩어진 소총 실탄이 널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 통로를 따라 退却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이와같은 보고를 接한 중대장은 Tan Giang (1)에 少數 兵力을 殘置하여 反復탐색케 하고 殘餘병력을 거느리고 즉시 Tan Giang (2)로 前進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遮斷에 임하던 제 1소대를 이에 합세시켜 該地域을 北쪽과 西쪽에서 挾擊하였다. 그러나 敵影를 찾지 못하고 그들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地下동굴에서 若干의 裝具를 押收하였다. 이날 중대는 兩지역에서 기대한 戰果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이 구축한 각종 방어시설을 파괴하였으며 주민들 가운데 부상을 입은 2명을 후송하고 戰場을 整理하다가 17.30에 기지로 복귀하였다.

#### 라. 戰鬥 後의 概況

이번 戰鬥에서 疎開한 住民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때 我軍은 전투

의 피로도 잊은채 주민들의 짐을 날라주고 다친 사람이 없는가를 보살펴 주는 한편 전투간에 손상된 家屋이나 農作物의 피해를 보상하는등 적극적인 대민지원과 心理戰을 병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該지역 주민들이 자진하여 我軍의 작전행동에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뿐만아니라 VC의 지배지역은 날로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持論인 『“게릴라”는 물고기이며 民衆은 물로서 물의 溫度가 적당하다면 물고기는 잘 번식할 수 있다』라는 教條가 결국 虛事가 되고 민중의 支持는 커녕 共産黨의 殘酷에 抗拒하는 운동이 지역내 도처에서 일어나 그들의 牙城이라고 일컫던 Go Boi平野에서 부터 점차 山속으로 潛入하니 敗色이 날로 짙어갔다. 대대는 이전투를 끝내고 효과적인 對民지원계획을 보강하여 지역내의 戡定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계속 소부대활동으로 그들의 침투를 牽制하다가 12월 19일 언대계획의 一環으로 전개된 「飛虎 I호 戰鬪」에 참가하였다.

## § 逸 話

### 親切과 禮儀

대대는 戰鬪를 끝내는 즉시 마을밖으로 소개된 住民들이 다시 各自의 집으로 돌아갈때 이들의 짐을 운반하여주고 破損된 집과 피해를 입은 農作物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구하는등 최대의 誠意를 다 하였다. 僚軍이 보여주지 못한 親切과 禮儀바른 행동이야 말로 그들로 하여금 韓國軍은 眞正한 越南人의 벗이라는 感銘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었을 것이다. 戰鬪後에도 부상을 입은 민간인을 치료함은 물론 영세한 農漁民의 生計를 도와주되 얼마되지 않은 적은 물건을 전달하는 방

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禮儀바른 韓國軍의 인상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越南戰의 성격으로 보아 武力에 의한 勝利에 앞서 국민의 支持가 뒤따르지 않는限 그 意義를 상실하게 되므로 대대는 지역내의 주민들토 하여금 그들의 정부시책에 呼應토록 계몽하는 동시에 我軍의 작전에 協力케 하는데 主眼을 두고 대민지원과 아울러 선무공작을 推進하여 지역내의 安定에 기여하였다.

## § 參戰者의 略歷

### 제 1연대 제 1대대장 裴 貞 信(改名: 貞道) 중령

1931년 2월 13일 : 忠北 玉泉 출생	1970년 2월 20일 : 제 32사단 제 99연대장
全北大學校 法科 졸업	1974년 1월 11일 : 제 3 하사관 학교장
중합 6期	1975년 4월 2일 : 陸本 본부사령
1965년 8월 30일 : 수도사단 제 1연대 제 1대대장	1977년 2월 1일 : 대령령경호실 행정차관보
1968년 1월 13일 : 제 6관구 군수참모	1978년 1월 26일 : 제 26사단장

### 3. 靑龍 1號 作戰 (1965년 12월 16일 부터 1966년 1월 16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7~8호

#### 가. 參加部隊 및 指揮官

我		軍	
(1) 參加部隊		(1) 協力部隊	
해병제 2여단 장 준장 李 鳳 出		포병대대 장 중령 鄭 永 嶺	
제 2 대대 장 중령 吳 允 晉		제 6 중대 장 대위 吳 營 烈	
제 5 중대 장 대위 姜 仁 秀		제 7 중대 장 대위 權 泰 明	
대위 康 用 仁		제 1 포대 장 대위 崔 基 泰	
(1965. 12. 29부터)		(首都사단 포병제 628대대)	
제 6 중대 장 대위 張 淳 奎		155mm 곡사포	
제 7 중대 장 대위 李 圭 台		(2) 協力部隊	
제 3 대대 장 중령 全 政 男		越南 공수여단	
제 9 중대 장 대위 成 炳 文		美 제 117 항공중대	
제 10 중대 장 대위 韓 國 道		美 해병 제 363 항공중대	
제 11 중대 장 대위 劉 南 圭		美 해군 구축함 1척	
중박격포중대장 소령 李 昌 秀		美 공군 제 2 비행사단	
		美 제 24 심리전 파견대	
敵		軍	
越盟 제 325사단 제 95연대 3개대대		VC, 주력군	1개대대
〃 제 3 연대 1개대대		VC, 지방군	1개대대
VC, Phu Yen省 지방군 3개중대			

#### 나. 作戰 前의 概況

本「靑龍 1號 작전」은 해병. 제 2여단이 10월 9일, 越南의 중부해안 거점인 Can Ranh에 上陸하여

聯軍의 主要 항단과 비행장 기지 및 군수시설을 防護하는 한편 자체방어를 위한 探索과 경계임무를 수행중 美제 1야전군사령부(IFFV)의 사령관인 Stanly R. Larson 소장 요청에 최거 공산군의 百年牙城으로 惡名 높은 Phu Yen省的 Tuy Hoa 지역으로 移動하여 韓·美·越 합동으로 전개한 최초의 여단(-)급 작전이다. 이 작전은 당초 11월 末에 시작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氣象的인 악조건으로 말미암아 무기한 연기 되었다가 12월 16일을 期하여 증강된 1개대대가 Cam Ranh 비행장으로부터 美軍 수송기에 依하여 Tuy Hoa 지구로 공수가 동하였으며, 같은달 22일부터 越南軍과 聯軍으로 Tuy Hoa 北쪽의 일부 山岳과 海岸지역에 出沒하는 敵을 擊滅함으로써 본 작전의 서전을 장식하였다. 이어, 1개대대는 12월 25일에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移動하여 제 1 번도로에 연한 VC 장악하의 취약지역에서 마을 探索戰을 벌여 여단 지휘부를 비롯한 지원부대의 基地를 設定함으로써 新正 元旦을 期하여 주작전인 제 3 단계의 막을 열게 되었다.

해병여단이 최초의 母基地(Home Base)인 Cam Ranh에 도착하여 불과 1개월밖에 경과하지 못한 여전에서 이 Tuy Hoa 지구 작전을 계획하고 推進하게 되기까지는 전술한바 대로 美제 1야전군 사령관 제청에 기인한 것이다. 즉, 11월 8일 同사령관인 Larson소장이 여단 지휘소를 방문하여 여단장 李鳳出 준장과 회합한 자리에서 이 작전을 거론하였다. 이때 여단장은 장병들의 士氣는 매우 왕성하나 아직까지 越南戰에 익숙하지 못한 처지에 있고 또 1개대대는 Cam Ranh灣 방어에 일하고 있어 2개대대 모두를 攻擊부대로 투입할 때에는 예비대가 없는 큰 부담이 뒤따르게 되며 敵情 파악에 있어서도 충분히 연구 검토한 여지가 있음을 피력하고 同 작전을 전개할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Larson 소장은 韓國 海병대의 전투력을 평가하건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 전투력을 주축으로 하여 韓·美·越 연합작전이 추진된다면 越南 중부지역에 展開중인 友軍의 士氣를 크게 고조시킬은 물론이요, 聯軍의 전투병력이 증파되어 새로운 戰爭양상을 기대하는 차제에 새로운 活力을 북돋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제하면서 거듭된 협조를 제의하기에 이르자 작전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숙의, 검토한 끝에 이를 군사령관 蔡命新 소장에게 건의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美제 1야전군 사령관이 제시한 友軍의 지원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 「1. 美제 101공수사단 제 1여단의 1개대대가 IFFV의 예비대로서 여단의 요청이 있을시에 3시간 이내로 목표에 투입된다.
2. 越南軍 공수여단의 2개대대가 여단(-)이 공격시 右側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한다.
3. 美제 2비행사단이 여단(-)의 공수 이동 및 전술항공지원을 담당한다.
4. 美제 117항공중대와 美해병제 363 “헬리콥터”중대가 여단을 직접 지원한다.
5. 美제 7함대의 구축함 1척이 여단을 직접 지원한다.
6. 越南해군 제 2해덕부대가 Vung Ro반도의 해상을 경계한다.
7. IFFV의 제 24심리전반 과전대가 공중 전단살포 및 방송에 의한 심리전을 전개한다.」

### (1) 敵 情

Tuy Hoa는 Cam Ranh으로 부터 北쪽으로 120km 떨어진 Phu Yen省的 省廳소재지이며 人口는 2,500에 達하는 市이다. 이 지역은 越南軍 제 2군단 관할하에 있으나 敵의 管轄구역상으로는 VC 제 5군사

지역에 속한다. 최근 1개월간에 敵情의 변동은 2개대대 규모 이상의 兵力이 지역내에 침투하여 橋梁 파괴와 友軍 항공기에 對한 사격, 폭격과 수류탄투적에 의한 擾亂, 또한 중대와 대대규모의 攻撃, 이밖에 木船을 利用한 해상으로 부터의 武器운반 등이 있었다. 我軍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敵은 越盟 제325사단 제95연대의 3개대대 병력 1,100명~1,400명을 비롯하여 제3연대 이하 1개대대 병력 400명과 Phu Yen省内의 VC 주력군 및 지방군 300명 등으로 도합 1,800명~2,100명으로 推算되었으며 이밖에 增援가능한 부대로서는 Phu Yen省的 VC본부 및 직할부대 병력과 이에 동조하는 “게릴라”등 도합 1,100명을 헤아렸다.

이 敵들은 越南의 三大 곡창지대의 하나로 손꼽히는 Tuy Hoa 지역의 넓은 쌀 生産을 장악하여 두르고 보급하였으며 Vung Ro灣과 Ke Ga灣을 이용하여 海上침투를 계속 꾀하였다. 이 해안부위와 깊숙히 뻗은 內陸지역의 자연연계물은 이들에게 중요한 補給路로 이용되었으며 Nui Hon Ba(山)—Nui Hoc Nom(山)—Nui Da Chong(山)등 險峻한 山岳內에는 비밀 군수기지가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또한 이 지역내의 VC은 오랜 기간동안 이곳을 隱匿의 근거지로 삼아왔기때문에 地形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장소와 시간에 擾亂과 저격을 恣行할 수 있고 또 友軍의 이동에 관한 첩보 수집에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작전지역내의 敵은 2개소의 접근로를 따라 주로 夜暗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자유자재로 행동하고 있었는데 접근로 가운데 그 하나는 Nui Vung Ro(山) 下端의 해안으로 부터 東쪽으로 돌아서 계곡을 따라 △706인 Nui Da Bia(山)를 거친 다음 鐵路를 횡단하여 다시금 Nui Sa Leo(山) 南쪽의 계곡을 지나 My Dien으로 이른다. 다른 하나는 前記 Nui Vung Ro(山) 下端의 해안으로 부터 西쪽으로 이어진 小路를 따라 제1번 道路로 들어와 Deo Ca 高地를 넘어 Song Moi(川)를 따라 △796인 Hon Ong(山)에 이르는 경로이다. 情報판단에 따른 敵의 능력을 보면 증강된 1개연대 병력이 Hieu Xuong郡과 Tuy Hoa市間に 있는 어떤 목표도 공격할 수 있고 증강된 대대규모의 병력으로써 自體기지와 침투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 (2) 地形 및 氣象

작전지역은 Phu Yen省的 南部 山岳지역과 Tuy Hoa市 및 Hieu Xuong郡 주변의 大小하천을 낀 광대한 低地와 전담으로 되어있다. 두개의 주요 河川中 하나는 北쪽의 Song Dai Giang(江)인데 이 江은 內陸으로 부터 東으로 흘러 Tuy Hoa市 바로 南쪽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南쪽의 Song Ban Thach(江)는 Nui Hon Ba(山) 下端을 거쳐 南支那海로 流入된다. 이 두개의 江은 南과 北간의 소통 및 이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 Hieu Xuong郡 南쪽 및 東쪽의 “경관”로 뒤덮인 높은 高地群에는 울창한 樹木과 天然 동굴이 있어 항공관측에 제한을 준다. 南과 北을 관통하는 제1번 道路는 平均 3~4m의 포장된 철로이고 單線철도가 이와 平行하고 있다. Ban Thach 江의 鐵橋는 파괴되어 있으며 Tuy Hoa市 바로 南쪽의 Dai Giang 鐵橋는 그 위에 침목을 깔아 제1번 道路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교량은 Ban Thach 교량과 함께 모든 地上 보급로의 要所이다.

Tuy Hoa 南과 北에 펼쳐진 광활한 전담은 VC의 食糧源이 되고 이들은 山岳지역의 天然洞窟을 이용하여 食糧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중 氣象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北東風이 9knots로

볼겠으며, 海岸에 연하여 가끔 강우가 예상되었다. 낮의 기온은 平均 最低 28°C에서 최저 17°C로 예보되었다.

## 다. 作戰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여단장 李鳳出 准장은 美제 1야전군사령부(1AFV)에서 제공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관계 참모에게 작전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어 完成된 작전명령 「6-65호」(정령 1호)를 11월 15일자로 예하부대에 하달하자 이 命令에 의거 여단(-)은 11월 22일을 期하여 Cam Ranh의 전술책임지역을 담당할 1개대대를 제외한 전 병력과 장비를 항공기 및 함선편으로 Tuy Hoa지역으로 이동코자 出動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Nha Trang 부두에서 선발대로 출항한 美해군 LST가 Tuy Hoa 南쪽 비행장 부근 해안에서 좌초되고, 계속되는 폭우로 말미암아 계획된 작전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여단장은 작전계획을 변경하여 제 2대대장에게 『Tuy Hoa 해안에 좌초한 LST의 경계를 위하여 대대(-)로써 공수 이동하여 敵의 81mm 사정으로부터 함선을 방호하는 한편 여단(-)이 Tuy Hoa로 이동할때 까지 계속 경계에 임하라.』라는 要旨의 긴급 명령을 下達하는 한편 Nha Trang 부두에서 대기중인 제 3대대를 Dong Ba Tinh 基地로 복귀케 하였다.

이에 제 2대대(-)는 대대장 吳允晉 中령 指揮下에 11월 24일 Cam Ranh 비행장에서 美軍 수송기 C-123편으로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이동하여 좌초된 LST를 경계하면서 비행장 基地를 방어하다가 「靑龍 1號 作戰」의 무기연기로 말미암아 12월 4일에 다시금 Cam Ranh 비행장으로 공수이동하여 Dong Ba Tinh 基地로 복귀한 뒤에 작전의 재개를 기다렸다. 그뒤 氣象의 好轉과 더불어 연기되었던 同작전이 다시 시작되기에 이르자 여단에서는 作戰命令의 一部를 수정 및 보완하여 예하 지휘관 및 참모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를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단, 作戰命令上의 D일은 제 3단계 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제 1단계의 첫날을 D일로 記述하였다.

『1. 敵情 : (작전전의 개황 참조)

2. 友軍 : (작전전의 개황 참조)

3. 여단은 現 戰術책임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면서 12월 16일을 期하여 여단(-)을 Tuy Hoa 지역으로 이동시켜 작전기지를 확보한 다음 Vung Ro 반도를 포함한 Da Bia山 및 그 계곡 一帶의 敵을 포착, 섬멸하는 동시에 지역내의 敵 시설을 파괴하고 제 1번 道路를 장악코자 한다.

4. 작전개념

가. 이 작전은 3단계로 구분하여 전개한다.

나. 임무교대 및 이동 : 생략

다. 제 1 단계 (Tuy Hoa 北部지역에 대한 양동작전)

(1) 제 2 대대 전투단은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부터 北쪽 비행장까지 차랑으로 기등하여 越南 公수여단과 聯合으로 Tuy Hoa 北西쪽 一帶에 대한 陽攻을 展開한다.

(2) 대대에 배속된 포병은 Nui Dak(山) 주변의 무제한 시적구역(Free Fire Zone)에 대한 요란 사격을 실시한다.

라. 제 2 단계 (Tuy Hoa 南部지역에 대한 마을 探索)

제 3 대대 전투단은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移動하여 제 1 번 道路에 연한 주변 마을에 대한 探索을 展開한다.

마. 제 3 단계 (Tuy Hoa 南部 山岳지역에 대한 공격)

제 2, 제 3 兩대대전투단은 1966년 1월 1일 08.00를 期하여 목표에 대한 一齊공격을 敢行하여 D+12까지 목표 X,Y 및 A,B,C,D,E,F를 탈취하고 지역내의 敵을 剿滅한다.

5. 제 1 대대

가. 1개중대로써 現 제 2, 제 3 兩대대의 전술지역 방어임무를 인수하라.

나. 잔여부대는 계속 현행임무를 수행하라.

6. 제 2 대대

가. 제 1 단계 작전시 제 3 대대로 부터 1개중대가 배속된다.

나. 越南 公수여단과 협조하여 Hoa Kien—An Chan—An My 지역을 공격하여 지대내의 敵을 濶滅하라.

다. 제 3 단계 작전시 목표 X 및 Y를 탈취하고 지대내의 敵을 濶滅하라.

라. 依命 2개중대로써 목표 C 및 D에 정찰기지를 설정하여 지역내의 敵을 擊破하는 동시에 敵의 시설과 물자를 파괴하고 제 1 번 道路의 左側을 차단하여 제 3 대대전투단의 작전을 支援하라.

마. 1개소대 병력을 차출하여 포병대대(-)의 자체 경계를 支援하라.

7. 제 3 대대

가. Tuy Hoa로 이동하는 즉시 제 2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依命 작적을 展開하라.

나. D일에 2개중대로써 목표 B를 탐색하여 지역내에서 陷躍하는 敵을 모작 심멸하라.

나. 依命 대대(-)로써 목표 A를 공격 탈취하고, 2개중대로써 목표F에 대한 공수돌격을 감행하여 敵의 시설물을 파괴하라.

8. 포병대대(-)

가. 여단(-)를 일반지원 하라.

나. 제 5 중대를 제 1 대대에 배속하라.

9. 기타 전투지원부대 : 생략



10. 협조지시

- 가. 항공지원은 美제 1야전사령부의 지구항공지원 본부(ASOC)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 나. 함포 항공연락장교는 여단본부의 화력지원 협조소(FSOCC)에 위치한다.
- 다. 인접 및 지원부대와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11. 여단(-)전술지휘소는 Tuy Hoa 南쪽 비행장 基地에 개설한다.』

이와같은 命令을 하달한 여단장은 추가로 指示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1. 작전지역은 敵이 越南中の 越盟이라고 豪言할 정도로 그들의 威勢가 만만치 않으며, 과거 18년간 友軍이 한번도 侵襲하지 못한 未知의 지역이다.
- 2. 情報관단이나 圖上에서 보는바와 같이 地形 자체가 “정글”과 天然 洞窟로 뒤덮인 險峻한 지역으로서 여기에 蟄伏, 潛逃하는 敵은 汎汎 輕視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여단이 擔當한 戰鬪 전면은 광대하고 또 예비대가 없는 것이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 3. 그러나 우리에게는 創設 初期 부터 無敵해병 이라는 영예와 矜持가 綿綿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특히 우리는 祖國의 명예를 雙肩에 짊어지고 史上 처음으로 海外에 派兵된 전투부대임을 銘心하라.
- 4. 平素 연마해 온 戰技와 戰鬪力을 바탕으로 이번 작전에서 반드시 勝利하여 常勝불패의 전통을 다시 한번 丙外에 들어내야 한다. 우리의 一驍手, 일투족이 祖國의 光榮으로 直結되는 艱難을 당 각치 말라.
- 5. 戰鬪間,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겠다는 圖志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戰鬪군기도 艱難을 자각하라. 이동중이든, 障地를 편성중이든, 또는 攻擊이나 방어에 있어서 제 1의 요건은 警戒이다.
- 6. 戰友間의 友愛는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勇氣를 줄것이다. 骨肉之情으로 굳게 뭉치자.
- 7. 이 작전이 끝나면 1개대대만이 Tuy Hoa 지구에 잔류하여 비행장 基地 건설을 위하여 경계를 戒公하고 다시금 Cam Ranh 基地로 복귀한다.』

(2) 作戰 實施

여단은 12월 16일에 작전명령에 포함된 機動전성표에 依하여 제 2대대 전투단을 여단(-)의 先發부대로 출동케 하였다. 이에따라 대대전투단은 Dong Ba Tinh으로 부터 Cam Ranh 半島를 잇는 My Ka Ferry를 渡河한 뒤 비행장에 도착하여 美제 2비행사단이 지원한 C-130 및 C-123 수송기 延 17台로써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移動하였다. 곧이어 대대 지휘소를 中心으로 하여 중대별로 임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며 12월 22일부터 展開할 제 1단계 작전(일명 X-mas작전)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 3대대 전투단은 12월 12일 부터 Nha Trang 北西쪽 일대에서 시작한 「번개 3호 전투」를 同월 22일까지 계속하면서 1개중대를 20일에

제 2 대대에 配屬하여 Tuy Hoa 지구로 移動케 하는 동시에 25일을 期하여 책임지역을 제 1 대대에 인계하고 Tuy Hoa로 공수 이동한 연후에 제 2, 제 3 兩단계 작전에 대처하였다.

#### 제1단계(12월 22일~28일)

이 작전은 前記한파와 같이 여단이 1966년 1월 1일 부터 여단(-)급으로 展開한 「靑龍 1 號 작전」의 제 2 단계를 효과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제 2 대대 전투단이 越南공수여단과 聯合하여 敵에 對한 陽攻을 편것이다. 제 2 대대 전투단이 Tuy Hoa로 移動하자 3일 뒤인 12월 19일 부터 同작전을 決行하려 하였으나 連日 계속되는 暴雨로 말미암아 72시간 연기되었다가 21일 09.00부터 Tuy Hoa 北쪽 비행장으로 기동한 뒤 다음날 07.00를 期하여 敢行하였다. 그런데 이 작전은 越南 제22사단장의 통제를 받는 공수여단의 2개 대대와 聯合으로 展開하겠끔 계획된 까닭에 제 2 대대장 吳允靑 중령은 Phu Yen 省長室에서 越南 제22사단장과 공수여단장 및 省長과 그리고 美고문관과 會晤를 가졌는데 여기서 越南側은 작전지역의 南과 北에서 協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反하여 제 2 대대장은 彼我間의 식별 곤란과 각종 支援火器로 부더의 위험을 감소하고 또 側方의 防護와 보급지원 등의 편의를 내세워 南으로 부터 滋進공격할것을 制限한 결과 이 案이 채택되어 곧 여단장 李鳳出 준장의 승인을 받아 작전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美제 7 함대의 구축함 1 隻으로부터 함포지원과 美제 117 항공중대의 전폭기가 이 작전을 직접 지원하게 되었으며 작전지역 右側은 제 2 대대 전투단이, 左側은 越南軍이 담당기로 하였다.

작전지역의 특징은 北西쪽의 내륙은 Suoi Coi(계곡)와 Suoi Mang Mang(계곡) 주위에 험준한 高地群과 “정글”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海岸에 연한 제 1 번道路 右側에는 農漁村이 散在하고 沙灘지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나무를 비롯한 雜木이 두성하게 자랐으며 我軍의 탐색과 기동에 많은 制限이 뒤따를것이 예상되었다.

12월 22일 (D일): 여단은 Tuy Hoa지역에서 展開할 「靑龍 1 號 작전」에 대비하여 出動 준비와 부대정비에 拍車를 加하는 한편 本作戰의 先着의 布石인 제 1 단계로서 제 2 대대에 依한 Tuy Hoa市 北西지역에 對한 緒戰의 막을 열었다. 4일간이나 계속되던 비가 멈추고 활짝 개인 날씨였으나 大地는 아침안개로 덮였다. 06.30부터 30분간에 걸쳐 美제 7 함대의 구축함으로 부터 함포지원사격이 실시되었고 배속된 포병 제 6 중대의 105mm 포사포도 무제한 사격구역에 熱火를 집중한데 이어 대대는 07.00부터 공격부대인 제 6 중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제 1 번 道路로 부터 海岸까지의 正面을 담당케 하여 北進케 하는 동시에 제 5 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제 1 번 道路로부터 越南 공수여단이 담당한 전투 지경선 까지의 전투

정면을 공격케 하였다.

한편 제 7 중대는 예비로서 4.2"박격포 소대와 같이 제 1 번 道路邊의 Lien Tri(3)에 展開하고 제 3 대대로 부더 배속된 제 9 중대와 포병 제 6 중대는 대대전술지휘소와 함께 Tuy Hoa 北쪽 비행장 활주로 끝에서 경계 및 사격지원을 담당하였다.

제 5 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공격개시선을 지나  $\triangle 80$ 와  $\triangle 40$  사이를 탐색한 다음 10.00에 목표 1인 Thung Phu에 진입하여 退避하는 VC 1명을 사로잡는 한편 內陸의 산악지역으로 退散하는 50여명의 무리들을 목격하고 즉시 포병사격을 要請하여 이들을 制壓하였으며 17.00에  $\triangle 44$  일대에서 급전방어로 전환하였다.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목표 1인 Chin Nghia(1)에 진입하여 VC 용의자 도합 29명을 체포한 뒤 이를 압송조치하고 한 家屋에서 敵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수류탄 4발과 실탄 30발을 노획하였으며 16.00에 Chin Nghia(2)까지 진출하여 현지에서 임시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예비대 임무를 제 9 중대(장, 威炳文 대위)에 인계하고 14.35에 제 5, 제 6 兩중대의 중간지역인  $\triangle 82$  부근으로 進出하여  $\triangle 10$ 에서 급전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다음날 전투에 대비하였다.

**12월 23일(D+1)**: 이날 06.30부터 07.00까지 목표 3인 Phu Lien과 목표 4인 Long Thuy에 대한 105mm 및 4.2"포 지원사격이 집중되었으며 제 5 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제 7 중대로부터 側方 엄호를 받으며 09.00에 공격을 시작하여 전담과 밀림으로 검철된 Phu Lien(1)에 進出하여 探索中  $\triangle 98$  下端部에서 길이 50m, 폭 50m의 장애물지대를 探知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다시금 부근에서 대형 人工洞窟 2개소를 찾아내어 Mity Mite로 연기를 불어넣은 다음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敵이 있었던 흔적만을 발견하고 이를 TNT로 폭파한 다음 계속 부근 一帶를 探索中 16.00에 鄭在源 소위가 이끄는 제 1 소대가 洞窟 1개소를 또 찾아내어 여기에 隱避한 VC 용의자 2명을 사로잡아 이들이 휴대한 文書 약간을 노획하였다. 소대장은 이때 중대에 배속된 越南 통역관을 통하여 VC 용의자를 심문하자 正面의 高地 중간지점으로 부터 敵의 기관총 사격이 集中되어 소대원들은 즉각조치로 몸을 避하며 應射하여 이들을 制壓하였다. 그러나 敵의 최초 사격으로 VC 용의자 1명이 죽고 1명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는데 VC은 체포된 그들의 동보로부터 情報가 漏泄된것을 염려한 나머지 無差別 사격을 加한것으로 판단되었다.

중대는 부상한 VC 용의자를 치료하여 주자 그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통역관을 통하여 遙間的 그들의 動態를 알려주어 이를 근거로 하여 중대가  $\triangle 98$  西쪽 하쪽에 있는 마을로 進

入하였다. 여기에는 VC의 사무실이 있었으며 국기 게양대에는 越盟旗와 VC旗가 게양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회수하여 대대로 압송한 뒤 현지에서 夜間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07.30에 공격을 시작하여 09.00에 목표 4인 Xuan Duc과 Long Thuy로 進出中 전방 △4 부근으로 부터 敵의 자동화기 사격을 받았으나 중대 火力로 이를 制壓하고 계속 前進하여 09.30에 Long Thuy 마을에 進入하여 探索中 위장동굴 1 개소에서 대인지뢰 1개와 인계철선 한 뭉치를 노획한 다음 TNT로 이를 폭파하였다. 중대는 지역 一帶를 계속 探索中 해변에서 北쪽으로 退走하는 무리에게 사격을 집중끝에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한 뒤 대대로 압송하였다. 14.00에 마을 東쪽의 농작물 경작지에서 길이 5m, 폭 50m의 대장 장애물 지대를 제거하고 부근의 한 墟에서 敵이 은닉한 것으로 보여지는 CAR 소총 1정과 지뢰 3개 및 소총실탄 180발과 수류탄 16발을 노획하였다.

한편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제 5 중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차단임무를 계속하다가 09.45에 △40 下端에서 洞窟 1 개소에 隱避한 VC 4명을 사로잡아 이를 후송하였다.

**12월 24일(D+3)**: 이날의 날씨는 쾌청하고 한 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將兵들의 士氣는 매우 높았다.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아침 일찍 “헬리콥터”편으로 Tuy Hoa 北쪽 비행장에 내려 대대 전술지휘소를 방문하고 작전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단장은 『금일 18.00부터 25일 24.00까지 X-mas 휴전이 成立되어 彼我間의 攻撃행동이 중지되었다는 파월 美軍專員조단(MAC-V)의 통보사항이 있으니 예하 중대의 진출선을 一部 변경하여 內陸 깊이 파고들어 攻撃하라.』고 대대장에게 指示하였다.

이에 대대장 吳允晉 중령은 제 7 중대로써 다음날에 展開할 목표 8까지를 확보케 하는 한편 제 5 중대로 하여금 목표 7을, 또 제 6 중대로써 목표 6을 공격 점령키로 공격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 L-19機에 탑승하여 低空비행으로 각 중대의 進出線을 살피면서 무전기로 중대장들을 격려하였다. 07.00부터 출동한 제 5 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160~168를,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Phuong Phong 一帶를, 한편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Phu Thanh 지역을 각각 점령한 뒤에 17.00를 期하여 현지에서 夜間急編방어로 轉換하면서 18.00부터 30시간의 X-mas 休戰을 맞았다.

**12월 25일(D+4)**: 이날 Cam Ranh의 여단본부 教會에서는 10.00부터 여단장 李鳳出 준장을 비롯한 장병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軍宗참모인 申亮燮 소령의 집례로 X-mas 축하예배가 거행되었는데 장병들은 越南의 조속한 平和회복과 故國에 두고온 家族의 平安을 빌었다. 한편 여단은 Tuy Hoa 지역에서 작전중인 제 2 대대 전투단으로 하여금 X-mas휴전 규

약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이 작전의 제 2, 제 3 단계를 위하여 제 3 대대 전투단을 Tuy Hoa 지역으로 공수 이동시켰다.

(가) 제 2 대대장 뉘允晉 중령은 현재 AMBFR線까지 진출한 예하중대에 철저한 방어진지 편성과 경계에 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15.30을 期하여 제 5 중대와 대대 예비인 제 9 중대와의 부대교대를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박격포소대의 진지를 전환하여 개척된 제 1 번 道路를 따라 목표 5와 6의 前方 500m에 있는 △32 전면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때 일당의 敵이 목전에서 무기와 탄약상자를 잃어지고 北쪽으로 退走하는 것을 보았으나 追擊도 砲擊도 할수없어 안타깝기만 하였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전날 제 1 대대(장, 明益杓 중령)에 現 Dong Ba Tinh의 전술지역을 인계하고 이날 여단 命令에 의거 05.30부터 Cam Ranh 비행장에서 美軍 C-130 수송기에 탑승하여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空輸이동하는 즉시 비행장 南쪽의 My Hoa 일대를 확보하고 대대 전술지휘소를 中心으로 展開한 뒤에 12월 27일 부터 시작할 제 2 단계 작전에 대비하였다.

12월 26일(D+5) : 여단은 이날 06.00부터 Cam Ranh半島에 배치된 제 1 대대와 支援부대 一部단을 잔류시키고 여단 본부를 비롯한 戰鬥지원부대 모두를 Tuy Hoa로 移動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 空輸이동은 28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제 2 대대는 X-mas 休戰종식과 더불어 제 1 단계 작전을 續開하였다. 이날 07.10부터 20분간에 걸쳐 105mm와 4.2''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07.30에 出動한 제 5 중대(장, 姜仁秀 대위)는 목표 9인 Phu Long의 田畚지대를 通過하면서 주변 一帶를 探索하고 이어 목표 10인 Hoa Da로 進入하여 廢屋 하나 하나를 누볐다. 포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海岸지대인 Gia Son(1)을 거쳐 △68 一帶로 進出하였으며 제 7 중대(장, 李圭奭 대위)는 Suoi Chua Hay(川)를 건너 목표 13인 △156의 Nui Tru Rang을 점령 하였으나 X-mas休戰 기간중 敵은 이미 我軍의 작전기도를 눈치 차렸음인지 모두 退走하여 接觸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각 중대는 現 進出線에서 夜間방어로 轉換하였다.

#### 제2단계(12월 27일~28일)

이 단계 역시 제 1 단계와 마찬가지로 제 3 단계의 전초전인 것이다. 제 3 대대가 Dong Ba Tinh과 Nha Trang을 잇는 광대한 지역에서 「번개 1,2,3호 전투」를 종료하고 Tuy Hoa로 공수이동한 다음 Tuy Hoa 南쪽 비행장 아래쪽에 陣地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1개중대는 이미 제 2 대대에 依한 제 1 단계에 參加하여 2개중대만으로 전투준비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작전개념은 다음해 1월 1일을 期하여 韓·美·越 합동으로 展開할 「靑龍 1號」 제 3 단계(一名, JEFFERSON)가 전개될 때 여단(-)이 목표를 攻擊하기 위하여 여단 전술지휘소가 설치될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부터 Song Da Nong(江)에 이르는 제 1 번 道路 주변에 散在한 마을들에 對한 探索으로 특징 지어졌다.

**12월 27일(D + 6) :** 여단은 이날 제 3 대대(-)에 依한 제 2 단계에 착수하는 한편, 李鳳出 준장은 여단 참모와 함께 Dong Ba Tinh의 母基地를 출발하여 Tuy Hoa 南쪽 비행장에 도착한 다음 전술지휘소를 開設하고 예하 제 2, 제 3 兩대대의 작전을 指揮하였다.

(가) 제 2 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이날 07.00부터 제 6 중대로써 목표 14, 15에 대한 攻擊을 敢行케 하는 한편 제 9 중대(-)로써 “헬리콥터”에 의한 공수돌격을 併行토록하여 목표 15의 北東쪽으로 敗走가 예상되는 敵을 도착 섬멸케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제 5, 제 7 兩중대로 하여금 現進出線에서 소부대 탐색을 벌이게 하였다. 이날의 공격목표인 14와 15는 최초 본 작전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美제 1 야전군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展開되었는데 10.00에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田畓과 沙場지대를 통과하여 목표 14인 △126 ~ △118를 점령하여 지역일대를 精探하고 이어 14.30에 최종 목표 15인 Tan Qui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 9 중대(-)는 美해병 “헬리콥터”로써 2개소대가 목표 15의 北東쪽 1.5km의 착륙지대에 공수되어 예상되는 敵 退路를 차단하였으나 狀況의 변화가 없었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이날 제 10 중대로 하여금 목표인 Phu Hiep과 Tho Lam 지역을 探索토록 하였다. 06.30에 出動한 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08.40에 Phu Hiep(1)에 진입하여 마을 어귀에서 위장 대피호 1개소에 隱避中인 VC 용의자 11명을 체포하여 대대로 押送하였다. 10.00에 海岸지대인 Phu Hiep에서 마을 수색을 벌였는데 집집마다 많은 數의 대피호와 교통호가 위장되어 있었고 이런 據들은 울타리와 장독대 및 짚단 쌓아놓은 곳 등으로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중대는 한 家屋을 探索中 11.30에 미처 退避하지 못한 VC 2명을 사로잡았는데 파견된 越南 경찰관을 통하여 심문하니 「며칠전 부터 Tuy Hoa 비행장에 많은 대수의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것을 보고 지역 VC은 모두 山으로 潛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까닭에서인지 家屋마다 老人과 婦女子 및 어린 아이들 밖에 없었다. 중대는 계속 Thu Lam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마을 1, 2, 3을 각각 누린 다음 Phu Hiep으로 철수하여 夜間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12월 28일(D + 7) :** 여단은 이날 제 2 대대에 依한 제 1 단계를 끝마치고 제 3 대대의 제 2 단계를 수행하였으며 제 2 대대 전투단에 배속되었던 지원부대들을 原隊로 복귀케하였다. 그

런데 이날 美軍사령관인 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이 여단장에게 보낸 『Phu Yen省에서 展開한 黃海兵들의 작전결과에 對하여 기뻐하는 바이며 勝利를 쟁취한 제 2대대 장병들에게 祝賀를 보낸다.』라는 내용의 축전이 접수되었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晝 중령)는 여단 命令에 의거 이날 07.00를 期하여 제 6, 제 9 兩중대를 “헬리콥터”로, 또 제 5, 제 7 兩중대와 지원부대를 제 1번 道路를 따라 차량으로 復歸케 하여 午前中에 대대 전술지휘소가 개설된 Tuy Hoa 北쪽 비행장에 集結시켜 일단, 점검을 끝낸 다음 13.00를 期하여 제 1 단계를 終了하였다. 대대는 이어 13.40부터 제 3 단계를 위하여 Tuy Hoa 南쪽 비행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각 중대별로 임시 진지를 편성하였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전날 제 10중대로써 Phu Hiep과 Tho Lam 지역에 對한 마을 探索을 展開한데 이어 이날은 제 11중대로 하여금 제 1번 道路로 부터 西進하면서 Nui Chai(山) 北쪽에 해당하는 Phuoc Binh(1)-Canh Phuoc 지역에 對한 探索을 벌이도록 하였다. 06.00에 차량으로 中隊基地를 벗어난 제 1 중대(장, 劉南奎 대위)는 이따금 개짓는 소리 以外엔 쭈 죽은듯한 아침 공기를 뚫고 行動을 시작하여 Hieu Xuong 郡廳 南쪽의 새갈래 교차로에서 下車한 다음 제 1, 제 2 兩소대 및 60mm포반을 左一線으로 하여 중대장이 지휘하고 제 3소대와 화기소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부중대장인 朴憲泰 중위로 하여금 지휘케 하여 각각 다른 進路를 利用하여 목표로 進出하였다.

본대가 제 1번 道路를 따라 南쪽으로 前進하여 07.30에 Dong My 지역에 이르렀을때 박격포반장인 張相奎 중위가 1개분대를 인솔하여 중대 임시 관측소를 선정하기 위한 지역 정찰에 나섰는데 주위가 모두 눈으로 되어 있어 언덕진 곳을 살피다가 한곳에 풀밭으로 된 높은 지대를 찾아내어, 제 1분대장이 조그마한 눈뚱을 뛰어넘자 선인장을 利用하여 埋設한 “부버트랩”이 폭발하여 뒤를 따르던 崔仁洙 상병이 戰死하고 분대원 4명이 각각 파편상을 입었다. 중대장은 즉각 “헬리콥터”를 요청하여 전사상자들을 후송하였는데, 여단이 派越한 以來 “부버트랩”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기는 이번이 처음으로써 將兵들의 경각심을 불터 일으켰다. 중대는 다시금 목표인 Phu Long으로 前進하여 과견된 越南 경찰관과 함께 마을 探索에 拍車를 加하였는데 14.45에 突然, 東쪽 前方으로 부터 敵의 小銃 사격이 集中되어 先頭에서 前進하던 安正榮 상병이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전사하고 대원 1명이 대퇴부에 負傷을 입었다. 이에 중대는 敵 사격방향에 一齊사격으로 應射하여 敵을 침묵시킨 뒤에 17.00에 反轉 탐색으로 제 1번 道路까지 나와 부중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와 合勢한 뒤에 중대 基地로 복귀하였다.

12월 29일~31일(D+8~10): 여단은 이 3일간을 이 작전의 제 3 단계를 효과적으로 展開하기 위한 부대정비 및 준비기간으로 定하였는바 여단본부와 작전 부대는 이미 시달한 작전명령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변경 및 보완사항을 검토하였는데 여단장은 작전 및 관계부서에 다음과 같은 첩보기본 요소(EEI)를 하달하였다.

- 『1. 작전지역내에서 暗躍中인 VC의 陣성과 장비 및 행동상황.
2. 敵의 보급품 은닉장소와 地下洞窟의 형태와 數 및 利用 방법 그리고 물자와 종류와 數量.
3. 지역내에 설치한 장애물의 種類와 性能 및 설치범위와 규모.
4. 敵이 利用가능한 潛伏地 및 저격에 유리한 위치.
5. 現在 까지 확인되지 않은 敵의 새로운 장비.
6. 戰鬪 서열상 명시된 敵 상황 및 이동사항.
7. 住民의 動態와 VC 동조자들의 행동범위 및 내용과 분포 및 地下 조직 상태.
8. 파괴된 道路와 橋梁 및 鐵橋의 위치와 파괴범위 및 파괴방법.
9. 새로 投入된 敵 부대가 있다면 그 團隊號 및 兵力과 장비 그리고 陣성과 위치.』

29일에는 군사령관 蔡命新 소장이 여단을 순시하여 제 3 단계 계획의 보완사항을 보고받고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을 격려하였으며 30일에는 20여명의 母國위문공연단이 來團하여 09.30부터 2시간 동안 公演하였다. 한편 이날 여단 요청에 依하여 美제24심리전 파견대에서는 제 3 단계 지역에 對하여 4시간에 걸쳐 安全통행증을 걸한 귀순 권고문 전단 65,000枚를 撒布하면서 對民 공중방송을 실시한 결과, VC 통제하의 住民들이 白旗를 들고 큰 道路를 따라 Hieu Xuong 郡廳으로 몰려 왔는데 그 數는 1,000명을 넘었다.

31일에는 제 3 단계를 위한 최종부대 점검 및 준비를 하였으며 제 2 대대는 現 陣地로부터 前方으로 10km 移動하여 다음날 전개될 攻擊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參謀회의를 주재하고 난 다음 제 2, 제 3 대대장을 전화로 불러 『내일 부터 시작할 작전에서는 최소의 손실로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 하라.』고 지시하였다.

### 제3단계(1960년 1월 1일~16일)

여단(-)은 제 2, 제 3 兩대대에 의한 제 1, 제 2 兩단계를 예정대로 끝내고 새해 1월 1일 08.00를 期하여 共產軍의 요충지로 알려진 Tuy Hoa 南쪽 Hieu Xuong 산악지대에 對한 攻擊에 나섰다. 작전시작 전날인 12월 31일에는 심한 强風과 暴雨가 쏟아지는 까닭으로 航空지원에 차질을 초래할까 염려하였으나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로 하였다. 작전개념은 作戰 命令에 명시한대로 美軍의 航空, 艦砲 지원 아래 제 2 대대를 여단 右一線 공격부대로 하여 목표 X와 Y에 대하여 각각 1개 중대씩으로 공격케 하고, 제 3 대대를 左一線 공격부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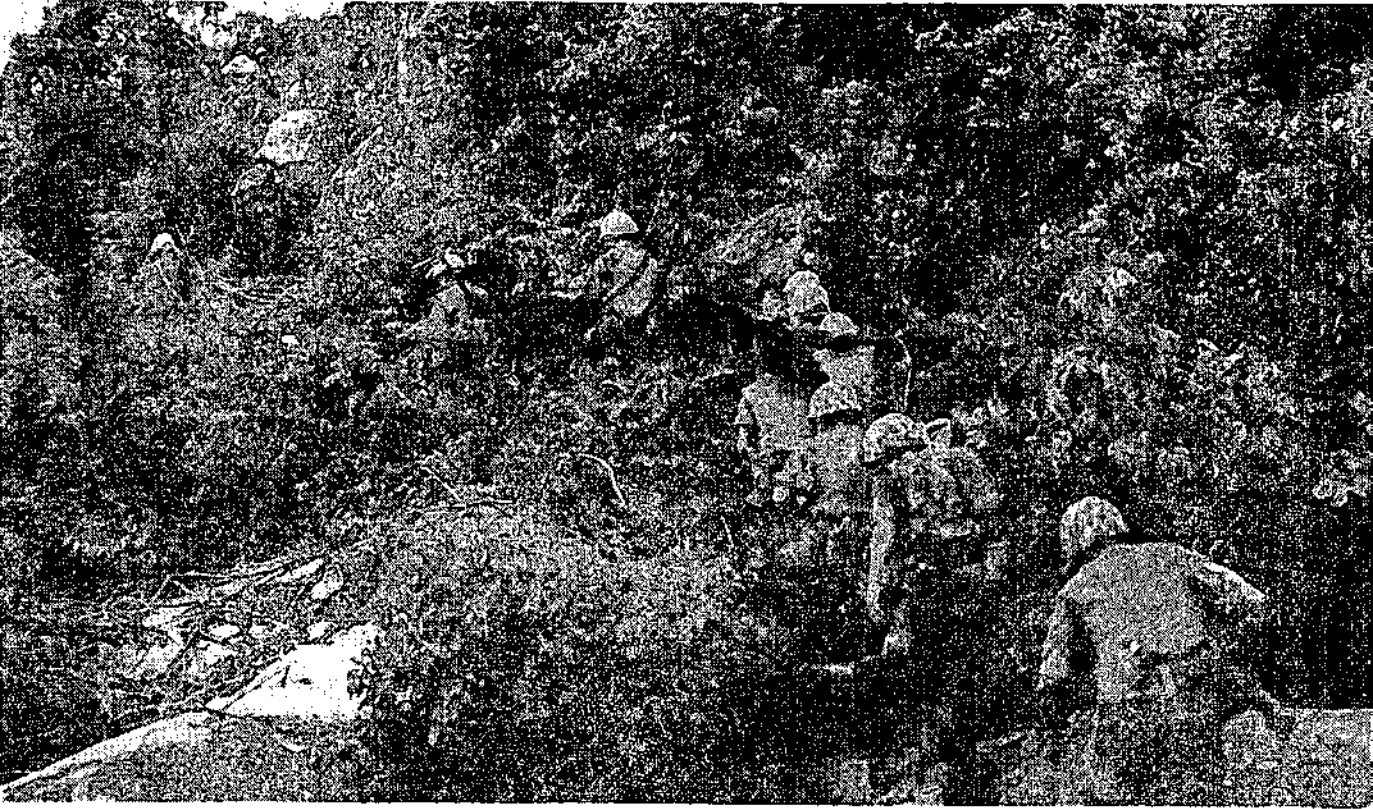


하여 2개중대를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기동으로 목표 A와 B에 投入하고 나머지 1개중대 로서는 목표 H에 대한 공격을 執行토록 하였다. 한편 제 2대대의 右側方은 越南 제22사단 장이 통제하는 공수여단의 2개대대가 부여된 목표 1,2,3을 공격함으로써 측방엄호를 담당 하도록 계획되었다.

1월 1일(D+11): 설날 아침 04.00가 되자 밤새 계속되는 곳은 비를 맞으며 將兵들은 出 動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여단 본부에서는 火力 및 “헬리콥터” 支援과 通信축선 점검 등, 중대 천막 2개를 합쳐 이어만든 상황실이 매우 부산하게 움직였다. 당초 계획한 航空목격 은 日氣의 不順으로 보류되고 艦砲 및 砲兵의 支援사격이 破裂音을 내는 가운데 攻擊이 시 작되었으나 越南軍과의 聯合작전은 그 첫날 부터 제동이 걸렸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제 5, 제 7 兩중대를 攻擊부대로, 제 6중대를 豫備로 하여 攻擊 개시선으로 徒步移動 하였다. 계속 내리는 비로 將兵들은 흠뻑 젖어 있었으나 제 1번 道路를 따라 Ban Thach 橋梁으로 進出하였다. 07.45에 康用仁 대위가 지휘하는 제 5중대가 Ban Thach 橋梁을 통과하고 南쪽으로 1km 떨어진 Phu Khe(1)로 進入하려 하자 제 1번 道路 西쪽 마을의 대나무 숲으로 부터 敵의 自動화기 사격이 集中되자 중대장은 즉 각 중대를 散開하여 전투배치한 다음 60mm 박격포로 制壓하고 계속 공격개시선을 향하여 進出하였다. 대대 集結地로 부터 10km 떨어진 攻擊개시선에 전개한 제 5, 제 7 兩중대는 당초 보다 40분이 늦은 08.40에 一齊히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여 제 5중대는 左一線 중대로 목표 Y인 Nui Cau Song Van(山)을 攻擊하였다. 중대는 최초 接敵 없이 田畝과 늪지대를 지나 09.30에 목표 Y의 下端에 가로 놓인 Suoi Hoc Mit(川)의 중간지점으로 進出하였을 때 前方의 목표로 부터 敵의 自動화기 사격이 집중되므로 중대장은 1개소대를 左側方으 로 迂回시켜 목표의 하단부를 탐색케 하고 중대(-)으로써 敵을 制壓하면서 계획된 機動路를 따라 進擊하였는데 한 場所에서 大型동굴 1개소를 탐색하여 저항하는 VC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아 押送하였다. 중대는 목표로의 攻擊을 계속하다가 14.00에 목표Y의 南쪽 下端으로 進擊中 高地중간지점으로 부터 敵의 自動화기 사격이 다시 集中되자 제 1소대장 인 鄭在源 소위가 敵陣으로 돌격하면서 수류탄으로 그들의 火器진지를 擊破하여 4具의 遺棄시체를 확인하였는데 突擊間에 뒷장렬 일병이 敵彈에 맞아 장렬하게 戰死하였다.

한편 제 7중대(장, 李圭台 대위)도 攻擊 개시선을 벗어나 목표 X고지를 탈취코자 進出 中 Phu Khe(1) 西쪽의 논 한가운데 있는 無名고지를 探索 끝에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天然동굴 1개소를 탐색한 結果 주위에서 피복을 제조 하거나 수리한 흔적이 엿보여 VC



제2대대가 목표 X를 공격하고 있다

의 피복수리소로 추단되었다. 중대는 12.00에 목표 X의 南端部를 점령하고 주변에 對한 精探을 계속중 12.35에 河春雄 소위가 지휘하는 제 2소대의 1개분대가 △48 西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탐색코자 進入하는 순간 越南軍의 제 3 攻擊목표에 友軍의 복장을 한 軍人 10여명이 流動하는 것을 보자 이들이 僚軍인지 아니면 VC인지 잘 분간할 수 없어 중대에 이를 確認하러 할때 突然히 同高地 南西쪽 下端의 “정글”로 부터 一齊사격이 集中되어 분대장 安萬在 하사와 분대원 3명이 銃傷을 입고 쓰러졌으며 蔡熙雄 일명과 崔乘道 일명이 戰死하였다. 대원들은 눈 뚝에 업드려 應射하는 동안 분대원 1명이 이 지역을 탈출하여 소대장을 찾아 달려 나갔다. 敵의 사격은 더욱 熾烈하여져 李丁龍 일명이 兇彈에 맞아 또 戰死하고 申範萬 병장 外 1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先任兵인 申 병장은 부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대장을 대리하여 대원들에게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라고 외친다음 單身으로 대원들을 엄호하였으나 衆寡不敵인데다가 地形이 不利한 탓으로 洪益杓, 金成鎭 兩일명과 함께 壯烈

히 陣沒하고 나머지 대원 3명도 모두 負傷하였다.

한편 소대장은 進出中 제 1분대와 交響이 끊기고 제 1분대 進出 지역으로부터 지속적인 銃擊 소리가 들리므로 심상치 않게 여기고 이 지역으로 황급히 달려나가던중 交鋒地에서 탈출한 대원으로 부터 분대 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는 즉각 중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2개 분대를 指揮하여 105mm와 155mm포의 지원아래 救出에 나서 一部 부상한 몸으로 철수한 분대원을 포함하여 戰傷者 6명과 6具의 屍身을 救急 “헬리콥터”로 後送하였다.

당초 제 7중대가 목표 X를 攻擊할 때 越南軍이 목표 1, 2, 3을 동시에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던바 越南軍은 목표 1의 下端에서 한발짝도 前進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져 聯合작전은 첫날부터 자질이 생겼으며 이런 시행착오는 급기야 我軍의 損失을 내게 하고야 말았다. 이에 여단에서는 越南軍에 이를 항의하는 한편 제 2대대의 작전을 변경할것을 구상한바, 다음날 대대로 하여금 越南軍의 목표 2와 3을 우선 공격키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로 하여금 이를 준비토록 긴급 명령함으로써 대대는 地形지물 하나 변변히 이용할 수 없는 논과 늪지에서 敵을 견제하며 夜間急編방어로 轉換하였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06.00를 期하여 제 9중대를 목표 H를 공격케 하고 제 10, 제11 兩중대로서 목표 A와 B에 “헬리콥터”로 공수 投入하여 돌격을 敢行케 하였다. 이에 成炳文 대위가 指揮하는 제 9중대가 차량에 탑승하여 06.20에 공직개시선인 Tho Lam (3)으로부터 해안에 있는 Phu Hiep(3)까지 展開하여 南進하던서 探索을 벌였다. 07.45에 左一線인 제 1소대가 목표 1인 Phu Hiep(2) 南쪽지역을 확보하여 주변을 探索끝에 家屋에 隱避中인 VC 용의자 5명을 체포하였으며 제 2소대는 Tho Lam (1)을 경유하여 Da Ngu (1)에 進出하였을때 이곳에서 敵의 위장 대피호 4개소를 탐색 끝에 폭탄 500 l/b를 노획하고 VC 용의자 11명을 체포하여 押送하였다. 중대(-)는 Da Ngu(4)까지 탐색을 하였는데 12.50에 Song Da Nong(江) 기슭으로부터 사격이 集中되어 중대원 2명이 부상하자 곧 그들을 進擊하여 退走하는 VC 12명을 사살하고 4명을 俘虜로하는 한편 현지에서 砲殺된 시체 41具를 現認하였는데 이는 攻擊준비사격에서 죽은 者들로 판단되었다.

제 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헬리콥터”탑승지역에서 行動을 시작하여 07.55에 제 1과가 보슬비와 얇은 안개로 뒤덮인 목표지역에 착륙한 뒤를 이어 08.20에 공수가 끝나자 1개소대는 Phuoc Giang(5)를 또한 중대(-)는 Nui Bui Goc(山)과 Phuoc Giang(6) 一帶에 對한 攻擊에 나섰다. 중대는 09.50에 Song Da Nong(江) 南쪽에서 退避하는 VC 3명에게 사격을 集中한 끝에 모두 사살하고 부근에서 砲殺된 屍體 1具를 확인하였으며 12.40에 Nui

Goc(山) 하로부터 길이 5m, 폭 2m 되는 洞窟 1개소를 탐색한 다음 이를 파괴하고 계속 주변을 探索하다가 山으로 退走하는 VC 3명을 목격하는 즉시 1명을 사살하였다.

또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는 제10중대에 이어 08.25부터 “헬리콥터”로 공중기동하여 09.00에 Nui Giuc Kinh(山) 北쪽의 My Khe(2)에 착륙하자 곧 제 1소대를 My Khe(1)로, 제 2소대를 Phuoc Giang(4)로, 그리고 제 3소대를 예비로 하여 探索에 들어갔다. 11.20에 제 1소대가 My Khe(1)로 進出中, 마을 어구로부터 敵의 小銃사격을 받아 소대원 1명이 부상하는 즉시 應射하였으나 그들의 行方이 杳然하여 부근 일대를 精探하다가 18.00에 My Khe(2)에서 夜間급편 방어로 전환하였는데 22.00에 이동하는 VC의 일당에게 사격을 집중 끝에 1명을 사살하였다.

**1월 2일(D + 12)** : 이날 美제 1야전군 사령관 Larson 소장이 여단을 방문하여 작전현황을 살폈다. 한편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전날 전개한 越南軍과의 聯合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越南軍의 목표 1과 2를 제 2대대로 하여금 공격케 하는 동시에 제 3대대의 탐색도 계속케 하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제 5, 제 7 兩중대를 突擊중대로 하여 목표 2를 攻撃케 하는 동시에 예비인 제 6중대를 목표 Y의 北端으로 이동시켜 목표 3에 對한 攻撃을 준비토록 하였다. 08.00부터 09.00까지 航空 및 艦砲와 여단의 支援포병의 공격 준비사격이 집중된데 이어 09.00부터 보병부대의 攻撃이 시작되었다. 제 5, 제 7 兩중대는 天然 洞窟을 利用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敵을 擊破하면서 15.15에 목표 2를 탈취한 다음 제 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목표 2의 左端部에, 또 제 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목표의 右端部에 부대를 산개하여 洞窟탐색을 벌였으며 제 6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Phu Khe(1)의 無名고지 西쪽으로 이동하여 다음날에 있을 목표 3에 對한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여단 명령에 따라 제 9중대의 1개소대를 여단 예비대로 전환케하는 동시에 전날에 이은 목표 일대의 探索을 계속하였다.

제 9중대(-)는 成炳文 대위 指揮下에 08.50부터 행동을 시작하여 Da Ngu(2)에서 VC 용의자 2명을 체포하였으며, 전날 사로잡은 용의자 가운데 1명이 VC 소대장으로 밝혀지자 이들을 앞세우고 Da Ngu(3)의 江 기슭에서 洞窟 1개소를 찾아 내었는데 Mity Mite 분부기로 연기를 쫓아 내부로 불어넣자 VC 용의자 및 婦女子 포함 31명이 內部로부터 거어나왔다. 이들을 護送한 연후에 제 3소대장인 李潤鎬 소위가 工兵탐지반을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2m의 폭에 길이 70m나 되는 大型 洞窟이었다. 1개중대의 병력을 능히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좌와 右로 4m씩의 깊이로 파져있었다. 소대는 內部로 들어가면서 75mm 무반동총탄 2발과 60mm 박격포탄 3발을 노획하였는데 16.00에 연대장 겸 참모장인 鄭台錫 대령이 여단 정보참모를 대동하고 “헬리콥터”로 여기에 도착하여 이를 視察하고 돌아갔다.

제 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08.00부터 2개소대로써 Nui Bai Goc(山) 南쪽의 낮은 高地들을 探索하다가 12.35에 友軍의 砲擊을 피하려고 山을 타고 기어 내려가는 VC 3명을 사살한 다음 중대基地 부근에 6개조의 埋伏隊를 배치하고 夜間 급전방어로 轉換하였다. 한편 제 11중대(장, 劉南圭 대위)도 전날에 이어 목표 A에서 探索을 계속하였는데 10.00에 제 1소대가 My Khe(1) 西쪽의 제 1번 道路邊에서 北上하는 VC 1개소대 규모를 목격하고 射擊을 集中하자 이들이 應射하면서 退走하므로 105mm砲사격을 요청하여 모두 砲殺하였다. 이때에 확인된 敵의 遺棄시체는 25구에 달하였다.

한편 Nui Giuc Kinh(山) 하류를 探索하던 제 2소대는 14.45에 洞窟 1개소를 탐색하다가 또다시 洞窟 2개소에서 소총실탄 2,900발과 60mm 포탄 3발 및 대인지뢰 1개를 노획하였다. 중대는 17.00에 전날 夜襲하였던 지점으로 복귀하여 야간방어를 준비중 17.10에 제 1소대 제 2분대장 李男務 하사가 Song Van(江)으로 退避하는 VC 1명을 單身으로 追擊 끝에 사살하였다.

**1월 3일(D + 13)** : 군사령관 蔡命新 소장과 美제 1 야전군 사령관 Larson 소장이 여단을 방문한 가운데 제 3 단계의 3일째를 맞은 여단은 전날 당초 越南軍의 목표였던 목표 2를 점령하였으나 목표 3지역에서는 敵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다. 그리하여 155mm 곡사포를 敵의 사정권내까지 推進시켜 直接지원사격으로 그들의 진지를 強打하는 등 可用한 火力을 모두 動員하고, 1개중대를 추가로 投入하여 공격부대의 전력을 보완하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靑 중령)는 이날 05.00를 期하여 목표 3에 對한 黎明공격을 시작하였다. 제 5, 제 7 兩중대가 전날 탈취한 목표 2에서 側方엄호로써 敵을 제압하는 가운데 제 6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無照明, 無支援아래 攻擊을 敢行하여 06.10에 목표 1의 下端部까지 接近하였다. 이때 갑자기 正面的 敵으로부터 一齊사격이 集中되어 중대원 1명이 부상하여 後送되었으며 계속하여 攻擊中 암석지대에서 砲殺된 屍體 5구를 확인하고 洞窟에서 저항하는 VC 6명을 사살하였다.

중대는 密林과 岩石으로 點綴된 지역을 一步一步 전진중 09.15에 목표 전방으로 부터 또다시 射擊이 집중되어 30분간에 걸친 交戰이 계속되었다. 이때 敵은 天然洞窟과 차폐물을 利用하여 계속 自動火器로 불을 뿜어대자 중대의 攻擊은 잠시 頓挫되었다. 이때 중대 중앙

을 담당한 제 2 소대장 李鍾吉 소위는 소대원들에게 엄호를 당부한 뒤 수류탄을 움켜쥔채 敵의 자동화기 陣地가까이로 포박하여 敵陣 20m 전방에서 몸을 일으키는 순간 敵 화기진지에서 2개의 수류탄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李소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에 腐接하여 소대는 一齊히 突擊하여 對峙한 分子들을 擊破한 다음 쓰러진 소대장을 일으켰으나 그는 顔面이 괴루성이가 된채 몸이 식어갔다. 원한의 兇彈이 오른쪽 脛자놀이를 꿰뚫었던 것이다.

그는 28세의 方長한 나이로서 창창한 未來의 부군 꿈을 지니고 있었다. 故鄉을 向한 강열한 애착도, 늙은 노부모에 대한 孝心도 가슴에 깃들어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祖國의 榮光과 自由수호를 위하여 이역땅 푸른 山野를 빨강계 물들이고 혼연히 눈을 감았으니 派越 해병장교로서 첫 번째로 壯烈하게 戰死한 것이다.

敵의 저항은 또다시 계속되어 狀況의 變化를 찾을 수 없게 되자 대대장 吳允晉 중령은 중대를 右側方으로 300m 이동케 한 뒤 여단 계획의 일환으로 증원되는 제 9 중대와 竝進 공격키로 작전계획을 일부 변경하였다. 13.00부터 30분간에 걸쳐 항공기에 依한 연락 및 榴霰탄의 投下와 砲兵의 제압사격이 집중되었으며 15.30부터 제 6 중대를 右一線, 제 9 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一齊공격에 들어갔다.

이에 △48 右側方의 개활지로 부터 攻擊에 나선 제 9 중대(장, 咸炳文 대위)가 목표 3의 下端部를 向하여 田畝地로 進出하자 前方의 敵陣으로 부터 사격이 集中되어 대원 1명이 부상하였다. 곧 이어 중대원들이 움직일 때마다 照準彈이 날아들어 負傷兵이 속출하자 攻擊이 멈추어졌다. 右一線의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도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攻擊이 여의치 못하자 대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이 攻擊을 재검토키로 하고 어둠을 利用하여 일단 兩개 중대를 목표 X지역 뒤로 철수키로 하였다.

18.00가 되자 이미 山 하륙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였는데 제 6 중대의 철수로는 눈치가 가로 놓여 있어 行動에 많은 制限을 주었다.

이때 갑자기 後尾로 부터 제 2 소대를 향하여 小銃 實탄이 集中되자 제 3 분대의 자동소총 사수인 廉鍾管 상병이 재빨리 銃口를 돌려 다가서는 VC 3명을 射殺하고 조원들에게 빨리 뛰라고 소리친 다음 自身은 몸을 굴러 嶺지에 엎드렸다. 그러자 2명의 VC이 그의 앞으로 기어 接近하므로 죽은듯이 가장하고 있다가 이들이 눈앞에 다가섰을 때 急射를 集中하여 사살하고 움푹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찾아 몸을 감추었다.

이미 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으로 方向조차 辨別할 수 없었으며 대원들의 行方도 묘

연하였다. 이때 어둠 속의 四面으로 부터 VC의 목소리가 들렸다. 廉鍾官 상병은 비록 敵陣속에 갇혀 있는 몸이었으나 勇氣를 잃지 아니하고 밤이 새도록 이들의 動靜을 살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脫出을 企圖하여 포복으로 敵陣을 헤친 끝에 무려 13시간만에 소대 哨所에 다달았는데 그의 몸은 바위에 부딪치고 가시나무에 활켜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 러자 敵에게 포로가 되었거나 아니면 죽은줄만 알았던 소대장 以下 전대원들이 기쁨을 참지못하였으며 이 事實은 곧 여단장에게 까지 報告되었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10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제 9중대가 담당하였던 지역을 확보케 하는 동시에 2개중대(-)로써 목표 A와 B에 對한 전과확대를 기도하였다.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10.00부터 Bai Goc 高地를 再探索중 山의 北쪽 下麓에 있는 洞窟 4개소에 Mity Mite로 연기를 불어넣었으나 별다른 敵情을 얻어내지 못하고 15.30에 전날의 野營地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도 제 1번 道路 주변을 中心으로 探索을 계속하다가 15.30에 흑색복장을 한 VC 7명이 西쪽 山岳지역으로 退走하는 것을 목격하자 사격을 集中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蔡命新 군사령관이 파월미군 부사령관과 함께 전방 전술지휘소관 시찰하고 있다.

1월 4일(D+14):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목표 3에서 저항하는 敵이 그 兵力규모에 있어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天然 洞窟을 利用하여 我軍에게 損失을 強要하고 있었으나 地形의 특징상 공격을 反復하다가는 戰力과 時間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本作戰계획에도 지장을 줄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航空 및 砲兵의 火力을 최대한 동원하여 이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것을 決心하고 美軍의 항공기를 요청하고 여단의 全 砲兵火力을 이 지역에 집중하여 무려 3,000여발의 포탄을 퍼부어 層岩의 敵陣일대를 파괴한 뒤에 이를 越南軍에 넘겨주었다. 그뒤 제 2대대 증강으로 당초 계획대로 목표 X 및 Y를 공격케 하였으며 또 제 3대대로 Song Da Nong(江) 南쪽의 山岳일대에 對한 戰果를 확대하였다. Tuy Hoa 지역에서의 戰鬪가 날로 加熱化 하자 國內外로 부터의 耳目이 점차 이 지역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이날 파월 美軍 부사령관 Heintiges 중장 一行이 여단을 방문하여 군사령관 蔡命新 소장과 함께 작전을 지켜 보았으며 연대장 겸 참모장인 鄭台錫 대령의 안내로 제 2대대 전술지휘소를 시찰하여 대대장으로 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그런데 그가 탑승한 “헬리콥터”가 離陸하는 순간 方向 不明의 敵으로부터 對空사격이 集中되었으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가) 제 2대대(장, 吳允禧 중령)는 목표 2를 확보중인 제 5, 제 7 兩중대 가운데 제 5중대를 뽑아 목표 Y를 攻擊케 하는 동시에 제 6중대로 하여금 목표 X의 무명高地를 越南軍에 인계토록 하고, 아직도 △48 岩石지대에 도사린 敵을 제 9중대로써 索出, 격멸한 뒤에 이 지역도 越南軍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제 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목표 2에서의 방어임무를 13.30에 제 7중대(장, 李圭台 대위)에 인계하고 목표 Y를 공격하기 위하여 Suoi Hoc Mit(川)邊으로 이동하여 목표 Y-1로 進出中 17.40에 右一線인 제 1소대 前方 100m에서 敵의 自動화기 사격이 集中되자 彼我間 치열한 交戰이 벌어졌는데 최초 敵의 銃擊으로 金秀東 병장이 戰死하고 대원 4명이 부상하였다. 105mm 곡사포와 106mm 무반동포의 支援을 받은 중대는 비오듯 퍼붓는 銃彈을 뚫고 突進을 거듭끝에 이들을 제압하여 砲殺된 것을 포함하여 遺棄시체 25具를 확인하고 소총 5정을 노획하였으며 목표 Y-1의 3부 능선에서 夜間급편방어에 들어갔다.

제 6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목표 내의 무명高地를 越南軍에 인계하고 依命 출동준비를 갖추던중 11.30에 중대관측소에서 △48 下端으로부터 內陸쪽으로 退走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觀測하는 즉시 105mm 포사격을 유도하여 19명을 砲殺하였다. 한편 제 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14.00에 △48 一帶에 潛遁한 分子들을 索出코자 중대를 高地 南쪽으로 展



開中 14.15에 중대 관측소에 81mm로 추측되는 박격포탄 1발이 떨어져 중대장이 가벼운 파편상을 입었으며 航空화력 지원을 위하여 중대에 파견된 美공군 연락장교인 Carr 소령과 Lisenby 대위 그리고 제 2소대장 安一燮 소위 및 중대원 4명이 부상을 입고 “헬리콥터” 2대로 긴급 後送되었다. 중대장은 경상을 입었으므로 後送을 거절하고 중대를 계속 指揮하여 지역내를 探索하다가 17.30에 夜間방어진지를 준비하였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9중대가 제 2대대에 配屬되었으므로 2개중대(-)로 작전을 계속하였는데 전날 제 9중대 지역을 맡았던 제 10중대(장, 韓國道 대위)의 1개소대가 Phu Lac 마을 주변을 계속하여 探索하는 한편 중대(-)는 09.00부터 “헬리콥터”로써 Nui Hon Ba(山) 北쪽 下麓으로 공수되어 6개월 前 이 지역에서 VC에게 강제로 부역하다가 脫出하였다는 越南人 1명과 VC 귀순자 2명을 Hieu Xuong 郡廳으로 부터 지원받아 高地 주변에 散在한 天然洞窟을 精密하게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13.00에 후위를 맡았던 제 3소대가 高地아래 주변을 探索中 제 3분대 제 1소대장 池成植 병장이 소대장 趙英辰 소위에게 달려가 左側의 한 후미진 곳을 가리키며 바나나 나무에 가려있는 洞窟에서 이상한 物體가 엿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1개분대를 지원 및 엄호분대로 배치하고 2개분대를 지휘하여 침착한 동작으로 洞窟 입구로 다가가 여기에서 “오토바이” 1대와 자전거 2대를 회수하고 Mity Mite로 연기를 굴 속으로 불어 넣었으나 응답이 없으므로 내부로 들어 갔는데 여기서 아직 뜯겨지지 않은채 포장된 AK소총 12정을 노획하고 중대 基地로 복귀하였다.

제 11중대(장, 劉南圭 대위)도 09.00에 行動을 개시하여 △336인 Nui Giuc Kinh(山) 北麓 一帶를 探索하였는데 제 3소대가 11.15에 VC 2명이 실탄상자를 등에 메고 이동하는 것을 追擊끝에 사살하고 개인화기 1정과 실탄 30발을 노획하였으며 끝이어 天然洞窟 1개소를 탐색하였다. 한편 右一線의 제 1소대는 11.45에 My Khe 鐵橋 부근으로 進出하여 주변을 探索中, 友軍의 포격으로 죽은 屍體 7구를 확인하였으며 散在한 洞窟을 精探하다가 李男務 하사가 지휘하는 제 2분대가 洞窟 내부에서 저항하는 VC 2명을 사살하고 실탄이 장진된 소총(日本製) 6정과 포장된 소총(日本製) 6정, 도합 12정 및 소총실탄 1箱子를 노획하였다. 소대는 계속 주변을 정탐하여 砲殺된 敵 시체 28구를 확인함으로써 이 지역 一帶가 敵의 蟠踞地이자 보급품 집적소임을 알아 내었다.

1월 5일(D+15): 이날 따라 날씨는 흐리고 약간의 부슬비 마저 뿌렸다. 申尙澈 주월대사가 여단을 방문하여 戰況을 지켜보는 가운데 제 2, 제 3 兩대대에 依한 작전 5일째를 맞

았다. 여단은 제 2 대대로 하여금 목표 X를 越南軍에 인제하고 목표 Y에 대한 본격적인 攻擊을 준비토록 하는 동시에 제 3 대대로써 목표 A와 B에 대한 전과 擴大에 주력케 하였다. 한편 제 2 대대에 배속한 제 9 중대를 배속해제하여 여단 예비로 轉換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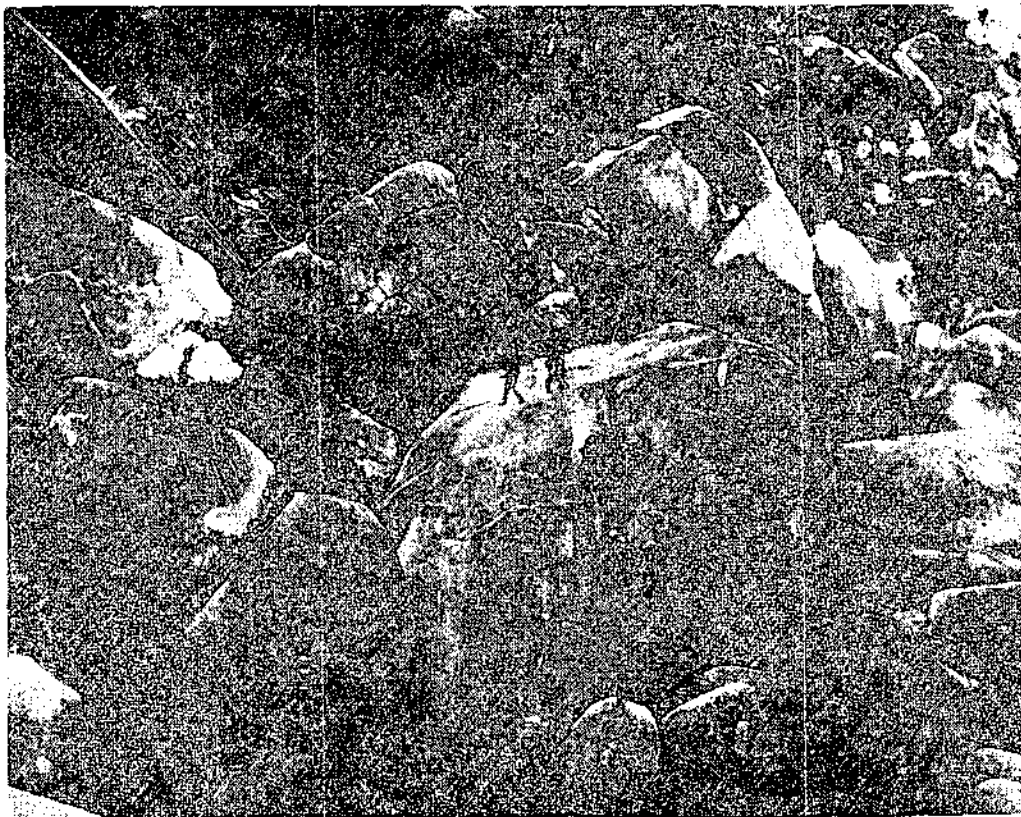
(가) 제 2 대대(장, 吳允諤 중령)는 제 5 중대를 목표 Y-1에, 또 제 7 중대를 목표 Y-2로 竄進 공격케 하는 동시에 제 6 중대를 예비로 控置하였다.

여단 포병대대의 攻擊준비사격에 이어 07.30부터 右一線인 제 5 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험준한 바위를 “로프”를 이용하여 오르고 가시등골로 뒤덮인 “정글”을 헤치면서 계속 高地 정상을 向하여 進出中 09.20에 목표 4부능선에서 天然동굴 7개소를 수류탄과 화염방사기로 攻擊한 다음 內部를 탐색끝에 燒屍 8구를 확인하였다. 또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이에 앞서 06.40에 목표 2로 부터 제 1 번 道路邊의 Phu Khe(2)로 이동한 다음 목표 Y의 左端에 해당하는 목표 Y-1에 對한 공격에 나섰다. 09.30에 Phu Khe(2) 주변의 다울 探索에서 32개소의 대피호를 폭파한 중대는 13.30에 105mm 곡사포 및 4.2''중박격포의 火力 지원을 받으며 接敵없이 17.10에 목표 Y-1을 점령하여 현지에서 夜間급전 방어로 轉換하였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2 대대에 배속한 제 9 중대가 원대복귀와 동시에 여단 예비임무를 맡게 되자 제 10 중대의 戰鬥力을 補強키 위하여 제 9 중대의 1개소대를 제 10 중대에 배속하여 同중대로 하여금 Phuoc Giang(6)으로 부터 西쪽으로 Phuoc Giang(5)를 연하는 계곡과 능선 일대를 探索케 하는 동시에 제 11 중대로 하여금 Nui Giuc Kinh(山) 東北쪽의 계곡 一帶를 探索케 하였다.

10.00를 期하여 제 10 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行動을 개시하여 Nui Hon Ba(山) 계곡 一帶로 進出하다가 11.20에 敵의 一齊사격이 集中되자 중대장은 소대별로 山麓에 散開시킨 다음 敵의 사격방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침묵을 지키자 敵도 사격을 中止하였다.

12.00가 되어 敵의 동정을 살피던 제 2 소대는 金辰洙 소위의 指揮아래 高地로 向하였는데 2부능선으로 부터 銃擊의 集中을 받자 곧 포복으로 전진끝에 敵의 洞窟 전방 30m 되는 지점까지 接近하였다. 我軍의 支援화기 사격도 받을 수 없게되자 소대장은 突擊을 命수하였으나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사격전만이 계속될 뿐 前進이 어려워졌다. 이때에 平素부터 勇猛과 담력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李起學 병장이 수류탄을 움켜쥔채 포복으로 敵陣에 接近하여 몸을 약간 일으키는 순간 兇彈이 그의 가슴을 꿰고 달았다. 이에 분대장이 뒤따라 接近하면서 李병장을 붙잡으려는 순간 저격탄이 날아들어 오른손에 貫통상을 입고 물러



제 5중대가 목표 Y를 향하여 진술하고 있다

났다. 이를 본 趙漢九 병장이 다시 뛰어들었으나 그도 역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兩대퇴부에 판통상을 입고 물러났다. 소대는 敵頭上에 수류탄을 계속 투척하였으나 별 効果가 없었다. 敵은 死體를 미끼로 照準彈을 쏘아대는데 이미 남은 저물어 하는 수 없이 李起學 병장의 屍體를 收容하지 못한채로 다음날 반드시 할것을 다짐하면서 20.30에 중대 基地로 되돌아갔다.

**1월 6일(D+16)**: 여단은 제 2대대로 하여금 목표 Y를 계속 확보하여 제 1번 道路를 장악케 하는 한편 제 3대대로서 Nui Hon Ba(山)와 Nui Giuc Kinh(山) 중간의 계곡 一帶를 探索범위를 확대하여 敵의 後方시설을 파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함께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無電으로 제 3대대장을 불러 『我軍의 遺骸를 敵 수중에 둔다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수취이다. 어떤 손실을 무릅쓰라고도 반드시 收容하라.』고 嚴命하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06.30에 목표지역에 105mm와 106mm, 4.2''와 81mm

포사격을 集中한데 이어 제 5 중대는 목표 Y-3에, 제 7 중대는 목표 Y-4에 對하여 각각 攻擊을 시작하였다. 地勢가 險하고 高地들이 岩層을 이루고 있어 兵士끼리 밀고 당기며 “로프”를 利用하면서 前進을 계속하였는데 제 5 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10.20에 高地 5부 능선에서 天然동굴 도합 12개소를 탐색한 다음 모두 突破하였다. 10.55에 중대 左側方으로부터 內陸으로 退避하는 1개소대 규모의 VC를 觀測하는 즉시 105mm 포사격을 요청하여 15명을 砲殺하고 계속 진출하여 14.00에 목표 Y-3을 점령하였다. 한편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도 목표 Y-4로 攻擊中 14.50에 前面의 敵으로부터 자동화기 및 수류탄의 攻擊을 받았으나 火力의 集中으로 제압한 다음 17.20에 목표 Y-4를 점령하였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09.00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제 10 중대 전술기지로 移動하여 제 10, 제 11 兩 중대의 전투를 指揮하였으며 특히 제 10 중대 李起學 병장 收容에 역점을 두었다.

제 10 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소대장들과 밤새 보안을 숙의하고, 날이 새자 전날의 失敗를 되새기며 攻擊에 들어갔다. 이때 戰況을 취재코자 서울新聞의 李要燮, 中央일보의 玄英鎭, 그리고 美國 NBC의 林潤喆 특파원이 일선소대를 뒤따랐다. 이날 중대장은 金榮彥 소위가 지휘하는 제 1 소대를 右側으로 迂回케 하여 右側山의 敵을 제압케 하고, 金辰洙 소위의 제 2 소대로써 전날과 같이 正面공격을, 그리고 趙英辰 소위가 이끄는 제 3 소대로 하여금 左側方으로 迂回시켜 제 2 소대와 긴밀한 연락아래 敵의 자동화기 陣地에 수류탄을 투척케 하여 이를 擊破토록 계획하였다. 중대원들은 오직 所在의 敵을 覆滅하고야 말겠다는 一念아래 죽음을 각오하고 戰鬪參加를 재촉하였다. 08.00에 공격을 시작하여 무릎까지 빠지는 水濼을 낮은 자세로 躍進끝에 2개소대가 목표 左, 右 兩側山 하쪽에 다달은 같은 시간에 제 2 소대는 1개분대의 엄호 아래 敵陣 10m 앞까지 接近하였다.

이때 60mm “로켓트”반의 金하사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렀다. 「李병장이 어제는 하늘을 보고 누웠었는데 오늘은 업드려 있다.」 소대장 金 소위의 눈에서 불이 켜졌다. 그리고 이를 본 李相道 병장이 제일 먼저 李起學 병장 遺骸앞으로 기어들어 갔다. 이때 右側山의 高地로부터 一齊사격이 집중되어 李相道 병장이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뒤로 물러서면서 쓰러졌다. 위생병들이 달려가 李 병장을 이끌고 敵彈이 빗발치는 속을 빠져 나갔다. 이때 제 1 소대의 경기관총이 敵陣에 鐵彈을 集注하는 동시에 제 3 소대장 趙소위가 對峙한 分子들의 화기진저 뒤를 덮치면서 수류탄을 투척하였다. 폭음도 요란하게 산울림이 퍼지고 조각난 VC의 屍體 一具가 비산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金容燮 병장과 朴範壽 일병이 포복으



良匠한 職友를 後送하는 제10중대원들

로 들어가 李병장의 英顯을 끌고 나오자 그들의 사격이 또 시작되어 金 병장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는 鎗骸를 안고 덩굴며 포복으로 소대에까지 운반하였다. 이때가 15.00였다. 한편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는 鐵道 부근과 전날 探索한 △336 北東쪽 계곡 一帶를 探索하였는데 12.00에 Nui Hon Pa(山) 西쪽 下端部로 부터 敵의 銃擊을 반자 支援포격을 요청하여 鐵鎗을 加하였으며 17.40에 주간탐색을 끝나치고 중대基地로 복귀하였다.

**1월 7일(D+17)**: 과월 美군사령관 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이 여단을 방문하여 情황을 살폈다. 한편 여단에서는 제 2, 제 3 兩대대에 依한 攻擊을 계속하였는데 제 2대대는 16.20에 드디어 목표 Y를 탈취하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右一線인 제 5중대로써 목표 Y의 정상인  $\Delta 256$ 를 공격해 하는 동시에 제 7중대로써 목표 Y-4에서 제 5중대의 공격을 側方에서 엄호케 하여 08.00에 一齊공격이 敢行되었다.

제 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10.35에 進攻中 목표 西쪽 下麓에서 개활지인 논을 넘어 內陸으로 退走하는 1개분대 규모의 VC를 목격하자 곧 60mm와 81mm 박격포를 집중하여 5명을 사살하고 계속 高地 정상으로 突進하였다. 12.00에 8부능선으로 부터 敵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기관총 및 3.5" "로켓"포로 제압하여 遺棄시체 3具를 확인하였으며 16.00를 期하여 목표 Y의 점령을 알리는 五色신호탄을 空中 높이 올렸다.

이때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헬리콥터"편으로 목표 Y高地 정상의 上空을 날으며 太極旗를 投下하여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10중대(장, 韓國道 대위)로써 Nui Hon Ba(山) 下麓을, 또 제 11중대(장, 劉南圭 대위)로써 Nui Giuc Kinh(山) 下麓에 대한 再探索을 벌이도록 하였으나 이날 兩중대 모두 接敵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부터 목표의 山中으로 탐색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敵의 기습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 10중대는 중대 관측소를  $\Delta 10$ 로 이동하였다.



Westmoreland대장이 李鳳出 여단장과 작전협의를 하고있다.

**1월 8일(D+18)**: 여단은 이날 朴正熙 대통령으로 부터 致賀와 격려의 전문을 접수하여 午前 참모회의에서 이를 낭독하고 곧 예하부대에 전달하여 將兵들의 士氣를 고무시켰는데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 부대가 월남에 도착한 이래 각지에서 세운 훌륭한 전공을 중심으로 치하 하며 특히 최근 청룡 작전에서 우리 국군의 전통적인 용맹을 충분히 발휘함에 대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만강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귀하와 예하 전장병의 무운장구를 빕니다.

1956년 1월 8일

대통령 박 정 희

한편 여단은 이날 목표 Y를 확보하여 다음날인 9일 午前中에 이를 越南軍에 인계하고 목표 F 지역에 對한 공격을 준비토록 하는 동시에 여단에비인 제 9 중대를 12.00를 期하여 제 2 대대 제 6 중대와 임무 交代케 하였다. 여단은 최초 목표 A와 B 및 X와 Y를 확보하던 제 2 대대가 목표 C와 D, 그리고 제 3 대대가 목표 F와 E를 攻鑿카르 계획하였으나 이계까지의 전투 推移로 보아 개활지는 대부분이 슈지이고, 또 여기를 통과할 때에 가장 많은 損失이 뒤따랐음을 감안하여 기왕에 제 3 대대가 Nui Giuc Kinh(山) 西쪽의 單線 철로까지 進出하였으므로 지역상 근거리에 있는 제 3 대대로 하여금 목표 C 지역을 담당케 하고 제 2 대대를 목표 F에 “헬리콥터”로써 공수 投入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가) 제 2 대대(장, 吳允燾 중령)는 08.00를 期하여 제 5 중대를 右一線으로, 또 제 7 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250 南쪽으로 攻擊을 敢行케 하였다. 14.00에 제 5 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제 7 중대가 점령한 지역을 인수하여 주요거점에 소대별로 分散배치하여 夜間방어로 轉換한 다음 경계태세로 받을 지세웠다. 또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대대 命命에 의거 중대 집결지인 Phu Khe(2)로 철수하여 대대 전술지휘소 경계를 보강하였다. 대대장 吳允燾 중령은 제 7 중대의 도착 신고를 받고 그의 1월 8일자 陣中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記錄하였다.

「대대 전술지휘소로 철수해 온 제 7 중대원들 앞에 서서 목이 메어 한참이나 달문을 열지 못하다가 수고했다는 말만 두어번 하고 말았다. 밤과 낮, 8일간을 산짐승 처럼 쫓고 쫓긴 그들, 세수는 커녕 식사도 세끼나 끓였고 팔다리는 모두 가시에 찢리고 활취어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바지는 헤어져 솟제 속옷과 반바지가 되었다. 천근 만근 피로한 그들 육신에는 사람의 물결이란 반짝거리지는 눈 뿐이었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9 중대가 여단 예비에서 해제되자 1개 소대를 대대

전술지휘소에 잔류케 하여 基地 경계에 임하도록 하였으며 중대(-)로써 목표 B의 東쪽 高地를, 또 제10중대를 목표 B의 北쪽 계곡 一帶를 그리고 제11중대로 하여금 목표 A지역에 대한 探索을 계속케 하였다. 이날 10.00부터 각 중대가 할당지역에 대한 探索에 착수하였는데 韓國道 대위가 指揮하는 제10중대는 13.20에 Nui Hon Ba (山) 下麓에서 探索에 拍車を 加하던중 洞窟 1개소의 內部를 탐색하려 하자 山 중턱으로부터 銃擊이 집중되어 張錫熙 일병이 전사하였다. 이에 중대는 敵을 追擊하여 섬멸하겠다는 一念下에 60mm 로 반장인 安在河 중위가 이끄는 특공대가 岩層으로 點綴된 高地를 向하여 突擊하자 그들은 기관총을 비롯한 자동화기의 사격을 加하는데 그 규모는 1개중대로 推測되었다. 그런데 對峙한 徒隸들은 대부분이 검은색 복장으로 소수만이 국방색 작업복에 “정글”帽을 쓴 점으로 미루어 越盟軍과 VC의 혼성부대로 推斷되었다. 감시된 그들의 불을 토하는 치열한 사격으로 특공대의 攻擊이 어려워 지자 金辰洙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一齊히 突進하며 敵中에 뛰어들었다. 이때 저항하던 分子들이 호로라기를 불자 散在한 여러 洞窟로 부터 VC들이 뛰어나오므로써 일대 白兵戰이 벌어졌다. 이러한 渦中에서 제2분대장 鄭誠吉 하사한 洞窟에서 뛰쳐 나오는 VC 3명을 격투 끝에 쓰러뜨렸으나 兇彈 1발이 그의 가슴을 꿰뚫어 애석하게도 戰死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狀況의 급박함을 직감하고 대대에 포격을 요청한바 105mm 포탄의 近彈이 떨어져 方乙洙 하사를 비롯한 李起述, 吳炳哲의 兩병장과 具祥龍 상병, 그리고 金自溶, 禹鍾福, 鄭慶植의 3 일병이 아까운 젊음을 메꿨다.

이러한 彼我間의 近迫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중대장은 夜間전투가 지속되면 不利하다고 판단하고 어둠을 틈타 인접소대간의 협조를 유지케하면서 中隊기지로 철수하였으며 다음날 이 지역에 對한 再攻擊을 다짐하였다.

**1월 9일(D+19):** 이날 建設支援단장(비틀기 부대) 曹文煥 준장이 여단을 방문하여 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상황실에 參席한 參謀들을 격려하였다. 여단은 제2대대로 하여금 목표 Y를 越南軍에 인계하고 대대 基地 주변으로 集結케 하여 부대정비 및 次期작전을 준비하게 하였으며 제3대대로써 목표 A, B에 대한 再探索을 가급적으로 이날중에 모두 종료하고 다음 작전에 대비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연대장 겸 참모장인 鄭台錫 대령을 위원장으로 한 작전평가회를 구성하여 次期작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케 하였다. 한편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렐리콥터”로 각 중대基地를 순시하면서 장병들을 위로 하였는데 누가 장교이고 누가 사병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다만 그 눈빛으로 가려낼 수 있었으니 특



히 中隊長과 小隊長들의 눈이 붉게 충혈된 것은 睡眠 부족 보다도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部下들의 생각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靑 중령)는 09.00를 期하여 목표 Y를 越南軍에 인계하기 위한 쌍방 지휘관간의 협조가 이루어져 14.45에 제 5중대(장, 康用仁 대위)가 이 지역을 越南 공수여단에 넘겨주었다. 곧이어 중대 집결지인 Phu Khe(2)의 제 1번 道路邊으로 철수하여 4.2"소대와 습격한 다음 차량에 탑승하여 15.00에 대대 전술지휘소 부근에 도착하였으며 각 중대가 대대 본부를 中心으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이때 여단에서는 대대본부 이상과 직할중대에 근무하는 將兵들로부터 軍鞭 1足씩 거두어 이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특히 장기간 전투로 말미암아 자각에게 전달하지 못한 故國으로 부터의 便紙가 장병들의 皮肉을 달래 주었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9, 제10 兩중대로써 목표 B지역 東쪽으로 부터 西쪽으로 뻗은 계곡 一帶를, 제11중대로 하여금 목표 A의 西쪽 1번 道路邊 일대를 探索케 하였다.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전날의 격전지를 再攻擊코자 10.00에 出動한다음 12.00에 목표로 進入하여 전날 죽어 넘어진 VC 遺棄시체 37具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我軍이 퍼부은 포탄에 견뎌내지 못한 敵은 동료들의 시체 일부를 遺棄한채 이미 다른 地域으로 退散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12.30에 목표 A의 北東지역에서 探索을 展開한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의 제 3소대는 Phuoc Giang(4) 南쪽 溪谷에서 移動하는 VC 3명과 조우하여 射擊을 集中끝에 1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과 실탄 12발을 노획하였다.

1월 10일~11일(D+20~21): 여단은 10, 11일 兩日間을 부대정비 기간으로 定하고 連日 계속된 작전으로 피로가 겹친 將兵들을 휴식케 하였다. 한편 여단 작전평가 위원회에서는 일반 및 특별참모가 위원이 되어 各中대를 巡訪하면서 次期작전을 위한 資料를 수집하였다. 이러는 동안 將兵들은 理髮이며 沐浴을 하고 피복과 군화를 새로 지급받았으며 一部損, 亡失된 장비를 보충하고 兵器 손질도 하였으며 故國의 家族에게 간절한 問安의 書信을 써 보내기도 하였다. 10일 午前에는 美해병대 사령관 Green대장이 여단을 방문하여 戰況을 살피고 장병들을 격려하였으며 12일에는 제 2대대가 목표 F에 對한 공중기동을 위하여 소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헬리콥터”로 空中정착을 실시하고 午後에는 “헬리콥터” 탑승 및 착륙훈련을 계속하였다.

1월 12일(D+22): 이날 張基榮 부총리가 여단을 訪問하여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將兵들의

노고를 致賀하였다. 여단은 제 2대대로 하여금 Tuy Hoa 南쪽 20km 떨어진 목표 下端의 Vung Ro 半島에 “헬리콥터”로 공중기동케 한 다음 이 지역을 확보하고 依命 목표 E와 D를 공격하여 지역내에서 出沒하는 共產軍을 섬멸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에 목표 F와 E 지역에는 VC 1개소대 규모가, 또 목표 D지역 일대에는 VC 1개중대가 Tuy Hoa와 Ninh Hoa를 連하는 제 1번 道路를 장악한은 勿論, Vung Ro灣으로 부터 揚陸되는 補給物을 내륙으로 추진하는 주요 보급로로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 작전이 계획된 理由中의 하나는 同작전 上陸지역인 Phong So에 Phu Yen 省長이 장악하는 地方軍 (Regional Forces) 1개중대가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6개월간 通信이 두절되어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 부대가 敵과 內通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風說도 있으므로 韓國軍으로 하여금 고립된 이 부대를 Tuy Hoa로 철수하도록 요청한바 있었다. 한편 여단에서는 제 3대대로써 2일간의 부대정비를 끝마치고 목표 A와 B에 대한 정밀한 再探索을 敢行케하고 依命 목표 C에 對한 공격태세를 다지게 하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08.30을 期하여 航空폭격과 艦砲의 지원을 받은 뒤 UH-1H “헬리콥터” 延 14대와 CH-34 “헬리콥터” 延 14대에 分乘하여 목표 F의 착륙지대 “비들기”에 착륙하였다. 이리하여 11.30에 제 6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목표 “나”인 Vung Ro(山) 下麓을 점령하였으며 제 7중대(장, 李奎台 대위)는 목표 “가”인 △302를 확보한 다음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였다. 한편 대대 전술지휘소는 14.10에 제 7중대가 확보한 목표 “가”로 이동하여 전술지휘소를 개설하고 이어 지원부대가 이에 合勢하였다. 대대는 각중대로 하여금 자체 경계를 強化토록 하는 동시에 다음날에 있을 F지역전반에 對한 탐색과 E지역에 대한 공격에 대비케 하였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07.00부터 제 9, 제 10 兩중대를 Nui Hon Ba(山) 下端部의 高地群으로 進出시켜 探索을 펴게하는 한편 제 11중대로 하여금 목표 C로의 攻擊을 위한 接近路를 偵察케하였는데 Nui Hon Ba(山) 下端部에 進出한 前記 兩중대는 포탄으로 이그러진 岩層과 쓰러져 흩어지려진 木片 外에 끝내 敵影조차 찾지 못하고 다음날 작전에 대비키 위하여 중대 基地로 복귀하였다.

1월 13일(D+23): 여단은 제 2대대로써 목표 F와 E에 對한 探索 및 攻擊을 敢行케 하였으며 제 3대대로써 목표 A와 B에 對한 最終 탐색을 이날중으로 끝내고 다음 작전에 對 備토록 하였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07.40에 105mm와 4.2" 및 81mm포의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제 6, 제 7 兩중대로써 攻擊에 나섰다.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亂麻와 같이 얽혀 있는 목표를 向하여 전진하였으나 接敵 없이 13.20에 목표 “바”를 점령하였다.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Vung Ro 계곡을 따라 下山하여 목표 E로 進出하였는데 제 1 소대가 Lang Thong 西쪽 500m 일대를 探索할 무렵 前陣의 敵으로부터 銃擊을 받았으나, 4.2''포로 제압하고 砲殺시켜 1기를 확인하였으며 16.00까지 지대내의 목표 “바”를 확보한 뒤에 현지에서 급편방어로 전환하였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9, 제 10 兩중대로써 목표 A와 B에 대한 探索을 午前中으로 끝내도록 하고 제 11 중대로써 목표 C에 대한 攻擊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9, 제 10 兩중대는 06.00부터 책임지역을 精密탐색하면서 12.00까지 각 전방소대를 중대基地로 集結케 하였다. 제 10 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11.00에 Nui Hon Ba(山) 계곡의 洞窟 1개소에서 저항하는 VC 2명을 사살하였다. 대대는 12.00부터 16.00 사이에 목표 A와 B지역에 對한 探索을 모두 끝내고 다음 작전을 위하여 부대를 再配置하였다. 즉 제 9 중대(장, 成柄文 대위)는 4.2''소대와 함께 Phuoc Giang(4)에, 또 제 10 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單線 철로변인 My Khe(1)에, 그리고 제 11 중대는 제 1 번 道路와 鐵路가 교차하는 Hoa Son 지역에 중대基地를 설정하였으며 대대 전술지휘소도 이날 11.30을 期하여 후방 지휘소가 위치한 Phu Hiep으로 이동하였다가 12.25에 여단장 李鳳出 준장이 군사령관 蔡命新 소장을 안내하여 대대 지휘소를 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蔡 사령관은 대대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작전이 중반에 들어섰으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계속 분발하라.』고 하였다.

1월 14일(D+24) : 여단은 제 2 대대로써 목표 E 지역을 계속 探索케 하는 동시에 14.00를 期하여 Vung Ro灣에서 海上경계 中에 있는 越南해상 Junk부대의 Junk를 利用하여 목표 D 지역에 上陸토록 하여 지역내에 潛伏 또는 隱遁中에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敵을 索出, 격멸케 하였다. 그뒤 依命 Ham Deo Ca “터널”(탄선 철로 : 1.2km)을 통과하여 南進하는 제 3 대대와 연결하는 이른바 「Link Up 작전」에 착수하는 동시에 Phong So해안에 배치된채 고립되어 있는 越南 지방군중대를 救出케 하였다.

(가) 제 2 대대(장, 吳允禧 중령)의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10.15에 목표 “나”의 海岸으로 移動하여 목표 D에 對한 上陸준비를 갖추었으며 13.00부터 13.40까지 航空폭격과 艦砲 및 박격포의 공격준비사격이 집중된 뒤에 支援된 越南 해군 Junk 4隻이 분승하여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Phong So 海岸에 上陸하였는데 여단이 越南에 도착한 다음 Lamp도 없는 배로 上陸하기는 처음있는 일이었다. 上陸하자 중대는 목표 D내의 “자”를 공격하고 뒤

이어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도 목표 E를 확보한 뒤 16.50에 Babonnau 해안에서 Junk 4隻에 분승하여 Phong So 海岸에 上陸하는 즉시 제 6 중대와 合同한 다음 제 6 중대 東南에서 急編방어로 전환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여단 火력지원협조소의 譚東敏 소령은 美軍 포병장교와 함께 “헬리콥터”로 越南 지방군 중대를 찾아가 省長의 指示사항을 전달하고 撤收에 대한 협조를 끝마쳤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08.40부터 대대 전술지휘소를 Song Van(江) 鐵橋 옆으로 推進하여 開設하는 동시에 제 10 중대를 前날의 제 11 중대 基地 지역으로 移動케 하여 제 11 중대가 敵과 접촉할 경우에 이를 掩援케 하였다.

제 11 중대(장, 劉南圭 대위)는 07.00를 期하여 攻擊을 시작하여 제 1 번 道路 左右를 探索하면서 15.00에 Bien Ho(湖)의 上流인 Suoi Cau Lon(川)까지 進出하여 목표 C를 확보하고 16.30에 목표 D를 탈취한 제 2 대대 제 6 중대와 通連망으로 接觸을 유지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로써 제 2 대대가 1.2km의 “터널” 南쪽 入口를, 또한 제 3 대대가 “터널” 北쪽 入口를 각각 制扼하였으며 다음날 “터널” 內부를 탐색키로 하였다.

1월 15일(D+25): 이날 여단장 李鳳出 准장은 警告文 제 1 호를 예하부대에 示達함으로써 作戰間 또는 作戰종료 뒤에 혹시라도 야기될 수 있는 犯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우리가 異域안리 이곳 越南에 派兵된것은 住民을 괴롭히고 있는 VC을 무찔러 越南국민에게 平和롭고 安定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주는데 있는 것이며 그간 高貴한 價를 흘려 값진 代價를 치른 우리의 용기는 쏘 自由세계로 부터 질찬을 받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隊列에서 離脫하여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越南人에게 犯法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萬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쌓은 功勳담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結果가 될것이다.
3. 戰爭군기를 위반하거나 犯法하는자는 軍法이 定하는바에 따라 最高刑으로 嚴罰할 것임을 警告하는 바이니 이를 銘心하라.」한편 여단은 前날에 이어 작전지역 一圓에 걸쳐 美제24 심리전 파견대의 支援으로 安定보장증과 VC의 단행을 폭로하는 傳單을 도합 60.000枚를 살포하고 제 2, 제 3 兩대대로 하여금 목표 C와 D지역의 탐색에 力點을 두게 하였다.

(가) 제 2 대대(장, 吳允燾 중령)는 07.30부터 목표 D내의 “자” 지역에 포격을 집중한데 뒤이어 “터널” 探索에 들어갔다.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는 10.10에 목표 D내의 “자”를 점령, 확보하였으며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1개 소대를 뽑아 10.00에 “터널” 北쪽 入口를 차단케 하고 같은 시간 에 2개 소대로 하여금 “터널” 南쪽에서 後方차단을 맡게 하고 제 2 소대를 “터널” 안으로 직

적 投入하였다. 중대장으로 부터 探索 요령과 긴급사태에 대처할 요령을 교육받은 소대원 모두가 防彈조끼를 입고, 방목면을 착용한채 양손에 수류탄을 움켜쥐고 손전등을 든 유도병의 先導로 긴장된 探索을 펴 나갔으나 意外로 저항이나 장애물 등이 없었다. 上級부대에서 하달된 精報에 따르면 이 “터널”이 지금까지 敵의 軍需물자나 장비의 저장소로 使用되어 왔을지도 모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비장한 決意과 최대의 安全策을 강구하면서 敵과 충돌할 것을 豫期하였으나 探索결과 아무것도 없자 다소의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중대는 1시간 15분에 걸친 숨 가쁜 “터널”探索을 끝내고 그 北쪽의 목표 C지역에 進出한 제11중대와 連絡를 取한 연후에 제 6 중대(장, 張淳奎 대위)와 더불어 목표 D내의 “작”지대로 이동하여 夜間방어로 轉換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대가 이 지역으로 부터 철수하기 前에 現地に 있는 越南 지방군중대의 撤收를 支援하는 節次를 협조하였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보병支援 아래 08.00를 期하여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로 하여금 Han Dan Ca “터널” 西쪽의 △238와 △158를 攻擊케 하고 “터널” 北쪽의 入口 경계를 제 2 대대 제 7 중대에 인계토록 조치하였다.

이에 제11중대는 점점히 들어찬 밀림과 巨岩窟의 險要에 올라 목표의 南쪽 高地로 向하였는데 갑자기 나무위로 부터 많은 거머리떼가 대원들 머리 위로 떨어지 몸에 붙자마자 피를 빨아먹어 將兵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정글”지대에서 만난 어느 毒虫보다도 징그러웠다. 중대는 예정대로 15.30에 목표를 달취한 뒤 주변을 探索하다가 16.00에 중대基地로 철수하여 제 2 대대 제 6 중대와 無電으로 연락을 유지하였다.

**1월 16일(D+26)**: 여단은 이날로서 계획된 1개월간의 작전을 종결키로 하고 “헬리콥터”로 제 2, 제 3 兩대대를 각대대 後方 지휘소 지역으로 集結케 하였다.

(가) 제 2 대대(장, 吳允潯 중령)는 09.00부터 제 7 중대(장, 李圭台 대위)의 암호 아래 越南 지방군중대를 Junk로써 Phu Yen 省廳으로 철수케 하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08.00부터 UH-1D와 CH-34 “헬리콥터”편으로 제 6, 제 7 兩중대를 포함한 대대 전방 지휘본부와 지원부대를 대대 후방 지휘소지역인 Tuy Hoa 南쪽 비행장 부근으로 空輸하여 13.30에 이동완료 보고를 하는 동시에 각중대별로 임시진지를 구축하면서 次期戰鬥에 대비하였다.

(나) 제 3 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07.00부터 지원된 美해병대 “헬리콥터”를 利用하여 제 11중대 부터 제10중대, 제 9 중대 順으로 대대 후방 지휘소(Phu Hiep) 지역으로의 機動을 시작하여 16.20에 完了함으로써 이 작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라. 作戰 後의 概況

여단은 이 작전을 통하여 共產軍의 百年牙城으로 惡名높은 Nui Da Bia(山)를 비롯한 Tuy Hoa 南北 일대에서 暗躍과 狂暴을 일삼는 越盟軍 및 Phu Yen省 VC의 무리들을 殲滅하였다. 이 작전이 끝나자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즉시 작전평가 회의를 소집하여 그간의 작전경과를 분석하고 전투간에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戰訓 등을 검토하였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이르기를 「全將兵이 舍心하여 大韓 海병의 명예를 生命처럼 아끼고, 죽음을 무릅쓰고 勇戰분투한 노고를 致賀하는 동시에 幽明을 달린 英靈 앞에 삼가 冥福을 빈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여단이 越南에 到着하여 數개월이 지났으나 敵과 맞부딪쳐 싸우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니만큼 어느정도 敵도 알고 越南지형에도 익숙하여졌으니 이 값진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보다 잘 싸워 共產軍을 물리치자.」라고 각급 지휘관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여단은 이 작전이 끝나자 잠시 부대 정비로 內實을 다지는 한편 5일뒤부터 展開한 「青龍 2號 작전」에 대비하였다. 이 작전이 끝나자 越南정부를 비롯하여 美軍側 각계에서 致賀文이 祖國의 국방 要路와 여단에 직접 전달 되었으며 1월 18일 午前에는 Nguyen Van Thieu 국가원수가 Cao Van Vien 越南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대동하고 여단을 방문하여 그간의 작전경과를 보고 받고 여단장을 비롯한 21명의 有功장병에게 武功훈장을 수여한 다음 이 작전에 參加한 전 장병들의 노고를 致賀하였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살	포로	鹵		獲			戰死	戰傷	개인 화기
				개인 화기	수류탄	포탄	소총 실탄	지뢰			
제 2 대 대	제 5 중대	112	2	5					2	4	
	제 6 중대	35	2	1	19		210	4	4	1	
	제 7 중대	14	4						8	6	9
	소 계	161	8	6	19		210	4	14	11	
제 3 대 대	제 9 중대	53	4						3	12	
	제 10 중대	53	4	12		5			10	14	8
	제 11 중대	70		10		3	3,140	1	2	6	
	소 계	176	8	22		8	3,140	1	15	32	
합 계		337	16	28	19	8	3,350	5	29	43	17

※ 我軍損失中, 輕傷者 30명은 本統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戰 訓

### “게릴라”戰에서 高地 確保 문제

正規戰에서 주요 高地를 점령하여 이를 確保하던 인근지역을 감제할 수 있어 攻擊 목표는 이러한 高地를 選定하는것이 常例로 되어있다. 그러나 越南戰과 같은 “게릴라”戰에서의 목표 선정은 반드시 密林이 우거진 高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山의 下麓이나 住民들이 거주하는 마을 또는 그 부근이라는데 그 特徵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하나의 목표를 점령하고 다음 목표를 向하여 前進 하더라도 敵은 後背 또는 側面에서 我軍을 攻擊하는것이 VC이 常用하는 戰術이기 때문에 越南戰과 같은 非正規戰에서는 목표나 특정 지역을 탈취한 그 自體가 곧 전투의 勝利를 뜻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진다.

### 攻擊準備 射擊에 對하여

공격부대의 攻擊이 시작되기에 앞서 공격준비 사격이 一定한 시간을 두고 집중되는데 이때 敵은 我軍의 공격 기미를 알아 차리고 他 지역으로 退避하거나 洞窟 깊숙이 安全지대로 隱避하는 까닭에 그뒤에 我軍의 探索이 계속되더라도 實效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특히 VC은 流動性이 많으

므로 入手한 첩보의 실빙성이 희박하다는것을 감안할때 장황한 航空, 艦砲 및 砲兵의 공격준비 사격보다는 소부대 정찰을 활발히 展開하여 接敵이 이루어질때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兵力을 集中 투입하여 一擊에 敵을 선멸할 수 있도록 用兵되어야 다방할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2대대장 吳 允 普 中령

(1978년 2월 22일, 해군 해병제9732부대장실에서, 당시 준장)

「靑龍 1號 제 1 단계」一名 X·mas 작전에는 우리 제 2 대대와 越南 공수여단이 聯合으로 參加하였는데 기간중 敵과 큰 접촉이 없었던 것은 작전 2일 뒤인 12월 24일 午後부터 X·mas 휴전이 선포되어 이때 敵은 모두 그들의 安全지대로 退走하였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뒤 1월 1일 새벽부터 「靑龍 1號 제 3 단계, 一名 JEFFERSON 작전이 展開되어 제 3 대대가 左一線, 우리 대대가 右一線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작전 첫날 부터 목표 X를 공격하던 제 7 중대가 敵의 頑強한 저

항에 부딪쳐 苦戰하였다.

우리의 攻擊을 側方에서 支援코자 사전에 협조된 목표 1, 2, 3에 대한 동시공격을 越南軍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越南軍의 목표를 우리가 먼저 攻擊키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제 3 대대로 부터 1개 중대를 지원받아 一齊 공격에 나섰는데 敵情이 不分明 한데다가 그들은 天然의인 岩石동굴과 견고한 전지에 숨어서 노출된 我軍의 공격부대에 自動火器에 依한 集中사격을 펴부어 進出이 어려워지자 航空폭격도 요청하고,

체류탄도 投下하였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묘안을 짜낸 끝에 155mm 곡사포를 敵의 박격포 사정권내까지 推進시켜 직접조준 사격을 集中하는 등 力關에 力關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敵을 제압한 다음 점령한 목표 도두를 越南軍에 인계하고 다시금 Vung Ro 지역에 對한 “헬리콥터” 空輸돌격을 敢行하여 지역내를 석권하였다. 이어 Junk에 依해 Phong So에 上陸하여 1.2km에 達하는 “터널”을 뚫음으로써 제 1번 道路를 疏通케

하는데 成功하였다.

최초 여단에서는 이 Tuy Hoa지구 작전을 끝내면 Cam Ranh 基地로 복귀할것이라 하였으나 예상외로 敵情이 많아 「靑龍 2號 작전」과 「再建 작전」등 寧日 없는 작전의 연속을 치른 끝에 중내에는 Cam Ranh지구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뜻밖의 Chu Lai지구로 移動하는 등 險難의 道程을 밟았던 것이다.

### 제9중대 제2소대장 安 一 璣 소위

(1978년 1월 10일 영창해운주식회사에서 : 대위로 예편)

「靑龍 1號 제 3 단계」작전에서 우리 제 9 중대는 목표 H인 Phu Hiep과 Tho Lam지역을 探索中 제 2 대대가 越南軍의 목표 3을 攻擊하다가 苦戰하게 되자 여단에서는 우리중대를 제 2 대대에 배속하여 戰力을 보강하였다. 1월 3일 12.00쯤 “헬리콥터”로 △48 右端部에 降着한 중대는 15.00부터 제 6 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목표 3의 중앙 下麓으로 前進하였다. 그러나 進出路가 개활지인데다 물이 찬 논으로 되어 있어 기동하는데 여간 곤란하지 않았으나 3개 소대가 전투대형을 유지하면서 躍進中 목표 앞 100m 지점에 이르렀을때 敵으로 부터 自動火器의 集中사격을 받고 이에 應射하였다. 그러나 密林속에 진지를 구축한 敵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또 중대 中央소대인 우리 제 2 소대가 敵의 主목표로 되어 있었음인지 數名이 부상하였는데 뒤에서 중대장은 계속 前進하라고 호령하고, 前進하려고 하면 敵은 더욱 빗발치듯 銃彈을 퍼 부어 부상자는 계속 늘어나 進退兩難이었다.

이때 중대장에게 狀況의 어려움을 보고 하자

「地形地物을 최대한 利用하면서 부상자를 後送하라」고 하여, 소대원 모두를 논 옆의 도랑으로 뿔아낸 다음 목까지 차는 물 속에서 數時間을 버티다가 命命에 따라 철수하였다. 다음날 우리 중대는 △48를 攻擊하라는 命命을 받고 이를 점령, 확보하였다. 이때 우리 소대는 중대 본부와 함께 행동하였는데 14.00에 갑자기 사격방향도 알 수 없는 敵의 82mm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48 사방에서 敵이 소총을 亂射하는 것이었다.

우리 중대가 △48를 점령하고 이를 확보하였지만 敵의 머리 위를 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결국 그들의 포탄으로 중대장은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중대장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항공기를 유도하던 美軍 연락장교를 포함하여 7~8명이 救急 “헬리콥터”로 後送되었는데 이때 本人은 오른쪽 팔에 파면 관통상을 입고 Cam Ranh 병원에서 15일간의 치료 끝에 痊愈되어 다시금 「靑龍 2호 작전」에 參加하여 소대장직을 수행하였다.



## 4. 前進 1.2.3號 戰鬪 (1965년 12월 18일 부터 1965년 12월 30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9,10호  
상황도 제 21~25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장 대위 金 秉 圭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申 鉉 鉢	연대수색중대	
(2) 參加部隊		장 대위 金 大 憲	
제 2 대대	장 중령 金 容 振	포병제 61 대대	장 중령 梁 鵬
제 5 중대	장 대위 李 權 馥	제 1 포대	장 대위 鄭 會 慶
제 6 중대	장 대위 李 泰 一	제 2 포대	장 대위 張 洪 烈
제 7 중대	장 대위 李 鍾 九	제 3 포대	장 대위 金 振 奎
제 8 중대	장(대)	포병제 628 대대	
	중위 宋 圭 錫	제 3 포대	장 대위 金 鍾 鎬
제 1 중대(배속)		(3) 協力部隊	
	장 대위 金 大 植	美 “헬리콥터” 중대	
제 2 중대(배속)			

### 敵 軍

Binh Dinh省 地方 VC 1개대대

### 나. 戰鬪 前의 概況

本 전투지대는 Binh Dinh省 Binh Khe郡의 北東部 지역으로서 Song Con(江) 北쪽의 曠濶한 평야지대이다. 제 1 기갑연대가 11월 7일 현전술책임지역을 인수할 당시의 越南政府의 통제지역은 제 19번 도로를 중심으로 한 北쪽지역의 僅少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이 도로와 병행하여 西에서 東으로

로 흐르는 Con江 北쪽의 넓은 들판은 VC의 지배세력에 속하여 그들의 流動이 활발한 곳이며 여기에서 살던 주민의 대부분은 越南정부 보호지역으로 이주하고 일부 그들의 동조자들만이 잔류하여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연대는 제1期에는 기지구축에 주력하면서 이 지역에 對한 지형과 적정을 탐색하였으며 제2期에 移行할 준비로서 Con江 越便 An Chanh 西쪽에 있는 △83에 전초진지를 構築하고 11월 16일 제6중대를 배치하여 예상되는 VC의 접근로를 制扼케 하면서 그들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런데 同월 30일에는 Binh Khe군청 所在地 Khu Pho 越便 Kien My 전박촌을 지키던 越南民兵중대가 VC 1개대대 규모의 襲撃을 받아 Khu Pho로 철수하자 연대는 3개중대를 즉시 투입하여 그들을 殲滅하고 이를 탈환하였다. 따라서 연대로서는 제2期에 접어들면서부터는 Binh Khe郡의 안정을 爲한 일환책으로 該지대내에서 遊動하는 VC을 剿討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12월 5일에는 제1대대로 하여금 Binh Khe郡 東部지역에서 「花郎1호 작전」을 벌여 VC 1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77명을 색출하였으며 이어 該지역에 對한 작전을 계획하던중 매마침 美 제1空軍기갑사단이 예하 제7 및 제3여단으로 하여금 12월 中旬을 期하여 該지역 北西쪽 산악지대에서 VC撲滅작전을 전개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前進1호작전」(12월 18일~19일)을 Con江 北쪽 연안 Kien My에서부터 △83를 거쳐 Nhon Thuan까지의 평야지대에서 전개하고, 「同 2호작전」(12월 22일~23일)을 Phu Lac 北쪽 密林지대에 이르는 水田지역에서 벌였으며, 「同 3호작전」(12월 28일~30일)을 Vien Xan山 南쪽 일대의 山岳지대에서 전개하였다. 여기 이 3個전투를 한데 엮는 까닭은 Con江 北쪽으로 연결된 지역에서 같은 대대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12월 중순부터 下旬까지 전개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쉽게 하려는데 있다.

本 전투지역의 敵은 Nui Ngang(山)과 Hon Xang(山) 및 Viet Xan山 일대에 거점을 둔 단대호 미상의 地方 VC 1개대대 규모로 추산되었는데 그중에서도 Viet Xan山 일대(「前進3호작전」지역)에서 VC 1개중대 규모의 跳梁이 더욱 滋甚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중 「前進1호작전」 때에는 폭풍우가 계속하여 전투에 지장을 주었으나 기타 전투시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여서 기동에 快適하였다. 이 무렵 인접 제1연대는 제2대대로 하여금 An Nhan郡 및 Tuy Phuoc郡의 東部지역에서 「飛虎1호 작전」(12, 19)을 전개하여 VC 5명을 사살하고 16명을 俘虜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 다. 戰鬥 經過의 概要

### (1) 前進1號 戰鬥(1965. 12. 28~19)

#### (가) 作戰 計劃

本 전투는 2일간의 단기였지만 그 지역이 광범하기 때문에 2段으로 구분하여 실시키로 하였는데 제1段은 Kien My 東쪽 Kien Lang에서부터 △83까지의 北쪽 일대(幅 4km, 길이 6km)에 1개대대를 투입하고, 제2段은 제1단과 연결하여 그 北東쪽으로 Binh Khe郡과 An Nhon 郡界에 이르는 Nhan Thuan 및 Tan Duc 일대(幅 5km, 길이 7km)에 1개대대(+)로써 전

개키로 하였다. 연대장 申鉉鉄 대령의 이러한 腹案에 따라 세운 계획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적정 : 작전진의 개황 참조.

2. 작전기간중 美제1공중기갑사단 제7 및 제3여단은 北쪽 일대에서 VC撲滅戰을 전개할 것이다.
3. 기간중 포병지원은 포병제61대대 제1 및 제2포대가 담당한다.
4. 연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2대대와 제1대대의 일부 병력으로서 Song Con(江) 北쪽 연안 Kien My—Dai An(3) 北東쪽 지대의 VC을 剿討하고 美제1공중기갑사단과 연계하려 한다.
5. 本 전투는 2段으로 區分하여 실시한다.
6. 제1段(12월 18일)
  - 가. 제2대대는 12월 18일 2개중대와 제1대대에서 배속되는 1개중대로써 전투지대내(상황도 참조)의 VC을 殲滅하고 목표 “201”—“202”를 점령한 다음 美제7기갑여단과 연결하라.
  - 나. 야간에는 埋伏組를 배치하여 제2段으로 移行할 태세를 갖추라.
  - 다. 공격개시시간은 18일 06.20으로 예정한다.
  - 라. 공격개시선까지의 기동은 “헬리콥터”로 한다.

7. 제2段(同월 19일)

- 가. 제2대대는 19일 3개중대와 제1대대에서 배속되는 2개중대로써 전투지역(상황도 참조)내의 敵을 撲滅하고 목표를 점령한 다음 美제3기갑여단과 연계하라.
- 나. 공격은 19일 06.03에 개시하고 日沒時에 철수하라.
8. 제1대대장은 2개중대를 18일 05.00까지 제2대대에 배속하라.
9. 작전 모두 공격준비사격은 없으며 포병 및 항공은 현지 요청에 따라 지원한다.

10. 지휘 및 통신

- 가. 통신은 현행 SOI에 의한다.
- 나. 연대전술지휘소는 변동없다.』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제1단에 있어 △83에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該지대를 扼守중인 제6중대와 Hoa Lac 西쪽 無名高地에 기지를 설정한 제5중대로써 공격케 하고 제1대대에서 배속된 제2중대를 차단부대로 하는 한편 제7중대를 18일 14.30까지 제2중대의 차단지역인 Truong Dinh 西쪽 Suoi Beo(江) 연안에 推進하여 敵의 夜襲에 대비케 하면서 제2段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제2段은 제5, 제6, 제7, 3個중대로써 공격부대를 삼고 배속받은 제1중대를 차단부대로 하였으며 제2중대를 대대예비로 하여 제1段지역을 要扼케 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제1, 제2, 兩個중대를 18일 05.00까지 제2대대에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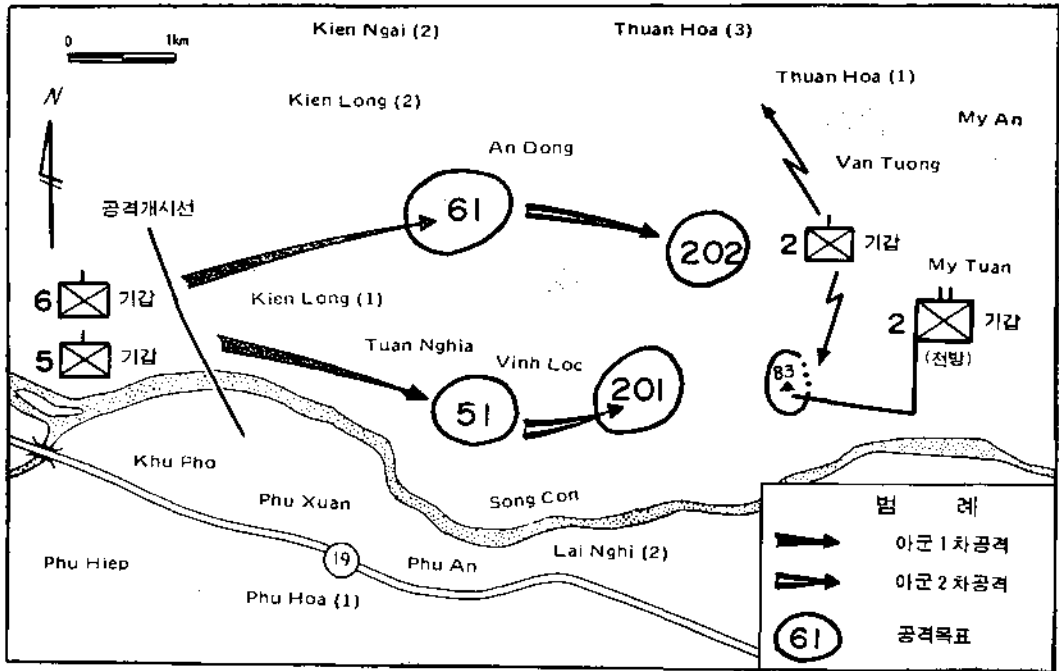
나. 戰鬪 實施

제1段(12월 18일)

이 전투지역은 Kien My 전략촌 東쪽에서부터 제6중대의 진초진지인 △83까지의 水田지대로서 오랜 기간 VC의 세력권에 屬하였던 곳으로 그들이 식량을 供給받는 유일한 곡창지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들과 동조하게 마련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VC으로 무조건 看做하기도 어려운 難題를 지니고 있어 越南 통역관이나 越南 민병대원들을 배속받아 최대로 활용하였으나 後患을 꺼리는 탓으로 VC과 주민의 辨別이 어려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전투를 전개하는 첫날은 폭풍우가 甚하여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2½ ton 車 輛으로 기동하여야 하는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지만 제2대대(-)는 공격개시선에 예정 시간대로 기동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美제7기갑여단과의 협조된 사항들이 暴雨로 말미암아 지연된 탓으로 공격개시선에서 대기하다가 예정시간보다 50분 늦추어 07. 10에 공격에 나섰다 대대의 공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狀況圖 제21호 前進1號 戰鬪 第1段



- 『1. 제5중대는 右一線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Thuan Nghia와 Dong Hoa(目標 “51”)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계속 進擊하여 Vinh Lac(目標 “201”)에서 △83 西麓 일대의 탐색을 전개하라.
2. 제6중대는 左一線에서 Kien Ngac(1)과 An Dong(目標 “61”)을 점령한 다음 계속 공격하여 Truong Dinh(目標 “202”) 일대의 敵을 剿滅하라.
3. 제2중대(백속)는 Van Tuang 西端까지 進出한 다음 北쪽으로는 Thuang Hoa (1) 일대까지 차단하면서 美제7여단과 연계를 짓고, 南쪽으로는 An Chanh까지 탐색과 차단을 併行하라.
4. 제7중대는 18일 14.00에 기동을 개시하여 17.00까지 Van Tuang에 進出한 다음 야간경계에 임하는 동시에 제2단 준비를 갖추라.
5. 대대전술 지휘소는 △83에 推進개설 한다.』

1. 이날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폭풍우로 말미암아 “헬리콥터”의 支援을 받지 못하고 2½ton車 13대에 分乘하여 05.30에 Hoa Lac 西쪽 기지에서 출발하여 06.00에 Khu Pho 北쪽 Con江邊에 도착하였으며, 여기에서부터 도보로 Con江의 假橋를 건너 06.20에 Kien My 東쪽 공격개시선에 進出하였다. 그러나 美제7여단과의 협조된 사항이 지연되어 07.10에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 때에 중대는 제3소대(장, 金炫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1소대(장, 李崑洙 소위)를 左一線으로, 제2소대(장, 朴辰換 소위)를 지원부대로 삼아 목표들을 지향하여 탐색을 벌이면서 進擊에 나섰다.

여기는 南쪽으로 Song Con(江)이 가로막고, 東쪽(6km) △83에는 제6중대의 전초기지가 있어 VC들이 퇴각할 수 있는 方向은 오직 北쪽 Nui That (△151) 밖에 없으나 그곳까지는 6km나 되는 水田지대를 빠져나가야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지리적인 불리를 看破하고 미리 退走하였음인지, 중대가 目標 “51”과 “201”에 進出할 때까지 敵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10.50에 目標 “51”에서 용의자 1명을 색출하고 동굴 2개소를 爆破하였으며 12.30에 目標 “201”에서 VC 가족 2명을 체포하고 동굴 1개소를 파괴하였다.

중대는 目標 “201” 北東쪽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14.30에 △83 西麓에 집결하여 隊伍를 가다듬은 연후 15.00에는 岡高地 南쪽 Kien Thanh으로 轉進하여 四周방어에 들어갔으며 18.10에 야간경계로 移行하여 예상접근로에 埋伏조를 潛伏시켰다.

2.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11월 16일 △83에 중대기지를 마련하고 Suoi Beo(江) 연안을 타고 侵襲하려는 VC를 制扼하였으며, 17일에는 該高地 東麓에서부터 An Chanh 일대의 探索에서 1개분대 규모의 VC와 조우하여 한때 총격전끝에 이를 擊碎한 바 있거니와 중대는 기지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접근로에 소대 및 분대 단위로 埋伏조를 배치하여 산발적으로 跳梁하는 VC를 殲滅하던중 本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 이에 중대는 이날 未明부터 각 소대

를 집결시켜 기동준비를 갖추고 전중대원에게 『그 사이에 여러차례의 접전에서 얻은 실전경험을 최대로 발휘하여 VC 한놈도 놓치지 말고 勦拏하라. 그리하여 이 절호의 기회에 기지 주변에서 준동하는 무리들을 모조리 뿌리 뽑자』라고 힘주어 당부하였다.

이렇듯 滅敵을 다짐하고 탑승지역으로 이동코자 할 즈음 惡天候로 “헬리콥터”의 運行이 곤난하다는 指示와 아울러 2½ton車輻 13台를 지원받아 05.30에 현지를 출발하여 제19번 도로를 疾走끝에 Khu Fha 北쪽 Con 江邊에서 下車한 다음 同江을 도섭하여 06.20에 공격 개시선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美제7기갑과 협조된 사량이 지연되어 50분 뒤늦게 07.10에 제2소대(장, 李暉潤 소위)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1소대(장, 全相雲 소위)를 左一線으로, 제3소대(장, 金泰熙 소위)를 지원소대로 하여 제5중대와 배를 마주어 일제히 進擊에 나섰다. 이리하여 Kien Long(1) 北쪽 지대까지 누비고 An Dong(目標 “61”)으로 直衝하던 중대는 水田지대에서 그들이 버리고 간 수류탄 1발을 습득하였다.

이 때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VC들이 我軍의 急襲에 쫓겨 다급한 끝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단하고 각소대를 휘몰아 追擊을 다구쳤다. 그러나 중대는 09.00에 同 목표를 점령할 때까지 敵의 隻影도 찾지 못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눈독까지 붙이 고인 水田지대를 헤치며 目標 “202”를 向하여 強襲을 결행하였으나 끝내 그들을 색출하지 못한채 同目標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10.40부터 16.30 사이에 벌인 그 北쪽과 東쪽 지역에서의 탐색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하고 이어 야간경계로 移行한 중대는 제1소대를 △83北쪽 하단에, 제2소대를 Truong Dinh 南東쪽 500m 지점에 배치하여 埋伏케 하였는데 이 때 目標로 指向하여 進出하던 제2소대(장, 李暉潤 소위)는 Truong Ding에서 100m前 進하였을 무렵 1개분대 규모의 VC과 부딪쳐 한때 치열한 교전을 벌였는데, 그들은 소대의 火力이 점차 苛烈되자 遁避하고 말았다. 소대는 그 뒤를 跟隨하다가 遺棄시체 1具를 확인한 연후에 계속 追擊의 고삐를 다구쳐 100m 떨어진 사탕수수밭에 이르러 동굴을 색출하였다. 소대장 李暉潤 소위는 이상한 예감에 즉시 전원을 은신케 하고 제3분대 隱호하여 제1분대 포위 탐색케 하였던 바, 同분대는 포위를 암축하면서 동굴입구에 근접하다가 그 속에 VC들이 숨은 기미를 알아차리고 귀순을 종용하였으나 끝내 이에 應하지 않으므로 동굴수에 수류탄을 투척하였는데 이 파편에 VC 1명이 죽고 2명이 重傷을 입었다.

한편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제3소대와 화기소대를 이끌고 중대기지(△83)에 돌아가 乘夜 경계에 注力하면서 제2段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3. 제2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이날 07.00에 차량으로 현지(An Thanh(3))을 떠나 Thu Thien에서 下車하여 Con江을 徒涉한 다음 △83 東쪽 하단부를 거쳐 09.00에 Van Tuang에 進出하였다. 중대는 여기에서 제1소대(장, 金周鼎 소위)를 Truong Dinh 南東쪽에, 제3소대(장, 明山玉 소위)를 △83 北西쪽에 각각 배치하여 차단토록 하고 제2소대(장, 金文吉 소위)를 Thuong Hoa(1)로 進出시켜 北西쪽을 차단하면서 美제7기갑과 연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Truong Dinh으로 進出하던 제1소대는 09.30에 Van Tuang 西쪽의 200m 떨어진 숲속을 헤치다가 5명을 사로잡아 심문한 결과 VC이 아니라고 극력 부인하므로 용의자로 看做하고 압송하였다. 그리고 Thuong Hoa쪽을 차단하던 제2소대도 同마을에서 용의자 6명을 체포한 연후에 12.30에는 美제7여단과 연계를 유지하고 14.00에 제6중대와 연결을 지음으로써 차단임무를 끝마치고 夜間경계로 移行하였는데, 제1소대를 현지역에, 제2소대를 Truong Dinh 北쪽 Suoi Beo(江) 기슭에, 그리고 제3소대를 △83 北東쪽 와지선에 각각 埋伏케 하였다.

이에 따라 Beo江 연안으로 進出하던 제2소대(장, 金文吉 소위)는 14.30에 江邊 灌木 속을 헤치며 도주하는 7명을 사로잡았으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용의자로 취급하여 押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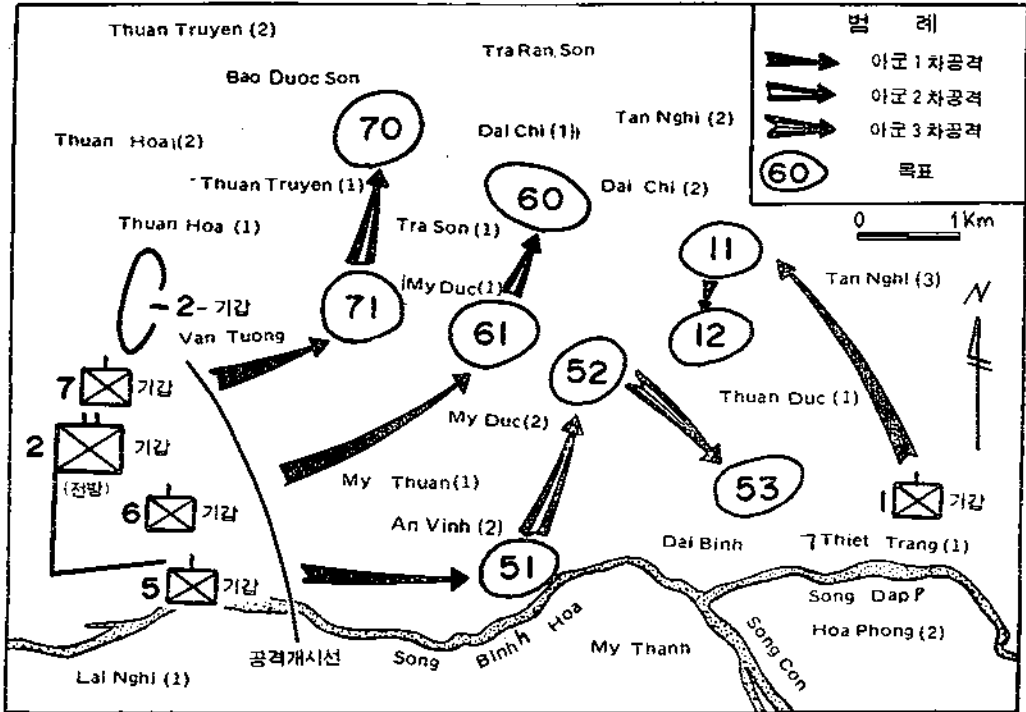
4.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이날 14.30에 기지(Lai Nghi(2) 南쪽 1km)에서 출발하여 16.00에 Song Con(江)을 도십한 다음 Kien Thanh 西側方の 小路를 따라 17.00에 Van Tuang에 進出하였다. 중대는 이곳에서 바로 야간경계로 移行하였으며 제2段 준비도 아울러 갖추어 나갔다.

한편 제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제5, 제6 兩중대가 모두 目標를 점령하고 該지역의 탐색을 종료하자 야간경계로 移行토록 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侵襲路에 埋伏組를 배치케 하였으며 야간에는 용의지역에 間歇的으로 포격을 加하게 하여 그들을 제압하였다.

#### 제2段(12월 19일)

이 전투는 제1단에 연결되는 그 北東쪽 평야지대에서 주로 水田과 촌락탐색을 전개하였다. 即 Song Con(江) 北쪽 An Chanh에서 My An에 이르는 공격계시선에서, 3개 중대가 동시에 병진탐색을 벌여 北東쪽으로 Dai Binh과 Tan Nghi(3)까지의 35km<sup>2</sup>에 達하는 광대한 지역내의 VC을 剿討한 단 하루의 전투이다. 여기는 Con江과 合流되는 많은 支流와 細川들이 얽힌 곳인데 連日 폭우로 범람하는 수많은 細流들을 단 하나의 “로프”를 도하장구로 삼아 도하하여야 하는 예로와 平均 수심이 1m를 넘는 水田지대를 헤쳐나가는 곤란을 겪어야

狀況圖 제22호 前進1號 戰鬪 第2段



만 하였다. 대대가 이 전투에서 세운 그 공격계획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5중대는 目標 "51", "52", "53" (An Vinh—Binh Duc(2)—Dai An)을 공격하라.
2. 제6중대는 目標 "61"—"60" (Binh Duc(1)—Dai Chi)을 공격 탐색하라.
3. 제7중대는 目標 "71"—"70" (My An—Bao Duc Son)을 공격하라.
4. 제1중대(백속)는 目標 "11" (Tan Nghi(1))과 "12" [Tan Duc(2)]를 占領한 다음 北東쪽을 차단하면서 3여단과 연계를 맺으라.
5. 제2중대(백속)는 대대예비가 되어 Van Tuong에 進出한 다음 제1段지역을 要扼하라.
6. 대대전술지휘소는 △83에 위치한다.

위와 같이 공격계획을 세워 19일 06.30을 期하여 3개중대가 동시에 병진탐색을 벌이도록 하였다.

1.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83 北東쪽 하단에서 철야하면서 제2段 공격준비를 갖추고 이날 06.20에는 공격개시전(An Chanh)에 進出하였다. 중대는 이 곳에서 제3소대(장, 金炫 소위)를 右一線에, 제1소대(장, 李崑洙 소위)를 左一線에, 그리고 제2소대(장, 朴晟煥 소위)를 지원부대로 하여 공격개시 시간인 06.30에 目標 "51"을 向하여 공격에 나섰다.

이날도 폭우가 계속 쏟아져 水田지대는 온통 물바다를 이루고 곳곳에는 키를 넘는 사탕



수수밭이 視界를 遮蔽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氾濫하는 細川을 “로프”로 건너 용의지역에 박격포격을 가하면서 躍進을 거듭하였는데 제1소대가 My Thuan(1) 南端에 進出하다가 我軍 박격포의 낙오탄에 의하여 사병 1명과 동행하던 越南민병대원 2명이 부상하여 후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대장 李權發 대위는 증언에서 말하기를 『連日 내린 暴雨로 水漲지대에는 물이 고여 부를을 넘었으며 습지대는 발이 빠져 運身할 수 없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병사들이 포탄을 짊어지는데 비를 맞으면서 전진하다가 때로는 失足하여 물에 빠지고 넘어졌으니 防水된 포탄이지만 그 작약에 습기가 차게 마련이었다. 물론, 落伍彈을 우려하여 전진방향과 砲目線이 일치 안되도록 강력히 지시하지만 전진속도가 예정보다 빠르다든가 또는 방향이 바뀌어 낙오탄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낙오탄이 있을 때마다 부상자가 나와 더욱 신경을 곤두 세웠다』라고 하였다.

중대는 11.00에 目標 “51”까지 進出하여 촌락 일대의 탐색을 벌여 용의자 4명을 색출하고 An Vinh 北쪽에서 동굴 1개소를 焚破하였다. 그 뒤에 중대 주력은 제2目標를 向하여 進出하였으며 지원소대가 그 뒤를 쫓아 An Vinh 北東쪽을 막 떠나려고 할 즈음, 數未詳의 VC들이 北쪽 측방 후미에서 경기관총과 소총을 亂射하며 襲撃을 시도하였다. 소대는 가용한 火力을 퍼부어 그들을 저지하자 더 抗拒하지 않고 무성한 사탕수수밭으로 遁避하여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河川을 徒渉하는 제5중대원들

이렇듯 한 차례의 交鋒을 갖게 된 중대는 측방 경계를 강화하고 계속 前進하면서 탐색을 벌였으나 그들의 隻影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500m 전방에서부터는 무성하게 자란 사탕수수밭이 펼쳐져 進路를 가로 막음으로써 지휘와 방향 유지가 어려운데다가 暴雨마저 쏟아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그들 “게릴라”가 어느 쪽에서 저격을 加할지 예측할 수 없는 중대로서는 寸時의 方심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渾身の 힘을 다하여 수수밭속을 헤치며 전진 탐색을 거듭한 끝에 11.35에 Nhon Thuan (1)에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隊伍를 整備하고 同마을을 탐색하여 용의자 4명을 체포하고 동굴 1개소를 TNT로 爆破한 연후에 目標 “52” (Binh Duc)쪽으로 轉進하였다. 이번에도 지원소대인 제2소대가 Nhon Thuan을 출발할 무렵 그 후미에서 數未詳의 VC들이 소총사격을 加하였으나 키를 넘는 사탕수수밭이 四面에 둘러쌓여 그들이 사격한 方向을 중잡을 수 없어 몇번 응사하다가 경계를 더 강화하면서 전진하였다.

중대는 12.40에 目標 “52”를 점령하고 그 일대의 탐색에서 용의자 3명을 압송하였으며, 동굴 1개소를 파괴한 다음 方向을 東南쪽으로 轉換하여 최종목표 “53” [Dai An(3)]으로 銳鋒을 돌렸다. 그런데 이 무렵 이 지대는 차단부대인 제1중대의 제3소대가 同 목표 東쪽 Thuan Duc(2)에 이미 전출하였을 때이므로 중대는 接敵 없이 전진하여 제1중대와 연결을 지음으로써 제2段 탐색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14.30에 명령에 따라 소대별로 측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主力이 Binh Duc(2) 南端을 통과하고 掩護하던 제2소대가 同 마을을 지나갈 즈음 隱遁하고 있던 VC의 저격을 받아 후미 제3분대 사병 1명이 腹部에 관통상을 입었다. 그러나 쏟아지는 暴雨로 저격방향을 헤아릴 수 없는 소대는 추격을 보류하고 위협 사격만을 퍼붓고 그대로 복귀하고 말았다. 부상 입은 사병은 후송도중 殞命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손실을 본 단 하나의 戰死者이다.

2.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전날 중대기지인 △83에서 野營하고 이날 未明에 공격개시선(My Thuan(1))에 進入하였다. 여기에서 제1소대(장, 全相雲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2소대(장, 李暉濶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3소대(장, 金泰熙 소위)를 지원소대로 삼아 06.30를 期하여 目標 “61” [Binh Duc(1)]을 向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지대도 논밭에는 1m 안팎의 물이 고여 전진이 어려운데다가 部落을 끼고 곳곳에 울창한 樹木들이 視野를 가로막아 VC들의 潛伏과 기습이 예상되었다. 중대는 △83에 기지를 마련한 以來로 該지대에서 여러차례의 埋伏을 屢 觀계로 그들의 手法을 익히 알고 있는 터

이라 각소대로 하여금 측방경계를 강화하여 저격에 대비케 하는 한편 지원소대인 제3소대를 후속케 하여 엄호와 그들의 저격에 유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경계에 注力하면서 탐색을 벌여 目標 “61”까지 進出하는 사이에는 接觸이 없었지만 제2目標인 “60” (Dai Chi)은 그 北쪽으로 Tra Ran Son山이 屹立하여 그들의 據點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出沒이 비교적 심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중대장 李泰熙 대위는 目標 “60”에 TOT사격을 加한 後에 중대를 이끌고 水田지대를 헤치며 쳐들어갔는데 이러한 중대장의 조치로 VC들이 Tra Ran Son山쪽으로 退散하였음인지 중대가 目標를 점령할때까지 저항이 없었으며 Dai Chi(1)에서 용의자 26명을 檢索하여 이를 압송하였다. 그리고 △151 南麓까지 누벼 동굴 13개소를 TNT와 수류탄으로 爆破한 後에 16.20부터 이 곳을 떠나 복귀하였다.

3.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전날 Van Tuang을 점령하고 그 北쪽 경계에 임하면서 제2段으로 移行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이날 07.20에 공격개시선을 躍出하여 My An(目標 “71”)으로 直衝하였다.

이 지역도 水田과 村落들이 點綴된 곳으로서 “게릴라”들이 隱遁하여 산발적으로 소총사격을 加하고는 潛跡하여 중대의 進出을 저지하였는데 09.30에는 My An 南端에서 數未詳의 VC으로부터 저격을 받아 사병 1명이 부상하였다. 이렇듯 제1목표를 咫尺에 두고 저격을 받은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예상되는 그들의 潛伏지역에 박격포를 비롯한 가용화력을 퍼붓고 同마을을 包圍한 뒤 정탐을 떠나가던중 마을 어귀에서 遺棄시체 2구를 찾아내자, VC들이 마을속에 은폐하였을 것으로 내다본 중대장은 각소대에 엄호조를 편성케 하여 가옥을 날낱이 뒤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마을 탐색에서 15명을 檢索하였으나 용의자와 VC과의 判別을 못한 채 모두 용의자로 취급하여 압송한 다음 12.00에 목표 “70” (Bao Duoc Son) 일대에 지원포격을 요청하는 동시에 박격포격을 集注케 하였다.

이윽고 목표 “70”에 포격이 炸裂하기 시작하자 중대는 제1소대(장, 張亮熙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2소대(장, 姜義英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3소대(장, 權寧大 소위)를 지원소대로 후속케 하여 복포를 지향하여 탐색을 떠나갔다.

그런데 12.50에 Tro Son(1) 西쪽 100m 지점을 통과하던 제1소대가 중대 박격포의 낙오탄에 의하여 사병 5명의 부상자를 내는 損失을 보았으며, 한편 제2소대는 13.30에 Bao Duoc Son山 西麓에서 포격에 依한 VC의 유기시체 2구를 확인하고 동굴 12개소를 爆破한 다음

14.00에 接敵이 없는 가운데 同목표를 점령하였다. 중대는 계속 이 일대의 탐색을 벌이다가 15.30에 명령에 따라 기지로 복귀하였다.

4. 제1중대(장, 金大植 대위)는 이날 拂曉에 대대전술지휘소(An Thanh(3))에서 차량으로 기동하여 05.30에 Con江 南쪽 Hoa Phong (2)에 도착하였으며 Con江을 도섭하여 06.30에 Thiet Trang(1) 北쪽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目標 “11” [Tan Nghi(1)]로 直衝한 중대는 07.30에 접적없이 同목표를 점령하고 그 일대의 탐색을 벌였는데 07.40에 南西쪽 灌木지대에서 潰走하는 VC 1명을 추격끝에 사살하였으며 동굴 2개소를 파괴하였다. 중대는 이곳에 제1소대(장, 金義培 소위)를 배치하여 北東쪽을 차단케 하는 동시에 美제3기갑여단과 連繫를 짓게 하고 제2, 제3 兩소대로써 目標 “12” [Ton Duc(2)]를 공격 점령한 다음 南東쪽을 차단하면서 제6중대와 연결토록 하였다.

그런데 목표 “12”지역은 VC의 거점인 △151 (Tra Ran Son(山))에서 南쪽으로 1.5km 밖에 안되는 近距離인데다가 Tan Duc(1)에서 同(2) 사이에는 넝쿨진 灌木들이 엉켜있어 장애물 (“부비트랩” 및 함정) 매설은 물론 그들의 隱遁이 예상되는 지대이다.

그러므로 중대장 金大植 대위는 측방경계를 강화하고 작소대로 하여금 『前進간 “부비트랩”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호령한 연후에 該지대에 박격포격을 유도하면서 탐색을 떠나갔다. 이리하여 중대(-)가 Tan Duc(1) 北쪽 300m 지점까지 누비다가 엉크러진 灌木숲속에 교묘하게 위장된 동굴을 색출하여 포위 탐색끝에 VC 1명을 목격하고 귀순을 종용하였으나 완강이 항거하므로 수류탄을 투척하였는데 이때 VC은 그 파편에 맞아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呻吟하는 것을 俘虜로 하여 압송하였다.

중대는 계속 灌木지대를 뚫고 11.30에 Tan Duc(1)에 進出하였으며 이 일대의 탐색에서 용의자 7명을 체포하고 동굴 3개소를 焚破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隊伍를 정리하면서 Tan Duc(2)에 포격을 가한 다음 12.30에 進擊에 나서 13.30에는 接敵이 없는 가운데 이를 점령하였으며 이 곳 탐색에서도 용의자 15명을 檢索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 “11”에서 “12”까지 進擊한 중대는 제3소대로써 四周방어에 임하게 하고, 제2소대를 Thuan Duc(2)에 進出시켜 南東쪽을 차단토록 하였다. 그런데 同지역으로 進出하던 제2소대가 16.40에 Dai An(3)쪽에서 西쪽 방향으로 潰走하는 VC 3명을 목격하고 박격포격을 가하면서 進擊끝에 유기시체 1구를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潛跡하여 버렸다.

이렇듯 該지대에서 北쪽과 南東쪽을 차단하고 美제3기갑여단과 연계를 맺은 중대는 17.00

에 제5, 제6, 제7의 3個중대가 제2단 지역의 탐색을 마무리 짓고 복귀하는 것을 掩護한 다음 17.35에 Tan Duc(2)에서 귀로에 올라 19.30에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 살	유기시체	俘 獲		노 획		전 사	전 상
			포 로	용의자	수류탄	동 과 굴 괴		
제 2 대대	2	5	2	83	1	42	1	8
제 1 대대	1		1	40		15		
합 계	3	5	3	123	1	57	1	8

## (2) 前進2號 戰鬪(1965. 12. 22~23)

## (가) 作戰 計劃

이것은 「前進1號 전투」(前項참조)에 이어 그 西쪽 Kien Long(2)에서 Phu Lac에 이르는 水田지대에 2개중대를 병진시켜 北쪽 Nui Thai(山)과 △351의 南東쪽 密林지역에 걸쳐 전개한 전투인 바, 그 전투계획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적정 : 전투전의 개황 참조.

2. 전투기간중 美제7기갑여단은 本 전투지역 北쪽 山岳지대에서 VC 撲滅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3. 기간중 포병 제61대대(-)가 직접 지원할 것이며 항공지원은 美전폭기 6대가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4. 연대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이에 1개대대(-)로써 Nui Thai(山)와 △351 南東쪽 일대에서 遊動하는 VC을 殲滅하려 한다.

5. 제2대대

가. 대대는 2개중대로써 목표(상황도 참조)를 공격 점령한 다음 該지대의 VC을 撲滅하라.

나. 공격개시선까지의 기동은 “헬리콥터”로 한다.

6. 공격준비사격은 착륙지역에 대하여 H-30분부터 野砲—航空순으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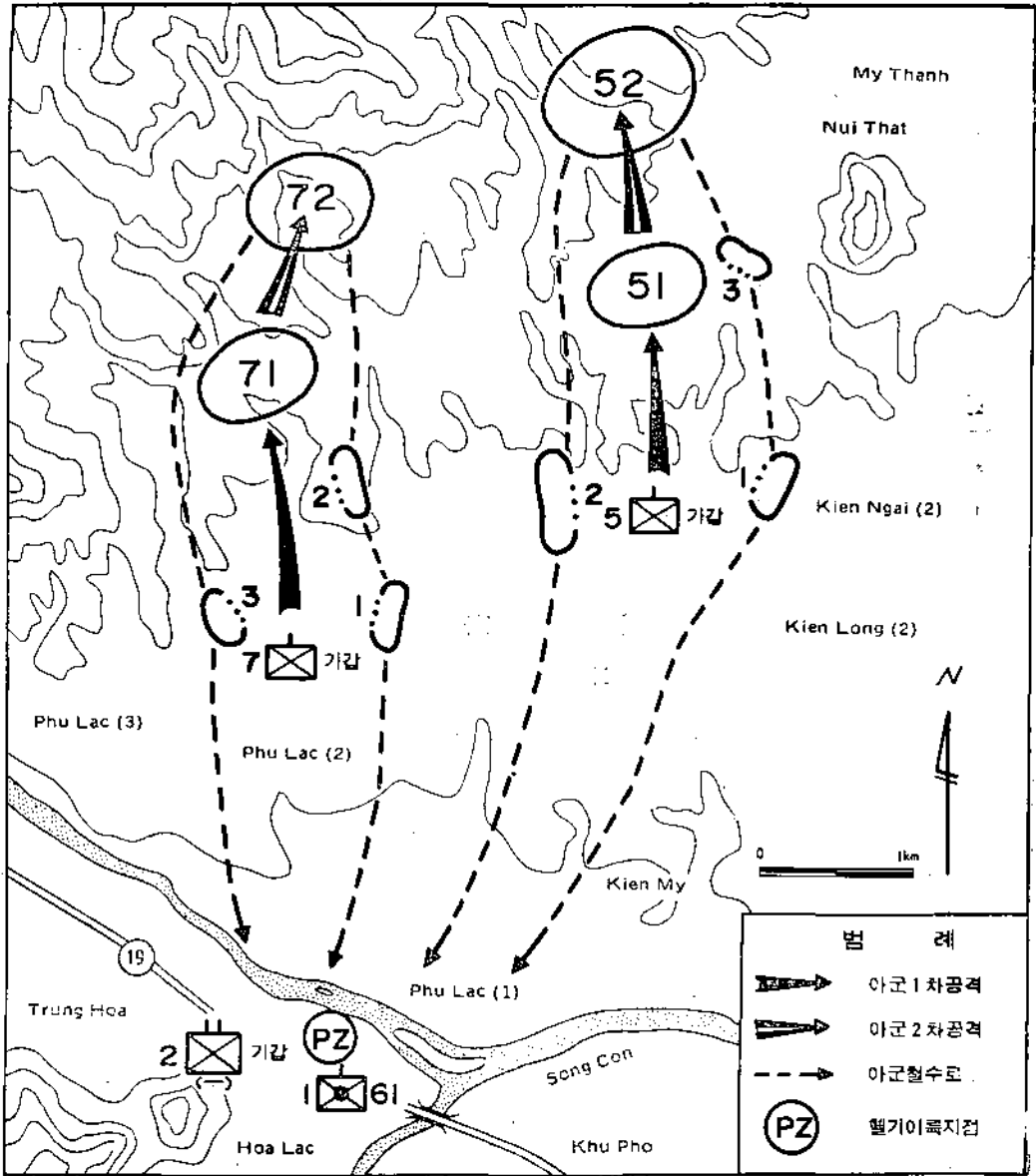
7. 통신 및 지휘

가. 통신은 현행 SIO에 의한다.

나. 연대전술지휘소는 변동없다.』

이와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동시에 포병 제61대대로 하여금 2개포대로써 직접 지원토록하고 공격개시는 22일 08.00로 정하였다.

狀況圖 제23호 前進2號 跳鬪



이에 따라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Hoa Lac 西쪽 無名고지에 기지를 마련한 제5중대를 뽑아 목표 “51”~“52”를 공격케 하고 대대에비로 Lai Ngai(2) 南쪽에 控置한 제7중대로서 목표 “71”~“72”를 점령토록 하였으며 탐승지역까지는 차량으로 기동하여 착륙지역 “5”~“7”에 각각 降着한 다음 08.00를 期하여 兩중대를 일제히 併進토록 하였다.

한편 포병 제61대대장 梁 鷹 중령은 제1포대를 제2대대 탑승지역인 Hoa Lac 北東쪽 Con江 南岸에 布陣케 하여 제7중대를 직접지원케 하고 제2포대로 하여금 현지에서 제5중대를 직접 지원케 하여 22일 07.00부터 착륙지역 “5”~“7”에 각각 제압사격을 加하도록 하였다.

#### (나) 戰鬪 實施

**12월 22일(D 일)**: 이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어 비행과 행동하기에 알맞았다.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제5, 제7 兩중대를 차량으로 기동시켜 탑승지역에 집결케 한 다음 각중대에 5명씩 탑승조를 편성케 하여 공수준비를 갖추었는데 09.40에 “헬리콥터” 12대가 도착하여 제1梯波가 탑승코자 할 즈음 “헬리콥터”현지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탑승조를 6명씩 재편성하게 되어 한때 혼잡을 이루기도 하였다. 派越이래 연대로서는 본 전투에서 처음으로 공수기동을 시도한 탓으로 이러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겠으나 사전에 충분한 협조가 아쉬웠다.

한편 포병 제61대대 제1포대(장, 鄭會慶 대위)는 이날 拂曉에 기동하여 06.00에 Hoa Lac 北쪽 Con江 연안에 布陣을 끝마치고 07.00부터 착륙지역 “7”에 제압사격을 加하고, 제2포대(장, 張洪烈 대위)도 현지에서 06.45부터 착륙지역 “5”에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포병은 계획대로 공격준비 사격이 이루어졌으나 항공지원은 착륙지역 “7”에 33분, 착륙지역 “5”에 15분씩 지연실시된 탓으로 제7중대는 07.26에 비로소 제1梯波가 공수비행 하였다. 그러나 “헬리콥터” 조종사와 중대원들의 민활한 동작으로 07.50에 兩중대가 착륙지역에 각각 降着하게 되어 예정된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派越이래: 최초로 空中機動하는 제2대대

1.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이날 未明부터 기동준비를 갖추고 2½ton차량 12輛에 分乘하여 06.15에 기지에서 출발하였으며 06.50에 집결지에 이동을 완료하였다. 중대는 여기에서 탑승조를 편성하고 “헬리콥터” 6隻에 依하여 예정시간에 기동코자 하였으나 착륙지역에 대한 항공폭격의 지연으로 07.35부터 공수를 시작하여 07.55에 완료하였다.

그런데 최종 비행제대인 제1소대가 “헬리콥터” 조종사의 착오로 제7중대 착륙지역에 降着함으로써 중대는 제2, 제3 兩소대를 併進공격케 하고 제1소대를 지원소대로 삼아 08.00를 期하여 목표 “51” [Kien Ngai(2) 北쪽 1km]을 向하여 탐색을 펼쳐 나갔으며 제1소대는 30분뒤에 중대 착륙지역에 도착하여 후속케 되었다.

이리하여 탐색을 펴나간 중대는 10.35에 목표 “51”을 점령한 다음 그 일대의 탐색에서 동굴을 뚫지다가 그들이 버리고간 술 2개를 찾아내자,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VC들이 退却한지 얼마 안되리라』고 推斷하고 각소대에 이르기를 『VC들이 필시 멀지 않은 곳에 隱避하여 저격을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소대마다 촉망과 후미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예상되는 隱避지역에는 火力을 퍼붓고 進擊하라. 그리고 목표 “52” [Nui Thai(山) 北西쪽 1.2km]를 점령하는 즉시 제3소대는 西쪽 밀림지대에 接한 細川연안 일대를 정탐하고 제2소대는 목표 “52” 일대의 탐색을 벌여 전과를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2.00 Nui Thai(山) 西麓의 灌木지대를 누비고 목표 “52”로 直衝한 중대는 13.00 同목표를 접적이 없는 가운데 점령하고 목표와 西쪽 細川邊 일대까지 살살이 뒤졌으나 VC의 隻影도 찾지 못하였으며 동굴 3개소를 焚破하였다.

중대는 15.40에 대대장 명령에 따라 목표 “51” 南端으로 불려서 소대별로 산개시킨 연후에 夜間 잠복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중대장은 부중대장을 대동하고 잠복지역의 偵察을 끝마치고 아래와 같이 그 계획을 세웠다.

- 『1. 제1소대는 착륙지역 “5” 西쪽 500m 지점에 埋伏하라.
2. 제2소대는 Kien Ngai(2) 西쪽에 埋伏하여 착륙지역 “5”를 襲扼하라.
3. 제3소대는 목표 “51” 北東쪽에 埋伏하여 Nui Thai(山)쪽을 制壓하라.』

이와 같은 매복계획에 따라 각소대는 17.00까지 매복지역에 進出하여 잠복조의 배치를 마치고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2.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이날 06.00에 차량편으로 기동하여 06.40에 탑승지역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착륙지역에 對한 항공폭격이 계획보다 33분이나 늦어져 중대도 이에 따라 26분이나 늦은 07.26에 제1梯波가 비로소 공수기동하는 차질을 빚었지만 “헬리콥터”의 신속한 기동과 병사들의 민첩한 동작으로 착륙지역에는 07.50에 최종비행제대가 降着하



여 예정시간에 공격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08.00에 공격에 나선 중대는 제2소대를 右一線에, 제1소대를 左一線으로 進擊케 하고 제3소대를 지원부대로 삼아 목표 “71” (Phu Lac(2) 北쪽 3km)을 指向하여 탐색을 벌이던지 병진하였다.

그런데 중대가 Phu Lac(2) 北쪽으로 펼쳐진 草原지대를 누비고 이에 이어진 密林地대에 右一線 제2소대의 尖兵 金周敏병장이 탐색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丘陵 수림속에서 數를 헤아릴 수 없는 VC들이 소총을 亂射하여 鎗병장은 腹部 관통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때 戰友의 鮮血을 본 소대원들은 격분한 나머지 그들의 저격방향도 모르면서 마구 소총을 쏘았으니 이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멀리 激走하게 하고 탄약을 무모하게 소모한 결과만을 초래하였을 뿐이다.

이에 소대장 姜義英소위는 즉시 사격을 中止시키고 중대장에게 보고한 바, 『곧 지원사격을 요청하고 박격포격을 集中할 것이니 그 때까지 공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듯 한때 공격이 지체되었으나 그 사이에 제1포대의 지원사격이 密林地대에 炸裂하고 박격포격이 集中되었다. 이윽고 포격이 멎어지자 중대는 아름드리 우거진 喬木 사이를 누비며 進擊을 거듭하여 10.00에 목표 “71”을 점령하고 그 일대의 수림속을 살살이 뒤졌으나 끝내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동굴 2개소를 파괴하였다. 중대는 이 곳에서 隊伍를 정비하던지 목표 “72”에 제1포대로 하여금 포격을 加하게 하는 한편 10.40에 지원소대인 제3소대를 右一線에 배치하고 제2소대를 지원소대로 뽑아들린 연후에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이 목표 “72” 지대는 VC의 거점인 △351에서는 2km나 떨어져 있지만 岡高地와 등고선상 南端에 있는 無名高地와는 불과 1km의 거리 밖에 안되어 이 高地에서 敵은 마음대로 직사화력을 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 側方이 노출되므로 我軍의 공격은 매우 불리한 지형이다. 더구나 열대성 特有的 喬木들이 무성한 “정글”지대인 까닭에 탐색에도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該山岳지대에서 작전을 펼친 美제7기갑여단이 連日 전폭기로 맹폭을 加하였을 것이므로 그들 主力은 이미 北上潰退하고 소수 VC들이 산발적으로 跳梁하리라고 내다본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측방경계를 강화하면서 그들이 隱遁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곳마다 박격포격을 퍼붓고 탐색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중대장의 용의주도한 대비가 奏效하여 목표 “72”를 점령할 때까지 그들의 저격을 받지 않았다. 중대는 同 목표 일대와 △351 南端까지의 탐색을 13.30에 끝마쳤으나 接敵이 없는 가운데 동굴 3개소를 擊破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를 모두 점령하고 탐색을 끝마친 중

대는 17.00에 대대장 명령에 따라 각소대를 축차적으로 착륙지역 “7”로 뽑아 야간잔부 준비를 갖추게 하는 한편 매복지역의 정찰도 끝내고 아래와 같이 매복계획을 세웠다.

- 『1. 제1소대는 Phu Lac(2) 北東쪽 500m 지점에서 河川을 東쪽에 끼고 그 연안에 매복조를 배치하라.
2. 제2소대는 Phu Lac(2) 北쪽 300m 떨어진 灌木지대와 密林 사이에 埋伏하라.
3. 제3소대는 착륙지역 “7”北쪽 600m 떨어진 河川 西岸 灌木지대에 埋伏하라.』

이에 따라 각소대는 17.30부터 매복지역으로 進入하였는데 이때 Phu Lac(2) 北東쪽으로 進出하던 제1소대(장, 張亮熙 소위)는 매복지점 100m 앞 후미진 곳에서 동굴을 뒤져 그들이 미처 간수하지 못한 피복류와 白米 2키를 찾아내자 소대장 張亮熙 소위는 『VC들이 벌지 않은 곳에 隱遁하였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매복조마다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그들의 深夜기습에 대비하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Hoa Lac 北東쪽 Con江 연안에 布陣하여 제7중대를 직접 지원하던 포병제61대대 제1포대(장, 鄭會慶 대위)는 제7중대가 야간경계로 移行하자 16.50를 期하여 원위치로 복귀하였다.

**12월 23일(D+1일)**: 이날도 晴明한 날씨가 계속되어 기동에 快適하였다.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전날밤 매복에서도 接敵을 보지 못하자 이날 06.00에 제5, 제7 兩중대에 『現매복지역에서 Con江 연안까지 탐색을 벌이면서 축차적으로 철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1.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Kien Ngai(2) 西側方에서 철야 매복으로 要扼하였으나, 敵과의 접촉을 보지 못한채 밤을 지새우고 이날 06.00부터 대대장 명령에 따라 該지대에서 탐색을 벌이면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07.30에 Kien Long(2) 일대를 누벼 동굴 1개소를 파괴하고 08.30에는 Kien Long(1) 北東쪽을 뒤져 동굴 3개소를 焚破하였으며 09.00부터는 Kien My 東쪽 水田 지대와 Con江 北岸까지 정탐을 벌여 용의자 1명을 압송한 연후에 Con江을 도설하여 原隊로 돌아갔다.

2.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전날밤 착륙지역 “7”을 中心으로 접근이 예상되는 要所에 각소대를 매복시켜 철야하였지만 이날 未明까지 敵의 兆朕이 없었으며 명령에 따라 06.10부터 정탐을 벌이면서 복귀를 시작하였다. 중대는 07.25에 Phu Lac(2) 東쪽 水田지대에서 “부비트랩” 1개를 노획하고 계속 탐색을 벌여 08.20에는 Phu Lac(2) 南端에서 동굴 1개소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08.30부터 09.30 사이에는 Phu Lac(1) 일대를 살살이 누벼 동굴 4개소를 焚破하고 “부비트랩” 1개와 M7총류탄발사기 1개 및 실탄 약간을 노획하였다.

이와 같이 Song Con(江) 연안까지 탐색을 끝마친 중대는 09. 40에 同江을 도섭한 다음 차량으로 귀대함으로써 本 전투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얻은 전과는 용의자 1명, M7 총류탄발사기 1대와 부비트랩 2개, 그리고 동굴파괴 8개소이며 손실은 戰死 1명이다.

### (3) 前進 3號 戰鬪(1965. 12. 28~30)

#### (가) 作戰 計劃

연대장 申鉉錫 대령은 「前進2號 戰鬪」(前項참조)를 끝마치고 기간중에 수집된 첩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Nui Thai(山) 일대에서 跳梁하던 VC들이 同戰鬪로 말미암아 該지대 北東쪽 Viet Xan山과 Suoi Beo(江) 유역의 樹林地대로 潰退하여 여기에 거점을 둔 VC과 합류하였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新正을 앞두고 이들을 殲滅할 腹案을 세웠다. 더구나 이 무렵에 美제1공중기갑사단 제3여단이 該지대 北쪽 山岳 일대에서 「Clean House작전」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연계를 지으면서 攻勢를 取한다면 1개대대 兵力만으로도 그들을 송두리채 塞源할 수 있으리라고 確信하여 아래와 같은 요지의 계획을 세워 하달하였다.

『1. 목적 : 전투전의 개황 참조.

2. 전투기간중 美제3기갑여단은 該지대 北쪽에서 「Clean House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3. 기간중 포병지원은 포병제61대대와 同제628대대 제3포대가 담당한다.

4. 연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증강된 1개 대대로써 Viet Xan山 일대의 敵을 撲滅하려 한다.

5. 제2대대(4.2' 중박격포 1개소대 배속)

가. 대대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목표(상황도 참조)를 점령하고 該지대의 VC을 撲滅하라.

나. 공격개시선까지의 기동은 “헬리콥터”로 한다.

다. 야간에는 埋伏組를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하라.

6. 전투지원중대장은 4.2' 중박격포 1개소대를 28일 06.00까지 제2대대에 배속하라.

7. 공격 준비사격은 없으며 포병 및 항공지원은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8. 지휘 통신

가. 통신 : 현행 SOI에 依한다.

나. 연대전술지휘소는 변동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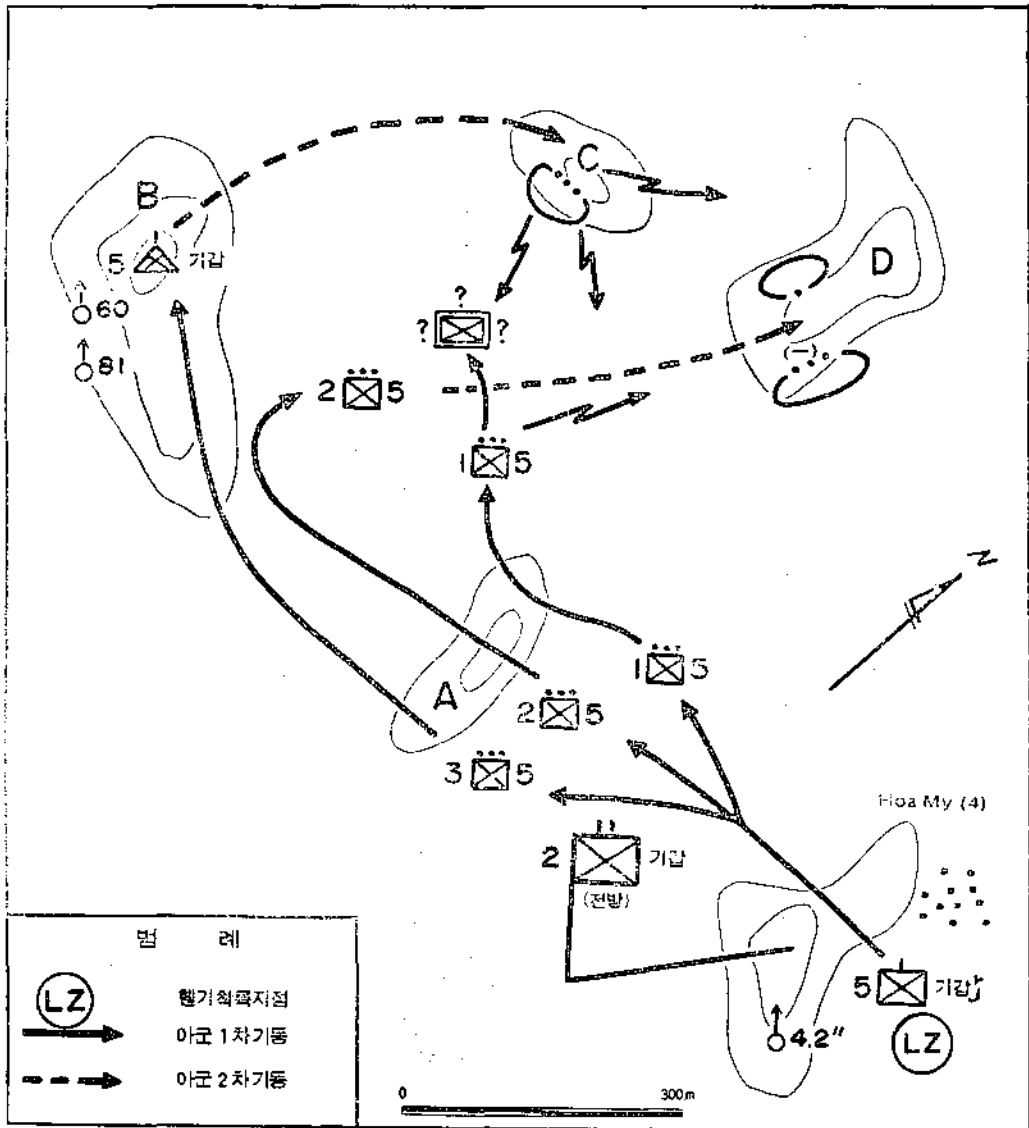
위와 같은 작전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제6중대를 右一線으로 삼아 목표 “60” (Viet Xan山 南端)을 공격케 하고 제7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목표 “70” (An Hoa(1) 北西쪽 無名高地)를 점령케 하였으며, 제5중대를 대대에미로 하여 중앙에서 후속하면서 목표

“50” [An Hoa(1) 東쪽 無名高地]을 공격토록 하였다,

그리고 대대 전술지휘소를 Hoa My(4) 西쪽 高地에 개설키로 하고 배속받은 4.2" 중박격포소대를 同전술지휘소 후사면에 포진케 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계획을 세운 대대는 제7, 제5, 제6중대 順으로 비행제대를 삼아 각각 작륙

狀況圖 제24호 前進3號 戰鬪



지역으로 공수기동기로 하였는데 대대예비인 제5중대를 제2비행제대로 편성한 까닭은 『대대 전술지휘소를 개설기로 한 Hoa My(4) 西쪽 高地를 신속히 점령케 하고 한편으로는 An Hoi(3)까지 깊숙히 쳐들어가는 제7중대의 右側을 후속하다가 同중대의 공격이 挫折되면 초월공격을 執行할 腹案이서였다』라고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그 증언에서 말하였다.

#### (나) 戰團 實施

12월 28일(D 일) : 전투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飛行에는 지장이 없었다. 대대는 06.00부터 각중대를 차량편으로 08.00까지 탑승지역(Hoa Lac 北東쪽 Con江邊)에 집결시킨 다음 제7, 제5, 제6중대 順으로 이미 설정한 착륙지역으로 각각 공수 降着케 하였으며 착륙 직후 분산된 병사들이 自己소대를 찾으려고 방황하는 혼잡을 막기 위하여 중대마다 赤, 靑, 黃, 白色의 手旗를 사용하여 소대를 분별케 하였다.

1.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제1梯波로 08.50에 착륙지역 “7” (Kien An 南東쪽 1km)에 降着하여 제1소대(장, 張亮熙 소위)를 右一線에, 제2소대(장, 姜義英 소위)를 左一線에, 제3소대(장, 權寧大 소위)를 지원부대로 하여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중대가 공격하는 목표 “70”의 고지는 그 北쪽에 竝立한 Nui Ho Xa (△269)에서 瞰制 받을 수 있는 곳이며 西쪽에는 VC의 樞紐로 알려진 Beo江이 北에서 흘러 내리고 該江기슭 灌木지대는 VC의 潛匿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東쪽에는 Nui Ho Xa(山)에서 발원하는 細流가 An Hoi를 貫류하며 이 細川을 따라 양편 谿澗에는 덩굴진 灌木들이 영커 VC으로부터 저격받기 쉬운 지형이다. 이러한 모든 지리적 여건의 불리점을 감안한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측방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소대로 하여금 100m 이내의 근거리에서 후속하면서 一線소대를 掩護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9.50에 Kien An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계속 진격하여 An Hoi(1) 西쪽 丘陵까지 진출하였다. 이 때 同丘陵 北사면을 누비던 제1소대 제2분대장 朴炳潤하사가 숲속에 숨겨진 VC의 배낭 속에서 M-10계산관과 시계, 우의, 약품등을 찾아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중대장 李鍾九대위는 『이 근방에 潛伏하였던 VC들이 공격의 기미를 알아차리고 교묘하게 숨어 狙擊을 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각 소대장에게 무전으로 호명하되 「가일층 경계에 치명하라. 그리고 기도비닉을 철저히 하고 예상되는 隱匿지역을 완전 포위한 연후에 탐색하되 1개분대로써 반드시 엄호케 하라」고 지시하였다.

중대는 丘陵과 溪澗 일대의 탐색을 끝내고 11.20에 進擊속도를 빨리하여 목표에 지향하려 할 즈음 갑자기 右側에서 총성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때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목표 “50”

을 공격하던 제5중대가 VC와 遭遇하여 총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1소대로 하여금 An Hoi(1) 北쪽으로 急進케 하여 An Hoi(1)에서 (3)으로 通하는 路목을 차단케 하는 동시에 潰退하는 敵을 포착 撲滅토록 하였으며 제2, 제3 兩소대로써 계속 목표 “70”을 공격하였다.

이 때의 狀況을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Beo江 연안 瀧木지대에서 An Hoi(3)에 이르는 谿澗과 丘陵 일대는 VC의 침투로 이미 알려진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 중대가 最先鋒에서 그들을 포착 殲滅할 계획아래 기도비닉에 각별히 조심하면서 쳐들어갔다. 중대가 An Hoi(1) 西쪽 溪谷과 언덕에서 包圍網을 압축하면서 탐색을 벌이다가 VC들이 숨기고간 배낭을 노획하였을 間接敵을 보지 못하자 나는 목표지역에 그들이 隱遁하였으리라고 믿고 각소대로 하여금 進擊속도를 빨리하여 목표로 直衝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바로 그 때 右側方에서 요란한 총성이 들려오므로 제5중대가 VC와 遭遇하여 一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직감하고 제1소대로 하여금 An Hoi(1)에서 (3)으로 連結되는 通路를 차단토록 한바, 이는 敵이 퇴산할 수 있는 方向은 제6중대의 공격목표지역보다는 Beo江 流域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마을탐색을 벌이는 제7중대원들

중대장의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제1소대장 張亮熙 소위는 11.40에 An Hoi(1)에 進出하여 제1분대를 마을 南東쪽 入口 숲속에 潛伏시켜 要扼케 한 연후에 소대(-)를 이끌고 同마을과 南西쪽 谿澗을 누비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精探을 끝나치고 12.30부터 북포로 진출중 谿谷이 가파른 언덕 밑에서 자연 동굴을 찾아낸 소대는 이를 포위하고 그 入口쪽으로 다가서다가 동굴속에서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駭然 긴장하게 되었다. 소대장 張亮熙 소위는 위협사격을 加하고 『손 들고 나오라』고 거듭 종용하자 잠시 뒤에 아기를 등에 업은 女子를 앞세우고 29명이 하나 둘 동굴 밖으로 나왔다. 이 때 소대장은 제2분대로써 동굴내부를 뒤지게 하고 이들을 심문하였는데 『An Hoi(1)에 사는 주민들이 이 동굴에 避身하였을 뿐, 이 속에는 VC이 한사람도 없다』고 부인하므로 모두 용의자로 취급하여 압송하였다. 전투후에 이들 중에서 3명이 VC이었음이 심문에서 밝혀졌다.

소대가 이 동굴에서 얻은 전과는 俘虜 3명, 용의자 26명과 文書 및 의약품이 2½ton 1대 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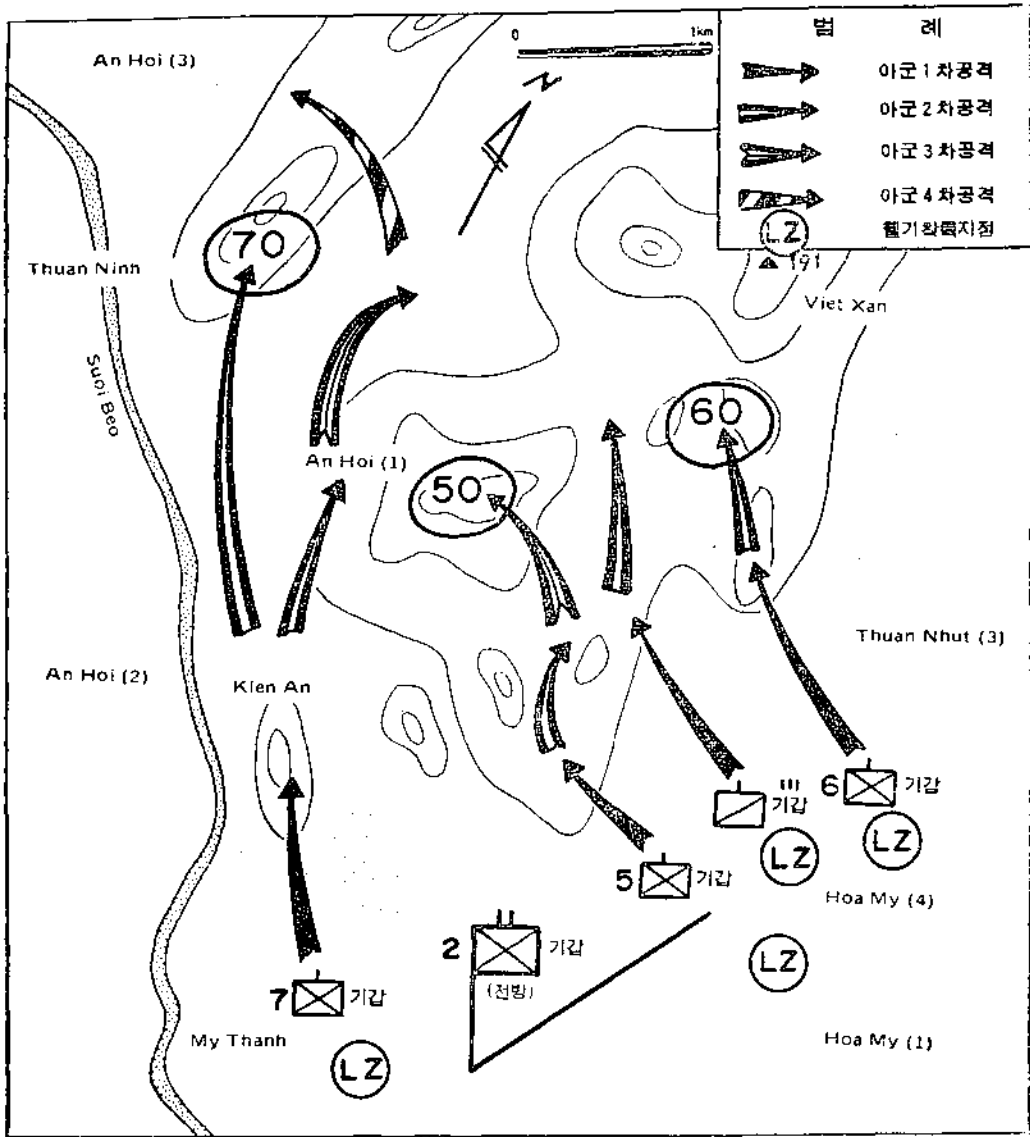
중대장 李鍾九 대위의 증언에 따르면 『이 동굴은 VC 제9외과병원이라고도 하고 의약품 보급소라고도 하였으나 결국 확실한 것은 밝혀지 못하였지만 의약품 노획량이 2½ton 車輛 1대 분이 넘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뜻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萬一 그때 동굴속에 숨었던 민간인중에서 VC을 가려낼 수 있었다면 敵의 狀況도 알 수 있었을터인데 言語가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여유가 없었으므로 모두 용의자로 押送하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 제3 兩소대는 13.00에 북포 “70”을 점령하고 An Hoi(3) 北端까지 누웠는데, 제2소대(장, 姜義英 소위)는 同마을 北쪽 움막을 뒤지다가 그 밑에 교묘하게 만든 동굴속에서 그들이 저장한 白米 25畝를 소각하였다. 제3소대(장, 權寧大 소위)도 同마을 東쪽 灌木지대를 누비 동굴 2개소를 파괴하였으나 敵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15.00 중대장 지시에 따라 兩소대는 An Hoi(1)로 철수하여 제1소대와 함께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차단하였다.

중대는 日沒時까지 이 곳을 扼守하다가 대대장 명령에 따라 Beo江 東岸에서부터 An Hoi(3)에 이르는 예상접근로에 매복조를 배치하고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2.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제2梯波로 09.05에 착륙지역 “5”에 降着하였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는 중대의 착륙지역을 대대 전술지휘소[Hoa My(4) 北西쪽 高地] 西쪽에 설정하였으나 美軍 “헬리콥터” 조종사의 착오로 그 反對편인 東쪽에 着陸함으로써 한때 혼란을 빚었다. 그러나 중대는 제일 먼저 降着한 제3소대장 金 炫 소위의 地形판단과 민첩한 행동으로 이 지역에 알맞는 위장을 갖춘 연후에 대대전술지휘소를 개설할 高地를 점령하였다.

狀況圖 제25호 제5중대의 攻撃



중대는 여기에서 제3소대를 先鋒으로 하여 “A”高地 후사면을 거쳐 “B”고지로 進出한 다음 목표 “50”을 左側方에서 공격케 하고 제1소대는 제3소대가 “A”고지를 통과할 무렵 이곳에서 출발하여 “A”高地 東斜面을 타고 그 北쪽 溪谷을 탐색한 연후에 “C”고지를 확보하고 목표 “50”을 右側方에서 공격케 하였다. 그리고 제2소대를 지원부대로 하여 중대본부와 함께 “B”고지에 進出케 하였다.

이와 같이 공격계획을 세운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각소대에 기도비닉을 철저히 하여 敵을



포착 격멸하라고 아울러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소대장 金炫 소위는 소대를 이끌고 “A”高地의 후사면을 따라 灌木 사이를 헤치며 “B”高地에 進出하였는데 兩쪽으로 깊숙히 이어진 谿澗에는 樹木이 울창하여 어느 곳보다도 敵情이 더욱 농후하다고 추단하고 獨斷으로 제1분대를 “C”高地에 急進시켜 이를 확보케 한 연후에 예상되는 退路를 차단토록 하였다.

이무렵 李崑洙 소위가 이끄는 제1소대가 “A”高地 東쪽을 누비고 그 北쪽 溪谷 南端에 進入하여 우거진 숲 사이를 헤치며 탐색을 벌이다가 灌木 뒤에 숨어서 소대의 동정을 살피는 VC 1명을 捕虜로 잡았다. 잠간 사이에 捕虜를 얻은 소대장은 『이 근방에 반드시 VC들의 소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들을 訊問한 결과 멀지 않은 곳에 VC 10명이 숨어 있다는 暗示를 받았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까닭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表情이나 言動이 진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짓 같지 않다는 心證을 굳힌 李崑洙 소위는 俘虜를 앞세우고 그들이 숨었다는 동굴을 찾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者가 안내하는 谿澗의 狹路는 갈수록 험준한데다가 동굴이 있다는 方向을 바라보니 溪谷을 끼고 절벽을 이룬 그 뒤의 樹林속이었다.

만일 이러한 지형에서 VC들이 소대가 接近하는 것을 미리 눈치 챌다면 집중 사격이나 수류탄의 집중공격을 면할 길이 없다는데에 생각이 미치었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 제1분대를 東쪽 숲속을 迂回케 하여 절벽 後側에 잠복케 하고 제2분대를 西쪽 溪谷을 돌아 동굴 北西쪽에 매복케 한 연후에 李소위는 殘餘 2개분대를 이끌고 동굴 正面 숲 사이를 헤치며 다가갔다. 소대(-)가 50m 앞에 이르렀을 무렵 제1, 제2 兩분대는 동굴 北, 西 양편에 進出하여 잠복하고 있었다. 이 때 소대장은 화기분대 隱호하에 제3분대를 이끌고 동굴 10m 앞까지 다가섰으나 그들의 조짐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內心 捕虜에게 속은 줄로 짐작하고 또 한번 捕虜를 訊問하는데 동굴속에서 VC 7명이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뛰어 나왔다. 그야말로 間一鬚의 찰나였는데 李소위는 선두의 VC를 쏘았으며 이에 膺接하여 뒤따르던 제3분대와 양측방에 潛伏한 제1, 제2 兩분대가 일시에 불을 뿜어 모두 사살하였다.

이렇듯 상황이 突變하자 동굴속에는 捕虜의 말대로 3, 4명의 VC이 아직도 숨어 있으리라는 확신에서 귀순을 거듭 종용하였던바, 그들이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므로 3명을 사로잡았다.

나중 심문에서 이들 3명중 2명은 군의관이고 1명은 간호원으로 밝혀졌다.

이 때를 회상하여 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정말 통쾌한 一擊이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의 전투를 치렀지만 거의 水田지대와 갈대밭이나 들판이었지 이렇게 樹木이 우거진

溪谷은 처음이어서 탐색에 나설 때부터 긴장 속에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四面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溪谷은 아름답지 큰 나무가 꼭 차 있었으며 개울을 끼고 峯石들이 곳곳에 치솟아 처음 생각보다는 매우 險한 골짜기였다.

이날은 맑은 날이었지만 이 季節이 越南에서는 雨期이기 때문에 溪谷에는 무릎까지 차는 急流가 소용돌이쳐 그 도섭도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제3소대의 進擊이 예상보다 빨라 우리 소대가 "A"高地를 거쳐 이 溪谷탐색에 나설 무렵에는 벌써 "B"高地에 진출한 때라 溪谷 탐색에서 기습을 받더라도 支援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안도감에서 작분대를 중대로 하여 수습속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소대가 50m 전진하였을 무렵 巨木가지에서 망보는 VC 1명을 포위하여 사로잡은 것이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참전이래 좋은 전과를 거두게 하였다. 言語가 잘 通하지 않기 때문에 俘虜의 말을 확실히 알아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웠다. 그가 하는 손짓과 言動으로 멀지 않은 곳에 동굴이 있다는 것과 그속에 VC 10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원체 간교한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20세 가량의 애된 俘虜가 지나칠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그 言行이 너무도 진저하기에 속는 셈치고 동굴이나 탐색할 心算으로 그를 앞세우고 찾아나섰다.

짜아 세운듯한 絶壁을 끼고 그 어귀에는 巨木들이 치솟아 萬一 그들이 우리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火力를 集中한다면 불주점을 면치 못하리라고 느꼈다.

그래서 제1, 제2 兩분대를 東·西로 迂回시켜 北·西 兩쪽에 包圍감복케 하고 화기분대 엄호하에 동굴 앞에 이르러 또 한번 포로를 다구했는데 그 剽掠에 굴속에서 7,8명의 VC들이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뛰어나왔다. 아마 굴속에 있던 VC들은 同僚가 救援을 요청하는 줄 알고 다급히 뛰어나온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나도 영겁결에 소총을 갈겼으며 埋伏한 사병들도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7명을 사살하였다. 이 때 뒤에 2,3명은 도로 굴속으로 숨었을 것이다.

이렇게 狀況이 급전하자 殺氣에 찬 사병들은 굴속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모조리 사살하려고 뛰어들려고 앞을 다투었지만 이를 제지하고 俘虜로 하여금 그들의 귀순을 종용케 하였으나 좀처럼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入口에 수류탄 3발을 연달아 터뜨리고 귀순을 강요하였을 때에야 女子 1명을 앞세우고 2명이 손을 들고 나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1명의 여자는 간호원이고 나머지는 軍醫官이었다. 이 동굴을 탐색한 결과 100坪이 훨씬 넘는 반자연동굴로서 木寢蓆등이 갖추어져 야전병원 구실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갔다.

이 동굴속에서 300여종의 의약품과 의료가구 20set 등을 노획하였는데 "헬리콥터" 2隻로 후송할 정도였으니 그 量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곳에는 7명의 간호원과 10명의 군의관이 있었던 곳으로 그 뒤 진술에서 밝혀졌으니 그만큼 규모가 큰 곳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戰果를 거둔 소대는 溪澗 일대를 縱橫으로 누벼 움막 10棟을 焚破하고 그 곳에 은닉된 소총실탄 140발과 배낭, 서류등을 노획한 연후에 15.30에는 "C"高地 南麓에서 數未詳의 VC과 부딪쳐 접전끝에 5명의 시체를 확인하였으며 수류탄 2발을 노획하였다.

한편 “B”高地에서 제1소대의 집전상황을 보고받은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同高地 남단에 진출한 제2소대를 “D”고지로 급거 진출시켜 포위권을 형성한 연후에 谿澗 일대에 隱遁한 VC를 압축 진멸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소대장 朴成煥 소위는 “B”高地 남단에서 谿澗을 거쳐 “D”고지로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소대는 敵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D”고지에 進出하여 이를 확보하자 제1분대로 하여금 急遽진지에서 同高지를 扼守케 하고 朴成煥소위는 소대(-)를 이끌고 高地 南麓에서부터 谿澗탐색에 나섰다. “D”高地 南西쪽 100m 樹林속을 누비다가 숲 사이로 北쪽을 향하여 潰走하는 VC 2명을 追擊끝에 1명을 사살하고 CAR소총 1정을 노획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끝내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무렵 “C”高를 확보하고 예상되는 퇴로를 차단하던 제3소대의 제1분대도 同高地的 東斜面 탐색을 끝마치고 “D”高地 사이의 細川邊까지 뚫히다가 14.00에 灌木덤굴속에 머리와 몸만 감추고 두다리를 노출시킨채 숨어 있는 VC 2명을 목격하자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으나 이들이 먼저 눈치채고 北쪽 方向으로 疾走하였다. 그리하여 일제 사격을 加하여 그 屍體 2구를 확인한 다음 수류탄 2발을 노획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대는 21명을 射殺하고 3명을 捕虜로 하였으며, CAR소총 4정, 실탄 140발, 수류탄 4발, 월맹기 2대, 의약품 300여종, 의료기구 20set, M1대검 1개, 문서 약간을 노획하였다.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증언에서 『중대가 VC의 소굴을 一網打盡하고 뜻밖의 전과를 거두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미닉이 잘 퍼졌으며 신속하게 4개 高地를 확보하고 포위망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退路를 차단한데 있었다. 나중에 俘虜들 심문에서도 그들은 “중대의 공격을 전혀 몰랐다”고 하였다. VC들이 머리와 몸만 灌木 사이에 감추고 다리를 노출한채 숨어 있었던 點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황망다급하였던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 전투에서 제1소대장 李崑濼 소위가 세운 戰功은 월남전 초기에 있어 가장 보람있고 빛난 것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관복할 전과를 거둔 중대는 그 銳鋒을 늦추지 않고 계속 목표 “50”으로 直衝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 땅거미가 질무렵까지 수림 일대를 누며 “빙커” 10개소를 파괴하고 움막 3棟을 焚破한 연후에 야간매복으로 移行하였다.

3.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제3梯波로 11.00에 착륙지역 “6” [Thuan Nhut(3) 南端]에 降着하여 제1소대(장, 全相雲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2소대(장, 李暉潤 소위)를 左一線으로 삼고 제3소대(장, 金泰熙 소위)를 지원소대로 하여 목표 “60” (Viet Xan山 南쪽 1km)을 指向 공격에 나섰다.

이 지대는 “P”稜線까지는 과거 경작지로서 草原을 이루고 同稜線에서 목표 “60”까지는 灌木지대를 이루어 비교적 進出이 쉬운 곳이다.

그러나 “P”稜線에서부터는 Viet Xan山에 거점을 둔 VC의 감제하에 놓여 있어 기습과 저격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지형의 불리를 감안한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P”稜線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12.15에 목표 “60”을 指向할 무렵부터는 경계를 강화하고 지원소대로 하여 급 후속하면서 엄호케 하였다. 이리하여 13.05에 溪澗 숲속을 누비고 목표를 점령한 중대는 日沒時까지 Viet Xan山 남단에 이르는 稜線과 丘陵 일대를 뒤져 움막 5棟과 동굴 3개소를 격파한 연후에 목표 南쪽으로 물러나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4. 이날 연대장 申鉉銖 대령은 제2대대 전술지휘소에 나와 戰況을 지켜보며 전투指導에 나섰는데 제5중대가 진격도중 谿澗 일대에서 VC들이 隱遁한 동굴을 急襲하여 전과를 거두고 계속 탐색중이라는 보고를 接하자 제5중대와 제6중대 사이의 間隙이 너무 넓어 그 虛隙을 틈타 潰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 수색중대를 여기에 투입하여 그들을 撲滅케 하는 동시에 전과를 더욱 확대할 결심을 세우고 아래와 같이 口頭 명령을 내렸다.

『1. 연대수색중대는 28일 13.00에 “헬리콥터”로 기동하여 13.30까지 착륙지역(“5”와 “6” 중간지역)에 강착하라.

2. 착륙 즉시 제5중대와 제6중대의 목표 중앙을 공격하라.』

이에 따라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13.25에 “헬리콥터” 6기로 제1소대를 공수기동으로 Hoa My(4) 北西쪽에 降着시켰다. 그런데 당초 연대장의 口頭명령이 연대 수색중대에는 1개소대만을 投시켜 한다는 것으로 訛傳되어 제2, 제3 兩소대는 이보다 1시간이나 뒤늦게 14.35에 착륙지역에 공수되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14.35에 공격에 나서 “D”高地 東쪽 樹林地대를 누비고 계속 목표 “50”과 “60” 사이에 있는 溪澗 일대의 탐색을 벌여 동굴 10개소를 파괴하고 10명을 체포하였으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데다가 이들이 VC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므로 일단 용의자로 압송한 연후에 白米 10되를 압수하였다.

이와 같이 급저 출동한 중대의 탐색에서 그들과의 접촉은 물론 그 兆朕이 전혀 없었다. 이에 연대장 申鉉銖 대령은 16.30에 同중대에 철수명령을 내렸으며 중대는 18.40에 기지로 공수되었다.

5. 이날 전투에서 대대는 初戰에서부터 전과를 거두었지만 그중에서도 VC 7명을 俘虜로 잡은 것은 실로 큰 소독이었다. 그리하여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아들을 심문한 결과

該지대는 VC의 의료시설(야전병원—간호원 7명, 의사 10명)과 1개중대(-)규모의 경비 병력이 있어 부상자의 치료후송과 아울러 개인휴대 의약품도 보급하던 곳임을 알아냈다.

이러한 情況을 살피이 캐인 대대장은 필시 이 곳에서 退散한 일부 VC들이 Viet Xan山에 집결하였다가 乘夜 기습을 시도하리라고 내다보고 야간매복 계획을 세워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 『1. 제5중대는 “A”高地의 南麓 및 Hoa My(4) 중간지점에 각 1개소대를 배치하여 매복하라.
2. 제6중대는 목표 “60” 高地의 南端과 西麓에 각 1개소대를 埋伏케 하라.
3. 제7중대는 목표 “70” 北쪽 및 北東쪽 細川 연안과 An Hoi(3) 南西쪽 Beo江 東岸에 각 1개소씩을 매복케 하라.』

이에 따라 제5중대는 제1소대를 “A”高地 南쪽 灌木지대에 매복시키고, 제3소대를 Hoa My(4) 西쪽 100m 小路邊에 잠복시켰으며, 제6중대는 제1소대를 목표 “60”고지의 南端에, 제2소대를 同고지의 西쪽 稜線중복에 매복케 하였다. 그리고 제7중대는 제1소대를 An Hoi(3) 南西쪽 Beo江 東岸에, 제2소대를 목표 “70”의 고지 北쪽 하단에, 제3소대를 同 목표 An Hoi(1) 사이를 뚫고 南으로 흐르는 細流 연안에 각각 잠복시켜 밤을 지새웠다.

**12월 29일(D+1)**: 대대는 전야밤 각중대로 하여금 예상되는 敵의 접근로에 소대단위로 매복케 하여 밤을 지새웠으나 이날 未明까지 그들의 兆陰이 없었다.

그런데 대대에서 매복지역을 좀 더 과감하게 깊숙히 선정하였더라면 적지않은 전과를 올렸을 것이라는 推定이 이날 該지대의 再탐색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그 증언에서 말하기를 『당시 판단으로는 Viet Xan山에 거점을 둔 VC들이 該지대에서 退散한 무리들과 합세하여 각중대 野營지에 深夜 기습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매복지점을 선정하였는데 이것이 그릇된 判斷이었음이 다음날 제5중대의 재탐색에서 확인되었다. 즉 매복한 다음 날(D+1일)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가 “A”高地와 “C”高地 사이의 溪谷을 탐색하다가 “대대장님 VC들이 야간에 이 지역에 潛入하여 그들의 시체를 모조리 거두어 갔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 報告를 接하는 순간 埋伏지역을 “C”高地와 “D”高지를 중심으로 그들 접근로에다 선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연대장 申鉉銖 대령도 이를 몹시 뉘우쳤다. 당시 “C”高地와 “D”高지를 중심으로 한 埋伏도 고려해 보았지만 西方이 山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萬에 하나라도 奇襲을 받게 되면 손실을 면치 못하리라는 憂慮에서 이 곳을 避하여 “A”高地로 하였으니 지나치게 細心한 탓이었다』라고 하였다.

이날 대대는 각중대로 하여금 08.00부터 목표 일대에 대한 재탐색을 벌이도록 06.30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A”고지와 “C”고지 사이의 溪谷을

중형으로 누웠으나 전날 사살한 그들의 시체도 눈에 띄이지 않았으며, “C”高地에서 목표 “50”까지의 탐색에서 동굴 2개소를 파괴한 연후에 야간경계로 移行하였다.

그리고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와 제7중대(장, 李鍾九 대위)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목표지역의 탐색에 나서 稜線과 丘陵 일대의 樹林속을 뒤졌으나 薄暮時까지 그들과의 접촉을 보지 못한채 이날 탐색을 마무리 짓고 야간경계로 移行할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한편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각중대가 목표지역의 탐색에서 敵과 접촉하지 못하자 16.00까지 탐색을 모두 끝마치고 18.00까지 잠복지점에 각소대를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각중대의 잠복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제5중대는 My Thuan 南쪽 △32와 東쪽 및 北東쪽에 각1개소대씩 배치하여 埋伏에 임하라.
2. 제6중대는 목표 “60” 北쪽과 北東쪽 및 東쪽에 각 1개소대씩 잠복시켜라.
3. 제7중대는 An Hoi(3) 南端과 北東쪽 1km 지점 및 An Hoi(1) 北쪽 600m 지점에 각 1개소대씩 잠복시켜라.』

이에 따라 제5중대는 제1소대를 My Thuan 南쪽 △32에, 제2소대를 同마을 東쪽입구 도로변에 제3소대를 同마을 北東쪽의 細川 연안에 각각 매복케 하고, 제6중대는 제1소대를 목표 “60”高地의 남단에, 제2소대를 同목표 西쪽능선 中腹에, 제3소대를 목표 南東쪽 계곡에 각각 매복케 하였으며, 제7중대는 제1소대를 An Hoi(3) 남단 Beo江 연안에, 제2소대를 An Hoi(3) 北東쪽 계곡 관복지대에, 제3소대를 An Hoi(1) 北쪽 細流 西岸에 각각 잠복케 하였다.

**12월 30일(D+2)**: 이날로써 본 전투의 3일째를 맞는 대대는 전날밤 매복에서도 그들과의 접촉을 보지 못하자 각중대로 하여금 현매복지역에서 탐승지역까지 철수하면서 탐색을 벌이도록 아래와 같이 命令하였다.

- 『1. 제5중대는 07.00부터 My Thuan과 Tom Thien 일대를 탐색하다가 12.00에 탐승지역(착륙지역 “7”)으로 집결하라.
2. 제6중대는 07.00부터 09.00까지 Thuan Nhut(3)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탐승지역(착륙지역 “6”)으로 집결하라. 최초 “헬리콥터” 출발시간은 09.30이다.
3. 제7중대는 07.00부터 11.30까지 現매복지역에서 Kien An 北쪽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탐승지역(착륙지역 “7”)으로 집결하라.
4. 탐승지역 “7”에서. 탐승순위는 제7, 제5중대 순이다.』

이와 같은 대대장 명령에 따라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Thuan Nhut(3) 일대의 탐색을 09.00에 마무리짓고 탐승지역에 집결하여 09.30에 공수로 원대에 복귀하고, 제7중대(장, 李

鍾九 대위)는 An Hoi(3)에서 Thuan Ninh을 거쳐 Kien An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12.00에 담승지역("7")에 집결하여 원대로 돌아갔다. 한편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07.00에 My Thuan에서부터 精探을 벌여 12.00에 Tom Thien 일대의 탐색을 끝마친 연후에 탐승지역("7")에 도착하여 최종 비행제대로 원대에 복귀함으로써 본 전투의 終幕을 내리게 되었다.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살	俘 虜		幽 獲				동굴 (막사) 파괴	전사	전상
		포로	용의자	개인 회기	수류탄	소총 십탄	의약품			
제 2 대 대	23	7	29	4	5	140	300	25	1	1
연대 수색 중대			10					10		
합 계	23	7	39	4	5	140	300	35	1	1

라. 戰鬪 後의 概況

연대는 본 전투에서 제19번도로를 끼고 東쪽으로 흐르는 Song Con(江) 北쪽 240km<sup>2</sup>에 達하는 평야 지대를 유린하면서 跳梁하던 敵의 一團에 一打撃을 주었다. 더구나 「前進3號 전투」는 Con江 北쪽으로 12km까지 깊숙히 전개하여 Viet Xan山을 비롯한 山岳지대와 樹林 일대에 거점을 두고 遊動하던 VC 23명을 사살하고 俘虜 7명과 용의자 39명을 색출하는 한편 그들의 야전의료시설을 격파하고 2½ ton 2대분의 의약품을 노획하는 동시에 군의관과 간호원들도 모두 捕虜로 잡았다.

이로써 연대는 오랜 기간동안 VC의 지배하에서 그들의 세력을 扶植하던 조직을 瓦解시킴으로써 시급한 과제이던 Binh Khe郡의 安定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新正을 앞 두고 Con江 沿岸 일대의 전략 존을 침탈하여 식량을 奪取하고 住民들을 납치하려던 所謂 그들의 「신정공세」도 三次에 걸친 본전투로 말미암아 그 조직과 근거지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한번도 시도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되었다.

연대는 新年들어 「번개 66-1號 작전」(1월 29일)을 펴서 VC 17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34명을 체포한데 이어 「번개 66-3號 작전」(3월 26일~28일)을 전개하여 VC 106명을 사살하고 33명을 俘虜로 하였으며 용의자 432명을 색출하여 該지역의 VC을 撲滅하였다. 그리고 Con江 北쪽지역에서 주민 2,000명을 보호지역으로 移住시키 이들에게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生計유지 대책을 마련하여 대민지원 사업도 아울러 併行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더욱 敦篤히 한 까닭에 차후 전투에서 주민들이 자진하여 협조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살	유기 시체	俘 虜		幽 獲				동굴 (막사) 파괴	전사	전상
			포로	용의자	칼빈	수류탄	소총 실탄	의약품			
제 2 대대	25	5	9	102	4	6	140	300	85	3	9
제 1 대대	1		1	40					15		
연대수색중대				10					10		
합 계	26	5	10	162	4	6	140	300	110	3	9

§ 戰 訓

掩護組의 편성

「前進1號 전투」에서 제5중대는 부락 탐색을 끝 마치고 다음 목표로 轉進할 때마다 후속하던 지원소대가 VC의 사격을 받았으며 전투를 종료하고 복귀할 때에도 최종 철수 소대가 저격을 받아

사병 1명이 戰死하였다.

철수 또는 부락을 통과할 때는 공격이나 진전 탐색할 때처럼 掩護組를 편성하여 상호 엄호하에 이동하여야 할 것이다.

落伍彈에 對하여

雨期 또는 습지대에서는 박격포탄 관리를 잘하여 작약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여 낙오탄 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낙오탄 발생시에도 我軍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의 전진과 砲目線이 일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前進1호 전투」에서는 낙오탄에 의하여 제5중대에서 3명, 또 제7중대에서 5명이 부상을 하였으니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企圖秘匿과 迅速한 包圍

「前進3호 전투」에서 성공한 것은 敵과 접촉한 때까지 지원사격을 一切 하지 않고 기도를 비닉한 까닭에 奇襲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5중대는 진격간 공용화기와 소총의 사격을 모두 실시하지 않았으며 좌측지역에서 알맞는 偽裝을 철저히 하였다.

그리고 “B”高地를 점령한 제3소대는 “C”基地로 急進하여 退路를 차단하고 신속히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제7중대도 左一線에서 이보다 멀리 進擊하면서도 완벽한 기도비닉으로 탐색을 벌이다가 제5중대가 敵과 遭遇하여 총격전을 전개하자 중대장의 기민한 판단으로 1개



소대를 제5중대 목표 北쪽의 예상되는 退路를 신속히 차단하였다. 이 戰例는 VC이 우세한 병력과 조우하면 지체없이 退散하기 때문에 그들의

退路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신속히 형성하여야 撲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기갑연대 제2대대장 金 容 振 中령

(1978년 2월 18일 제2군 군수처장실에서 : 당시 준장)

65년 10월 末에 越南에 도착하여 전술책임지역을 인수받아 중대전술기지 개념에 의거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잠복 및 국부적인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越南실정이나 敵에 대한 狀況은 本國에서 1개월간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뿐이었다. 더구나 한국군은 독자적인 정보수집체통이 확립되지 못한 단계이어서 越南지방군 및 민병대와 관계관서의 提報에 依存하는 실정이었으므로 그 정확성이 희박한데다 때와 장소에 대한 錯誤가 많았다. 이러한 情況속에서 치문「Phu Lac 전투」(11.3)가 그 실패한 전투로서의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本 전투는 派越 2개월에 접어들 무렵에 치문 것이어서 맹호부대로서는 守勢에서 攻勢로 轉換한 다음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반복되는 배복전과 소규모의 전투를 통해 越南 현지 여건에 대한 適應力을 배양하고 自身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 樣相에 있어 좀더 적극성을 띠지 못한 것은 「100명의 VC을 놓치는 限이 있어도 단 1명의 良民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한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各級지휘관들이 주민보호에 신경을 쓰다 보니 VC의 준동지역(주로 부락 일대)을 席捲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들의 戰法과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작은 전투라 할지라도 그 수행에 앞서 치밀한 계획과 물샴없는 준비를 갖추었으며 병사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前進 3호 전투」는 이러한 노력의 結晶으로 기도비덕에 있어서나 退路차단과 포위망 형성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완벽하였다. 이 기회에 特記하고 싶은 것은 지휘관의 強靱한 意志는 곧 그 부대 전체의 關志로서 전투력을 가름할 수 있다는 點이다.

派越 이후 기갑연대의 대소 작전은 거의 제2대대가 수행하였고 그중에서도 제5중대가 兇鋒隊로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거기에는 중대장 李權讓 대위가 강인한 의지로써 전투에 임하여 부더된 전투지대내의 敵을 철두철미하게 殲滅하겠다는 결의와 關連으로 부대를 지휘함으로써 그 部下 사병들도 그의 뜻을 받들어 지하에 숨은 VC까지 색출하여 剔抉한데 있었다.

### 제1기갑연대 제5중대장 李 權 讓 대위

(1977년 12월 13일 제5공수여단에서 : 당시 대령)

本 전투지대 「前進 1호 작전」은 VC의 지배하에 屬한 Con江 北쪽의 曠濶한 평야로서 여기에는 수

많은 細流들이 영겨져 그들의 遊動이 頻繁한 곳이다. 이곳 주민들은 보호지역으로 移住하고 일

부 농민들이 殘留하여 VC과 대통함으로써 전투에 큰 지장을 주었다. 기간중 계속내린 暴雨로 논밭에는 무릎까지 물이 고여 行動이 어려웠으며 곳곳에는 키를 넘는 사탕수수가 視野를 가려 方向유지와 지휘에도 곤란을 주었다. 이 전투는 2일 간의 짧은 기간에 광범한 지역에서 VC을 剿討한 것인데 첫 출발서부터 폭우로 “헬리콥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예상한 전과를 못 거두었지만 유기작전을 통한 경험이 더 소중하였다.

제1段과 제2段에 걸쳐 폭우가 그칠 줄 모르고 쏟아져 水田지대에서도 10m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隱遁이 예상되는 지역마다 지원포격을 집중한 연후에 탐색을 벌이곤 하여 거의 接觸이 없었지만 부락탐색을 끝마치고 다음 목표로 轉進할 무렵이면 VC들이 교묘하게 숨었다가

후미소대에 저격을 加하여 결국 사병 1명이 腹部 관통상을 입고 후송도중에 殞命하였다. 물론 측방과 후미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10m 앞을 분간 못하는 狀況속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이 전투에서 特記하고 싶은 것은 VC과 주민과의 分離인데 아무리 敵性지역이라 하여도 주민 모두를 VC으로 看做할 수는 없었으며 더구나 良民한 사람이라도 害치지 말라는 상부 방침에 順應하여 용의자로 취급하고 암송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越南기관에서 풀려나와 다음 「前進 3호 전투」 때에 VC으로 俘虜된 例가 있었으니 그 當時의 주민과의 關係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 제1기갑연대 제7중대장 李 鍾 九 대위

(1978년 3월 7일 제26사단 제76연대에서, 당시 대령)

「前進 3호 전투」는 제7중대가 先鋒隊로 공격하고 제5중대가 右側方에서 후속하면서 목표를 탐색하다가 우리중대 공격이 挫折되면 초월 공격키로 되어 있었다. 이 전투는 지원사격도 없이 철저한 기도비닉으로 敵을 포착 撲滅키로 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수로 기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중대가 1시간 먼저 착륙지역에 降着하여 그 지역에 알맞은 위장을 갖추고 목표로 進擊중 제5중대 목표 측방까지 진출하였을 즈음 右側에서 요란한 총성이 들려와 제5중대가 VC과 조우하여 사격전을 전개한다는 것을 直感하였으며 그 총성으로 짐작컨대 적지않은 병력(1개중대규모)으로 推斷되었다. 나는 제1소대로 하여금 그 退路를 차단할 결심을 하고 제5중대 목표 北쪽 An Hoi(1)에 急進시켜 An Hoi(3)으로 遁하는 길목을 차단토

록 한 다음 중대(-)를 이끌고 목표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전투상보에는 제5중대의 전과만 상세히 기록되고 우리중대의 전과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나는 그 당시의 일기장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 그 때 전과 내용이 자세히 記載되어 있다. 이 전투에서 제1소대가 차단지역에서 동굴을 탐색하여 용의자 30여명을 체포하고 그 속에서 의약품, 배낭, 우의, 정비기구등 많은 노획품을 얻었는데 그 量에 있어 제5중대의 노획품과 비슷할 것으로 믿는다. 동굴속에는 木寢台까지 갖추어져 그들 야전의료 시설로서는 규모가 큰 것이었다. 나중 심문에서 제9외과병원이라고 하였으나 확실한 것은 밝히지 못하였다.

※ (일기장을 筆者가 확인하고 戰果를 本文에 밝혔다.)

## 5. 飛虎 1號 戰鬥 (1965년 12월 19일)

참조: 별책부도 제11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제 7 중대	장 대위 姜 君 吉
제 1 연대	장 대령 金 珽 雲	제 8 중대	장 대위 鄭 鳳 律
(2) 參加部隊		포병 제 60 대대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제 2 포대	장 대위 金 相 賢
제 5 중대	장 대위 朴 東 遠	포병 제 628 대대	
제 6 중대	장 대위 丁 萬 吉	제 3 포대	장 대위 金 鍾 鎬
	敵		軍
	VC D—제 30 중대		VC D—제 38 중대
	VC D—제 37 중대		

### 나. 戰鬥 前의 概況

이 戰鬥은 비록 대대급규모의 전투이기는 하지만當初에는 越南軍과 연합으로 연대규모의 작전을 展開키로 계획되었었다. 그러나 작전을 3일 앞두고 계속내린 暴雨로 말미암아 僚軍은 이에 불참하게 되었으며 참가 예정이던 제1대대 역시 전투지역에 이르는 道路가 모두 浸水되어 機動이 어렵게 되자 제2대대 단독으로 本戰鬥을 決行케 되었는데 그 계획과정이 연대에서 推進되었으므로 그간의 進行 및 연대작전명령의 晝침을 포함한 그밖의 상황을 먼저 取扱키로 한다.

연대는 제1단계 작전기간중 익숙치 못한 환경조건을 克服하면서 기지를 竊波하고 아울러 敵情의 숙달과 작개병사에 對한 實戰능력 및 지휘관의 전투 지휘능력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敵과 접촉할 기회가 있기를 待望하였다. 이와같은 계획의 一環으로 Luc Le를 비롯한 Binh Lam—Qui Nhon半島—Luat Chanh—Than Giang등에 각각 兵力을 投入하여 探索하였는데 이는 實戰이 곧 訓練이라는 目標아래 決行되었고 攻勢단계로 轉換하기 위한 整地작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作戰期를 맞이한 연대의 當面과업은 廣大한 지역내의 要所마다 거점을 구축하고 潛動하는 敵을 擊滅하여 전술책임지역을 鞏固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概念 밑에 未收復지역에 대한 戡定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선제공격이 필요하였고 더우기 敵情이 流動的인 狀況이므로 適時適所에 各兵力을 投入할 수 있도록 예비대를 확보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제2대대의 전술책임지역을 제3대대에 인계토록 하고 同대대를 機動타격대로 삼는 동시에 작전지역을 Song Tan An(江)—Song Cay My(江)—Song Am Phu(江)을 連한 北쪽으로 擴大하여 점차로 이 지역을 安定시키고자 上陸後 최초의 연대작전을 構想하였다. 즉 「飛虎 1號 作戰」이라고 일컫는 이 계획은 연대(-)규모로서 越南軍과 연합작전을 전개키로 계획되었으나 당시의 기상이 每日 비가 내렸으며(越南 中北部의 氣候는 9월부터 12월말까지 雨期임) 특히 D-3일(16일)부터 D일(19일) 黎明까지 계속된 暴雨로 인하여 지역내의 河川이 모두 범람함으로써 An Nhon평야는 平均水位가 1m의 물바다로 變하였고 곳곳에 樹木의 梢頭와 가옥들만이 보일뿐이었다.

이와같은 惡天候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의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하는 수 없이 제2대대 單獨으로 이 전투를 敢行케 되었는데 이는 사단이 派越한 뒤 최초로 전개하는 대대급 규모의 전투이다. 그런데 Song Tan An(江)—Song Cay My(江)—Song Am Phu(江)을 連한 北쪽은 越南敵이 勃發한 뒤 當事國의 政府軍이나 기타 외국군이 한번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한 VC의 牙城으로서 그들은 이 지역을 20餘年間이나 지배 하였으며 相當한 저항조직이 形成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派越된지 1個月餘 밖에 안되는 짧은 時點에서 未踏地를 席卷하려 하였으니 당시 越南軍 및 美軍側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우려할 정도였다.

當面한 敵은 Binh Dinh省 VC위원회 예하부대로서 자칭 精銳를 자랑하는 VC, D-1제30, 제37, 제38의 도합 3개 중대이며 이들은 Qui Nhon灣 北西쪽 늪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跳梁하면서 An Nhon平野의 南쪽 일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은 我軍이 Tan An—Am Phu江의 南쪽일대에서 戡定지역을 擴大하자 該지역에도 장차 戰火가 미칠것을 豫測함인저 지역내의 지하조직당을 총동원하여 原주민들에게 我軍의 작전에 협력하는 者는 가차없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면서 마을마다 방어진지를 비롯한 각종 장애물을 強制로 구축케 하는등 惡辣한 手法을 서슴치 않았다. 특히 제1대대 지역에서 VC의 一味徒黨이 劣勢를 免치 못하자 인군 일매에 鼓譟한 武裝兵隊들이 이들을 支援하려는듯 제1번도로의 遮斷을 노리면서 該지역에 침투하여 我軍기지를 기습코자 構想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이에 연대는 先制로서 그 一黨을 芟除키 위하여 연대작전을 계획하였다.

전투지역은 Binh Dinh省의 An Nhon郡과 Tuy Phuoc郡 경계이며 제1번道路에서 부터 東쪽으로 깊숙히 들어간 평야인데 地帶는 대부분이 논과 수령의 濕地 및 無數한 大小의 河川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으며 數日동안 계속된 暴雨로 인하여 河川과 도로는 모두 물에 잠겨 있으므로 도십부대의 기동에 적지않은 障礙가 될 것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지역내에는 13개의 聚落과 1,274戶의 가옥이 散在되어 있으며 마을 주위에는 地上 및 樹木上에 각종 “부비트랩”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집집마다 내부에는 지하동굴과 고통호가 구축되어 있어 探索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I) 作戰 計劃

사단이 派越한 뒤 최초로 計劃한 연대작전인 만큼 연대는 물론 상급부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全力을 集中하였다. 이리하여 12월 2일 연대 기밀실에서는 연대장 金斑雲 대령을 비롯한 각 대대장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계획을 완성하였는데 그 요지는 2개 대대 규모로서 戰鬪를 執行하되 An Nhon 및 Tuy Phuoc 郡界를 사이에 두고 南쪽에 제1대대를 北쪽에 제2대대를 各各 展開하여 竝進케 하며 越南軍은 北쪽에서 遮斷을 말도록 하였다. 그리고 Nho Lam과 Van Quong을 連한 線을 進出限界線으로 설정하였다.

그 까닭은 該線에서 부터 東쪽으로는 海岸線에 가까운 늪 지대이므로 하루동안의 전투로서는 그 이상 진출할 수 없고 또 攻擊축선이 7km 연장되므로 側方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작전의 主眼을 마을에 대한 探索에 두고 있으므로 同地域에 潛伏한 VC 및 그들의 동조자를 索出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判斷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동계획과 방침이 확정되자 12월 14일 최종적인 작전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는 사단장을 비롯한 부사단장과 사단 정보 및 작전참모 그리고 연대장과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機動 및 火力계획을 검토하고 아울러 降雨時에 대비한 지원대책등이 論議되었다.

이날 회의석상에서 사단장 蔡命新 소장은 訓示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단은 第1期 작전기간 중 初期에는 계획과 實踐間에 상당한 蹉跎를 초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巴亞흐로 正規軍과 非正規戰의 차이에서 오는 難點이 어디에 있는가를 明確히 규정하여 앞으로의 작전에 對處코자 한다.

그간 우리는 정보활동면에서 최대한 努力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敵에 비하여 守勢에 놓인 까닭은 我軍이 획득한 諜報가 대부분의 경우 시기적으로 늦거나 腰膝한데에 比하여 敵은 이와같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同一지역에서의 장기 활동을 회피하고 間斷없이 移動하고 陣地를 변경함으로써 我軍의 探索圈內에서 巧妙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敵의 主力포착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즉 기간중 중대 또는 그 이상급 단위부대가 出動하여 接觸하였던 敵의 규모는 小隊級 以下로서 我軍이 정찰이나 埋伏활동 중 부딪친 敵규모 보다는 적었던 사실이 이를 端的으로 證明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하고 시기에 적합한 정보에 의거하여 그들을 기습적으로 擊破치 않는 限 대규모의 敵과 접촉할 機會를 捕捉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我軍 혹은 인접부대(越南軍)를 기습하려는 敵이나 不

意에 부딪친 무리들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서 결정적인 好機에 迅速하게 兵力을 投入하여 이를 포위 격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제1연대가 VC의 20年 牙城이라고 일컫는 An Nhon 平野에서 橫行하는 대규모의 敵을 擊滅코자 이 작전을 계획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本人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라고 力說하였다.

회의가 끝난 다음 사단장은 제2대대를 돌아보고 戰鬪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이날 오후 제1, 제2 兩대대장을 대동하고 작전지역을 空中정찰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1. An Nhon 平野에 點在한 마을에서 潛動하는 VC은 D-제30, 제37, 제38,의 도합 3개중대로서 이들은 Binb Dinh省 VC위원회 지령하에 지역내의 抵抗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2. 美전술공군이 요청에 따라 작전을 支援할 것이다.
3. 越南軍 2개중대규모가 참가하여 작전지역 北쪽 일대에 展開하고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차단한다.
4. 포병제60 및 同제628대대의 각 1개포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한다.
5. 연대는 現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9일 06.00를 期하여 An Nhon 平野의 南部地帶에서 潛動하는 敵을 捕捉격멸하려 한다.
6. 작전은 2개대대가 제1번道路에서 부터 東쪽으로 竝進하며 Nho Cam과 Van Quang을 連한 線까지 攻擊하면서 進出한다.
7. 제1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서 An Nhon 및 Tuy Phuoc 郡界에 있는 Phu Then—Dinh Thien—Tan Vien—Van Quang을 차례로 探索한 다음 反轉하여 Song Tan An(江) 北岸의 “정글”을 踏破하라.
8. 제2대대는 攻擊개시선에서 부터 東進하여 Pho An—Bieu Chanb—An Cuu—Tan Hoi를 거쳐 Nho Lam으로 進擊하라.
9. 探索間 사색을 통제하고 지역내의 주민을 이용하여 VC용의자를 索出하라.
10. 연대 전술지휘소는 Liem Truc (1)에 개설한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하달한 연대장은 이에 추가하여 이르기를 『各隊는 攻擊의 기도 비닉을 위하여 중간지점에서 下車한 다음 徒歩로 攻擊대기점 까지 移動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각급지휘관은 自隊의 기동 및 화력계획을 다듬고 아울러 兵員과 장비를 정비하면서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 (2) 戰鬪 實施

D-31일(12월 16일) 부터 계속내린 暴雨는 마침내 An Nhon평야 일대를 물바다로 一變케

하였으며 마을과 丘陵을 제외한 河川과 도로는 모두 불에 잠겼으므로 地面을 區別하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이에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작전을 연기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사단장 蔡命新소장은 이르기를 『VC의 戰術을 逆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VC은 劣勢한 조직역량을 가지고 강대한 敵과 싸우기 위하여 상대방의 弱點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편 敵의 強點에 對하여서는 끈덕진 노력으로서 상대의 戰力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우열과 強弱을 逆轉케 한다는것이 所謂 “계릴러”의 持久戰法인 바 상대방의 弱點을 強打하는 방식에 能한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하고 있다. 즉 VC은 야간이나 기상 악조건 등 苦難을 克服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強點으로 삼고있는데 이를 逆利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雨中을 무릅쓰고 작전한다는 인식을 VC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韓國軍은 如何한 條件下에서도 이를 克服하여 싸우는 強靱한 軍隊임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계획대로 작전을 強行키로 하였다.

그러나 Go Eoi에 있는 제1대대의 移動路가 전부 浸水되어 기동이 어렵게 되자 연대장 金璣璣 대령은 同대대를 작전에서 제외하고 제2대대로 하여금 單獨으로 전투를 斷行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이미 下達된 연대작전명령을 기초로 하여 오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1. 敵情 및 我軍의 狀況 : 연대 作命 제1, 2, 3項 참조.
2. 대대는 現行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19일 06.30 부터 18.00까지 An Nhon정야 南쪽에서 跳梁하는 敵을 索出하는대로 이를 覆滅하려 한다.
3. 제5중대는 Nhon Hong으로 移動하여 黎明과 동시에 攻撃하되 대대 左一線으로서 Pho An—Bieu Chanh—An Cuu—Tan Hoi—Nho Lam을 각각 踏破하라.
4. 제6중대(기관총 및 81mm박격포 1개반 배속)는 現基地에서 부터 徒步로 An Nhon으로 移動한 다음 대대의 右一線으로서 제5중대와 竝進하되 Phu Then—Dinh Thien—Tan Vien—Van Quong을 차례로 探索하라.
5. 제7중대는 대대 예비대로서 19일 06.30까지 An Nhon으로 移動하여 依命 전투에 投入될 준비를 갖추라.
6. 제8중대(-)는 18일 제6중대 기지에 이동하여 攻撃부대를 支援할 태세를 갖추면서 대기하라.
7. 협조지시
  - 가. 雨天時에 대비할 주의사항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라.
  - 나. 河川을 渡河할 때는 장비와 공용화기 및 무전기 등은 고무“보트”와 고무 “메트레스”를 이용토록 하라.
8. 대대 전술지휘소는 Liem Troc(1) 西쪽 제1번道路上에 개설한다.』

이상과 같은 명령을 하달한 대대장은 이에 추가하여 浸水지역에서의 注意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첫째 : 堅固한 野地에서 보다 느린 속도로 前進하게 되므로 속도조절을 적절히 하여 무리하게 前進을 강요치 말라.

둘째 : 공용화기의 운용과 장비운반요령 그리고 溺死에 대비한 救急法 및 낙오자 처리등에 면밀한 사전 준비를 쫓는다.

셋째 : 포탄은 포장을 뜯지 않은채로 휴대하라.

네째 : 통신장비에 대한 防水장치에 철저를 기하며 不通되었을때를 고려하여 예비통신수단을 강구하라.

다섯째 : 原住民을 안내자로 이용함으로써 敵의 “부비트랩”지대를 迂回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特別 河川의 徒涉지점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 尖兵은 수영에 능숙한 兵士를 임명하고 主力이 渡河時는 對岸에 경계병을 배치하라.

일곱째 : 지면이 浸水된 까닭으로 은색 차계를 소홀히 할 염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라.

여덟째 : 水中에서의 機動은 육체적으로 피로를 가져오기 쉽고 이로 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니 兵力 및 時間을 절약하고 機動공간을 단축하여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차단한 연후에 과감하게 攻撃하라.』고 강조한 다음 雨天時에 대비한 전투준비 상태를 점검하면서 출동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12월 18일(D-1) : 이날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8중대를 제6중대 가지로 이동시켜 攻撃 부대를 支援할 태세를 갖추게 하고 차후명령을 대기토록 하였다.

12월 19일(D일) : 이날 黎明 부터 기승을 부리던 날씨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기온은 최고 22°C, 최저 15°C이며 바람은 9~12 knots로 불어 “헬리콥터”의 空中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대는 계획한 대로 04.00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제6중대(徒歩기동)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는 2½ ton차량편으로 機動하여 제5중대가 06.00에 Pho An西쪽 500m지점에 있는 제1번道路邊의 개활지에 集結한데 이어 제6중대는 06.10에 An Nhon 南쪽에, 그리고 제7중대는 대대의 예비대로서 Drong Tien으로 각각 기동하여 攻撃 개시시간을 대기하였다.

(가) 제5중대(장, 林東遠 대위)는 이날 04.00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2½ ton차량 10대에 分乘한 수송대열이 곧바로 뚫린 제1번道路를 北上하여 04.50에 제1 및 제19번 道路의 分岐點에서 下車한 다음 徒歩로 계획된 攻撃 대기지점을 점령하였다. 이윽고 05.30에 攻撃 개시명령이 하달되었다. 右인접한 제6중대와 같이 일제히 攻撃개시선을 躍出하여 각각 계획된 攻撃축선을 따라 前進하였다.

비가 많이 내린 탓으로 논과 밭 그리고 낮은 지면은 대부분이 浸水되어 河川과 道路를 區分하지 못할 지대가 많았다.



이에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水泳에 능숙한 兵士들을 選拔하여 尖兵으로 삼고 이들의 유도를 받으면서 安全지대로 표시된 뒤를 따라 一進 一步로 제1목표인 Pho An에 接近하였다. 마을은 地面보다 2~3m 높은데 자리잡고 있었다.

중대장은 한동안 地形을 연구한 끝에 제1, 제2 兩소대를 左右 兩쪽으로 迂回케 하였다.

가급적 양호한 도로를 피하여 接近토록 하였다. 그 까닭은 접근하기 쉬운곳에 함정이나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Pho An을 兩쪽에서 포위하고 화기소대로서 敵의 예상退路를 遮斷한 가운데 제3소대를 投入하여 探索한 끝에 VC용의자 3명을 검거하고 다음 目標인 Bieu Chanh으로 進擊하였다. 1km거리에 있는 該지역까지의 空間은 田畝地인데 물에 모두 잠겨 있으며 水位가 가슴까지 차므로 여기를 통과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唯一한 進路는 Pho An으로 부터 Bieu Chanh으로 이르는 南쪽 迂回路를 利用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先頭소대로 하여금 進路를 바꾸게 하였으며 小路에 沿하며 點在된 집들을 方向유지물 위한 指標로 삼고 進出케 하였다.

그런데 目標까지의 中間에 이르러 難關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Bieu Chanh과 Quong Nghiep(2)의 중간을 南流하는 無名 河川이 범람하여 徒步부대의 前進를 가로막은 까닭이다. 준비된 고무“보트”와 “메트레스”가 不足되기 때문에 여러차례에 걸쳐 區分 渡河 하였으며 여기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이와같은 보고를 接한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예하부대들이 水中에서 疲動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脆弱性에 대비하여 空中엄호 조치가 緊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연대장에게 0-1 輕항공기 및 무장“헬리콥터”의 支援을 요청하여 空中에서 地上부대의 進출을 誘導하는 동시에 이를 掩護케 한 가운데 該중대는 Bieu Chanh으로 進擊하여 敵이 구축한 交通壕 및 방공호와 火器진지 12개소를 파괴하였으며 마을 안팎에 가설된 철조망과 “부비트랩”을 제거하고 An Cuu로 進擊하였다.

正午에 가까워지면서 부터 물은 점차 빠지는 듯 하였으나 卽地の 水位는 허리까지 차는 狀況下에서 尖兵이 늘어 뜨린 “로프”를 따라 마을 入口까지 進出하였다. 중대장은 우선 마을안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소수병력을 投入하는 한편 主力으로서 岡마을을 三面에서 포위하고 만약에 敵과 부딪칠 경우에는 敵의 방어력을 分散시키며 기습과 衝鋒을 加하기 위하여 수개의 方向으로 攻擊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로부터 30분뒤 마을안 廣場으로 突

進하던 제1소대 제2분대가 맞은편에 있는 2층 움막에 潛伏한 수미상의 敵으로 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彼我間에 치열한 攻防戰이 벌어졌다.

분대장은 즉시 AR자동소총조로 하여금 전면에서 사격으로 牽制케 하고 나머지 兵力을 西쪽으로 迂回케하여 포위하려 하자 이를 눈치챈듯 그들은 미리 마련한 것으로 추측되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東쪽에 있는 竹林속으로 退却하였다. 이와같은 보고를 받은 소대장은 즉시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該분대로 하여금 追擊케 하였다.

한편 중대장은 東側方에서 遮斷에 임하던 제2소대를 합세케 하여 探索한 결과 지하동굴에 潛伏한 VC 4명을 俘獲하고 여기에 은닉된 각종포탄 48발과 소총실탄 800발 및 수류탄 30발을 노획하였다. 중대는 잠시 여기에서 落伍者의 遺物을 확인한 다음 Tan Hoi로 進擊하였다. 途中에는 獨立가옥이 點在하고 소수의 집단 가옥들이 있었으나 일일이 이를 探索하기란 매우 어려웠고, 또 水中에서의 기동에 제한을 받는데다가 時間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같아 부득이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당초에 계획된 進路는 北쪽에 있는 河川線에 沿한 小路를 따라 直衝키로 되었으나 河川이 범람하여 기동이 불편하므로 부득이 南쪽으로 迂回하였다.

지면이 미끄럽고 허리까지 빠지는 수렁을 克服하면서 Tan Hoi南쪽 外廓으로 進迫하였으며 小路를 가운데 두고 東西 兩쪽에 各 제1소대를 그리고 제3소대를 外廓에서 대기케하고 화기소대로 하여금 攻擊부대를 壓호케 하였다.

이리하여 同마을을 포위한 연후에 위협사격을 集中하면서 壓축하였다.

제1소대가 마을 北쪽으로 迂回하여 敵의 예상 退路를 遮斷하자 제2소대가 西쪽에서 부터 內廓으로 進迫하였는데 이때 제2소대는 同마을의 3分の 1 이상을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Song Co Chanh(川) 突出部에 밀집된 마을로 進入中, 수개의 방향에서 간단없는 狙擊을 받고 進出이 停滯되었다. 推測컨대 敵은 探索隊가 포위망을 壓축하자 색출될것을 豫知하였음인지 필사적인 抵抗을 시도한 듯이 보였다. 一步를 옮기려는 순간마다 狙擊彈이 날아들고 停止하면 수십발의 敵彈이 集注되었다.

이와같은 景況을 지켜보던 중대장은 소대장 李 淸 중위를 호출하여 이르기를 『敵의 저항에 부딪쳐 停滯하면 그들의 좋은 目標가 될 것이며 손실이 증대된다. 特別 露出된 상태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손실은 더욱 激增한다. 오히려 과감한 突擊으로 敵을 唐愾케하라. 그럼으로써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突破하라』고 호령하였다.

이에 소대는 가용한 火力을 敵의 頭上에 퍼부으면서 突出하니 敵은 진지를 버리고 황급

히 退散하였는데 이를 놓칠새라 追擊 끝에 VC 4명을 俘獲하였다.

한편 同마을 北쪽으로 迂回하여 遮斷中인 제1소대는 右往左往하면서 포위망의 突破를 꾀하려는 殘黨을 陣前으로 유인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이와 동시에 中대본부에서는 제2소대에서 押送된 VC을 訊問한바 「Thanh Quang北쪽에 있는 Song Ngang(川)邊에 VC 1개소대 규모가 潛伏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첩보는 신빙성이 보였으므로 곧 1개분대의 兵力을 現지에 投入하여 精찰케 하는 한편 中대장은 殘餘병력을 거느리고 Luong Loc으로 進擊하였다. 同마을 北쪽 外곽에 접근한 다음 兵力을 南北으로 산개하여 西쪽에서 부터 東쪽으로 밀어 부쳤다. 최선두에 進出한 제2소대가 東쪽 外廓일대를 확보한 가운데 偵探을 거듭하였으나 人跡만 확인되었을뿐 아무런 徵候를 찾지 못하였는데 敵은 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이끌고 退却한듯 보였다.

이무렵 대대의 右一線인 제6중대가 Tan Dien을 踏破하고 Van Quang으로 北上中에 있었으므로 中대장은 선두부대인 제1소대로 하여금 約定된 信號로서 연락을 유지케하면서 최종 목표인 Nho Lam으로 進出中 Thanh Quang 北쪽 Song Ngang(川)邊에 투입한 精찰대로 부터 『同地域 東쪽 外곽에 VC 1개소대규모 및 이들과 野合한 동조분자 50명이 潛動하고 있다.』라는



江을 渡涉하며 戰鬪를 감행하는 제2대대원들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該지역은 이번전투에서 계획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중대장의 독단으로 進出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대장은 이 첩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所在의 敵을 追擊하겠다고 건의하였으나 이 腹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전투지역을 확대하여 進擊하는 경우 시간계획에 차질이 생길 뿐만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術策에 말려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중대장은 Nho Lam으로 進出하면서 60mm 및 81mm박격포를 推進시켜 Thanh Quang 東쪽 外廓에 있는 그들의 예상되는 據點에 대하여 砲擊을 集中케 하였다.

그러나 사격의 효과는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였다. 작약이 물에 젖어 近彈이 생기고 또 주위가 물에 잠겨 있음으로써 砲의 방열이 어려웠다. 간혹 들판에 點在된 묘지에서 산발된 砲擊을 加하면서 前進하였다. 선두소대인 제2소대가 Nho Lam 西쪽 三叉路에 진출하자 중대장은 곧 후속하는 개3소대를 東西南쪽으로 산개하여 該지역을 三面에서 포위하고 제2소대로 하여금 현 진출선에서 부터 北쪽으로 迂回하여 遮斷토록 하였다.

중대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모든 努力을 기울여 偵探할것을 각 소대장에게 지시하면서 特히 地下동굴을 찾도록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探索대원들은 의심되는 곳을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의 婦女子들이 방공호속에 隱身하고 있었으며 據속을 뒤지려하자 이들은 大聲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兵士들은 이들을 強制로 밖으로 끌어낸 다음 탐색한 결과 방공호밑에 2重으로 동굴을 구축하고 여기에 숨어있는 무리들을 索出하였다. 이와같은 첩보를 곧 傘대원들에게 周知시켜 偵探케한 결과 該지역에서 VC 용의자 92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VC의 강요에 따라 我軍의 공격 初動에 이곳에 移動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것이었다.

한편 대대 전술지휘소에서 부대를 指揮하던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5중대가 Nho Lam을 踏破하자 同중대를 該地域으로 부터 Luong Loc으로 南下케하여 遮斷에 임하는 동시에 Van Quang으로 移動하는 제6중대를 掩護토록 하였다.

16.00에 右인접 제6중대가 Van Quang을 탈취하자 중대는 該중대에서 殘置한 1개소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16.30에 Luong Loc을 떠났다.

復歸時에는 계획된대로 Dinh Thien (1)—Quang Nghiep—Phu Thien을 連한 개활지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중대장은 尖兵소대로 하여금 민가를 피하여 부대를 유도케 하였다. 그 까

닭은 民家에 潛伏하고 있을지 모르는 “게릴라”들로부터 狙擊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대대장은 支援로병으로 하여금 복귀부대를 掩護케 하는 동시에 각 중대장들을 呼出하여 『復歸 經路 및 進行상황을 수시로 보고할것 특히 복귀할때에 敵의 기습에 대비하라』고 指示하였다.

이에 중대는 前後衛를 보강하여 敵의 기습에 대비하면서 Luong Loc西쪽 개활지르 進出中 尖兵소대가 我軍의 동정을 偵探하고 독립가옥으로 遁入하는 VC 2명을 追擊끝에 사살하였다.

이와같은 보고를 接한 중대장은 我軍이 探索한 지대에 敵이 出現한 것을 중요시하고 필경 이는 撤收하는 我軍을 기습하려는 敵의 “게릴라” 術策일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즉시 전투대형을 갖추고 An Cuu와 Van Quang 중간에 가로 놓인 無名의 小河川에 進出하여 尖兵소대로 하여금 徒涉지점을 개척케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地形정찰중인 同소대는 對岸에 潛伏한 1개소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으로 부터 기습사격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태에 直面하자 중대장은 곧 후속한 제3소대를 急進케한 끝에 이를 突破하니 敵은 四散 潰退하였다. 이데에 소대장 鄭政能 소위는 중대장에게 追擊할것을 간청하였으나 日沒直前인 까닭으로 이를 말리고 강행군을 계속하여 17.00에 An Ngai (2)에 集結함으로써 이날의 전투를 종결하였다.

(나) 대대의 右一線인 제6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05.00에 현기지 (△92)로부터 徒步로 An Nhon 南쪽 외곽에 있는 攻撃대기 지점을 점령하였으며 05.30부터 대대의 左一線인 제5중대와 병진하여 제1目標인 Phu Thien으로 進擊하였다. An Nhon 및 Tuy Phuoc郡界에 있는 該마을은 2개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境界를 사이에 두고 南쪽과 北쪽에 각각 密集되어 있으며 마을 주위는 울창한 喬木과 竹林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안의 동정을 살펴보기 어려웠다.

중대장은 각소대장들을 불러놓고 잠시 地形을 분석한 끝에 兵力을 兩分하여 운용하되 探索隊와 엄호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두개의 마을을 동시에 攻擊키로 하였다. 즉 이렇게 하는것이 兵力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제1, 제2 兩소대를 北쪽에 있는 마을로 轉進케 하였으며 제3 및 화기소대를 南쪽에 있는 聚落에 각각 投入하여 偵探케한 결과 兩地域에서 地上 및 樹木上에 설치된 “부비트랩” 18개와 함정 6개소를 파괴하고 地下동굴에 숨겨진 각종포탄 78발과 소총실탄 250발을 노획하였다.



늘地帶를 건너 前進하는 제6중대 대원들

이어 다음 行動으로 옮겨 Phu Thien 東쪽 외곽을 벗어나자 An Nhon과 Go Boi를 잇는 제501도로(등의道路)가 郡界를 따라 北東쪽으로 뻗어 있으며 目標들은 이 도로변에 點在되어 있으므로 식별 및 접근하기 쉬웠다. 그러나 이 지대 역시 대부분이 들에 잠겨 있어 機動하는데 적지않은 애로를 극복하면서 Dinh Thien (2)로 進出하였다. 지대내에는 15~20戶로 分布된 마을이 南東쪽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일 포위망을 形成하여 探索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兵力의 一部를 南쪽으로 이동시켜 敵의 예상 退路를 遮斷한 연후에 北쪽에서 부터 차례로 探索하면서 南進中 현지주민의 도움으로 接近路에 매설된 地雷와 함정을 제거하였으며 그들의 提報로 同地域에 VC이 潛伏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에 중대장은 제2, 제3 兩소대를 投入하여 精探케한바 지하동굴에 潛伏한 수미상의 VC을 探知하고 투항하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에 應하려는 기색은 커녕 발악적인 저항을 하므로 부득이 동굴속에 연막 수류탄을 連投하였다. 그로부터 한참뒤 손들고 나온 수효가 8명에 이르렀으며 그속에 숨겨진 소총실탄 700발 및 수류탄으로 개조된 “부비트랩” 50발을 노획하였다. 이어 중대는 Tan Dien을 探索하고 최종目標인 Van Quang으로 進擊하였는데 이때 선두로 進出한 제1소대가

Phuoc Quang Tu로 進出하는 즉시 중대장은 곧 該소대로 하여금 北쪽으로 우회케하여 Van Quang과 Nho Lam중간을 遮斷케하고 나머지 兵力으로 Van Quang을 東西南쪽 三面에서 포위한 다음 偵探하여 VC용의가 5명을 검거하였으며 地下동굴에서 소총실탄 700발 및 수류탄 30발을 노획하였다. 이 무렵 左인접 제5중대는 중대의 進出을 掩護하다가 마침내 중대가 Van Quang을 奪取하자 該중대는 Luong Loc으로 南下하여 探索을 마무리짓고 곧 復歸하였다.

이에 중대는 Van Quang 北쪽에서 遮斷에 임하던 제1소대로 하여금 該중대가 Luong Loc을 빠져나갈때 까지 掩護케 하다가 17.00에 진투를 종결짓고 최초 집결지로 돌아갔다.

(다) 제7중대(장, 姜君吉 대위)는 대대의 예비대로서 05.00부터 06.10까지 2½ ton차량 8대에 分乘하여 Dai Loc (1)로 移動한 다음 대기하고 있었다. 06.30부터 攻擊을 개시한 제5, 제6 兩중대는 각각 계획된 目標를 向하여 進擊하고 있었는데 이때 Pho An을 突破하고 Bien Chanh으로 進出하던 제5중대가 Quang Nghiep 부근에서 단대호 미상의 兵力이 제1번 道路방향으로 移動하는 것을 探知하고 곧 이를 대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즉시 集結대기중인 제7중대로서 該지역을 偵察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An Ngai (1)로 移動하여 지형을 분석끝에 제3소대를 선두로 接敵이동을 시작하였다. 目標의 西쪽 500m 지점에 이르렀을때 尖兵소대장 金相吉 소위는 尖兵으로부터 「수미상의 怪談이 同마을 西쪽 外廓으로 진격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는 즉시로 이를 追擊하였다. 이때 소대장은 일부의 兵力을 東쪽으로 迂回시켜 그들의 正體를 확인토록 지시하였는데 命命에 차질이 생겨 同병력은 그들을 앞질러 停止할것을 號令하였다.

이순간 그들은 무차별로 亂射를 가함으로써 彼我間에 銃擊戰이 벌어졌다.

銃聲에 긴장된 소대장은 앞으로 進出하여 그들의 복장과 휴대한 장비등을 유심히 바라보니 VC이 아닌듯 하였다. 이에 즉시 사격을 中止시키고 「右軍아니냐?」라고 소리쳤다.

한참뒤 상대쪽에서도 이를 알았음인지 사격을 中止하고 서로의 正體를 확인한 다음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결과 我軍은 2명이 負傷한 반면에 僚軍 2명과 민간인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은 An Nhon郡 소속의 지방군으로 그 전날만 Quang Nghiep (2) 부근에서 浬仗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사전에 그들의 소속 부대인 An Nhon郡과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서로간에 전달이 잘못된듯 이와같은 차질을 빚은것 같았다.

한편 중대장은 이러한 突發사태를 대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사후처리를 협의한뒤 계획대로 同地域을 探索하고 14.00에 최초집결지로 돌아갔다.

(라)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5중대가 복귀하다가 “개릴러” 一黨과 부딪친것을 重視하고 支援포병으로 하여금 撤收부대를 掩護케한 가운데 제5, 제6 兩중대를 An Nhon (1) 외곽에 집결시킴으로써 전투를 終結짓고 各各 차량 및 도보로 기지에 복귀토록 하였다.

라. 戰鬪 後의 概況

대대는 이번 전투에서 敵의 주력을 捕捉하여 擊碎하지는 못하였으나 VC의 20年 牙坡이라고 일컫는 未踏地를 踏破함으로써 소위 精銳로 自負하던 VC 제30, 제38, 제39 3개중대의 氣高萬丈하던 못대가 여지없이 꺾어지고 그들의 跋扈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敵性주민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대열에서 부터 점차 이탈하는 기미가 보였으며 我軍작전에 협력하려는 기운이 高潮되었다. 이에 대대는 현지 주민에 대한 반공계몽과 아울러 대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내의 戡定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敵은 분산된 병력 및 동조세력을 糾合하여 挑發할 兆朕이 보이므로 偵察 및 埋伏을 강화하는 한편 소부대활동으로 그들의 침투를 牽制하다가 同월 27일에 연대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飛虎2號 戰鬪」를 감행하게 되었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備 考
	사 살	포 로	V C 용의자	노 획						
				포 탄	소 실	총 탄	수류탄	부 트	비 명	
제 5 중 대	5	8	95	48	800	30				
제 6 중 대		8	5	78	1,650	30	50			
제 7 중 대								2	월남민병 대원 2명 민간 인 1명	
합 계	5	16	100	126	2,450	60	50	2		

§ 戰 訓

雨期의 作戰行動

대대는 氣象의 악조건하에서 전투를 수행한바 大등 허다한 장애에 부딪쳐 전투간 많은 곤란을 機動 및 重火器운용의 제한과 육체적 피로의 增 減었다. 따라서 雨期에는 다음과 같은 要素를 增



분히 고려한 연후에 계획을 세우고 전투에 임하여야 하였다.

1. 平地는 물에 잠겨 마을과 丘峯을 제외한 기타 도로 및 지면과 河川을 구별치 못함으로써 적 사자를 내기 쉽다. (이번 전투시 An Nhon 평야는 평균수위가 1m 정도임).

2. 따라서 前進에 지장을 초래하며 機動속도는 느려진다.

3. 육체적 피로는 평상시보다 倍加되며 특히 물속을 계속 行軍하기 때문에 발이 부풀고 경련이 일어나기 쉽다.

4. 사전에 지형정찰이나 요도작성 등의 준비도 별로 효과가 없다. (지상의 事物이 물에 잠겨 있음으로써 식별 및 지형관단을 곤란하게 만든다.)

5. 포탄은 습기에 젖어 불발탄이나 落伍彈이 많이 생겼다.

이상과 같은 비비함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1. 계획 : 전고한 野地에 比하여 느린 속도로 前進하게 되므로 속도 조절책이 연구되어야 하며 무리한 行軍을 강요하는 계획 작성의 矛盾을

범하지 않도록 留意하여야 한다.

2. 공용화기의 운용 및 장비운반요령과 溺死 병사의 구급법 그리고 落伍者 처리등에 對한 綿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3. 포탄판타 :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포탄은 반드시 포장을 뜯지 않은채 휴대하여야 한다.

4. 통신장비에 對한 防水 장치에 철저를 期하여야 하며 萬一의 불통을 고려하여 예비 통신수단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하겠다.

5. 重裝備는 가능한 限 휴대하지 말것이며 박격포의 효용도는 저해된다.

6. 原住民 및 VC 용의자 이용 : 마을 접근시에는 VC용의자와 同는 原住民을 선두에 세우라. 이들은 現地 지형과 상황 그리고 障礙物 및 각종 “부비트랩”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므로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또 은닉된 武器 및 장비와 숨어 있는 VC을 索出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전투중 제6중대가 현지주민의 안내로 장애물과 “부비트랩”을 除去하고 아울러 은닉된 탄약을 찾았으며 또 그들의 저보로 潛伏한 VC을 포획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2대대장 李 弼 朝 중령

(1978년 1월 28일 首都기계화 보병사단장실에서, 당시 소장)

이 전투는 당초에 연대작전으로 계획을 推進하여 오다가 기상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제2대대 단독으로 전투를 전개하였다.

당시 Qui Nhon지역은 雨期로 비가 자주 내렸으며 특히 D-3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전투지역인 An Nhon평야는 平均水位가 1m나 되는 물바다로 변모하였다.

이와같은 악천후의 계속으로 작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연대장은 사단장에게 작전을 연기하여 주기를 건의하였으나 사단장 蔡命新 소장은 雨中을 무릅쓰고 작전을 감행한다는 인식을 顯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韓國軍은 여하한 조건을 타론하고 싸우는 막강한 군대임을 이 기회에 誇示하는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작전을 잠깐씩 되었는데 계속된 暴雨로 말미암아 계획이 변경되어 越南軍은 작전에 불참하게 되고 또 제1대대 역시 작전지역으로 이르는 移動路가 전부 浸水되어 機動이 어렵게 되자 결국 작전에서 除外되어 제2대대 단독으로 이 전투를 決行하게 되었다.

작전계획이 갑자기 변경됨에 따라 어려운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2대대대의 전투담당지역을 1개 대대규모로서 如何한 方法으로 이를 踏破할 것인가? 그리고 물바다와 같은 저대에서의 機動동 많은 애로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水中에서의 機動은 육체적으로 피로를 加增시킬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案出된것은

첫째 : 機動공간을 단축하고

둘째 : 兵力 및 시간을 최대한로 절약하여 육체적인 피로를 덜게함으로써 계획된 目標을 席捲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작중대가 機動으로 마을에 접근하던 1개소대는 우회기동으로 피로를 遮斷하고 1개소대로서 側方경계와 아울러 포위케 하는 한편 나머지 1개소대는 外廳에서 支援隊가 되는 동시에 대기태세를 가다듬게 하는 方式을 取하였

는데 그 까닭은 敵이 退却할 경우 追擊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敵은 통상 마을을 떠나는 我軍의 背後를 노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을 탐색이 끝나면 임무를 교대하면서 신속한 機動으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目標을 차례로 奪取케 하였다.

이와같은 機動형태는 비록 雨中에서 뿐만 아니라 通常의인 마을 探索時에도 장려할 문제로 채택되어 연대에서 이 方式을 연구발전시켜 다음 전투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끝으로 이戰鬪를 敢行한 결과 我軍의 왕성한 감투정신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20여년간 當事國이나 다른 外國軍이 한번도 휩쓸어 보지 못한 지역을 상륙후 불과 1개월밖에 안되는 미숙한 처지에서 VC의 牙城을 襲破한점 그리고 여하한 악조건이라 할지언정 이를 극복하여 싸운다는 것을 僚軍 및 VC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我軍의 強靱性和 勇猛性을 깨닫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를 끝마치고 1주뒤에 전개된 「飛虎 2號 전투」에서 대대는 더욱더 유감없이 싸웠는데 이 兩전투가 당시 國內外에 韓國軍의 莫強함을 과시한 「飛虎 6號 作戰」의 布石第一手이었음을 이기회에 附言하는 바이다.

## 6. 飛虎 2號 戰鬪 (1965년 12월 27일)

참조: 별첨부도 제 11 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포병제60대대	장 중령 鄭 雲 深
제 1 연대	장 대령 金 珽 雲	제 1 포대	장 대위 鄭 基 昌
(2) 參加部隊		제 2 포대	장 대위 金 栢 賢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포병제628대대	
제 5 중대	장 대위 朴 東 遠	제 2 포대	장 대위 韓 明 熙
제 6 중대	장 대위 丁 萬 吉	(3) 協力部隊	
제 7 중대	장 대위 姜 君 吉	美전술공군	
제 8 중대	장 대위 鄭 鳳 律		
	敵		軍
	E-2B 대대 일부		地方 VC

### 나. 戰鬪 前의 概況

이 전투는 작전지역을 점차로 擴大하기 위한 연대 계획의 일환으로 대대급으로서는 두 번째로 決行되었다. 즉 대대는 第1期 작전기중 Qui Nhon市를 포함한 Phu Tai-Cu Mong고개 일대의 전술책임지역 및 사단사령부 외곽지대를 扼守하면서 제1대대의 지역戡定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달 16일과 이달 4일 兩次에 걸쳐 該대대 지역인 Qui Nhon半島 및 Luat Chanhe에 投入되어 전투를 수행한바 있거니와 그뒤 第2期 作戰期로 移行되자 대대의 책임지역을 제3대대에 인계하고 연대의 예비대(12월 4일附)로서 17일 대대 단독으로 「飛虎 1호 戰鬪」를 전개하여 所謂 VC의 牙城이라고 일컫는 Song Tan An(江) 北域을 一蹴한바 있다.

이리하여 연대의 전술책임지역(TAOR)을 제1대대가 Song Tan An(江)—Song Am Phu(江)에 連한 南쪽 일대를 장악하고 바야흐로 An Nhon평야의 北쪽으로 戰域을 확대하게 되는데 연대장 金斑雲 대령은 이 지역에 제2대대를 投入하여 敵의 主力을 捕捉코자 본전투를 감행케 한것이다.

전투지역은 19일 전개한 「飛虎 1號 戰鬪」 당시 北쪽에 있는 전투지경선인 Song Co Cham(江)으로 부터 Song Ong(江)의 南北間과 東쪽으로는 제1번道路에서 부터 西쪽으로는 △78와 Tan Dan을 連한 線까지 제한되어 敵陣 깊숙히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當面の 敵은 Binh Dinh省 VC 主力인 E—2B대대의 一部 및 이들과 附和雷同하는 지방“게릴라”로서 그들은 20여년간 이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주로 제1번道路의 교란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평야에 點綴된 聚落과 水田 및 늪지대에는 각종 진지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敵은 이를 최대로 이용하면서 所謂 “게릴라” 스타일의 「敵進我退」「敵退我攻」의 教條에 따른 手法으로 공격부대의 進出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I) 作戰 計劃

연대장 金斑雲 대령은 이 전투를 수행하기에 앞서 自身の 腹案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 가급적 重火力에 의지함이 없이 소총과 수류탄등 소화기로서 攻擊하라.

둘째 : 敵의 “게릴라” 전술을 逆利用하라.

셋째 : 마을을 探索할 때에는 모위형식을 갖춘 연후에 攻擊과 掩護를 互用하면서 진출하라.

넷째 : 전투지대의 특징과 探索間 차후 전투에 참고가 될 兵要地誌를 分析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라.

다섯째 : 전투간에 心理戰을 병행하라.』

이상과 같은 방침을 지시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이르기를 『중대 Qui Nhon 지역에서 美軍이 취한 戰法은 VC의 出沒지대를 불태워 버림으로써 주민들과 VC사이를 격리하자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焦土작전은 초기에는 良民까지 VC視한다는 비난이 많았다.

특히 전투지역 내에는 無數한 마을이 散在되어 있으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VC治下에서 그들편이라고 할지라도 비전투원에 對한 生命과 재산은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된다. 越南의 지방당국은 무조건 該지역의 戡定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의 목적은 오직 VC를 索出격멸 하는데 있으므로 가급적 重火力을 제한하여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전투간 心理戰을 병행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我軍의 작전에 協力케 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연대장의 의도에 부합되는 전투 수행을 위하여 민사심리전반의 배속을 건의하는 한편 美海兵 “헬리콥터”중대의 支援을 받아 目標 △254 및 △78에 1개중대규모의 兵力을 空輸로 機動시켜 우선 退路를 차단한 다음 2개중대로서 제1번道路에서 부터 東쪽으로 병진 攻擊키로 계획을 세우고 전투준비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美軍側으로부터 △254에는 “헬리콥터”의 着陸이 곤란하고 再보급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하는 수 없이 증강된 1개소대 규모를 △78에 奇襲착륙시켜 退路를 遮斷한 연후에 3개중대규모로서 竝行 공격하여 所在의 敵을 擊滅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헬리콥터” 및 0-1 경항공기의 支援을 받아 소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여금 전투지역의 空中정찰을 通하여 지형을 숙지케 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1. An Nhon평야 北쪽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VC E-2B대대의 일부 및 이들과 附和雷同하는 지방 “게릴라”들은 동조세력을 糾合하여 我軍 및 연합군의 군사시설을 위협하면서 제1번道路의 遮斷을 노리고 있다.
2. 美海兵 “헬리콥터” 1개중대가 대대를 支援한다.
3. 포병제60대대(-) 및 同제628대대 제2포대가 대대를 직접 지원한다.
4. 민사심리전소대 1개반이 12월 26일 10.00附로 대대에 배속된다.
5. 대대는 現임부를 계속 遂行하면서 12월 27일 06.50을 期하여 An Nhon평야 北쪽 一圓에서 跳梁하는 VC를 탐색 撲滅하려 한다.
6. 제5중대는 대대의 左一線으로서 右인접 제6중대와 병진하되 Chao Thanh—Phu Thanh에 進出하는 즉시 1개소대규모를 △78에 공수로 投入하여 敵의 예상되는 退路를 遮斷한 연후에 진출하라.
7. 제6중대는 대대의 中間에서 左右 인접한 제5, 제7 兩중대와 병행하면서 My Hoa—Ly Nhon을 확보한 다음 △254로 直衝하라.
8. 제7중대는 대대의 右一線으로서 Song Dap Da(江)에 沿한 Thuan Thai—Than Giang과 南쪽 畧 輻지의 Tan Don—Tan Long—Duong Lang을 探索하면서 敵을 포착하는대로 覆滅하라.
9. 철조지시
  - 가. 충분한 양의 연막탄을 휴대하여 개활지 통과 및 마을에 接近할때에는 이를 최대로 이용하라.
  - 나. 각개병사들에게 실탄 2기수 및 수류탄 4발씩을 휴대케 하라.
  - 다. 畧분대 단위로 渡河用 “로프” 및 고무침대를 휴대케 하라.
10. 대대 진출지휘소는 최초 Ba Chan(2)에 개설하며 제5중대의 遮斷부대가 △78를 확보한 다음 該 고지로 移助한다.』

이상과 같은 전투명령을 하달한 대대장은 이에 추가하여 강조하기를 『전투를 統制하는데 간편하고 상황보고의 신속을 期하기 위하여 攻擊목표에 番號를 붙이니 地名대신에 이를 사용하라. 이 方

式은 保安上에도 有利한 것이다. 그리고 광대한 지역에 點在한 마을을 探索하는 요령은:「飛虎1號 戰鬪」에서 실천한바 兵力을 적절히 分배하여 신속한 機動으로 퇴로를 遮斷하고 아울러 마을 外郭을 포위하여 突擊隊로 하여금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專力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각중대는 自隊의 기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마을에 對한 探索요령을 演習하고 아울러 兵力의 점검과 장비의 정비등 諸般전투준비를 갖추었다.

## (2) 戰鬪 實施

27일 黎明에 행동을 개시한 대대는 2½ ton 차량 43대에 분승하여 Phu Tai에서 부터 攻擊대기지점인 제1번道路上으로 이동하는 즉시 右一線에 제7중대를, 중간에 제6중대, 그리고 左一線에 제5중대를 각각 展開한 가운데 예정시간보다 10분이 늦은 07.00부터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였다.

(가)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陰蔽된 접근로를 따라 Chau Thanh 西쪽 숲속으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잠시 마을안의 동정과 地形을 살핀 끝에 제일먼저 제3 및 화기소대로써 左右兩쪽을 遮斷케하고 이어 제1, 제2 兩소대를 마을안으로 통하는 小路를 따라 進出케 하여 兩分된 該마을을 각각 분담시켜 探索한 결과 VC용의자 2명을 검거하였으며 지하동굴에서 對戰車지뢰 3발 및 “부비트랩” 20발을 노획하였다 그뒤에 밝혀진바 이들은 VC과 동조하는 分子들로서 주로 夜間에 제1번道路 및 주요 교량의 파괴를 일삼는 者들이 확인되었다. 이어 중대는 다음目標인 Phu Thanh(2)로 進擊하였다. 이 지역은 △254와 △76의 中間에 있는 큰마을인 까닭에 중대兵力으로서 포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陽動으로 敵을 현혹케하여 기습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最上の 方策이라고 내다보고 우선 Chau Thanh으로부터 Phu Thanh(2)로 通하는 길을 따라 △76로 進出하는듯이 가장하다가 同고지 南麓에서부터 갈라진 三叉路에서 갑자기 反轉하여 △76로 빠지는 敵의 예상退路를 遮斷한 연후에 攻擊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尖兵소대로 하여금 △76 東麓에 沿한 小路를 따라 北上케하였다.

그리고 殘餘소대를 該고지 南麓에 있는 三叉路까지 進出케 하였다. 한참 뒤 各소대가 계획된 지점에 이르자 尖兵소대로써 △78 北東쪽 일대를 차단케 하고 나머지 兵力을 신속히 東進시켜 Phu Thanh北쪽을 점령케 하였다. 중대장은 探索에 들어가기 전에 대동한 越南군인으로 하여금 휴대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소개를 권유하였다. 한참 뒤 이

에 呼應한 43세대의 주민들이 마을을 빠져나갔으나 아직도 상당한 수의 주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하여 소개하기를 중용하였으나 그 이상의 전진이 없자 하는수 없이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攻撃하였다.

제일먼저 제1소대가 마을 東쪽 一角을 장악하자 제2, 제3 兩소대가 南쪽과 西쪽에서 밀어닥쳤다. 이윽고 마을 중심부를 籠卷한 제1소대 제2분대가 후속부대를 誘導하려는 순간 家屋에 潛伏한 수미상의 敵으로부터 狙撃을 받고 交戰이 벌어졌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南쪽에서 부터 突入하던 제3소대 제1분대 역시 수호를 알 수 없는 敵으로부터 銃撃을 받는 가운데 支援사격을 요청하였다.

이와같은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이는 敵이 포위망의 突破를 꾀하기 위하여 일부의 兵力으로서 狙撃을 가하여 我軍의 진출을 牽制함으로써 主力의 脫出을 은폐하려는 術策인 것으로 推斷하고 즉시 제2소대를 北쪽으로 우회케 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케 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듯하여 該소대의 선두분대가 Phu Thanh(2)의 北쪽에 進出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여기를 빠져나간 흔적을 發見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제3소대를 Phu Thanh(2)에 殘置시켜 探索을 마무리 짓도록하고 자신은 殘餘소대를 거느리고 Chanh Ly로 直衝키로 한바 그 까닭은 敵이 △254에 潛跡할 공산이 크다고 보았으며 그들이 入山하기 前에 그 길목을 占據한다면 能히 그 一黨을 撲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戰況을 보고하는 한편 포병火力으로서 Chanh Ly를 둘러싼 △254—Nui Ao(山)—Nui Yan(山) 일대를 제압할 것을 요청한 뒤 各소대장들을 呼出하여 『이제부터 개활지를 통과하게 되므로 휴대한 煙霧彈을 이용하면서 빠른속도로 통과하되 제1소대는 먼저 Chanh Ly 西쪽 入口를 장악하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先發한 제1소대의 뒤를 이어 火器소대로서 △254 北麓을 차단케한 가운데 제2소대를 突擊隊로 선정하여 正面에서 공격을 決行케 하였다. 이에 제2소대는 마을入口를 장악한 제1소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內廓으로 突進中 交通路에 潛伏한 수미상의 敵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음으로써 Chanh Ly 攻防戰이 벌어졌다.

敵情이 드러나자 중대장은 곧 제2소대로 하여금 現진출선에서 敵을 牽制케하고 제1소대를 同마을 北쪽으로 迂回시키는 한편 遮斷에 임하던 화기소대를 東側方으로 이동시켜 제1소대와 連結케 하였다. 이와같이 계획을 바꾼 이유는 △254에 이르는 일대를 열어주어 이 地帶에 敵을 誘引하여 殲打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한대로 三面에서 압축하자 敵은 최후 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한듯 無差別사격을 亂射하면서 右往左往하다가 급기야는 △254 方向

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놓칠세라 유예하지 않고 『突擊하라』고 호령하니 일제히 三面에서 밀어부쳐 遺棄시체 2구를 現認하고 VC 용의자 23명을 검거하였다. 곧이어 중대는 △254 北麓에 兵力을 배치하여 殘黨을 索出코자 精探하였다. 숲속 곳곳에 포병사격으로 사살된듯한 시체가 흩어져 있고 바위틈과 나무가지에 VC의 肉片이 어지러히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가 손실을 본듯 推測되었다.

한편 대대 전술지휘소에서 狀況을 지켜보던 대대장은 제5중대가 Chany Ly를 奪取하자 곧 Song Ong(江)을 渡河하여 Chanh Man을 攻撃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隊伍를 정돈한뒤 該마을로 이르는 小路를 따라 東進하였다. 目標에 이르는 區間은 전부가 水田이며 徒涉場부근에 密集된 마을이 있었다.

尖兵소대가 同마을 外廓에 이르자 중대장은 소대장 朴文圭 소위를 呼出하여 可及의 마을을 避하여 江邊으로 통하는 進路를 개척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1개분대의 兵力을 거느리고 地形을 정찰중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狙擊彈 3발이 그의 발밑에 꽂혔다. 그들의 사격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머리를 든 순간 이번에는 자동화기의 集中사격을 받았다. 분명히 마을방향에서 사격한듯 보였다. 각개 사병들은 地形地物을 利用하면서 사격과 區間전진으로 敵陣에 달라붙었다.

이때 소대장은 뒤에 殘置한 1분대로 하여금 左側方으로 迂回하여 掩護하라고 지시한뒤 포복으로서 敵의 彈雨를 뚫고 突擊線으로 進迫하였다. 뒤따르는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뒤돌아본 순간 소총수 李允宰 일병이 쏘는 총탄이 바로 5m 앞 지면에 떨어지고 있었다. 소대장은 『敵을 똑바로 보고 사격하라』고 號令하였으나 그는 여전하였다. 유심히 그 兵士의 얼굴을 쳐다보니 핏기가 없고 사격하는데 힘이없어 보였다. 李允宰 일병은 敵彈에 맞고도 사격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소대장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사격을 中止하고 누우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兵士는 이에 不應하면서 『소대장님 突擊합시다』라고 한뒤 의식을 잃었다.

그러는 사이에 側方으로 迂回한 支援부대가 敵陣을 포위하고 사격을 集中하자 기승을 부리던 敵의 火力이 鈍化되기 시작하였으며 勿失好機 유예하지 않고 『突擊』을 호령하니 일제히 踊躍한 兵士들이 敵陣을 돌파하여 유기시체 2구를 확인하고 지하동굴에 潛伏한 VC용의자 33명을 검거하였다.

한편 대대장은 제5중대 지역에서 敵과의 接觸이 빈번하게 벌어지자 이는 지대내에 潛伏



하고 있는 敵이 我軍의 動靜을 살피면서 我軍이 進擊하면 後退하다가 虛點을 틈타 기습하려는 “케릴러”의 術策으로 내다보고 즉시 遮斷부대를 △78에 空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Phu Thanh(2)에 殘置되어 반복탐색을 끝마친 제3소대를 現地로부터 △78로 空  
중기동시켜 兩고지를 확보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Ba Chan(2)에서 대대를 지휘하던 대대장은 전술지휘소를 △78로 이동시켰다.

한편 중대의 尖兵소대가 부대 進出을 유도하기 위하여 徒涉지점을 정찰중 敵과 부딪쳐 교전끝에 그 一黨을 구축하였으며 체포된 VC 용의자를 앞세워 徒涉이 가능한 地點을 알아내었다. 이와같은 보고에 接한 중대장은 殘餘소대를 앞으로 推進시켜 四周경계를 편 가운  
데 제2소대를 제1梯波로 선정하여 渡河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該소대가 對岸에 接岸하는 순간 숲속에 潛伏한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敵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교전이 벌어졌다. 이를 관망하던 중대장은 즉시 가용한 火力을 집중케 한 가운데 제1소대를 후속시켜 합세케 하였다. 뒤이어 화기소대 및 중대본부가 江을 건넜다. 敵의 동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江邊에 沿한 小路부근에는 교통호와 산병호가 군데 군데 보였으며 그 진지는 중심이 깊은듯이 보였다. 더우거나 무성한 숲속에 은폐되어 있으므로 敵情판단이 어려웠다.

江邊의 언덕을 확보한 攻者의 입장으로서는 한시바삐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최선의 方法이라고 생각한 중대장은 57mm무반동총과 60mm박격포탄을 그들의 진지에 퍼붓게 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2 및 화기소대를 後側方으로 機動시켜 뒤로 遮斷과 아울러 포위를 併行케 하였다.

이윽고 兩소대가 각각 계획된 지역에 進出하자 제1소대로서 直衝케 하였다. 敵의 彈雨를 무릅쓰고 선두에서 突進하던 李武男 일병이 그들의 擲彈에 쓰러졌다. 뒤따르던 白忠次 일병이 M1소총에 着劍하더니 敵陣을 向하여 突進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앞을 다투듯 全 소대원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突擊하였다. 敵彈 1발이 白忠次 일병의 뒷쪽무릎을 스쳤으나 그는 들격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敵은 당황한듯 진지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였는데 끈질기게 바싹 달라붙은 白忠次 일병이 敵陣에 뛰어 들었을때 擲속의 VC 1명이 그를 겨냥한듯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崔京煥 상병이 이를 速射로서 처치하였으며 肉迫戰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VC 1명이 그의 뒷덜미를 잡는것을 느꼈다. 재빨리 뒤로 돌면서 紫閃一瞥으로 그 者의 안면을 강타하니 비실거리면서 뒤로 넘어지자 VC의 가슴을 찔렀다. 左衝右突끝에 최후까지 발악하는 VC 2명을 刺殺하고 적진을 파괴하였다. 한편 攻擊소대를 支援하던

화기소대는 Chanh Man 西쪽 외곽으로 진출하였으며 그뒤를 따라 전진하던 중대본부가 또 수미상의 敵으로 부터 기습사격을 받았는데 본부에는 본부요원과 화기소대의 박격포만이 있었다.

敵은 1개분대규모로 추산되었으며 그들의 지향은 완강하므로 중대장은 화기소대장을 호출하여 이들을 擊退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金柱天 중위는 부하 6명을 거느리고 右側方으로 우회하여 側射를 가하였다. 이때 중대장 곁에 있던 朴四蓮 일병이 特攻을 自請하였는데 그는 이번 전투에는 殘留兵으로 基地에 남게 되었음에도 出戰을 지원하여 중대장을 따라 다니면서 위험한 곳에 이를때 마다 자진 선두에 서서 중대장의 지휘를 도왔던 것이다.

중대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손에 수류탄을 움켜쥔채 敵陣으로 육박하여 그들의 진지에 투척하였다. 폭음과 함께 VC의 肉片이 霏散하고 그 도당들이 退走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화기소대의 지원조가 합세하여 이들을 追擊끝에 그 一黨을 撲滅하였으며 朴四蓮 일병은 단독으로 VC 2명을 사살하고 지하동굴에 潛伏한 용의자 11명을 검거하였다.

잠시 戰場을 둘러본 중대장은 곧 부대를 정비한 다음 內廓에 對한 探索에 들어갔는데 제 1, 제2 兩소대를 Chanh Man 西쪽으로 우회시켜 東進케 한다음 중대본부를 포함한 화기소대가 東쪽에서부터 西進하면서 家戶마다 구축된 방공호와 竹林을타리등을 살살이 뒤진 결과 제1소대에서 VC 용의자 50명을 그리고 제2소대에서 43명을 각각 검거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한 장소에 집결시키려고 押送中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한 分子를 감싸는 것이 수상쩍게 여겨져 대동한 越南 군인으로 하여금 迅問케 하였으나 緘口無言이므로 그들의 正體를 밝히지 못한채 An Nhon 郡廳으로 압송하였다. 전투가 끝난 다음 밝혀진바에 의하면 수상하였던 그者は 최근 Ha Noi로부터 密派된 Binh Dinh省 VC의 정치책임자인 Kan Hoa로 밝혀진바 그의 別名이 「Flying Tiger」 즉 「飛虎」로 알려진 精悍한 骨髓分子인 바 이 VC의 「飛虎」가 맹호부대의 兵士에게 잡힌 결과가 되었는데 그者에게 越南당국이 현상금을 붙이고 있는 同지역 VC의 우두머리였다.

한편 대대 전술지휘소에서 제5중대의 進出상황을 지켜보던 대대장은 該중대로 하여금 △78 東쪽에 있는 丘陵을 踏破한 연후에 예정된 目標 An Loi(2)로 反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같이 공격방향을 바꾸게 한 까닭은 저대내의 敵으로 하여금 갈피를 못잡도록 현혹케 하여 我軍의 기도를 誤判케 하는데 있으며 또한 我軍이 통과한 것처럼 가장하다가 敵이 放心하고 있는 그 虛를 찌르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대의 攻擊축선이 Chanh Man에서부터 反轉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터 △78 西쪽에 편져진 水田지대를 橫斷하여 An Loc(2)로 진격하

었다.

대마침 △78 頂上에서 該중대의 기동을 攔阻하던 대대장은 즉시 支援포병으로 하여금 河川線 一帶에 연막탄을 집중케하여 기동부대를 掩護하였다.

三面이 하천에 둘러쌓인 이 일대는 西쪽에서 접근하는 敵에 對하여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逆으로 이용한 현재의 상황은 그 反對였다.

이와같이 東쪽에서 西쪽으로 밀어부치니 攻者는 유리하였으며 갈피를 못잡은듯한 무리들이 An Loc(1)로 四散退却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것을 바라던 더이므로 敵은 독안에 든 쥐가될 셈이나 다를바 없었다.

이에 중대는 유예하지 않고 소수兵力을 An Loc(2)에 殘留한채 나머지 兵力을 곧 An Loc(1)로 直衝케하여 退却하는 무리들을 뒤쫓아 용의자 22명을 검거하였는데 거의가 소총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상히 여겨 精探을 거듭하였으나 끝내 무기를 찾지 못하고 결국 이들 VC를 용의자로서 押送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르세 중대는 계획된 목표를 모두 剔抉하고 차후명령을 대기하다가 15.00에 대대장으로 부터 제7중대가 襲破한 目標“12”로 進出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Thuan Thai로 南下하여 VC의 再침투를 牽制하다가 16.20에 최초집결지로 돌아갔다.

(나) 제6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05.40에 공격준비사격의 砲聲을 간간히 들으며 Ba Canh(2)에서 下車한 다음 도보로 이동하여 05.50에 攻擊대기지점을 점령하였다. 20분뒤인 07.00에 攻擊개시명령이 하달되자 제1소대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3소대를 左一線에 그리고 제2소대를 중간에 두는 한편 화기소대와 배속된 중화기중대의 기관총반으로 하여금 제2소대를 후속케하여 東쪽으로 1km떨어진 Mi Hoa를 向하여 前進하였다. 눈에 들어서자 무를 까지 진흙에 빠졌다. 그러나 「飛虎 1號 戰鬪」 때와는 달리 며칠간 비가 내리지 않은 탓으로 허리까지 물이 차지않아 기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다. 그리하여 目標“1”인 Mi Hoa를 踏破하고 계속 前進하자 Song Cau Dai(川)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대대장은 좌인접 제5중대가 Phu Thanh(2)로 진출하기전에 신속히 同河川을 渡河하여 該중대의 前進를 側方에서 掩護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2소대를 먼저 도하시켜 Ly Nhon 北쪽으로 우회케 하고 後續한 제1, 제3 兩소대를 南쪽으로 돌려 挾擊케 하였는데 이 兩소대는 徒涉場을 잘못 選定하여 떠내려가는 병사들을 “로프”로 끌어 올리려고 苦心하는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때 제1소대에서 체포한 수상한 者를 訊問하여 알아낸 알은 개울목으로 부대를 誘導하



무선交信을 하는 제5중대원들

면서 건너다가 △254에서 날아든 듯한 수신탄의 총탄이 江쪽에 박혔다. 이때 중대장은 즉시 포병 관측장교로 하여금 敵의 예상되는 사격지점을 포병火力으로서 制壓케 하고 신속한 徒渉을 촉구하였다. 이리하여 당초에 계획된 시간보다 1시간이 늦은 09.00에 渡河를 완료하고 先進한 제2소대와 합세하여 Ly Nhon을 探索한 다음 최종目標인 △254로 進擊하였다.

同고지는 제1번道路에서부터 깊숙히 들어가 큰 河川을 끼고 있으며 平野에 우뚝 솟아 있기때문에 實標高 보다 높아 보였고 四周를 俯瞰할 수 있는 요충지이므로 이 高地의 확보야말로 An Nhon 평야를 장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1개중대규모로써 이 高地를 精探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우선 정상을 奪取하고 시간이 있는대로 探索 지역을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각소대장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지형을 분석끝에 同고지 東쪽으로 떨어진 完경사지대를 따라 進出하되 첫 봉우리를 넘어선 연후에 △254 頂上을 奪取할 것을 決心한뒤 尖兵소대를 증강시켜 행동을 개시하였다.

그로부터 30분뒤에 尖兵소대장 朴基濬 소위로부터 『△254 南麓에 많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보고에 接한 중대장은 즉시 대대장에게 요청하여 포병화력으로 이를 覆破한 다음 신속한 행동으로 개활지를 횡단케 하였다. 이때 중대의 左一線에서 突進하던 제2소대 제

2분대의 한 兵士가 눈썹 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적탄에 맞은것이 아니라 한 발이 땅속으로 빠져면서 발밑의 感觸이 이상한것을 느끼자 그 밑을 유심히 살핀끝에 눈썹 위에 鬚를 파고 숨어있는 무리들을 찾아내었다. 이와같은 보고를 받은 소대장은 부근을 精探케 하였는데 그들은 눈썹과 山麓에 교묘한 方法으로 위장된 지하동굴에 潛伏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VC 용의자 28명을 索出검거 하였다.

한편 △78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개설한 대대장은 중대장을 호출하여 인접중대의 狀況을 전달하면서 제5중대가 Chanh Ly에 進出하기전에 △254를 奪取하여 同중대의 進出을 側方에서 掩護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제5중대는 Phu Thanh(2)를 攻擊中이었으며 該중대가 Chanh Ly로 進出하기전에 △254를 탈취하기란 너무도 시간이 촉박하였다. 중대장은 앞으로의 狀況을 예측할수는 없었으나 현재의 상태로서는 계획시간보다 1시간 늦을것이 예상 되었으므로 대대장에게 進出을 조절하여 주기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이를 승인한다는 전달과 동시에 『인접중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윽고 △254 山麓에 구축된 敵의 각종 장애물을 파괴하는 즉시 정상을 向하여 進擊하였다. 雜木과 가시덩굴을 헤치고 지날때 마다 할킨 상처위에 땀이 스며들때의 아픔과 쓰라림 그리고 갈증을 극복하면서 드디어 12.30에 頂上을 확보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5중대는 同고지 北麓에 있는 Chanh Ly로 突入하고 있었으며 이전 투가 끝날때 까지 △254고지에서 該중대의 進出을 계속 엄호하면서 一部の 兵力을 가지고 精探을 거듭한 결과 지대내에서 VC 용의자 27명을 索出하였으며 지하동굴 5개소에서 쌀 22 ton 및 裝具약간을 回收하였다.

(다) 제7중대(장, 姜君吉 대위)는 05.20에 2½ ton 차량 11대에 分乘하여 攻擊대기 지점으로 이동중 越南軍 차량 132대가 Phu Tai에서부터 PleiKu로 기동하는 시간과 重複되어 교통혼란이 있었다. 때문에 당초의 계획시간 보다 10분 늦은 07.00에 공격이 게시되었다. 중대의 探索지역은 Song Dap Da(江)—Song Co Chanh(江) 邊에 点在한 도합 8개마을인데 지역내에는 水田과 수령의 濕地가 많으며 또한 東쪽으로 흐르는 大小의 하천이 엉켜있고 圖上에 나타난 河川만도 10餘個이며 이밖에 細流를 포함하면 20餘個의 河川이 있어 機動하는데 큰 不便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河川에 沿하여 分布된 마을들은 모두 평지보다 2~3m 높게 자리잡고 있으

며 대나무와 가지덤불이 무성한 숲으로 둘러 쌓여있어 마을안의 동정을 살피기 곤란하고 외부에서는 수개의 통로를 제외하고는 꿰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 통로에도 수차의 전투에서 경험하였듯이 장애물이 많을것으로 추측되었다.

중대장은 이와같은 어려운 조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강구끝에 가급적 통로는 避하되 尖兵소대로 하여금 敵의 감복을 認知하면 즉시 打撃소대를 투입하여 탐색하는 것이 兵力 및 시간을 절약하고 계획된 시간내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같은 腹案을 각 소대장에게 알린 다음 행동으로 옮겼다. 최초目標인 Thanh Lien에 접근하자 제1소대를 투입하여 精探케 하였으나 敵의 徵候를 찾지 못하고 다음 目標인 Thuan Thai로 進擊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목표“15”까지의 4km에 달하는 구간에는 密集된 마을들이 河川邊에 沿하여 길게 뻗어 있으므로 마을단위의 區分이 어려웠고 또 일정한 한계선을 그어 포위한다는 것도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중대장은 尖兵소대로 하여금 可視거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同마을 외곽으로 진출중 該소대로부터 『마을로 이르는 통로에 각종 장애물이 無數히 설치되어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일부의 兵力을 右側方으로 迂回시켜 掩護케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마을 입구에 접근케 하였다.

마을 주위는 철조망과 竹槍으로 둘러쌓여 있었으며 통로마다 대나무를 베어 쓰러뜨려 놓았는데 건드리면 터지도록 슈류탄 “부비트랩”이 설치되고 함정을 파서 통로를 봉쇄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밖에 있는 空地나 묘지에는 “헬리콥터”의 작륙을 막기위한 것으로 推測되는 대창과 追擊방지용인 듯한 장애물로 나무가지에 매달은 화살이 쫓겨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처음 보는것이었고 모두가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부비트랩”을 避하여 조심스럽게 前進하라고 거듭 지시하면서 앞으로 進出中 선임하사관이 함정에 빠져 부상을 입었는데 함정 밑에는 선인장을 심어놓아 全身에 刺傷을 입었으며 또 사병 1명이 竹槍에 찔려 거동을 못하였다. 숲한 장애물을 헤치고 마침내 마을입구를 장악한 소대는 부근에서 地下동굴에 潛伏한 VC 용의자 15명을 검거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위의 장애물을 제거케한 다음 안내자로 내세워 다음 目標인 Than Giang으로 進擊하였다.

目標에 가까이 접근하는 즉시 중대장은 일부의 兵力으로써 右側方에 對한 경계를 강화하고 2개소대를 支援隊로 확보한 다음 제2소대를 內廓으로 투입하였다. 소대장 梁修一 소위는 兵力을 兩分하여 狹擊하기 위하여 제1분대장 李太雨 하사로 하여금 江邊에 沿한 小路를

확보케 한다음 소대장은 나머지 兵力을 거느리고 右側方으로 迂回中 敵과 부딪혔다.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敵의 火力은 강력하였으며 그들의 사격솜씨는 정확하였다. 머리를 들 때마다 사격이 集中되었다. 派越한 뒤 처음으로 接觸한 중대의 兵士들은 최초에는 긴장된듯 사격이 부정확한데다가 앞으로 나가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재빨리 看破한 소대장은 즉시 기관총사수 方石道 병장을 推進시켜 엄호케 한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호령하니 이에 힘입은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敵陣을 돌파하여 유기시체 15具를 확인하였으며 때마침 西쪽에서 急衝한 제2분대장 김유병 하사가 거느리는 돌격대가 비밀통로를 따라 退却하려는 것을 추격끝에 殘黨 11명을 覆滅하고 CAR소총 2정 및 AK소총 1정과 同실탄 200발을 노획하였다.

이어 중대는 Xuan Mai를 探索하고 Kin Tai로 進出하였는데 마을 壕溝에서 기어나온 老人과 婦女子들이 접門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양상이 奇異하므로 한동안 어리둥절한 兵士들은 마주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이때 소대장 金秀吉 소위는 그들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 보다가 兵士들에게 가까이 가지말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은 숨어 있는 VC에게 我軍의 위치와 진출을 전달하는 신호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잠시뒤 마을은 조용하여 졌으며 四周경계를 강화하고 精探을 거듭한 끝에 VC 용의자 25명을 체포하여 訊問한바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VC이 전달저녁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장애물을 補強한 다음 이날 새벽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만약에 韓國軍이 이곳에 進擊하면 환영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야 목숨을 保持할 수 있다고 說得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근처에 VC이 있느냐의 불음에는 함구무언이었다.

VC의 所在를 재차 물으니 손을 빌며 『용서하여 달라』고 연발하는데 바로 이때에 수십발의 자동화가 실탄이 집중되었으며 그 兇彈에 金 滿 일병이 부상을 입고 주민 3명이 다쳤다.

한편 前方에서 총성이 울리자 후속한 제2, 제3 兩소대가 앞을 다루어 전진하면서 敵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사격을 집중하였는데 이때 그 流彈으로 말미아마 我軍 3명이 총상을 입는 혼란이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한 중대장은 곧 隊列을 수습한 연후에 마을을 探索하였으나 敵은 이미 退却한듯 보였다. 이에 즉시 追擊할것을 대대장에게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까닭은 進出이 제한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무모한 追擊으로 오히려 그들의 함정에 달려들 公算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중대는 다음 목표인 Tan Dai로 南下

하였다.

한편 대대장은 지원포병으로 하여금 敵의 예상되는 집결지를 강타케 하는 동시에 부장 “헬리콥터”를急派하여 該중대를 掩護케 한 가운데 Tan Dai를 占領한 다음 그로부터 反轉하여 Song Co Chan(江)에 沿한 Tan Long—Duong Lang—을 차례로 탐색하면서 14.04에 최초로 집결한 장소로 돌아갔다.

(라) 대대 전술지휘소에서 부대를 지휘하던 대대장 李弼朝 中령은 예하 3개중대가 제1번 도로변의 聚落을 탐색하고 東쪽으로 깊숙히 前進하자 배속된 민사심리전반으로 하여금 An Nhon郡 소속의 越南지방군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Chan Thanh—Mi Hoa—Hao Duc을 순회케 하여 안전보장증을 비롯한 심리전 전단 200,000枚를 撒布하고 피해를 조사케 하였다. 아울러 同班은 주민들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 계몽선전을 통하여 공산당의 罪惡相을 폭로하는 동시에 韓國軍은 진정으로 越南人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노라고 強調하였으며 이날 미리 준비된 日用品을 손수 나누어 주면서 성의와 친밀감을 최대로 표시하였다.

그뒤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곳 주민들이 韓國軍을 볼때 우선 엄한 規律과 단정한 동작 그리고 각듯한 禮儀, 같은 동양인이면서 자기들에 比하여 몸집이 크고 딱 벌어진 어깨, 패기에 찬 태도등에서 종래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볼수도 없었던 새로운 군인의 모습을 보고 我軍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뒤 대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心理戰활동을 강화하여 同地域의 주민들로부터 협력을 얻게 되었다).

한편 대대장은 각 중대가 계획된 지역을 襲破하는 즉시 최초 占領지 에 복귀케 함으로써 이날 16.20에 전투를 종결짓고 각중대별로 각각 도보 및 차량편으로 기지에 복귀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번 전투에서 敵의 主力을 捕捉적멸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을 추종하던 동조분자 279명을 索出함으로써 지역내의 지하조직망의 一部를 剷拔하였다.

더우거나 VC의 20年 巢窟이라고 일컫는 處女地를 勘定하는 契期를 마련 하였다는데도 큰 의의가 있지만 越南軍이나 다른 外國軍이 한번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한 지역을 縱橫으로 누빈 까닭에 전투에 自慊을 얻게 되고 나아가서는 我軍의 뛰어난 戰鬪力을 돋보이게 하였다.

전투가 끝난 다음 확인된바에 의하면 敵의 主力은 我軍의 공격 초동에 退却하였으며 그들은 일부의 兵력을 殘置하여 『장애물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접근하는 敵을 狙擊으로 打擊하고 또 유리한 함정으로



敵을 유인하여 기습공격 하라』는 지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계속 該지역에 對한 감시는 물론 探索 및 埋伏과 아울러 대인지원과 心理戰을 병행 하면서 지역내의 截定을 推進하다가 다음해 1월 7일 장차 敵의 主力을 殲滅하기 위하여 연대계획의 일 환으로 전개한 「飛虎 5 號 戰鬪」에 제I대대와 같이 참가하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 산	V C 용의자	노획				전 상
			개인화기	소총실탄	부비트랩	지뢰	
제 5 중 대	10	184			20	2	2
제 6 중 대		55					
제 7 중 대	26	40	3	200			6
합 계	36	279	3	200	20	2	8

## § 戰 訓

### 地形 分析

축척 1 : 50,000의 지도에는 마을을 비롯한 중요 지형지물에 對한 표시가 비교적 정확하게 表記되었지만 마을의 규모와 이에 이르는 接近路 및 주위의 숲의 크기와 상태는 모호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어떠한 전투를 막론하고 전투전에 세밀한 지형 분석은 꼭 필요한 것이다.

더우거나 常夏의 나라 越南의 지형조건은 매우 착잡하며 지도는 가끔 부정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지도에만 의존하여 세밀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갖가지 방법이 모색되는데 그것은 항공 사진 및 현지 지형정찰과 공중정찰동으로 補綴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병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그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투에서 제7중대가 當面한 전투지역에는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은 細流가 10餘個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지도에만 全의로 의존할 것이 못된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5중대장 박東遠 대위

(1978년 1월 29일 제27사단 제77연대장 관사에서, 당시 대령)

65년 10월 22일 제1陣으로 Qui Nhon에 上陸한 뒤 우리중대는 Phu Tai(4)에 위치한 美海兵 제3여단 예하중대의 기지를 인수하고 최초단계에서는 전술책임지역 南端에 있는 Cu Mong고개를 要扼하면서 各個병사들에 對한 전투능력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熱中하였다. 실질적인 훈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매일 2시간씩 濕地에서의 기동 및 “정글”을 비롯한 도하훈련 등 강차 濕地와 “정글”에서의 전투를 예상하여 피나는 노력을 傾注하였다. 또 타중대가 휴식하는 시간에도 우리는 쉬지않고 훈련에 專力하였다.

이와같은 것이 보람이 되어 派越後 최초로 참가한 「飛虎 1호 전투」에서 손실없이 많은 전과를 거두었고 뒤이어 전개된 「同 제2호 戰鬪」에서는 더욱더 유감없이 싸웠다.

당시 이 兩전투는 VC의 지배지역을 점차로 北進하여 劃定지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뒤 계속하여 「同 제3, 제5호전투」가 같은 지역에서 되풀이 되었는데 이와같은 전투는 모두 「飛虎 6호 作戰」의 발판이 되었고 끝내는 Go Boi 및 An Nhon 전지역을 席捲함으로써 VC의 20年 牙城이 拔本되었다.

특히 「飛虎 2호 전투」에서 우리중대는 제1번도로에서 부터 Chan Thanh—Phu Thanh—Chan Ly—△78를 차례로 踏破할 임무를 띄고 戰鬪에 임하였는데 이 전투의 특징은 무수히 산재된 마을에서 潛動하는 VC을 索出격멸 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潛伏과 退却에 능숙하다는 VC을 어떻게 하면 打盡할 것인가에 對하여 苦心하였다.

더우거나 계획된 시간내에 6개의 마을을 探索하여야하였고 또 攻擊축선이 東쪽 別관으로 연장된 直線에 마을들이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敵은 我軍이 進擊하는 동안에 潛伏하거나 退却할 것이 예상되었다.

이리하여 案出된 방법인 신속한 기동포위와 아울러 遮斷과 과감한 突破를 併行하는 형식을 준용한 결과 말은바 所任을 다하였다고 본다. 즉 1개소대를 우회기동시켜 遮斷케 하고 이와 동시에 1개소대를 側方에서 경계토록 한 가운데 돌격대를 과감히 투입하여 擊破케 하였으며 探索을 끝마친 該소대를 차단부대로 轉用하는 한편 이번에는 遮斷을 담당한 소대를 突擊隊로 전환케 하는 등 임무를 交代로 그리고 간단없는 기동형태를 取함으로써 8km 구간에 連하여 散在된 마을을 전부 探索하였다. 그리고 이 戰鬪의 결과 우리중대는 큰 손실없이 전과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는 오직 曠野에 強襲을 거듭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 전원을 전투要員化 하는데 노력한데 있다고 믿는다. 전투간에 例證되다 싶이 殘留兵으로 指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出動한 중대 본부의 전령이 었던 朴四龍 일병이 혼자서 VC 2명을 사살하고 同용의자 11명을 索出 제거한 것만 보더라도 이를 端的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중대에서는 일정한 傳令이 없었으며 전투시 행정요원들이 自進하여 출동한 병사중에서 전령을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소중병 못지않게 잘 싸웠다. 특히 중대원들 가운데 전투에 참가치 않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氣風이 高潮되어 날로

전투력이 강화되어 갔다. 나는 越南에서 평소에 탄을 많이 혼리면 戰場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교훈은 두말할것 없거니와 여하한 조건하에서도 能

히 이를 勘耐할 수 있고 또 어떠한 형태의 전투에서도 適應하기 쉽다는 것을 실전을 통해서 절감하였다.

### 제 6 중대 제 3 소대장 朴 基 淳 소위

(1978년 1월 29일 首都기계화 보병사단 제3대대장실에서, 당시 중령)

「飛虎 2호 戰鬪」때 제6중대는 대대의 중간에서 Mi Hoa와 Ly Nhon을 探索한 다음 △254를 奪取할 임무를 받았는데 당시 우리소대는 左一線에서 최초 목표인 Mi Hoa를 占領하고 이어 Ly Nhon으로 進出中 Song Can Dai(江)을 渡河하는 동안 지체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때 중대장으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254로 進出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즉 該고지를 확보하여 左인접 제5중대의 進出을 掩護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圖上에서 판단한 것과는 달리 실제 地形을 踏査하여보니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1개 중대규모의 兵力으로서는 同고지를 하루동안에 探索하기 어려운데 몇시간내에 이를 확보하라 하니 사실상 무리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 임무를 받은 이상 어떠한 難關이라도 극복하여만 하였다.

이리하여 Mi Hoa와 Ly Nhon을 突破하는 즉시 △254로 急進하였는데 途中에서 두차례의 交戰을 치루고 계획시간보다 1시간 늦게 同고지 頂上을 점령하여 Chan Ly로 進擊하는 제5중대를 掩護하

면서 전투가 끝날때 까지 이 高地를 지켰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경험한바 지도와 실제 地形과는 차이는 점이 많으며 또 항공사진 해석에 의한 것이나 공중정찰에서 익힌것도 實地에 들어서면 판이한 형편이었으며 출장한 숲속에서는 방향조차 분간하기 어려울때도 있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저명한 參考點을 익히도록 노력하였다.

즉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면서 進出하였으며 그리고 외곽을 보고 마을 구조를 알아내는데 힘썼다.

특히 越南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전투전에 충분한 지형분석을 한 다음 戰鬪에 일하여야 한다.

무성한 숲속에서는 방향을 분간하기 어렵고 또 마을구조가 비슷하여 자칫 잘못하면 目標를 찾기 어려울때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지형을 살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사진 분석으로 마을의 구조와 접근로 및 집집의 구조등을 연구함은 물론 이를 전원에게 주지시키는데 힘씀으로써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이에 참고로 提議하는 바이다.

## 7. 飛虎 3號 戰鬪 (1966년 1월 3일)

참조: 별개 부도 제 12 호  
상 황 도 제 26 호

### 가. 參加部隊 및 指揮官

我	軍
(1) 參加部隊	장 대위 韓 濟 龍
제 1 연대 제 1 대대 장	(2) 支援部隊
중령 裴 貞 信(改名: 貞道)	美제 30 포병 제 1 대대 C 포대
제 1 중대 장 대위 李 學 健	(105mm 곡사포)
제 2 중대 장 대위 李 滿 振	F-4D 戰爆機 3대
제 3 중대 장 대위 張 世 東	지휘용 “헬리콥터” 2대
포병 제 60 대대 제 3 포대	
敵	軍
VC, Z-50 중대	지방 VC
VC, E-2B 대대 一部	

### 나. 戰鬪 前의 概況

Qui Nhon港에 上陸한 제1대대는 Nui Ky Son(山)에 駐留하려 하였으나 계속되는 장마로 말미암아 제442번道路(이 도로는 VC에 의하여 閉鎖된 뒤 민간인의 通行이 禁止됨)와 河川 주변의 田畠이 浸水되자 많은 병력의 이동이 곤란하여 임시로 Phuoc Thanh面에 있는 사단사령부의 뒷산인 Nui Yen(山) 입구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은 생각하기를 『이 지역은 VC들이 盤據하고있는 부근이며 그들과의 接戰경험이 없으니 만큼 지휘관들 만이라도 장차 擔當하게 될 지역으로 나아가 敵에 대응할 見聞을 넓히고 지휘관으로서의 신념을 굳히며 腹案을 세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라고 判斷하게 되자 소대장급 이상과 필요한 본부장교들을 이끌고 Go Boi에 있는 美제3공수여단의 基地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전투상황과 VC의 “게릴라”전술 및 非正規戰에 대한 友軍의 대응전

법 등을 파악하였다. 대대장은 곧 토론회를 열고各自的 보고 느낀점 및 腹案을 발표케함과 동시에 이를 종합하여 자대교육과 훈련의 참고자료로 삼았다.

그뒤 대대는 Ky Son 山으로 移動하자마자 夜間에 침투하는 VC를 擊滅하였으니 이 一戰이 곧 사단에서 최초의 戰果를 올린 「Phung Son전투」이다.

대대는 Nui Ky Son(山) 北西쪽 무명고지(海拔 70m)에 전술지휘소를 개설하고 美제3공수여단으로부터 Song Am Phu(江) 以南지역을 인수하자 제1중대를 Go Boi에, 제2중대를 Kim Tay에 각각 投入하여 探索과 埋伏을 併用케 하였다. 그런데 12월 27일에 江北마을 주민들이 연대를 찾아와 「VC의 曷取에 못이겨 도망왔다. 그곳의 住民들은 VC들의 恫喝에 떨고 있으며 한시바때 晝부대가 들어와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한데 이어 거기까지는 行政능력이 미치지 못하니 收復하여 달라고 懇請하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 金琰雲 대령은 戒嚴사항을 考慮한 끝에 進剿책임지역을 Song Ngang(江)까지 확장키로 결심하고 제1대대장을 불러 구두명령을 下達하였다. 戰鬪지역은 Qui Nhon 北쪽 14km 떨어진 平野로서 北쪽의 Song Dai An(江)과 南쪽의 Song Am Phu(江) 支流가 서로 엉켜있어서 水源이 풍부한 曠野지대로 손꼽히는 중립지이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1965년 12월 30일에 命命을 수령한 제1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동안 수집된 첩보를 基盤으로 敵情을 분석한 결과 「飛虎 2號 전투('65.12.27)」에서 분산되주한 VC, Z-50중대와 Phu Cat 山에 蟠踞地를 둔 VC, E-2B대대의 1개중대 규모가 Loc Thuan 一帶에서 遊動中이며 그들은 또한 Song Ngang(江) 주변의 지방 VC들과 서로 內通하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곧 중대장과 관계장교들에게 말하기를 『VC의 주요潛據地는 Luat Binh—Quang Dien과 Tu Cung으로 判斷된다. 이들은 Nho Lam을 왕래하는 VC, E-2B대대의 支援를 받고있으니 만큼 이들의 接線을 끊는것이 急先務이고 그 다음에 遮斷부대를 埋伏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그들의 潛伏地를 훑어내던 전투는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敵의 隱遁지역이 여러곳에 있으므로 항상 四圍警戒를 하면서 探索에 임하되 Luat Binh과 Tu Cung은 包圍공격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所信을 밝히면서 공격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命命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目 標

目標번호	위 치	目標번호	위 치
1	Kim Xuyen	11	Luong Loc
2	Tu Cung 北西쪽	12	Luat Binh
3	Pho Dong(1)	13	Luong Quang
5	Tu Cung 南西쪽	14	Tan Dien
6	Tung Giang	15	Van Quang
7	An Hoa(3)	16	Quang Dien
8	공동묘지	17	Tan My
9	Nho Lam	18	Tu Thuy
10	Hoa Le(2)		

## 『1. 敵情 : 생략

2. 대대는 66년 1월 3일 08.00를 期하여 Song Am Phu(江)北쪽 목표 “1~18”內에서 流動하는 VC을 포착 擊滅하려 한다.
3. 제2중대는 08.00에 Song Am Phu(江)를 渡河하는 즉시 목표 “1”로부터 同 “13”까지를 席卷하되 目標 “2”를 점령하면 1개소대(-) 규모로 “태백산맥”을 차단하라.
4. 제1중대는 제2중대를 後續하다가 공격개시선을 통과하는 즉시 목표 “2, 3, 5, 6”을 공격하되 Go Boi 일대의 차단을 併行하라.
5. 제3중대는 Song Tan An(江)을 공격개시선으로하여 目標 “14, 15”를 공격하고 제2중대가 목표 “11을” 점령하면 이와 連繫하여 同 “16~18”의 敵을 覆滅한 다음 대대전술指揮所로 복귀하라. 공격개시와 동시에 차단지역 “장백산맥”을 占領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하라.
6. 중화기중대와 기타부대는 의명 출동할 준비를 갖추라.
7. 협조지시
  - 가. 各중대는 항공사건을 미리 研究하라.
  - 나. 渡河에 필요한 장비를 携帶하라.
  - 다. 各중대는 D-1일까지 차대계획을 세우라.
8. 대대전술指揮所는 現위치(Nui Ky Son 北東쪽 △70)에 개설한다.』

이러한 명령을 수령한 관계중대는 즉시 전투준비에 착수하고 전투지대와 엇 비슷한 지대에서 예행연습을 거듭하였다.

## (2) 戰 闘 實 施

1월 2일(D-1) :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은 각중대의 전투계획을 검토한 다음 중대장들에게 이르기를 『攻撃間에 敵의 頑強한 抵抗을 받으면 즉시 연락을 피워 그 位置를 보고하라. 제2, 제3 兩중대는 目標 “11”과 “15”에서 連繫하는 時間을 맞추고 만일 時差가 생기면 현지에서 다음 目標의 敵을 牽制하다가 후속부대가 도착하는 즉시 攻擊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D일 03.00가 되자 대대장은 각중대를 攻擊대기지점으로 進入시켰다. 제1중대는 Go Boi에 제2소대를 남기고 제2중대 集結地인 Kim Tay로 移動케하고, 제3중대는 Huu Thonh 南쪽에 잠시 머무렀다가 Tuan Le(1)에 侵透하자 곧 마을 北쪽에 散開하여 渡河준비를 갖추었다.

(가) 제1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08.00에 제2중대가 攻擊개시선을 통과하여 Song Am Phu(江)를 渡河하자 江邊에서 이를 掩護하다가 該중대가 目標 1(Kim Xuyen)을 점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그 뒤를따라 마을에 進入한 다음 중대를 2個隊로 編組하였다. 즉 第1隊는 제1소대로서 目標 2와 3을 攻擊하면서 Tu Cung의 敵을 壓迫하고 第2隊는 중대장이 직접 제 3, 화기 兩소대를 이끌고 目標 “5”와 “6” 및 第1隊지역으로부터 南走하는 VC를 捕捉 격렬키로 하였다.

第1隊(장, 申仁道 중위)는 Kim Xuyen에서 河川邊 갈대숲을 따라 目標 “2”(Tu Cung)에 육박하자 1개분대를 차출하여 包圍網안의 敵을 捕捉케 하였으나 Pho Dong (1)에 이룰때까지 接敵이 없었다. 이에 申중위는 중대가 여기를 야간 매복지로 이용하였음을 상기하고 또 接敵이 없음을 감안하여 중대基地(Go Boi)로 復歸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때 병사하나가 河川을 徒涉中 소총을 물에 빠뜨렸으면서도 개울 건너편에 VC의 한무리가 있는것을 看破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분대는 소총을 찾기위하여 소대의 전투대형에서 離脫하게 되었으니 Pho Dong(2) 南쪽 △2에 潛伏한 敵은 때를 기다렸다는 뜻이 亂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數次 매복한 경험이 있는 申중위는 地形에 밝은 까닭으로 즉시 제2분대를 河川의 右側쪽에 散開하여 소대를 掩護케하고 나머지 兵力을 직접 指揮하여 攻擊을 敢行하는데 갑자기 南쪽 200m 지역에서 기관총으로 武裝한 또다른 VC들의 擄攻을 받았다. 이에 소대장은 곧 火力을 요청하고 잠시 Pho Dong(1)로 물러서는데 愛惜하게도 一發의 兇彈이 그의 上膊骨을 貫通하였다.

한편 이러한 報告를 받은 중대장은 즉시 Go Boi에서 潛伏中인 제2소대장 鄭豊田 소위에게 第1隊를 赴援하라고 號令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제1분대를 현지에 남기고 나머지 3개분

대를 直接지휘하여 Pho Dong(1) 東쪽 河川으로 直衝하자마자 退却을 서두르는 듯한 VC들의 背後를 急襲하여 2명을 사살하였다. 곧이어 소대장 鄭소위는 중대장의 命令에 따라 第1隊를 統轄指揮하여 Go Boi로 복귀하는 즉시 申중위를 후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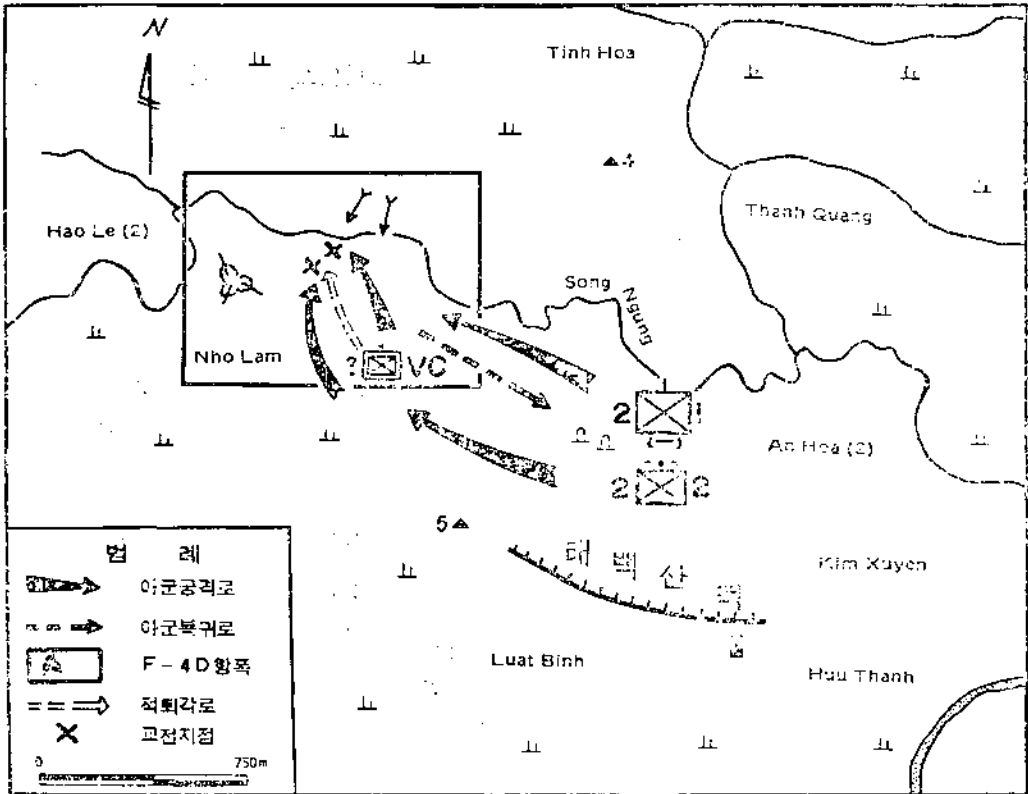
第2隊(장, 李學健 대위)는 第1隊가 Tu Cung에 뛰어들자 즉시 南쪽으로 우회하여 Tung Giang을 席卷하고 다시 Song Am Phu(江)와 北쪽으로 連한 제501번도로까지 進入하였는데 이때 第1隊로부터 『敵의 挾攻으로 소대장이 부상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를 出動시키고 동시에 대대에 報告하니 잠시 뒤에는 105mm 곡사포탄이 Pho Dong(2)와 그 南쪽 △2 一帶에 炸裂하였다. 이윽고 중대장은 第2隊를 이끌고 Go Boi에 먼저 들어가자 第1隊를 赴援키 위하여 화기소대를 急派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交戰이 끝난 다음이었으므로 곧 返轉시키고 再編에 들어갔다.

(나) 제2중대(장, 李滿振 대위)는 右一線에 제1소대를, 左一線에 제2소대를 散開하고 제3소대를 支援소대로하여 目標 “7”(An Hoa)을 攻擊하는데 마을 주변이 온통 가시나무와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어 左一線소대의 前進이 지연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가 보조를 맞추지 못한 地形的인 難點을 감안하여 目標 8을 우회한 다음 目標 9로 直衝케 하였으며 支援隊인 제3소대에서 2개 분대를 뽑아 Luat Binh(목포 “12” : 敵의 예상潛據地) 入口의 寺刹로부터 △5사이를 遮斷(태백산맥)케 하였다. 이르말미암아 우회한 제2소대는 평탄한 農耕地를 통과하여 計劃보다 30분이나 먼저 目標 9(Nho Lam)에 들어갔으므로 지대대의 敵이 퇴각하거나 防禦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않고 奇襲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가 되었다. 즉 1개 분대 규모의 VC이 退却을 서두르고있는 듯 할때에 제2소대가 南東쪽으로부터 闖入한 것이다. 이에 당황한 敵은 抵抗할 틈도없이 亂射하면서 Song Ngang(江)으로 물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好機를 看破한 소대장 金安勝 소위는 이들을 놓칠세라 꼬리를 물고 急追하였다.

그러나 쥐도 進退兩難이면 고양이를 문다는 격으로 Song Ngang에서 발이 묶인 敵은 주변의 雜木을 방패삼아 소대를 迎擊하려하였다. 소대장은 즉시 제2분대를 右로, 제1분대를 左로 우회시키고 제3분대를 散開한 다음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갑자기 江 北쪽으로부터 기관총으로 武裝한 새로운 VC들의 鐵雨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들의 發惡에도 아랑곳 없이 敵陣에 뛰어들어 닥치는대로 때려잡는 가운데 소대장 金소위는 반항하는 分子들을 태권도로 쳐 소총을 빼앗고 捕虜로 잡았으며 이때에 등뒤에서 소대장을 狙擊하려는 다른 VC을 金敬一 상병이 덮쳐 刺殺하는가하면 朴勳錫 하사는 수류탄을 던지려는 凶徒를 紫電一閃으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소대는 여기에서 遺棄屍體 5具를 確認하



狀況圖 제26호 제2중대 攻擊



고 1명을 俘獲하였으며 CAR소총 2정과 수류탄 5발 및 소총실탄 94발을 노획하였으나 병사 2명이 刺傷을 입는 損失도 있었다. 한편 뒤늦게 現地에 도착한 중대장 李滿振 대위는 交戰 地에 들어서자마자 江北쪽의 VC들을 制壓하면서 제2소대를 掩護하다가 該소대가 地帶內의 VC을 擊滅하자 곧 대대에 航爆을 要請함과 동시에 退却을 가장하여 目標 8로 물러섰다.

한편 이러한 報告를 받은 대대장 襲貞信(改名:貞道) 중령은 즉시 대대에 과견된 美전방 공중통제관(FAC)에게 항공支援을 요청한 바 急遽출격한 F-4D전폭기 3대가 15분동안 Song Ngang(江) 一帶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중대는 航爆의 餘韻이 가시기도 前에 공격을 再開하여 저항하는 殘敵 2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과 同실탄 20발을 노획하였다. 잠시뒤 중대장 李대위는 제3중대와 連繫할 時間이 늦었음을 깨닫고 探索을 强行 끝에 目標 10, 11을 占領하자 곧 제3중대를 右로 인접케한 後에 最終목표인 Luat Binh을 攻擊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지대내의 VC들도 航爆으로 말미암아 我軍의 공격을 看破하였는지 차단지역 “태백산맥” 左端 △5 방향으로 退却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곧 이들을 追擊하는 한편 차단부대

로 하여금 이를 制壓케 하였는데 射擊에 間斷이 생겨 遺棄屍體 1具만 내게하였을 뿐 그들의 主力은 Luong Loc으로 退散하고 말았다. 뒤늦게 포병 105mm 곡사포와 중화기중대의 81mm 박격포가 砲門을 열었으나 그들은 이미 退却한 다음이었으므로 중대는 차단부대를 復歸시키고 Luong Quang을 지나 集結地로 移動한 연후에 Huu Thanh을 中心으로 四周警戒에 들어갔다.

(다) 제3중대(장, 張世東 대위)는 07.00에 제2소대의 2개분대로 하여금 目標 “17”의 南쪽 Binh Lam을 차단(차단선 “장백산맥”)케하고 곧 Song Am Phu(江) 上流인 Song Tan An(江)을 渡河하자 목표 “14”를 占領한 다음 제501번도로를 橫斷하는데 前方 150m 떨어진 사탕수수밭으로부터 銃擊을 받았다. 이에 중대장 張世東 대위는 제1소대장에게 攻擊을 號令하는 동시에 제2소대(-)로써 이를 掩護케 하고 제3소대로는 사탕수수밭 右側에 있는 寺刹에서 敵의 退路를 차단케 하였다.

제1소대장 李永雄 소위는 수수밭에 뛰어들기는 하였으나 수수의 키가 2m가 넘어 四方을 분간키 어려운지라 我軍間의 相擊이 있을것을 우려한 나머지 『全員 현지에 엎드려라. 움직이는 者는 무조건 射殺하라.』고 호령하였다. 이에 소대원들은 現地에서 俯伏한 채 四方을 응시하는데 이때 李大秀 일병은 바람에 나부끼듯 수수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怪漢이 기어가는 것을 目擊하고 조준사격으로 사살하였다. 잠시후 敵의 潛動이 없음을 確認한 소대장은 『저들이 아군의 행동을 간파하였는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하자 즉시 隊員을 뒤로(제2소대 방향) 빼낸 다음 때마침 부는 南東風(海風)을 이용하여 火攻기로 하였다. 곧이어 VC 2명이 火焰에 못이겨 Van Quang 앞 河川으로 뛰어드는 즉시 1명을 射殺하였는데 이 者는 비밀문서 주머니와 수류탄 2발 및 방독면을 휴대하고 있었다.

目標 “15”를 席卷한 중대는 제2중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該중대와 北쪽으로 連繫하자 곧 대대 主目標인 “12, 16”을 攻擊하였는데 여기에는 敵이 潛伏한 痕跡이 있고 또 제2중대가 VC를 捕捉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주변에 산개하여 埋伏하였다. 15.00에 중대는 Song Am Phu(江)를 넘어 차단지역 “장백산맥”을 要扼中인 제2소대의 2개분대와 합세한 다음 Tu Thuy를 돌아 대대전술지휘소로 복귀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대대는 이 戰鬪가 끝난 다음 Song Ngang(江)까지 전술책임지역을 擴大하고 Nho Lam에 이르는 區

間에 夜間에 복조를 배치하여 敵을 擊滅하였다. 한편 전투간에 노획한 문서에는 Luat Binh, Van Quang 및 Tan Dien의 VC 간부명단과 Tuy Phuoc 郡廳 및 경찰에 뿌리박고 있는 그들의 細胞명단이 수록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곧 該當관청에 통보하여 VC의 下部조직을 뿌리뽑게 하였다. 그뒤 대대는 이 전투의 결과와 VC의 文書를 越南 제22사단에 통보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요청에 따라 1일 7일에는 연대의 一員으로 「飛虎 5호 작전」에 참가하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

구분 대별	戰 果						損 失	비 고
	사 살	포 로	노 획				전 상	
			개인화기	수류탄	병독면	소총실탄		
제 1 중대	2			2			1/	장교/사병
제 2 중대	10	1	3	7	1	124	/3	
제 3 중대	2		1	2	1	6		
합 계	14	1	4	11	2	130	1/3	

### § 戰 訓

「飛虎 3號 戰鬪」의 綜合講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 2 중대는 接敵이 이루어지기 前에 1개 소대를 신속히 다음 目標로 이동시킴으로써 奇襲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2. 차단부대는 훈련이 미숙하여 VC의 退却을 막지 못하였다.
3. 보병부대의 攻擊이 지연될때를 對備한 포병 및 航空폭격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단부대는 退却하는 무리에게 銃擊만 加하였을 뿐 支援火力을 활용하지 않았다.

## 8. 飛虎 5號 作戰 (1966년 1월 7일)

참조: 상황도 제 27 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연대 수색중대 장 대위 宋 璇 用
首都사단	장 소장 蔡 命 新		포병 제60대대 장 중령 鄭 雲 深
(2) 參加部隊			(3) 協力部隊
제 1 연대	장 대령 金 珽 雲		越南 제22사단(-)
제 1 대대	장 중령 裴 貞 信 (改名: 貞道)		지휘용 “헬리콥터” 1대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L-19 정찰기 1대
		敵	軍
		VC, Z-50중대 一部	
		지방 VC	

### 나. 作戰 前의 概況

1월 3일 제1대대가 Go Boi일대에서 「비호 3호전투」를 展開하여 전술책임지역을 Song Ngang(江)까지 넓히고 VC의 細部조직과 越南軍내에 扶植하고 있는 세포명단이 수록된 문서를 노획하여 該當관청에 通報하였다. 한편 Go Boi경야 南쪽 Huynh Kim(1)에 駐屯한 越南 제22사단은 지금까지 Go Boi平野(An Nhon일대)에서 數次의 작전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近來에는 오히려 VC의 奇襲을 받고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때 「飛虎 3호戰鬪」가 종결됨과 동시에 VC의 문서를 접수하자 즉시 그들의 세포분자들을 逮捕하고 이 기회에 韓國軍의 힘을 빌어 Song Go Cham(江)以南의 平野지대를 수복하고자 사단에 연합작전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1월 4일, 사단장 蔡命新 소장은 이 요청을 수락하고 제 1연대에 명령하니 연대장은 즉시 관계참모를 越南 제22사단에 보내어 작전을 계획토록 하였지만, 1월 7일에는 韓·越연합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 나. 作戰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사단으로부터 1월 4일 16.00에 제1연대에 하달된 명령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Ⅰ. 敵情 : 생략

2. 越南軍은 제22사단을 主攻으로하여 제1번公路로부터 Quang Nghiep를 攻撃한다.
3. 사단은 1월 7일 海上 薄明初(BMNT)를 期하여 越南 제22사단과 聯습으로 An Nhon 平野에 駐屯하는 VC를 擊滅코자 한다.
4. 제1연대는 Song Am Phu(江)로부터 北쪽으로 Song Ngang(江)을 차단하고 그로부터 Quang Nghiep를 目標로 攻擊하되 통제선에 到着하는 즉시 現지에 잠복하여 目標로부터 되각하는 敵을 격멸하라.
5. 사단 전술지휘소는 現地に 위치한다.』

1월 5일 13.00에 연대장 金珽璽 대령은 출동부대를 제1, 제2 兩대대로 定하고 各급 지휘관과 關係참모를 소집하여 명령하기를 『제1대대는 Song Am Phu(江)邊 Tan My로부터 Luat Binh 까지, 제2대대는 그로부터 Song Ngang(江)까지에 전개한 다음 1월 7일 海上 薄明初(BMNT)를 期하여 일제히 攻擊하라. Quang Nghiep를 占領하는 즉시 現지에 잠복하여 연막을 올리고 越南 제22사단에 그 임무를 인계하라. 포병 제60대대 제1포대가 제1대대를, 同제3포대는 제2대대를 직접 지원한다. 연대 전술지휘소는 攻擊개시와 동시에 Nui Ky Son(山) 北東쪽 무명高地(海拔 70m)에 개설한다.』라고 하였다. 1월 6일(D-1) 13.00에 연대장은 제2대대를 Song Tan An(江) 邊에 集結시키는 한편 연대수색중대를 제1대대에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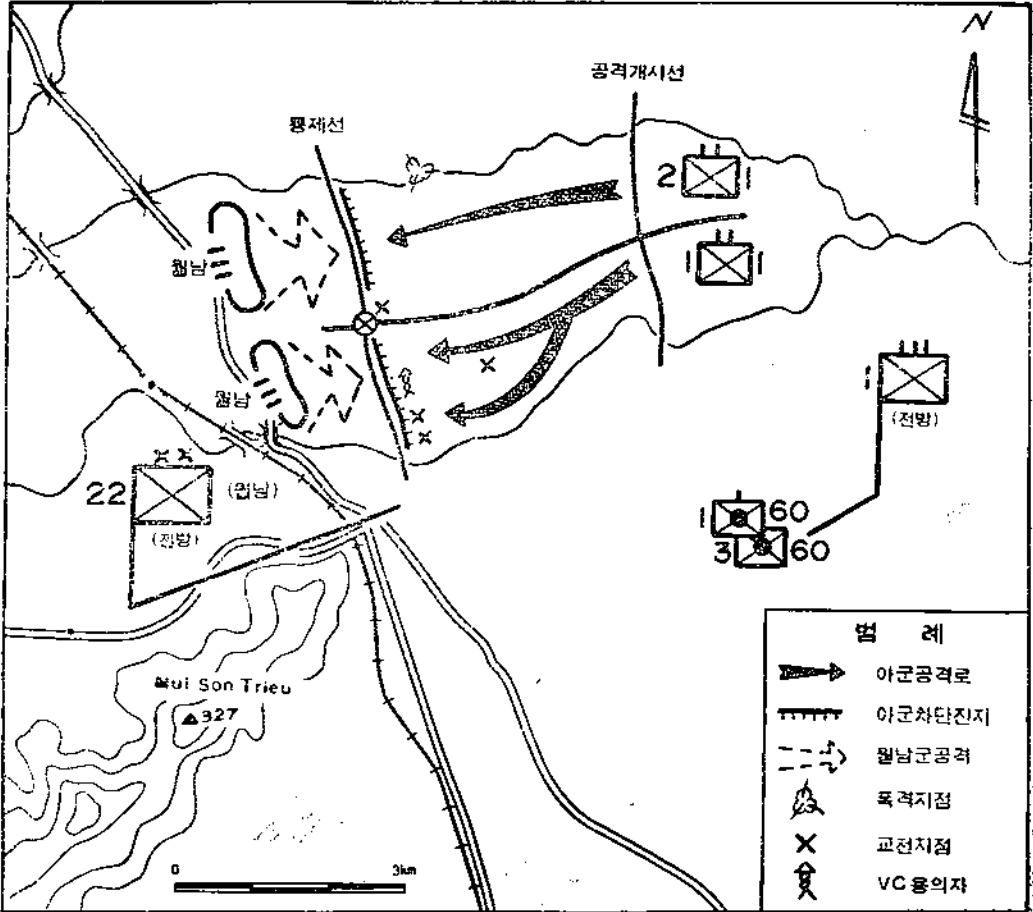
### (2) 作戰 實施

D-1(6일) 20.00에 제1대대는 계획된 지역으로 移動하자 제1중대를 南, 제2중대와 배속된 연대 수색중대를 中央, 그리고 제3중대를 北으로 展開하여 제2대대와 인접케 하였으며 또 제2대대는 그로부터 Hoa Le(2)까지에 4개중대를 전개하자 徹夜하면서 黎明을 기다렸다.

#### 7일(D일)

(가) 제1대대(장, 裴貞信 중령)는 海上 薄明初(BMNT)에 Phuc Thien으로 攻擊을 개시하였는데 10.00가 되도록 接敵이 없더니 Dinh Thien(2) 南쪽 湖水에 이르러 제2중대가 1개분대 규모의 VC과 遭遇하였다. 이에 중대장 李滿振 대위는 즉시 선제공격을 加하여 遺棄屍體 2具를 내게하고 Tri Thien으로 追擊하는데 VC들은 그들의 退路上에 越南軍이 잠복하고 있음을 알았는지 갑자기 Song Say(江 : Song Am Phu上流) 方向으로 轉換하므로 계

狀況圖 제27호 飛虎 5號 作戰



1중대에 이를 통보하였다. 한편 Song Tan Am(江)을 거슬러 Song Say(江)로 전진하던 제 1중대(장, 李學健 대위)의 제2소대장 鄭壘田 소위는 이러한 통보에 따라 Loc Ngai와 Tri Thien사이를 차단하자마자 1개분대를 우회시켜 潰走하는 무리들을 包圍하였다. 이때 그들은 소총과 수류탄을 亂射하면서 突破口를 찾으려하므로 鐵火를 퍼부어 3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과 수류탄 2발을 노획하였다.

12.00에 대대는 Phuoc Thien 入口로 전진하였는데 이때 야자수숲 밑에 신원未詳의 300여 명이 越南軍지역을 바라보고 있다가 我軍이 접근하는 것을 보자 10여명씩 무리를 지어 Tri Thien과 北쪽의 △4方向으로 逃避하였다. 이에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은 곧 南쪽으로 우회한 제1, 제2 兩중대로 하여금 그들의 退路를 차단하는 즉시 모두 押送케한 바 逮捕된 VC 용의자의 수는 제 1중대가 95명, 제 2중대가 85명으로 도합 180명이나 되었다.

끝이어 대대는 △4로 敗退한 무리들을 제2대대에 맡기고 目標에 도착하였다는 신호로 연막을 올리는데 이때 越南 제22사단측에서 떠들석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자욱하므로 이를 확인한 결과 越南軍은 現 埋伏地에서 밤을 지어 分配中이라고 하였다.

(나)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는 右一線에 제6중대를, 中央에 제7중대를, 그리고 左一線에 제5중대를 展開하고 중화기중대는 戰況의 진전에 따라 移動지원케한 다음 공격을 개시하였다. An Cuu에 이르렀을 때 一羣의 VC이 Song Go Cham(江: Song Ngang 上流)을 건너 退却하는 것을 目擊하자 즉시 81mm 박격포를 集中하는 한편 포병火力을 요청하여 그들을 제압하였다. 그러나 Quang Nghiep에 이르렀을 때 제1대대로부터 「신원 未詳의 무리가 배를 지어 △4 方向으로 退走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즉시 該지역의 北쪽을 공격중인 제5중대의 方向을 轉換시켜 Nghiep河川을 遮斷하고 용의자 114명을 체포한 다음 目標에 이르러 연막을 피웠다.

한편 연대장 金瑛震 대령은 主攻인 越南 제22사단이 전투에 임하지 않고 開闊地에 모여 앉아 식사를 분배한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該부대에 어찌된 영문인가를 물었으나 越南 제22사단은 좀처럼 움직이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기를 피워 我軍의 연막과 분간키 어려운 混亂을 招來케하고 또 지대내의 敵은 越南軍側의 騷亂으로 말미암아 이미 退却하였을 것이라고 判斷되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이 작전을 마무리 짓기로 결심하고 全兵力을 Nui Ky Son(山)과 Go Boi로 集結시켰다.

#### 다. 作戰 後의 概況

이 작전은 최초 계획당시부터 越南 제22사단 內部에 扶植된 VC의 첩자에게 諜報가 누설되어 지대내의 敵에게 퇴각할 여유를 주었음이 전투중에 체포된 VC용의자들의 陳述로 알게 되었다. 또 작전간에 아군이 VC을 目標로 몰아넣으면 그때부터 越南軍이 이를 猛打하기로 되어있으나 막상 目標에 도착한 아군은 그들이 불을 피우고 騷亂하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는 VC들에게 友軍이 작전을 전개하였으니 退却하라고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我軍은 「越南軍과의 협조된 작전이란 緣木求魚와 같은格으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美軍의 말을 실제로 體驗한 것이다.

#### 綜合 戰果(損失없음)

사	살	VC용의자	개인화기	수류탄
5		294	1	5

## § 研究

## 越南軍과의 聯合作戰에 대하여

韓國軍이 파월한 以來, 美軍들로부터 귀에 익도록 들은말이 「越南軍과 협조된 작전이나 연합작전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語句다. 이것은 美軍들이 越南軍과 협조된 작전과 연합작전을 전개할 때 마다 보고, 느끼고, 실제로 體驗한 것을 종합한 결과에서 나온 말이다.

韓·越間에 있어서는 이번의 「飛虎 5호 作戰」이 연합작전의 嚆矢인데 그 意義가 있다. 그러나 이 작전의 결과는 역시 前者와 다를 바 없었다. 즉, 최초계획은 「제1연대가 戰鬪지대내에 分散된 VC를 통제선까지 밀고 들어가 그들을 目標로 몰아넣으면 때를 놓치지 않고 越南 제22사단이 목표를 強打한다. 이때 연대는 통제선에 埋伏하였다가 退走하는 VC를 擊滅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전투는 어찌되었는가, 我軍이 攻擊개시선에서부터 통제선까지 14개의 敵性부락을 攻擊하였

는때도 敵의 抵抗은 없었고 그들은 이미 退却 혹은 退却中에 있었다. 또 越南 제22사단은 명실공히 主攻일에도 불구하고 기도비닉을 무시한채 騷亂을 피웠으니 이는 작전전모가 누설되었음을 立證하는 것이며 전투는 이때 이미 종결된 것이다.

제1대대가 「飛虎 3호 戰鬪」에서 VC의 하부조직과 越南 行政 당국 및 軍, 警에 뿌리박고있는 세포조직의 명단을 노획하여 越南 제22사단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越南軍내부에 痼疾화된 VC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있어 모든 諜報가 사전에 漏泄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韓·越연합작전을 계획할 때에는 上級부대 지휘관과 관계참모線에서만 取扱하되 그 外의 모든 越南軍에게는 保安유지를 하는 것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爲한 急先務라고 보는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1대대장 裴 貞 信(改名 貞道) 증령

(1978년 4월 6일 제26사단장실에서 : 당시 소장)

Go Boi에 들어간 以來 체험한 바에 의하면 An Nhon 平野(Go Boi)에 거주하는 住民들은 거의가 VC의 위압감과 殘惡性에 떨고 있었다. 특히 越南軍이 이 지역에서 收復作戰을 전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때부터 지역주민들은 本意전 아니건 間에 일단 VC의 말에 순종치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我軍이 進駐하였을 때 그들은 VC이 숨어 있는데도 報復이 두려워 無條件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信賴性이 희박한 越南軍과 연합작전을 전

개하였다는 것은 어떤 面에서는 첫 經驗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結果적으로는 An Nhon 平野에 潛動하는 VC들을 하여금 退避 혹은 隱身하는 方法을 訓練시켜 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虛無한 작전이었다고 본다. 이 作戰을 通하여 我軍은 越南軍을 과소 評價하는 美軍의 底意를 알 수 있었고 또 본인은 그들이 제공하는 諜報 등은 어느정도 털어버린 뒤 받아들이는 式으로 그 信賴度를 낮추었다.



## 9. 飛虎 6 號 作戰 (1966년 1월 9일 부터 1966년 1월 10일 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13 호  
상 황 도 제 28~29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제 7 중대 장 대위 姜 翊 吉	
首都사단 장 소장 蔡 命 新		연대수색중대 1개소대(제 6 중대배속)	
(2) 參加部隊		사단공병대대 제 3 중대 2개소대(연대 배속)	
제 1 연대 장 대령 金 斑 雲		포병제 60 대대 장 중령 鄭 雲 深	
(1월 10일부 준장으로 승진)		제 1 포대 장 대위 鄭 基 昌	
제 1 대대 장 중령 裴 貞 信		제 2 포대 장 대위 金 相 賢	
(改名: 貞道)		제 3 포대 장 대위 韓 濟 龍	
제 1 중대 장 대위 李 學 健		(3) 支援部隊	
제 2 중대 장 대위 李 滿 振		제 235 수송자동차대대 2개 중대	
제 3 중대 장 대위 張 世 東		(4) 協力部隊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美 제 30 포병단 제 1 대대 C 포대	
제 5 중대 장 대위 朴 東 遠		美 “헬리콥터” 18대	
제 6 중대 장 대위 丁 萬 吉			
	敵		軍
Binh Dinh省 VC E-2B 대대		VC, Tay Son 중대	
VC, C-35 중대		VC, 단대호미상 1개 중대	
VC, E-50 독립 중대			

### 나. 作戰 前의 概況

이 작전이 전개된 Go Boi 평야(Qui Nhon 북쪽 20km)는 Binh Dinh省 국창지대를 西에서 東으로 貫流

하는 Song Bing Hoa(江) 하류가 三角洲(Delta)를 이루는 低地帶이다. 여기에는 該江의 支流인 Song Ong Su(江)와 Song Dai An(江) 및 Song Am Phu(江)의 3개 河川이 같은 방향으로 曲流하면서 Dam Thi Nai(Qui Nhon灣)로 흐르고 그 사이사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細流가 거미줄같이 얽혀있다. 이들 하천은 河幅이 고루져 못하고 瀾流인 까닭에 수심을 측정하기 어렵고 流速마저 不定하여 越南의 三角洲를 흐르는 여느 하천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함하여 열대성 식물에 둘러싸인 마을들이 點在한다.

저대내의 北東쪽에는 Nui Ma Ha(山) (海拔 254m) 및 Nui Yan(山) (△78)이 四周를 眺望한다. 또 작전지역 4km北쪽부터 北東쪽으로 △609—Hon Heo(山) (海拔 664m)—Hon Thy(山)—Nui Ba(山) (標高 874m)의 連嶺이 이어지고 西쪽에는 제1번도로가 南北으로 뻗고 있으며 제442번도로(等外路)가 Song Am Phu(江) 南岸의 Kim Song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작전저대내(東西 16km, 南北 10km)에는 겨우 人馬가 왕래할 수 있는 細路밖에 없으며 우마차가 다닐만한 도로는 전혀없다.

이와같이 地形은 비록 개활하나 泥濘과 水田 및 늪과 小流가 점철된 탓으로 도보에도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河川연변에 산재한 聚落 주변과 뚝에는 敵이 교묘하게 위장한 진지를 마련하여 潛動하는데다가 北쪽 峯嶺일대에 본거지를 둔 그들의 主力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런사유로 「佛印戰爭」이래 사단이 현지에 도착하여 이 부근일대에서 剿滅행동을 시작하기까지의 20여년 동안에는 友軍이 발을 붙이지 못한 곳으로서 Binh Dinh省 VC이 Qui Nhon—圖을 攻略하는 難攻不落의 전초소굴로서 그 惡名이 널리 알려진 VC들의 鐵鑿城이다. 여기에는 該省 VC위원회 산하의 C-35중대와 E-50중대 및 Tay Son중대 그리고 단대호미상의 1개중대등 모두 4개중대가 潛據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은 Qui Nhon을 비롯한 인접일대를 橫行하면서 軍鎗소재지 이하의 間里를 송두리채 장악하고 同省 VC의 主力인 E-2B대대가 이를 增援하고 있으나 아직은 越盟軍이 여기에 투입된 徵候는 없었다.

이런까닭에 該省 주민들의 生業의 大本인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Qui Nhon의 橋頭堡와 여기에 설치된 연합군의 병참기지를 保全하며 나아가 중부 내륙에서 활동중인 僚軍의 병참선인 제1번, 제19번 兩도로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려면 소재의 敵을 覆滅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까닭에 사단이 여기에 力點을 두게된 것이다. 이리하여 본작전을 전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셋별전투」를 始初로 여러번 該지역 주변에서 중대 및 대대급 전투를 벌인바 VC의 奸巧한 술수와 지형의 특징 및 雨季의 기상이 작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本據地를 끝내 유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遁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에서는 2개대대규모를 동원하는 이 작전을 연대로 하여금 감행케 한 것이다.

## 다. 作戰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연대장 金瓊雲 대령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이 작전을 계획한바, 연대가 이 지역에 첫발을 들여놓은 「셋별전투(65. 12. 9~21)」를 嚆矢로 「飛虎 1, 2호」를 연이어 전개하였으며 또

이에 뒤이어 이 해에 접어들자 이미 계획한바에 따라 전개한 「飛虎 3, 5호」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敵術과 兵要地誌를 파악하는데에 그 主眼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선착의 포석을 끝마친 다음 이 작전에서는 該지역에 번갈아 투입한 제1, 제2 兩대대를 동시에 단일 전투지대에 동원하는 연대규모 작전을 執行하되 敵地 깊숙히 楔入하여 그들의 根據地를 남김없이 뽑아버리기로 다짐하였다.

이에따라 관계기관에서 입수한 첩보와 예하부대가 실전을 通하여 얻은 戰訓을 분석하는 한편, 이해 1월 3일에는 관계부대에 준비명령을 하달한바, 이날 제1대대는 작전지대 南쪽에있는 Song Am Phu(江) 南쪽 5km 일대에서 「飛虎 3호戰團」를 전개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사단이 현지에 도착한 뒤 「飛虎 5호 작전」에 이어 두번째로 벌이는 연대규모 작전으로서 前者는 이 작전의 전초전인 만큼 그 成敗與否가 곧 韓國軍의 力량을 가늠하는 尺度가되는 매우 중요한 一戰이었다. 그러므로 연대장은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方策을 案出코자 하였는데 계획하는 단계에서 연대가 그동안 전개한 대소전투의 경과상황과 推移를 살핀 결과 대개 한 전투를 끝마친 뒤 4~7일간에 걸쳐 부대를 정비한 연후에 다음 작전으로 移行한 탓으로 VC들이 我軍의 이와같은 작전주기를 눈치채고 이에 대비하여 이른바 「敵進我退」의 “게릴라”戰法으로 遊動하였으므로 그들의 主力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연대장은 이와같은 흐름을 참작끝에 미리 계획한대로 「飛虎 5호 작전(66.1.7)」을 치른 이틀 뒤인 이날 9일에 이 작전을 斷行한다면 敵이 我軍의 작전시기를 짐작하여 그것에 대비하는 기간을 逆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能히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요지 다음과같은 지도복안을 세워 관계참모에게 勅령하였다.

- 『1. 예상되는 敵의 退路와 그들을 增援할것으로 推測되는 접근로를 동시에 차단하기 위하여 증강된 1개중대규모를 작전지대 北쪽 깊숙히 枋중기동으로 투입한다.
2. 2개대대를 도보로 進擊케하되 1개대대로서 右一線에서 南쪽부터 北쪽으로 進出케하고, 1개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西쪽에서 東쪽으로 急衝케하여 각각 최종목표를 탈취한 연후에 反轉하여 반복하면서 탐색토록 한다.
3. 작전간 接敵하는 즉시 포위망을 형성하여 당면의 敵을 진멸하는데 力點을 둔다.
4. 기습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작전지역 경찰은 보류한다.
5. 작전은 1일만에 끝마치되 상황에 따라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와같은 연대장의 腹案을 토대로 작전명령이 완성되고 D-1일(8일)에는 각중대급 이상 지휘관과 관계참모가 참석한 작전회의 석상에서 이를 하달하였는데 그骨子は 다음과 같다.

『1. Binh Dinh省 VC위원회 예하의 증강된 1개대규모(4개중대)가 Go Boi일대를 위협하면서 연합군과 我軍기지에 對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2. 작전간에 포병제60대대가 연대를 직접지원하며 美 제30포병단 제1대대 C포대가 이를 화력지원한다.

3. 제235수송자동차대대가 병력수송을 지원한다.

4. 사단공병대대 제3중대의 2개소대가 연대에 배속된다.

5. 연대는 1월 9일 黎明을 期하여 Go Boi—Chanh Hoi—Hung Tri—Binh An—An Loi(1)—Phu Thanh(2)에 據點을 둔 敵을 擊滅하러 한다.

6. 이 작전은 1일간(당일)에 끝나지되 상황진전에 따라 이를 연기하며 증강된 1개중대로서 예상되는 通路를 차단하고 제1, 제2兩대대를 左右로 전개하여 신속한 進擊과 반복된 탐색으로 지대내에 도사린 敵을 포착하는데도 剔抉하는 한편, 그들의 潛伏거점은 이를 도려내는 원칙에 徹한다.

7. 제1대대

가. 배속: 사단공병대대 제3중대의 1개소대.

나. Song Am Phu(江)를 도하하는 즉시 목표 “111”(Tu Cung)—“112”(Nho Lam)—“113”(Pho Dong 1)—“114”(Duong Thanh 2)—“115”(Long Hau)—“116”(Chanh Hoi)을 차례로 석권하라.

8. 제2대대

가. 배속: 연대수색중대 1개소대, 사단공병대대 제3중대의 1개소대.

나. 증강된 1개중대를 공중기동으로 △78(Nui Yanli)에 投入하여 Song Dai An(江)을 따라 進擊하면서 예상되는 敵의 退却路를 차단하라.

다. 대대(-)는 공격대기지역으로 차량기동하여 목표 “121”(Phu Thanh 2)—“122”(Chanh Man)—“123”(An Loi 1)—“124”(Liem Loi)—“125”(Binh An)—“126”(Hung Tri)을 석권하라.

9. 제3대대 및 연대수색중대(-)는 예비로서 依命 전투지역에 투입될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라.

10. 공격준비사격은 H-30분부터 H-5분간에 실시하며 火力의 우선권은 제2대대에 있다.

11. 협조지시

가. 작대대는 급속도하 장비를 준비하라.

나. 신호규정에 依한 각종신호탄을 충분히 휴대하라.

다. 작대대는 작전이 연기되었을때를 대비하여 담승지역(Huyng Kim 1)에 추진보급소를 설치 운용함을 諒한다.

라. 인접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라.

12. 작전간에 연대전술지휘소는 Huyng Kim(1)에 개설했다.』

끝이여 세부적인 토의가 끝나자 연대장은 이자리에 모인 각급지휘관과 관계참모에게 이 르기를 『본작전의 成敗는 곧 奇襲의 달성여부에 달렸으니 電擊的인 진격으로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接敵하면 지체없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퇴주하지 못하도록 포위망을 형성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目標을 탐색할때에는 1개소대가 누릴때 나머지 소대들은 상황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를 우회하여 包圍하거나 甑은 곧바로 다음 마을(目標)로 指向한다면 能히 신속한 進격으로 機先을 제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對峙한 무리들에게 이에 대비하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않고 強打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급지휘관은 지금까지 치른 여러차례의 전투에서 겪은 경험과 여기에서 얻은 戰訓을 되새겨 VC들의 虛를 急衝하되 그들의 奸惡한 술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罅隙을 찾아 이를 逆으로 利用하는데 專力하라.』고 본작전의 主眼을 밝히면서 기필코 당면의 敵을 擊碎하고자 말겠다는 그의 굳은 決意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An Nhon군청에서 제보된 첩보에 依하던 「당일(8일) 敵 1개대대규모가 작전지역으로 침투하였는데 그들은 我軍에 對한 공격을 획책하고 있는듯 하다.」라고하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정보관계자들은 前例에 비주어 越南側에서 입수한 첩보의 신빙성이 희박한 사실을 참작하여 이 첩보도 半信半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첩보가 없었기 때문에 연대장은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관계부대에 전파하되 작전계획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관계부대는 준비병력이 하달된 날(3일)부터 진행한 전투준비태세를 다시 한번 전정하고 배속부대의 부서와 구처관계를 재확인 한바, 「作戰經過의 梗概」를 記述하기에 앞서 전투경과 상황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 제2 兩대대 및 지원로병의 조치사항을 살펴가로 한다.

제1대대 : 대대장 裴貞信(改名 : 貞道) 중령은 언대에서 주어진 목표와 작전지역(7×7km)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책임지대내에 있는 河川이 모두가 西쪽에서 東쪽으로 흐르는데 대대의 진출경로는 이를 가로질러 北進하다가 최종목표를 탈취하는 즉시 反轉하게 되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渡河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그는 전날 끝마친 「飛虎 5호 작전」의 戰塵을 미처 털어버릴 사이도 없이 다음날의 전투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작전계획을 다시 다듬었다. 이리하여 右一線중대(제3중대)에 7개의 목표(“1”~“6” 및 “타”)를 할당하고 左一線중대(제2중대)에는 15개(목표 “가”~“거”)를 배당한바, 兩중대로 하여금 지대 北端에 있는 Long Hau(목표 “타”)에서 合流한 다음 여기에서 南쪽으로 되돌아 탐색토록하는 한편 나머지 1개중대(제1중대)를 지대 중심부(Tu Cung)부근까지 進격하였을 때에 대대에 비로서 현지에 控置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키로 하였다. 이에따라 공격중대는 大小 13개의 河川을 건너게 되는 까닭에 신속한 進격에 依한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급속도하 장비를 갖추는것이 先決문제였다. 이와동시에 공격개시선이 Song Am Phu(江)를 따라 설정되었으므로 공격初動의 銳氣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투개시전에 所命된 地線의 교두보를 확

보하여 소제의 敵을 제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보고 제2중대에서는 1개소대를 뽑아 이날밤에 Kim Xuyen(목표 “가” : Song Am Phu對岸 300m)으로 은밀히 침투시켜 철야 잠복케 하였다.

제2대대 : 대대장 李弼朝 중령 또한 전날 끝마친 「飛虎 5호 작전」의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제1대대와 地境線이 구획된 Tan Dien--Phu Giao(1)까지의 10km의 종심과 南北으로 8km의 幅을 가진 넓은 지대인데다가 증강된 1개중대로써 지대 北쪽 一角의 차단을 兼하게 되므로 연대 主攻으로서 그의 전투지도의 결과가 실로 본작전의 大勢를 관가늠하게 되는 만큼 주어진 책임의 重大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대장은 當面한 敵을 一網打盡하는 策案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그의 지도부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아직까지 我軍의 足跡이 들어가지 못한 지대 北半部에 제5중대(左一線)를, 그 南쪽에 제7중대를 전개하고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의 1개소대로써 증강된 제6중대를 △78(Nui Yan)에 공중기등으로 投入한 다음 Song Dai An(江)일대를 차단한다.

2. 제5중대는 목표 “1”(Phu Thanh 2)~同“6”(Binh an)을 追躡하다가 同“7”(Vinh Dinh)~同“9”(Thanh Ly)로 轉進한 다음 의명 목표 “10”(An Loi 2)~同“12”(An Loi 1)를 탐색한다.

특히 공격 劈頭에 Ban Dai 江南岸을 따라 빠른 속도로 진격하면서 該江을 건너 北쪽으로 退却할것이 예상되는 所在의 敵을 제압하고 아울러 제6중대가 △78에 착륙할 무렵에는 목표 “3”(Chanh Man)까지 진출함으로써 同중대와 進出路 사이에 虛點을 드러냄이 없이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이 必要하다.

3. 제7중대는 목표 “21”(Thuan Thai)~同“26”(Dinh Thuan)을 석권하면서 대대포위망의 一角을 형성하며 Dinh Thuan에서 제5중대와 서로 連繫하여 목표 “27”(Tau Hoa)~同“28”(Kim Tai)을 거친 연후에 앞서 탐색한 목표 “23”~“21”을 逆順으로 다시 누빈다.

4. 제6중대(+)는 △78에 뛰어내리는 즉시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의 1개소대로써 同高地를 확보하고 목표 “13”(Dai Loi 2)~同“18”(Hoa Dong)을 높은 연후에 進路를 바꾸어 목표 “19”(Hoa Tay)~同“20”(An Nhung)을 탐색한다. 여기서부터는 제5중대가 이미 거친 목표 “4”~同“1”을 반복 탐색하면서 北쪽으로부터 예상되는 敵의 增援에 대비한다.

작전간에 △78를 점령한 1개소대는 의명 대대예비가 된다.

5. 특히 처음으로 2개대대가 협조된 공격을 펴는 연대작전인 것을 잊지 말고 地境線에서의 사격 통제와 인접부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을 꾀한다.

6. 예비대 투입을 위한 “렐리콧터”를 D일 16.30까지 탐승지역(Huynh Kim)에 대기시킨다.』

대대장은 이와같은 그의 腹案과 더불어 각중대장에게 전투간에 준용할 사항을 力說하기를 『進擊하다가 敵이 사격하던 얼드리지 말고 과감하게 突衝할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 그들이 저항하거나 布陣한 지역이 포착되면 작전계획에 구애받지 말고 서슴없이 이를 포위하는데 力點을 두라. 끝으로 각중대장은 대대의 일부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銘肝하고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함을 꾀하며 지

대내에는 비록 敵性이기는 하나 적지않은 非戰團 주민이 있을것이니 殺生有擇을 期하여 韓國軍의 人道정신을 그들로 하여금 실감케 하는데 힘쓰도록하라.』고 다짐함으로써 그의 臨戰소신을 밝히는 것이었다.

**火力支援部隊** : 연대를 직접지원하는 포병제60대대(장, 鄭雲深 중령)는 이날 계획한 바에 따라 제1포대(-)와 대대 사격지휘소(FDC)를 Huynh Kim(1)에 있는 野山(작전지역 南쪽 7km)으로 推進하고 한편으로 火力 增援부대인 美 제30포병단 제1대대 C포대와 標的에 對한 諸元을 서로 확인하였으며 또 나머지 2개포대는 현위치(포대기지)에서 다음날의 화력지원태세를 가다듬었다.

## (2) 作戰 實施

**1월 9일(D일)** : 이날은 맑고 기온이 최고 31°C에 바람도 잠잠하여 我軍이 공격하기에 알맞는 날씨인데다가 며칠간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河川의 水位도 정상 상태이므로 진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이 일대는 雨季에 비단 내리면 河川이 氾濫하는바, 지난번에 「飛虎 1호 작전(65. 12. 9)」을 전개하였을때에는 폭우로 말미암아 Go Boi평야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 허리까지 차는 濁流속에서 작전행동을 강행한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혹시 그와같은 前轍을 되풀이 하지않나 하는 염려스러운이 장병들의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았는데 이와같은 알맞는 날씨를 맞아 躍動하는 驍騎들의 長嘯는 벌써 遙岑을 風靡하듯 霸氣가 넘치고 있었다.

이윽고 06. 30, 화력지원부대가 일제히 砲門을 열어 계획된 목표의 地軸을 뒤흔드는 가운데 擡兵이 시작되니, 이 一戰이 파월 韓國軍에게 필승의 신념을 다짐할 수 있게하는 결정적인 契機가 되었다. 이날 연대는 右一線의 제1대대가 지대 東半部에서 北進하다가 07. 20부터 교전하게 되어 계획된 목표를 차례로 누비는 동안에 증강된 1개중대규모를 擊碎하고 그들의 단약고와 무기수리소를 覆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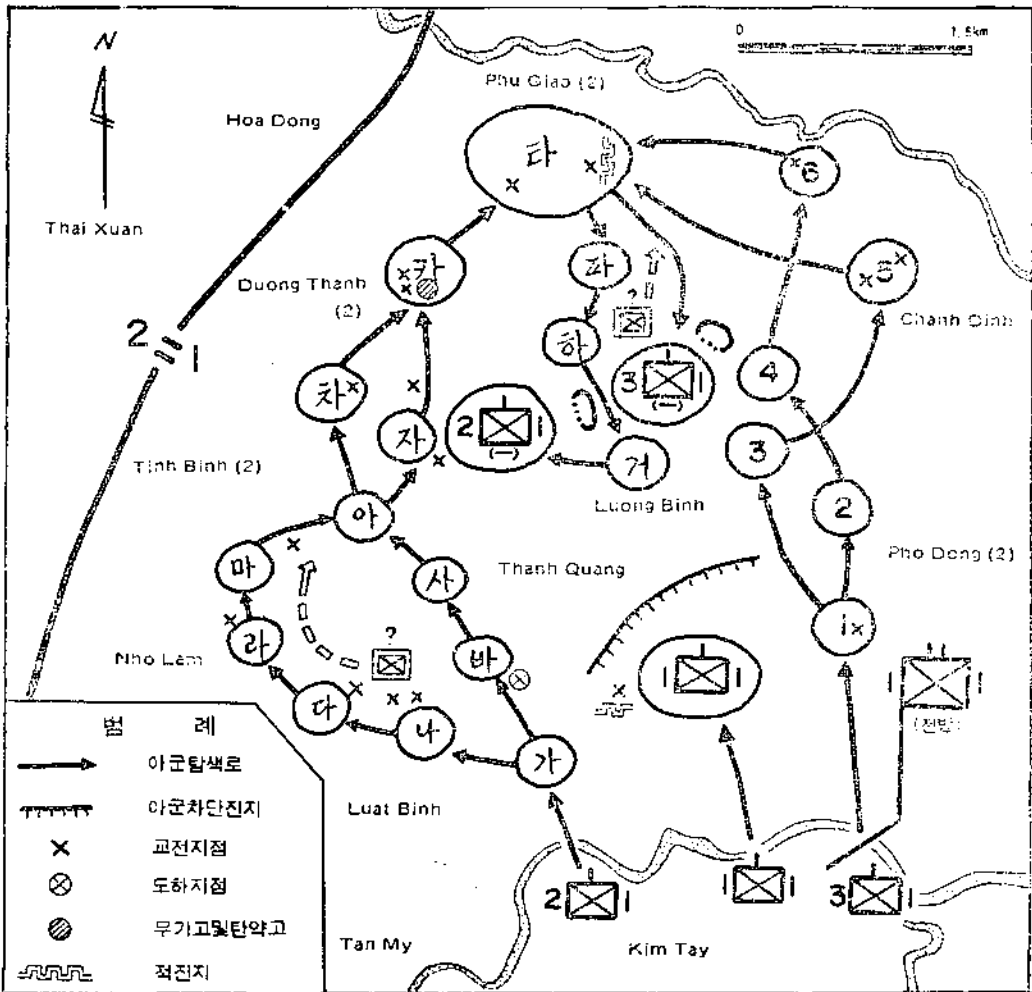
또 제2대대는 지대 北쪽에 증강된 1개중대를 공중기동으로 투입하는 동시에 主力인 제5, 제7兩중대가 東쪽으로 急進中 09. 50에 여러군데에 잠복한 敵과 충돌하는 즉시 이를 포위하여 激烈한 육박전끝에 1개대대규모를 殲滅하였다. 이러한 交鋒을 16. 00에 이르도록 계속한 연대는 모두 185명을 사살하고 47명을 俘獲하였으며 607명의 VC용의자를 적발한 반면 야군 또한 13명이 戰死하고 39명이 부상하는 손실이 있었다.

(가) 제1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는 이날 未明에 행동을 개시하여 05. 50에

Song Am Phu(江)南岸의 계획된 공격대기지역을 점령하였으며 대대전술 지휘소를 Kim Dong에 개설한바, 左右一線인 제2, 제3兩중대에는 연대에서 再配屬된 사단공병대 제3 중대 1개소대의 1개분대와 중화기중대(제4중대)의 경기관총소대 및 81mm박격포반을 각각 배속하였다. 곧이어 3개공격중대는 도하를 시작하였는데 이때에 제3중대(右一線)는 Pho Dong(목표 "1")을 탐색하고 左一線중대(제2중대)는 Kim Xuyen(목표 "가")을 거쳐 진격하였으며 또 제1중대는 지대 中央에서 Tung Giang을 向하여 躍進하였다.

1. 제2중대(장, 李滿振 대위)는 제1, 제3兩소대에 화기소대의 57mm무반동총 1개반을

狀況圖 제28호 D일 제1대대 戰鬥經過 狀況





각각 배속하여 左右一線으로 산개하였다. 이날 중대는 제1소대(右一線)로서 목표 “가”(Kim Xuyen)—同“바”—同“사”(Thanh Quang)를, 또 제3소대로서 목표 “나”(An Hoa 3)—同“다”—同“마”(Nho Lam)를 차례로 석권한 연후에 목표 “아”(Tinh Hoa)에서 兩소대가 습勢하며 여기에서 다시 右一線소대가 목표 “자”를 거쳐 同“차”(Loa Tung)를, 左一線소대로서 Loa Tuang을 직접 공격토록 하였다. 곧이어 목표 “카”(Duong Thang 2)와 同“타”(Long Hau)는 兩소대 병진으로 유린하고 여기에서 反轉하여 목표 “파”—同“하”(Kuong Binh)—同“기”(Luong Binh)는 1개소대가 한 목표를 탐색할 때 나머지 소대가 이를 우회하여 다음 목표를 탈취하는 방식을 取하기로 하였다. 한편, 전날밤 교두보를 확보키 위하여 Kim Xuyeg에서 철야한 제2소대를 지원소대로서 중대본부 및 화기소대(-)와 더불어 左一線소대 뒤를 후속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기지(Huu Thanh:Song Am Phu南岸)에서 곧바로 渡河한바, 제1소대는 Kim Xuyen에서 제2소대와 接觸한 다음 Thanh Quang으로 진출하다가 Song Ngang(江)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같은 시간에 제3소대는 An Hoa (3)을 거쳐 다음 목표(“다”)를 向하여 무릎까지 빠지는 水田을 踏破하면서 제3분대가 공동묘지에 다다르고 제1분대가 北쪽(右側方) 江쪽에 있는 독립기옥을 벗어나 풀밭에 발을 들여놓는데 3개방향으로부터 갑작스러운 敵의 총격이 시작되더니 점점 熾烈度를 더하여갔다. 이때 소대장 威德善 소위는 울타리에 몸을 가리고 중대장과 交通中이었는데 소대를 후속하던 중대본부와 화기소대(-)는 小路 三叉지점(소대 右후방 500m)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같이 情況이 급변하자 威소위는 掩蔽지점에서 벗어나 적정을 살피니 對峙한 부리들은 강변의 우거진 숲에 숨은채로 자동화기를 실세없이 퍼붓는데 소대가 산개한 일대는 평탄한 풀밭인데다가 차폐물이 전혀 없는탓으로 이미 여러명이 부상하여 鮮血을 뿌리고 있었다. 이에 그는 이대로 지체한다면 손실이 累增될것이라고 내다보고 돌진하려는데 제1분대 소총수 朴應洙 일병이 소대장 옆으로 다가가 배를 움켜 잡고 외치기를 「소대장님 이 총알 딸라 뽑아줘요. VC이 달아납니다!」라고 하면서 뛰쳐 나가려는 것이었다. 그의 이같은 불굴의 투지를 본 소대장은 「꼭 이긴다」는 확신을 굳혔으며 소대원 또한 意氣衝天하여 소대장의 『돌격앞으로』의 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적진으로 穿貫突衝하여 딱치는대로 패터 눕히니 VC들은 다급한 나머지 시체 6구를 남겨놓고 Nho Lam(목표 “라”)쪽으로 潰走하고 말았는데 이때에 경기관총 시수 尹基源 일병이 저항하는 分子들을 제압하는데 크게 활약하였다.

잠시뒤에 소대는 마을 北東쪽 어귀를 감도는 Song Ngang(江)에 설치된 木橋를 확보함으

로써 제2소대와 제1소대(-)가 이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 一戰에서 소대는 朴應洙 以下 3명이 부상하였으며 경기관총 탄약수 金政一 일병은 「실탄을 가져오라」고 하는 분대장의 호령에 따라 그것을 운반하다가 경기관총을 겨냥하던 分子가 저격한 一彈에 頭部가 관통되어 碧血을 뿌리면서 散華하고 또 중대에 파견된 연대의무중대의 위생병 金在斗 一병이 부상병을 응급가료하려고 上體를 일으키는 순간 兇彈을 허리에 맞아 戰死하였으니 愛惜한 일이었다.

중대장 李滿振 대위는 한꺼번에 5명의 손실을 낸 제3소대를 지원소대로 뽑아 돌리고 때마침 木橋를 건넌 제2소대로 하여금 左一線을 맡게하였다. 이에 따라 제2소대장 金安勝 소위는 지체하지 않고 목표 “마”를 휩쓸고 北東쪽으로 Tinh Hoa를 向하여 轉進하다가 VC 1개분대규모가 北走하는것을 포착하였다. 이때에 제1분대의 朴正男 上병이 M79유탄을 사격하려고 겨누는데 별안간 그의 앞에있는 논두렁에서 VC 2명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다. 朴上병은 재빨리 총구를 들렸으나 이미 3步앞까지 다가선 뒤라 紫閃一擊으로 때려 눕혔는데 이놈들이 짐북한 穢는 좀처럼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近接戰끝에 소대는 4명을 사살하고 곧바로 Tinh Hoa를 急衝하였다.



Song Ngang(江)을 도성하고 있다.

한편, Song Ngang(江)을 도하(An Hoa 3 北쪽 300m)하던 제1소대(장, 全容鎭 중위)는 공병 제1분대(장, 金貞鎭 하사)의 지원을 받아 對岸까지 “로프”를 가설하고 3인용 고무“보트”로 건너던중 急流에 휘말려 배가 뒤집혀 제3분대의 金勇夫 일병 以下 3명이 익사직전에 구출되는 一幕을 치른끝에 50분만에 겨우 제1, 제2兩분대와 제3분대의 일부가 도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左一線소대가 Nho Lam을 탈취하고 목표 “마”로 進出中에 있었다. 이에 소대장은 도하시간의 지연이 전투에 미칠 지장을 참작하여 이때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병력은 앞서 제3소대가 확보한 木橋(소대西쪽 600m)를 이용키로 決心하고 도하를 끝마친 兩분대(+)를 소대선임하사관으로 하여금 목표 “바”를 거쳐 Duong Thanh으로 진격케하고 소대장이 나머지 兵力을 지휘하여 木橋를 건너는 즉시 北쪽으로 치달아 선임하사관조와 합세하였으며 곧이어 Tinh Hoa로 突入한 결과 계획된 시간에 左一線소대와 손잡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중대는 잠시 대오를 기다들은 연후에 탐색을 再開하였다. 이에 계획한대로 제1소대는 Loc Thuan을 누비다가 마을안에 潛據한 一羣과 輕戰끝에 5명을 사살하고 VC용의자 31명을 검색하였다. 또 제2소대는 Duong Thanh(1)을 탐색중 마을안에 있는 숲속에 포진한 병력미상의 敵으로부터 종격을 받아 얼마동안 진격이 저지되었다. 이때에 경기관총사수 護明鎭 일병이 쏟아지는 彈藥을 뚫고 약진하여 적진에서 불을 뿜는 자동화기를 제압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밀어닥친 소대원들이 徒手格鬪 끝에 殲滅하였는데 헤아려 보니 시체 7구가 흩어져 있었다.

한편, 左一線소대를 뒤따르던 제3소대(장, 威德善 소위)는 앞서 간 소대가 목표 “자”를 점령하였을 때 그 右端(東쪽)을 우회하다가 목표 “차”(Duong Thanh 2)쪽으로 퇴각하는 VC들을 목격하자 즉시 제3분대로 하여금 右側方으로, 화기분대로 하여금 左側背로 우회케 하고 나머지 兩분대를 소대장이 거느리고 추격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는 동안에 제3분대는 Duong Thanh(2) 一角에 있는 진취에서 견고하게 구축된 壕와 여기부터 집쪽으로 이어진 교통로를 찾아내고 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니 VC이 집회하는 장소인듯한 器物(혹판, 책상 등)이 있었다. 분대장은 수상하게 생각되어 내부를 샅샅이 뒤진결과 60mm 및 81mm 박격포탄 26발을 비롯하여 급조“크레모어” 2발과 TNT 88 l/b 및 철조망 파괴통 3개 그리고 수류탄과 신호탄 4발을 노획하였으며 곧이어 근방을 精探끝에 VC용의자 30명을 사로잡았다.

또 右側으로 돌아간 화기분대는 마을 北쪽 어귀(제3분대 北쪽 200m)에 이르렀을 때 가

육열의 숲속에서 數發未詳의 一黨이 側射를 加하는 것이었다. 이에 분대장은 엎드리지 않고 短兵을 몰아 急突하니 그들은 지휘를 감추었는데 미처 退走하지 못한 3명이 그 집에서 뛰어나가는것을 본 분대장은 즉시 急射로 처치한 다음 내부를 뒤진 결과 여기에는 M1소탄을 짚고 오무려서 CKC소총과 기관단총 실탄으로 개조하는 器具를 비롯하여 연합군의 소총 및 권총 彈藥으로 “부비트랩”과 地雷등을 만들고 여러가지 銃器를 수리하는 工具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에 분대는 내부에있는 모든 武器를 노획하고 이를 파괴한 연후에 부근일대를 누빈끝에 VC용의자 6명을 검거한바 여기에서 노획한 品目은 다음과 같으며 그중 기관단총 2정과 SKS소총 1정은 앞서 사살한 VC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품	목	단 위	수 량	비	고
소 총	실 탄	발	3,000	SKS소총용으로 개조한것.	
木 製	소 총	정	20	실탄 1발씩 장전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제조된것.	
C A R	소 총 총 열	개	5		
엽 총	총 열	”	1		
T N T		l/b	33	“부비트랩”으로 개조중인것 포함.	
총 기 수 리 공 구		셋	20		
무 전 기		대	1		
병 기 부 속 품		상 자	2		
기 관 단 총 및 SKS 소 총		정	3	사살된 VC의것.	

그뒤 중대는 Long Hau에 이르러 여기를 점령한 제3중대와 연계하자 곧 銳鋒을 南쪽으로 돌려 목표 “파”—“하”를 석권하고 Luong Binh을 누비는데 대대장으로부터 작전이 하루 연기되었으니 부근에서 잠복하라는 명령에 接한바, 그때가 16.00였다. 이에 중대장은 진격간에 사로잡은 VC용의자 116명을 제3소대로 하여금 중대기지로 압송케하고 나머지 3개소대를 Luong Binh 北西쪽에 산개하여 급편진지를 마련하고 야간전투로 移行하였다.

2. 제3중대(장, 張世東 대위)는 제1, 제2兩소대를 左右一線으로 하여 제2중대와 다름없는 부서로서 목표 “1”(Phu Dong 1)을 탈취한 다음 여기에서 제1소대로 하여금 목표 “2”—“4”—“6”으로 지향케하고, 제2소대로서 목표 “3”—“5”를 차례로 탈취한 연후에 의명 Long Hau(목표 “다”)로 진격케 하였다. 또 제3소대를 지원소대로서 Phu Dong을 占據한 다음부터는 左側方(西쪽) 경계와 先行소대가 우회한 마을의 탐색을 互用케하고 중대본부와 화기 소대(-)는 左右一線 중앙에서 후속기로 하였다. 이날 중대는 06.40에 공격계시선을 뛰어

넘자 곧 「V字」型으로 산개하여 Phu Dong(1)로 躍進하였다. 잠시뒤에 제3소대는 마을 입구에 있는 教會근방에 다다르자 여기에 蟄據中인 敵이 급사를 집중한 砲頭에서 진로를 개척하던 제1분대장 張相勳 병장이 兇彈에 맞았다. 그러나 그는 뒤따르는 병사들의 戰意를 생각하여 자신이 부상한것을 알리지 않고 『돌격 앞으로』라고 호령하면서 달려나가다가 이내 쓰러졌다. 이윽고 분대원들이 마을을 점령한 다음 비로소 분대장이 鮮血을 뿌리면서 신음하고 있는것을 알아내고 즉시 후송하였는데, 그의 勇氣와 忍耐에 감동한 중대원들이 더욱 분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輕戰을 치른 중대는 단숨에 목표 “2”-“3”을 휩쓸고 1시간 뒤인 07.40에는 左右 一線소대가 각각 다음 목표로 向하여 追躡한바, 이때 제2중대는 Tin Hoa가까이까지 다가가고 있었다. 얼마뒤에 제3소대는 Van Trien(1)이 눈앞에 보이는 지대에 이르러 西쪽을 경계하면서 一線소대를 뒤따르는데 인접중대 지대내의 Khuong Binh( 목표 “하”)부근(Van Trien 1 西쪽 1km)에 2개소대규모(50명)의 敵이 潛伏하여 先行하는 소대를 側射로서 위협하는것을 포착하자 지체없이 지원포병의 熱鐵을 요청하여 이를 교란하였다. 곧이어 소대는 敵陣으로 向하여 진격끝에 목표앞에 다달았을때 그들의 저항이 시작되었으나 제2분대가 늦추지않고 돌진을 계속하자 對峙한 分子들은 例의 「分散—退走」의 방식으로 흩어지는 것이었다.

이때에 돌격대열에서 挺身하던 安潤玉 일병은 분대원들 보다 한발 앞서 뛰어나가 M79유탄의 熱焰을 떨어뜨려 3명을 사살하고 곧이어 달아나는 3명을 사로잡으려고 덤비는 찰나 一彈이 그의 右側 목을 관통하였으며 연이어 二彈이 右肩과 下腹部를 뚫었다. 安일병은 碧血이 낭자한 가운데 쓰러지면서 VC을 向하여 사격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이러한 육박전끝에 소대는 모두 9명을 사살하고 VC용의자 21명을 사로잡은 연후에 安일병을 후송하였는데 그는 지난해 10월 1일 Phung Son근방에서 경계중 VC과 도수격투끝에 사단전과 제1호의 수훈을 세운바 있었다.

제2소대는 Chanh Dinh( 목표 “5”)을 탐색하다가 4명이 마을밖으로 敗走하므로 速射을 집중하여 2명을 사살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소대장 崔鍾위는 제1분대로 하여금 이를 찾아내게하고 主力으로서 마을 탐색을 계속하였다. 얼마뒤에 분대장 金東晳 하사는 눈가운데에 위협사격을 加하였더니 느닷없이 눈뚱열에서 1명이 일어나는것을 사로잡았는데 그놈은 머리를 풀로 가리고 온몸에 논의 흙을 발라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寸劇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대는 유기시체 7具를 現認하고 VC용의

자 5명을 俘獲하여 이를 압송하였다. 또 李永雄 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는 Chanh Hoi (목포 “6”)에서 輕戰끝에 6명을 사살하고 VC용의자 16명을 사로잡은 다음 09.30에는 該마을의 탐색을 끝마쳤다.

한편, 대대장 裴貞信(改名:貞道) 중령은 제3중대가 左一線보다 훨씬 앞서 진출하였으므로 최초 제2, 제3兩중대로서 右右兩側에서 夾攻키로한 Long Hau(목포 “타”)를 제3중대 단독으로 탈취케 하였다. 이에따라 중대장 張世稔 대위는 지체없이 西쪽으로 轉進한 결과 10.20에는 제1소대가 마을앞 70m에 이르고 있었다. 이때에 갑자기 기관총사격이 집중되므로 尖兵분대(제1분대)장 李龍文 하사는 생각하기를 「이는 필시 제2중대가 먼저 도착하여 우리를 敵으로 誤認하였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손을 흔들면서 「야! 제2중대, 우리는 제3중대니 사격하지 말라」고 외치자 갑자기 그들이 退却하는 것이었다. 그때야 비로소 대치한 무리들이 VC인줄 알고 突衝끝에 마을안에 潛伏한 13명을 사살하고 VC용의자 54명을 가려내었다. 중대는 여기에서 제2중대가 도착할때까지 머문 다음 목포 “4”로 反轉하여 再探索하다가 다음날 전투에 대비하여 Van Trien(1) 北西쪽 강변을 沿하여 잠복조를 배치하고 철야하였다.

3. 제1중대(장, 李學健 대위)는 대대에비로서 Tu Cung을 탈취한 연후에 지대중앙일대



VC이 숨은 地下壕입구를 警戒하고 있다

의 예상되는 퇴로를 차단하면서 待機케 되었다. 이날 중대는 여느중대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시간에 北上한바, 이 일대는 수령과 水田이 점철되고 물이 무릎까지 차는 까닭에 진격에 제한을 주었다. 얼마뒤에 중대가 목표 앞 100m 가까이 이르렀을때 左一線의 鄭豐田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한발 앞서 마을 어귀에 다가섰는데 “닥콩”하는 총성이 울려 퍼지더니 여기 저기서 사격이 시작되고 점점 加熱되는 것이었다. 소대장은 곧 불격을 決行끝에 마을안으로 뛰어들어 살살이 뒤졌으나 VC들은 어디론지 달아나 버린 뒤였다. 여기에서 잠시 내오를 정돈한 다음 배마침 東녁이 밝아지면서 어둠이 차츰 걷히는 때를 利用하여 西쪽으로 진군하는데 尖兵분대장 李昌模 하사가 陣頭에서 진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이때에 300m 앞 마을에서 총격이 쏟아지므로 살펴보니 “병커”에서 자동화기가 불을 뿜고 있었다. 소대장은 즉시 57mm무반동총으로 이를 直擊하고 60mm박격포의 鐵片을 뒤집어 쏘았으나 所在의 敵은 끄떡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景況이 지속되자 소총병 李淳天 일병이 분대장에게 「제가 側後背로 접근하여 M79유탄으로 물리치겠습니다」라고 自請하여 나서는데 그의 두눈이 핏불같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곧이어 분대원의 掩護下에 李일병이 강뚝을 따라 약진끝에 敵陣 바로앞에 다달으자 갑자기 엎드리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대원들이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총에 맞은 줄 알았던 李일병이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가자마자 “병커” 銃眼으로 유탄을 날리니 轟音一聲에 硝煙으로 휩쓸렸으며 곧이어 그 안에서 屍體 4구를 확인한바, 이 동안에 나머지 소대가 목표내의 탐색을 마무리 지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여기에 임시 據點을 준비하고 마을 北쪽에 있는 細流연변을 따라 차단진지를 마련하여 배복과 탐색을 병행하면서 언제든지 출동할 태세를 가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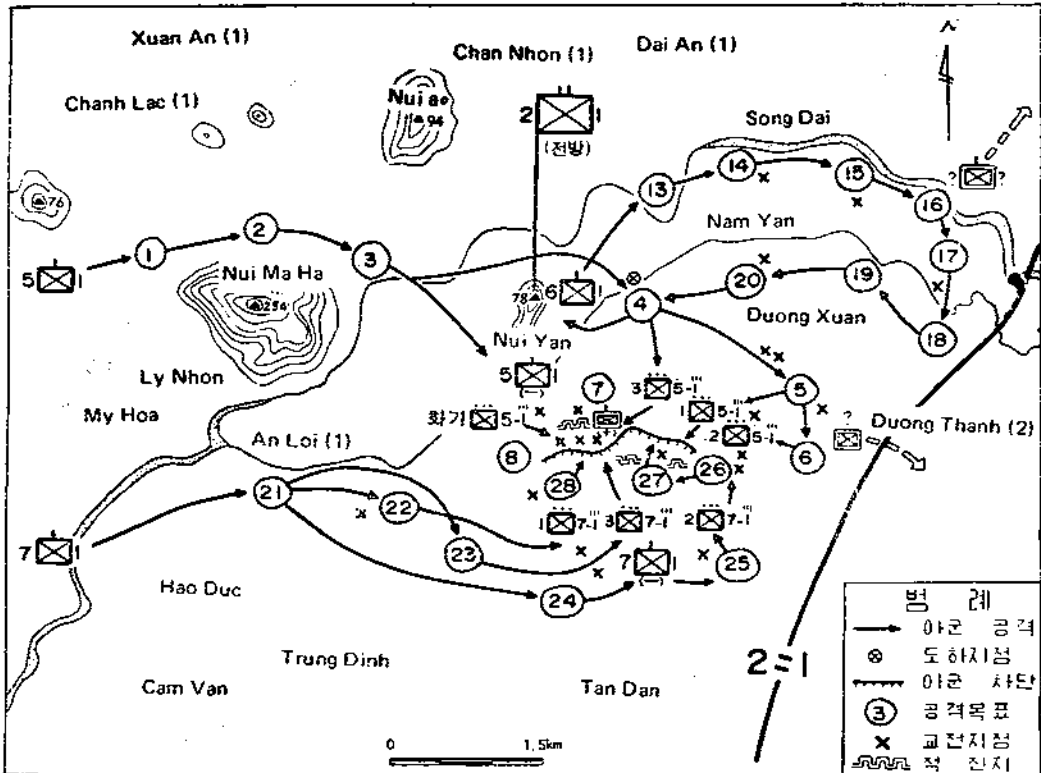
(나)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는 이날 이른새벽에 2½ton 차량 35대에 分乘하여 아직도 西山에 걸려있는 殘月の 微光을 안고 행군하여 계획된 시간에 제5, 제7兩중대가 공격개시선에서 踊出하였다. 그로부터 7시간 뒤에는 예정대로 제6중대가 △78로 공중기동하였으며 여기에 1개소대를 남기고 지대 北쪽의 僻地를 누비기 시작하자 대대장은 Phoung Danh에 개설한 대대 전술지휘소를 該高地로 옮겨 3개중대의 활동상황을 눈아래로 굽어 보면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이러한 진격이 계속되는 동안에 제5중대가 Chanh Manh(목표 “3”) 부근에 있는 Song Ong Su(江)를 도하하다가 예상보다도 수심이 깊고 급류인 탓으로 30분간을 지체하게 되어 중대(-)가 原經路를 변경하여 △78의 南端을 우회하여 Vinh Dinh(목표 “7”)을 直衝한바, 이때에 박격포를 위시한 강력한 火力을 집중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所在不明의 敵과 충돌

돌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7중대도 Xuan My(목표 “24”)—Thanh Mai(목표 “25”)를 누비던중 Tan Hoa(목표 “27”)—Kim Tai(목표 “28”)로부터 側方사격을 받았는데 제5중대 正面에 못지않은 熾盛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兩중대에서 모두 15명의 死傷者가 속출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敵의 박격포 사격은 我軍이 파월된 뒤 처음 겪는 일이므로 최초 포탄이 날아들었을때에는 兩중대가 똑같이 我軍砲의 落伍彈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의 眞正을 대대장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때가 공격을 개시한지 3시간 30분이 경과한 09.50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兩중대장의 상황보고와 그밖의 여러가지 徵候를 종합분석끝에 Liem Lo (목표 “7” 南쪽 100m)—Tan Hoa—Kim Tai 사이를 西~東으로 貫流하는 하천연변에 敵이 포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斷定하고 지체없이 계획된 공격경로를 변경하여 제5중대로 하여금 대치한 敵을 포위하는 즉시 南쪽으로 압박하면서 强打케하는 동시에 제7중대로서 河川 南岸까지 北上한 연후에 강쪽을 따라 退路를 차단하여 脫出하는 VC들을 擊碎하는 방식으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所在의 敵을 挾擊케 하였다.

狀況圖 제29호 D일 제2대대의 戰鬪經過 狀況





實로 대대장의 이 결단이 奏功하여 勝捷의 단서를 잡게되어 VC들이 예기치 못한 시간과 方向에서 文字 그대로 電光石火같은 鐵槌一擊을 加하는 會心の 血戰을 벌이게 되는데, 10.00부터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兩중대가 30분뒤부터 이를 遞縮하여 1시간의 격전끝에 Liem Loi(1)를 중심으로한 1km<sup>2</sup>에 전개한 1개대대규모를 진멸하고 근방일대에서 야간전투로 移行하였으며 제6중대는 지대 北端을 누빈 後에 △78에서 露宿하였다.

1.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Van Tuan(제1번도로 연변)에 도착하자 곧 右로부터 제8, 제2, 제1소대順으로 산개하여 約定된 시간에 공격개시선을 뛰어넘었다. 이때에 중대본부(사단공병 1개분대 및 중화기 중대의 경기관총 1개반 배속)와 화기소대(-)는 제2소대를 후속한바, 대대계획에 따라 제6중대가 △78(공격개시선 東쪽 7km)에 착륙하게 되는 07.40까지는 同高地 北端까지 진출하여야 하므로 빠른 속도로 약진하였다. 본서 이 일대는 泥濘과 細流와 水田이 얽힌 濕地인데 이 작전에 앞서 Nui Ma Ha(山) (공격개시선 東쪽 4km)까지는 3회에 걸쳐 탐색한적이 있으므로 지형에 숙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렁에 빠지고 무릎까지 진흙이 달라붙은데다가 논둑이나 細路邊에 우거진 선인장가시에 찢리고 또 “정글”靴속에 스며든 모래알이 밑바닥을 자극하는데 1일분의 전투식량과 탄약을 걸며지고 뒤통에는 몹시 힘든 일이었다.

이러한 隘路를 극복하면서 그로부터 50분뒤에는 Phu Thanh(2) (목표 “1”)을 거쳐 Chanh Ly(목표 “2” : Nui Ma Ha北麓)에 이르러 마을앞의 하천을 徒涉中 △45(北西쪽 400m)에서 병력미상의 VC으로부터 側射를 받았다. 그러나 火力의 강도로 보아 작전행동에 지장이 없다고 내다본 중대장은 먼저 건너간 60mm박격포로서 이를 제압케하는 한편 여기부터는 제2소대를 尖兵으로 앞세우고 左右側에 제3, 화기兩소대를 산개하여 四周를 경계하면서 行進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Chanh Man(목표 “3”)에 한발 먼저 도착한 제2소대가 마을을 탐색하고 한편으로 1개분대로서 Song Ong Su(江)의 도하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 江은 지도상에 표시된것과는 달리 幅이 50m에 이르고 水深도 2~3m나 되는 전투지대내에서 가장 큰 江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중대는 30분을 여기에서 지체하게 되어 계획된 07.40에 尖兵이 所命된 지점에 다다르기도 전에 제6중대의 제1비행계대가 △78에 뛰어내리고 뒤를 이어 제2비행계대가 蹠空을 날고 있었는데, 이때에 중대본부는 현지주민 3명을 앞세우고 도하중에 있었다.

原計劃은 제6중대가 該高地에 降着하여 목표 “13”(△78 北東쪽 2km)으로 向進할때 중대는 목표 “4”(Dai Huu 2 : △78 東쪽 1km)에 진입하겠끔 지시된바, 이는 지대내의 敵이 北



Song Ong Su(江)를 제5중대원들이 도섭하고 있다.

쪽으로 퇴각할것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퇴로차단과 탐색을 兼한 一石二鳥의 효용을 내다보고 取한 조치로서 대대장이 매우 강조하는 사항이었다. 이에 중대장 林東遠 대위는 Dai Huu(2)를 탈취하는 시간을 고려끝에 먼저 건너간 제2, 제3, 화기(-)의 3개소대로 하여금 계획한대로 △78 北端을 거쳐 목표 “4”로 向하여 追蹙케하고 중대본부(배속부대 포함)와 제1소대는 同高地 南端을 돌아 Vinh Dinh(목표 “7”)—목표 “5”—同 “6”을 直衝하면서 앞서간 소대와 합세키로 작정하고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따라 지름길로 달리던 중대본부와 제1소대는 예측하지 못한 수렁과 늪이 허리까지 물이차는 水田으로 말미암아 진출이 지연되었을 뿐만아니라 △78에 가리워 한동안 無電마저 杜絶되었는데, 도중에서 중대 통신병 柳秀一 병장이 늪에 빠져 “르프”로 끌어내는 등 여러가지 고생끝에 Nam Yang(江)을 도섭하였다. 한편 北쪽 經路를 따라 진출한 2개소대도 중대본부와 같은 사유로 예정보다 전진이 늦어져 제2소대가 Thai Xuan(목표 “5”)을 누빌 때 제3소대는 비로소 Dai Huu(2) 입구에 들어서고 있었다.

잠시뒤에 중대장은 제1소대로 하여금 Liem Loi(2)로 直行케 하고 자신은 중대본부만을

이끌고 Vinh Dinh(목표 “7”)으로 轉進하여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78 北端을 우회한 화기소대(-)가 중대본부와 합세하였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제까지 누빈 어느마을 보다 더 많은 장애물이 부설되고 小路마다 雜木을 쌓아올려 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므로 Chanh Man에서 차출한 안내자(VC용의자) 3명을 앞세우고 마을안에 들어서자마자 男女老少 주민들이 拍掌하면서 「Man Ho(猛虎), Man Ho」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광경이 벌어지자 중대장은 『저들이 표면상으로 환영하는 적 하나 실은 아군의 진출위치를 敵에게 알리는 狡獪한 수작임이 틀림없다.』라고 간파하고 즉시 소리치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나 그들은 VC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인지 좀처럼 그치지 않았으며, 이미 敵은 중대가 여기에 다달은것을 알아차렸을 것으로 推斷되었다.

곧이어 마을을 탐색끝에 VC용의자 10명을 검거하여 訊問하였더니 그중들이 이르되 「전날 VC 1개대대규모가 마을에 나타나 장애물을 보완한 다음 退却하였으며 그들이 탈하기로 “韓國軍이 마을에 도착하면 큰 소리보 환영하라 그렇게 해야만 목숨을 살려 줄것이다.”라고 하므로 이렇게 떠돌게 하게 환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敵이 근처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끝내 대답이 없었다. 여기에서 VC 1개대대규모가 부근일대에서 潛動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중대장은 곧 마을 北쪽으로 빠져나가다가 제2소대장으로 부더 Binh Anh(목표 “6” : 중대본부 東쪽 2km)앞에서 砲擊(60mm彈)을 받았다는 상황보고와 더불어 「아군의 박격포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의가 있었다. 중대장은 즉시 대대를 通하여 인접중대 상황까지 확인한 결과 아군이 사격한 것이 아닌것을 알아내고 『아군에게 떨어지는 포탄은 모두가 敵이 발사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호령하였는데 곧이어 같은 소대장이 포격으로 말미암아 3명이 부상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뒤를 이어 또 제1소대장이 Thanh Xuan 입구에서 날아든 박격포탄에 4명이 부상하였다는 것이었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상황이 매우 긴박함을 직감하고 제2소대장에게 부상자를 제1소대에 인계하고 계속 進擊하라고 지시하고 지체없이 敵情을 살피며 목표 “5”-“6”으로 向하여 달려가는데 Liem Loi(1)로부터 느닷없이 총격이 집중되었다. 중대장은 혹시 南쪽에서 공격중인 제7중대가 사격한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 대대에 확인하는 동시에 그밖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끝에 이 일대에 VC들이 潛據하고 있을 것이라는 心證을 굳혔으나 敵情은 杳然하였다. 이리하여 배속된 증좌기중대의 경기관총 1개반(2정)으로 하여금 마을 北西쪽에서 掩護와 퇴로차단을 互用케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휘몰고 마을 안으로 突入한바, 200 m 左前方(東쪽)에서 1개 중대(-)규모의 敵이 60mm박격포 1門을 메고 이동하는 것이 목격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즉시突擊하려는 대원들을 저지한바 그들이 보라는듯이 正體를 드러낸것이 수상하여 아군을 유인하려는 수법일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관측장교 徐相炫 소위가 그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右側(西쪽)150m에서 치열한 急射가 날아들기 시작하였다.

이무렵 3개소대는 중대본부 東쪽 800~2km떨어진 일대에서 交鋒中인 까닭에 중대장이 可用한 병력은 화기소대(-)를 포함하여 본부요원을 합쳐 1개소대규모에 불과한데 대치한 敵은 1개대대(-) 정도로 추산되었다. 더구나 그들은 戰術上 유리한 지대에 미리 준비한 진지를 점령하고 시시각각 포위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다. 이와같은 火急한 景況에 직면하고 있을때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가 뒤쳐진 공병분대를 이끌고 중대본부와 합세하니 대원들의 士氣가 한결 앙양되었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조금도 서들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전후좌우의 敵勢를 살핀끝에 생각하기를 「비록 敵이 우세하다고하여 주저한다면 손실만 自招할 뿐더러 그들을 擊滅할 기회를 逸失하고 말것이다. VC들이 공격하기전에 九死에 一生을 걸고 적진으로 쫓아간다면 能히 그들의 虛實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하고 다짐하였다. 곧이어 화기소대(-)로 하여금 右側으로 우회공격케하고 중대장은 본부요원을 몰고 한복판으로 덮치니 그 뒤에서 부중대장이 공병분대를 거느리고 돌진하는데 중대장을 겨냥한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들어 그를 跟隨하던 전령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焦急한 情況에서 200m의 水田을 단숨에 踏破하고 길이 170m의 강둑에 다달았을때 갑자기 右側背로부터 苛烈한 火力이 集注되므로 모두가 엎드려 應射하는데 소재의 敵은 사격으로 아군을 견제할뿐 다가설 기미는 엿보이지 않았으며 이때 관측장교 徐相炫 소위가 壕속에 잠복한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 잡았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비로소 敵의 상황을 把握하게 된바, 그들은 Liem Loi(1) (목표 "7" 南쪽 100m)—목표 "8" (Liem Loi 1 西쪽 1km)일대에 산개한 것으로 추단되었다. 그런데 對峙한 우리들은 아군보다 월등하게 우세할 뿐만아니라 유리한 要地를 장악하고 있으므로 만약 그들이 조직적인 공격을 시도한다면 중대본부는 결정적인 打撃을 입기 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兆朕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재빨리 눈치 챈 朴대위는 心算하기를 「敵이 공격을 주저하고 있으니 한번 決戰을 기도할만하다. 그들은 우리를 마을 안과 밖에서 二重으로 포위하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不利한 情況에서 戩兵이 움직이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逆으로 이용하여 正面의 敵을 直衝한다면 기습을 달성하고 전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될때에는 再集結하여 그뒤에 다시 공격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격렬한 총격을 서로 交換하는 소용들이 속에서 소재의 敵을 격쇄할 策案을 궁

리끝에 아군은 중대와 소대간에 無線교신이 가능한 반면 그들은 소대급에 무전기가 없으므로 아군이 그들보다 우발사태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목표 “5”~“6”일대에서 활동중인 3개소대를 여기로 뽑아 들린다면 마을밖(목표 “8”)에 웅크린 一羣이 중대본부를 包圍하기 전에 한발멀저 이를 逆으로 포위하여 심멸할 勝機를 잡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와같은 결단을 내린 朴東遠 대위는 즉시 자기의 腹案을 대대장에게 具申하여 그 승인을 받자, 곧 각소대장에게 호명하되 『각소대장 들어라, 긴급명령이다! 敵의 主力은 Liem Loi(1)에 있다. 중대는 이를 포위심멸한다. 제2소대는 현위치에서 하천 北쪽연변을 따라 목표 “8”方向으로 진격하라. 제1소대는 부상병을 후송하는 즉시 목표 “5”北쪽의 江 南岸을 따라 西進하여 목표 “7”로 進出하라. 제3소대는 Liem Loi(2)-(1)로 南下하라. 신속한 기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이동경로를 명확하게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作戰의 黑白이 實로 여기에서 그의 손으로 가려질 터이므로 3개소대가 현지에 이르러 當面の 敵을 포위할 때까지 무슨수로 寡兵이 衆敵을 釘着시키느냐가 큰 문제였다. 이에 중대장은 右側背에서 鐵盛한 사격을 加하는 VC을 내버려 둔다면 衆寡不敵인데다가 一毛의 빈틈만 드러낸다면 아군의 열세를 알아내고 그들이 먼저 공격할 공간이 크므로 以寡擊衆의 好機를 노리다가 마침내 先制로 機先을 제압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내다보고 화기소대(-)로 하여금 所在의 敵을 격파케 하였다. 그러나 該소대의 병력이 그들과 對決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판단하고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에게 중대본부요원(취사병) 3명과 배속된 공병 1개분대를 뽑아 주어 화기소대(-)를 후속하면서 掩護케하는 한편 배속된 중화기중대의 경기관총 1개반을 목표 “8”(Trung Ly) 西쪽으로 우회시켜 그들의 後側背를 교란케 하였다.

이 결과 중대본부에는 중대장과 관측장교 및 무전병 그리고 부상한 전병과 취사병 등 모두 합쳐 15명만 남았는데 이를 눈치챈듯 正面에서 對峙한 VC들이 사격을 퍼부우면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熊眉의 火急에 부딪친 朴東遠 대위는 그자리에서 뼈튼들 감당키 어려워니 덮쳐나가 鎗鋒을 꺾는것보다 못하다고 다짐하자마자 본부요원을 휘둘러 전진, 한가운데로 달려들어 死生을 결단하는 血鬪를 거듭하는데 별안간 통신병 柳秀一 병장이 「중대장님 위험합니다.」라고 외치면서 兇射를 퍼부어 중대장을 겨누는 VC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愛惜하게도 柳병장은 때마침 측배에 웅크린 VC이 겨냥한 一彈에 맞아 장렬하게 산화하였다.

이러한 修羅場에서 앞서 부상한 전병이 무전기를 잃어지고 중대장을 비롯한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左衝右突끝에 마침내 그들의 진지를 석권하여 이를 손에 넣었다. 여기에서 숲



제5중대基地물 순서하는 사단장

을 돌린 중대장은 곧 대대장에게 상황의 흐름을 보고하는 一方, 각소대가 所命된 목표로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방법을 擇하였다. 즉, 포병의 관측용 항공기를 중대본부 上空에서 선회하면서 때때로 急降下하게 하다가 각소대장이 肉限으로 연락신호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진출하였을 무렵에는 유색신호탄을 터뜨려 그 行方을 알려주었다. 또 그때 마침 구급“헬리콥터”가 부근에 착륙하였으므로 각소대장이 이를 指標로 삼게한 것이다. 이리하여 각소대가 포위망 외곽에 도달할 즈음에 제2소대장이 부상하였다는 보고를 接하였다. 決定的인 시기를 눈앞에 두고 선임하사관도 부상한 제2소대는 몹시 어려운 고비였다. 중대장은 該소대의 銳氣를 鈍化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끝에 화기소대(-)를 엄호중인 부중대장으로 하여금 제2소대로 달려가게 한바, 뒤를이어 제2소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에 울리면서 이르기를 「陣頭에서 突進하는 순간 敵의 집중화력을 받아 었드렸는데 소대무전병이 황급한 나머지 부상하였다고 보고한 것이다」라고 밝힘으로써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林東遠 대위는 그뒤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3개소대를 뽑아틀릴 決心을 하게된 과정을 솔회하기를 「敵의 저항은 激烈하였으며 특히 나를 겨냥한 狙擊彈이 헤아릴 수 없이 쫓전을 스쳐갔다. 나를 뒤따르던 통신병이 전사하고 전령도 부상하였다. 나는 敵情을 파악한 다음 2개소대를 두고 잠시 머뭇거렸다. 其一은 일단 그들의 사격권에서 벗어나 3개소대와 합세한 연후에 다시 공격하는 것이요, 其二는 어떠한 댓가를 무릅쓰고라도 交戰을 계속하면서 對峙한 무리들을 현지에 固着시키는 동안 3개소대로 포위하여 이를 覆滅하는 것이었는데 드디어 나는 後者を 채택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血鬪를 되새기는 것이었다.

한편,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5중대가 敵의 포격을 받던 거의 같은시간에 該중대 南쪽에서 진격중인 제7중대도 Xuan Mai(목표 “24”)—Thanh Mai(목표 “25”)에 들어가다가 포격에 의한 손실을 내었으나 우거진 숲으로 말미암아 敵情을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대대장은 兩중대장에게 지시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지점에 유색연막탄을 띄우게 한바, Liem Loi(1)을 중심으로한 1km내외에서 타원형을 그리면서 연막이 떠올랐다. 대대장은 그밖에 드러난 여러가지 徵候와 전투추이를 분석끝에 當面の 敵을 증강된 1개대대규모로 추산하였다. 이와동시에 그들은 Liem Loi(1) 南쪽에 있는 하천을 中心으로 兩岸 1km<sup>2</sup>(목표 “7”—“8”—“27”—“28”)에 전개하고 있을 것이라고 推斷하였다. 때마침 제5중대장이 저항하는 VC들과 交鋒하면서 그들을 포위하려는 方책을 건의하므로 이를 승낙하는 한편 所在의 敵을 南과北 兩面에서 挾擊키로 결단을 내리는 즉시 제7중대로 하여금 목표 “27”—“28”로 北進하여 河川 南岸을 沿하여 예상되는 退路를 차단하고 脫出하려는 分子들을 강타하되 我軍間의 交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강변에 도달한 연후에는 一步도 前進하지 말고 조준사격만을 실시하라고 嚴命하였다. 또 제6중대장에게 지대 北쪽에서 차단과 탐색을 互用토록 명령하였는데 그때가 10.00정각이었다.

그뒤 李弼朝 중령은 면담에서 최초계획을 이와같이 변경한 경과를 이르기를 『交戰初에 제5, 제7兩중대가 敵의 60mm포격과 급사로 말미암아 적지않은 손실을 보았으나 그들이 착잡한 地形을 교묘하게 이용한 탓으로 그 소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나는 아군의 손실장소와 兩중대장의 상황보고를 바탕으로 그들의 개략적인 배치범위를 판단하고 Liem Loi(1)을 中心으로 포위망을 형성할 것을 決心하였다. 대개 작전전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는 心亂과 망서림속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수가 허다한데 그 당시 나는 계획변경의 실행이 확실하다고 내다보고 지체없이 이를 兩중대장에게 명령하되 손실을 우려한 나머지 주저하지 말 것이며, 특히 제5중대장에게 果敢한 突擊으로 所在의 敵을 섬멸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렇듯 중대장이 필승의 關魂하나만으로 掉尾 激鬪하고 있을때 작소대의 情況은 어찌 되

었는지 여기서 살피기로 한다.

제1소대(장, 朴文奎 소위)는 △78 南端을 우회하여 중대본부와 행동을 같이 하다가 Liem Loi(2)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는 즉시 東進하여 該마을을 탐색중 느닷없이 박격포탄이 날아들어 첫탄에 2명이 부상하고 연이어 炸裂한 破片에 맞아 배속된 화기소대의 57mm무반동 총 분대장 秦孟源 병장이 陣沒하고 위생병이 부상하였다. 猝地에 포탄이 집중되자 朴소위는 공격방향을 잃고 잠시 주춤하였다. 이때에 중대장이 제2소대의 부상자를 인수하여 후송한 연후에 제2, 제3 兩소대의 중간지대를 뚫고 Vinh Dinh을 목표로 포위망을 압축하라고 호령하므로 지체없이 “헬리콥터” 착륙지역을 준비하였다.

얼마뒤에 부상자를 후송한 소대는 南쪽으로 轉進하다가 목표앞에있는 마을에 다달았을때 300m 전방에서 치열한 총격이 交叉中인것을 목격하자 제1, 제3 兩분대로서 敵의 側後背를 엄호케하는 동시에 소대장이 2개분대(화기소대의 1개분대 포함)를 휘몰아 돌격하였다. 이리하여 소대장이 목표앞 70m까지 육박하였을 무렵 제3분대장 李正基 하사는 이미 短兵을 이끌어 적전에 뛰어들자마자 수류탄의 집중폭발로서 자동화기를 제압한 뒤였다. 별안간 뒷덜미를 얻어맞은 VC들은 황급한듯 東쪽으로 潰走하였으나 얼마뒤에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달려간 제2소대의 一擊을 받고 擊碎되었다. 一擊에 그들의 蟄伏地를 휩쓸은 소대는 여세를 몰아 부근일대를 탐색끝에 12명을 사살하고 미처 퇴주하지 못한 VC 12명과 VC용의자 21명을 俘獲하였으며 AR자동소총 1정을 비롯하여 각종소총 8정을 노획한 다음 목표를 점령함으로써 포위망의 一角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교전중에 소대무전병 金平吉 상병은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교대할 무전병이 없다고 후송을 거부하고 위생병의 初療만으로 소대장을 따라다니다가 이날의 전투가 마무리된 18.00에 비로소 구급“헬리콥터”로 후송되었다.

제2소대(장, 李 滿 중위)는 Song Ong Su(江)에 맨 먼저 도하하자 곧 목표 “4”를 거쳐 Binh Anh(목표 “6”) 근방에 이르렀을 때 난데없이 60mm탄 20발이 집중되어 소대 선임 하사관 金在喆 중사 이하 2명이 부상한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1소대에 인계하고 목표 “8”(Liem Loi 1 西쪽 400m)로 向하여 楔鋒을 돌렸다. 이때에 Binh Anh 一角에서 數次未詳의 VC들이 사격을 가하였으나 이를 默殺하였는데, 그들과 교전할 시간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중대장으로부터 Vinh Dinh 근방에서 제1소대의 공격을 받고 退散한 一隊이 東走中이니 이를 迎擊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대장 李 滿 중위는 細疏를 끼고 약진하는데 철모에 위장을하고 배낭을 걸머진 1개소대규모가 東쪽으로 移動中인것이 눈에 띄었다. 소대장은 아군인듯하여 확인하려고



달려 나가는 찰나 느닷없이 박격포탄 6발이 집중폭발하더니 기관총의 急射가 쏟아져 尖兵으로서 선두에서 挺進하던 崔京煥 상병이 그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워낙 焦急한 탓으로 그를 돌보게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때에 崔상병과 나란히 달리던 병사가 발을 멈추자 그는 碧血이 淋漓한 가운데 『모두 멈추지 말고 돌격하라!』고 거듭하면서 부축하려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 사격을 加하는 무리들은 350m 앞 小川 건너편에 있는 丘陵에 잠복하여 熾盛한 火力으로 퇴주하는 敵을 掩護하는데 그들 또한 증강된 1개소대규모로 推算되었다. 이러한 景況을 재빨리 看破한 李중위는 「兩面の 敵을 동시에 공격한다면 자칫하다가는 그들의 挾擊을 받을 공산이 크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敗走하는 무리들을 砲兵화력으로 제압하고 正面에 對峙한 VC들을 擊衝기로 다짐하였다. 그러나 소개의 무리들이 포진한 丘陵 들레는 平坦如砥하여 우회 포위하려면 공격시간이 지체될 뿐더러 衝擊力이 약화될 터이므로 그자리에서 곧바로 밀어 부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李 滿 중위가 진두에서 白兵을 휘몰아 돌진하자 곧 그들의 사격이 苛烈度를 더하면서 집중되므로 엎드렸는데 뒤따르던 무전병이 이를 보고 소대장이 부상한 줄 잘 못 알고 중대장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공격간에 威在萬 일병은 M79유탄의 熱片을 집중작열 시키면서 소대원의 진진을 엄호하다가 가슴에 一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돌격선 가까이 다가선바, 竹槍과 “부비트랩”을 비롯한 各種 장애물이 수없이 부설된 탓으로 잠간 멈짖하는 사이에 그들의 발악적인 총격이 더욱 苛烈化되었다. 여기에서 소대에 배속된 57mm무반동총이 불을 뿜기 시작하더니 熱焰이 터질때 마다 敵의 진지가 박살되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사격이 여기에 쏟아지는 순간 사수 金東述 병장(화기소대 제2분대장)의 腹部가 꿰뚫리었다. 그러나 그는 鮮血을 뿌리면서도 장진된 一躍이 기승을 부리는 敵의 자동화기진지에 命中된 것을 본 다음에야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며 또 1명이 부상하였다.

그런데 金병장이 사격한 곳은 적진으로 부터 불과 70m 떨어진 개활지로서 57mm무반동총을 사격하려면 일어서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므로 대치한 무리들의 집중사격을 받게 마련인데 이와같은 귀결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金東述 병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敢然히 일어서 아군의 突進을 저지하는 경기관총 진지를 파괴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金병장 곁에서 사격을 돕던 부사수 張正煥 상병은 눈앞에서 이와같은 광경이 벌어지자 小銃에 着劍하자마자 빗발치는 彈雨를 아랑곳 없이 달려 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敵陣 눈앞에 있는 공동묘지에 뛰어든 張상병이 급사로서 VC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소대원이 저마다 士氣가 올라 함성도 드높이 楔衝하였으며 이에 腐接하여 張상병이 VC들 속으로 던치는 찰나 兇彈이

집중되어 그의 소총머리판과 바지와 옆구리 上衣를 뚫고 나갔다. 이러한 生死의 歧路를 넘기면서 左衝右突 닥치는대로 때려 눕히니 그의 銳氣에 압도된 VC들은 동요하다가 즉차적으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張상병은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덤벼들어 우물거리는 一黨과 격투를 벌이다가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찰나 一彈이 또 그의 철모를 관통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으니 정녕코 不死鳥의 녀이 그에게 깃든 것 같았다. 즉시 일어난 그는 수류탄을 뽑아든 1명을 快劍一閃으로 넘어뜨리고 左側에서 겨냥하는 敵의 복을 내려치는데 그놈이 쏜 탄알이 張상병의 종에 맞아 뺨겨나갔다.

實로 이러한 張正煥 상병의 豪快無比한 행동이 勝機를 잡게하고 이에 副應한 소대원들이 血鬪를 벌인 끝에 所在의 무리들을 鏟滅하였는데 朴孝男 상병도 눈부시게 활약하였다. 얼마 뒤 激戰을 끝마치고 확인한 결과 시체가 32具를 헤아리고 비밀동굴에 숨은, 21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VC용의자 11명을 收容하였다. 또 경기관총 1정을 비롯하여 M1 및 CAR소총 9정과 수류탄 12발을 노획하였는데 張正煥 상병이 잡은者 중의 1명은 VC소대장임이 그 뒤에 밝혀졌다.

한편 사단장 蔡命新 소장 일행은 대대 전술지휘소에 틀러 전투경과 상황을 청취한 연후에 기대하는 길에 交戰지역 상공을 비행하다가 張正煥 상병의 超人的인 활동과 소대원의 분투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작전이 끝난 뒤 張상병에게는 중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張正煥 상병은 面談할때에 이 一戰의 景況을 회상하면서 이르기를 「당시 本人은 敵愾心에 북받쳐 오직 敵을 무찌르고 말겠다는 一念으로 거의 무의식중에 행동하였다. 帶劍을 종에 꽂고 일어서서 때부터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 亂鬪를 벌이던 과정을 하나도 기억할 수 없었는데 전투가 끝난 다음 함께 싸운 전우들이 나의 활약을 알려주고 또 철모와 소총과 전투복을 뚫고 나간 彈痕을 보고 비로소 樓絶한 싸움의 현장을 되새길 수 있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소대장 李 淸 중위는 격투의 고비를 넘기자 곧 부상자를 돌보게하여 후송조치한바 교봉 벽두에 兇彈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불계』를 부르짖던 崔京煥 상병이 후송도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소대는 대오를 가다듬고 중대본부가 위치한 강둑으로 전진하다가 細川연변에 있는 灌木덤불에 潛逃한 5명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무기를 은닉한 다음이었는데 문서 약간을 노획한바 이에는 Qui Nhon시가를 확대한 매우 상세한 지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제3소대(장, 鄭政能 소위)는 Liem Loi(2) 南端을 누비고 개활지를 踏破中 Liem Loi(1) (南西쪽 1.8km)를 포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따라 목표를 向하여 급진하다가 그 부근에 이르렀을때 河川 畔에서 준비된 진지에 蟄伏한 VC과 충돌하였다. 鄭政能 소위는 지

체하지 않고 경기관총 2정으로 左右에서 엄호케하고 소대 선임하사관 李相權 중사로 하여금 제3분대를 지느리고 左側方으로, 자신은 나머지 主力을 이끌고 穿貫突衝하였다.

소대가 突擊을 개시하자 대치한 敵은 60mm彈을 집중작렬시키면서 치열한 총격으로 발악하였는데 그럴수록 兇騎들이 더욱더 속도를 더하면서 밀어붙이니 겁에 질린 豺狼들이 混淆되어 저항다운 저항을 한번 하지도 못한채로 例의 分散潛跡의 手法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때에 소총수 洪鍾元 상병은 다리에 총탄이 박혔음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달려가는 것이었다. 交鋒이 끝난뒤 당시의 모습을 소대 선임하사관 李相權 중사와 제2분대장 李香根 하사는 술회하기를 「단 한사람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과감한 돌격의 효과를 그때처럼 통감한 적이 없었다. 당시의 이와같은 용감한 행동이 무의식중에 발휘된 것 같이 보였으나 實로 그 행동은 “敵이 사격하면 엎드리지 말고 즉각 돌진하라”라고 강조되는 가운데 끊임없이 強行한 혼련으로 언마한 戰技와 이로 말미암아 여물은 자신과 왕성한 사기의 結晶인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행동끝에 저항하던 分子들이 潛擄한 진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이상하게도 隻影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소대장 鄭소위는 부근에 있는 細川 언변이 우거진 잡목속을 탐색케 한바, 소총수 權五朋 일병이 발밑에 흐르는 흙탕물속에 짐은 형겁이 흔들거리고 있으므로 잡아 당겼더니 VC 1명이 물위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소대원 모두가 물속을 뒤져도합 11명을 俘獲하고 CAR 및 SKS소총 8정을 노획하였는데, 或者는 물속에 숨은채로 갈대로서 숨을 쉬고 어떤쪽은 코와 입만 물위에 내어놓고 있었으며 소총은 모두 물밑 진흙속에 숨겨져 있었다. 잠시뒤에 소대는 南進을 재개하여 중대본부와 합세하였다.

화기소대(-) (장, 金柱天 중위)는 21명의 소대원을 2개조로 편조한 後에 右側(西쪽)으로 달려나가다가 중대본부를 위협하는 一群과 정면에서 맞부딪혔다. 곧이어 서로 치열한 총격을 교환끝에 일단 그들의 銳氣를 꺾은 다음 對峙한 分子들이 퇴각하지 못하도록 접촉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에 소대장 金柱天 중위는 소대 선임하사관조로 하여금 左側背로 우회하여 사격으로 제압케하고 나머지 7명을 휘몰아 돌격을 決行하였는데 이때 소대장과 나란히 진두에서 달리던 60mm박격포 제1분대장 宋 焄 병장과 李武男 일병이 소대장을 앞질러 하천을 건너 적진 한발 앞까지 이르렀을 때 집중사격을 받아 장렬하게 戰死하였으며 이들과 同行하던 張泰漢 일병이 부상하였다.

이렇듯 삼시간에 3명이 쓰러졌으나 멈추기는 커녕 물진에 돌진을 거듭하니 저항하던 分子들이 驚駭를 감추지 못하고 敗走하는 者가 속출하였는데, 이때에 탄약수 沈南龍 일병은

下肢에 一彈을 맞고 鮮血을 흘리면서도 突擊射를 퍼부어 3명을 사살하였다. 곧이어 陣頭에서 挺進先登하던 소대장 金柱天 중위는 뒤따르던 병사들이 쓰러지거나 뒤쳐져 나중에는 홀로 VC들 속으로 뛰어들은 결과 그들이 몰려들어 그를 에워싸는 위거일발의 순간에 바로 부근에 이른 부중대장이 이끄는 一隊의 측방엄호를 받아 격투끝에 4명을 죽이고 CAR소총 3정과 SKS 및 M1소총 각 1정 그리고 실탄 56발을 노획하였다. 잠시뒤에 소대장은 병력을 수습하고 선임하사관조와 합세한 연후에 마을을 탐색하면서 목표 “8”에 이르는 길복을 要扼하여 포위망의 一角을 다졌다.

한편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는 화기소대(-)의 뒤를 이어 중대본부 右側方(西쪽)에 있는 하천연변으로 달려가 該소대의 공격을 지원하다가 공병 1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鄭중위는 공병분대로 하여금 여기에서 사격으로 掩護케하고 스스로 취사반장 安國世 중사 이하 3명을 이끌고 개울을 건너 30m 앞 올타리 밑에 잠복한 수미상의 敵을 掩襲끝에 3명을 사살하였다. 곧이어 그 右側에서 중대본부를 向하여 총격을 加하던 VC들이 퇴각하는 것을 목격한 鄭중위는 주저없이 달려들어 수류탄의 鐵片을 뒤집어 쏘워 2명을 사살하였는데 나머지 分子들은 어느새 목표 “8”쪽으로 潰走하고 있었으며 그 西쪽에서 화기소대장이 빗발치는 총탄속에서 苦戰하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에서 그쪽으로 총구를 돌려 側背에서 엄호하는데 벌안간 安國世 중사가 혼자 돌격을 감행하여 敵陣에 다다른 찰나 閃光이 번쩍하더니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었다. 鄭周泳 중위는 급히 달려나가 鮮血에 들든 安중사를 구출한바, 저항하던 VC들이 달려들면서 수류탄과 사격을 集注하니 鄭중위 또한 傾刻의 死地에 못박혀 버렸다. 그러나 뒤미처 달려간 공병분대(-)가 이를 赴援하고 그때 마침 현지에 楔入한 제3소대가 협격하여 간신히 險地를 벗어났다.

중대는 이러한 혈투를 거듭한 끝에 각소대가 11.00에는 지정된 목표를 탈취하고 포위망을 형성하는대로 이를 압축하기 시작하여 소재의 敵을 擊打한 결과 그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사라졌는데, 이때 중대장의 팔목시계는 12.00를 가르키고 있었다. 곧이어 부근일대의 精探으로 移行한 중대는 16.00에 이르도록 살살이 뒤지면서 或은 숲속에 或은 비밀巖속으로 逃走한 VC들을 남김없이 도려낸바, 확인된 유기시체는 49具였으나 포로 46명에 VC용의자 41명이었다. 또 노획한 무기는 경기판총 및 AR자동소총 각 1정을 비롯하여 각종 소총 21정과 수류탄 30발 그리고 60mm탄 2발에 문서 약간이었다. 이로써 여기에 침투한 VC, E-2B 대대의 精銳 2개중대규모가 섬멸된 것이다.

작전이 끝난뒤에 중대가 俘獲한 포로들을 審問한 결과 「여기에 潛入한 VC, E-2B대대는 아군이 南쪽에서 北上하는 것에 대비하여 Liem Loi(1)~Vinh Dinh 일대에 걸쳐 방어진을 편성하고 我軍기지를 침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과 方向으로부터 아군(제5중대)이 急衝하므로 그들의 企圖가 누설된 줄 알고 당황한 나머지 걸피를 못잡고 퇴로를 찾는데, 줄기차고 매서운 돌격에 짓눌려 潰滅되고 말았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저항하던 그들의 실태가 밝혀졌다.

여기에서 작전이 하루 연기되었다는 지시를 받은 朴東遠 대위는 落照의 餘光이 사라지자 곧 1개소대를 Liem Loi(1) 東쪽에 배치하고 중대(-)로써 Vinh Dinh 일대에 급편방어 진지를 마련하여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이날밤은 유난히도 달이 밝고 激戰間에 昇華한 英顯을 吊慰하듯 야자수 입사이에 비치는 南十字星이 奧妙하거만 한데 이따금씩 멀리서 은은한 짐승소리가 腥塵을 감싼 靜寂을 깨뜨리면서 긴 餘韻을 남기는 것이었다.

2. 제7중대(장, 姜君吉 대위)는 Phuong Donh에 도착하자 곧 계획된 시간에 공격을 개시한바, 1개소대가 목표를 탐색할 동안에 나머지 소대로서 그 兩側方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소대(장, 金秀吉 소위)는 Thanh Liem을 거쳐 목표 “21”(Thanh Thai)에 이르러 마을로 이어지는 細路에 매설된 장애물을 제거할때 제2, 제3兩소대는 該마을 南北 외곽을 차단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1소대는 목표 “24”(Xuan Mai)로 向하고, 제2소대는 同 “22”(Thanh Giang)를, 또 제3소대는 앞선 兩소대를 후속하다가 Thanh Danh(1) (목표 “23”)을 목표로 소대간의 지원거리를 유지하면서 分進하였다. 그로부터 1시간뒤에 제2소대(장, 梁修一 소위)는 Thanh Giang 150m 앞에서 敵의 총격을 받는 즉시 돌진하여 이를 頂령하였으나 마을 안에는 婦女子와 老人들 뿐이므로 마을 외곽을 精探끝에 화기분대가 나무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VC 2명을 사살하였다.

한편 제3소대(장, 金相吉 중위)는 Thanh Danh(1)을 탈취하자 주민들이 몰려 나와 例의 환영을 가장한 아군의 진을위치를 敵에게 알리는 행동을 恣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을 안에는 예측한대로 VC들의 자취는 없고 要所마다 산병호와 “병커”가 수 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잠시뒤에 마을 東쪽(500m)의 細川을 도설중인 分子들을 추격하여 제1분대의 부분대장 金九源 병장이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는 동시에 SKS소총 1정과 문서, 약간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輕戰을 치룬 다음 중대는 여기에서 제1소대를 목표 “24”(Xuan Mai)로, 또 제2소대를 同 “25”(Thanh Mai)로 각각 直衝케 하고 제3소대로 하여금 先行소대 중간에서 뒤따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09.00에는 제1소대가 Xuan Mai를 석권하고 제2소대가 그 北東쪽으로 우회중이  
었으며, 제3소대와 중대본부 및 화기소대(-)가 뒤를 이어 진격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40  
분이 지났을 무렵에 느닷없이 중대장의 30m뒤에서 종류미상의 포탄이 炸烈하고 또 제3소  
대 대열에도 박격포탄이 날아들어 閃光이 번쩍일때 마다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北쪽으로부터 치열한 사격이 집중되더니 불과 5분사이에 金洛連, 李炳昌 兩상병이 현  
지에서 戰死하고 金淸一 일병 以下 11명이 부상하였는데 當面한 敵은 목표 “28”(Kim Tai  
: 北쪽 1km)에 전개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에 중대장 姜君吉 대위는 지체없이 Xuan Mai  
를 탐색중인 제1소대를 뽑아내어 北쪽으로 轉進케하고 제3소대와 더불어 소개의 무리들과  
交戰하는데 이때에 제2소대는 300m 東쪽에서 南東쪽으로 退却하는 一群을 추격하고 있었  
다.

잠시뒤에 중대장은 대대장으로부터 『중대는 北쪽으로 진격하여 목표 “27”-同 “28”을 장악  
한 다음 그 北쪽에 있는 하천연변을 따라 차단선을 찢고 脫出하는 敵을 擊碎하라.』는 명령을 받았  
다.

곧이어 『제5중대가 北쪽에 拔擢중이니 하천 北쪽으로는 一步도 전진하지 말 것이며 여기에서는  
敵을 확인한 연후에 사격하라.』고 嚴命하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중대장은 제1소대로 하여금 제3소대의 掩護下에 Kim Tai로 突衝케하는 동시에  
이때 이미 목표 “25”(Thanh Mai)를 탐색중인 제2소대를 Dinh Thuan(목표 “26”)—Tam  
Hoa(목표 “27”)를 向하여 追躡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소대장 金秀吉 소위는 短兵을 휘둘  
러 돌격을 決行 끝에 내치한 敵에게 退散할 여유를 주지않고 적진을 유린하였는데 이때에  
金大連 일병은 尖兵으로서 소대장을 앞질러 뛰어드는 즉시 호속에 숨은채로 저격하는 2명  
을 紫電一擊으로 사살하고 다음 진지로 약동하는 찰나 一彈이 그의 胸部를 관통하여 붉은  
피를 뿜으면서 陣歿하였다.

또한 소대무전병 金根鎬 일병은 왼쪽 종아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곧 압박대를  
감아 응급止血한 다음 절뚝거리면서 소대장을 따랐다. 소대장 金秀吉 소위가 즉시 후송시  
키려 하였으나 金일병은 「자기가 없으면 소대장이 전투를 지휘하지 못한다」라고 우기면서 완강  
하게 이를 거부하고 소대장을 跟隨하다가 “벙커”에 숨은 2명을 수류탄의 爆片을 덮어 썩워  
제압하고 CAR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소대는 이러한 白兵戰을 계속하여 마침내 Kim Tai  
를 탈취하였으며 모두 7명을 사살하고 VC용의자 5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돌격간 부상한  
金根鎬 일병은 이날의 전투가 끝날때까지 소대장의 전투지휘를 보좌하다가 18.00에 이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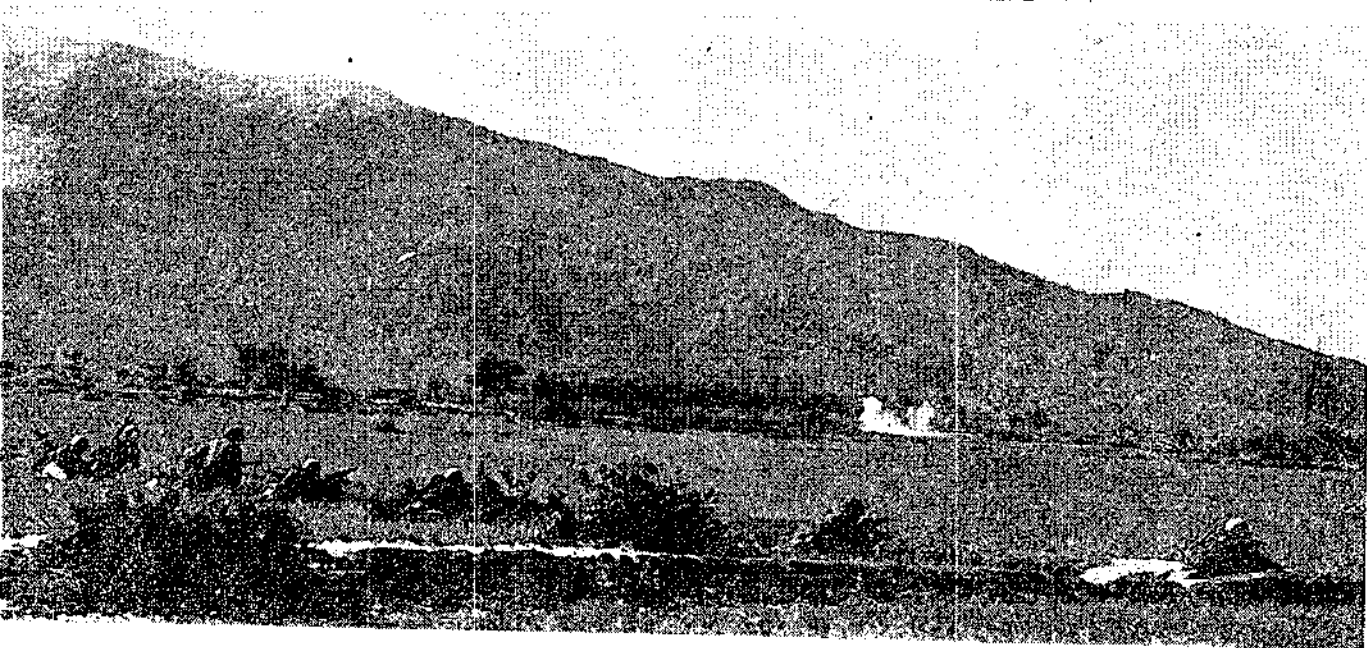
再次 후송을 종용하는 것을 끝내 不應하고 다음날 전투에도 소대 무전망을 유지하였으며 이 作戰이 마무리 되어 차량 승차지역에 다달으자 긴장을 풀은 탓인지 현지에서 기절하였다. 그뒤 사단에서는 그에게 중무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제3소대는 제1소대의 공격을 지원하다가 同소대가 목표로突入하자 곧 이를 후속하던중 중대장으로부터 제2소대가 Tam Hoa로 向進하는것을 側方에서 掩護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소대장은 즉시 東進하여 목표를 제압하기 시작하였는데 소대 전령 吳秉奎 병장이 불을 뿜는 敵의 자동화기진지에 수류탄을 던져 2명을 사살하고 진지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一彈에 맞아 장렬하게 散華하였다.

또 제1분대의 金九原 병장은 AR자동소총조를 거느리고 左側荷를 엄호하여 2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하였으며 CKC소총 1정과 문서 약간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근접전을 치룬 끝에 소대는 제1, 제2 兩소대가 목표를 석권하는 동안 左側方(西쪽)의 경계와 차단을 互用하였다.

한편 梁修一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Thanh Mai(목표 "25")를 휩쓸고 東走하는 VC 들을 추격하다가 Dinh Thuanh—Tam Hoa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자 곧 北쪽으로 銳鋒을 돌렸다.

얼마뒤 Dinh Thuanh을 석권한 연후에 Tam Hoa 외곽에 육박하였을 즈음 熾盛한 사격으



연막차장을 실시한 다음 돌격준비를 하고 있다.

로 저항하는 敵과 충돌한바, 그들은 미리 준비된 진지에 蟄伏하고 있었다. 소대장은 그들의 반응을 살피다가 별안간에 모든 可用한 火力을 적진 한가운데로 집중하자마자 白兵을 휘몰아 穿貫楔衝하였는데, 이때에 張義夫 상병은 M79유탄의 熱火를 끊임없이 퍼부어 소재의 分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소대장도 趙在根 중사가 자동화기 사수를 一彈으로 쓰러뜨리자 이에 膺接한 소대원이 밀어닥쳐 저항선을 돌파하는 즉시 마을로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하여 소대는 모두 12명을 사살하고 3명을 俘獲하였으며 CKC소총 3정과 수류탄을 노획하였다.

이윽고 Kim Tai—Tam Hoa를 점령한 중대는 北上하는 즉시 所命된 地線을 따라 차단진지를 마련하는 한편 要地를 장악하는대로 예상되는 되로를 扼守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저항이 없어지자 중대장은 각소대를 산개한 연후에 日沒에 이르도록 Kim Tai 일대를 반복하면서 누비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탐색간에 제2소대는 산병호에 잠복한 1명을 사로잡았으며 또 화기소대장 權炳秀 중위는 마을 한복판에 60mm박격포를 방열한 다음 탄약수 6명과 전령 1명을 거느리고 南東쪽 一角을 누비다가 숲에 둘러싸인 독립가옥 부근에 이르렀을때 집안에서 女人이 손짓을 하므로 수상하게 여기고 접근하는데 갑자기 날아든 一彈에 吳富吉 일병이 전사하였다. 이를 신호로 VC들의 사격이 시작되자, 그들은 탱자나무 덩굴속에 잠복한채로 총격을 가하는데 火力의 강도로 미루어 보아 1개소대 규모로 추산되었다. 소대장 權중위는 즉시 중대장에게 赴援을 요청한 다음 그들을 현지에 고착시키기 위하여 側背로 돌아가다가 움직이는 1명을 사살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소대장님 VC이 쳐옵니다。」라고 뒤에서 외치므로 반사적으로 엎드리는 일순. 날카로운 총성이 그의 컷전을 스쳐갔다. 뒤따르던 鄭充吉 일병(제8중대 제1소대에서 배속)이 소대장의 행동을 응시하다가 그를 노리는 VC을 목격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一髮의 差로 급사를 퍼부어 사살한 것이었다.

鄭일병은 즉시 탱자덩굴로 뛰어들어 速射로서 잠복한 分子들을 제압하고 이 사이에 달려든 대원들이 육박전끝에 4명을 사살하였으며 곧이어 敗走하는 무리들을 추격하다가 鄭充吉 일병이 권총을 휴대한 VC소대장을 사살하였다. 이러한 탐색전끝에 중대는 이날 하루동안 모두 42명을 사살하고 포로 3명과 VC용의자 12명을 사로잡았으며 개인화기 7정을 노획하였다. 어둠이 깃들자 중대는 Kim Tai 北쪽의 細川연변에 제2소대를 배치하고 중대(-)는 南東쪽에서 야간전투 태세를 갖추고 한밤을 지새웠다.

3. 제6중대(+) (장, 丁萬吉 대위)는 이날 Huynh Kim(1)에 있는 越南 제22사단 비행장에서 4개 비행제대를 편조하여 07.40부터 공중기동으로 △78에 착륙하였다. 여기에 배속



된 연대수색중대의 제1소대를 殘置하여 同高地를 확보케한 연후에 Nam Yan(江)을 도하하는 즉시 Dai Loi(2) (목표 “13”)를 向하여 北上한바, 敵과의 충돌이 빈번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는 달리 接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점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2시간뒤인 09.30에 Song Dai An(江) 남안의 Dai Hao(목표 “14”)에 이르렀을 때 대안에서 數未詳의 一羣이 원거리 사격을 가하면서 중대의 진격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 선두에서 전로를 개척하던 제2소대장 孫龍男 소위는 그들중의 一黨이 彼岸에 潛據한것을 알아내자마자 돌격을 결행끝에 7명을 사살하고 미처 던지지 못한 방망이 수류탄을 노획하였으며 그들이 잠복한 일대를 누비다가 숲속에 도사린 VC용의자 125명을 사로잡았다.

중대는 이 一戰을 치른끝에 所在의 VC들이 아군과 부딪치면 저항하다가 不利하면 곧 무기를 감춘 연후에 주민을 가장하여 마을 부근을 徘徊하거나 집안으로 숨어드는 狡獪한 방법을 취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를 檢騷하는데 力點을 두고 계획된 목표를 차례차례 精密한 탐색으로 뒤지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Trung Binh(목표 “15”)—Hung Tri(목표 “17”)—An Nhong(목표 “20”)을 석권하는 동안에 모두 21具의 유기시체를 現認하고 VC용의자 308명을 俘獲한 반면 아군 2명이 부상하여 후송되었다. 16.00에 이르러 중대는 Dai Huu(2) (목표 “4”)에 다달았는데 여기에서 작전이 연기되어 대대계획의 일환으로 △78 頂上을 중심으로 四圍경계태세를 가다듬고 야간전투로 移行하였다. 그런데 同高地에는 대대 전술지휘소가 설치된데다가 전투간에 사로잡은 VC용의자와 인근 마을에서 피난민이 몰린 탓으로 그들의 경계와 보호에 적지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중대장은 대대 정보장교 金炳泰 대위와 협조하여 그들을 50~60명씩 분리하고 이를 수개의 계곡에 집결수용한 연후에 장병들의 야전식량을 조금씩 거두어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에게 분배하는 한편 밤사이에 현지에서 VC용의자를 訊問하였다.

(다) 연대 전술지휘소에서는 제2대대가 Liem Loi(1)에서 강력한 敵과 충돌하고 한편으로 제1대대 책임지대내에서 그들의 탄약 및 무기수리소가 탐지된 것을 비롯하여 1개 중대규모의 VC이 流動中인 것이 확인되자 작전지역에 증강된 1개대대규모의 武裝兵群이 潛動하는 것으로 추단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斑雲 대령은 제2대대가 대치한 무리들을 포위하여 압축하는 것을 일단 마무리하고 精探으로 移行하자 12.40을 期하여 귀순을 권고하는 전단 100,000매를 공중살포하였다. 이와동시에 제2대대가 공격계획을 변경한 까닭에 탐색하지 못한 목표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날 An Nhon 군청으로부터 입수된 첩보의 정확성이 인정되어 아직도 상당한 數의 VC이 지대내에 潛伏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리하여 그들

을 송두리채 剔抉하고 아울러 VC의 據點을 남김없이 覆滅하고자 이 작전을 다음날까지 연기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전투식량과 각종탄약을 17.00~18.00사이에 “헬리콥터”편으로 재보급하였다.

한편 화력지원부대는 사단 항공대의 공중관측반과 전투부대의 행동을 같이하는 관측장교의 요청에 副應하여 鐵火를 퍼부어 所在의 敵을 제압한바, 狡猾한 夜叉들이 피난민 틈에 끼어 퇴주하므로 사격권내에서 流動하는 그들을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격을 보류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작전간에 포병 제60대대는 Hung Tri부근 河川을 도하중인 “장크”를 격파하고 제1대대 전투지대 北端의 2개장소에 집결한 VC (1개소대규모)을 鐵火로써 擊碎하였다. 특히 이날 09.30에는 사단 항공대의 0-1機 관측반이 제6중대가 Song Dai An(江)을 따라 東進할때 Vinh Phu(작전지역 외곽) 일대에 VC 1개소대규모가 遊動中인 것을 관측하고 지원포병의 사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참작하고 美 전투포격을 긴급요청하여 이를 강타케 하였으며 또 15.00에는 Loc Khanh(1) (작전지역 北東쪽 2.5km) 부근에서 VC 2개소대규모가 潛動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戰爆機를 유도하여 이를 제압하였다.

1월 10일(D+1) : 이날도 구름 한점없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었다. 연대는 제1, 제2 兩대대로 하여금 이른 새벽부터 용의지역에 力點을 두고 탐색케 하였으며 작전 종반에 접어들자 안전통행증과 귀순을 종용하는 전단 100,000를 공중살포 하였는데 이것이 奏功하여 여러곳에서 주민들이 이를 손에 들고 越南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피난하는 것이었다. 한편 연대장 金斑雲 대령은 兩대대의 接敵상황이 경마할 뿐만 아니라 그밖의 여러가지 장후를 종합분석끝에 구역내의 敵의 主力은 전날 전투에서 이미 격멸된것이 틀림없으며 殘黨들도 지대밖으로 退散하였거나 또는 擊碎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작전을 계획한대로 이날로서 끝마치기로 하고 지대 北쪽일대를 감제하는 전술적 要地인 △78에 1개중대를 잔류매복대로서 殘置하여 그들의 반응을 살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치는 앞으로 아군이 Go Boi령야 일대를 截定키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긴 眼目的 포석인 것이다.

(가) 대1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는 早曉부터 제2, 제3兩중대로 하여금 전날 탐색한 목표를 逆順으로 누비게 하였다. 한편 제1중대는 지대 중앙 일대에서 차단과 탐색을 병행하다가 Luong Binh 西쪽에서 숲속에 웅크린 4명을 사살하였다. 또 제2중대는 Duong Thuang (2) (목표 “카”)을 석권한 다음 Long Hau로 向하던중 Duong Thanh (1) (목표 “차”)로 反轉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인접대대가 該목표 西쪽에서 遊

動하는 敵을 공격하는데 호응하여 그들의 퇴로 차단과 挾擊을 兼한 조치인바, 잠시뒤에 여기에서 VC용의자 13명을 적발하고 TNT 2상자와 수류탄 2발을 노획한 연후에 목표 “자”(Loc Thuanh)—同 “가”(Kim Xuyen)를 차례로 누버 나갔다.

한편 제3중대는 Van Triem (1) (목표 “4”)에서 Chanh Dinh (목표 “5”)—Chanh Hoi(목표 “6”)를 再探索한 다음 Van Triem (2) (목표 “3”)—Phu Dong (목표 “1”)의 經路를 따라 南進하다가 3개 장소에서 輕戰 끝에 유기시체 4구를 내게하고 VC용의자 47명을 사로잡았다. 대대는 이러한 탐색을 正午에 이르도록 계속한 연후에 그로부터 30분뒤에 전투를 끝마치고 Song Am Phu(江) 南쪽으로 되돌아갔다.

(나)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의 3개 공격중대는 전날밤 子正을 期하여 하달된 대대요지 명령에 따라 이날 晝의 어둠을 헤치면서 東進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09.20에는 제5중대가 Thai Xuan(목표 “5”)의 반복탐색을 끝마치고 Binh An(목표 “6”) 東쪽일대를 누비다가 인접대대구역 (Loc Than)으로부터 1개 중대규모의 VC이 西走하는 것을 포착한바, 이때에 제7중대는 새로 부여된 목표 “29”(Tinh Binh 2)의 一角을 누비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同중대로 하여금 현위치에서 예상되는 그들의 退散路를 차단케하는 한편 제5중대로서 당면의 敵을 迎擊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그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Binh An 南쪽의 하천을 도성할때 이를 急襲하여 78명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VC들은 我軍이 공격하자 곧 분산하여 비밀 동굴과 마을 안으로 숨어들어 소지한 무기를 감춘 다음이었으므로 하는수 없이 VC용의자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에 怪漢 5명이 병사들의 추격을 받자 갑자기 踪跡을 감춘 다음 민가에 숨어들어 僮侶를 가장하여 臆불하고 있는것을 적발하였는데 갓을 벗겨보니 鬍鬚하지 않은 긴머리가 나타나고 袈裟속에 수류탄을 진 탄피를 두루고 있는 狡猾한 馬脚이 탄로되기도 하였다.

또 제7중대의 제1소대는 목표 “29” 東쪽 細川연변의 길목을 制扼中 경기관총 탄약수 黃恩根 일병이 대나무 숲 사이로 흐르는 개울 수면에 머리카락이 보일락달락 떠있는 것을 목격하는 즉시 兇위사격을 加하였더니 VC 1명이 水中에서 일어서는 것이었다. 黃일병은 이 책을 앞세우고 개울을 뒤진끝에 모두 4명을 俘獲하는 동시에 저항을 시도하는 3명을 사살하고 SKS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한편 제6중대는 목표 “4”(Dai Huug 2)—同 “16”(Hun Tri 北쪽 500m) 경로를 따라 진격하다가 Hung Tri를 누빌때 연대계획의 일환으로 △78에서 잔류대복하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 여기에서 反轉하였는데 탐색간에 3개 장소에서 VC용의자

18명을 검거하였다. 대대는 이와같은 接戰 끝에 제5, 제7 兩중대가 16.00에 이르도록 전날 누비지 못한 목표와 계획된 지역의 탐색을 마무리한 다음 17.00에 Phuong Danh으로 집결 함으로써 이 작전의 막을 내렸다.

(다) △78 잔류매복대 : 한편 제6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78로 되돌아 가자 곧 잔류매복대를 가다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同高地는 Nui Ma Ha(山) (標高 254m : 西쪽 2.5km) — Nui Ao(山) (標高 93m : 北쪽 2km)와 더불어 Go Boi평야 北쪽에서 三角形을 이루고 있는 감제고지이다. 이와같은 사유로 그 北쪽의 峰巒에 본거지를 둔 Binh Dinh省 VC이 제1번 도로와 An Nhon 일대를 侵襲할 때 이용하는 중간 지점으로서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의 東쪽 一角에 있으므로 평야의 輿地를 睥睨하며 제5중대가 VC과 激突한 Liem Loi 일대의 접근로를 制壓할 수 있는 要地로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같은 利點을 감고한 사단장 蔡命新 소장은 본작전이 마무리되어가는 무렵에 제3기 작전으로 轉移하는 즉시 該平野의 鑑定을 위한 사단규모 작전을 전개할 것을 구상하고 1개중대(+)규모로서 同高地를 장악하여 潛動하는 敵의 행동에 썩기를 박는 한편 다음 작전시 공격의 발판으로 이용코자 이를 연대장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81mm박격포 및 경기관총 각1개소대씩을 배속 받은 다음 지령을 踏査끝에 제1소대를 南쪽(300m) 頂上에, 제2, 제3 兩소대를 主峯의 東, 西쪽에 각각 배치하여 주야간에 걸친 장기매복과 진지구축 작업을 병행하였다.

다음날(11일) 夜二更에 제2소대 正面(東쪽)의 Dai Huu (1), (2)에서 개짓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부근에 손전등 불빛이 명멸하면서 兵力未詳의 무리들이 움직이는 정후가 드러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었는데 중대장은 그것이 VC의 陽動인것으로 추측하였다. 날이 밝자 중대는 일부병력으로 진전과 부근일대에 點在한 마을을 정찰케하는 한편 개인호와 공용하기 진지를 보강하고 장애물(“크레모어” 및 조명지뢰) 부설상태를 점검하였다.

이날밤(12일)은 음산한 黑暗에 살기마져 감도는데 夜一更에 이르자 Nui Ao(山) (△94 : △78北쪽 2km)에서 예광탄이 발사되고 該高地 東쪽의 Chanh Nhon (1), (2)에서는 손전등이 비치더니 개짓는 소리가 전날보다 더욱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었다.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그것이 VC의 挑發의 前奏일것으로 내다보고 Nui Ao(山) 일대에 포병의 요란사격을 유도하여 소재의 敵을 제압하는 동시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잠시뒤에는 Dai Huu (2) 앞 개울가에서 300m 간격을 두고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었다.

중대장 丁대위는 판단하기를 「이는 VC들이 盤東驛西의 피를 弄하면서 아군의 주의력을 한곳으로 기울게한 연후에 그 반대 방향으로 침습하려는 奸策일 것이다.」라고 간파하고 각소대장에게 호령하되 『불빛이나 개짓는 소리에 眩惑되지 말고 오직各自 책임구역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동안 잠잠하다가 夜三更에 갑자기 南쪽 頂上 일대를 담당한 제1소대의 경기관총 진지 앞에서 종류미상의 폭발물 3발이 연이어 炸裂하더니 검은 불채가 접근하므로 즉시 총격을 집중하여 격퇴하였다.

곧이어 제2소대 陣前에 있는 廢屋 2棟에서 불빛 신호가 반짝이더니 수류탄 10발이 집중 폭발 하므로 81mm박격포와 경기관총의 급사로서 제압하는 동시에 조명탄을 발사한바, 이번에는 제3소대 正面에서 2명의 VC이 황급히 退走하는 것을 경기관총의 속사를 퍼부어 쓰러뜨렸다.

이때 외저신 근방의 논바닥에도 얼드린채로 접근하는 一群의 모습이 조명하에 드러났는



樹林속을 탐색하는 병사들

데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경기관총의 진지가 그들에게 노출되었으므로 모든 火力을 동시에 발사하여 當面の 敵을 물리친바, 중대장이 판단한대로 2시간전에 VC들이 陽動하던 반대쪽인 제3소대에 그들의 主攻이 指向된 것이었다. 이윽고 東山에 弓月이 떠오르자 그들의 자취는 사라지고 소슬한 山巒는 적막을 더하는때 어느새 동이 뜨기 시작하였다.

중대장은 지체없이 각소대에서 일부 병력을 뽑아내어 高地 주위를 탐색케한바, 제1소대 진전의 Vinh Dinh [주민이 이르기를 「지난밤에 VC 1개분대규모가 마을을 지나갔다.」라고 제보 하였으며 또 제2소대는 개울연변의 동굴에 1개분대규모가 잠복한 흔적을 찾아내었다.

한편 제3소대는 300m앞에있는 丘陵을 누빈끝에 유기시체 2具와 부근의 논바닥에서 핏자국을 現認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폭발물이 방망이 수류탄이었음이 여러가지 흔적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景況을 치룬 다음 중대는 岡高地에 잠정기지를 마련하여 한동안 여기에 머물게 되었다.

## 라. 作戰 後의 概況

연대는 연합군과 敵이 자기 다른 觀點에서 我軍의 전투력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 작전을 단행한바, 그동안 피와 땀으로 연마한 戰技와 臨戰無退의 공격정신을 發揚하여 Binh Dinh省 VC의 主力인 E-2 B내대(2개중대규모) 및 이와 雷和附同하는 지방 VC 2개중대규모를 일거에 섬멸하였다.

이를 契機로 라월 韓國軍은 필승의 신념을 갖고 전투에 臨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僚軍은 아군의 실적을 높이 인정하게 되는 반면 敵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어 마침내 그들이 畏敬하는 대상이 된것이다. 또한 이 작전을 通하여 때와 장소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가지 作態로 愈出愈怪하면서 안하무인격으로 橫行하다가 공격하면 그 자취를 감추는 鬪으로 언제나 그림자만 쫓는 결과가 되어 주민들에게는 이른바 神出鬼沒하는 超人으로 비치던 VC의 정체가 한낱 하잘것 없는 武裝徒黨에 불과하다는 것이 白日下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 결과가 이 작전이 끝난 다음 VC의 거점지역 一圓(Go Boi평야)에 波及되어 여기에 거주하던 적성주민 2,700명이 줄어들어 越南당국의 管轄지역으로 미난한바, 이와같은 사례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니 그야말로 異變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越南의 管轄기관이 該지역의 住民을 政府의 管轄지역으로 뽑아내려고 온갖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微動도 하지 않던 그들인지라 상상하지도 못할만큼 많은 주민이 자진하여 光明을 찾아 들었으니 越南당국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의 裏面에는 작전간에 戰場에서 아군의 활약상을 몸소 겪은 적성 주민들이 韓國軍의 출현

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Go Boi 일대가 難攻不落의 거점으로 溫存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한 탓으로 보여진다.

작전이 마무리된 다음 이러한 여러가지 반응이 잇달아 나타나자 越南행정기관에서는 적성지역으로서 그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손 댈 수 없다고 諦念한 Go Boi정야 일대를 단번에 1級 평정사업지역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아군의 협조를 간청하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현지에서 전투실황을 직접 목격한 피난민을 通하여 아군의 공격양상이 越南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자 그들이 我軍을 대하는 태도가 一變하여 연합군 중에서 가장 強하고 신뢰할만한 군대임을 깨달게 됨으로써 마을속에서 울어나는 친군감을 품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고기(VC)와 물(주민)을 분리하는 실마리를 잡게 되고 사단이 제3기 작전으로 移行하는 바탕이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연대는 작전이 끝나는 즉시 작전 평가회의를 소집하여 전투간에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와 전훈을 분석하고 未備한 點에 대한 시정방책을 진지하게 토의한 연후에 이를 관계부대에 전파하였다.

그런데 이 작전에서 韓國軍이 파월한 이래 처음으로 도보 지상공격과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차단부대를 깊숙히 예상되는 되로에 공중기동으로 투입하는 입체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소재의 敵이 眩惑된 나머지 퇴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데다가 我軍이 공격하는 方向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기습하여 鐵鎚를 加한 것이다.

이로써 이 방식이 越南戰에서 유격행동을 위주하는 敵을 포위 격멸하는 효과적인 방책의 하나로서 脚光을 받게 될바, 사단에서는 이를 다각도로 연구하고 몇차례에 걸쳐 實演끝에 마침내 새로운 전술로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越南단국에서는 작전이 끝난 2일뒤인 12일에 An Nhon 군청 광장에서 「飛虎 6호 작전」 승전 축하 및 맹호부대의 환영식을 개최하였는데 이자리에는 파월한국군 사령관 겸 사단장 蔡命新 소장과 각 연대장 및 제1연대 제2대대장 李彌朝 중령 그리고 유공장병이 초청되었으며 越南側에서는 Binh Dinh省長과 有力人士 및 주민 1,500명이 참가하여 和氣霽謐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An Nhon에는 거리마다

「1. 맹호의 희생정신을 높이 찬양한다.

2. 越南국민은 韓國軍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3. 韓國軍의 숭고한 理念에 감사한다.」라고 韓·越·英語로 기입된 현수막이 장식되고, 家家戶戶에 大國旗와 越南旗가 게양되어 축하 一色으로 뒤덮여 조붓한 분위기에 넘쳐 있었다.

연대는 곧 戰線을 씻을 틈도 없이 중대 및 대대급 전투를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책임지대 戡定에 努力하고 단번으로 제3기 작전으로 이행할 준비를 진행하다가 「맹호 5호 작전」(3, 23~26)에 사단의 일부로 참가하게 되었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 살	포 로	용 의 자	노 획								전 사	전 상		
				개 인 화 기	공 용 화 기	무 전 기	실 탄	수 류 탄	TNT (l/b)	포 탄	파 괴 통			지 뢰	
제 1 대 대	제 1 중대	8		1											
	제 2 중대	30		129	14		1	3,000	15	90	26	3	2	3	4
	제 3 중대	39	1	137											4
	소 계	77	1	306	15		1	3,000	15	90	26	3	2	3	8
제 2 대 대	제 5 중대	49	45	125	21	2			30					6	13
	제 6 중대	23		326					1						2
	제 7 중대	49	3	16	8			20	8					4	16
	소 계	121	48	467	29	2		20	39					10	31
합 계	198	49	773	44	2	1	3,020	54	90	26	3	2	13	39	

- ※ 1. 배속부대 사상자는 지배속부대에 포함하였음.
- 2. 제6중대 전과에는 잔류배부기간에 사살한 2명을 포함하였음.

戰果 對 損失 比率

戰 死 : 射 殺	戰死 : 노획무기	密獲武器 : 射殺
1 : 15.2	1 : 3.5	1 : 4.6

§ 戰 訓

嶄新 卓拔한 戰法

연대는 지난 年末부터 Go Boi평야 일대를 대 이 끝난 2일뒤에 갑자기 2개대대를 동원하여 아 약 1주일의 간격을 두고 同一한 지역을 매번 같 적 한번도 연합군이 손을 대지 못한 敵의 근거지는 방식으로 탐색하다가 「飛虎 5호작전(66.1.7)」 을 地上과 공중기동을 병용하면서 입체적으로 씬



쏟았다. 반면 敵은 이 작전이 전개 될때까지의 我軍의 작전주기를 이용하여 「飛虎 5호 작전」이 끝나자 곧 1개대대(+)규모로 Liem Loi (1) 일대에 집결한 연후에 아군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다가 猝地에 매서운 鐵槌를 얻어 맞았으니 제아무리 은밀한 행동에 能하고 離合을 長拔로하는 VC인들 어찌 감당할 수 있으리요.

더욱이 연대는 이 작전에서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Song Dai An(江) 연변에 일개 중대를 投入함으로써 예상되는 퇴로와 증원경로를 멀리서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2개대대를 左右양측방에 전개하여 제각기 공격방향을 달리한 목표를 탐색케 하였으므로 當面の 敵이 현지 주민까지 동원하여 狡猾한 手法으로 아군의 진출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광범한 지역에 걸쳐 포위하는 眞意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 一觸即發하는 主動的 態勢의 確立

작전간에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5, 제7兩중대가 거의 같은시각에 박격포를 비롯한 자동화기로서 熾盛한 사격을 加하는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사상자가 속출하자 곧 그들의 소대를 파악하고 原공격경로를 변경하여 兩중대로서 이를 포위토록 路단을 내리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황판단이 정확하고 罅틈명명이 短切 明確한 까닭에 兩중대가 이를 실천하는데 一毫의 차질도 없었을 뿐더러 신속한 행동으로 대치한 VC들을 격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

### 必勝의 氣魄과 能動的 姿勢의 堅持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공격 初動에 Song Ong Su(江)를 도하하다가 진격이 지연되어 所命된 시간에 목표 “4”(Dai Huu 2)를 점령하지 못하게 되자 주저하지 않고 공격경로를 바꾸어 중대(-)를 거느리고 △78 南端으로 우회한바 實로

필연적으로 눈앞의 火急한 情況에 頓惑된 나머지 종합적인 전투주기를 판단할 겨를이 없이 단편적인 저항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무릇 일정한 방식을 여러번 되풀이 하는것은 매우 拙劣할 뿐더러 새로운 모험적인 행동을 전개하다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막대한 손실과 실패하였을 때 추궁될 문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前轍을 踏襲하려는 안일무사주의의 용병인 까닭에 이를 기피하는 것이 通例인 것이다. 따라서 새롭고 奇拔한 方책을 강구하고 이를 단행하는데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고 勝捷의 確信을 가져야만 하는데 연대장 金斑雲 대령이 본작전에서 嶄新하고 卓拔한 進법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麾下 장병의 뛰어난 戰技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것이다.

대개 작전전에 수집한 정보는 애매한 것이며 특히 越南戰에서는 流動하는 “게릴라”를 상대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평소애 戰場에서 부딪칠 우연과 필연을 불문하고 敵에 대한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여 一觸에 即發하는 주동적인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바 제2대대는 이 작전을 통하여 그것이 곧 승리와 적결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吾人은 이 戰例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리는 바이다.

이 조치가 Liem Loi (1) 일대에 蟄伏中인 敵을 당황케하고 조기에 Vinh Dinh부근에서 그들과 충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강력한 敵과 부딪치자 중대장은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열세함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楔衝할

에 그들의 虛實을 看破하는 즉시 중대본부 東쪽 1~2km 떨어진 목표를 공격중인 3개소대로써 이를 포위키로 다짐하고 그것이 형성될때까지 死生을 초월한 壯嚴한 행동으로 밀어다치는 敵을 현지에 釘着시키 마침내 그들을 섬멸하였다. 중대(-)가 焦眉의 急況에 처하였을때 중대장의 이와 같은 과단성과 필승의 결의가 凝結된 까닭에 불과 1개소대규모의 병력이 1개대대규모의 敵과 맞부닥쳐 육박전을 벌이면서도 오히려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勇將 밑에 弱卒 없다는 말 그대로 그의 각소대장과 병사들이 왕성한 공격정신을 유감없이 發揚 끝에 挺進先鋒의 돌격과 殺身成仁의 승고한 장면을 잇달아 演出하였다. 공격간에 敵의 총격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현지에 엎드려채로 고착케 되기 쉬운데 그러면 그들은 사격진지를 옮기면서 조준사격을 加할 수 있는 반면 攻者는 위축되어

사상자만 累增되는 가운데 아무 조치도 取하지 못하고 포병화력에 의존하게 되고 만다. 그러나 “게 밀려”는 『先打一分散』의 교조적인 격식대로 행동하므로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전투간에 제3소대(장, 鄭政能 소위)는 Liem Loi (1)로 진격중 敵의 사격을 받는 즉시 경기관 총 2정의 掩護下에 돌격 끝에 저항하는 무리들을 擊碎하였으며 또 제2소대(장, 李濟 중위)는 Binh An에서 박격포와 자동화기토세 대항하는 一群과 충돌하여 惡戰苦鬪하다가 張正煥 상병이 先頭에서 돌입하자 이에 부집한 소대원이 돌진을 泐行 끝에 소재의 VC들을 진멸하였다. 이와같이 敵과 조우하면 어떤일이 있어도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유격전의 장점인 유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격돌하여 이를 제압하는것이 勝捷의 요결인바 제5중대는 이 작전에서 이 원칙에 徹하여 能히 以寡擊衆하는 값진 전례를 남겼다.

### 遮斷部隊 運用의 妙

제2대대는 Liem Loi (1)를 중심으로한 1km<sup>2</sup>내에 敵이 배치되었다고 판단하자 곧 제5중대로써 이를 압박케 하고 제7중대로 하여금 Kim Tai-Dai Thuan 北쪽의 하천연변을 따라 퇴로를 차단하되 北쪽으로는 진출하지 못하게 통제하였다. 越南의 山野는 어디나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圖上과 현지의 실경에는 차이가 많아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며 특히 교룡간에 硝煙이 뒤덮힌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러한 까닭에 자칫하면 혼란이 야기되기 쉽다. 이작전에서 제2대대는 지도상에서나 현지에서든 뚜렷하게 식별되는 하천을 차단선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제7중대가 지정된 地線을 신속하게 차단하였으며 제5중대는 차단부대 方向으로 포위망을 꺼리낌없이 압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 目標의 分割

제1대대는 최중목표인 Long Hau를 제2, 제3兩중대로써 東·西 양면에서 挾擊케 하였다. 그러나 전투간에 접적이 경미하였던 右一線(제3중대)의 진격이 빨랐던 까닭에 該중대로 하여금 이를 탈취케 하였을때 이때에 목표에 다달은 중대원이 사격을 加하는 敵을 제2중대원인줄 알고 이

를 제지하다가 대치한 무리들에게 퇴산할 기회를 주고 말았다. 본시 Long Hau는 그때까지 연합군이나 越南軍이 한번도 들어가지 못한 Go Boi平野의 후미인 輿地로서 Binh Dinh省 VC이 여기에 전초거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완강한 저항이 예측되어 2개중대로써 이를 석권하려고

기도한듯 보여진다. 이 戰例는 1개 목표를 분할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알아보기 쉬운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책임구역을 명확하게 지정

하고 이에 따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混線이 벗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 § 逸 話

### 끝을 맺지 못한 편지의 사연

제1연대 제5중대 화기소대 일등병 李武男(1966년 1월 9일 Liem Loi (1)에서 戰死).

본작전이 전개되는 전날밤 제5중대 화기소대의 李武男 일병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를 본 분대장이 「李일병 내일부터 전투가 시작돼, 빨리 자도록 해!」라고 투박하게 타이르자 그는 쓰다가 끝을 못맺은 글월을 접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1월 9일) 李일병은 Liem Loi (1)에서 치성한 彈束을 뚫고 적진으로 돌진하다가 兇彈을 맞고 장렬하게 散華하였다. 이 血戰에서 赫赫한 전공을 세운 중대원들은 의기양양하여 저마다 무용담의 꽃을 피웠으나 분대장은 李武男 일병이 전사한 것이 몹시 가슴아팠으며 전날밤 못다 쓴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여 읽어보니 어머니에게 보내는 사연이었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 내일도 전투가 있습니다. 매번 전투가 있을때 마다 저는 무사했습니다. 내일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猛虎에게 VC쯤은 아무것도 아닙니

다. 비록 내일 죽더라도 아무 유감이 없습니다. 男兒는 언제나 죽을 장소에서 죽는 법입니다.…」

비록 끝을 못 맺은 글월이었지만 李武男 일병의 生死觀이 뚜렷하고 의기에 찬 편지내용은 전 중대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그의 이 毅然한 자세야말로 戰場에 臨하는 花郎의 결의가 아니랴! 마땅히 죽을 장소에서 大韓의 자랑스런 아들이 欣然히 목숨을 버렸으니 吾人은 그의 이 신념을 모든 군인의 귀감으로 기리는 바이다.

註: 編史자가 故 李武男 상병의 유가족을 변담코자 원호처로 찾아가 조회한 결과 그의 홀어머니 정순남 女史의 주거지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며 그 외의 친족이 없는 탓으로 유족연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수록한 편지내용은 首擧사단 전투상보 제17호에서 발췌하였으며 당시 故 李武男 상병의 소대장이었던 金柱天 중령(당시 중위)을 변담하는 자리에서 이를 확인한 것임

### 분대장님 “칼빈”으로 바꿔줘요

제1연대 제2중대 제3소대 일병 金晉燮(1966년 1월 9일 An Hoa (3)에서 부상)

1월 9일 제2중대가 Song Am Phu(江)를 도하하는 즉시 西쪽으로 전격한바 左一線에서 전진하던 제3소대가 An Hoa (3) 부근에서 갑작스러운 사격을 받고 매우 苦戰하게 되었다. 소대원은 별안간에 쏟아지는 총격에 모두 얼드려 응전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尖兵분대장 交正一 병장이 삼간 엿을 보니 자동소총 부사수 金晉燮 일병이 쓰는 총알이 5m앞 地面에 박히고 있었다. 분대장

이 『야 적진을 보고 썩』라고 소리질렀으나 여전하므로 그의 얼굴을 보니 핏기가 없었다. 金일병은 적탄에 맞았음에도 굴하지 않고 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분대장이 사격을 멈추고 누우라고 지시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분대장님 “칼빈”으로 바꿔 주세요. M1은 무겁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곧 의식을 잃었다.

## 하느님 나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옵소서

제1연대 제5중대 화기소대 제2분대장 병장 金東述(1966년 1월 9일 Binh An 서쪽에서 戰死).

작전간에 Binh An 서쪽 交鋒에서 壯烈하게 전사한 金東述 병장은 몸집이 큰 까닭에 동작이 느려 소대장 金柱天 중위로부터 지적받는 일이 많았다. 이 작전이 전개되기 며칠전에 전중대원이 불격演習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金東述은 熱誠을 다하여 뛰었으나 어느 병사를 따라가기에 힘겨운듯 보였다.

이날밤 子正에 소대장이 순찰하는때 제2분대장 개인천막에서 기도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하느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싸움터에 臨할때에 종과 칼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萬軍의 王이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敵을 무찌르게 하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는 오래도록 계속된바 그는 매일밤 이맘때 하루도 빠짐없이 自身과 분대, 소대, 중대 나아가 파월 韓國軍 전장병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지 않는한 57mm무반동총을 쓸 수 없는 전진 바로 앞에서 敢然히 일어나 주저없이 敵焰을 퍼부었을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

(1977년 10월 14일 首都기계화 보병사단장실에서, 당시 소장)

나는 Qui Nhon에 상륙하자 곧 Cu Mong고개 일대를 鎭해병대로부터 인수하였다. 그런데 적 임지대내의 적정이 희박한 탓으로 그로부터 2개월간에는 접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대대에서는 매일같이 전투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나는 다른부대가 치른 여러형태의 전투를 다각도로 분석끝에 아군이 겪는 공통적인 전투양상을 알아내었다.

즉 배복에서는 다가서는 敵을 邀擊하므로 손실이 없으나 마을이라든가 지정된 목표를 탐색할때에는 대개 50~150m거리에서 소재의 敵으로부터 선제사격을 받아 몇명이 쓰러지면 그자리에 엎드리니까 그들은 조준사격으로 저항이 곤란하게되어 움직이지 못하다가 포병화력이 집중된 다음 그들의 총격이 멈추었을 때 비로소 敵이 사격하던 일대를 누비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미 敵

들은 退散하고 없기때문에 아무 성과도 거둘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같은 악순환이 2개월간이나 되풀이된 결과 VC은 기세가 등등하여 韓國軍도 美軍이나 越南軍과 다를바 없다고 알잡아 보는 傾向이 나타나고 반면에 아군은 날이 갈수록 자신을 잃게 마련이었다. 나는 이와같은 推移를 매우 중시하고 적에게 결정적인 一擊을 가하여 본래를 보여주어 그들이 아군을 두려워할 뿐만아니라 파월 韓國軍이 필승의 신념을 다지고 전투에 대한 자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내다보았다.

이에 나는 前述한 전투양상이 踏襲되고 있는것은 과감성이 결여된데 基因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打破하는 要諦는 오직 敵이 사격을 加하는 즉시 불격을 泐行하여 주동적으로 機先을 제압하면서 저항하는 分子들을 무찌르는 길 밖에 없다고 확

신하였다. 이리하여 전투에 참가하는 병사가 휴대하는 1일분의 식량과 탄약 1기수 및 수통과 무기 등의 무게를 산출한 결과 25kg 内外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걸머지고 150~200m의 늪지대를 달려가는데 50초~1분이 소요되므로 이동안에 가능한 조준사격은 1~2발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攻者가 노도와같이 돌진하게 되면 敵 또한 심리적으로 압도되어 조준사격이 곤란할것은 당연한 일일 뿐더러 적진에 뛰어들면 그들은 필연코 退却하게 될 터인즉 오히려 뒤에서 달아나는 썸들을 조준사격할 여유를 갖기 마련인 것이다.

나는 이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이작전이 전개될 1개월전부터 돌격에 力點을 두고 이를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동시에 장병들이 戰場에서 生死를 초월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병행하였다. 또 각 급지휘관에게는 전투간에 손실은 따르기 마련이니 이에 지나치게 구애되지 말것이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처할것을 늘 강조하였다. 이 결과 본작전에서 대대 전장병이 왕성한 공격정신을 發揚하여 一觸하면 即發하는 돌진을 거듭한 까닭에 大勝을 거두게 되었다고 확신하며 特別 朴東遠대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밖에도 나는 작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목표를 마을이나 의심나는 지역에 선정하여 특정한

문자나 번호로서 表記하고 1개소대가 한 목표를 탐색할때 나머지 소대로서 측방을 차단하거나 다음 목표를 직충계하는 방식을 取하게한바 연대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것이다. 또 작전전에 수집된 첩보는 애매하므로 각중대장에게 대대의 일부로서 전투하므로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할것을 강조하는 한편 實戰에서 敵과 충돌하면 중대장이 전투를 지휘하는데 專力할 수 있도록 부중대장이나 중대 선임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는 방식을 取하였다. 한편 전투간에는 대대 전술지휘소에 대대-중대의 무선통신망은 물론 중대-소대의 통신을 직접 방청할 수 있는 예비 통신망을 마련하여 전투의 實況을 남김없이 파악하면서 대대장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신속성있게 대처하는 데 힘썼다.

이작전에서 내가 지휘한 제2대대가 Binh Dinh 省 VC의 主力인 E-2B대대(-)를 殲滅하였을뿐만 아니라 敵이 사격하면 즉각 돌격하는 전법이 대처한 무리들을 제압하는 越軍이라는 것을 야군 모두가 인식하게 되고 VC에게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자신을 갖게 한 반면 VC으로 하여금 야군이 연합군보다 월등하게 강하고 매섭다는 두려움을 품게하는 계기를 이룬 것에 對하여 矜持를 갖는다.

###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

(1977년 10월 16일 제77연대장실에서, 당시 대령)

나는 洪川에서 猛虎부대 一陣으로 제1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로 보직되었는데 출국직전에 대대장의 배려로 제5중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런데 同중대는 교육훈련 기간중 사격을 비롯한 모든 훈련성과 측정에서 가장 성적이 뒤떨어진 중대인 만큼 그 상태로는 精神, 戰技 어느면에서나 실전

에 참가할 自信이 없었다. 이에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戰場에 臨하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生死觀을 定立하는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釜山에서 乘船하는 즉시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리하여 황해도중에도 배안에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越南에 도착한 이후에는 실

전을 방불케하는 演習을 매일 강행하였다. 즉 모래주머니를 발에 달고 완전무장한 다음 하루에 5~10km를 구보하는 것을 위시하여 野地와 水田과 늪지대를 뛰면서 踏破하고 “정글”을 헤치는 등 힘들고 고된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 나는 물론 중대원의 어깨와 등이 배낭끈에 시달려 살갓이 터져 피가나다가 이것이 엉켜 나중에는 굳은 살로 변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체력단련의 기초과정이 끝난 연후에는 야간매복, 늪지대나 “정글”을 소리내지 않고 누비는 연습 그리고 도하훈련과 근거리 사격술동점자 次元을 높이는 동시에 대대장이 강조하는 『敵이 사격하면 엎드리지 말고 즉각 돌격하라』에 의한 실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 하였다. 이와동시에 하루의 훈련이 끝나면 중대원을 모아놓고 강령과 더불어 정신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심지어 다른 중대가 휴식시간에 수영할때 우리중대는 배낭을 걸머진채로 물에 뛰어들어 急流를 극복하는 연습으로 맘을 식히고 “로프”를 이용하여 渡河하기도 하였는데 이토록 격

심한 훈련이 거듭되다 보니 어느기간 동안에는 불명도 적지 않았고 한편으로 대대장과 연대장께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이것만이 戰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첩경이며 땀을 흘린 만큼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고 이를 중대원들에게 力說하여 마지 않았다.

이작전에서 우리중대 장병이 實演한 돌격과 감투정신은 浼코 하루아침에 이룩된것이 아니다. 前述한바와 같은 2개월간에 걸친 피나는 훈련으로 연마한 戰技와 군인정신의 結晶인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를 通하여 VC이 아군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반면 아군이 VC에게 이긴다는 자신을 갖게된바 그 白眉의 鬚을 바로 내가 指揮한 제5중대가 엮은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끝으로 이작전에서 오직 爲國丹心 하나로 과감하게 싸우다가 異國땅에서 승화한 영현들의 功績이 이 전사에 날날이 수록되어 기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삼가 그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 제2 중대장 李 滿 振·대위

(1977년 10월 11일 육군사관학교 재육처장실에서, 당시 대령)

이작전에서 우리중대는 대대 左一線으로서 15개의 복표가 주어졌는데 전투간에 大小 13개의 하천을 도하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지역은 본작전이 전개되기전에 4차례에 걸쳐 탐색한바, 중대기지 北쪽 3km에 흐르는 Song Ngung(江)以南일대를 주로 누볐기 때문에 그 北쪽은 전혀 생소하고 또 적정도 애매하였다. 작전초동에 An Hoa (3)에서 제3소대가 敵의 기습을 받아 한때 苦戰하였으나 소대장 威德憲 소위가 과감한 돌격을 決行끝에 이를 격파하였는데 이때에 경기관총사수 尹基源 일병의 활약이 눈부서 勝機를

잡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交戰이 끝난 직후에 제3소대가 An Hoa (2)에서 Song Ngung(江)에 가설된 木橋를 찾아냈는데 바이는 圖上에는 물론이거니와 2일전에 우리중대가 敵지역을 탐색하였을 때 없었던 것으로 통나무를 엮어 급조한 것이었다. 이에 나는 이것을 확보함으로써 후속부대 진출과 포로 및 진상상자 후송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중대선임 하사관과 중대본부요원 일부를 잔치시켜 이를 지키게 하였다. 그위의 상황은 특이한 것이 없었으나 Duong Thanh (2)에서 敵의 탄약고와 무기

수리소를 적발한 것은 이 작전의 큰 성과의 하나였으며 제2중대가 先占한 Long Hau는 본작전이 감행되기 이전에 우군이 한번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한 VC의 거점으로서 이름난 곳인데 아군이 단번에 이를 유린함으로써 얻은 위신은 대단하였다. 공격벽두에 제3소대가 敵으로부터 먼저 一擊을 얻어 맞은 때에는 아군의 기동경로가 일정한 데다가 江 내안에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此岸의 강둑을 따라 진격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걱정이 불분명한 하천변을 탐색할 때에는 반드시 兩岸을 동시에 누벼야만 한다는 教訓을 경험하게 되었다.

### 제5중대 제2소대장 李 淸 중위

#### 同화기소대장 金 柱 天 중위

(1977년 10월 16일 首都기계화 보병사단 기갑여단 제101기갑보병

대대장실에서, 당시 兩人 모두 중령)

이 작전에서 우리 제5중대가 Binh Dinh省 VC의 精銳인 E-2B대대(-)를 격멸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중대장의 확고부동한 신념에서 우어나는 정신교육과 피나는 훈련의 強行 그리고 대대장이 창안한 VC를 물리치는 새로운 전법과 지도복안이 응결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작전이 전개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루도 쉬지않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였는데 작소대장은 손에서 매를 놓지 않았다. 소대장들은 소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소대장이 뛰고있는 이 때는 너희들을 때리는 때가 아니고 戰場에서 살리기 위한 매다.」라고 타 이르면서 그들과 함께 뛰고 쏘고 기며 언제나 행동을 같이하였다.

전투간에 실제로 강력한 火力을 사용하는 敵과 부딪쳐 보니 비로소 평소의 훈련의 성과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으며 強兵精軍은 一夕一朝에 이룩될 수 없음을 통감하였다. 빗발치는 총탄과 熱焰과 선혈이 낭자한 腥塵속에서도 『1분대장

나는 중대장으로 재직중 기지주변에 거주하는 현지주민과의 유대강화에 힘쓰면서 첩보를 入手한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확신한다. 또 소대장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들에게 裁置權을 부여하고 믿고 전투를 지휘한바 기대이상의 善戰 奮鬪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항상 중대원 모두가 나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과 전기연마에 힘쓰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서로 돕도록 하였다. 즉 지휘관을 核心으로 一絲不亂한 군기를 확립하고 단결하는 중대로 이끌어 나가는데 力點을 둔 것이다.

『1분대장 앞으로』라고 호령하는대로 행동하며 앞을 다투어 돌진하는 병사들의 鬪志를 보고 훈련간의 그 고되고 쓰라린 고비를 극복한 보람을 滿喫할 수 있었다. 작전간에 우리중대 소대장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전투에서 挺進하다가 적탄이 몸을 스치가는 생사의 岐路를 몇번이고 넘겼다. 어떤때는 어쩔 수 없이 엎드리게 되었는데 이때마다 대대장이 강조하며 마지않던 『일단 엎드리면 敵의 火力을 인식하게되어 그다음 부터는 물격을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전장에서의 特殊한 心理作用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강한 사명감이 북돋아 다시 뛰고 또 뛰었다. 이 작전을 지루기에 앞서 우리중대가 강행한 훈련양상과 전투간에 겪은 상황은 筆舌로 다할 수 없으며 소중한 여러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우리들은 지금도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정병육성의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제1연대 제7중대 제1소대 金 根 鎬 일병

(1977년 9월 15일 전남 해남군 복편면 사무소에서 : 당시 농업과 상업에 종사, 예비군 소대장 대리)

나는 원래 통신병이 아니고 소총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월하여 제1소대로 전속된바 소대장이 나에게 전령兼 소대통신병의 직책을 맡기므로 무전기를 메고 언제나 그의 걸을 따라 다녔습니다. 「飛虎 6호작전」때의 일인데 지금 이 헬터(중아리)가 그 당시 입은 총상입니다. 다행히 뼈와 신경이 다치지 않은 관통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66년 1월 9일 우리중대는 공격을 시작한지 2시간 뒤에 Thanh Danh (1)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제1소대는 큰 나무로 둘러싸인 독립가옥을 탐색하다가 느닷없이 총알이 날아들므로 즉시 이를 포위하여 退走하는 3명을 사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중대장의 명령에 따라 北쪽으로 방향을 돌려 진격하는데 소재불명의 敵이 사격을 가하자 소대장 金秀吉 소위가 감연히 일어서더니 제1분대쪽으로 뛰어가기에 나도 같이 뛰면서 「소대장님 앞드려요」라고 소리지른 순간 발이 잘 움직이지 않더니 그만 넘어 졌습니다. 살펴보니 왼쪽 중아리에서 피가 흐르기에 뼈가 부러졌나 하고 만져보았으나 괜찮았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무전병」하고 부르기에 「염려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소대장의 安危를 반문하니까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후송하라」고 할디다. 그래서 나는 무전기를 다시 걸머지면서 안간다고 우기면서 소대의 景況을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뒤 물격을 재개하여 저항하는 分子 1명을 죽이고 집안에 숨은 2명을 사로 잡았는데 무기를 안가졌지만 이놈들이 바로 VC입니다. 이러한 교전끝에 나무사이마다 擲가 구축된 적진을 탈취하여 전투의 한 고비를 넘겼을 때 비로소 중대 위생병의 初療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다시 공격에 들어간 소대가 잡목이 우거진 일대에 이르렀을 때 지면이 약간 올라간 곳이 있으므로 자세히 보았더니 총구가 나와 있기에 『엎드려』라고 의치는 찰나 총알이 쏟아지고 이에 副應하여 소대장과 제1분대가 응사하니 그 畜들이 거기에만 사격을 집중하기에 “이때다”고 생각하여 포복으로 접근하자마자 “범커”속에 수류탄을 던져 2명을 사살하고 CAR소총 1정을 노획하였습니다. 그날밤 총에 맞은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찌나 통증이 심한지 위생병이 주는 안정제를 먹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동이를 두렵에 겨우 아픔이 가시기에 무전기를 메고있는데 소대장이 「헬리콥터」가 오니 후송하라」고 하므로 나는 완강히 거절하면서 「지금 만약 저를 후송시키면 이자리에서 죽고 말겠다」타고 소리지른 다음 그자리에 주저앉았더니 소대장이 어쩔 수 없었던지 “헬리콥터”를 그냥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이토록 후송을 거절한 事由는 소대내에 다른 무전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후송하고 나면 소대장이 무전기를 메고 뛰게되므로 전투를 지휘하는데 지장이 많을 뿐더러 중아리의 관통상 쪽으로 싸움터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남아답지 못하다고 제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과 꼭 이기고 말겠다는 투지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전날보다 발이 무겁고 걸음이 늦어진 탓으로 소대장을 바짝 따르지 못하여 안타가웠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되자 중대장이 직접 위생병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이때에 긴장을 끈 까닭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후송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뒤 나는 Vung Tau



휴양소에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여기에  
서 제5중대의 張正煥 상병을 만나게 되어 그와갈

이 同휴양소에서 9개월간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음  
니다.

## § 遺家族의 證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245 신 명 수

제1연대 제5중대 제2소대 崔京煥 상병의 親母, 1977년 10월 9일 서신으로 증언)

京煥이는 나의 큰 아들이며 남편이 일찍 돌아  
가셨기 때문에 그애와 동생 하나를 혼자서 키웠  
습니다. 1940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37살이  
되지요 어릴때부터 달타기를 좋아했는데 아버지  
생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친을 따라다  
니면서 들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부름도 곧 잘  
했답니다.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어떤 일이  
든간에 한가지를 목표로하면 기어이 끝을 맺고야  
마는 억척스러운데가 있었지요. 지금 기억납니다  
만 어릴때는 전쟁놀이를 즐겨하고 종(새총)이 갖  
고싶어 늘 사달라고 졸랐으나 끝내 소원을 풀어주

지 못했답니다. 입대한지 얼마안되어 越稱으로  
自願하여 가겠다고 하더니 거기에서 몇차례 問安  
편지와 더불어 자유의 十字軍임을 자랑스럽게 여  
긴다는 사연을 보내 왔습니다. 京煥이가 전사했  
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그애가 그렇게 훌륭하  
게 싸워 나라를 빛나게 하였다니 자랑스럽고 고  
마운 마음 무어라고 형용할 수 없으며 그애의 숭  
고한 정신을 기리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국군장  
병의 武運을 빌 머슴입니다.

## § 參戰者의 略歷

### 제1연대 제2대대장 李 弼 朝 중령

1931년 8월 8일 : 慶北 軍威 출생 建國大學校 政  
外科 졸업 중합 12기  
1965년 9월 1일 : 수도사단 제1연대 제2대대장  
1967년 7월 21일 : 제30사단 참모장  
1968년 11월 25일 : 제26사단 제73연대장

1970년 4월 3일 : 제103보안부대장  
1971년 11월 11일 : 제101학훈단장  
1974년 1월 15일 : 제2군사령부 인사처장  
1975년 3월 31일 : 울산특정지역 경비사령관  
1976년 6월 15일 :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장

### 제5중대 화기소대장 金 柱 天 중위

1940년 1월 25일 : 全北 全州 출생 全州고등학교  
졸업 陸士 19期  
1965년 9월 9일 : 제1연대 제5중대 소대장  
1969년 1월 17일 : 제33사단 경비대대 제1중대장

1972년 7월 3일 : 제21사단 제65연대 작전주인  
1975년 4월 22일 : 제1군단 작전처 작전장교  
1976년 9월 30일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01기보  
대대장

## 10. But 溪谷 奇襲戰 (1966년 1월 10일)

참조: 상황도 제30, 31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敵 軍
(1) 統制部隊	(2) 參加部隊
제 1 연대 제 10 중대 장	제 2 소대 장 소위 金 武 石
대위 李 圭 鳳	
敵 軍	
團隊號 未詳 VC 2개 소대 규모	

## 나. 戰鬥 前의 概況

대대가 Nam Tang 지역에 駐留한 뒤 10여차례의 埋伏과 探索으로 지대내 VC들을 擊滅하니 이들은 아군의 기세에 물려 山岳 깊은곳에 潛跡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그들은 다시금 遊動을 시작하여 제 6번 B도로 邊의 일부촌락을 侵襲하고 我軍기지 부근에까지 出沒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제 3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이러한 諜報를 연구 분석한 끝에 그들의 출몰 지역이 But 溪谷과 Suoi Ha Tang入口 및 Nam Tang(2) 뒷산 일대로 밝혀졌으므로 제 10중대로써 제 6번 B도로 北西쪽을 제 11중대로 하여금 南東쪽을 각각 책임지역으로 하여 탐색케 하였다.

이에따라 제 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제 1소대를 △73와 Suoi Dat Set(河)에, 제 2소대를 △221와 左右 兩계곡에 각각 埋伏시켰는데, 다음날(10일) 새벽에 Nam Tang(1)에서 중대로 복귀하던 급수차량( $\frac{3}{4}$ ton)이 종류미상의 爆發物(TNT로 판단)에 의하여 完破되고 탑승한 병사 5명이 폭풍에 휩쓸려 모두 부상하였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現地에 달려간 대대장은 「給水車가 급수장을 왕복하는데는 2시간이 소요된다. 敵은 그 사이에 “부비트랩”을 埋設하고 潛跡하였으니 아직 밀리는 退路까지 못하고 부근 산속에 숨었을 것이다.」라고 직감하고 제 10중대장을 불러 敵의 退路를 차단한 다음 周邊산악지대를 探索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곧 전날埋伏한 2개소대의 復歸를 보류케하고 특공정찰대의 임무를 부여한 다음 제 1소대를 Suoi Ha Tang과 Nui Ai(△190)一帶를, 제 2소대로 하여금 △388 周圍를 探索케 하였다.

### 다. 戰鬥 經過의 概要

10일 10.00에 제 1 소대는 Suoi Ha Tang(河)을 따라 北上하다가 東쪽으로 돌아 Nui Ai頂上을 넘자 다시 下向탐색으로 Suoi Dat Set를 뚫진 다음 復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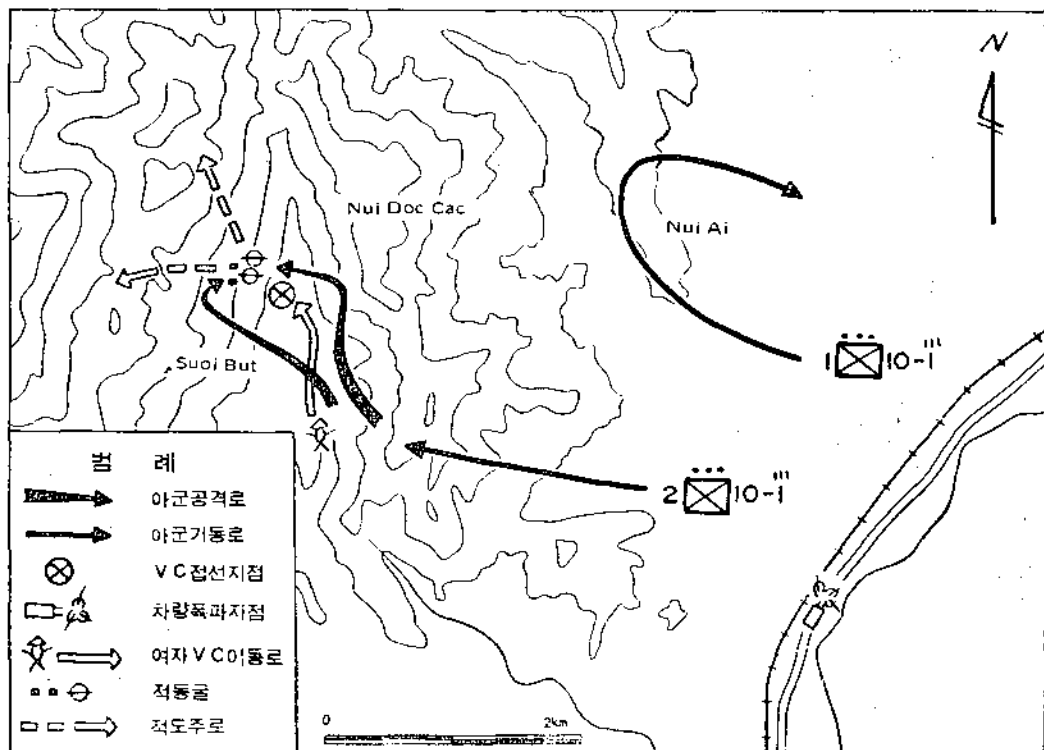
제 2 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Suoi Da(河) 上流에 다다르자 △388의 左側능선을 점령하였는데 이때 But 溪谷邊에서 새로이 開墾된 경작지를 발견하였다.

이에 소대장 金武石 소위는 경작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388의 南쪽 稜線에 兵力을 潛伏시키고 주변을 偵察中, 溪谷을 徒涉하는 女人 한사람을 目擊하게 되었다. 소대장은 곧 『여기는 사람이 살지않는 곳이므로 이 女人의 뒤를 밟으면 敵의 蟠踞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判斷하고 그 女人이 아군의 機微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右側 능선을따라 追跡하였다. 그러나 But 溪谷 上流의 密林지대에 들어서자 갑자기 그 女人의 행방이 杳然하게 되었으므로 곧 추격을 보류하고 周圍를 두루 살핀 끝에 耕作地에서는 볼 수 없었던 4개의 급조식 家屋과 塹壕및 그 뒤로 20m 떨어진곳의 바위와 바위사이에 5개의 天然洞窟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여기가 VC의 蟠踞地라고 추단한 나머지 兵력을 2개隊로 再編한 다음 제 1대(제 1, 화기兩분대)를 소대장이 직접지휘하고 제 2대(제 3분대)를 선임하사 元明澤 중사에게 지휘케 하였다.

이윽고 第2隊를 敵진 南쪽으로 우회시켜 그들의 背後를 차단케 한 소대장은 第1隊를 이끌고 險峻한 급경사지대로 내려가 But 溪谷을 도섭하였는데 이때에 숲사이로 조금전의 女人과 VC 3명이 接線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소대장은 즉시 화기분대(장, 梁寶龍 하사)를 北쪽으로 우회시키고 제 1분대(장, 朴點鍾 하사)를 現地에 散兵케한 연후에 이들을 捕虜로 잡을 목적으로 접근하는데 20m 정도 다가섰을 때 敵은 비로소 아군에게 包圍되었음을 알아 차렸는지 소총을 亂射하면서 退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미 包圍한 병사들의 총구가 그들을 겨냥하고 있었으므로 소대장의 사격명령 一聲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遺棄屍體로 變하고 말았다. 곧이어 소대장은 아군의 기도가 綻露한 이상 敵의 근거지를 急襲하는 것이 上策이라고 내다보고 돌격을 號令하였다.

이에따라 50m 떨어진 그들의 陣地까지 단숨에 突進한 소대는 40~50명의 VC과 충돌하는 즉시 참호속에 뛰어들어 左衝 右突 닥치는 대로 때려잡으니 敵陣은 수라장이되고 VC들은 遺棄屍體를 넘어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洞窟입구에서 그들의 지휘관인 듯한 者が 退

狀況圖 제30호 But 溪谷 奇襲戰



走하는 우리들을 다시 收拾하고 戰列을 가다듬더니 反擊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덩벙대는 그들의 背後에는 이미 제 2대(장, 元明澤 중사)가 洞窟위의 무명고지를 席卷한 다음 下向협공을 전개하였는데 이때에 선두에서 突進하던 제 3분대장 趙炳民 하사가 조준한 一彈이 그들의 우두머리를 쓰러뜨리자 烏合之卒이 된 우리들은 四散潰走하였다.

잡사뒤 소대는 5개소의 洞窟을 모두 爆破하고 戰場정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 유기시체가 20具나 되었고 USSR製 소총 2정과 방망이수류탄 6발 및 USA製세열수류탄 5개를 비롯하여 소총실탄 800발 방죽면 4개 기타 대검과 TNT等 약간의 장비와 문서를 노획하였는데 文書中에는 我軍을 기습하라는 지령문과 Phuoc Thanh 面사무소 爆破계획 要圖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습으로 VC 2개소대의 據點을 覆滅한 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敵의 逆埋伏에 대비하여 제 3분대를 斥候隊로 하여 進路를 개척케하면서 제 6번 B도로까지 7km를 빠져 나가자 중대장의 지휘하로 복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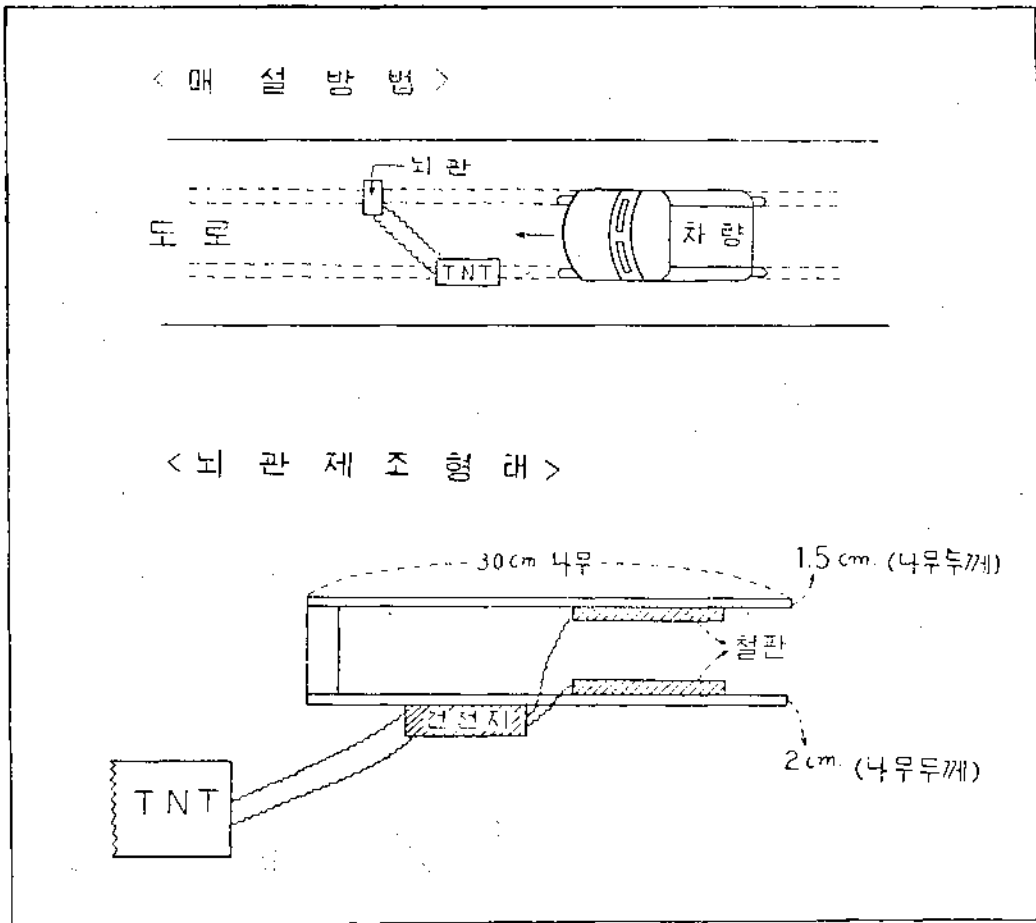
라. 戰鬪 後의 概況

소대는 중대급수차량의 爆破사건으로 말미암아 敵의 潛據地가 밀지않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確信을 갖고 探索을 強行함으로써 마침내 VC女子를 찾아내어 敵 2개소대규모의 本據地를 奇襲하였다.

소대는 이 一戰에서 노획한 文憑에 따라 기록된 내용을 분석한 끝에 그들의 襲擊에 대비하여 陣地를 補充하는 한편 Phuoc Thanh面에도 그들의 面사무소 爆破계획에 관한 情報을 通報하였다. 그 뒤 대대가 韓·美·越 연합작전의 일환으로 23일에 「재구 2호 전투」를 展開하자 소대는 이 지역을 제 2대대에 인계하고 전투에 參加하였다.

한편 대대장은 제 10중대의 급수차량이 爆破된 이유와 그 方法이 어떠한가를 研究 分析한 결과 이는 VC이 통상 사용하는 “부비트랩” 埋設방법중의 하나임을 밝혀내고 대대장병들에게 이를 숙지 시키기 위하여 작전장교 李重衡 대위로 하여금 各중대별로 敎育케 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爆發物 埋設方圖 (狀況圖 제31호)



## 2. 安守수칙

가. 도로상에 어떠한 形態의 물체가 있으면 일단 의심하라.

나. 道路상의 흙이 흩어져있거나 偽裝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點檢하라.

다. 급하게 굽은길이나 密林속의 도로 및 急傾斜길에서는 일단 정지하고 四周경계 및 道路점검을 한 다음 통과하라.

『我軍의 급수차는 敵이 매설한 단 한발의 TNT로 車輛과 음료수통 10개가 完破되고 병사 5명이 重輕傷을 입었다. 爆發지점에는 破片이 없고 병사들이 폭풍에 휩쓸린 것으로 보아 爆藥量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또 爆發物의 형태를 分析한 결과 그 뇌관은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威力이 대전차지뢰와 견줄만하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없음)

遺棄屍體	20具
개인화기	2정
수류탄	11발
소총질탄	300발
방독면	4개
文 書	10점

## § 戰 訓

### 奇襲은 能히 以寡擊衆 할수있다.

이번 戰鬪를 치른 제 2소대는 전날 埋伏이 끝나자마자 探索입무를 부여받았으므로 再補給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소대원들은 飮食物은 물론 물한방울을 준 비하지 못한채 出動한 것이다.

그러나 當面의 敵을 覆滅하고야 말겠다는 決意와 必勝의 信念으로 이를 극복하여 절벽을 뛰어 내리고 岩壁을 기어올라 마침내 敵을 捕捉하는 즉시 以寡擊衆하여 1명의 損失도 없이 20명을 射殺한 것이다.



전투지역은 Qui Nhon 앞바다로부터 북쪽으로 25km 떨어진 Truong Thanh과 연결되는 半島로서 東쪽은 南支那海이고 西쪽은 Dam Thi Nai(一名, Qui Nhon) 灣에 接하고 있다.

#### 다. 戰鬥 經過의 概要

이 전투의 目的은 美軍이 海岸측량을 위하여 Nui Don近海에 出動시킨 YS艦을 掩護하는 데 있다. 目標은 Nui Don(△94)을 中心으로 그 北西쪽 Hung Luong과 南西쪽 Xuong Ly를 연결하는 橢圓形의 1.5km<sup>2</sup>內이지만 Nghiem Kinh Chien섬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투당일인 1월 18일은 快晴한 날씨로 微弱한 海風이 있었다. 大대는 3개梯隊로 구분하여 “헬리콥터” 15대에 搭乘할 준비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렸다. 08.00에 포병 제60대대의 105mm곡사포 12문이 착륙지역에 제압포격을 集中하자 곧이어 A-1E전폭기가 집중투하한 爆彈이 △99일대의 雜木을 뿌리채 뒤엎어 놓았다. 잠시뒤에 武裝 “헬리콥터”의 掩護下에 第一隊가 착륙지역(△99)으로 機動하여 攻擊개시선에서 目標로 突進하였으며 第3隊인 중화기중대의 박격포 및 기관총소대가 현지에 도착하였을때 第1隊은 이미 마을을 探索하고 있었다.



家屋을 探索하는 계구병사들



(가) 제 1대(장, 龍永一 대위)는 모래사장을 踏破한 後에 Hung Luong으로 進出하였는데 마을 入口에 交通호와 竹槍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抵抗이 없으므로 즉시 주위를 포위하고 家屋을 探索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該마을주민들은 男女老少 할것 없이 모두가 “맹호” “짜이한 맹호”하고 환영하였으나 그 表情에는 警戒하는 氣色이 심상치 않았다. 이에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熟考하되 『이곳은 車輛의 通行이 없을 뿐만 아니라 越南행 정당국 管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왕래도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환영하는것은 VC의 掌中에 놀아나고 兇策을 꾸미는 마을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직감하고 대대에 報告한 다음 주민의 行動을 통제하였다. 잠시뒤 대대장이 이끄는 제 2, 제 3兩隊가 마을로 進入하자 곧 제 3대를 배속하여 Nui Don(△94)을 점령하고 그 산줄기를 따라 天然의으로 방파제가된 “고구마綾線”을 席卷하니 멀리 Ile Juon Prieto섬 앞으로 美YS測量艦이 작업하고 있는것이 보였는데 이때 소속 불명의 船舶이 Nui Don 北西쪽 數個의 작은섬 사이로 빠져나가 美YS측량함에 接近하는 것이 目擊되었다. 이에 龍永一 대위는 즉시 Nui Don頂上에 57mm 무반동총을 비롯하여 배속된 제12중대의 기관총과 박격포를 올려놓고 怪船舶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압사격을 집중하여 이를 海岸으로 끌어들이니 다음 檢索한 결과 모두가 VC용의자로 推斷되었으므로 出帆을 금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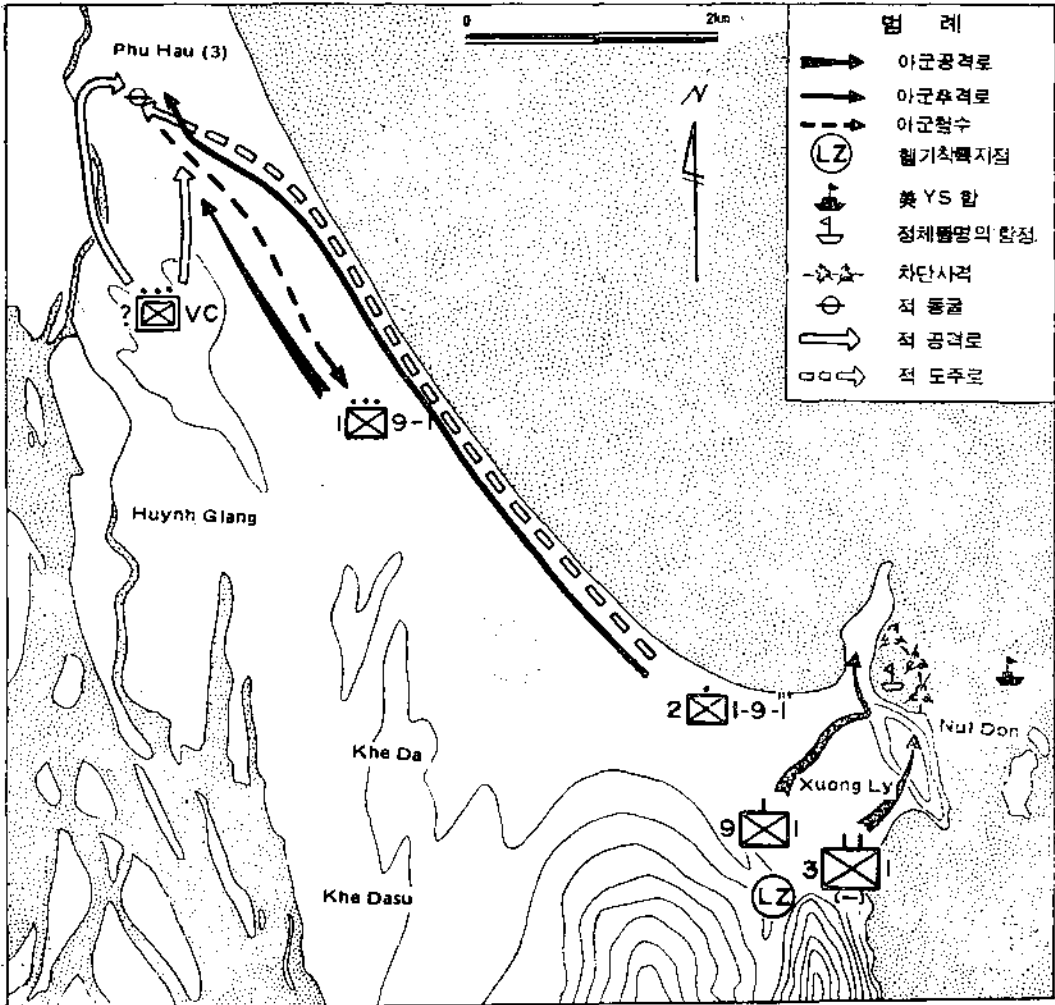
13.00에 대대장의 命令에 따라 마을 주민들을 白沙場으로 集結시키던중 4~5명의 怪漢이 海岸을 따라 北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目擊한 중대장은 즉시 1개분대로 하여금 이를 追擊하라고 호령하였다. 그런데 敵이 退走하는 海岸은 北쪽으로 Truong Thanh山에 이르기까지의 9km가 모두 모래사장이고 東쪽 海岸일대는 標高가 낮아 死角으로 보이지않은 특이한 地形이었다.

(나)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 2, 제 3兩隊를 직접지휘하여 攻擊개시선에 도착하자 Xuong Ly로 進出하였는데 모든 住民들의 행동이 第1隊장의 보고와 同一하였으므로 즉시 제12중대(-)를 제 1대에 배속하고 Hung Luong과 Xuong Ly주민들을 백사장으로 集結케 하였다. 그리고 美YS艦이 그 임무를 끝마칠때까지 기다리는 한편 대민선무활동을 併行키위하여 越南통역관 Nien을 대동하고 說破하기를 『오는 “짜이한”이 이곳에 온것은 그대들을 돕기위하여 온것이 지 결코 고통을 주기위하여 온것은 아니다. 그대들은 훌륭한 敎僧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禮拜를 드리지 못하고, 남편은 강제로 動員되어 VC의 앞잡이 노릇을 하느라고 따뜻한 가정의 행복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不自由는 공산주의에 의한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하기 위하여 “짜이한”이 온것이다. 과거의 잘못은 용서한다. 본인은 이속에 섞여있는 VC이나 그 追從者들을 가려내지 않겠다. 진정 그들이 “짜이한”의 贊成 의의를 깨닫고 자유가 좋다는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연후에 “헬리콥터”에 싣고간 白米 3,000kg을 주민들에게 分配하였다. 이러한 선무 활동을 끝마친 대대장은 제 1대를 現地에 남기고 제 2, 제 3兩隊(제 3대는 제 9중대에서 배속해제)를 직접지휘하여 복귀하였다.

(다) 한편 敵을 追擊하던 제 1대(제 9중대)의 李建永 하사는 VC이 退走하는 속도가 빨라 점점 그들과의 거리가 벌어지자 즉시 모든 장비를 풀어 現地에 두고 3명의 병사를 차출하여 소총과 수류탄만을 휴대한채 追擊을 늦추지 않았다. 이리하여 Phu Hau(3)에 당도한 李하사는 退避하던 VC이 該마을 입구의 동굴로 潛入하는 것을 目睹하는 즉시로 包圍하였는데 이때 마을로부터 婦女子들이 “따이한 멍호”라고 외치면서 다가서고 있었다. 이에

狀況圖 제32호 在求 1號 戰鬪



李建永 하사는 婦女子들의 접근을 막는 한편 洞窟에 뛰어들어 VC 4명을 포로하자 곧 撤收하는데, 이때는 이미 지방 VC 1개소대규모의 逆包圍에 빠지게 되었으니 捕虜를 미끼로 血路를 뚫으려하는 것도 虛事가되어 實로 進退兩難의 危機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헬리콥터”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제 1소대(장, 金興玉 중위)가 雜木지대로부터 敵의 包圍網을 헤치면서 마을을 攻擊하고, 空中에서는 중대장 龍永一 대위가 對空사격망을 뚫고 저공飛行을 하면서 分대를 掩護하였다. 이에 李建永 하사는 捕虜 4명을 끌고 該소대와 合勢한 다음 Phu Cat—Tuy Phuoc 兩郡의 境界를 이루는 모래사장으로 빠져나왔다. 이리하여 窮地에서 벗어난 分대는 中대집결지로 이동하였으며 곧이어 中대는 復歸를 준비하였는데 여기에 한가지의 難點이 발생하였다. 즉 대기중인 “헬리콥터”(美해병소속)에 全中대원을 탑승시키고보니 정원초과로 捕虜를 압송할수 없게된 것이다. 이에 中대장은 이왕 押送할 수 없을 바에는 이들을 逆利用키로 결심하고 멀리 주민들(敵性민간인)이 바라보는 가운데 휴대용 야전식량을 주면서 이르기를 『“따이한”은 당신들을 해치려고 온것이 아니고 自由를 쫓는 공산도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온것이다. 부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끊고 자유월남과 연합군의 품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던 바 이들은 押送이 곤란하면 사살할 줄만 알았던 것이 천만意外로 恩정의 손길을 뻗치자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으니 벌리시 바라보는 주민들도 韓國軍을 再認識하였을 것이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대대는 비록 성과가 없는 전투를 하였을지라도 美YS측량함을 掩護하는 目的은 能히 달성하였다. 또 지난 1월 9일 我軍의 「비호 6호 작전」에서 敗退한 VC들이 Truong Thanh山 一帶로 潰走하면서 Phu Cat郡民들에게 流布한 「韓國軍은 VC이나 그 가족을 몰살한다.」라고 한 말을 믿고있던 이지역 주민들과 아직 韓國軍을 알지못한 그들에게 그것이 文字 그대로 流言蜚語였음을 實證 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一石二鳥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전투에 있어서, 美YS艦의 掩護부대가 증강된 1개중대인데 비하여 이의 支援부대는 포병 1개대대 규모와 美포병 1개포대 및 美해병 “헬리콥터” 1개중대 그리고 A-1E 戰爆機 1개전대를 비롯하여 무장 “헬리콥터”까지 動員하였다는 것은 이번 YS艦의 측량이 그만큼 美軍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뒤 韓國軍(특히 재구대대)의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대대가 美제 1공중기갑사단과 연합작전을 벌이는 「在求 2호전투」때에 郡民의 뜨거운 환영을 받은것도 이 전투의 影響이 컸다고 분석되었다.



## 나. 作戰 前의 概況

여단은 「靑龍 1號 作戰」의 終結과 동시에 母基地인 Cam Ranh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越南 정부측과 Tuy Hoa 지구 住民의 數額에 따라 現地에 계속 머물면서, 越南의 三大곡창지중의 하나로 年間 110,000ton의 糧穀을 生産하지만 오랜세월동안 共產軍의 手中에 들어 있어 그들의 食糧보급源으로 化한 Hieu Xuong 平野를 장악하는 동시에 住民들의 米穀 수확을 돕고자 「靑龍 2號 作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여단은 「靑龍 1號 作戰」의 餘毒이 채 가시기도 前에 1개대대를 Cam Ranh 지역 방어를 위하여 그대로 殘置하면서 2개대대를 Hieu Xuong 지역에 展開하여 敵 暗躍의 溫床地인 要部에 중대단위 전술기지를 設置하면서 그들의 跳梁과 威脅을 척결하는 한편 지역 住民들이 安居樂業하도록 警戒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다.

작전지역은 VC 제 5군사지역으로 越南정부의 行政기능이 미치지 못한 관계로 越盟軍과 VC이 86개 마을중 57개를 完全히 擄奪하고 이들의 주요 手法은 Nha Trang으로 부터 Qui Nhon에 이르는 제 1번 道路의 차단과 Hieu Xuong 平野에서 生産되는 많은 糧의 食량을 強徵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Tuy Hoa市民을 비롯한 Hieu Xuong 郡民들은 食糧난에 봉착하여 每年, 外部로 부터 600~700ton의 양곡을 航空機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도입하여 糊口之策으로 삼았다. 지역내의 敵은 越盟 제95연대와 제 3연대 예하 2개대대 및 VC 4개 지방군 중대로서 이들 부대는 「靑龍 1號 作戰」시에 크게 와해되어 병력의 보충과 지방조직의 再정비에 급급하면서도 一旦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시간과 場所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我軍側에게 制限된 攻撃을 감행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지방 VC “게릴라”의 증원을 받아 2개대대以上 규모의 兵力으로 결정적인 攻勢를 취할 可能性도 엿 보였다. 이밖에 流動병력으로서의 團隊數 미상의 VC 1개대대가 Nui Mat Cat(山) 지역에, 또 2개중대가 Nui Huong(山)과 Nui Lac(山) 一帶를 根據地로 하여 潛行과 掠奪을 계속 伺하여 왔다.

작전지역은 Phu Yen省의 Hieu Xuong 平野 일대로서 西南部는 山岳을 이루어 敵의 潛伏에 有利한 지형이었으며 특히 이들 高地들은 平野를 監視하고 있어 我軍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었다. 또 Hieu Xuong 平野가 140km<sup>2</sup>의 비교적 넓은 들판으로 이 일대에 광범하게 散在한 마을은 대부분이 熱帶性 식물이 크게 자라 目測에 不利하였다. 平地를 이루고 있는 田畠은 灌溉시설이 良好하다. 즉 지역 一帶에 無數한 大小河川이 흐르고 있어 平野 北쪽은 Song Dai Giang(江)을, 南쪽은 Song Ban Thach(江)을 形成하고 이 두 江은 Hieu Xuong 平野를 包圍하고 東쪽의 南支那海로 流入한다. 따라서 이 江은 小型선박의 通行이 可能하므로 敵의 보급로로 이용될 수도 있다. 지역내의 주요 道路는 北쪽의 Tuy Hoa 市로 부터 해안을 따라 南쪽의 Nha Trang에 이르는 제 1번 道路가 있고, 平野 北쪽에는 西쪽의 內陸으로 부터 Song Dai Giang(江)을 따라 제 14번 도로가 있으나 도로의 중간, 중간이 VC에 依하여 파괴 또는 絶斷되어 차량통행이 加意치 않았었다. 일반적으로 河川과 水路, 그리고 田畠의 岫과 小丘陵 및 樹木은 부분적으로 我軍의 恩혜와 恩賜에 利用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敵에게 더욱 有利할 것으로 보였다.

期間中の 기상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越南 특유의 季節風(Mon soon)의 영향을 받아 平均 7 knots와 北東風과 최저 17°C에서 최고 25°C의 비교적 서늘한 기온이 예보되었다.

## 다. 作戰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전술책임지역 內外廓에서의 敵情을 검토한 다음 「靑龍 2號 작전」에 따른 계획수립 지침을 示達하였는데 이 指針中 주요 골자는 韓·美·越연합회의에서 논의된 바로서 『주민들의 추수보호를 위해 將兵들이 마을에 進入할 때에 敵對행위가 없는 限, 銃擊이나 發砲를 할 수 없고 反面에 마을 안에서 銃擊이 있을 때에는 일단 어떠한 方法으로서라도 良民을 가려내어 격리시킨 다음 銃擊이나 發砲를 加할 수 있다』라는 것과 작전 최초로는 부대 展開와 지역 확보, 다음 단계는 적극적인 탐색과 警戒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Cam Ranh 지역으로의 부대 복귀의 세가지였다. 이에 따라 관계참모에 의하여 작전계획이 성안되어 여단장의 결재를 얻고 이어 指揮官회의에서 完成된 작전 命令이 하달 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敵情: 作戰 前의 概況 참조.

2. 여단은 1월 19일 08.00를 期하여 Cam Ranh 지역의 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Phu Yen 省의 Tuy Hoa 南西部 淸야 一帶에서 住民들의 米穀수확을 보호하고 지역 內外에서 跳梁하는 敵을 擊滅하려 한다.

3. 期間中 美제 101공수사단 제 1여단(一) 이 Song Dai Giang(江) 北쪽에서 米穀수확을 보호할 것이다.

4. 제 1대대는 Cam Ranh 지역의 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5. 제 2대대

가. 1월 19일 10.00까지 통제선 ALFA의 東쪽 지역을 探索하고 전술기지를 확보하라.

나. 1개중대를 “헬리콥터” 공수로 △124 부근에 투입하여 전술기지를 확보하라.

다. D+1일까지 Song Dai Giang(江) 南쪽의 주요거점을 확보하고 탐색 및 경계를 담당하라.

라. 1개중대를 여단 전술지휘소 부근에 여단예비로 殘置하라.

6. 제 3대대

가. D+1일까지 Song Ban Thach(江) 北쪽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탐색 및 경계를 담당하라.

나. 1개중대를 여단 전술기지 부근에 여단예비로 잔치하라.

7. 포병대대는 여단을 일반지원 하라.

8. 협조지시

가. 소부대규모의 流動的인 탐색을 최대한 活用하라.

- 나. 마을 探索時는 백기 또는 양손을 들고 투항하는 者의 몸 검색을 할 수 있다.  
9. 여단 전술 지휘소는 Tuy Hoa 비행장 北쪽의 현 기지에 開設한다.』

## (2) 作戰 實施

1월 19일 (D 일): 여단은 「靑龍 1號 작전」이 종료되자 2일간의 부대정비를 끝내고 이날拂曉부터 2개대대를 작전지역에 投入하였다. Tuy Hoa 南西部 평야를 둘로 쪼개어 北半部를 제 2대대가 또 南半部를 제 3대대가 각각 담당하여 併進탐색토록 하였는데 作戰 첫날인 이날은 대체로 快晴한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었고 北東風이 10 knots로 불어 航空과 地上 기동에 큰 지장이 없었다.

(가). 제 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전날 소대장급 以上 지휘관이 “헬리콥터” 4隻에 탑승하여 작전지역에 對한 公중정찰을 마친데 이어 이날 06.00부터 기동준비에 착수하였는데 제 5중대는 공수로, 제 6중대는 지상행군으로 목표지역에 展開하였다.

제 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09.20부터 “헬리콥터”를 지원 받아 중대를 2개계과로 나누어 착륙지대 “바들기”에 降着케 하였다. 10.00에 移動을 끝낸 중대는 목표 “가”인 △124를 稟정하여 중대 基地를 設定하고 각 소대별로 探索구역을 할당하였다. 이어 제 1소대는 목표 “가”의 東쪽으로 進出中 VC 1개소대가 Quang Phu 일대에 集結하고 있다는 住民의 제보를 받고 달려가 VC 용의자 17명을 체포한 다음 파견된 越南 경찰로 하여금 심문케하자 이 가운데 3명이 VC으로 판명되었다.

제 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07.30에 出動하여 제 1번 道路와 제 436번 道路가 交叉하는 Phuoc Loc에 다달은 다음 08.00에 공격개시선을 一齊히 통과하여 목표 “A-1”인 Phu Nong과 “A-2”인 Phuoc My를 확보한 연후에 지역 一帶를 探索하고 Song Dai Giang(江) 南쪽에서 夜間방어로 轉換하였다.

(나). 제 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 2대대와 병행하여 제 9, 제 11 兩중대를 攻擊개시선인 제 1번 道路로 推進시킨 다음 제 9중대를 右一線에, 제 11중대를 左一線에 각각 展開하여 一齊탐색을 벌였다.

제 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08.00에 기동하여 10.10부터 Phuoc Binh(山)을 탐색하고 13.20에 Canh Phuoc (3)을, 또 13.40에 Phuoc Nong(4)에 進入할 때 前方 100m 되는 대나무 숲으로부터 敵의 자동火器사격이 집중되었으나 즉각 應射하여 이를 制壓하였다. 또 제 11중대(장, 劉南圭 대위)는 대대 左一線으로 進出中 14.05에 Song Banh Lai(江) 기슭으로

부터 銃撃을 받아 2명의 부상자를 냈는데 制限된 射界로 應射효력을 보지 못하고 계속하여 Phu Luong을 探索中 17.40에 제1소대 前方인 Phu Xuan 지역에 VC 1개소대 규모가 관측되었다는 보고에 接하고 一齊사격을 集中하였으나 그들이 潰散하므로 105mm사격을 요청하여 이를 制壓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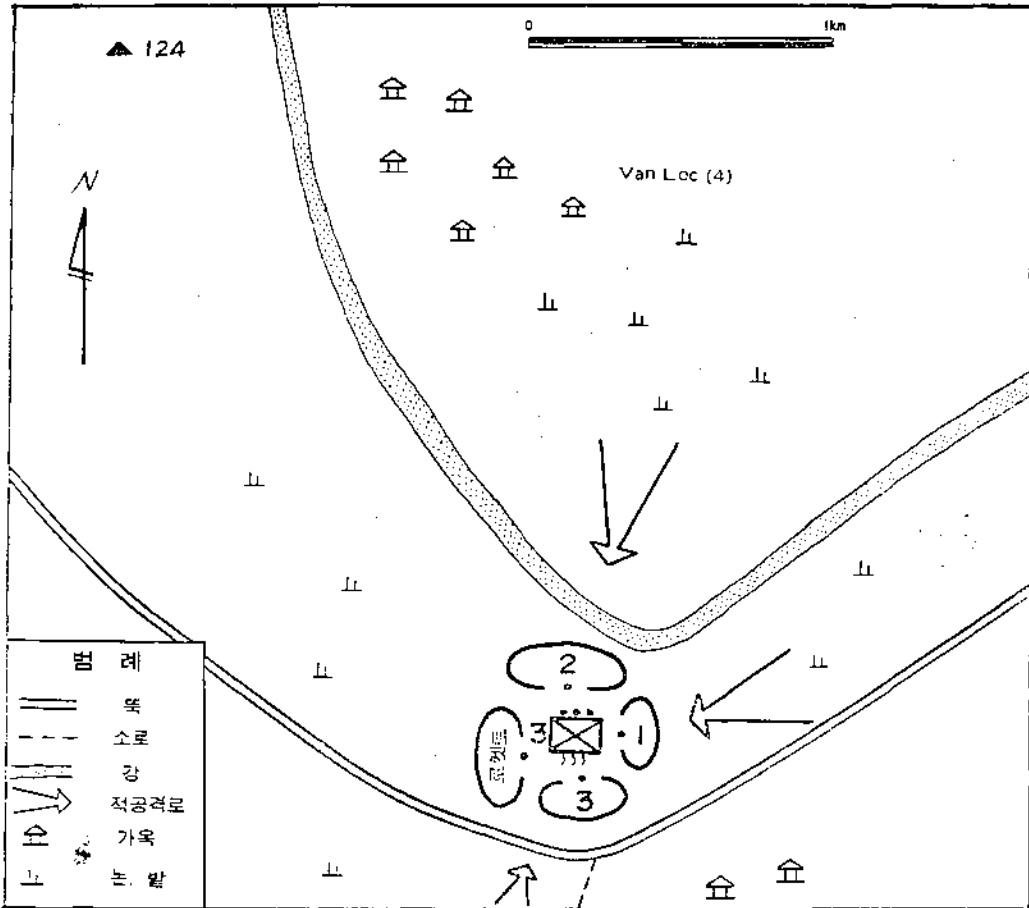
1월 20일(D+1): 美軍을 비롯한 前 聯合軍은 VC의 戒의를 받아 들어 이날 24.00부터 23일 18.00까지 舊正정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단에서는 군사령부 指示에 의거 野戰 회보를 긴급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에 이르되 『越南인들이 1월 21일부터 舊正축제를 가지게 되는 바 將兵들은 年間행사중 가장 의의가 있는 이 祝祭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며 또한 기간중에는 일체의 攻勢의인 행동이 보류되니 예하 전투부대는 現地에서 자체경계를 強化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여단 예하 모든 전투부대는 주간탐색을 끝내고 자체경계에 힘쓰면서 停戰에 대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제5중대의 제3소대가 △124 南쪽의 Van Loc (4)에서 遮斷진지를 점령한 다음 急編방어로 轉換하여 夜間경계중, 20.00가 되자 소대 주변 곳곳에서 녹색 조명탄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츰 더욱 요란하게 하늘을 덮었다. 이에 소대장 鄭遇滉 소위는 중대에 이 狀況을 문의하자 『越南 지방군이 舊正을 축하코자 祝砲를 쏘는 것이니 介意하지 말고 警戒를 계속하라』는 回信이 있었다. 이에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더욱 철저한 警戒를 명령한 뒤에 陣地를 점검하였는데 소대의 병력은 소대장을 포함한 55명이었고 LMG 2정과 3.5“로켓트”砲 2문, 또 자동소총 8정 외에 兵士들은 모두 M1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었으며 陣地내에는 南쪽으로 排水路를 낀 긴 뚝이 가로 놓인 반면에 北쪽은 徒涉이 어려운 큰 북물이 Song Dai Giang(江)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陣地 중심은 습지로 종류 未詳의 農作物이 자라 視界에 多少 制限을 주었다.

子正이 지나 01.20이 되자 방어진지 北쪽의 Van Loc (5)로 부터 쟁가리와 징과 북이 울리며 住民들이 祝祭행사를 벌이는듯 하더니 얼마 아니되어 이들은 北쪽에 배치된 제3분대 지역으로 서서히 接近하였다. 이때 분대장 金하사가 越南語로 誰何하자 應答 대신 갑자기 수류탄과 自動화기를 亂射하면서 들어 닦쳤으며 곧 이어 陣地의 東쪽과 南쪽에서도 攻撃이 가하여졌는데 敵의 數는 “계릴러”를 합쳐 1개중대규모로 推算되었다. 이에 소대장 鄭소위는 분대장들에게 달려나가 陣地를 固守하라고 호령하면서 人海로 파고드는 우리들에게 全火力을 集中하여 저지하였으나 流彈에 맞아 소대장이 부상하고 이미 陣地의 一部가 돌파되어 물러드는 敵과 소대원들간의 陣內 육박전이 벌어졌으며 치열을 극한 血鬪가 벌어졌는데 이



狀況圖 제33호 제5중대 제3소대 被襲



濶絶한 決鬪는 2시간동안 계속하였다.

한편 중대에서는 深夜에 제 3소대 지역에서 격렬한 銃擊戰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자 누차 무전으로 狀況을 파악코자 하였으나 소대는 陣內戰이 奔忙한 나머지 通信마저 두절되었다. 이에 狀況의 급박함을 판단하고 81mm와 60mm 照明지원을 계속하자 敵은 이때부터 徐徐히 退却하기 시작하였으며 중대에서는 즉각 1개소대를 증원부대로 投入하여 제3소대와 舍鬪한 다음 戰死傷者를 後送하였다. 이때에 金正泰, 沈東澤 하사와 宋基千, 金相河, 慶龍賢 병장 및 崔根直, 陣福一 상병, 또 黃信一, 姜熙秀, 俞炳壽, 金成年, 金炳一, 朴相王 일병, 그리고 金圭殷, 安承德 이병 도합 15명이 戰死하고 소대장을 포함한 13명이 負傷한 반면에 陣地 내외곽에서 遺棄된 敵 시체 46구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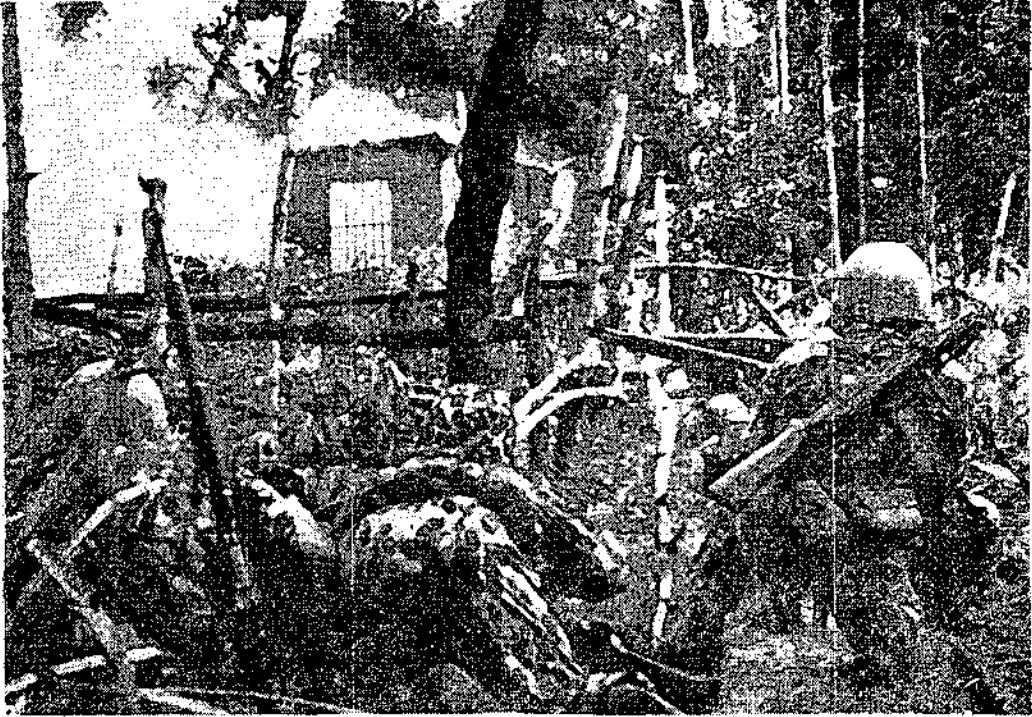
1월 21일(D+2) : 여단은 이날 04.00에 제2대대로 부터 소대 被襲 보고를 接하고 날이 새

자 “헬리콥터”를 急派하여 戰死傷者를 後送하는 한편 停戰 協약을 무시하고 舊正 祝祭를 가장하여 奇襲을 恣行한 共產주의자들의 惡辣性에 통분을 禁치 못하였다. 그러나 不確實한 敵情 아래 고립된 지역에 소규모의 兵力을 投入하여 兵力의 규모와 작전기도 및 방어진지 등이 敵에게 노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 停戰에 따른 將兵들의 긴장 解弛와 警戒의 放心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虛點과 不充分한 要素들이 禍를 自招 하였을 것이라는 데 깊은 反省과 함께 뼈 아픈 教訓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더불어 停戰기간중 敵의 挑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예하부대에 제5중대 被襲상황을 전달하여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편 敵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戰術 기지 주변에 對한 소부대정찰을 強化토록 하고 停戰 종료와 동시에 보다 융통성 있고 변화 있는 작전에 대비키로 하였다.

1월 22일~23일(D+3~4) : 여단예하 전 부대는 停戰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전력 하였으나 奸巧한 VC은 22일 01.30과 02.05에 포탄 20발을 중박격포중대와 제7중대 基地에 集中하여 3명의 부상자를 보았다. 한편 여단은 停戰 종료와 동시에 제3대대를 內陸 깊숙히 投入하여 敵을 衝擊키로 작전계획을 一部 변경하여 該전투지역을 美제101 공수사단 제1여단 제327대대에 인계토록 한 뒤 “헬리콥터”로 여단본부 南쪽지역으로 移動시켰다. 또 23일에는 제2대대 前方 전술지휘소를 △124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제5중대 제3소대를 뽑아 제2대대 後方 전술기지 부근으로 移動한 포병대대에 배속시켜 부대정비 및 포병 基地 경계에 전력토록 하였다.

1월 24일(D+5) : 여단은 舊正 정전의 終了과 더불어 새날을 맞아 08.00를期하여 제2대대로 하여금 할당된 목표에 대한 探索을, 또 제3대대의 2개중대를 제5중대 전술 基地 南쪽으로 空中 기동시켜 索敵, 擊滅에 박차를 加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날에 이어 美 제24심리전 파견대의 항공기가 1시간에 걸쳐 작전지역 上空을 누비면서 VC의 투항 및 良民들의 待避를 권고하는 對敵과 對民방송을 실시하였다.

(가).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제5중대로서 목표 “가” “나” “다”를, 제6중대로서 목표 “A”와 “B”를 그리고 여단 예비로 控置한 제7중대로 하여금 목표 “1” “2” “3” “4”에 對하여 탐색토록 하였다.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08.00부터 △124 주변에 對한 探索을 계속하였다.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09.45에 목표“A”인 Phuoc My (1)을 探索中, 廢屋 주변에서 人造동굴 2개소를 探知하여 저항하는 VC 11명을 殲滅한 다음 계속 목표 “B”인 Phu Thu 지역으로 進出中 11.30에 退避하는 일당의 무리를 追擊 끝에 14명을 射殺하였다.



敵陣을 攻陷하는 靑龍병사들

한편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헬리콥터”로 △124 南端에 降着하여 목표 “1”로 進出中 Van Loc (3)에서 81mm 고퍽탄 1발과 60mm 맥딘연막탄 2발을 노획하고 이어 목표 “2”인 Van Loc (5)로 進入하여 退散하는 VC 9명을 射殺하였다.

(나).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08.00에 제 9, 제10 兩중대를 攻擊부대로 하여 支援된 “헬리콥터”로 목표지역에 空輸되었다.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124 南端에 降着하자 목표“가”인 Phu Nhieu(4)를 攻擊하여 12.30에 退避하는 VC 8명을 사살하고 부근에서 VC 용의자 17명을 체포한 뒤에 이를 越南 경찰관에 인계하고 현지에서 夜間방어로 전환하였다. 또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Phu Nhieu (1)에 着陸하자 목표“나”와 “다”를 각각 探索中 纛 旗를 들고 나오는 避難民 300명을 보호하여 Hieu Xuong 郡廳으로 護送하였다.

(다). 포병대대(장, 鄭永鎭 중령)는 이 작전이 始作되면서 前方 깊숙히 들어간 보병부대에 對하여 火力을 支援코자 제435번 道路邊에 基地를 設定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18.00에 基地 西쪽과 南쪽에서 1,000명 以上으로 推算되는 避難民의 군중이 제436번 道路를 따라 基地 앞쪽으로 서서히 다가서기 시작하자 이를 즉각 여단에 보고하고 처리에 關한 긴급命令을

대기하였다. 이러한 報告를 接한 여단 狀況室에서는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고 여단장 李鳳出 中장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心理戰을 펴서 이미 避難할 住民들은 거의가 一定한 收容所로 待避한 터에, 날이 저물자 엄청난 敵의 群衆이, 특히 敵의 공격목표 제일로 여기는 砲兵基地 앞으로 몰려 든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밤 제5중대의 1개소대의 被襲때에 敵은 男女老少를 앞세우고 祝祭행사를 가장하여 待慢無道한 짓을 恣行하지 아니 하였던가? 만일 이들이 避難을 구실삼아 또 다시 포병대대를 攻襲할 경우, 여단은 唯一한 火力지원부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우려가 앞섰다. 이에 예하 지휘관 및 참모들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發砲與否의 命命을 계속하는 등 論爭은 分秒를 다투어 여단장의 決心을 촉구하였다. 그러자 여단장은 決斷의 순간을 위하여 狀況室을 떠나 그의 숙소로 들어가 잠시 목상에 잠기다가 狀況室로 되돌아와 관계참모에게 다음과 같이 命命하였다.

『포병대대는 裝填된 포탄을 뽑아라. 그리고 자체방어에 完壁을 期하라. 제2대대는 1개중대를 現地에 急派하여 群衆에 대한 檢索을 철저히 하고 安全지대로 待避케 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薄暮가 지나면서 어둠과 함께 시작된 제2대대 제6중대(장, 李圭奎 대위)의 避難民 檢索은 밤중까지 계속되어 이들은 차례로 Hieu Xuong 郡廳이 관장하는 Phuoc Binh 村난민 收容所로 인계 되었다. 비록 VC 支配下에 있던 住民들이고 그들의 家族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들 가운데 VC이 섞여 있는 것도 사실이나 戰禍를 避하고자 北점을 베고 右往左往하는 非武裝 군중에게 威壓을 줄수는 없었던 것이다. 지나고 나면 當然한 것 같고 아무일도 아닌것 같지만 決斷의 순간에는 그렇지도 어렵고 무거운 壓力이 加하여졌던 것이다.

1월 25일(D+6): 이날의 氣象은 구름이 낀 흐린 날씨였으나 무덥지 않았다. 여단은 作戰 7일째를 맞아 목표 探索을 계속함으로써 戰果를 擴大하였다.

(가).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03.00를 期하여 중대별로 할당된 목표로의 進出을 계속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목표“KZ”를 探索코자 Van Loc 지역으로 부터 △124를 南東쪽으로 끼고 흐르는 Song Banh Lai(江) 上流를 2隻의 고무 “보트”로 渡江한 다음 接敵 없이 최초 목표 My Thanh Trung(3)을 점령하고 주변을 探索하였다. 이어 18.00에 支援된 “헬리콥터”로 제436번 道路와 Song Dai Giang(江) 中間지대인 My Thanh Tay(3)으로 이동하여 現지에서 急編방어로 轉換하였다. 또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09.00에 목표 “B”와 “C”에 對한一齊공격을 시작하여 10.00에 Phu Thu를 探索中 한 廢屋에서 對空砲

교육에 관한 서적 1권과 1:100,000의 Tuy Hoa 지구 地圖 13枚 및 Cam Ranh 지구 地圖 1枚를 노획하고 이어 12.10에는 목표 “C”인 Phuoc Thanh (2)를 점령한 뒤 15.45에 대대 전술 基地로 복귀하였다. 한편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09.00부터 목표 “5”인 Van Loc (1)로 進出하여 探索中 北쪽인 My Thanh Dong (1)로 부터 散發的인 사격을 받게 되자 4.2'砲로 制壓하고 15.40에 支援된 “헬리콥터”로 △124에 공수 이동하여 6部 능선에서 급 편 방어로 轉換하였다.

(나).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전날에 이어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를 목표 “가”인 Thanh Phu와 “나”인 Phu Nhieu (3) 그리고 Phu Tho에, 또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를 목표 “라”인 Phu Thuan으로 展開하여 探索을 벌였으나 狀況이 없는 가운데 16.00를 期하여 자기 중대 戰術基地로 복귀하여 夜間방어로 전환 하였다.

1월 26일(D+7): 여단은 전날에 이어 제 2, 제 3 兩대대로서 靑龍 지역에 對한 探索을 계속하여 주요 據點을 逐次的으로 擴大하였다.

(가). 제2대대(장, 吳允潯 중령)는 09.00를 期하여 제5중대로서 제436번 道路와 Song Dai Giang(江)사이의 주요 목표點을, 또 제6중대로서 대대 전술기지 西쪽의 목표 “A”와 “B”에 對한 再探索을, 또 제7중대로 하여금 제436번 道路 南쪽의 목표(아)지역을 精探케 하였을 때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가 09.20에 목표 “나”인 Tan My (2)로 進入中 전방 100m로부터 數發의 銃擊을 받고 대원 1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즉시 後退하고 追擊을 벌이자 일당의 무리들이 北쪽의 Song Dai Giang(江)쪽으로 退走하면서 江가에 있던 소형 배를 타고 급히 渡江하므로 連射로써 배를 격침시켰으나 타고 있던 敵 10명을 救出할 수는 없었다. 한편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12.20에 △124 北쪽인 목표 “아”로 進出하여 廢家들을 探索中 한 人造동굴에 隱避한 VC 용의자 8명을 체포하여 押送 하였다.

(나).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여단 예비로 있던 제11중대에서 1개 소대를 뽑아 제9중대를 보강하는 동시에 동 중대로 하여금 喬木과 岩石으로 點綴된 목표 “아”인 △51를 攻擊토록 하는 동시에 제10중대로서는 목표 “나”와 “다”에 對한 再探索을 계속토록 하였다.

이에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제11중대 제1소대를 지원대로 하여 △51에 對한 一齊 攻擊을 시작하였는데 07.30에 攻擊개시선인 Phu Nhieu (2)의 小流를 건너 뒤에서 09.40에 중대가 Xuan My (1)로 進出하자 전방으로 부터 種類 未詳의 박격포탄 10여발이 날아들고 이와 배를 같이하여 自動화기 사격도 集中되어 進擊이 일시 止截되었다. 중대는 敵의 銃擊으로 미루어 그 勢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모든 자대 火器로써 敵陣에 鐵火를 덮어 썩

워 VC 5명을 潰滅하고 날이 저물자 이 다음에 이 攻擊의 實效를 얻기로 하고 18.00에 煙幕을 차장하면서 中대基地로 복귀하였다.

1월 27일(D+8) : 여단은 이날 부터 예하 대대로 하여금 各中대별로 戰術기지를 확보케 한 다음 効果적인 일일 探索으로 지역내에서 跳梁하는 狡醜들을 索出, 격멸케 하는 동시에 越南人的 秋收를 돕기 위하여 秋收현장일대를 警戒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제5중대를 My Thanh Tay (1)에 또 제6중대를 대대 進술基地와 함께, 그리고 제7중대를  $\Delta$ 124에 각각 두고 매일 증강된 1개소대 규모의 전투 偵察을 展開토록 하는 한편 夜間에는 埋伏隊와 청음초를 운용하여 자체 警戒를 強化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이날 목표(나)인 My Thanh Thuong (2)를, 또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목표 "B"인 Phu Thu를 그리고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목표 "1"인 Van Loc (1)에 對하여 소대규모로 正찰키로 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이날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를 Phu Nhieu (2)에, 또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를 Phu Nhieu (1)에 각각 두고 可用한 兵力으로 基地 주변을 탐색토록 하는 동시에  $\Delta$ 51에 대하여 항공폭격과 砲擊을 요청하여 高地정상과 주변 一帶에 鐵火를 集中시켰다.

1월 28일(D+9) : 이날의 氣象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10knots의 北東風이 불어 작전에 다소 制限을 주었다. 여단은 전날에 이어 각대대로 하여금 中대 戰術기지를 확보하면서 할 당된 목표지역을 精密탐색토록 하였는데 이에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예하 3개중대를 제436번 道路 北과 南쪽지역에 展開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목표 "사"인 Tan My (2)를 또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목표 "B"의 Phuoc Tinh을, 그리고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목표 "KZ"인 My Thanh Dong (1)에 대하여 探索을 벌였다.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를 목표 "가"의 Phu Nhieu (1)로, 또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를 목표 "다"의 Phu Nhieu (3)에 展開하여 再探索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각중대 모두 狀況이 없는 가운데 각기 夜間방어로 轉換하였다.

1월 29일(D+10) : 이날 美제 1야전사령관 Stanly R. Larson 소장이 「Operation Banburen」을 參觀하기 위하여 여단을 방문하고 작전현황을 淸취한다음 여단 進술책임지역 北部에서 작전하는 美제 101 공수사단 제1여단으로 向하였다. 한편 여단장 李鳳出 中장은 午前 참모회의를 召集하여 『1. 일선부대 지휘관들은 항상 敵의 不意의 기습에 대처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부단한 偵察로서 이들의 所在와 兵力규모등을 파악하는데 全力을 기울여라.』

2. 여단 각 參謀부서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참모업무를 수행하여 전투부대 지원에 사소한 결함도 없게 하라.』는 號令의 야전퇴보 제4호를 하달하였다.

(가).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이날 09.00를 期하여 제5, 제6중대사이의 부대교대를 실시 한바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는 Phuoc My (2)의 대대본부 지역으로 또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My Thanh Tay (1)로 각각 移動하여 陣地변화에 따른 부대정비에 임하는 한편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는 △124 주변과 Van Loc (4)일대에 對한 探索을 계속하였다.

(나).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제9, 제10 兩중대로서 목표 “나” “다” “라”에 對한 再探索을 벌였는데 接戰이 없었으며 이에 앞서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중대 進술基地 전방에 각 소대별로 夜間 매복대를 配置하였다. 그런데 01.15에 數未詳의 VC이 夜暗을 틈타 제3소대 埋伏隊로 접근하여 수류탄 6발을 투척하고 이어 03.35에 같은 手法으로 또다시 수류탄 4발을 集中하였으나 두차례 모두 無爲로 끝난채로 退走하였다.

1월 30일(D+11) : 이날 여단과 함께 Song Dai Giang(江) 北쪽에서 「Banburen 작전」을 展開中인 美제101 공수사단 제1여단장 Pearson준장이 여단을 방문하여 작전현황을 淸취하고 인접부대간의 協議사항을 熟議하였다. 한편 여단은 제 2, 제 3 兩대대로서 주요 據點을 확보하면서 목표에 對한 探索을 展開토록 한바, 제10중대가 敵 중대규모와 接戰을 벌여 情況의 急變을 보게 되었다.

(가).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각 중대별로 戰術기지를 확보하고 경계중 이날 05.00에 △124 주변에서 소대별로 四周방어 하던 제7중대(장, 李圭台 대위) 제2소대 陣內로 敵의 60mm 박격포탄 20여발이 集中되어 중대원 12명이 부상하자 즉시 救急 “헬리콥터”를 요청하여 이들을 後送하는 동시에 兵力을 출동시켜 敵의 사격방향인 基地南西쪽의 Quang Phu 일대를 探索하였으나 그 踪跡을 알 수 없었다.

한편 대대는 제5, 제6 兩중대로서 基地주변의 목표들을 精探케 하였는데 15.30에 대대 戰術기지 北東쪽 2km 떨어진 Phu Nong에 VC 1개소대가 集結하고 있다는 諜報를 받고 제 5 중대(장, 康用仁 대위) 제1소대가 “헬리콥터”로 空中기동하여 現地에 降着하는 즉시 Song Dai Giang(江)을 渡河하여 退走하는 VC 선박 2隻을 連射 끝에 이를 격침하였으나 여기에 타고 있던 敵 6명을 救出할 도리가 없었다.

(나).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이날 08.00부터 지역확보를 위한 주간探索 및 夜間잠복지 선정을 위하여 제9, 제10 兩중대를 出動시켰는데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목표 “아”

인 △51를 攻擊하고자 중간목표인 Xuan My로 進出中 13.00에 南쪽의 △51로부터 自動화기의 集中을 받고 즉시 증대화기로 이를 制壓한 다음 증대基地로 복귀하여 夜間방어로 轉換하였다. 제10중대(장, 韓國道 내위)는 목표 “다”인 Phu Tho일대의 探索에 들어갔는데 이때 제2소대장 金辰洙 소위는 목표 “다-1”인 Phu Tho에 對한 探索을 命令 받고 전투대형을 유지하면서 마을 어구로 進入하려 하자 갑자기 마을 안으로 부터 一齊사격이 集中되면서 소대원 1명이 負傷하였다.

지역내에는 10여戶의 家屋이 散在하였으며 마을 前面에는 폭 15m와 길이 100m되는 竹林이 東西로 이어지고 外廓은 대부분 丘陵을 형성하고 있는데 밤 사이에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이 마을에 潛入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소대는 즉시 눈 쪽에 散開하여 應射하였으나 차폐물이 없으므로 苦戰하게 되고 눈은 무릎까지 빠져들어 기동하는데 制限을 주었다. 한편 敵과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航空 및 砲兵의 火力을 지원받기도 어려워 다만 소대의 火力과 鬪志만으로 대치한 徒輩들을 擊破하여야 하는 情況이었다.

이러한 狀況에 직면한 소대장 金辰洙 소위는 제1분대장 朴仲信 하사에게 분대를 눈 쪽 뒤의 도랑으로 물러나 左側方으로 迂回한 뒤에 敵의 側背를 제압하라고 號令하고 소대(一)를 지휘하여 彈雨를 쬐으면서 포복으로 前進을 하였는데 敵과의 거리는 불과 70m 以內였으며 이때 敵은 국방색 철모에 작업복을 착용 하였으며 몸 전체는 풀 잎으로 위장한 越盟軍으로 확인되었다.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情況을 보고하면서 白兵戰을 작오하고 一齊돌격을 奉行할 것이니 敵軍 앞에 연막탄을 쏘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風向관계로 연막의 효과가 없었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장에게 제3소대로서 부원할 것이니 攻擊의 속도를 늦추지 말라고 命令하고 이어 제3소대를 제2소대 右側方으로 急進시켜 迂回공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때 敵은 丘陵과 교통호에서 개활지의 공격소대를 향하여 狙擊을 加하므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攻擊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한편 이미 제2소대의 제 1, 제 2 兩분대는 敵陣 깊숙히 들어가 可用한 火力을 集中하니 치열한 銃擊이 交換되었는데 이때 陣頭에서 挺身하던 소대장 金辰洙 소위가 兇彈을 목에 맞고 쓰러지자 소대 선임 하사관인 宋三龍 중사가 소대장을 대신하여 계속 敵을 直衝하면서 소대장을 비롯한 戰死傷者를 後送하기 시작하고 一部병력은 敵의 陣地와 交通호에 뛰어들어 潛逃하는 무리에 수류탄의 鐵火를 던져 썰어 시체 20具를 확인한 뒤에 現地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제2소대장 金辰洙 소위가 後送도중 戰死한 것을 비롯하여 제1분대장 朴仲信 하사와 金周燦, 林恒九, 文永一, 李太伯 상병 그리고 盧在祐, 鄭玉水,



李鍾哲 일병 도합 9명이 碧血을 뿌려 장엄하게 散華하고 이밖에 11명의 부상자를 보았으나 可惜하기 이를 데 없었다. 중대는 즉시 “헬리콥터”를 요청하여 전사상자를 後送하는 한편 薄暮가 지난뒤 戰術기지로 복귀하여 夜間방어로 전환하면서 다음날 반드시 機先을 制하여 雪憤할 것을 期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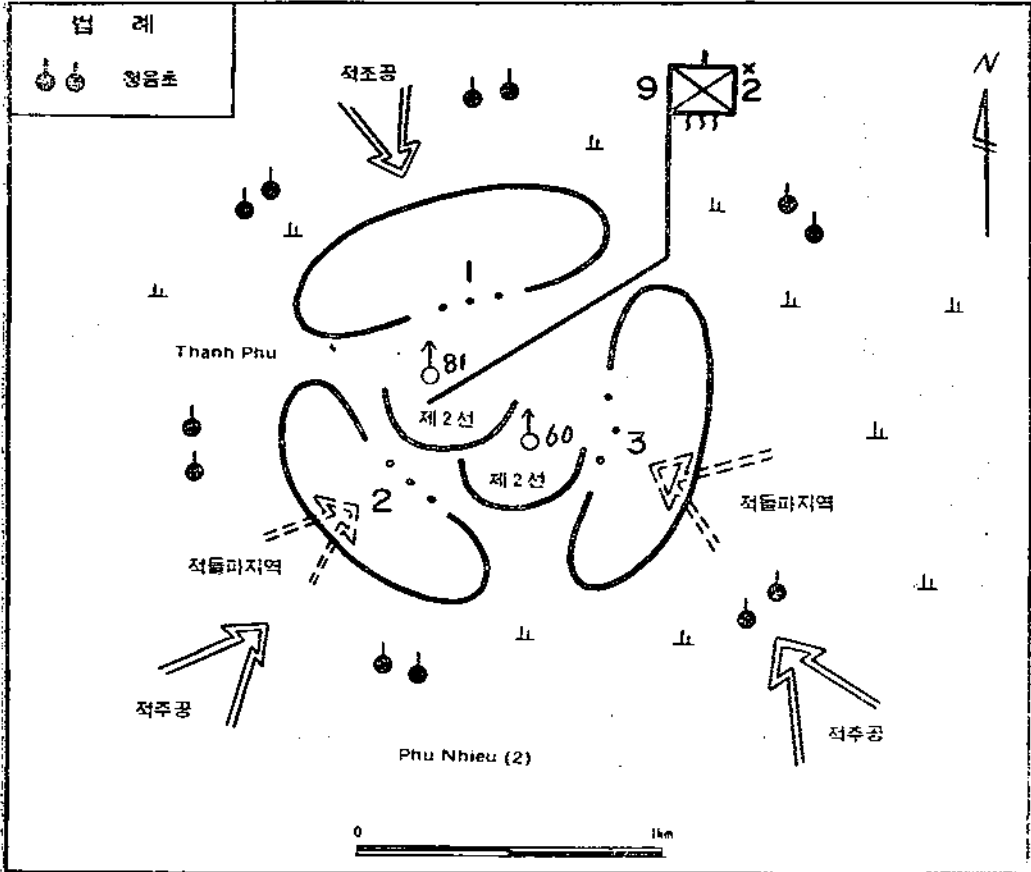
1월 31일(D+12) :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전날 제3대대 제10중대의 전투경과를 보고 받고 그밖의 여러가지 상황을 勘考 끝에 指揮官의 상황판단 및 指揮力의 결함과 兵士들의 戰鬥技倆의 미숙 및 警戒의 소홀이 크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예하부대에 이에 對한 시정을 指示하고 『攻防과 機動에 있어서 우발사태에 對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날 夜間을 틈타 越盟軍 및 VC 혼성 2개대대가 제 9, 제10 兩중대 夜間방어진지를 侵襲하다가 潰滅되었다.

즉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 제9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전날 주간탐색에 이어 Thanh Phu의 중대기지로 복귀한 다음 夜間진지를 편성하여 중대基地 外廓 100m 지전에 6개의 聽音哨를 내 보내고 要所에 “크레모어”를 埋設하는 등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또 중대 東쪽으로 2km 떨어진 Phu Nheu (1)의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도 敵愾心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채 전날의 情況으로 미루어 敵이 夜間을 틈타 侵襲할 것에 대비하여 基地 주변 곳곳에 위장진지를 구축하고 要所마다 지뢰를 묻는 등 방어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한 努力을 경주하였다. 구름이 지나고 달도 저 칠혹같은 밤이 온누리에 덮이고 다만 8knots의 北東風만이 南國의 熱氣를 식히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晝間전투로 疲勞하여 匪魔가 엄습할 무렵 敵 2개대대중 1개대대 규모가 제9중대 陣地를, 또 나머지 1개대대 규모가 제10중대 基地를 目標로 一齊히 侵襲하기 시작하였다.

즉, 03.00가 되자 1개대대 규모는 2개의 主攻과 1개의 助攻으로 먼저 제9중대 지역으로 殺到하였다. 당시 중대는 제1소대를 陣地 北西쪽에, 또 제2소대를 南西쪽에, 그리고 제3소대를 南東쪽에 각각 配置하고 全面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는데 81mm 1개반과 공병 지뢰탐지반의 1개組가 배속되어 있었다. 03.40에 敵의 侵透를 알리는 聽音哨의 보고가 있자 곧 이어 埋設한 “크레모어”를 폭발시키고 彼我間의 銃聲이 一齊히 불을 뿜기 시작하였는데 敵은 제 2, 제3소대 지역을 먼저 돌파코자하였으며 數 많은 死傷者를 무릅쓰고 밀려들어 마침내 03.55에는 제3소대 제2분대 陣地가 돌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순식간에 파야간 치열한 陣內戰이 벌어졌다. 소대장 李潤鎬 소위는 소대원들을 向하여 『陣地를 固守 하라』고 호령하였으

狀況圖 제34호 제9중대 夜間防禦



나 數的으로 우세한 敵은 그들의 시체를 방패삼아 波狀的인 攻撃을 계속함으로써 제1분대의 陣地 마저 突破되자 하는 수 없이 제2線쪽으로 밀렸으며 安一營 소위의 제2소대도 一部 陣地를 敵에게 내어주면서 血雨肉片이 亂舞하는 殺戮戰이 展開하였다.

이에 중대장 成炳文 대위는 포반장인 朴定秀 중위에게 포반 및 본부요원으로 제2線을 다 지게 하여 달려드는 醜虜들을 撲殺하라고 외치자 朴중위는 제1소대가 敵을 견제하는 동안 照明彈을 높이 띄우고 3.5" "로켓트"砲로 命中彈을 계속 퍼붓는 동시에 裝藥 없이 60mm와 81mm의 高爆彈을 陣內의 80~150m 以內로 발사하니 鐵火를 뒤집어 쓴 敵은 여기서 그 氣勢가 꺾이면서 05.30이 되자 屍體를 끌면서 退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는 즉시 2개분대로 정찰대를 편성하여 戰果를 확대하며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였는데 낙오한 越盟軍 2명



제9중대를 倭虜하다가 잡힌 越盟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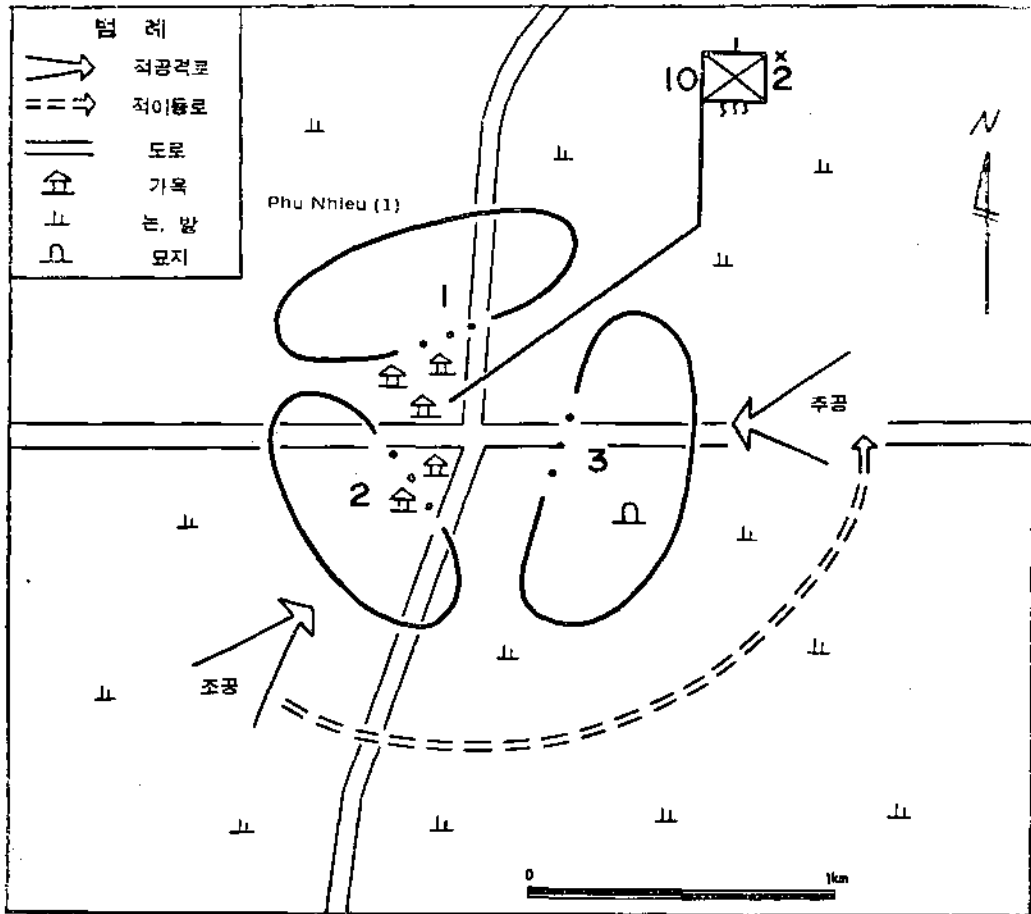
을 俘虜로 하고 저항하는 1명을 사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陣內에서는 遺棄된 屍體 13具를 확인하고 기관단총 2정과 소총 및 CAR 소총 각 1정 그리고 수류탄 23발을 노획하였으며 이밖에 陣地 外廓에 유혈이 낭자한 흔적으로 보아 상당수의 敵 사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推測되었다. 그러나 중대도 최초 陣地가 돌파될 때에 이를 固守코자 奮戰하던 徐哲源 하사를 비롯하여, 張東煥, 崔武信 병장과 金完洙, 金雲翰, 殷熙大 상병 및 徐輔玉 일병 도합 7명이 장렬하게 戰死하고 13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한편 제10중대(장, 韓國道 대위)는 전날의 苦戰으로 心身이 피로하였으나 敵의 奇襲에 대비하여 철저한 경계에 임하는 中 중대장이 호령하기를 『倭虜에는 射擊군기를 지켜 敵이 50m 以內로 接近할 때까지 먼저 사격하지 말라.』고 하였다. 03.00가 되자 隣接 제9중대에서 接敵이 이루어졌다는 通報를 接하자 곧 四周방어에 突入하였다. 03.30이 되자 제3소대 제1분대로부터 전방 200m에 검은 物體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 뒤 이들이 50m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我軍의 위장지지를 발견하자 銃擊 수발을 加하였다. 이에 勿失好機 제3분대에서 재빨리 “크레모어”를 격발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자들을 타넘고

突進하는 무리들에게 기관총과 40mm 유탄 등으로 射擊을 집중하자 敵도 만만치 않게 방망이 수류탄과 자동화기로 대 들었으며, 一部병력은 또다시 南西쪽으로 부터 제2소대 陣地로 파고 들었다.

이에 중대는 81mm 조명탄을 계속 발사하여 대낮 같이 地上을 밝게 한 뒤 조준사격 까지 可能할 정도로 여유 있게 敵을 殲滅할 수 있었다. 그러자 敵은 제2소대 陣地의 攻擊을 斷念한듯이 제3소대 方向의 主攻부대에 合勢한 뒤 陣地를 突破코자 發惡的으로 달려 들었으며 兵力도 점차 증가하여 波狀的으로 밀려 들면서 我軍의 실탄 소모만을 노리는 듯이 보였다. 이때 부중대장 梁美驅 중위는 接敵이 없는 제1소대와 중대 본부 요원으로 부터 실탄 및 수류탄을 일부 회수하여 제3소대에 주진하니 소대원들의 士氣가 올라 烈火의 集中폭발로

狀況圖 제35호 제10중대 夜間防禦



써 敵을 威壓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07.00까지 계속하였으며 敵의 波狀공격은 5차례나 시도되었으나 끝내 陣地를 突破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날이 밝아오자 殘存한 무리들은 一齊히 退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중대장은 제3소대장에게 追擊을 命命하여 奔亂濃走하는 分子들에게 連射의 奏效를 발휘하고 이어 여단에서 支援된 105mm 砲가 支離滅裂한 이들에게 鐵鎚를 加하였다 .

한편 戰果확대에 나선 중대는 陣地 5m 앞에서 부터 준비하게 죽어 넘어진 遺棄시체 106具를 해아렸으며 부상하여 미처 退避하지 못한 1명을 포로로 잡는 동시에 기관총 1정과 “로케트” 1분 및 기관단총 2정 그리고 자동화기 6정과 小銃 및 CAR 소총 각 1정 또 60mm 박격포탄 6발과 소총실탄 1,100발 및 수류탄 25발을 노획하는 반면, 중대는 5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이러한 報告를 接한 여단장과 대대장은 善戰한 중대장을 격려하면서 여단 예비로 있던 제11중대(장, 劉南圭 대위)를 “헬리콥터”로 제10중대 지역에 증원하여, 10.30부터 戰果확대를 위하여 兩중대가 Phu Nhieu (3)과 Phu Tho에 對한 探索에 들어갔는데 건날 제10중대의 전투지역에 滲入하여 遺棄시체 53具를 확인하고 신호용 권총 1정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15.40에 李男務 하사가 Phu Tho 西쪽으로 進出中 敵의 狙擊으로 전사하고 뒤 따르던 대원 1명이 부상하자 그 사격 방향으로 火力을 集中하여 制壓한 다음 兩중대는 16.50에 제10중대 戰術기지로 복귀하여 夜間 방어로 轉換하였다.

**2월 1일(D+13)**: 여단은 전날 제9, 제10 兩중대의 戰鬥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심문한 결과 제9중대를 攻擊한 敵은 VC, MF 30대대로서 兵力규모가 500명인데 內陸의 Suoi Nuoc Nong(溪谷) 부근으로 부터 △51로 이동하였으며, 또 제10중대를 奇襲한 부대는 越盟 제95연대 제4대대로서 병력 300명과 지방 “게릴라” 1개 중대를 합쳐 500~600명으로 推算되었다. 한편 여단은 이날 지역내에서의 住民들의 秋收보호를 警戒코자 美제 101 공수사단 제1여단과 作戰협의회를 열고 전술지역을 交替키로 합의하였다. 즉, 2월 2일 12.00부터 18.00사이에 제 2, 제 3 兩대대는 현 內陸지역의 전술책임지역을 美제 101 공수사단 제1여단 제 327 및 제502 兩대대에 인계하고 縱좌포 CQ 10으로 부터 제1번 道路 사이의 .광활한 水田 지대를 담당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 2, 제 3, 포병의 2개대대는 부대교대에 대비하여 부대정비와 더불어 一部 可用 병력으로 자체방어를 위한 소규모 探索만을 하였다. 그런데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의 제1소대는 09.00에 목표 “B”의 北쪽인 Song Dai Giang(江)邊을 探索하고자 出動中 12.30에 Lac Nghiep 지역에서 敵이 埋設한 “부미트랩”이 폭발하여 소대원 8명이 부상하였

으므로 즉시 “헬리콥터”편으로 후송하였다.

**2월 2일(D+14) :** 이날美제1야전사령관 Larson 소장과美제101공수사단 제1여단장 Person 준장이 여단을 訪問하여 秋收보호에 對한 상호 支援사항을 검토하고 부대교대 관계를 살펴 보았다. 한편 여단은 이날 08.00부터 계획대로 부대교대에 착수하였는데 제5중대는 대대본부와 함께 現 基地인 Phuoc My (2)에 또 제6중대는 My Thanh Tay (1)로 부터 대대 基地 南西쪽 5km 지점인 Phu Phong (1)로 또 제7중대는 △124로 부터 “헬리콥터”편으로 제436번 道路邊의 Phuoc Binh (1)로 각각 移動하여 新陣地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제9중대는 Thanh Phu로 부터 Phu Nong으로 移動하여 대대 본부와 함께 戰術기지를 확보하였는데 제10중대는 Phu Nhieu (1)로 부터 Song Ban Thach(江) 北쪽인 Canh Phuoc (3)에, 그리고 제11중대는 △216인 Nui Chai(山) 정상에 각각 새로운 전술基地를 設定하였다. 이 밖에 지원부대인 포병대대는 제3대대 본부지역에, 또 4.2'' 중박격포 중대는 제2대대 본부 지역에 각각 移動하여 陣地설치에 착수하였다. 한편 여단에서는 다음날 부터 각중대를 제1번 道路와 제436번 道路 주변에 展開하여 秋收하는 住民들을 防護하는 동시에 곡식을 운반하기 위하여 2 $\frac{1}{2}$ ton 트럭을 소요대로 고정 지원키로 하였다.

**2월 3일(D+15) :** 여단은 예하부대로 하여금 새로운 戰術기지 확보에 따른 整理작업을 이날중으로 모두 마무리 하고 可用한 兵力으로 越南人の 秋收작업을 支援하도록 指示하는 한편 제3대대를 Cam Ranh 지역의 제1대대와 交代하는 방안을 검토 끝에 作戰명령 3-66 (부대교대)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여단은 現 작전임무를 수행하면서 2월 4일 08.00를 期하여 제3대대와 Dong Ba Tinh 지구 전술책임지역을 방어하는 제1대대와 의 임무를 교대하러 한다.

2. 임무교대는 중대단위를 기준으로 부차적으로 실시하되 編制上的 人員 및 裝備는 継代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대대

가. 배속 : 포병 제5중대

나. 현행임무를 제3대대에 인계하고 Tuy Hoa 지역으로 移動하여 제2대대의 현행임무를 인수하라

4. 제2대대

현행임무를 제1대대에 인계하고 제3대대의 작전임무를 인수하라.

5. 제3대대

가. 배속 : 포병 제7중대

나. 현행임무를 제2대대에 인계하고 Dong Ba Tinh 지역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의 전술책임지역 방어임무를 담당하라.

## 6. 부대교대 일정표 및 진지 진입계획표 : 생략]

(가). 제2대대(장, 吳允燾 중령)는 부대교대 계획에 따른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각 중대로 하여금 1개소대씩 交代제로 중대基地 주변의 脆弱지역에 출동케 하여 住民들의 米穀수확을 지원케 하였는데 제5중대(장, 康用仁 대위) 제2소대는 李弘吉 소위의 指揮로 Phu Thu 지역을, 또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 제1소대는 金鳳國 소위의 指揮로 Phu Phong (2) 지역을 각각 探索하였다.

(나). 제3대대(장, 全政男 중령)는 부대교대 계획에 따라 각 중대로 하여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는데 △216에 자리잡은 제11중대(장, 劉南奎 대위)의 1개소대 정찰대는 基地 西쪽 下麓을 정찰중 10.25에 천연동굴 1개소를 探知하여 內部를 탐색하자 敵이 사용하였던 흔적만 엿보여 이를 폭파하고 基地로 복귀하였다.

**2월 4일~7일(D+16~19)**: 여단은 작전명령 3-66호(부대교대)에 명시된 중대단위 기준의 逐次的인 부대 교대를 하는 한편 새로 陣地를 인수한 부대들은 부대장비와 더불어 새로운 活動을 하면서 지역경정 및 住民들의 秋收보호를 위하여 探索과 경계를 계속하였다. 즉 2월 4일에는 계획대로 제9중대가 Tuy Hoa 南쪽 비행장으로 부터 C-130 수송기편으로 Cam Ranh 지역으로 移動하여 제1대대 제3중대의 방어임무를 인수한 것을 시발로 하여 다음날인 5일에는 제1대대 본부(一) 및 제3중대가 Tuy Hoa 지역으로 移動하여 陣地 진입을 준비하였다. 또한 같은날 제10중대는 Cam Ranh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 제1중대와, 또 포병 제7중대는 포병 제5중대와 각각 그 임무를 교대하였다.

또 6일에는 제3중대가 제6중대의 基地를 인계받는 동시에 제6중대는 제11중대 基地로 “헬리콥터”로 공수되어 陣地를 확보하는 한편 제11중대는 Cam Ranh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7일 08.00를 期하여 제3대대는 제1대대로 부터 Cam Ranh 비행장을 비롯한 淸수기지 및 Dong Ba Tinh 지역의 경비까지 담당하는 전반적인 방수임무에 착수하였으며 Tuy Hoa 지역에서의 제1대대 지휘부는 제2대대 본부 基地에 到着하여 제2대대 戰術기지를 인계받는 동시에 제1중대는 제5중대 基地를 넘겨 받았다.

한편 제2대대는 제3대대 본부지역으로 移動하여 指揮所를 개설 하면서 여단 命令에 따라 제5중대를 Tuy Hoa 비행장 南쪽으로 이동케 하여 여단 예비로 삼았다.

이와 함께 여단에서는 美제 101 공수사단 제1여단과의 협조 아래 Cam Ranh 지역에 잔류한 제2중대와 포병 제5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하는 동시에 이 兩중대를 이날부로 Nha Trang 南西쪽의 Suoi Cat(溪谷) 지역으로 이동시켜 美제 101 공수사단 제1여단 제327대대 A중대

지역을 인수케 하여 주간 정찰 및 매복(一名 백곰 전투)을 벌이게 하였다. 또한 Tuy Hoa 지역으로 移動한 제1대대(一)로서는 Nui Hoc Nom(山) 西쪽 下端部인 My Dien 지역을 探索하도록 命令 하였다.

**2월 8일(D+20)**: 여단은 月初부터 Nui Da Chong(山) 北쪽 下麓인 My Dien 부근에 대한 敵情을 추적하고 있었던바 지난달 31일에 제10중대를 奇襲하다가 敗退한 越盟 제95연대 제4대대 소속의 殘兵이 지방 “재털러”와 함께 이 일대에 곡식을 거둬 들이는 한편 Song Trong(川) 上流 계곡에서 그들의 포로 수용소 및 휴양처를 마련하고 있다는 첩보를 接하였다. 이에 여단장은 증강된 1개 중대로 하여금 이 지역에 對한 장거리 偵察 및 探索을 展開키로 하여 제1대대장에게 이에 대한 임무를 부여 하는 동시에, 제2대대로 하여금 제436번 道路 주변에서 住民들의 秋收보호를 계속 지원토록 하였다.

(가). 제1대대장 明益杓 중령은 여단 命令에 의거 제3중대로서 My Dien 지역을 포위 攻擊키로하고 이날 午前에 제1중대로 부터 1개소대를 뽑아 “헬리콥터”로 제3중대 基地에 보내어 同基地를 警戒케 하는 동시에 여단으로 부터 배속된 수색소대 1개분대와 함께 제3중대에 夜間정찰을 命令 하였다.

이에 제3중대장 韓基榮 대위는 각 소대장을 불러 地形에 대한 도상 연구를 끝내고 장거리 偵察에 必要한 제반준수사항을 지시한 뒤 19.30에 증강된 중대를 指揮하여 攻擊계시선인 Song Banh Lai(江)에 다달았다. 20.00가 되어 수색소대에서 支援된 고무 “보트”를 利用하여 渡河한 중대는 제3소대를 右일선으로, 제2소대를 中央에, 제1소대를 左一線으로 하였으며 중대 본부는 제2소대와 함께 행동하였다. 달 없는 夜暗을 利用하여 Song Trong(江)에 다달은 중대는 24.00에 한 家屋으로부터 불빛이 잠시 보였다가 꺼지는 것을 보고 은밀히 접근하여 이를 포위한 뒤에 가옥을 탐색한 끝에 VC 용의자 4명을 체포하여 심문하자 현지로부터 南西쪽으로 2km 떨어진 My Phu (2)에 VC 1개소대 규모가 있다고 自白하였다. 그러나 신빙도가 문제이고 또한 그 지역이 美제 101 공수사단 제1여단 제502대대 관할지역이므로 그쪽으로는 進出을 보류하고 Phu Huu (2)에서 露宿하였다.

(나). 제2 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住民들의 秋收보호를 위하여 제 6, 제 7 兩중대에서 도합 4개소대 규모의 정찰대를 뽑았는데 13.35에 제7중대(장, 李昇浩 대위)가 Phnoc Binh(4)의 한 독립가옥 내부를 探索中 위장 대피호를 찾아내어 敵이 은닉한 것으로 보여진 2.75“ 로케트”砲 1문과 방망이 수류탄 2발 및 소총실탄 25발을 노획하였다.

**2월 9일(D+21)**: 여단은 이날 갑자기 불어닥친 强風과 폭우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偵察을



하지 못한채 소부대의 探索만을 계속하였다.

(가). 제1대대(장, 明益杓 중령) 제3중대(장, 韓基榮 대위)는 10.00에 Song Trong(江)을 건느려고 도설이 가능한 곳을 찾았으나 여의치 못한데다가 계속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행동에 지장을 받게 되자 주변 一帶에 대한 소규모의 탐색을 계속하다가 현지에서 급편방어로 전환하였다.

(나). 제2대대(장, 吳允燾 중령)는 08.00부터 제6, 제7 兩중대에서 각 3개組, 도합 6개組의 정찰대를 편조케 하여 제 436번 道路 주변에 展開하였는데 14.00에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 제3소대가 Nui Chai(山) 東쪽 下麓을 探索中 敵의 銃擊 10여발을 받고 이를 追擊하다가 그들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여 3명이 부상하자 즉시 “헬리콥터”를 요청하여 後送하였다. 곧 이어 일부병력이 계속 敵을 追擊중 14.45에 Tuy Binh(1) 부근의 한 나무밭 근처에서 위장동굴을 探知하여 여기에 은닉된 2.75” “로켓트”砲 2문을 노획하였다.

**2월 10일(D+22)**: 여단은 전날에 이어 降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1, 제2 兩대대에 依한 秋收보호를 續行하였다.

(가). 제1대대(장, 明益杓 중령) 제3중대(장, 韓基榮 대위)는 05.30부터 수색분대의 고무 “보트” 2隻으로 Song Trong(江)을 渡河하기 시작하여 07.00에 兵力 모두를 江南쪽으로 移動시킨 뒤에 목표인 My Dien 지역으로 前進하였다. 밤새 내린 비로 田畝이 물 수렁이었으나 계속 進出中 14.00에 前方 2.5km에 있는 My Dien (2)의 山下麓으로 부터 口徑 未詳의 포탄 30여발이 중대 進出線으로 集中되기 시작하고 이와 매를 같이하여 그 東쪽인 My Dien (1)로부터 자동화기 사격이 加하여 졌으나 즉시 소대별로 散開하였으므로 損失이 없었다. 이어 중대는 장애물을 利用하면서 應戰하였으나 비가 계속 내리 視界와 행동이 制限되어 대대에 狀況을 보고 하자 얼마 뒤에 전폭기 3대가 출격하여 敵陣을 強打하였으나 戰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중대는 대대장 命命에 의거 다음날 兵力을 증강하여 목표를 攻擊키로 하고 My Dien (3)에서 四周경계로 夜間방어에 들어갔다.

(나). 제2대대(장, 吳允燾 중령)는 전날에 이어 제6, 제7 兩중대에서 도합 6개의 偵察組를 抽出하여 지역에서 活動을 계속하였다.

**2월 11일(D+23)**: 여단은 이날 제1대대의 My Dien 부근 活動을 예정대로 終結케 하는 동시에 제2대대의 제5, 제6 兩중대에 對한 부대교대를 實施하여 제6중대로 하여금 Cam Ranh 지역의 제2중대와 交代케 하였다.

(가). 제1대대(장, 明益杓 중령)는 제1중대 제2소대를 뽑아 “헬리콥터”로 제3중대에 배속

하였으며 同 중대(장, 韓基榮 대위)는 11.00부터 중대 증강으로 最終 목표를 공격하게 되었다. 11.00까지 My Dien(3) 부근에서 부대 정비와 공격 준비를 끝낸 중대는 제1중대 제2소대가 증원 되자 12.30을 期하여 Nui Da Chong(山) 北쪽 下端部와 Song Trong(江) 上流에 해당하는 최종 목표에 對한 一齊 공격을 實施하였는데 제1, 제2소대를 공격부대로 하고 제3소대와 제1중대의 제2소대를 지원대로 하여 前進中 14.00에 대대로 부터 『목포 西쪽 下麓에 30명 정도로 推算되는 VC이 美공군 정찰기에 依하여 探知되었다』라는 정보가 전달되었다.

이에 중대장 韓基榮 대위는 제3소대를 이 지역에 展開하면서 배속된 제1중대 제2소대에 중대 東쪽의 My Dien (1)과 Tuy Binh (4)에 對한 側方을 경계하라고 命令 하였다. 한편 제1소대를 右一線으로 중앙에 제2소대를, 또 제3소대를 左一線에 散開하여 前進中 Nui Da Chong(山) 北麓 하단부 200m에 이르렀을때 前方의 敵으로 부터 一齊사격이 제2, 제3 兩소대에 집중되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彼我間 총격전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때 兩소대는 사격의 간단을 利用하여 前進하려 하면 대기한 그들이 喬木과 岩石이 점철된 유리한 要地에서 狙擊함으로써 부상자만 하나, 들쭉 늘어갔다.

이에 중대장은 情況을 勘考 끝에 正面直衝을 계속한다면 損失만을 自招할 것으로 보고 또 地形上 불리함을 판단하자 연막차장을 利用하여 일단 공격체제를 뒤로 뽑은 다음 砲兵의 火力으로 制壓하는 것이 上策인 것으로 내다 보고 이를 대대에 요청하였다. 대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즉각 4.2" 중박격포와 105mm곡사포로 鐵火를 퍼 부으니 敵陣은 순식간에 硝煙으로 뒤 덮였으며 灌木과 石塊마저 飛散하는 지경을 이루었다. 이어 薄暮가 가까워 지자 중대는 戰果를 확인하지 못한채 이 전투를 끝내기로 하고 My Dien (3) 지역으로 되돌아가 夜間방어로 轉換하였다.

(나). 제2대대(장, 吳允晉 중령)는 제7중대로서 제436번 道路 주변에 對한 秋收보호 경계를 떠는 동시에 여단 命令에 의거 13.00부터 여단 예비로 있던 제5중대를 △216 Nui Chai(山)의 제6중대 지역으로 空輸 이동시켜 임무를 인수토록 하였으며 제6중대는 다음날 Tuy Hoa 비행장 南쪽으로 移動하여 Cam Ranh으로의 출발을 준비하였다.

**2월 12일(D+24)**: 여단은 이날 제1, 제2 兩대대에 依한 지역 探索을 계속하면서 住民들의 秋收 보호를 支援케 하는 동시에 △216에 있던 제6중대를 여단 본부 지역으로 이동시켜 다음날 Cam Ranh 지역의 제2중대와 교대트럭 대기시켰다.

(가). 제1대대(장, 明益杓 중령)는 제3중대에 배속한 제1중대 제2소대를 배속해제 하여 “헬리콥터”로 원대 복귀시키는 한편 제3중대(장, 韓基榮 대위)에 反轉 탐색을 命令하였다. 同

중대는 08.00에 My Dien (3)으로 부터 Song Trong(江)과 Phu Huu (4)를 통과하고 Song Banh Lai(江)를 渡河하여 Phu Phong (1)의 중대기지에 도착하기 까지 탐색을 계속하였다.

(나). 제2대대(장, 吳允燾 중령) 제6중대(장, 李燦奎 대위)는 11.00에 “헬리콥터”로 Tuy Hoa 비행장 南쪽에 이동하여 Cam Ranh 지역으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한편 제7중대(장, 李昇浩 대위)는 중대基地 北쪽 一帶에서 探索중 09.45에 Song Dai Giang(江) 南쪽의 Phuoc Binh (3)에서 위장 대피소 1개소에서 2.75′ “로켓트”砲 1문을 노획하였다.

2월 13일(D+25) : 여단은 제1, 제2 兩대대로서 秋收지원을 계속하는 동시에 12.00부터 계획대로 제6중대와 제2중대간의 부대교대를 진행케 하였는데, 제6중대는 C-130 機로서 Cam Ranh 비행장으로 移動한 뒤 Suoi Cat 지역의 제2중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또 제2중대는 Tuy Hoa 비행장 南쪽으로 이동하여 중대基地를 設定한 연후에 여단 예비가 되었다.

2월 14일(D+26) : 여단장 李鳳出 준장은 단대호 未詳의 VC 1개중대 규모가 여단 진출지 위소 南쪽 11km인 Song Da Nong(江) 北쪽의 Phu Lac 일대에 出沒하고 있다는 정보에 接하자 이 지역을 急襲할 것을 決心한 뒤 여단 예비인 제2중대와 여단 수색소대를 이 지역에 投入하는 동시에 여하 부대로서 계획된 소부대 探索으로 지역 勘定에 박차를 加하도록 하였다. 전투지역인 Phu Lac은 지난달 여단이 「靑龍 1호 작전」을 展開하였을 때 제9중대가 攻擊한 지역으로서 海岸에 연하여 있는 늪지대 이지만 中心部에는 △49가 있고 이 高地는 岩石과 灌木 및 울창한 “정글”로 뒤덮여 있으며 天然동굴이 點在하므로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폭격과 포병사격이 集中되기도 한 곳이다.

여단으로 부터 命을 받은 제2중대장 白亨基 대위와 수색소대장 李翰鍾 중위는 攻擊에 앞서 작전협의를 끝마친 다음 09.40에 지원된 “헬리콥터” 12臺에 分乘하여 Tho Lam의 沙場에 降着 하였다. 그리하여 제2중대 제1소대는 成勳 소위의 指揮로 右一線 소대로 進出하고 수색소대는 左一線으로 海岸을 따라 南進하였다.

수색소대가 Da Ngu (4) 지역에 對한 探索을 끝마치고 11.00에 △49 下端部를 向하여 前進하는데 이때 △49로 부터 敵의 자동화기 사격이 集中하여 소대원 2명이 負傷하였다. 소대는 부상자를 즉시 安全지대로 後送한 뒤 敵에게 火力을 퍼 부으면서 攻擊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右一線인 제2중대 제1소대도 △49 正面으로 攻擊하여 4部 능선에 이르렀을때 敵의 사격이 集中되어 제2분대의 全光好 병장이 애석하게 戰死하고 뒤 따르던 대원 2명이 負傷하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攻擊을 계속하면 더 큰 損失을 招할 것으로 내다 보고 수색소대와 무전기로 협조하면서 여단에 항공폭격을 요청하는 한편 일단 병력을



秋收保護 작전에서 농민들에게 車輛支援을 하고있다

後方 700m로 뺐은 뒤에 재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3.00부터 20분간 전폭기 2대가 출격하여 △49에 對한 폭탄을 投下하였으며 이어 제1소대와 수색소대의 再공격이 시작된 결과 16.00에 △49를 殲滅하고 1시간에 걸쳐 高地 一帶를 탐색하였다. 그러나 고지 전체가 天然洞窟로 形成되어 있어 끝내 敵影조차 찾지 못하고 17.30에 下山하기 시작하여 Tho Lam (4)로 집결한 뒤 지원된 “헬리콥터”로 자기 基地로 복귀하였다.

**2월 15일~21일(D+27~33)**: 2월 中旬부터 본격적인 秋收期에 접어들게 되자 Phu Yen 省長과 Hieu Xuong 郡守가 여단장 李鳳出 准장을 訪問하여 이르기를 「靑龍 1,2호 작전」으로 많은 避難民이 郡廳 주변과 제 1번 道路邊의 임시 수용소에 集團 수용되어 있는 實情인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食糧문제이니 이들로 하여금 매일 06.00부터 19.00까지 그들의 생활 근거지였던 마을 周위의 農地로 들어가 벼를 베어 울수 있도록 계속 支援하여 출 것과 아울러 이들이 일단 밭단을 제 436번 道路까지 운반하여 오면 그곳으로 부터 收容所까지 여단의 車輛으로 수송해 줄 것」을 要請하였다. 이에 여단은 이 제의를 받아 들여 본 작전의 마감일인 2월 21일까지 2½ton 트럭 50대를 每日 支援키로 하고 차량을 예하부대에 配當하는 동시에 직접 秋收보호에 參加하는 부대는 警戒과 더불어 住民들의 生業을 도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期間中 延 350대의 차량을 支援한 結果 도합 28,830ton의 食糧을 수확케 하여 이 秋收보호지원이 終了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Phu Yen省내의 쌀값이 kg당 9 “피아스터” 하던 것이 6 “피아스터”로 하락하는 시장 경기의 安定을 期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 기간중 敵과의 접촉은 없었으며 다만 2월 20일 22.15에 VC 1개분대가 제1중대(장, 李奉熙 대위) 陣地에 接近하여 銃擊을 加하고 退避하였는데 一齊사격을 集中한 結果 2具의 遺棄시체를 확인하고 수류탄 3발과 소총실탄 100발을 노획하는 반면 중대원 2명이 부상하였다.

여단은 2월 21일 10.00에 예정대로 이 작전을 終了하고 제1, 제2 兩대대의 전술책임지역을 재 조정하여 부대를 재 배치하게 되었다.

즉 Song Ban Thach(중심좌표 CQ 200350)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西쪽은 제1대대가 또 東쪽은 제2대대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Nui Chai(山)의 △216에 있던 제5중대는 여단본부 南쪽의 제2중대 基地로 移動하여 여단 예비가 되고 제2중대는 △216 基地로 이동하였다.

## 라. 作戰 後의 概況

여단은 이번 作戰에서 비록 所期の 戰果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舊正과 秋收期를 前後한 시기에 越南 舟수의 曠地에서 暗躍을 일 삼으면서 住民들로부터 橫奪을 恣行하는 越盟 제95연대 예하 및 VC MF-30대대와 이에 附和雷同하는 일당의 무리들을 擊破함으로써 越南정부의 통제지역 擴張과 지역 住民의 生活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

여단은 이번 작전이 끝남과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Cam Ranh의 母基地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Phu Yen 省長과 Hieu Xuong 郡民의 탄원과 美 원조기관인 USAID 당국의 요청에 따라 Cam Ranh 지구로의 복귀를 일단 보류하고 2월 22일부터 對民지원을 위주로 한 『再建 1호 작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때에 전쟁으로 황폐한 마을을 재건하며, 유린된 民心을 수습하는 것이 피 흘리는 戰鬪 못지 않게 중요하고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여단이 계속 이 지역에 남아 殘敵을 剷絶하지 아니하거나 共產治下에서 自由를 찾아 避難한 2,000명 以上の 難民의 安全을 外面한다면 敵은 또다시 이 지역을 장악하여 前 보다 더 극악스럽게 住民을 괴롭히며, 越南 행정기관 및 軍부대와 基地 등을 계속적으로 侵襲한 것이 豫想되었다.



감안할 때 住民 동태의 깊은 주의와 감시 및 경계는 敵의 기습으로부터 兵力을 保全함은 물론

이요 敵을 一擊에 물리칠 수 있는 要件이 되기도 한다.

### 基地防禦 概念의 遵守

敵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我軍이 취약하다고 判斷할 때에는 서슴 없이 奇襲공격을 시도 한다.

기간중 제9, 제10 兩중대가 Tuy Hoa 南西쪽 一帶에서 벌인 주간 전투에서 苦戰한 뒤, 임시 戰術基地를 전성, 夜間방어로 轉換하자 敵은 我軍이 疲勞하여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이 대대 규모로 각각 夜間기습을 恣行하였는데, 제9중대는 陣地의 一部가 突破되어 陣內戰이 벌어지는 등 敵에게 虛를 보인 反面에 제10중대는 善戰하여 그들을 擊破하였다. 제9중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1. 각급 지휘관의 부대 安全 및 적절한 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감독.
2. 부대가 一時 머문다는 안일한 방어자세
3. 敵의 火力에 比하여 我軍의 장비나 무기가 우세할 것이라는 관념
4. 作戰의 長期化로 말미암은 과로로 警戒대책

- 이 未洽하고 假眠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點
5. 국지경계 임무를 맡은 聽音哨의 통신수단 미비
6. 敵 예상 접근로에 埋伏隊를 配置하지 아니한 點
7. 陣地 외곽에 對한 “크레모어” 등 장애물 설치의 불철저
8. 火力계획수립 및 운용상태의 불비
9. 報告의 지연과 不正確 및 예비 통신수단의 결여
10. 訓練의 미숙과 戰鬪기술의 결함.

이런 點들을 감안할때 비록 그것이 急編방어 일지라도 모든 전투에 있어서 각 계대의 전술지휘소는 敵의 여하한 攻擊으로 부터도 방어될수 있어야 하며 부대 규모의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基地방어 개념에 입각한 방어태세가 항시 요구되며 또 이런 것은 準備부터 勿論한 훈련과 교육및 연마를 통하여 達成되어야 할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해병 제2여단 정훈참모 朴暎旭 대위

(1977년 11월 6일, 대한알미늄공업주식회사에서, 소령 예편)

「青龍 1호 작전」을 끝마친 여단은 휴식할 틈도 없이 곧 이어 「青龍 2호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는데 작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舊正(TE T)을 맞게 되었다.

그런데 상급 사령부의 指示인 즉 停戰기간중에는 彼我間 일체의 공세행위가 중지되었으니 주지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리하여 여단의 砲火도 및

있고 예하부대는 그런대로 경계태세에 임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다.

당시 제5중대는 Tuy Hoa 명야 내륙 깊숙히 들어가 전투를 벌이다가 제3소대가 현지에서 임시 진지를 編成하였는데 子正이 넘자 VC들은 그들의 同調者인 部落民과 어울려 팽가리와 징을 치면서 춤을 추는 듯 祝祭행사인양 부산을 떨더니

드디어 소대앞으로 近接하여 갑자기 자동화기와 수류탄의 集中으로 急襲하여 우리 將兵들은 육박전 까지 벌였으나 그들의 기만과 人海진술에 말려들어 끝내 쓴 맛을 보았다.

이리하여 다음날 一線 지휘관들은 이들에 對한 공격을 여단에 진의 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여단장은 예하 指揮官들에게 꽤 아픈 戰訓으로 받아 들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敵性지역에 對한 과감한 탐색과 격멸을 命命하였다.

이와 동시에 美軍 심리전반과 聯合으로 대대적인 對敵, 對民심리전을 썼는데 비행기로 傳單을 살포하고 확성기에 의한 방송도 하였다.

그 內容은 「共產혁명에서 벗어나 自由를 찾아 避難코자 하는 住民들은 일정한 시간내에 일정한 場所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心理戰 효과가 奏効하였음인지 작전再開 前까지 2,000명에 達하는 住民들이 避難하여 나왔는데 1월 24일, 해가 넘어갈 무렵이 되자 이때 한꺼번에 1,000여명으로 推算되는 사람들이 여단의 唯一한 火力지원부대인 포병대대 陣地(제436번 道路邊) 앞으로 메를지어 다가 온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報告를 接한 여단은 지난번 제5중대의 1개 소대가 夜間에 住民들을 앞 세우고 달려 든 敵에게 急襲의 허를 찔리게 된 것을 상기하고 이들이 밤중에 무슨 짓을 저지르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避難民 입을 핑계로 포병대대를 侵襲하였을 때

여단은 火力지원이 마비될 판국이었다.

현지 대대장과 여단 참모들은 하나 같이 이들에 對한 發砲 여부의 命命만을 고대하는 긴박한 狀況 이었다.

20여년을 共產治下에서 생활해 온 이들은 사전에 避難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다가 하필이면 밤을 利用하여 메를 지어 나온다는 것이 석연치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VC支配下에있는 住民을 모두 敵으로 들린다면 戰爭하는 意義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이다.

一線 지휘관들의 빗발 치는 재촉과 참모들의 논쟁은 분초를 다투어 여단장의 決心을 바꿨다.

오랜 沈黙을 깨고 여단장의 命命이 떨어졌다. 『장진된 포탄을 뽑아라. 1개중대를 急派하여 避難民을 검색하라. 그리고 安全지대로 대피케 하라. 포병대대는 자체방어에 완벽을 期하라.』 이리하여 어둠과 함께 시작된 이 검색은 새벽까지 계속되고 이들은 피난민 集團村으로 인계되었다. 그 以後에 住民들의 民心은 불길처럼 韓國軍에 쏘리고 이 작전 다음인 「再建작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지나고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決心의 순간엔 그렇게도 어렵고 무거운 壓力이 加하여졌던 것이다.

指揮官의 大局을 판단하는 양식과 沈斷力 그리고 그 勇氣에 모든 將兵들이 머리 숙였던 것이다.



13. 在求 2號 戰鬪 (1966년 1월 23일 부터  
1966년 3월 12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7~19호  
상 황 도 제36~42호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연대전투지원중대 4, 2''소대(배속)
제 1 연대 장 준장 金 珽 雲	장 중위 林 靑 鶴
(1966년 1월 10일 승진)	연대전투지원중대 106mm 무반동총소대
대령 全 成 珏	1개반(배속)
(1966년 2월 6일부터)	포병 제60대대 제 1 포대(-, 배속)
(2) 參加部隊	장 대위 金 相 賢
제 3 대대 장 중령 朴 慶 錫	포병 제60대대 제 3 포대(배속)
제 9 중대 장 대위 龍 永 一	장 대위 韓 濟 龍
제 10 중대 장 대위 李 圭 鳳	포병 제628대대 제 3 포대(-, 배속)
제 11 중대 장 대위 李 載 泰	장 대위 金 鍾 鎬
(대타) 장 대위 盧 英 哲	(전포대장 겸무)
(1966년 2월 27일부터)	군수지원사령부 공병 제103대대 1개
제 12 중대 장 대위 方 瑞 男	중대(배속)(재구 2-2호 전투부터)
제 7 중대(배속)	(3) 協力部隊
장 대위 姜 君 吉	美제 1 공중기갑사단
(재구 2-2호 전투부터)	제 18 포병대대(155mm 곡사포)
연대수색중대(배속)	F-100 戰爆機 1개편대
장 대위 宋 璇 用	O-1 偵察機 1대
(재구 2-2호 전투부터)	

## 敵 軍

VC, E-2B대대 2개중대	Phu Cat郡 VC
Binh Dinh省 VC 1개대대	Phu My郡 VC 一部
VC, 團隊號 未詳 1개대대	越盟軍 團隊號 未詳 1개소대

## 나. 戰鬪 前의 概況

一部 越盟軍의 지원을 받은 Binh Dinh省 및 Phu Cat郡 VC들은 지형의 利點과 敵性 人間인의 협조를 얻어 丘陵과 高地群에 잠복하여 수시로 我軍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 1번도로 및 鐵路, 그리고 運輸中인 “헬리콥터”를 奇襲하여 적지않은 손실을 주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該지역에 蟻洞地를 構築한 이래 “VC을 동조하지 않으면 죽을뿐이다”라는 소문을 流布하고 友軍에 협조한 數十名의 人間인을 虐殺하여 그들의 殘惡性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다음 現地 주민들로부터 모병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고 보니 주민들은 이들의 강요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실로, Phu Cat郡內에는 越南행정 당국의 통제지역보다 그들의 勢力이 미치는 지배지역이 더 廣大하였다. 즉 Phu Cat郡內에는 總 11개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국의 行政이 미치는 곳은 4개면에 불과하고 제 503번도로 부근의 Hoa Hiep—Vinh Thanh과 불산 그리고 Suoi La Tinh(江) 下流일대의 Van Thien—Chi Hoa 및 Vinh Long 등의 부락을 비롯한 7개면은 모두 VC治下에 있는 까닭에 友軍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연대는 Qui Nhon을 中心으로 Go Boi평야 일대와 Cu Mong고개 北쪽을 전술책임 지역으로 인수한 이래, 사단의 제 1期作戰(과월後~1965년 12월 31일까지)를 끝마치고 제 2期作戰(’66년 1월 1일~同年 3월 23일)계획의 일환으로 주민의 友好的인 협조를 얻는 동시에 非正規戰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되자 「비호 6호작전」을 비롯한 大小전투를 감행하여 지대內의 VC들을 擊滅하고 많은 지역을 수복하였다. 이러한때 사단에 전술책임 지역을 인계하고 An Khe Pass 北西쪽과 Chanh An을 通過하는 제 1번公路 일대를 담당한 美제 1공중기갑사단이 Bong Son지역에서 「Masher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背後에 잔적한 敵의 세력이 龐大하여 제 1번公路와 “헬리콥터” 수송의 兵참선을 크게 威脅하는 한편 數次에 걸쳐 車輛을 기습 하였으므로 該사단은 곧 Phu Cat지역에 예하 제 12기갑여단의 제 1대대를 殘置시켜 越南 제 22사단 제 41연대 1개대대와 聯合으로 지역의 安全을 도모케 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는 Hoa Hoi 東쪽 美補給기지 경계와 「Masher작전」의 사단 예비로서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즉각 出動할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兵站線의 扼守가 困難할 뿐만 아니라 越南軍 1개대대 역시 지금까지 확인된 Phu Cat 및 Phu My지역의 VC, E-2B대대와 Binh Dinh省 및 Phu Cat郡 VC 1개대대 규모를 제압하기에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추단이 異口同聲으로 굳어져갔다. 이에 따라 美제 1공중기갑사단장은 수도사단장 蔡命新 소장에게 작전지원을 要請하기에 이르렀고 同 작전을 韓·美·越 연합작전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사단장 蔡命新 소장은 이를 受諾하고 제 1연대에 명령하니 연대장 金瑛雲 준장은 다시금 諸般사항을 검토한 끝에 제 3대대로 하여금 그 임무를 遂行케 하였다.

제 3대대는 派越後 越境 Nam Tang과 Phu Gia 및 Cu Mong 고개에서 활동하다가 近來에 와서는

연대의 예비로서 Phu Cat 南쪽에서 연대전술責任 지역으로 潛行하는 무리들을 捕捉 截멸하던중 연대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것이다.

전투지역은 Qui Nhon北쪽 24km 떨어진 Go Boi 평야의 北端인 Phu My郡과의 境界구역으로 西에서 東으로 흐르는 Song Lu Siem Giang(江)과 南에서 北으로 뻗은 제 1번公路가 交叉하고 있다. 이 公路의 西쪽 15km 지역에는 一名 “신비의 溪谷”이라고 불리우는 Ha Thi溪谷이 있고, 그 東쪽에는 Nui Ba Giang (△610)—Nui Ba (△874)—Hon Ju (△674) 및 Nui Ghenh (△338)이 Vinh Nuoc Ngot(灣)으로 이어지는데 이 山脈을 통칭하여 Phu Cat(山)이라고 한다. 또한 이 連嶺의 北쪽에는 그 줄기를 따라 제503번道路가 제 1번公路에서 分離되어 Vinh Nuoc Ngot(灣)에 다다르고 있어 敵은 船艇으로 수송되는 補給品을 이 通路를 따라 內陸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이 戰鬪는 제 1연대 제 3대대(在求대대)가 전술책임 지역을 확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투이다. 즉, 대대는 美제 1공중기갑사단이 展開한 「Masher작전」과 「White Wing작전」의 일환으로 출동하여 Song Lu Siem Giang(江)을 通過하는 제 1번公路가 交叉하는 주변일대를 席捲하고 병참선을 확보하는 한편, 피난민과 VC들의 家族을 모아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VC治下에 있는 穀倉지대를 수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줌으로써 이 지역의 安定을 期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派越 최초로 越南에 韓國촌락(在求村)을 이복하여 故 姜在求소령의 인도주의 정신을 가르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군대임을 보여 주었던 바, 주민들은 我軍을 信賴하고, VC들은 이와같은 不戰以勝의 전술에 말려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蠻行이 友軍의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주민에게 위협을 줄 때에는 서슴치 않고 힘의 威容을 보여 이를 膺懲하였으니 그뒤 이 전투를 끝마치고 복귀하려 할때 Phu Cat郡守 Loc 大尉를 비롯한 在求村長 이하 대부분의 收復지역 주민들이 我軍의 철수를 반대하고 계속 여기에 주둔하도록 越南政府和 사단에 진정하였으며 사단장은 이를 應諾함으로써 대대가 이 일대를 전술책임 지역으로 확정짓게 된 계기가 되었다.

### (1) 作戰 計劃

연대로부터 명령을 수령한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韓·美·越 연합작전의 일부로서 제 1번 公路와 鐵道등을 兵站線으로 確保하는 과제를 안고 地形정찰에 나섰는데 때마침 美제 12기갑여단이 전투지역의 敵情과 對民관계에 對한 자료를 통보하여 줌으로써 偵察에서 얻은 첩

보와 이를 종합하여 연구 분석 한다음 『중대기지 개념에 입각하여 각 중대의 기지를 道路邊에 두게하고 防禦의 임무를 오히려 攻勢행동으로 轉換하여 敵이 기습하면 곧 逆襲을 敢行하여 그들의 진지를 알아내고 이를 擊滅한다. 그러나 前轍을 밟지 말라고 하였으니 과거 佛제100전투단의 倣戰원인을 다시 한번 想起하여 대민관계를 重要視하여야 한다. 즉, 이번 전투에 있어서는 군사적인 用兵과 심리전 활동이 併用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敵을 兪衝하여 殲滅함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는 地方民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면 自然히 VC에 대한 첩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VC들의 來往을 저지한다면 그들의 機構는 점차 축소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장기적인 腹案을 수립하였다.

D-5일(18일):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각 중대장과 관계참모를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와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가 自進하여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Vinh Thanh의 牙城과 Phu Cat비행장 入口를 각각 담당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곧 計劃을 착수하였는데 그 目標를 제503 번도로 주변과 Suoi La Tinh(河) 下流일대에서 潛動하는 敵의 예상 接近路에 두었다. 이리하여 계획이 완성되자 배속 부대장을 포함한 쏘지휘관 및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VC, E-2B대대와 Binh Dinh省 및 Phu Cat郡 VC들은 제1번公路邊에 潛據하여 美軍이 Bong Son일대에서 전개중인 「Masher작전」의 背後를 攪亂하고 友軍의 병참선을 遮斷하고 있다.
2. 대대의 南쪽에는 제2대대가, 北쪽에는 美제1공중기갑사단 및 越南 제41연대가 인접한다.
3. 배속부대
  - 가. 포병 제60대대 제1포대, 同제3포대.
  - 나. 포병 제628대대 제3포대.
  - 다. 연대 수색중대 1개소대.
  - 라. 연대 전투지원중대 4,2'박격포 1개소대 및 同 106mm 무반동총 1개반.
4. 지원부대
  - 가. 美제1공중기갑사단 제18포병대대(155mm 곡사포)
  - 나. F-100 전폭기 1개편대.
5. 대대는 Phu Cat郡을 遇過하는 제1번公路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美補給기지의 安全을 도모하기 위하여 地帶內에서 潛動하는 敵을 覆滅코자 한다.
6. 제9중대
  - 가. 배속: 제12중대 81mm 박격포 1개반.
  - 나. 중대는 Khanh Phuoc (2)에 도착하는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제1번公路를 要扼하라.
7. 제11중대는 Phu Cat비행장 입구 일대를 擊滅하라.
8. 제12중대는 대대 전술지휘소 부근에서 出動태세를 갖추고 待機하라.

9. 제10중대는 최초 대대에비로서 전술지휘소 左側에 집결하여 待機하되 2개소대 규모로 「Masher 작전」의 보급기지를 경계하라.
10. 배속포병 및 연대전투지원중대는 요청에 따라 火力을 支援하라.
11. 協助指示
  - 가. 각중대는 책임지역 警戒을 철저히 하고 對民업무를 적극 전개하라.
  - 나. 각중대는 目標에 도착하는 즉시 壕를 구축하고 交通호를 준비하라.
12. 대대 전술지휘소는 My Hoa에 개설한다.』

## (2) 戰鬪 實施

최초 작전을 전개할 때에는 그 명칭을 「在求 2—1호전투」라고 이름하였는데 期間中, 美 제 1 공중기갑사단(-)이 「Masher작전」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2월 4일 12.00부로 그 이름을 「White Wing작전」이라고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同作戰을 支援하는 대대 역시 제 7중대와 연대수색중대(-) 및 군수지원사령부 제103공병대대의 1개중대를 추가로 배속받아 「在求 2—2호 전투」라고 改稱하였다. 따라서 「在求 2—1호 전투」와 「在求 2—2호 전투」는 同一전투이지만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區分하기가 難澁하여 편의상 前者와 後者를 습하여 「在求 2호 전투」라고 總稱하였다.

### (가) 在求 2—1號 戰鬪(1월 23일~2월 4일 12.00)

期間中 대대는 「Masher작전」의 一環으로 該작전의 병참선을 扼守하고 2개중대를 出動시켜 敵의 根據地인 Vinh Long 一帶를 攻擊하여 이를 覆滅하는 한편 對民宣撫활동을 併行한 결과 주민들은 自進하여 첩보를 제공하고 VC 및 그들의 家族을 귀순케 하였다.

**D—1일(22일)**: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각중대장을 불러 이르기를 『전투간에 주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 주민의 협조 없이는 越南戰의 勝利를 期待할 수 없다』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각중대는 중대基地 전술개념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隣接부대와는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狀況은 항상 迅速 精確하게 보고 하라』고 강조하였다.

**1월 23일(D일)**: 잔뜩 찌푸린 날씨에 바람이 12knots로 불었으나 오후부터는 점차 개이기 시작하여 氣溫이 28.5°C까지 올랐다. 요즈음 彼我間 구정을 前後하여 3일간의 停戰이 성립된 고로 前날이 舊正인지라 이날도 停戰은 계속 되었다.

대대는 09.00에 車輛편으로 Nam Tang을 出發하여 目標地로 向하던중 12.30에 Phu Cat 東쪽 2km에 도착하자 여기에 제11중대를 Phu Cat비행장 경계부대로 남기고 곧 車輛행군을 계속하여 My Hoa에 도착하였다. 이어 제 9 중대를 다시 北上시키고 제10중대를 My Hoa

(4)로 進入케 한 다음 22.00까지 基地방어를 위한 초소 및 壕를 준비케 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朴慶錫중령은 준비기간에 이미 現地를 돌아본 바 있는 제 9 중대 지역이 Phu Cat郡의 北端 취약지역임을 勘考하여 그 지역을 巡察하였다. 그런데 該중대가 지나간지 2시간도 채 못된 제 1 번공로 변에 “아퀴”를 세우고 VC旗 2개를 나란히 꽂아놓은 것을 自警하자 곧 이를 제거한 다음 「이는 VC들이 韓國軍을 알보고 挑戰한 것이라라」고 판단하였다. 18.00에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의 안내를 받아 Phu Cat郡守 Loc 대위(越南軍 현역)가 그의 고문관 Demio 소령(美軍)과 함께 방문하여 敵情을 말하되 「전날(舊正) 여기에서 北쪽으로 1.5km 떨어진 My Hoa(6)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VC 1개소대 규모가 道路邊에 나와 있었고 또 Vinh Truong에서는 100여명의 VC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본인과 만나자 韓國軍이 와봐야 소용없다. 停戰이 끝나면 보자고 하면서 道路외에 政府를 講談하는 선전문을 쓰기에 잠시 다투었다」라고 하므로 대대장은 직감적으로 그들의 挑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각 중대장을 불러 『停戰이 끝나면 敵의 先制 공격이 있을것이니 萬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1. 제 9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대대 전술지휘소 北쪽 5km떨어진 Khonh Phuoc(2)에 도착하자 제 1 번공로의 右側에 중대基地를 준비하였는데 周邊의 지세가 평탄하고 곳곳에 射界를 제한하는 야자수가 있으므로 우발사태에 對備하여 제 1, 제 3, 화기의 3개소대를 제 1 번공로와 인접하여 원형으로 配置한 다음 제 2 소대를 그로부터 500m떨어진 廢墟된 학교로 移動시켜 敵이 挑戰할 경우 예상되는 退路를 遮斷케 하였다. 또한 배속된 81mm박격포 1개반을 중대본부의 右側에 두어 敵에게 遮斷 및 제압포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砲火에 대비하여 작개 兵士로 하여금 入口가 좁은 개인壕를 構築케 하였다.

2. 제 10 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대대 전술指揮所의 左側 1km 離隔된 곳에 중대기지를 구축하자 곧 부중대장 金東完 중위로 하여금 제 2, 제 3 兩소대를 指揮케 하여 그로부터 南東쪽 2km 떨어진 美제 1 공중기갑사단의 補給기지 경계를 지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제 1, 제 2 兩梯隊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제 2 제대를 맡은 金중위는 道路邊의 Hoa Hoi 국민학교(閉校)에 경계초소를 만들어 1개분대를 남기고 다시 Nui Ba(山) 左下端 능선(海拔 80m)으로부터 Phu Kim(3)까지 즉 美제 12기갑여단 제 1 대대基地(Masher작전의 보급기지 警戒부대로 “헬리콥터” 100대를 보유)의 三面(南, 西, 北)에 散開하는 즉시 交通호를 파고 夜間경계에 들어갔다.

3. 제 11 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제 571 번도로에 들어서자 비행장과 Hoa Dong(3) 사이에 있는 道路邊에 중대본부의 위치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열대성 “정글”지대인 Thon Hoa까지

에 제 1소대를, 그리고 Kieu An鐵橋 주변에 제 3소대를 配置한 다음 薄暮에 접어들자 제 2소대로 하여금 2개분대 規模로 Song Dap Da(江)에서 비행장으로 연결되는 무명 道路邊에 있는 △26에 夜間대복대를 추진토록 하였다.

4. 직할부대 및 배속부대는 대대 전술지휘소를 中心으로 南쪽에 연대수색중대 1개소대와 同전투지원중대(-), 北쪽에 포병부대 그리고 東쪽에 제12중대와 통신소대가 각각 展開하였는데, 16.00에 통신소대장 李相儀 중위는 대대와 제 9 중대間의 유선을 가설중 Chanh An(2)에서 2명의 VC이 지뢰 및 障礙物을 埋設하므로 즉시 이들을 捕虜로 잡고 대인지뢰 2발과 장애물을 제거한 다음 이들을 押送하였다.

**1월 24일(D+1)**: 이날은 舊正휴전이 끝나고 交戰의 소용돌이에 부딪치는 날이다.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최소한 이날 黎明以前에 敵의 挑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즉시 정보장교와 의무지대장을 불러 Hoa Hoi와 Chanh An等 세곳에 대민진료소를 설치하여 대민선무활동을 展開하면서 그들의 동태와 정보를 수집토록 하였다. 09.00에는 각중대장을 불러 『제 1번公路의 순환을 강화하고 대민관계에도 留意할 것이며 VC을 捕提하였다 할지라도 住民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14.00에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가 보고하기를 「전날밤 VC 1개분대 규모가 돌산을 넘어갔고 또 6~7명의 怪漢이 種類 미상의 砲를 메고 제503번도로를 따라 Nui Ba(山) 方向으로 潛跡한 것을 Chanh An 주민이 보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각중대에 警戒강화와 함께 出動준비를 갖추게 하였으며 포병과 연대전투지원중대는 Phu Cat山 일대(△334—△356—Nui Be—Nui Ba Ging—Nui Ba)와 제503번도로邊에 點在한 VC지배하의 敵性부락에 대하여 제원을 산출토록 명령하였다.

이윽고 夜三更에 접어들 무렵, 寂寥를 깨는 砲聲이 메아리치면서 美軍보급기지에 數十發의 박격포탄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기지내의 “헬리콥터”는 모두 하늘로 떠올라 空中 대기하고 美軍병사들은 제10중대 제 2梯隊의 경계壕 및 교통호에 밀려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10중대 제 1梯隊를 出動시키고 제 2梯隊로서 △356를 目標로 攻擊케 하였으며 포병 一部(105mm곡사포 4문과 155mm곡사포 2문)와 연대전투지원중대의 火力을 △356에 集中케 하고 나머지 포병화력과 제12중대로는 Nui Be(△550:一名 三峰고지)로 向하는 敵의 退路차단 및 공격중인 제10중대의 支援를 併行케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 9 중대로부터 「중대기지에 산발적인 敵의 박격포탄이 쏟아지자 곧 81mm 및 60mm 박격포로 그들의 砲聲을 제압하고 있다. 그들의 위치는 Vinh Tanh으로 推斷된다」라는 보고를 받자 연대전투지원

중대의 106mm 무반동총 1개 반을 급派하여 該중대를 支援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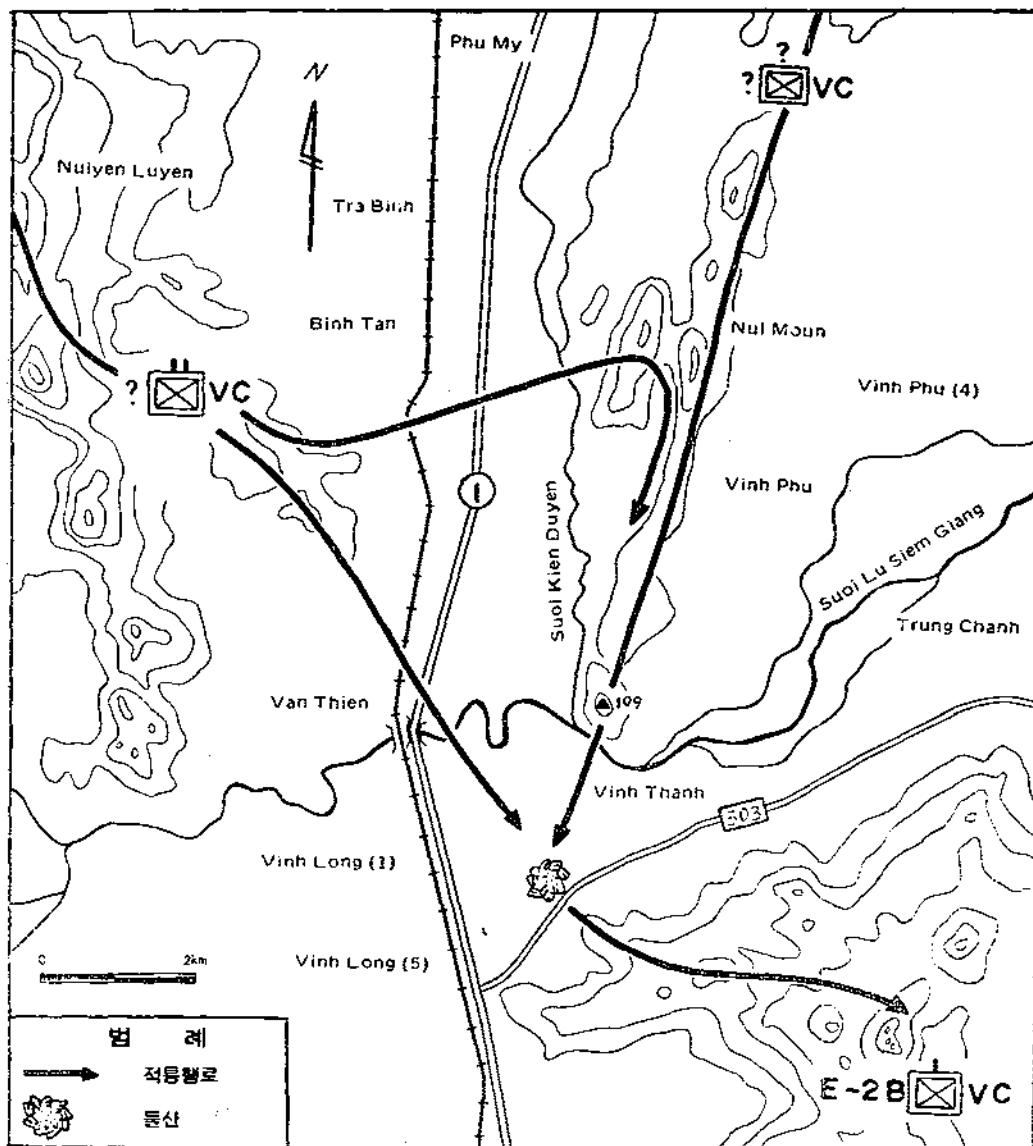
1. 제 9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전날 통신소대가 有線시설중 俘虜로 한 VC이 대인지뢰를 가졌다는 것은省的 정규 VC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我軍의 反應을 시험하기 위한 擾亂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判斷하고 즉시 제 2 소대로 하여금 敵의 豫想접근로인 Chanh An의 細路를 遮斷하여 잠복케한 다음 전날에 이어 壕를 준비하고 미비된 陣地를 補完하였다. 그런데 23.00에 閃光이 번뜩이고 寂寞을 깨는 포성이 울리자 즉시 비상을 걸어 2개소대는 壕에서 警戒토록 하고 나머지 1개소대로 하여금 出動준비를 갖추게 하였는데 갑자기 중대진지에도 포탄이 날아들자 그 閃光을 관측하여 그곳에 砲火를 集中하는 한편 이를 대대에 보고하였다. 잠시뒤 急據出動한 106mm 무반동총 1개 반이 도착하는 즉시 待機中인 제 3 소대(장, 申正雄 소위)와 함께 敵陣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돌산을 攻擊케하여 여기를 경계중인 VC 2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을 노획한 다음 該山 8部능선에서 敵이 發射하는 砲의 閃光을 찾아내어 下向 조준사격을 가하니 곧 그들은 砲擊을 멈추고 數分뒤에는 마을의 불빛까지도 보이지 않으므로 중대는 그들의 行動을 살피면서 현지에서 徹夜 대기하였다.

여기에서 중대가 攻擊에 앞서 돌산을 先取한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 高地는 첫째로 제 1번公路와 제 5번도로의 分岐지점 근방에 있으므로 이 兩道路와 鐵路를 직접 制壓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三面(北, 東, 南)에 펼쳐진 平野를 瞰制하며, 둘째로 中部越南의 高原지대로부터 Binh Dinh省 VC 主力인 E-2B대대의 據點이 있는 Phu Cat山岳 지대로 이르는 2개의 接近路가 숨겨지는 戰術上的 要衝地이다. 따라서 여기를 장악하면 敵은 東쪽 海岸으로 우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이 高地는 文字 그대로 돌산이기 때문에 樹木이 전혀 없어서 視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근 一帶의 마을에서 潛動하는 VC의 동정을 一目了然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이와같은 상황을 勘考끝에 當面한 敵의 挑梁을 제압할 兼 앞으로 대대가 Vinh Thanh을 공격할때의 발판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先着의 布石으로 이를 占領한 것이다.

2.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요란한 포성과 함께 제 2 제대로부터 「美軍이 敵의 砲火를 피하여 我軍壕에 밀려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자 즉시 『警戒壕를 美軍에게 넘겨주고 포탄 集中지역을 우회하여 △346를 目標로 攻擊하라』고 호령한 다음 제 1梯隊를 직접 지휘하여 Hoa Hoi(1)를 지나 △38를 점령하자 곧 제 2梯隊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면서 目標를 向하여 進擊하였는데 공중대기중인 美 “헬리콥터”의 照明지원과 30분뒤에는 急據 출동한 Gun Ship의 掩護로 무난히 △150를 席卷하였다. 그러나 위낙 地勢가 험준하고 열대성 잡목들이 하늘을



狀況圖 제36호 들산의 立地條件



덜은지라 조명도 비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前進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중대장은 현지에서 潜伏기로 걸심하고 該고지 8부능선과 An Hanh溪谷 상류에서 산개중 美보급기지로 潛動하는 敵 2명을 捕捉하는 즉시 그 1명중을 사살하고 수류탄 4발을 노획하였다.

1월 25일(D+2) : 黎明이 되자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美보급기지로 달려가 “헬리콥터” 機上에서 제10중대의 撤收를 직접 指揮한 다음 정보, 작전장교로 하여금 간밤의 敵情을 확인

토록 하였다. 그리고 전과와 손실을 확인하니 제 9 중대에 輕傷 3명, 美軍側에는 기지 일부 파괴 및 “헬리콥터” 2대가 半破 혹은 輕破되었으며 8명이 부상하였으나 전과는 알수 없었다. 한편 敵情을 파악코자 Chanh An에 나간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는 對民 진료소에서 前날 밤 我軍의 砲火에 重傷을 입고 주민의 안내로 治療를 받고 있는 VC을 만나 새로운 諜報를 수집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我軍을 공격한 敵은 Phu Cat山과 Hoa Hiep 一帶에 蟻踞地를 둔 VC, E-2B대대이며 이들은 만일 我軍의 역습을 받을 경우 Vinh Long에 근거지를 둔 1개대대(-) 규모가 我軍을 挾擊할 것이므로 부담없이 行動하였는데 이러한 계획은 我軍이 進軍하던날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暴力으로 대하는 者들에게는 韓國軍의 威容을 보여줘야 한다고 決心하고 敵情을 分析한 다음, Phu Cat山の VC 보다도 곡창지대를 점거하고 있는 그들의 증원부대를 擊滅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들을 攻擊키로 다짐하고 계획을 완성하는 즉시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대대는 Vinh Long 일대에 蟻踞地를 둔 敵을 擊滅하고 곡창지대를 收復하려 한다.
2. 제 9 중대는 海上薄明初(BMNT)를 期하여 目標로 前進하면서 敵을 捕捉 격멸하라.
3. 제 10 중대는 제 2 梯隊를 복귀시키고 My Hoa(7)에서 攻擊준비를 갖춘 다음 대기하라.
4. 제 11 중대는 1개소대 규모를 대대 전술지휘소에 대기시켜라.
5. 연대 수색중대 1개소대는 제 10 중대 제 2 梯隊의 임무를 인수하는 즉시 美 보급기지를 警戒하라.
6. 포병 제 60 대대 제 3 포대는 제 9 중대를 직접 지원하라.
7. 상황의 진전에 따라 Nui Mot(山)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推進 개설한다.』

1. 제 9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曉天에 돌산을 점령한 제 3 소대를 撤收시키고 연대전투지원중대의 106mm 무반동총 1개반을 復歸시켰는데 이때에 埋伏에 나갔던 제 2 소대장 孫太浩 소위가 火急히 뛰어 들어와 보고하기를 「지난밤 중대기지가 砲火에 휩싸이면서 중대본부와 무전이 杜絶되자 1개분대만을 埋伏地에 남기고 3개분대를 저퇴하여 Tan Xuan(2)에 進入한 다음 제 1번 公路와 河川을 遮斷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곧이어 중대장은 埋伏地에 남아 있는 1개분대까지 철수시켜 警戒를 강화한 다음 점검하니 병사 3명이 豹편에 의한 擦傷내지 刺傷을 입고 있으므로 대대에 후송하려는데 갑자기 「지난밤 砲擊을 加한 VC들은 我軍의 손실을 확인코자 民間人으로 가장하여 부대의 주변이나 제 1번 公路邊에 潛入하였을 것이다」라는 예감을 느껴 그 정도의 砲擊으로는 我軍에게 打擊을 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救急車를 요청하지 않고 대대장이 巡察할 때 그 車에 同乘시켜 후송하였다.

18.00에 대대로부터 명령을 수령한 중대장은 지형을 다시 분석한 다음 각소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1. 중대는 目標 Vinh Long(6)에 根據地를 두고 潛動하는 敵을 포착 격멸코자 한다.
2. 전투가 개시되면 상황에 따라 제10중대가 目標의 南쪽을 攻擊한다.
3. 제 2소대는 Chanh An(2)를 지나 My Hoa(5) 北쪽을 우회한 다음 目標 東쪽의 敵을 공격하라.
4. 제 3소대는 Vinh Long(3)으로부터 目標 北쪽의 敵을 攻擊하라.
5. 제 1 및 화기 兩소대는 중대 集結地에서 대기하다가 제 2, 제 3 兩소대가 교전하면 즉시 敵의 側背를 挾攻하라.
6. 공격간에 敵과 遭遇하면 즉시 보고하라.
7. 공격개시 時間은 海上薄明初(BMNT)이다.
8. 중대장은 제 1, 화기 兩소대 중간에 위치한다.』

2.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Phu Cat비행장 입구를 경계중 제 1번公路 東쪽 Kieu An(3)에 있는 간이비행장의 警戒가 미비함을 察知하여 제 2소대의 제 2분대(장, 金相維 하사)를 該비행장과 Song La Vi(河) 사이에 埋伏케 하였다. 이날 黎明에 埋伏을 마친 同분대는 제 1번公路를 넘어 鐵路邊으로 철수중, Hoa Dong(3) 北쪽에서 團隊號 未詳의 VC으로부터 奇襲을 받자 곧 應戰하면서 중대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곧 Kieu An鐵橋에 나가있는 제 3소대로 하여금 이를 赴援케 하였다. 이에 따라 該소대장 申 丁 중위는 제 1분대를 北쪽으로부터 鐵路를 따라 東進케 하고 제 2분대로서 密林지대를 우회공격토록 하였으며 또 제 3분대를 제 1번公路邊에 추진시켜 敵을 包圍 공격케 하여 그 일대에 있는 VC 및 용의자 32명을 逮捕한 다음 이를 押送하였는데 그뒤 연대에 파견된 군사정보내 요원이 그들을 심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중 29명이 VC으로 밝혀졌다.

#### Vinh Long 戰鬪(1월 26일~28일)

1월 26일(D+3) : 이날은 구름이 끼었으나 視界가 6miles로 전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薄暮에 제 9중대의 出動을 보고 받은 대대장은 제10중대를 My Hoa(7)로 進出케 하였는데 이때 Phu Cat郡守 Loc 대위가 전술지휘소에 도착하여 이르기를 「1월 28일 10.00에 韓國軍 환영식을 갖고자 한다」라고 건의하므로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 제 9중대의 전투가 加熱되면서 17.00에 接受된 보고에 따르면 「敵의 兵力은 최소한 2개중대 규모 이상으로 推算된다」라는 것이었다. 대대장은 즉시 제10중대로 하여금 目標의 南쪽을 攻擊케 하는 한편 제12중대와 제11중대 1개소대 및 연대전투지원중대(-)를 이끌고 Nui Mot(一名 거북이山)에 進出하여 여기에 대대 간이전술지휘소를 개설하였다.

1. 제 9 중대(장, 龍永一대위) : 이날 05.40를 期하여 중대 集結地를 출발한 제 2, 제 3 兩소대는 Chanh An과 Vinh Long(3)으로 探索을 병행하면서 前進하였다. 제 2소대(장, 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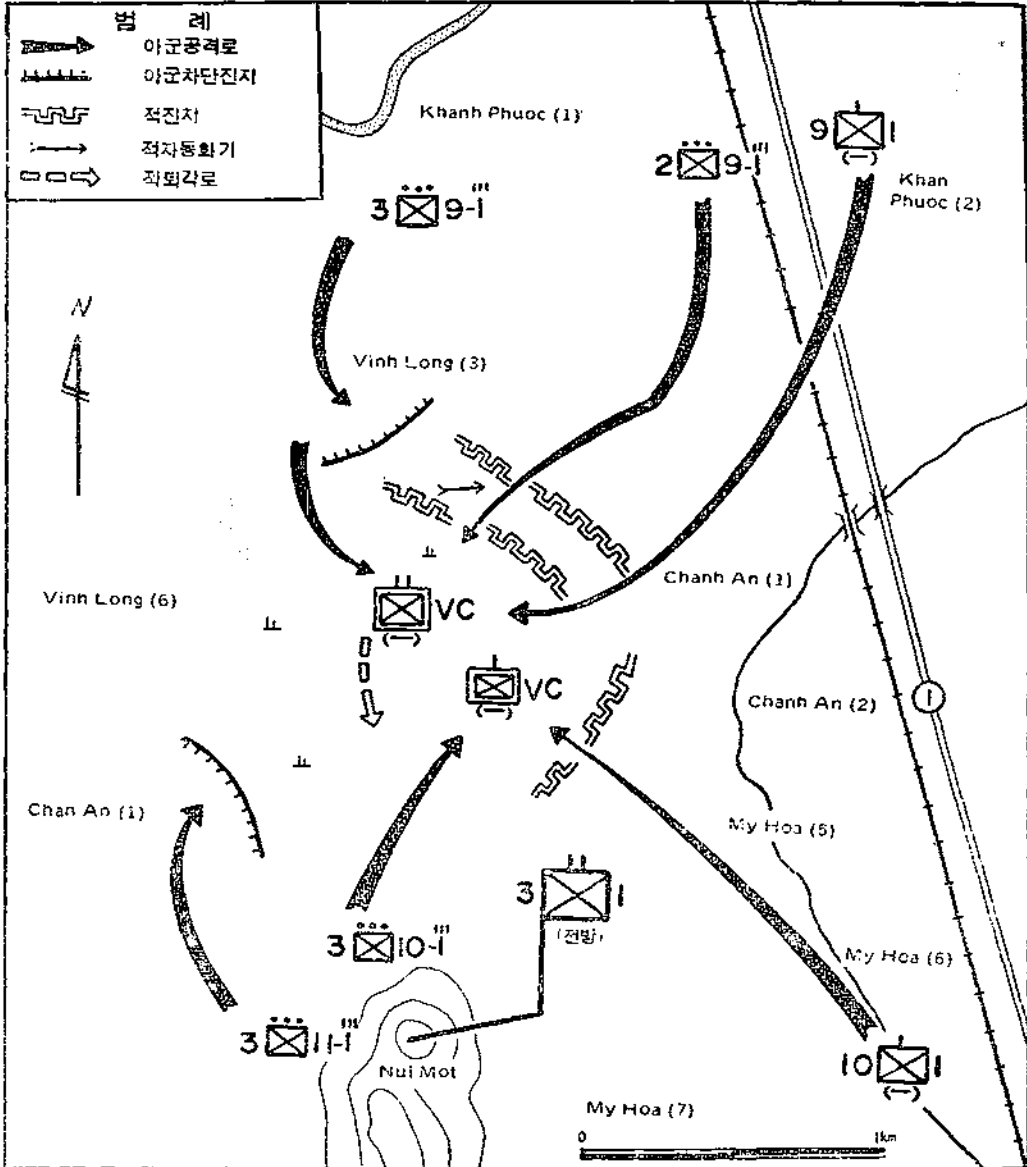
太浩 소위)는 화기분대를 지원분대로 하고 3개분대를 前方에 산개하여 Chanh An 北쪽 1km 떨어진 마을을 占領하자 곧 방향을 轉換하여 目標의 北東쪽을 攻擊하던중 들판의 작은 부락사이에 交通壕를 준비하고 자동화기로 무장한 VC 2개소대 규모의 갑작스러운 銃撃을 받았다. 이에 소대장 孫소위는 敵의 자동화기가 右中央에 있을 것이라고 직감하고 화기분대를 直接 지휘하여 제 2분대와 제 1분대 사이에서 挾攻하는 한편 기관총조를 제 2분대에 보내 이를 掩護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 2분대는 기관총의 掩護下에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로 나누어 사격과 機動을 연결하면서 다시금 敵陣에 楔入하였고 곧이어 부분대장 崔賢根 병장은 선인장과 철조망 障礙物지대를 넘어 저항하는 VC 2명을 사살한 다음 선두에서 다음壕로 突進하는 순간 1발의 저격탄이 그의 左側頭部를 관통하였다. 그러나 朴成奎 일병이 뛰어나가 崔병장을 가로막으면서 그쪽을 사살하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또 다시 數十發의 兇彈이 集中되어 愛惜하게도 두 병사 모두 頭部 및 腹部관통상으로 壯烈하게 戰死하였다. 그러자 소대장 孫소위는 左一線 제 3분대를 뽑아 제 2분대지역에 投入하고 自身은 제 1분대를 직접 지휘하여 左中央으로 穿貫突入하여 熾烈한 백병전을 전개끝에 敵의 제 1방어선 左端을 석권하니, 거기에는 敵의 屍體가 즐비하였다. 또 전령 鄭永一상병은 壕에서 尹鍾喆 일병을 저격하려는 VC 2명을 目撃하자 곧 그중 1명을 사살하였는데 다른 敵이 반사적으로 소총을 亂射하여 左얼지 손가락이 切斷되었으나 재빨리 이쪽을 追擊하여 捕虜하고 CAR소총 1정과 탄창 및 실탄 15발을 노획하였다.

한편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제 2소대가 VC 2개소대 규모의 抵抗에 봉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즉시 포병관측장교로 하여금 Chanh An鐵橋 280°방향 1.4km 지역에 포격을 요청케 함과 동시에 대기중인 제 1, 화기兩소대(이때 화기소대는 CAR소총으로 장비)를 직접 지휘하여 Chanh An으로부터 제 2소대의 激戰地를 攻擊하는 한편 目標의 北쪽을 攻擊중인 제 3소대를 Vinh Long(3)에서 轉換시켜 退路 차단을 互用하면서 突擊에 合勢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急遽출동한 중대장은 交戰地 右側背에 도착하자 2개소대를 南, 北으로 산개하고 중대기수 李 憲 병장에게 突擊나팔을 불게하니 敵의 제 1차 방어선은 修羅場으로 돌변하였다. 한편 Vinh Long(3)에서 退路를 차단한 제 3소대장 申正雄 소위는 중대의 들격나팔소리가 들리자 즉시 挾攻을 개시하였는데 그 方向이 敵의 제 1, 제 2 兩차방어선의 中間 左側背가 되었다. 그러나 VC은 我軍의 3面공격을 받은지라 제 1차 방어선에서 후퇴하여 제 2차 방어선의 무리와 合勢한 듯하더니 완강하게 抵抗하므로 제 3소대는 左側진지(VC 70여

명이 포진)로 射擊 기동을 연결하여 접근하자 곧 근접전투를 전개하였는데 이때 전령 梁 珠輝상병이 개인호에서 소대장을 지격하려는 VC을 目擊하자마자 壕에 뛰어들어 이들을 刺殺하였으나 背後에서 수류탄이 폭발하여 全身 破片傷을 입었고 소대장 역시 左側팔에 銃

狀況圖 제37호 제9중대 攻擊



傷을 입었으나 그래도 申소위는 短兵을 몰고 敵의 交通壕에 뛰어들어 左衝右突 닥치는대로 撲殺하여 遺棄屍體 7具를 現認하였다. 그러나 소대는 右側 密林地대로부터 敵의 增援부대가 나타나므로 一步 물러나게되자 곧 중대에 보고하였다. 한편 중대장은 최초로 敵을 2개소대 규모로 추단하였으나 제 2 방어선에 집결한 무리가 대대(-)규모이므로 전중대원을 奪取한 敵의 제 1차 방어선에 潛入케 하였는데 이때 마침 薄暮에 접어들므로 현지에서 敵과 對峙한 채 철야하였다.

2. 대대로부터 出動명령을 받은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제 9중대의 전투가 熾烈度를 더하게 되자 먼저 부중대장 金東完 중위(제 3소대장 겸임)로 하여금 예상되는 敵의 退路인 Nui Mot(山) 北쪽에 있는 小路를 차단케 하고 즉시 그들의 背後를 挾攻하려 하였으나 黃昏이 깊어가므로 My Hoa(5)와 (6) 중간지역까지 진진한 다음 敵陣의 南東쪽을 포위하고 露宿하였다. 또한 제11중대 제 3소대장 申 丁 중위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夜間에 敵陣의 南西쪽으로 침투하여 Chanh An(1)과 Vinh Long(6) 南쪽을 차단하였다.

1월 27일(D+4): 그리하여 夜間에 敵陣을 包圍한 대대는 Nui Mot (△70)에 간이 전술 지휘소를 개설하고 未明에 105mm와 155mm폭사포 및 4.2 박격포로써 敵의 지휘부가 위치한 것으로 推斷되는 海拔 20m稜線 일대에 砲擊을 加하게 하는 한편 연대전투지원중대의 106mm 무반동총 1개반을 제 9중대에 배속하고 제12중대 81mm 박격포와 기관총소대는 제 10중대와 제11중대의 제 3소대를 支援케 하였다.

이날 08.00에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대대가 包圍하고 있는 現 위치를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일제히 攻擊을 감행하였는데 敵은 예상외로 동굴과 壕에서 완강하게 抵抗하였으며 특히 Hoa Hiep 및 Phu Cat山 西쪽의 △126로부터 박격포를 장비한 敵의 지원부대가 나타나므로 즉시 航空폭격을 요청하였다. 잠시 뒤에 Phu Cat 비행장에서 出擊한 F-100 전폭기 1개편대가 12.00부터 10분동안 包圍網內를, 그리고 그로부터 20분동안은 △126와 Phu Cat山 및 제503번도로 邊에 鐵火를 퍼부우니 敵陣은 火焰에 뒤덮였고, 이에 腐接한 대대는 일제히 猛攻을 加하여 目標을 탈취하였다.

1. 제 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未明에 포성과 함께 敵陣이 火焰에 쌓이자 즉시 攻擊을 감행하였다. 즉 제 1, 화기兩소대는 敵의 제 2차 방어선의 右側을, 제 2소대는 中央, 그리고 제 3소대는 左側을 담당하여 三面에서 包圍網을 좁히는데 10.00에 제 3소대 正面에서 1개 중대 규모의 VC이 逆襲을 試圖한 탓으로 소대는 一進 一退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情況을 파악한 중대장은 그들의 銳氣를 꺾기 위하여 기수 李 憲 병장에게 나팔을 불게함과 同時에

제 2소대를 뽑아 제 3소대 방향으로 몰렸다. 그리고 곧 연대전투지원중대 106mm 무반동총 제 1반(장, 全準九 하사)을 Vinh Long(1) 南쪽 小路에 진출시켜 제 3소대 前方의 敵을 强打케한 다음 제 1, 화기兩소대를 직접 이끌고 突進을 決行하여 그들의 右側 방어선을 깨뜨리자 그 여세를 몰아 제 3소대 방향으로 突破口를 찾는 敵의 背後를 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그들은 갑자기 밀어닥친 중대와 106mm 무반동총의 鐵火를 뒤집어쓰자 더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遺棄屍體 15具와 CAR소총 3정 및 수류탄 8발을 남긴채 그들의 指揮部가 위치 한 것으로 推測되는 Vinh Long(6) 東쪽으로 潰走하였다. 중대는 즉시 이들의 꼬리를 물고 追擊하는데 이때 左전방 숲으로부터 4~5명으로 보이는 VC이 射擊을 加하면서 Vinh Long(4) 방향으로 敗走하였다. 그러나 중대장은 이러한 誘引행동을 看破고 즉시 제 1소대 제 3분대로 하여금 그들을 捕獲토록 조치하는 한편 敵主力에 대한 追擊은 늦추지 않았다. 곧이어 Vinh Long(6) 東쪽 北端까지 進擊하여 交戰하던 중대는 대대로부터 항공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자 곧 뒤로 물러나면서 제 1소대 제 3분대(장, 柳昌根 하사)를 撤收시켰는데 이때 該分대는 1명을 射殺하고 1명을 捕虜하였다. 13.00에 항공폭격의 餘韻이 채 가 시기도 前에 돌격나팔이 울리자 全隊員은 目標를 向하여 一時에 공격을 決行하니 敵陣은 阿鼻叫喚속에 修羅場으로 突變하였다. 제 1소대의 柳寬推 하사의 경우는 壕속에서 2:1의 백병전을 벌여 이들을 屠戮하는가 하던 화기소대의 朴正男 일병은 敵의 수류탄을 받아 동굴



目標를 奪取하고 太極旗를 掲揚하는 제9중대 병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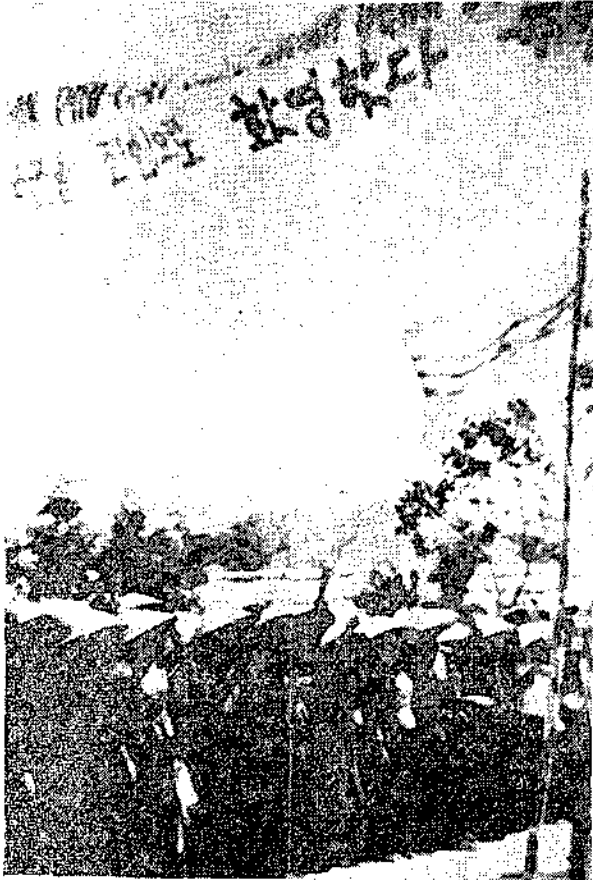
속에 다시 投擲하여 一擧에 4명을 爆殺하는 등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함성과 비명소리가 총성과 더불어 매아리쳤다. 잠시뒤 중대는 累積한 敵의 屍體를 치우고 洞窟과 壕에서 미처 退避치 못한 VC 및 그 家族 11명을 捕虜로 한 다음 南쪽에서 挾攻하던 제10중대와 連繫하는 즉시 전투지역을 제10중대에 인계하였다.

2. 전날밤 이미 My Hoa(5)를 차단하고 潛伏한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02.00에 5명의 特공偵察隊를 조직하여 目標內의 敵情을 探知케 하였는데 이 정찰대는 보고하기를 「Vinh Long(6) 東쪽 500m부근에 1개중대 規模의 병력이 洞窟 및 壕에 잠복하고 있으며 그중 一部는 Tan Hoa(2) 方向으로 退却하고 있었다. 귀대중 잠복한 敵에게 발각되어 총격을 받아 1명의 경상자가 생겼다」라고 하므로 중대장은 곧 『중대가 My Hoa(5)에서 目標(Vinh Long 3)를 공격하면 敵은 策쪽 즉 攻擊방향으로 몰릴 것이다. 이때를 이용하여 제3소대를 防禦하는 敵과 退却하는 敵사이로 쫓부서 敵應戰하는 者들의 배후를 교란하면 能히 挾攻이 가능할 것이다. 단일 退却중인 敵이 다시 增援부대로 등장한다면 그때에는 Chanh An(1)을 차단한 제11중대 제3소대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공격 腹案을 세우자 곧 Nui Mot(山) 北端을 차단한 부중대장 金東完중위(제3소대장 金 正 三 兄)를 불러 이와같은 계획을 전달하고 즉시 躍出케한 다음 我軍의 砲擊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敵은 의외로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계획대로 進行된다고 판단하고 一進一退를 거듭하면서 제3소대의 침투가 성공하기를 기다렸다. 한편 제3소대(장, 金東完 中위)는 敵陣 南端까지 접근하자 제1분대를 右, 제2분대를 중앙, 그리고 제3분대를 左로 산개하고 화기분대를 標高 25m 언덕에 一列횡대로 배치하여 공격부대의 掩護 및 退走하는 VC을 차단케한 다음 부채꼴 모양을 그리며 左로 방향을 바꾸어 중대(-)와 交戰中인 敵의 배후를 덮쳤다. 그러나 그들은도 數가 많은지라 一部 병력으로서 개울 兩 옆을 차단하고 저항하는 한편 그 北쪽 즉 제3분대 左側으로 반격을 試圖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 金東完은 즉시 언덕에 위치한 화기분대(장, 沈龍仙 하사)의 제1조(사수, 金正三 병장)로 하여금 對峙한 敵에게 집중사격을 加하게 하고 제2조(사수, 尹水玉 상병)로서 제3분대를 掩護케 함과 동시에 포병관측장교 金龍夫 중위에게 제압폭격을 요청케 하였다. 포격에 뒤이어 소대는 개울을 目標로 突進하여 敵을 때려 잡으니 敵陣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호기를 捕捉한 중대는 지체없이 突擊을 施行하니 VC들은 20분도 지탱하지 못하고 屍體 5具와 각종장비를 遺棄한채로 退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에 F-100 전폭기가 그들의 지휘부가 위치한 일대를 猛打하므로 중대는 이에 呼應하여 즉시 개울邊을 차단하고 潰走하는 11명을 俘虜하였다. 잠시뒤 중대는 目標의 南端까지 突進하였는데 여기는



이미 제 9 중대가 점령한 뒤였으나 그로부터 敗走한 者들을 다시 捕捉하자 즉시 3개소대를 “U”字形으로 전개하여 제 11 중대 제 3 소대가 遮斷하고 있는 Chanh An(1)으로 붙아붙이니 추격부대의 총탄에 쓰러지는 者와 차단부대의 집중 鐵雨에 목숨을 잃는 者가 不知其數였다. 그런데 右一線의 제 1 소대가 차단중인 제 11 중대 제 3 소대와 서로 誤認하여 사격을 교환하므로 중대장은 즉시 사격을 통제하고 該지역에 남아있는 殘黨을 심멸키 위하여 周圍를 包圍한 다음 철야하였다.

1월 28일(D+5) : 이날은 Phu Cat郡 主催의 한국군 歡迎式이 있는 날로 새벽부터 많은 주민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Phu cat군수 Loc 대위와 美고문관 Demio 소령 및 郡관리들이 到着한 09.00가 되자, 戰鬪지역으로부터 連이은 銃聲이 울려 퍼지더니 제 10 중대로부터 「團隊 號 未詳의 越盟군 1개소대(-)가 중대의 左側背에 출몰하여 포위망내의 VC와 합세한 다음 제 3 소대를 挾攻하고 있다. 중대는 이에 대비하여 外廓의 敵을 牽制하면서 內部에 웅크린 부리들을 強打하고 있다」라고 하는 報告를 接하였다.



한국군 환영식장에 모여든 Phu Cat郡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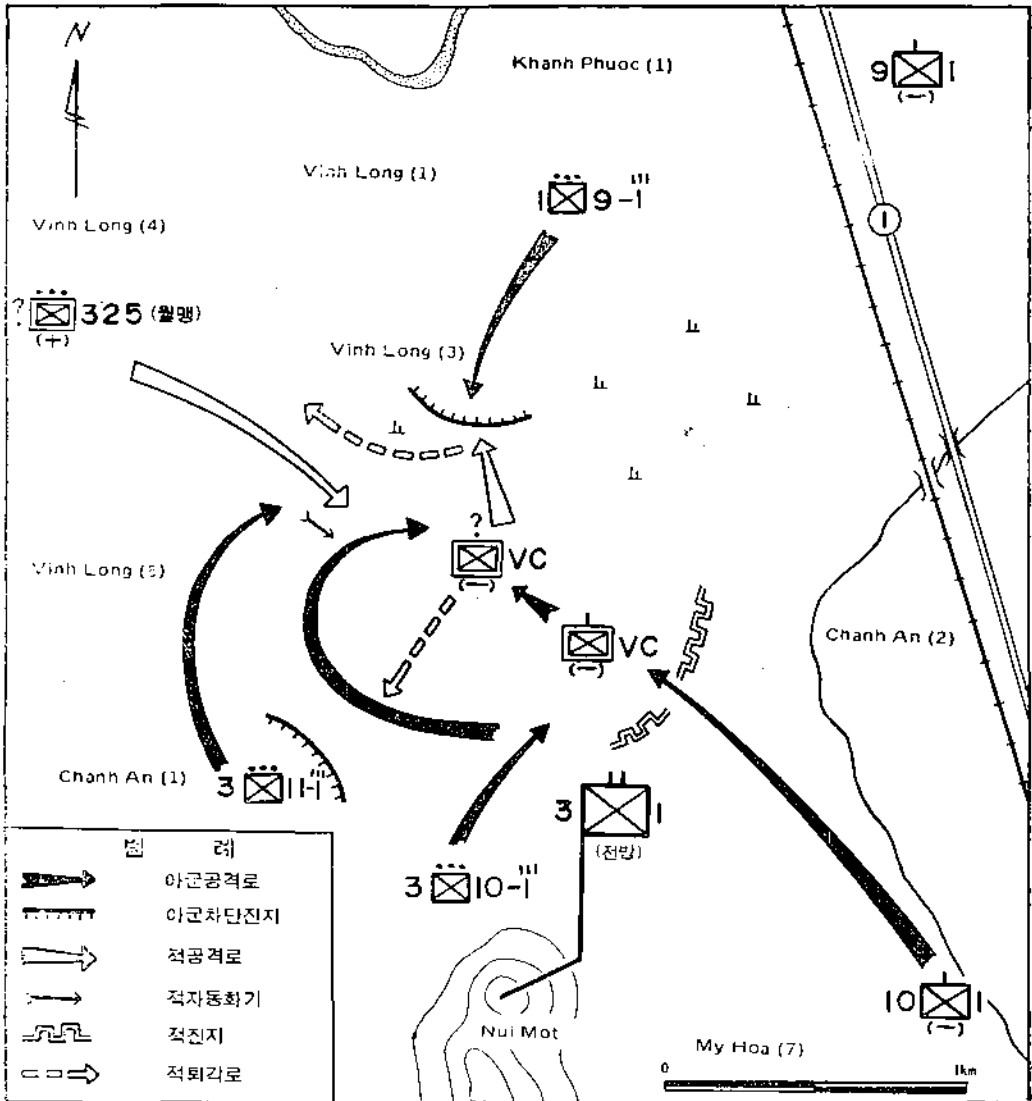
대대장 林慶錫 중령은 즉시 포병 제 60대대 제 3 포대로 하여금 Vinh Long(6) 南西쪽(越盟 정규군 출몰 지역)에 制壓포격을 집중케 하는 一方 Chanh An(1) 일대를 遮斷중인 제 11 중대 제 3 소대를 Vinh Long (6) 左側으로 우회시켜 敵增援부대의 배후를 치게 하였다. 그리고는 곧 Phu Cat군수에게 양해를 얻은 다음 My Hoa에서 거행될 환영식 관계는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에게 일임하고, 작전장교 李重衡 대위를 대동하고 간이 전술지휘소로 달려 갔다. 그리고는 곧 (Nui Mot(△70) 頂上에서 제 10 중대의 전투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 보면서 105mm 곡사포 및 81mm 박격포의 熱火를 잡

중계하는 한편 제9중대에서도 1개소대를 뽑아내어 Vinh Long (3)을 차단케 하였다. 이리하여 3일간 걸쳐 계속한 Vinh Long 전투는 사상 86명과 포로 11명 및 용의자 113명, 그리고 중공제 기관총 1정과 개인화기 5정을 비롯하여 수류탄 31발, 실탄 561발을 노획하고 殘黨을 Nui Dau Voi 北西쪽으로 몰아냄으로써 1개면 7개부락을 越南행정당국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하였다.

한편 환영식에 참석한 權準澤 대위는 答辭에서 「여러분의 兄弟로서 여러분이 願할 때에는 인제라도 여러분을 지키는 “파이한”이 될 것입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이날 식장에 모인 대다수의 群衆은 17.00까지 자리를 뜰 줄 모르다가 대대가 凱旋하자 “파이한 만세”라고 외치면서 환영한바 실로 이 行事が Phu Cat郡民과 대대사이에 우정의 결실을 맺게 하는 始初가 된 것이다.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東녁이 밝기를 기다려 包圍網을 압축하는데 이때 「Masher 작전」의 보급품을 수송하는 “헬리콥터” 3대가 上空을 巡航하자 포위망 내부로부터 數十發의 총탄이 空中에 메아리쳤다. 이에 중대장은 그들의 위치가 포위망 內의 北西쪽임을 看破하는 즉시 北쪽으로 우회 包圍한 제2소대로 하여금 이들을 공격케 하고 제3소대로서 제2소대의 側方을 挾攻케 하였다. 攻擊간에 제2소대는 交通壕로 이어진 偽裝된 5개의 洞窟을 찾아내었다. 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여기가 敵의 지휘부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화기분대의 掩護下에 3개분대를 散開하여 不時에 공격하자 敵도 그 位置가 탄로된것을 自認한 듯 소총을 亂射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反應을 예측한 소대장은 제2분대를 우회시켜 유인하니 그들이 該分대 方向으로 이동하여 應戰하므로 기회를 놓칠세라 2개분대를 직접 지휘하여 正面으로 突貫하였던 바 동굴 2개소 안에서 遺棄된 屍體 5具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살아남은 무리들이 다른 동굴 3개소로 退却하여 다시금 抵抗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때를 같이하여 側方으로 밀어닥친 제3소대가 北쪽에 있는 동굴을 奪取하였는데, 이때 Vinh Long(6) 北쪽에서 越盟軍 1개소대(+)가 나타나 제3소대의 背後에 기관총 2정을 거치하고 강철의 集中彈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에 該소대장 金東完 중위는 제1, 제3 兩分대를 뽑아들려 이들을 牽制케 하고 나머지 2개분대로서 이를 掩護케 하였는데 이번에는 VC들이 동굴로부터 反擊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제3소대가 進退兩難의 危機에 놓이게 되자 제2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제1, 제2 兩分대를 우회시켜 제3소대 正面의 동굴을 제압하는 한편 나머지 2개분대로서 남은 동굴을 掩襲케 하여 그들의 背後를 교란하였다. 이리하여 견디지 못한 무리들이 潰走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3소대(-)가 好機를

狀況圖 제33호 제10중대 攻擊



포착하고 退路를 차단하여 5명을 사살한 다음 다시 방향을 轉換하여 제 1, 제 3 兩분대와 합세하는 즉시 포위망 外廓의 越盟軍에게 鎗鋒을 돌렸다.

한편 중대장 李圭原 대위는 제 3소대가 越盟軍의 挾攻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화기소대로 하여금 支援사격을 集中케 하고 제 1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제 3소대를 赴援하였는데 이때 대대로부터 『제 9중대의 1개소대가 Vinh Long(3)을 차단하고 제 11중대 제 3소대가

敵의 배후를 우회공격하며 105mm 곡사포 3문이 중대를 직접 지원한다. 중대는 敵陣이 混亂되는 기미를 포착하는 즉시 突擊을 散行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중대는 공격을 늦추고 砲火가 炸裂하기를 기다렸다. 중대는 잠시뒤 제 2소대를 선두로 楔形으로 敵陣 중앙을 돌파하여 兩斷하자 그들은 곧 기관총을 중심으로 左, 右로 갈라져 다시금 저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Vinh Long(5)로 우회한 제11중대 제 3소대(장, 申 丁 중위)가 그들의 퇴로를 에워싸니 敵들은 北쪽으로 血路를 끊고 退却하려고 발버둥쳤으나 여기에도 제 9중대 제 1소대(장, 金興玉 중위)가 이미 遮斷하고 있었다. 이에 그들은 進退兩難임을 깨달았는지 다시 돌아 追擊하는 제10중대에 뛰어 들었으니 이는 文字 그대로 以卵投石格인지라 잠시뒤에는 그들의 遺棄屍體 17具가 흩어져 있고 CZECHO製 중기관총이 버려져 있었다.

砲煙이 가시자 대대는 美補給기지를 경계중인 연대수색중대의 1개소대를 뽑아 Chanh An(1)로부터 제 1번公路로 通하는 小路邊에 산개하여 전투에 참가한 부대의 철수를 掩護케 하자 該소대는 現地로 이동중 개울로 潛行하는 VC 2명을 目擊하고 1명을 捕虜로한 다음 전투부대가 복귀하는 즉시 收復지역 경계부대로서 周邊에 埋伏하였다.

1월 29일~31일(D+6~D+8): 이 3일동안에는 구름이 끼고 다섯차례의 소나기가 쏟아졌다. 29일 09.00에 Phu Cat군수가 방문하여 전날 收復된 지역을 돌아보코자 요청하므로 대대장은 이를 승락하고 위생병 5명을 차출하여 부상한 現地주민들을 치료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5명으로 構成된 의무반은 郡保健소 직원 5명과 함께 My Hoa(5)에서 50여명의 “마라리아”와 이질환자 및 砲擊으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은 주민들을 치료하였다.

기간중 대대는 My Hoa에 작은 部落을 만들어 피난민을 비롯한 전투지역에서 집을 잃은 住民들에게 提供한바 그 數가 400여명에 達하였다. 또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와 Phu Cat郡守 Loc 대위가 義兄弟의 結緣을 맺었는데 이를 契機로 郡內에는 韓國軍의 評判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權대위는 郡民의 安居樂食을 위하여서는 諜報를 수집하여 VC의 跳梁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投降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自身에게 주어진 至上의 課題라 생각하고 收復지역에 나아가 파괴된 家屋을 보수하고 식량을 분배하여 주는등, 대민업무에 힘쓰는 한편, 31일 오후에는 霪雨로 말미암아 河川이 氾濫하여 My Hoa로 넘어가는 小路가 막히자 대원 5명을 이끌고 老弱者들을 하나하나 업어 건네주다가 새로운 諜報를 入手하게 되었다. 즉 VC家族中 노인 한사람이 權대위 등에 업혀 여울목을 건너던 중 「VC의 본부는 Pha Cat(1)에 있고 (VC, E-2대대를 탈함) Vinh Tanh과 Hoa Hiep에 2개중대가 蟠踞地를 두고 있으며 △109에는 1개소대가 배치되어 제 1번公路와 鐵路를 통과하는 보급차량을 기습하고 “렐리콥터”

에 대공사격을 加하고 있다. Vinh Tanh의 진입로에는 그들이 설치한 竹槍 및 함정等 많은 障礙物이 설치되었으며 越南 민병대가 이들의 奇襲을 막기 위하여 가설한 2km 이상의 철조망이 있는데 여기가 越南 행정부의 통제지역과 VC 지배구역의 境界로 되어 있다. 그러나 VC들은 이 장애물 지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 1번 公路를 侵襲하나 이를 追擊하는 友軍은 장애물지대를 알지 못한 까닭에 번번이 失敗하고 만다」라고 하였다.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는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한편 障礙物 지대를 통과할 수 있는 經路를 알아내는데 專力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는 未決된 채 다음날로 접어들었다.

한편 이날밤 대대에서는 제 9 중대 책임지대를 지나 Phu My로 向하던 美보급차량 5대가 An Trinh(4)邊의 제 1번 公路上(越南제 41연대 警戒지역)에서 VC의 기습을 받아 車輛 2대가 파괴되고 美軍 兵士 2명이 戰死하였으며 또 1명이 重傷이라는 通報가 전래졌다. (이 地域은 「재구 2-2호 전투」를 전개할때 제 11 중대가 인수하게 될 지역이다.)

**2월 1일(D+9)**: 연일 소나기가 계속되다가 이날 오후부터 맑게 개였다.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정보장교의 보고에 따라 敵情 파악을 제 1 目標로 삼고 계속 對民 관계를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在求村에 모여든 難民을 보살피면서 郡간부들에게 이르되 「韓國軍이 諜報를 收集하는 목적은 敵의 侵襲을 사전에 막아내어 Phu Cat 郡民들의 피해를 줄이고 安定된 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적극 協助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힌 다음 이 趣旨를 주민들에게 전파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날 14.00에 上級부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즉, 「Masher 작전」地域인 Bong Son에서 대규모의 敵情이 捕捉됨에 따라 美제 1 공중기갑사단은 예하부대를 모두 투입시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支援中인 韓國軍으로 하여금 當該 전투지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긴급한 제 1 연대장 金珽雲 준장에게 追加된 임무를 지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現 제 1번 公路를 警戒中인 제 3 대대에 1개 중대를 增派하여 該대대 지역내에 위치한 美제 12기갑여단 제 1 대대의 임무를 인수하라.

인수시간 : 3일 07.30』

이에 따라 대대장은 該지역에 이미 派遣된 제 10 중대 제 3 소대를 제외한 중대(-)를 Hoa Hoi 국민학교(閉校)로 移動시켜 인수일자를 기다리게 하는 한편 美補給기지 입구부근의 제 1번 公路 순찰을 강화케 하였다.

**2월 2일(D+10)**: 대대장은 각 중대장 및 관계 參謀들과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敵情과 對民 관계를 論議한 다음 지시하기를 『Hoa Hiep에 潛跡한 敵은 VC, E-2B 대대의 一部임이 판명되

었다. 이들은 작전初日 이미 我軍을 기습한 바 있어 이들을 擊滅코자 하나 아직도 障礙物지대의 構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격을 보류하고 있다. 앞으로 그들이 挑戰하면 特공정찰대로 하여금 退却하는 부리의 後尾를 따라 潛入하여 그들의 通路와 그밖에 필요한 諜報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날밤 22.00에 美補給 기지와 제 9 중대본부옆 “정글”지대에 敵의 砲彈이 集中하자 대대장은 즉시 敵의 포진지를 확인케한 다음 제 628대대 제 3 포대(장, 金鍾鏡대위)로 하여금 이를 制壓케 하고 同제 60대대 제 3 포대의 105mm 곡사포 2문으로서 제 9 중대를 支援케 하였으며 나머지 2문을  $\Delta 126$ 에 올려놓고  $\Delta 200$ 의 敵陣地에 직접 조준사격을 加하게 하였다.

1. 제 9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右前方 50m에 種類 未詳의 포탄이 떨어지자 警戒壕에 병력을 투입하는 同時에 제 2 소대로 하여금 密林地대를 우회하여 敵의 포진지를 확인토록 號令하였다. 이에 該소대장 孫太浩 소위는 즉시 돌산까지 접근하여 제 1 분대를 Muong Cay Da 下流에, 제 2 분대를 제 503번도로 入口에 埋伏시킨 다음 나머지 2개 분대를 직접 지휘하여 Vinh Truong(3)로 침투하였는데 이때에 Vinh Thanh(3)에서 火光이 번득이는 것을 目擊하자 여기가 敵의 박격포 陣地라고 推測하고 이를 보고하였다. 곧이어 我軍의 105mm 포탄이 漆黑속에 一光을 發하면서 地軸을 흔들어 놓았다. 이윽고 소대는 敵의 철조망 장애물지대



敵의 障礙物지대 사이로 越南민병대가 가설한 철조망이 보인다.

까지 肉迫하여 현지에 潜伏하다가 巡察中인 VC 1명을 撲殺하고 1명을 捕虜로 하는 즉시 이책을 앞세우고 장애물지대의 통로를 探知하였다. 그리고 곧 철조망에 은밀히 表示한 다음 돌산으로 되돌아가 埋伏(隊장, 張貞九 중사)中인 2개분대와 合勢하여 復歸하였다.

2. 제 10중대는 제 1소대로 하여금 Hoa Hoi 국민학교(閉校)에서 Phu Kim(4)까지의 경계를 담당케 하였는데 이날밤 Hoa Hoi 東쪽(美보급기지)에 敵의 박격포탄이 쏟아지므로 該소대를 △38로 移動시켜 그들의 침투에 대비케 하였으나 포병의 105mm 곡사포가 △126에 空輸되어 直接조준 사격을 集中하므로 이의 안전책으로 제 2소대를 My Hoa(1) 北쪽의 △126 6部 능선에 急派하여 監視케 하였다. 잠시뒤 敵陣이 제압될 즈음 溪谷으로부터 다가서는 怪漢을 目擊하고 제 3 분대장 朴盛柱하사가 誘引하여 1명을 사살하였는데 이 책은 수류탄 2발과 TNT 50l/b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我軍의 105mm 곡사포를 爆發하기 위하여 침투한 特攻隊의 一員으로 짐작되었다.

3. 인접부대 : 대대의 北쪽 Song Lu Siem Giang(江)邊 (Phu My鄴)의 경계를 담당한 越南 제41연대의 軍用車輛이 Dap Bau橋梁(4일 제11중대가 인수하게 될 지역)을 통과중 敵의 수류탄 기습을 받아 2명이 戰死하고 車輛 1대가 파괴되었다.

2월 3일(D+11) : 제 9중대 제 2소대의 침투로 敵性부락(Vinh Thanh)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확인한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 9중대장에게 또다른 통로를 探知하되 그중 제503번 도로邊의 접근로에 중점을 두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사단작전 제76호”에 의거 제 2대대의 제 7 중대가 配屬되자 該중대로 하여금 Phu Cat 비행장을 要扼中인 제11중대의 임무를 인수케 하였다. 그런데 이날 새벽, 연대에 새로운 電文이 下達되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贊연대 제 3대대는 그 地域에서 적극적인 수색정찰 및 探索을 실시하여 「Masher작전」의 배후를 교란하려는 敵을 制壓하고 특히 美제 1 공중기갑사단 보급기지의 안전에 유의할 것.

군수支援司 공병 1개중대를 배속함.

배속일자 : 4일 03.00』

이로 말미암아 대대장은 각중대장과 관계 참모들에게 말하기를 『美제 1 공중기갑사단이 Bong Son 지역에서 展開하고 있는 「Masher작전」을 4일 12.00부로 그 이름을 「White Wing작전」이라고 改稱하며 규모도 2개연대에서 3개연대로 增強된다. 이에 따라 대대 역시 제 7중대와 軍수지원사 工兵 1개중대를 배속받아 探索 및 奇襲과 心理戰을 병행하면서 「White Wing작전」의 병참선을 확보하고 지역의 安全을 도모코자 한다. 따라서 대대도 그 명칭을 「在求 2-2호 전투」라 改稱한다』라고 狀況과 전투의 主眼을 밝혔다.

한편 06.30에 Hoa Hoi 국민學校를 出發한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07.30에 美제 12기

갑여단 제 1대대 基地에 到着하는 즉시 「White Wing작전」을 위한 후방 지원시설의 警戒임무를 인수하였다. 곧이어 여기에 派遭된 제 3소대와 合勢하였으며 제 1, 제 2 兩소대로 하여금 該基地의 北쪽과 東쪽에 壕를 구축케하고 제 3소대에 Hoa Hoi(6)과 제 1번公路의 警戒임무를 부여하였다.

(나) 在求 2—2號 戰鬪(2월 4일 12.00~3월 12일)

이 전투는 前述한 바와 같이 美제12기갑여단 제 1대대와 제 1기갑연대 지역인 An Khe高地에 대기중인 美軍 1개대대 및 Phu My郡에 위치한 美軍 1개대대가 「White Wing작전」에 參加함으로써 대대의 전투책임구역이 美補給기지와 Phu My郡內의 제 1번公路邊 일대를 포함하여 6km나 더 연장되었다. 이로써 전투지역은 南쪽으로 Tuy Phuoc郡 北端의 Phu Cat 비행장으로부터 北으로는 Phu My郡의 My Hiep 국민학교까지 3個郡을 연결하는 25km에 이르렀다. 대대는 陸路뿐만이 아니라 “헬리콥터”運航의 安定을 도모키 위하여 Nui Ba (△874) 일대 즉 VC支配下에 있는 마을들과 새로이 맡게 된 Phu My郡의 Chi Hoa에 力點을 두어 諜報를 수집하였다. 그 方法으로는 在求村을 비롯한 수복지역에 對民활동을 원활히 進行함으로써 住民들로부터 스스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敵情을 提報케 하였는데 이것이 奏効하여 有用한 첩보를 入手하였다. 이리하여 16일에는 「Vinh Thanh전투」를, 그리고 26일에는 「Chi Hoa전투」를 전개함으로써 韓國軍의 위용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3개面 16개부락을 收復하여 該當郡에 移讓하였다.

2월 4일(D+12): 이날 07.00에 美제12기갑여단 제 1대대가 移動함에 따라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즉시 제11중대와 工兵중대(배속)를 北上시켜 進술지휘소 南쪽 My Hoa(以前 제10중대 주둔지역)에 대기시켰는데 이때에 情報장교가 報告하기를 「在求村에 모여든 難民中 Vinh Kien(2)에서 移住한 者의 進술에 따르면 Vinh Kien(4) 南쪽 小路를 따라 東쪽으로 가면 牛馬車가 다닐 수 있는 農路가 나오는데 그걸 左側에는 장애물이 있고 右側은 사람이 通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Vinh Thanh에 들어갈 수 있지만 Vinh Kien(2) 入口에는 기관총으로 武裝한 VC의 進지가 있어 我軍의 공격이 힘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그 陳述을 확인키 위하여 그밖에 수집된 諜報를 종합 分析한 결과 信憑度가 높다고 인정하고 즉시 제 9중대장을 불러 命令하되 「Vinh Thanh에 蟻踞地를 둔 敵은 Vinh Kien에 前哨진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중대는 그곳에 침투하여 Vinh Thanh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進입로를 確認하고 그들의 전투력을 探知하라」고 하였다. 제 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곧 △90에 올라가 現地를 살핀 결과 군데군데에 마을과 숲 밖에는 넓은 개활지(畚)뿐이므로 많은 병력이 침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으며, 곧이어 侵透時의 露出度와 기동공간이 狹小함을 감안하여 心算하기를 「침투는 1개소대 규모로 하되, 다른 1개소대로 하여금 Song Lu Siem Giang(江)邊에서 침투하는 소대를 掩護케 하는 동시에 나머지 2개소대 역시 支援隊로 출동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突發사태에 即應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라고 복안을 세우고 제 3소대장 申正雄 소위를 불러 自身の 指導腹案을 설명하고 침투에 관한 運用사항을 指示하였다. 이리하여 제 3소대는 中대基地를 출발한지 1시간만에 Vinh Kien(4) 南쪽 소로 삼거리邊에 있는 草木地帶안에 潛伏한 다음 黃昏이 되기를 기다려 제 1분대부터 叢路의 右側을 따라 目標로 전진하였다. 잠시 뒤에 Vinh Kien(2) 入口에 도착한 소대장 申正雄소위는 目標의 側方으로 소대 輜糧대형을 갖추었는데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明月이 玲瓏(陰 1월 15일)하고 또한 개활지인 까닭에 敵에게 탄로되어 총격을 받게 되자 즉시 제 1분대를 左, 제 2분대를 右에 散開하고 나머지 2개분대를 直接지휘하여 攻擊을 斷行하였던바 敵은 遺棄屍體 3具를 남긴채 후방陣地로 退却하였다. 이에 소대는 곧 그들을 追擊하여 2棟의 倭屋주위에 交通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突進하였는데 이때 左側方으로부터 敵자동화기의 鐵雨가 쏟아지므로 제 3분대(장, 鄭裕鉉 하사)를 뽑아들려 그들을 牽制케 하고는 3개분대로 敵陣突貫작전을 驅使하여 遺棄屍體 3具를 現認하였다. 곧이어 소대(-)는 退却하는 무리들을 추격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方向을 轉換하여 제 3분대와 交戰中인 VC의 배후를 直衝하니 이들 역시 屍體 2具와 中共製 기관총 1정 및 실탄 80발, 그리고 수류탄 2발을 遺棄한 채로 潰走하였는데 急急하였다. 이윽고 소대는 VC들이 사용하던 2棟의 倭屋주변에 潛伏한 다음 反擊에 대비하면서 철야하였다.

**2월 5일(D + 13)**: 在求村 피난민의 提報가 精確함을 確認한 대대장은 이는 對民관계가 圓滑히 이루어진 結晶이라고 생각하고 공명중대와 제11중대의 2개소대를 在求村에 보내 道路를 닦고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住民用가옥 150棟의 마무리작업을 完了하였던 바 15.00에는 全부락민이 모인 가운데 이 家屋들을 分배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뒤늦게 모여든 避難民들이 줄을 이었는데 그 數가 51세대에 200여명이나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새로 모인 難民과 移住民들에게 야전용천막과 침대 및 食糧을 分배하고 먼저 入住한 주민들토 하여금 1개소대 規模를 편성하여 배속된 수색중대 1개소대의 통제하에 自體경계를 담당하도록 措置하였다.

한편, 전날 Vinh Kien(2)를 장악한 제 9중대 제 3소대(장, 申正雄 소위)는 早晨를 기다려 2개분대로서 警戒와 掩護를 互用케 하고 다른 2개분대로는 주변의 人家를 探索케 하였는데 11.30에 中대장이 無電으로 指示하기를 『대대의 襲擊에 따르면 Vinh Thanh에 있는 2개중대 규



在求村에 모여든 難民들

도의 敵과  $\Delta 109$ 에 있는 VC이 소대를 挾攻할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 소대는 즉시 철수하라. 철수간 제 2소대가 掩護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探索隊를 불러들이고 제 1분대를 후미에 두어 전날밤 침투한 경로를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農路左側 장애물 지대로부터 1개분대 규모로 추측되는 VC들로부터 총격을 받자 제 1분대(장, 李海雄 하사)가 우회공격하여 1명을 사살하니 이에 副應한 소대 主力은 退避하는 分子들을 포위하여 3명을 捕虜로 하고 수류탄 3발과 탄창 4개 및 실탄 10발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소대가 200m뒤로 물러났을 무렵에  $\Delta 109$  南麓으로부터 기관총으로 장비한 一隊에게 또다시 銃擊을 받아 병사 1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소대는 즉시 該高地를 目標로 공격을 再開하였는데 그곳은 이미 Song Lu Siem Giang(江)邊에 산개하여 掩護하던 제 2소대(장, 孫太浩 소위)의 側面공격을 받은지라 잠시뒤엔 屍體 3구를 남기고 退走하였는데, 交戰중엔 선임하사 張貞九중사가 부상하였다.

인접부대 : 같은 시간에 交戰地 北西쪽 2km 떨어진 제 1번公路(越南 제41연대 책임지역)를 통과하던 美軍보급차량이 VC의 襲擊을 받아 보급품이 強奪되고 美軍병사 5명이 戰死 혹은 부상을 입은 손실이 있었다.

**2월 6일(D+14)**: 대체로 흐린 날씨였다.

대대장은 전날 제 9 중대의 交戰推移를 살핀 끝에 敵의 전투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認定하고 각중대장을 불러 탐색과 埋伏 및 警戒를 철저히 하도록 指示한 다음 정보요원들을 풀어 諜報수집에 專力케 하였다. 그런데 15.00에 Van Thien(1) 上空으로 補給品을 공수하던 美 “헬리콥터” 2대가 VC들의 대공사격을 받고 Song Lu, Siem Giang(江)을 통과하는 鐵橋 옆 모래사장에 不時着하였다는 보고를 받아 즉시 제 9 중대에 命令하여 現場을 警戒케 하고 대기 중인 제 11 중대를 出動시켰다.

1. 제 9 중대장은 不時着지역에 제 1 소대를 急派한 바, 該소대(장, 金興玉 중위)는 率領으로 機動하여 鐵橋에 다달았는데 이때에 限下에는 Chi Hoa로부터 Song Lu, Siem Giang(江)을 渡河하는 一群을 상대로 美軍 4명이 惡戰苦鬪하는 光景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에 소대장은 즉시 제 2 분대장 李宗具 하사에게 제 2, 제 3 兩分대를 지휘하여 美軍과 “헬리콥터” 주위를 警戒케 하고 나머지 2개 분대를 江邊에 散開하여 渡河하는 敵에게 기관총과 소총을 퍼부으니 그들은 3具의 屍體를 水葬한 채 退却하였다. 그런데 이와 대를 같이하여 江北의 갈대숲에 潛伏한 VC들이 火力으로 對抗하므로 江을 사이에 두고 相互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情況은 점점 불리하게 기울어져갔다. 즉 敵은 박격포까지 動員하여 白沙場에 흩어진 보급품과 “헬리콥터”를 強奪 혹은 破壞코자 하는 心算인듯 熱鐵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소대는 地形上 不利한 位置에서 可用화기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當面한 徒眾들을 制壓하기 곤란하였으므로 손실을 면치 못할 急迫한 情況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제 11 중대가 도착하여 그들을 強打하기 시작하자 소대는 곧 美 “헬리콥터” 警戒에 들어갔으며 戰場정리가 끝난 다음에 復歸하였다.

2. 제 11 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배속된 106mm 무반동총 1개 반을 포함한 2개 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Tan Xuan(1)로 進出중 「江北의 敵의 集中 공격으로 奮戰하고 있다」는 제 9 중대 제 1 소대의 무전을 받고 즉시 공격방향을 轉換하여 △81에 도착하자마자 教會와 鐵橋를 北쪽으로 우회하여 敵陣의 背後를 치기 시작하는 한편 106mm 무반동총으로는 그들의 박격포진지로 추측되는 △24를 強打하여 이를 제압한 연후에 VC이 잠적한 갈대숲으로 直衝하니 난데없이 側後를 얻어맞은 敵은 Van Thien(2) 방향으로 退走하였다. 잠시 뒤 무장 “헬리콥터”가 마을로 退却하는 무리들에게 熱焰을 집중하므로 중대는 遮擊을 보류하고 戰場을 정리하여 遺棄屍體 4具를 확인하고(추정사살 12명), CAR소총 2정과 실탄 50발을 노획하였으나 我軍도 병사 1명이 부상하고 美軍병사 2명이 重輕傷을 입었으며 “헬리콥터”가 輕破되었다. 17.00

에 중대(-)는 강을 건너 沙場뒀 密林지대에서 갈대숲을 바라보며 夜間 잠복에 들어갔다.

한편 연대에서는 연대장 金挺雲 준장이 離任하고 全成珪대령이 취임하였다.

2월 7일~8일(D+15~D+16): 지난 일주일동안 Song Lu Siem Giang(江)北쪽 Phu My 지역에서 일어난 3件的 美보급차량 被襲과 전날 “헬리콥터” 不時着으로 말미암은 전투로 제 1번공포의 警戒문제를 再檢討하게 된 美제 1야전군 사령부(FFVI)에서는 越軍 제41연대가 담당하고 있는 Phu My지역 一部를 韓國軍이 맡아주어야 「White Wing작전」에 蹉跌이 없을 것이라고 判斷하고 이를 韓國軍 사령부에 要請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越南 제22사단장도 사단을 방문하여 Song Lu Siem Giang(江) 北쪽 6km를 맡아 줄 것을 懇請하므로 사단장 蔡命新소장은 이를 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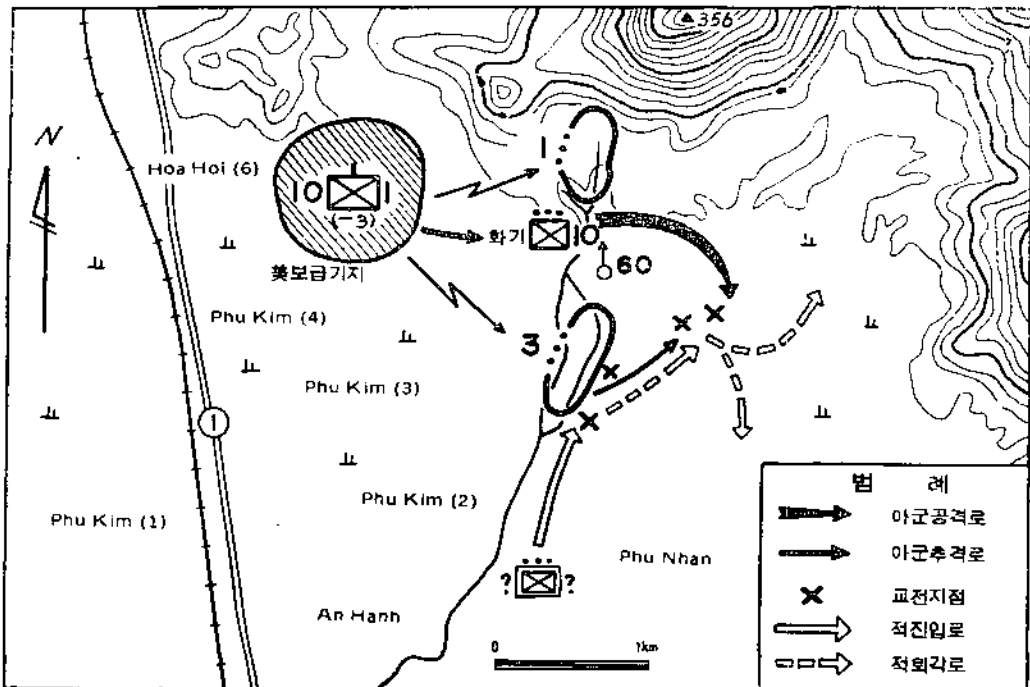
이에 新任연대장 全成珪대령은 제 3 대대에 명령하기를 『대대는 北端계선을 My Hoa국민학교 교에 두고 그 南쪽 제 1번公路邊 일대를 越南 제41연대로부터 인수하라. 연대 수색중대(-)를 추가 배속한다. 인수시간: 9월 08.00』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該지역에 대한 敵情판단과 인접부대의 被襲상황 즉 陸路와 그 上空을 통과하던 友軍차량과 헬기의 피습된 경위를 분석하고 그들의 核心지역에 잠겨중인 VC의 규모와 火力를 알아내는데 心血을 기울였다.

1.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美보급지원기지를 인수한 以來로 Hoa Hoi국민학교 뒷산과 Hoa Gung (△356)西쪽 일대에서 數次 매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接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날 19.00에 대대로부터 通報되기를 『Phu Cat郡廳의 제보에 따르면 1개소대 규모의 VC이 Phu Kim(2)과 Phu Nhon주변에 散開하여 潛動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밤 안으로 항상 그들이 이용하는 Song An Hanh(河)을 따라 Hon Chac (△610)으로 移動할 것이 예상된다』라는 諜報를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제 1소대를 Song An Hanh(河) 上流에, 제 3소대를 中流(細流로 둘러싸여 작은 섬을 이루는 堆積地帶)에, 그리고 화기소대를 兩소대의 中間지역에 배치하여 박격포의 支援과 병력을 增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날밤은 敵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 주야간 埋伏을 계속키로 하였다. 다음날 밤 下弦달이 떠오를 무렵에 제 3소대가 河川을 따라 접근하는 一羣을 捕捉하였는데 이들은 침명과 점병분대 그리고 본대로 구분하여 그 行軍거리가 月下의 目測으로도 200m나짓 되었다. 이와같은 光景을 살피던 소대장 金東完중위는 敵의 본대를 齟齬할 것을 다짐하고 각분대장에게 사격통제를 지시한 다음 尖兵과 尖兵분대를 통과시킨 연후에 본대로 짐작되는 무리가 河川 반대쪽 40m전방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수류탄 1발을 던져 그들의 頭上에 爆破시킨 것을 信號로 내원들은 鐵雨를 퍼

부었고 제 3분대장 宋斗星 하사는 河川을 徒涉하여 그들의 후미를 掩襲하였다. 이에 당황한 VC은 屍體 5具를 遺棄한 채 △31로 退却하더니 곧 戰列을 가다듬고 應戰하였으나 10분도 지탱하지 못하고 다시 敗走하기 시작하였다. 즉, 조명을 지원하던 화기소대장 李雄俊 중위가 咫尺의 거리에서 VC이 退却하는 것을 보자 즉시 박격포반을 除外한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의 退路를 차단키 위하여 그들보다 한발 먼저 △31에 올라 서자마자 뒤늦게 7부능선에서 제 3소대에 應戰하려는 敵의 뒷덜미를 잡았으니 그들의 隊列은 散散히 깨어지고 甞徒들은 潰走하는데 急急할 따름이었다. 중대는 이 交戰에서 遺棄屍體 도합 11具를 確認하고(추정 사상 4), 中共製 RPD경기관총과 CAR 소총 각 1정 및 실탄 58발, 그리고 수류탄 3발을 노획하였는데 我軍도 병사 2명이 부상하였다.

2. 제11중대(-2)는 Song Lu Siem Giang(江) 南쪽에 潛伏하다가 曉暗에 칠수준비를 하는데 이때에 대대로부터 『Phu My지역 6km를 인수할 예정이니 현지에서 계속 잠복하면서 投入되는 부대를 掩護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이곳의 지휘를 제 3소대장 申丁 중위에게 맡기고 대대장을 찾아가 새로이 計劃된 취약지역을 중대가 담당하겠다고 自

狀況圖 제39호 An Hanh 河川 戰鬪



請하므로 대대장은 이를 承認하고 계획의 一部를 變更하였다.

2월 9일~12일(D+17~D+20):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연대수색중대(장, 宋善龍 대위)가 배속되자 이를 대대 및 在求村 경계부대로 돌린 다음 대대에 남아 있는 제11중대의 2개소대를 이끌고 Song Lu Siem Giang(江)邊에 있는 △18로 直行하여 제11중대 본부에 복귀시킨 다음 곧 越南 제41연대로부터 My Hiep국민학교 以南의 Phu My지역을 인수하였다. 그리고는 該중대기지를 An Trinh(2)에 설치케 하고 제 1번公路 주변의 地形을 정찰하는데. 이때에 Phu My郡守가 來訪하여 말하되 「Chi Hoa에 있는 敵은 省 VC 2개중대 規模로 이들은 Ha Chi溪谷(一名 신비의 溪谷)에 본부를 둔 VC대대가 Vinh Nuoc Ngot海岸과 VC, E-2B대대와의 往來 및 제 1번공로를 교란키 위하여 만든 전초부대로 推測됩니다. 특히 신비의 溪谷에는 1965년 2월 부터 越盟軍이 潛據한다는 정보가 있었소. 지난해 越南 제41연대가 1개대대 규모를 Chi Hoa에 投入하여 이들을 擊滅코자 하였으나 오히려 夜間에 逆襲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撤收하였으며 그뒤 美제 1공중기갑사단이 「Masher작전」지역을 欺瞞하고 또 該지역의 敵을 擊滅키 위한 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리고 頂포병화력을 集中하였으나 이 역시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敵情을 提報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여기가 그들의 難攻의 根據地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고 제11중대장 李載泰대위를 불러 이르기를 『先制공격은 삼가하고 敵을 追擊치 말것이며 단지 제 1번公路와 鐵路의 警戒을 철저히 하되 對民업무와 心理戰을 강화하여 偵探을 入手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지시하였다.

1.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중대본부를 제 1번公路의 右側 An Trinh(2)에 두고 제 1소대를 그로부터 300m떨어진 海拔 14m인 무명 高地에 據를 준비한 다음 제 1번公路와 철로를 要扼케 하였으며 제 3소대는 그 반대쪽의 △14에 배치하여 海岸으로부터 접근하는 敵에 대비케 하였다.

2. Phu Cat비행장 입구를 경계중인 배속된 제 7중대(장, 姜君吉 대위)는 Song Dap Da(江)에서 비행장으로 이르는 제571번도로변의 “정글”에 1개분대 규모의 특공정찰대를 投入하였는데, 12일 17.00에 특공대(장, 李陸徽하사)는 道路邊에서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怪漢 2명을 捕捉하고 1명을 사살한 다음 수류탄 1발과 박격포탄을 改造한 “부비트랩” 1발을 노획하였다.

2월 13일~14일(D+21~D+22): 13일 未明에 「White Wing작전」의 보급지원 “켈리콧터” 5대가 제 9중대基地 上空을 통과중 Muong Cay Da河川의 合流지역과 △90右側(Vinh Thanh장애편 地帶)으로부터 대공사격을 받자 대대장은 즉시 제 9중대를 出動케 하였는데

이때 該중대기지에 81mm 박격포탄이 쏟아졌다. 이에 대대장은 곧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宋璇用 대위)를 Vinh Truong(1)에 急派하여 敵의 박격포진지를 攻擊토록 하였다. 잠시 뒤 수색중대로부터 「敵의 위치는 Vinh Kien(1)과 △90 中間인데 그 주변이 障礙物지대인 탓으로 攻擊하기가 힘들어 돌산에서 대기중이다」라는 報告를 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가 무제한 사격지역 [FFZ(Free Fire Zone)는 제503번도로邊 Phu Cat山의 海拔 60m능선을 따라 Vinh Nuoc Ngot海岸의 寺刹까지의 南쪽 140km<sup>2</sup>] 外廓이므로 Phu Cat군수 Loc대위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그는 應答하기를 『VC治下의 지역을 수복하는데 있어서는 대대장의 복안대로 처리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通報하였다. 대대장은 이를 接受하자 곧 로병 제60대대 제3포대로 하여금 該지역에 鐵火를 퍼붓게 하고 제12중대의 81mm 박격포를 Siem Giang橋邊 △18에 배치하여 제9중대를 支援케하는 한편 연대전투지원중대 106mm 무반동총 1개반을 제503번 도로 入口에 진출시켜 돌산에서 攻擊대기중인 연대수색중대에 배속하였다. 그런데 同 중대의 제2소대 池重守 하사가 무반동총의 掩護下에 특공정찰대를 이끌고 敵陣에 접근하였으나 撤收路가 여의치 아니하여 攻擊하지 못한데다가 제9중대 역시 △60에 進出하였으나 장애물지대에 直面하여 공격이 中止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F-100 전폭기 1개편대를 요청하여 敵의 박격포진지 및 장애물지대와 △202 一帶를 불바다로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4일 21.00에 또다시 제9중대지역에 박격포탄 8발이 날아들고 美보급수송 “헬리콥터”에 대공사격이 集中되었으며 제9중대의 제1번公路 정찰대가 △126 옆을 돌아오던중 該高地로부터 기관총사격을 받자 즉시 應戰하여 이들을 擊退하였으나 車輛(2 $\frac{1}{2}$ ton)이 半破되었다.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當面の 武裝徒黨들을 剔抉하지 않고서는 Phu Cat郡의 安定과 「White Wing작전」의 병참선을 保全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Vinh Thanh 전투」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 Vinh Thanh 戰鬥

2월 15일(D+23) : 작전회의 席上에는 대대장을 비롯하여 제9중대장과 관계참모 및 배속부대장들이 참석하였다. 정보장교는 敵情을 보고하기를 『在求村에 VC 1명이 귀순하였다. 그자의 陳述에 따르면 Vinh Thanh에 있는 敵은 2개중대 규모로서 이들은 “싸이한의 전투력으로는 Vinh Thanh을 中心으로 한 畵地域을 공격권內에 들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判斷하고 있는 듯 하다. 때문에 Phu Cat山의 VC대대본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없는 限 그들은 교육 훈련에 열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지금까지의 활동이 그러하듯이 敵에 대한 諜報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또 제9중대 역시 Vinh Thanh을 攻擊치 않았으며 단지 그들의 動

態와 戰鬥力을 살피기 위한 部分的인 行동을 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敵이 이와같이 我軍을 과소평가한다면 이를 圖謀할 때가 온 것이라고 판단한 대대장은 數日前부터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가 건의한 바 있는 Vinh Thanh奇襲을 斷行키로 다짐하고 對策을 협의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奇襲효과를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攻擊부대의 규모.
2. 최소의 손실로 敵을 粉碎할 수 있는 방법.
3. 장애물저대를 뚫고 敵에게 接近할 수 있는 手段과 병력 活用문제.
4. 계획이 挫折되었을 경우의 후속대책.』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공격부대가 제9중대의 소병력으로 확정되자 該중대장은 대대장의 지침과 관계참모들의 협조로 計劃을 完成하고 이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격은 無照明으로 은밀히 침투하여 감행한다.
2. 目標은 제1번公路로부터 東쪽으로 4km떨어진 Vinh Thanh과 Hoa Hiep이다.
3. 부락주변과 Vinh Thanh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철조망과 竹槍 및 “부비트랩”等 각종 장애물이 부설되어 있으나 D+10일과 D+12일에 확인된 接近路를 이용하여 夜間에 침투한다.
4. 전투는 3段으로 구분한다.
  - 제1段: 돌격개시 前에 1개소대를 目標후방에 침투시킨 다음 야간장복 진지를 설치하고 敵의 增援부대를 차단하는 반면에 본대가 도착하여 攻擊이 개시되면 後方으로 退却하는 敵을 捕捉격멸한다.
  - 제2段: 중대주력이 야간에 침투하여 敵의 본거지를 3面에서 포위한다.
  - 제3段: 제1, 제2 兩段이 성공하면 중대는 돌격개시 나팔을 信號로 일제히 敵陣에 뛰어들어 目標을 奪取한다.
5. 포병과 제12중대 및 연대전투지원중대는 야간조명에 필요한 諸元을 준비하고 대기하다가 공격부대의 要請에 따라 지원한다.
6. 예비계획
  - 가. 침투간 敵에게 企圖가 綻露되었을 경우에는 조명하에 주간전투로 轉換한다.
  - 나. 중대가 나팔을 불면 포병火力(155mm 곡사포)은 敵의 增援부대 예상接近路에 制壓 및 遮斷포격을 집중한다.
  - 다. 대대는 2개 소중중대를 出動대기 시키다가 전투가 확대되면 즉각 投入하여 대대규모로 전환한다.』

2월 16일~17일(D+24~D+25):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11중대와 수색중대를 출동대기케 하고 제12중대의 박격포소대는 △18에서 제11중대가 出動하게 되면 조명 및 제압포격을 集中할 수 있겠끔 준비케 하였다. 또 포병은 계획된 지역의 재원을 산출하고 철야대



기하는 한편 작전지역을 기만하기 위하여 Suoi La Tinh(河) 일대에 간간이 砲擊을 가하였다. 이윽고 黃昏이 지나자 달도 없는 어둠속에 남십자성이 빛을 쬐하여 攻擊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제 9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출동준비를 완료한 대원들에게 『전진간에 敵과의 접촉은 최대한 避하되 민간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1명이면 대동하고 數名 이상이면 撤收를 가장한 연후에 다시 우리 전진하라』고 강조한 다음 計劃한대로 제 1段을 착수하였다. 목표후방차단 임무를 맡은 제 3 소대(장, 中正雄 소위)는 중대기지를 출발하여 △126에 진출하자 敵陣을 살핀 뒤 제 1분대(장, 金正植 하사)를 尖兵분대로 하여 통로를 개척하면서 稜線을 지나 Vinh Thanh(2) 下端에 접근하는 즉시 △202 北西쪽 道路옆 언덕에 潛伏하였다. 20.00에 제 2 소대(장, 孫太浩 소위)는 제 3 소대의 西側方(목표의 左下端)에 침투키 위하여 돌산을 우회하자 2월 2일(D ÷ 10)확인한 接近路를 따라 제 2 분대(장, 金光鉉 하사)를 선두로 장애물지대를 통과한 다음 Khanh Loc(2)에 이르자 小河川을 중심으로 草地에 산개하였는데 이때 전령 鄭英一 상병이 敵의 접근을 信號하였다. 이에 소대는 草地와 논두렁에 얼드린 채 5~6명으로 보이는 VC의 거동을 살피는데 그들은 잡담을 하면서 潛伏地의 중앙을 가로질러 兵士들의 머리맡을 통과하는데도 기도를 비닉하기 위하여 接觸을 회피한 연후에 背後로부터 接近하는 敵에 대비하여 제 3분대를 제 503번도로 방향에 散開하고 중대의 攻擊신호를 기다렸다.

24.00에 제 2, 제 3 兩소대의 침투를 확인한 중대장은 제 1, 화기 兩소대와 포병관측반(장, 張호경 중위) 및 배속된 공병 1개 분대를 지휘하여 Song Lu Siem Giang(江)으로 뛰어들었다. 중대는 Vinh Kien(2) 方向으로도 공격할 수 있으나 2월 4일(D ÷ 12) 제 3 소대가 그들의 配置상황을 探知한 결과 여기에는 警戒가 森嚴한 것으로 추단되었다. 그러나 江물을 따라 간다면 所在의 敵이 설마 물속으로 我軍이 接近하리라고 豫想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經路도 앞에는 Vinh Kien 마을이 있고 背面에는 △109(敵 1개 소대 파견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으나 많은 병력을 夜間에 4km 거리를 行進하여 目標의 三面을 포위하려면 이러한 手段 밖에는 다른 方策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採擇하게 된 것이다.

이윽고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江의 흐름을 이용하여 3시간동안 前進한 중대는 Vinh Kien을 지나 Vinh Thanh(1) 北쪽에 도착하였다. 이곳의 地形은 左側의 △190 방향이 모래 사장이고 右側의 目標쪽은 兪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여기를 올라가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언덕 위에서 VC 1명이 두터번거리는 것을 目擊하게되자 全隊員은 버렁에 몸을 감

추고 화기소대장 元興太 중위가 單身으로 急경사를 기어올라 敵의 초소를 우회하여 背後로 接近하자 마자 그者の 급소를 強打하고 태권도의 打力으로 내려 적으니 悲鳴도 없이 사망은 寂寞 그대로였다.

04. 10에 중대장 龍대위는 화기소대의 1개분대(장, 崔泰夏 하사)를 Hoa Hiep(4) 江邊까지 침투시키려 하였으나 敵의 잠복초소가 있으므로 이를 보류하고 現경사지를 공격개시선으로 선정하여 이로부터 Vinh Thanh(1)까지의 江邊과 Muong Cay Da下流에 제1, 화기兩소대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Vinh Thanh(1)—Vinh Thanh(3)—Hoa Hiep(1)은 중대의 三面 포위망 속에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공격준비를 끝마친 중대는 기만 및 擾亂 포격중인 砲兵화력을 目標로 물리기 위하여 交信中, 江의 北쪽 △109의 敵이 비로소 我軍의 침투를 알았음인지 기관총을 亂射하고 또 이에 잡이쥔 目標의 마을로부터도 포격없이 쏘아대는 兇彈이 날아들어 오려 중대(-)가 挾攻을 받는격이 되었다. 이에 중대장 龍대위는 즉시 『우리는 포위되었다. 제척대로 迅速히 공격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背後의 무리는 無視하라, 目標은 오직 눈앞의 마을이다』라고 호명하고 李 憲 병장을 불러 돌격나팔을 불게하니 Vinh Thanh(1)은 一陣狂風에 휘말려 阿屎吡喚속에 수라장이 되었다. 즉 제1, 화기兩소대가 중대의 돌격나팔에 맞추



突擊하는 제9중대 병사들

어 함성을 지르고 총격을 가하자 敵은 당황한 나머지 여기저기서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이러한 敵의 彈光을 포착한 제 2소대가 그들의 위치를 확인하자 즉시 그 背後로 突進하였으니 그들은 四散分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제 2소대는 攻擊에 가담하되 제 3소대는 그들의 退路를 차단하고 潰退하는 敵을 擊滅키로 하였는데 退散하던 一隊이 血路를 뚫기 위하여 제 3소대 方向으로 모여들어 集中돌파를 꾀하므로 該소대는 즉시 공격으로 轉換하여 이들을 掩襲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我軍의 砲火가 소대 前面에 떨어지므로 중대장은 곧 포병관측장교 張중위에게 포격을 조명으로 바꾸게 하고 中隊대로 하여금 돌격에 가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때 目標의 左側으로부터 1개분대 규모가 소총을 亂射하면서 退却하다가 다시 銃擊을 가하면서 저항하는척하는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중대장은 곧 「이놈들이 逃路戰術을 사용하는구나」라고 직감하고 반대방향에 敵의 주력이 있을 것이라고 看破하는 즉시 새로 공격에 加擔한 제 3소대로 하여금 Hoa Hiep(1)을 우회하여 그들의 退却방향으로부터 目標를 向해 逆으로 挾擊케 하였다. 이 措置가 奏功하여 敵의 주력은 支離滅盡된 가운데 이면 쪽은 방향을 분별치 못하고 彈霰으로 뛰어늘기도 하였다. 잠시뒤 흩어진 敵의 遺棄屍體를 넘어 포위망을 좁히던 중대장은 소대간의 간격이 협소함을 느끼고 오인사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기소대의 張世鉉 일병에게 북을 두드리게 하여 사격을 통제한 연후에 중대를 2개隊로 再編하고 제 1대는 포위망내를 探索케 하는 一方 제 2대는 外圍에서 예상되는 敵의 逆襲에 대비케 하였다.

한편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2개전투중대를 대기시킨 채 Vinh Thanh의 敵을 欺瞞하기 위하여 Nui Dau Voi에 신발적으로 포격을 가하던중 제 9중대로부터 공격하겠다는 보고와 거의 동시에 총성이 울리고 돌격나팔소리가 들리므로 이는 필시 敵의 선제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推斷하고 즉시 포병 제 60대대의 韓濟龍, 金相賢 兩대위 그리고 同제 628대대 제 3포대 전포대장 李勝男 대위에게 計劃에 의한 포격을 명령하였다. 또 △18에서 대기중인 81mm 소대로는 △109의 敵을 제압케 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장, 宋璇用 대위)를 제 503번도로 삼거리까지 진출시켜 우발사태에 대비케 하였다. 잠시뒤 전투중인 龍대위로부터 『최종목표를 공격한다』라는 報告를 받아 포병화력을 △202와 △344 北端으로 돌려 VC, F-2B대대 이하의 1개중대 규모가 潛據 중인 것으로 확인된 용의지대에 熱火의 集中으로 제압케 하였으며 중화기중대의 기관총소대와 전투지원중대의 106mm 무반동총 제 1반을 제 503번도로에 推進하여 제 9중대의 통제하에 두었다.

1. 제 1소대(장, 金興玉 중위)는 Vinh Thanh(1) 江邊에서 공격준비를 갖추자마자 背後

의 敵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아 곧 이들과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때에 『배후의 敵은 모시하라』는 중대장의 號令을 듣고 Vinh Thanh(3) 東쪽과 Hoa Hiep北쪽 사이로 銳鋒을 돌리는 즉시 突進하였다. 제 2 분대(장, 李宗九 하사)는 Hoa Hiep(1)에 뛰어들었는데 家屋뒤 대피 壕로부터 기관총이 불을 뿜고 방망이 수류탄이 날아들자 분대의 掩護下에 부분대장 柳寬雄 하사가 躍進하여 壕에 접근하는 즉시 수류탄으로 3명을 爆殺하였다. 또 제 3 분대는 退却하는 무리를 추격하여 潰滅하였다. 잠시 뒤에 소대는 目標을 奪取한 다음 중대장의 命令에 따라 △109에 潛伏한 一群의 逆襲을 저지하기 위하여 Song Lu Siem Giong(江)邊으로 轉進하다가 數未詳의 무리가 도하접근하는 것을 目擊하는 즉시 조명을 요청하고 사격을 集中하여 7기를 水葬한 다음 반격할 기미가 보이므로 現地에 잠복하였다.

2. 제 2 소대(장, 孫太浩 소위)는 2회에 걸쳐 敵과 접촉하였으나 계속 기도비닉에 專力하다가 공격이 개시되자 즉시 後衛를 담당한 제 3 분대까지 공격에 加擔시켜 Khanh Loc (2)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Vinh Thanh(3)으로부터 제 1, 화기兩소대를 지향한 敵의 彈火가 보여 그들의 위치를 알게 되자 즉시 나팔을 불게하고 VC들의 側背로 돌진하니 그들의 一部가 뒤로돌아 小河川邊에 준비된 진지에서 저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대장 孫太浩 소위는 제 3 분대장 柳昌根 하사에게 우회하도록 호령하고 간단없는 총격을 계속하다가 該分대가 對峙한 무리들의 側方을 攪亂할 때가 되자 소대의 선두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河川을 도섭하여 敵陣으로 뛰어들자 格鬪끝에 遺棄屍體 4기를 내게하고 개인화기 및 수류탄을 노획하였다. 얼마 뒤에 Vinh Thanh(3)에서 화기소대와 連繫한 소대는 Hoa Hiep(1)을 공격하여 敵의 本據地로 추단되는 곳을 석권한 다음 중대의 북소리에 따라 제 1, 화기兩分대는 포위당 內를, 제 2, 제 3 兩分대는 Phu Cat(山)으로부터 예상되는 그들의 支援에 대비하여 △24와 Khanh Loc(1)을 占領하여 我軍의 포화로 말미암아 分散하는 무리를 捕捉 격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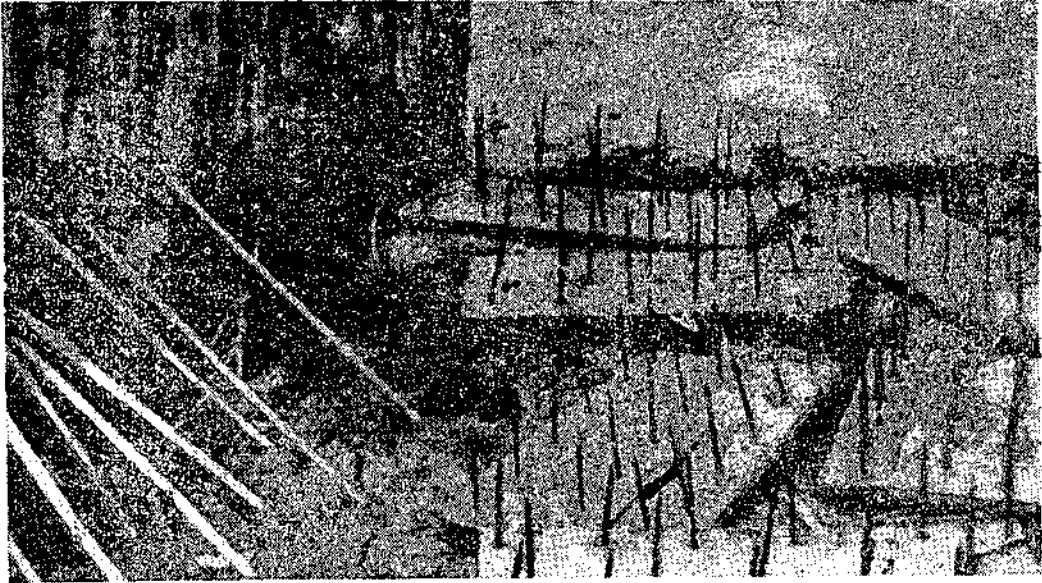
3. 제 3 소대(장, 申正雄 소위)는 敵의 退路차단임무를 부여받고 제 503번도로와 Hoa Hiep (1) 南쪽에 潛伏하여 目標로부터 退却하는 무리들을 擊滅하던중 갑자기 雜木叢으로부터 1개소대 규모로 추단되는 一群이 화기분대(장, 林慶澤 하사)의 차단障地를 突破 코자하므로 소대장은 곧 제 1 분대(장, 李海雄 하사)를 우회 挾擊케 하였으나 敵은 窮餘之策인듯이 화기 분대만을 攻擊하였다. 이에 申正雄 소위는 池橋男 상병에게 돌격나팔을 불게하고 『최선의 방어는 攻撃이다. 전원 突擊하라』고 호령한 바 池橋男 등은 敵과 100尺의 거리로 육박하여 熾烈한 근접전을 벌였으니 突破口를 찾던 무리들은 하나 둘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소대는 好機를 놓칠세라 이들을 追擊하여 유기시체 5기를 남기게하고 소총과 수류탄 등을 노획하였

는데 이때 소대의 前方 100餘m에 我軍의 포화가 炸裂하므로 즉시 이를 보고하였다. 暫時 뒤 50만촉광의 照明이 비치면서 『소대는 Hoa Hiep 南東쪽으로 우회하여 目標를 向하여 逆으로 돌진하면서 退却하는 무리를 포위당내로 몰아라』는 중대장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대장 申소위는 右一線에 제 1분대, 中央에 제 3분대 그리고 左一線에 제 2, 화기兩분대를 전개하여 包圍網을 압축하다가 중대의 사격통제가 있을때까지는 또 다시 2명을 사살하고 3명을 捕虜로 잡았다. 黎明이 가까울 무렵에 소대는 중대의 露出된 側方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 1, 제 3兩분대를 제 503번도로 嶺 丘陵에 잠복시켜 退走하는 무리들을 계압하면서 새로이 배속된 제 12중대의 기관총 2개 반으로 하여금 Phu Cat山 일대로부터 增援하려는 敵을 차단케 하였다.

4. 화기소대(장, 元興太중위)는 침투초에 소총소대와 같은 형태로 編組하여 중대장의 지휘하에 있다가 攻擊이 개시되자 Vinh Thanh(3) 西쪽을 佔領하고 계속 Hoa Hiep 方向으로 전진중 견고하게 構築된 진지에 潛伏하여 抵抗하는 一群과 衝突하였다. 그러나 右側에서 나타난 제 2소대가 그들의 側方을 공격하자 즉시 喊聲을 지르면서 敵陣에 뛰어들어 左衝右突 닥치는대로 撲殺하는 가운데 제 2포사수 林在明 상병은 樹影에 덮인 壕에 뛰어들어 저항하는 VC 2명과 백병전을 전개하여 一閃에 刺殺하는가 하면 탄약수 朴正男 일병은 敵이 던진 수류탄을 되받아 던져 공중 爆發시킴으로써 一瞬間에 3명을 사살하였으며 또 발발 壕에 潛伏한 VC이 총을 쏘려볼도 없이 달려 刺殺하였는데 이때 다른 VC이 朴일병에게 銃口를 겨냥하는 순간 소대장의 총탄이 兇徒의 腹部를 관통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잠시 뒤 제 2소대와 함께 포위망을 좁히던 소대는 제 1소대가 敵의 逆襲을 지지하기 위하여 빠져나가자 전투정면을 넓혀서 目標內的 敵을 驅逐한 다음 退却하는 무리들을 追擊하여 제 3소대와 挾攻끝에 또다시 5명을 사살하였다.

黎明에 중대는 再編에 들어갔다. 제 1소대는 江邊을 담당하여 △109의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제 2소대는 △344 방향을 그리고 제 3소대는 △202 東쪽과 Hoa Hiep湖水 방향을 각각 警戒하였으며 중대본부(배속부대포함)와 화기소대는 Vinh Thanh과 Hoa Hiep을 占領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대는 水葬하거나 砲火에 의하여 사살된 屍體를 제외하고도 遺棄屍體 37具를 現認하고 6명을 捕虜로 하였으며 M1 및 CAR소총 9정과 기관총 1정 및 수류탄과 소총실탄 若干을 노획하였으나 5명의 병사가 重輕傷을 입는 손실이 있었다.

曙光이 빛날때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Phu Cat군수 Loc 대위와 關係참모를 대동하고 交戰지역에 도착하자 畝지역을 돌아본 다음 의무지대장에게 대민진료소를 설치케 하고 工兵중대



공병대가 제거한 敵의 障礙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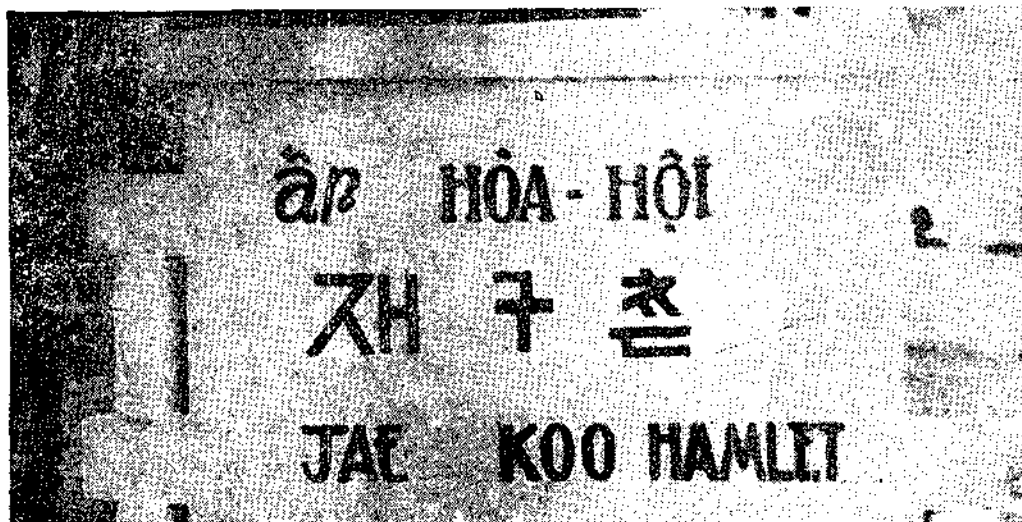
장에게 該지역의 모든 障礙物을 제거토록 지시하였으며 곧이어 제 9중대를 복귀시키고 연대수색중대의 2개소대를 투입하여 경계토록 하였다. 15.00에 대대 전술지휘소에는 국회 국방위원장 閔丙權의원 일행이 來訪하여 현황을 청취하였다. 17.00에는 Phu Cat군수 Loc 대위가 다시 訪問하여 이르되 「5일 Binh Dinh省에 상신한 在求村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다음날 현관식을 갖고자 하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여기서 잠시 「Vinh Thanh 전투」에 관련된 사항을 記述한다. 이 전투를 끝마친 2년 뒤인 1968년 6월 自由中國 蔣介石 총통은 越南戰에서 韓國軍이 美軍보다도 더 잘 싸우는데, 이것은 美전술교리 보다도 韓國軍의 독자적인 전술이 奏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시 崔榮翕 국방부장관에게 越南戰에 대한 韓國교수단의 과전을 要請하였다. 이에 崔榮翕 장관은 파월 韓國軍 초대참모장을 역임한 崔泳龜 준장(당시)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교수단을 派遣하여 派遣한바 교수단은 同년 7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27일동안 Tai Pei-Kao Hsiung-金門島등 주요 5개군사지역을 돌면서 自由中國의 장성을 포함한 주요간부들에게 越南戰에서 국위를 宣揚한 주요작전 몇가지의 例를들어 전술강의를 하였는데 이중에는 教授 朴慶錫 대령(당시)의 「Vinh Thanh 야간기습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강의를 받은 自由中國의 주요간부들은 非正規戰에 있어서 韓國軍의 전술이 훌륭하다고 異口同聲으로 입을 모았다고

한다.)

한편 Vinh Thanh전투가 끝나자 연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그 뜻이 『An Nhon南쪽 Say橋와 鐵橋의 경계를 담당한 越南 제22사단 예하 1개중대가 번번히 VC의 奇襲을 받아 「White wing작전」지역으로 運送되는 보급품이 強奪되고 장비가 破壞되는等 사고가 연이으니 대대는 여기까지를 인수하라』는 것이므로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즉시 비교적 接敵이 적은 제 7중대 (장, 姜君吉 대위)를 여기에 投入키로 결정하고 出動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該중대장 姜대위는 美軍 (Phu Cat비행장 경계부대)에게 그 前方 제 1번公路(4km)를 인계하고 An Nhon南쪽 1km떨어진 Say橋로 移動하자 중대진지를 편성하고 제 3소대를 鐵橋주변에 보내 埋伏케 하였다.

2월 18일~20일 04.00(D+26~D+28) : 대대장은 Vinh Long 일대와 전날 收復한 Vinh Thanh에 工兵 1개소대씩을 각각 파견하여 家屋과 道路를 改修케하고 △18에 있는 중화기 중대의 81mm 박격포소대를 복귀시킨 다음 在求村에 들어가니. 여기에는 該村民 303세대 1,328명과 Phu Cat군수를 비롯한 수복지역 住民 15,000餘名이 모여 懸板式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재구촌의 초대村長에는 Vohep(43세)이 선출되고 명예 村長으로 정보장교 權準澤대위가 推戴되었으며 대대장이 도착하자 곧 韓國語로 쓴 “재구촌”의 懸板式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대는 數日前부터 건립한 2개教室이 준비된 학교를 주민들에게 양도하였다. 군수 Loc 대위는 곧 Tu(男 38歲)와 Ngyuen(女 19歲), 두 先生을 초빙하여 총 76명의 학생



“재구촌”懸板

이 참가한 가운데 開校式을 거행하였다. 式이 끝나자 대대장은 Phu Cat 군수와 同區의 美고문관 Demio 소령과 함께 전달수복한 6개 마을에 나가 이를 인계하였다. 이에 군수 Loc 대위는 避難民들을 이 지역으로 移住시켜 살게 하였으나 在求村에는 이미 入住한 世帯가 너무 많아 이를 제한하였다.

이날밤, 군수 Loc 대위가 대대 전술지휘소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民兵隊의 전투력이 강한 관계로 만일 韓國軍이 작전을 끝마치고 복귀하면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越南 제41 연대가 있으나 이들로서는 수복지역의 警戒가 어려울 것 같으니 가능하면 민병대 1개중대 規模를 대대장이 맡아 교육훈련 및 偵察 그리고 在求대대 전투원의 一部로 작전에 까지 참가시켜 달라고 要請하였다. 대대장은 戰鬥中 1개중대 병력을 教育시킨다는 것은 困難하니 2개소대 규모로 축소하여 수락하고 다음날 새벽에 이들을 배속반자 곧 제10중대에 보내 該중대장과 작전장교 李重衡 대위의 통제하에 훈련과 埋伏에 참가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10.00에 재구촌장 Vohep이 대대장교들을 초청하였는데 宴會가 끝날 무렵 村長이 Phu My郡 Chi Hoa에서 귀순한 農民을 불러 진술케 한 바 그는 이르기를 「秋收한 식량의 40%를 세금으로 받쳐야하고 每月 10일간씩 진지공사등 많은 雜役に 종사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Chi Hoa와 Van Phuoc에는 200여명 이상의 VC들이 있고 이들은 매일 한차례씩 Vinh Nuoc Ngot灣에 나가 고기와 해초, 소금등을 운반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즉시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와 An Trinh(2)에 기지를 둔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를 불러 이르되 「Chi Hoa의 敵은 每日 제1번公路를 통과하고 있다. Song Lu Siem Giang(江)의 北쪽은 제11중대가, 그 南쪽은 제9중대가 담당하여 거동이 수상한 者는 모두 逮捕하라」고 명령하고 귀순한 사람을 厚하게 대접한 다음 이를 제11중대에 보내 수상한者를 逮捕하면 VC과 良民을 가려달라고 부탁하니 그도 역시 쾌히 승낙할 뿐만 아니라 Chi Hoa內의 가족을 귀순시키겠다고 自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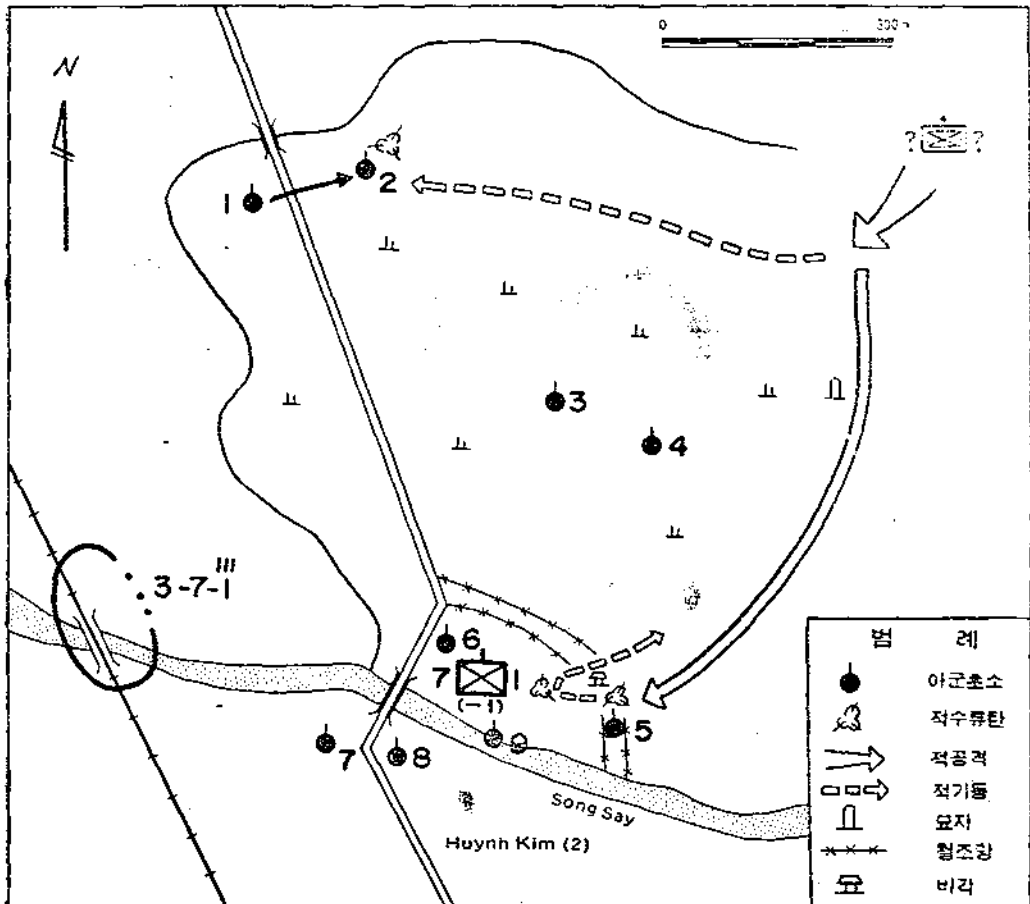
### Say橋 被襲

한편 17일날 An Nhon으로 移動한 제7중대는 Say橋를 南西쪽으로 인접하여 駐屯진지(야전용천막)를 설치하고 기지주변에 철조망을 가설한 다음 北쪽 500m 떨어진 河川의 橋梁으로부터 Say橋 南쪽까지에 外廓초소 5개소와 자체경계초소 4개소를 운용하고 鐵橋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3소대를 여기에 파견하였다. 19일 17.00에 중대(-)는 통상적인 警戒兵운용에 의거 2명 1개조씩 외곽경계초소 5개소에 배치하고 近間에 VC의 潛動이 없음을 감안하여 1명 假眠, 1명 근무제를 兼용하였다. 이에 따라 제2외곽 경계초소에서는 초번 嚴大一상병이 24.00까지 보초를 서고 假眠에 들어갔으며 후번 제1소대 제2분대장 鄭志勇하



사가 이를 인수하였는데 이때는 四方이 어둡고 寂寥에 쌓인터라 自身도 모르게 소총에 물을 의지한채 졸았으니 3명의 VC이 Liem Truc東쪽 郡界로부터 潛入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咫尺의 거리에 다가선 VC은 수류탄을 投擲하였으며 늦게야 그들을 捕捉한 鄭하사는 소총을 잡았으나 순간 수류탄의 爆發로 全身에 破片傷을 입었다. 한편 2m 떨어진 交通壕에서 假眠하던 嚴大-상병은 爆音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뛰쳐나가 河川 들속으로 뛰어들었는데 20m떨어진 곳에서 鄭하사가 VC들에게 둘러 쌓인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에 嚴상병은 즉시 사격을 加하였으나 끝이 VC의 방망이 수류탄이 날아들므로 河川의 뚝을 타고 제 1번公路로 避하고 말았다. 한편 제 1경계초소에서는 갑작스런 爆音이

狀況圖 제40호 Say橋 被襲



들리자 「敵의 奇襲이구나」라고 직감한 자동소총사수 韓相基상병은 李二男일병을 이끌고 제 1번公路를 뛰어넘은 즉시 제 2경계초소를 습격한 VC에게 攻擊을 決行하자 敵은 重傷을 입은 분대장 鄭하사를 개울에 빠뜨리고는 서둘러 退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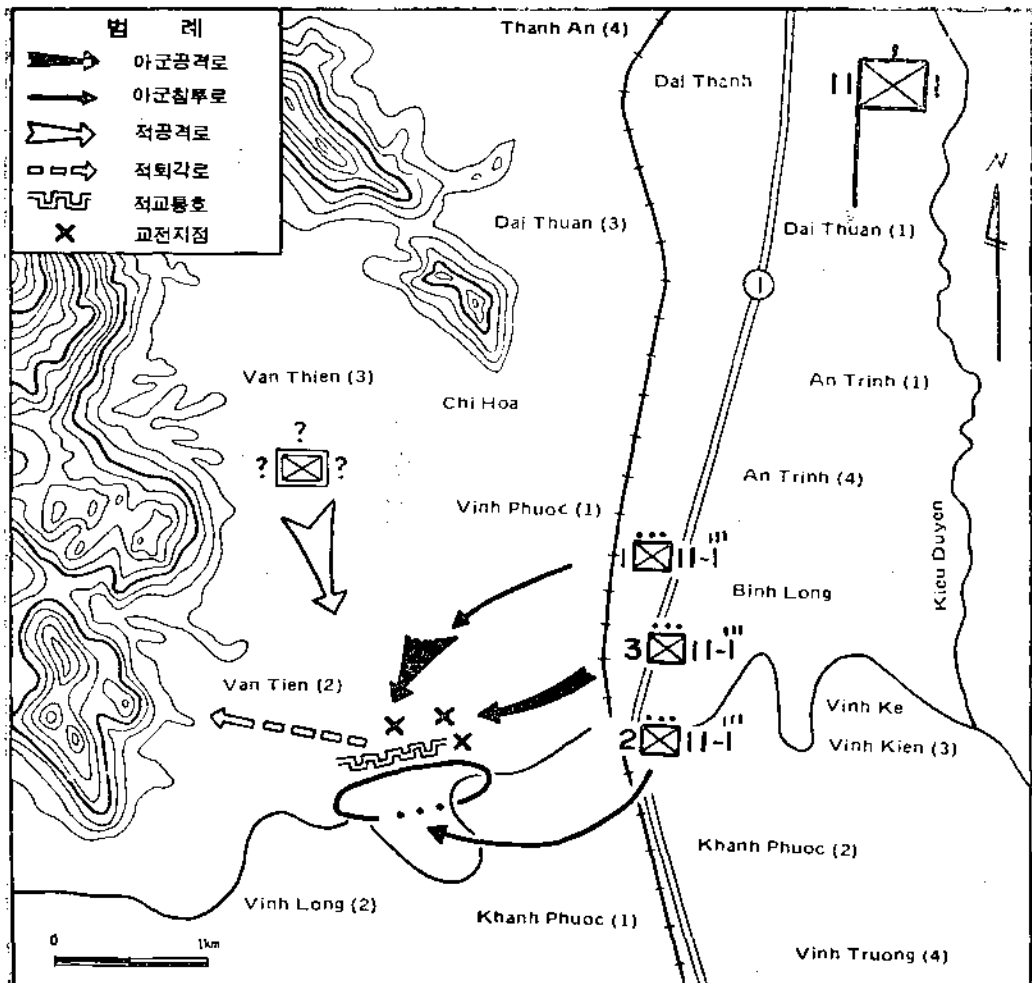
그러나 VC이 目標로 한것은 제 2번경계초소가 아니고 중대 基地였다. 즉 數未詳의 敵에게 제 2번경계초소의 爆破소리를 이용하여 중대기지 東쪽 제 5경계초소 방향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該초소에 수류탄 3발을 집중 폭발시켜 警戒兵의 기선을 制壓한 뒤, 제 2철조망 옆 寺堂에까지 침투하여 중대陣地에 10여발의 수류탄을 亂投하였다. 그러나 최초 爆音에 비상을 진 중대장 李君吉 대위는 射擊을 통제하고 비상대기조를 직접 지휘하여 寺堂으로 直衝하자 侵入한 敵은 10분도 지탱치 못하고 분산 퇴주하였다.

2월 20일 04.00~24일(D+28~D+32): 제 9중대는 제 1번橋梁과 鐵橋로부터 Chan An 橋梁까지 차단기를 내리고 동행자들을 검색하였으며, 제 11중대는 △18로부터 Suoi Dap Bau까지에 제 1소대를, 그로부터 △14사이에 제 2소대를 잠복시켰는데 다음날 23.00에 河川의 뚝을 따라 Dap Bau橋梁 밑으로 潛行하는 7~8명의 怪漢을 목격하였다. 이에 제 1소대장 朴光奎 소위는 즉시 1개분대로 河川의 제방을 차단하고 불심검문 하는데 이들은 갑자기 수류탄을 던지면서 도주하므로 사격을 加하여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捕虜로하여 중대로 押送하는 한편 인접 제 2소대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該소대장 權宇憲 소위는 2개분대를 道路경계에 남기고 나머지 2개분대를 직접 지휘하여 潰走하는 무리를 追擊하였으나 Vinh Phuoc(1)에서부터 그들의 행방이 杳然하였다. 그러나 權소위는 「날이 밝기전에 다시나타날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현지에 埋伏하였는데, 이때 중대에서는 捕虜를 審問한 결과 그자가 陳述하기를 「Chi Hoa와 Vinh Phuoc 및 Van Phuoc에는 數年동안 지방 VC 1개대대(-)규모가 潛據하고 있었는데 며칠 前에 美軍의 작전으로 말미암아 Bong Son에서 退却한 정규 VC 1개대대가 합류하였다. △188의 와지선 일대에는 그들의 통신시설, 보급소, 훈련장등이 있고 竹林속의 야전치료소에는 간호원 8명이 30여명의 부상한 VC을 치료하고 있다. 본인은 VC 제3110B 보급소대 소속이며 소대의 규모는 30명인데 夜間에 제 1번도로를 넘어 海岸에 가서 동조자들로부터 海産物을 받아 운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곧 이들을 격멸키 위하여서는 먼저 그들의 전투력과 位置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내다보고 鐵路에서 제일 가까운 Vinh Phuoc(1)을 目標로 선정하여 전투정찰을 敢行키로 결심하고 대대에 報告하여 승인을 얻은 즉시 각소대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하달하였다. 『제 1소대는 화기대대에 도로경계 임무를 인계하는 즉시 Vinh Phuoc(1)과 Vinh Phuoc(2) 사이로 침투하여 下向공격을 하고 제 2소대는 現장복지에

서 Vinh Phuoc(1)의 南쪽을 차단하다가 闖入할 것이며, 제 3소대는 鐵道邊에서 대기하다가 攻擊해서 信號와 함께 目標로 突進하라.』

이리하여 未明에 침투를 完了한 중대는 拂曉를 기다려 돌격나팔을 불고 계획한대로 目標에 突進하였는데, VC들도 역시 전날밤 退走한 무리들의 보고를 받았음인지 마을 주변의 交通線에 監視하여 제 3소대를 맞아 熾烈한 총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제 1소대는 공격방향의 背後가 Van Phuoc(2), 즉 그들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라하여 放心하였는지 저항하는 氣가 없으므로 目標를 向하여 그대로 밀고 들어갔다. 이로 말미암아 30여명의 VC은 그들의 增援隊로 誤判하였다가 갑자기 闖入하는 我軍의 기세에 놀려 潰走하는者가 속출하게 되니 好

狀況圖 제41호 제11중대 戰鬥



機를 포착한 제 3소대가 그들의 陣地로 直衝하고 또 제 2소대장 權宇憲 소위 역시 공격으로 轉換하여 秦帳錄 하사 이하 8명을 이끌고 敵의 中央部를 돌파하니 VC들은 이미 무너진 진지의 固守가 곤란함을 깨달았는지 退走하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제 2소대의 추격을 중단시키고 敵의 증원대가 밀려들 것이라 豫測한 나머지 제 1, 제 3 兩소대를 Vinh Phuoc(2)와 Van Phuoc(2) 방향으로 돌려 경계케 하고 화기소대를 鐵路邊까지 진출시켜 掩護토록 한 다음 확인한 결과 遺棄屍體가 10具를 헤아리고 개인화기 1정과 수류탄 8발을 노획하였다. 또 제 2소대가 壕속에 숨어있는 VC용의자 32명을 체포하여 押送하였는데 이때 Van Phuoc(2)로부터 2개중대 規模의 敵이 제 3소대 方向으로 밀려든다는 報告를 接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은 곧 제 1소대의 掩護下에 제 3소대를 복귀시키고 또 제 2소대의 엄호하에 제 1소대를 뽑아내는等 속차적으로 撤收하는 한편 화기소대의 60mm 박격포와 57mm 무반동총으로 前方에 차단사격을 集中케 하였다. 때마침 전투지원중대의 106mm 무반동총 제 1반이 鐵路邊에 도착하자 小路를 따라 추격하는 敵의 銳鋒에 철화를 퍼붓도록 하니 그들은 反擊을 단념한 듯 하였다. 이윽고 중대는 기지에 돌아가자 용의자 32명을 대대에 압송하였다.

한편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11중대의 전투상황을 보고받고 용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다음 현지를 航空촬영하였는데 그 結果 Chi Hoa와 Van Phuoc은 거미줄 모양의 교통호로 둘러싸인 하나의 要塞化地域이 되어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該지역에 敵이 도사리고 있는 限병참선의 安全은 기대할 수 없다. 대대는 다시금 제 2차 夜間 기습전으로 그들을 擊滅하리라』고 결심하자 곧 판계참모들과 제11중대장을 불러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諜報와 제11중대의 전투정찰 결과 및 該지역으로부터 새로 귀순한 주민 3명의 진술을 참고로 하여 攻擊계획을 착수하였으며 제11중대로 하여금 1개 특공偵察隊를 조직하여 그들의 본거지를 強打할 수 있는 進入路를 探知케 하였다.

22일, 특공정찰대장 申 丁 중위가 『敵陣의 東西 兩쪽은 2重으로 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여기를 突破하기란 힘들 것으로 여겨지나 Chi Hoa北쪽 △125와 Suoi Dap Bau西쪽 支流는 放心한 탄인지 비교적 防備가 허술하다』라고 보고하자 대대장은 다시금 작전회의를 열어서 말하기를 『Vinh Thanh전투』와 전투정찰은 큰 성과를 보았다. 이번 Chi Hoa의 敵도 비록 그 규모가 대대(-)일 망정 야간에 1개중대로서 기습을 敢行코자 한다』라고 복안을 제시하고 이어서 要旨 다음과 같은 대대의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1. 대대는 1개중대를 夜間에 투입하여 Chi Hoa일대의 敵을 擊滅코자 한다.

## 2. 제11중대

가. 중대는 夜間에 침투하여 目標을 四周에서 포위하고 所在의 敵을 驅逐하라.

나. 제12중대의 81mm 박격포소대와 기관총소대를 배속한다.

3. 제 9 중대와 연대수색중대는 의명 출동準備를 갖추라.

4. 포병제60대대 제 3 포대와 同제628대대 제33포대는 제11중대를 직접 지원하라.

5. 칠투중 敵과 조우하면 즉각 조명하에 2개중대를 추가투입하여 대대전투로 전환한다.

6. 침투개시 시간은 26일 23.00이다.』

한편 23일밤 대대전술 지휘소를 경계중인 제12중대(장, 方瑞男 대위)는 Vinh Long 수복지역 南西쪽 道路邊에 1개소대 규모의 VC이 출몰하여 수복지역의 擾亂을 꾀하고 있다는 諜報를 주단들로부터 入手하자 즉시 기관총소대를 출동시켜 Tan Hoa(2) 入口소로邊에 제 1 반을, 道路건너 潤濁된 湖水에 제 2 반을 埋伏케 하였다. 04.30에 제 1 반장 郭正鉉하사는 Hiep Long(3) 方向으로부터 農路로 접근하는 一群의 그림자를 捕捉하자 살상지대에 들어서기를 기다려 斜射와 側射를 集中하였던 바, 그들의 一部는 潰走하고 나머지는 얼드린 채 抵抗하였는데 그중에서도 戰列을 수습하려는 者가 있자 郭하사는 병사 1명과 함께 포복으로 접근하자 마자 곧 덮쳐 捕虜로 하니 지휘자를 잃은 敵은 鳥合之卒이 되어 逃走하였다. 소대는 여기에서 VC소대장을 捕虜로 하고 遺棄屍體 3具를 現認하였으며 USSR製 권총과 수류탄 9발을 노획하고 黎明에 복귀하였으나 실사이드 없이 Chi Hoa에 出動한 준비를 서둘렀다.

2월 25일(D+33): 맑은 날씨에 가끔 구름이 끼었고 氣溫은 29°C까지 올랐다.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Chi Hoa 전투에 참가할 배속부대를 제11중대기지에 보내고 연대수색중대를 Song Lu Siem Giong(江)邊 갈대숲과 그 윗마을 교회당에 分散 대기케 하였으며 전투지원중대 4.2"중박격포 소대를 △18과 Vinh Long사이에 두어 제11중대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원케 하였다.

가. 제10중대는 △38로부터 기지내로 潛行하는 5~6명의 VC을 誘引하여 2개소대가 동시에 사격을 집중하니 그들 역시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살아서 潰走하는 者는 2명에 불과하였는데 이 交戰에는 배속된 Phu Cat郡 민병대도 참가하였다.

나. 제 7 중대는 Say橋에서 “부비트랩”을 매설하고 있는 VC 2명에 충격을 加하여 사살하고 수류탄 “부비트랩” 4발을 노획하였다.

## Chi Hoa 戰鬪

공격계획을 완성한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이를 대대에 보고한 다음 각소대장 및 배속대에 하달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중대는 夜間에 침투하여 Chi Hoa 일대를 包圍한 다음 일제히 奇襲을 執行하여 지대내의 敵을 殲滅코자 한다.

2. 제12중대의 기관총소대와 박격포소대가 배속된다.

3. 제 1, 제 2 兩소대는 本官이 직접 지휘하여 目標의 北쪽과 西쪽에 침투한다.

4. 제 3, 화기 兩소대는 目標의 東쪽과 西쪽을 차단 잠복하다가 별도 명령에 의거 공격에 加擔하라.

5. 기관총소대는 최초 화기소대의 後方에 위치하여 이를 지원하다가 상황의 進退에 따라 Van Phuoc (1)로 移動하여 北쪽으로부터 접근하는 敵의 예상 증원부대를 차단하라.

6. 81mm 박격포소대는  $\Delta 18$ 에서 중대를 支援하다가 目標가 奪取되면 Vinh Phuoc 국민학교로 이동하여 Nui Van Thien ( $\Delta 29$ )로 接近하는 敵의 증원부대를 火力으로 제압하라.

7. 目標에 대한 포병사격은 공격개시 직후부터 실시하여 포위망이 좁혀지면 곧  $\Delta 125$ 와  $\Delta 188$ 로 사격을 延伸하여 예상되는 敵의 增援부대를 제압한다.

8. 공격개시시간: 아침 海上 薄明初(BMNT)

9. 중대장은 제 1, 제 2 兩소대 중간에 위치한다.]

· 攻擊목표는 Chi Hoa를 중심으로 四方 1km의 넓은 곳으로서 그 西쪽은 Phu Cat과 Phu My郡의 境界가 되는 Nui Van Thien ( $\Delta 220$ )이 南北으로 뻗어있고, 北쪽으로 800m지역에는  $\Delta 188$ 를 中心으로 크고 작은 봉우리가 東西로 뻗었는가하면 그 中間에는  $\Delta 125$ 가 Chi Hoa를 睥睨한다. 그러나 目標의 東쪽과 南쪽은 넓은 개활지와 물이 가득찬 논으로 연결되어 있고 Chi Hoa—Van Phuoc(2)—Vinh Phuoc(1) 등의 마을은 야자수와 巨木에 쌓여 있으며 이 지역은 VC의 治下에 들어간지가 오래인지라 마을 周圍는 온통 交通호로 방어진지가 構築되어 있다.

2월 26일~27일(D+34~D+35): 대대장은 Chi Hoa의 공격을 欺瞞하기 위하여 제 9중대 1개소대로 하여금 「Vinh Thanh전투」當時 我軍의 배후를 급습한  $\Delta 109$ 의 敵을 공격하는 것처럼 假裝시켜 Suoi Kien Duyen(河)邊에서 함성을 지르며 총탄을 퍼붓게하는 동시에 Binh Long (Phu My군)에 추진한 4.2"박격포와 105mm 곡사포 2문으로 하여금  $\Delta 162$ 와  $\Delta 109$ 에 제압포격을 集中케하였는데 이때에 재구춘장 Vohep이 주민 8명과 함께 찾아와 그들에게 투항할 기회를 달라고 哀願하므로 대대장은 이를 허락하고 포격을 中止시키는 반면에 그들을 Siem Giang江邊에 보냈다. 이에 그들은 확성기로서 投降할 것을 懇懇하니 잠시 뒤에 高地로부터 달려오는 2명의 귀순자가 있자 대대장은 곧 이를 掩護케 하여 맞아들였는데 이들의 陳述에 의하면 「 $\Delta 188$ 에 새로이 등장한 정규 VC의 1개중대 규모가 고립된  $\Delta 109$ 의 VC를 支援하기 위하여 北쪽 "7"字形 산줄기의  $\Delta 150$  南쪽 봉우리까지 접근하여 潛伏中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곧 이를 이용키로 결심하고 제11중대가 出動하기를 기다려 4.2"중박격포소대

(장, 林靑鶴 중위)로 하여금 △150 南쪽 2개의 봉우리에 포격을 集中케 하였다. 그런데 이는 제11중대의 침투를 欺瞞하는 한편 그곳에 潛伏한 무리들을 制壓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2.00에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자 화기소대장을 불러 Van Phuoc (2)의 東쪽에서 鐵路와 나란히 散開하여 潛伏하라고 지시한 다음 3개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目標지역의 南쪽을 우회하자 곧 제 3소대를 北上시켜 Vinh Phuoc(1) 南쪽 △24의 左右능선을 차단케 하였다. 그런 다음 계속 시계방향으로 우회하여 Nui Van Thien(山) 東端과 小河川 사이에 다다르자 제 1, 제 2 兩소대장을 불러 다시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 1소대는 東쪽으로 침투하여 거기에 있는 마을 Vinh CPhuoc (2)에 접근하였다가 공격이 개시되면 신속히 마을을 점령하고 제 2소대를 支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제 2소대는 여기에서 200m정도 北上하였다가 다시 右로 90°꺾어 東쪽으로 전진한 다음 △125와 항공사진에 나타난 제 2선교통로 사이로 침투한 뒤 거기에서 대기하라. 공격개시 시간은 아침 海上薄明初(BMNT)이다. 긴급상황이 전개되면 소대장의 재량으로 지체없이 공격하고 무전기는 상황개시와 동시에 개방하라.』

아직도 침투지역을 기만하기 위한 “7”字形 山 능선에는 砲彈이 계속 집중되고 있으므로 포성의 메아리속에서 중대의 침투행동은 敵에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1. 제 1소대장 朴光奎 소위는 마을뒤 숲으로된 울타리 밑까지 침투하여 潛伏하였는데 이때 내부의 VC이 호각을 불고 불을피워 흔들므로 소대장은 我軍의 기도가 綻露된것이 아닌 가하여 突擊을 호령하려 하였으나 곧이어 뒷쪽 山으로부터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들간의 이상유무 신호라고 직감하고 다시 黎明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직 未明인데도 불구하고 제 2소대 方向에서 銃소리와 함께 賊聲이 들리므로 朴소위는 즉시 돌격을 호령하면서 Vinh Ppuoc(2)를 덮쳐 마을을 순식간에 掌中에 넣자 그 餘勢를 몰아 Chi Hoa로 突進하였다. 이윽고 제 2소대의 交戰地에 육박하는 즉시 “로켓트”프로 該소대와 맞서는 敵의 側背를 强打하여 이들을 擊退한 다음 다시 退走하는 무리들의 꼬리를 불고 추격하여 Chi Hoa를 점령하는 즉시 방향을 바꾸어 Van Phuoc(2)로 뛰어들어 左衝右突 닥치는대로 撲殺하였다.

2. 제 2소대(장, 權 憲 소위)는 Van Thin(3)을 우회하여 Dap Bau溪谷에서 東쪽의 △125 南端으로 침투하였는데 이때 該고지에서 下山하는 VC 2명을 대검으로 刺殺하고 곧 敵의 제 2교통호 入口에 산개하였다. 그런데 제 3분대장이 交通壕에는 VC이 없다고 보고하므로 소대장 權소위는 여기를 基點으로 공격할 것을 결심하고 傘대원을 敵의 제 2교통호에 투입

하여 四周를 경계하면서 공격개시 시간을 기다렸다. 별빛이 흐려지면서 溪谷으로부터 안개가 덮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소대는 제 1선교동호로부터 접근하는 VC 1개분대 규모와 接觸을 避할 수 없게 되어 공격개시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難點한 處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지체없이 1발의 수류탄을 던지니 이를 신호로한 소대는 眼下의 VC을 擊殺하고 敵의 제 1선교동호에 덮쳐 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방어선은 修羅場이 되고 敵屍가 擦를 메었는데 이때 제 1분대(장, 金英泰 하사) 正面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즉 激戰場에서 退却한 무리가 CAR 50중기관총을 중심으로 戰列을 재편하여 필사적으로 抵抗한 까닭에 병사 2명이 부상한 채 一進一退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右側에서 제 1분대의 苦戰을 목격한 제 2분대장 秦帳錄 하사가 대원을 이끌고 이를 赴援하였는데 敵의 火力이 우세하여 鐵雨속을 돌진하던 金鍾培 일명이 兇彈에 쓰러지고 이를 救出코자 뛰어나간 魯次植 일명마저 碧血을 뿌리는 바 되었다. 한편 이러한 情景을 본 秦하사는 鐵彈의 소낙비속을 뚫고 敵陣에 뛰어들고 이에 磨接하 대원들이 銃劍을 휘두르면서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소대장이 이끄는 제 3분대가 그들의 左側背에서 奮戰하고 제 1분대 역시 호기를 놓칠세라 敵陣에 뛰어 들었으니 斷末魔의 비명과 처절한 絕叫가 서로 交々하는 가운데 敵의 屍體가 累積되어 갔다. 이리하여 소대는 그들의 제 1방어선을 무너뜨리자 곧 Chi Hoa로 突進하면서 『敵의 제 1선 점령, Chi Hoa로 돌격중』이라고 보고한 다음 該마을의 北쪽을 突破하였다. 그런데 여기가 그들의 지휘부인듯 “로켓”포로 장비한 그들의 저항 또한 頑強하였으나 중대 主力의 赴援으로 서로 挾擊끝에 이를 擊滅하고 目標을 석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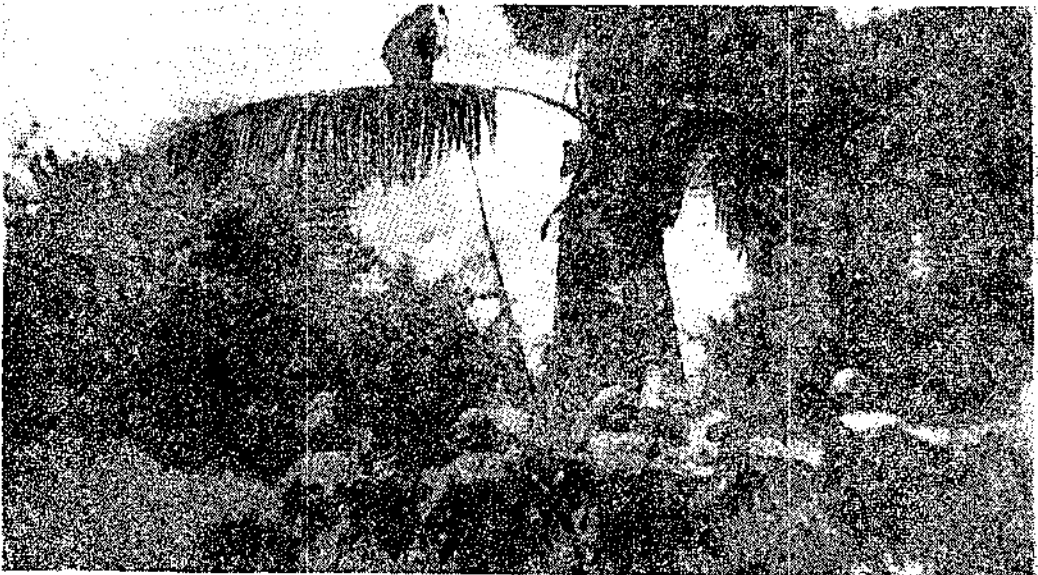
3. 제 3소대(장, 申 丁 중위)는  $\Delta 24$ 에 도착하자 언덕을 따라 橫으로 散開하여 다음 명령을 기다리던중 Van Thien(1)로부터 소로를 따라 접근하는 女人을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그 行動이 수상하므로 俘虜한바 VC간호원이었다. 이윽고 目標의 北쪽과 西쪽에서 총성이 울리고 중대장으로부터 『敵이 南쪽으로 退却한다. 소대는 이들을 捕捉 격멸하라』는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전투태세에 들어갔는데 조금뒤에 敵 2개분대 규모의 병력이 Vinh Phuoc(1)로 들어가고 다른 10여명의 VC이  $\Delta 24$ 로 접근하므로 곧 화기소대에 통보함과 동시에 사격을 집중하여 遺棄屍體 5구를 내게한 다음 계속 敵의 退路를 차단한 채 索敵하는대로 擊滅하였다.

4. 화기소대장 裴仁基 중위는 Chi Hoa—Van Phuoc(2)—Vinh Phuoc(1)의 東쪽을 차단하고 Chi Hoa에 57mm 무반동총을 Vinh Phuoc(1)에 배치한 다음 박격포반을 소총분대로



編組하여 그 사이에 潛伏시켰는데 제 2소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즉시 該마을에 57mm 무반 동종을 集中하여 當面の 敵을 제압하고 또 제 3소대 지역으로부터 狡猾들이 접근하자 기관총의 側射로 이들을 擊退하였다. 배속된 제 12중대의 기관총소대는 공격이 시작되자 제 1반(장, 郭正鉉 하사)을 화기소대에 남기고 나머지 병력은 Van Phuoc(1)에서 敵의 증원을 저지하는 한편 공격중인 제 2소대를 支援하였다.

한편 중대장 李載泰 대위는 黎明(BMNT) 以前에 제 2소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이는 필시 敵과 遭遇하거나 기도가 綻露된 까닭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제 1소대에 돌격명령을 내려 Chi Hoa를 挾攻케 하는 한편 배속된 81mm 박격포와 연대전투지원중대 4.2"중박격포로 Ch Hoa—Van Phuoc(2)를 제압케 하였다. 또한 대대에 요청하여 로병火力을 △125와 △188에 집중시키자 곧 Chi Hoa西쪽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중대의 左側에서 1개분대를 지휘하던 제 2소대 선임하사관 徐道鉉 중사가 “빙커”에서 抵抗하는 敵과 奮戰하다가 그들의 兇彈에 左大腿骨의 貫通상을 입었다. 이에 중대장은 곧 M79유탄을 퍼붓게 하여 “빙커”를 부시고 의무병에게 “헬리콥터”를 요청케 하였다. 이때에 △125로부터 重기관총을 포함한 4~5정의 敵자동화기의 鐵雨가 쏟아지자 제 2소대 제 2분대 M79유탄사수 姜鳳洙 상병이 포복으로 접



目標을 奪取하고 VC旗를 내리는 제 11중대 병사들

근하여 이들을 制壓中 쏟아지는 敵彈에 胸部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에 중대장은 다시 금 포병화력을 요청하여 該고지를 불바다로 만든 다음 제 2소대의 공격방향을 다시 돌려 제 1소대의 Van Phuoc(2) 공격을 支援케 하였다. 잠시뒤 目標을 奪取한 중대(-)는 제 3소대로 하여금 공격으로 전환하여 潰退하는 무리들을 격멸하면서 Vinh Phuoc(1)로 進擊하게 하였는데 대대로부터 『敵의 증원부대가 潛動하는 기미가 보이니 중대는 대대의 掩護下에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자 곧 『제 1소대는 제 2소대의 철수를 掩護하라. 제 2소대는 Van Phuoc(2)를 통과하여 화기소대와 합세하라. 제 3소대는 Vinh Phuoc(1)에서 四周를 경계하다가 제 1소대가 철수하면 화기소대의 掩護下에 구분 撤收하라』고 명령하고 중대본부 역시 제 2소대의 후미를 따라가게 하였다.

이리하여 제 2소대가 철수하고 제 1소대가 그뒤를 이을때 3~4명의 VC이 교통호로 뛰어드는 것을 目睹한 중대장은 곧 철수중인 제 1소대 제 1분대의 M79유탄발사기를 받아 겨누는 찰나 敵의 저격탄이 날아들어 一瞬間 의식을 잃은 제 瘡血을 뿌렸다. 이로 말미암아 撤收中이던 제 1소대의 李相植 병장이 외마디소리를 지르며 오던길을 되돌아 敵의 壕에 뛰어드니 소대원 모두가 怒濤와 같이 달려들어 이들을 撲殺하였다.

한편 중대장은 제 1소대 선임하사관 柳光錫 중사의 등에 업혀 철수중 意識을 회복하자 곧 『내 부하들에게 모범을 보이자 지휘관이란 육체적 고통을 意志로 克服하여 자신보다 부하들을 위해 獻身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망을 주어 士氣를 저하시키면 敵의 反擊에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한줌의 鮮血을 띤 다음 奮然히 일어나 『제 1소대는 빨리 물러나라. 제 3소대는 Van Phuoc(2) 西쪽으로 진출하여 掩護하다가 追擊하는 무리가 있으면 그 銳鋒을 꺾어라. 배속된 81mm 박격포소대는 △125의 敵의 증원부대에 제압 포격을 퍼부어라』고 호령하였다. 잠시뒤 중대가 Van Phuoc(2)를 통과할때 VC의 一羣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것을 目擊한 중대장은 掩護中인 제 3소대로 하여금 사격을 集中케하고 배속된 기관총소대로서 중대를 엄호케 하였는데 때마침 포병火力이 撤收계획에 이은 火集點에 쏟아지고 4.2"와 81mm 박격포는 △125 주변 일대에 高爆彈의 사격을 加하였으며, 잠시 뒤에는 F-100 전폭기 1개편대가 Chi Hoa와 Van Phuoc(2) 및 △125에 爆彈을 내려쏟으니 불바다가 된 Chi Hoa는 마치 生地獄을 연상케 하였다.

그리하여 鮮血이 낭자한채로 계속 선두에서 지휘하면서 제 1번公路(4km)까지 물러선 중대장 李載泰 내위는 대대장에게 전투상황을 보고한 다음 “헬리콥터”便으로 후송되었는데 機上에서 『중대는 누가 지휘하느냐 나는 自隊치로로 충분하다』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그뒤 대대장

이 제 6 후송병원의 군의관 朴重根대위를 만나자 그는 말하되 「李載泰 대위는 먼저 후송된 徐道鉉 중사의 수술을 지켜보고 蘇生한 것이 확인되자 같이 후송된 부하들을 일일이 돌아본 뒤에 시야 비로소 X-ray를 찍고 처치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가 輕傷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진단 결과가 ① 左胸部銃傷 ② 骨折 肋骨 左 7,8번 ③ 血胸 左 ④ 破裂 肺 左下葉 등으로 전사하지 않은 것이 奇蹟이므로 급히 서둘러 1시간 30분에 걸친 수술을 하여 이제 겨우 意識을 회복하였다」라고 하였다. 대대장으로 부터 이와같은 말을 들은 杵齋구부대의 將兵들은 그를 가리켜 살아있는 獲在求라고 불렀다

한편 여기서 대대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전날 22.00에 제11중대의 침투가 시작되자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 9 중대 기지에 대대 간이전술지휘소를 開設하고 침투를 기만하기 위하여 “7”字形 능선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포격을 加하였는데 갑자기 Chi Hoa로부터 총성이 들리므로 즉시 포병火力을 계획된 火集點(△188—△125—Nui Van Thien)에 돌리고 4.2” 중박격포로서 포위망내 Van Phuoc(2)의 VC을 制壓케 하였는데 同중대가 Chi Hoa를 점령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4.2” 중박격포를 다시 △125로 돌려 敵의 증원부대를 제압케 하였다. 잠시뒤 同중대가 目標를 휩쓸었다는 보고를 받고 곧 복귀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중대장이 重傷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새로운 보고를 接하게 되자 즉시 Sang Lu Sien Giang(江)邊에 潜伏한 수색중대를 Vinh Phuoc(1) 南쪽 小路에 추진시켜 敵이 나타나면 攻擊케 하고 대대장이 직접 제 9 중대를 지휘하여 激戰地의 東쪽 제 1 번公路에 진출한 다음 복귀하는 부대를 掩護하였다. 그리고 곧 포병 연락장교로 하여금 작전지역 上空의 0—2機와 긴밀히 협조하여 敵의 추격부대가 확인되는데로 砲擊케 함과 同時에 美軍 연락장교에게 爆擊機를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砲擊에 뒤이은 F—100전폭기 1개전대가 교대로 30분동안 該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또다시 105mm와 155mm 곡사포가 咆哮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제11중대가 철수를 完了하자 부관 龐英哲대위를 임시 중대장으로 임명하고 각각 基地로 復歸시켰으며 제 9 중대 1개소대와 제12중대의 81mm 박격포소대 및 기관총소대는 그대로 제11중대의 배속하에 두어 敵의 反擊에 대비케 하였다. 이 전투에서의 전과는 屍體확인 41具와 포로 1명 및 포격 및 航爆사살(추정) 65具 그리고 CZECHO製 CAR 50중기관총과 “로켓”포 각 1문을 비롯하여 소총 3정, 수류탄 28발 및 각종포탄 11발을 노획하였으나 我軍도 중대장을 비롯한 부상자 4명과 전사자 3명의 損失이 있었다.

한편, 朴正熙 大統領은 越南戰의 종합보고를 받는 가운데 「Chi Hoa전투」를 接하자 사령관과 入院치료중인 제11중대장 李載泰대위에게 親書를 보내어 그를 慰勞하고 격려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親愛하는 蔡命新 장군에게

連戰連勝 連日報道되는 파월韓國軍의 전과는 온 국민들의 歡呼와 聲采를 받고 민족의 사기를 드높게 하고 있습니다. …昨 26日 紙上에 재구부대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의 記事를 읽고 感激에 넘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千年前에 우리 祖上들의 崇高한 花郎의 精神이 千數百年동안 갖은 風霜과 민족의 受難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脈脈히 우리들 血管속에 生生히 躍動하고 있다는 이 嚴然한 현실을 눈으로 볼때 민족적인 感情과 矜持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

『親愛하는 李載泰 대위에게

…參議長 張昌國 대장이 越南 방문에서 돌아와 李대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한장 가져다 주기에 所重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 전투에서 중대를 지휘하다가 敵彈에 胸部를 貫通當하면서 毅然히 屈하지 않고 전투지휘를 하던 그 劇的인 모습이 나에게 지금도 눈에 선하지만 합니다. …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興奮하면서, 少時 나의 중대장 시절을 回想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훌륭한 軍인들이, 장교들이, 지휘관들이 얼마든지 있는 우리의 祖國은 앞날에 반드시 밝고 영광된 국가를 建設할 수 있는 自信과 勇氣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祖國統一의 大業을 그대들이 中樞役을 擔當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 兵馬倥傯之 戰場에서 보내주신 貴官의 따뜻한 情書를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武運長久를 祝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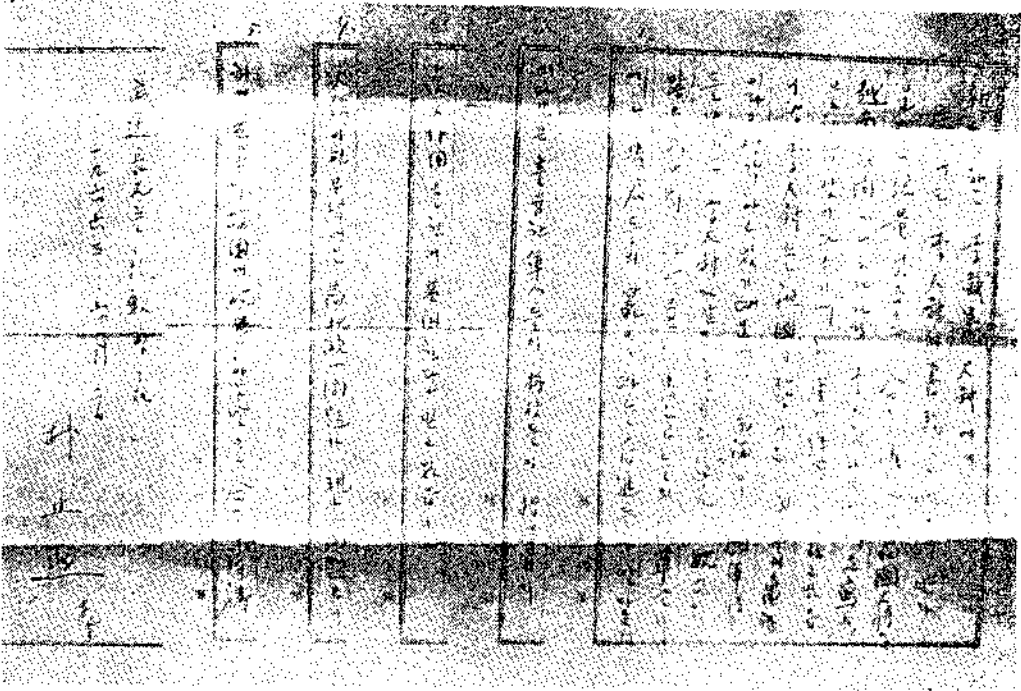


參議長 張昌國 대장과 제11중대장 李載泰대위

2월 28일~3월 1일(D+36~D+37)

: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11중대장의 職責을 맡은 盧英哲대위에게 전날의 激戰地에 나아가 敵情을 探知하는 한편 △118에 있던 VC대대의 殘存與否를 확인케하고, 제9중대는 Vinh Long收復 지역과 Van Thien사이에 埋伏을 계속하여 潛動하는 敵을 捕捉격멸케 하였다. 또 제10중대에 배속된 Phu Cat郡 민병대 1개소대를 제11중대로 배속 변경하였다.

1.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제3소대를 Song Lu Siem Giang(江) 上流에 보내니 該소대는 Huu Loc入口와 江邊 Vinh Long(2)에서 3日間の 장기배



林正熙 大統領 親書

복에 들어갔다.

2. 제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38 고갯마루에 제 1소대와 민병대 1개분대를 埋伏케 하자 該소대장은 小路의 東쪽에 제 2, 제 3 兩분대를, 그리고 西쪽에 제 1분대와 民兵隊를 各 山개시킨 다음 徹夜잠복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四更에 이르러 Hoa Hoi 국민학교 方向으로부터 狹路를 따라 접근하는 1개분대 규모의 VC을 目撃하였는데 그들은 첨병과 50餘m간격을 두고 接近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은 사격준비를 갖추게 하고 그들의 本隊를 유인중 갑자기 越南 민병대의 한병사가 사격하였으므로 敵은 반사적으로 亂射하면서 Muong Cay Da溪谷으로 退却하였다. 그러나 소대장은 제 2, 제 3 兩분대를 직접 지휘하여 溪谷까지 追擊하자 마자 徒涉하는 무리에게 총격을 集中하여 遺棄屍體 2具를 남기게 하고 圓총 1정을 노획하였는데 그 뒤 Vinh Thanh수복지역 주민이 확인한 결과 사살되자는 Phu Cat山에 있는 VC E-2B대대 소속으로 한때 Vinh Thanh에 倂進되었던 VC소대장이 밝혀졌다.

3. 제11중대(대리)장 盧英哲대위는 제 3소대와 화기소대의 1개분대를 直接 지휘하여 前 날의 交戰地인 Van Phuoc과 Chi Hoa에 들어갔는데 마을 全體가 거의 廢墟化되고 여기저기 爆屍體가 墜落하고 있으므로 이를 假埋葬하는 한편 제 3소대장 申 丁 중위에게 2개분대를 주

어 △125와 △188南端을 探索겸 정찰케 하였다. 申중위는 砲火에 쓰러진 巨木을 넘어 △125 頂上에 이르렀는데 이때 △188로부터 7~8명의 VC이 접근하는 것을 目擊하였다. 소대는 곧 破壤된 “방커”와 交通호에 潛伏하고 그들이 接近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정찰대인듯 四方을 주의깊게 警戒하면서 다가서므로 殺傷지대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사격을 집중하자 그들도 곧 應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노출된 상태에서 奇襲공격을 받은지라 몇 분도 지탱치 못하고 屍體 4具와 USSR製소총 1정 및 수류탄 2발을 遺棄한 채 退走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은 △188에 VC이 殘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 3소대의 나머지 2개분대 까지를 △125주변에 散開하여 △188의 敵에 대한 警戒線을 構築하는 한편 대대에 보고하여 다시금 △188에 제압포격을 계속하게 하였다.

3월 2일(D + 38) :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제11중대의 보고에 따라 공병 2개소대를 Chi Hoa에 보내 마을 復舊작업을 추진케 하고 제11중대에는 새로이 확보된 지역의 警戒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제12중대 81mm박격포 소대와 기관총소대 및 제 9중대의 1개소대를 該중대로부터 배속해제하여 자대로 復歸시켰다. 한편 이날 14.00에 美 Chicago Tribune紙의 “체리스 멘리”記者가 韓·美·越 연합작전으로 실시된 「Masher White Wing작전」의 戰場을 돌아보고 대대 전술지휘소를 訪問하였다. 이때에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와 작전장교 李重衡 대위는 지금까지의 전투상황과 對民관계 특히 在求村에서 얻어진 諜報를 바탕으로 이 頑強한 敵을 야간 奇襲으로 격파하여 晝夜전투의 주도권을 모두 我軍이 장악함으로써 VC들로부터 밥도 깨비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다는 事實을 說明하였다. 또한 이러한 야간기습은 少數의 병력으로 보다 큰 부대를 攻擊할 수 있으며 最小의 손실로 最大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越南戰에서는 필요 不可缺한 요소라고 附言하고 在求村과 제 9중대의 前방초소를 둘러보게 한 다음 전투간에 노획한 CZECHO製 CAR 50중기관총과 USSR製장총 및 獨逸製소총, 中共製 방망이 수류탄 등을 觀람케 하였다.

그뒤 “체리스 멘리”記者는 3월 13일자로 美國 國회하원국방위원회에 나아가 越南戰을 돌아본 결과를 증언하였는데 그 內容이 美合衆國 하원의사록에 기록되었으므로 이 戰鬪에 관계되는 사항만을 大略뽑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기자는 Qui Nhon으로부터 제 1번도로를 따라 韓國軍 暎호 제 1연대 제 3대대 본부까지 Jeep를 타고 갔다. 이 道路는 방금개통되었으며 「White Wing연합작전」에 참가한 한국군 1개대대에 의하여 확보되어 있었다. 이 대대의 임무는 Qui Nhon으로부터 Bong Son지역에 있는 美제 1공중기갑사단에 하부대까지 보급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警戒線을 제공하는 것이다. ……「White Wing작전」의 일부인 韓

國軍대대는 이 도로경계작전(재구 2호 전투)에서 VC사살 210명, 포로 32명, 용의자 131명을 체포했다. 美제 1공중기갑사단의 전과는 사살 1,235명, 포로 286명, 용의자 1,580명을 체포하였는데 그 숫자에는 포병사격과 越南戰이래 최대의 출격횟수인 1,064회의 항공폭격에 의해 殺傷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諜報는 韓國軍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또 하나의 성공 이유는 VC이 하는 것처럼 한국군은 주간에는 휴식을 갖고 夜間에는 전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軍의 정찰대는 주간에는 越南 농부로부터 諜報를 얻기 위하여 나가며 밤에는 VC을 擊滅키 위하여 밖에 나아가 潛伏한다. ……韓國軍의 전술과 美軍의 전술과는 重要한 차이가 있다. 韓國軍은 敵의 사격을 받으면 2개이상의 방향으로 공격을 취하는 것이다. 美軍은 敵으로부터 사격을 받으면 砲兵 지원이나 空中폭격을 요청한 다음에야 攻擊하니 보통 敵은 자취를 감추고 만다. ……최근 실시된 두번째의 도로수복작전(Vinh Thanh전투)에서 재구대대는 VC부대를 야간기습했다. 돌격할 때는 미번 복과 나팔, 그리고 “맹호”라고 부르짖어 VC들에게 심리적인 恐怖心을 誘發시켰다. 이동속에서 한국군은 敵의 무기를 빼앗고 테런도로 죽였다. 武器없이 싸운 한 공산주의자는 頭蓋骨이 빠개지고 骨盤이 꺾여 있었다. 한국군은 손, 무릎, 발을 사용하여 사람의 등과 목을 부러뜨릴 수 있다. ……그들은 소대 규모 의 야간 奇襲戰에서 한번은 37명을 또 한번은 41명의 VC을 죽였다.]

(註: 소대규모 야간기습전은 중대규모를 錯誤한 것이며, 37명 사살은 「Vinh Thanh전투」이고 41명 사살은 Chi Hoa전투이다.)

**3월 3일~6일(D+39~D+42):**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각중대장 및 관계 참모들을 불러 『제 1번公路 주변은 거의 安定되었다. 앞으로는 3개소의 수복지역과 제 1번공로 및 鐵路의 경계를 철저히 하고 Nui Ba(山) 일대에 潛據한 VC, E-2B대대와 △188에 殘存한 敵의 침습을 조기에 捕捉하여 擊滅하는 것이 대대의 주요임무이다.』라고 力說하였다. 이어서 命令하되 『제 9중대는 Vinh Thanh수복지역과 Song Lu Siem Giang(江)邊 일대를, 제 11중대는 Chi Hoa수복지역을, 그리고 Vinh Long수복지역은 연대수색중대가 각각 담당하여 警戒하라』고 하고 上級부대의 지시에 따라 포병 제 60대대 제 1포대를 배속해제하여 복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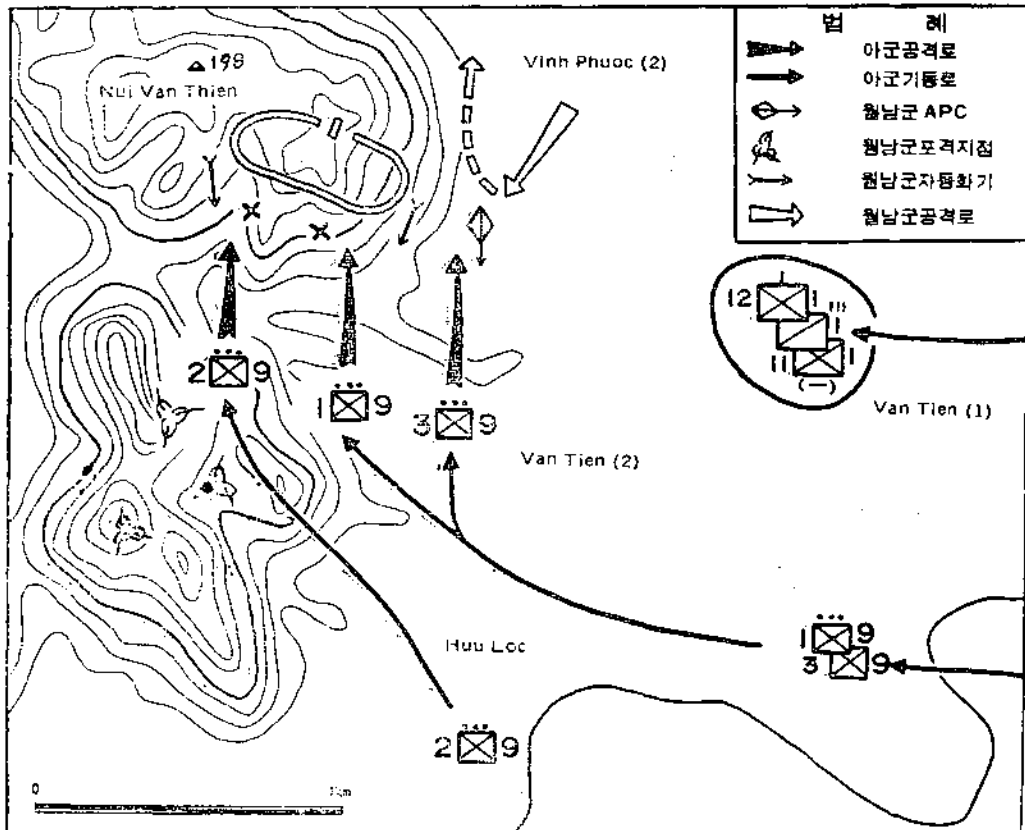
1. 제 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이날 黎明에 장기매복중인 제 3소대를 철수시키고 제 2소대로 하여금 제 1번公路 西쪽 江邊일대를 순찰케 하였다. 6일 20.00에 제 2소대로부터 「Nui Van Thien(山)으로부터 數個의 불빛이 관측되었다」라는 보고를 接한 중대장은 곧 화기소대를 남기고 제 1, 제 3 兩소대를 지휘하여 Huu Loc에 도착하자 敵陣을 살핀 다음 새벽녘에 공격키로 다짐하고 Nui DaD Voi東麓으로 우회하여 Van Thien河川邊에 潛伏한채 철야하였다.

2. 제 11중대장 盧英哲 대위는 Van Phuoc(1)을 순찰중, 중대에 파견된 민병대가 「Dai Thuan(2)로부터 △125北東쪽 溪谷으로 10여명의 敵이 이동중이나」라는 주민의 신고가 있다고

하므로 즉시 대대에 보고하여 同地域 일대에 포병 155mm폭사포 2문으로 하여금 포탄의 세례를 加하게한 연후에 중대장이 직접 현지를 탐색한 결과 VC 유기시체 6具와 重傷者 1명을 확인하였으며 그들이 운반하던 개인 화기실탄 5箱子를 노획하였다.

3월 7일(D+43): 전날 침투한 제 9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左側 Nui Bau Beo에 제 2 소대를, 그 東쪽 溪谷에 제 1 소대를, 그리고 溪谷下流에 제 3 소대를 산개하자 곧 제 2 소대로 하여금 Nui Van Thien 東쪽 高地를 공격케 하였다. 또 제 3 소대는 河川을 徒涉하였으며 중대장은 제 1 소대를 직접 지휘하여 敵陣 南쪽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敵은 방어진지도 구축치 아니하고 있었으며 그 행동이 VC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즉시 공격을 보류하고 제 1 소대장에게 확인케 하였는데 이때 敵陣과 Van Thien(4)로부터 기관총을 포함한 熾烈한 사격이 집중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대대에 Van Thien 일대에 越南軍이 있는가를 물었

狀況圖 제42호 Van Thien 誤認交戰





으나 대대 역시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는 다시금 집중攻勢를 펴는데 돌연 중대의 背後에 대형口徑의 포탄이 炸裂하므로 중대장은 쏠병력을 敵陣에 최대한 접근시켜 砲彈을 피하는 한편 근접전을 展開하였다. 제 3소대는 Tan Thien(4)에서 장갑차로 武裝한 우세한 敵의 저항을 받자 소대장은 즉시 1개분대를 現地에 잔류시키고 退却을 가장하여 誘引한바 제 1분대원들은 好機를 놓치지 아니하고 수류탄을 들고 장갑차에 뛰어오르니 敵은 이를 버리고 潰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를 받은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VC는 장갑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大口徑 砲火 역시 그러하다」라고 판단하고 즉시 제 3소대장에게 장갑차를 확인케 한 결과 越南軍으로 밝혀지자 사격중지 나팔을 불게 하였다. 그러나 前方에서 날아드는 총탄이 멈추지를 아니하자 병사들은 自身の 防護를 위하여 威脅사격을 加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중대장은 곧 전령과 통신병, 그리고 본인의 흰색 內衣를 벗어 旗를 만든 다음 대원들에게는 “맹호”를 외치게 하고 旗를 흔들며 총격을 멈추게 하였다.

한편 대대장은 이러한 誤認교전의 보고를 받자 즉시 越南軍 부대를 방문하고 노획한 장갑차를 돌려주는 한편 상호 誤認교전하게 된 事由를 확인한 바 越南軍은 사전 협조없이 대대의 전투지역에 들어온것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越南軍 1명이 전사하고 3명이 重輕傷을 입었으며 我軍도 병사 1명의 輕傷者가 있었다.

3월 8일~11일(D+44~D+47)·대대는 45일에 걸쳐 Phu Cat—Phu My兩郡의 南쪽 부락을 VC들로부터 收復하고 계속하여 該지역과 제 1번公路의 安全을 위하여 Nui Ba(山) 일대의 敵을 牽制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諜報를 수집하였으나 近來에는 VC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 뿐이었다. 한편 在求村은 45세대에 2,400명의 難民이 모여 명실공히 대부락이루니 자연히 장(市場)이 서게 되고 이 장날이 되면 Phu My郡 北쪽지역 주민들까지 모여 들게 되었으므로 대대는 이들의 보호에도 力點을 두게 되었다. 9일 연대로부터 『대대는 전투지역을 越南 제22사단 제41연대 제3대대에 인계하고 Huynh Mai(1)로 復歸하라는 命令이 하달되고 25대의 차량이 도착하자 철수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Phu Cat郡 민병대를 돌려 보냈다.

11일 黎明에 대대장은 포병 제60대대와 同제628대대 및 군수支援司의 공병을 포함한 모든 배속부대의 配屬을 해제하고 原隊로 복귀시켰는데 07.00에 Phu Cat군수 Loc 대위가 訪問하여 대대가 이 지역을 전출책임 지역으로 담당하여 출 것을 요청한데 이어서 재구촌장 Vohep과 수복지역 住民 2,500餘名이 몰려들어 연관장을 돌리고 越南정부에 신청하는 한편 一部 주민들은 대대를 따라 같이 移動하겠다고 나서므로 하는수 없이 이날 復歸하지 못

하고 다음 날로 머무게 되었다.

**3월 12일(D+48)**: 주민들을 간신히 설득시킨 대대는 14.00에 車輛편으로 출발하여 Nui Ky Son(山) 南쪽 Huynh Mai(1)에 도착하자 北쪽으로 제 2대대와 인접하여 새로운 陣地를 준비하였다.

### 라. 戰鬥後의 概況

대대는 美제 1공중기갑사단과 함께 「Masher 및 White Wing聯合작전」을 전개하여 제 1번公路의 兵站線을 확보하는 한편 Phu Cat, Phu My兩郡의 3개面 16개부락을 탈환하여 VC치하로부터 越南 행정부로 移讓하였으며 對民관계에도 큰 比重을 두었던 바 대대의 작전지역내에 거주하던 住民들은 越南戰이 발발한 이래 처음으로 安定된 생활을 하였다고 異口同聲으로 입을 모았다. 그런데 대대가 철수한 當日에 VC 1개소대 규모가 Vinh Thanh을 再侵透하고 在求村을 침습하였다는 Phu Cat군수의 연락을 받은 대대장은 즉시 제 9중대를 지휘하여 該村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人命 손실은 없었으나 학교건물 一部가 파괴되었으므로 곧 이를 復舊하였다. 그런데 대대가 돌아가려 할 때에 재구촌장과 地域 주민들이 道路에 나와 連坐 “대모”를 벌이니 대대장은 하는수 없이 상급부대에 이를 報告하고 越南 제 41연대와 협조한 다음 제 9중대를 在求村에 남겨 VC의 侵入을 막고 주민의 安寧을 도모토록 하였다. 그뒤 다음달 23일 「맹호 5호작전」이 展開되자 대대는 제 9중대의 1개소대를 재구촌에 남기고 작전에 참전하고 돌아오니 여기에 새로운 일이 발생하였다.

Phu Cat郡守 Loc 대위 후임으로 越南 제 22사단 인사참모를 역임한 Coi중위가 부임하자 Binh Dinh省에서 지방군 제 218중대(장, Tot 소위)를 배속시킨 것이다. 이에 신임 郡守는 Vinh Thanh 수복지역의 警戒가 어려움을 勘察하여 이 중대를 돌산(이 산은 전투초기 제 9중대가 敵의 침습을 물리치고 席卷한 곳임)에 배치하고 제 503도로를 扼守케 하여 Nui Ba(山)의 敵이 侵襲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제 218중대는 Vinh Thanh지역이 平穩하므로 방심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看破한 VC, E-2B대대는 夜間에 該중대기지를 포위 奇襲 하였으니 지방군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전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郡守 Coi중위는 대대에 「越南 제 41연대에 支援을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다. 재구대대가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는 支援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急報를 接한 대대장 朴應錫 중령은 즉시 재구촌에 있는 제 9중대로 하여금 그들을 支援케 하는 한편 제 12중대를 車輛으로 急派하였다. 이리하여 제 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修羅場이 된 돌산 南端에 도착하자 즉시 攻撃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敵은 我軍의 支援軍이 도착함을 알고 서둘러 退却하였다.

曙光을 받으며 돌산에 올라선 대대장은 제 9중대로 하여금 戰場을 整理케 하고 제 12중대로는 부상자를 후송토록하니 그 결과가 지방군 제 218중대 총원 122명중 부중대장 Bu 소위를 비롯한 43명이 戰死하고 중대장 Tot 소위 外 33명이 부상(후송한 다음 거의 戰死함), 그리고 40명이 失蹤(捕虜된 것으로 추단)되어 生存者는 5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敵의 侵襲으로 말미암아 Phu Cat郡의 주민들은 연판장을 물리고 郡守 이하 各村長은 越南 행정당국 및 사단 사령부를 차례로 訪問하여 在求대대를 Phu Cat郡

에 주둔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진정하였다. 이리하여 2개월 뒤에는 대대가 여기를 嚴衛 책임지역으로 인수하여 장기주둔에 들어가는 한편 Phu Cat山 일대를 수시로 探索하여 越南 지방군 제218중대가 빼앗긴 박격포 1문과 기관총 3정 및 소총 76정을 비롯하여 무전기 5대를 거의 모두 회수하였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비 고
	사 살	포 로	귀 순	용 의 자	노 획				전 사	전 상	
					기 관 총	로 케 트 포	수 탄 · 지 뢰 · 뢰	개 인 화 기			
제 9 중 대	1/83	10	4	24	2		38	14	21/18	장교/사병 (※1) 전투지원중대 106mm와 제12중 대의 일부는 피배 속부대에 계상함. (※2) Say 橋被襲으 로 소총 1정과 AN/PRC-6 무전 기 1대가 손실됨.	
제 10 중 대	1/47	11	1	7	2		13	8	6		
제 11 중 대	2/58	6	2	80	1	1	41	13	3 1/4		
제 12 중 대	6	1/		11			8	1			
제 7 중 대(배속)	3			6			3		2		
연대수색중대(배속)	3	1		4			1				
포 병(배속)	6	1									
대대본부 및 기타 배속 부대	1	2	9	5			3				
합 계	4/207	1/31	16	137	5	1	106	32	72/20		

§ 戰 訓

夜間奇襲의 効果

제 9중대는 Vinh Thanh에서 제11중대는 Chi Hoa에서 각각 夜間에 침투하여 敵의 蟠踞地를 奇襲함으로써 조그마한 손실로 큰 전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夜間전투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越南戰의 양상을 보면 주로 友軍은 주간에, VC은 야간에 전투하기 때문에 友軍은 우세한 火力과 兵力을 가지고도 그들과 대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Vinh Thanh, Chi Hoa 兩전투」는 그들

이 상용하는 夜間 奇襲으로 9개부락을 收復하고 확인된 遺棄屍體만도 78具를 헤아렸으니 이 전투 이후부터는 그들의 입에서 我軍을 “밤 도깨비”라고 부르면서 그들 스스로가 避하게 되어 대대가 여기에 주둔하는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平安하고 安定된 생활을 하였다. 이는 야간훈련을 통하여 평소에 꾸준히 鍊磨한 전투력의 결실이고 必勝의 信念을 가진 精神力의 소산이라 하겠다.

### 對 民宣撫活動의 成果

때대는 이 지역에 들어가자 곧 在球村을 건설 하고 수복지역 주민들의 安定을 위하여 부단히 努力하였으며 避難民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食糧을 나누어 주면서도 謙遜을 美德으로 삼았고 河川이 氾濫하였을 때에는 老弱者를 업어 건네주는 등 禮儀 儀凡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東洋人으로서 자유평화를 위하여 獻身과 努力을 아끼지 않는다는 印象을 심어준 결과 VC의 蟻窟地를 奇襲 하는데 주민의 제보가 적지않은 도움을 주었다. 어느 VC治下에 있는 주민은 我軍이 침투하는 것

을 보았으면서도 도리어 그 지역이 我軍에 의하여 수복되기를 기다린 事例도 있었다. 이 결과 나중에는 VC들도 주민들이 韓國軍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Vinh Thanh을 再侵한들 勝算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東方禮儀之國의 전통적인 예의 범절을 갖춘 韓國軍이 평화를 위하여 참전하였다는 大義名分을 실천에 옮긴 結晶인 것이다.

### Say橋 被襲原因 分析

#### 1. 警戒 怠慢

가. 중대는 近來에 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근무자(브츠)에게 1명 假眠 1명 근무제를 허용하였다는 것은 警戒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前線이 없는 現地에서 그와같은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그 指揮 방침을 再考해야 할 것이다.

나. 제 2, 제 5兩계초소 근무자들은 모두 졸고 있었으며 특히 제 2계초소의 보초는 수류탄

이 폭발한 뒤에 비로소 그들을 捕捉하였고 제 5계초소에서는 VC이 철조망을 질단하고 선제공격을 가한 뒤에야 깨어났다. 또 일단 정신을 차렸으면 즉시 對應하면서 중대와 인접초소에 비상 연락을 取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撥속에 얽드린채 전혀 전투 행동을 하지 않았다.

#### 2. 警戒哨所 위치의 不適合

제 4계초소와 제 5계초소 사이에는 畚水路가 Liem Truc으로 떨어져 있어 敵의 豫想집근로

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부터 묘저까지에는 아무런 경계조치가 없었다.

#### 3. 是 正 策

가. 警戒부대는 더 많은 병력의 청음조를 遠距離에까지 내보내 敵의 侵透를 중심길게 차단하여야 한다.

나. 건방초소(外廓초소)는 1개분대 규모의 병력을 항상 留置시켜야 하며 敵의 豫상집근로에는 埋伏隊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야간 警戒兵은 주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라. 야간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 병사들에게 경계교육과 敵과 접촉시 과감한 전투 행동으로 制壓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 들산의 悲劇과 韓國軍의 地域擴張

전투를 마치고 Huynh Mai로 移動한지 2개월째 되던날 越南 지방군 제218중대가 불산에서 VC, E-2B대대의 夜間기습을 받아 全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긴급 出動한 제9중대가 도착하자 그들은 서둘러 退却하였으니 이는 夜間 전투에서도 我軍을 감당할 수 없음을 自認한 행동으로 推測되며 이로 말미암아 死地에서 몇사람의

生命을 건질 수 있었다. 그 뒤 在求村을 비롯한 Phu Cat郡 주민들은 韓國軍에 對한 信賴를 더욱 굳히게 되어 재구대대를 따라 移住하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대는 여기를 전술책임지역으로 담당하기에 이르렀고, 越南人이 제보하는 첩보는 信憑성이 稀薄하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번복시킨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 聲東擊西의 妙

2월 16일밤 제9중대는 4개소대로 Vinh Thanh을 圍困하자 곧 제1, 화기兩소대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敵陣을 向하여 위협사격을 加함으로써 그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盲射를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배치상황을 확인하는 즉시 제2소대가 背後를 쳤으며 이에 呼應하여 제3소대는 그들의 側背를 攪亂하였을 뿐만아니라 모든

신호를 나팔과 북을 울리는 횃수로 약정한 까닭에 對峙한 우리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에 사토장혀 混亂상태에 빠져 들었다. 이는 敵을 한쪽으로 쓸리게 한 다음 배후에서 揆擊하는 陽動이요, 또한 위치를 알 수 없는 敵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치상황을 暴露케 하는 戰場心理를 이용한 用兵의 戰例로서 값진 교훈을 남기고 있다.

### § 逸 話

#### 結 緣

(재구대대 정보장교 權 準 澤 대위)

「재구 2~1호 전투」가 끝나자 Phu Cat군수 Loc 대위는 Vinh Long 수복지역을 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군청 보건소직원 5명과 함께 대대위생병 5명을 치료반으로 편성하여 귀대시간 17.00로 該지역에 보냈는데 14.00에 치료반이 돌아왔다.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는 곧 치료반장 金 하사에게 理由를 물은 즉 「郡守가 韓國軍은 돌아가라고 재촉하기에 귀대하였다」라고 하므로 權대위는 「韓國軍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것인가?」

라는 疑問을 갖게 되어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郡守 Loc 대위를 방문하였다. 權準澤 대위는 치료반 귀대문제에 대해서 「韓國軍의 수고가 너무 많아 돌아가시 편히 쉬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解明을 들은 다음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Loc대위가 「고향은 Hanoi이고 11年前에 내려왔으며 美軍의 Fort Benning 육군보병학교를 이수하였다」라고 자기 소개를 한 다음 「나의 나이는 37歲이다. 權대위는 몇이나」는 등의 情談이 교환

되었다. 두 大尉는 같은 東洋人으로서 오랜기간 사귄 사이처럼 情다워지게 되었고 相互 뜻이 맞아 義兄弟의 結緣을 맺기에 이르렀다. 그뒤 Loc 대위는 韓國軍과 有力人士와의 交驪를 주선하고 친선

도모에 적극 참여하여 在求村 건설에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대대의 모든 작전에 자진하여 참여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연대 제3대대(재구대대)장 朴 慶 錫 中령

(제3군사령부 인사처장실에서, 당시 중장)

越南戰에서 聯合軍은 兵力과 火力 이외에도 각종 기동수단 및 원활한 보급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VC들도 역시 그들 治下에 數箇의 부락을 가지고 있다. 越南전역에 散在된 그들의 등조자로 하여금 我軍의 첩보를 수집하여 작전이 개시되기도 前에 이미 그 지역에서 退却해 버리는 利點을 안고 있었다. 나는 이 전투에 참가하기 前부터 「주민과의 유대를 鞏固히 하고 心理戰을 병용해야만이 VC를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다. 在求부대가 My Hoa에 전술지휘소를 개설하자 Phu Cat山 일대에 蟻聚地를 둔 VC, E-2B대대가 선제공격을 加하였다. 그래도 아직 敵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적극적인 공세를 取하지 않고 다만 대민관계에 專力하여 諜報를 수집하는 一方, 보병부대는 그들의 奇襲에 대비하는 소극적인 전법을 썼다. 그러나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의 보고와 Phu Cat군영에서 보내준 諜報를 종합한 결과 Nui Ba(山) 일대의 敵과 Vinh Long지역의 VC은 我軍을 東과 西에서 挾攻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侵襲을 시도하여 대대의 전투력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본인은 그들중의 하나를 擊滅키로 결심하고 2개 중대를 投入하였다. 그뒤 이 지역이 수복되고 在求村이 건설되었으며 정보장교 權準澤 대위와 Phu Cat군수 Loc 대위가 義兄弟의 結緣을 맺게 된 다음부터는 住民들이 자진하여 諜報를 제공하고 治下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을 귀순시킴에 따라 敵情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으며 또 住民들이 VC보다는 韓國軍을 더 환영하게 됨으로써 敵은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보급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諸般사항을 看破한 본인은 곧 중대장 및 관계 참모들과 토의하여 Vinh Thanh, Chi Hoa兩전투를 전개하였던바 3개面 16個부락을 수복하였다. 그뒤 VC들은 我軍기지에 對한 襲擊은 물론 수복지역 내에도 열선거리지 못하였는데 대대가 복귀한 다음 뚝산에서 일어난 越南지방군의 被襲은 지금도 뼈아프게 느껴진다.

### 재구대대 제9중대장 龍 永 一 대위

(陸軍士官學校 제2연대 장실에서, 당시 대령)

본인은 Khanh Phuoc에 중대기지를 둔 以來, 재구촌 警戒부대로 남을때까지의 중대상황과 직접 체험한 몇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1. 중대가 Khanh Phuoc에 들어가던날 밤 敵의

砲擊을 받았다. 이는 곧 VC들이 我軍의 전투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推斷하고, 다음날 대대에서 Ambulance를 내겠다는 것을 거절한 다음 대대장이 巡察할때 그 車에 배워 보였으니 아마도 敵

은 많은 砲彈을 소모하면서 砲擊한 것이 實效를 거두지 못한 반면에 我軍의 방어능력이 높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2. VC은 少數兵力으로 我軍을 夜間에 침습하는데 我軍은 야간훈련과 유격훈련에 熟達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밤의 主導權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은 정신자세가 확립되지 못한 증거라고 斷定하고 이를 轉換시키기 위하여 Vinh Thanh 전투를 감행하였는데 실로 병사들의 戰技가 卓越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의 하나는 敵陣속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심리적인 공포심을 갖기 마련인 바 이때 사용한 나팔과 북은 士氣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敵에게 恐怖心을 誘發케 하는 훌륭한

심리전의 武器임이 立證되었다.

3. Vinh Thanh 전투에서 Hoa Hiep入口에까지 進擊하였을 때 金屬性的인 轟音과 함께 철모가 떨어져나갔다. 주어보니 實彈이 꿰뚫은 彈痕이 있었는데 그때 본인은 철모의 끈을 턱에 걸치지 않고 있었기에 방정이지 만일 철모의 끈을 묶었더라면 頭部에 貫通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가지 남기고 싶은 말은 공수나 森林탐색 및 突擊과 같은 공격행동을 제외한 방어전투나 障礙物이 없는 지역탐색에서는 철모의 끈을 푸는 것이 오히려 銃擊을 받았을때 頭部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과학적으로 실험되어야 할 숙제라고 본다.

### 재구대대 제11중대장 李 載 泰 대위

(제 9 공수여단 참모장실에서, 당시 대령)

전투정찰을 통하여 Chi Hoa內의 敵의 전투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더욱 대대 규모일지라도 一擊에 이를 撲殺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攻擊이 개시되자 敵은 증기관총과 “로켓트”포까지 동원하여 頑強하게 저항하였으나 예측한대로 銳氣가 꺾인 그들은 支離滅裂되는 가운데 潰退하였다. 그러나 △188에 蟠踞地를 둔 대대규모의 敵은 그들의 接近路를 我軍의 砲火가 차단하는데도 교묘히 이를 克服하여 중대의 배후에 들이닥치게 되자 나는 곧 그들과 正面에서 대결할 것을 決心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대대로부터 撤收 명령이 내려졌다. 철수간에 본인은 敵의 增援부대가 아군의 後尾를 따르려는 기미를 看破하고 곧 M79유탄발사기로 그들의 銃鋒을 꺾고자 1발을 발사하였으나 遠彈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쏜 제 2탄은 바로 그들앞에 떨어지고 계속 제 3탄을 발사하려는 순간 “딱”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리고

몸에 強한 충격이 있었다.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총탄이 貫通치 못하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罷迷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소리는 肋骨를 총탄이 貫通할 때의 흡이었다.) 잠시뒤 눈을 떠보니 병사들의 士氣가 低下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은 곧 百數수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몸으로서 부상이라고 누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指揮棒을 잡았다. 撤收로 4km나 빠져나온 나는 제 1번公路上에 들어가자 비로소 軍화가 질척거림을 느끼고 풀어보니 鮮血이 혼전혀 차 있었다. 후송을 거절하자 대대장은 명령이니 機上에 오르라고 호령하였다. Chi Hoa전투는 나에게 永遠히 잊지 못할 전투이며 이로 말미암아 大統領閣下의 親筆까지 받았으니 實로 生命이 다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보람을 찾았다고 확신한다.

## 14. 花郎 2號 戰鬪 (1966년 2월 12일)

참조: 상황도 제 43~45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我 軍		敵 軍	
(1) 統制部隊		장 대위 金 大 憲	
제 1 기갑연대장	대령 申 鉉 銖	제 5 중대	장 대위 李 權 護
(2) 參加部隊		포병제 61 대대	장 중령 梁 鷹
제 1 대대	장 중령 朴 漢 英	제 1 포대	장 대위 鄭 會 慶
제 2 중대	장 대위 金 秉 圭	제 2 포대	장 대위 張 洪 烈
연대 수색 중대 (배속)			
敵 軍		敵 軍	
Binh Dinh 省 VC, Bac Giang 중대		VC, E-210 대대 1개 중대	

### 나. 戰鬪 前의 概況

이 戰鬪지대는 Binh Dinh 省 Binh Khe 郡의 最東端部로서 An Nhon 郡界에 接하는 Song Binh Hoa (江) 北岸의 An Vinh—My Thuan 일대의 村落 및 水田지대와 同江 南岸의 Thang Cong 일대이다. 該지대는 제 1 기갑연대 전술책임지역중에서 가장 敵情이 빈번하며 또한 長期間 VC 支配下에 있었던 關係로 그들의 방어시설이 견고하게 構築된 곳이기도 하다.

當面の 敵은 地方 VC으로서 惡名 높은 Bae Giang 중대가 3개월 전부터 同지역 北東쪽 Van San 및 Dai An(3)에서 跳梁하다가 「前進 3號 戰鬪」(1965. 12. 28~30) 以後부터 An Vinh으로 移動하여 主로 Sang Binh Hoa(江) 對岸線上에서 遊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同중대는 3개 소대와 1개 생산소대(취사 및 생산)로 편성하고 60mm 박격포 3門과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각 3정, 그리고 철조망과 퍼트통 10개 其他 개인화기로 武裝한 총병력 200명으로 推算되었으며 構成요원이 모두 Binh Dinh 省 出身으로서 他부대의 구처를 받지 않는 독립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My An 일대에 據點을 둔 VC, E-210 대대의 1개 중대 규모도 이와 合流하여 該지대에서 友軍



의 補給수송 방해와 越南官署의 기습을 꾀책 民心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관단에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水田과 細川을 끼고 大小의 村落들이 點綴되어 △83에서는 視界가 대체로 良好한 편이나 부락은 주변마다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여 視界를 遮蔽하므로 탐색에 지장이 적지 않은 곳이다. 河幅 200m의 Binh Hoa江은 Can江과 연결하여 수많은 細流들을 안고 있으며 An Chanh을 南北으로 貫流하는 支流는 이 곳에서 제일 큰 것이다. 道路는 부락과 부락을 連結하는 小路들이 있을 뿐 車輛 通行이 가능한 곳이 없으며 An Vinh와 My Thuan 일대에는 많은 住民들이 農業에 從事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VC의 同調者들로서 友軍에게는 극히 非협조적이다.

期間中 氣溫은 最高 29°C에서 最低 20°C의 더운 날씨이며 한때 가랑비가 내렸으나 그 後로는 晴明한 날씨였다. 이무렵 인건 제 1연대(장, 金斑雲 준장)는 2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제 3대대로 하여금 Vinh Thanh 奇襲戰을 벌여 VC 37명을 사살하고 俘虜 3명을 얻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연대는 지난 年末을 期하여 「前進 3호 戰鬪」를 벌여 VC들이 試圖하려던 所謂 新正공세를 사전에 분쇄하고 Binh Khe郡의 安定을 維持하게 되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美제 1공중기갑사단이 作戰에 投入됨에 따라 연대는 An Khe郡 지역내의 제 19번도로의 경계를 맡게 되자 1월 3일 09.00를 期하여 제 2대대로 하여금 同道路의 경계임무를 美제 5기갑여단으로부터 인수케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제 6중대를 대대예비로 두고 제 5, 제 7 兩중대로 하여금 이 경계에 임하게 하였다.

한편 제 1대대는 제 2중대를 △83에 배치하고 그 東쪽 Binh Hoa와 江沿岸 Thiet Trang(1)에 제 1중대를 전개하여 扼守케 하였던 바, 1월 13일 Tan Nghi(3) 北쪽 密林지대에 埋伏組를 배치하려고 地形을 정찰하던 중대장 朴一均 대위가 地雷의 폭발로 戰死함으로써 대대는 同월 15일 제 3중대를 이 곳에 交替 배치하고 제 1중대를 뽑아 대대예비로 두었다.

이와 같이 연대는 전술책임지대를 防守하면서 埋伏과 소부대전투를 벌여 VC 43명을 사살하고 23명을 俘虜로 하는 戰果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무렵 舊正을 앞두고 VC 側에서 3일간의 停戰을 提議하자 韓國軍도 美·越 兩國軍과 步調를 같이 하여 이 提議를 일단 받아들여기로 하였지만 奸巧한 그들의 底意를 額面 그대로 믿을 수 없었으므로 군사령부에서는 아래의 같은 要旨의 指示를 내려 경계에 더욱 置重토록 하였다.

罪1. 舊正 기간중(1.20, 12.00~1.23, 18.00)의 작전에 대하여 지시한다.

가. 기간중 우리쪽에서 먼저 挑戰行爲하는 것을 禁한다.

但 자체방위를 위한 警찰을 포함한 모든 경계를 강화하라.

나. 전부대는 비상태세를 취하고 VC이나 월맹군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다. 포병부대는 敵과 접촉이 있을 때에 한하여 지원하며 友軍의 安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격만을 실시한다. 항공지원의 要請도 이에 準한다.

2. 상기 지시는 敵이 舊正 기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며 우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태세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VC 및 월맹군의 적대행위는 즉각 보고를 發한다.

4. 연대 이하 모든 부대는 기간 종료와 同時에 계획된 전투를 재개하라.

VC들은 그들 자신이 停戰을 선언한 다음 아군 부대를 공격하라는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탐지되었다.』

연대는 이에 따라 경계를 강화하였으나 舊正기간 중에는 VC들의 별다른 挑發이 없었으며 舊正 停戰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Con江 北쪽 平野에 있어 潛動이 잦아지자 1월 29일 제1, 제2 兩대대로써 「번개 66-1호 作戰」을 벌여 VC 17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34명을 체포하여 該지대를 制扼하였다.

2월에 접어들어서 越南 작기편의 提報와 俘虜심문을 통한 정보를 綜合分析한 結果 前記의 Bac Giang중대가 Sang Binh Hoa(江) 對岸을 中心으로 跳梁하는 것으로 判斷한 연대장 申鉉錫 대령은 △83에 配置한 1개중대로 하여금 夜間기습으로 이를 撲滅할 腹案을 가졌다가 VC, E-210대대의 예하 일부 兵力도 이와 合流하였다는 情報보고를 接受하고 1개대대(-)로 剿滅키로 決心하여 아래와 같은 要旨의 作命을 下達하였다.

『1. 적정 : 전투전의 概況 참조.

2. 전투기간중 포병제61대대(-)가 직접 지원한다.

3. 연대는 2월 12일을 期하여 1개대대(-)로서 Binh Hoa江 沿岸 일대에서 遊動하는 VC를 殲滅하려 한다.

4. 제1대대장

가. 배속 : 연대수색중대

나. 대대는 목표(상황도 참조)를 공격 該지대의 VC를 撲滅하라.

기간중 제2대대 1개중대(-)가 Binh Hoa江 南岸에서 이 지대의 敵을 견제할 것이다.

다. 공격은 2월 12일 10.00에 개시하고 日沒時에 終了하라.

5. 제2대대는 2월 12일 07.00까지 1개중대(-)를 Thang Cang에 推進시켜 Con江 北岸 An Vinh 일대의 敵을 견제하라.

6. 연대본부중대는 12일 06.00부로 경비소대를 연대수색중대에 배속하라.

7. 공격준비사격은 실시하지 않으며 포병 및 항공지원은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

8. 지휘 및 통신

가. 통신 : 현행 SOI에 의거한다.

나. 연대전술지휘소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該지대는 敵情이 活潑할 뿐만 아니라 點綴된 家屋 사이에 交通線과 개인호가 구축되었으며 부락 주변에는 巨木들이 울창하여 視界를 遮蔽하는 곳이다. 이러한 點을 勘案한 연대는 700m에서 800m의 距離를 두고 통제선을 그어 連結을 지으면서 併行 공격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 1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배속된 연대수색중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An Chanh에서 An Vinh을 공격케 하고, 제 2중대로써 左一線을 삼아 My Thuan에서 Nhon Thvan(1)을 占領토록 하였으며 대대전술지휘소는 △83에 개설키로 하였다. 그리고 제 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제 5중대로 하여금 1개소대로써 이 전투에 임하게 하였던 바, 제 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제 1소대를 Thang Cang에 推進시켜 Binh Hoa江 北쪽 일대의 敵을 제압토록 하였다.

한편 포병제 61대대(장, 梁 鷹 중령)은 제 1, 제 2 兩포대로 하여금 현지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였다.

## (2) 戰鬪 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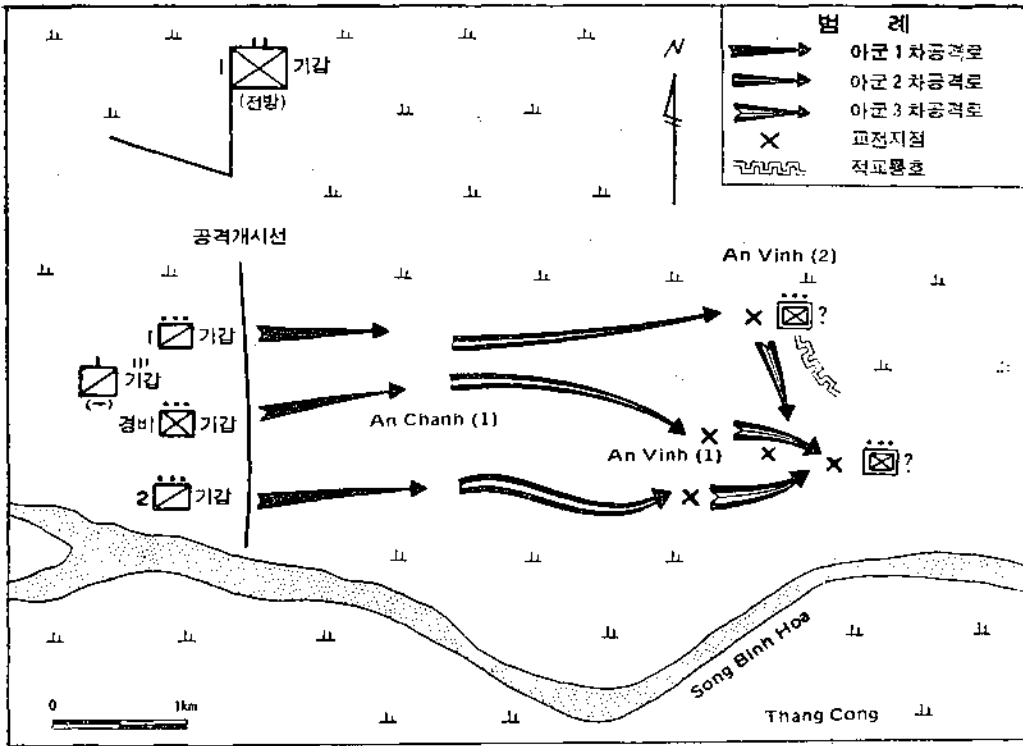
이날은 한때 가랑비가 내렸으나 그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여서 기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대대는 08. 30에 제 2중대 전술기지인 △83에 전방 전술지휘소를 개설하고 공격준비를 갖추었다.

한편 09. 20에는 從軍기지단 일행이 사단 정훈참모의 안내로 배대전술지휘소에 도착하였으므로 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이 일행으로 하여금 제 2중대를 뒤따라 從軍토록 하였다.

(가)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07. 50에 기지에 車輛便으로 출발하여 제 19번道路의 “A”도로를 지나 09. 20에 Thu Thien Thuong에서 下軍한 다음 Con江을 徒涉하여 공격개시선인 An Chanh으로 進出하였다.

이 곳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중대는 제 2소대(장, 金茂雄 소위)를 右一線으로 하고, 배속된 연대경비소대를 中央一線으로 하였으며, 제 1소대(장, 徐完秀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10. 00에 공격개시선을 通過하였다.

狀況圖 제43호 연대수색중대 戰鬪



이리하여 Con江 沿岸에서 제 2소대가 “부비트랩”을 제거한 다음 An Chanh을 거쳐 An Vinh(1) 北西쪽 300m까지 接觸없이 進出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대는 左一線의 제 1소대를 An Vinh(1)과 MyThuan(1)의 中間에 있는 An Vinh(2)로 直衝케 하였으니 중대장 金大憲 대위로서는 제 5중대 제 1소대(장, 李崑洙 소위)가 Binh Hoa江 南岸에서 敵을 殲滅하고 제 1소대가 An Vinh(2)를 점령한다면 중대주력(제 2소대 및 연대경비소대)으로서 목표인 An Vinh(1)의 敵을 포위 殲滅하기 쉬우리라고 判斷하였기 때문이었다.

중대장의 이러한 腹案에 따라 제 1소대(장, 徐完秀 소위)가 An Vinh(2)로 指向하고 중대주력이 An Chanh(1)을 지나려할 즈음 Binh Hoa江 南岸에서 요란한 銃聲이 들려와 제 5중대 제 1소대가 VC와 遭遇하여 交戰을 벌이고 있음을 直感케 하였다. 이 무렵 제 1소대는 An Chanh(1)의 北쪽 개활지를 迂回하여 An Vinh(2) 100m 앞 田畚지대에 進出하여 목표에 突進코자 소대를 散開하려는 刹那 前面에 茂盛한 巨木으로 둘러싸인 마을 入口에서 VC들이 느닷없이 경기관총과 자동소총을 一時에 亂射하였다.

이렇듯 不時에 敵의 集中火力에 부딪친 소대는 논뜰에서 可用한 火力을 퍼부어 이에 應戰하였다.

그러나 敵의 抵抗은 漸次로 頑強하여져 좀처럼 물러설 氣味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때 陣頭에서 指揮하던 소대장 徐完秀 소위가 다리에 貫通傷을 입었으므로 소대지휘가 어려운데다가 선임 하사관이 缺員이었다.

더구나 연대수색중대는 지금까지 주로 대북진만을 치른 탓으로 소수 VC들과의 交戰 경험 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총이나 수류탄을 투척하여 저항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다가 소대(+ ) 규모의 組織된 火網에 부딪혔기 때문에 소대는 突擊을 決行치 못하고 現진출지점에서 對峙하여 火力을 퍼부었다. 말하자면 彼我同等한 兵力과 裝備의 衝突로서 不意의 奇襲을 받고 唐慌하게 된 셈이니 機先을 制壓한다는 것이 얼마나 必要한가를 端的으로 보여준 셈이 된 것이다.

한편 제 2 소대와 연대 경비소대는 예정대로 An Vinh(1)로 계속 進擊하였는데 同 마을 200m 앞에서 VC의 自動火力과 박격포사격에 부딪쳐 한때 치열한 교전을 벌이면서 그들을 擊破코자 하였으나 三面에서 퍼붓는 火網으로 그 以上 더 進出치 못하다가 연대경비소대장이 戰傷을 입고 만났다.

이와 같이 중대는 3개 소대의 공격이 모두 敵의 自動火力에 부딪치고 2個 소대장이 戰傷을 입게되었다.

이에 수색중대장 金大憲 배위는 지원포격을 요청하는 한편, 수색장교 李三錫 중위로 하여금 제 1 소대의 지휘를 담당케 하고 연대경비소대는 중대장 자신이 직접 지휘기로 하였으며 포사격이 끝난 12.30에 An Vinh(1)을 목표로 계속 공격을 再起하였다. 이 때 同부락 前端에 먼저 突入한 제 2 소대는 부락 내부의 탐색에서 교통신호와 견고하게 구축된 개인호를 뚫었으나 VC를 색출하지 못한채 마을 中央쪽으로 突進하다가 교통신호를 따라 潰走하는 VC들의 소총사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를 一蹴하였다.

그런데 同마을 右側 樹林속에서 數未詳의 VC으로부터 射擊을 받아 사병 1명이 戰死하고 1명이 戰傷을 입었다. 소대는 계속 進擊하여 An Vinh(1) 中間 마을에 거의 進出할 무렵 중대장으로부터 該지역에 砲擊이 실시된다는 連絡을 받자 소대를 同부락 北西쪽 개활지로 물러서도록 號令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마을 北西쪽으로 移動하고 있을 때 戰傷者 후송용 “헬리콥터” 1隻가 着陸하려 하였는데 同부락 내부에서 隱遁한 VC들이 이에 集中사격을 하였다. 이로 困하여

“헬리콥터”는 미처 戰傷者를 다 신지 못하고 離陸하였다. 한편, 李三錫 중위가 지휘하는 제 1소대도 이 때에 移動을 개시하여 중대집결지에서 肅勢하였다.

집결이 끝난 중대는 포사격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 觀測장교로 하여금 다시 確認케 하였더니 제 2 중대 狀況이 緊迫하여 그 지역에 對하여 集中 지원중이라고 하였다.

이에 중대는 지원포격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박격포사격을 加하고 3개소대를 同時에 併進시켜 An Vinh(1)의 마을 中央으로 쳐들어갔으나 VC들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점령하고 이 일대의 탐색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 때 대대장으로부터 『공중폭격이 곧 개시될 것이니 일단 위로 물러선다가 끝나는 즉시 공격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중대는 同마을 北西쪽 畵路로 다시 물러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15.40부터 16.20까지 40분 동안 Sky Raider 3臺와 F-100 전폭기 2臺가 An Vinh(1) 일대의 上空을 누비면서 목표에 폭격과 기총사격을 퍼부었다.

폭격이 끝나자 중대는 前과 同하게 3개소대를 併進시켰다. 이 때 VC들은 이미 爆擊을 避하여 潛遁한 연후인듯 마을까지의 탐색에서 별로 저항을 받지 않았다.

중대는 이 일대의 탐색에서 獨立 가옥을 튀겨 수류탄 20발을 노획한 반면 사병 2명이 戰傷을 입는 損失을 보았으며 17.00에 同마을 탐색을 일단 마무리 짓고 원대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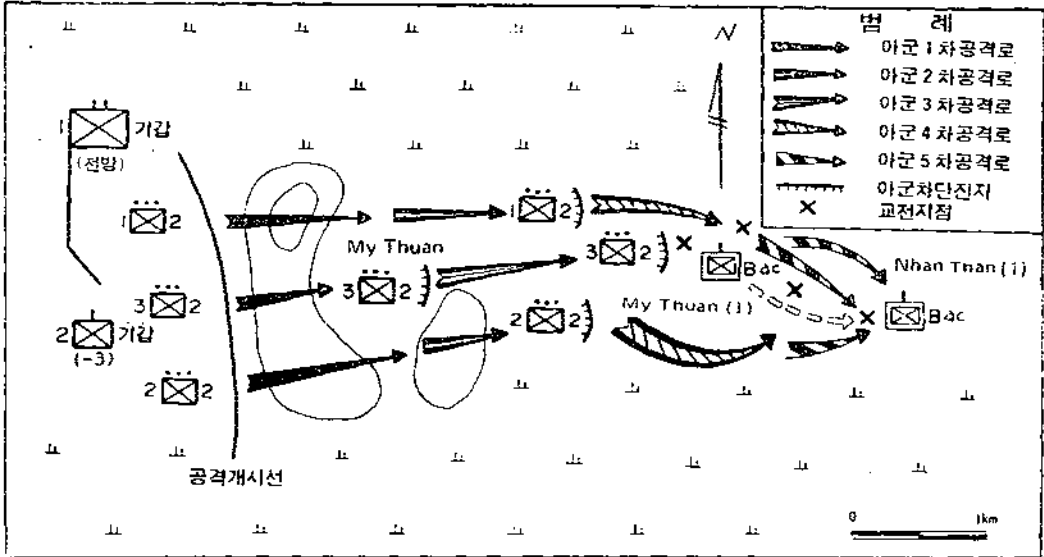
(나) 제 2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지난 12월 中旬 △83를 인수받은 이래로 該지대에서 埋伏과 분대 및 소대단위로 탐색을 벌이다가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이날 중대는 연대 수색중대가 09.20에 Song Con(江)을 도하하여 공격개시선에 進出하자 10.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대는 공격개시선인 기지 앞 河川 일대와 My Thuan까지는 자주 埋伏을 실시한 곳이며 며칠 전에도 분대단위로 탐색을 벌였기 때문에 敵의 出沒이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대는 My Thuan에 進出할 때까지는 제 2 소대(장, 金周崇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3 소대(장, 金文吉 소위)를 中央一線으로, 제 1 소대(장, 明山王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빠른 속도로 急進하였다.

그러나 이 곳에서 1km 떨어진 My Thuan(1)로 공격할 때는 그 樣相이 완전히 달라졌다. 同부락은 東西로 2km에 걸쳐 家屋이 點綴된 큰 부락으로서 오랜 기간 VC들이 潛遁하여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으나 연대로서는 한번도 이 지역에서 탐색을 전일이 없어 지형에 생소한데다 중대에 入手된 항공사진에도 이 부락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

狀況圖 제44호 제2중대 戰鬥



문에 부락내부의 도로나 敵이 구축한 교통호 및 개인호의 위치도 알 길이 없었으며 敵情도 미리 입수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My Thuan(1) 일대의 情況을 잘 알지 못하는 중대장 金秉忠 대위는 여러가지 공격方法을 모색하다가 3개소대를 併進공격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지형과 敵情을 전혀 모르는데다가 이 부락이 너무나 廣範하여 1개중대로서는 包圍할 수 없었다. 그리고 차단부대 또는 엄호부대를 抽出한 생각도 해 보았으나 兵力을 分散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萬一 同부락 策쪽 3km에 設置된 제 3중대 전술기지에서 차단부대를 急進시켰다면 所期의 效果를 거두었을 것이다. 하여튼 나로서는 그 때의 狀況으로 보아 3개소대를 併進시킨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My Thuan(1) 西端 50m 앞까지 接近하였으나 여기에서부터는 人家를 둘러싼 큰 나무들이 앞을 가로막아 視野를 가리므로 부락내부의 동정을 살필 수 없었다.

이 때 중대장은 이러한 狀況에서 그대로 3개소대를 同時에 併進시키다가는 VC의 能事인 狙擊이나 奇襲을 避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여 이곳에서 제 1, 제 2 兩소대를 左右에서 공격케 하고 中央의 제 3소대로 하여금 엄호케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장의 腹案에 따라 兩소대는 10.40에 一時에 突入하였으나 接敵이 없는 가운데 西端部를 占領하였으며 탐색을 끝마칠 때까지도 그들은 挑發할 兆朕이 없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단 人家가 끊겨졌다가 그 사이에 300m의 距離를 두고 펼쳐진 水田을 지나 다시 家屋이 密集된 마을이 이어지고 그 주위에는 아릅드리 巨木들이 茂盛하였다.

이러한 공격축선에서 300m의 田畚지대는 敵의 集中사격이 예상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지원소대로서 後續하던 제 3소대(장, 金文吉 소위)로 하여금 同마을 中央쪽을 直衝케 하고 제 1, 제 2 兩소대로써 現進出지점 兩側方에서 掩護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3소대장 金文吉 소위는 소대를 산개하여 進擊에 나섰는데 11.30에 논밭을 반쯤 橫斷하였을 무렵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인 家屋에서 내뿜는 VC의 自動火力에 부딪치자 소대는 可用한 火力으로 이에 應戰하였으나 露出된 지역이므로 끝내는 VC들의 박격포 火力에 依하여 제 1분대 부분대장 蔡圭勳 병장이 戰死하고 소총수 2명이 負傷을 입게 되었다. 이 때 派越된지 3일 밖에 안되는 신임소대장 金文吉 소위는 당황한 나머지, 제 1, 제 2 兩소대로 하여금 側方지원의 時間 여유도 주지 않고 隨意 철수하여 버렸다.

중대장은 緊急히 지원포격을 要請한 연후에 제 1소대(장, 明山玉 소위)로 하여금 제 2소대를 超越공격케 하고 제 2소대(장, 金周崇 소위)로써 同마을 右側方으로 迂回케 하여 마을 南端部에서 공격케 하는 同時에 敵을 차단토록 하였다.

이윽고 지원포화가 炸裂하자 제 1소대(장, 明山玉 소위)는 소대를 휘몰아 水田지대를 橫斷하여 50m 앞까지 直衝하였는데 正面에 가로막힌 樹木들이 너무 臑臑이 들어서 그 사이를 뚫고 進擊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더러 VC들의 저격이 예상되었으므로 비교적 나무가 적은 左側方으로 迂迴하여 突入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北쪽으로 다가선 소대는 나무 사이를 누비며 마을 어구에 突入하였으나 이 때에는 VC들이 이미 포격을 避하여 다음 진지로 退却한 연후인지 接敵없이 이 일대의 탐색을 끝나치고 계속 진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또 人家가 끊겨지고 幅 100m의 논밭을 지나 다시 村家들이 右側에 울창한 숲을 끼고 이어졌으므로 소대는 이 田畚을 또 橫斷하여야만 이에 이어진 마을 탐색을 펴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同마을 前端에서도 田畚지대를 지나다가 VC의 集中사격을 받고 뒤로 물러선 제 3소대의 狀況을 想起할 때 소대장 明山玉 소위는 이런 前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對應策을 講究하려고 神經을 곤두세웠다.

그리하여 明소위는 제 2분대를 尖兵분대로 삼아 50m 앞에서 정탐케 하고, 제 1분대를 右側에서, 제 3분대를 左側에서, 그리고 화기분대는 소대장이 직접 지휘하여 後尾를 따르던



서 躍進하였는데 尖兵분대가 水田지대 중간지점에 進出하였을 즈음 이번에는 60mm 박격포 탄이 集中되어 소대장 明山玉 소위가 破片으로 顔面에 重傷을 입었으며 화기분대장을 비롯한 57mm무반동총 사수와, 부사수 2명, 자동화기사수 1명, 전령 2명, 소총수 2명 모두 9명이 重輕傷을 입고 사병 1명이 戰死하였다. 이 때를 回想하여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VC들의 60mm 박격포사격은 거리가 가까운 탓도 있었지만 거의 정확하였다. 이 때 소대에 집중된 포탄이 30발 가량이었으니 적어도 3門以上을 소유한 것으로 推測하였다. 즉시 지원포격을 요청하고 지원소대로 뽑은 제 3소대로 하여금 同소대의 北쪽을 迂廻進出시켜 側背에서 공격케 하는 동시에 退路를 차단토록 하는 계획도 생각하였으나 제 1소대의 戰況이 너무 다급한데다가 제 3소대는 1次공격에서 敵의 火力에 밀려났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대장으로 부임한지 3일 밖에 안되는 金文吉 소위가 實戰 경험이 없어 이를 감당해 낼 것 같지 않아 決行치 못하였다.

결국 제 3소대를 이끌고 제 1소대 進出지점으로 急進하였는데 이 때의 소대는 거의 지리멸렬 상태이었다. 소대장 明山玉 소위는 破片이 턱을 貫通하여 失神상태이고, 사병들은 지금까지 치른 전투에서는 소총사격을 亂射하는 정도의 저항을 받다가 기관총과 박격포의 集中사격을 받은 兪후부터는 사기가 저하되었다.

즉 57mm 무반동총분대(배속)는 거의 모두가 負傷을 입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경기관총은 이미 彈藥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사병들은 눈뚱을 방패 삼아 앞만 보고 마구 사격을 加하였으니 무모하게 실탄만을 소모하고 있었다. 南쪽을 迂廻한 제 2소대는 제 1소대의 右側方을 通하여 M<sub>1</sub> Thuan(1)의 南端부 위로 進出중이었으나 사이에 큰 樹木들이 가로막혀 VC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아무런 措置도 取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중대와 無電이 不通이어서 指示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緊急히 지원포격을 요청하는 한편 홀어진 兵力을 수습하면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기관총반으로 하여금 負傷兵을 後送케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장이 소대의 戰列을 가다듬는 사이에 支援포격이 계속되어 My Thuan(1) 中間부락과 그 일대를 強打하였으며 제 2소대와 交通도 이루어졌으므로 現進出지점인 同 마을 南端에서 進擊케 하고 제 3소대를 제 1소대의 左側에서 併進케 하여 12.30에 일제히 공격을 再擧하였다.

이리하여 田畠을 橫斷한 중대는 마을 중앙부위로 突入하였으며 接敵없이 탐색에 나섰으나 덩굴진 나무 울타리를 넘어 家屋 하나하나를 뒤지느라고 進出이 늦어졌다. 이 곳 탐색에서 중대는 교통호와 개인호에서 VC들의 휴대용 쌀주머니와 배낭이 가끔 눈에 띄어있으며 찢자국을 여러군데서 목격하였다.

탐색을 끝마친 중대는 다음 後端 마을로 前進하려고 人家가 끊겨진 개활지로 진출하였을 무렵, 그 건너편 마을 北쪽 쪽과 음폐된 곳에서 VC들은 또 박격포와 기관총을 亂射하면서

중대의 進路를 가로 막았는데 이 때에도 제 1소대에서는 사병 4명이 戰傷을 입었다.

이렇듯 거듭 VC의 火網에 부딪친 중대는 可用한 火力을 퍼부었지만 교통호와 掩體壕 속에서 銃口만 내밀고 마구 쏘아대는 그들의 火網을 뚫지 못하자,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관측장교로 하여금 포격을 유도케 하고 제 1소대 진출지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 My Thuan(1)의 後端마을 北쪽에는 水路가西에서 東으로 뻗어 兩側에는 堤防이 있었다. 이 堤防을 占領한 VC들은 여기에 기관총을 배치하고 마구 亂射하므로, 이를 除去하지 않고는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중대장은 제 1소대에서 특공조 9명을 抽出하여 직접 이끌고 背後로 潛入하여 擊破하기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이 이끄는 특공조 9명이 마을 北端을 迂廻하여 潛入코자 할 즈음 이 堤防을 占領한 VC들이 기관총을 亂射하여 특공대의 進出을 저지하므로 끝내 이를 뚫지 못하고 말았다.

이로써 특공조의 공격도 無爲로 끝나고 원위치로 돌아갔는데 이 때 VC들은 이를 노려 60mm박격포 火力을 加하여 중대장을 뒤따르던 無電兵에게 破片傷을 입혔으며 또 한발이 연달아 중대장과 觀測장교 앞에 떨어졌으나 그것이 不發함으로써 이 두사람은 危機를 모면하기도 하였다.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證言에서 말하기를 『정말 죽을 목숨이 天祐神助로 生命을 건졌다. 地方 VC으로서 Bac Giang중대가 가장 惡名이 높았지만 그렇게 간악하고 끈질기게 달라붙을 줄은 몰랐다. 더구나 지금까지 중대가 치른 전투에서는 VC들이 我軍과 맞부딪치면 소총사격으로 저항하다가 곧 踪跡을 감추곤 하여 그리 대수롭지 않거지 않았는데 이날 Bac Giang중대는 이와는 판이하여 마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自動火器와 박격포로써 끝까지 頑強히 저항하였으며 支援포격이 加하여지면 그 射程距離 밖에 隱遁하였다가 중대의 接近을 노려 또 다시 集中사격으로써 阻止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연대로서는 처음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곳이어서 지형에 어둡고 VC들의 潛遁이 예상되는 곳을 알지 못하여 더욱 당황하였으며 부락 내부에 구축한 交通壕나 掩體壕가 진고하여 중대 火力으로는 이를 파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투경험 부족으로 VC의 전술을 체득하지 못함에도 이 전투를 失敗로 끝마친 要因의 하나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중대장은 觀測장교로 하여금 지원포격을 유도케 하고 隊伍를 가다듬었는데 이 무렵 上空에 나타난 관측용 輕航空기로부터 40餘名の VC이 독과 마을에 잠복하였다는 連絡을 받은 중대장은 觀測장교를 불러 재차 포격을 요청케 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10분이 지나도록 포탄이 집중되지 않아 초조하게 기다리던 金秉圭 대위는 이를 다

시 확인케 한 바, 「負傷兵 後送用 “헬리콥터”가 상공을 비행중이기 때문에 포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대의 戰況을 지켜본 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항공지원을 긴급히 요청하는 동시에 중대로 하여금 現진출선에서 연막탄을 올려 그 위치를 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有色 연막탄을 터뜨려 위치를 표시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이 자리에는 VC들이 쏘는 60mm 박격포탄이 연달아 集中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이 있던 다음 15.45부터 항공폭격이 시작되어 Sky Raider 3臺와 F-100 전폭기 2臺가 번갈아 가며 My Thuan(1) 일대와 연대수색중대의 진출 지역인 An Vinh上空을 누비면서 폭격을 하였다. 이 때에 중대의 進出지점이 敵과 너무 가까이 近接한 탄으로 포로 기증사격을 퍼붓고 爆撃은 An Vinh 일대에 4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항공지원이 끝난 16.30에 대대는 중대의 공격을 보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My Thuan(1)의 東쪽 一角도 채 점령하지 못하였으며 당초 계획인 공격목표 Nhon Thuan(1)의 중간정도의 進出線에서 기지로 되돌아 가지 되었다.

중대는 공격하던 經路를 되돌아서게 되었으나 여기가 平坦한 길이 아니고 家屋들이 집철된 部落을 通過하기 때문에 즉차적으로 상호연호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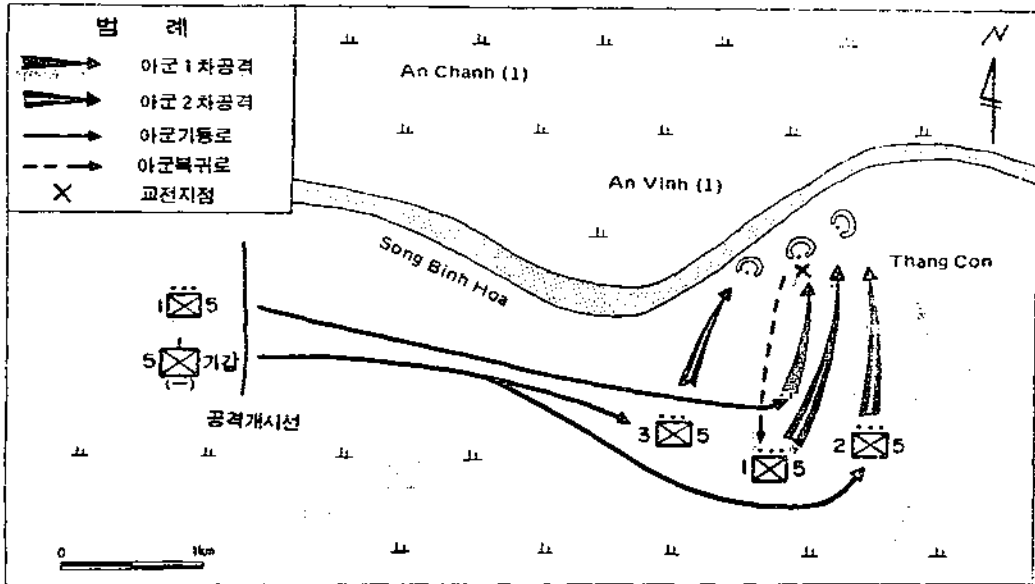
중대 黨面의 VC들은 중대가 물러날 기미를 알아 차린듯이 곳곳에서 박격포의 사격을 가하여 退路를 차단하려 하였으며 My Thuan(1)을 떠날 무렵에는 최종 연호를 담당한 제 2소대에 저격을 가하였으나 負傷者가 없었으며 18.00에 기지인 △83로 復歸하였다.

(다) 제 5중대 제 1소대(장, 李崑株 소위)는 이날 07.00에 중대기지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Thn Thien Thuong에 進出하여 연대수색중대의 渡河를 掩護한 연후에 제 19번도로의 “A” 도로를 따라 Thang Cong에 이르는 草原지대를 通過하던 소대는 목동을 만나 敵情을 알아보았는데 서투른 對話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意思는 서로 통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말을 綜合하면 「Binh Hoa江 南岸의 Thang Cong과 그 東쪽의 My Thanh 일대에는 VC의 出沒이 거의 없고 同江 北쪽 沿岸 일대에는 그들의 遊動이 빈번하다.」라는 內容인듯 싶었다.

본시 이 지대는 연대수색중대가 도맡아 몇차례의 埋伏을 실시하였으며 이 草原에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들도 모조리 잘라낸 곳이어서 소대는 처음부터 敵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므로 목동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로 하였으며 계속 “A” 도로를 通하여 11.00에는 Thang Cang西쪽 중간지점에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3개분대를 전제순으로 右側, 中央, 左側에 각각 벌여 상호연호하면서 즉차적으

狀況圖 제45호 제5중대 戰鬪



로 마을 南側方에서 進擊케 하였다. 그런데 소대가 “A”도로를 건너 100m 앞까지 進出하였을 무렵 부락 正面과 左右 兩側方의 엄폐된 곳에서 자동화기를 비롯한 소총사격이 일시에 加하여져 소대는 그자리에 釘着되고 말았다.

이렇듯 不시의 集中사격을 加한 VC들은 이미 소대의 공격 기미를 알아차리고 近接하기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數는 헤아릴 수 없었으나 火力으로 미루어 1개소대(+)규모로 보였다.

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노출된 지역에서 그대로 進擊하다가 損失을 면치 못하리라 判斷하고 일단 “A”도로 넘어로 물러섰다가 支援포격을 加한 연후에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를 엄호하던 제 1분대 金尙秀 일병은 자동소총의 연발이 잘 안들어 이를 손질하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VC의 총격으로 어깨에 貫通傷을 입고 그자리에 쓰러졌다.

이때 옆에서 이를 지켜본 金石根 일병이 달려들어 그를 등에 업고 소대의 뒤를 따랐으나 노출된 지역이라 결국 敵의 集中사격을 받고 허벅다리 貫通傷을 입었으며 업혀가던 金尙秀 일병은 등에 致命傷을 입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도 李崑洙 소위는 당황하지 않고 소대를 전두지휘하여 그 火網을 벗어나 “A”도로 뒤에 散開하였으며 可用한 火力으로써 30분 동안 應戰하다가 負傷者를 후송하는 “헬리콥터”편으로 觀測장교가 도착함으로써 이 때부터 支援포격이 이루어졌다.

한편 중대기지에서 소대의 戰況보고를 接한 제 5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제 2, 제 3 兩소대를 접결시켜 車輛便으로 急遽 기동하였지만 소대가 진출한 “A”道路邊에는 1시간 뒤인 14. 10에 야 도착하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지원포격도 끝난 다음이므로 중대는 제 2소대(장, 朴晟煥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3소대(장, 金 鉉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 1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前과 同一하게 同마을 中央쪽으로 直衝하였다.

그리고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소대마다 區間躍進으로 進出케 하여 敵의 急襲에 대비케 하고 14. 30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5. 30에 Thang Cong을 점령하고 탐색을 벌였으나 VC들은 포격을 避하여 이미 退散한듯 跡적이 없었으며 交通壕와 개인호에서 포격에 의한 유기시체 16具를 確認한 後에 16. 30까지 탐색을 끝마치고 기지로 돌아갔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 戰鬪에서는 전사 6명, 부상 22명을 넘으므로 제 1 기갑연대가 지금까지 치른 전투중에서 가장 損失이 많은 反面에 戰果에 있어선 추정사살과 포격에 의한 유기시체 확인정도로 그쳤다.

그러나 該지대에 據點을 두고 遊動하던 地方 VC인 Bac Giang중대에 적지 않은 打擊을 주어 Tra Ran Son 山쪽으로 退散케 하였으며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VC의 裝備와 戰術을 어느 정도나마 터득케 되어 다음 전투에 도움을 주었다. 연대는 이 전투를 끝마친 다음 날부터 Bac Giang중대가 集結한 Tra Ran Son山 일대에 對하여 연대규모로서 작전을 버기로 계획하고 이 전투의 失敗要因과 敎訓을 綜合분석하여 長短點을 가려내었으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대책을 講究하고 未備한 點을 補填하였다.

그리하여 2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번개 66-3호 作戰」을 전개하여 射殺 106명, 俘虜 33명, 용의자 432명을 檢索하는 파월이래 最大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거니와 이 전투의 失敗要因은 연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단 전 예하 부대에서 도 이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前轍을 밟지 않도록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사  살	추정사살	수  류  탄	전  사	전  상
12	33	25	6	22

※ 추정사살은 전투상보에 의한 것임.

## § 参戦者の証言

## 제1기갑연대 작전주임 李 孝 소령

(1978년 6월 19일 고려대학 학훈단장실에서 : 당시 대령)

이 전투는 연대전술책임 지역내에서도 전투를 전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우선 敵情을 살펴보고 지형이나 敵의 방어시설을 探知하려고, 당초계획은 △83의 제 2중대만으로 실시하려다가 연대수색중대와 습격케 하였으며 제 5중대 1개소대를 Con江 南岸에서 견제토록 하였다.

사단 정보관단에도 이 지역내에는 VC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當時 “게릴라”活動은 VC 2~3명이 소총을 지니고 4~5명은 비무장으로 같이 행동하다가 그중에서 1명이 죽으면 그 총을 다음 사람이 갖고 싸우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1개분대가 나타났으면 소총은 2정이나 아니면 3정 정도로 推算하게 마련이었는데 이 지대에 地方 VC으로 奸惡한 Bac Giang중대가 據點을 두리라고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VC 1개중대에 우리 2箇중대가 물러서다니 하고 越南戰에 参戰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다.

同一한 兵力으로써 防禦와 공격은 언제나 방어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물며 越南같은 “게릴라”戰에서는 部落내부에 VC들이 交通하나, 掩體호, 그리고 竹造物등 많은 장애물을 시설하고 엄폐된 곳에 隱遁하였다가 狙擊을 가하곤 하여 경험이 不足한 初期에는 많이 당한 셈이다. 이 전투도 그러한 VC의 狙擊과 奇襲에 제 2중대와 연대수색중대가 모두 賀戰경험이 없어 損失을 보게 되었으며 다음날 부터 「번개 66-3호 작전을 계획키로 하고 공격을 留保하였다.

그리하여 「번개 66-3작전」을 2개대대(+ )로써 이 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이 「花郎 2호 전투」의 경험과 교훈으로 큰 전과를 거두게 되었다.

## 제1기갑연대 제2중대장 金 秉 圭 대위

(1978년 4월 14일 제 3 관구사령부에서 : 당시 중령)

「花郎 2號 戰鬪」지대는 우리중대 기지인 △83에서는 東쪽으로 3km 안밖의 距離에서 當初 우리중대로써 夜間공격을 계획하였다가 연대수색중대와 함께 併進하여 탐색을 벌이도록 하였다.

My Thuan까지는 중대가 埋伏 또는 소대단위로 여러차례의 탐색을 벌인 곳이어서 地形이나 敵情을 파악하고 있어 쉽게 進出하였으나 My Thuan(1) 일대에 대하여는 중대는 물론 연대로서도 전투 한번 해보지 않은 곳이어서 地形이

나 敵情을 전혀 모르는 지대이다.

더구나 당시 배부된 항공사진에도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빠져 있어 부락내부의 도로나 敵의 방어시설 같은 것은 알 길이 없었다. 중대가 My Thuan(1)에 近接하여 2개소대 엄호로 제 3소대를 공격케 하였는데 이 때 前面에 巨木으로 둘러 쌓인 마을 前端에서 VC들이 피봇는 集中사격으로 말미암아 소대는 1명의 戰死者와 1명의 戰傷者를 내고 공격이 頓挫되자 제 1소대로 하여금

超越공격케 하였다.

My Thuan(1)은 西에서 東으로 2km가 넘는 큰 부락으로서 人家가 密集되었다가 끊겨지고 그 사이에 田畠이 이어지다가 또 人家가 계속되곤 하여 논밭을 通過할 때마다 VC들이 엄폐된 곳에서 박격포와 기관총을 亂射한 탓으로 苦戰을 겪었다.

그리하여 제 1소대도 前端 마을에서 논밭을 通過하다가 VC의 火網에 걸려 소대장 明山玉 소위를 비롯한 사병 9명이 負傷을 입고 진격이 挫折되었다.

이 때 제 3소대를 이끌고 제 1소대 進出지점에 나갔더니 朋소위는 顔面에 破片傷을 입고 失神상태에 놓여 있었고 57mm 무반동총분대는 거의 모두가 負傷을 입었다. 그리고 소대원들은 사기가 저하하여 눈독 뒤에서 표적도 없이 射擊만 加하여 무모하게 彈藥만 소모하고 있었다.

觀察장교로 하여금 긴급히 지원포격을 加하게 하고 나는 흠어진 兵力을 수습하여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이 때 VC들은 砲擊을 避하여 다음 음폐된 곳으로 退却한듯 저항이 없었다.

중대가 My Thuan(1)의 中間마을을 공격하다가 또 그들 火力에 부딪혔으므로 나는 제 1소대에서 특공조 9명을 抽出한 다음 이를 이끌고 北쪽을 迂回하여 側背에서 自動火器를 격파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My Thuan(1) 北쪽에는 水路를 낀 쪽이 있어 그들은 어느새 특공조의 侵透를 알아차린듯 그곳에 기관총을 배치하여 進路를 차단하므로 끝내 이를 뚫지 못하고 중대진출지점으로 되돌아 오다가 그들의 박격포 破片에 無電兵이 負傷을 입었으며 또 한발이 나와 관측장교 앞에 떨어져 미처 피할 겨를도 없었는데 이것이 不發彈이 되어 두 목숨을 건졌다. 여기에서 포격을 요청하였으나 「救急 “헬리콥터”가 비행중이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戰果機까지 出擊하여 My Thuan(1)을 強打하였으나 同 마을을 완전 占領하지 못하고 日沒이 가까와 기지로 복귀하였다.

戰鬪後에 1개소대를 뽑아 退路를 차단치 않았느냐고 叱責을 받았지만 그 때 狀況으로서 部落 内部의 敵이 더 時急한데다 戰鬪 經驗이 없는 신임소위에게 1개소대를 맡겨 敵後方에 侵透시키기에 마음내키지 않았다.

한날 변명 같지만 제 3중대가 이 戰鬪지대 東쪽으로 3km 밖에 안되는 곳에 기지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로 하여금 同部落 東쪽이나 北쪽으로 進出시켜 遮斷케 하는 措置를 取하였다면 VC들이 그렇게 頑強히 저항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戰果도 擴大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제1기갑연대 제5중대장 李 權 馥 대위

(1978년 2월 2일 제 5공수여단에서, 당시 대령)

이 戰鬪는 제 2중대와 연대수색중대가 My Thuan(1)과 An Vinh을 공격하고 우리중대는 제 1소대가 차단부대로서 Binh Hoa江 南쪽 Thang Chang을 占領키로 하였는데 소대가 敵의 自動火

力에 부딪쳐 물러서게 되자 急遽 2개소대를 이끌고 支援하였으나 그때에는 支援砲擊으로 敵을 強打한 後였으므로 接敵없이 目標을 占領하였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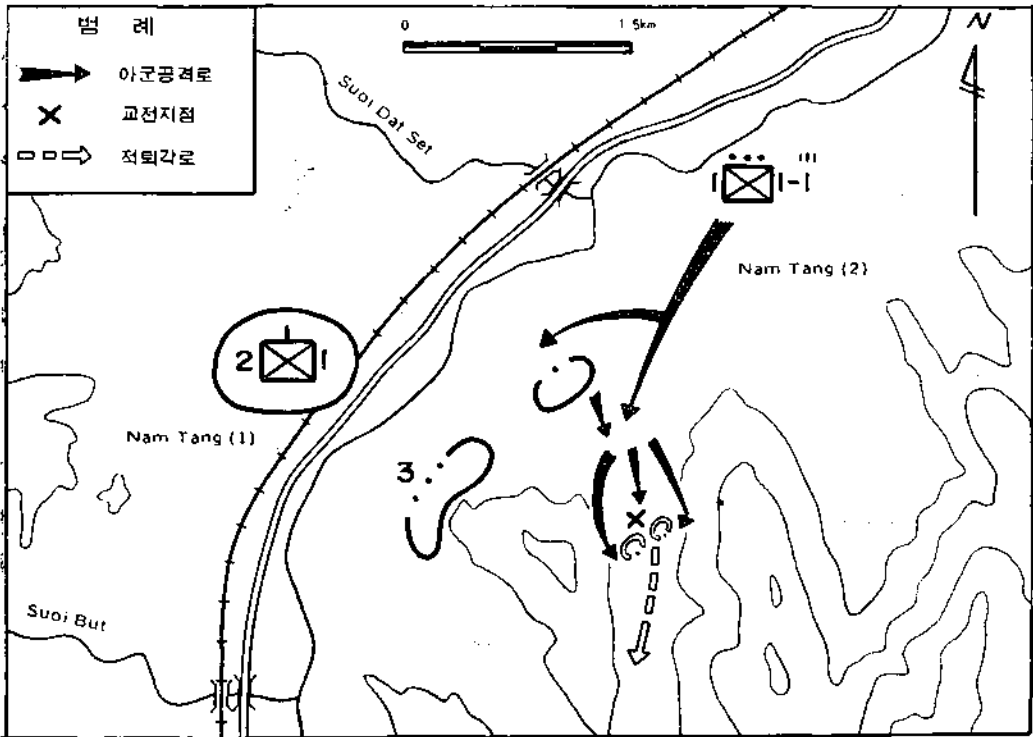
대대장 裴貞信(改名: 貞道) 중령은 지형과 敵情을 분석한 다음 제 1 중대장 李學健 대위에게 명령하기를 『중대는 1개소대를 Suoi Nhien (溪谷)에 즉시 투입하여 潛動하는 VC을 擊滅하라.』고 하는데 이어 제 2 중대의 1개소대는 河川 건너편  $\triangle 253$  南端에서 埋伏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중대장은 제 1 소대를 出動시켰고 제 2 중대에서는 제 3 소대를 지체없이 現地에서 埋伏토록 하였다.

이날 10.00에 제 1 중대 제 1 소대장 金成燮 소위는 3개분대 28명을 지휘하여 Suoi Nhien (河)을 따라 上流로 進出하였는데 이때 무전기에 대대장이 직접 나와 『수시로 位置와 상황을 보고하라. 81mm 박격포가 직접 支援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그때까지는 별다른 狀況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뒤 중대장과 무전교신이 되면서부터 標高 30m인 무명高地에서 소를 몰고가는 소년을 만났는데 이들은 我軍을 避하여 溪谷쪽으로 도주하려는 기색이 보이므로 VC의 偵探꾼이라는 疑惑에서 그 소년을 我軍초소에 보내 대기케 한 다음 50m 진출하다가 敵의 발자국을 보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 金소위는 이 痕跡이 불과 數時間전에 생긴것임을 확인하자 즉시 선임하사에게 기관총 1개조를 주어 溪谷入口의  $\triangle 25$  一帶에서 攻擊부대를 掩護케 하고 나머지 兵力을 직접 지휘하여 “V”字 대형으로 展開한 다음 柳南洙 상병을 尖兵으로 하여 進進하였다. 이리하여 50m 진출하였을 때 哨兵이 報告하기를 『前方 200m지점에 一群의 병력이 모여있다.』라고 하자 소대장은 곧 右側능선에 올라 敵陣을 살폈다. 그런데 그들은 2개분대 규모로서 溪谷의 兩쪽에 埋伏하여 아군의 접근을 기다리는 듯 하였으므로 이를 逆이용기로 결심하고 각분대장을 불러 命令하기를 『敵은 溪谷의 左 右능선에 埋伏하여 我軍을 유인하려 한다. 소대는 陽動으로 그들을 逆유인하여 殲滅코자 한다. 제 2, 제 3 兩분대는 敵의 背後로 침투하여 潛伏하다가 제 1분대가 敵의 유인에 말려든것처럼 가장하여 溪谷에 들어가 銃擊戰을 전개하면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이를 掩襲하라 소대장은 제 1분대를 직접 지휘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 전투는 彼我間의 策動的 競争이 될 것이다. 溪谷에서의 전투는 殲滅 아니면 慘敗뿐이니 이러한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企圖비척이다. 敵에게 露出되지 않고 森林을 이용하여 逆埋伏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소대장 金成燮 소위는 右一線 제 2 분대를  $\triangle 300$ 의 5部稜線으로 우회시키고, 제 3 분대를  $\triangle 253$ 의 一角으로 돌려 敵의 側背에 潛伏케 하자 곧 제 1 분대를 신개하여 溪谷을 探

索하는 양 서서히 敵 방향으로 移動하였다. 그런데 여기는 넓은 곳의 물의 流幅이 갑자기 좁아져 急流를 이루는 여울목이므로 물소리 또한 요란하여 아군이 接近하는데 유리하였다. 잠시뒤 소대가 溪谷에 접어 들었을 때 VC 2명이 50m 離隔된 곳에서 我軍에게 탄모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上流쪽(敵이 埋伏한 지역)으로 도주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은 『敵도 我軍을 유인하는구나.』라고 직감하고 제 1분대를 직접 指揮하여 그들의 術수에 말려든 것처럼 進擊하다가 敵의 埋伏隊와의 거리가 50m쯤되자 갑자기 추격을 보류하고 溪谷에 散在된 슬한 바위밑에 분산 埋伏하자마자 退走하는 2명에게 총격을 加하였다. 이에 VC들은 我軍을 더 가까이 유인하려던 것이 두절되자 기도가 綻露한 것을 自認하듯 일시에 사격을 퍼붓기 시작하므로 제 1분대도 이에 應射하였다. 그러나 총탄만 飛散할 뿐 敵이 모습을 나타내지 아니하자 소대장은 곧 그들의 斜射와 側射에 물리는 듯 撤收를 가장한 바, 敵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隱蔽된 지역에서 뛰쳐나와 제 1분대를 挾擊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狀況圖 제46호 제1중대 제1소대의 攻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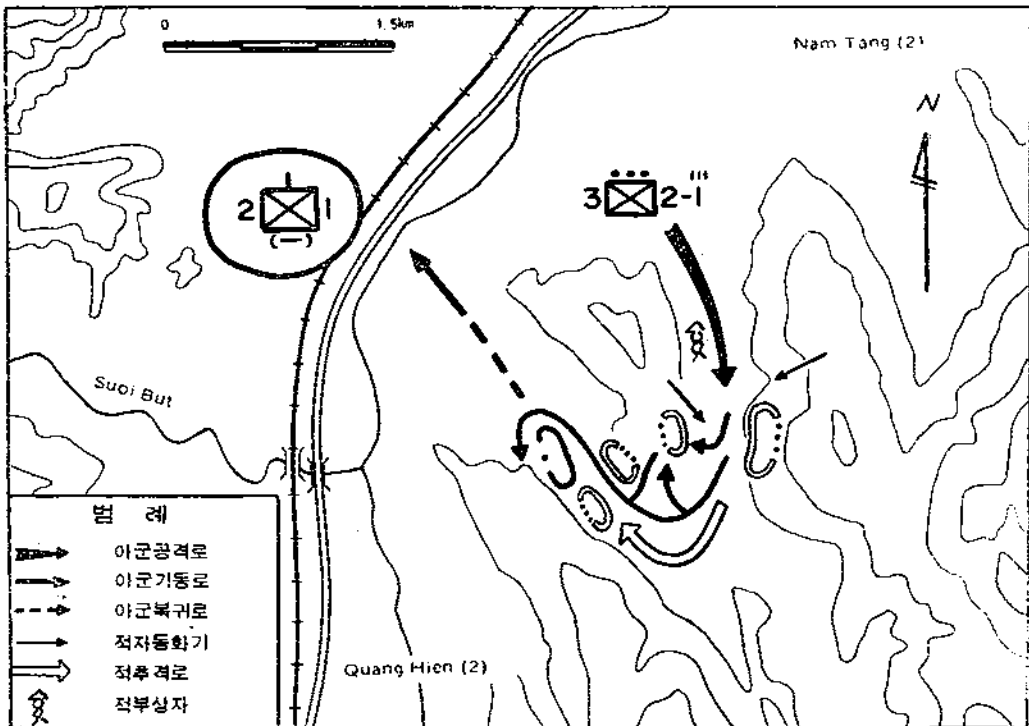
이때 △253의 左側 5부稜線으로부터 몇발의 총성이 울리더니 VC 3명이 사살되고 △300 4부稜線에서는 一發의 총성이 울릴때마다 VC 1명이 쓰러졌다. 이에 비로소 敵은 我軍에게 逆包圍되었음을 깨닫고 退却을 서둘렀으나 때는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이 △253 방향으로 退却을 꾀하였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아군의 총탄이 그들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지휘자마저 屍體로 變하자 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분별하게 제 1 분대방향인 溪谷으로 뛰어 들고 말았으니 이를 두고 以卵投石格이라고 할 것이다. 잠시뒤 Suoi Nhien (溪谷)에는 敵의 遺棄屍體 10具가 어지러히 널려있었고 그들의 誘引兵외에는 살아서 潰走한 者가 없었다. 소대장 金成燮 소위는 제 3 분대(장, 魚在弘 하사)에 四周경계를 맡기고 부근일대를 탐색하여 USSR製 소총 1정과 CAR소총 2정 그리고 수류탄 5발과 소총실탄 310발을 노획한 다음 △253와 △25 사이에서 敵의 退路를 차단하고 埋伏中인 선임하사조의 掩護下에 歸路에 올랐다.

한편 이러한 보고를 接한 연대장과 부대대장(※ 대대장 不在 : 제 2 대대장실에서 작전에 관한 의견 교환중)이 제 6 번B道路에 달려와 쌍안경으로 溪谷을 주시한 다음 아직도 Suoi Nhien의 깊은 곳에는 VC이 潛在하고 있을 것이라고 推斷하고 다시금 該지역의 探索을 명령하였다.

이에따라 부대대장은 △253 入口에 埋伏中인 제 2 중대 제 3 소대장 威德善 소위에게 出動을 指示한바 該소대는 즉시 “V”자대형을 취하여 溪谷을 휩쓸면서 제 1 중대 제 1 소대의 激戰地를 지나 丘陵에 접어 들었는데 이때 숲에서 VC 2 명이 重傷을 입고(제 1 중대 제 1 소대의 총격을 받은 敵의 誘引兵으로 추단) 수류탄을 든채 신음하고 있는것을 目擊하였다. 그러나 我軍은 기도를 비닉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이들을 刺殺하였다. 잠시뒤 密林지대를 통과한 소대는 개활지로 進出하여 10×50m의 “부비트랩”지대를 探知하고 제 3 분대부터 우회전진 하는데 갑자기 △253 東쪽의 標高 150m능선으로부터 敵의 자동화기사격을 받았다. 이에 제 3 분대장 李正澤 하사는 즉시 분대원을 이끌고 開豁地를 우회한 다음 소대의 진출을 掩護하는 一方, 敵의 자동화기를 제압하였는데 이때 소대의 左側背에서 또다른 敵의 자동화기 사격이 集中되었다. 소대장은 곧 소대원을 이끌고 “부비트랩”지대를 △253방향으로 우회하자마자 커다란 웅덩이에 뛰어들어 應戰하는데 뜻밖에도 △325로부터 VC 一羣이 나타나 溪谷을 사이에 두고 총탄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은 3面이 包圍되었음을 直感하고 중대에 增援을 요청하였으나 여기는 深谷인지라 교신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故國의 어느 少女의 편지내용이 생각났다. “戰地에선 勇者만이 살아날 수 있고 勇者는 어떠한 逆

境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소대장 感德善 소위는 정신을 가다듬고 敵情을 살핀 다음 호령하기를 『소대의 退路는 차단되었다. 따라서 소대는 △253를 回轉軸으로하여 南西쪽으로 우회한 연후에 소로를 따라 제 6번B도로로 撤收한다. 선일하사는 제 1분대를 지휘하여 △32의 VC를 牽制하면서 소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제 3분대는 △253의 敵을 공격하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제 1분대가 △325와 △300의 敵과 총격전을 전개하고 제 3분대는 △253의 VC과 混戰을 벌이자, 이 기회를 捕捉한 소대장은 제 2분대를 이끌고 血路를 개척하면서 제 6번B도로와 연결된 小路邊에 있는 독립가옥에 도착하자마자 右側으로 轉進하면서 △253 東쪽(敵의 背後)을 直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該地域의 敵이 上 下에서 挾攻을 받고 東쪽 계곡으로 退却하자 소대장은 곧 奮戰中인 제 1분대를 뽑아 낸 다음 제 3분대를 斥候隊로 하였는데 이때 2개소대 규모의 VC들이 數정의 자동차기를 앞세우고 소대의 進路를 차단하려 하였다. 이에 제 3분대장 金正澤 하사는 소대가 殺傷지대에서 빠져나갈 시간을 얻기 위하여 對峙한 徒黨들을 가로막고 奮戰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時間이 흐를수록 守勢에 놓이게 되

狀況圖 제47호 제 2 중대 제 3 소대의 奮戰



어 마침내는 쏟아지는 VC들의 強雨를 避하지 못하고 全身 貫통상으로 鎗血을 뿌리는 바 되었으니 愛惜하기 그지 없었다.

한편 소대장은 제 1분대를 狹路에까지 뺏아내자 곧 제 2분대를 小路 左側에 잠복시키고 제 3분대를 철수토록 하였다. 잠시뒤 該分대와 불과 100m 거리를 두고 兇히 추격하는 무리가 小路에 발을 딛는 剎那, 일제히 총격을 집중하고 물러나던 제 3분대도 反擊을 시작하니 敵 2개소대는 아군의 逆埋伏에 걸렸음을 알았는지 退却하는데 바빴다. 이리하여 소대는 狹路에 도착하자 “헬터콧터”를 요청하여 鎗하사를 후송(以後 전사)하고 뒤늦게 出動한 中대의 掩護下에 복귀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 戰鬪를 通하여 Suoi Nhien (溪谷) 일대에는 최소한 1개중대(-) 규모의 VC이 盤踞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한 데에는 제 6번B도로와 鐵路의 保衛 및 地域주민들의 安穩를 위하여 警戒를 강화하는 한편 Nam Tang (2)과 該溪谷입구에 哨所를 보강하여 출몰하는 敵을 擊滅하였다.

綜合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 살	추 사	노 회			건 사	전 상
			개인화기	수류탄	실탄		
제 1 중대 제 1 소대	10		3	5	310		
제 2 중대 제 3 소대	2	1		2		1	
합 계	12	1	3	7	310	1	

### § 戰 訓

#### 狀況에 即應하는 能動的인 態勢의 必要

1. 제 1 중대 제 1 소대는 VC이 埋伏한 것을 窺破하자 곧 遊擊戰을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군을 誘引하려 하므로 我軍은 여기에 속아넘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埋伏지역으로 들어 갔다. 敵은 뜻하지 않게 背後로 침투한 我軍의 強打로 殲滅을 면치 못하였다. 特別 逆埋伏한 병사들은 潛伏한 상태에서 노출된 VC들을 一彈에 一敵을 쓰러뜨림으로써 그들을 狹谷으로 몰아 넣

은 다음 殲滅하였다. 이와같이 敵情을 먼저 알고 誘引하는 敵을 기만하여 그들의 背後를 奇襲한 것은 평소 각개 병사들의 훈련이 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제 2중대 제 3소대의 戰況은 風前燈火格이 되었으나 敵情을 명확히 판단하여 逆襲과 기만을

互用하면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VC을 제압하였으니 비록 1명의 손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험준한 密林의 深谷에서 敵의 포위망을 깨뜨리고 7km나 되는 危急지대를 退却하는 處세가 좋았다. 그러나 軍人은 退却에 能한 것으로 자화自讚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上級部隊 措置 事項

제 1중대 제 1소대가 VC 2개분대를 殲滅하고 복귀하자 該부대장은 Suoi Nhlen (溪谷) 일대에는 敵이 殘存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該當 부대에 명령하여 제 2중대 제 3소대를 投入케 하였다. 그러나 敵情을 깊이 분석하지 않았던 탓으로 該소대는 敵의 기만술책에 말려든 바 되었으니 敵情이 曖昧模糊한 가운데 一次 敵을 擊滅하였다고 하여 1개소대 규모의 단일 탐색부대를 再投入하였다는 것은 敵의 전법("게릴라"전)

을 度外視하였다고 보겠다. 또한 狹谷에 들어간 소대와 交信이 되지 않으면 지원부대를 急派한 다든지 偵察機에 의한 중계지휘를 하는등 여러 가지 方法을 모색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背後조치가 미급했으며 또 소대가 險地에서 踰수하였을 때 敵의 위치와 규모가 확인된 이상 그들이 移動하기 前에 즉각 制壓하는 策案도 講究하고 중대급以上 전투를 감행하는 것이 합당하였을 것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1연대 제 1대대장 襄 眞 信(改名: 眞道) 중령

(1978년 4월 16일 제 26사단장실에서, 당시 소장) \*

Song Ha Thanh (江) 건너편 △253일대는 제 2중대의 전술책임지역이었다. 그런데 제 2중대장이 휴가간 다음날 그곳에 VC이 出沒한다는 보고를 받고 該중대의 1개소대로 하여금 高地입구에 埋伏토록 지시하였다. 15일 09.30경에 Nam Tang (2) 里長으로부터 「1時間半 前에 VC 1개분대 규모가 Suoi Nhlen (河)을 따라 上流로 이동하였다.」라는 제보를 接한 즉시 이들을 擊滅키로 결심하고 제 1중대장에게 出動을 명령하니 예하 제 1소대가 달려나갔다. 본인은 곧 제 1중대(-)를 대기시키고 중화기중대장에게 직접지원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한 다음 出動한 소대장 金成變 소위에게 부건기로 직접 지시하기를 『상황보고와

더불어 現 위치를 수시로 알리라. 砲火가 직접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몇시간이 지나도록 敵의 痕跡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본인은 작전통제를 부대대장에게 맡기고 중대장이 직접 부건으로 指揮토록 한 다음 연대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될 작전에 관하여 협조하고자 제 2대대로 갔다. 同대대장 李弼朝 중령과 함께 敵의 動向과 我軍의 훈련상태 및 자체경계 등에 關하여 意見을 교환하고 있을 때 대대로부터 「제 1중대 제 1소대가 VC을 急襲하여 10명을 射殺하고 소총을 노획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19.00가 조금 지나서 李중령과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 2중대의 威德善 소위가 敵陣에 들어가

鴨鵝峯에 血路를 뚫고 나왔다고 하므로 즉시 중대에 달려가보니 碧血이 마르지 않은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나는 곧 該지역에 砲兵화력을 요

청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보류하고 말았다.

### 제 1대대 제 1중대 제 1소대장 金成燮 소위

(제 26사단 제 76연대 제 1대대장, 당시 중령)

09.00, 중대상황실에서 제 2소대장 鄭豊田 소위와 함께 중대장의 설명을 듣고 次期 중대의 경계 計劃 변경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었다. 1시간쯤 뒤 갑자기 대대장의 出動명령이 떨어지자 본인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隊員 28명을 이끌고 現地에 달려갔다.

처음 무전기에는 대대장이 직접 나와 지휘하였으나 敵을 捕捉치 못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중대장이 나왔다. 잠시뒤 본인은 越南소년을 만났고 또 敵의 흔적을 目撃하자 중대에 보고한 다음 무전기를 꺼버렸다. 무전기의 雜音이 기도비닉을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대는 즉시 공격 준비를 갖추었다.

선임하사에게 기관총 1개조를 주어 △25를 遮斷케 하고 柳蔭蓊 상병을 尖兵으로 하여 前進하는 데 갑자기 첩병이 돌아와 「소대장님 我軍복장을 한 괴한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순간 나는 「美軍이 我軍과 헛조지 않고 小隊의 병력으로 深山幽谷에 들어올 理가 없다. 이는 틀림없이 VC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溪谷의 右側 岩盤(바위와 바위사이에 雜木이 우거져 隱蔽를 제공하였음)위에 올라가 관찰하니 예측대로 敵 2개분대 규모가 여울목을 건너 山路의 兩側에 埋

伏하는 一方, 몇몇 무리는 壕를 구축하고 있었다.

본인은 곧 가장 잘 싸운다고 생각되는 제 3분대를 險峻한 △253 방향으로, 제 2분대를 △300 방향으로 우회시켜 敵의 左右兩側 背後에 잠복토록하고 敵의 정체가 노출되기 前에는 일체의 사격을 통제하도록 該當분대장에게 지시한 다음 출동시켰다.

그런데 敵도 아군이 가까이 접근하였음을 알았는지 그들의 경계병 2명이 我軍을 유인코자 하였으나, 결과는 그들이 자기피에 자기가 넘어가는 격이 되어 警戒兵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을 모두 사살하였다. (그뒤 威德蓄 소위의 말에 의하면 도주한 警戒兵 2명도 중상을 입었나함.)

본인은 다른 VC의 逆埋伏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 철수를 시둘러 제 6B번도로에 나오니까 연대장과 부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연대장이 쌍안경으로 전투지대(溪谷)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殘敵이 남아있는것 같다 兵力을 다시 투입하라」고 하자 부대대장은 「지금 困難하다」고 진언한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뒤에 본인의 소대가 중대 基地로 복귀한後 제 2중대 제 3소대(장, 威德蓄 소위)가 投入된 것으로 안다.

## 16. 번개 66—3號 作戰 (1966년 2월 26일 부터 1966년 2월 28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0 호  
상 황 도 제 48~50호

###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제 8 중대 장(대리)중위 張錫麟	
首都사단장 소장 蔡 命 新		연대수색중대 장 대위 金 大 憲	
(2) 參加部隊		제 1 연대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申 鉉 銖		제 10 중대 장 대위 李 圭 鳳	
제 1 대대 장 중령 朴 漢 英		포병제 61 대대 장 중령 梁 鳳	
제 1 중대 장 대위 金 大 植		제 1 포대 장 대위 鄭 會 慶	
제 2 중대 장 대위 金 秉 圭		제 2 포대 장 대위 張 洪 烈	
제 3 중대 장 대위 李 元 洋		제 3 포대 장 대위 金 振 奎	
제 4 중대 장 대위 金 秉 燁		포병제 628 대대	
제 2 대대 장 중령 金 容 振		제 3 포대 장 대위 金 鍾 鎬	
제 5 중대 장 대위 李 權 馥		(3) 支援部隊	
제 6 중대 장 대위 李 泰 一		美제 161 “헬리콥터”중대	
제 7 중대 장 대위 李 鍾 九			
	敵		軍
Binh Dinh省			VC, E-210대대 1개중대
地方 VC, Bac Giang중대			

### 나. 作戰 前의 概況

本作戰지대는 Binh Dinh省 Binh Khe部の 東部 平野지대로서 大部分이 水田과 濕地이고 越南 特有의 熱帶性 樹木으로 둘러쌓인 部落이 稠密하게 산재하고 있으며 Song Con(江)과 Song Binh Hoa(江)



가 西에서 東으로 貫流한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있어서는 北쪽에 屹立한 標高 151의 Tra Ran Son山이 獨立 고지로서 가장 높고 그 西쪽에 Bea Duoc Son山과 Con江 下流 北岸에 있는 △83가 있을 뿐이다. 이 중 △83에는 派越 初期부터 1개 중대를 배치하고 연대 前哨陣地로 사용하여 北쪽 일대의 敵을 制扼하면서 敵情을 偵探케 하였다.

同고지에서는 대체로 視界가 양호하나 堤防과 茂盛한 樹木, 그리고 散在한 草家들은 直射火기의 射界를 제한하였다.

더구나 耕作된 畝는 秋收期를 앞두고 좋은 은폐물이 되었으며 부락 내부에는 개인壕와 交通壕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天然 장애물로서는 Song Con(江) 및 Song Bing Hoa(江)와 이에 連結되는 小河川, 그리고 An Vinh 일대의 濕地帶가 있으며 人工 장애물로서는 주로 부락을 중심으로 설치한 鐵條網과 竹成物이 있고 함정, 지뢰, “부비트랩”등도 교묘하게 埋設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2월 12일 該지대내의 My Thuan 및 An Vinh 일대에 제 1대대(-)를 投入하여 「花郎 2호 戰鬪」를 벌였으나 所期의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VC과 激突하여 28명의 戰死傷者를 내고 최종목 포인 Nhon Thuon(1)까지 進出하지 못한 채 My Thuan(1)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이에 연대장 申鎡鍊대령은 그 다음 날부터 本 전투를 계획하였으며 2개대대(+)로써 包圍圈을 形成하고 지역내의 敵을 撲滅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花郎 2호 戰鬪」에서 입은 뼈저린 損失과 그 前轍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2週前인 2월 13일 준비명령을 下達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전투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當面の 敵은 地方 VC, Bac Giang중대 및 VC E-210대대의 예하 1개 중대로 推斷되었으며 2월 25일 Binh Khe部的 提報에 따르면 VC, E-212대대의 一部 兵力도 Tra Ran Son山 일대에 據點을 두고 跳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兵力은 4개 중대가 150명~200명선으로 推算되었으며 裝備로서는 自動火器 및 CAR소총과 中共製 소총등의 個人火器, 그리고 중대 단위로 重輕기관총 각 3정, 60mm 박격포 3門 이상을 保有한 것으로 알려졌다.

該지대는 오랫동안 VC의 支配勢力에 놓여 있었던 관계로 부락 주위에는 견고한 掩體壕를 구축하고 내부에는 四方을 連絡하는 “之”字形의 交通壕를 利用하여 直射火力の 보호를 받아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爆彈과 포격의 보호도 받을 수 있도록 有利한 위치를 선정하여 有蓋壕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江邊이나 대나무 숲 같이 은폐된 곳에는 地下壕나 동굴을 파서 待避壕로 사용하고 부락 주변에는 대부분 견고한 철조망과 竹成物이 설치되어 있었다.

本 戰鬪 실시전까지 當面の 敵은 분대 규모로 도합 7회의 浸透가 있었으며 이들 VC들은 接近路에 “부비트랩” 함정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은폐된 진지에 隱匿하였다가 我軍이 接近하면 주로 저격으로 損失을 주었으며 不利할 때에는 “之”字形의 交通壕를 따라 退却하면서 저항하고 거의 정확한 저격을 加하였는데 我軍 손실의 배반이 이 저격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Bao Duoc Son山 일대에서 流動하는 VC은 鐵帽을 착용하였으며 夜間에 奇襲할 때에는 민간인을 앞세우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비교적 많은 주민들이 農事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婦女子와 老人들로서 我軍에 非

協調의이었다. 期間中 일기는 대체로 晴明하였으며 오랫동안 降雨가 없어 많은 먼지와 砲煙으로 因하여 觀測에 多少의 영향을 주었으며 氣溫은 예상보다 6°C나 높은 攝氏 36°C까지 올라 기동에 제한을 주었다.

이 무렵 隣接 제 1연대(장, 金斑雲 준장)에서는 2월 27일 1개중대로써 Binh Dinh省 Chi Hoa 일대에서 夜間전투를 벌여 VC 41명을 사살하고 1명을 俘虜로 하였다.

## 다. 作戰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연대는 2월 12일 제 1대대(-)로 하여금 該지대에서 「花郎 2호 戰鬥」을 전개케 하였던바 意外에도 中間목표인 My Thuan(1)에서 敵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申鉉鈺대령은 最終목표의 공격을 留保시켜 同대대(-)를 복귀시키는 同時에 基地방어에 지장을 주지 않는 最大의 兵力을 投入하여 該지대의 VC를 殲滅할 腹案을 세웠다.

그리하여 연대는 다음 날인 2월 13일부터 본 作戰의 준비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으며 2週間の 충분한 시간을 두고 現今까지 치룬 大小전투와 特히 「花郎 2호 戰鬥」의 失敗要因을 分析 檢討하여 本 作戰에 반영키로 하였는데 그 준비명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에 主眼點을 두었다.

1. 전투지역의 상세한 연구: 중대장 및 소대장은 해당지역에 2차에 걸친 항공정찰로서 지형을 파악하고 지도 및 항공사진에 의하여 敵의 진지와 부락내의 가옥구조, 통로, 장애물등을 연구케 하였으며 敵진지와 철조망, 대나무 울타리까지 사병들에게 숙지게 하였다.
2. 打撃組 편성: 부락 진입시 주변에 설치한 竹成物, 鐵條網의 打撃組를 편성, 밀목도 30개, 철조망 절단기 16개를 장비하여 공격부대 先頭에서 진출케 하고 57mm 무반동총과 砲兵火力에 依한 장애물 파괴 대책을 강구케 하였다.
3. 前進과 掩護, 사격기동 훈련의 반복: 接敵이 없을 때에는 前進과 掩護, 접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사격과 기동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반복 훈련시켰다.
4. 果敢한 공격정신의 함양: 「花郎 2호 戰鬥」의 교훈을 되새겨 敵과 조우하였을 때에는 과감성을 발휘하여 돌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5. 탐색요령 체득: 「제릴러」戰에서는 敵이 있는 곳에서도 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며, 탐색을 끝마치고 복귀하다가 저격을 받는 예가 허다한 것들을 감안하여 엄호하에 반드시 탐색을 벌이도록 하였다.
6. 보급추진 및 戰傷者 후송절차: 전투간 중대장이 재보급과 負傷者 후송조치를 병행하여야 하므로

전투지휘에 지장이 적지 않아 본 作戰에서는 부중대장이 중대장과 동행하여 이를 진담케 하였다.  
7. 其他. 戰鬪간 友軍의 식별 및 충돌방지책, 사격통제, 정확한 方向유지, 항공관측의 효과적인 이용 및 전술공군 협조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준비명령에 따라 戰鬪준비를 갖춘 연대는 2월 26일 未明 隣接제 1 연대(장, 金斑雲 준장)에서 1개중대로 該전투지대 北쪽에서 陽攻을 저는 가운데 제 1대대는 南東쪽에서 包圍圈(통제선 “성공”)을 압축하고 제 2대대는 空輸로 北쪽 Bao Duc Son山麓에 降着하여 南下하면서 包圍圈을 형성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와 제 1, 제 2 兩대대에서 1개중대씩 抽出하여 南, 西側方을 차단토록 하여 該지대 一圍의 敵을 송두리채 撲滅키로 계획을 세워 다음과 같은 要旨의 작전명령을 下達하였다.

『1. 적정 : 작전 전의 개황 참조.

2. 기간중 포병제 61대대 및 同제 628대대 제 3 포대가 직접 지원한다.

3. 제 1 연대에서는 본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개소대규모로써 목표 “A”, “B”지역에 陽攻을 실시할 것이다.

4. 연대는 현임무를 수행하면서 26일 06.00를 期하여 2개대대(+)로써 Tra Ran Son山 및 Bao Duc Son山 南쪽지대에서부터 Song Binh Hoa(江) 北岸 일대를 遊動하는 敵을 撲滅코자 한다.

5. 제 1 대대

가. 대대는 2개중대를 Tan Nghi에 進出시켜 목표 “5”, “8”, “9”, “10”, “11”을 占領하고 지역내의 敵을 剷滅하는 同時에 南東쪽을 차단하라.

나. 대대는 1개중대를 △83 東쪽에 進出시켜 목표 “14”를 점령케 한 다음 西쪽을 차단케 하라.

다. 대대는 1개소대를 D-1일 17.00까지 연대수색중대에 배속하라.

6. 제 2 대대

가. 대대는 2개중대를 “헬리콥터”로 Bao Duc Son山 北쪽 착륙지역에 공중기동시켜 목표 “2”, “3”, “7”, “10”을 점령케 하고 지역내의 敵을 殲滅하라.

다. 대대는 1개중대를 △83 北東쪽에 進出시켜 목표 “4”, “1”, “6”을 점령케 한 다음 北西쪽을 차단케 하라.

7. 연대수색중대(배속 : 제 1 대대 1개소대)는 26일 02.00~03.00 사이에 Song Con(江)을 渡河하고 06.20까지 목표 “13”을 占領한 다음 Con江 沿岸을 차단하라.

8. 각대대는 26일 13.00까지 통제선 “성공”에 進擊하여 包圍圈을 형성하고 다음 목표를 依命 공격 하라.

9. 공격 준비사격은 없으며 포병 및 航空지원은 요청에 따라 實施한다.

10. 통신 및 지휘

가. 통신 : 현행 SOI에 의한다.

나. 연대 전방전술지휘소는 26일 08.00부터 △83에 位置한다.』

위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 1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제 2, 제 3 兩중대를 Tan Nghi(1), (3)에 進出시켜 목표 “5”, “8”, “9”를 占領케 한 다음 각 1개소대씩 抽出하여 統制線 “성공”東側方에서 차단케 하고 13.00를 期하여 包圍圈內의 목표 “10”, “11”을 계속 공격케 하였으며 △83에 기지를 마련한 제 1중대로 하여금 목표 “14”를 점령케 하여 퇴로를 차단케 하였다.

그리고 제 2대대장 金容振 중령도 연대작명에 따라 제 5중대를 D—1(25일) 19.00까지 △83 北쪽 稜線에 進出케 하여 26일 未明에 목표 “4”, “1”을 점령케 하고 西쪽을 차단하면서 13.00를 期하여 통제선 “성공”을 突破, 목표 “6”을 占領한 다음 지역내의 敵을 剿滅케 하였다. 그리고 打撃部隊인 제 6, 제 7 兩중대를 26일 06.00까지 탐승지역(연대전술지휘소 北쪽)에 集結케 하고 07.00부터 “헬리콥터”로 공수기동하여 착륙지역 “6”, “7”에 각각 착륙한 다음 목표 “2”, “3”을 점령케 하고 13.00부터 統制線 “성공”을 넘어 南下하면서 목표 “7”, “10”을 공격하여 지역내의 VC를 殲滅토록 하였다.

한편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D—1(25일) 17.00에 제 1중대 제 1소대를 배속받아 Con江 北岸에 進出시켜 26일 02.00~03.00 사이에 同중대의 徒涉을 엄호케 하였다.

또한 포병제61대대장 梁 鷹 중령은 제 1포대로서 현지에서 제 1대대를, 제 3포대로서 제 2대대를 各其 직접지원케 하고 제 3포대로서 연대를 일반지원토록 하였으며 포병제628대대장 宋完進 중령은 제 3포대로 하여금 직접 지원토록 하였다.

## (2) 作戰 實施

**2월 26일(D 일)**: 이날 연대장 申鉉錫대령은 拂曉부터 작전주임 李 孝 소령으로 하여금 준비명령에 따른 각대대의 전투준비 상황을 点檢케 하고 특히 통제선 “성공”까지의 진출에 있어 기드비닉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同時에 연대전술지휘소를 08.00에 △83에 개설하였다.

한편 打撃부대인 제 2대대(-)가 공수기동하는 H—30분부터 포병제61대대는 착륙지역 北쪽 Hoa My(3) 일대에 陽動을 위한 포격을 加하였으며 H—10분에는 Bao Duoc Son山 일대에 射擊사격을 集注하였다.

이 무렵 隣接제 1연대에서도 이미 協調된 陽攻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 10중대(장, 李奎鳳 대위)를 Tan Hou(2)에 進出시켰으며 목표 “A”, “B”에 砲擊을 集中하는 가운데 陽攻을 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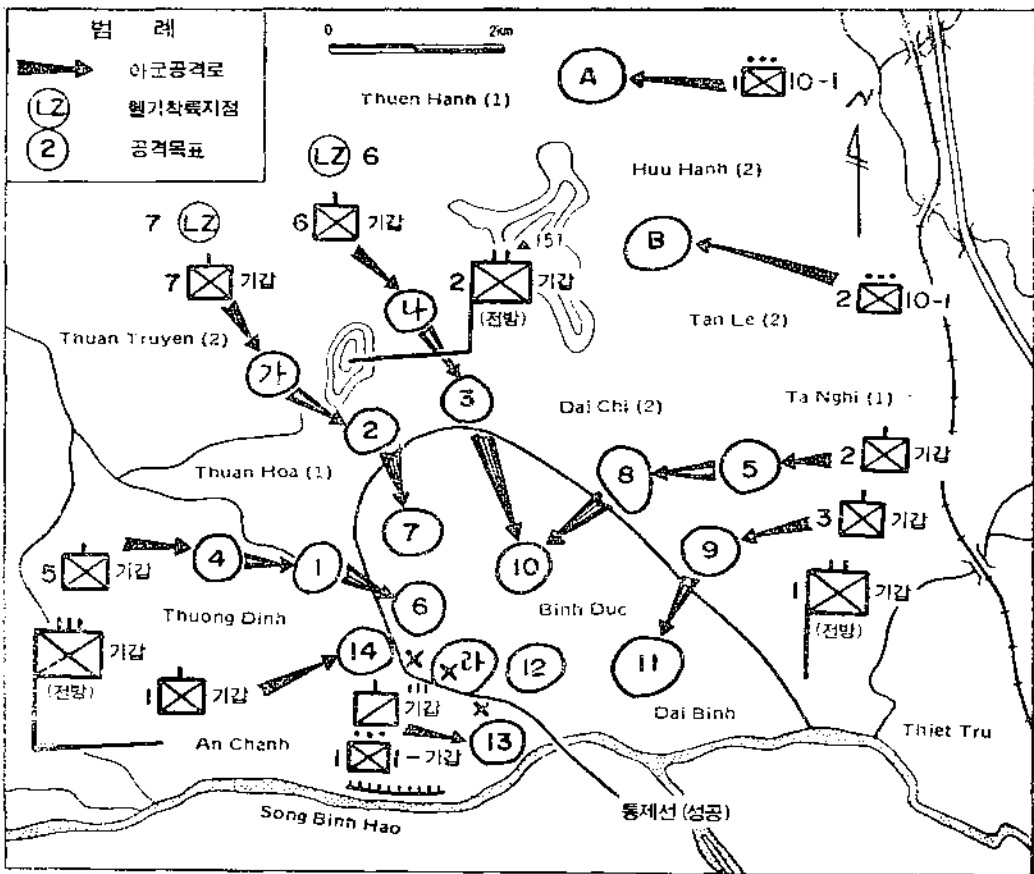
그리고 美제 161공중수송중대의 “헬리콥터” 18대는 06.30에 탐승지역에 降着하여 대기하

고 있었다.

(가) 제 2 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타격부대로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려고 끈으로 밤을 드 새우며 각중대의 전투준비 사항을 날날이 확인하였지만 이날 拂曉에는 제 6, 제 7 兩중대의 소대장과 중대장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 과감한 공격정신을 강조하면서 특히 각급 지휘관이 과감성을 발휘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敵을 포착 殲滅하는 경우와 敵의 火力에 위축되어 공격기색이 좌절되는 경우를 비교 역설하고, 한 두 병사가 戰鬪을 입었다고 공격을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心理的인 우월성, 즉 왕성한 사기는 오로지 지휘관의 과감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며 착륙지역에 있어서의 혼잡을 막기 위한 소대별 유색 깃발에 추가하여 나팔과 팽가리를 휴대케 하였다.

1. 제 5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25일(D-1) 17.00에 기지를 출발하여 제 19 번 도로의

狀況圖 제 48호 번개 66-3號 作戰(2월 26일)



“A” 도로를 따라 Lai Nghi(1)을 經由 Con江邊에 도착하였으며 同江을 徒涉한 연후에 △3의 北東쪽 稜線에 進出하여 埋伏으로써 자책경계를 強化하면서 徹夜하고 이날 06.20를 期하여 공격에 나섰다.

이 때 중대는 제 1소대(장, 李崑洙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2소대(장, 朴辰煥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 3소대(장, 金 炫 소위)를 지원소대로 하였으며, 화기소대와 중대분부는 이를 後繼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細川을 건너 목표 “4” (Van Tuong)로 直衝하였으나 접적이 없는 가운데 同목표를 점령하고 계속 목표 “1” (My An)로 指向하였는데 10.40에 右一線에서 My An 南西쪽으로 進擊하며 探索을 벌이던 제 1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마을 어귀에서 獨立 家屋內部로 通하는 地下통로를 찾아내었다. 이 때 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이 통로와 연결된 동굴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는 반드시 VC들이 隱避하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出口도 있을 것이라」고 判斷하고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左一線 제 2소대로 하여금 마을 北南쪽을 차단토록 요청한 연후에 화기분대 엄호하여 제 3분대로써 지하통로를 탐색케 하고 소대장은 제 1, 제 2분대를 휘몰아 마을로 突入하였다.

이와 같이 李崑洙 소위는 기민한 조치로 人家가 밀집된 쪽으로 進擊하여 덩굴진 나무 울타리와 숲으로 둘러싸인 人家 30m 앞까지 進出하자 내부 동정을 살피다가 巨木에 은신하여 망보는 VC 1명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소대(一)는 이를 사로 잡으려고 左右에 包圍를 좁혀 接近중 VC이 이를 눈치 채고 무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潰走하였으며 이 때 VC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동굴속에서 뛰어나온 6명을 急射로 사살하고 도주하는 1명도 끝내 뒤쫓아 俘虜로 잡았다.

그리고 獨立 가옥의 지하통로를 뒤지던 제 3분대는 白米 10駄를 확인하고 용의자 1명을 색출하였다.

이 무렵 同마을 北西쪽을 차단하면서 마을로 進入한 제 2소대(장, 朴辰煥 소위)는 民家에서 용의자 5명을 검색하였으며 동굴 2개소를 파괴하였다.

이리하여 목표 “1”을 점령한 중대는 마을 탐색에서 용의자 31명을 체포하고 동굴 4개소를 焚破하였으며 CAR소총실탄 15발을 노획한 연후에 北西쪽을 차단하다가 13.00에 명령에 따라 통제선 “성공”에 이르러 목표 “6” [My Duc(2)]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4.15에 접적 없이 同목표를 占領하고 My Duc(2) 일대의 탐색을 벌여나갔는데 15.10에 마을 北쪽에서 퍼가 무르익은 논밭에 숨은 용의자 20명을 색출하였으며 VC들이 감춘 의약품 若

干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16.10에는 同마을 北端에 農夫를 가장한 VC 2명이 수류탄을 던져 제 2 소대 사병 2명이 戰傷을 입었다. 소대는 그를 뒤쫓아 사살하고 수류탄 3발을 노획하였으며 용의자 5명을 검색하였다. 그리고 바로 10분 뒤에는 농민 속에서 또 VC 1명이 수류탄을 던지고 潰走하는 것을 사살하였으며 용의자 20명을 押送하였다.

한편 My Duc(2) 南쪽 일대를 누비던 제 1 소대(장, 李崑洙 소위)는 17.40에 마을 東端에서 Nhon Thuan(2) 쪽으로 退散하는 VC 4명을 跟隨 끝에 사살하고 그 屍體를 확인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중대는 VC 12명을 사살하고 1명을 俘虜로 하였으며 용의자 83명을 押送하였다. 그리고 CAR 소총실탄 15발과 수류탄 4발을 노획하고 동굴 4개소를 파괴한 연후에 18.00부터 My Duc(2) 南端에서 野宿하면서 埋伏으로 자체 경계를 강화하였다.

2. 제 6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이날 06.30에 기지를 출발하여 탐승지역에 이동 즉시 탐승조를 편성하고 포병제 61 대대 제 2 포대가 제압사격을 加하는 가운데 07.20부터 07.50 사이에 제 1, 및 제 2 梯波로 나눠 착륙지역 “6”에 공수기동하였으며 여기에서 제 1 소대(장, 全相雲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2 소대(장, 李暉潤 소위)를 左一線으로, 제 3 소대(장, 金泰熙 소위)를 지원소대로 하여 08.00에 목표 “나”로 直衝하였는데 不過 100m 밖에 南進하지 못하였을 무렵에 右一線인 제 1 소대가 丘陵을 넘다가 제 1 분대 尖兵이 Tra Ran Son 山 쪽으로 退散하면서 소총사격을 加하는 數未詳의 VC를 목격하고 소대에 보고한 연후에 1명을 兇射로 사살하였으나 殘餘 VC은 潰走하고 말았는데 그들이 숨었던 곳으로 推斷되는 동굴을 뒤져 쌍안경 1개, CAR 소총실탄 60발을 노획하였다.

이에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敵情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側方 경계를 일층 강화하면서 목표 “나”로 突進하였으나 저항이 없는 가운데 同 목표를 점령하고 부근 일대의 탐색을 끝마친 연후에 10.40에 목표 “3” [Dai Chi(1)]으로 중대를 휘몰았다. 그러나 11.20에 同 목표를 점적 없이 점령하였다.

그런데 Dai Chi(1)에서부터는 道路를 사이에 두고 바로 Chua Troung과 Dai Chi(2)가 2km나 되는 거리에 밀집된 人家로 點綴되었으므로 예상보다 탐색이 늦어져 13.30에야 통제선 “성공”에 進出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기에서 隊伍를 정비한 중대는 13.40에 통제선을 넘어 목표 “10” [Binh Duc(2)]으로 공격을 指向하였다.

이 통제선에서 목표 “10”에 이르는 공격로는 노출된 水田지대가 2km나 펼쳐지고 中間에 Binh Duc(1)이 樹木으로 둘러싸여 敵의 기습이나 저격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며 더구나 Binh

Duc(1) 일대에는 키를 넘는 사탕수수밭이 곳곳에 있어 方向을 가름하기 어려웠다.

이에 중대는 지원포격과 박격포격을 예상되는 지역마다 集中하고 지원소대 엄호하에 兩개소대가 併進하면서 탐색을 벌여 나갔다.

이리하여 중대가 水田지대를 橫斷하고 Binh Duc(1)에 突入하였으나 그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이 일대의 탐색에서 용의자 7명을 검색한 연후에 Binh Duc(2)로 直衝하여 16.00에 점령하였으며 이 곳 탐색에서 용의자 9명을 색출하고 동굴 3개소를 焚破하였으며 18.00에 同마을 南쪽에서 夜間경계로 移行하였다.

3. 제 7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이날 06.00에 기지를 출발하여 탐승지역에 이동하였으며 제 6 중대의 공수가 끝난 다음 제 1, 제 2 梯波로 나뉘 “헬리콥터”로 07.50~08.30 사이에 착륙지역 “7”에 降着하였으며 여기에서 공격준비를 갖춘 중대는 제 1 소대(장, 張亮熙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2 소대(장, 姜義英 소위)를 中央線으로, 제 3 소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09.00에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으며 목표 “가”로 併進탐색을 벌여나갔다.

그런데 중대는 과월이래 5개월 동안 여러차례의 大小전투를 치루면서도 이렇다 할 戰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이번만은 기어이 拔辭의 戰力을 세워 중대의 사기를 드높이려고 다짐하고 출발에 앞서 前中대원에게 『이 전투에서 우리중대는 打撃부대로 선발되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戰功을 세울 수 있는 絶好의 기회를 가졌다. 각개병사 개개인의 용감성이 중대전투력을 가름한다. 敵과 조우시에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突격하여 VC를 격멸하라. 그리고 한 사람의 공명심보다 분대, 소대의 응결된 힘으로 전공을 세우라』고 당부하고 『前進間에 있어 VC의 저격에 자별히 유의하라』고 거듭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리하여 중대는 Tra Ran Son山 北西쪽 灌木지대를 누비며 목표로 近接하였는데 10.25에 중앙 제 2 소대가 丘陵 관목숲속에 隱遁한 VC와 조우하여 一戰을 벌이게 되었다. 이 때 소대장 姜義英 소위는 그들의 火力으로 미루어 1개분대 규모의 병력으로 推算하고 이를 包圍격멸할 腹案으로 제 1분대로 하여금 北東쪽을 迂回하여 退路를 차단케 하고 소대(-)를 휘몰아 突擊하였는데 소대의 氣勢에 눌린 VC들은 더 應戰치 않고 南東쪽으로 潰退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餘裕를 주지 않고 계속 추격하였으며 北東쪽을 迂回한 제 1분대도 그들이 退散하는 걸목을 지키다가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VC 7명을 사살하고 그 시체를 확인한 연후에 CAR소총 1정과 장총 1정, 그리고 실탄 31발을 노획하였다.

이렇듯 공격 벼두에서부터 VC와 부딪친 중대는 이를 一擊에 격파하고 그 여세를 휘몰아 목표 “가”로 突入하였으나 접전이 없는 가운데 점령하고 이 일대의 탐색에서 동굴속에 숨



어 저항하는 VC 2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10명을 체포하였으며 수류탄 1발을 노획하였다.

중대는 계속 목표 “2”를 공격 11.20에 점령하고 통제선 “성공”을 壓縮하여 들어갔다.

그리하여 14.30 My An에 進出하여 탐색을 끝마치고 15.00에 목표 “7” [My Duc(1)]로 指向하던중 15.15에 목표 200m 앞에서 논밭을 끼고 西쪽으로 도주하는 VC 1명을 사살하고 그 시체를 확인하였는데 注射器, 주사약, 붕대등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 위생병인듯 싶었으며 이로 미루어 敵情이 예상되었으므로 중대는 은밀히 정탐을 벌여 그들이 潛伏한 동굴을 색찰코자 하였으나 兆朕이 없는 가운데 同목표를 점령하고 19.30부터 야간경계로 移行하였으며 My Duc(1) 南端에서 埋伏으로 徹夜하였다.

(나) 제 1대대(장, 朴漢英 중령)은 該전투지대 西쪽 △83에 제 1중대를 배치하고 東쪽 Thiet Trang(1)에 제 3중대 전술기지를 선치하였으며 제 3중대도 2월 15일까지 △83에 배치하였다가 제 1중대와 交代한 까닭에 本 작전지대에 대한 地形이나 敵情은 어느 부대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緣由로 전투지대 西側方 차단은 △83의 제 1중대로 하여금 담당케 하였으며 東側方에서의 차단과 탐색도 제 3중대까지 北쪽에 제 2중대를 進出시키고 제 3중대는 현기지에서 北으로 2km만 移動하면 3個중대가 모두 해당 전투지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대는 이날 未明 대대에비로 대대전술지휘소 南쪽에 控置한 제 2중대를 車輛으로 機動시키고 대대전술지휘소를 제 3중대 전술기지에 推進 開設하였다.

1. 제 1중대(장, 金大樞 대위)는 Thiet Trang(1) 北쪽 기지에 배치되었다가 1월 13일 埋伏 위치선정을 나간 중대장 朴一均 대위가 지뢰폭발로 戰死하자 1월 15일 제 3중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대대 예비로 있었는데 제 8중대장으로 전보되었던 金大樞 대위가 다시 중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本 작전준비 명령과 同時에 2월 16일 △83의 기지를 제 2중대와 교대, 인수받게 되었다.

중대는 本 작전에서 대대(-)가 東쪽 제 3중대쪽에서 공격하여 南西쪽으로 包圍圈을 압축할 때 敵의 退却하는 예상지역(목표 “14”)을 確保하고 퇴로를 차단할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한편으로는 同중대 右側方에서 공격할 연대수색중대의 Con:II 能涉을 임호하게 되어 제 1소대를 연대수색중대에 배속하였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중대는 제 1소대를 D-1(25일) 17.00에 연대수색중대에 배속하였다. 이날 중대는 05.00에 △83東쪽 細川을 건너 목표 “14” (My Thuan)를 向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My Thuan 앞에 있는 작은 稜線을 넘어 民家 10戶를 뒤졌으나 VC의 隻影도 찾지 못한채 09.00 同 목표를 점령하고 예상되는 退路에 散開하여 차단임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연대수색중대에 배속된 제 1소대의 배속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전으로 대대 및 연대에 交信하였으나 연락 두절로 확실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응신을 받은 중대장 金大植 대위는 제 1소대의 주파수를 맞추어 交信한 결과 목표 “13”에서 경계중이라면서 敵의 포탄에 의하여 사병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소대로 하여금 중대의 점령지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중대는 13.00 대대로부터 現차단지역에서 목표 “라”를 공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목표 “라”는 「花郎 2호 戰鬪」때 제 2중대가 공격하다가 敵의 強力한 저항에 부딪쳐 22명의 戰死者를 내고도 점령하지 못한채 물러선 곳이어서 중대장은 각소대에 『이 곳은 VC의 거점으로 반드시 완강히 저항할 것이니 경계를 강화하여 기습에 대비하고 “부비트랩” 지뢰동 장애물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한 연후에 제 3소대(장, 金善九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2소대(장, 金光弘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화기소대와 중대본부는 後繼하는 대형을 取하였으며 60mm 박격포로 연막 遮障한 다음 제 2, 제 3 兩소대를 사격과 기동을 연결하면서 躍進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My Thuan을 출발하여 앞에 펼쳐진 벼밭을 橫斷하려고 할 즈음 마을 뒤 독립가옥에 隱遁한 VC의 狙擊을 받아 사병 1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저격한 VC의 方向을 종잡을 수 없어 側方경계를 강화하면서 계속 전진하여 My Thuan(1)의 前端까지 進出하였는데 이 때 右一線 제 3소대가 수림으로 둘러싸인 음폐지역에서 VC들의 亂射를 받아 또 사병 1명이 負傷을 입었지만 계속 突進하여 목표 “라”에 다가갔으며 左一線에서 金光弘 소위가 이끄는 제 2소대도 논밭을 橫斷하여 목표 “라”의 北端쪽으로 直衝하였는데 소대도 음폐된 마을 北쪽 수림속에서 저항하는 數未詳의 VC들과 부딪쳐 한때 총격전을 벌였지만 이를 一蹴하고 左右 협공으로 목표 前端을 점령한 중대(-)는 隊伍를 다시 가다듬고 목표 “라”의 중앙쪽으로 指向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人家가 끊겨지고 또 다시 논밭이 펼쳐져 중대는 노출된 넓은 水田지대를 白晝에 橫斷하여야 하는 反面 敵은 巨木에 쌓인 마을 안에서 엄체호나 교통호 속에 숨어 중대의 進路를 바라보며 射擊을 가할 것으로 내다본 중대장 金大植 대위는 제 3소대로 하여금 南東쪽으로 우회공격케 하여 VC의 火力를 분산시키고 배속된 경기관총분대의 엄호하에 제 2소대를 進擊케 하였으며 화기소대도 同소대의 공격을 지원케 하면서 逐次的으로 개활지를 횡단토록 하였다.

이러한 중대장의 계획에 따라 노출된 田畠지대 中間지점에 進出하였을 무렵 VC들은 일

제히 火力을 集中하면서 중대의 전로를 차단하였는데 이 때 화기소대에서 사병 1명이 허벅 다리에 貫通傷을 입고 쓰러지자 이를 지켜보던 위생병 張基薰 일병이 그를 救出하려고 뛰어들 순간 敵의 集中사격을 받고 致命傷을 입었으며 많은 出血로 巽域땅 논두렁에서 숨졌다.

이와 같이 敵의 火力에 부딪친 중대는 共用火器의 熱火를 퍼붓고 여러차례나 突擊을 決行코자 하였지만 끝내 그들의 火力을 뚫지 못하여 개활지에서 2시간 동안이나 交戰하는 사이에 戰死者 2명과 負傷者 3명을 내게 되었다.

이 무렵 연대수색중대에서 제 1소대가 복귀함으로써 중대는 병력을 재정비하고 공격을 再舉할 계획을 아래와 같이 세우면서 戰死傷者를 “헬리콥터”로 후송하였다.

- 『1. 제 1소대는 右一線의 제 2소대와 合勢하여 右側方에서 공격하라.
2. 중대본부요원과 화기소대는 제 3소대와 合勢하여 北東쪽을 迂回 공격하라.
3. 부중대장은 새로 발생한 전사상자를 후송하고 포병지원을 요청하라.』

중대는 敵의 主力을 正面에서 맞아 싸우는 셈이었지만 포병지원은 打撃부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차단임무를 띤 중대는 지금까지 거의 포병지원이 없는 가운데 공격을 하여 왔다.

그리고 一次 공격에서도 중대장은 主力이 개활지를 횡단하기 위하여 제 3소대를 北東쪽으로 迂迴공격케 하여 敵의 火力을 분산시킨 계획이었는데 제 3소대의 우회공격이 예상하였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중대장이 2次공격에서 본부요원과 화기소대를 이끌고 제 3소대와 合勢하려는 것은 당초 계획을 관철하려는 데 있었으며 또한 敵의 火力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水田지대를 횡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던 듯 싶다.

이리하여 중대장 金大植 대위가 본부요원과 화기소대를 이끌고 제 3소대 지역으로 進出하였을 때 제 3소대장 全善力, 소위는 무전병을 다리고 은폐된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중대장은 즉시 제 3소대를 北東쪽 사탕수수밭으로 前進시키고 화기소대로 하여금 火力을 퍼붓게 하였다.

이 때 VC들은 중대장이 예측한대로 제 3소대쪽으로 火力을 이동시키 亂射하였는데 사탕수수밭으로 뛰어들던 제 3소대 사병 1명이 VC의 銃彈에 맞아 負傷을 입었다.

이와 같이 敵의 火力이 분산되자 右側方에서 기뢰를 노리던 제 1, 제 2 兩소대는 상호 엄호하에 축차적으로 개활지를 橫斷 突進하였는데 이 때 제 2소대장 金光弘 소위는 제 1분대장으로 하여금 鐵帽을 막대기로 꽂아 쳐들게 하여 VC의 사격이 철모에 집중되는 틈을 타서 先任하사관조가 제 1소대의 엄호를 받으며 一躍 突進하여 先頭로 橫斷에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개활지를 건너 수목 뒤에 산개한 선임하사관조는 潰走하는 VC를 추격하여 家屋쪽으로 潛入하려는 3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을 노획하였으나 사병 1명이 戰死하였다. 뒤따라 제 1소대와 제 2소대가 개활지를 건너 마을 탐색을 벌였는데 VC들은 교통호를 통하여 다음 예비진지로 退却하여 依然히 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여기에서 제 3소대와 화기소대 엄호로 제 1, 제 2 兩소대를 直衝케 하여 一擧에 VC를 剔抉코자 하였다.

그런데 중대가 人家를 지나 北東쪽 사당수수밭으로 迂迴하여 50m 前進하였을 무렵 이면에는 VC들이 60mm 박격포격을 加하며 進路를 차단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觀察장교 懇소위로 하여여 포격을 유도케 하였으나 포지션을 받지 못하고 박격포격을 集注하여 이에 대응케 함으로써 한때 彼我의 砲火가 炸裂하여 불꽃을 튀겼는데 10분 뒤 제 1소대 正面의 VC들은 더 지탱하기 어려웠는지 연대수색중대쪽(목포 “13”)으로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화기소대로 하여금 그들 退路를 차단토록 하였던바 소대는 VC들이 소총을 은닉하고 住民으로 假裝하여 뿔뿔이 도주를 꾀하는 7명을 사살하였다.

한편 제 1소대 前面의 VC들은 여전히 치열하게 사격을 加하여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질 두렵까지 交戰을 벌였으며 소대는 1명의 전사자와 3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어둠이 짙어지자 전투는 이와 무관하여 彼我間에 火力을 퍼부었는데 19.40에 대대로부터 기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近距離에 對陣하여 交戰을 벌이다가 갑자기 병력을 뺄 수 없는 狀況이어서 중대장 金大植 대위는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 때 누구의 要請으로 어디까지 가는 “헬리콥터”인지는 몰라도 2隻가 上空을 비행하다가 중대를 VC으로 誤認하고 사격을 加하였으며 VC들은 으레 자기들을 사격하는 줄 알았음인지 사격을 中斷하고 壕속으로 隱避하였다.

이 때를 틈타 중대는 제 3소대로 하여금 엄호케 하고 제 1소대부터 뽑았으며 집결지로 정한 사당수수밭에 이르러 중대본부요원과 화기소대로 四周경계에 임하게 하고 殘餘 병력을 휴식케 하면서 중대장은 연대에 “헬리콥터”를 요청하였으나 支援을 얻지 못하고 도보로 기지에 돌아가기로 하였는데 중대는 進擊할 때와 나름없는 위험을 안고 야간행군을 強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중대기지까지 5km의 徹夜 귀대 계획을 세우면서 중대장 金大植 대위는 다음 問題點을 勘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 夜間移動이라 주간진격처럼 敵에게 노출될 위험은 없었지만 反面 “정글”지역을 뚫고 나가야

하는 難點이 있었다.

들때 : 戰死傷者를 운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세째 : 攻擊路로 되돌아 가다가는 그들의 埋伏이나 “부비트랩”地雷 같은 장애물의 위험이 수반하리라는 難點이 있었다.

네째 : 敵의 進擊을 考慮하여야 하였으며 이미 추격을 위한 敵의 사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섯째 : 음향관제와 추격하는 敵이 接近時에 射擊통제가 어렵다는 점이였다.』

이러한 問題點을 고려한 중대장은 進擊路和 併行되는 主로 水田지대를 택하여 進路를 정하고 첩병분대, 제 3소대, 제 2소대, 중대본부, 화기소대, 제 1소대 순으로 行軍순위를 정하였으며 개인 거리 5보를 유지케 하면서 縱隊로 前進케 하였다. 그리고 敵의 사격을 받을 경우 작개병사의 응사를 금하고 그 자리에 얼드려 사격방향을 확인한 後에 소대장 지시에 따라 응사하고 중대장에게 신속히 보고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중대는 일단 목표 “14”로 移動하였으며 同지점에서 隊伍를 재정비하고 行軍을 계속키로 하였다.

이날은 多幸히도 철혹같은 밤이 아니고 어스름한 달밤이어서 앞에 가는 병사의 모습이 바로 뒤쫓는 병사에게 희미하게나마 눈에 띄어 한결 발걸음이 가벼웠다. 중대가 목표 “14”에 이르러 四圍경계로 휴식을 取할 때 분대규모로 推算되는 VC들이 추격하여 사격을 가하였으나 경계조가 일제사격으로 제압하였으며 VC이 도주하는 方向에 81mm 박격포격을 퍼붓고 後尾 제 1소대의 隱호하에 제 2소대로 하여금 同부락을 탐색케 하고 殘餘 부대는 이동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다음 날 02.00에 기지에 귀대하였으며 도중 My Thuan 西側方에 제 1소대를 殘置하여 埋伏케 하였다.

2. 제 2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2월 12일 「花郎 2호 戰鬪」를 치른 다음 同월 16일 △83의 기지를 제 1중대에 인계하고 대대전술지휘소 南쪽에서 대대예비로 戰鬪을 쉴면서 전투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중대는 이날 05.00에 車輛便으로 제 19번도로와 제 1번도로를 통하여 Binh Duc(3)에서 下車하여 07.00에 Tan Nghi(1) 北東쪽 공격개시선에 進入하였다.

이 무렵 제 1연대 제 10중대의 鬪攻이 시작되어 전투지대 北쪽 일대에서 我軍포화가 炸裂하여 砲煙이 아침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격준비를 갖춘 중대는 제 1소대(장, 明山玉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3소대(장, 金文吉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 2소대(장, 金周景 소위)를 지원소대로 하여 목표 “8”을 指向,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공격개시선에서 Tan Duc(1)까지 1km는 灌木지대로서 1월 13일 제 1중대장 朴一

均 대위가 지형정찰을 나갔다가地雷폭발로 戰死한 곳이어서 敵情이 예상되었으며, 더구나 그들이 埋設한 지뢰나 “부비트랩”등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소대장에게 『전진간 “부비트랩”과 지뢰에 각별 유의하라. 그리고 기도비닉을 철저히 하여 敵을 포착 격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리하여 兩소대가 관목지대를 併進하면서 뒤졌는데 09.45에 右一線 제 1소대가 Tan Duc (1) 東쪽 관목지대를 누비다가 “부비트랩”과 지뢰가 폭발하여 한 때 진출이 늦어졌으나 損失이 없었으며 左一線 제 3소대는 同마을 北쪽 수림속에서 동굴을 파괴하였다. 중대는 10.30에 목표 “8”을 점령하고 부근 일대의 탐색에서 용의자 15명을 체포한 연후에 北東쪽을 차단하였는데 13.00에 대대로부터 목표 “10”을 공격하라는 命을 받은 중대는 제 1소대로 하여금 계속 차단임무를 수행케 하고 제2, 제 3 兩소대를 이끌고 14.10 목표 “10” [Binh Duc(1)]으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水田지대를 탐색하던 중대는 14.50에 東西쪽 작은 부락을 누벼 용의자 10명을 押送한 연후에 Binh Duc(2)까지의 탐색을 벌였으나 敵과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14.50에 同 목표앞 100m 지점에 進出하였다.

그런데 Binh Duc(2)는 개인호와 교통호등 그들이 구축한 방어시설이 비교적 견고한 곳이어서 VC의 潛遁이 예상되었으므로 중대장은 제 3소대 兪호하에 제 2소대로 하여금 공격케 하였던 바, 예상외로 敵의 抵抗이 없어 16.10에 접적 없이 점령하였다. 이 때 대대에서 Nhon Thuan(2) (목표 “10”南쪽)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또 받게 되어 제 3소대로써 이를 直衝케 하였다.

한편 Nhon Thuan(2)는 「花郎 2호 戰鬪」에 地方 VC, Bac Giang중대가 도사리고 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VC들이 潛遁한 탕으로 부락내에 방어시설은 물론 접근로에 “부비트랩”과 함정등의 장애물을 埋設하였을 것으로 내다본 중대장은 우선 박격포격을 集中한 연후에 공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 3소대장 金文吉 소위는 16.30에 소대를 이끌고 벼가 무르익은 논둑을 따라 接近하였는데 곳곳에서 “부비트랩”을 폭발제거 하느라고 예상보다 前進이 늦어져 1시간 半이나 걸려 300m의 水田지대를 통과하였으며 18.00에 Nhon Thuan(2)에 突入하였다. 그리하여 동마을 탐색에서 동굴을 뒤져 저항하는 VC 5명을 사살하고 용의자 7명을 검색하였다

이와 같이 중대는 해가 西山에 기울 무렵까지 탐색을 끝마치고 18.30에 대대장으로부터 『목표 “11”로 轉進하여 그곳에서 彈藥을 제 3중대에 인계하고 19.30까지 제 3중대기지로 移動하여 夜

間경계에 입하라』는 命令을 받고 중대는 Dai An(3)으로 轉進하여 제 3중대 제 1소대에 彈藥을 인계하고 19.30에 제 3중대기지로 移動한 연후에 南東쪽 수림지대에 작소대를 埋伏시켜 夜間경계로 移行하였다.

3. 제 3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현진지[Thiet Trang(1) 北쪽 高地]를 1월 15일 제 1중대와 교대 인수하고 埋伏과 소대단위로 탐색을 벌여 敵을 制扼하였으므로 전투지대에 대하여는 地形과 敵情에 밝은 편이었다. 이날 중대는 작소대를 06.00까지 기지 東쪽에 집결시켜 전투준비를 확인한 연후에 Tan Nghi(3)으로 連結되는 소로를 따라 進入하였으며 同마을 東쪽 溪溝을 거쳐 08.00에 공격개시선에 進出하여 제 2소대(장, 梁承權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1소대(장, 李賢宰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 3소대(장, 安富雄 소위)를 지원소대로 삼았으며 화기소대(장, 趙成鎭 소위)는 後繼하면서 지원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09.00에 공격에 나선 중대는 목표 “5” [Tan Nghi(3)]를 09.30에 점령하였으나 이 곳은 敵情이 없는 곳이어서 계속 목표 “9” (Nghia Hoa)로 直衝하였다. 그런데 Nghia Hoa는 500m 앞에서부터 北西쪽으로 Tan Duc(2)에 이르는 사이에 울창한 수림지대를 이루어 敵情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중대는 그 어구에서부터 박격포와 경기관총으로 위협사격을 加하고 右側方경계를 강화하면서 田畚지대를 통과하다가 그들이 埋沒한 “부비트랩”과 地雷를 除去 폭파하고 목표에 突入하였다.

이 때 右一線에서 突入하던 제 2소대는 마을 入口에서 北西쪽 수림속으로 潰走하는 VC 6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1발을 노획하였으며, 중대는 同마을을 세번이나 뒤져 용의자 11명을 점색하는 同時에 “부비트랩” 2개를 폭파시켰다. 중대는 13.00에 통제선 “성공”에 進出하여 제 2소대로 하여금 北東쪽과 南東쪽을 차단케 하고 제 1, 제 3 兩소대를 휘몰아 통제선을 넘어 최종목표 “11”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Nghia Hoa에서 목표 “11” [Dai An(3)]까지의 1km는 田畚지대로서 목표 앞 △20에서는 중대의 진로가 노출되므로 연막차장을 실시하면서 신속히 개활지를 횡단하였다. 이 때 제 1소대는 △20를 直衝하고 제 3소대는 Dai An 東쪽으로 突入하여 14.40에 접적이 없는 가운데 同목표를 점령한 중대는 이 마을 탐색에서 용의자 6명을 점색하고 동굴 3개소를 파괴한 연후에 계속 주변 일대의 탐색을 벌였다.

제 3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중대는 敵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동굴탐색에서 전과를 擴大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저한 동굴탐색에 나섰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짐승들이나 드나들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찾아내어 뒤져 보면 VC들이 숨어 있는 동굴이었다. 한번은 非武



VC이 숨은 地下壕 入口

뿔한 알몸으로 겨우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찾아 의아스럽게 여겨 속에다 연막탄을 터뜨렸더니 그속에서 VC 3명이 튀어나왔다. 때로는 체포한 용의자를 끌고 다니며 동굴을 찾아내기도 하였지만 그 작은 입구를 너무나 잡초로 교묘하게 가렸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변 일대의 탐색을 끝마친 중대는 등계선 외곽에서 차단하는 제 2소대를 뽑아 Dai An(3)으로 轉進케 하였으며 제 1소대를 마을 北西쪽에 산개하여 Nhoa Thuan(2)쪽을 차단토록 하였는데 이 때 北西쪽으로 潰走하는 VC 3명을 목격한 소대는 제 2분대로 하여금 이를 추격케 하였던 바, 1명을 俘虜로 잡았으며 도주하는 殘餘 2명은 때마침 南下하던 제 2소대가 사로잡았다.

중대는 18.00부터 이 곳에서 夜間경계로 移行하였으며 소대별로 埋伏케 하여 자체경계를 강화하였다.

(다)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D-1일(25일) 17.00에 배속받은 제 1중대 제 1소대(장, 金義培 소위)를 22.00까지 목표 “13”의 南西쪽 Con江 北岸에 進出시켜 중대의 도하를 엄호케 하였으며 중대는 D-1일 17.00에 現地(연대전술지휘소)에서 車輛便으로 출발하여 제19번도로와 “A”도로를 통하여 Con江 南岸 Thu Thuan Thuong에 도착한 연후에 이



곳에서 野宿하고 D일 02.00부터 제 1중대 제 1소대가 Con江 北岸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同江을 徒涉하고 An Chanh을 거쳐 An Vinh(1) 北端의 차단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05.30에 同지역을 점령하고 여기에서 제 1소대(장, 徐完秀 소위)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 2소대(장, 金茂雄 소위)를 左一線으로 삼아 06.00에 목표 “13”으로 向하여 공격에 나섰다.

그런데 목표 “13” [An Vinh(1)]은 바로 2週일전에 전개한 「花郎 2호 戦闘」 때도 同중대의 공격목표였던 곳으로서 VC의 頑強한 저항을 받았던 탓으로 중대는 여느 때보다 긴장된 상태에서 각개병사들이 見敵必殺의 굳은 決意로 공격에 나섰다. 08.30에 An Vinh(1)의 中央을 突貫할 때까지 接敵이 없었으며 용의자 35명(男子 20명, 女子 15명)을 색출한 後에 東西 兩쪽으로 마을을 뒤졌으나 저항이 없었다.

그런데 이 때 同마을 東쪽으로 탐색을 벌여나간 제 1소대(장, 徐完秀 소위)가 家屋 내부와 연결된 동굴속에서 항거하는 VC 7명을 포위하여 俘虜로 잡고 그들이 소지한 “로켓트”砲 1문과 수류탄 15발을 노획하였으며, 12.00에는 同마을 南端을 누비던 제 2소대(장, 金茂雄 소위)가 Con江 沿岸으로 도주하는 VC 2명을 사로잡고 수류탄 2발을 노획한 다음 이 일대의 동굴을 뒤져 권총실탄 다수와 배낭 1개를 노획하였다.

이리하여 목표 “13”과 그 일대의 탐색을 끝마치고 南西쪽 Con江 沿岸을 차단하던 중대는 13.00에 연대명령에 따라 목표 “12” [Nhon Thua(1)]를 공격케 되었는데 이 때 An Vinh(2) 東쪽 水田지대를 통과하다가 數未詳의 VC으로부터 저격을 받자 즉시 그들을 追擊하였으나 踪跡을 감추어 버렸다.

중대는 14.35에 Nhon Thuan(1)로 楔衝하여 同마을 南端에서 저항하는 VC들과 擊突하여 한때 치열한 交戰을 벌인 끝에 VC 8명을 사살하고 同목표를 점령하였다. 이 때 중대는 사병 1명이 戰死하고 4명이 전상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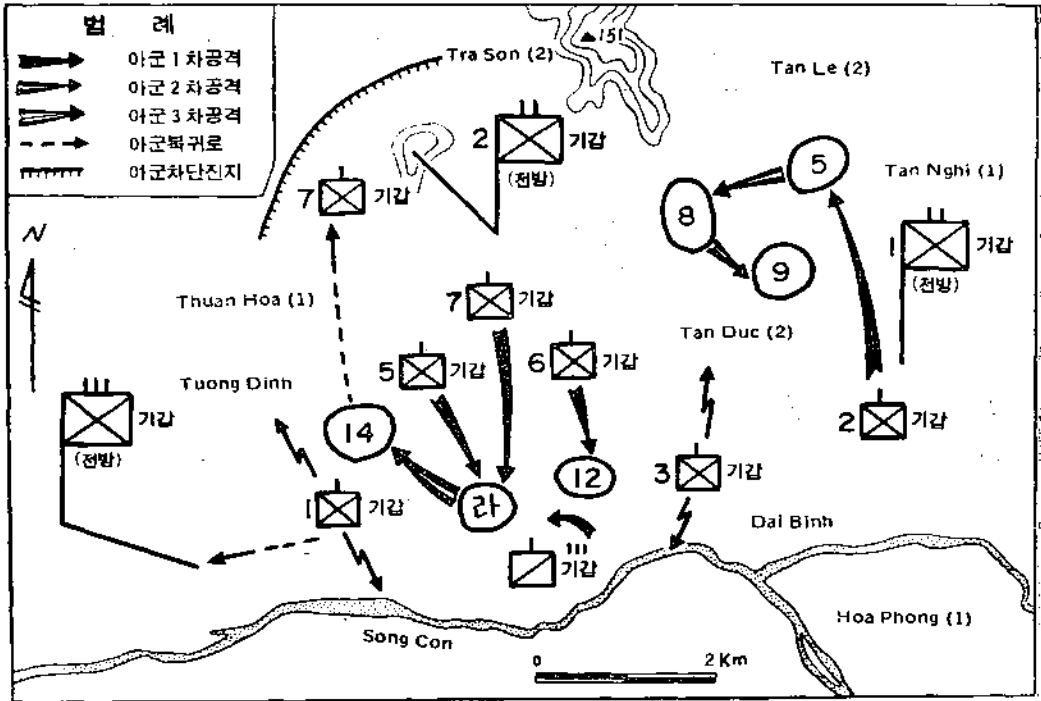
중대는 17.00까지 계속하여 이 일대의 탐색을 벌인 後에 18.00부터 An Vinh(1) 東쪽에 물러서 夜間경계로 移行하였다.

한편 배속된 제 1중대 제 1소대는 同중대의 Con江 도하를 隱호하고 목표 “13”의 西側方을 차단하다가 14.30에 원대로 복귀하였다.

**2월 27일(D+1일)**: 季節的으로 건기에 접어들어 이날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機動에는 快適하였다.

연대장 申鉉銖 대령은 전날 전투에서 敵의 主力을 捕捉, 殲滅하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포위권을 벗어나 退散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날은 주로 VC들이 潛遁하였으리라고

狀況圖 제49호 번개 66-3號 作戰(2월 27일)



예상되는 지역과 동굴을 철저히 탐색하도록 각대대에 명령을 하달하고 사단에서 지원받은 발연기(Mith Might)를 활용하여 전과를 擴大하라고 아울러 지시하고 전날 제 1대대가 공격하던 目標 “라”를 제 2대대로 하여금 2개중대로써 공격케 하였다.

(가) 제 2대대(장, 金容振 중령)는 이날 未明 연대장으로부터 전날 제 1대대가 공격하던 目標 “라”를 점령하고 통제선 “성공”내의 재탐색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제 5, 제 7 兩 중대로써 目標 “라”를 공격케 하고 제 6중대로 하여금 目標 “12”를 점령케 하여 각각 탐색을 벌이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My Duc(2)에서 徹夜한 제 5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이날 06.30에 目標 “라”로 指向하였는데 이 때 제 1소대(장, 李崑洙 소위)를 右一線으로, 제 2소대(장, 朴辰煥 소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 3소대(장, 金炫 소위)를 지원소대로 하여 水田지대를 횡단 目標 “라”로 直衝하였다.

그런데 同 目標은 「花郎 2호 戰鬥」 때도 VC의 頑強한 저항이 있었고, 전날 제 1중대가 공격할 때에도 自動火器와 박격포격을 퍼부으며 집요하게 我軍의 進擊을 저지하였으므로

끝내 점령하지 못하고 日沒과 더불어 기지로 되돌아간 곳이기도 하여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果敢하고 신속한 기동으로 敵의 機先을 制壓하지 않으면 그들의 火力에 부딪치는 前線을 변치 못하리라」고 내다보고 우선 지원포격을 加하게 하고 중대 共用火器로 一時에 鐵火를 뿜어 VC들로 하여금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一舉에 쳐들어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대장의 腹案에 따라 사격과 機動을 연결하며 논밭을 橫斷하여 목표 “라”로 直衝하였는데 전날 공격시까지도 그렇게 끈질기게 항거하던 VC들이건만 아무런 저항도 없어 중대는 09.00에 同목표를 手中에 넣고 그 일대의 탐색에 나섰으며 09.40에 마을 南端 독립가옥과 연결된 동굴을 뒤져 항거하는 VC 2명을 俘虜로 잡고 용의자 26명을 색출하였다.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목표 “라” My Thuan (1)은 地方 VC으로 奸惡한 Bac Giang 중대가 獨舞台처럼 날뛰던 곳으로서 「花郎 2호 戰鬪」 때에는 頂輕機와 60mm 박격포등 장비면에서도 強力하였다. 이날 대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고 兵力손실을 자오하고 果敢하게 突擊을 감행할 계획이었다. 다시 말하면 지원포격으로 強打하고 81mm 및 60mm 박격포격을 集中한 다음 경기관총을 퍼부우면서 일제히 突擊할 決心이었는데 이는 VC들이 强者에겐 弱하고 弱者에겐 強하다는 그들의 常套수법을 逆으로 이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을케 하여 一舉에 突入 점령하려는데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同목표를 점령하고 탐색을 끝마친 중대는 18.00에 夜間경계로 移行하여 제 1소대를 My Thun(1) 중간마을 南쪽 細川邊에, 제 2소대를 An Vinh(2) 北쪽 細流가에, 제 3소대를 An Chanh(1) 西端에 배치하여 埋伏토록 하였다.

한편 제 6 중대(장, 李泰—대위)는 06.30에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12” [Nhon Thuan(1)]를 접적이 없는 가운데 점령하고 마을 탐색에서 용의자 7명을 체포한 연후에 夜間경계로 移行하였는데 이 때 중대는 Nhon Thuan(1) 南西쪽 細川을 끼고 각소대별로 埋伏케 하였다. 이날 제 7 중대도 대대장 명령에 따라 06.30에 목표 “라”를 指向, 제 5 중대의 東側方에서 협공에 나섰다.

그런데 My Duc(1)의 南東쪽을 迂廻한 중대는 06.30에 Binh Duc(2)(목표 “10”) 南西쪽 灌木지대에서 1개분대 규모의 VC과 遭遇하여 접전끝에 VC 6명을 사살하였으나 이 交戰으로 말미암아 목표 “라”에 대한 협공이 지연된 탓으로 제 5 중대가 同 목표를 점령한지 1시간 뒤인 10.00에 목표 “라” 北東쪽에 進出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대는 이 지역에서 탐색을 벌여 용의자 14명을 압송한 연후에 목표 “14”로 轉進하여 탐색을 떠나갔는데 16.00에 대대장 명령에 依하여 대대전술지휘소 西側方으로 移動하여 徹夜 戒备으로 경계에 임하게

되었다.

이 때 중대는 제 1소대(장, 張亮熙 소위)를 대대전술지휘소 南西쪽에, 제 2소대(장, 姜義英 소위)를 西쪽 Thuan Hoa(2)에, 제 3소대(장, 金永吉 소위)를 北쪽 Thuan Thuyen(3)에 각각 埋伏케 하였다.

### ※ 敵의 夜襲

이날 대대는 제5, 제6 兩중대를 점령지역에서 埋伏으로 자체경계를 강화케 하고 제 7중대를 뽑아 대대전술지휘소의 北, 西 兩쪽 개활지에 소대별로 배치케 하여 야간경계에 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 7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19. 30에 중대전술지휘소 西側方에 移動하여 각소대를 매복지역에 진출시켰다.

그런데 Thuan Truyen(2)로 進出하던 제 2소대(장, 姜義英 소위)가 途中에서 避難民 一團(부녀자, 어린이, 老人, 30여명)과 遭遇하였다.

이와 같이 소대의 移動이 주민들에게 統露된 이상 주민들을 通하여 소대 잠복기도와 지점이 누설될 것은 너무나 明確하였다. 이에 소대장 姜義英 소위는 이 피난민들을 대동하고 잠복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대는 분대 별로 산개를 끝마치고 주민들을 埋伏지점 뒤 수림속에 集團收容하고 이들을 경계하였는데 밤이 깊어지자 주민들의 떠드는 소리는 정적을 깨고 멀리 흘러나갔으며 더구나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는 야음을 타고 요란하게 메아리쳤다.

물론 통역관도 없는 소대이므로 그들 대화의 내용을 알길이 없었지만 위치가 統露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누차 제지하였으나 그럴수록 어린이들은 묵놓아 울어댔다. 이러한 景況속에서 위치가 탄로된 것으로 看做한 소대장은 각분대장에게 『반드시 VC들이 侵襲하여 기습을 노릴 것이니 경계를 일층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모든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호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대장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21. 20) 제 2분대 전면에서 VC 4명이 侵襲하였다는 보고를 접한 姜義英 소위는 잠복위치가 VC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분대장에게 『총을 쓰지 말고 사로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분대장은 申武男 일병을 비롯한 4명의 소총병으로 하여금 白兵접전케 하였는데 VC들은 수류탄을 투척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도주하기에 분대는 일제히 사격을 퍼부어 2명을 사살하였으며 殘餘 2명은 계속 도주를 피하기에 또다시 자동소총을 집중하여 사살하였다.

이리하여 VC의 침습을 저지한 소대는 그들이 반드시 再次 침습을 시도하리라는 예측으로 側方과 前面을 응시하면서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子正이 가까울 무렵인 23. 30에 數未詳의 VC 一羣이 接近하여 동료들의 屍體라도 찾으려는듯 四方을 두리번거리면서 다가서므로 그들에게 사격을 퍼붓자 退散하여 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子正이 지난 02. 30에 소대장이 지휘하고 있는 제 2분대 뒤에 60mm 박격포탄 20여발이 集中되어 소대장 姜義英 소위가 부상을 입고 소대선임하사관과 무전병을 비롯한 사병 6명이 負傷하였으며 VC들은 자동화기기를 亂射하면서 소대 정면으로 다가섰다. 이렇듯 狀況이 위급하게 되자 소대는 可用한 火力을 集注하여 그들을 저지하였으나 VC들은 좀처럼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火力으로 대응하며 교전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소대의 火急한 상황을 砲대전방전술 지휘소에서 지켜보던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81mm 박격포로 조명탄을 퍼부었으며 포병제61대대 제 2포대도 포격을 集中하니 칙후 갈던 길은 밤은 대낮 같이 밝아 VC들은 더 견디지 못하고 潰退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深夜라 去勢를 期하여 추격키로 하고 소대로 하여금 VC의 再浸에 對備케 하였지만 날이 밝을 무렵



VC이 퇴각한 마을을 침략하고 있다.

까지 그들의 挑發이 없었으며 동이틀 즈음 소대는 埋伏지점에서 VC의 유기시체 10具를 確認하고 그 일대를 뒤져 20具의 시체를 또 찾아내었는데 負傷者를 끌고간 핏자국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그 證言에서 말하기를 「VC들의 이날 夜襲은 대대전술 지휘소를 목표로 하여 그 位置를 정확히 확인하려다가 제 2 소대 잠복에 부딪쳐 사살되자 목표를 바꾸어 소대에 奇襲을 시도한 것으로 推斷된다.

그들이 박격포와 자동화기등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 地方 VC, Boc Giang중대로 추측되었지만 도를 못잡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밤 VC의 박격포격에 제 2 소대장 姜義英 소위가 귀에 파편상을 입었으며 사병 7명이 戰傷을 입음으로써 중대는 이날 未明 追擊에서 同소대를 지원소대로 뽑고 제 1, 제 3 兩소대로써 決行하였다」라고 하였다.

(나) 제 1 대대(장, 朴漢英 중령)는 제 1 중대로 하여금 전날밤 埋伏지역(My Thuan 西쪽)에서 차단케 하고 제 2, 제 3 兩중대장에게 전날에 이어 점령지역을 재탐색하는 동시에 동굴을 정탐하여 전과를 擴大하고 南東쪽 Con江 沿岸의 차단에 더욱 置重하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 1 중대는 10.00까지 Mz Thuan 西쪽(D일 공격계시선)에 進出하여 南西쪽을 차단하다가 12.00에 An Chanh에서 용의자 7명을 체포하고 17.00에는 My Thuan 東쪽에서 Con江邊으로 潰走하는 VC 1명을 俘虜로 잡았으며 17.30에 同지역 南쪽을 뒤지다가 방망이 수류탄 1발을 노획한 연후에 18.00부터 夜間경계로 들어갔으며 소대별로 埋伏케 하였다.

한편 제 2 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전날 제 3 중대기지 南쪽 稜線에서 밤을 지새우고 이날 06.30에 목표 “5”를 거쳐 목표 “8”로 進出중 Tan Duc(1) 東쪽 灌木지대에서 北쪽으로 退散하는 VC 2명을 사살하고 그 屍體를 확인한 연후에 同마을 탐색에서 용의자 27명을 押送하였으며 15.25에는 재탐색을 벌여 용의자 4명을 또 색출하였다.

중대는 17.30에 이날의 탐색을 마무리짓고 18.00에 목표 “5”로 移動하여 夜間埋伏으로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목표 “11”에서 野宿한 제 3 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이날 06.30부터 該지대의 재탐색을 벌이면서 Nhon Thuan(2)의 中間지점을 차단하다가 용의자 33명을 押送하였다. 16.30에 Dai An(3) 南쪽 동굴에서 軍服을 着用한 VC 1명을 俘虜로 잡았으며 T-132전차기 1대를 노획한 연후에 同마을 南東쪽에서 Dai Binh에 이르는 線을 점령하고 18.00부터 夜間경계로 移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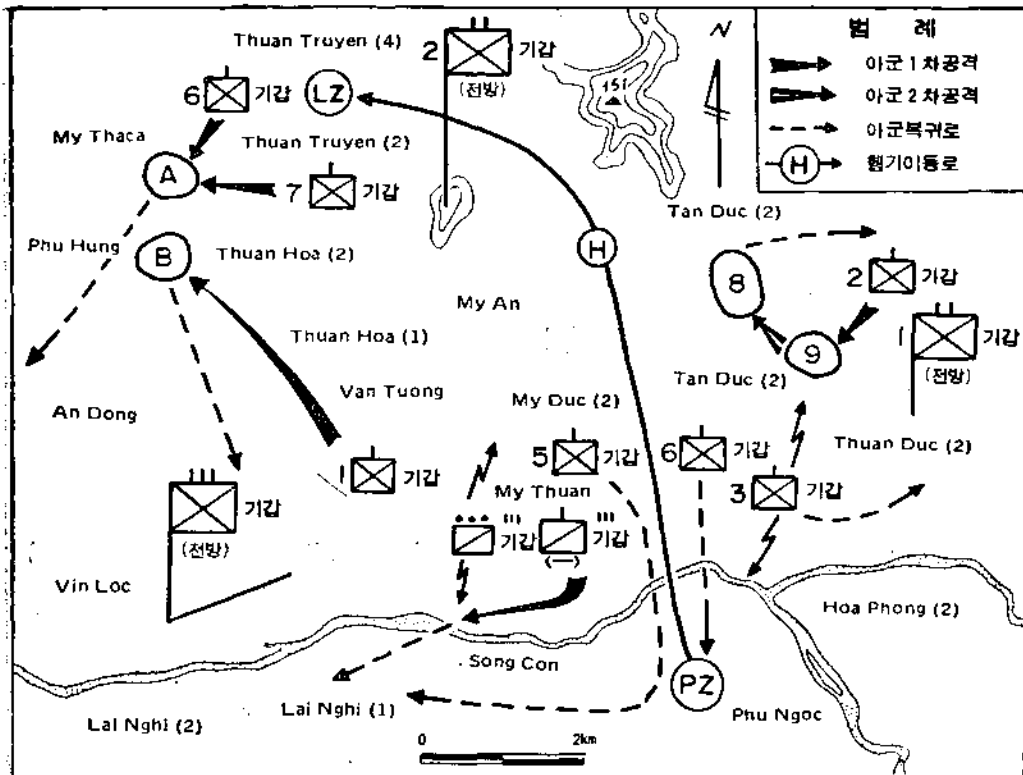
(다)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An Vinh(1) 東쪽에서 野宿하고 이날 06.00를 期

하여 An Vinh(2) 南端에서부터 Con江邊까지 縱橫으로 누비고 또 누볐는데 09.25에 An Vinh(2) 南쪽 200m 떨어진 水田지대에서 農夫를 가장한 VC 2명을 사살하고 10.30에는 그 東쪽에서 VC 1명을 뒤쫓아 사로 잡으려고 하였으나 끝내 저항하므로 그를 사살하고 배낭 1개를 노획하였다. 또 동굴 3개소와 매설된 “부비트랩” 3개를 폭파한 연후에 이날 탐색을 마무리 짓고 18.00부터 夜間경계로 移行하여 An Vinh(1) 南쪽 Con江 기슭에 각소대를 매복케 하였는데 20.50에 제 2소대는 Con江을 渡河하려는 VC 4명을 추격 끝에 1명을 사살하였다.

2월 28일(D+2일) : 이날 연대장 申鉉錫 대령은 제 2대대장으로부터 전날밤 奇襲한 敵을 追擊하겠다는 具申을 승인하고 1개중대를 공수기동시켜 그 退路를 차단하도록 아울러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 1대대는 전날의 탐색지역을 반복 탐색케 하는 同時에 1개중대로써 제 2대대

狀況圖 제50호 번개 66-3號 作戰(2월 28일)



공격지대 南西쪽을 차단케 하였으며 연대수색중대로 전일에 이어 반복탐색을 벌이도록 하였다.

(가) 제 2대대장 金容振 중령은 전날밤부터 奇襲을 피한 敵을 제 6, 제 7 兩중대로써 공격할 決心을 굳히고 연대장의 승인을 얻어 아래와 같이 공격명령을 下達하였다.

1. 제 7 중대는 09.00를 期하여 목표(My Thach)를 공격하여 지역내의 VC를 撲滅한다.
2. 제 6 중대는 07.00까지 탐승지역(Con江 南岸 Thai Thuan)에 집결하여 “헬리콥터”로 기동한 다음 목표 北쪽에 降着하는 즉시로 敵의 퇴로를 차단한다.
3. 화기중대는 본부 요원으로 1개소대를 편성하여 Thuan Truyen(2) 北쪽에 진출시켜 제 7 중대의 공격을 지원토록 하라.
4. 제 5 중대는 목표 “라”를 재탐색하라.』

1. 제 7 중대(장, 李鍾九 대위)는 이날 02.30까지 3次の 奇襲을 試圖한 VC을 未明을 期하여 중대 단독으로 공격하겠다고 대대장에게 건의하였으나 그는 승인하지 않고 『제 6 중대를 공수기동시켜 퇴로를 차단토록 할 것이니 相互合勢하여 敵을 殲滅하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는 이날 未明부터 敵을 追擊하려던 계획을 保留하고 제 6 중대가 공수기동할 때까지 현 埋伏지대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무렵 화기중대는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된 1개소대가 Thuan Truyen(2)에 進出하여 지원태세를 갖추었으며 포병제 61대대와 美戰爆機가 번갈아가며 목표 일대를 強打하여 爆音과 硝煙이 자욱하였다.

중대는 제 6 중대의 공수가 끝난 09.00를 期하여 제 1소대를 右一線으로, 제 3소대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 2소대를 지원소대로 하여 공격에 나섰다.

이리하여 중대가 09.50에 Thuan Hoa(2) 北쪽 800m지점에 進出하였을 무렵, 數未詳의 VC와 交戰끝에 3명을 사살하고 수류탄 3발과 M7종류탄 발사기 1개를 노획하였는데 殘敵은 北西쪽으로 退散하였다.

중대는 계속 그들을 追擊하면서 박격포 사격을 加하였으나 목표 南東쪽에 進出할 때까지 退散한 VC들을 찾지 못하고 13.30에 南下하는 제 6 중대와 연결을 지으면서 목표 南東쪽을 直衝하였다.

그런데 同 목표인 My Thach 일대는 2시간 동안이나 美전폭기의 폭격과 포병 61대대의 포격이 集中된 탓으로 중대가 突入하였을 때에는 거의 焦土化되어 버렸으며 VC들도 Nui That(山)쪽으로 潰退하였음인지 隻影도 찾지 못하였다. 중대는 이 일대의 탐색에서 그들이 미



쳐 겨두지 못한 被服類와 白米등을 소각하고 16.00부터 제 6 중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Kien My를 거쳐 원대로 복귀하였다.

2. 제 6 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06.30에 Con江을 徒涉하고 Thai Thuan 北쪽 탐승지역으로 移動하였다.

여기에서 탐승조를 편성한 다음 12대의 “헬리콥터”로 기동하여 09.00 My Thach 北東쪽에 降着하였으며 이곳에서 戰備를 가다듬고 北西쪽 退路차단에 임하였으나 爆撃과 砲撃에 依하여 VC들이 이미 退散한 연후이어서 接觸이 없었다. 이에 중대는 南西쪽으로 轉進하여 同 목표쪽으로 南下하였는데 My Thach 北端에서 제 7 중대와 連結을 짓게 되어 同마을 南쪽으로 進出하였다.

중대는 13.10에 여기에서 제 1 중대와 合勢하여 계속 차단임무를 수행하다가 16.00에 제 7 중대의 복귀를 엄호하고 Kien My를 거쳐 Con江의 假橋를 건너 귀로에 올랐다.

3. 제 5 중대(장, 李權發 대위)는 07.00부터 목표 “라” 일대의 재탐색에서 縱橫으로 반복하여 누웠으나 접촉이 없는 가운데 동굴 5개소를 파괴하고 용의자 1명을 체포하였으며 16.00에 Con江을 徒涉하여 제 19번도로에 이르러 車輻便으로 귀로에 올랐다.

(나) 제 1 대대장 林漢英 중령은 제 2, 제 3 兩중대로 하여금 전날에 이어 해당전투지대를 재탐색케 하고 My Thuan에서 차단하던 제 1 중대를 Phu Hung에 進出시켜 제 2 대대의 공



占領지역을 반복 탐색하는 제 5 중대

격을 지원하면서 南西쪽을 차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 1중대장 金大植대위는 이날 07. 30부터 기동준비를 갖추고 “헬리콥터”로 Phu Hung까지 공수기동하려고 하였으나 “헬리콥터”의 지원이 여의치 못하여 09. 00에 도보로 출발하여 Phu Hung 南東쪽에 進出하여 西側方을 차단하였는데 13. 10에 My Thanh 南쪽에 공수된 제 6중대가 南進하여 이 곳에 이르자 同중대와 合勢하였으며 16. 00에는 同지역 南西쪽으로 移動하여 제 7중대 및 제 6중대의 복귀를 엄호한 後에 중대기지로 되돌아갔다.

한편 재탐색에 나선 제 2중대(장, 金秉圭 대위)는 11. 50에 Dai An(3) 南쪽에서 Con江 沿岸쪽으로 退却하는 數未詳의 VC과 遭遇하여 한때 交戦을 벌였으나 더 對應치 않고 退散하는 그들 뒤를 쫓아 2명을 殺死하였으며 殘餘 VC들은 潛跡하여 버렸다.

중대는 이날 탐색에서 勇의자 110명을 擧出하여 An Nhon郡廳에 押送한 後에 16. 00부터 제 1번도로와 제 19번도로를 通하여 되돌아갔다. 제 3중대(장, 李元洋대위)는 前날에 이어 목표 “11”에서 Con江邊까지 精탐끝에 11. 40에 Nhon Thuan(1) 東쪽에서 潰走하는 VC 1명을 殺死하였으며 15. 30에는 Dai Binh 南端에서 Con江을 渡河하려는 VC 3명을 俘虜로 하여 그들이 소지한 手榴彈 1발을 擧획하고 勇의자 11명을 押送한 後에 16. 00에 中대기지로 復귀하였다.

(다) 연대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는 이날 06. 30부터 16. 00까지의 사이에 An Vinh(2)에서 Song Con(江) 北岸 일대를 縱橫으로 누볐으나 VC과의 接觸이 없었다.

이날 탐색에서 勇의자 35명을 押送하고 동굴 5개소를 焚破한 後에 Thang Cong을 거쳐 Thu Thien Thuan에 이르러 車輛便으로 17. 40에 元대에 復귀하였다.

## 라. 作戰 後의 概況

本 작전은 기갑연대가 派越이래 처음으로 연대규모의 兵력을 투입하여 전개한 것이며 통상적으로 실시한 部隊탐색과 개활지 清산, 도하, 夜間 이동 등 多樣한 형태를 取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진행도 中 敵情에 立脚하여 “헬리콥터”로 兵力을 空輸기동하여 퇴로를 차단케 하는 새로운 方法을 사용하여 敵을 剿滅하였다.

그리고 공격方向을 지정하기 보다는 공격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전투부대로 하여금 勇동성 있는 전투지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勿論 敵의 主力과 激突하여 血戰을 벌였다던가, 一翼에 敵群을 擊碎하지는 못하였지만 3일간의 전투에서 VC 106명을 殺死하고 33명을 俘虜로 擧았으며 432명의 勇의자를 擧출한 것은 적지 않은 成果였다.

本 작전을 통하여 該지대에서 遊動하는 地方 VC, Bac Giang중대를 擊破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에게 打擊을 가함으로써 이 작전에 이어 전개한 「번개 66-5호 作戰」(4월 2일~12일)에서 VC 사살 265명, 俘虜 80명, 소총 30정을 노획하여 이 곳에서 跳梁하던 Bac Giang중대를 비롯한 VC들을 撲滅하여 연대 전술적범지역내의 安定을 유지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연대는 본 작전을 마무리짓고 該지역내에서 2,000명의 住民을 越南정부 보호지역으로 移住시켰으며 수용시설과 食糧을 供給하여 주었다.

이러한 對民지원의 効果는 此後 전투에 있어서 전투지역 주민들로부터 信頼과 友好感을 더욱 敦篤케 하여 韓國軍에 協조하려는 意慾을 북돋아 주기도 하였다.

### 戰果 및 損失

구 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살	俘 虜		鹵 獲				전 사	전 상
		포로	용의자	소총	로켓트	실탄	수류탄		
제 1 대 대	21	4	182	1			9	5	11
제 2 대 대	67	16	142	3		107	13	2	11
연대 수색 중대	18	13	108		1	20	24	1	4
합 계	106	33	432	4	1	127	46	8	26

※ 용의자중 51명은 VC으로 판명되었음.

## § 戰 訓

### 戰鬪間 隣接部隊와의 協調

제 1 중대가 목표 “라” (My Thuan(1))를 공격할 때 그 공격로는 「花郎 2호 戰鬪」시의 제 2 중대와 同一하였으며 더구나 進擊도중 敵의 저항이 頑強한 지역에서도 「花郎 2호」와 同一하였는데 이 때도 右側에서 併進하던 연대수색중대가 側方 지원을 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전투후 심의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 1 중대가 목표 “라”에서 敵의 저항에 부딪쳐 苦戰하고 있을 때 同 목표 北쪽 My Duc(2)에는 제 5 중대가 있었고 南쪽에는 Nhon Thuan (1)로 전격하던 연대수색중대가 滲走하는 VC을

추격하면서 목표 “라”의 東側方 가까이 接近하고 있어 이 兩개 중대는 모두 제 1 중대의 공격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목표 “라”를 공격하던 제 1 중대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支援할 수 없었으며 연대수색중대는 그대로 Nhon Thuan(1)로 가버렸고 제 5 중대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투간에 있어 인접부대와와의 긴밀한 협조와 상황과악은 勝機를 마련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機動豫備의 確保

이 전투에서 연대는 전투중 색토 입수된 敵情에 따라 1개중대를 공수기동시켜 퇴로를 차단케 하였다.

즉 3일째(D+2)되는 날 제 7 중대 正面에 나타난 敵을 공격할 때 그 차단부대로서 An Binh(2) 지역을 탐색중인 제 6 중대를 뚫기 위해서 하였으며 同 중대는 탐색을 중단하고 Con江 南岸으로 移動하여 “헬리콥터”로 기동하여 차단지역으로 공수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한 탓으로 敵으로 하더금 退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었으며 공격부대가 목표를 점령하였을 때에는 VC들이 이미 退散한 다음이어서 공격이 無爲로 끝나고 만생이다.

만약 이러한 狀況 추이에 따라 適應할 수 있는 기동에비대물 브유하였다더라면 敵을 捕獲 적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 戰果와 損失

이 戰鬪에서 연대는 派越이라 最大의 戰果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敵과 激突하여 一次激戰을 벌인 것도 아니고 또 果敢하게 一擊에 공격하여 敵을 撲滅한 것도 아닌데 戰死 8명, 戰傷者 26명으로 都合 34명의 兵力損失을 보았다. 더구나 차단부대인 제 1 대대가 打擊부대인 제 2 대대보다 더 많은 戰死傷者를 내고도 戰果에 있어선 아주 儉少하였다.

즉 제 1 대대의 損失이 모두 제 1 대대가 목표 “14”에서 西側方을 차단하다가 목표 “라”(목표 “14”南東쪽)를 공격할 때 입은 損失이긴 하지만

同중대의 成果는 사실 2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打擊부대인 제 2 대대 제 7 중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戰死 2명에 負傷者 8명인데 比하여 戰果로서 사실 67명, 俘虜 16명이니 그 차이는 엄청난 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戰鬪에서의 兵力損失은 不可抗力이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結果는 전투준비나 그 지휘에 缺陷이 있었거나 또는 精神武裝의 鬆弛로 공격정신의 결여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1 기갑연대장 申 鉉 錄 대령

(1978년 8월 9일 제 6 군단에서, 당시 중장)

本 작전은 Con江 北쪽 平野지대에서 潛動하는 VC를 撲滅하고 그의 同調者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以後 작전을 보다 容易케 하고자 전개하였던 것이다.

VC들이 즐겨 말하는 所謂 고기(VC)와 물(住民)의 關係를 끊어 고립시키고자 하는 작전으로

서 지금까지의 작전중 가장 큰 연대규모의 작전이던 제 1 연대에서도 同전투지대 北東쪽에 陽攻을 실시하여 奇襲에 萬全을 期하였다.

전투상황에 관하여선 대대장이나 중대장들의 증언을 통하여 나보다 더 詳細히 說明하였을 것이므로 이 機會에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을 밝혀두

갔다.

越南戰爭에 있어서 우리는 두진장의 彈藥과 두 제한의 機動力을 갖고 小銃 한자루에 몇놈씩 매 달린 VC “제릴러”와 싸워왔다. 물론 「Duc Co 전투」처럼 越盟正規軍과 싸워 82명을 사살한 감 덩 길었던 전투도 있었지만 이전 특수한 例일 뿐 이다.

그러므로 越南戰爭에서 얻은 전투경험을 앞으로 예상되는 韓國전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

긴다면 이는 過信에 지나지 않는다.

派越 當時 勇氣와 비장한 決意 밑에서 參戰했던 戰友들에게 罪孽스러운 이야기지만 根本的으로 틀리는 戰爭을 유경험이라고 자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越南戰爭이 그 나름대로 격식을 갖춘 보람된 것이었음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北德와의 예상되는 전쟁에서 이를 過信하지 말자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 제 1기갑연대 제 2대대장 金 容 振 중령

(1978년 5월 16일 제 2군 사령부에서, 당시 준장)

본 전투에서 제 1대대는 차단부대로서 南東쪽을 차단키로 하고 연대수색중대가 西쪽을 차단토록 하였으며 우리 대대는 打撃부대로서 전투지대 北쪽 Bao Duoc SonLi 일대에 “헬리콥터”로 공수착륙할 계획이었으나 “헬리콥터” 지원이 여의치 못하여 2개중대단 北쪽에 공수기동하고 1개중대는 도보로 전투지대 北西쪽으로 進出케 하였다.

이리하여 첫날 전투는 계획대로 統制線까지 압축하여 VC를 剿討하였으며 다음 날인 D+1일에는 통제선 내부의 재탐색을 끝다쳤는데 예감이 이상하여 제 7중대를 대대전술지휘소 西側方으로 뽑아 夜間 埋伏으로 경계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날 子正이 가까울 무렵 제 7중대 埋伏지역에 VC 1개중대 규모가 3회에 걸친 기습으로 소대장 1명과 사병 7명이 負傷을 입었다. 그

다음 날 宋明에 제 7중대장 李鍾九 대위가 단독으로 기습한 敵을 追擊하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나는 당시 상황으로 보아 敵들이 박격포와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추격하다가 오히려 損失을 볼 것을 염려하여 목적과 포격을 集中하고 제 6중대를 敵의 後方에 공수기동시켜 퇴로를 차단케 한 다음 제 7중대를 공격케 하였는데 제 6중대의 공수가 계획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또 차단부대가 투입되기 전에 목적과 포격을 集中한 탓으로 제 7중대가 공격하였을 때에는 VC들이 이미 退散한 다음이라 한눈도 못잡았다.

戰果를 올려 중대사기를 드높이려던 李鍾九대 위에게 원망을 들었지만 대대장으로서의 위험한 공격을 敢行케 할 수는 없었다.

### 제 1기갑연대 제 7중대장 李 鍾 九 대위

(1978년 3월 7일 제 26사단 제 76연대장실에서, 당시 대령)

派越이래 여더차례의 戰鬪를 하였지만 우리 중대는 戰功을 세울 運이 없어 거의 戰果가 없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는 거어코 戰功을 세워 중대의 사기를 높이려고 전원이 다짐하고 나섰다.

첫날 전투에서 8명을 사살하고 다음 날 탐색에서는 VC 6명을 捕虜로 잡았을 뿐, 별로 戰果가 없어 夜間埋伏으로 통제선내의 VC를 잠을 계획이었는데 大隊長으로부터 대대전술지휘소는 西側方

에서 夜間경계에 임하라는 명령을 받고 日沒時에 移動하여 埋伏으로 들어갔다.

이 때 중대는 Bao Duoc Son山 南쪽 1km지점에 右로부터 제1, 제2, 제3 소대 順으로 埋伏케 하였는데 中央 제2 소대가 埋伏지역으로 進出하다가 民間人(피난민) 30여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매복지역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소대장 姜養英 소위는 그들을 대동하고 매복지역으로 進出한 다음 그들을 한곳에 수용하고 埋伏을 실시하였다.

밤이 깊어 갈수록 어린것들이 우는 울음소리가 멀리 흘러나가 위치가 탄로되리라고 예상한 소대장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고 전투태세로 突入하였는데 子正이 가까울 무렵부터 기습을 피한 VC들

은 02.03에 박격포와 기관총을 亂射하며 埋伏지역으로 侵襲하여 한때 激戰 끝에 退散시켰으나 소대장을 비롯한 사병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나는 即時 대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동이틀 무렵 그들을 추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대장은 「포격과 폭격을 가한 다음 제6 중대와 合勢하여 공격하라」고 명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원 사격이 있은뒤 제6 중대의 공수가 끝나 北쪽과 東쪽에서 철격하였으나 이 때에는 VC들이 이미 退却하고 없었다.

이리하여 戰功을 세울 수 있는 絶好의 機會를 또 놓치고 말았지만 이 전투에서 VC 47명을 사살하고 6명을 捕虜로 잡아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 제1기갑연대 제5 중대장 李 權 馥 대위

(1978년 7월 18일 제5 공수여단에서 : 당시 대령)

중대가 계획된 목표를 모두 점령하고 徹夜埋伏한 다음 날 제1 중대가 공격하던 목표 “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목표 “라”[My Thuan(1)]는 「花郎2호 전투」때 제2 중대가 공격하다가 VC의 頑強한 저항에 부딪쳐 좌절된 곳이고 本 전투에서는 첫날 제1 중대가 공격하다가 「花郎2호 전투」 때와 같은 곳에서 VC의 저항을 받아 물러섰으므로 공격명령을 받고 마음의 부담이 컸다.

그리고 중대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대원들에게 「가장 戰功에 빛나는

중대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VC은 弱者에겐 強하지만 强者에겐 매우 弱하다. 대한민국군의 勇敢性을 발휘할 기회가 왔으니 無敵 제5 중대의 긍지를 잃지 말라」고 격려한 연후에 支援포격을 強打케 하고 박격포격과 기관총을 퍼부으면서 목표 “라”의 중앙부위로 直衝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목표 앞 30m에서 突擊을 決行하여 쳐들어 갔으나 VC들의 저항이 없어 예상외로 손쉽게 점령하였다. 이 목표 “라”의 공격에서 VC들의 常套수법인 「弱하면 奇襲하고 強하면 신속히 遁避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 제1기갑연대 제2 중대장 金 秉 圭 대위

(1978년 7월 3일 제3 관구사령부에서, 당시 대령)

중대는 대대에 비로 있다가 전투 당일 25km의 距離를 車輛便으로 기동하여 전투지대 東쪽 제3 중대전술기지 北쪽에 投入되었다.

統制線 “성공”에 이르렀을 무렵 北, 西 兩쪽에서 쫓겨오는 VC들과 正面으로 부딪쳐 싸웠는데

이 때 VC들은 목숨을 건 決死의 退却이요, 저항이어서 주로 수류탄을 마구 던지며 도주하려고 하였다. 중대원들이 이러한 점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으므로 負傷者를 내지 않았으며 8명의 VC를 사살하였다.

## 17. Nui Hoc Khe(山) 埋伏戰 (1966년 3월 5일 부터 1966년 3월 6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 51 호

### 가. 參加部隊 및 指揮官

	我 軍	
제 1 기갑연대	제 1 소대	장,
수색중대	중위	徐完秀
	敵 軍	
	An Nhon 郡 VC	

### 나. 埋伏 前의 概況

연대는 전달인 2월 下旬에 越南 관제기관으로부터 Song Con(江) 北쪽 일대에 出沒하는 지방 VC들이 연대본부로부터 6km 東쪽에 있는 Cu Lan Bac(2)에 細胞網을 조직하고 있다는 諜報를 입수하였다. 이에 연대본부에서는 모든 정보수집기관을 동원하여 그들의 動靜을 살피고 活動이 빈번한 要所에 配備자를 배치한 결과 3월 9일 Song Con(江) 北쪽에서 VC 1개 중대규모가 야간에 Nui Hoc Khe(山) 鞍部를 지나 Nui Thap(山) 쪽으로 移動할것이라는 諜報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연대장 申鉉鎡 대령은 지금까지 越南측으로부터 入手한 정보의 信憑性이 회박하다는 點에 비추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대 수색중대(장,李大憲 대위)로 하여금 야간배복케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李大憲 대위는 제1소대에서 1개 분대(4)의 配備자를 Nui Hoc Khe(山)에 배치키로 하였는데 同高地의 標高는 110m에 불과하나, 부근일대에 펼쳐진 平야를 瞰制하고 제19번도로를 踰越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An Nhon—Binh Khe—Tay Phuoc의 3개 郡界를 이룩하고 있는 Nui Hon Tici(山)(海拔 543m)로 이르는 接近路의 길목이기 때문에 重視되는 要地이다.

### 다. 埋伏 經過의 概要

#### (1) 埋伏 計劃

중대장李大憲 대위는 VC들이 제아무리 지형에 熟達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행동하려며

는 필시 步行하기 쉬운 鞍部의 小路를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1소대장 徐完秀 중위에게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소대장은 매복에 숙달한 제1분대장 金昌郁 하사를 조장으로서 11명(제1분대가 주축)으로 埋伏組를 편성하고 목표와 진입로 및 행동개시 시간을 決定하였는데, 목표는 Nui Hoc Khe(山) 鞍部로 定하였다.

## (2) 埋伏 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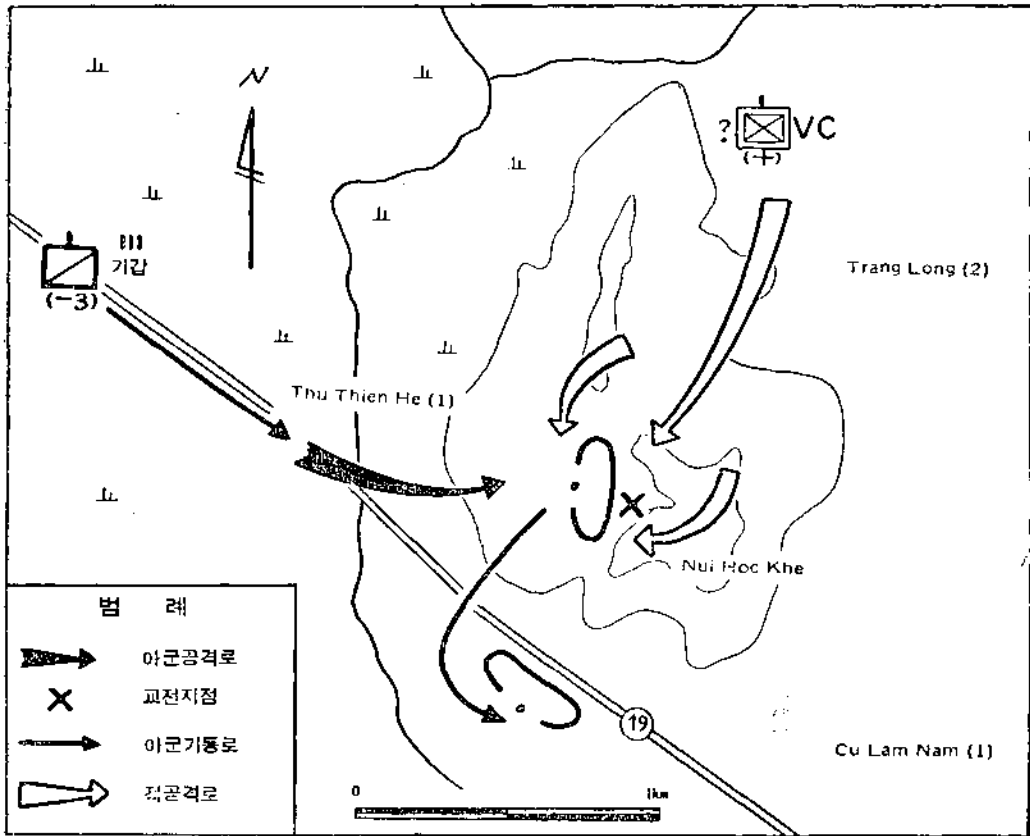
매복조는 소대장이 인솔하여 3월 5일 19.00에 3/4ton 차량편으로 중대기지를 出發하여 30분만에 매복지부근의 제19번도로에 도착하는 즉시 散開하여 水田지대를 거쳐 우거진 숲속을 헤치면서 목표인 Nui Hoc Khe(山) 鞍部의 小路 교차지점으로 진입하였다. 곧이어 소대장은 주위일대를 살핀 연후에 敵의 예상되는 접근로로 指目되는 東쪽 小路와 15m간격으로 平行線을 이루도록 각개병사를 배치하고 휴대한 5發의 “크레모어”로 殺傷지대를 形成한 다음 基地로 되돌아갔는데 이때가 20.30이었다.

한편 매복조(장, 金昌郁 하사)는 소대장이 基地로 돌아간뒤 敵의 출현을 待機하기 8시간으로 한밤을 지새웠으나 敵影을 볼 수 없으므로 拂曉에 복귀하려 하는데 左端 자동화기조 부근으로부터 인기척이 들려옴과 동시에 VC 2명이 모습을 드러내고 뒤를이어 10m 거리를 두고 2개분대규모의 敵이 접근하는 全貌가 드러났다. 이때 자동화기사수 金平海 상병은 즉시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에 呼應한 組員들이 숨소리를 죽여가며 그들이 살상지대내에 들어설때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2명의 침병이 매복진앞에 다가섰다. 그런데 그들은 매복진지부근에 이르자 小路를 이용하지 않고 매복대 10m앞에 있는 숲의 연안부분을 따라 通過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黎明下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보였다. 이와같은 순간이 얼마간 계속되는동안 그들은 첫번째와 두번째에 설치한 “크레모어”를 알아내지 못하고 통과하였지만 세번째 “크레모어”줄을 목격한듯 이를 유심히 살피면서 왼손을 들어 主力의 停止를 신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主力은 이를 보지 못하였던지 그대로 전진을 계속하였으므로 그때에는 이미 살상지대내에 들어서고 있었다.

바로 이때에 분대장이 당기는 신호줄이 흔들리자마자 “크레모어”가 폭발하고 뒤를이어 일제히 수류탄을 터뜨리며 사격을 퍼붓자 새벽 山野를 뒤흔든 轟音이 斷末魔의 비명마저 산켜버렸다. 그러나 이때 매복조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들의 後續부대인 1개중대(+) 규모가 매복조를 포위하면서 압박하였으므로 이에 應戰하였지만 衆寡不敵으로 휴대한 鎗탄도 바닥이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지에 赴援을 요청하는 즉시 道路 南쪽에 있는 小丘陵



狀況圖 제51호 Nui Hoc Khe(山) 埋伏戰



로 물러나 도로를 사이에끼고 敵과 서로 對峙하였다.

한편 연대본부에서는 매복조의 상황보고를 접수하다가 이러한 情狀에 이르자 매복지의 地形에 숙달한 연대 작전주임 李 孝 소령이 수색중대 제1소대(장, 徐完秀 중위)를 이끌고 교전지로 달려갔는데 교전지부근에 이르렀을때 선두차량 1/4ton이 顛覆하여 李소령이 부상하였다.

이에 소대장 徐完秀 중위는 이를 基地에 보고하는 동시에 부상한 李 孝 소령과 운전병을 급히 후송한 다음 매복조와 교전중인 敵陣으로 불격을 決行끝에 當面의 敵을 擊退하였다.

잠시뒤에 적진을 휩쓴 소대와 매복조는 부근일대를 探索한 결과 유기시체 7구를 헤아리고 SKS소총 3정과 대검 4개 및 방망이수류탄 10발을 노획하였다.



埋伏隊員들이 敵의 접근을 대기하고 있다

### 라. 埋伏 後의 概況

이 배복전에서 擊破된 敵은 Song Con(江) 北쪽에서 遊動하는 An Nhon郡의 지방 VC으로서 그들은 食糧을 橫奪한 다음 Nui An Troung(山)으로 退却하다가 彈打를 當하였음이 그뒤에 밝혀졌다. 한편 사단에서는 이번 埋伏이 1개 분대규모로서 敵의 1개 중대(+)를 擊退한 戰例로 평가하고 사단 전장병 및 그뒤 增派부대로서 현지에 도착한 제26연대 병력과 제9사단의 전투요원에게 교전현지에서 배복의 서법을 보임으로써 야간배복의 戰技를 연마케 하였다.

### 綜合 戰果(損失없음)

사	살	幽		獲
		개 인 화 기	대	검
7		3	4	10

## § 戰 訓

## 正確한 諜報수집과 狀況判斷

연대는 다방면에 걸쳐 첩보를 수집한 결과와 그리고 越南側으로부터의 通報에 따라 VC 1개중대규모가 야간에 Nui Hoc Khe(山) 鞍部를 지나 Nui Thap(山)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제보한 越南側의 첩보가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경험에 비추어 시현삼아 1개분대(+ )를 배부제한 것이다. 만약 증강된 1개소대규모만 投入하였다면 敵의 예상접근로인 北쪽 小路 일대에 「V」字形으로 감복조문 散開하는 동시에

살상지대로 접근로와 피로리 2개지점에 중심길이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날밤 나타난 VC 1개중대 정도는 能하 殲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漆黒의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念頭에 두고 1개분대규모를 시현삼아 배치한 것에는 同意할 수 없다. 왜냐하면 用兵에 있어서는 항상 豫想치 않은 變故, 더구나 敵寇의 境遷에 對峙하는 周廻性이 뒤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기갑연대 작전주임 李 孝 소령

(1978년 1월 17일 제102학훈단장실에서, 당시 대령)

내가 연대 작전주임으로 제각각에 수집된 諜報 중에서 내용과 실제상황이 一致된 것은 木 埋伏뿐이었다. 당시 入手한 첩보에 의하면 Song Con(江)北쪽의 VC들이 이날 야간에 Nui Hoc Khe(山) 鞍部를 지나 Nui Thap(山)쪽으로 移動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연대에서는 수색중대(장, 金大憲 대위)에 야간배복을 지시한 바, 同중대는 1개분대(+ )를 여기에 潛伏하여 VC 1개중대규모가 이동하는 것을 迎擊하였는데 埋伏線는 交戰하다보니 VC의 兵力이 상상외로 많으므로 基地에 支援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로 南쪽에 있는 小丘陵으로 물러나 그들과 對峙하고 있었다. 한편 연대에서는 敵의 상황도 曖昧하고 날이 아직 밝지 아니하였으므로 支援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意見이 紛紛하였다.

그러나 나는 「위급할때에 손실이 있을까마 支援하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어느누가 夜間잠복에 나서려 하겠느냐」라고 주장하여 그 지역의 地理에

맞은 내가 직접 同중대의 1개소대(+ )를 선두에서 이끌고 달려갔는데 交戰地에 도착하는 날나 탐승했던 차량1(ton)이 도로공사용 끝재담에 받치 顛覆되면서 나는 얼굴과 팔에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나 바로 뒤차르던 支援병력에 의하여 敵은 격퇴되었다. 그뒤(후송도중대) 정신을 차려보니 방탄조끼의 가슴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나는 平素에는 방탄조끼와 철모는 잘 착용하지 않았으나 이날 支援병력을 이끌고 나갈때에는 예감이 이상하여 이를 입었는데 덕분에 그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戰死하였을 것이다. 이결과 “戰場에 일할때에는 必히 개인장구류종 갖출것은 갖추어야 한다”는 教訓을 얻었다. 이 埋伏은 그때까지 1개분대규모로써 가장 모범적이라하여 交戰地에서 부대 관계 將兵에게 시범을 보여 越南戰의 특수성을 認識시키기도 하였다.

## 18. Hoa Son (3) 戰鬪 (1966년 3월 21일 부터 1966년 3월 22일 까지)

참조 : 상황도 제 52 호

### 가. 參加部隊 및 指揮官

我 軍		敵 軍	
제 1 기갑연대		화기소대 장, 중위	朴 永 煥
제 2 대대	5 중대 장,	제 12 중대	경기관총소대(배속)
대위	李 權 馥	선임하사관	중사 徐 基 鳳
地方 VC 1개소대			

### 나. 戰鬪 前의 概況

중대는 지난달 28일 대대계획의 일환으로 Hoa Loc에서 대대지휘소가 위치한 Binh Tan(現전술기지)으로 移動한 다음 3개소총소대를 基地에, 화기소대를 관측소(Nui Ngang : 海拔 350m)에 배치하고 전술기지를 중심으로한 책임지역내에서 여러차례 중대 및 소대 규모로 探索하면서 지역내의 제 19번 도로를 要扼하였다. 그러나 3월초부터 중대기지와 도로에 近接한 村落에 敵의 侵擾가 잦아지고 심지어 중대 觀測所까지 接近하면서 我軍의 동정을 窺覽하는등 그 躍躍하는 양상이 점차 露骨化되어갔다. 이와 같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중대장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挑發을 제압하고 이를 조기에 捕捉하고자 평소부터 의심스럽게 느꼈던 Hoa Son(3)부근의 三叉路(중대관측소 南쪽 1.8km)에 1개분대규모의 埋伏組를 배치기로 하였다. 여기는 東쪽 3km에 제 19번 도로가 西쪽으로 뻗고 있으며 西쪽에는 Nui Dong Tre(山) (標高710m), Hon Giac(山) (同 810m)의 連嶺이 솟아있고 南쪽의 Nui Gung(山) (同 492m)과 北쪽의 Nui Ngang(山) 중간지대이며 주위 일대는 숲이 무성한 開豁地로 4m폭의 等外路가 제 19번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 다. 戰鬪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지금까지 수집한 敵情을 종합분석한 결과 Hoa Son(3)에 드나드는

우리들은 소대(-)의 소수兵力으로 推斷되었으므로 계획된 매복지역 일대를 관측할 수 있는 화기소대장 朴永煥 중위에게 1개분대(+)의 埋伏組를 編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대장은 관측소 自體경계에 필요한 人員을 제외하고 중화기중대에서 배속된 경기관총소대 선임하사관 徐基鳳 중사를 매복조장으로 하여 埋伏경험이 있는 兵士 10명(화기소대원 5명, 제2소대 제1분대 자동화기사수 1명, 중화기중대 경기관총 제1소대원 4명)을 選拔하여 混成 편조하였다. 이어 觀測所(△350) 南쪽 下端의 Hoa Hiep(1)과 Hoa Son(3) 사이에 있는 三叉路를 목표로 定하고 20일 薄暮를 期하여 관측소로부터 目標까지 이르는 急傾斜능선을 따라 진입케 하였다.

## (2) 戰團 實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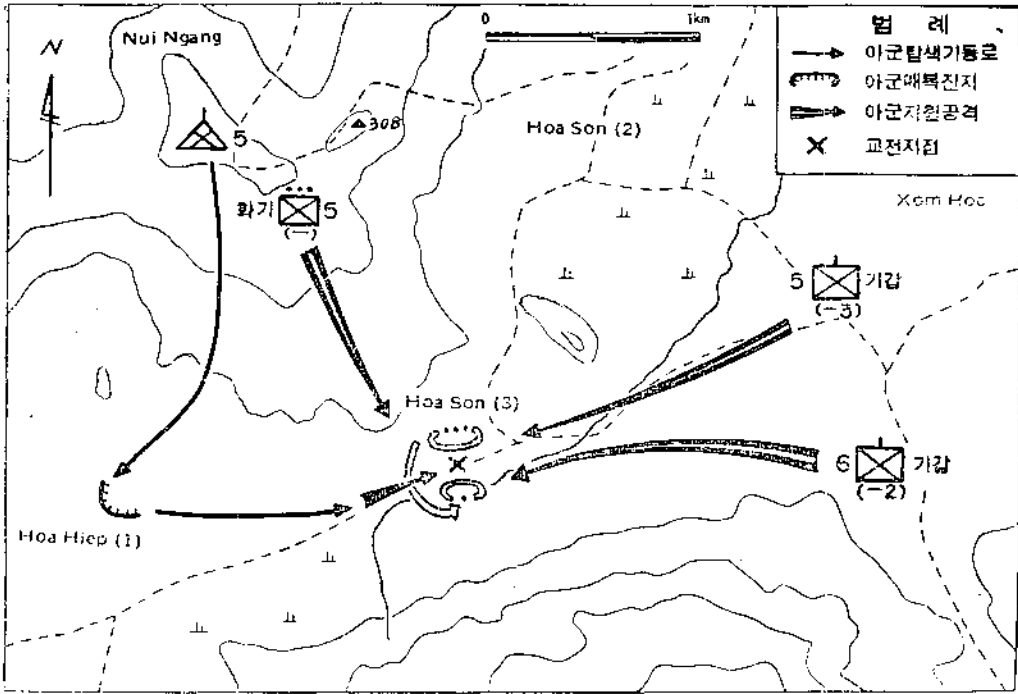
20일 17.30부터 매복조는 조장 徐基鳳 중사 指揮下에 急傾斜능선을 따라 下向하였는데 울창한 灌木에 뒤엉킨 가시덩굴로 말미암아 행동에 제한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두릅쓰고 1km 진출끝에 개활지에 도착하자 여기부터는 숲을 헤치면서 목표로 진입하였으며 곧이어 조장 徐중사는 주위를 살핀 연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埋伏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뜬눈으로 밤을 드새우고 黎明을 맞이한 埋伏組는 복귀를 준비하는 한편 觀測所에 위치한 소대장에게 그간의 상황과 原計劃대로 되돌아가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때에 朴永煥 중위는 同매복조로 하여금 복귀케함에 있어서 VC의 流動이 자주 관측되는 Hoa Son(3)의 探索을 兼하게 하려고 다짐하고 그의 腹案을 중대장에게 건의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에 소대장은 매복조장에게 同마을을 探索하면서 복귀하라고 지시한 다음 이르기를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敵의 逆埋伏이 있을지도 모르니 탐색간에 四周경계를 철저히하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매복조는 06.30에 埋伏地를 떠났는데 이때에 金在喆 하사(60미리 박격포분대장)가 尖兵으로 진로를 개척하면서 마을로 접근하였다. 이 옥고 마을 어귀에 이르자 조장 徐基鳳 중사는 마을 外廓에 掩護組를 배치하고 내부 탐색을 끝마친 다음 마을앞의 도로를 따라 歸路에 올랐다. 그런데 이 도로는 南北 兩쪽으로 Nui Ngang(山) 및 Nui Giang(山)에서 뿜은 稜線이 마주치는 300m幅의 狹少한 지대를 지나 제 19번도로에 이어지고 있으며 도로兩便 山기슭에는 숲이 우거져 視界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대를 500m 前進하였을 무렵에 도로 양측을 따라 이어진 좁다란 논위에서 10여명의 婦女子들이 일출하고 있었으며 부근 풀밭에서 소를 먹이는 牧童과 兒童들(10명)이 뛰놀고 도로북편에는 머리에 삿갓을 쓰고 낫을 갈고있는 중년남자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쭉

穩하고 하가로운 농촌의 風景은 越南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는 하지만 조장 徐基鳳 중사는 이상한 예감이들어 즉시 대원들에게 주의를 喚起시켰는데 아니다를까 도로북판에서 낮을 갈던者가 갑자기 낮을 뜰에다 후려치자 마치 장난감 딱총소리와 비슷한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 北쪽의 숲으로부터 그들 一味의 指揮者가 호령하는 듯한 高喊소리가 들리자마자 1개소대규모로 추산되는 敵으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 곧이어 숲속에서 VC 2 명이 소총을 亂射하면서 매복대를 向하여 달려들었다.

狩地에 이러한 기습을 받은 매복대는 反射的으로 응사하는 한편 도로변의 楸을 방패삼아 다가서는 2명을 사살하고 계속 사격을 集中하였다. 그러나 對峙한 徒衆들은 미리 선정한 유리한 지대에 潛伏한채로 銃擊을 加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熾烈度를 더하여 갔으며 1개분대규모가 매복대의 退路를 차단하려고 右側背로 우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조장이 2명을 사살한데 이어 右側에서 突擊을 시도하는 2명을 자동소총사수 林秀雄 병장이 재빨리 사살하였지만 集注되는 兇彈에 맞아 現場에서 장렬하게 戰死하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조장은 不利한 상황하에서 더이상 머물러있기 보다는 各自 分散하여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하는것이 有利할 것이라고 판단하자 곧 대원들에게 東쪽으로 各個 躍進하라고 호령하였는데 이 判斷이 잘못이었다. 즉 집중된 衝擊으로 包圍網을 뚫지 않고 分散하였기 때문에 각개격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곧이어 徐 중사는 60min 박격포 분대장 金在喆 하사와 더불어 대원들의 脫出을 掩護하였다. 이러하여 대원들은 한 사람 한사람씩 뛰기 시작하였으며 隱호하던 金在喆 하사가 좌측팔에 총탄을 맞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포북으로 도로변의 古木나무까지 前進하여 접근하는 VC 1명을 사살하였으며 곧이어 달려드는 VC에게 수류탄을 던지려하였으나 出血로 말미암아 氣盡脈盡한 나머지 수류탄을 든채로 그자리에서 熱血을 뿌리며 陣歿하였다. 한편 맨먼저 交戰場을 벗어난 金龍雄 상병(중화기중대 경기관총사수)은 제19번도로에 도착하자 때마침 지나가는 美軍차량(3¼ ton)에 便乘하여 대대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대는 즉시 제5중대장 李權馥 대위에게 赴援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로 하여금 제5중대의 掩護를 담당케하였다. 이에따라 제5중대는 觀測所에 위치한 화기소대장 朴永煥 중위에게 매복대를 赴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중대基地에서 뽑아낸 2개분대를 중대장이 직접 지휘하여 3¼ ton 차량편으로 교전장부근으로 急遽출동하였는데, 이때가 11.40이었다. 중대장 李權馥 대위는 우선 敵의 包圍로부터 脫出한 兵士들과 손을 마주잡은 다음 그들의 挾擊으로 부상한 2명과 戰死한 2명을 救出하였다. 또 화기소대는 관측소(△350)로부터 縱隔

狀況圖 제52호 Hoa Son(3) 戰鬪



室능선을 따라 下向하다가 교전지부근의 畝地線에 진출하였을 무렵 敵이 布陣한 흔적을 찾아내고 그 근방을 探索끝에 VC 1명을 사살하였다. 이 무렵 南東쪽으로부터 제6중대(-3)가 교전장에 進入하자 對峙한 分子들은 Nui Ngang(山) 西쪽으로 潛跡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5중대장 李權馥 내위는 제6중대장 李泰一 내위와 협조하여 西쪽으로 竄進하면서 부근일대를 探索한 결과 遺棄시체 12具를 확인하고 CAR소총과 SKS소총 각 1정을 노획하였다.

### 라. 戰鬪 後의 概況

이 전투에서 我軍에게 奇襲을 加한 敵은 지방 VC으로서 배복전에도 인근부락에 빈번히 出沒하면서 그들의 細胞조직을 通하여 我軍의 動靜을 살피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민으로부터 확인되었다. 이는 韓國軍이 派越된 以來 敵으로부터 기습을 받은 최초의 戰例로서 중요시 되었는데 그뒤 敗因을 분석한 결과 책임지역내의 敵情 파악을 소홀히 한 결과 埋伏을 끝마치고 기지로 되돌아갈때 배복대에 아무런 지원대책도 없이 인근부락 探索의 임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敵의 逆埋伏에 걸려들었으며 이에 즉각 對應하지 못한 두가지가 지적되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戰鬪間에 드러난 敵의 戰法과 我軍의 未備한 點을 연구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쏘부대에 하달하여 이러한 前轍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契機로 VC의 欺詐術에 말려들지 않고 즉각 對應하는 戰術技術을 익히는데 힘을 기울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

戰 果		損 失			
사 살	개 인 화 기	戰 死	戰 傷	개 인 화 기	
12	2	2	2	4	

### § 戰 訓

#### 埋伏組는 恒時 建制를 維持하여 運用하라

제5중대 화기소대장은 埋伏임무를 부여받자 同 중대 제2소대 제1분대 자동화기사수 1명을 포함한 소대원 6명과 중대에 배속된 중화기중대 경기 관총 제1소대원 4명(조장 徐基鳳 중사포함) 도합 10명으로서 매복조를 混成편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당시 소대는 관측소 자체경계를 하는데도 힘이 겨웠지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대별로 경계에 필요한 要件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混成편조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매복조를 指揮하게 된 徐基鳳 중사는 그뒤 面談할 때 證言하기를 「兵士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交戰間에 곤란한 點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라고

술회하기도 하였다.

모든 부대행동에서는 建制를 유지하는 것이 常識이 거니와 하물며 敵情이 不明確하고 중대主力의 지원거리 밖에있는 容疑지대에 投入하는 매복조를 混成편조한 것에는 理由를 不問하고 同應할 수 없다. 主力의 지원거리 밖으로 깊이 침투하는 부대는 그 규모의 大小를 막론하고 지휘관의 自由裁량에 依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단독으로 戰鬪하게 되느니 만큼 建制를 중심으로 증강되고 실전경험이 있는 지휘관을 임명하여야 할 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徹夜한 埋伏隊에 새로운 任務를 賦與하는 것의 可否

潛伏을 끝마치고 復歸하는 매복조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려거든 그를 위한 충분한 支援대책을 講究한 後에 이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중대의 화기소대장은 적정이 曖昧模糊한 지역에서 아무런 지원수단의 준비도 없이 매복으

로 철야한 劣勢한 兵力으로 하여금 이를 強行케 하였다. 이 결과 기습을 받은 매복조가 전투의 機先을 맺긴채 苦戰하였으나 이를 즉시 支援하지 못하였다. 그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화기소대장 朴永煥 중위는 同소대가 每週 1회이상 Hoa Son



(3)과 제19번도로間을 偵察하게끔 계획된바, 當該 週의 이 임무를 매복대의 복귀경로를 바꾸어 이 區間의 偵察을 병행케 함으로써 대신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매복대가 비록 接敵없이 임무를 끝마

쳤을 지라도 긴장속에서 받은 지새운 까닭에 날이 새면 心身과 긴장이 解弛되기 쉬운 싸움터의 心理현상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새로운 임무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狀況報告의 重要性

3월 21일 10.30 埋伏組는 임무를 끝마치고 도로를 따라 중대기지로 복귀중 도로兩쪽 숲으로부터 갑작스런 敵의 기습을 받고 그들의 包圍網속에서 應戰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다가 兵士 1명이 必死의으로 被襲地에서 脫出하여 교전한지 1시간뒤에 비로소 대대본부에 이를 보고 하였다. 當時 매복조는 무전기(AN/

PRC-6)외에도 約定된 통신수단으로 打式조명탄 2發을 휴대하고 있었으므로 소대와의 交信이 가능하였지만 沈着性을 잃은 조장이 支援을 요청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이 戰例는 戰場에서의 모든 상황은 成敗에 구애됨이 없이 신속하게 報告되어야만 한다는 새로운 教訓을 남겨주고 있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1기갑연대 제5중대장 李 權 馥 대위

(1978년 4월 26일 제5공수여단 참모장실에서, 당시 대령)

당시 중대는 Binh Khe郡 Hoa Lac에 있던 중대전술기지를 제6중대에 인계하고 전술기지(Binh Tan)로 옮겨온지 1개월째 되었을 무렵이다. 이 책임지역은 새로 인수한 지역이므로 아직도 我軍의 손이 미치지 못하였고 敵은 我軍의 企圖를 탐지하기 위하여 중대 基地 및 觀測所에 빈번히 침투를 자행하려 하였다. 이에 중대는 거의 每日 敵의 예상접근로에 분대규모의 소규모 埋伏組를 배치하면서 牽制하여 오던중 이날 대대로부터 Hoa Son 부락일대가 疑心스러우니 매복조를 내보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決行하였으나, 復歸중에 그들의 逆埋伏에 걸려든 것이다.

그때 支援요청을 받고 現場에 달려가보니 敵은

그 자취를 감추려하고 중대원 4명이 주위의 논과 풀밭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중 2명(백박이 끼고있는 상태)은 흔히 응급차편으로 후송하여 생명을 건졌다. 이 전투후에 敵은 기지 인근부락에 자주 출몰하여 我軍의 동정을 살피면서 그들의 細胞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대기지에 57mm 무반동총 사격을 加하기도 하고 Qui Nhon-An Khe Pass로 이르는 주요보급로인 제19번도로에 埋設된 송유관을 爆破하는 등 그들의 행동은 점차 露骨化되어 갔다.

그후에도 비록 跋扈하는 頻度는 잦았으나 그 규모는 소대미만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견제활동으로 平穩을 되찾았다.

#### 제12중대 경기관총소대 선임하사관 徐 基 鳳 중사

(1978년 6월 13일 제1군단 제101통신대대 제1중대 본부에서, 당시 상사)

이 戰鬪에서 나는 배복組長으로서 參加하였다. 이날 제5중대 화기소대장 朴永煥 중위로부터 埋伏명령을 받은바 당시 제8중대 제1소대 기관총 1개반이 同소대에 배속되어 있었다. 各兵士들은 개인화기(기본휴대량포함)에 수류탄 2發만을 휴대하고 組長인 나는 무전기(AN/PRC-6)와 打式조명탄 2發을 준비한 다음 어두워질 무렵 目標에 진입하였으나 接敵없이 다음날 黎明을 맞이하였다. 이렇게되자 나는 예정대로 복귀하려고 소대장에게 보고하자 소대장은 나에게『인근 Hoa Son (3)부락을 탐색하고 아울러 부락에 出入하는者가 하루에 몇명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돌아오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潜伏을 끝마친 分隊원들은 긴장속에서 한밤을 지새운 까닭에 心身이 피로하고 緊張이 解弛된 상태였다. 곧이어 행동을 개시하여 부락에 도착하였는데 小路와 계곡에 이르는 入口에는 철조망과 竹籬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었고 주위에는 기타 장애물로 補強되어 있었다. 이에 나는 VC이나 그들을 庇護하는 者들이 潜伏하고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晝索 관측소에서 관찰되기는 하루에도 50여명이 부락을 드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따라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었다. 일단 복귀하기로 決心하고 관측소에 위치한 소대장에게 “쿠명도로—제19번도로를 경유하여 중대거지로 돌아가겠다”라고 보고한 연후에 歸路에 올랐는데, 평균중대로 500m정도 이동하였을 무렵 도로 위에서 어린이 10여명이 뛰놀고 있었으므로 그중 한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순간 도로 北쪽 숲으로부터 갑자기 高喊소리가 들리더니 “약닥 따닥..총성이 울리면서 발밑에 흙먼지가 일어났다. 이에 分隊원들은 反射的으로 도로 오른쪽(南쪽)의 논쪽으로 몸을 숨기고 應射하였는데 논쪽의 높이가 불과 50cm정도인 탓으로 계속해서 應戰하기에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이때 나는 무전기를 左측어깨에 끼꾸러 메고 있었으며 탄띠에 打式조명탄 2發을 부착하였으므로 行動에 제한을 받고 그들의 표적 대상이 되었다. 가까스로 소대와 交信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지대가 낮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명탄 1發(2발중 1발은 논위에 떨어짐)을 힘차게 올려쳤으나 不發이었다. 이렇게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傳令을 이용하고자 선두에 위치한 金龍維 상병에게 『빨리 뛰어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하라』고 高喊을 지르고 各團 약진하는 分隊원들을 掩護하였으나, 各兵士의 이름을 알지 못하여 지휘하는데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러한 지경에 전방으로부터 VC 4명이 突擊을 시도하기에 단숨에 사살하였으나 자동화기 사수 林秀雄 병장이 戰死하였다. 이때 앞쪽의 金在赫 하사가 “선입하사님! 뒤에서 VC이 옵니다”라고 목메인 高喊소리로 외치기에 뒤돌아보니 불과 15m거리까지 접근한 VC2명이 소총을 亂射하면서 돌격하고 있었다. 이때에 金하사가 뒤에 있지 않았다면 나도 그자리에서 戰死하였을 것이다. 金하사는 分隊원들의 철수를 掩護하다가 자신에게 사적이 集中되자 古木 나무뒤로 뛰다가 날아든 총탄에 頭部를 꿰뚫리어 끝내 戰死하였다. 나도 그 古木나무뒤 숲으로 몸을 던진 언가뒤에 고개를 들어보니 주위에 分隊원 5명이 쓰러져 있었다. 이순간 分隊원들이 모두 戰死한 것으로 알고 自責感과 복바치는 忿怒로 살아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로상으로 나가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그만 도로 右畔에 쓰러졌다. 이때에 제5중대장 李龍顯 대위가 赴援병력을 이끌고 오면서 分隊원들은 다 살아있다고 알려주기에 기운을 되찾아 被擧地를 向하여 탐색하였는데, 敵은 그들의 시체 6具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속에 전투간 내가 紛失한 무전기를 감추어 둔것을 찾아내었다.

19. 猛虎 5號 作戰 (1966년 3월 23일 부터  
1966년 3월 26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1~22호  
상 황 도 제 53~55호

가. 統制部隊 및 參加部隊 指揮官

	我	軍
(1) 統制部隊		제 11 중대 장 대위 李 寅 秀
수도사단	장 소장 蔡 命 新	제 12 중대 장 대위 李 倫 行
(2) 參加部隊		제 3 중대(배속)
제 1 연대	장 대령 全 成 珏	장 대위 李 元 洋
제 2 대대	장 중령 李 弼 朝	제 6 중대(배속)
제 5 중대	장 대위 朴 東 遠	장 대위 李 泰 一
제 6 중대	장 대위 丁 萬 吉	사단수색중대(공수대포함)
제 7 중대	장 대위 姜 君 吉	대위 李 德 坤
제 8 중대	장 대위 鄭 鳳 律	포병사령관 장 대령 金 燦 福
제 3 대대	장 중령 朴 慶 錫	포병제 60 대대장 중령 鄭 雲 深
제 9 중대	장 대위 龍 永 一	제 1 포대 장 대위 鄭 基 昌
제 10 중대	장 대위 李 圭 鳳	제 2 포대 장 대위 金 相 賢
제 11 중대	장 대위 盧 英 哲	제 3 포대 장 대위 韓 濟 龍
제 12 중대	장 대위 方 瑞 男	포병제 61 대대장 중령 梁 鷹
연대수색중대(제 3 대대배속)	장 대위 宋 璇 用	제 1 포대 장 대위 鄭 會 慶
제 1 기갑연대	장 대령 申 鉉 鉢	제 2 포대 장 대위 張 洪 烈
제 3 대대	장 중령 崔 炳 授	제 3 포대 장 대위 金 振 奎
제 9 중대	장 대위 李 春 根	포병제 628 대대
제 10 중대	장 대위 梁 在 一	장 중령 宋 元 圭
		제 2 포대 장 대위 韓 明 熙

(3) 協力部隊	美제30포병단 제1대대(-)(155mm 곡사포)
美제18포병단 제2대대 C포대(155mm 곡사포)	美제119 “헬리콥터”중대 美제161 “헬리콥터”중대

**敵 軍**

Binh Dinh省 VC, E-2B대대	Tny Phuoc郡 VC, D-25중대
An Nhon郡 VC, Z-50중대	地方 VC

나. 作戰 前의 概況

수도사단이 현지에 상륙한 以後 처음으로 2개연대(3개대대(+))를 투입한 것이 바로 이 작전이다. 그러므로 파월 韓國軍의 作戰期로서 구분한다면 이것을 끝마친 다음 사단전술책임지역(TAOR)을 확대하였으므로 제3期の 嚆矢이지만 새로운 예비대를 확보하기 위한 増派부대(제26연대(-))가 Qui Nhon에 도착(4월 16일)하기 이전(3월 23일~26일)이기 때문에 제2期까지 取扱한 본권에 이를 收録한다.

(1) 作戰 背景

사단은 제1, 제2兩작전기에서 이미 전술책임지역내의 兵要地誌를 파악하고 현지사정에 適應하는 동시에 敵의 전법을 익히면서 이에 대한 方策을 다각도로 개발한 결과 작전의 主導權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기간에 파월 韓國軍의 작전개념인 「VC과 주민을 分離하여 敵의 근거지를 剷除하면서 戡定지역을 점차로 확대」하기 위한 中樞 역할을 하게 되는 중대전술기지를 책임구역내의 要所에 설치하여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적극 攻勢로 移轉할 태세를 가다듬었다. 이를 위하여 사단은 Qui Nhon에 첫발을 디딘 以來 담당지역의 특징을 알게 되고 敵의 出沒에 即應하고자 대소전투를 통한 戰訓의 傳播와 이를 연구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越南戰의 특수성——戰線없는 戰場——을 갖고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韓國軍을 신뢰하고 아울러 共產徒黨들의 甘言利說에 현혹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對民심리전을 병행한 결과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전투의 勝捷과 심리전의 효과」는 곧 越南戰을 승리로 이끄는 雙璧임이 實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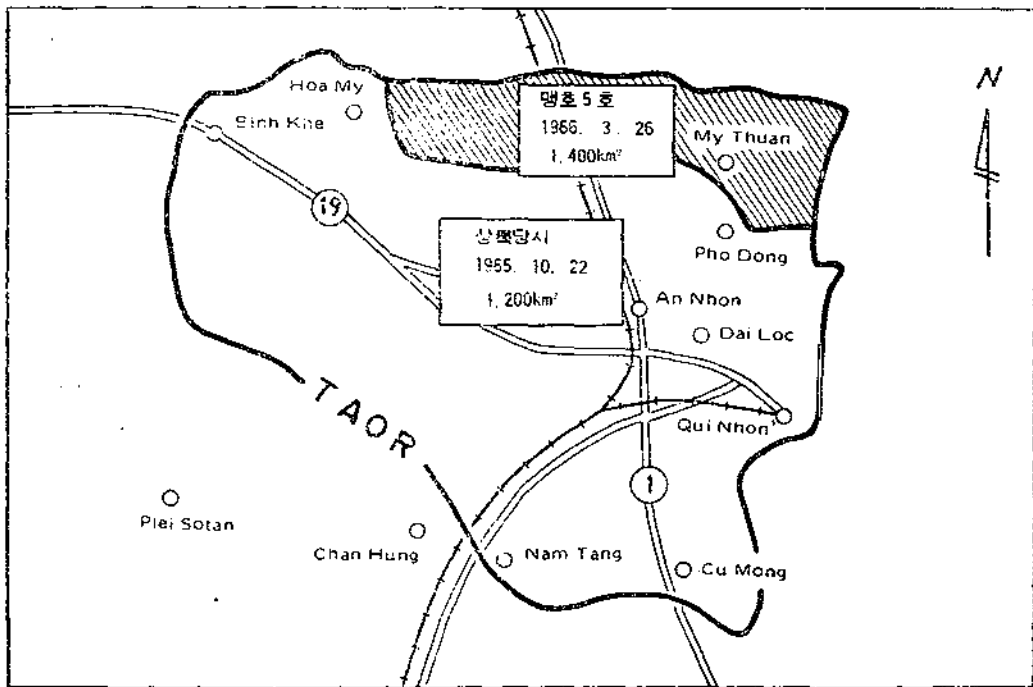
이처럼 사단담당구역내에서는 Go Boi平野(제1연대 책임지역) 및 Song Com(江)연변(제1기갑연대 책임지역) 그리고 Cu Mong 고개와 Nam Tang일대에 敵의 출몰이 빈번하였는데, 이중에서 Go Boi 평야 일대의 敵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所在의 敵을 剷滅하지 않고서는 관할내의 安寇이 이룩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該地域은 제1번도로 東쪽에서부터 Qui Nhon灣까지 사이에 펼쳐진 Song Con(江) 下流연변의 田畝지대인바, Binh Dinh VC의 主力인 E-2B대대의 巢窟이 있는 Phu Cat 山岳지대로 이어진 까닭에 그들의 식량을 마련하는 곡창인 동시에 Qui Nhon 一圓을 공략하

는 전초기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사단은 제 2 期 동안에 同地域일대에서 潛動하는 武裝兵群을 무찌르기 시작한 바, 지난해 12월 19일 제 1 연대의 제 2 대대를 여기에 투입(飛虎 1호)하여 Song Ong Su(江) 南쪽일대를 탐색한데 이어 「飛虎 2, 3, 5, 6호 작전」으로 Song Dai An(江)—Song Am Phu(江) 사이를 席卷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지난 1월 9~10兩일간에 걸쳐 제 1 연대가 2개대대를 동원하여 펼친 「飛虎 6호」에서는 同연대의 제 2 대대가 완강하게 대항하는 武裝徒黨들을 強打함으로써 軍의 聲威가 높아지고 사단 장병에게 승리의 확신을 갖게하는 契機를 마련하였다.

본시 이 작전은 최초로 韓·美·越의 聯合으로 펼치기로 계획되었으나 그 뒤에 美軍側의 사정으로 韓·越兩軍만의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飛虎 5호(66, 1, 7)」와 그밖의 여러가지 戰例를 감안끝에 僚軍과의 연합은 기도가 사전에 누설되기 쉬운 만큼 자라리 힘에 겨움더라도 所期의 성과를 다질 수 있도록 사단 단독으로 決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제 3 期의 主眼이 전술핵심지역 확대인 까닭에 이를 위하여 새로운 예비대를 投入하게 될 터이므로 增派부대인 제 25 연대가 현지에 상륙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지만 該부대가 도착하기 以前인 3월 23일을 D일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즉 前記한 「飛虎 6호」의 경험과 여기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그밖의 여러가지 要素를 분석한 결과 장병의 전투기량과 왕성한 공격정신은 能히 現有병력으로서도 所在의 敵을 擊碎하고 Go Boi 일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중부越南에서는 벼의 수확이 시작되므로 Go Boi 沃土에 무르익은 穀物을 VC이 거두어 가기전에 鐵鎚를 加함으로써 그들의 식량

狀況圖 제53호 사단전술 책임지역



取得源은 奪取하고 근거지를 拔本하는 効果를 期하자는데 있었다. 작전 지역은 南北의 幅이 Song Am Phu(江)—My Thuan溪谷입구까지의 10km이요, 西—東으로의 중심이 제 1 번도로—Qui Nhon半島 北端사이의 20km로서 모두 200km<sup>2</sup>에 이르는 田畠과 泥濘 및 細川이 結成된 지대인 바, 攻者의 기동에는 제한을 주지만 防者에게는 유리하다. 그리고 Song Dai An(江) 北쪽일대는 越南 제 2군단의 책임구역에 속하되 이 작전이 마무리되는대로 사단전술책임지역이 峙지역까지 확대된다.

## (2) 作戰地域의 特徵 : 飛虎 6號作戰 참조

### (3) 敵 情

Go Boi령야 일대에는 VC, E-2B대대 이하의 1~2개중대를 主軸으로 하여 Tuy Phuoc—An Nhon 兩郡의 VC主力부대인 D-25, E-50兩중대와 지방 VC등 모두 2개대대규모가 據據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달 중순부터 벼를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작전이 개시되는 전날까지 도합 160회에 걸쳐 延 4,000명의 주민이 이를 위하여 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이 무렵 Binh Dinh省内에서 遊動하는 敵은 몇개 1공중기갑사단이 Phu Cat山岳 北쪽에 있는 Bong Son일대에서 전개한 「Mashal/white wine작전 : I, 23~3, 12」으로 말미암아 該지대(작전지역 北쪽 2~4km)로 退却하여 집결한듯 하였다. 이러한 狀況이 지속된 탓으로 Phu Cat山岳의 南麓으로 이어진 Go Boi령야의 敵情이 갑자기 활발화 된바 사단地境 인근에서 秋收橫暴에 狂奔하던 分子들이 점차 사단 책임구역으로 南下하면서 그 跋扈 양상이 상상치 않았다.

이 敵은 細流와 습지가 얽힌 관계로 기계화부대의 기동이 곤란한 지형의 여건과 「佛印戰爭」以來 越南當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을 奇貨로 小流邊을 따라 點在한 大小의 마을들을 둘러싼 숲을 利用하여 地下에 진지와 교통호를 마련 교묘하게 위장하고 또 水中으로 連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심정이므로 공격부대는 마을과 마을로 이어진 細路를 利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所在의 부리들에게 기도가 드러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攻者가 強하면 비밀據에서 竄伏하다가 虛隙을 틈타 掩襲하는 등 기습과 進退가 自在하고 위장술에 能한 骨髓分子들로서 그들의 전투력이 만만찮다는 것을 이미 「Iiem loi전투(비호 6호)」에서 경험한 터이다. 이런 까닭에 여기에 蟻聚하는 武裝兵群을 剔抉하 려면은 오직 도보침투로 기습하여 육박전으로서 擊衝하는 방식밖에 없었다.

敵을 增援가능한 부대로서는 Truong Thanh山—Hou Heo(山)—Niu Ngang(山)에 據點을 둔 VC, E-2B대대(一)와 Binh Hao(江)일대에 潛據중인 同, E-210대대를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E-2B대대(一)는 사단 活動에 대하여 언제라도 對應할 公算이 컸다.

또 지대내의 주민은 이미 대부분 피난하였으며 아직도 여기에서 버티는 자들은 모두 VC의 姻戚이 거나 이에 동조하는 分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我軍의 活動에 대하여 민감한 反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敵에게 內通하는 까닭에 기도가 事前에 綻露되기 쉬웠다.

## 다. 作戰 經過의 概要

### (1) 作戰 計劃

사단 전술책임지역의 安定을 期하려면 Binh Dinh省 一圖의 곡창지대를 무대로 遊動하는 E-2B대대의 基地인 Phu Cat山岳(사단책임지역 北쪽)지대를 覆滅하는 것이 淸경이다. 그러나 이를 도모하려면 새로운 強力한 예비대가 필요하게 되므로 사단의 現有병력 2개연대 수준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울 뿐더러 이에 先行하여 공격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淸경이다. 따라서 본작전은 敵의 심장부를 叩려내기 위한 첫手術인 동시에 軍의 大命題인 「전술책임지역의 확대와 淸定계획의 지원」을 위한 제 3期의 시작이요 최초로 감행되는 사단작전이므로 이의 成敗與否가 그 다음의 전투에 미칠 影響이 매우 클 것인즉 앞으로의 전투양상을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이다.

이 작전의 목적은 첫째로 사단 전술 책임지역 北東쪽의 淸야지대에서 流動하는 武裝兵群과 그들의 거점을 拔本함으로써 20餘年間 敵의 지배하에 있는 일대를 收復하여 淸定の 기초를 다지는 것이요, 그 둘째는 同省 VC의 食糧 取得을 拒否하는 한편 越南주민의 수확을 지원하며, 셋째로 前술책임지역을 Song Dai An(江) 北쪽으로 확대하여 그들의 소굴을 공략할 발판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런데 지역이 開豁한 탓으로 어떤 方法으로서 기도를 비척하여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懸案의 숙제였다. 사단장은 此 妙案을 장구끝에 「夜間侵透」 방식을 채택키로 다짐한 年후에 지도방책을 定하고 이를 관계참모들로 하여금 계획지침으로 삼게하였는데 그 骨子는 다음과 같다.

1. Song Am Phu(江)--Song Dai An(江) 사이에 2개대대(+ )를 전개하여 兩翼포위로서 소재의 敵을 척결한다.
2. Song Dai an(江) 北쪽에 1개대대(+ )를 투입하여 主戰關지대에서 脫出한 우리들을 強打하고 아울러 Phu Cat 山岳지대로부터 예상되는 增援을 저지한다.
3. 可及的 목표가 가까이 공격개시선(或은 통제선)을 설정한다.
4. 공격은 黎明을 전후하여 개시하되 打撃부대와 차단부대는 所命된 線(공격개시 및 차단선)까지 야간에 침투한다.
5. 공격방식은 먼저 우세한 火力으로 敵을 제압한 年후에 압박부대가 차단지대를 目標로 強壓하면서 차단부대와 서로 呼應하여 覆滅토록 한다.』

사단장은 이것을 『토끼몰이식』이라 하였는데 이 지침을 바탕으로 모든 계획의 骨格이 짜

여지고 참가부대와 전투지대가 결정되자 관계부대에 준비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대는 전투계획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전투지대가 엇비슷한 지대에서의 예행연습을 반복하였으나 사전정찰은 이를 제한키로 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관계부대에서 이러한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작전명령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부록을 갖춘 다음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敵情：前項 작전전의 개황 참조

2. 美제18포병단 제3대대 C포대(155mm곡사포) 및 同제30포병단 제1대대(-)(155mm곡사포)가 사단포병의 火力을 증원한다.

3. 사단은 23일 06.00를 期하여 Vinh Phu, My Binh—Hoa Long—Liem Loi 일대에 蟄伏중인 敵을 격멸하려 한다.

4. 작전개념

가. 가용한 최대병력을 동원하여 양익포위하며 潛伏거점은 이를 覆滅하는 원칙에 徹한다.

나. 야간침투로서 목표를 기습하여 포격으로 제압한 연후에 포위권을 압축한다.

다. 接敵하면 지체없이 포위망을 형성하여 대치한 敵을 擊碎한다.

라. 작전지역을 다음의 4개지대로 구분한다.

(1) “비호”지대：제1번도로—Song Dai An(江)—Song Am Phu(江)

(2) “번개”지대：제1번도로—Vinh Phu—My Binh—Nui Son Rai(山)—Nui Cai(山)

(3) “사자”지대：Song Dai An(江)—△403—△609

(4) “천둥”지대：Nui Tiai(山)—My Thuan溪谷입구—△403—△609

마. 제1연대(-1)를 南, 제1기갑연대(-2)를 北으로한 2개연대의 도보기동으로 “비호”—“번개”兩지대의 예상되는 退路를 차단한 다음 당면의 敵을 색출한다.

바. 상황진전에 따라 依命 “사자”—“천둥”兩지대를 공격한다.

5. 제1연대, 배속：사단공병 제3중대(-)

가. 2개대대(+)로서 “비호”지대내의 敵을 포착하는대로 이를 殲滅하라. 공격개시전에 3개중대 규모를 Long Hau—Duong Xuan—Lien Loi일대에 투입하여 예상되는 퇴로를 따라 退散하는 敵을 강타하라.

나. “사자”지대로 공격을 계속할 준비를 갖추라.

다. 1개대대로서 現임무를 계속 수행케 하라.

6. 제1기갑연대, 배속：사단공병 1개소대

가. 1개대대(+2)로서 “번개”지대내에 潛據한 敵을 擊碎하고 “비호”지대로부터 脫出을 시도하는 敵을 粉碎하는 동시에 Phu Cat山岳지대로 부터의 豫想되는 敵의 증원을 制壓하라. 공격간에 1개중대를 공중기동으로 △12부근에 투입하여 Nui Tiai(山) 南麓을 점령하는 즉시 예상되는 접근로를 要扼케 하라.

나. 전투추이에 따라 “천둥”지대로 轉進할 태세를 갖추라.



다. 전투지경선 北쪽(My Thuan (2)) 밖으로의 溢出을 禁한다.

라. 2개대대(-)로서 現임무를 계속 수행케 하되 0명 1개대대를 전투지대로 투입할 수 있는 태세로 待機케 하라.

7. 사단수색중대 : Phuong Danh—An Loi (1)—Nui Ma Ha(山)東麓을 目標로 진격하면서 지대내의 敵을 擊破한 다음 Nui Ma Ha(山) 北端으로 轉進하라.

8. 사단포병

가. 공격준비사격은 이를 보류하며 화력지원의 우선권을 제 1연대에 附與한다.

나. 제60대대 : 제 1연대 직접지원

다. 제61대대 : 제 I 기갑연대 직접지원

라. 제628대대(-2) : 일반지원

9. 協調指示

가. 야간전투간에는 接敵할때까지 무선교신을 禁한다.

나. 전투지대내에서 彷徨하는 주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피난민수용소로 호송하라. 가급적 敵을 捕獲하도록 한 것이며 현지訊問에서 얻은 첩보는 分析한 다음 활용하라.

라. 전투간 打擊부대와 차단부대 相互間 협조를 유지하고, 중대장급以上은 인접부대 상황을 파악토록 하라.

마. 개인용 물소독약을 휴대케 하라.

바. 배속일시 : 22일 17.00

10. 사단전술지휘소는 22일 以後부터 △78에 개설한다.』

이 밖에 관계부대에서 수집할 첩보획득지시를 비롯한 화력지원, 민사심리전 부록과 행정 명령이 기본명령과 더불어 하달된 바, 이중 첩보기본요소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敵의 戰法과 지대내에 구축된 진지의 규모와 구조 및 그들의 통신수단과 細胞조직의 파악인 바, 이는 越南당국의 평정계획을 지원하는데 焦點을 둔 것이다. 둘째로 越盟軍이 Binh Dinh省 VC을 지원하는 범위와 보급경로 그리고 VC, E-2B대대의 구성과 능력에 관한 것 등 앞으로 該省 VC의 本據地를 공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다.

사단장은 관계부대장이各自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전투준비를 진행할 시간의 여유를 갖게한 연후에 각급지휘관과 관계참모를 소집하여 제 2차 회의를 主宰하였다. 이 자리에서 작전전반에 關한 사항은 물론이요 이를 마무리한 다음의 부대배치와 경계대책도 토의되었다. 그러나 收復된 지역을 越南당국에 인계하는 사후문제는 보안유지상 사전에 越南側과 협의하지 않았던 까닭에 擧論하지 않고 속제로 남겼다. 이러한 일련의 토의가 끝난뒤 사단장은 이 작전을 전개함에 있어 준용할 사항을 지시하기를 『當面한 敵의 능력은 여러차례에 걸친 交戰을 通하여 파악하고 있으므로 각급지휘관은 어떻게 그들을 擊破할 것인가하는 腹案을 다듬고

있을 줄로 안다. 特別 이번에는 지형의 특징상 참가하는 모든 부대가 야간침투를 단행하느니만큼 준비기간에 實戰을 방불케 하는 예행연습을 반복강행하여 기습을 달성하는데에 心血을 기울여야 한다. 공격부대는 速攻보다 우세한 火力을 활용하여 내치한 무리들을 제압한 연후에 차단부대와 挾擊하여 이를 殲滅하라. 그러나 일단 포착한 敵은 접촉을 유지하면서 包圍網을 형성하고 好機를 잡는 즉시 隔打하라. 다시 말하면 공격의 銳氣를 늦추지 말라는 것이다. 또 전투간에 용의지역을 탐색할 때에, 현지주민을 안내자로서 이용하라. 그러나 무고한 주민이 앓을 입지 않도록 보살피주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비록 VC용의자라고 할지라도 저항하지 않거나 武器를 갖고 있지 않는者は 모두 지정된 장소로 호송해야 한다. 이와같은 조치는 戰場에서 당장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越南戰의 특성을 大局的인 견지에서 볼때에 熱戰에서의 勝捷에 못지 않는 성과를 안겨준다는 것을 銘肝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대는 이로부터 17일간 야간전투와 육박전에 중점을 둔 전투 훈련을 반복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D-2일(21일)까지 관계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종합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요약된 敵情은 다음과 같다.

『1. Tinh Hoa (Go Boi 北西쪽 3.6km) 일대에서 越盟제325사단 예하 1개중대가 潛據하면서 VC의 진지보강작업을 지도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이는 越盟軍이 아닌 VC, E-2B대대 예하의 VC중대일 것으로 推測된다.

2. An Loi (1) (Nui Ma Ha(山) 南쪽 1km)에 潛據한 VC 1개중대가 Duong Thanh (Tinh Hoa 北쪽 1.5km)으로 이동한 徵候가 있다.
3. Duong Thanh—Thanh Quang 일대에 友軍 “헬리콥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對空火器진지들 준비중에 있다.
4. 地方 VC들이 지대내의 주민들로부터 이른바 「해방금전」이라는 명목으로 現物稅(穀物)를 징수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언제 있을지 모를 我軍의 공격을 VC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敗退할 것으로 여기고 피난준비를 하거나 或은 은신처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들의 上典인 VC을 不信하는 風潮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忖度컨대 소개의 敵은 주로 “비호”지대 東半部에 蟄據한 것으로 推測되나, 이일대는 제 1연대 제 2대대의 전투지대에 속한다.

## (2) 作戰 實施

### (가) 作戰開始까지의 概況

D-3일(20일) 제 1연대의 제10중대가 △78로 공중기동한것을 始初로 開進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사단은 각 부대에 D일을 23일로 결정한다는 지시(사단 作戰전 제174호)를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 1연대는 Go Boi에 기지를 둔 제 5중대를 제외한 제 2대대의 主力이

Song An Phu(江) 南쪽연변의 Kin Dong에 집결하였다가 다음 날(22일) 同江을 건너 Go Boi를 中心으로 하여 右側(東쪽)에 제 7중대, 左側에 제 6중대가 각각 집결지를 점령하였으며 대대 전술지휘소를 Kim Dong에 개설하였다. 또 제 3대대(-2)는 제 9중대가 Cam Van (An Nhon 北쪽 3km : 제 1번도로변)으로 移動하고, 제 11중대는 기지에서 다음날 夜三更에 Chanh Thanh(2)로 차량행군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대대전술지휘소를 22일 15.00에 △78로 空輸하였다. 같은날 연대 및 사단 전술지휘소도 同高地로 공중기동하는 즉시 여기에 개설함으로써 “비호”지대를 西, 南 方向에서 兩翼포위할 태세가 다듬어졌다.

그런데 主攻을 담당한 연대장 全成瑛 대령은 준비기간에 각부대로 하여금 전투지대의 특장과 「비호 6호」의 경험을 토대로 急速도하장비를 비롯한 濕地帶전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케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 부대장에게 강조하기를 『越南에서는 밤을 지배하는 側이 勝算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現地에 도착하자 곧 야간전투의 技術을 익히고 또 實戰을 감행한 것이다. 이 결과 익제는 각개 兵士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自慢하거나 輕敵한 點點이 드러나기 마련이니 이點에 유의하라.

특히 이번에는 기도비닉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다듬고 훈련을 거듭하는 한편 소요되는 장비를 갖추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전투가 平野에서 전개되느니만큼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敵은 마을과 마을로 연결된 通路나 비밀경로를 따라 退散하기 때문에 이를 包圍하려면 기동속도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돌발상황에 即應할 수 있는 태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끝으로 무선망을 가진 각급지휘관은 모두 상급지휘관의 交信에 주목하라. 다시 말해서 상급지휘관의 交信을 방청하여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한 준비를 미리 갖추라는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발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부대와 서로 협조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我軍상호간의 誤謬도 未然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제 1가갑연대 제 3대대의 제 9, 제 10兩중대는 22일에 Kieu An (1)에 있는 簡易비행장으로 移動한 다음 同(2)로 진입하였으며, 뒤를이어 대대主力은 Phu Gia(2)(간이비행장 北東쪽 3km)에 설정된 집결지를 점령하였다. 또 대대에 배속된 제 3중대는 車輻輳으로 제 1번도로—제 502도로를 行軍하여 Xuan An(1)에서 落照까지 기다렸다가 溪川을 끼고 3km 北上하여 Nui Ngang(山) 南麓으로 진출하였다. 그런데 同중대가 이와같이 D-1일에 미터 깊숙히 침투한 事由는, 주어진 전투지대가 Nui Ngang(山)—Nui Son Rai(山) 南麓일대이기 때문에 지형이 착잡하여 야간행동에 제한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다음날 02.00부터 야간침투를 개시하는 공격중대와 步調를 맞추려는 조치였으며, 이와 兼하여 지대내의 敵을 眩惑케 하려는 陽動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 공격초일에 담당지대로 공중기동하게 될 제 6중대는 제 19번도로변에 있는 △20(중대목표 南西쪽 23km)에 준비된 탐승지역으로 이

동하였다. 이윽고 山影이 길게 뻗치기 시작하자 계획한바에 따라 제 10兩중대는 각각 1개소대를 뽑아내어 공격개시선으로 진입시켜 要點을 制扼케 함으로써 다음날 공격에 대비키로 하였다.

한편, 사단수색중대는 22일 16.00에 Phu My(1)(담당지역 南쪽 4.5km)로 이동하여 野營하였다. 사단포병은 제60대대(-1)가 △184 北쪽 와지선일대(Tinh Giang (1) : Song Am Phu 南쪽 3km)에 放列하고 제61대대(-1)는 Kieu Dong(간이비행장 東쪽 2km)으로 이동하였다. 또 제628대대(-2)는 제60대대 東쪽으로 進入하고 사단포병을 火力로 增援할 美 제18포병단 제3대대의 C포대는 △184 北쪽 와지선으로 그리고 제30포병단 제1대대(-1)는 Tan Hoa와 Phu Gia의 계획된 장소로 각각 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단 화력지원 협조소(FSCC)를 △184 北東쪽 무명고지에 개설함으로써 화력지원태세가 가다듬어졌다.

이러하여 22일 日沒까지 開進態勢가 일단락 되었는데, 이로써 작전지역 東端에서 南端으로 Kieu An (1)—Cam Van—Go Boi를 잇는 半月形의 포위권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날 밤은 無月空山에 별빛만이 밝은데 暴風前夜의 고요가 戰野를 뒤덮고 있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開進 과정에서 기도비낙을 위하여 각부대별로 이동시간과 도로의 사용區分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2일간에 걸쳐 제1번도로상의 차량통행이 갑자기 輻輳하고 兵力 이동이 빈번하므로 敏感한 敵은 그들나름대로 夜一更에 이따금씩 총격을 가하여 我軍의 反應을 살피기도 하였다.

#### (나) 作戰 第一日의 戰況 概要

3월 23일(D일) 맑고 南東風이 10knots로 불며 暴炎이 종일토록 내려쬐여 42°C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어 空中 및 火力지원에는 유리하나 徒步행진에는 제한을 줄 것이 예상되었다. 사단은 계획대로 夜四更에 2개연대의 3개대대(+)가 침투를 시작한 바, 제1연대는 03.30을 전후하여 각 대대별로 所命된 목표로 向하여 行進하였으며 또 제1기갑연대는 02.00부터 東進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바람도 잠든 靜謐한 어둠속을 진격하는 戰士들의 얼굴에는 20년 묵은 VC의 소굴을 송두리채 뿌리뽑고야 말겠다는 決意가 넘쳐있었다. 이러한 야간진격이 奏功하여 벽두부터 도처에서 接敵하게 되었으니 지대내에 웅크린 敵의 虛를 걸러 기습을 달성한 것이다. 제1연대 지역에서는 여러곳에서 交戰이 계속되고 對峙한 무리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상황이 전개된 반면, 제1기갑연대 책임지대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저항이 없는 가운데 탐색이 진행되었다.

## (다) 제 1 연대의 戰況概要(D일)

제 1 연대(장, 全成珏 대령)는 전투지대 중앙을 西에서 東으로 貫流하는 Song Dai An(江) 南쪽의 “비호”지대를 담당할 바, 그 陣容을 살펴보면 제 2 대대를 右側에, 제 3 대대(-1)를 左側에 전개하고 2개 중대(제 10 중대 및 연대수색 중대)로써 北쪽 地境線(Song Dai An 江) 일대의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차단한 兩翼을 包圍하는 형세이다. 한편 연대 책임구역 西쪽 一角은 사단수색 중대의 담당지대인데, 左側지경선이 Ngai Chanh (1)—Chan Man을 連하는 線(Song Ong Su(江): 東쪽 1km)에 구획되어 있다.

연대는 제 2, 제 3 兩대대에 각각 3개의 목표를 부여하였으며 공격대기지점(공격개시선)으로부터 2~5km 北쪽에 통제선이 설정되었다. 각 대대는 이 線을 공격개시 보조선으로 하여 06.00에 일제히 이를 뛰어넘어 진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또 兩대대의 전투지경선은 Hao Le(2)—Binh An과 Tinh Binh(1) 중간—Hung Tri를 잇는 線을 따라 南北으로 구획되어 있다. 이날 연대는 01.00~02.30 사이에 야간침투를 시작한 바, 제 2 대대의 3개 중대는 Go Eoi 일대에서, 제 3 대대의 제 9, 제 11 兩중대는 Cam Van—Tien Hoa에서, 그리고 제 10, 연대수색 兩중대는 △78에서 각각 所命된 목표를 向하여 躍進하였다. 이러하여 兩대대의 진격과 더불어 제 7, 제 10, 연대수색의 3개 중대가 계획된 목표를 점령하는 즉시 要所를 장악하였다. 전투간 打撃부대의 包圍圈압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05.30에 연대수색 중대가 Liem Loi (1)에서 敵과 충돌한 것을 시초로 여러곳에서 交鋒한 결과 이날 하루동안에 사살 168명, 포로 113명, VC용의자 37명 그리고 노획 무기 19정(개인 화기 16정, 공용 화기 3분)의 戰果가 있었다. 반면 我軍도 戰死 12명과 부상 38명의 損失을 내는 激戰을 치루었다.

특히 이날 전투에서는 제 2 대대가 Tinh Binh(1) 일대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견고한 진지에 숨은채 限死코 대항하는 敵과 교전하자 제 3 대대와 협조된 包圍網을 형성하는 즉시 이를 擊衝하여 血戰을 거듭끝에 이를 殲滅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Tinh Binh전투」라고 이름하는데 實로 이 一戰이 본작전의 白眉의 章으로서 이를 고비로 그들은 我軍과의 정면대결을 회피하면서 退散하는 방식으로 기울어져 마침내 소극적인 “게릴라”전법으로 還元 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該전투의 전반적인 흐름을 취지 알수있도록 同전투가 시작되는 時點까지의 각 대대 활동을 右에서 左로 전개한 順으로 記述한 연후에 이 전투의 상황을 상술하고 이어 다시 각 대대의 情況을 엮기로 한다.

## (一) 제 1연대 제 2대대의 戰況

1. 대대장의 措置: 제 2대대(장, 李弼朝 중령)는 “비호”地區의 東半部를 담당한 바, 이 일대는 Song Dai An, Song Am Phu兩江의 下流로서 乾季에는 40~60cm의 물이 고여있는 늪과 水田이 점철되고 많은 細流가 잉겨있다. 뿐만 아니라 Qui Nhon으로 이르는 길목인 탓으로 VC의 潛動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소굴지대로서 惡名이 높다.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이 일대에서의 전투 결과 進擊間의 기도비닉이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고 준비기간에 야간전투에 力點을 두고 戰技를 연마하였다. 또 所在의 敵을 剔抉하려면 전투간에 그들을 포착하는 즉시 이를 包圍하여 날카로운 一擊을 加하는 방식이 합당하나 이를 위한 예비대의 확보와 유사시 이를 활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成敗의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宿題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妙策을 궁리끝에 這間에 입수한 첩보와 그 밖의 여러가지 兆朕을 종합분석한 결과 판단하기를 『제3대대와 地境線부근의 Duong Thanh—Tinh Binh(목표 23)과 Long Hou 일대에 敵의 主力이 潛據하고 있을 것이며 特別히 前者가 유력한 용의 지대로 지목된다. 소재의 敵은 아군이 계야무리 은밀하게 침투한다손 치더라도 目標까지 이르는 동안에 마을에 잠복한 細胞분자들이 연락할 것이므로 그들나름대로의 對應조치를 取할 것이며, 狀況진전에 따라 잠복거점에서 지탱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곧 退散할 것이다. 이때에 그들의 退路는 제3대대가 東進하는 까닭에 南과 北의 2개방향으로 指向될 공산이 크다.』라고 判斷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실사 가용병력이 충분하여 예비대를 일정한 장소에 控置하더라도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지형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없는 點(“헬리콥터”지원의 제한)을 감고 끝에 전투지도 腹案을 세웠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3개중대를 모두 一線에 배치하되 敵情이 비교적 회박한 中間一線중대를 기동타격대(예비대 역할을 兼한다)의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2. 제7중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지대 北端(Song Dai An(江) 南쪽연변)의 예상되는 퇴로의 차단과 탐색을 互用케 한다.
3. 제6중대를 左一線에 전개하여 노출된 左側方(西쪽)을 경계하면서 목표 22(Duong Thanh—Tinh Binh)을 탈취케 한다.
4. 제5중대를 中間一線에 투입하여 지대내의 敵을 색출케 한다.
5. 左右一線의 兩중대가 敵과 충돌하면 當該중대로 하여금 접촉을 유지하면서 견제케 하고 中間一線 중대를 지체없이 그 側背를 向하여 掩襲케 한다.』

이에 따라 공격대기지점에 전개한 3개중대는 통제선(공격개시 보조선)이 2~4km 北쪽에 구획된 까닭에 01.00부터 행동을 개시하였다.

2. 제 7 중대의 戰況: 제 7중대(장, 姜君吉 대위)는 공격개시보조선(통제선)이 Van Trien



을지 무공 훈장을 수여받는 제2대대장 李爾朝 중령

(1) (Go Eoi 北쪽 3.5km)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중대보다도 1시간 먼저(01.00) 침투에 나섰다. 그런데 지대내에서 가장 늪지대가 많고 수없이 얽힌 小河川을 건너야하므로 行進이 지체되어 예정보다 늦게 진출하였으나 전투에는 지장이 없었다. 중대는 여기에서 일단 대열을 가다듬은 연후에 대대에서 부여된 중간목표 “30~36” (Chanh Dinh—Chan Hoi—Long Hau)을 차례로 석권하면서 Song Lai An(江) 南쪽연변의 의심나는 지대를 뒤진 끝에 최종목표인 Long Hau 北東쪽 마을을 점령하였다. 여기에서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인접대대와 地境線부근에 있는 Hoa Dong과 Duong Thanh (2) 중간으로 轉進하여 小流邊의 길목을 制扼하고 退路를 차단하였다. 그런데 이 조치는 제5중대가 Tinh Binh (1)을 공격하는데 따른 교전지역 北쪽 外廓을 포위하여 脫出하는 무리들을 強打하려는 대대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진격간에 중대에 배속된 제8중대의 제2소대장 金容鐸 중위는 차단선左端(東쪽)에서 側方을 경계하다가 강변의 灌木을 헤치면서 北走하는 一隊에게 급사를 집중 끝에 5명을 사살하였다. 또 연대전투지원중대의 4,2”소대 전방관측병 張志孝 하사는 Long Hou 北端의 습지대에서 저격을 받자 곧 응사하여 3명을 사살하였으나 그를 뒤따르면 鄭宗根 상병이 부상하였으므로 즉시 후송하였다.

3. 제5중대의 戰況 :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Go Boi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 중대장은 출동 전날 저녁(22일)에 중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날 전투에 臨할 정신자세에 關하여 力說하기를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임을 銘心하자. 또 우리들은 猛虎 제1연대의 先鋒인 제5중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투간에는 敵을 겁내지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언제 어디서나 自信을 갖고 행동하라. 죽음의 터전에서는 必勝의 信念과 勇氣를 갖는 사람만이 살길이 열린다. 자기의 목숨은 하늘에 있지 敵이 이를 剝奪하지는 못한다. 戰場에서 散華하는 것이 가장 값진 主眼이요 영광된 길이다. 勝者는 할 말이 많아도 敗者에게는 말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거니와 말도 못하는 법이다.』라고 격려했다.

그로부터 7시간 뒤 즉 다음날 01.00에 행동을 개시한 중대는 02.00에 제2소대(장, 李 濤 중위)가 출발하고 30분뒤에 중대主力이 一路 北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2소대가 먼저 침투한 까닭은 Kuong Binh부근(右인접중대와의 警戒線 : 통제선 北西쪽 2km)의 要地를 공격개시전(06.00)에 미리 制扼함으로써 후속하는 主力을 掩護할兼 제7중대와의 地際를 補填하고 아울러 敵의 北走를 제압하기 위한 대대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하여 소대에는 중대主力과 합세할 때까지 단독으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81mm 박격포 및 경기관총 각 1개반과 60mm 박격포 1개분대가 배속되었다.



Go Boi에서 命을 賭하는 제5중대장(중앙)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지나치는 마을에 잠복한 지방 VC에게 기도가 탄로나지 않도록 될 수 있는대로 이를 멀리 우회하면서 날이 밝기전에 소명된 통제선에 도착하도록 하되 정숙을 유지토록 하였다. 한편 李 淸 중위는 Phu Dong (1)을 지나갈 무렵 水田을 정숙보행으로 가로질렀으나 소대장은 생각하기를 『많은 병력이 제한된 시간내에 田畓과 늪지대를 踏破하므로 敵에게 기도가 드러나고 말 것이니 그들이 이에 對應할 여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더욱 빨리 행진하여 계획된 시간以前에 지정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발걸음을 재촉하였는데 1시간 뒤에는 소대보다 1시간 먼저 침투한 인접중대(제7중대)를 앞지르게 되고 黎明前에 Kuong Binh北東쪽(중대기지 北쪽 6km)에 진출하는 즉시 산개하였다.

이러한 행동끝에 05.30에는 중대主力이 Van Trienh (2)을 점령하여 대열을 가다듬은 연후에 약정된 기간이 되자 통제선을 뛰어넘었는데 이때 중대원들은 야간침투로서 VC의 감시망을 뚫었으니 必然的으로 놀라고 당황한 敵의 主力과 충돌하게 되리라는 期待로 戰意가 高潮되어 행동이 敏捷하였다. 이윽고 Kuong Binh에 이르자 곧 제3소대와 습鬪한 다음 北西쪽으로 치달은 끝에 10.00에는 최종목표인 Duong Than (2)를 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진출하는 동안에 VC의 隻影도 보이지 않는 반면 VC용의자만 점거하게 되자 중대원들은 야간침투에 뒤이은 7시간에 걸친 탐색으로 말미암은 피로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날따라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는데다가 40℃를 오르내리는데 중대장은 각 소대장에게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한 다음 소대별로 용의지대를 반복탐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소대는 Kuong Binh 北西 쪽을, 제2소대는 同마을 東쪽 一角을 누리고 또 제3소대는 Duong Thanh (2) 西쪽 외곽에서 의심나는 곳을 차단하였으며 중대본부(화기소대(一) 포함)는 該마을 西端을 占領하고 있었다.

이무렵 左인접중대(제6중대)는 Tinh Hoa에서 一戰을 치룬 다음 敗走하는 무리들을 추격 끝에 Loc Thuan—Duong Thanh (1)—Tinh Binh (2)까지 진출한 바, 이때에 여기에서 脫走한 듯한 一群이 北上하다가 제3소대가 그들의 걸목을 차단한 기미를 알아차린듯 갑자기 退却방향을 西쪽으로 轉移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본대진지를 둘러보던 소대장 鄭政能 소위가 이를 목격하자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즉시 1개분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그런데 이것이 Go Boi 평야를 피로 물드린 「Tinh Binh 전투」의 시초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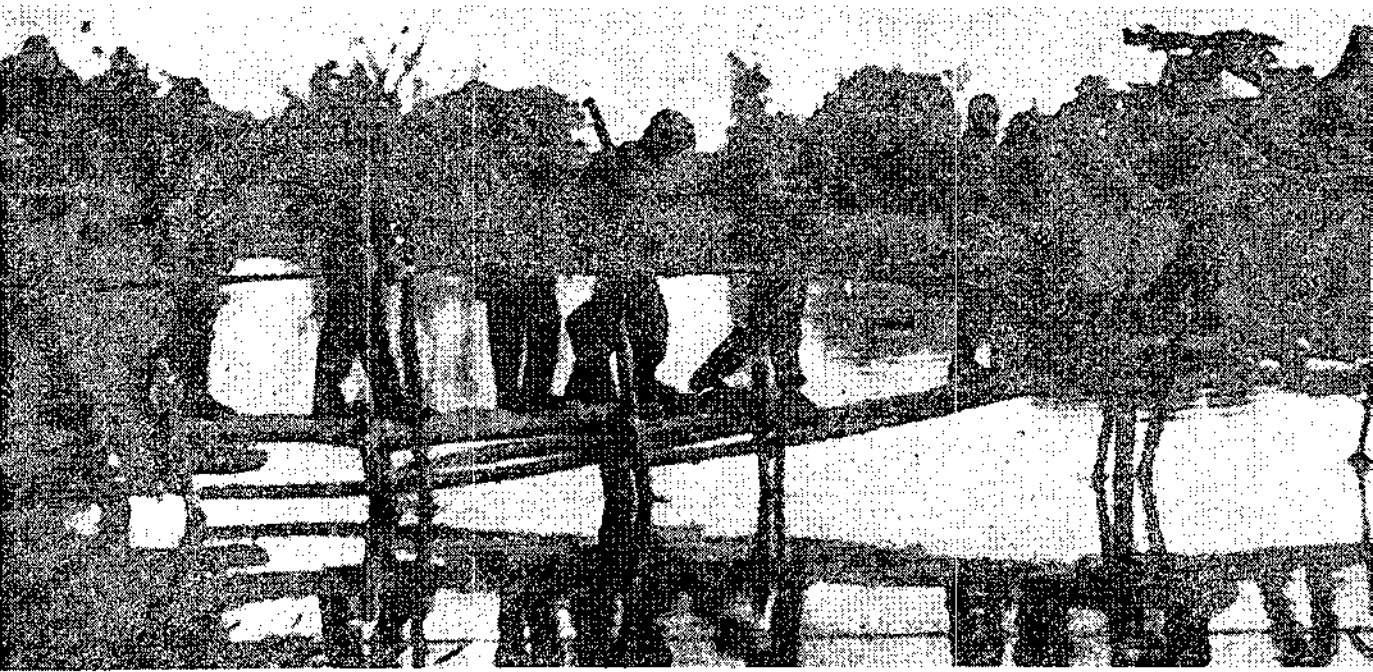
4. 제6중대의 戰況 : 제6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지대내에서 가장 敵情이 不透明하나 그들의 潛動이 자주 포착되던 Tinh Binh 일대(목표 23)를 포함한 대대 左一線을 담당하였는데 여기에는 敵의 主力이 潛據한듯한 徵候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격초동부터 충돌할

확율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인접대대가 西쪽에서부터 北東으로 進擊하는 탓으로 同대대가 지경선 부근의 목표 “34” (Einh An)를 탈취할 때까지는 지대左側方(西쪽)이 드러나므로 이에 對한 경계를 併行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대계획의 일환으로 공격개시전에 1개소대를 Tinh Binh (2) 南쪽(북표 23 南端 : Go Boi 北西쪽 5km)에 투입하여 드러난 地隙에서 예상되는 敵의 퇴로를 차단케 되었다.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自身에게 부여된 임무가 대대 主攻과 다를바 없으므로 중대의 기습달성여부가 곧 대대전체에 크게 作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최종목표가 통제선으로부터 2.5km 밖에 안되므로 중대장은 기동속도보다도 기도비닉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에 야간전투간 一肅의 차질도 없겠끔 항공사진을 주로하여 침투경로, 참고점, 방향指標物등의 특징을 포함한 세부사항까지 소상하게 분석하여 중대원에게 숙지시켜 전투태세를 가다듬은 것이다.

이날 중대는 01.00에 제2, 제3兩소대가 침투에 나서고 04.30에 중대(-2)가 출발하였는데, 본시 제2소대는 右一線으로서 중대主力과 같은 시간에 행동을 개시하여 An Hoa(3) 西쪽의 의나무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該마을 北쪽으로 진출하려면 Song Ngan (江)을 건너야하나 부근에 徒涉이 가능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다리를 利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비호 6호작전(1,9~10)」때에 제2중대가 이 근방에서 잠복중인 VC들의 느닷없는 총격을 받아 猝地에 5명의 死傷者를 낸 것을 위시하여 그 뒤에도 Go Boi에 기지를 둔 다른 중대가 부근일대를 탐색하다가 같은장소 근방에서 여러차례 狙擊을 받아 苦戰을 겪은 적이 있으므로 병사들간에는 「怨恨의 의나무다리」라고 불리우고 있었다.

소대장 孫龍男 중위는 이와같은 前轍을 회피할 心算으로 항공사진을 분석끝에 마침내 同다리 東쪽 800m에 徒涉場일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는 것을 찾아내었다. 이에 소대장은 침투경로를 바꾸어 여기를 거쳐 同다리를 側背에서 掩襲한다면 能히 소재의 敵을 擊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腹案을 중대장을 경유 대대장에게 具申하여 그 승인을 받아 지정된 시간에 통제선에 도착하기 위하여 계획된 시간보다 3시간 30분 앞당겨 출발한 것이다. 한편 중대장은 同소대에 「의나무다리」—Thanh Quang—Tinh Hoa—Loc Thuan을 連하여 南流하는 河川의 東쪽일대를 전투지대로서 할당한 탓으로 接戰하였을 때 즉각적인 중대主力의 지원이 곤란한 점을 참작하여 경기관총 1개반과 57mm 무반동총 60mm 박격포 각 1개분대 및 공병 1개폭파조를 배속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통제선에 도착하는 즉시 공격대열을 정돈하고 대기하다가 계획된 시간에 躍出하였다. 한편 제2소대는 Go Boi에서 곧장 北上하여 Tu Cung 南端으로 轉進(北西



兵士들이 외나무 다리놓 건느고 있다

쪽)끝에 도섭장을 찾아내어 Song Ngang(江)을 건넜는데, 이때야 尖兵 李三郎 상병이 江邊을 누비다가 물에 빠지는 寸虧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同地點은 河川 양안의 폭이 험널콜로 뒤덮인 탓으로 미낮에도 찾아내기 힘들 정도인데 VC들이 이를 고ծ하게 위장한 다음 은밀하게 이용한 흔적이 있었다. 소대장 孫龍男 중위는 강변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일단 戰列을 정돈한 연후에 3개분대를 산개한 바, 이때 3개분대로 하여금 右側(東쪽)의 水田 지대를 踏破케 하였다. 그런데 이는 새벽의 微光이 視界를 제한하드르 전진간에 잠복지에서 退散하는 分子들을 側方에서 포착케 하려는 조치였다. 이러한 침투끝에 문제의 「외나무 다리」를 右側背에서 밀어부친 결과 다리 左右便에 경기관총과 60mm 박격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陣地가 있었으며 그 부근에 얼마전까지 VC 1개소대 규모가 配備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개의 敵은 我軍의 동정을 살핀끝에 반드시 여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한 나머지 이에 대비하였으나 뜻밖에도 我軍이 側背에서 불쑥 나타났으니 황급하게 退却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만약 孫龍男 중위가 최초계획을 墨守하였더라면 공격력두에 그들이 준비한 살상지대에 빠져들게 되어 적지않은 混線이 벗어졌을 것이다.

이와같은 情狀을 살피던 소대장은 여기에 있던 무리들이 아직 멀리는 退走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心證을 굳히자 지체없이 중대장 무전기를 선임하사관에게 맡겨 중대장과의 교신

을 담당시키고 自身은 진두에서 소대를 거느리고 追擊에 나섰다. 그로부터 30분 뒤에 水田을 누비던 제3분대장 金成斗 하사가 보고하기를 『VC 1개소대가 박격포를 메고 北上中이다.』라고 하였다. 생각컨대 이는 必是 외나무다리에 잠복한 徒黨일 것으로 보였는데, 그들의 行方이 소대의 공격축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간목표인 Thanh Quang을 거치게 될 것이 확실히 되었다. 따라서 무모하게 추격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誘引술수에 걸려들 염려도 없지않아 後尾를 붙고 휘파른 끝에 同마을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민은 물론 家畜 한 마리도 눈에 띄이지 않는 텅빈 마을이었다. 소대장은 혹시 그들의 奸計에 빠져든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偵探하였는데도 끝내 接敵이 없었다.

공격시초부터 接敵하기를 기대하던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제2소대가 그들과 접촉하였다는 보고에 接하자 곧 同소대로 하여금 當面の 敵을 추격케 한 다음 左一線의 제1소대를 Thanh Quang 西쪽으로 우회케하여 그 北쪽 500m에 있는 Tinh Hoa 左側方(西쪽)으로 先進케 하였다. 이와 더불어 同마을 北西쪽 일대에 침투한 제3소대장에게 은밀한 잠복을 계속하다가 交戰地로부터 脫出한 分子 또는 北쪽에서 그들의 增援부대가 접근하면 지체없이 이를 遂擊하라고 호령하였는데 이때에 중대본부(화기소대(-))는 제1소대를 후속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소대가 Thanh Quang의 탐색을 끝마치고 마을 北東쪽 外廓을 벗어나자마자 Tinh Hoa에서 총격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敵이 潛據한 일대는 수목이 울창한데다가 마을앞의 西쪽에서 東으로 흐르는 河川이 장애물의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너지가 힘들 것으로 보였다. 이에 孫龍男 중위는 57mm 무반동총의 집중작렬로서 불을 뿜는 敵의 자동화기를 제압하면서 3개분대를 모두 一線에 산개하는 즉시 뛰기 시작하였다. 잠시 뒤에 河川邊에서 살펴보니 河幅은 좁으나 水深이 깊고 兩岸이 모두 斷崖를 이루고 있는 탓으로 도섭하기 곤란하였으나 마을 안으로 이루는 細路를 연결한 나무다리(아자수 2개를 횡행물로 묶어 河川 兩쪽에 걸친 것)가 눈에 띄었다. 이즈음 右一線의 제1분대는 마을 東端에 뛰어 들고 左側에서 進出한 제3분대는 河川을 건너지 못하고 독을 따라 東進하다가 소대장과 합세하였다. 곧이어 소대선임하사관이 이끄는 공용화기조도 여기에 도착할 직전에 있었다. 소대장은 제2분대를 휘몰아 다리를 건너 마을안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이때에 그의 5m 앞에서 躍進하던 경기관총반장이 集注되는 兇彈에 左腕이 관통되어 현장에 쓰러졌다. 소대장은 곧 敵情을 살피려고 河川邊을 따라 西쪽으로 뛰고 李三郎 상병이 그를 바싹 휘파랐다.

이때 갑자기 50m 앞 草地에서 기관총의 熟彈이 날아들더니 熾烈度를 더하여가는데 때마침 다리를 건느던 제2, 제3兩분대를 指向하고 있었으며 소대장이 접근하는 기미를 눈치채

지 못한 것 같았다. 好機를 놓칠세라 즉시 急射를 퍼부어 눈앞의 기관총사수를 사살하고 敵陣으로 덮쳐드는 순간 뒤에서 李상병이 「소대장님 위험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소대장을 겨냥하는 狡虜를 間一髮로 사살하였다. 바로 이때 마을 東端을 휩쓸은 제1분대장 文成三 하사가 소대의 광경을 목격하는 즉시 그들의 側背를 急衝하자 이에 呼應한 나머지 2개분대가 돌격을 결행하였다. 이리하여 수류탄이 亂舞하는 混戰이 벌어지고 얼마뒤에는 敵陣이 混淆하더니 저항하던 分子들이 退散하는 것이었다.

이 交鋒에서 제1분대장 文成三 하사는 6명을 사살하고 同분대의 羅根玉 상병은 M79유탄을 퍼부우면서 돌진끝에 호속에 숨은채 총격을 加하는 4명을 一彈에 殲戮하였다. 그러나 소대 선임하사관 安哲洙 중사가 거느린 화력지원조가 마을 南端에서 나무다리를 건너려고 집결중 난데없이 60mm 박격포탄이 날아들어 소대항도 全錫崑 하사가 전사하고 선임하사관 以下 4명이 부상하였다. 이무렵 소대장은 30m앞 호속에 잠복한 VC들과 서로 총격을 교환하다가 李三郎 상병이 急射로서 이를 사살하자 날세게 뛰어들어 나머지 1명을 俘虜한 다음 草地 한복판에 있는 야자나무밑에서 訊問하는데 別안간에 총탄이 집주되므로 얼드렸으나 捕虜는 머리가 꿰뚫리어 即死하였다. 그뒤 孫龍男 중위는 이때의 情況을 證言하기를 「다음 目標의 적정이 明確하여 대항하는 VC들을 捕獲하려고 기회를 노리다가 1명을 잡았다. 그러나 變속이 좁기 때문에 야자수 밑으로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갑자기 총격이 집중되므로 얼드렸는데 나를 겨냥 것이 아니고 捕虜를 目標으로 사격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退走하던 그의 一味徒黨가 그 者의 입을 막기 위해 사살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공산도배들의 殘酷性에 駭然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술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近接戰이 일단락 되자 소대장은 곧 대열을 가다듬고 死傷者의 후송조치를 取한 연후에 硝煙이 채 걸히기도 전에 北走하는 VC들을 추격하다가 Loc Thanh(交戰地 北쪽 500m) 東端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熾烈한 총격이 쏟아져 잠시 진흙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제2분대의 全衡錫 상병이 날세게 덮쳐들어 對峙한 分子들을 제압하자 이에 膺接한 대원들이 敵陣을 휩쓸었다. 이때 일부分子들이 北東쪽으로 敗走한 바, 얼마뒤에 인접중대(제5중대)의 제3소대장이 이를 포착하여 追擊하게 된 것이다. 곧이어 四散하는 徒黨들을 무찌르면서 北西쪽으로 追躡하는데 중대장으로부터 『Duang Thanh (1) 北端에 있는 河川邊까지 진출한 다음 강둑일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所命된 目標의 要所를 制扼하는 즉시 퇴로차단으로 移行하였다. 소대는 이러한 一戰을 치룬 끝에 유기시체 11구를 헤아리고 경기관총(CZECO製)과 기관단총 및 CAR소총 각 1정 그리고 60mm 박격포탄 1개와 同포탄

9발을 노획한 반면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으로 후송되었다.

한편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제2소대가 Tinh Hoa에서 접전하자 매마침 同마을 西端에 진출한 제1소대(장, 朴基源 중위)를 즉시 北東쪽으로 轉換케하여 소재의 敵이 탈출하는 길목을 쫓아가 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대본부와 화기소대(-)를 이끌고 계속 진격하여 該마을 左側(西쪽)을 차단함으로써 包圍網을 형성하였으며, 이로써 제2소대의 공격을 北, 西 兩面에서 監視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朴基源 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는 Tinh Hoa 北쪽에 있는 河川에 이르자 곧 마을안에 蟄伏한 分子들의 뒷덜미를 잡았는데 이때에 그들은 이미 제2소대의 衝鋒을 감당하지 못하고 退散하고 있었다. 여기서 제2분대의 宋頂基 상병은 저항하는 一群의 側背를 덮쳐 6명을 사살하고 VC용의자 10명을 검거하였으며 곧이어 徐學原 병장은 호속에 숨은 VC들과 도수격투 끝에 1명을 撲殺하였다. 이러한 육박전이 벌어지자 그들은 北西쪽으로 退却하므로 소대장은 손을 늦추지 않고 이를 밀어 부쳤다. 그러나 Loc Thanh 西端에 이르자 미리 준비된 진지에 전개한 敵이 그들 主力의 철수를 엄호하는 것이었다. 이에 제2분대장 金点淑 하사는 자동소총조를 그들의 側背로 뿔아돌려 제압케하는 즉시 돌격을 決行끝에 이를 擊破한 바, 현장에는 유기시체 5구가 흩어져 있었다.

또 부중대장 金載熙 중위는 화기소대(-)일부와 본부요원을 거느리고 Tinh Hoa 西쪽 一角을 차단하다가 南走하는 一群을 追擊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이러한 전투상황을 살피던 중대장은 當面の 敵이 비록 退散하고 있으나 그들의 主力으로 보이는 徒黨들이 Tinh Binh (1)을 목표로 退却하는 것으로 看破하자 곧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잠시뒤에 대대장으로부터 同마을 南東쪽의 河川線에서 그들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제5중대의 공격을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2소대를 Duong Thanh (1) 西쪽 일대에, 제1소대를 그 左側(西쪽)인 Loc Thuan 北端으로 각각 진출케하고 곧이어 Tinh Binh (2) 부근에서 잠복중인 제3소대를 北東쪽으로 뿔아돌려 제1소대와 차단선을 연계토록 하였다.

한편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6중대의 전투 推移와 그 밖의 상황을 주시하다가 同중대가 Loc Thuan을 석권하였을 때 일부 分子들이 四方으로 退散하였으나 그들의 主力이 축차적인 자연전방식을 取하고 있는데 着眼하여 戰況을 종합분석끝에 Tinh Binh (1)—Binh An(목표 “23”과 同 34 중간지대) 일대에 그들의 據點이 있다고 推斷하였는데 이 때가 10.00정각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이미 준비된 예비계획을 적용키로 하고 제6중대를 목표 南東쪽 일대에 투입하였으나 敵의 예상되는 蟄據地가 인접대대와의 지경선상에 있는 까닭에 우선 이를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包圍網의 一角을 제3대대가 담당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어 당

면의 敵을 一網打盡할 방안을 다듬었는데 그 뜻은 「Tinh Binh 전투」에서 取扱기로 한다.

### (L) 제 1연대 제 3대대의 戰況

제 3대대(장, 朴慶錫 중령)는 「비호」地區 左側일대를 담당한 바, 늪지대와 大小不定의 河川이 많기로는 右-線지대와 다를 바 없었으나 河幅이 넓고 수심이 깊은 탓으로 침투 간에 이를 도하할 때가 가장 脆弱할 뿐만 아니라 企圖도 또한 綻露되기 쉬웠다. 대대는 연대계획의 일환으로 2개 중대로써 Song Dai An(江) 南쪽 연변과 △78 東쪽 일대의 예상되는 敵의 퇴로를 차단하고 2개 중대로 하여금 제 1번도로변에서부터 北東쪽으로 進擊하도록 목표 “(32)”-“(33)”-“(34)”의 3개가 부여되었는데 연대수색중대(△78주둔)가 대대에 배속되었다. 그러나 打撃부대인 2개 중대의 공격개시보조선(통계선)이 공격대기지점으로부터 6km(實距離: 도상거리는 3km) 떨어진 Thanh Giang—Thanh Danh (1)—Tan Dan을 잇는 線에 구획되었는데, 이 구간에는 도섭이 어려운 3개의 河川이 있다.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이와같은 地形의 특징과 敵情 그리고 그밖의 고려사항을 종합분석끝에 전투지도腹案을 보완한바 그 骨子は 다음과 같다.

1. 야간공격에 能한 제 9, 제 11 兩중대(在求 2호전투 때 Vinh Thanh—Chi Hoa를 夜襲)를 打撃부대로 하여 목표 “32” (Kim Tai—Liem Loi (1), 同 34 (Thai Xuan—Binh An)를 追躡케 한다.
2. 제 10중대로 하여금 Song Dai An(江) 南쪽연변을 따라 침투케 한 다음 예상되는 退路를 要扼케 하다가 목표 “33” (Hoa Tai)을 석권케 한다.
3. 대대에 배속된 연대수색중대를 △78 東쪽의 Dai Huu (2)—Liem Loi (2)에 전개하여 內部차단선을 형성케 한다.
4. 이로써 지대대에는 포위된 內外에 두겹의 차단선이 형성되므로 만약 소재의 敵이 內線에서 탈출 하더라도 外線에서 이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대에서 打撃부대와 차단부대의 비율을 同等하게 한것은 전투지대의 地形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에 대대장은 차단부대를 중심 깊게 投入함으로써 退却을 꾀하는 分子들을 片甲도 놓치지 않고 殲滅하는 동시에 그 일부를 상황진전에 即應하여 轉用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이다.

이날 대대는 01.00부터 행동을 시작한 바, △78에 집결한 제 10, 연대수색 兩중대는 02.00에 지뢰된 침투경로를 踏破하여 차단지대를 점령하였다. 한편 打撃부대인 제 9중대는 Cam Van에서, 또 제 11중대는 基地(Huynh May (1))에서 차량편으로 Tieu Hoa에 진출하였으며, 02.30부터 공격대기지점에 각각 躍出하였다.

右-線인 제 11중대(장, 嚴英皙 대위)와 左-線인 제 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지정된 시

간에 통제선이 구획된 Thanh Danh(1)—Trung Ly를 向하여 병진하였다. 그러나 이 區間을 침투하는 동안 기도비닉의 維持여부가 전투에 크게 作用할 것이므로 兩중대장 모두 진두에서 진로를 개척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뒤인 04.30에 兩중대가 Duang Lang 옆을 지나가는데 마을에서 개짓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조명탄이 발사되고 총성이 寂滅을 깨뜨렸다. 이때에 兩중대장은 즉시 강쪽에 얼드린 대원들이 응사하지 않도록 통제하여 조명탄이 꺼질 때까지 微動도 하지 않고 기다린 다음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進路를 가로막고 煎流하는 河川邊에 이르렀는데 河幅은 13m이지만 水深이 깊어 도섭이 곤란하므로 준비한 “로프”와 고무침낭을 이용하여 이를 渡河하였다. 이리하여 06.00에 통제선에 도착한 바, 침투간에 제11중대는 Trung Dinh (통제선 南西쪽1.5km)에서 제2소대(장, 權宇憲 소위)를 Xuan Mai(목표 32 南쪽 800m)로 우회케하여 여기에서 목표 “32” 南쪽 일대의 용의지대를 制扼케 하였다. 그런데 이는 兩중대가 목표를 탐색할 동안 南쪽으로 退却하는 敵을 제압키 위한 대대계획의 일환이다. 이러한 침투끝에 제11중대는 Thanh Danh (1)—Kim Tai를 휩쓸고, 제9중대는 Trung Ly—Liem loi (1)을 탐색하였다. 그뒤 제11중대는 南쪽으로 轉進하여 Xuan Mai 일대를 차단중인 제2소대와 합세하였으며 또 제9중대는 목표 “31”(Dinh Thuan)를 向하



출전을 앞두고 蔡命新사단장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제9중대장



여 前進하였다.

제 10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지대北端의 要衝인 Trung Binh—Hung Tri를 黎明前에 점령하기 위하여 전날 21.00에 제2, 제3兩소대를 먼저 침투시키고 중대(-2)는 이날 02.00에 행동을 개시하였다. 중대(-)보다 앞서 출발한 제2, 제3兩소대는 제3소대(장, 金吉夫 중위)가 尖兵으로 진로를 개척하고 제2소대(장, 金武石 중위)가 이를 후속하였다. 이윽고 03.00에 Trung Binh에 이르자 尖兵소대는 여기에서 산개하고 제2소대는 계속 Nam yan 江邊을 따라 東進끝에 05.00에 Hung Tri 北端에 있는 Song Dai An (江)의 渡河場을 장악하였다.

한편 중대(-2)는 03.10에 Nam yan 江邊(△78 東쪽 1.8km : An Nhon 北쪽)에 진출하자 계획대로 渡河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105mm조명탄 2발이 발사되었다. 그로부터 2시간뒤에 중대(-2)는 Trung Binh에 進入하였으며, 여기에서 제1소대를 Hung Tri로 진출케 하여 제2소대와 합세한 연후에 Song Dai An(江) 南岸의 길목을 要扼케 하였다. 중대는 이와같이 타격부대가 공격개시보조선을 뛰어넘기 以前에 所命된 지대를 차단하다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목표 “33” (Hoa Tay—Duong Xuon)을 席捲하여 VC용의자 5명을 체포하는 즉시 이를 압송하였다.

이에 앞서 제2소대는 Hung Tri에서 산개하다가 北쪽으로 退却하는 一隊를 추격끝에 VC 용의자 7명을 검거하였으며, 그로부터 2시간뒤에 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Hoa Dong(목표 23 南쪽 500m)을 목표로 南進한 다음 중대(-1)가 Hoa Tay 일대를 탐색하는 동안 인접대대와의 地隙을 補填하였다. 중대장은 여기에서 일단 태열을 가다듬은 연후에 南進하여 Thai Xuan을 탐색하는데 별안간 我軍 105mm포탄이 집중 작렬하였다. 그런데 이는 인접 제2대대가 Binh An—Tinh Binh (1) 일대에 潛據한 敵을 제압하려고 砲擊을 가한 것인데 그 일부 誤彈이 여기까지 날아들은 것이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대장 朴慶錫 중령은 명령하기를 『중대는 즉시 Binh An으로 진출하여 同마을 北西쪽 일대를 차단하라. 제 2대대가 Tinh Binh (1)—Binh An을 목표로 공격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는 Thai Xuan 南端의 河川을 건너 연후에 Bing An 사이에 펼쳐진 水田지대를 砲兵이 연막으로 차장하자 곧 躍進하여 所命된 일대를 점령하고 包圍網의 一翼을 형성하였다. (※ 그뒤의 상황진전은 「Tinh Binh전투」 細項에서 취급한다)

한편 대대에 배속된 연대수색중대(장, 宋璇用 대위)는 △78—Vinh Dinh을 거쳐 Liem Loi (2)에 이른 즉시 차단진지를 준비하고 제9, 제11兩중대의 진격에 따라 北東쪽으로 退散하

는 우리들을 強打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리하여 曉天무렵에는 각 소대가 각각 지정된 목표를 占據하고 주야간에 걸친 장기매복에 들어갔다. 침투간에 右一線에서 李賢夫 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는 An Nhong(Liem Loi (2) 北쪽 1km)에 이르렀을 때 소대선임하사조의 尖兵 黃學模 병장이 불이 터리까지 차는 河川을 도섭하여 건너편 강쪽에 기어오르려고 나무뿌리를 밟자 그것이 꾸부러지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VC 1명이 물속에 숨은 채 나무를 입에 물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뚝 밑에 움푹 파인 곳에 있는 나무뿌리를 잡고 있었는데 黃병장이 이 놈의 팔을 디딘 것이다.

이에 조장 林鍾哲 중사는 捕虜로 잡은 이 놈을 현장에서 迅問 끝에 Liem Loi (1) 北쪽 細路에 그의 徒黨이 潛伏중이라는 陳述을 들은 즉시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左一線을 담당하여 은밀하게 南進하였다. 얼마뒤에 소대는 捕虜가 지적한 부근에서 산개하여 탐색하다가 所在不明의 一群으로부터 느닷없이 총격을 받고 즉시 應戰하였다. 그러나 어둠으로 말미암아 상황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서로 총격만 교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景況이 지속되자 林鍾哲 중사는 제1분대로 하여금 對峙한 무리들의 側背를 치게하고 나머지 1개분대를 휘몰고 敵陣으로 뛰어들어 육박전끝에 저항하는 徒黨들을 擊破하였다. 그리하여 유기사체 4挺을 내게하고, CAR소총 1정을 노획하였는데 이것이 이 날의 戰果 1호였다. 그러나 돌격할 때에 선두에서 挺進하던 金鍾玉 일병이 壕속에 응크린 分子들과 격투하다가 현장에서 장렬하게 陣沒하였다.

## (라) Tinh Binh의 戰鬪

1. 概況: 제6중대가 Tinh Hoa에서 捕獲한 敵을 격파하면서 北쪽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 제2대대장이 取한 조치는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전투의 시초부터 終幕까지의 전투추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먼저 當該 대대장의 전투지도복안에 言及한 다음 전투경과의 개요를 살필 것인바, 이를 위하여 이미 取扱한 상황의 일부도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제6중대가 Loc Thuan을 탈취하였을 때에 저항하던 敵의 철수하는 양상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혼련이 잘된 精銳分子들이라는 心證을 굳혔다. 뿐만 아니라 그들 主力의 退却방향을 거만하기 위한 陽動으로 我軍을 眩惑케 한 연후에 Tinh Binh (1) 일대로 집결하는 徵候가 드러났다. 이에 대대장은 집축중인 敵이 1개중대(+)로 判斷되므로 공격병두부터 交戰중인 同중대 단독으로 전투를 계속케 한다면 그들은 준비된 陣地에서 완강하게 대항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萬의 하나라도 대대의 衝撃力이 약하여 虛點이 드러

난다면 逆襲으로 나온 다음 北쪽으로 退却할 公算이 될 것이다. 이러한 推考끝에 Tinh Binh (1)이야말로 戰鬪의 決勝點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준비단계에서 계획한대로 중간중대인 제5중대를 여기에 增援카로 決心하고 지도복안을 세웠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목표의 北—西—南의 三面을 「ㄷ」字形으로 포위한 연후에 1개 중대으로써 北東쪽에서 面衝한다.
2. 제6중대로 하여금 Tinh Binh(2)—Duong Thang(1) 南端에 있는 河川까지 진출케 하여 對峙한 敵을 목표내에 釘着시키는 동시에 南—西 外廓의 一角을 포위케 한다.
3. 敵의 거점이 지경선상에 있으므로 제3대대가 목표의 北쪽外廓(Binh An) 일대를 차단하드록 협조한다.
4. 제5중대으로써 목표의 敵을 剷抉케 한다.

5. 제5중대가 타격을 加하는 즉시 제7중대로 하여금 Duong Thanh (2) 일대를 차단케 한다. 이로써 목표를 四圍에서 포위하게 되며, 제5중대의 공격이 如意치 못하면 제7중대으로써 이를 초월 공격케 한다.』 대대장은 곧 이를 연대장에게 具申하여 그 승인을 받는 즉시 각 중대장에게 명령하기를 『제5중대장은 Tinh Binh (1)—Binh An을 목표로 北東쪽으로부터 공격하여 소재의 敵을 殲戮하라. 제6중대가 목표 南쪽 일대를 차단하여 인접대대의 1개중대가 北西쪽을 포위한다. 제6중대장은 Tinh Binh (2)—Duong Thanh (1)의 河川까지 진출하여 對峙한 우리들을 柳留케 하는 동시에 그 南端을 포위하고 인접대대의 차단부대와 包圍網의 외곽선을 연계하라. 제7중대장은 즉시 現위치(Long Hau)에서 Duong Thanh (2)로 移動하여 제5중대를 後續하고 依命 同중대를 초월공격할 태세를 갖추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제6, 제7兩중대가 지정된 지역을 차단하고 인접 제3대대의 제10중대가 Binh An으로 진출한 상황은 이미 取扱하였으므로 여기에서 이 전투의 重點을 構成한 제5중대의 狀況부터 먼저 살피기로 한다.

2. 제5중대의 戰況: 제5중대(장, 林東遠 대위)가 중대의 최종목표를 탈취한 다음 작소대로 하여금 의심나는 지대를 반복탐색케한 사항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때에 대대장이 명령하기를 『제6중대와 충돌한 敵의 일부가 Duong Thanh (2) 쪽으로 退走중이니 이를 急進격멸하라』고 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즉시 작소대장에게 호령하되 『제1, 제2兩소대는 최대한내에 탐색을 끝마치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다음 중대본부의 병력을 이끌고 Duong Thanh (2) 西쪽으로 急進出하였다. 잠시뒤에 제3소대장 鄭政能 소위가 急報하기를 『현재시간으로 VC 2개분대가 Tinh Binh (1)로 퇴각중, 소대는 이를 추격중』이라 하였다. 그러나 소대장의 이 짧은 보고내용만으로는 敵의 소재와 규모가 묘연할 뿐더러 同소대장이 거느린 추격병력의 규모 또한 아리송하였다. 중대장은 곧 제1, 제2兩소대장에게 『Duong Thanh (2) 西端에 집결하여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고 호령한 연후에 敵情을 파악할 목적으로 중대본부요원(통신병과 관측반)을 휘몰아 제3소대가 산개한 지역으로 달려갔다.

한편 Tinh Binh (1)로 철수하던 VC들은 我軍의 추격병력이 1개분대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알아차린듯 退走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들의 一味가 준비한 살상지대로 유인하는 듯한 기미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대장 鄭政能 소위는 이를 看破하지 못한듯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이와같은 奸計를 알 까닭이 없는 중대장 또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치를 전혀 取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파오의 결과가 얼마뒤에 나타났다. 즉 중대장이 500m 전진하였을 때에 제3소대 무전병이 울먹이면서 보고하기를 『소대장 증상』이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이때가 11.00 正刻인 바 중대장은 敵情이 아직 五里霧中인 판국에 소대장을 잃은 충격으로 激昂된 心情을 가라앉히려고 수통하나를 단숨에 비우고 잠간동안 安靜할 시간을 가졌다.

제3소대의 戰況 : 제3소대장 鄭政能 소위는 Duong Thanh (2)에서 同(1)에 이르는 細路의 路목을 要扼하다가 소대가 잠복한 지대로 다가서는 敵을 목적하는 즉시 邀擊태세를 갖추고 대기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西쪽으로 退走하므로 선임 하사관 李相權 중사에게 호령하기를 『現위치에서 차단임무를 계속하라.』고 지시하자마자 제3분대(+)를 거느리고 追擊에 나섰다. 그런데 敗走하던 敵은 이따금 버둥거리기도 하고 총격을 加하기도 하더니 Tinh Binh (1) 부근에 이르자 별안간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이에 때를 맞추어 同마을을 에워싼 대나무숲으로부터 熾烈한 총격과 박격포의 熱火가 집중되었다. 곧이어 이에 呼應하듯 所在不明의 壕에서 소대의 側背를 向하여 急射하는 것이었다. 猝地에 進退兩難에 몰린 소대장은 먼저 가까운 비밀 壕에 潛伏한 분자들을 격파한다음 현장에서 중대 主力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기로 決心하고 短兵을 붙고 穿貫突入하였다.

이때에 陣頭에서 달리던 분대장 李香根 하사는 壕속에서 움크린 1명을 사살하였으며 그를 뒤따르던 崔龍鎭 상병도 壕속으로 뛰어들자마자 도수격투 끝에 3명을 무찔렀다. 그러나 鄭政能 소위가 兇漢이 잠복한 壕속으로 뛰어드는 찰나 느닷없이 총탄이 集注되었는데, 전령 樞南熙 상병이 소대장을 겨누는 1명을 撲殺하였으나 소대장은 끝내 胸部와 腹部가 관통되어 碧血을 뿌리면서 쓰러졌다. 鄭소위는 鮮血이 낭자한 가운데 분대장 李香根 하사를 불러 이르기를 『敵의 壕를 빨리 탈취하라, 그리고……』라고 하면서 끝을 맺지 못하고 失神하였다. 또 소대장을 跟隨하던 경기관총 사수 李成萬과 소총수 朴龍成의 兩상병도 壕속에서 육박전을 벌이다가 4명을 죽이고 1명을 俘獲(부상)하였으나 集中작열하는 수류탄으로 말미암아 장렬하게 戰死하였다.

분대장 李香根 하사는 일시에 소대장이 重傷을 입고 대원 2명이 陣歿하자 退走하던 무리들이 潛入한 진지를 탈취하고 여기에서 저항하는 무리들을 鏖殺하였는데 확인된 시체가 11

具요 捕虜 1명에 기관단총 1정과 수류탄 약간을 노획하였다. 이어 분대장은 계속 교전하였으나 衆寡不敵인데다가 휴대한 실탄마저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러 노획한 수류탄으로 奮鬪하고 있는데 중대장을 후속하던 부중대장 鄭周祿 중위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鄭중위가 이끄는 중대본부요원의 掩護下에 부상한 소대장과 濶散 2位를 메고 일단 Duong Thanh (1)로 물러난 다음 原소대 지휘하로 복귀하였다.

그뒤 여기로 달려간 화기소대장 金植天 중위가 鄭政能 소위를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헬리콥터”機上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는 慶南 昌原郡 熊川邑 태생이며 갑종 간부 제190기로 1965년 9월에 소위로 任官하였다. 지난 「비호 6호작전」 때에는 「Liem Loi 전투」에서 과감한 돌격으로 對峙한 무리들을 一蹶에 粉碎함으로써 VC의 간담을 서늘케하여 突擊戰法의 본보기를 남겼으며 이 功으로 勳章무공훈장을 수여받은지 1



Tinh Binh 戰鬪 役徒에 전사한 故 鄭政能 중위

일만에 여기 異國땅에서 散華하였으니 嗚呼라, 愛惜하다.

여기서 이 전투의 전체적인 推移를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Tinh Binh(1)의 地形과 敵情을 附記한다. 同마을은 Song Dap Da (江)의 支流가 Nui Ma H (山) 南쪽에서 Go Boi평야의 중앙을 東流하는 중간(△78 南東쪽 4km : Go Boi 北西쪽 5km)에 있는 까닭으로 이 時點까지 我軍의 銳鋒이 미치지 못한 僻地이기도 하다. 同河川은 이 마을 中央을 貫流하다가 南東端에서 네갈레로 分流하며 西쪽으로 Binh An까지 민가가 接連된 밭으로 兩마을의 境界가 뚜렷하지 못한다 兩대대의 전투 地境선이 여기에 勾劃되어 있었다. 또 이 河川을 끼고 Loc Thuan, Duong Thanh (1)의 兩마을이 南, 東으로 이어

지며 마을 들레에는 대나무와 열대수가 우거지고 水田과 濕地가 다울 四周에 펼쳐져 있다. 여기에 根據地를 둔 敵은 VC, E-2B대대, D-38중대 일부와 이를 지원하는 VC, D-25중대였음에 그뒤 밝혀진바 該중대는 Binh Dinh省 VC중대에서도 惡質分子들이 모인 이른바 그들의 骨幹으로서 서슴없이 蠻行을 저지르기로 이름났으며, VC의 制服(녹색)을 착용한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들은 이 마을 北半部, 즉 河川이 네갈레로 分岐하는 北쪽一角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現時點까지 당면한 것 중 가장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위장도 교묘하였다. 이 據點의 西쪽에서 南端을 감돌며 흐르는 河川 북에는 壕와 交通호가 연결된 바 제6중대가 그 對岸연변까지 진출하여 포위망을 형성한 것이다. 또 東, 北쪽 側面에도 역시 대나무뿌리 밑에 진지가 준비되고 진지앞 50m에는 철조당과 각종 장애물이 二重으로 부설되었으며 마을안에는 진지가 중심길이 준비된 半永久的인 據點이었다.

중대장의 戰鬥指揮 : 한편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중대본부의 나머지 요원을 거느리고 현장에 도착한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를 제3소대(-2)의 交戰地로 急派하여 이를 수습트럭 조치한 다음 무릎까지 빠지는 濕地를 疾走끝에 묘지가 點在한 작은 丘陵에 달라 붙었다. 이때에 별안간 150m앞의 대나무숲이 우거진 마을(Tinh Binh (1))에서 기관총이 불을 뿜고 狙擊兵의 사격이 集注되었는데 중대장의 귀밑을 스친 一彈이 그를 跟隨하던 통신병의 철모에 맞아 그 鐵帽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또 一彈이 그의 下衣를 깨꿨었다. 모두가 얼트렸으나 여기는 수렁인 까닭에 몸이 빠져들어가므로 墓地를 向하여 포복으로 전진하는데 고개만 들어도 저격탄이 날아 들었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當面の 敵이 1개중대(+ )규모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들의 陣地가 대나무숲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탓으로 敵情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앞으로 前進하려 할 때 제3소대(-2)의 교전현장을 정리한 뒤 달려간 부중대장과 합세하였다. 중대장은 여기에서 비로소 제3소대의 추격 狀況을 알았으므로 주지할 수 없었다. 오직 對峙한 敵이 어떤 형태의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는가를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여 이를 擊滅하고자 말겠다는 決意만 그의 腦裏에 가득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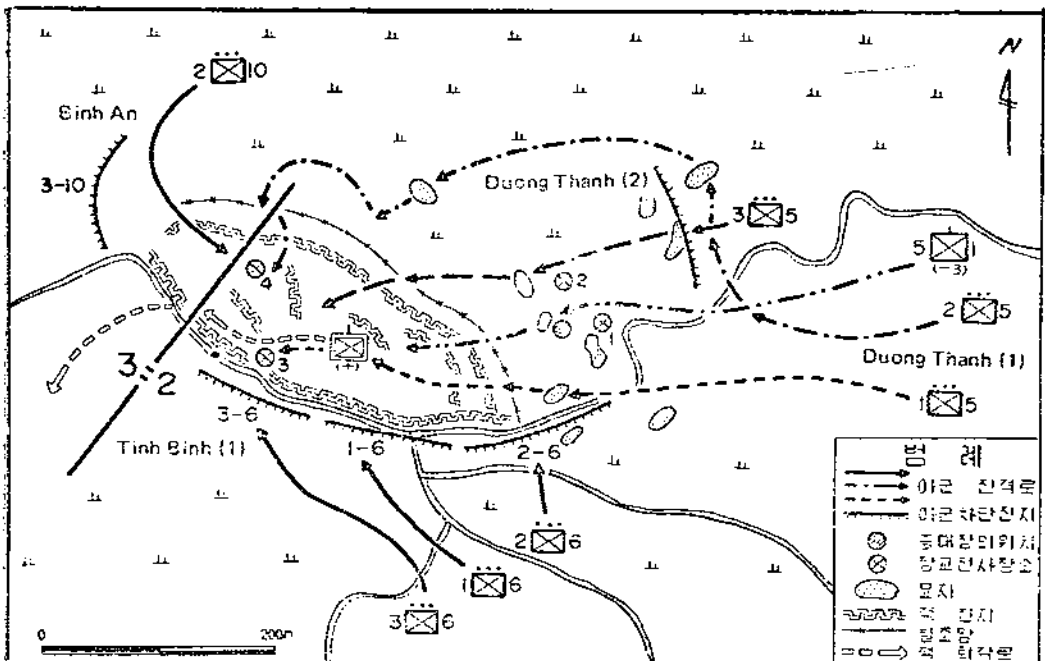
그런데 제5중대의 공격축선이 가장 強力하게 진지가 구축된 東쪽 마을로 指向되었는데 중대장이 총격을 받은 장소는 陣前 150m였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哨煙과 우거진 숲으로 말미암아 敵情이 模糊하여 마을앞 80m까지 다가섰다. 이때에 對峙한 敵은 박격포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판측장교 徐相炫 중위로 하여금 Tinh Binh (1)일대에 砲擊을 加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들의 位置를 살핀 결과 대나무숲 밑 부분에 銃眼이 보이고 그 앞 20~25m에는 철조당과 竹槍등 여러가지 장애물이 여러겹으로 부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목표가 인접대대의 地境線上인 까닭으로 兩대대의 협조관계와 包圍부대의 진출로 말미암아 포병의 화력지원이 多少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 무렵 제1, 제2兩소대는 Kuong Binh 부근(중대본부 東쪽 2km)에 집결하여 중대장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제3소대는 중대본부 500m뒤(東쪽)에 산개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제1, 제2兩소대가 목표로 진격하는 동안 여기에서 對峙한 무리들을 견제하면서 砲火로서 이를 제압하기로 다짐하는 즉시 兩소대장을 무전으로 불러 지시하되 『제1소대장은 Duong Thanh (1) 北端을 거쳐 목표로 北쪽을 急衝하라. 제2소대장은 同 (2)를 경유하여 목표의 右側(北東쪽)를 施襲하라. 중대장은 목표 東쪽 80m에 있다.』라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追躡할 것을 명령하였다. 곧이어 敵情을 대대장에게 보고하고 제3소대 선임하사관 李相權 중사에게 現차단선에서 중대본부 側後로 前進하여 제1, 제2兩소대를 엄호한 다음 공격에 가담하라고 하였다. 잠시뒤에 중대장은 대치한 敵의 反應을 살피고자 철모를 銃끝에 걸어 轟연으로 살짝 내어밀어 보았더니 대장 총탄이 쏟아지고 熾盛度를 더하여갔다. 이때에 대대장이 이르기를 『제6, 제10兩중대가 목표의 三周를 포위중이며 전투지대가 조정되었다.』라고 通報하였다.

이 무렵 목표 上空에는 인접부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격한 “헬리콥터”(무장 및 구

狀況圖 제54호 Tinh Binh 戰鬥



급) 16대가 선회하고 있었으므로 포격이 잠깐 보류되고 있었다. 이에 중대장은 제2소대장에게 목표에突入하기전에 1개분대를 北東쪽으로 우회시켜 예상되는 退路를 차단하라고 호령하였으며 곧이어 관측장교에게 연막차장을 요청하도록 일렀다. 이윽고 當面의 敵은 이러한 중대의 企圖를 눈치챈듯 兩소대의 진출을 저지하려고 박격포의 사격을 집중하더니 兩소대가 가까이 접근함에 따라 직사화기를 亂射함으로써 상황이 急轉되고 손실이 累増되어 갔다. 바로 이때에 중대본부가 점거한 墓地 上空을 선회하던 무장 “헬리콥터” 2대가 갑자기 急降下하면서 본부요원들에게 “로켓”彈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戰況은 急迫한데 友軍機까지 공격을 加하였으니 그야말로 四面楚歌의 窮地에 빠진 중대본부 요원들은 눈두렁을 방패삼아 이리저리 뒤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중대장은 이 焦眉의 急을 피하고자 한두번 덩꿀다가 대대장에게 同機들을 철수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대원들에게 약화된 신호탄을 터뜨리게 하고 對空布板을 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兵士들이 濕地를 踏破할 때에 휴대장구를 꼭 조여맨 탕으로 무거운 나머지 이를 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로켓”의 사격을 3회(16발) 거듭한 “헬리콥터”가 무전연락을 取한지 1분만에 北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뒤 이 交戰이 끝난 다음 밝혀진 바, 때마침 사단전술지휘소(△78)에서 羅炳善, 李林春 兩대위가 중대장과 대대장間的 交信을 방청하다가 誤爆 상황을 재빨리 看破하고 그들 앞자리에있는 美空軍 연락장교에게 통보함으로써 분제의 “헬리콥터”를 즉시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이때의 情況을 面談 때에 설명하기를 『敵情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一念으로 파고들다가 어느새 敵陣 80m 앞에 있는 모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에 나는 대처한 敵이 직접 육박공격할 경우에 대비하면서 소대의 진출 現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友軍機의 “로켓”포격을 받았으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상황은 몹시 危急하였다. 만약 그 “헬리콥터”가 기총掃射를 퍼부었더라면 중대본부 요원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火急한 고비를 넘긴 직후 이번에는 左右 兩側에서 熾盛한 총격이 집중되고 박격포탄이 어지러워 炸裂하는 가운데 드디어 제1, 제2兩소대가 목표내의 敵과 接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兩소대의 진격이 매우 빨랐으므로 이대로 밀어부친다면 곧 敵陣을 휩쓸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목표와의 거리가 200m로 좁혀졌을 즈음부터 그들의 火力은 熾烈度를 더하면서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다. 雪上加霜으로 지원포병의 연막차장이 지연된 탕으로 개활지에서 몸을 드러낸 채 뿔 수 밖에 없는 兩소대에서는 잠깐 동안에 16명의 死傷者가 잇달아 생겼다. 얼마 뒤에는 제2소대장 李 淸 중위가 보고하기를 『더 以上



앞으로 進出하기 곤란하다. 右側(北西쪽)으로 우회하겠다.』라고 건의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상황이 急轉直下하자 중대장은 생각하기를 「이와같이 緊迫한 状況에서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衝擊행동을 늦춘다면 銳氣가 꺾일 뿐만 아니라 공격이 挫折될 테이므로 대처한 무리들의 저항이 더욱 加熱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중대의 공격축선이 水田地인 까닭으로 물러난다면 決定的인 打撃을 받을 것은 自明한 일이었다.

이렇게 判斷한 중대장은 관측장교 徐相炫 중위에게 포병의 연막차장을 다시 요청토록 하는 한편 兩소대장에게 연막탄이 炸裂하면 지체없이 돌격하라고 호령하였다. 이어 그는 그의 옆에서 분투중인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에게 이르되 『중대본부요원의 일부를 거느리고 100m 뒤에 산개한 제 3소대로 달려가는 즉시 該소대를 지휘하여 중대본부와 대치한 敵을 압박하면서 그들의 火力을 誘引하라.』고 지시하였다. 중대장은 이 計策이 奏功하여 當面의 敵이 동요하는 기미를 捕捉하는데로 곧 左右側에서 교전중인 兩소대를 敵陣으로 突入케 할 心算이었다. 이러한 중대장의 胸中을 알아차린 鄭周泳 중위는 復命하자마자 側後로 달려갔는데 길복에 潛伏한 敵이 쏜 一彈이 胸部에 命中하였다. 鄭중위는 鮮血을 내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를 부축하는 대원을 뿌리치면서 이미 말문이 막혀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도 다만 손짓으로 제 3소대로 가라는 시늉을 하다가 현장에서 陣歿하였는데 이때가 12.00 2분전이었다.

鄭周泳 중위는 全南 潭陽郡 鳳山面 陽地里에서 태어나 光州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뒤 靑雲의 꿈을 펴고자 육군사관학교(재18기)에 지원하여 1962년에 任官한 將來가 촉망되는 장교였으니 정녕 于城의 一角이 무너진 것이다. 그의 나이 26세, 「비호 6호작전」에도 참가한 그는 「Liem Loi 전투」에서 중대본부가 危機에 처하였을 때 본부요원 4명을 이끌고 敵陣으로 뛰어들어 중형무진으로 활약끝에 저항하는 무리들을 擊滅하는 戰功을 세운 바있다.

부중대장에게 기대를 걸고 있던 중대장은 그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企圖마저 水泡로 돌아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의 決戰을 強行키로 하였다. 이에 그는 때 마침 Duong Thanh (1) (제6중대의 제2소대가 차단한 지역)에 도착한 화기소대장 金柱天 중위에게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의 英顯과 부상자를 후송한 다음 제3소대를 지휘하여 중대본부를 후속하라고 명령하였다. 곧이어 敵陣에 가장 근접하여 대치중인 中대본부요원을 휘둘고 正面으로 突衝하려고 일어서는데 드디어 포병의 연막탄이 集中하기 시작하므로 즉시 각 소대장에게 연막차장이 형성되는대로 돌격하라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돌아닥친 一陣狂風으로 말미암아 연막차장의 효과가 감퇴되고 말았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毫末의 동요도 없이 敢然히 일어나 각 소대장에게 籠罩하되 『휴대



Tinh Binh 戦場에서 전사한 故 鄭周泳 대위

한 M34연막수류탄을 터뜨려라』고 호령하자마자 『돌격앞으로』를 외치면서 短兵을 이끌고 陣頭에서 돌진하였다. 이에 隣接하여 死生을 결단한 血鬪가 벌어졌는데 實로 이 순발적인 衝擊이 必勝의 端緒를 잡은 것이다.

이러한 渦中에서 中대장이 이끄는 中대본부는 네차례나 거듭되는 돌격끝에 敵陣앞의 장애 불지대를 뛰어넘었다. 이같은 갑작스런 돌격에 기가질린 敵은 진지를 이탈하는 分子들로 混淆된듯이 저항진지의 一角이 무너졌다. 돌격간에 中대통신병 劉千奎 병장은 中대장을 뒤따르다가 兩팔이 부상됨에도 屈하지 않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強靱한 鬪志를 보이기도 하였다. 얼마뒤에 제1소대장 朴文奎 소위가 적앙된 목소리로 보고하되 『敵陣突破 격투중』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中대장의 팔목시계는 12.30을 가리키고 있었다. 잠시뒤에는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敵의 경기관총과 박격포의 사격이 뜰 밧었으며 산발적인 총성이 계속될 뿐이었다.

그로부터 10분뒤에 제2소대장 李 淸 중위가 목메인 소리로 『敵陣 奪取』라고 울부짖었다. 中대장은 곧 兩소대장으로 하여금 탈취한 진지에 1개분대씩 남겨 偵探케하고 나머지 主力으로 戰果를 擴大하되 전투지대 밖으로는 추격하지 말라고 강조한 연후에 대대장에게 戰況

을 보고하였다. 곧이어 제1, 제2兩소대가 占領한 지대로 뛰어가다가 제2소대가 제10중대의 제2소대와 연계하였다는 보고에 接한 중대장은 인접대대와 협조된 책임지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다각한번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陣內탐색으로 移行하였다.

제1소대의 戰況 : 제1소대(장, 朴文圭 소위)는 Kuong Binh 西端에서 대기하다가 중대장의 명령을 받는 즉시 水田이 점철된 2km를 疾走끝에 11.30에는 중대본부가 위치한 左側의 敵前 200m에 다달았다. 진격간에 Duong Thanh (1) 北端에 있는 河川邊에서 그 南쪽연변에 산개한 제6중대의 제2소대장 孫龍男 중위와 만나 서로 말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朴文圭 소위의 마지막 私談이 되었다. 이어 敵陣 앞 150m에 있는 모지까지 육박한 소대는 돌격태세를 갖추자 곧 앞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敵의 진지까지 사이는 평탄한 水田으로 集注되는 十字火力이 熾盛하기 이틀데 없었다. 소대장은 겨우 30m 전진하여 낮은 논두렁 뒤에 었드려 살핀 결과 눈앞에 철조망과 각종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부터 박격포탄이 집중폭발하기 시작한 바, 이것이 그들의 彈幕이라고 직감한 소대장은 즉시 『물결』이라고 의치면서 陣頭에서 뛰어나가 철조망앞에 달라 붙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후저지사격이 集注되므로 대원들이 제각기 임페들에 몸을 가리고 수류탄을 亂投하는 接近戰이 벌어졌다. 이러한 景況에서 소대장 朴文圭 소위는 敵陣의 罅隙을 틈타 다시 돌격을 決行끝에 그들의 제1선 分哨진지를 탈취하고 여기에 潛伏한 8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格闘間에 先登挺進한 제1분대(장, 金廣齋 병장)의 蔡銅哲 병장이 現場에서 戰死하고 權忠助 병장과 李正男 일병이 부상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限死코 저항하는 一隊과 충돌하여 血鬪를 벌였다.

이러한 推移를 지켜보던 소대장은 突破口를 뚫지않는 한 목표를 탈취하기 곤란할 뿐더러 중대 전체의 損失이 加增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누구에게 이 血路를 개척하는 起爆의 重責을 맡기느냐가 문제였다. 한편 소대장 옆에 있던 제1분대장 金廣齋 병장은 한꺼번에 분대원 3명의 손실을 보자 敵陣心을 가누지 못하다가 소대장의 이와같은 心算을 눈치채고 뛰어나가려 하는데 同分대의 자동소총수 李昌男 일병이 벌떡 일어서자마자 불을 뿜는 敵의 기관총 진지에 遡射를 퍼부어 그 사수를 사살하자 그들의 총격이 잠깐 중단되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金廣齋 병장은 單身 躍動하는 즉시 가슴 높이의 二重철망을 단숨에 뛰어 넘고 수류탄의 집중작열로 장애물을 파괴하여 進路를 터놓았다. 곧이어 소대 正面에 있는 진지의 뒤로 돌아 교묘하게 위장된 壕속에 뛰어들어 5명을 殺戮하고 소대돌격을 저지하는 “병커” 5개소를 수류탄으로 송두리채 제압하였다. 드디어 突破口가 형성된 것이다. 바로.

이때 중대장의 『돌진』 호령이 떨어지고 이에 呼應한 소대원들이 함성도 드높이 밀어닥쳐 左衝右突 닥치는대로 擊殺하면서 마침내 그들의 主抵抗線을 突破하였다.

이러한 돌격간에 실탄을 모두 射耗한 李昌男 일병은 銃劍을 움켜쥐고 뛰었으나 敗走하는 敵을 사살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다가 발밑의 壕속에서 M1 실탄 1상자를 노획하고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뒤 李일병은 말하기를 「노획한 실탄인 탓인지 조준이 더 잘되는듯 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하는 것이었다. 한편 적진 깊숙히 파고든 金廣臚 병장은 그의 側背에서 VC 2명이 저격한 총탄에 철모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뒤돌아서 急射를 加하여 모두 사살하였으며 곧이어 地下壕에서 脫走하는 무리를 속으로 뛰어들어 때려눕힘으로써 제2저항선의 一角도 무너졌다. 이와같은 金병장의 분투로 말미암아 소대는 제일먼저 적진을 석권하였는데 소대장은 지체하지 않고 突破口를 확대하고 마을 안으로 쳐들어가 그들의 心臟部에 直衝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못하게 췌기를 박았다. 그러나 마을에는 腥塵과 硝煙이 그윽한데다가 陣地는 모두가 교묘하게 위장된 탓으로 그 出入口를 분간하기 어려운데 저항하던 分子들의 일부가 여기에 蟄伏한채 틈을 엿보다가 狙擊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은 각 분대에게 壕를 탐색하라고 호령한 다음 제1분대와 전령 2명을 거느리고 마을을 누비다가 비밀호가 적발되는대로 이를 뒤지제한 결과 마을 西端에 이르렀을 때에는 분대장 金廣臚



Tinh Binh (1)에 구축된 地下壕의 入口(後面)

병장 혼자 소대장을 뒤따르고 있었다.

여기에서 朴文圭 소위는 退却중인 VC 1개소대규모를 목격하였는데 그들중의 1명은 지휘관인듯 무전기를 등에 걸머진 者를 포함한 여러명이 그者를 호위하고 있었다. 소대장은 즉시 각분대를 호출하였으나 소대 全兵力이 호속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신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머뭇거릴 겨를도 없었으므로 朴文圭 소위는 金廣曆 병장에게 『나가자』라고 소리치는 즉시 그들을 추격하다가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一隊에게 急射를 퍼부어 6명이 쓰러진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追尾하는데 이때 그들은 河川을 건널 직전에 있었다. 얼마 뒤에 朴소위가 조금전에 사살한 VC의 시체열을 지나갈 무렵 난데없이 屍體속에서 총구가 불쑥 나타나므로 뒤에서 金廣曆 병장이 재빨리 이를 사살하였다. 이 찰나 또 소대장 右側에 흩어진 屍具속에 었드렸던 敵이 느닷없이 亂射한 집중탄으로 소대장은 현장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金병장이 그者를 紫電一閃에 처치한 다음 소대장에게 다가서자 鮮血이 낭자한 朴文圭 소위는 조용히 이르기를 『나는 먼저 가지만 너희들은 잘 싸워달라.』는 遺言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京畿道 仁川市 태생으로 일찍 父母와 死別하였으나 뜻한바 있어 갑종간부 제188기를 수료한뒤 제8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파월 제1陣으로 志願한바, 대소전투에 빠짐없이 참전하여 언제나 先鋒에서 감투하였다. 이 VC의 牙拔에서도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한 一角을 突破하여 先鋒탈취의 功을 세우고 이제 戰鬪를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壯烈하게 散華하였으니 하늘도 감으로 無心하였다. 한편 이 急報에 接한 소대선임하사관 金浩植 중사는 潰退하는 敵의 뒤를 쫓았으나 그들은 이미 河川을 건너 중대책임지대를 脫出하여 南西쪽으로 退却하고 있었다.

제2小隊의 戰況 : 제2소대(장, 李 淸 중위)는 Kuong Binh 東半部の 탐색을 끝내고 지정된 장소로 移動중 중대장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때에 소대는 목표로부터 東쪽으로 2.5km 떨어져 있었다. 소대장 李 淸 중위는 狀況의 急迫함을 깨닫고 빨리 所命된 지대에 이르기 위하여 지름길을 단숨에 치달은 끝에 제3소대장이 부상한 지점 南東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사상자를 후송중인 화기소대장 金柱天 중위로부터 적정과 狀況을 들었으며 곧이어 중대본부가 奮鬪하는 情景를 확인하는 즉시로 제3소대가 산개한 後側背를 거쳐 敵陣 150m에 있는 小丘陵(묘지)을 占據하였다. 이어 소대가 묘지를 누비면서 躍進하는데 갑자기 총격이 集注되고 박격포탄이 날아들었으며 소대장 바로 옆에서도 鐵火가 炸裂하였다. 이때에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의 戰死상황을 무전으로 방청한 바, 얼마뒤에 중대장의 돌격호령이 떨어졌

다. 소대가 산개한 일대로부터 목표까지는 물이 무릎까지 차는 水田이 이어진 까닭에 구간 약진이 제한되므로 매우 不利하였다. 따라서 對峙한 敵은 必然코 이와같은 地形의 利點을 활용하여 최저표적사격에 依한 十字火網을 형성하고 있을 터이니 오직 신속한 襲破 與否만이 成敗를 가름할 것으로 생각한 李 滿 중위는 배속된 화력지원조로 하여금 불시에 엄호사격을 집중케 하는 즉시 돌격을 決行하였다.

소대가 묘지를 박차고 水田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敵의 일제사격이 집중되더니 火力의 熾烈度를 더하면서 彈幕사격을 걸드려 熱火가 앞을 가로 막았다. 소대장은 일단 돌격을 보류한 다음 탄막박으로 약간 물러나 논두렁에 엎드리게 하였다. 이러한 돌격간에 右一線을 담당한 제2분대장 徐佳助 하사 以下 4명이 부상하였다. 이때 배원도 二段인 자동소총수 金正煥 상병은 敵彈에 관통된 오른팔을 흔들며 보이면서 말하기를 『소대장님 울은 팔을 다쳤습니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사격을 계속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일차 돌격이 挫折되자 李 滿 중위는 같은 방향으로 공격을 거듭한다면 손실만 自招할 뿐이라고 判斷하고 右側背(北쪽)의 숲이 있는 지대로 우회하여 掩襲하려는 自身の 腹案을 중대장에게 건의하여 그 승인을 받는 즉시 배속된 화력지원조(81mm 및 61mm 박격포 각 1개반)를 묘지에 남긴 채 敵前 우회를 斷行하였다. 그로부터 10분뒤에 指目한 지대에 다다르자 소대장은 곧 1개분대를 河川邊에 배치하여 용의지대 차단과 돌격엄호를 병행케 하였다. 그런데 여기는 논바닥에 물이 없는 탓으로 병사들의 동작이 한걸 민첩하여 돌격하자마자 철조망이 부설된 저항선에 달라붙어 대치한 2개분대규모와 충돌하여 서로 수류탄을 어지러히 던치는 近接戰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崔慶澤 일병이 3명을 사살하고 陣前 30까지 육박하였으나 수류탄의 집중작렬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장렬하게 散華하였으며 金泰一 상병이 左下腿部에 파편상을 입었다. 이때에 화기분대의 기관총사수 崔原在 상병은 50m구간을 포복으로 접근하는 즉시 霰雨를 퍼우어 저항하는 5명을 殲戮하자 저항진지 一角의 총격이 일시 중단되었다. 이틈을 타고 제1분대장 金榮三 하사는 단독으로 뛰어들어 M34 연막수류탄 2발을 던져 그들의 視界를 차단하자마자 『돌격이다』라고 외치면서 적진에 달려들었다. 이에 觸接하여 姜信求, 秋德基 兩상병이 뒤를 따르고 소대원들이 일제히 연막수류탄을 던지면서 돌진끝에 육박전을 벌였다. 이리하여 金榮三 하사는 저항선에서 덤비는 2명을 수류탄으로 제압한 연후에 일어서는 칼나 등뒤에서 狙擊하는 VC들을 快劍一閃에 쓰러뜨리고 개인화기 3정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激戰 끝에 적진의 일각이 무너지고 대원들이 물밀듯이 밀어 닦았는데 이때에 南쪽

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에 金榮三 하사는 崔, 秋 兩상병을 휘물고 달리다가 마을 北西쪽 外廓에 이르렀을 때 潰走하는 1개소대규모에게 急射를 퍼부어 6명을 사살하였다. 숨물릴 틈도없이 추격끝에 강쪽에 背水の陣을 치고 退却을 일호하는 一群과 충돌하여 또 유기사체 2대를 내게하였다. 잠시뒤에 대치한 分子들은 金하사의 氣勢에 억눌린듯이 저항을 포기하고 河川을 건느기 시작하였다. 이에 金하사는 곧 河川에 뛰어들어 20분간 水中에서 徒手格闘끝에 2명을 처치하였으며, 姜信求, 秋德基 兩상병은 분대장을 겨누는 2명을 사살하였다. 그뒤 부근일대를 탐색하다가 제1소대장의 英顯을 등에 업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金廣歷 병장을 만나 그를 부축하면서 집결지로 찾아갔다. 여기에서 金榮三 하사는 매원들과 합세하였으나 激戰의 過勞로 말미암아 일시 氣絶하는 場面이 있었다.

한편 소대장 李 滿 중위는 저항선을 돌파하였을 때 마을 밖의 논두렁을 따라 南西쪽으로 脫走하는 一群을 포착하였다. 그러나 이미 중대책임지대 지경선을 벗어나고 있었으므로 차단조로 하여금 사격을 加하여 이를 제압케 하였다. 이윽고 마을 北西쪽 一角에 이르렀을 무렵에 누군가가 앞에서 『소대장님 위험합니다.』라고 외치기에 얼드렸더니 한 兵士가 다가서면서 자기들은 제10중대의 제2소대라고 그의 소속을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同소대장 金武石 중위가 부상한 바, 李 滿 중위 앞에 있는 흙무덤에서 狙擊彈이 날아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속에 VC이 움직이고 있기에 그들의 反應을 보려고 실호용 수류탄을 銃眼안으로 던져 넣자 곧 되받아 던지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은 그들이 다시 되받아 던질 여유가 없도록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2秒동안 기다린 뒤에 던져넣어 폭발시킨 다음 굴속을 뒤진 끝에 屍體 2대를 헌인하고 CAR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이리하여 이 일대의 탐색을 끝마친 소대는 마을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제1소대와 연계한 다음 지정된 집결지로 진입하였다.

火器小隊의 戰況과 그 뒤의 中隊 概況 : 화기소대장 金柱天 중위는 소대(-3)를 이끌고 중대본부로 후속하면서 소총소대로부터 압송된 VC용의자 50명을 收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자들의 正體는 本是 VC이지만 전투간에 상황이 그들에게 不利하게 벌어지는 즉시로 銃器를 감추고 주민속에 끼어든 徒黨들이지만 체포할 당시에 배낭이나 기타 개인장구류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일단 용의자로 看做할 수 밖에 없어 포로와 구분하였다. 앞서 함박한 바와 같이 제3소대를 지휘하게 된 金柱天 중위는 Duong Thanh (1)에서 死傷者를 후송하자 곧 VC용의자를 소대선임하사판에게 맡기고 同소대가 산개한 지역으로 달려간바, 文字 그대로 빗발치듯 熾烈한 銃擊이 交換되고 있었다.

소대장이 도착한 얼마뒤에 중대장의 『돌격』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더니 중대본부가 뛰

쳐나가므로 소대장은 이에 뒤질세라 『앞으로』라고 외치면서 달려나가자 소대원들이 동시에 함성을 지르면서 躍進하였다. 잠시뒤에 중대본부 北쪽의 대나무숲으로 뛰어들었는데, 이 무렵에는 이미 제1소대가 저항선을 돌파하여 그들의 중심진지를 擊破하고 있었다. 소대는 곧 突破口를 확대한 다음 突進한 제1선소대가 우회하기 위하여 뒤로 남긴 陣地를 누빈끝에 여기에 잠복한 殘敵들을 색출한 결과 10명을 사살하고 개인화기 3정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탐색과 接戰으로 저항진지를 석권한 연후에 마을안에 點在한 陣地를 뒤지다가 중대장으로 부터 『제1소대장이 戰死하였다. 지금 곧 제3소대를 소대선임하사관에게 맡기고 제1소대를 지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金柱天 중위는 제1소대가 집결한 마을 중앙으로 달려간 바, 이때 마침 朴文圭 소위의 英顯을 단가르 후송하고 있었다. 소대장은 즉시 갈피를 못잡고 머뭇거리며 소대원을 叱責하여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탐색에 나섰다.

한편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마을안의 敵陣을 남김없이 뒤지게 한 결과 저항하던 敵이 覆滅된 것을 확인한 연후에 전투경과의 진상을 대대장에게 보고한 바, 이날 중대의 전과 및 손실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사	살	포	로	VC 용 의 자	노 회 무 기				전	사	전	상
					개인화기	60mm 박격포	M7 발사기	탄 약				
75		30		99	11	1	1	약 간	3/6			/13

※ 경상자 35명은 전상탄에서 제외

이윽고 대대계획이 변경되어 중대는 이날 일단 중대전술기지로 복귀하여 전투태세를 정비한 연후에 다음날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는 마을 南端에 집결하여 인원 및 장비, 탄약을 점검하고 戰死傷者를 후송하였다. 이때에 朴東遠 대위는 朴文圭 소위의 눈을 감겨주었는데, 그 당시를 증언에서 술회하기를 「戰場에서 感傷에 젖는 것은 兵家의 大忌인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朴소위의 눈을 감겨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이라 嗚咽을 참느라고 두진 애를 썼다. 여기에서 敵의 시체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고 그날 以後에는 이와같은 前轍을 밟지 않도록 중대원에게 이날의 情況을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되새겼다. 얼마뒤에 一風鳴塵이 휩쓸은 戰場을 바라보며 2交代로 朝食겸 中食을 取하는데 옆에 흐르는 하천에는 시체가 浮流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42°C까지 치솟은 酷暑와 전투간에 잊고 있었던 渴症을 참을 수 없어 앞을 다투어 이 물을 마셨는데 누구도 더럽다고 느끼지도 않았고 아무도 피섞인 흙탕물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 짧은 휴식시간에 병



사들은 14시간에 걸친 행진과 激戰을 잊은듯 제각기 武勇談의 뜻을 피우고 있었다. 이르되 「金廣勳 병장이 二重철조망을 단숨에 뛰어 넘은 것은 분명 鬼神이 도운 것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金榮三 하사는 水中에서 VC 2명을 때려눕힌 다음 되돌아 나올때 익사할뻔 했다. 水邊을 전혀 못 하거든…」 이러한 한때를 보낸 중대는 탄약의 再補給을 받지 못한채 15.00에 피로 물든 Tinh Binh을 뒤에 두고 계획된 경로를 따라 진출하였다.

3. 제 6 중대의 戰況 : 제 6 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제 5 중대의 공격에 呼應하여 제 1, 제 3 兩 소대를 Tinh Binh (1) 南쪽마을에 투입하는 즉시로 소재의 敵을 擊碎한 후엔 마을 중앙을 貫流하는 河川邊을 要扼케 함으로써 폭포 남단을 半月形으로 포위하였다. 그러나 중대 左側方의 Tinh Binh (1)—Binh An 南쪽마을 사이에 펼쳐진 水田지대는 지형의 여건으로 말미암아 인접대대와 포위망의 外廓線을 연결하기 곤란하여 火力으로 地隙을 補塡기로 하였다.

전투간에 右一線의 제 2 소대는 Duong Thanh (1) 北端의 강쪽을 占據하여 제 5 중대의 전격을 엄호중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사상자를 후송할 “헬리콥터” 착륙지역을 준비하였다. 이때에 제 2 분대의 金衡錫 상병은 “병커” 속에 潛伏한 3명을 俘虜로 잡았으며 곧이어 南走하는 一群을 추격끝에 2명을 사살하였다. 잠시뒤 강변에 이르렀을 때 바람도 불지않는데 갈대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자 물속으로 뛰어들어 여기에 숨은 3명과 徒手格鬪를 벌여 2명을 쓰러뜨렸으나 VC이 터뜨린 수류탄으로 말미암아 水中에서 장렬하게 陣歿하였다. 또 同분대 자동소총수 孫先浩 병장은 集注하는 銃火을 무릅쓰고 전진하다가 큰나무 밑에 웅크린 敵을 射殺한 다음 일어서는 찰나 兇彈에 腹部를 負傷하고 후송도중 숨을 거두었다.

한편 제 1, 제 3 兩 소대는 Tinh Binh (1) 南쪽마을에서 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서로 총격과 수류탄을 던지는 근접전을 벌여 매치한 무리들을 擊碎하고 所命된 하천변을 制扼하였다. 이러한 진격간에 제 1 소대의 제 2 분대장 金点淑 하사는 “병커” 1개소를 파괴하고 3명을 사살하였으며 또 제 3 분대의 소총수 申龍植 병장은 尖兵으로서 진로를 개척하다가 猝地에 총격이 집중되어 잠시 전진이 지연되자 포복으로 육박끝에 수류탄의 집중작업로 3명을 사살하고 “병커” 속에 잠복한 3명을 捕虜로 잡았다. 한편 제 3 소대의 金在德 병장은 부상자 2명을 후송하기 위하여 上空을 선회중인 구급 “헬리콥터”의 착륙을 유도하다가 所在不明의 敵으로부터 狙擊을 받아 顔面 貫通관으로 후송되었다.

4. 제 10 중대의 戰況 : 제 10 중대(장, 李圭鳳 대위)는 Thai Xuane에서 북쪽 北西쪽 일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 2, 제 3 兩 소대를 左右一線에 산개하고 제 1 소대와 중대본부가 이를 후속하

였다. 이에 따라 右一線の 제3소대가 Binh An 西쪽의 숲을 누빌 무렵 제2소대는 同마을 北쪽의 水田을 지나고 있었다. 이윽고 마을앞 150m까지 접근하였을 때 야자수와 뺨나나가 우거진 일대에서 갑자기 VC 1개분대 규모가 東走하므로 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즉시 선임 하사조(제3분대와 경기관총 1개조)를 東쪽으로 우회시키고 제1분대로써 이를 掩護케한 다음 나머지 兵力을 휘둘고 추격에 나섰다. 곧이어 마을앞 50m에 이르자 난데없이 西쪽에서 총격이 집중되어 소대장 곁에 있던 金正夫 일병이 腹部가 관통되어 鮮血을 뿌리면서 쓰러졌다. 金武石 중위는 재빨리 金일병을 7m뒤로 옮긴 후에 계속 추격하는데 李昌燮 병장과 자동화기사수 金相洙 상병이 또 腹部傷으로 넘어졌다. 소대장은 이때에 비로소 그들의 主力이 西쪽의 대나무밭에 잠복한 것을 看破하였다. 그러니까 所在의 徒黨들은 退却방향을 기만할 목적으로 1개분대를 반대쪽으로 退走케하여 소대를 유인한 것이었다.

한편 중대장은 제2소대가 接戰하자 곧 지원대인 제1소대로 하여금 대나무밭을 掩襲케 하였는데, 이에 따라 同소대가 그들의 側背를 우회하는 동안 제2소대는 돌격선까지 육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左側背의 연못 부근에 있는 묘지로부터 兇射가 쏟아져 제2분대장 朴盛柱 하사가 부상하였다. 소대장 金武石 중위는 背後에 도사린 分子들을 먼저 擊破할 心算으로 부상한 金相洙 상병의 자동소총을 옮겨줘자 곧 短兵을 들고 突衝끝에 이를 剔抉하였다. 이때에 제1소대의 壓力을 받은 VC들이 敗退하기 시작한 바 2개소대로 推算되었다. 소대는 지체없이 躍出하여 최초 그들과 交鋒한 바나나밭에 웅크린 4명을 사살하였으며, 여기에서 잠간 숨을 돌린 소대장은 때마침 敗走하던 1개소대(+)가 인접 제3소대의 邀擊을 받아 흩어지는 호기를 看破하자마자 곧 돌격을 결행하였다. 이와같은 소대의 急衝을 감당치 못한 一群이 田畠을 가로질러 Tinh Binh (1)로 潛入한바, 소대는 마을 경계가 애매한데다가 지경선이 구획된 지대에는 뚜렷한 지형지물이 없는 까닭에 어느새 所命된 차단선을 뛰어넘고 제5중대의 목표안으로 進入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退路를 잃고 窮地에 몰린 무리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친 소대장은 그들이 潛入한 藪를 차례로 격파하다가 흩무덤이 있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날아든 兇彈에 頭部貫通으로 鮮血을 뿌리면서 현장에 쓰러졌다. 이때 소대장을 跟隨하던 金仁澤 일병이 수류탄의 熱火로 敵 4명을 사살하자 곧 金武石 중위를 뒤로 뺏아내었다. 이리하여 소대장을 잃은 대원들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치한 무리들은 南西쪽으로 退散하고 얼마뒤에 제5중대의 제2소대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그뒤 金武石 중위는 제6후송병원에서 수술중 숨을 거두었는데, 이때에 교전중 소대장이

구출한 金正夫 일병은 소대장을 부르면서 이르되 「소대장님을 꼭 살려주세요. 나 때문에 다쳤습니다.」라고 수술하는 군의관을 붙들고 하소연 하였다. 金武石 중위는 京畿道 金浦郡 江華島 태생으로 仁川고등학교를 거쳐 1964년 2월 소위로 임관(육사 20기)하였다. 그는 평소 溫和하나 剛直하며 남달리 부하를 아끼는 天主教 신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던 유능한 靑年武士였다. 지난 「Eut계곡 기습전(1, 10)」에서는 先登挺進의 戰功을 세우고 화랑 두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 공로로 Vung Tau 에서 위르휴양중 本作戰이 전개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휴양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自進귀대하였으니 그의 왕성한 책임감에 저절로 그개가 숙여지는 것이며 더욱이 그는 의아블로서 일찍 靑孀의 몸이 된 老母를 홀로 두고 出征하였기에 愛惜하기 비길데 없다.

제3소대(장, 金吉夫 중위)는 Binh An 西端의 숲을 누빈 연후에 所命된 河川邊을 따라 길을 要扼하였다. 잠시뒤에 제2소대가 交戰중인 지역에서 脫出한 VC 1개소대(+)가 河川 건너편 300m에 나타나더니 南西쪽으로 退走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장은 선임하사관 朴允錫 중사로 하여금 掩護케 하는 즉시 2개분대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이리하여 그들보다 한 발 먼저 Binh An 南端의 要地를 점령하였으나 退却하는 무리들의 속도가 몹시 빨랐으므로



Tinh Binh에서 戰死한 故 金武石 대위

急射를 加하여 이를 제압하는 한편 砲擊을 요청하였다. 이때에 朴允錫 중사는 소대장조 右側(東쪽) 150m에서 다급한듯 연못으로 뛰어든 4명을 사로 잡고 자동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연못속 무성한 水草 사이에 숨어들어가 물위에 코만 드러내고 있었다. 또 제3분대장 宋斗星 하사는 退散하는 分子들의 일부가 갑자기 눈두렁에 앞드려 총격을 加하면서 그들主力의 退却을 엄호하는 것을 側背에서 兇襲끝에 8명을 殲滅하고 CAR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交鋒에서 소대는 모두 유기시켜 18具를 헤아리고 자동 및 CAR소총 각 1정과 실탄 350발 그리고 文書 약간을 노획하였으나 소대의 射程圈을 벗어난 敵의 主力은 계속 南西쪽으로 退走하다가 그 자취를

감추었다.

화기소대(장, 李雄俊 중위)는 제2소대를 掩護하던중 同소대가 Tinh Binh (1)로 뛰어 들어감으로써 형성된 차단선의 虛隙을 補綴하다가 지하동굴에 潛伏한 VC용의자 16명을 검거하고 굴안에 은닉된 실탄 420발과 방독면 2개 그리고 문서 약간을 노획하였다.

한편, 연대장 全成珏 대령은 전투경과 상황을 분석 끝에 목포내의 敵이 擊滅되었다고 판단하고 제2, 제3 兩대대장에게 이 戰鬪를 마무리짓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은 제6중대로 하여금 제5중대가 점령하도록 계획된 Chanh Dinh으로 轉進케하였으며 또 제3대대는 제10중대를 계획된 지역으로 뽑아 들림으로써 11.00부터 4시간동안 전개된 血戰의 幕을 내렸다.

#### (마) Tinh Binh 戰鬪後의 概況

7. 第2대대의 狀況 : 대대장 李弼朝 중령은 「Tinh Binh전투」가 종결되자 곧 제5중대를 Nho Lam—An Hoa (3)을 거쳐 중대기지(Go Boi)로 되돌아 가게하고 나머지 2개중대로 하여금 계획된 목표를 점령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는 Tinh Binh (1)에서 제2, 제3兩소대를 左右一線에, 그밖의 兵力은 이를 후속하는 대형으로 산개한 다음 Nho Lam을 向하여 행진하였다. 그로부터 1시간뒤에 先進하던 兩소대가 同마을 北쪽 400m에 있는 작은부락 어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所在不明의 敵으로부터 左右에서 동시에 기습적인 총격을 받아 즉시 응전하였다. 확인한 결과 對峙한 VC들은 細流건너편에 기관총을 배치하여 서로 呼應하면서 挑戰하는데 그 氣勢가 날카로웠다. 이즈음 중대원들은 激戰을 겪은뒤 疲勞困憊한데다가 기지로 복귀한다는 안도감에서 어느정도 긴장이 解弛되고 있던 만큼 이와같은 불시의 狙擊에 충격을 느꼈을 것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제각기 맡은바 부서를 固守하던지 들진할 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이러한 堅甲利兵의 행동을 바라보고 지체없이 砲兵사격을 요청하는 한편 제1소대장 金柱天 중위로 하여금 대치한 무리들의 銳鋒을 꺾게 하였다.

그런데 불과 1시간전에 血鬪를 치룬 다음 탄약의 再補給을 받지 못한 까닭에 공용화기의 탄약이 바닥이 나고 각개병사가 가진 실탄도 얼마 남지 않은 실정이었다. 중대장은 이와같은 景況과 그밖의 여러가지 사항을 생각끝에 敵을 追擊하다가 그들의 誘引술수에 말려드는 경우가 없지 않으리라고 判斷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제1소대가 一擊을 加하여 그들을 물리치자 이를 추격하지 않고 나머지 소대를 東쪽으로 轉進케한 연후에 포병의 熱鐵이 炸裂하

는 즉시 同소대를 뽑아내었다. 이러한 接戰끝에 중대는 Song Ngang (江)을 따라 東進하여 20.30에 중대기지에 도착하였다.

한편 제6중대는 Loc Thuan을 반복탐색한 연후에 北東쪽으로 4km 행진하여 Song Dai An (江) 연변의 VC 중간거점으로 이름난 Chanh Hoi에서 野宿하였으며, 또 제7중대는 Long Hau에서 매복조를 배치하고 야간전투에 대비하였다. 이날밤 중대에 배속된 제8중대의 제2소대장 金容澤 중위는 마을 일각에서 잠복하다가 夜一更에 나가서는 一群을 急襲하여 5명을 사살하였으며, 다음날 黎明에 현장을 탐색끝에 유기시체 2구를 追認하였다.

ㄴ. 제3대대의 狀況 : 제3대대(장, 朴慶錫 중령)의 제9중대는 최초 계획대로 Dinh Thuan을 거쳐 Duong Lang 일대에서 露營하였으며 Liem Loi (2) 부근을 차단한 연대수색중대는 蔭照를 期하여 1km 南下끝에 Dinh Thuan 근방 河川邊에서 야간매복에 들어갔다. 또 제10중대는 Binh An 일대의 交戰을 마무리짓자 곧 Hoa Tay를 목표로 北上하다가 Duong Xuan 남단에 이르렀을때에 VC 1개소대규모와 충돌하였으나 그들은 接戰을 회피하면서 退散하는데만 급급한듯이 보였다. 이때에 중대에 배속된 사단공병 제3중대의 金炳燾 상병은 높이대로 潛逃한 分子들과 겨루끝에 1명을 사살하고 부상한 1명을 俘虜로 하는 즉시 이를 압송하였다. 이러한 接戰을 치른 중대는 Hoa Tay—Duong Xuan의 獲地를 걸거하자 곧 야간전투로 移行하였다. 한편 제11중대(장, 盧英皙 대위)는 Thanh Danh (1) 일대를 탐색중 대대장으로부터 Tinh Binh (1)에서 脫走한 敵의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盧英皙 대위는 그들의 퇴각방향과 시간을 참작끝에 交戰地 南西쪽 2.4km에 있는 Hoa Le (2)를 向하여 急遽 출동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同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을 때 중대보다 앞서 여기에 潛入한 一群과 맞부딪쳐 서로 총격을 교환하는 近接戰이 벌어졌다.

이 交戰間에 朴光奎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는 마을 西端에 있는 늪지를 넘다가 제1분대의 李錫燦 일병이 右大腿部에 貫通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때에 분대장 金永燾 하사는 육박전끝에 2명을 사살하였으나 兩다리와 머리에 銃傷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격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또 제2분대장 李野介 하사는 제1분대가 苦戰하는 光景을 보자 즉시 赴援하여 부상자를 뽑아내고 저항하는 分子 3명을 사살하였으며 미처 던지지 못한 수류탄 7발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渦中에서 그들은 側方과 正面에서 소대를 挾擊하기 시작한 바, 소대장은 화기분대로서 정면의 敵을 제압케 하는 한편 나머지 분대를 휘몰고 돌격하였으나 진흙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제한되어 대원들이 머뭇거리고 있었다. 이러한 景況이 지속되자 자동소총부사수 李相道 일병이 날세게 사수로부터 자동소총을 받아쥐고 陣頭로 달려가자마자 돌격

사격을 퍼부어 대치한 무리들을 제압하여 血路를 뚫은 다음 계속 돌진하다가 胸部에 負傷을 입고 碧血을 뿌리면서 장렬하게 散華하였다. 중대는 이러한 유박전을 치른 다음 마을에 잠복한 VC들을 擊退하고 부근일대를 탐색하면서 Muau Mai에 도착하자 곧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ㄷ) 聯隊戰術指揮所의 指導 : 연대전술지휘소(△78)에서는 「Tinh Binh 전투」의 경과와 그밖의 전투의 추이를 종합분석한 결과 저대내의 敵은 이날로 殆半이 殲滅되고 그들의 일부는 책임지대 밖으로 退却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연대장 全成珏 대령은 所在의 敵이 다시는 同전투와 같은 決戰을 시도하지 못할것이라고 判斷하고 다음날부터 용의지대를 탐색하면서 그들의 거점을 覆滅하는데 力點을 두도록 작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兩대대의 전투지경선이 조정된 바, 제3대대의 전투지대가 확대되어 제5중대가 기지로 복귀중 交戰한 Nho Lam 일대가 同대대 책임구역에 포함되었다.

#### (바) 師團搜索中隊의 戰況

사단수색중대(장, 李德坤 대위)는 右側(東쪽)으로 제1연대와 인접하고 北쪽으로는 제1기갑연대와의 地境線이 Tieu Hoi—chanh Ly에 그어진 작전지역의 左側(西쪽) 一部를 담당하였다. D-1일(22일) 중대는 23.00에 Phu My를 출발하여 Phuong Denh에 도착하는 즉시 Song Dap Da(江) 南쪽 연변을 따라 침투해 들어갔다. 이때에 중대는 제1, 제2兩소대를 一線에 산개하고 제3소대와 배속된 공수 4개 팀을 지원대로 하여 목표 “H-1”(An Loi(1), 同“(2)”)를 向하여 追躡하였는데, 行進間에 중대장의 요청에 따라 10~15분 간격으로 포병의 간접조명이 계속되었다. 이윽고 약정된 시간에 Thanh Thai(목표 H-1 西쪽 500m)와 An Loi(1)의 경계인 小流(통제선)에 4개소대를 모두 산개한 다음 중대자체 화력으로 공격준비사격을 가하자마자 목표로 進入하다가 수미상의 敵과 충돌하였다. 중대장 李德坤 대위는 대치한 VC들의 所在가 明確하므로 공격에 앞서 그들의 진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척후분대를 南東쪽으로 우회케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수 4개 팀으로 하여금 마을外廓의 예상되는 퇴로를 차단케한 다음 3개소대를 이끌고 공격에 나섰다. 얼마뒤에 마을入口의 숲속에 배치된 一群을 看破하자, 중대선임하사관 河致富 상사는 중대장의 호령에 따라 곧 제1, 제2兩소대의 간격을 補塡하려고 진출중 수류탄을 던지면서 저항하는 3명을 사살하였으며 곧이어 제2소대의 側背를 위협하는 一群을 急襲끝에 유기시체 2具를 내거하였다. 또 제1, 제2兩소대는 동굴에 潛伏한 채 총격을 가하는 VC들을 강타하여 유기시체 4具를 헤아리고 4명을 捕虜로 잡

았으며 수류탄 8발을 노획하였다.

이러한 接戰으로 所在의 敵을 擊破한 中대는 목표내의 탐색을 끝마치고 목표 “H-2”(Nui Ma Ha(山) 東쪽 : Chanh Ly 일대)를 석권하였다. 여기를 탈취하기 전에 中대장은 공수 4개팀을 Nui Ma Ha(山)로 우회케하여 敵의 側方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였으며 그뒤 中대는 同高地 北쪽 일대를 누린 연후에 反轉하였다. 곧이어 An Loi (1), (2)를 再探索하면서 Phuong Danh으로 되돌아가는 즉시 同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를 要扼하면서 철야하였다.

#### (사) 제1기갑연대의 戰況 概要(D일)

제1기갑연대(장, 申鉉鉉 대령)는 Tieu Hoi—Bau Doi—Song Dai An (江)을 잇는 전투지역 北半部를 책임진 바, 3개 中대로서 西—東쪽으로 進擊케 하고 1개 中대를 최종목표 부근에 공중기동으로 投入하여 예상되는 退路를 차단케 하는 空地협동전을 전개하였으나 제1연대와는 달리 큰 交戰은 없었다. 이날 연대는 02.00에 행동을 개시하였는데 공격부대인 제9, 제10, 제11의 3개 中대가 Hon Choc(山)에서 흘러내리는 細川(Phu Gia (1)—Chanh Lac(1))에 설정된 공격개시선을 뛰어넘어 목표를 向하여 躍進하였다. 곧이어 제3 中대는 지대北端의 와지선 부근을 누비면서 裂地에 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제6 中대는 계획된 시간에 공중기동하여 Nui Tiai(山) 南麓을 制扼하였으며 연대전술지휘소를 Phu Gia (2)에 개설하였다.

ㄱ. 제1기갑연대 제3대대의 戰況 : 제3대대장 崔炳授 중령은 제3, 제6兩 中대를 배속받아 탐색과 차단을 互用하게 되었지만 연대전술지휘소가 그의 책임지대내에 설치되어 연대장이 전투를 지도하게 됨에 따라 대대전술지휘소를 일정한 지역에 固定개설하지 않고 공격 中대를 후속하면서 지휘키로 하였다. 여기에서 대대공격계획을 一瞥하면, 제9, 제10, 제11의 3개 中대가 竝進하면서 목표 “A”—“B”—“C”—“X”—“Y”를 차례로 누린 연후에 同 “Z”에서 畧하여 최종목표 “1”을 탈취하며 제3 中대가 공격 中대 北쪽에서 탐색과 警戒을 병행하고 제6 中대는 Cat Thang 일대로 공수되어 Phu Cat 山岳에 도사린 VC, E-2B대대(-)의 增援을 차단케 되어있다.

이날 대대는 전투 中대가 공격개시선에서 전날 여기에 침투한 소대와 畧하여 목표 “A”—“X”를 석권하고 통제선 “1”을 통과하여 목표 “B”—“Y”를 탈취하자 △16 (Chanh Nhon (1) 北쪽 300m)에 임시 지휘소를 개설하였다. 여기에서 대대 본부 中대장 金炳國 대위는 탄약작업소대로 하여금 부근을 탐색케 하였는데, 이때에 同소대의 제3분대장 吳又煥 하사는 該高地의 南東쪽을 누비다가 선두에서 進路를 개척하던 諒容尉 병장과 더불어 조카추녀밀

에 쌓인 짙덤속에 숨은 分子들이 수류탄을 던지려는 직전에 急射를 加하여 유기시체 5구를 내게하고 수류탄 5발을 노획하였다. 그뒤 대대본부는 공격중대가 최종목표를 휩쓸자 곧 Cat Thang으로 移動하여 여기에 전술지휘소를 개설하였다.

1. 제9중대의 戰況 : 제9중대(장, 李春根 대위)는 右一線으로서 지대南端에서 地境線 일대를 경계하면서 Nui Ao (山)를 누빈 연후에 목표와 Chanh Nhon (2) (목표 Y)와 Lien Tri (목표 Z)를 거쳐 09.00에는 최종목표인 Vinh Phu—My Binh의 南半部를 석권하였다. 이러한 進擊間에 接觸은 없었으나 동굴 33개소를 파괴하였으며 落照에 Vinh Phu의 小路 路목을 占據하여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2. 제11중대의 戰況 : 제11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中間중대로서 Chanh Liem (1) (목표 X)을 탐색한 다음 Lien Tri (목표 Z)로 진입하다가 막을 어귀에 잠복한 一群과 충돌하였다. 잠시뒤에 대치한 무리들이 지탱할 수 없는듯이 退散하기 시작하자 金連泰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재빨리 달려들어 3명을 殺하고 1명을 俘獲하였다. 중대는 이 接觸이 끝나자 곧 Vinh Phu 일대를 탐색중 대대장으로부터 제6중대가 차단중인 Nui Tiai (山) 南麓 일대를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反轉하여 夕陽 무렵에 목적지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제6중대가 이미 同지대를 출발한 다음이 있었으므로 敵情을 파악하지 못한채 대대계획의 일환으로 Hoi Loc (1) (최종목표 北쪽 2.2km)를 목표로 침투끝에 야간배복조를 배치하였다. 그런데 대대장이 이와같이 同중대를 통제선밖에 있는 현지(My Thuan계곡 입구)까지 推進한 것은 이날 敵의 저항이 상상외로 경미한 點을 勘考하여 다음날 “천둥”지대(의명 공격지대)로의 공격명령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사전에 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布石이었다. 이날밤 夜二更에 野營地 주변에 數未詳의 敵이 遊動하면서 이때금 사격을 加하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挑發하였지만 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이를 注視하다가 「중대배치 상황을 확인하려는 策動」이런데 생각이 미치자 지체없이 應射하지 못하도록 사격을 통제한 다음 呼령하되 『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하였을 때 공격하라.』고 嚴命하였다. 이에 따라 대원들이 잠복지에서 요격태세를 가다듬고 대기 하였으나 그들은 그로부터 1시간동안 중대의 反應이 없자 潛跡하고 말았다.

3. 제10중대의 戰況 : 제10중대(장, 梁在一 대위)는 Chanh Liem (2) (목표 A)—△16(목표 B)를 차례로 석권한 다음 Dai An (1)에 進入하였을 때에 동굴속에 잠복하면서 저항하는 VC들을 격파하였다. 이러한 집진간에 중대 통신병 劉鍾昊 병장이 어깨에 판통상을 입었으므로 즉시 후송하였으며 곧이어 Liem Tri를 거쳐 Vinh Phu—My Binh의 北半部를



탐색한 연후에 Hung My (2)에서 야간진투로 移行하였다.

**4. 제 3 중대의 戰況 :** 제 3 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주어진 임무와 지형을 분석끝에 요지 다음과 같은 전투복안을 세웠다.

『1. 최초 3개 공격중대와 보조를 맞추어 My Thuan계곡 입구부근(Nui Tiai(山) 南端)까지 진격하면서 예상되는 敵의 退路와 증원부대의 접근로의 정찰과 탐색을 互用한다.  
2. Nui Tiai(山) 南麓에 1개 소대를 殘置한 연후에 여기에서 反轉하여 진격간에 선정할 要所에 나머지 2개 소대를 배치한다.  
3. 그뒤 중대(-3)는 3개 소대 차단지역의 虛豫를 簡綴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각 소대 차단선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대는 이날 3개 공격중대와 같은 시간에 탐색에 나섰으며 Nui Ngang(山)-Nui Son Rai(山) 南端의 20m 등고선을 타고 東進끝에 接戰없이 My Long(My Thuan계곡 입구)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바올부근의 탐색을 끝마친 중대는 隊伍를 정비한 연후에 Nui Tiai(山) 頂上으로 이어진 稜線 기슭에 제 1 소대(장, 李賢宰 소위)를 배치하였다. 그로부터 3시간 뒤인 15.00에 중대(-1)는 Nui Son Rai(山) 南麓에 있는 寺院 일대를 占據하자 곧 제 2 소대(장, 楊承權 소위)로 하여금 근방의 길목을 要扼케 하였다. 이에 소대는 주야간에 걸친 장기매복 據點을 정찰하다가 제 3 분대장 姜龍珍 하사가 所在不明의 敵으로부터 狙擊을 받고 이를 추격중 숲속에 웅크린 주민 15명을 적발하였는데 그들속의 1명이 수상하여 즉시 소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잠시 뒤 현장으로 달려간 중대장과 소대장은 주민들을 일단 寺院으로 옮긴 다음 현지에서 訊問한 결과 마침내 그들로부터 그의 一味徒黨이 潛據 중인 비밀 據點의 소재지를 알아내었다.

李元洋 대위는 이때의 情況을 證證하기를 「주민들을 寺院 앞 마당에 모아 놓고 야전식량을 분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수상한 靑年을 보고 “Cha(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옳지 이놈로부터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越南통역 하사관을 通하여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난지 오래 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고개를 끄덕이길래 그놈이 VC이라는 心證을 굳혔다. 이에 나는 그 靑年을 懷柔한 바, “생명을 보장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하에 비로소 據點이 있는 地點을 自白하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捕虜가 알려준 그들의 潛據地는 △508의 5부稜線(寺院 北쪽 1.5km)인바, 그때에는 이미 山影이 늘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萬에 하나라도 그놈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VC들의 함정에 빠져들기 십상이었다. 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거점까지 이르는 지형과 그밖의 여러가지 景況을 熟考끝에 『신속한 행동으로 掩襲한다면 기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듯하니 한번 모험해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도모키로 決心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제 3 소대장 安富雄 소위로 하여금 捕虜를 앞세우고 先導케 하고 중대장이 후속하는 한편 제 2 소대를 窟澗의 合水지점까지 進出케 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동시



Nui Son Rai(山) 기슭에서 피난하는 주민들

에 제3소대가 복귀할때 이를 엄호할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소대는 소대선임하사관 金光洙 중사가 이끄는 제2분대(장, 林永植 하사)를 尖兵으로 삼고 籓谷을 따라 北上하였다. 그러나 進入할수록 계곡이 좁아지더니 드디어 兩便에 斷崖가 높이 치솟은 狹谷에 谿水가 고인 深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르자 로프가 밟히면서 발길을 멈추는 것이었다. 金光洙 중사는 재빨리 그 渚의 눈치를 채는 즉시 후속 병력을 멈추게하고 부근일대를 살피는데 安富雄 소위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岩石과 雜木이 뒤엉킨 탓으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으므로 金중사는 제2분대를 겨느리고 200m를 포복으로 전진하다가 큰 바위 밑에서 배낭하나를 찾아내었다. 바로 이때 건너편 낭떠러지 중턱에서 VC 1명이 사격자세를 취하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兇射를 加하여 넘어뜨렸는데 實로 눈감작할 사이였다.

이것이 藥火線이 되어 間髪의 差를 두고 계곡양면에서 동시에 총격이 集注된 바, 西쪽 斷崖에 있는 동굴에서는 자동화기가 불을 뿜고 건너편 바위사이로부터는 수류탄과 총탄이 어지럽게 날아들었다. 이에 소대장 安富雄 소위는 제1, 제3兩분대로써 左右 兩便에 잠복한 徒黨들을 공격하고 화기분대로 하여금 이를 엄호케 하였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金光洙 중사는 자동화기를 제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判斷한 결과 M79유탄발사기를 받아치는 즉시 彈藥을 뚫고 단신 적진 앞으로 접근끝에 鐵彈을 퍼부었는데, 그의 殺身挺進을 하늘이

도왔는지 初彈이 동굴 속에 명중하자 기승을 부리던 문제의 標的이 하늘 높이 떠올랐다. 이틈을 타 金중사가 동굴입구까지 접근하여 수류탄의 집중작렬로써 소제의 敵을 殲滅하였으며 곧이어 반대편 바위사이에 潛伏한채 저항하는 우리들에게 榴彈의 熱火를 집중하자 이에 膺接한 대원들이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擊殺하였다. 이러한 一戰에서 소대는 敵屍 21구를 헤아리고 자동소총 1정을 비롯하여 CAR소총 2정과 미처 던지지 못한 수류탄 1箱子(314발) 그리고 실탄 1,700발 및 문서약간과 전화기(FE-8) 1대를 노획하였다. 곧이어 동굴에 急進한 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굴속에 숨겨진 장구류와 수류탄을 현장에서 소각 및 폭발시키고 戰列을 정돈하였다. 이때에 高地 頂上쪽으로 退走한 徒黨들이 숲과 바위사이를 누비면서 挑戰하는데 1개소대로 推算되었다. 그러나 이미 黃昏이 깃들고 深谷인 현지에는 山影에 가려 어둑어둑하기 시작하고 대치한 徒黨들은 我軍이 지형에 숙달치 못한 점을 노린듯 어둡기를 기다려 공격할 기미를 풍기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推移를 看破한 중대장은 鷄鷓 중간에 대기중인 제2소대로 하여금 박격포로 엄호케하고 歸路에 올랐는데, 寺院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帳幕이 山野를 뒤덮고 있었다.

5. 제 6 중대의 戰況 :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07.15에 공중기동으로 Cat Thang에 착륙하는 즉시 Nui Tiai(山) 南麓을 누비면서 My Long 부근까지 진출하여 소대별로 要地를 점령하였으나 接敵이 없었다. 한편 연대전술지휘소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Song Beo(江) 流域에 潛據한 VC, E-210대대가 南下하는 兆狀이 포착된 바, 그들은 연대가 출동한 틈을 노려 제19번도로의 遮斷을 시도하는듯 하다.」라는 것이다. 연대장 申鉉鎔 대령은 이러한 연대전술 책임지대내의 敵의 動靜과 전투경과의 진상을 종합분석하고 전투지대내의 敵情이 경미한 점을 참작끝에 當面의 敵은 4개 중대로서도 能히 擊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6중대를 기지로 뽑아내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腹案을 사단장에게 具申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와같이 계획이 변경되자 대대장 崔炳授 중령은 제11중대로 하여금 제6중대 책임지대를 인수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장 李泰一 대위는 현지에서 전투지대 인계준비를 갖추고 제11중대를 기다리는데 同중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空輸用 “헬리콥터”가 착륙한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무전으로 제11중대장 李寅秀 대위에게 敵情을 알리준 다음 기지로 되돌아 갔다.

#### (아) 火力支援부대의 概況 (D 일)

사단포병사령부(장, 金燦福 대령)에서는 화력지원부대가 준수할 화력지원계획을 작성한 바, 그 지원개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奇襲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속한 火力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드러난 敵의 진지와 의심나는 지역 및 공격부대에겐 위협을 주는 標的은 사전에 火力으로 이를 제압한다.
2. 보병의 기동제회와 협조된 화력지원으로 당면의 敵을 포착하는 즉시 이를 擊碎할 수 있도록 모든 火力은 통합운용한다.
3. 모든 標的에 對한 항공지원이 가능하다.
4. 공격준비사격은 보병부대가 공격개시선에서 躍出한 다음 상황의 진전에 따라 예상되는 敵의 退路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美軍의 지원포병을 포함한 모든 火力지원부대는 사단 화력지원협조소(FSCC : △184)의 통제하에 보병부대가 공격개시선(통계선)을 뛰어넘은 것을 신호로 砲門을 열었다.

이리하여 이미 計劃된 포격을 집중하는 한편 각 소총중대에 파견된 관측장교와 전투지역 上空을 순회중인 관측용 항공기의 요청에 即應하여 臨機포격에 砲火를 加하면서 소재의 敵을 強打한바, 07.00에는 Phu Hau (3) (Qui Nhon半島)에서 피난민 100명이 南下하는 것이 관망되었다. 이윽고 제1연대의 제6중대가 交戰중인 Duong Thanh (1)의 敵을 熱火로서 擊破한 것을 위시하여 「Tinh Binh 전투」와 그밖의 보병부대가 交鋒할 때마다 화력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였다. 그러나 용의지대에 對한 砲擊은 비록 越南당국이 무제한 포격지대로 인정하였을지라도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安全을 配慮끝에 현지를 탐색중인 보병중대장이나 항공관측장교의 요청이 있을 때에 限하여 실시하였다. 이날에는 砲兵화력만으로 敵을 제압한 事例도 적지 않았는데 特히 Long Hau 및 Truong Thanh 그리고 Nui Ma Hfa (山)일대에서 流動하는 一群을 항공관측장교가 觀測하는 즉시 熱火를 집중함으로써 현지탐색부대를 위협하는 敵을 擊退하였다.

#### (자) 사단전술지휘소의 指導

사단전술지휘소에서는 공격부대가 接戰하자 곧 항공정찰을 증가하는 한편 각 정보수집기관을 망라하여 사단전술책임지역 全域에 걸친 敵의 동정을 살피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美제24심리전대의 지원하에 4회에 걸쳐 교전지 일대에 對한 對敵방송을 실시하고 아울러 전투지대 一圓에 전단 700,000枚를 공중撒布하였는데, 이에는 귀순권고와 통행안전 보장증 및 VC지배지역으로부터 피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主로 되어 있었다. 한편 사단장은 「Tinh Binh전투」가 종결된 다음 狀況의 진전을 종합검토끝에 지대내의 敵이 대부분 擊滅되거나 退却한 까닭에 다음날부터 전투지대내에서 적지않은 주민이 피난할 것이라고 판단

하고 관계참모로 하여금 그들을 수용할 태세를 가다듬게 하였다.

### (차) 作戰 제2, 제3日의 戰況 概要

3월 24일~25일(D+1~D+2): 사단은 전날 공격벽두부터 치열한 交鋒을 치른 결과 지대 내의 敵主力을 擊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이 약화되었으므로 24~25兩일간에는 地下壕에 潛入한 分子들을 색출하는데 主眼을 둔 반복탐색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도합 108具의 유기사체를 現認하고 61명을 俘獲하였으며 259명의 VC용의자를 적발하였다. 그러나 사단장은 越南戰에서 목표를 탈취하거나 VC의 지배지역을 一時 점령한 것이 곧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勸案끝에 該지역의 隄定을 이룩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 心理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지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스스로 越南행정당국의 管轄지역으로 피난하도록 宣撫하는 한편 그들의 가족중 VC에게 가담한 者를 귀순케하는 工作을 전개하였다. 즉 0-1機와 紙包彈으로 Go Boi평야 일대에 특수전단 280,000枚를 撒布하는 동시에 空中과 地上에서 귀순권고와 피난을 종용하는 對敵 및 對民선무방송을 併用한바 이 방송을 실시할 때 귀순자를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직도 지하에 潛伏중인 一味들에게 직접 投降을 호소케한 것이다. 또 전투부대원들도 이에 副應하여 戰場에서 빠져나가는 피난민을 보살피고 야전식량을 나누어 주거나 그들의 짐을 운반하는 등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奏功하여 24일에는 VC가족 212명이 제1기갑연대로 귀순한 것을 비롯하여 24~25兩일간에 모두 1,737명의 주민이 An Nhon—Tuy Phuoc으로 自進하여 모여 들었다.

이밖에 特記할 사항으로서 25일에는 VC 74명이 An Nhon 군청에 집단 投降하였는데, 그들은 사단에서 撒布한 안전통행증과 그밖의 여러가지 전달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對敵방송을 듣고 찾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心理戰의 효과를 立證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피난민이 줄을 이어 殺到하자 사단사령부에서는 越南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도로의 길목마다 설치된 교통초소(TCP)의 근무자로 하여금 그들을 안내토록하는 一方, Quang Tin (1)—Tuy Phuoc—An Nhon—Binh Duc 에 설치한 피난민 수용소에 쌀 8,320kg을 긴급방출하고 피난민 수송을 위하여 2 $\frac{1}{2}$  tcn 차량 7대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간혹 피난민들속에는 VC의 골수분자들이 주민을 가장하고 침투하여 주민들이 그의 姻戚을 귀순케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그 실례로서 25일에 제26회병중대의 제4교통초소(Kieu An (4): 제502번도로 시발점)를 위시한 Phu Gia (1)—Hoa Dong (3)의 3개 교통초소에서 주민들 틈에 낀 VC 9명을 색출하였다.

현편 사단에 파견된 군사정보대는 전투부대에서 압송된 포로와 VC용의자를 審問하여 얻은 첩보를 관계부대에 전파한바, Ngyen Thi Thang이라고 하는 21세의 남자 이하 42명의 俘虜와 268명의 VC용의자가 진술한 첩보를 종합한 결과 판단된 敵情은 다음과 같다.

1. VC, E-2E대대는 本據地를 Phu Dong (1) (△78 北쪽 16km)에 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8일에 Nui Mieu (山) (海拔 462m : Phu Cat 山岳에 있는 高地)로 이동하였다. 여기에는 천연동굴이 點在하고 굴속에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食水가 부족하지 않은 까닭에 장기간 盤據할 수 있다.
2. VC, E-50중대는 22일 Loc Thun에 潛據하다가 Binh Tinh (1)로 진지를 옮겼으며 같은날 120명의 VC이 그들과 合勢한바, 이는 Tuy Phuoc郡 VC의 精銳인 D-25중대로 推測된다.
3. Liem Lci (2) 일대에 VC, E-2B대대 이하의 1개중대(Thai Tho중대)가 전개하였다.』

따라서 「Tinh Binh전투」에서 對抗한 敵은 VC, D-25, 同 E-50 兩중대였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밖에도 地方 VC인 Venh (40세), Ngyeu Chin (28세), Ngyen Ahn (23세), Cho Hang (28)등으로부터 그들이 俘獲되기 직전에 소지한 무기를 은닉한 장소를 供述받아 이를 즉시 해당부대에 通報하였다.

#### (가) 제 1연대의 戰況概要(D+1~D+2)

제1연대(장, 金成珏 대령)는 「Tinh Binh전투」가 끝난 다음부터 敵의 저항이 줄어들고 地下壕에 깊이 潛伏하다가 我軍의 虛點이 드러났을 때에 限하여 「狙擊—退散」하는 방식을 取하자 Tinh Binh (1) 以南의 전투지경선을 없애고 제2, 제3兩대대의 협조된 탐색으로 D 일 제5중대가 기지로 복귀할 때 Nho Lam 일대에서 挑發하던 敵을 擊碎하였다. 이와 동시에 의심나는 지대에 중점을 두고 精密한 탐색을 저는 한편 이 작전이 증결된 다음 지대내에 駐留할 중대의 基地설치 예정지역 근방을 정찰케하고 작전이 終盤에 접어들 25일부터 일부중대로 하여금 기지 구축작업을 併行케하였다.

7. 제 1연대 제 2대대의 戰況 :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는 24일 연대계획의 일환으로 제9중대가 Nho Lam을 목표로 공격하는 동안 제6중대로 하여금 목표 東쪽 一角을 遮斷케하는 一方 나머지 2개중대로서 Tinh Binh (1)—Duong Thanh—Van Triem을 탐색케하였다. 다음날에는 이 전투를 끝마친 다음 중대전술기지를 설치하도록 계획된 Chanh Dinh(제6중대)과 Hoa Dong(제7중대)을 偵察하고 基地설치작업을 互用케하였으며 제5중대로 하여금 전투지대 東端일대를 탐색케하였다.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24일 曉天에 기지(Go Boi)를 출발하여 전날 血鬪를 벌였던 Tinh Binh (1)과 그 부근을 再探索하면서 전투간 미처 뒤지지 못한 敵陣을 누빈 연후에

Long Binh—Tu Cung을 거쳐 Go Eoi로 돌아갔다. 다음날 중대는 Pho Dong (1), (2)를 석권한 연후에 아직 한번도 我軍이나 연합군이 발을 들여놓지 못한 Song Dai An (江) 河口의 작은섬 (An Loi (3))을 掩襲하여 여기에 蟄伏중인 VC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중대가 渡河하는 동안에 총격을 加하다가 對岸에서 곧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이에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현지의 지형을 살핀끝에 An Loi (3)과 부근에 있는 △8를 제외한 섬 전체가 水田과 濕地로 접철된 까닭에 VC이 竄逃한 水中동굴을 찾아내려던 며칠을 두고 偵探하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 기회에 이를 도모키로 다짐하였다. 곧이어 중대장은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宣撫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我軍에게 협조토록 先手를 편 연후에 Lac Dien—Tan Giang (2)—同 (1)을 차레로 탐색하면서 기지로 되돌아갔다.

제6중대(장, 丁萬吉 대위)는 24일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Nho Lam 東쪽 일대의 예상되는 退却路를 차단하였는데, 이때에 인접대대의 제9중대가 목표를 공격하였으며 또 제11중대가 그 北쪽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격중대가 목표를 석권하자 중대는 곧 Loc Thuan을 탐색한 바, 그 北西쪽에서 제5중대가 Tinh Binh (1)을 누비고 있었다. 곧이어 중대는 Van Trien (1)을 탐색한 연후에 전날 野營한 Chanh Hoi로 되돌아가 야간전투로 移行하였다. 이날밤 金正勳 중위가 이끄는 제3소대의 제2분대는 夜二更에 매복진지에 침투한 VC과 混戰끝에 2명을 사살하고 이를 擊退하였다. 이러한 交鋒間에 분대장 柳泳鎬 하사는 VC이 던진 수류탄 2발이 埋伏壕에 날아들자 이를 되받아 던져 내었으나 1발이 폭발하여 분대장 以下 3명이 全身에 파편상을 입고 모두 후송되었다.

다음날 중대는 전술기지를 설치하도록 지정된 Chanh Dinh을 정찰하고 午後부터 기지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 탐색간에 중대에 배속된 사단공병 제3중대의 제3분대장 張善台 하사는 Kuong Binh (1) 어귀에서 “병커”에 잠복한 채 총격을 加하는 分子들로 말미암아 진출이 지연되자 대원 2명을 이끌고 접근하여 수류탄의 集中炸裂로 제압하였다. 또 제3소대의 제2분대장 金九原 하사는 張하사가 파괴한 “병커” 근방에서 地下壕를 찾아내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므로 위협사격을 加하고 “Lai Lai(나오라)”라고 외쳤으나 아무 反應이 없었다. 분대장은 무기라도 찾아낼 心算으로 壕속에 들어가 침대 밑에 있는 판을 들어 올렸더니 그 밑에 또하나의 비밀호가 있었으며 여기에 응크린 VC용의자 2명을 俘獲하였다.

ㄱ. 제1연대 제3대대의 戰況 : 제3대대(장, 朴慶錫 중령)는 24일 제9, 제11兩중대로서 Nho Lam을 석권케 하고 제10중대를 전날의 激戰地인 Binh An에 투입하여 부근일대를 再探索케 하였다. 다음날 대대는 제10중대로 하여금 Hoa Dong에서 새 전술기지를 구축중인

제7중대를 지원케하고 나머지 2개 중대로서 An Cuu—Luat Binh—Thanh Giang—Kim Tai를 탐색케 하였다. 한편 대대에 배속된 연대수색중대는 Liem Loi (1), (2)를 반복하면서南下한 연후에 Tan Hoa—Dinh Thuan의 길목을 장악하고 주야간에 걸친 장기매복에 들어갔다. 이러한 탐색간에 대원들이 마을에서 방황하는 女人 2명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피난시켜 준바, 이에 감동한 그녀들이 다음날 地下에 숨은 VC인 자기들의 남편(2명)을 귀순케하는 場面도 있었다.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24일 04.00에 Duong Lang을 떠나 一路 東進하면서 5km 구간의 水田과 마을을 襲破끝에 목표(Nho Lam)를 탈취하였으며 곧이어 An Cuu (Nho Lam 西쪽 3km)에서 野宿하였다. 다음날 중대는 사단에서 압송된 포로 Ngyen Ahn 이하 2명을 앞세우고 무기를 은닉한 장소인 Luat Binh (3,5km 東쪽)을 向하여 진격하다가 水田에서 수미상의 一羣과 충돌하였는데, 그들은 눈두렁에 철조망을 쳐놓고 호속에 숨은채 충격을 加하는 것이었다. 이때 尖兵소대를 이끌고 陣頭에서 挺進하던 제1소대장 金興玉 중위는 제1분대장 宋正泰 하사로 하여금 掩護케하는 즉시 突進끝에 2명을 사살하고 M1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또 제3소대의 제2분대 소총수 孫英男 일병은 숲속에서 SKS소총 1정을 노획하고 부근을 탐색중 후미진 한 장소에 광주리가 놓여 있기에 銃劍으로 쫓아 보았더니 그말에 壕를 파고 VC 2명이 숨어 있었다. 이에 분대장 金淳德 하사는 그를 訊問하여 그들의 一味徒黨들이 응크린 家屋에 위협사격을 집중하자 2명이 손을 들고 投降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집안의 마루밑에 있는 壕를 탐색한 결과 二重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밖의 것이 적발되어도 안의 비밀호는 探知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이날 Luat Binh에서 露宿하게 되자 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교병간에 捕虜로 잡은 4명을 訊問하였는데 그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緘口할 따름이었다. 이에 중대장은 그들을 각각 分離한 연후에 하나 하나 따로 불러들여 說得끝에 마침내 마을부근에 있는 水中동굴에 그들의 一黨이 蟄據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제11중대(장, 盧英哲 대위)는 제9중대가 Nho Lam을 공격하기에 앞서 목표 北쪽에 있는 河川邊을 차단한 바, 중대 東쪽에는 제6중대가 산개하고 있었다. 이윽고 제9중대의 공격이 개시되자 VC 1개소대규모가 北西쪽으로 退走하는 것을 포착한 중대장은 2개소대를 휘몰고 추격끝에 유기시체 8구를 내게하고 5명을 사로잡은 다음 Tanh Dan에서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다음날 중대는 北西쪽으로 진출하면서 Thanh Danh (1)—Thanh Giang을 누비고 Kim Tai에서 野宿하였다.





住民의 안내로 VC를 찾아내고 있다.

#### (타) 사단수색중대의 戰況概要(D+1~D+2)

사단수색중대(장, 李德坤 대위)는 전날 교전중 俘獲한 VC의 진술에 따라 그들이 潛藏한 장소를 알아내고 이날 An Loi (1), 同 (2)와 Nui Ma Ha(山) 東端을 再探索키로 하였다. 이에 李德坤 대위는 同일대의 지리에 밝은 越南민병대원 8명과 同경찰관 2명을 지원받아 제1, 제2兩소대와 공수 4개팀을 지휘하여 탐색에 나섰으며 제3소대로 하여금 野宿地를 警備케 하였다. 이윽고 捕虜가 진술한 장소부근에 진출하는 즉시 2개소대를 투입하고 나머지 병력을 지원대로서 엄호케 하였다. 이에 따라 선두에서 진격하던 제1소대장 李炳培 중위는 배를 타고 退避하는 1명을 俘虜하였으며 곧이어 동굴에 塞도하여 저항하는 무리들과 交鋒 끝에 6명을 사살하고 2명을 사로잡았다. 이때에 제1분대장은 水中에서 격투를 벌여 2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소대선임하사관 崔永泰 중사는 동굴속에 뛰어들어 단번에 3명을 擊殺하여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交戰이 끝나자 중대장은 탐색을 재개하여 대동한 越南 민병대와 경찰관의 先導로 비밀동굴을 파괴하는 한편 여기에 은닉된 기관단총(FRANCE製) 2정과 SKS소총 3정을 노획하였다. 곧이어 중대는 Nui Ma Ha (山) 東, 北端을 우회하여 Phu Thanh (2)에 이르렀을 때 사단장으로부터 Vinh Phu 부근을 制扼하라는 명령을 받았

다. 이에 중대장 李德坤 대위는 Phuong Danh에 남긴 제3소대로 하여금 목표까지 차량편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라고 지시한 다음 제1기갑연대와외의 지경선을 따라 Chan Thanh을 거쳐 所命된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Vinh Phu는 제1번도로에서 西쪽으로 무명도로가 分岐되는 부근으로서 同道路와 철로가 交叉되는 要地인데 사단장이 여기에 사단수색중대를 뽑아 돌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날 Binh Dinh省長이 사단장에게 이르기를 「작전지역 西쪽 20km 떨어진 Van Tuong에서 潛動하던 VC, E-212대대가 Tan Nghi (2) (Vinh Phu 西쪽 2km) 일대에 침투하여 철로의 파괴와 제1번도로의 차단을 꾀하고 있으나 이 일대의 防守를 擔當한 地方軍으로서는 이를 감당키 어려우니 전투기간만이라도 사단에서 여기를 防守해 주기 바란다.」라고 간청하였다. 사단장은 省長의 이와같은 요청과 그밖의 정후 그리고 전투상황을 참작 끝에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대는 이날밤 부근일대에 산개하여 야간태복으로 드새우고 다음날도 의심나는 지대를 탐색한 연후에 소대별로 要所를 점령케 하여 야간전투에 대비하였다.

#### (파) 제1기갑연대의 戰況 概要(D+1~D+2)

제1기갑연대(장, 申鉉鍊 대령)는 My Thuan계곡 입구로부터 Song Dai An(江)에 이르는 구간에 3개중대를 전개하여 반복된 탐색을 벌이는 一方 1개중대로서 제502번도로를 要扼케 하였다. 이와같은 연대장의 작전지도에 따라 제3대대는 요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 『1. 敵情 : 생략

2. 대대는 My Thuan 계곡입구 一圓에 潛伏한 敵을 剔抉하려 한다.
3. 제9중대는 東쪽으로 進出하여 Hoc Khanh (1) 일대에 潛伏한 敵을 擊碎하라.
4. 제10중대는 Hung My (2)—Vinh Phu—My Binh을 再探索하여 재침투한 敵들을 強打하라.
5. 제11중대는 My Thuan 계곡을 탐색하되 전투지경선을 벗어나지 말 것이며 My Thuan (2) (중좌표 48線) 以南에 盤據한 敵을 擊滅하라.
6. 제3중대는 Dai Loi (1)에 일단 집결한 연후에 제502번도로를 扼守하고 Dai An—Lien Tri 일대의 탐색을 互用하라.
7. 대대전술지휘소 : 현위치(Cat Thang)』

이에 따라 24일 黎明부터 각 중대는 所命된 목표를 向하여 追躡한바, 제11중대는 退却하는 VC들을 추격하다가 그들의 誘引술수에 걸려들어 어느새 My Thuan (2) (중좌표 48線 北쪽)까지 進入한 결과 VC이 준비한 殺傷지대에 陷入되어 그들의 포위공격을 받게 된다.

이를 「My Thuan 전투」라고 이름하는데 편의상 이 전투를 먼저 取扱한 다음 중대별 활동상황을 엮기로 한다.

### (하) My Thuan 戰鬪

1. 概況 : My Thuan 溪谷은 VC, E-2B대미의 本據地에 이르는 單하나의 地上 접근로인 까닭에 전술상 매우 중요시되는 要衝이다. 이 계곡의 東—西—北의 三面에는 海拔 350~600m의 連綿이 聳立하고 그 入口 西쪽에는 Nui Tiai(山) 기슭에 Hoi Loc (1)이, 여기부터 1km 東쪽(△483 西麓)에 同 (2)가 있는데 그 北쪽으로 6km 떨어진 일대에 △536—△354 (Ham Thy山)가 分水嶺을 이룩하고 있다. 계곡중앙에는 여터갈래의 細流가 南走하여 Song Dai An(江)에 흘러드는데, 乾季에는 물이 말라 徒步행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반면 Hoi Loc (1), 同 (2)—My Thuan (2) 사이의 2km 구간에는 聚落이 點在하고 하천주변에 田畹이 이어져 있으며, 東, 西 兩편의 山麓에는 숲이 울창하고 바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溪谷입구 南쪽에 있는 Hung My (2)까지 제 502번도로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 北쪽으로는 汗갈래의 細路밖에 없다. 또 Hoi Loc (1), 同 (2)부근의 幅(등고선 20m 기준)은 2km이나 My Thuan (2) 부근에서는 400m로 좁아지는 이른바 「遊八字」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지형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防者는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 殺傷지대를 自由롭게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곡사화기의 死傷이 되는 지대가 많으므로 防守에 有利하지만 攻者에게는 不利하다. 이런 까닭으로 「佛印戰爭」以來 VC의 恩상인 Phu Cat山岳을 攻略 하려던 연합군이나 越南軍이 이 계곡에서 모두 苦盞를 들게되어 「죽음의 溪谷」으로 불리우며 VC의 前進 據点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2. 제11중대의 戰況 : 제11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대대계획의 일환으로 24일 07.00에 전날 野宿한 Hoi Loc (1) 西端 山기슭을 출발하여 My Thuan (2)를 목표로 谿水邊을 따라 北上하였다. 진격간에 중대장은 제3소대를 右—線에, 제2소대를 左—線에 산개하고 제1소대를 지원대로 하여 목표까지 이르는 동안 마을과 그밖에 敵이 潛伏할만한 사탕수수밭을 남김없이 뒤졌으나 接敵이 없었다. 따라서 野宿地를 떠날무렵에는 「오늘은 VC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병사들의 긴장이 어느정도 解弛된때다가 목표에 도착한 10.00부터는 灼熱하는 暴陽으로 피로가 겹쳐 행동이 鈍化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동정을 살피던 중대장은 兵士들에게 驚變心을 불러일으킬 兼 우발사태에 대비하려고 포병의 기점 사격을 요청케 하였다. 이에 관측장교가 교신이 잘되는 장소로 가려다가 路傍에 설치된 竹

槍에 손바닥이 찢리고 또 제1소대장이 발에 경상을 입었으며 “부비트랩”이 폭발되어 2명이 부상하였으므로 즉시 후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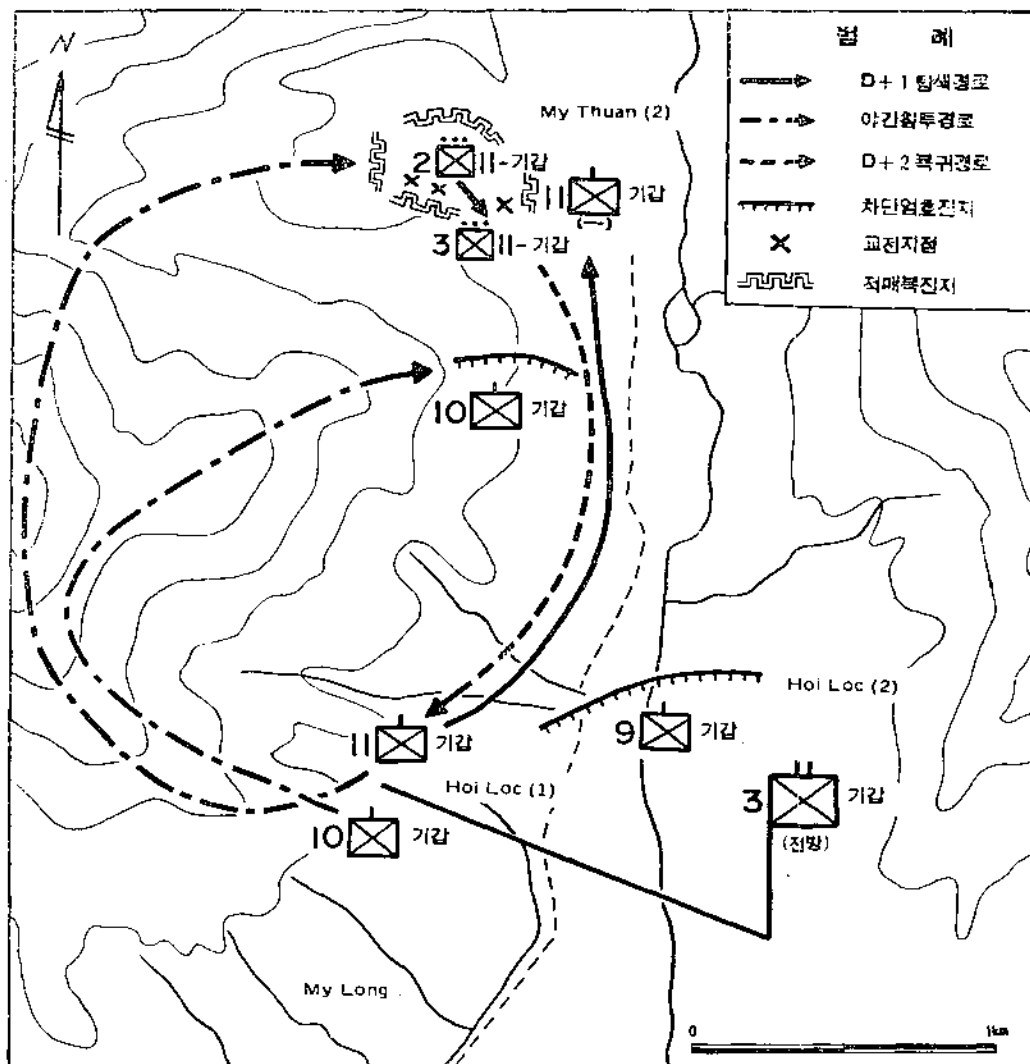
이즈음 鄭奇烈 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는 左一線소대(장, 金連泰 소위)의 掩護下에 My Thuan (2)를 탐색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同소대가 前進한계선(전투지경선)까지 진출하였으므로 이를 뚫아내려고 제2소대장에게 西쪽 山麓으로 진출하여 側方을 경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該소대가 左側(西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所在不明의 敵이 산발적인 銃擊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소대장 金連泰 소위는 즉시 尖兵분대로 달려나가 확인한 결과 1개 분대로 推算되는 一羣이 200m 앞 숲속에 산개한채 단발사격을 加하고 있었다. 이에 소대장은 소대의 무리들을 공격할 것을 중대장에게 건의한 바, 중대장은 이를 받아들여 지체없이 제3소대장에게 同소대 東쪽으로 우회하여 包圍하라고 호령하는 동시에 지원대인 제1소대를 제2소대의 南西쪽 左側背로 바짝 접근케 하였다. 이러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3소대가 行進하는 방향에서 총탄이 날아들므로써 예기치 못한 北쪽 山麓에도 VC이 응크리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는 My Thuan (2) 西쪽(3km)에 있는 Nui Son Rai(山)로 이어진 谿谷인 바, 南東쪽의 入口는 幅이 200m밖에 안되나 그 안은 지름이 600~800m나 되는 「항아리」 모양의 작은 盆地이다. 따라서 四周의 山麓 어느곳이든 敵이 潛伏한다면 중심부까지가 그들의 소총유효사거리에 들어갈 뿐더러 幅이 좁은 入口를 遮斷하면 그야말로 「독안에 든 쥐」 격이 되기 마련이었다. 이런 사유로 防者가 살상지대를 형성하기에 합당한 지대이므로 攻者에게는 文字 그대로 死地인데다가 소대가 산개한 일대에는 풀한포기 없는 田畠이다. 이러한 지형의 특징을 확인한 중대장의 腦裏에는 「앗자! 상황을 좀더 살폈어야 마땅한데…」라는 생각이 閃光처럼 스쳐갔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무전기로 제3소대장을 황급히 호출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으며 쌍안경으로 살펴보니 同소대의 1개 분대가 退却하는 分子들을 뒤쫓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들의 誘引術에 달려든 것 같았다.

3. 제3소대의 戰況 : 제3소대장 鄭奇烈 소위는 중대장의 호령을 받는 즉시 제2분대를 尖兵으로 삼고 나머지 분대를 산개하여 마을어귀를 빠져나가 田畠을 踏破중 北쪽 숲속으로부터 총탄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사격빈도가 느낄 뿐만 아니라 尖兵분대가 응사하자 곧 대치한 分子들이 退散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대원들은 이 전투에 참가한 뒤 이때까지 戰場에서 피난민만 만나 이들을 수용하는데 無聊하기만 하던터에 VC을 만났으니 「이제야 敵을 때려잡게 되었다」라는 생각에 앞뒤를 돌볼 겨를도 없이 그들을 向하여 突進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때에 尖兵인 제2분대가 맨앞에서 달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잠시 계속된 사이에 소대는 어느새 전진한계선을 훨씬 넘어들어가 盆地 한복판에 이르렀다. 이무렵 退却하던 VC들이 갑자기 논두렁에 산재한 초가에 숨어들더니 총격을 퍼붓기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北-西-東의 三面에서 사격이 集注되었다. 이같이 景況이 急轉直下되자 鄭奇烈 소위는 비로소 그들의 「誘引-包圍」수법에 걸려든 것을 깨닫고 추격을 멈추게 하려고 무전기를 든 찰나에 單一彈으로 무전병 鄭永昌 상병이 大腿部에 관통상을 입었는데, 바로 이무렵에 중

狀況圖 제55호 My Thuan 戰鬥



대장이 그를 호출하고 있었다.

이어 중대장의 『뒤로 물러나라』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앞선 제2분대장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뒤에 밝혀진 바, 제2분대장이 무전기를 가슴에 안고 뛰다가 느닷없이 날아든 敵彈이 무전기를 박살내었으나 분대장은 생명을 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분대장 곁에 있는 李永萬 일병이 가슴에 一彈을 맞고 쓰러지자 뒤늦게나마 소대장과 舍勢하려고 反轉하였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단발로 사격하던 VC들이 이와같은 소대의 물러가려는 기미를 알아차리자 狹地에 자동화기를 포함한 치열한 총격을 集中하더니 점점 그 熾盛度를 더하여갔다. 더구나 소대가 위치한 일대에는 엄폐물이 하나도 없는 반면 그들은 숲과 바위사이에 잠복한채 저격을 퍼붓고 있었다. 이리하여 잠시동안에 尹亨連 하사와 李膺求 상병이 碧血을 뿌리면서 戰死하고 韓成根 상병 이하 2명이 부상하였다. 이때 자동소총사수인 張判奉 상병은 분대원의 退避를 엄호중 대치한 敵陣前 50m까지 肉迫砲에 1명을 사살하였으나 兇彈에 脛部傷을 입고 鮮血이 淋漓한 가운데 사격을 계속하다가 장렬하게 散華하였다. 그렇지만 張상병의 이 행동이 당면의 敵을 잠간이나마 제압한 탓으로 나머지 대원들은 소대主力이 있는 장소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총격은 계속 集注되었으며 소대가 축차적인 지연전 방법으로 물러나면 그들도 뒤를 따라 추격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死鬪를 벌이는 동안 소대향도 金洪閣 하사는 선두에서 白兵을 몰고 退路를 차단한 적진에 뛰어들어 1명을 사살하고 血路를 뚫었으나 集中彈束으로 피부성이기 되어 淒絶한 싸움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陣歿하였으며 그를 뒤따르던 吳世鎭 상병도 赤血을 쏟으면서 散華하였다.

4. 중대장의 赴援 : 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제3소대가 이러한 惡戰苦鬪를 계속하는 동안에 火急한 狀況을 打開하기 위하여 제2소대장에게 그들의 포위망의 南쪽 一角을 무너뜨리라고 호령하자마자 제1소대를 휘둘고 제3소대의 交鋒현장으로 돌진하였다. 이러한 무모하리만큼 당돌한 중대장의 조치가 奏効하였음인지 대치한 무리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제3소대와 舍勢하였는데, 이때 鄭奇烈 소위는 피문은 戰死者의 소총 4정을 움켜쥐고 敵陣을 노려보고 있었다. 중대장은 지체없이 戰死한 英顯을 한곳에 모으고 전상자를 부축케 하여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면의 敵은 「逆八字」型的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었으므로 落照이 전에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自滅이 있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情況을 재빨리 看破한 중대장은 비장한 決心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戰死者의 遺骸를 여기에 두고 일단 물러났다. 다음날 雪憤기로 한 것이다. 그때가 17.00이며, 이미 山影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

런데 狡獪한 승냥이들은 중대원이 遺骸를 운반할때를 노린듯 접근하기만 하면 狙擊彈을 날렸으며 중대장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에 제1소대의 鄭元模 하사와 崔喆賢 상병이 陣歿하고 또 그밖의 4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대장은 2개소대 掩護下에 1개소대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마침내 狹地입구를 벗어났는데, 이때부터 그들이 加하는 사격의 熾烈度는 줄어들었다.

이에 중대장은 매마침 “헬리콥터”에 탑승하여 교전지 상공을 선회중인 대대장에게 포격을 집중토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交鋒地의 南쪽 사면은 포격방향의 死角이 되므로 熱鐵이 집중폭발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격을 멈추지 않고 숲속을 헤치면서 뒤따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交戰끝에 중대는 My Thuan (2) 南쪽 谿川을 건는 다음 포병의 연락차장하에 敵과 충돌한지 8시간만인 18.00에 Hoi Loc (1)에 도착하였다.

한편 대대장 崔炳授 중령은 제11중대장으로부터 『交戰中』이라는 보고가 있는 직후에 同중대와의 교신이 두절되었으므로 지휘용 “헬리콥터”를 요청하였다. 곧이어 대대통신대장을 대동하고 交戰현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戰鬪의 推移를 살피다가 Cat Thang에 위치한 대대전술지휘소를 Hoi Loc (1)로 옮기도록 조치하고 제11중대를 誘導하면서 포병화력을 요청하여 추적하는 分子들을 제압하였다.

5. 上級 指揮所의 指導 : 이날밤 사단전술지휘소에서는 사단장 蔡命新 소장이 전투의 경과를 청취한 연후에 연대장 申鎰錫 대령에게 강조하되 『交鋒間에 제11중대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였다는 點은 首肯이 간다. 그러나 현장에 英顯을 내버려 둔채 물러난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교전한 敵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我軍이 두고온 遺骸를 미끼로 布陣하고 기다릴 것이니 오늘밤에 당장 Nui Tili (山)의 山頂성을 타고 침투하여 그들의 背後를 쳐라. 내일 주간에 My Thuan 계곡으로 들어가던 그들이 선정한 장소에서 또 오늘과 같은 前楛를 밟게 될 것이다. 즉시 실천하되 遺骸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단 전장명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꼭 되찾아내어야 한다.』라고 嚴命하였다.

이와 같은 秋霜같은 명령을 연대장을 경유하여 接受한 대대장은 침투경로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이 마무리되는 즉시 鬪법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1. 상황 : 생략

2. 제11중대는 My Thuan (2)로 야간침투하여 소재의 敵을 擊破하고 戰死者의 遺骸를 奪還하라.

가. 침투경로 : Nui Tiai (山) — 東쪽계곡 — My Thuan (2)

나. 침투간 요청에 따라 간접조명을 지원한다.

다. 輕裝하되 탄약 1기수와 야전식량 1식분을 휴대하라.

3. 제9중대는 Hoi Loc (1)—同 (2)간을 차단하면서 제11중대를 엄호하라.
4. 제10중대는 △322로 야간침투하여 My Thuan (2)로 떨어진 稜線을 扼要하라.
5. 제3중대는 Vinh Phu로 이동하여 즉시 투입될 태세를 가다듬고 대기하라.
6. 대대전술지취소 : Hoi Loc (1)』

이러한 명령을 받은 관계중대는 즉시 전투준비에 착수하였다.

6. 제11중대의 夜間侵透와 그 뒤의 狀況 : 제11중대장 李寅秀 대위는 주간전투의 戰塵을 미처 털기도 前에 야간침투의 嚴命을 받아 夜暗에 생소한 “정글”을 헤치 敵中으로 들어간들 勝算이 없다고 내다보고 이 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주간에 공격한다면 前述한 바와 같이 또 覆轍을 밟게 될 것이라는 대대장의 설득을 듣고 이에 승복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화기소대를 현지에 남기고 3개소대를 진제순으로 행진대열을 정돈한 후 22.00에 중대장의 진두지휘하에 출발하였다. 이윽고 Nui Tiai (山) 頂上까지 山登성을 타고 올라갔으나 여기부터 山路도 끊긴데다가 山허리를 가로 질러 돌게된 바 이때부터가 큰 문제였다. 얼마뒤 간접 조명하에 處女林을 헤치면서 한발 또 한발 전진하는데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1~2m씩 굴러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難行끝에 목표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중대장의 팔목시계는 06.00를 가리키고 있었다. 李寅秀 대위는 그 當時의 景況을 證言하기를 「22.00~06.00까지 8시간동안 “정글”을 헤친 辛苦는 이루 筆舌로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가장 關心한 관심사는 落伍兵 문제였다. 주간에도 어두운 密林을 밤에 襲破하자니 細路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어련곳에는 斷崖사이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만약 敵이 여기에 1개분대만 배부시켰다면 苦戰을免치 못하였을 것이다.

목표에 도착하자 곧 낙오병의 유무를 확인하였더니 모두 이상없다고 하기에 우선 安堵의 승을 내쉬었다. 나는 이 침투를 誦하여 다음 두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즉 긴장과 使命感에 투철하면 어떤 難關도 극복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요. 모든 稜線(山登성이)에는 그것이 “정글”이건 岩石 지대이건간에 지형에 관계없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山路가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잠시뒤 목표를 바라보니 遺骸 5具는 그대로 있었으나 그 北쪽 바위사이에 VC 2명이 잠복한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중대가 背後로 침투한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듯 南쪽 溪谷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를 먼저 목격한 제1소대장 徐容元 중위가 소대선임하사관과 더불어 접근하자마자 紫光—閃에 쓰러뜨렸다. 곧이어 대대장에게 보고한 바 포병의 일제사격(TOT)을 加할터이니 그 다음에 進入하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포격이 끝나는 즉시 공격하자 소재의 敵은 不意로 등뒤에서 쳐들어간 銳鋒을 감당하지 못하고 황급하게 南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대를 후속하게 된 제10중대가 06.00에 행동을 개시한데다가 제9중대가 차단한 Hoi Loc (1)—同 (2) 사이의 距離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退走하는 무리들을 剔抉할 絶好



의 戰機를 놓치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은 지체하던 不利하다고 판단하고 信號를 올리자 곧 북포부근 上空을 선회하면서 대기중인 구급 “헬리콥터”가 착륙하였다. 그렇지만 遺骸 3位를 싣고 나머지를 운반하는데 느닷없이 所在不明의 총격이 집중되더니 몇발의 총탄이 “헬리콥터”의 조종석 밑을 꿰뚫자 同機는 높이 떠올라 곧장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李寅秀 대위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됨을 직감하고 즉시 應戰케하는 한편 急進단가를 준비케하여 遺骸 2具를 호송하면서 南下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중대장이 後衛를 맡아 그들의 추격을 저지하였는데 개활지(幅 50m)를 통과할 즈음 敵의 熾烈한 총격이 집중되어 한때 背敵을 겪기도 하였다. 이윽고 Nui Tiai(山) 西麓부근에 이르자 그들의 사격이 뜰 컸으므로 확인하여 보니 제10중대가 稜線과 와지선 일대에서 중대를 掩護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시간 뒤에 중대는 Hoi Loc (1)에 도착하였으며 곧이어 엄호부대(제9, 제10兩중대)도 原전투지대로 되돌아 감으로써 이 전투가 마무리 되었다.

7. 제9중대의 狀況 : 제9중대는 24일 Loc Thanh (1) 일대를 누비다가 제3소대의 제3분대장 金興基 하사가 마을입구의 위장된 동굴에 잠복한 敵과 육박전끝에 9명을 사로잡아 압송하였으며, 그뒤 그들중의 2명은 VC임이 드러났다. 다음날 중대는 Hoi Loc(-)一同(2)에 산개하여 예상되는 退路를 차단한 다음 Vinh Phu—Hung My—Cat Thang을 탐색하고 야간전투로 전환하였다.

8. 제10중대의 狀況 : 제10중대(장, 梁在— 대위)는 24일 Hung My (2)를 누빈 연후에 부근일대에 배복조를 배치하여 야간전투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03.20에 제2소대의 배복전지에 난데없이 박격포탄이 날아들고 뒤를이어 VC 1개분대 규모가 침습하였으므로, 暗黑속에서 육박전을 벌이다가 경기관총 부사수 劉炳錫 상병이 호속에 뛰어든 敵과 격투끝에 5명을 죽이고 이를 擊退하였다. 그러나 劉상병은 退走하는 敵의 一彈으로 장렬하게 陣歿하였다.

이윽고 동이트자 중대는 지시된 06.00에 △322를 목표로 追躡끝에 岡頂上을 占領한 다음 여기부터 My Thuan (2)로 뺀은 稜線에 산개하여 제11중대를 掩護하였다. 그런데 중대는 本원 전날밤 제11중대의 뒤를 이어 야간침투토록 계획되었으나 그뒤 계획이 변경되어 이날 黎明에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엄호임무를 끝마친 중대는 중대책임구역인 Hung My (1), (2)를 탐색하였는데 이때에 중대에 배속된 사단공병 제2중대의 제1소대 李勝福 상병은 동굴 6개소를 파괴하였다. 이날밤도 여기에서 野宿하게 된 중대는 마을外廓에 잠복조를 배치한 바, 어둠이 山野를 감싸기 시작한 무렵에 安鍾瑛 중위가 지휘하는 제1소

대의 陣前에 VC 1개소대규모가 婦女子 15명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그런데 이 婦女子들은 拍掌大呼하기를 “Man Ho Man Ho”라고 하면서 다가서고 있었다. 이러한 光景이 눈앞에 떨어지자 상황이 매우 복잡함을 看破한 소대장은 즉시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조명지원을 요청하였다.

얼마뒤 照明下에 드러난 그들을 살전본측 狡醜들이 婦女子 10명씩을 50m幅안에 무질서하게 산개시켜 이를 방패삼아 그 뒤에 숨은채 총격을 加하면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중대장 梁在一 대위는 일체 응사하지 말라고 호령하였다. 만약 我軍이 사격하면 필연적으로 주민이 損傷될 터이므로 狡猾한 赤狗들이 이點을 노리고 이같은 天人共怒할 蠻行을 자행하는 것이니만큼 軍이 婦女子를 학살하였다고 선전할 구실을 주게된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는데로 버려둔다면 필경에는 소대진지를 喪失하게 될 난감한 처지였다. 소대장은 즉시 소대에 越南통역회사관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警告하게 하였으나 VC이 등뒤에서 銃劍으로 위협하는 탓인지 그 婦女子들은 죽음의 行進을 계속할 따름이었으니 이토록 殘忍한 VC의 所行에 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중대장은 그들의 側背 300~500m에 포격을 집중케하고 한편으로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그들이 陣前 40m까지 접근하였을 때 육박전으로 물리치라고 嚴命하였다. 이리하여 잠시 뒤에는 50m까지 접근한 敵이 함성을 지르면서 날뛰었으나 대원들은 까딱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소대장의 『앞으로』라는 호령이 떨어지기 두렵게 일제히 진지를 박차고 달려들어 婦女子뒤에 응크린 分子들을 強打하자 당황한 VC들이 屍體 13具를 유기한채 潰走하였다. 중대장은 곧 주민들을 수용하여 慰撫하는 一方 소대장은 현장을 수습하고 흩어진 수류탄 9발을 노획하였다.

그로부터 3시간뒤인 夜三更에 이번에는 車銀石 소위가 이끄는 제2소대 正面에 VC 1개소대규모가 소 50頭를 몰고 침투하고 左右측방에서는 목동을 가장한 分子들이 각각 5~6頭의 소를 끌고 橫으로 산개한채 접근하였다. 곧이어 또 10頭의 소를 앞세우고 1개분대규모가 소총을 亂射하면서 다가서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VC들은 앞서 婦女子를 이용하였으나 失敗하자 家畜을 몰고 我軍의 무차별 사격을 유발케하여 이를 逆宣傳하려는 속셈인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兇策을 꿰뚫어 본 중대장이 사격을 통제하고 소대장은 대원들의 행동을 제지하다가 그들이 陣前에 다달았을때 갑자기 조명수류탄을 터뜨려 소를 馳逐한 後에 응사하자 그들은 곧 潛跡하고 말았다.

9. 제3중대의 狀況 : 제3중대(장, 李元洋 대위)는 24일 Nui Son Rai (山) 南麓 와지선



오랜 戰爭을 보아온 越南의 소들과 아이들의 표정

에 배치한 3개소대를 Dai Loi (1)에 집결시킨 연후에 Dai An (1), (2)—Lien Tri—Hung My (1) 일대를 탐색하고 제502번도로의 扼守를 병행하였다. 25일에는 未明에 Vinh Phu 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My Thuan전투」가 마무리되자 곧 계획된 지역의 탐색을 계속하였다.

#### (거) 화력지원부대의 概況(D+1~D+2)

화력지원부대(장, 金燦福 대령)는 전날에 이어 공격부대를 근접지원하고 한편으로 관측기(0-1機)가 보명의 시간과 거리관계로 우회한 후미진 지대에서 遊動하는 敵을 포착하는 즉시 熱火를 퍼부어 이를 제압하였다. 이리하여 24일에는 Hoa Dong—Phu Hoa (3)—△403 일대에서 潛動하는 敵에게 砲撃을 집중한 결과 0-1機에 탑승한 관측장교에 의하여 유기시체 13구가 확인되었으며, 그밖에도 25명이 사살된 것으로 推定되었다. 特히 이날에는 Dinh Thuan—Binh An 중간을 東流하는 河川에서 배를 타고 退走중인 一羣을 바라보자마자 熱鐵을 가한 끝에 배 5척을 침몰시키고 水面에 浮流하는 유기시체 5구를 現認하였다. 이어 다음날에는 전투지대 밖인 Phu Hlau (2)—Hynh Giang—Trung Long (1) 一圓에서 遊動하

는 무리들에게 155mm폭사포彈을 퍼부어 이를 擊破하였다.

#### (너) 作戰 제 4 日의 戰況 概況

3월 23일(D+3) : 사단장은 전투경과 상황과 그동안에 입수한 첩보 그리고 지대내에서 확인된 敵情등을 종합분석끝에 지대내의 敵은 擊碎되고 일부가 지대밖으로 退避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12.00를 期하여 이 작전을 마무리짓고 該지역의 戡定과 지대내에 웅크린 殘敵을 색출하는 「수복단계 : 一名 滿月작전」으로 轉換키로 하였다. 따라서 Truong Thanh 山 일대(“사자”-“천둥”지대)의 공격은 이를 보류하고 오다음 VC, E-2B대대의 근거지를 攻略할 때에 同지대를 목표로 포함키로 하였는데, 이는 새로이 확대된 전술책임지역(200 km<sup>2</sup>)과 Go Poi평야 防守에 注力하면서 점령지역을 정리하고 이를 越南행정기관에 인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도 전투지대에서는 모두 824명의 주민이 피난민수용소와 越南지방행정기관을 찾아 줄을 이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16.00~18.00사이에 美제24심리전대의 지원을 받아 Tan Long 에 지상방송반을 배치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對民선무방송을 전개하였다.

- 『1. 주민들이 VC지배지역이나 작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禁한다. 전투가 끝나는데로 韓鎭軍이 주민의 추수를 지원하고 VC의 挑釁로 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다.
2. VC은 이번 기회에 귀순하여 자유의 몸이 되라.』

이 방송을 듣고 VC 12명이 개인화기(CAR 소총 및 권총 4정)를 휴대한채 An Nhon군청으로 投降한 것을 위시하여 Tuy Phuoc군청에 76명, 사단에 2명 포함 90명의 VC이 귀순하였다. 이와같이 전투가 시작된 以來 전투지대는 불온이거니와 餘他の VC지배지역으로 부터 주민들이 대거 脫出하자 몹시 당황한 VC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듯 하였다. 그러나 끝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마침내 暴力을 휘두르기에 이르렀는데 그 一例로서 이날 子正이 지난 20분위에 An Nhon군청 關할하여 있는 Binh Duc (3) 피난민수용소에 VC이 침습하여 피난민을 위협한 다음 막사 30동에 放火하는 蠻行을 저질렀다.

#### (더) 제 1 연대의 戰況 概要(D+3)

제1연대(장, 全成珏 대령)는 사단계획의 일환으로 이날 12.00附로 轉換된 「수복단계」를 專擔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연대는 제2, 제3兩대대로 하여금 지정된 지대로 이동하여 중대별로 전술기지를 설치케 하는 한편 △78에 기지를 둔 연대수색중대를 제2대대에 배속변경

하였다.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는 Song Dai An (江)—Song Am Phu (江) 사이의 평야지대를 책임지게 된다. 전날에 이미 중대전술기지 구축에 착수한 제6, 제7兩중대는 Chanh Dinh과 Hoa Dong에서 각각 진지작업과 탐색을 병행하였으며 제5중대는 Go Eoi에서 兩중대기지에 이르는 通路개척에 나섰다.

한편 제3대대(장, 朴廢錫 중령)는 Song Dai An (江) 북쪽으로 새로 확대된 지역을 담당하게 되어 제9중대를 Hou Hoi (전투지대 北西端: 제1번도로와 무명도로의 分岐點)에, 제10중대를 Cat Thang에, 그리고 제11중대를 Dai An (2)에 배치하였으며 대대본부기지(제12중대 및 직접지원 1개 포대 포함)를 An Hoa에 설치하였다. 이날 黎明에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는 새로 중대전술기지를 설치하게 될 Hoa Hoi (6)으로 向하기에 앞서 Phuoc Quan Tu일대를 탐색하는 一方 제3소대(장, 申正雄 소위)로 하여금 전날밤 포로가 진술한 수중동굴을 찾아내게 하였다. 이에따라 소대는 그들을 앞세우고 Luat Binh 北端의 河川邊으로 진출중 VC 1개소대와 충돌하였는데 申正雄 소위는 즉시 1개분대 엄호하에 2개분대를 휘몰고 突擊하자 그들의 일부는 수중동굴로 竄逃하고 나머지는 河川건너편의 숲속으로 退却하여 저항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때 제1분대(장, 金正植 하사)는 河川을 건너 追擊하여 동굴에 잠복한채 對抗하는 一羣을 M79유탄의 집중폭발로서 제압한 다음 부분대장 朴成福 병장이 굴내부를 탐색끝에 유기시체 1구를 확인하고 1명을 俘獲하였으며 SKS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또 金淳德 하사가 이끄는 제2분대는 水中동굴 입구에 유탄과 수류탄을 연이어 炸裂시킨 연후에 굴내부를 뒤진 결과 흩어진 유기시체 12구를 헤아리고 6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개인화기 3정과 수류탄 5발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전투간에 白秀彦 상병이 右足 관통으로 즉시 후송되었다.

#### (러) 제 1기갑연대의 戰況 概要(D+3)

제1기갑연대(장, 申鉉錄 대령)는 이날 12.00까지 각 중대별로 野宿地 일대의 탐색과 戰場정리를 併行케 하다가 제1연대에 전투지대를 인계한 연후에 Dai An (2)에서 野宿하고 다음날 기지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移動間에 제10중대장 梁在一 대위는 後衛를 거느리고 행진중 Hung My (2)에서 數未詳의 一羣으로부터 총격을 받자 곧 應戰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我軍이 이용하는 도로에 家畜(소와 돼지)을 몰아넣어 전진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데, 이때에 제1소대의 분대장 鄭政浩 하사는 자동소총사수와 함께 敵陣으로 접근

하다가 一彈에 胸部傷을 입고 후송되었다.

#### (머) 사단수색중대 및 화력지원부대의 狀況(D+3)

사단수색중대 및 화력지원부대는 이날 12.00를 期하여 복귀하기 시작한바,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는 포병 제60대대는 다음날(27일) 제1포대를 Phu Gia (2) (제502번도로변)에 배치하였다. 또 同 제628대대 제2포대는 같은날 Kim Dong (Go Boi 南쪽 200m : Song Am Phu江 南岸)에서 화력지원태세를 가다듬었는데 여기는 My Thuan계곡 일대까지가 사정권 내에 들어가므로 제1연대의 제2, 제3 兩대대를 일반지원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 라. 作戰 後의 概況

사단은 越南에 上陸한지 5개월만에 최초로 2개연대(3개대대(+))를 Go Boi일대에 投入하여 여기에 據點을 두고 Qui Nhon 一圓을 위협하던 敵을 剔抉하였다. 이로써 사단 전술책임지역(TAOR)이 Song Dai An(江) 以北으로 200km<sup>2</sup>가 확대된바, 이는 軍의 목표인 『중대전술기지를 발판으로 점차적인 勘定지역의 擴大』를 실현한 제1步였다. 사단장은 該地帶가 오랫동안 VC의 소굴로서 그들의 지배 밑에 있었던 까닭에 이의 安定을 期하려면 상당한 時日을 要할 것으로 보고 이 작전을 종결짓자 곧 수북단 계로 移行하였다. 그런데 사단이 여기에 2개대대를 계속 주류케한 것은 越南戰의 특징인 “복포나 특정지역의 일시적인 점령이 곧 平定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험에 비추어 取한 조치였다. 이에따라 사단은 Go Boi 일대를 장악하여 지대내의 殘黨을 색출하고 그들의 비밀據點을 拔本키로 하였다. 그러나 Phu Cat 山岳에 도사린 VC, E-2B대대와 그들 一黨의 지원을 받는 地方 VC의 跳梁이 끊임없이 계속된 탓으로 이 단계가 『猛虎 6호작전(66.9.23~11.9)』이 전개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만큼 該地域 일대의 地形的인 여건이 그들의 暗躍근거지로서 적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蟄據하던 “게릴라”들이 오랜시일에 걸쳐 水中이나 혹은 지하에 준비한 隱據用진지(동굴)가 교묘하기 이를데 없었다. 이러한 接戰이 계속된 끝에 이 단계중 모두 265具의 VC유기시체를 現認하게 된 것이며 捕獲된 33명과 VC용의자 132명을 사로잡고 개인화기 88정을 노획하게 된 것이나, 我軍도 戰死 23명과 戰傷 86명의 손실을 내었다.

그런데 얼마뒤에 사로잡은 VC(문서연락병)이 휴대한 문서에 『韓國軍은 근접전에 強하고 포격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正面충돌은 되도록 이를 회피하라.』는 요지의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고비로 VC들은 我軍과 부딪치면 곧 潛跡하지만 虛點이 드러나면 挑發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그들의 행동이 위축된 까닭에 상대적으로 我軍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행동의 자유와 전투의 主導權을 쥐게되어 손실비율이 날로 감소되어 갔다.

한편, 派越 美軍사령관 Westmore land대장이 27일 사단을 방문하여 전투경과를 청취한 다음 사단

장의 안내로 「Tinh Binh 전투」 현장에 도착하여 VC의 진지구축 실태를 살폈으며 그뒤에도 합참의장 張昌國 대장과 전투병과 사령관 韓信 중장이 여기를 둘러보았다.

곧이어 사단은 전투상황과 계획 등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분석한 연후에 작전경과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전투에 참가한 중대장급 이상 각급지휘관과 관계참모가 참석하여 전투간에 드러난 문제점과各自가 체험한 敎訓을 발표하면서 이에 對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는데 여기서는 前項의 「作戰經過의 概況」에서 闕及하지 못한 사항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綜合計劃의 必要性** : 이 작전은 사단전술책임지역을 확대하는데에 主眼을 두었으므로 越南戰의 특징을 勘案하여 이것이 끝난 즉시 越南관계기관에서 平定임무를 推進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였어야 마땅하다.

이러하면 수복된 지역의 내부경제책임을 조속한 시일내에 越南 지방군에게 인계하여 전투부대가 과중한 임무를 부담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 첫째요 피난민이나 越南주민을 위하여 전투지대내의 벼를 거둬들이게 하는 추수지원대책이 뒤따라야 마땅하며, 아울러 피난민의 定着을 돕는 지원방안이 미리 준비되었다면 보다 次元이 높은 심리전의 효과를 期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사단의 군사활동과 越南행정기관이 벌이는 平定계획의 조정과 협조를 위한 韓·越협조기구를 설치하는 문제가 거론되어 越南당국과 이를 검토키로 하였다.

**敵戰術의 變化** : 전투간에 敵의 저항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이 드러나 그들의 戰法이 변질하게 검토되었다. 특히 我軍 돌격에 대처하는 方法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며 그밖의 여러 가지 경험한 상황이 분석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작전이 전개될 時點까지의 敵은 我軍이突擊을 결행하면 아무런 대응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Westmoreland 대장이 사단장의 안내로 Tinh Binh 激戰地를 답사하고 있다.

붕괴되고 다는 것이 通例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돌격하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我軍에게 손실을 내지한 연후에 主力이 退却한다. 이때에는 일부兵力으로서 이를 엄호케하는 즉자적인 지연전방법으로 전과확대를 꾀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단에서 강조한 돌격전법을 再檢討하게 되고 敵情에 適應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문제를 토의끝에 이는 각급 전투부대에서 계속 연구발전 시켜야 할 宿題로 남겼다.

2. 敵의 진지가 견고하게 구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Tinh Binh (1)이 그 대표적인 事例이다.
3. 목표근방이나 이에 이르는 접근로 주변의 숲이나 河川에 일부兵力을 潛伏시켜 我軍이 접근하면 側後背를 위협하였다. 또 비록 규모가 작은 분, 소대급 일지라도 그들이 분산-退走할 때에는 狙撃手を 殘置하여 我軍의 추격을 방해하기 일췌였다. 그러므로 공격은 물론 野宿地나 매복지에 進入할 때에는 반드시 側, 後衛를 배치할 것이 강조되었다.』

작전간 각종彈藥 射耗現況: 별지 # 1 참조

通信關係: 중대급 이하의 통신병들의 군사술어 지식이 부족하여 상황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투음어가 복잡한 탓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도가 綻露되기도 하였으며 무전기의 防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사단은 이 회의에서 論議된 사항과 교훈에 의거하여 부대를 정비하고 전투技術을 연마하였으며, Go Boi평야를 越南당국에 인계하기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사단사령부에서는 Phu Cat山岳 일대까지 사당 전술책임지역을 확대할 계획을 다듬으면서 전투간에 과약한 兵要地誌의 기록을 정리하고 한편으로 여기에 根據지인 VC, E-2B대대의 동정을 살피다가 9월 23일에 3개연대를 동원하여 「猛虎 6호작전」을 전개하였다.

### 綜合 戰果 및 損失

구분 대 별	戰 果										損 失	
	사살	포로	VC 용의자	노획 무기		현지 파괴				전사	전상	
				개인 화기	공용 화기	실탄	수류탄	지뢰	전화기	동굴		
제 1 연 대	217	201	248	21	3	659	72	1		71	4/17	47
제1기갑연대	99	79	164	4	1	2,430	373		1	153	9	13
사단수색중대	15	7		5								
합 계	331	287	412	30	4	3,089	445	1	1	224	4/26	60

※ 전상란에 경상자는 포함하지 않았음.

### 戰果 및 損失比較

損失(전사, 전상): 射殺	손실: 노획 무기	노획 무기: 유기사체
1:3.7	1:0.38	1:9.7



별지 # 1

각종 탄약 사모 현황

화기명	구분	동원 화기 수	탄약 사 모 량	정당일일평균사모량
개 인 화 기		2,400	501,564	102
자 동 소 총		115	8,732	190
경 기 관 총		98	200,595	512
중기관총 (CAR 50)		2	1,050	131
M 79 유 탄		127	7,054	14
57mm 무 반 동 포		19	428	6
60mm 박 격 포		28	4,382	39
81mm "		17	1,600	25
4.2" 중 박 격 포		8	1,008	32.5
105mm 폭 사 포		22	9,149	83.5
155mm 폭 사 포		6	2,177	72.8
합 계		2,842	737,739	

별지 # 2

보병중대 평균 탄약 사모 현황

탄 중	구분	동원 화기 수	총 사 모 량	정당일일평균사모량	최고 사모 중대 對 최소 사모 중대
CAR 소 총 탄		1,214	296,257	60	최고사모중대 제1연대 제5중대 총사모 57,866발  최소사모중대 제1연대 제10중대 총사모 18,954발  비 율 3 : 1
M 1 소 총 탄		1,084	188,332	44	
자 동 소 총 탄		115	87,732	209	
경 기 관 총		78	200,095	478	
M 79 유 탄		127	7,054	15	
57mm 무 반 동 포 탄		19	428	5	
60mm 박 격 포 탄		28	4,382	39	
81mm 박 격 포 탄		17	1,600	25	
수 류 탄			7,784	1人 1日 평균 1	

## § 戰 訓

## 兵力의 集中運用

사단의 可用한 전투중대는 모두 21개였는데 이 중에서 62%에 해당하는 13개중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投入하였다. 이와 같이 예비대도 보유하지 못한채 가용병력의 過半數를 과감하게 전투지대로 뽑아돌릴 수 있었던 것은 정확한 敵情판단에 바탕을 두고 필승을 期하고자 集中의 원칙에 徹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나머지 8개 전투중대(38%)

로서 사단전술책임지역(TAOR)의 90%를 경계하면서 現行임무를 계속 수행케 한바, 이는 兵力節約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투간에 사단 관할지역내에서 敵의 挑發이 전혀 없었던 것은 그만큼 경계태세가 철저하였다는 證左이기도 하다.

## 勝捷의 確信과 卓拔한 構想

제1연대의 제2대대(장, 李弼朝 중령)는 전투간 우발사태에 대비할 융통성을 갖기 위하여 中間一線중대를 左右兩側의 어느 方向으로나 轉用할 수 있도록 대대예비의 임무를 兼用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격중심은 앞으나 초기에 접적이 예상되는 左一線 정면에 공격의 중점을 지향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이 판단한대로 左一線중대가 交鋒하자 전투의 推移를 살피다가 Tinh Binh (1) 일대에 敵의 거점이 있다는 징후를 간파하는 즉시 중간일선인 제5중대를 여기에 투입하는 동시에

인접대대와 협조하여 包圍網을 형성하여 마침내 소제의 敵을 擊碎하였다.

이는 지휘관의 歷戰의 경험과 新鮮한 감각에 입각한 卓拔한 構想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戰場정보에 소홀함이 없는데다가 제한된 가용병력을 융통성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한 값진 戰例라고 보는 바이다. 이러한 奇正縱橫의 전법은 지휘관의 창조적인 適應能力과 어떤 난관에 부딪쳐도 필승을 다질 수 있다는 精兵을 배양한 確信없는 감히 단행하지 못할 것이다.

## 強靱한 精神과 必勝의 確信을 지녀야한다.

제1연대의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Tinh Binh (1)에 견고한 진지를 준비하고 발악하는 敵을 공격할 때 不利한 지형과 기후의 악조건과 목표가 대대지경선상에 있는 관계로 火力지원마저 지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複合되어 전투간에 장교 3명을 비롯한 12명이 전사하고 13명이 부상하여 후송되는 以外에도 경상자가 속출하는 惡戰苦鬪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대장은 『한번 도착한 敵은 반드시 擊滅

하고야 만다.』라는 불굴의 신념을 貫徹하여 기어코 대치한 敵을 剔抉하고 목표를 유린하고야 말았다. 중대장 朴東遠 대위는 『Liem Loi전투(비호 6호 : 1, 9)』때도 그러하였거니와 이 전투에서도 強靱한 정신과 필승의 確信을 堅持하여 有終의 美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곧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要諦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릇 전투는 상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攻者가 위급하고 어려운 고비에 處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廠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雙方지휘관의 意志力の 強弱度가 최후의 판가름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

다. 「Tinh Binh전투」에서 제5중대 장병이 發揮한 감투정신과 뛰어난 체력과 精練된 技倆은 평소의 以寡擊衆의 信念에서 우러난 結晶이었다.

### 突擊은 일제히 敢行되어야 한다.

전투간에 일어난 특징중의 하나로서 적진으로 突擊하는 상황이 여러번 되풀이 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전투가 격렬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Tinh Binh전투」를 비롯한 大小전투의 推移를 분석할 때 돌격선에 산개한 소대가 일제히 돌격을 결행한적은 드물었다. 어느누가 (대부분 소대장이나 분대장) 진두에서 挺進함으

로써 돌격의 契機를 만들고 대원들이 이에 膺接하여 躍動俾尾하는 양상이 드러난 바, 이때문에 돌격의 효과가 감소된 반면 손실이 누증되는 경향이 없지않았다.

突擊은 공격의 成敗與否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衝擊행동이니 만큼 생사를 초월한 힘이 집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重要 地形地物은 分割하지 말라.

가장 치열한 血戰을 치른 「Tinh Binh전투」는 敵의 거점이 제1연대의 제2, 제3兩대대 전투지경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包圍網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火力지원에 이르기까지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다. 전투간에 드러난 사실로서 전투지경선이 구획된 Binh An—Tinh Binh (1) 兩마을 사이에는 집과 숲이 불규칙하게 이어진 탓으로 兩마을의 경계가 불명하였기 때문에 책임지대의 분간이 곤란한 點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제1연대

의 제10중대는 포위망을 형성하는 도중 金武石 중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가 潰退를 가장하여 분산하는 分子들을 추격하다가 소명된 遮斷線을 통과하여 목표에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包圍網의 일자에 虛隙이 드러나 퇴각하던 敵이 이틈을 이용하여 北西—西 방향으로 脫走하고 말았다. 이 戰例는 "중요한 지형지물은 분할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 My Thuan 전투의 分析

제1기간연대 제3대대는 D일(23일) 계획된 구역의 탐색이 끝난 다음 제11중대를 My Thuan 溪谷 입구에 있는 Hoi Loc (1)로 추진하여 여기서 野宿케 하였다. 다음날(D+1) 중대는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My Thuan (2)를 목표로 進出중 同마을 西쪽의 좁은 盆地에서 接敵하자 곧 이를 포위하려다가 左側(西쪽)으로 진출하던 제2소대가 오히려 그들이 사전에 준비한 殺傷지대에서 逆包圍되어 苦戰끝에 交鋒현장에 遺骸 5위를 둔 채 隨意撤退하였다. 이날밤 대대는 遺骸를 뽑아

내리는 사단장의 嚴命을 받고 제11중대를 목표로 야간침투케 하고 나머지 2개중대로써 △322—My Thuan계곡의 예상되는 퇴로를 차단하여 제11중대를 掩護케 하였다. 다음날 아침 목표에 도착한 제11중대가 遺骸를 미끼로 殺取의 接近을 기다리는 VC의 側背에서 밀어닥치자 虛를 쫓린 分子들이 일시 南쪽으로 退走하였으나 퇴로차단부대의 차질로 이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 전투는 犄牛角上的 싸움에 불과하나 敵의 長技인 「誘引—包圍」수법에 걸려들어 一方的으

로 얻어맞은 點을 看過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그 敗因을 분석하여 後來를 위한 警戒로 삼고자한다

1. 제1기갑연대의 제3대대는 My Thuan 溪谷의 탐색을 계획성없이 기도한 것 같다. 공격初日에 기대한 것과는 달리 敵과의 접촉이 없었고 따라서 戰果도 얻지 못하자 조바심에 功名心이 걸친 결과 同溪谷의 地形이나 적정을 분석하지도 않은채 무턱대고 一기의 명령만으로 奇功을 노린 듯한 態이 없지않다. 왜냐하면, 同계곡의 지형이 東西 兩쪽에 岑岳이 屹立한 逆八字인데다가 지난 날 여기에서 있었던 연합군의 戰例를 참작하였다면 감히 側後衛부대도 없이 1개중대만을 여기에 투입하는 過誤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무릇 戰場에 臨하는 지휘관은 敵의 모든 手段을 예상하여 이에 臨機應變할 대책을 마련하여 주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는 秋毫도 不足이나 未達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 通則이다.

2. 이 溪谷의 탐색을 명령한 지휘관에서부터 공격에 나선 제11중대의 장병에 이르기까지 敵을 輕視하는 弊風이 澎湃한듯 한데 이것이 禍根이었다. 대대장이 1개중대만으로 同溪谷을 탐색케한 것이라든가, 공격간에 敵과 충돌하자 앞위를 돌보지도 않고 돌진 공격중대의 행동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바, 이는 평소 同대대가 敵의 전술에 대응하는 훈련에 未洽하였음을 뜻한다.

按전대 사냥꾼은 쟁 한마리 잡을 때에도 온 신경을 관두세우는데 항차 離合集散과 出沒이 自在한 VC를 剿滅하는 싸움터에서 輕敵하는 驕氣와 비록 強敵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豪膽心을 혼돈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테면 前者는 자기

의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뽐내려는 自慢이요, 後者は 精練된 戰技에 바탕을 둔 자신감에서 우러나는 氣魄인 것이다. 그러나 이 兩者는 왕성한 공격정신의 측면에서 볼 때 一脈相通하기도 한다.

3. 제11중대가 My Thuan (2) 南쪽에서 敵을 추격하다가 중대장이 너무 깊이 진격한 것을 알아차리고 물러나려 하였을때에는 이미 그들의 包圍網에 걸려든 뒤였다. VC들은 유인할 때에 單發에 의한 산발적인 총격을 가하다가 막상 중대가 빠져나가려 들자 사주에서 치열한 사격으로 挑戰한 것은 그들이 선정한 장소까지 攻者를 끌어 들인 다음 이를 擊破하는 이른바 「敵疲我攻」의 교조적인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때 최초 접촉하였을 때 주변의 地形부터 먼저 살피고 放敗與否를 판단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지며, 이 전투를 通하여 전쟁터에서는 偶發사태보다는 因果관계가 철두철미하게 作用한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4. 야간침투의 목표를 遺骸를 뿔아내는 데에만 두었기 때문에 차단 및 엄호부대의 운용이 소홀하게 되어 차질을 빚기에 이르고 결국에는 소개의 敵이 침투중대의 기습을 받아 南走하는 것을 擊碎하지 못하였다. 전날 교전한 제11중대의 경험을 勘案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목표내에 응크린 VC들을 강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마땅한데 이를 전개하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쉽게 여겨진다.

『일단 포착한 敵을 꼭 擊滅하고야 말겠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 研 究

### 夜間戰鬥의 開進

사단은 이번에 3개대대(12개 중대)를 야간침투 로 投入하여 所在의 敵을 包圍함으로써 기습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이와같은 대부대에 의한 야간공격은 戰史上에도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지만 越南戰의 경우에는 彼我間에 전선을 형성한 攻防戰이 아닌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特別히 공격부대가 담당하는 전투정면이 광대하기 때문에 이를 야간에 침투하여 포위하려면 地形의 여건과 주민 속에 盤伏한 VC의 감시망을 회피하는 문제등 곤란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연합군이나 越南軍은 아예 한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단은 「在求 2호 전투」때에 제1연대의 제9중대(장, 龍永一 대위)와 제11중대(장, 李載泰 대위)가 Vinh Thuan—Chi Hoa를 야간공격으로 식권한 前例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야간침투를 斷行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를 위하여서는 實戰을 통하여 연마된 장병들의 技倆과 철두철미한 여행연습이 필수조건으로 손꼽힌다.

그렇지만 야간공격의 목적중의 하나가 기도비닉으로 기습을 달성하는데 있느니 만큼 攻者의 기도가 사전에 탄보되었을 때에는 多少의 손실을 모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비전계 단계에서 평상시의 3배에 가까운 車輛운행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78(작전지대내)로 “헬리콥터”의 비행이 빈번하였다. 이는 곧 당면의 敵에게 공격기도를 선전하는 행동과 다름없다고 하겠는데 하물며 주민들속에 뿌리깊이 扶植된 VC의 細胞조직이 언제 어디서든지 我軍의 동정을

을 살피고 있으므로 기도가 드러난 것은 명확한 確據이라 할 것이다.

※ 開進 단계에서의 부대이동 현황

#### 1. 車輛行軍

D-1일(22일) : 제1연대 제2대대(-1), 제1연대 제3대대 전술지휘소, 제1기갑연대 제3대대(+), 제1기갑연대 제6중대.

#### 2. △78로 “헬리콥터”에 의한 空輸

D-2일(21일) : 제1연대 제10중대

D-1일 : 사단 및 연대 전술지휘소

따라서 萬의 하나라도 소재의 敵이 야간침투를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였다면 침투부두부터 苦戰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광대한 지대에 分散된 탓으로 兵力의 집중운용이 곤란하였을 것이며 我軍의 접근을 알아차렸을지라도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로 말미암아 각개격과 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開進方式을 살피다가 我軍이 慣用하는 戰法인 黎明공격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다가 상상도 못한 야간공격에 부딪치 오히려 당황하였을 公算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戰場에서는 언제나 우발사태가 있기 마련이니 예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兵家의 通念일진대, 기왕에 기습의 목적을 달성코자 야간침투를 계획하였다면 첫 단계부터 陽動을 互用하여 기도비닉의 原則에 敵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여겨진다.

### 打擊部隊와 遮斷部隊의 比率

사단은 최소 包圍網을 형성할때 정면에서 敵을 打擊하는 부대로서 제1연대의 4개중대와 사단수색중대, 또 예상되는 敵의 退路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1기갑연대의 5개중대와 제1연대의 3개중대 포함 13개중대를 각각 투입하였다. 이로써 타격부대는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차단부대는 62%가 되는바, 그 對比는 1:1.6으로 나타났다. 이

는 전투지대의 지형이 비록 개활하다고는 하지만 細流와 숲과 濕地帶가 점철된 탓으로 所在의 敵이 은밀한 통로를 이용하여 포위권밖으로 脫出하기 쉬운 점을 참작할때 적절한 兵力使用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제1연대는 담당지역이 광대한데 比하여 各用병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지 제2, 제3兩대대

의 타격부대간에 드러난 넓은 측방(전투지대 南端)을 補填하지 못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Tin hing 전투」 현장에서 離脫한 敵이 여기를 遁하여 南走하였으나 이를 제압할 차단부대가 없었다. 이는 戰線이 형성된 正規戰의 固定觀念에서 由來된 계획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전투지대에 응크린 分子들이 그들의 본거지가 있는 北쪽의 Phu Cat山岳으로 퇴각할 것이라는 판단에 立脚하여 Song Dai An (江) 일대에만 중점을 두고 차단부대를 집중배치한 까닭

에 전투지대 南쪽에는 虛隙이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前後方の 구분이 불명한 사유편에서 포위망을 뚫고 나간 敵이 그들의 根據地나 지원부대가 潛據한 방향으로만 퇴각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斷定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포위부대의 부서 그리고 구성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측방 간격을 최소로 줄이고 상황에 卽應하여 接敵이 전혀 없거나 敵의 退路가 드러났을 때에 遊休하는 차단부대가 없도록 이를 再投入하는 방책도 아울러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마땅하다.

## § 逸 話

### 殺到하는 避難民

(제1연대 수색중대)

1. D+1일(24일) 제1연대 수색중대는 Liem Loi (1)을 탐색중 마을에 남아있는 女人 2명을 비난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兵士들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避難민수용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헤어졌다. 女人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먹을것을 나눠주고 짐을 날라주던 兵士들에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情을 느낀듯 兵士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한 곳에 우두커니 서서 손을 가끔 흔들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避難민속에서 두 女人이 나타나더니 兵士 1명을 보자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자기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男子들은 본시 VC이었는데 전날 兵士들의 溫情에 감동한 女人들이 밤새도록 남편을 說得끝에 데려가는 길이라고 하

였다. 女人들은 자기 남편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피난가도록 권고하여 이끌어낸 功로자이기도 하였다.

2. 3일째에 접어든 戰場에는 避難민의 대열이 줄을 이었다. 분대장 金成根 하사는 避難민 속에서 울고 있는 老婆가 있기에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바구니에 담긴 어린애(老婆의 孫子)를 가리키면서 뒤에 달린 바구니 하나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걸머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越南 사람들이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道具는 긴 막대기 兩端에 바구니를 달고 어깨에 지고 가는 것인데 두개중의 하나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대장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분대원들을 동원하여 바구니를 찾아 주었다. 늙은 할머니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손을 습습하면서 “Cam On Cam On (감사합니다)”하는 것이었다.

### 도약준 少女 알고보니 諜者였다.

(제1연대 제11중대 제3소대)

24일 제1연대의 제11중대는 전날 점령한 Than Danh (1)을 반복탐색 하였는데, 이때에 제3소대

의 제1분대가 마을 左端에 있는 빈집 마당에서 울고 있는 少女를 보고 접근하였더니 그 少女는 울음을 그치고 “Man Ho(맹호)”하면서 반색하는 것이었다. 분대장은 수상하다기 보다는 가련한 생각에서 “너 벗살이나”하고 물었더니 12살이라고 손가락을 꼽으며 이름이 Phu Nge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父母가 다 죽었다고 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데 얼굴이나 옷차림은 그런대로 깨끗하였다. 분대장은 이 불쌍한 少女에게 팔목시계를 풀어주고 대원들은 야전식량을 모아 주었다.

그로부터 6시간 뒤인 落照무렵에 제1분대는 河川邊을 탐색한 다음 野宿地로 되돌아 가는 길에 작은 마을을 지나치다가 집마당에 낮에 만난 Phu

Ngen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분대장이 반가워서 다가가자 그 少女는 성난 눈으로 쏘아보는 것이었다. 순간 분대장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깨달고 대원들에게 산개하라고 손짓하자마자 그집으로 들어갔지만 少女가 그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집마당에는 怪漢 3명이 地圖를 펴 놓고 두언가 속닥거리다가 少女의 목소리를 듣고 뛰기 시작하였다. 대원들이 총격을 加하여 모두 사살하였으나 총은 없고 수류탄만 휴대하고 있었다. 도망가는 Phu Ngen을 붙들고 대원들은 “이제 VC의 첩자였구나”하는 심거운 생각에서 씩씩한 입맛을 다셨다.

## § 參戰者의 證言

### 제 1 연대 제 2 대대장 李 弼 朝 중령

(1978년 1월 28일 首都기갑사단장실에서, 당시 소장)

「猛虎 5호」에서 우리대대는 연대 右一線으로서 Go Boi정야의 東半部를 담당하였다. 계획단계에서 나는 대대에 부여된 최중목표 “22” (Loc Thuan - Tinh Binh)에 蟄伏한 敵이 北一南쪽의 2개방향으로 退却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가장 훈련이 잘된 精悍한 중대를 중앙一線에 전개하여 전투주이에 따라 이 중대를 左나 右로 신속하게 투입한다는 전투지도 복안을 세웠다. 그런데 이에 合當한 중대가 바로 朴東遠 대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였다.

전투가 개시되자 내가 예측한대로 左一線(제6중대)에서 接敵하였는데 전투경과상황과 그밖에 捕捉된 여러가지 敵情을 미루어 보아 목표 “22”에 그들의 據點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때 만약 交戰중인 제6중대로 하여금 대치한 敵을 계속 공격케 하였다면 당면의 敵은 右側(東쪽)이나 北쪽으

로 退走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同중대 右側에 있던 제5중대는 敵情이 희박한 지대에서 遊休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Tinh Binh전투」는 내가 최초 판단하고 구상한대로 一蹶의 차질도 없이 전개되었으며 기습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自負한다.

이 전투는 사단 전술책임지역내에서 敵이 가장 조직적으로 준비한 陣地에서 窮風도 때리는 咬貓한다는 裕으로 필사적인 저항을 계속한 전투였다. 이를 공격하는 제5중대는 손실이 뿔뿔되었지만 끝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堅持하고 濼絶을 極한 물결을 거듭끝에 VC의 精銳를 굴복시키고야 말았는데 그 功은 길이 빛날 것이다. 전투간에 보여준 제5중대장 以下 전 중대원의 왕성한 공격정신과 뛰어난 戰技와 強靱한 精神力은 後來를 위하여 戰史에서 기리 빛날 것으로 생각

한다.

「Liem Loi전투」에서 제5중대가 斷行한 과감한 돌격에 魂飛魄散한 VC이 我軍을 매서운 군대라고 인식한데 이어 이 전투에서 또다시 鐵槌를 얻어맞자 그들은 我軍과의 正面 對決에서는 도저히 勝算이 없다는 것을 절감한듯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이후부터는 소극적인 退散을 常用하게 된 것으로 안다. 다시 말하자면 越南戰에서 韓國軍 進출책임지역내의 전투양상이 달라진 것

이다. 그러므로 비록 「Tinh Binh 전투」에서 제5중대의 손실이 많았다고 하지만 대국적인 전지에서 觀望할적에 사소한 무기 몇정이나 敵屍 몇기를 문제 삼을 것이 못된다. 이 전투를 契機로 아군의 戰技와 과감성과 強韌함을 敵이 알게됨으로써 아군이 두렵고 강한 군대라는 先入觀을 갖게끔 하였다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 主役이 바로 우리대대였고 그중에서도 제5중대가 先鋒이었던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제1연대 제5중대장 朴東遠 대위

(1978년 1월 29일 제77연대장실에서, 당시 대령)

「비호 6호 작전」에 「Liem Loi전투」에서는 敵情이 五里霧中인 채 내가 包圍를 當한 것인지 혹은 敵을 擊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를 계속하였다. 반면 「Tinh Binh전투」에서는 敵의 소재를 확인하고 나의 腹案대로 소신껏 공격하였다. 그러나 내치한 VC들이 형조된 방어조직을 총동원하여 견고한 진지에서 발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火力도 강력하였으므로 저지않은 손실이 있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중대가 당면의 敵을 覆滅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평소의 결사적인 훈련과 정신혼화와 장병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꼭 이기고 말겠다는 필승의 執念 그리고 왕성한 공격정신의 結晶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전투경과에 對한 功過는 나보다도 編史家들께서 冷澈하게 판단하겠지만 무릇 敵이 強하다고 불려선다면 兵家の 矜持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1소대의 돌격이 奏功하여 적진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목이 쉬고 입술이 부르트듯 밧으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진지를 살펴보고 또 한번 놀랐다. 마을 東, 北, 南쪽 외곽에 우거진 대나무밭 밑을 파내어 壕가 구축되어 있었는데 銃眼 앞에는 細根이 느리워져 위장되었기 때

문에 밖에서 이를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壕속에 들어가 보니 앞이 흰하게 내다 보이고 有蓋교통호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니 포화에도 까딱하지 않을 수 밖에... 이러한 진지가 마을 四周와 안으로 이어지고 가옥내로도 연결되어 있었다 진지 앞에는 철조망, 측창 등의 장애물이 설치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작전이 끝난 다음날(27일) Westmoreland대장 일행이 사단장의 안내로 交戰地 현장에 왔으므로 내가 전투상황을 설명드렸더니 현지를 둘러보고는 전투의 激烈하였음을 실감하는듯이 보였다.

나는 「비호 1, 2, 6호」를 通하여 濕地를 擊破하는 어려움을 통감하였기 때문에 준비기간에 중대 진술기지 부근에 있는 水田(200×50m 밭목까지 빠지는 수렁논)을 收穫땀가를 치우고 이를 차용하였다. 그리고는 매일 1~2시간씩 완전무장하여 이 논을 뛰어가는 훈련을 거듭하였더니 2주일 뒤에는 兵士들의 발이 빨라지고 수렁논을 卞地를 지나가듯 踏破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체력과 기량을 연마한 後에 비로소 이정도면 승리한다는 自信을 갖게 되었다. 「Tinh Binh전투」의 勝捷은 이와같이 남보다 감절로 훈련 밭의 소산인 것이다.



## 제 1 기갑연대 제 11 중대장 李寅秀 대위

(1978년 1월 31일 제 5군단 작전참모처에서, 당시 중령(대령 진급 예정)...

「My Thuan전투」는 손실만 내고 苦戰한 것을 自認한다. 나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이를 銘肝하여 그와같은 前轍을 다시 밟지 않게끔 戒訓을 다하였으며 지금도 나의 左右銘으로 삼고 있다.

1. D일(23일)의 야간침투에 이은 주간탐색의 강행으로 병사들의 心身이 자쳐 있었고 적정마져 없었으므로 긴장이 解弛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다음날 대대로부터 도상거리로 2.5km 떨어진 My Thuan (2)가 목표로 주어졌다. 越南戰을 경험한 장병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도상거리와 실제 地上거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더러 전격간에 敵이 蟄伏할듯한 숲이나 마을을 누비게 되므로 이 구간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灼熱하는 陽光아래에서 계곡의 우거진 雜木과 岩石이 점철된 착잡한 지대를 휴식없이 헤치다 보니 피로한때다가 接敵하지 못한 焦燥가 온몸을 掩襲할조음 敵과 충돌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들과 부딪혔을 때에는 민첩한 행동을 取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평소의 훈련이 이

러한 상황을 극복할만큼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때 비로소 「敵彼我攻」의 효과를 통감하였다.

또 戰果에 급급한 나머지 부하를 혹사하거나 叱責하는 행동은 실패와 직결된다. 모름지기 지휘관은 자기 지휘하에 있는 부대의 능력과 부하들의 戰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계획과 명령을 하달해야 할 것이다.

2. 장별들간에 敵을 輕視하는 驕氣가 만연되어 있었다. 따라서 탐색간에 추방을 경계하는데에 소홀하여 VC의 유인하는 슬수에 말려들은 것이다.

3. 나를 위시하여 소대장들의 통제能力이 부족하였다. 兵士들이 敵과 접촉하자 功名心을 억제하지 못하고 앞뒤를 돌보지 않고 날뛸때 보다 침착하고 여유있는 자세를 堅持하였더라면 그렇게도 일방적으로 언어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一舉手 一投足에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잃기도 한다.

## § 遺家族의 證言

## 全南 潭陽郡 鳳山面 陽地里 568번지 鄭鎭孝

(1966년 3월 23일 「Tinh Binh전투」에서 戰死한 제 1연대 제 5중대

부중대장 鄭周泳 중위의 父親 : 1978년 1월 28일 서신으로 證言)

周泳이는 어릴시절부터 溫和 沈着하고 父母에게 不安과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孝誠이 지극한 子息이었읍니다. 派越부대 제 1陣으로 越南에 간 다음에도 家庭에 보면 먼지마다에는 마디마디 父母를 걱정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

는 忠誠心이 한결같았으며, 몇년을 두고라도 가어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겠으니 동생들을 먼저 결혼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周泳이의 片貌는 父母로서 무어라고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陸士준업 “앨범”에 기재된 “푸르필”을 별첨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자식이 참전한 전투상황이 소상하게 전  
사에 담겨 기리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삼가 멀리

異國땅에서 나라와 자유를 위하여 散華하신 英魂  
들의 冥福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 § 參戰者의 略歷

#### 수도사단 수색중대장 李 德 坤 대위

- |                                  |                              |
|----------------------------------|------------------------------|
| 1931년 9월 29일 : 平南 成川 출생          | 장                            |
| 平壤 공업대학 졸업                       | 1972년 10월 18일 : 제33사단 작전참모   |
| 陸士13期                            | 1975년 8월 30일 : 습참 전략기획국 제2과장 |
| 1965년 10월 20일 : 수도사단 수색중대장       | 1977년 2월 1일 : 제35사단 제105연대장  |
| 1971년 8월 13일 : 제33사단 제100연대 제1대대 |                              |

#### 제1연대 제5중대장 朴 東 遠 대위

- |                               |                                    |
|-------------------------------|------------------------------------|
| 1934년 8월 30일 : 서울 西大門 출생      | 1972년 1월 20일 : 제6사단 제7연대 제3대대장     |
| 京畿고등학교 졸업                     | 1973년 7월 25일 : 제3사단 작전참모           |
| 陸士14期                         | 1975년 7월 24일 : 습참 전략기획국 목표기획<br>과장 |
| 1965년 9월 2일 : 수도사단 제1연대 제5중대장 | 1977년 4월 11일 : 제27사단 제77연대장        |
| 1970년 6월 20일 : 陸軍大學 교관        |                                    |

#### 제5중대 제2소대장 李 淸 중위

- |                             |   |
|-----------------------------|---|
| 1941년 3월 10일 : 慶北 淸道 출생     | 1968년 9월 7일 : 제21사단 제66연대 제12중대장        |
| 釜山고등학교 졸업                   | 1971년 9월 4일 : 제117학훈단 교관                |
| 갑종117期                      | 1977년 7월 23일 :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제201차<br>보대대장 |
| 1965년 9월 3일 : 제1연대 제5중대 소대장 |   |

#### 제6중대 제2소대장 孫 龍 男 소위

- |                                     |                                  |
|-------------------------------------|----------------------------------|
| 1940년 9월 15일 : 慶南 宜寧 출생             | 1969년 4월 17일 : 제9사단 제30연대 제8중대장  |
| 大田고등학교 졸업                           | 1971년 7월 8일 : 제5사단 제35연대 작전주임    |
| 陸士20期                               | 1972년 11월 30일 : 제101학훈단 교관       |
| 1965년 9월 2일 : 수도사단 제1연대 제6중대<br>소대장 | 1977년 2월 21일 : 제12사단 제51연대 제1대대장 |

# 第 8 章

## 軍需支援司令部의 活動

### 要 旨

1. 部隊編成 및 單位部隊 指揮性
2. 各機能別의 支援活動
3. 其他 部隊活動



## 第 8 章 軍需支援司令部의 活動

### 要 旨

政府는 65년 8월 17일 首都사단과 海兵 제 2여단의 戰鬥부대 派越을 決定함으로써 이들 부대에 對한 軍需支援을 專擔할 機構가 必要하게 되어 陸軍에서는 同년 9월 1일에 軍需지원사령부를 首都사단의 隸屬부대로 創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동사령부는 隸下에 7개 兵科의 19개 부대로 編成된 建軍史上 최초의 統合된 軍需체계를 갖추고 派越과 동시에 首都사단을 直接지원하는 한편 海兵제 2여단에 對하여서는 非編制부대로 편성된 예하의 軍需지원대대로 하여금 이를 담당토록 하였다.

派越 韓國軍에 對한 現地에서의 軍需지원은 韓·美·越 軍事실무자 約定書에 의거하여 美·越軍으로 부터 支援되었다.

派越 初期에는 越南戰의 特殊性과 地形 및 氣候의 惡條件 그리고 陸路수송의 制限등으로 광범위하게 分散된 各부대에 適時 適切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補給체계면에 있어서도 美·越軍의 支援물자와 國內 調辨물자로 區分되어 있음으로써 各各 相違한 支援계통을 利用하고 取扱구분에 있어서도 越南軍은 兵科別 개념에 의하여, 美軍은 機能別로 統合된 物資개념에 따라 運用되기 때문에 補給去來는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補給수준은 越南軍과 同一한 기준으로 白米와 食鹽, 그리고 II, IV種中 舊型의 共通 사용장비——越南에서 美軍이 사용하지 않는 品目——등은 越南軍 보급계통으로 부터 支援되었으며 그

밖의 모든 장비와 보급품은 美軍과 同一한 수준을 유지하고 被支援부대를 지원하였다.

이밖에 本國으로 부터는 고추장과 된장이 보급됨으로써 給食面에서는 派越美軍 및 其他 外國軍과 비교하여 불에 췌선 좋은 상태였다.

裝備전성은 越南에서의 作戰間에 얻은 경험과 越南戰의 특징에 적합하게끔 부대장비표를 대폭 修正함으로써 派越당사 82%의 保有장비(本國의 師團 평균 보유비율)에 比하여 점차로 높은 比率로 增強되고 裝備의 現代化를 위하여 新型인 M 16소총을 비롯한 化學劑 噴霧器(Mity Mite), M-113 裝甲車, HD-15 “부르도저” “헬리콥터”, 무전기, “레이더” 각종 차량, 防彈조끼 등 이미 交替 裝備된 것도 있으나 나머지는 追後 67년 後半期에 各기술행과 分野別로 각종 新型장비의 대부분을 바꾸게 되었다.

裝備의 整備는 派越 韓國軍의 現存능력 범위내에서 4段階까지의 整備를 실시하고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整備는 美·越 兩軍으로부터 支援되었으며 重裝備 및 再生정비는 美海外 循環정비계획에 의하여 支援하여 주기를 美軍과 교섭을 推進하는 한편 廢車輛을 本國으로 後送하여 再生정비하는 방법도 아울러 折衷하였다.

그리고 海上수송지원을 담당하는 派越韓國軍의 함정에 對한 整備는 越南軍으로부터 支援되었다.

施設지원은 韓國軍 駐留에 필요한 營地를 越南軍이 제공하고 施設은 年次的으로 工事を 推進하였는데 67년末 까지 모든 시설이 完工된 계획이

었다.

輸送지원은 越南 國內外를 莫論하고 派越 韓國 軍 자체의 輸送수단을 최대한으로 活用하고 能力을 초과하는 陸路, 海上, 航海수송은 美軍으로부터 支援되었으며 戰鬪부대 및 戰鬪 緊要물자에 우선권을 두고 推進되었다.

그리고 野戰에서의 緊急 의무지원 및 戰傷者와 英願의 本國 後送등도 美軍에 의하여 支援되었다.

이와같은 諸般 軍需지원활동은 派越 初期까지

는 주로 軍需지원사령부에 의하여 遂行되었으나 그뒤 66년 9월에 增派될 제 9사단에 對한 軍需지원을 위하여 同년 6월에 同지원사령부는 機構확장과 더불어 제 100軍需사령부로 改編하는 동시에 首都사단 隸屬으로 부터 派越 韓國軍사령부로 配屬이 變更되어 派越 韓國軍에 對한 總括的인 行政 및 軍需지원을 遂行하게 되었는데 本章은 機構개편전인 66년 3월말까지의 軍需지원만을 取扱하였다.

## 1. 部隊編成 및 單位部隊 指揮官과 主要參謀

### 가. 部隊 創設

65년 8월 23일 陸軍본부에서는 軍需지원사령부 創設요원으로 부대장을 비롯한 參謀 및 勤務대장 27명을 首都사단에 集結시켜 部隊편성을 위한 人員 選拔에 着手케 하는 한편 同월 28일 국본일반명령(육) 제31호를 下達하여 9월 1일 00.01附로 首都사단 隸下에 軍需지원사령부를 創設하였다.

初代 사령관 李範俊 준장은 同월 15일 계획단장으로서 장교 5명과 사병 4명을 거느리고 派越부대에 對한 軍需지원관계를 美·越 兩軍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하여 先發隊와 같이 越南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참모장 張 璵 대령이 지휘관 空席中에 부대 창설업무를 代行하였다. 최초의 부대 창설업무는 首都사단 營內에서 遂行하다가 그뒤 同년 9월 3일 제 1군사령부의 承認下에 제 28연대 地域인(당시 제 28연대는 美제 2사단 경계증원을 위하여 파견 근무중이었다) 京畿道 楊平郡 龍門으로 移動하여 本格的인 編成업무에 着手하였다.

派越을 45일 앞두고 7개兵科의 大小 19개부대를 編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軍需지원사령부를 비롯한 현병중대 및 방첩대와 軍事정보대 그리고 예방의무소대를 새로 創設하였으며 母體가 있는 부대일지라도 派越을 회망하는 將兵을 選拔하기 위하여 기성부대의 人員中에서 많은 人員을 交替하게 되었으므로 새로 編成하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

## 나. 部隊集結 및 編成

軍需支司에 포함될 7개 兵科의 大小 19개부대중 예방의무소대를 제외한 18개부대는 各地域에 散在된 부대(軍需지원부대 편성 참조)중에서 母體부대가 指定되었고 其他 행정부대와 예방의무소대는 새로 창설케 되었으므로 이들 부대를 일정한 場所에 集結시킴으로써 編成업무의 圓滑을 期하는 동시에 指揮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다.

이리하여 공병대대 및 수송자동차대대 등 많은 人員과 裝備을 保有한 부대와 化學, 憲兵 및 정보부대를 除外한 기타부대를 同년 9월 3일 龍門으로 移動 집결시켜 軍需支司의 指揮를 받게 하였다. 이에 各地域에 散在된 各 예하부대와의 交通 및 通信수단의 制限과 長距離 이동으로 因한 安全 및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事前에 綿밀한 계획과 참모방문 및 指揮감독하에 부대를 集結시킨 다음 9월 7일부터는 指揮체제를 확립하고 各부대 및 司司令部의 機能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1개월 남짓한 제한된 期間내에 建軍史上 처음으로 海外에 파견되는 戰鬪부대에 對한 裝備편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派越부대에 對한 各種 不足장비를 補充하기 위하여 제 1군사령부에서는 龍門과 洪川에 補給분배소를 설치하고 支援을 強化하는 한편 軍需支司는 部隊를 편성하면서 派越부대에 對한 裝備의 整備를 支援하기 위하여 各 兵科別로 技術 검사를 실시하고 不足장비의 획득에 努力하였다. 즉 各種 車輛의 주요 부속품과 越南戰의 특수성에 따른 필수적인 裝備를 가능한 限 國內에서 조치토록 건의하여 M1 소총 17,929정을 M2 CAR소총으로 交替하였으며 非기준품목인 전투帽와 傘바지등을 調辨보급하고 不必要한 裝備등은 반납 조치하면서 派越부대가 永登浦역을 출발할 때까지 未備된 장비를 점검하고 補充하였다.

한편 軍需支司는 戰鬪부대와 同一하게 주당 56시간의 소부대전술과 유격전 및 사격 그리고 정훈교육등 4주간의 教育을 실시하였으며 特殊임무를 遂行하는 7개兵科의 12개부대는 越南에서의 任務수행에 對備하기 위하여 120種의 軍事 주특기별로 特技兵교육을 주당 9시간씩 追加함으로써 일일 평균 10시간의 訓練을 強行하였다. 이와같이 짧은 기간에 부대편성과 아울러 不足장비의 補充과 整備를 하는 한편으로 계획단요원 10명이 先發隊와 같이 派越되어 韓·美·越 軍事실무자 約定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現地에서의 軍需지원태세를 갖추었다.

### 다. 計劃團 要員의 活動

계획단 1행은 65년 9월 15일 空路로 出發하여 당일 越南에 도착한 다음 Qui Nhon 美軍 需지원사령부에 本部를 설치하고 現地 美·越 兩군수지원부대장과 협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任務를 遂行하였다.

- 『1. 首都사단 및 軍需부대 도착시의 수용계획 및 施設공사의 推進
2. 首都사단 및 軍需支司의 駐留地선정
3. 補給신청 및 補給절차의 확립
4. 美軍과 협조하여 부대 進入路 15km의 道路신설 및 地域內의 道路보수
5. 作戰命令 및 부대배치 계획의 작성

이 밖에 本隊 도착시의 輸送문제와 警戒 및 給食준비등 諸般 事前준비를 併行하였다.』

本 계획단의 任務수행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首都사단의 駐留地선정에 많은 시간을 割愛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행은 連日 圖上연구와 空中정찰을 거듭한 끝에 Phouc Thanh 一帶를 選定한 바, 戰術的으로 隷下부대를 指揮하는데 용이하고 警戒에 有利하며 美·越 兩軍의 軍需시설이 集中되어 있는 Qui Nhon과 그리고 제1번道路에 가깝기 때문에 軍需지원에 適合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 6번 B道路 및 이에 沿하여 敷設된 鐵道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前進的인 基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腹案이 확정되자 李範俊 准장은 우선 美해병대에 作戰을 의뢰하여 美해병의 증강된 2개중대를 여기에 投入하여 1주간에 걸친 VC 剿滅戰을 전개한 다음 現地를 踏査하고 각 부대가 들어갈 위치를 정하였다.

### 라. 部隊移動 및 宿營地 占領

軍需支司는 5개梯隊로 편성하여 出國하였으며 人員 및 貨物수송은 鐵路, 水路, 航空등의 수송수단을 利用하였다.

제 1陣으로 編成된 海兵 지원대대 先發隊는 姜君鍾 중령 指揮下에 9월 15일 계획단 요원과 함께 航空편으로 出發하여 당일 Cam Ranh에 到着하는 즉시 海兵제 2여단에 對한 軍需



지원대세를 갖추고 10월 7일에 派越될 本隊와 軍需支司 先發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이어 제 2梯隊로 編成된 海兵 軍需지원대대 本隊와, 軍需支司 先發대는 林錫淳 중령 指揮下에 釜山港에서 LST함정 7隻에 各各 分乘하여 10월 3일 10.00에 出國하였다.

한편 軍需支司 本隊는 首都사단 主力과 함께 10월 12일에 汝矣島 空港에서 大統領 임석하에 攀國적으로 배풀어진 환송을 받으뒤 13일 16.00에 仁川港을 出港하여 15일 釜山港에 寄着한 다음 市民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越南으로 向發하였다. 部隊는 途中에서 船舶의 고장으로 沖繩에 들렀다가 整備를 한 다음 다시 航海를 계속한 끝에 10월 23일 18.15에 Qui Nhon에 入港하였으며 24일 上陸과 동시에 宿營地를 整理하고 곧 首都사단에 對한 軍需지원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後發隊는 美海軍함정 (APA 및 APKA) 7隻과 韓國 海軍함정 LST 2隻에 各各 人員 및 物資를 싣고 10월 26일 釜山을 出港하여 11월 3일에 Qui Nhon에 도착함으로써 軍需支司의 移動은 終結되었다.

제한된 자체 警戒능력밖에 없는 軍需支司는 5개의 廠制고지에 前哨진지를 구축하고 戰鬥부대의 支援없이 자체명령으로서 駐留地 境界와 地域탐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首都사단을 支援하는 美제 161“윌리콥더”중대의 警戒까지 담당하게 됨에 따라 公병대대의 2개중대를 該중대 外廓에 배치하고 彈藥庫 境界를 公병 1개중대에 부여하기도 하였다.

#### 마. 任務 및 機能

최초 部隊창설과 그뒤 改編된 파월 韓國軍에 對한 軍需體制 및 任務와 機能은 다음과 같다.

##### 任 務

- (1) 派越 韓國軍에 對한 行政 및 軍需支援
- (2) 隸屬 및 配屬부대의 운용
- (3) 責任지역내의 自體방어

##### 機 能

- (1) 裝備 및 補給品の 획득, 저장, 분배
- (2) 裝備의 3,4段階 정비지원
- (3) 각종 軍需근무의 제공

- (4) 醫務근무 제공
- (5) 각종 工事의 支援
- (6) 보충대의 운용
- (7) 刊行物의 複製 및 인쇄
- (8) 軍紀 및 질서유지

軍需지원부대의 편성 : 별지 #1

軍需지원사령부의 편성표 : 별지 #2

바. 單位部隊 指揮官 및 主要 參謀

軍需支援사령관	준장	李 範 俊	제239수송자동차대대장	중령	崔 燾 晁
참모장	대령	張 璠	海兵지원대대장	중령	姜 君 鍾
인사처장	소령	吳 滋 福	제237명참중대장	소령	李 相 福
정보작전처장	소령	金 滿 鮮	제10명기중대장	소령	劉 鳳 洙
정비보급처장	중령	金 尙 憲	제1통신중대장	소령	韓 亮 愚
민사처장	중령	金 洛 濟	제26헌병중대장	소령	吳 百 煥
근무처장	중령	林 錫 淳	제102탄약중대장	대위	崔 侑 侁
제6후송병원장	대령	李 圭 東	제1화학지원소대장	중위	梁 海 龍
제103공병대대장	중령	梁 在 祐			

2. 各 機能別 支援活動

가. 補 給

派越 韓國軍의 軍需지원체제는 補給에 있어서 1種中 쌀과 食鹽은 越南軍과 同一한 基準으로 支援하고 其他 品目은 美軍과 同一한 基準으로 供給되었으며 이밖에 本國으로 부터 特殊조미품으로 된장 1人當 日量 20g과 고추장 28g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現地에서 甘味類와 야채, 果實등이 供給됨으로써 給食面에 있어서 한사람이 하루에 섭취하는 熱量은 戰鬪부대의 경우 5,582 Calorie에 해당되는데 이는 本國에 있는 士兵



전투부대에 補給될 C-Ration

한사람이 하루 섭취하는 3,400 Calorie와 越南軍 3,272 Calorie, 그리고 美軍의 1人 1日 熱量 4,300 Calorie보다 많은 熱量으로써 兵士들의 體力은 날로 向上되었고 現地에 도착한 뒤 個人의 平均 體重은 5kg의 增加를 보였다.

Ⅱ, Ⅲ, Ⅳ種은 越南軍과 同一한 運用 및 보급수준을 유지하였으며 V種은 美軍이 裝備하지 않은 MI 및 CAR소총 그리고 其他 軍援무기에 대한 탄약과 特殊무기의 탄약으로 區分되어 각각 다른 보급계통에서 支援되었다.

軍需支司에서는 韓國軍부대에 對한 탄약보급의 圓滑을 期하기 위하여 Qui Nhon과 Cam Ranh에 각각 前方보급소를 설치하고 지원대상부대에 推進보급을 하였는데 軍需支司를 포함한 各급부대 補給수준은 同類의 美軍부대 및 보급지원시설에서 유지하는 것과 同一하였다  
부대별 보급수준 : 별지 #3 참조

한편 裝備의 補充에 있어서 韓國軍은 派越前에 수차에 걸쳐 개뢰된 韓·美·越 軍專실무자회의의 約定에 따라 裝備는 全軍의 平均 保有비율 82%를 휴대하였으며 不足장비는 現地에서 充當케 되었다. 따라서 派越부대가 現地에 도착한 뒤 當面한 문제는 不足장비를 時急히 補充하여 戰鬥태세를 갖추는 것이었으며 韓·美·越 실무자들은 最短期日내에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65년 8월 4일부터 이미 發注업무를 進行한 결과 상당한 量의 裝備가 補給되었 으며 66년 3월말 현재 그 보유율은 平均 90%로 上昇되었다.

부대별 주요장비 보유비율 : 별지 #4 참조

특히 首都사단 및 海兵제 2여단은 派越 당시 國內 사단의 裝備인가표에 依한 장비를 휴 대하였기 때문에 이들 부대가 現地에 도착한 뒤 作戰업무를 遂行함에 있어서 이러한 裝備 단으로서는 作戰을 효과적으로 遂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軍사령부의 軍需실무자들은 派越 美 軍事원조사령부(US MAC-V)와 여러차례에 걸쳐 折衷끝에 韓國軍의 裝備인가표(T/A)를 2차에 걸쳐 수정하였으며 3차수정안을 제의하 였다.

제 1차수정은 사단 장비할당표(T/A)에서 “정글”靴 項目을 삭제하고 고무침대(Air Mattres)로 代替하였으며(65. 11. 14) 제 2차수정은 戰鬥兵 1인당 모기장 1枚, 同 支柱 1조 모기장頭巾 1매, 木침대 1개, 수통 및 수통皮 各 1개씩을 支給기로 하였는데 이는 65년 12 월 2일에 認可되었다.

또 제 3차 修正요구사항은 ① 首都사단 의무중대 및 海兵제 2여단 後送중대용으로 木침 대를 비롯한 고무침대(Air Mattres)와 患者用 식기 및 버개의 追加인가 ② 軍靴는 “정글” 靴로 보충보급하게 되어있는 것을 軍靴대로 보충보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③ “정글”靴 1足を 2足으로 그리고 食堂用으로 桌子 1,320개와 椅子 5,280개의 認可를 요구하였으며 ④ Air Conditioner의 인가를 요청한바 이는 後送병원용으로 7개와 軍사령부 기밀실용 2개 를, 그리고 通信 암호실 및 기재실용으로 4개를 各各 장비표(T/E)에서 삭제하고 T/A 품목 으로 査定기로 되었으나 T/A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T/A에 포함하여 인가하여 줄 것과 ⑤ 海兵제 2여단 後送중대용으로 鐵침대 및 Mattres와 同 “카바” 各 240개를 追加 요구하였다.

이밖에 派越 美軍事원조사령부와 折衷하여 現地에서 新型장비인 噴霧器(Mity Mite) 및 防彈쪼끼를 보급하였으며 裝甲車와 航空機(U-6, U-8F) 및 UH-ID “헬리콥터”는 67년 도에 受領하기로 되었다.

또한 韓國軍의 裝備 개선을 위하여 舊型장비인 無電機 AN/PRC-6, 9, 10을 AN/PRC -25와 AN/PRC-125로, 그리고 M1 및 CAR소총을 M16소총으로, M40기관총을 M60기 관총으로 各各 全量 交替할 것을 제의한 결과 이는 67년도에 支給하기로 되었다.

## (1) 補給 支援의 實績

## (가) 首都사단

首都사단에 對한 軍需지원체제를 單一化하여 業務의 能率을 向上시킬 目的으로 補給기능의 一元化작업에 着手하였다.

즉 軍需支司의 예하 6 후송병원을 首都사단에 배속하는 한편 同 사단의 直轄隊에서 工兵대대와 通信 및 兵器, 兵站의 3개중대를 軍需支司에 配屬케하여 首都사단에 對한 軍需지원을 効率의이며 集中的으로 支援하였는데 (追後 100 軍需司로 改編되면서 配屬해 撤) 100 軍需司로 改編되면서 配屬해 撤)

首都사단의 補給지원병력은 65년 11월부터 66년 3월末까지 月平均 13,606명이며 各兵站별로 支援실적을 記述키로 한다.

**兵器** : 首都사단은 派越당시 銃砲 82%를 裝備하였으나 現地에서 부족량을 획득하여 補充한 결과 66년 3월말 현재 100%의 裝備를 保有하였으나 韓國軍이 裝備한 M1소총은 越南戰과 같은 “정글”戰에서는 適合치 못하였으며 또한 兵士들 體軀에 過重하여 行動上 不便하므로 이의 代替가 시급하였다.

그리고 車輛(2½ton)은 認可 702대에 比하여 保有 580대로서 不足장비에 對한 획득에 努力하는 한편 新型장비로 量 交替하는 문제를 계속 교섭하였다.

특히 派越당시 韓國軍이 휴대한 裝備들은 舊型인 까닭에 能率面에서 바람직한 支援을 提供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은 實情이었으므로 이와같은 隘路를 打開하기 위하여 보급지원기관과 타협끝에 同년 3월말 현재 2½ton차량 60대를 비롯한 各種 新형차량 35대를 受領하였다.

彈藥보급은 Qui Nhon과 Cam Ranh에 各 前方 推進보급소를 설치하여 보급기준 15일분을 확보하고 소모량에 對한 보충보급을 즉시 推進함으로써 戰鬥부대의 作戰에 차질이 없도록 支援하였다.

裝備보충 및 손실 현황 : 별지 #5 참조

彈藥 보급 실적 : 별지 #6 참조

**兵站** : 韓國軍에 對한 兵站지원은 口糧 및 舊型 개인장구류와 油類를 포함한 그밖의 모든 병참물자로 區分되어 각각 보급계통이 다른 지원시설에서 支援되었다. 戰鬥부대요원은 쌀과 C-Ration (作戰 또는 移動이 빈번하여 炊事를 할 수 없는 부대에 보급되며 취사가 필요 없이 取食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口糧)을 取食하며 연대급 이상의 부대는 A-Ration(주류지역에서 냉장시설이 完備된 부대에 限하여 補給되며 신선한 食品을 기호에 알맞게 요리하여

給食하는 口糧과 B-Ration(炊事장비가 完備된 부대에 限하여 補給되며 食品을 상하지 않게 통조림(CAN)으로 포장된 것으로 냉장시설이 결핍된 부대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음)을 給食케 되었는데 A,B-Ration 兵力이 명확히 區分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各 Ration을 合計 實際 補給정형에 따라 口糧當 2,3 L/B (A-Ration 1.47 L/B, B Ration 2.47 L/B C-Ration 2.08L/B을 合計하여 3食分으로 나눈 數量)을 取食하였다.

그러나 점차 A, B-Ration의 長短點을 파악한 다음부터 연대급은 B-Ration을 給食케 하고 사단과 軍사령부는 A-Ration을 取食케 되었는데 派越한 뒤 몇개월 동안은 처음으로 맛보는 C-Ration에 不便이 없었으나 韓國人은 그 特有의 김치를 食 弄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이리하여 날이 갈수록 점차 戰鬥員들은 C-Ration에 실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김치를 要求 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軍사령관과 軍需지원사령관은 本國에 K-Ration의 개발을 반영하는 한편 派越 美軍 사령관 William C. Westmoreland 대장을 비롯한 軍需실무자들과 折衷 끝에 67년도부터 韓國軍은 1日 1食分の 韓國 口糧을 供給받게 되었다.

口糧補給은 方針上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本國에서는 할당(Ceiling)制에 의한 補給방법이었지만 現地에서는 請求補給제도에 의하여 月 平均 1,500D/M을 補給하였으며 이는 韓國軍의 活動이 顯著함을 증명하였다.

특히 高溫多濕하고 銃器類의 사용頻度가 높은 관계로 運轉유는 小火器 1挺當 月間 本國보다 4배에 해당되는 4z/o를 補給하였으며 其他 雜油도 충분히 供給하였다. 被服은 派越당시 개인당 戰鬥服 3着과 “런닝샤츠” 및 “팬츠” 각 4매 및 “정글”靴 1足を 支給하였으나 더위 속에서 계속되는 戰鬥로 말더암아 消耗率이 심하여 보충보급이 시급하였다.

이에 軍需支司는 軍사령부에, 補充策을 건의한 바 특히 “정글”靴의 보충보급이 시급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拂出하도록 한 결과 우선 首都사단에 17,342족을, 海兵 各 2여단에 5,700족을 補給하였다.

그리고 派越 당시 各個병사들은 水筒 1개씩을 支給받았으나 越南의 炎天下에서 싸우는 兵士들에게 한개의 水筒으로 渴症을 덜어주기에는 不足하므로 追加소요로 戰鬥兵에게 2개의 수통을 補給하였는데 이것은 “플라스틱”製로서 가볍고 녹이 썩지 않으며 소리가 나지 않아 夜間전투에도 適當하였다.

또한 國內에서 휴대한 낡은 天幕은 降雨量이 많고 日射力이 강한 現地에서는 거의 수명 전에 磨耗되기 때문에 이의 補充策이 시급하였고 또한 派越한 뒤 1년간은 天幕생활을 하

였으므로 그 所要가 增加되어 T/E의 180%에 해당하는 각종 寸막을 긴급히 補給하였다.

그리고 軍需支援司는 戰死傷者의 51%에 해당하는 人員이 胸部관통상으로 損失되는 것을 勘索하여 防彈조끼 2,500着을 우선적으로 支給하였다.

이밖에 各급부대의 음료수를 운반하는데 必要한 容器는 T/E상의 수량으로서는 不足한 實情이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容器(물“스피야”관)의 要求量을 充分하게 補給하였으며 貯수용 公도람 800개를 供給함으로써 1인당 하루에 5G/A의 음료수를 支援하였다.

또한 各급부대가 請求한 野戰炊事기구(Field Range)도 補給하였는데 이는 國內에서 野外 훈련시에 使用하던 炊사용구보다도 취급이 간편하고 2½ton 차량에도 장치할 수 있으므로 移動취사에 적합하였다.

化學：“마라리아”로 因한 非戰鬪손실을 防止하기 위하여 모기약이 必要한데 本國에서는 夏節期에 1인당 1個月에 1명의 예방약품을 支給하였으나 常夏의 越南에서는 月間 1인의 所 要量 4병씩을 供給하였으며 戰鬪時에는 항상 휴대케 하였다.

化學장비인 噴霧器는 소총중대에 1대씩 補給하여 동굴 탐색시에 敵情이 模糊한 동굴속으로 兵士들이 들어가 지 않고서도 敵을 俘獲할 수 있었다. 이 裝備로서 동굴속에 폭동진압용 化學劑를 注入하면 敵은 못견디어 동굴 밖으로 뛰어 나간다. 이 裝備는 越南戰에 처음 登 場한 新武器로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火焰방사기에 壓力을 注入하기 위하여 使用 되는 新형 空氣압축기(3½CMF)를 補給하였다. 이것은 從來의 舊型에 比하여 重量이 1/5에 不 過하여 혼자서 운반할 수 있는 長點이 있는 反面에 壓力 注入量이 舊型에 比하여 1/4밖에 되지 않는 短點이 있다.

通信：越南戰에서의 通信은 特殊한 氣候와 地形조건으로 因하여 많은 制限을 받는다. 韓 國軍의 T/E 장비는 中대와 소대間에 AN/RPC-6을, 그리고 소대와 分대間에는 무선망을 구성할 수 있는 裝備가 인가되어 있지 않으며 TS-10 전화기가 認可되어 있다.

특히 密林과 濕地에서 또는 廣大한 地域에서 戰鬪時에 소부대까지 野戰線을 가설하면서 攻 擊하기에는 매우 곤란하고 密林속에서는 신호나 音響통신이 극도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대와 分대間에는 AN/RPC-6을, 中대와 소대間에는 AN/RPC-10을 運用할 수 있도록 裝 備를 추가로 보급하여 分대 단위까지 無線망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乾電池는 평시 소모기준 50%를 적용하고 있으나 現地에서는 소모기준을 200% 적용하고 있으므로 本國보다 4배이상을 보급하였으며 야전용 전화선 보급은 총 T/E 760.5 M/L이 인가되었으나 중앙통계가 해제됨으로써 66년 3월말 현재 戰鬪예비량 899M/L(현인

가)를 보유하고 있다.

## (2) 海兵 第2旅團

軍需支援사령부는 각 근무부대를 機能別로 통합하는 한편 海兵제 2여단을 支援하기 위하여 작전지시 제 8호에 의거, 海兵 군수지원대대를 편성한 바 그 任務는 當該 여단에 對한 軍需지원과 주둔지역에 對한 자체경제 및 地域 피해통제를 하는데 있으며 이와같은 任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그 編成은 대대장을 포함한 장교 41명과 사병 593명이었다.

65년 9월 15일 이 지원대대의 先發隊 172명은 계획한 요원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Cam Ranh에 도착하였으며 本隊要員 434명은 同年 10월 1일에 京畿道 龍門을 出發하여 同월 3일 釜山을 거쳐 8일 Cam Ranh에 도착하는 즉시 軍需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대대장 姜君鍾 중령의 지휘하에 補給, 整備, 勤務 및 醫務, 後送 등 諸般 軍需지원을 遂行하였다.

여단에 대한 支援兵力은 65년 10월 부터 66년 3월末까지 月 平均 5,276명이며 補給수준은 I, Ⅲ種이 5일분 Ⅱ, IV, V種은 首都사단과 同一한 기본휴대량을 확보하였다.

被服類에 있어서 戰鬥服과 “정글”靴의 보급사정은 좋지 않은편이었는데 그 까닭은 熾炎下에서 “정글”과 ぬ地帶를 누빔으로써 被服의 消耗率이 높아 戰鬥兵들은 不足을 느끼는 실정이었다.

Ⅲ種은 現地에서 청구에 의하여 支援되었으며 기간중 여단은 휘발유의 경우 月 平均 350 D/M을 사용하였다.

現地에 도착한 뒤 획득된 新型장비는 化學劑 분무기(Mily Mite)를 소총중대에 1대씩 공급하고 陣地건설에 緊要한 HD-16 “부르도저”를 보급함으로써 作業능율을 向上케 하였다. 그밖에 防彈썩끼를 비롯한 野戰 취사기구(Field Ranage)를 供給하였으며 武器 및 其他의 장비는 越南戰의 특성에 적합하게 점차 改善되었다. 醫務 및 後送지원은 海兵 지원대대 이하의 치료중대에 의하여 遂行되었는데 輕傷者를 제외한 重患者는 제 6 後送병원 및 경우에 따라 직접 本國으로 後送하였다.

期間中 대대는 戰傷환자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질병에 대한 예방활동에 힘썼으며 特히 “마라리아”疾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키니네”藥을 常用토록 充分한 量을 供給하였으며 戰場에서 必要 不可缺한 栓血은 本國에서 24%를 供給받는 以外에 美제 406病理시험소로부터 76%의 不足量을 획득하였다.



## 나. 勤 務

### (1) 整 備

軍需지원사령부는 上部의 정비방침과 계획에 의거하여 本國의 정비규정 및 要領과 大差 없이 정비업무를 遂行하였다.

越南에서 韓國軍부대는 4段階까지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能力을 초과하는 정비근무는 美軍으로부터 一部の 支援을 받았다.

특히 軍사령부에서는 保有차량에 對한 5段階 정비를 本國에서 支援하도록 검토하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再生費의 償還 및 부속품의 支援등 어에 수반되는 諸般문제가 事前에 派越 美軍專員조사령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妥結케 될 것으로 睥다보았다.

기간중(65. 11~66. 3) 軍需支司의 豫하 各 근무시설에서 실시한 工兵, 兵器, 兵站, 輸送, 醫務, 通信, 化學 各 분야의 整備실적은 다음과 같다.

**工兵** : 65년 10월 21일 부터 66년 3월말 현재까지 延人員 26, 114명과 “부르도저”를 비롯한 重裝備 延 711臺 및 “담프트럭” 延 3, 058臺를 동원하여 各種 공사를 支援한바 裝備의 故障은 本國에 比하여 훨씬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그 原因은 越南의 地質이 岩石 및 자갈과 모래 成分이 적기 때문에 裝備의 磨耗率이 낮은 것으로 集計되었다.

주요공명장비 정비실적 : 별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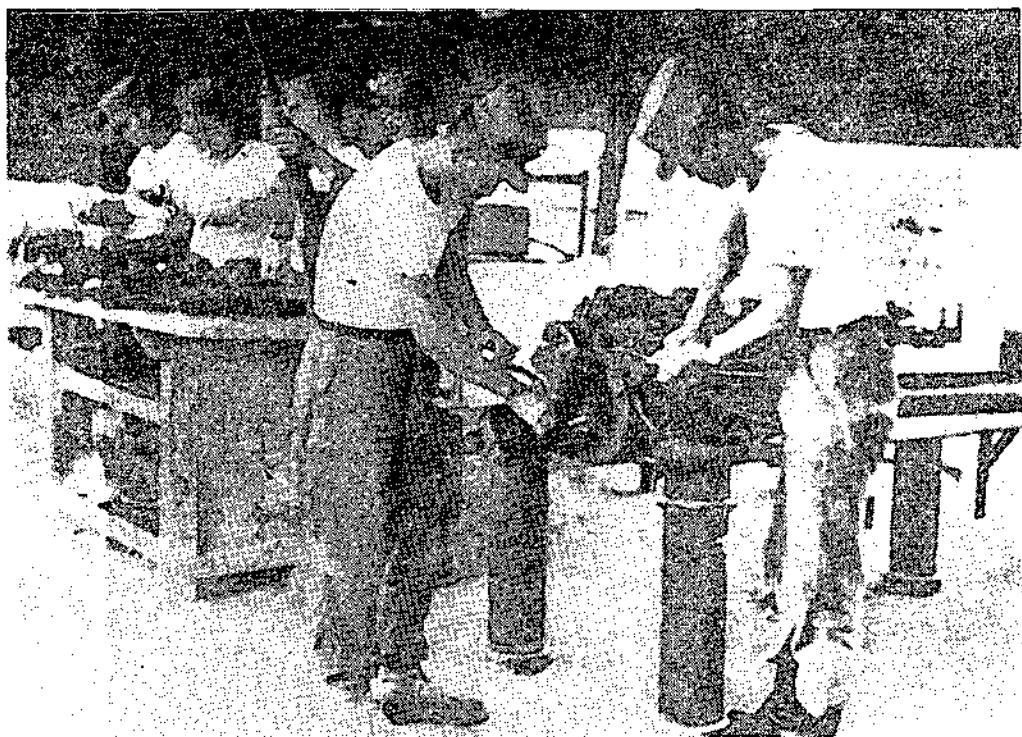
**兵器** : 車輛정비는 전체 보유장비 가운데 1/4ton차량은 月 平均 21%, 3¼ 및 2½ton차량은 各各 8%의 比率를 차지하였으며 比重이 가장 높은 1/4ton 차량은 부속품 補給의 不振에 있었다.

故障의 主原因은 老朽한 裝備를 新代한 까닭에 대부분의 경우 “엔진”과 “트랜스미션” 및 “액슬”등의 重量物이 교환되었다.

火炮는 主로 砲身과 復坐機의 故障이었으며 정비실적은 전체 保有장비중 105mm砲가 8.8%, 155mm砲가 1.6%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小火器는 전체보유장비중 0.35%, 중화기는 3.5%의 정비실적을 나타내었는데 이와같이 최초 6개월간 入庫정비가 적었던 原因은 兵器 중대의 직접지원소대로 하여금 순회정비를 이행케한 결과였다.

중포정비실적 : 별지 #8

화포정비실적 : 별지 #9



兵器정비반의 작업 光景

차량정비실적 : 별지 #10

兵站 : 수시로 정비반이 각 부대를 순회하면서 磨耗된 장비는 즉시 反納처리하는 한편 補充보급하였고 兵站세탁반으로 하여금 부대정비케 함으로써 개인의 勞力부담을 덜어주고 또 被服 소모율에 따라 즉시 교환지급 되었는데 特히 越南의 地形 및 氣候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被服의 소모율은 本國보다 훨씬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戰鬪服의 보충율은 本國보다 3.4배이며 “웬스”와 양말은 8배이므로 被服의 공급은 充分하였다.

通信 : 派越초기 부터 D/L현상이 急増한바 65년 11월말의 D/L은 50% 이상이 旣整備로 分類되었는데 그 原因은 裝備가 老朽된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뒤 移動정비와 主要부속품의 交換 및 新裝備의 보충등으로 裝備의 상태는 좋아졌으며 66년 3월말 현재에 이르러서는 D/L의 主要원인중 65%가 戰鬪로 因한 손실이었음이 밝혀졌다.

품목별 주요 통신장비 정비실적 : 별지 #11

化學 : 초트 방독면의 정비가 많은 比重을 차지하였는데 그 原因은 尠조 本國에서 輸送된

防毒面 포장을 개봉하여 檢査한 결과 포장 미비로 생긴 착오가 있었다. 즉 한 包裝에 6個를 넣어야 하는데 8개 혹은 그 이상의 숫자를 포장함으로써 眼鏡(렌즈) 부분에 많은 破損이 있었다. 그리고 66년 3월에 많은 故障(D/L)이 발생하나 그 原因은 戰鬪時 防毒面을 휴대하고 포복한 까닭에 浸水 및 모래가 들어가 眼鏡 부분과 淨化筒에 많은 損傷이 있었다.

품목별 주요화확장비 정비실적 : 별지 #12

## (2) 施 設

軍需支司의 可用한 工兵은 제516 “담푸트릭”중대를 포함한 제103공병대대 및 配屬된 首都사단 工兵대대와 支援부대인 美제19공병대대로 構成되었다.

首都사단 공병대대의 1개중대는 海兵제 2여단에 配屬되었으며 (66년 4월 5일에 復歸함) 제103공병대대의 1개중대는 66년 3월 10일附로 建設지원단에 配屬되었다.

現地에 도착한 뒤 무엇보다도 新型장비로써 基地를 建設하는 것이 優先務였으며 이를 위하여 舊型장비인 210 CFM “콤포렛샤” 대신에 250 CFM “콤포렛샤”를, D-7 “부르도지” HD-16 “부르도지”를 각각 代替하여 능률적인 공병작업을 遂行하였다.

期間中 軍需支司 예하 공병대대와 美제937공병단 예하 제19공병대대가 연합으로 14km의 新設道路를 개척하는 한편 幅 11m의 進入路 총 延長 15km를 新設하였으며 또한 幅 4m~11m의 主補給路의 擴張공사에 着手하여 총 延長 18km를 完成하고 그밖에 비행장 1개소를 비롯한 2개중대의 收容능력을 가진 “헬리콥터”場 1개소와 暗渠 178개소 및 橋梁 5개소의 工事を 完成하였는데 공사기간중 韓·美 兩軍의 工兵은 作業을 強行하여 首都사단으로 하여금 作戰임무를 성공적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다.

그리고 軍需支司는 首都사단 및 海兵제 2여단의 地域內에 散在된 各급부대의 基地건설을 위하여 총 1,542棟의 시설 종합계획을 作成하여 認可를 받았는데 이 계획은 66~67년 兩年 동안에 걸쳐 完工을 목표로 工事を 進行하였으며 66년 3월말까지 首都사단의 工事진척은 총974棟中 112棟의 “콘크리트” 및 “후리해브” 資材로써 85棟을 建築하였다. 한편 本시설종합공사와 併行하여 天幕 “후랩” 및 저탄장 밑바닥 “콘크리트” 作業과 野戰변소 및 목욕시설등 105件의 小規模공사도 아울러 시공하였다.

海兵제 2여단에 對한 시설공사는 계획된 총 568棟中 기간달 현재 계획량에 對한 47%의 공사진도를 보이나 특히 工事진행중 가장 큰 隘路사항은 岩石과 자갈 및 모래가 不足하여 공사에 지장이 많은 反面에 裝備의 磨耗는 적은 편이었다.

시설종합계획(首師) : 별지 #13

시설종합계획(海兵) : 별지 #14

首都사단 工兵대대(장, 金一起 중령)는 派越당시 “시멘트부르크” 製造機 5대를 휴대하여 現地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基地의 整地작업과 道路건설을 併行하는 한편 “시멘트부르크”를 生産하여 66년 3월말까지 도합 42,000개를 製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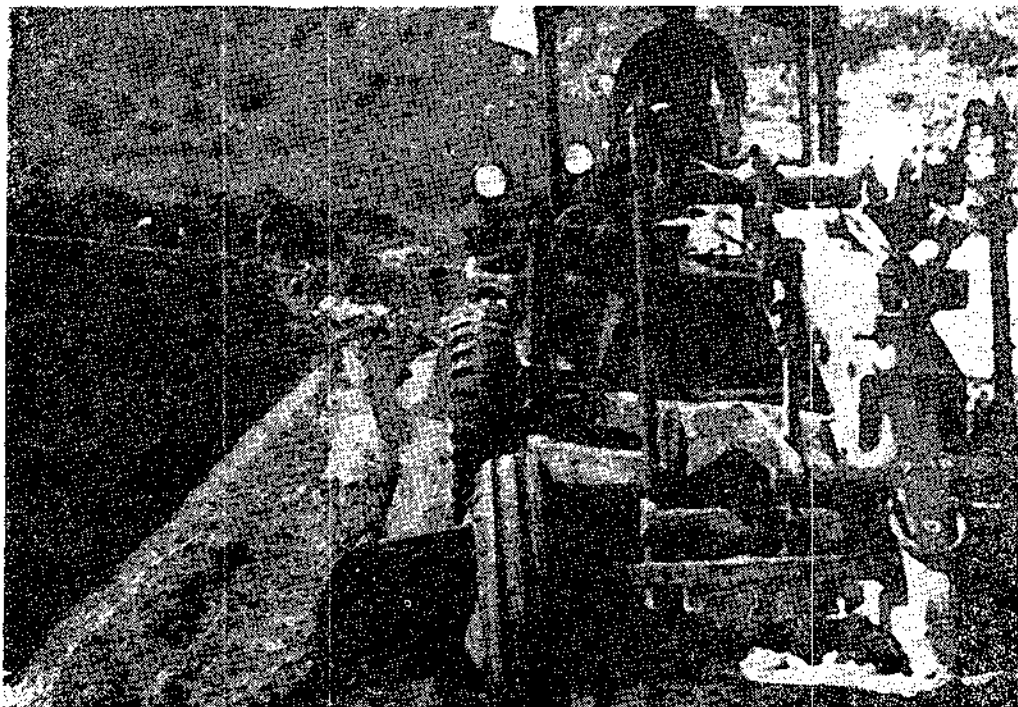
그런데 대대가 製造한 “시멘트부르크”는 越南産 “부르크”(구멍이 뚫리지 않은 모양으로 되었음)에 比하여 越等하게 品質이 좋았으며 이를 부러워하는 越南軍과 地域 주민들에게 技術을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派越초기에는 食糧과 彈藥보급이 우선적으로 支援되었기 때문에 施設자재의 導入은 자연히 지연되었으며 本格的인 시설공사는 66년 後半期 부터 활발하게 進行된 바 66년 前半期 까지는 우선적으로 緊急한 指揮所를 건축하고 점차로 幕舎와 附帶 시설을 推進하게 되었다.

그리고 派越한 뒤 가장 重要한 문제로 擡頭된 것은 給水支援이었는데 特히 乾期를 맞이하여 各부대 基地부근에 水源지가 드문데다가 淨水器具 및 給水 운반차의 不足으로 制限된 給水를 支援할 수 밖에 없었다. 兩期에는 給水에 지장이 없으나 2월부터 8월까지의 乾期에는 降雨量이 月평균 15mm로서 大部分의 河川은 물이 마르므로 貯水池의 확보가 시급하였다. 또한 乾期에는 暴驟로 因하여 飲料水 소요량의 增加와 더불어 飲料水를 저장할 수 있는 Water Bag이 必要하므로 기간중 T/E 131개를 초과한 164개를 보급하였다.

首都사단의 給水所要는 飲料水 1日 1人當 5G/A과 沐浴, 세탁 및 雜用으로 15G/A이 所要되며 1日 平均 300,000 G/A이 必要하였지만 66년 3월말 현재 首都사단 地域內에는 給水場 9개소가 설치되어 그중 5개 給水場은 美제 939공병단에서 運用하는 시설을 共同으로 이용함으로써 給水사정이 緩和되었으나 所要量에는 未達하였다.

地域內에 있는 給水場의 1日 支援능력은 총 200,000 G/A에 불과하므로 결국 1日 100,000 G/A이 不足한 實情이었으므로 이와같은 不足量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軍需支司에서는 乾季에도 충분한 地下水를 얻기 爲한 方案으로 관계부대에 우물을 깊이 파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에 必要한 資材를 供給함으로써 이 工事가 끝나면 給水사정은 좋아질 것으로 展望되었다

이와같이 軍需支司의 예하 工兵은 首都사단 및 海兵 計 2여단의 施設공사와 給水지원을 爲하여 期間中(1965. 11. 1~66. 3. 31) 延人員 26,614명과 “부르도저” 延 292대, Grader Road 延 127대, Grane Shovel 延 98대, “콤부벡샤” 延 65대, “믹서” 延 58대, Loader Scop 延 71대, “담프트럭” 延 3,058대가 각각 動員되어 各種 公사를 실시하는 한편 直接 戰鬥지원도



道路를 개척하는 工兵부대원들

아울러 遂行하였다.

그리고 軍사령부용 施設은 越南軍이 제공케 되었으므로 將校 70명과 사병 160명을收容할 수 있는 사무실과 숙소 및 其他 附帶시설을 포함하여 13개 시설 4,290平方m의 建物を 요청하였다. 이에따라 越南軍계획은 越南軍총사령부 부근에 駐屯하고 있는 特殊부대를 他處로 移動시키고 그 부대가 사용하던 建物 및 營地를 韓國軍에게 提供토록 되었는데 이 施設을 引受할 경우 本館건물은 新築하여야 하며 附隨건물은 大幅的인 修理를 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駐屯中인 越南軍의 移動이 지연됨으로써 工事에 着手치 못하고 임시 조치로 軍사령부는 Saigon에 있는 자유세계 군사지원정책회의(FWMAO) 建物の 4층과 5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將校 宿所는 美軍이 운용하는 2개의 Hotel을 使用하였으나 VC의 “테로” 및 파괴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최소한 3개의 Hotel에 分散 수용할 수 있도록 美軍側과 협조하였으며 士兵 숙소는 Saigon에 있는 美軍 補充隊內에 設置된 天幕을 임시로 사용하였다.

### (3) 兵站勤務 및 其他

兵站근무 : 軍需支司에서는 65년 12월 12일에 沐浴장비를 首都사단에 7대, 海兵 제 2여

단에 2대를 各各 供給하고 各 地域 兵站근무대로 하여금 各 부대를 순회하면서 沐浴지원을 제공한 결과 66년 3월말 현재 延人員 70,000명이 혜택을 입었다.

이 裝備는 移動에 간편하고 設置하는데 不過 30분이 所要되며 장비 자체에 溫水 加熱器가 附着되어 있으므로 冷水 및 溫水 沐浴에 便利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軍需支司는 認可된 洗濯장비의 導入 지연으로 우선 美軍으로부터 裝備 7대를 貸與받아 首都사단 및 海兵 2 여단 地域內에 兵站 세탁정비반을 편성하여 66년 3월말까지 戰鬪요원 및 患者들의 被服 50,000점을 세탁정비 하였다.

**英顯** : 越南에서의 英顯봉송업무는 派越과 동시에 擡頭된 주요지휘관 및 關係참모의 關心 事였으며 軍需支司는 同업무에 對하여 各별한 努力을 傾注한 바 최초로 當면한 문제는 英顯안치소의 위치를 어느 곳에 選定하면 適合할 것인가에 대하여 腐心하였다. 우선 士氣面에 미치는 影響을 고려하여 兵力과 施設이 密集된 場所를 避하여야 하는데 首都사단의 책임지역은 65년 10월까지만 하여도 VC의 中心지역이었기 때문에 安全을 고려할 때 適切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또 韓國軍은 派越할 때 火葬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英顯을 Saigon으로 移送할 때까지 腐敗를 防止하고 安全하게 운반할 수 있는 措置가 필요하였다.

이와같은 難題를 놓고 연구중 同년 10월 16일 Qui Nhon에 있는 美軍비행장내에 설치된 美계 19명침중대 英顯수집소대와 協調한 결과 그들의 管內에 韓國軍의 英顯안치소를 설치하고 冷凍시설도 共同으로 使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軍需支司는 同월 25일 將校 1명과 士兵 12명을 美軍시설에 과견하여 任務를 수행케 하였으며 66년 3월말 현재까지 英顯 175구를 Saigon 近郊의 Tan Sou Nhut에 있는 美軍 英顯수집소로 移送하였다.

한편 軍사령부에서는 屍體를 火葬한 뒤 本國으로 보낼때까지 英顯안치를 위하여 임시로 美軍시설내에 同 安置所를 설치하였으나 그뒤에 韓國軍 獨自로 英顯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英顯의 奉送은 한달에 두번 運航하는 美空軍 定期 항공기편을 利用하였다. 그리고 現地에서의 屍體回收는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과거의 韓國戰爭時와는 달리 識別이 곤란하거나 現地에서 埋葬되는 경우도 전연 없었다.

## 다. 輸 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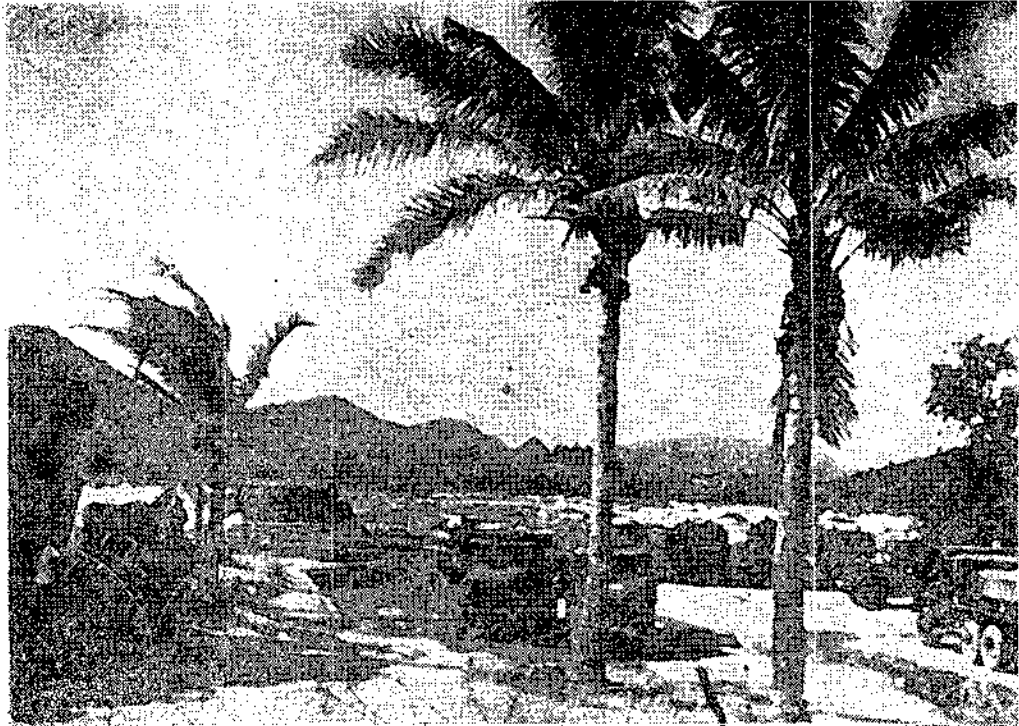
韓國軍에 對한 人員 및 裝備와 物資의 수송은 美·越 兩軍과 同一한 條件 및 우선순위에

의하여 支援되었다. 즉 韓國軍의 부대능력을 초과하는 輸送소요는 越南軍 지역 軍需사령부와 派越 美軍 지역 교통관리대 및 韓國軍부대의 代表間의 協調를 통하여 越南國內의 수송은 美軍의 수송기관을 利用하게 되고 國外 수송 所要는 軍사령부에서 통제하였는데 期間中 陸路에서는 2½ton차량 중 62,940대로서 兵力 169,639명과 貨物 510,200 S/T를 수송하였다. 海上에서는 LST 및 LSM 선박 총 35척으로 貨物 11,285 S/T를 Qui Nhon을 비롯한 Cam Ranh—Vung Tau 등지에 있는 韓國軍부대에 수송하는 한편 항공지원은 “헬리콥터” 및 C-130 수송기편으로 兵力 11,859명과 貨物 21,159 S/T를 수송하였다.

韓國軍이 保有하고 있는 2½ton 차량은 평균 76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不稼動이 月 평균 31대, 整備차량은 月 평균 72대로서 이를 제외한 662대가 항상 지원이 가능하며 日 평균 支援대수는 324대였으므로 支援 능력은 소요의 200%를 확보한 셈이 되어 陸路수송면에 있어서 貯장이 없었다.

作戰지역내의 수송은 陸路, 航空, 水路에 의한 수송수단이 利用되었으며 鐵道수송과 送油管을 설치하여 油類를 보급하는 方法은 “게릴러”의 파괴행위 때문에 利用되지 않았다.

특히 “헬리콥터”에 의한 수송수단은 淸목한 것으로서 韓國軍의 戰術개념에 따라 據點을



출발준비에 분망한 제239 수송자동차대

확보한 各 基地에 對한 補給은 主로 “헬리콥터”에 依存하였다.

期間中 首都사단에 對한 陸路 수송은 延 11,144대의 차량으로서 兵力 34,456명과 貨物 36,347 ton을 수송하였으며 총 運行거리 636,347 km를 走破하고 油類 56,427 G/A을 소모 하였는데 特히 被지원부대의 兵力을 수송중 “게릴라”의 狙擊과 “부비트랩”의 폭발등 갖은 難關이 많았으나 이를 克服하면서 任務를 遂行하였다.

派越 初期에 있어서 韓國軍은 M113 裝甲車를 保有하고 있지 않으므로(追後에 裝備됨)安 全수송에 支障이 많았다. 이와같은 애로를 打開하기 爲하여 제239수송자동차대대는 2½ ton차량 10대를 改造(적재함을 철판으로 막음)하여 兵力의 安全 수송을 도모하는 한편 이 기간에 同 사단은 “헬리콥터” 261대의 支援를 받았으며 貨物 2,532 S/T를 수송하였다.

海兵 第2여단에 對한 수송지원은 자대의 保有차량(2½ton) 149대를 비롯하여 제239수송자동차대대에서 과전된 1개 지원중대(2½ton 차량 60대) 및 Cam Ranh에 위치한 美제10 자동차대대의 支援를 받았는데 기간중 陸路수송은 2½ton차량 延 3059대로서 兵力 24,270 명과 貨物 44,061ton을 수송하였으며 航空지원은 “헬리콥터” 및 C-130수송기로서 兵力 10,562명과 貨物 11,060 S/T를 수송하였다.

한편 韓國軍에 對한 越南 國內 및 韓國으로의 人員 및 裝備의 수송은 韓·美間의 基本約定대로 美軍의 수송기관을 利用함으로써 큰 陸路는 없었으나 全般的인 수송능력의 不足으로 越南 國外로의 航空수송은 1주일 전에 예약을 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越南 國內수송의 경우 출장자의 수는 한달에 平均 520명으로서 日日 平均 15명이 Saigon을 中心으로 Qui Nhon과 Cam Ranh으로 수송되었는데 Saigon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좌석수는 所要를 充足치 못하였으며 事前에 예약을 하지 않는 限 당일에 願하는 항공기에 搭乘할 수 없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72시간전에 所定양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면 指定席을 배당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출장자들은 言語에 能熟치 못하여 旅客안내소에서 수시로 變動되는 상황을 방송하여도 이를 理解하지 못함으로써 指定항공기를 놓치는 事例가 많았으므로 이와같은 不便을 덜어주기 爲하여 軍需支司에서는 66년 2월 1일 부터 Qui Nhon 비행장에 旅行장병 대기소를 설치하고 便宜를 제공하였다.

海上수송은 韓·美·越 군사령부 代表장교로 구성된 海上 수송협조기구(SLCC)를 통하여 조직된 바 韓國軍이 保有하고 있는 海上능력은 LST 1隻, LSM 2隻이며 이에 比하여 美軍은 LST 22隻을, 越南軍은 LST 3隻, LSM 7隻을 保有하고 있어 연합군의 可用한 수송선



은 都合 35隻이었다.

이와같은 수송능력을 保有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기본적으로 越南에서의 급격한 부대 및 보급품의 증장으로 인하여 可用 수송력이 매우 不足한 狀態로서 Saigon 基地廠으로부터 前方 基地廠으로의 수송에 最우선권을 부여 받았을 경우 申請으로부터 획득까지는 최소한 10일간이 所要되었다. 그런데 基地廠으로부터 前方廠으로의 推進은 美軍 또는 越南軍의 소관이므로 軍사령부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韓國軍用 裝備 및 보급품 수송을 별도로 관계 기관에 신청하여 우선권을 얻는데 힘쓰는 한편 可能한 限 韓國 海軍의 往來선박(LST-1, LSM-2)을 이용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며 그리고 本國으로 부터 支援되는 일체의 수송 방법을 韓國軍이 위치한 Vung Tau-Saigon-Quy Nhon-Cam Ranh港으로 直送하여 주기를 바랐다.

차량가동현황 : 별지 #15

수송실적(총괄) : 별지 #16

월별 육로수송지원현황 : 별지 #17

#### 다. 醫療 및 後送

軍需支司의 可用한 의료기관은 제 6 후송병원과 제 1 치료중대로 區分되는데 제 6 後送병원은 침상 400대를 갖추고 首都사단을, 제 1 치료중대는 침상 240대의 시설을 具備하고 海兵 제 2 여단을 各各 支援하였으며 本國으로의 환자 後送은 60일 이상의 治療를 要하는 患者에 限하였다.

제 6 後送병원으로 부터 환자를 後送하는 절차는 Qui Nhon에 있는 美제 85 후송병원으로 後送을 요청하면 24시간내에 요청기관에 後送 日字를 회신케 되어있으며 제 1 치료중대는 환자의 대부분을 제 6 後送병원을 거쳐 후송하였는데 상황에 따라 Nha Trang에 있는 美제 8 野戰병원과 협조하여 本國으로 직접 後送하기도 하였다.

後送경로는 越南에서 Philippines의 Clark空港과 沖繩를 經由하여 本國으로 歸還되며 患者用 수송기는 週 3회 運航되는데 4~5일 소요되었다 이와같은 後送업무를 위하여 軍사령부에서는 Clark空港에 醫政장교 1명을 파견하여 美軍 의료시설에서 韓國軍에 對한 後送 환자 처리업무를 支援하는 한편 軍需支司와의 連絡을 取하게 하였다.

그리고 戰傷환자에게 緊要한 輸血用 血陰은 항상 充分한 量을 확보하고 醫療업무를 遂行

한 바 輸血用 血栓은 本國 및 美軍으로 부터 支援되었으며 제 6 후송병원은 美제 528 移動의 무시험소에서, 제 1 치료중대는 美제 406 移動 의무시험소의 NhaTrang 파견대에서 各各 지원되었는데 65년 10월 부터 66년 3월말 까지의 획득량은 1,365명으로서 전체 所要의 76%를 美軍으로 부터 支援을 받고 나머지는 本國에서 展開한 獻血운동으로 발쳐진 國民의 피로 充當하여 많은 人命을 救出하였다.

한편 韓國軍의 의무시설에서는 예방의무활동에 注力하였는데 越南과 같이 高温多濕한 熱帶性 기후조건하에서는 전염병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派越당시 越南 各處에서는 傳染性 肝炎이 蔓延중이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감마그러빙”을 每人當 5cc씩 접종한 바 이 藥品은 전염성 간염과 그밖의 다른 傳染性 疾病에도 有效한 것이다.

越南에서 戰傷환자의 發生率은 韓國전쟁시의  $\frac{1}{3}$ 에 不過하였으며 反面에 非戰鬪손실은 높은 편이었다. 非戰鬪손실 중에서 대부분이 “마라리아” 및 其他 疾病으로 入院 또는 後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라리아”환자의 後送비율은 美軍의 경우 全 후송환자의 51%를 차지한데 反하여 韓國軍은 17%에 不過하였다.

美軍 의무기관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VC의 全 兵力중 60%이상이 “마라리아”환자로 推定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노획된 의무보급품의 대부분이 “마라리아”를 治療하기 위한 藥品으로 알려졌다.

血栓 획득현황 : 별지 #17

환자현황(首師) : 별지 #18

환자현황(海兵) : 별지 19#

### 3. 其他 活動

#### 가. 現地 民間人의 雇傭

韓·美 兩國의 軍事실무자 간에 署名한 約定書에 따르면 韓國軍이 派越하는 즉시 부터 越南人 노무자, 통역관, 其他 필요한 特技者를 고용할 수 있으며 所要되는 經費는 美軍이 부담키로 되었다. 過去 韓國전쟁 당시에 美軍의 전투사단은 2,000명 규모의 韓國人 勞務者들을 고용하였으며 1개 공병대대를 支援하기 위하여 700명의 勞務대대를 운영한바 있었다.

그뒤 韓國軍도 休戰직전에 勞務부대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으나 派越하여 막상 勞務者 고용을 위한 所要판단과 운영계획 수립에 着手하였을 때에는 뚜렷한 기준과 所要의 근거를 美軍에게 제시하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이에 軍需지원사령관 李範俊 준장은 참모들에게 判斷의 기준을 지도하면서 勞務者 所要판단에 着手케 하였으며 65년 11월 8일에 최초계획을 完成하고 이에 對한 豫算조치를 요구하는 公文을 派越美軍사령관에게 송부하였는데 이때에 美軍側에 제시한 勞務者는 1日 평균 513명이었다.

그뒤 너무나 狀況이 緊迫하였으므로 美軍側의 예산책정 通報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同년 11월 20일을 期하여 日日 평균 100명의 勞務者를 채용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勞務者 소오의 增加에 따른 조치로서 美軍側에 일일 563명을 追加로 요청하였다.

이와같은 要求에 接한 美軍은 12월 中旬부터 所要의 妥當性을 검토하기 위하여 派越美軍사령부 군수참모부 소속인 Burnet 소령을 軍需지원사령부에 보내어 合同으로 現地를 踏査하면서 實態를 조사한바 당시 군수지원사령부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列擧하여 所要의 妥當性을 주장하였다.

첫째 : 사단 및 軍需支司 이하 軍需부대는 越南의 地理的 戰術的 특수성에 對한 고려없이 부대를 편성한 까닭에 現地에서의 人力 운영상 큰 차질을 가져왔다. 즉 軍需지원부대는 本然의 任務外에 基地건설을 併行하고 있으며 또한 편제상 자대 警戒병력이 認可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공병이 戰術임무에 投入되었다.

둘째 : 최초 부대편성시 人員의 過少책정 또는 누락된 것을 現地에서 발견하였다.

셋째 : 兵站군부대는 편제상 追加의인 勞務제공을 必要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네째 : 사단은 正規戰보다 7배나 되는 廣大한 戰術책임지역내에 分散 배치되어 있으므로 軍需支援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다섯째 : 사단 戰術책임지역내에는 60,000명의 失業者가 있다. 이들의 一部라도 고용함으로써 越南당국의 평정계획 推進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여섯째 : 隣接한 美기갑사단은 상당한 수의 勞務者를 고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장이 派越 美軍사령부에서 派遣한 現地 踏査官을 통하여 66년 1월 6일 美軍側에 전달되었으나 同월 29일 까지 예산책정에 對한 回信이 없었다. 이에 軍需지원사령관 李範俊 준장은 1월 30일 派越 美軍사령부 참모장에게 勞務者 예산 책정을 중용하는 書翰을 보낸바 있으며 그뒤 2월 16일에 이르러 비로소 일일 1,076명의 日用 勞務者와 長期고용 勞

務者에 對한 예산 1,265萬 “피아스타”가 策定되었다.

이리하여 軍需支司는 每日 現地에서 勞務者를 고용하여 建設, 荷役, 道路정비 등에 投入 하였으며 部隊 주변의 마을사람들에게 生計에 도움을 주는 한편 民事심리전에 參與케 하였다.

## 나. 作戰 支援

### (1) 在求戰間 支援

首都사단 전술책임지역(TAOR) 北쪽에 있는 제 1번道路의 警戒를 담당하던 越南 제22사단이 「White Wing (Bong Son)作戰」에 參加함에 따라 이 任務를 제 1연대 제 3대대가 引受케 되었다.

그러나 同 대대의 兵力으로서 任務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사단에서는 軍需支司의 여하 公병대대에서 1개 中대를 차출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軍需支司 명령 제 3호(66. 2. 3)에 의거, 제103공병대대 제 1中대를 2월 4일附로 제 1연대에 배속하여 2월 4일부터 3월 1일까지 26일간에 걸쳐 Van Thuan—Kien (4)에 이르는 區間의 道路 警戒 및 보수를 하였으며 2월 16일에는 道路 정찰중 VC이 매설한 “부비트랩” 15발을 除去하였다.

### (2) 猛虎 5號 作戰 支援

軍需支司 작전계획 제 1호(66. 3. 17)에 의거하여 제103공병대대장 梁在佑 中령은 增強된 2개 公병중대를 거느리고 3월 23일 부터 展開한 猛虎 5호 作戰에 參加하였다.

同 부대의 任務는 步兵을 지원하기 위하여 進入路를 개척하고 道路를 보수하는 것이었는데 作戰間 公병은 敵의 抵抗을 무릅쓰고 重裝備 延 21대, “담푸트릭” 120대를 投入하여 道 합 13km의 進入路를 개척하였다.

## 다. 部隊 教育

軍需支司 교육작성 제12호 (65. 11. 15)에 의거하여 各 부대는 軍需지원업무 遂行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指揮官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다.

일반학, 화기학, 전술학, 기타 예비시간을 포함하여 총 176시간을 배당하였으며 遊擊 및 對 “게릴라”戰을 비롯한 분, 소대 전술과 政訓교육에 力點을 두는 한편 現임무 수행에 필요한 MOS교육을 반복 실시하였다.

그리고 自體방어 및 偵察과 基地주변에 對한 探索에 있어서 現地실정에 알맞는 사격술이 요구되었으므로 軍需支司는 簡易 전투사격과 接敵이동 사격술을 발전시킨 결과 예하 각부대의 平均 사격수준은 76%에 도달하였다.

#### 다. 民事 心理戰

軍需支司는 직접 戰鬪부대를 지원하는 後方 軍需지원부대이기 때문에 餘暇를 얻어 對歐 사업을 하기에는 좋은 條件下에 있었으므로 각 예하부대로 하여금 民事심리전을 展開토록 하였다.

同부대가 맡은 對民事業 地域은 Phuoc An—Phuoc Long—Phuoc Thanh 3개 面의 14개 마을이며 地域內에는 4,582세대가 살고 있는데 住民의 총수효는 15,410명이었다.

住民들의 대다수가 文化的 혜택을 받지 못한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와같은 점을 勸索하여 對民事業의 제 1步로서 展開한 것이 1日 補給되는 白米에서 1人當 100~300g을 節約 備蓄하였다가 食生活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供給하였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65년 12월 1일부터 66년 3월 말일까지 隣近 마을 사람들에게 총 21회에 걸쳐 白米 21,000kg, 食油800 G/A, 밀 9,000 kg을 기증하였는데 이는 전체 마을에서 10%에 해당되는 極貧者 360世帶에 對하여 每世帶당 平均 60kg의 쌀을 나누어 준 셈이다.

그리고 66년 2월 24일 10.00에 제239수송자동차대대 廣場에서 救護米 55,000kg을 首都 사단장이 직접 越南 政治심리전국장 Cao에게 傳達하는 기증식을 가졌으며 Cao는 이날 12.00에 Van Hoi 避難民에게 이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隣近 마을 사람들과 兵士들간에 對話가 오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오로지 韓國軍의 禮儀 바름에 感化된듯 그리고 식량을 절약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준데 연유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더욱이나 皮膚色이 같은 東洋人이며 歷史的인 背景, 그리고 오늘에 處한 두 나라의 運命이 서로 一致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곳에 와서 不過 3個月 남짓하여 10餘年이나 이나라를



Binh An 마을에서 극빈자들에게 구호양곡을 분배하고 있다.

돕고 있는 美軍들도 아직 이루지 못한 親善 紐帶가 한국군과는 크게 強化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現地 주민들과의 관계가 가까와짐에 따라 兄弟姉妹로서의 結緣의 必要性을 느꼈고 특히 제10병기중대와 맺은 姉妹마을 村長의 간곡한 要請으로 첫 行事를 가졌다.

즉 66년 1월 13일 Phuoc Thanh面 Binh An (1)에서는 村長 Dan De (33세)를 비롯하여 1,200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제10兵器중대와 的 姉妹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行事에서 중대장 劉原洙 소령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兄弟姉妹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극진히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다.」라고 말하였으며 村長은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였던 韓國軍이 이처럼 世界에서 제일 용감하고 예의바르며 훌륭한 줄은 몰랐다.」라고 答辭를 하면서 韓·越 紐帶강화에 앞장 설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1월 14일에는 Binh An (2)와 제239수송자동차대대등 4개 부대가 隣近마을과 姉妹결연을 맺고 서로 物心兩面으로 도와 주었다.

그리고 醫療진료반이 姉妹마을을 巡回하면서 罹患者를 돌보아 주었다. 각 마을에 진료반자가 定하여져 있어 赤十字 完장을 두른 위생병이 나가면 住民들이 모여들어 인사하면서

歡迎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對民진료는 4개월 동안에 外科 1,230명, 內科 2,400명 도합 3,630명에 達하였으며 특히 心理戰 活動에서 映畫상영은 큰 效果를 거두었는데 戰亂으로 10餘年間이나 映畫를 보지 못하였고 더우기 10歲 이하의 어린이는 도무지 映畫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나라와 越南의 文化映畫 그리고 VC의 手記, 기록映畫, NEWS 및 韓國의 재건상 등 教養과 오락을 中心으로 上映하였으며 1주일에 한번씩 10개 마을을 순회 상영하여 총 42,000명이 觀望하였다.

한편 地域內에 있는 學校와 姉妹결연을 맺고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軍需支司와 인연을 맺은 學校는 Qui Nhon 사범학교를 비롯하여 佛敎중학교, Binh An과 Phuoc Thanh 兩國민학교가 있는데 佛敎학교에는 학생 400명중 불우한 학생이 많이 있었다. 이에 우선 불우학생 50명을 選拔하여 개인당 每月 白米 10kg을 지급하였으며 學校시설을 補修하여 주고 또한 운동장을 建設하였다.

그리고 Qui Nhon사범학교에는 학생 700명중 기숙사 생활자가 300명이 있음에도 운동장이 狹小하고 오락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와같은 不便을 덜어주기 위하여 軍需支司의 命하 제103공병대대는 同 學校시설의 補修 및 운동장 확장과 배구장을 마련하여 주고 또 태권도를 보급하였다.

한편 국민학교에 어린이 놀이터를 建設하여 주고 學用品을 支援하는등 多樣한 활동을 벌였다. 이밖에 興農대회를 열어 탈곡기를 기증하고 農事시험과 지도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敬老會와 機關長회의 및 종교인 초청등 친선행사를 가짐으로써 短時日내에 현지 주민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이와같이 不過 3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越南人과 친선유대를 강화한 것은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全將兵이 民事심리전요원으로 활약하였기 때문이다.

대민지원 총 물자량 : 별지 #22

인원 및 장비지원 현황 : 별지 #23

대민 진료 인원 : 별지 #24

## § 參戰者의 證言

## 派越 韓國軍사령부 군수참모 安宗勳 대령

(1978년 5월 30일 국방부 조달본부장실에서, 당시 소장)

派越 韓國軍에 對한 軍需지원은 韓·美·越 軍 事실무자 約定書에 準하여 美·越 兩軍으로 부터 各各 支援되었다. 越南軍으로부터는 白米와 食鹽 그리고 舊型의 共通 사용장비품 즉 舊型차량을 비롯한 MI, CAR소총의 수리부속품 및 彈藥 등 越南에서 美軍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越南軍시설에서 支援되고 其他의 모든 補給品은 美軍으로부터 그들과 同等한 條件 및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供給되었다.

그리고 本國으로 부터는 된장과 고추장 其他 特食品이 補給되었다.

이와같이 美·越 兩軍의 支援물자와 國內조변 물자로 區分되어 各各 相違한 보급계통으로부터 支援되었고 輻輳부문에 있어서도 越南軍은 兵科別 개념에 의거하여, 美軍은 기능별로 통합된 物資지원개념에 따라 運用됨으로써 補給去來는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多樣한 補給 根源과 상이한 美·越지 원계통에 의하여 支援됨으로써 補給根源上 단일화된 지원체계는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高度로 발달된 美軍의 최신통신 및 수송지원 수단의 活用은 效果的으로 所要의 物資를 요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뢰성 있게 지원할 수 있었다.

나는 최초 軍사령부 군수참모로 在任中 隷下부대의 不足장비 補充과 아울러 越南戰의 特性에 알맞는 裝備表의 修正과 作戰부대가 긴급히 所要되는 軍需물자를 美軍과 교섭하여 Saigon 廠으로부터 Qui Nhon과 Cam Ranh 廠으로 推進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裝備인가표의 修正은 3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이는 派越 당시 國內사단의 裝備인가표에 依한 장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전투부대가 現地에 도착한 뒤 作戰임무를 遂行함에 있어서 이러한 裝備을 가지고서는 作戰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없다고 判斷되었다.

예를 든다면 高溫多濕한 越南의 氣候조건하에서 兵營생활을 하려면 야전침대와 Air Mattress (고무침대), 모기장, 선풍기, Air Condiutionor (고급사령부 및 병원용)이 있어야 하고 또 個人장구에 있어서도 “정글”靴 및 수통등 各 1개를 가지고서는 不足하므로 各各 2개로 늘리고 其他 現地の 실정에 맞는 裝備를 追加로 査定하여 補給 지원하였다.

그리고 韓國軍이 派越 당시 越南戰은 擴大一路에 있었으므로 부대 및 補給品의 소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연히 輸送능력이 不足한 실정이었으므로 Saigon의 美 基地廠에는 滯貨物이 急増하였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供給을 要하는 韓國軍用의 裝備 및 보급품을 수송하여야 하는데 Saigon 기지창으로부터 前方 기지창으로의 수송에 최우선권을 부여 받았을 경우 신청으로부터 인가되기까지는 최소한 10일이 소요되었으며 더우거나 이러한 輸送은 美軍 또는 越南軍의 소관임으로 그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와같은 애로를 打開하기 위하여 軍사령부에 서는 별도로 美軍과 接觸하여 可用한 海, 空軍의



도움을 받아 緊要物資를 적시 적절하게 支援함으로써 首都사단 및 海兵 제 2여단의 對한 作戰임무를 뒷받침하였다. 特히 軍需지원업무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업적은 美國의 資金으로 國產 被服과 韓國 口糧을 本國에서 조변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輸出增進에 크게 寄與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軍사령관 蔡命新 소장과 軍需지원사령관 李範俊 준장 두분의 努力이 컸으며 美軍과의 교섭

과정에서 얽힌 逸話는 非-非再하였을 것이다.

만약에 당시 우리나라의 產業이 오늘날과 같이 發達된 여건하에 있었다면 더 많은 國產品이 越南에 進出되어 우리나라의 經濟版圖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더우기나 66년도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고작 255,751,000弗의 수출선에 있는 실정으로서 國產 被服과 K-Ration의 本國조변으로 年間 50,000,000弗 이상의 外貨를 획득한 것은 國家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인사참모 吳 滋 福 소령

(1978년 6월 10일, 국방부 방위산업 제 2국장실에서, 당시 준장)

군수지원사령부는 首都사단과 海兵 제 2여단의 戰鬥부대 派越이 決定됨에 따라 이들 부대에 對한 군수지원임무를 띄고 65년 9월 1일에 洪川에서 首都사단 예속부대로 창설되었다.

派越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육군본부에서는 사령관을 포함한 기간요원 27명을 前언통신문으로 首都사단에 集結시켜 人選에 着手케 하였다.

당시 나는 人事참모로서 1개월반 동안에 7개 병과의 19개 부대를 편성하였는데 이 경험이야말로 참으로 所重한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나의 任務遂行에 큰 도움을 주었다. 부대창설에 經驗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업무야 말로 복잡하고 努力과 熱誠 그리고 忍耐없는 감당할 수 없다. 하물며 19개의 軍需 및 行政부대의 편성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었다.

당시 편성에 있어서는 母體부대가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로 區分되었는데 母體가 있는 부대일지라도 새로 創設하는 것과 다를바 없었다.

왜냐하면 우수한 將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성부대의 兵力을 交替치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에도 수백명의 轉出入이 있었고 또 補充된 要員이 不適格者로 判明되어 原隊에

復歸시키는 경우가 許多하였다.

특히 운전병과 重裝備의 조작병으로 充員된 兵士들의 대부분이 C, D급으로 分類되어 다시 돌려 보였으며 최종적으로는 陸軍본부의 各局長 및 監의 책임하에 지시를 下達하여 우수한 人員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人事명령이 육군본부와, 1군사령 부간에 중복되고 또 직접 充員지시에 따라 부대명령을 持參한 兵士들이 집결하는 등 二重 三重으로 얽혀 실제병력과 日報上의 차이가 하루에 최고 300명線에 이를 때도 있었다. 또 充員된 人員은 電文에 의거하여 부대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給食 및 行政上 혼란을 빚기도 하였으며 이밖에 부대정결과 裝備현성동 슬한 產苦끝에 부대창설을 마무리하고 派越하였다.

現地에 上陸한 뒤에는 將兵들의 士氣 및 福祉향상에 努力하였으며 派越기간중 가장 인상에 깊었던 것은 現地에서 就業알선과 PX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將兵들의 士氣 및 福祉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들 수 있는데 이 두가지는 經濟的인 側面에서 國家이익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思料된다.

최초 派越당시에는 PX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現地の 실정을 모르는데다가 作戰형태가 어떻게 展開되는지 예측할 수 없었고 또 4~5개월간은 基地건설에 바빴으므로 美軍의 PX를 이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생소한 地域에서 兵力의 유통은 위험하므로 外出을 制限하였다. 그러나 점차 秩序가 확립되면서 부터 韓國軍도 自隊에 PX를 설치하여 장병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었다.

그런데 出國당시 우리나라의 Crown 맥주회사로부터 依託판매요청을 받은 國產맥주가 우리의 將兵들은 물론 美·越軍과 現地 住民들로부터 좋은 物品으로 評價되어 그뒤 國內의 OB맥주회사에서 納品하였다.

이와같은 것을 勘案하여 國產담배와 服地, 라면, 其他 日用品을 本國에 요청하는 한편 美軍과 절충끝에 美軍의 PX기관은 韓國軍의 嗜好品 10개종류 범위내에서 駐韓 美購買處(KPA)로 부터 國產 物品을 조달하여 韓國軍 PX에 供給케 되었다. 그뒤 國產品 納品の 倍增과 더불어 美軍에 納品하는 문제도 推進하였다. 그리고 軍服務를

滿了한 兵士들 가운데 技術을 갖고 희망하는 者를 現地에서 除隊시켜 越南에 進出한 韓國 및 外國 業體에 就業을 알선하였다.

이 制度는 李範後 准將의 創案으로 이루어졌고 고용회사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그 까닭은 費用의 節減과 우수한 技術자를 확보하는 一石二鳥의 所得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例를 들어서 1年을 계약한 技術자들이 歸國하게 되면 本國에서 充員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旅費의 支給과 現地에 도착한 뒤에는 일정기간 現地사정에 적응케 하기 위하여 訓練을 시켜야 된다.

그러나 現地에서 除隊한 兵士들을 고용할 경우는 이와같은 부담이 없고 現地의 실정을 熟知하고 있으므로 고용일로부터 즉시 能率的으로 일울 수 있다는 조건에서 볼때 회사측은 큰 利益이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外貨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國家의 利益에도 符合되었다.

이와같이 軍需지원사령부에서는 本然의 任務인 軍수지원과 더불어 現地 계대자에 對한 사회보장책, 그리고 韓國人 技術자 및 業體의 발전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支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國家경제발전에 도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 보급정비참모 金尙憲 中령

(1978년 6월 10일, 국방부 방위산업 제2국장실에서, 당시 준장)

首都사단 主力이 派越하기전인 65년 9월 15일 李範俊 准將을 단장으로 한 계획단이 越南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韓·美·越 軍事실무자 협정을 매듭짓고 本隊 도착시의 諸般 軍需지원문제와 首都사단의 위치선정 및 수용계획등을 준비하였다. 당시 나는 軍需支司 보급 정비처장으로서 계획단장을 隨行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일들이 記憶에 새롭다.

최초 계획단이 Qui Nhon에 도착한 다음 美軍 需지원사령부에 본부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

였다.

韓國軍에 對한 軍需지원관계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原則的인 문제는 합의되었으므로 계획단 으로서는 細部的인 실천사항을 現地에 있는 美·越 兩軍사령관과 최종적인 約定을 매듭짓고 그 다음부터는 首都사단사령부 및 軍需支司의 위치를 選定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美 연락장교 Roze 대령과 같이 圖上연구와 地上 및 空中정찰끝에 Phuoc Thanh 一帶를 지정한 다음 美海兵에게 作戰을 의뢰하여 증강된 2개중대 규모가 投入

되었다.

당시 Qui Nhon市를 제외한 나머지 地域은 전부 VC이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이 수반되었으나 이에 介意치 않고 戰鬪지역에 나아가 美軍들을 격려하면서 地形을 정찰하였다. 그때 여러 번 敵의 狙擊으로 위험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1주만에 걸쳐 地域內的 VC을 剿滅한 다음 직접 現地를 踏査하면서 各部處 및 各 근무대가 들어갈 곳을 選定하고 美공병대에 敷地공사를 의뢰하여 기초공사를 마쳤다. 이것은 여담이지만 李範俊 장군은 軍需面에도 밝지만 山水地利에 明瞭한것 같다. 그분이 追後에 제 9사단과 제 100 軍需사령부(Nha Trang) 및 派越 韓國軍 前方지휘소의 위치를 選定하였으며 이 모두가 戰術적으로 그리고 行政的이며 또 韓國의 일을 심는데 있어서 매우 適合한 위치였다고 定評이 높았다.

특히 Nha Trang에 있는 前方지휘소의 위치는 당초 “카토릭”제통의 中학교인데 여기가 가장 좋다고 判斷되자 학교장을 찾아가 說得하였는데 自尊心과 排他性이 强하다는 그들이 선듯 우리의 요구에 同意하였다는 逸話는 유명하다.

現地에서의 補給사정은 매우 좋은 편이었다. 越南에서 외롭게 싸우던 美軍이 더우거나 血盟으로 맺어진 韓國軍이 派越되자 美軍은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또 우리가 要求하는 것이라면 최대의 誠意를 가지고 支援하였다. 따라서 充分한 補給品을 美軍으로부터 획득하여 適時 適切하게 被지원부대를 支援하였다. 특히 韓國軍은 派越 연환군중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싸우는 軍隊라고 名聲이 높았다.

그 까닭은 세계에서 제일 잘먹는 美軍보다도 韓國軍은 越南軍에서 供給되는 白米를 하루에 800g를 더 取食하였고 戰果面에서 그들보다 上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軍需지원업무중에서 米

농을 수 없는 큰 成果는 國產 被服과 韓國 口糧을 國內에서 調辨 공급하여 年間 50,000,000菲이상의 外貨를 획득함으로써 國家경제발전에 寄與한 것이다.

이는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裏面에는 善한 逸話가 있으며 이 문제가 실현되기까지는 軍사령관 蔡命新 소장과 軍需지원사령관 李範俊 준장의 努力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상황을 簡略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韓國軍이 越南에 派兵되자 장사 속셈에 약삭빠른 日本人들은 韓國軍이 着用할 軍服과 韓國人 特有의 嗜好식품인 김치를 派越 美軍司에 納品하려는 情報를 入手하고 즉시 이를 蔡命新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本國에 반영하여 國產品 개발을 서둘르게 하면서 美軍으로 하여금 駐韓 美購處(KPA)에서 國產品을 조변 공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美軍은 韓國 産業의 後進性을 이유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뒤 여러가지 迂餘曲折 끝에 美軍側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國產 피복과 韓國軍의 口糧(K-Ration)을 本國에서 조변하여 韓國軍에게 供給케 되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의 産業시설은 後進性을 빚어나지 못한 까닭에 桶조림이나 軍服을 제대로 製品하는 시설이 흔하지 않았다.

國內에서는 桶조림 製造業으로 손꼽히는 韓國 綜合 식품상사에서 K-Ration을 개발케 하였는데 이 製品을 美國에 보내어 衛生검사를 한 결과 罐동에 녹이 썩고 內容物이 불결하여 不合格 통보를 받았으며 재차 品質을 改良하여 겨우 合格하였고 被服의 경우도 初度보급품은 染色이 褪色되는 등 品質이 좋지 않았으나 國產品이라는 自慰로 즐겨 입었다. 追後 점차로 品質이 向上되었으며 外貨를 더 획득코자 보충보급율을 높이고 磨耗率 미달품을 폐품처리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

이 많았다.

한편 軍需支司에서는 越南에 進出한 韓國人 기술자 및 業體들을 힘껏 도와 주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外貨가 祖國의 경제발전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國內 屈指의 企業體 가운데에는 越南에서 많은 外貨를 벌어들여 크게 成長한 企業體들이 많으며 그들은 그들 自身の 努力으로 發展되었다고 自處하지만 在越中 韓國軍의 後援에 힘입은바 컸을 것이다. 즉 韓國軍이 派越하였기 때문에 많은 韓國 業體가 進出하였고 우리가 架橋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쉽게 美軍과 접촉할 수 있었

으며 또 情報을 신속히 入手하여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他國의 商事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순수한 民間人 자격으로 美軍과 접촉하려면 1주일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中間에서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즉시 만나게 하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알선하여주는 등 우리나라에 利益이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이와같이 軍需支司는 本然의 任務인 군수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側面에서 國家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自負하는 바이다.

### 민사참모 金 洛 濟 중령

(1978년 6월 10일, 국방부 방위산업 제 2 국장실에서, 당시 대령)

65년 10월 24일에 Qui Nhon에 上陸하여 제 1 陣道路를 따라 西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駐留地까지 차량으로 移動할 때에 道路 兩쪽에 늘어서 있는 越南民은 지극히 無表情하였으며 지루한 戰爭에서 시달린 탓인지 또는 季節의인 더위 때문인지는 몰라도 國家復興과 民族장래를 위한 國民의 자세가 결여된듯이 보였다. 勿論 皮相의인 순간적 관찰로 速斷을 不許한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보더라도 이들은 오랜 歷史를 통하여 外勢의 침략속에서 살아왔고 또 駐留지역이 바로 어제까지 VC의 支配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自己를 나라를 등고자 派兵된 韓國軍에 아무 關心조차 없는 듯이 보였다.

부대 宿營地가 決定되고 얼마 있다가 한 村長의 協助를 얻어 Binh An이라는 가장 가까운 마을을 둘러 보았을때 돌아 본 22世帶중 거의가 虛弱한 사람들과 病者였고 그리고 來日을 위한 아무 意慾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

肥沃한 畝은 農土와 2毛作, 3毛作의 땅을 가지고 이저법 굶주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文化

시설과 醫療시설의 缺乏을 받지 못하고 많은 子息들만 거느리고 힘없이 延命하게 만든 이나라 政府의 處事가 도시 한심하다고 느껴졌다.

우리는 여기서 韓國軍의 派越한 意義와 戰鬪부대가 지닌 本質의인 使命에서 볼때 直接 敵과 對峙하여 VC를 擊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戰線없는 戰鬪터, VC이 수시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濫床地, 그리고 그들의 甘言利說에 현혹되기 쉬운 이 마을 사람들을 하루속히 越南 정부에 忠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民事 心理戰활동의 전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必然의인 命題를 새삼 認識하여 對民事業을 펼치기로 하였다.

특히 軍需支司는 戰鬪부대를 돕는 支援부대이기 때문에 餘暇를 이용하여 對民事業을 하기에는 條件이 좋았으므로 용기를 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많은 對民지역은 Binh Dinh省 Tuy Phuoc郡 管下 Phuoc An—Phuoc Thanh—Phuoc Lon 3箇面이며 地域內에 散在된 11개 마을과 예하 각 근무대로 하여금 姉妹결연을 맺게 한 다음

對民사업의 제 1步로서 가난한 사람부터 돕기 시작하였다.

1日 보급되는 白米中에서 1인당 100~300g을 절약 비축하였다가 가난한 家庭들을 찾아다니며 救護米를 기증하였다.

이와같이 各 家庭을 방문하면서 現地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가려운데 부터 굶어주었다. 우선 病弱者

를 치료하여주고 公共시설 및 學校를 지어주었으며 親善행사와 敬老會 그리고 興農대회 등 상호간의 관심사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不過 3개월 동안에 現地주민들과 親善유대를 強化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全將兵이 民事 心理戰요원으로 활약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 首都사단 공병대대장 金 一 起 중령

(1978년 5월 22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126번지의 3호 자택에서, 당시 퇴역 대령)

首都사단은 최초 부사단장 李南周 준장으로 하여금 作戰분야를 專擔케 하고 사단의 공병, 병기병참 통신등 軍需기구를 軍需支司에 배속시켜 李範俊 준장으로 하여금 統轄 운용토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사단 공병대대는 軍需支司 예하의 제 103공병대대와 같이 首都사단에 對한 工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海兵 제 2여단에 對한 건설공사는 自隊의 兵力과 首都사단에서 파견한 공병 1개중대가 支援하다가 그뒤 건설지원단에 배속된 海兵隊의 工兵이 배속해제됨으로써 首都사단의 공병은 66년 4월 5일에 原隊로 復歸하였다.

現地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着手한 工事は 美軍과 聯合으로 駐留地에 對한 整地작업부터 시작하였다.

首都사단이 주둔할 地域은 환경사 地帶에 點綴된 “정글”과 논 그리고 濕地등으로 形成된 곳이였다. 可用한 裝備를 총동원하여 道路를 개척하였으며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裝備가 수렁에 빠져 美軍의 戰車를 支援받아 끌어내는등 갖은 고생을 하면서 道路와 비행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營舍를 건립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補給사정은 食糧과 彈藥 및 油類보급이 우선이었으므로 시설자재는 派越한 뒤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導入되었으므로 시설공사

는 자연히 지연되었다.

이와같은 空白을 메꾸기 위하여 우리는 本國에서 가져간 “시멘트 부르크” 製造機 5대를 가지고 45,000개의 “부르크”를 生産하였으며 越南軍 支援用으로 策定된 橋梁자재를 수령하여 이를 製材한 다음 一部는 지휘부 및 통신시설을 건축하였다. 내가 1년간 派越 服務를 마치고 歸國한 때까지 首都사단의 각 참모부 및 식당을 完成하고 將兵의 숙소는 1년뒤에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제 1차 派越장병들은 天幕에서 생활하였으며 피나는 고생과 노력을 하였음은 누구도 否認 못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工兵은 “정글”과 벌판에 길을 닦고 建物를 지었으며 02.00까지 잠을 안자면서 일을 하였다.

이와같이 고된 努力을 하면서도 누구 한사람 不平없이 맡은 바 任務를 遂行하고 戰鬥兵 못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自負하고 싶다.

내가 在任기간중 가장 印象적이었던 것은 對民사업중 Cong De 고등학교와 姉妹결연을 맺고 이 學校를 新築하여주기로 한 것이였다. 起工式에는 사단장을 비롯한 韓·美·越 고위 將星이 參席하였으며 매마침 師團을 방문중인 閔丙權 의원을 비롯한 國營의원과 이를 수행한 記者團 一行이

參席하였다.

行事が 시작되면서 우리의 愛國歌를 제창하였는데 學生 전원이 우리말로 우리의 愛國歌를 우렁차게 불렀을 때 故國에서 來訪한 貴賓들은 너무나 感激에 사무쳐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우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였으며 고생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學校의 正門을 우리나라의 獨立門과 똑같은 형태로 건축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獨立사상을 그들 가슴에 심어줌으로써 越南이 하루속히 統一된 獨立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와같은 象徴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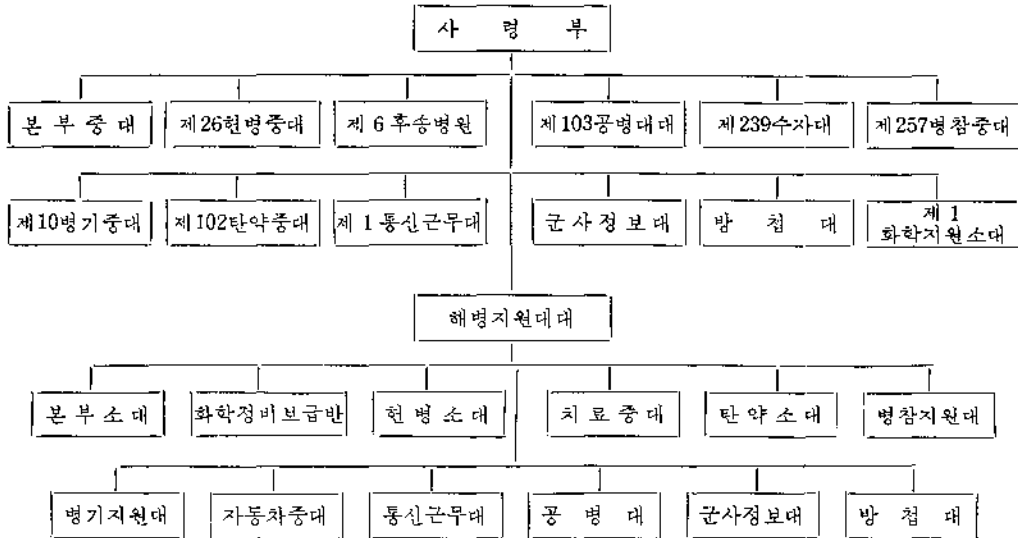
별지 #1

軍需支援部隊의 編成

병 과	전 성 부 대	모 체 부 대
공 병	공 병 대 대 본 부 및 지원 중 대	제1107야공단 제103대대
	담 푸 트 력 중 대	제1802정비보급반 제151담푸트력중대
	야 전 정 비 소 대	제1802정비보급반 제819정비중대
	경 장 비 소 대	제1101야공단 제601경장비중대
	보 급 소 대	제1802정비보급반 제1301중대
통 신	통 신 지 원 대	제95대대 제1중대
병 기	병 기 지 원 중 대	제10병기 직접지원중대
	탄 약 중 대	제306대대 제102탄약중대
병 참	병 참 지 원 대	제3병참단 제16대대
수 송	수 송 대 대	제239수송 자동차대대
화 학	화 학 소 대	제76화학지원중대
후 송 병원	야 전 병 원	제6야전병원
	후 송 중 대	제15후송중대
	치 료 중 대	제1치료중대
	식 품 검 사 반	제19식품검사반
	예 방 의 무 소 대	육본조치(창설)
	의 무 보 급 반	제1의무보급
	의 무 장 비 정 비 반	제5정비대
행 정 및 기 타 부 대	군 수 지 원 사	육 본 조 치 (창설)
	방 칩 대	"
	군 사 정 보 대 현 병 중 대	"

별지 #2

軍需支授司令部 編成表 (1965. 9. ~66. 6. 1)



별지 #3

部隊別 補給水準

종별	구분		군수지사	사단, 해병여단, 전지단사령부, 본, 대, 계 외	연대급	전술기지
	품목					
1	A Ration		10일			
	B Ration		15일			
	C Ration		15일	15일		5일
	백미		15일	15일		5일
2	개인장구류		45일			
	피복류		75일	15일	15일	
	소모품		45일	45일		
3	포장대형유류		15일	15일 (본, 군, 대계 외)	수송부를 운영하는 모든 부대에 비상용 5일분	
4	소모품		45일			
5	탄약		15일	기본휴대량		
8	의무수리부속		60일	60일		
	의무약품		45일			
9	자병과수리부속		60일	60일		

별지 #4

主要裝備 保有比率

(65.11.~66.3 현재)

부대별	구분		화	락	공	병	의	무	병		병	창	통	신	부대	평균
	년	월							기							
									총	포						
首部사단	65.	11	80.3	59	65	82	66	67	81	63	67	73	100	99	88	86
		12														
	66.	1	100	73	82	99	82	92	100	90						
		2	100	80	79	84	82	92	99	88						
		3	100	66	86	86	69	90	100	86						
海兵 제2여단	65.	11	94.1	98	82.5	97.5	91	100	98	94	100	100	100	94	94	82
		12														
	66.	1	100	91	100	97	98	84	100	94						
		2	100	91	100	97	99	84	100	94						
		3	100	61	65	100	65	83	100	82						
건설지원단	65.	11	100	95	86	100	98	92	105	96	92	105	100	99	95	97
		12														
	66.	1	100	100	100	100	98	93	85	92	95					
		2	100	100	100	98	93	85	92	95						
		3	100	100	100	96	88	100	96	97						
평균			95	84	87	94	86	88	97	90						

별지 #5

裝備 補充損失 現況

(1965.11~66.3)

재비명	구분	인가	최초 후대	%	현 지 보 총					현지 손실	현보유	과부족	%
					65. 11 12 66. 1 2 3 계								
					65. 11	12	66. 1	2	3				
차	1/4 ton	341	193	57	20				20		213	-128	63
	4/3 ton	295	254	86				14	14		268	-27	91
	2 1/2 ton	618	580	86				44	16	60	640	+22	104
	5ton	26	5	20				1	1		6	-20	23
	5ton TRL	9	2	22	5				2	7	9	0	100
량	400 G/A TRL	129	0					12	12		12	-117	9
	1/4 ton TRL	131	31	24				56	56		87	-44	66
	1ton TRL	7	0									7	0
총	CAR	9545	9714	102				21	213	234	9948	+403	104
	M1	6558	6626	101	11				131	144	6770	+212	103
	PISTOL	510	478	94	8				10	18	496	-14	97
	BAR	270	270	100					1	8	9	+9	103
포	LMG A4	268	268	100				1	3	4	272	+4	101



장비명	구분	인가	최초대	%	현 지 보 총						현지실	현보유	과부족	%
					65.11	12	66.1	2	3	계				
총	LMG A6	212	212	100					2	2		214	+2	101
	50 MG	152	152	100					1	1		153	+1	101
	57mm	54	54	100					1	1		55	+1	102
	M7 GU	1078	1078	100			4	4		8		1082	+8	101
	M79 GU	267	264	99								264	-3	99
	3.5 R	111	111	100								111	0	100
	106mm R/B	12	12	100			1	2		3		15	+3	125
포	105M RC	54	54	100					1	1		55	+1	102
	M63 각	129	129	100			13			13		142	+13	110
	CAR 대건	9545	4552	48	275	7	216			498		5050	-4495	53
	M1 대검	6558	5713	87	2	406	23			431		6144	-414	94
	M조준경	20	20	100					4	4		24	+4	120

별지 #6

彈藥補給 實績

단위 : ton

종목 월별	CAR 30	CAR 50	CAR 45	60mm	80mm	4.2吋	105 mm	106 mm	155 mm	3.5吋	기타	비고
65.10												34※10월중
11	15.77	0.18	0.61	2.23	16.61	16.14	5.96	1.95	49.93	1.75	9.52	소구경 22ton
12	30.191	2.16	4.87	4.87	25.35	26.84	81.52	15.27	29.43	2.30	3.65	중구경 196"
66.1	136,000	0.22	1.20	1.90	75.09	73.45	26.30	31.47	214	6.89	4.76	대구경 201"
2	516,752	134,000	2,000	31.67	93.03	42.94	252.13	8.44	158.87	0.79	432.84	
3	3.62	1.60	3.1	9.04	39.79	11.22	182.98	5.21	20.30	1.67		각각보급

별지 #7

主要工兵裝備 整備實績

(1965.11.1~1966.3.31)

품목	65.11	12	66.1	2	3	계
부르도저	1	2	1	3	1	8
구레이다	1	1	2			4
콤부맷사	2	1	1	3		7
發電機	6	5	4	15	11	41
充電機	1					1
크레인 20 ton	1					1
트랙타			1			1
로라					1	1
揚水器	1	1			2	4

별지 #8

銃砲 整備實績 (首都師團)

월 별	장 비 별	보 유	실 적	%
65. 11	소 화 기	14, 123	21	0.15
	중 화 기	246	12	5
12	소 화 기	14, 123	25	0.25
	중 화 기	246	10	5
66. 1	소 화 기	14, 055	33	0.23
	중 화 기	246	4	1.6
2	소 화 기	14, 018	74	0.52
	중 화 기	246	11	4.1
3	소 화 기	14, 293	88	0.61
	중 화 기	246	5	2
평 균	소 화 기	14, 122	48	0.35
	중 화 기	246	8	3.5

별지 #9

火砲 整備實績 (首都師團)

월 별	장 비 별	보 유	실 적	평 균
65. 11	105M HOW	36	3	8.3
	155M HOW	12	1	8
12	105M HOW	36	1	2.4
	155M HOW	12		
66. 1	105M HOW	36	3	8.3
	155M HOW	12		
2	105M HOW	36	7	19.4
	155M HOW	12		
3	105M HOW	36	2	5.5
	155M HOW	12	2	
평 균	105M HOW	36	3	8.8
	155M HOW	12	0.6	1.6

별지 #10

車輛 整備實績 (首都師團)

월 별	장 비 별	보 유	입 고	정 부	%	비 고
65. 11	1/4ton 차량	180	45	41	22	포차 8, 구급차 5, 제 13 포함
	3/4ton "	225	29	28	12	앨브란스 28 포함
	2 $\frac{1}{2}$ ton "	580	51	45	8	담부 86, 삼프 17 포함
12	1/4ton "	199	49	46	23	20대 보충, 손실 1

월 별	장 비 별	보 유	입 고	정 비	%	비 고
12	3/4ton "	224	15	14	6	손실 1
	2 1/2 " "	579	39	35	6	손실 1
66. 1	1/4ton "	199	34	29	14	
	3/4ton "	223	13	13	6	손실 1
	2 1/2 ton "	579	59	44	8	
2	1/4ton "	198	56	43	22	손실 1
	3/4ton "	237	30	27	11	14대 보충
	2 1/2 ton "	623	90	62	10	CARGO 44대 보충
3	1/4ton "	198	55	48	24	
	3/4ton "	235	18	14	6	
	2 1/2 ton "	639	57	40	6	CARGO 10대 보충
평 균	1/4ton "	195	48	41	21	
	3/4ton "	229	21	19	8	
	2 1/2 ton "	600	59	45	8	

별지 #11 品目別 主要通信裝備 整備實績(首都師團)

품 목	연 월	65. 11	12	66. 1	2	3	계
RT-67		87	85	54		53	279
RT-68		36	48	30	26	33	173
RT-77		19	22	5	5	5	56
RT-175		56	71	47	52	114	340
RT-176		116	245	99	127	244	831
RT-196		105		170	152	271	698
TA-221		14	61	6	7		88
TA-207		2	1				3
BC-191		10	3	4	1		18
SCR-193		1			2		3

별지 #12 品目別 主要化學裝備 整備實績(首都師團)

품 목	연 월	65. 11	12	66. 1	2	3	계
방 독 면		312	481	122		1103	2018
화 염 방 사 기		1				10	11
공 기 압 축 기		1					1
Mity Mite(噴霧器)						1	1

별지 #13

施設 綜合計劃 (首都師團)

(1) 總括表

연도별	동수	예산(弗)	비율(%)	시공구분
CY 66 시공	600	2,580,000	79	병력 시공 56% 예산 31% 청부 시공 44% 예산 69% 총 소요 인원 1,620,000H/M
CY 67 시공	374	608,000	21	
계	974	3,260,000	100	

(2) 工事所要

시공 단계	총동수 기본 시설 / 기타 시설	총예산액(弗)	시공구분	기본 시설 / 기타 시설	예산(弗)	인력(人時)		비고
						구분	계	
1	365/106	1,695,200 (52%)	병력 청부	178/47 187/59	265.87 1,430,013	370,000	860,000 (52%)	CY 66 시공
						490,000		
2	235/59	863,900 (26.5%)	병력 청부	155/46 80/13	228,014 635,886	190,000	350,000 (26.5%)	"
						160,000		
3	374/12	700,900 (21.5%)	병력 청부	324/12 50/0	517,399 183,501	310,000	410,000 (21.5%)	CY 67 시공
						100,000		
계	974/177	3,260,000 (100%)	병력 청부	657/105 317/72	1,010,600 2,249,400	870,000 (56%)	1,620,000 (100%)	
						750,000 (44%)		

별지 #14

施設 綜合計劃 (海兵 제 2 여단)

(1) 總括表

연도별	동수	예산(弗)	비율(%)	인력(人時)
CY 66 시공	303	865,000	55	350,200
CY 67 시공	265	708,000	45	290,241
계	568	1,573,000	100	640,441

(2) 工事所要

시공연도	총동수	총예산액(弗)	시공구분	동수	예산(弗)	인력(人時)		비고
						구분	계	
66	303	865,000	병력 청부	214 99	259,000 606,000	185,200	350,200	병력시공 53% 예산 30% 청부시공 47% 예산 70% 총소요인원 644,041
						165,000		
67	265	708,000	병력 청부	174 81	213,000 495,000	155,200	290,241	
						135,041		
계	568	1,573,000	병력 청부	388 180	472,000 1,101,000	340,400	640,441	※인력구분은 병력시공과 청부시공으로 분류
						300,041		

별지 #15

車輛稼働現況

(2 $\frac{1}{2}$ ton)

구분 연월	인가	보유	과부족	불가동			가동	장비	배차	대기	비고	
				입고	고장	계						
대별 首領사단	65. 11	702	580	-122	2	20	22	553	41	374	143	대기 차량은 포차 삼차 포함 해병지원 60대 제외  해병 78 전차단 8
	12	702	520	-182	8	9	17	503	43	233	227	
	66. 1	702	506	-196	11	9	20	486	36	251	199	
	2	702	506	-196	19	15	34	472	37	247	188	
	3	702	557	-145	9	13	22	535	41	370	124	
海 제 2 여단	65. 11	150	149	-1	7	1	8	141	56	30	55	
	12	150	149	-1	11	2	13	136	15	21	100	
	66. 1	150	149	-1	2	2	4	145	11	79	55	
	2	150	149	-1	2	2	4	145	11	60	74	
	3	63	63		1		1	62	16	19	27	
건지 원 설단	65. 11	99	99		3	1	4	95	11	44	40	
	12	99	99			2	2	97	13	44	40	
	66. 1	99	99			2	2	97	8	47	42	
	2	99	99			1	1	98	8	64	26	
	3	105	101	-4	3		3	98	11	57	30	

별지 #16

輸送 實績 (總括)

자대/지원

구분 월별	종별	지원대수	병력(명)	화물(S/T)	주파거리(km)	비고
65. 11	육로	11,459/521	24,604/5,379	34,628/2,745	643,644/38,433	육로(2 $\frac{1}{2}$ ton 차량) 수르(LST, LSM) 항공(헬리콥터 C-130수송기)
	수로	3척		1,228		
	항공	319	1,210	8,407		
12	육로	9,131/574	31,088/5,223	78,514/698	540,902/21,572	
	수로	3척		2,177		
	항공	491	4,378	6,309		
66. 1	육로	10,262/	36,982/	66,152/	575,877/	
	수로	4척		3,482		
	항공	1,550	4,841	4,471		
2	육로	11,219/	33,435/	248,554/	526,554/	
	수로	1척		1,574		
	항공	445	525	1,972		
3	육로	19,720/54	32,928	10,530/68,379	93,803/472,904	
	수로	3척		2,884		
	항공	정기항공(월남)	905			
합계	육로	61,791/1,149	159,037/10,602	438,378/71,822	2,380,780/ 532,909	
	수로	9/5		11,285		
	항공	2,805	11,859	21,159		

별지 #17 月別 陸路輸送 支援現況 (제239수송자동차대대)

월 별	구 분 적 재	차 중	
		$\frac{1}{4}$ ton	$2\frac{1}{2}$ ton
65. 11	대 수	83	1,598
	인 원	249	3,406
	화 물 (ton)		6,910
12	대 수	65	1,910
	인 원	129	5,452
	화 물		8,390
66. 1	대 수	42	1,994
	인 원	102	8,735
	화 물		6,147
2	대 수	37	2,780
	인 원	86	9,463
	화 물		8,619
3	대 수	98	2,862
	인 원	294	7,409
	화 물		6,281
합 계	대 수 인 원 화 물	325 860	11,144 34,465 36,347

별지 #18 血栓 獲得 現況

월 별	구 분	美제 406병리시험소	본 국	계
65. 11		126명	75명	201명
12		124 "	126 "	250 "
1		256 "	50 "	306 "
2		281 "		281 "
3		244 "	83 "	327 "
합 계		1,031 "	334 "	1,365 "
%		76 "	24 "	

별지 #19 醫療 및 後送現況(과월군 전체)

월 별	군 별	외래환자	입 원	퇴 원	후 송	사 망	기 간 자 발 수
65. 11	한 국 군	48	384	160	55	17	200
	외 국 군	52	39	25		1	65
	기 타	18	45	34		2	27
	합 계	127	468	219	55	20	292

월 별	군 별	외래환자	입 원	퇴 원	후 송	사 망	기간말환자수
12	한 국 군	200	422	175	41	10	397
	외 국 군	65	27	27	1		64
	기 타	27	28	36			19
	계	292	477	238	42	10	480
66. 1	한 국 군	397	500	296	123	8	467
	외 국 군	64	27	25	2	1	63
	기 타	16	50	33			36
	계	477	577	354	125	9	566
2	한 국 군	467	382	336	110	9	391
	외 국 군	35	42	36	3	3	35
	기 타	64	21	36	2		47
	계	566	445	408	115	12	473
3	한 국 구	391	333	281	94	6	343
	외 국 군	46	18	28	1	2	33
	기 타	36	64	50			50
	계	473	415	359	95	8	426
평 균	한 국 군	301	404	250	85	10	360
	외 국 군	52	31	28	1	1	52
	기 타	32	42	38			36
	계	385	477	316	86	11	448

별지 #20

患者 現況 (首都사단)

월 별	구분	소 속	외래환자	입 원	퇴 원	후 송	사 망	기간말환자수
65. 11	기 타	한 국 군	10	190	49	29	11	111
		기 타		2	1	1		1
12	기 타	한 국 군	111	277	165	29	9	246
		기 타	1	3	1			3
66. 1	기 타	한 국 군	246	290	173	77	4	284
		기 타	3	5	7			1
2	기 타	한 국 군	284	216	156	63	8	273
		기 타	1	4	4			1
3	기 타	한 국 군	273	225	182	68	6	242
		기 타	1	4	3			2
평 균	기 타	한 국 군	185	240	145	53	8	231
		기 타	1	4	3			1

별지 #21 患者 現況 (海兵 제2여단)

구분 월별	입원		퇴원		추송		사망		외래환자	
	입원	퇴원	추송	사망	외래환자					
65. 10	27	12	5		95					
11	67	12	1							
12	84	67	9	1	605					
66. 1	49	36	5		150					
2	77	71	10		198					
3	40	37	6		139					
계	244	235	36	1	1,187					

별지 #22 對民 支援 總物資量

품목	단위	수량	품목	단위	수량
백미	kg	78,000	노트	권	1,540
밀	"	9,000	수건	매	521
식유	G/A	800	연필	본	720
담배	갑	1,690	달력	부	1,620
맥주	병	820	시멘트	포	35
과자	kg	60	함석	매	70
콜라	병	320	케인트	G/A	34
은단	갑	600	기타	점	102

별지 #23 人員 및 裝備 支援現況

구분	Qui Nhou 사범학교	불교중학교	Binh An 국민학교	Phuoc Thanh 국민학교
인원 및 장비				
원 인	640	260	220	240
2 1/2 ton 추력	140	64	30	32
부르도저	7	2		2
로라	3	1		
그레이다	5			
자갈	20		10	10
모래		20	20	21
품	120	54		

별지 #24 對民 診療 人員

구분	내과	외과	계
연인원수	2,400	1,230	3,630



## 第 9 章

# 海軍輸送團隊의 活動

1. 參加艦艇 및 主要指揮官
2. 越南沿岸의 主要地誌
3. 敵의 動向과 聯合軍의 活動
4. 輸送團隊의 全般的인 概況
5. 海上 輸送作戰의 概況



## 第 9 章 海軍輸送團隊의 活動

참조 : 상황도 제 56 호

### 1. 參加艦艇 및 主要指揮官

輸送團隊	사령관	대령	李 應 基	LSM 609艦	장	소령	吳 在 奎
LST 812艦	장	중령	金 三 中	LSM 611艦	장	소령	吳 慶 煥
LST 813艦	장	중령	柳 在 春	LSM 605艦	장	소령	安 泰 暉
LST 807艦	장	중령	韓 弘 錫	LSM 607艦	장	소령	尹 在 民
LST 808艦	장	소령	全 遇 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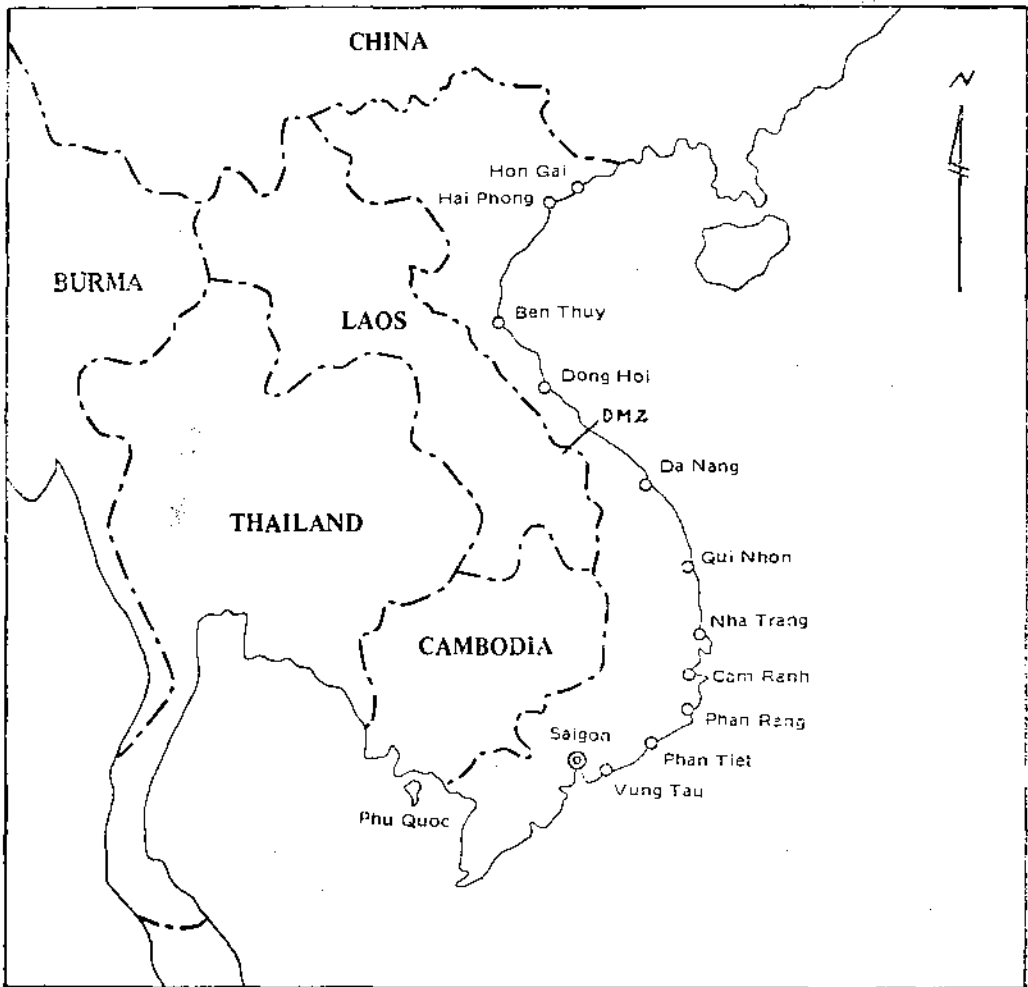
### 2. 越南沿岸의 主要 地誌

INDOCHINA 半島는 Ton Kin, An Nam, Chochin China의 3개지역으로 구분된다. Ton Kin지방은 越盟이 占有하고 있으며 河川中에서는 雲南省에서 發源하는 紅河(Song Koi)가 延長 1,170km로 가장 길고 크며 國境지대의 中, 小, 河川과 합류하여 潔향 및 조류에 의 한 土砂의 운반과 퇴적작용으로 하류沿岸에는 광대한 三角洲(Delta)를 형성하고 있다. Hanoi를 거쳐 Ton kin灣에 이르는 이 江은 黃河보다도 훨씬 깊은 赤褐色을 나타내고 있으며 土砂운반량은 연간 1億3千萬 ton에 달하고 있다. 이 三角洲는 Me Kong江의 그것과 더불어 VIETNAM의 二大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人口가 밀집되어 있다. Ton kin지역에 는 바다에서부터 16km 內陸에 있는 Hai Phong港이 있는데, 越盟에서 군사적으로나 산업 상 가장 큰 항구이다. 이 港口까지의 進입水路는 대형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준 설공사가 必要한데, 1955년 FRANCE軍이 철수하자 이것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港口시설은 철거되거나 파괴되었다.

그러던중 다음해에 이르러 USSR에서 제공된 대규모장비로 준설공사를 再開하여 1957년부터 다시 10,000ton급 선박이 入港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港口의 北東쪽에는 Hon Gai와 Campha의 兩港이 있는데 주로 석탄을 취급한다. 그밖의 主要항구로서는 東쪽에 있는 Ben Thuy港과 Dong Hoi港을 들 수 있으나 400 ton급의 선박이 入港가능한데 불과하다.

다음으로 An Nam지방에 接한 海域을 살펴보면 이곳은 南支那海에 面하고 있는 좁고 긴 地帶로서 An Nam산맥이 INDO CHINA의 北西로부터 東南해안선으로 彎어내려 바다에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Qui Nhon 北쪽과 Tuy Hoa 南쪽의 海岸은 열대성기후와 심한 해양계절풍의 영향으로 거의가 砂丘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모래砂場에서는 키가 작은 雜木과 仙人掌등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으며 季節에따라 오후 한때의 심한 海風으로 砂塵을 일으켜 視界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곳에 있는 주요항구는 北쪽으로부터 Qui Nhon—Nha Trang—Cam Ranh이 있는데 海兵 제 2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Cam Ranh은 두개의 半

狀況圖 제56호 越盟 및 越南의 主要港口



島에 둘러싸여 있으며 어떠한 태풍에도 안전한 避難港이 되어있다. 同港은 1905년 露日전쟁당시에 RUSSIA의 “Baltic”艦隊가 극동으로 航進中에 이곳에 寄港하였다는 VIETNAM唯一의 軍港으로도 알려져 있다.

Nha Trang 역시 海軍 및 空軍기지가 있는 軍港이며 Da Nang港과 더불어 연합軍의 해상을 통한 軍需물자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南으로는 Phan Thiet港과 Saigon의 入口에 있는 Vung Tau港이 있는데, 同港은 Saigon港과 함께 海軍수송단대의 軍需물자 수송에 있어서 제 2의 母港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Chochin China 지방은 VIETNAM의 最南端에 있으며, 4,500km에 이르는 Me Kong江이 Tibet 고원에서 發源하여 LAOS와 THAILAND의 국경을 이루고 다시 CAMBODIA를 가로질러 Chochin China지방의 중앙을 貫流하여 南支那海로 흘러내리므로 河口에는 土砂가 퇴적하여 광대한 三角洲를 이루고 있다. 막심한 土砂로 배워지는 Me Kong江은 船底가 얇은 海軍선박의 航海가 가능하지만 CAMBODIA와 LAOS국경부근의 Kong폭포로 인하여 그 이상 上流로의 航行은 곤란하다. Chochin China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는 Saigon인데 外海에서 同港에 이르는 水路가 험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조류가 강하므로 航行에 지장이 많다.

또한 부두시설이 빈약하여 可用부두 2개소마저 韓·美·越·THAILAND等 4개국 함정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Me Kong江 三角洲의 남단에 있는 Camau 반도는 “정글”로 덮여 있으며 海안선은 무성한 灌木이 지라는 습지대를 이루고 있다. Ton Kin과 북부 An Nam지방은 아열대에 포함되지만 남부 An Nam과 Chochin China는 전형적인 열대성기후권에 속한다.

### 3. 敵의 動向과 聯合軍의 活動

62년 2월 越南에 美군사원조사령부(MAC-V)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원조를 개시한 미국은 자유월남군의 육성과 함께 VC 격멸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63년 11월 越南의 Ngo Din Diem政權이 붕괴되고 수차례 걸친 軍部 “쿠데타”와 政局의 혼란으로 통치능력이 약화되자 中共과 越盟의 강력한 군사원조를 받은 VC은 越南 赤化를 위한 侵透力을 倍增하여 1960년 12월에 VC결성당시에는 2,000명에 불과하던 병력이 4년뒤에는 40,000명에 달하였으며 전

국토의 四分의 三과 人口 800萬을 해방시켰다고 발표할 정도였다. 동시에 越盟해군의 母體를 형성한 海岸保安隊도 조직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반면에 越南軍은 VC과의 거듭되는 전투에서 戰果를 거두지 못하고 戰勢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VC은 越南의 海岸과 河口등에서 대규모로 行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나 그들이 최소한으로 필요로하는 武器, TNT, 전투요원 및 군수물자들을 수송하였으며 이 당시의 해군력은 USSR소속의 驅潛艇 4척과 魚雷艇 12척 및 中共소속의 砲艦 22척과 그밖에 必要한 哨戒艇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내륙의 河川과 沿海에서 我軍항정에 對하여 機雷공격 및 小口徑火器에 의한 기습공격을 자행하였다. 이리하여 64년 8월 2일 美해군 구축함 Maddox호가 越盟의 어뢰정으로부터 공격을 받은것이 도화선이 되어 美軍의 北爆이 시작되는 동시에 越南戰은 內戰의 한계를 벗어나 국제전화하기에 이르렀다. 北爆에 출격하는 美軍 폭격기의 대부분은 Ton Kin灣을 초계하는 제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의 艦載機들인데 파월美해군사령부(CNFV) 예하에는 2개의 기동함대(CTF)를 포함한 9개의 함대가 있으며 구축함을 비롯한 大, 小型 경비함 및 小型경비정의 총수는 250척이다.

이에 비하여 越南해군의 함정 총수는 73척이며 그밖에 450척의 Junk船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상습적인 해상도발 내지는 해상침투에 대하여 美해군은 南支那海를 장악하고 그들의 행동을 制壓하기 위하여 파월美해군사령부 예하에 CTF 115와 116등 2개의 기동함대가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Da Nang과 Saigon에는 각각 해군보급기관인 NSA(Naval Supply Activity)가 있었는데 1개의 건설지원연대와 더불어 兵站지원을 담당하였다. 그밖에도 警戒 임무를 담당한 부대로서 河川 및 港灣방어부대(River and Harbour Clearance Force)와 1개의 港灣방어부대(Harbour Defence Force)가 있었다.

또한 對機雷戰을 수행하는 特殊부대로서 機雷대항전부대(Mine Counter Mersure Force)가 있으며 美해군 고문단에서는 越南해군의 교육훈련은 물론 연합작전수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교환하고 越南해군함정에 美고문관이 직접 승함하여 작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CTF 115예하에는 4척의 초계구축함과 연안 掃海艇 그리고 15척의 美해군연안경비대(USCG) 소속의 고속정이 배치되어 있다. 越南해군에서는 Da Nang—Qui Nhon—Nha Trang—Vung Tau등지에 海岸감시기지를 두고 美해군과 효과적인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는데 掃海艦 또는 고속정 등으로 구성되어 沿岸경비와 河川의 기뢰掃海임무를 원 CTF 116 기동함대에서는 Me Kong三角洲의 모든 河川과 Saigon에 이르는 하천들을 포함한 Rung Sat 특별군사지역(Rung Sat Special Zone)에 있어서 VC의 跳梁을 제압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越南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軍需지원의 일익을 담당한 美海군수송단(MSTS)소속의 艦艇은 日本, Guam島 PHILIPINES의 美海군기지에서 越南으로 兵站물자를 輸送하였다. 이 수송작전은 美海군의 LST함정 10척이 배당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외에도 越南 각항구간의 수송임무를 띄고 20척의 LST함정이 활동하였다. 다음으로 越南해군의 활동을 보면 전해역이 4개의 海軍管區로 구분되어 5~7척의 함정과 5~8척의 Junk船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 海軍管區사령부(Sector Command)에서는 배당된 함정과 Junk船을 지휘하여 해상작전을 수행하고 이들 함정들에 對한 軍需지원도 담당하였다. 그밖에 特殊지역의 海軍부대로 Rung Sat特殊지역사령부(RSSZ—Command)가 있었다.

#### 4. 輸送團隊의 全般的인 概況

##### 가. 人事

1965년 7월 12일 韓國군사원조단으로부터 예속해제되어 海軍수송단대로 개편된 당시의



越南을 向하여 出航하는 장병들

편성은 「수송단대사령부」에 하에 LST 1척과 LSM 2척의 함정이 있었으며 사령부는 將校 23명 士兵 238명으로 구성되어 총원 261명이었다. 그러나 다음해 3월 15일을 期하여 增編되어 수송분대로 부대명을 改稱하게 되었으며 LST 2척이 增加됨과 동시에 人員도 將校 42명 士兵 493명으로 증원되었다.

## 나. 情報 및 保安

해군 수송단대의 정보참모부에서는 초창기의 소규모 編成과 인원의 제한으로 효과적인 정보망을 펼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美해군 정보처와 예속함정의 경험을 토대로한 첩보수집에 依存하였다. 또한 해군본부 및 파월한국군사령부로 부터 示達되는 정보기본요소(EI) 및 기본첩보수집(SRI)에 의거하여 越南 해군정보부와 예속함정에서 업무협조를 받았는데 安全한 수송작전 수행을 위하여 海岸 및 水路정보를 入手하여 함정의 안전항해를 期하였다. 특히 母港인 Saigon으로부터 Vung Tau에 이르는 Rung Sat 특별군사지역(RSSZ)의 水路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水域을 運航할때에는 사전에 많은 첩보를 수집하고 分析하여 무엇보다도 安全한 항해를 유지토록하였다.

또한 자체경비를 강화함으로써 敵의 침투에 대비하였는데 水中폭과대책으로 각함정은 3명씩 UDT대원을 승선시켜 1일 4시간씩 滿潮期를 이용하여 艦底를 水中점사하였다. 그리고 敵의 “테러” 대응책으로 각함정은 動哨를 艦주위에 배치하여 外來人의 接近을 단속하였다.

이밖에도 敵의 폭발물 隱匿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물이 적재화물에 섞여 搬入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하였으며 모든 수송물자를 적재할때에는 책임장교 및 책임하사관의 검사가 끝난뒤에 비로소 搭載작업을 시작토록 하였다. 또 인원과 시설, 그리고 문서와 자체보안을 위한 연도별 보안업무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달하였으며 서신검열과 보안교육 그리고 귀국자의 휴대품검열에도 留意하였다.

## 다. 作 戰

수송작전은 군사령관의 指揮下에 전개하였으나 越南軍통합사령부가 설치된 다음부터는 同사령부의 수송요청에 의하여 함정을 운용하였으며 매월 10일간의 수리기간을 두기로 하



었다. 海上 수송절차는 每月 1회 韓·美·越 수송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제반 수송문제를 협의하고 越南軍통합사령부로부터 수송요청을 받으면 이를 예하함정에 命命함과 同時에 군 사령부에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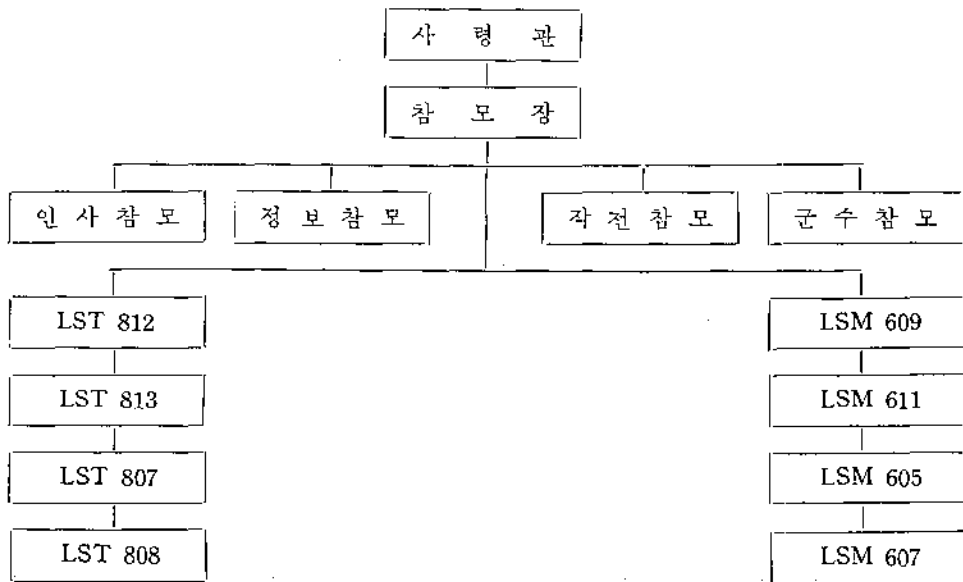
各港口에서의 荷役은 Saigon수송센터(Saigon Terminal Transportation Center)와 各港口에 주둔하는 이의 代理기관 및 美해군의 港灣기관과 협조하였으며 後送물자의 搭載는 현지 요청에 의거 이룩되었다. 그리고 韓國軍 後送물자의 수송을 위하여 2개월에 1회의 잉여물자와 本國으로부터의 매점(PX)화물을 수송하였다.

수송작전상의 隘路는 Vung Tau에서 Saigon에 이르는 水路가 屈曲이 심한데다가 潮流가 急하고 港口가 협소하다는 점 그리고 母港으로 사용하는 Saigon항구에는 부두시설이 빈약할뿐만 아니라 荷役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까닭으로 계획에 의한 수송작전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점등이다. 또한 貨物의 90%가 越南軍의 軍需물자이므로 荷役に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食糧과 같은 貨物은 長時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에 있어서는 수송단대사령부와 鎮海 및 함정간에 CWBC-610통신기 1臺 R-388수신기 2臺를 사용하였으며 Saigon港內에서의 交通은 PRC-25 및 VRC-46을 사용하였다.

美海洋선박과 越南함정 및 美海軍과의 식별은 확인신호(CHALLENGE) 및 호출부호(CALL SIGN)에 의거하였다. 또한 전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수송함정에 대하여 隨時로 절

수송단대편성표



## 艦艇別 行動分析

(65. 3. 16~66. 10. 24)

艦艇名 구 분	812	813	605	607	609	611	807	808
수 송 日 數	155	164	78	85	92	90	167	158
대 기 日 數	62	42	41	9	56	65	15	13
수 리 日 數	40	75	66	91	76	69	46	47
出 動 回 數	9	10	8	8	11	11	8	9

검을 실시하고 우수합정제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警戒태세의 강화를 위하여 VC특공대(Sapper)의 공격에 대한 경계대책의 일환으로 당직근무를 강화하고, UDT에 의한 水中탐색을 벌이는 한편 특별 경계당직제도를 채택하였다.

## 라. 軍 需

해군 수송단대의 補給은 4개의 다른 부대로부터 품종에 따라 지원되었다. 主食은 越南제 3군단에서, 된장 고추장은 鎭海의 해군보급기지에서 그리고 기타 副食은 Long Binh에 위치한 美陸軍의 보급중대에서, 야전식량(C-Ration)은 首都사단의 군수지원단에서 각각 지원받았다. 그밖의 일반비품은 美海軍의 보급창으로부터 받는 할당자금 범위내에서 지원받았으며, 한정의 機關부속품과 油類 “케인트” 및 기타 합정유지용 수리자재등도 同廠과 越南해군의 보급장에서 보급받았다.

탄약은(합정용 40mm, 20mm) 越南해군의 탄약창에서 보급받고 기타 소병기탄약은 군사령부를 경유하여 美육군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수송단대 예속함정의 수리는 가능한한 자체 수리를 위주로 하였으나, 자체능력을 초과하는 수리는 越南해군의 工廠과 美해군의 修理艦에 의뢰하였다. 장병들의 健康관리에 있어서는 진료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駐越교포와 기술자들에게도 진료를 베푸는 동시에 越南人들에 대한 對民진료에도 힘을 기울였다.

## 5. 海上 輸送作戰의 概況

제 2 차 파월부대로서 비전투부대인 建設지원단이 1965년 2월 5일 결단식을 갖게되자 同年 3월 4일 海軍에서는 파월한국군 군사행동의 일환으로 해상수송작전을 主任務로 하는

동시에 宣撫공작활동을 위하여 국방부 訓令 제 2호(1965. 1.28)에 의거 LST 812艦을 파월 카로 결정되었다. 陸路가 대부분 차단되고 航空수송이 제한된 越南에서는 한국해군의 軍需 물자수송을 위주로하는 海上수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65년 3월 4일 釜山을 출항한 LST 812艦은 3월 15일 Saigon에 入港한 以來로 越南에서의 海上수송을 담당하였다. 그뒤 同任務가 격증됨에 따라 65년 6월 20일 LSM 609艦과 同 611艦을 增派하여 同年 7월 12일 수송단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10월 31일 LST 813艦이 제 1차 交代함정으로 파월되어 同年 11월 17일 최초로 파월한 LST 812艦과 交代함으로써 이상 4척의 해군함정은 越南항구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당해년도 末까지 車輛 4,208 S/T, 식량 2,673 S/T, 工兵자재 4,807 S/T, 유류 959S/T, 탄약 749S/T 등 도합 13,396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越南戰이 확대되기 시작한 1965년 하반기부터는 首都사단 및 海兵제 2여단이 派越됨으로써 이를 지원하기 위한 軍需 물자의 수송업무가 증가되었을 뿐만아니라 위험지역인 Qui Nhon과 Phan Thiet까지 수송작전이 확대된 까닭으로 한국 해군함정의 增派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66년 2월 1일 LST 807艦과 同 808艦이 增派됨으로써 해군 수송단대는 同年 3월 15일자로 파월한국군사령부 직속으로 예속이 변경되는 동시에 해군수송분대로 增編되고 부대명칭을 “白鳩”로 命名하였으며, 同年 2월 1일에는 LSM 605艦과 LSM 607艦이 派越되어 同月, 17일 LSM 609艦 및 611艦과 交代하였다. 해군작전은 그 작전형태에 따라 海岸봉쇄와 上陸작전의 지원, 그리고 艦砲지원과 수송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艦艇에 의한 수

艦艇交代現況

(65.3~66.10)

艦種	艦名	派越일자	交代일자	滯越기간
LST	812艦	1965. 3. 16	1965. 11. 17	8개월
LSM	609艦	“ 7. 9	1966. 2. 14	7 “
LSM	611艦	“ “	“ 2. 14	7 “
LST	813艦	“ 11. 13	“ 8. 21	3 “
LSM	605艦	1966. 2. 12	“ 8. 21	7 “
LSM	607艦	“ 2. 12	“ 8. 21	7 “
LST	807艦	“ 2. 14	“ 10. 24	8 “
LST	808艦	“ 2. 14	“ 10. 24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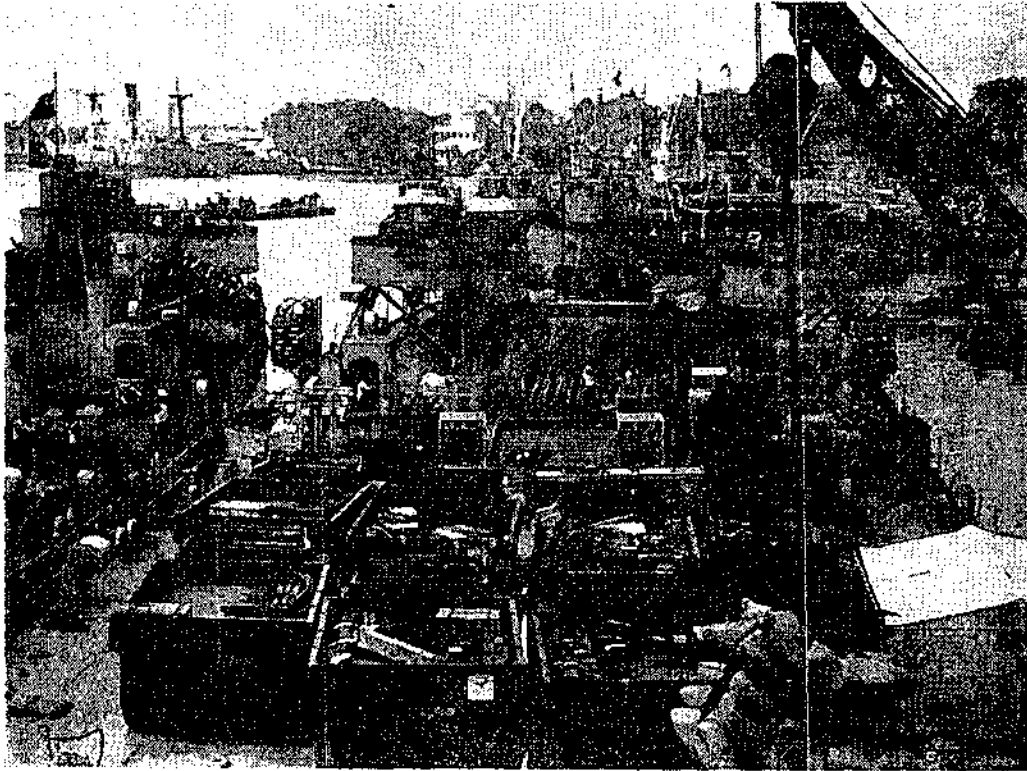
송지원은 보유중인 輸送艦의 대량적재능력과 制空權 및 制海權의 장악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덕택에 그 貢獻하는 바가 컸다. 이와같이 海軍의 수송작전은 派越戰에 소요되는 軍需물자와 兵力의 수송을 비롯한 환자수송 그리고 對民자재 수송등에 걸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 가. LST 812艦(장, 金三中 중령)

수송단대의 第1次 派越艦艇으로 결정된 812艦은 65년 3월 3일 02.00에 鎮海를 출항하여 同日 07.15에 釜山 중앙부두에 接岸하여 派越한국군 군사원조단(장, 曹文煥 준장)의 장교 2명과 사병 60명을 승함시키고 同단의 차량과 군수물자를 적재한 연후에, 加德島 近海에 投錨대기 하였다가 3월 4일 05.45에 越南을 向하여 출발하였다. 3월 8일에는 仁川에서 출발한 제 1제대와 합류하였는데 韓·美 驅逐艦의 호위하에 11일간의 航海끝에 3월 15일 08.00, Saigon外港에 入港하였다. 同日 10.55 Saigon港의 入口에 있는 Vung Tau港에서 美海軍 초계함(USN P-112)에 계류하였다가 다음날 12.35 Saigon에 入港한 同艦은 군사원조단 요원과 同원조단의 차량 및 군수물자를 荷役하는 한편 14.40에 환영식에 참가하였으며 다음날 18.50부터 越南위문단(94명)의 2시간 30분에 걸친 위문공연을 관람하였다.

해군 수송단대의 母港으로 사용하는 Saigon에서 수송작전에 필요한 재반준비작업과 함정의 整備작업을 계속한 同艦은 4월 8일 工兵자재와 對民자재등 1,067.2 S/T를 적재하여 Saigon港의 Tudo부두를 출항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송작전을 시작하였는데 同年 11월까지 8개월동안에 9회의 수송작전을 통하여 도합 8,333.1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期間中, 수송 區間은 Saigon으로부터 Vung Tau—Cam Ranh—Nha Trang—Qui Nhon—Da Nang港에 이르렀는데 연속되는 탐개, 수송, 하역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제 7회 수송작전중에는 Qui Nhon에서 잠수파괴요원(UDT) 6명이 美육군의 浸水된 美水陸양용전차(LAB C)구조작업을 도와 성공리에 인양하였으며 同日 15.20에는 美해군 LST 587艦의 “스크류”에 잠긴 “와이어”를 제거하였다. 또한 28일 08.15에는 Qui Nhon의 친주교회 Ganh Rang교 아원에 白米 20가마를 전달하였다. 65년 10월 29일 제 9회의 출동으로 마지막 수송작전을 끝마친 812艦은 11월 17일 09.30 Saigon港에서 增派된 LST 813艦과 任務를 交代하고 환송식에 참가한 다음 10.40 同港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라 12월 1일 鎮海의 제 2 부두에 도착하였다. 최초의 派越 수송함정으로 결정되어 異域전선에서 아무런 손상없이 수송임무를 完遂한 細部실적은 다음과 같다.



LST에 輸送물자를 탑재하고 있다

LST 812艦의 輸送實績

回數	貨物名	數量 (S/T)	塔載地	荷役地	輸送期間
1	건축자재, 對民자재	1,067.2	Saigon	Qui Nhon · Da Nang	4. 8~ 4.16
	後送차량	119.1	Da Nang	Saigon	4.21~ 4.25
2	건축자재, 유류	712.4	Saigon	Qui Nhon · Da Nang	5. 1~ 5. 7
	後送차량	179.4	Da Nang	Saigon	5.13~ 5.17
3	차량, 건축자재	411.6	Saigon	Nha Trang · Qui Nhon	5.25~ 6. 1
4	батери, 건축자재	653.3	Saigon	Qui Nhon · Da Nang	6.17~ 6.24
	차량, 병기부속	83.8	Da Nang	Saigon	6.27~ 6.30
5	白米, 타이어, 발전기	243.6	Saigon	Nha Trang	7. 4~ 7. 9
6	철조망, батери	976.6	Saigon	Nha Trang · Da Nang	7.17~ 7.21
	後送차량	44.6	Da Nang	Saigon	8. 1~ 8. 5

回數	貨物名	數置	搭載地	荷役地	輸送期間
7	건축자재	1,022	Saigon	Qui Nhon	8.20~8.22
	後送차량	199	Qui Nhon	Saigon	8.30~9.1
8	건축자재	1,191.7	Saigon	Da Nang	9.21~9.24
	後送물자	145	Da Nang	Saigon	9.29~10.1
9	白米	1,006.9	Saigon	DaNang	10.18~10.21
	後送물자	151.8	Da Nang	Saigon	10.27~10.29

#### 나. LST 813艦(장, 柳在春 중령)

최초로 派越된 LST 812艦에 이어 증파艦艇으로 결정된 813艦은 65년 10월 31일 09.15 鎖海를 출발하여 同月 14.18에 釜山の 중앙부두에 接岸한다음 수도사단요원과 其他 보급물자를 적재하고 17.13 越南을 向하여 출항하였다. 다음달 7일에는 南支那海에서 美海軍의 호위驅逐艦(USDD) 870艦의 호송을 받으며 航海를 계속하는 가운데 813艦上에서는 승조원과 수도사단장병과의 오락회도 가졌다. 9일 越南해역에 도착한 同艦은 수도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Qui Nhon外港에 投錨하였다가 다음날 11.05 同港의 Red-1 해안에 接岸하여 사단장병과 보급물자를 荷役하였다.

13일 16.56 Saigon에 入港한 同艦은 17일 09.30 LST 812艦으로부터 수송임무를 交代하고 환송식을 거행한 연후에 同港의 Tudo부두에서 整備와 教育훈련에 들어갔다. 다음달 28일 Nha Be港에서 550 “드럼”의 유류등 603.1 S/T 화물을 적재하여 12월 12일 Qui Nhon에 도착하자마자 同화물을 荷役함으로써 본격적인 수송작전에 들어간 813艦은 66년 8월 1일까지 9개월간 상주하면서 10회의 수송작전을 通하여 도합 7,525.7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는데, 66년도 3월까지 5회에 걸친 수송실적은 다음과 같다.

#### LST 813艦의 輸送實績

回數	貨物名	數置 (S/T)	搭載地	荷役地	輸送期間
1	유류	603.1	Saigon	Qui Nhon	65.11.28~12.12
2	탄약	656.3	Saigon	Qui Nhon	12.28~66.1.11
3	白米, 차량	1,124.3	Saigon	Nha Trang	66.1.30~2.7
4	유류, 차량	1,326.2	Saigon	Nha Trang	2.14~3.3
5	탄약, 戰車	1,447.6	Saigon	Qui Nhon	3.13~4.8

### 다. LSM 609艦(장, 吳在奎 소령)

파월增派함정으로 결정된 LSM 609艦은 LSM 611艦과 함께 1965년 6월 28일 07.05에 Saigon을 向하여 鎮海를 出항한 다음 海軍 PCE 1001艦의 호송을 받으면서 12일간의 航海끝에 7월 9일 Saigon에 入港하여 7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수송작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同年 12월 14일까지 11회의 수송작전을 通하여 2,198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期間中, 特記할만 한것은 Phan Thiet 港까지의 처녀수송작전이었다.

同港의 비행장주위의 海岸 6km는 VC의 出沒지역이므로 이곳에 주둔하고있는 美·越軍은 軍需물자를 主로 空輸에 의존하고 있었다.

65년 7월 30일 同艦은 제 1회 수송작전으로 LSM 611艦과 함께 휘발유를 수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위험지역인데다가 압초가 많고 수심이 얕은 Phan Thiet 港에 入港하였다.

자세한 海岸정보를 입수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한다음 낮에 荷役을 서둘렀으나 작업이 지연되어 밤을 새우게 되었다. 긴장과 초조속에서 야간작업을 계속하던 중 다음날 01.00에 주위에서 전투가 전개되어 鎗彈이 함상위로 集中하였으나 全艦조원은 전투배치를 하고 탄넛으로

#### LSM 609艦의 輸送實績

回數	貨物名	數量(S/T)	塔載地	荷役地	輸送期間
1	砲彈, 유류	150.7	Nha Be	Nha Trang	65.7.28~ 8. 2
	空드림	13.2	Phan Thiet	Saigon	8. 4~ 8. 5
2	탄 약	306	Nha Be	Catrai	8. 9~ 8.20
3	유 류	223.8	Nha Be	Nha Trang	8.30~ 9. 1
	後送차량	13.2	Nha Trang	Saigon	9. 6~ 9. 7
4	유 류	232.3	Nha Be	Qui Nhon	9.16~ 9.22
5	潑洲軍군수품	77.5	Vung Tau	Saigon	9.27~ 9.30
6	한국군부식물	16.5	Saigon	Cam Ranh · Qui Nhon	10. 7~10.12
7	철조방	195.1	Saigon	Nha Trang	10.22~10.31
8	의약품	218.3	Saigon	Qui Nhon	11. 8~11.10
9	유 류	238.1	Nha Be	Nha Trang	12. 6~12.10
10	유 류	178.6	Nha Be	Qui Nhon	12.28~66.1.1
11	유 류	221.6	Saigon	Nha Trang	66.1.16~ 1.17
	타이어	57.3	Nha Trang	Saigon	1.21~ 1.23

밤을 새우며 荷役작업을 완료하였다.

제 1 회 처녀수송작전이었지만 同艦은 아무런 손실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Saigon으로 귀환하였다. 66년 1월 2일까지 11회의 수송작전을 끝마친 909艦은 2월 18일 Saigon을 출항하여 611艦과 같이 13일간의 航海끝에 3월 1일 鎭海에 귀국하였다.

라. LSM 611艦(장, 吳慶煥 소령)

LSM 609艦과 함께 수송단대의 增派함정으로 결정되어 65년 6월 28일 鎭海를 출항한 同艦은 7월 9일 Saigon에 入港한 이래 1966년 2월 2일까지 7개월간 상주하면서 11회의 수송작전을 통하여 도합 2,754.7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同艦은 제 1 회와 제 5 회 수송작전 중에 609艦과 同行하였는데 派越기간중의 수송실적은 다음과 같다.

LSM 611艦의 수송실적

回 數	貨 物 名	數 量 (S/T)	塔 載 地	荷 役 地	輸 送 期 間
1	砲彈, 유류	266.8	Nha Be	Nha Trang	65. 7.28~ 8. 2
	空드럼	20.9	Phan Thiet	Saigon	8. 1~ 8. 5
2	탄 약	121.3	Nha Be	Catrai	8.16~ 8.18
3	工兵자재	321	Saigon	Nha Trang	8.23~ 8.31
4	工兵자재	261.3	Saigon	Nha Trang	9.11~ 9.16
5	건축자재	283.7	Vung Tau	Saigon	9.27~ 9.29
6	유 류	292.4	Nha Be	Nha Trang	10.4~10.11
7	유 류	249.4	Saigon	Qui Nhon	10.21~10.25
8	유 류	238.1	Nha Be	Phan Thiet	11. 8~11.10
9	유 류	233.7	Nha Be	Qui Nhon	11.25~11.30
10	유 류	249.2	Nha Be	Phan Thiet	12.15~12.17
11	工兵자재	213.9	Nha Be	Qui Nhon	66.1.25~ 2. 2

마. LSM 605艦(장, 安泰憲 소령)

1966년 2월 1일 派越 교대함정으로 결정된 605함은 釜山中양부두에서 수도사단의 보급품을 적재하고 13.35 同부두를 출항하였다.

LSM 607艦과 함께 출항한 同艦은 LST 807, 808艦으로 구성된 수송단대와 합세하여 PF 65艦의 호송을 받으며 11일간의 항해 끝에 2월 12일 Saigon에 入港하였다. LSM 609艦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다음 17일에는 LST 807艦에서 교대 및 환송식을 거행한 연 후에



Saigon港에서 8일간 대기하다가 26일 同港을 출항한 다음 3월 1일 Qui Nhon에 입항하여 釜山에서 적재한 수도사단의 보급물자를 荷役하고, 해병제 2여단의 2½ton“트럭” 5臺 “폼프렛사” 1臺 “그레이더” 1臺등 47.8S/T의 화물을 적재하여 同港을 출항하였다. 3월5일에는 Cam Ranh에 도착하여 同화물을 荷役함으로써 제 1 회 수송작전을 끝마친다음 제 2 회 수송작전으로 3월 21일 Saigon에서 유류 261.5 S/T을 적재하여 24일 Qui Nhon에서 荷役하였으며 同港에서 空“드럼” 1,200개등 41.9 S/T의 후송물자를 적재하고 3월 29일 Saigon으로 귀항하였는데 同年 7월 27일까지 7개월간 상주하는동안 8회의 수송작전을 通하여 도합 2,201.7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 바. LSM 607艦(장, 尹在民 소령)

제 2 차 派越 교대함정으로 결정된 607艦은 605艦과 함께 66년 2월 1일 釜山の 중앙부두를 출항하였다. 同日 21.00에 PF-65艦의 호송을 받으며 LST 807, 808艦 및 LSM 605艦과 같이 항해하여 2월 12일 Saigon에 도착, LSM 611艦으로 부터 업무를 인수받았다. 2월 24일에는 Saigon을 출항하여 다음날 Nha Be에서 유류 1,700“드럼”을 적재하고 3월 2일 Qui Nhon에 도착하여 유류를 荷役하고 Saigon으로 귀항함으로써 제 1 회 수송작전을 끝마쳤는데, 同艦은 66년 8월 1일까지 7개월간 8회의 수송작전으로 총 2,481.7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 사. LST 807艦(장, 韓弘錫 중령)

1966년 2월 1일 807艦은 해병제 2여단 장병과 基他 보급품을 적재하고 808艦과 함께 仁川港을 떠나 同月 11일 Cam Ranh에 도착하여 해병제 2여단 장병을 상륙시키고 15일 17.15 Saigon에 入港하였다. 17일에는 同港에서 교대식을 거행한 연후에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수송작전에 들어갔는데, 3월 4일 15.30에 Saigon을 출항한 다음 Nha Be에 入港하여, 712.2 S/T의 탄약을 적재하고 同港을 출항하여 13일 Qui Nhon에서 탄약을 荷役함으로써 제 1 회 수송작전을 완수한 다음 8개월간에 9회의 수송작전을 전개하여 도합 8,075.8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 아. LST 808艦(장, 全遇成 소령)

66년 2월 1일 수도사단장병과 보급품을 적재하고 11.00 仁川을 출항한 808艦은 11일 越南의 Qui Nhon에 도착하여 보급물자를 荷役하고 수도사단장병 97명을 상륙시켰다. Saigon으로 入港한 同艦은 2월 14일 17.40 환영식에 참가하고 17일에는 임무교대식에 참가하였다 中型상륙정(LCM) 2척과 工兵자재 및 차량 851.1 S/T의 화물을 적재하여 2월 28일 13.36

Saigon을 출항한다음 3월 1일 Cam Ranh에 도착하여 화물을 荷役하고 同港을 출항하였다.

3월 3일에는 Qui Nhon에 도착하여 1/4 ton차량 18台, 발전기 1台, 3/4 ton차량 3台를 荷役하고 수도사단의 工兵중대요원 152명과 차량 9台등 277.8 S/T의 화물을 적재하여 同月 11일 Saigon에 入港함으로써 제 1회 수송작전을 끝마쳤다. 3월 15일 08.00에는 수송분대 결단식을 거행하고 다음날 해병 제 2여단 工兵중대요원 155명과 차량 22대등 93.5 S/T의 화물을 적재하고 Saigon을 출항한 다음, 同月 20日 Cam Ranh에 도착하여 工兵중대요원을 상륙시킴으로써 제 2회 수송작전을 끝마치고, 同年 10월 4일까지 9회의 수송작전을 전개하여 도합 7,068.1 S/T의 화물을 수송하였다.

## § 參戰者의 證言

### LST 808 艦長 全 遇 成 소령

(1978.3.14 해군 제 2해역 사령관실에서, 준장)

초창기에 파견된 우리는 本國을 출항하기전에 祖國을 위하여 목숨을 받치겠다고 誓約하였으며, 國家觀이 뚜렷하고 유능한 대원들만을 엄선하였다. 때문에 후반기에 파견된 군인들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나 군인정신면에서 차원이 높은 유능한 대원들이었다.

우리 대원들은 거듭되는 수송작전에서 의욕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LST가 목적항구에 接岸하여 荷役작업을 실시할때에 越南人들이 게을러서 작업이 지연되므로 손수 荷役작업을 돌보아 주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수송작전에 임하였다.

전수송분대의 主된 수송물자는 탄약과 食糧 및 越南軍장비 등이었는데 목적항구에 가서 荷役을 끝마치고 나면 또다른 후송물자를 적재하여 출항하였기 때문에 부척 번거로운점이 많았다. 그

리고 Vung Tau에서 Saigon에 이르는 水路는 40 Miles정도 되는데 이곳은 潮流가 6 Knots 정도로 강한 편이었으며 폭은 200m內外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航行에 무척 신경을 써야만 하였다.

또한 Saigon은 항구시설이 빈약하여 수송물자의 荷役에도 애를 먹었는데 港口에 정박중에는 艦内に 까지 모기가 들어와서 대원들은 모기와 더위때문에 큰 고역을 치루어야 했다.

모기가 艦内に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모든 문을 닫아버리면 배는 그야말로 烈火속과 같았으며 더워서 문을 열어놓으면 모기들의 극성때문에 큰 고충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대원들은 실사이 없는 수송작전에 熱을 올리는등 국위선양의 선봉이 되었다.

# 第 10 章

## 心 理 戰

### 要 旨

1. 敵의 心理戰 樣相
2. 聯合軍의 心理戰 概況
3. 韓國軍의 心理戰 活動



## 第 10 章 心 理 戰

### 要 旨

越南의 자연조건과 다수 種族에 의한 異質의인 사회구조와 宗教 및 식민지 생애 등의 여러가지 취약성은 敵의 침투를 쉽게 하였으며 그들이 寄生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른바 “人民전쟁”이라는 침략 수단으로 農民을 포함한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전투력화 함으로써 敵과 良民을 구별할 수 없는 混迷相을 띄우게 하였다. 즉 그들은 越南 전지역의 주민속에 침투하여 “게릴라”行動을 위주로 한 비정규전을 전개하면서 下部조직의 확대를 계속 획책하여 越南의 全地域을 사실상 전선없는 戰場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越南戰은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의 여러 問題와 국제情勢가 서로 얽혀 점점 복잡하여졌다. 또한 長期間 VC에 의하여 침식된 지역이나 격리된 취약지역 주민들은 自意나 他意를 막론하고 VC에 同調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敵地域을 전거하였다고 하여 곧 勝利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越南戰에서는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VC과 주민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心理戰을 전개하여야 하며 또 그 住民을 적절한 계획에 따라 정착시킨뒤 새로운 생활 의욕을 鼓吹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는 한편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인식시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는 선무활동 및 대민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였다. 이에 파월 韓國軍은 “信義와 友好의 對民관계”라는 口號아래 住民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尙將兵이 전투 요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사심리전 요원으로서도 활동하였다.

이리하여 파월 韓國軍사령부는 민사심리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目標을 定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첫째 : 越南정부의 政經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 韓國軍의 참전 意義를 提高한다.

셋째 : 韓·越 및 우방諸國과의 友誼를 강화한다.

네째 : 越南 국민들에게 必勝의 信念을 고취시킨다.

다섯째 : VC과 住民을 分離한다.

여섯째 : 敵의 內部분열을 徹徹하고 세로조직을 粉碎한다.

이와같이 韓國軍은 心理戰 및 對民활동을 통하여 VC의 戰意와 士氣를 저하시키고 내부의 분열을 煽動하여 투항과 귀순을 권고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救護와 醫療 및 進食지원 등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각종 慈善활동을 전개함으로써 軍事작전 및 越南정부의 政經사업을 助力토록 하였다. 한편 美軍을 위주모한 연합군과 越南 정부측에서도 戰地에서의 住民의 生命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敵의 유혹을 뿌리치고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대민선무 심리전을 전개하는 동시에 각종 대민지원을 추진하였다.

## I. 敵의 心理戰

越南은 오랜 세월에 걸린 異民族의 지배를 받는동안 偏狹된 民族관념을 지니게 되고 姑息과 安逸한 日常生活의 副産物로서 부정과 부패가 到處에 뿌리를 박고 배타적인 國民性向이 顯著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주의의 侵蝕을 더욱 용이케한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른바 革命戰이라는 “旗幟”밑에 越南의 특수성에 便乘한 心理戰에 血眼이 된 戰鬪형식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心理戰 가운데에서도 특히 對民심리전을 重要視한 것으로 보였다. 즉 住民을 “물”로 보고 “게릴라”전을 能事로 하는 그들 自身을 “고기”로 비유하듯이 彼此에 있어서 不可分離의 野合에 비추어 볼때 이는 오히려 당연한 歸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조직내에 黨을 優位토한 정치기구를 편성하여 VC의 理念통제는 물론이요, 작전지역내의 대민擄取를 併行하였다. 그들의 심리전 機構는 越盟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는 공산당 특유의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中共側의 군사고문으로부터 지도받는 心理戰을 전개하였다. 또 그들은 末端조직체 내에서의 심리전의 효과를 중요시하여 面支會(Village Chapters)에 28명으로 구성된 宣傳교리과를 두고 있으며 이와같은 편제가 郡에는 6名, 省에는 45名, 軍事지구에는 35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敵은 이러한 機構로써 越南에서의 美軍철수를 선동하고 反美사상주입에 熱狂하면서 韓, 美·越의 離間을 획책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組織과 據點을 확보하여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造成하고 “게릴라”행동에 의한 사회적 불안을 한층 격화시키며 “게릴라”要員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해방지역의 조직을 확대하여 地域內의 住民을 전투에 이용하며 外國軍의 철수를 선동하였다.

**둘째 :** 越南국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혁명행동이 合法的이라는 認識을 갖게 하였다.

**셋째 :** Saigon政府에 代置할 地下 정부가 각행정단위로 침투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하정부 조직체의 일환으로 各面, 郡, 省의 행정간부들을 임명한뒤 책임지역 부근의 접근하기 곤란한 “정글”이나 山岳지대에서 遊動하게 하면서 상황의 進展에 따라 주민들을 포섭토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越南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을 夜間에 장악하다가 최종단계에 이르러 행정기관을 점령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장악케 하였다.

**네째 :** 그들의 방해자를 철저히 제거하는 한편 이에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補償을 하고 방

해자는 가차없이 殺戮하였다. 소위 인민제판의 선치를 公布하고 혁명군의 이름으로 VC 경고문을 作成하여 살포하는 동시에 越南정부에 충실한 住民을 살해하고도 오히려 이를 正當한 行爲라고 내세우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다.

디섯째 : 투쟁기간의 長短에 關係없이 다양한 행동과 병행하여 最終의 승리는 革命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바, 승리를 대대적으로 날조 선전하여 兵士들의 士氣를 전작시키는 한편 越南 국민들에게 友邦軍에 대한 끈질긴 저항을 계속하도록 煽動하였다.

여섯째 : 越南정부의 약점을 들추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不信任하도록 꾀하는 한편, 연합군의 些少한 對民사고를 針小棒大로 憑선전하고 심지어는 전혀 無根한 사실을 날조하고 過大 선전함으로써 越南국민과 연합군과의 離間을 일삼았다.

일곱째 : 越南주민과 정부 및 軍機關등의 公認된 단체내에 은밀히 침투하여 VC 下部조직과 공산당 책임간부로 하여금 비밀새포를 장악하게 하였다.

이러한 심리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傳單과 방송을 그 매개물로 이용하였는데 전단은 現地의 潛伏地에서 제작한 것과 省黨위원회에서 제작한 특수전단을 제외하고는 공산당 南部越南 중앙국내의 作家와 연애인으로 구성된 文化 및 예술위원회에서 原稿를 작성한뒤 越盟정부의 인쇄지원을 받아 제작하였다. 그리고 傳單에 기재된 내용은 撒布대상에 따라 달랐는데 對象別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對 越南軍

첫째 : 反戰反美 투쟁의 선동

둘째 : VC에의 가담종용

셋째 : VC 정부수립에의 동조

네째 : 歸鄉 및 歸鄉後 국민혁명 참가의 선동

다섯째 : 同族間의 戰鬥중지를 호소

#### 나. 對 住民

첫째 : 징병 반대선동

둘째 : 정부 官公吏의 부정부패 폭로

셋째 : 행정요원 제거선동

네째 : 혁명대열 참가호소

다. 對 韓國軍

첫째 : 北傀정책 선전

둘째 : 과월정책 비난

셋째 : 韓·美·越의 離間

넷째 : 金日成 우상화에 附和雷同

다섯째 : 戰鬥투쟁 선동

한편 그들은 이러한 전단을 VC들이 마을에 은밀히 침투하여 살포하거나 마을주민을 강제동원하여 전달케 하였다. 그리고 살포장소는 주로 韓國軍 작전지역과 出入예상지역 및 道路邊과 가옥근처등 비교적 발견되기 쉬운 곳을 택하였으며 모두 지상살포수단에 의존하였다. 이밖에 VC의 心理戰을 지원하는 國家로 中共과 USSR 및 北傀등이 있으며 다른 共產國들도 남부 越南에서의 VC을 合法정부로서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도왔다.

또한 이들은 北京과 Hanoi 및 Moscow의 방송망을 통하여 全世界 및 現地の 심리전을 恣行하였는데 특히 北傀방송은 韓國軍심리전에 가장 注目을 끄는 대상이었다. 北傀는 Hanoi 방송을 통하여 反美선전을 비롯하여 날조된 北傀소식과 歪曲된 韓國소식 및 越南戰의 역선전 그리고 향수심을 일으킬 수 있는 雜詩의 낭독과 민요 및 동요등을 방송하는 한편 1965년 12월 1일부터 Hanoi방송을 이용하여 우리말 방송을 매일 2회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Saigon에서 과월 韓國軍을 위하여 실시하는 我軍방송보다도 더 강한 出力의 전파를 사용하였다.

## 2. 聯合軍의 心理戰

### 가. 越南軍의 心理戰

越南에서의 심리전활동은 대민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全地域에 산재한 住民의 善導를 위하여 對民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리전활동은 대민지원과 통합된 계획아래 單一 참모부에서 관장하였는데 越南軍의 그것은 政治戰이라는 독특한 체제 아래 수행된바 총사령부에 일반 참모부와 同格인 政治戰참모부가 있으며 이 안에 있는 心理戰局이 이를 관장하였다. 심리전국은 各軍區(Military Region)에 있는 정치전대대와 더불어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심리전 理論을 발전시킨다.

**둘째 :** 越南軍 총사령부의 심리전 활동계획과 對民 및 VC에 대한 심리전을 발전시킨다.

**세째 :** 총사령부의 민사활동과 기획을 발전시킨다.

**네째 :** 심리전활동을 수행하는 예하부대에 대하여 인쇄물과 라디오방송 및 화보등의 전술 및 전략적 활동의 선전자료를 제공한다.

한편 軍團과 師團의 심리전기구는 政治戰處에 속하는데 정치전참모부가 일반 참모부보다 上位인 까닭에 그 序列이 참모장 다음으로 되어 있으며 心理戰 및 民事업무를 주관하고 軍防諜 및 憲兵업무를 兼하였다.

또한 美軍편제상의 民事處(G-5)가 정치전참모부에 흡수되어 心理戰課가 되었으며 各軍團 민사중대가 심리전대대의 예하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 이하에서도 정치전장교가 심리전 업무를 兼하고 있으므로 政治戰은 사실상 心理戰을 바탕으로 하여 越南戰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치전기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 越南군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철저한 정치교육과 사기양양 및 후생대책을 시행하여 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한다.

**둘째 :** 友軍 지역내의 住民들에 대하여 홍보 및 의료활동 등의 대민지원을 전개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계속적인 지지를 획득한다.

**세째 :** 敵軍 및 敵의 지배지역 주민에 대하여서는 심리전 및 기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공산당에게 眩惑되지 않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기본업무를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심리전 활동이었다.

#### 나. 美軍의 心理戰

聯合軍 심리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원 美軍의 心理戰은 전형적인 심리전 개념에 입각하여 對敵 심리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越南 국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 注力하였다.

**첫째 :** VC과 越盟은 자유 越南을 침공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 越南정부의 승리확신.

**세째 :** VC과 越盟軍에게 귀순중용.

**네째 :** 友邦 및 聯合軍의 參戰 목적을 인식시켜 越南정부를 지지토록 하는 것.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美軍은 越南의 특수여전에 부합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心理戰체계를 갖추어 越南 및 연합군부대와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심리전을 전개하였다. 64년 5월에 美國정부는 越南에서의 모든 美國심리전 활동의 책임을 美공보원장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公報院내에 美합동공보처(JUSPAO)를 설치하였는데 이 機構는 과거의 과월 美공보처(USIS-V)와 美원조단(USOM)의 관계부서를 併합한 것으로 越南의 各省에서 심리전을 수행하는 美國민간기관 및 軍事심리전 요원들에게 공동정책 아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였다.

한편 JUSPAO는 USIS와 USOM에서 轉屬한 150명의 美國人 사무원과 400여명의 越南人 고용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長은 美국무성의 선임 公報顧問으로 外國통신에 대한 공식보도를 취급하는 신문보도 문재와 顧問사무소도 관장하였다. 또한 7개의 美·越협회에 대한 美國지원계통을 관장하였는데 시설로서는 본부인쇄소와 4개 주요도시의 敎化所(귀순자의 轉向 담당기관) 및 各省에 있는 야전근무소 등이 있다. 이러한 JUSPAO는 美·越의 기본 방침을 뒷받침하여 심리전 목표를 越南정부의 보도능력 강화와 越南에 대한 자유진영의 지지강화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활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였다.

**첫째 :** 越南정부의 心理戰部에 대한 계획운용과 기술적인 협의, 그리고 불자원조와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 越南의 國內 무선망을 비롯한 영화제작소와 인쇄소 및 越南語신문의 발전을 도모한다.

**세째 :** 20個省의 신문부수를 보다 많이 發刊하고 지역 방송국의 계획과 영화필름 및 포스타, 그리고 傳單과 잡지를 비롯한 항공용 확성기와 지방전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며 전단살포와 오락을 통하여 정책적인 理論을 심어주는 越南 공보원 및 JUSPAO의 문화예술대의 배치등을 돕는다.

**네째 :** 라디오방송과 전단살포 및 항공용확성기를 이용하여 歸順을 권고하며 정부의 敎化 계획이나 간부들에 依하여 감화된 VC을 도와 자유越南 사회로 돌아가도록 한다.

**다섯째 :** 越盟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공중공격을 경고하는 전단을 공군으로 하여금 살포케 하며 이와 동시에 Hanoi정부의 정체목로와 越南 및 聯合軍의 성공적인 정격을 제시하고 越盟과 비교한 越南의 사회발전과 경제계획을 설명한다.

**여섯째 :** 세계各國에 있는 USIS를 위하여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각종 발간물과 영화자료를 제공하며 越南의 外務部와 24개 대사관을 통하여 정부차체의 국제보도 계획을 추진하는 心理戰部를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계획은 JUSPAO를 비롯하여 주월 美軍원조사령부(US MAC—V) 정치전참모부 예하의 6개 심리전과전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는데 특히 各軍區 및 지역별로 심리전협조처(CPOC)를 설치하여 지역내의 전술작전을 위한 심리전지원과 선무, 그리고 심리전업무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美제 3심리전단과 예하 각대대에 편성된 선전개발원구반은 매개물 제작을 위한 중요한 참모기구로서 前職, 월맹군 장교를 비롯한 越南민간 기술자를 고용하여 대상에 알맞는 宣傳物을 개발케 하였다.

### 3. 韓國軍의 心理戰

과월 韓國軍은 전술책임 지역내의 軍事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對民지원과 心理戰을 併行하였는데 越南에서의 이러한 民事활동은 종래의 敎理를 벗어나 경험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심리전과 대민지원을 통합 운영하였다. 韓國軍의 심리전활동은 JUSPAO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越南정부와 軍심리전대대 및 派越우방군에서 차출된 心理戰班과 서로 협력하면서 전단살포와 對敵방송등을 전개하였다. 韓國軍은 기간중에 항공기 및 차량을 이용하여 안전보장증과 귀순권고의 傳單을 도합 2,816,450枚 살포하였으며 방송은 주로 귀순권고와 대민선무 및 친선을 위한 것으로 모두 7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한편 대민지원은 심리전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越南국민의 사회, 경제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 장비, 인력, 물자, 예산등을 지원하였는데 주요내용은 農耕과 救護, 그리고 醫療지원과 대편도를 비롯하여 건설공사와 각종 친선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심리전 및 대민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越南軍의 활동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과월 美軍과 협조하여 韓國軍의 사명을 달성시킨다는 기본방침 아래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첫째 :** 강력한 軍事力을 보여줌으로써 越南국민에게 對共戰에서 기필코 승리한다는 信念을 高潮시킨다.

**둘째 :** 韓國軍의 派越목적과 越南을 지원하는 참된 노력을 인식시켜 韓·越 양국의 友好를 증진하고 친선유대를 강화한다.

**새째 :** VC의 正體를 폭로하여 住民과의 關係를 中斷케 한다.

**네째 :** 越南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망을 증대하여 정부시책에 順應케 하며 聯合軍의 공동 노력을 인식시킨다.

이와같은 목표아래 사령부를 비롯한 각부대는 부대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전과 대민 사업을 전개한 결과 기간중 659명의 VC을 귀순케 하고 VC지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5,154명을 비롯한 VC 용의자 551명을 越南행정기관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피난토록 하였다.

### 가. 派越 韓國軍司令部

사령부는 1965년 9월 25일 Saigon에 開設함과 동시에 越南戰의 특수성에 따라 民事업무를 담당하는 원조기획처를 두어 심리전과 대민사업을 병합하여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同處에서는 民事업무 개요와 절차에 관한 참고문서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卽時 美軍과 越南軍의 협조를 얻어 民事업무규정과 개요 및 절차에 대한 參考文을 발간하였다. 한편 사령관 蔡命新소장은 民事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00명의 VC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名の 良民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기본정신 아래 全將兵은 戰鬪요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心理戰 요원으로서 활동케 하였다. 이에 따라 司令部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각예하부대에 下達하였다.

**첫째 :** 越南국민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둘째 :** 전장병이 민사심리전 요원으로 참여한다.

**셋째 :** 심리전과 대민지원으로 軍事작전을 밀접히 지원한다.

**네째 :** 심리전과 대민지원은 越南정부와 軍部 및 派越美國기관과 美군사원조사사령부(US M AC-V)와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한다.

이와같은 활동지침에 따라 全將兵은 심리전 요원으로서 越南人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익히면서 대민지원을 전개하여 越南정부의 평정사업을 도왔다.

### (1) 對敵 心理戰

韓國軍이 파월한뒤 戰鬪마다 勝戰鼓를 울리자 VC들의 戰意는 沮喪되고 暗躍의 근거지를 잃어 버렸다. 그러자 敵은 분열된 하부조직을 再整備하는 한편 住民들을 煽動하여 韓·美·越에 대한 謔言으로 離間을 획책하는 것이었다. 이에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敵과 주민을 分

離함으로써 VC을 고립시키기 위한 心理戰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韓國軍의 참전의의와 必勝의 信念을 고취시키면서 주민들의 신뢰 증대에도 전념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령부는 기간 중 도합 2,816,450枚의 전단을 살포하고 또 60회의 對敵방송을 互用하여 VC들간에 염전의 식이 단연되도록 도모하고 귀순을 권고하였다. 이밖에도 포어와 포스타를 비롯한 홍보용 액자를 배포하고 영화상영과 연예공연 및 사진전시등의 각종 對民선무활동을 전개하였다.

## (2) 對民支援

韓國軍은 派越하자 곧 對民지원사업에 力點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特別히 물자지원과 의료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내민지원의 방향을 주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주민과 VC의 관계를 분리하는데에 두었다. 그리하여 司令部는 내민지원업무의 세부실천지침을 다음과 같이 定하였다.

첫째 : 對民활동은 越南정부의 평정사업에 지원하는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둘째 : 韓·越間의 우호증진과 정신적 융합 및 친선유대 강화에 힘쓴다.

셋째 : 越南人의 自助, 自立정신과 국가건설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한다.

넷째 : 韓國軍의 軍事작전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각예하부대에서는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피난민을 구호하는 등의 내민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가능한 限 장비와 병력을 동원하여 農地를 개간하고 파괴된 건물과 도로 및 교량등을 보수하며 주택을 비롯한 학교와 병원 및 체육관의 복지시설을 新築하였다. 이와같은 내민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司令部에서는 越南 및 美軍의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체계를 이루었는데 기간중의 사업별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農耕지원 : 韓國軍이 주둔한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生業으로 하고 있으나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농촌은 荒廢化되었고 일을 할 젊은이들은 軍에 복무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일손이 부족하였다. 또한 농민들의 農耕法이 初步의일 뿐 아니라 VC의 계속되는 약탈행위로 말미암아 농민들은 생산의욕마저 상실하여 肥沃한 농토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韓國軍은 전술책임 지역내의 VC을 擊碎하여 治安을 확보함으로써 농민으로 하여금 農耕에 專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내기와 추수기에는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하여 지원하는 등의 내민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기간중 延兵力 73,825명과 車輛 및 항공기등의 각종 장비를 동원하였다. 이러한 농경지원은 다른 聯合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韓國軍만의



장병들이 모내기물 支援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서 VC의 약탈과 억압에 짓눌렸던 농민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동시에 韓國軍에 대한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建設지원 : 韓國軍은 軍事작전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설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주로 전쟁피해복구와 越南側の 요청에 따라 工事의 우선을 정하고 기간중에 延人員 6,441명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도합 81棟을 신축 및 복구하고 파괴된 家屋 652棟을 수리하여 住民들이 安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橋梁 11개소를 가설 및 보수하고 도로 5개소를 확장 및 신설하였다. 司令部는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越南정부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소요되는 물자는 自隊에서 節約한 것과 韓國 및 聯合軍으로부터의 지원물자로 충당하였다.

(다) 醫療지원 : 1964년 9월에 제 1 移動 外科병원인 Vung Tau에 도착하여 越南人에게 의 료봉사를 하면서 시작된 韓國軍의 醫療지원은 그뒤 전투부대가 派越되면서부터는 部隊단위 로 진료소를 설치하여 各部隊가 주둔하는 地域內의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可用병원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전쟁피해자 및 극빈자를 우선적으로 입원조 치하는 한편 의료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대급이상 부대에는 고정진료소를, 중대단위 부대에는 이동진료소를 설치하여 모든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었는데 기



極貧者에게 양곡을 무상 分配하고 있다.

간중 도합 37,16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特히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입원 이외에도 부락에 대한 消毒과 예방접종등의 방역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敍護지원 : 韓國軍은 美國 국제개발처(US AID)와 天主教 구제봉사회(CRS) 등의 주요 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구호품과 부대에서 절약하여 모은 물품과 잉여물자들을 작전기간내에 발생한 전쟁피해자와 전술책임 지역내의 극빈자 및 피난민, 그리고 戰歿유가족과 孤兒등 불우한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밖에도 각급학교와 養老院등의 自活力이 不足한 단체에 대한 구호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간중 白米 383,450kg과 食油 3,825 G/L 및 衣類 2,323점을 비롯하여 생활필수품과 嗜好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物品을 分配하는 한편 가축이나 재봉틀을 寄贈하여 自活의 길을 터주었다.

(마) 親善활동 : 韓國軍의 勇戰분투에 대한 越南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바탕을 두고 유대강화에 힘쓰면서 각종 親善행사를 다각적으로 전개한 바, 대표적인 것으로서 자매결연을 비롯한 敬老會와 어린이 및 어머니찬치 그리고 친선초청과 각종 儀式참여 및 운동경기등을 들 수 있다. 特히, 지방행정기관과 有力人士 및 각사회와 종교단체간의 紐帶에 관심을 가.

진 司令部는 예하 全部隊로 하여금 中隊단위로 주둔지역의 인근마을과 자매결연케 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기간중 경노회 15회와 친선체육대회 8회 및 주민위안회 22회를 개최하고 의장대 및 태권도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각종 활동을 전개한 결과 VC에게 同調하는 住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중 VC을 지지하거나 VC이 된 자가 있으면 自發적으로 이를 說得하여 귀순케 하는 事例가 속출하였다.

(바) 跆拳道지도 : 1964년 9월에 10명의 태권도교관단이 Saigon에 도착하여 越南군사학교에서 지도함과 아울러 각종 시범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좋았으며 태권도 道場이 盛況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교관단은 Dalat와 Nha Trang 및 Vung Tau등으로 普及지역을 확대하면서 태권도지도에 專力한 결과 越南민간도장은 Saigon에 있는 5개소를 비롯하여 Dalat—Nha Trang—Vung Tau—Qui Nhon에 각 1개소씩 도합 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교관단이 1週에 1회씩 道場들을 순회하면서 지도하였다. 이와같은 교관단의 활동으로 跆拳道에 대한 評判이 높아지자 越南정부에서는 교관단의 增派를 요청하였다. 이에 韓國軍은 各부대내의 有段者를 차출하여 軍, 警察, 학교등에 널리 普及한바 기간중의 수련자는 도합 7,346명에 達하였다. 이러한 태권도지도 및 활동은 韓國軍의 高尙武道를 널리 普及함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韓國軍의 威力을 보여 주어 民間人에게는 我軍에 대한 신뢰감을, 敵에게는 간접적인 위압감을 갖게함으로써 越南人과의 정신적 유대를 增進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주민들에 대한 제반 便宜를 제공한바 음료수 공급과 마을청소를 비롯하여 문패 달아주기, 이발봉사, 묘지 및 우물보수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韓國語를 교육함으로써 韓·越間의 유대강화에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 나. 首都 師團

65년 10월 22일 師團이 Qui Nhon에 상륙하여 제 1番道路를 따라 Van Canh盆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드러난 越南주민들의 표정은 지극히 無感覺하고 냉정한 분위기였다. 越南국민들은 多年間 피비린내나는 전쟁으로 시달린 까닭에 자기나라를 돕기 위하여 도착한 사단을 환영하기는 커녕 無表情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사단의 전술책임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극빈자이며 허약하고 病者들일 뿐만아니라 삶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越南의 諸般여건을 종합분석한 사단은 戰線없는 戰爭이 전개되는 越南에서는



敵을 격멸하는 것 못지않게 주민들에 대한 心理戰과 대민지원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軍事작전과 병행하여 民事업무에 注力한 바 연대 및 대대단위에까지 민사심리전과를 편성하여 이를 管掌케 하였다. 이리하여 1966년도의 民事심리전 목표를 韓國軍의 지지세력을 육성하여 越南人들로 하여금 VC 除去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세부실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 농촌진흥(평정)계획의 적극지원

둘째 : 군사작전 지원

셋째 : 주민의 越南정부에 대한 신뢰감 造成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넷째 : 韓·越間의 友好관계증진

사단은 이와같은 民事계획에 따라 美軍 및 越南軍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를 추진하였다.

### (1) 心 理 戰

VC들은 出身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첩보를 수집하고 보급지원을 받았다. 이에 師團은 VC과 同調주민들과의 관계를 斷絶케 하고 주민들이 사단의 諸作戰에 協調하도록 慫慂하기 위하여 對敵심리전 및 對民선무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前年度에는 숙달과 친선단계로서 이를 수행하였으나 當該연도에는 越南人이 사단에 적극 협조토록 하여 이들 스스로가 적색분자를 쳐부수게끔 하는 “동원단계”로 定하고 다음과 같이 심리전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 VC과 住民을 隔絶한다.

둘째 : 韓·越양국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우호심을 배양한다.

셋째 : 주민들의 我軍에 대한 협조심과 신뢰감을 조성한다.

넷째 : 越南人 깊숙히 파고들어 越南의 右翼전영을 지원하여 이들 스스로가 적색분자를 색출하도록 권장한다.

이와같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美제24심리전 파견대와 越南軍 심리전중대와 협력하면서 주로 전단살포와 확성기방송을 併行하였다. 즉 「飛虎 6호」와 「在求 2호」 및 「猛虎 5호」등의 사단 및 연대작전을 비롯하여 기타 大小전투를 전개하기 前에 사단에서 제작한 傳單과 JUSPAO에서 보급된 특수전단을 살포한 바 그 내용은 귀순과 투항을 권고하는 것과 동맹안정보장증 그리고 경고문과 친선전단등이었는데, 예를들면 住民을 대상으로 살포한 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은 억울한 입장에 처하여 있습니다. VC간부는 선량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며 당신들만이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VC들은 당신들을 총알의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66년 1월 9일 韓國軍의 勝利로 마무리된 An Nhon—Tuy Phuoc—Phu Cat에서의 戰鬪때 住民들을 앞세우고 VC들은 숨었습니다. VC들은 이제 싸울 氣力조차 없어졌습니다. 우리 韓國軍의 猛虎는 선량한 주민인 여러분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항하는 투리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므로 가족중에 공산당에 속아 일하고 있는 쪽의 생명을 救하여 가족이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그들을 VC지배지역으로부터 避하게 하여 자유의 품안으로 당신들과 함께 넘어오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선량한 주민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韓國軍은 절대로 住民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韓國軍의 작전 지역입니다. 韓國軍은 언제나 이 지역에 숨어서 주민을 괴롭히는 VC를 몰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韓國軍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勝利가 있을 뿐입니다. 금번 3월 22일부터 전개한 Tuy Phuoc—An Nhon—Phu Cat지역 전투에서도 勝利를 거두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敗走하는 VC들은 다만 자기들의 機密이 누설된다는 한가지 이유로 住民들을 虐殺하고 도망쳤습니다. 韓國軍과 越南軍 및 연합군은 백사람의 VC를 죽이는 것보다 한사람의 良民을 보호하는데 더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VC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안전 地帶로 넘어 오십시오.』

한편 사단은 이러한 전단을 항공대의 O1-E機와 “헬리콥터” 및 砲를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사람이 직접 부착하는 방법을 取하였는데 기간중 撒布한 傳單은 도합 2,595,450枚에 達하였다. 또한 차량이나 “헬리콥터”로써 확성기방송을 互用한바 작전지역내의 VC에게 귀순및 투항을 권고하고 住民들을 안전지대로 避難토록 하여 住民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VC들은 투항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 ② VC지배지역 주민들은 안전지대로 避難하라. 그리하면 생활대책을 세워준다.
- ③ 주민들은 VC지배지역과 작전지역으로 들어가지 말라.』

확성기방송에 있어서 특히 歸順者를 登원하여 방송함으로써 적지않은 成果를 거두었는데 기간중 도합 42회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심리전영화를 모두 53회 상영하여 6,445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각종 홍보용책자를 배포하고 귀순권고와 천선도모의 포어 및 포스타를 곳곳에 부착하였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심리전포어가 기재된 月曆을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특히 Cu Mong고개 상인들에 대한 師團의 심리전활동은 VC이나 그 가족들에게 귀순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민들에게 배부한 月曆에 기재된 포어의 내용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1월 2일 : 새동옷을 입고 있는 어린이들은 驚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유 友邦들은 우리 韓國의 자유와 平和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越南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3월 4일 : 음력 4월 8일에 佛敎人들은 釋迦탄신일 불공준비에 분주합니다. 越南의 自由는 越南을



키순권고, "포스타"

그들의 食生活의 向上을 도모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경과 건설지원, 그리고 각종 친선행사와 자매결연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과의 유대증진에 努力하였는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農耕지원 : 越南의 中部 평야지대에 주둔한 師團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농경지원에 努力하였는데 주민들은 농경기술이 미숙하고 또 일손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수확한 곡식을 VC에게 약탈당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구의 기증과 함께 농경기술의 지도를 併行하였으며 特別 秋收期인 3월에는 延兵力 68,590名과 장비를 동원하여 住民들이 VC으로부터 威脅을 받지 않고 추수할 수 있도록 경계하였다.

(나) 建設지원 : 師團에서는 對民건설공사의 주안을 건설지원단에서 推進중인 越南농촌계건 계획에 입각한 지역적인 건설공사와는 달리 부대주둔 지역내에서의 대민심리전의 效果를 높이는데 두었다.

부유하고 오래도록 번영케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국민을 빈곤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師團은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도합 34명의 VC이 歸順하였으며 전술책임지역내의 越南행정기관에 VC 1,397명을 歸順케 하였다.

(2) 對民지원

師團에서는 心理戰과 併行하여 VC과 住民과의 관계를 隔離하는 한편 韓國軍과 주민들과의 친선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둔 대민지원을 추진하였다. 전술책임 지역내에 있는 주민의 대부분이 극빈자이고 衛生대책이 미비한 까닭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留意하여

이에 따라 부대주둔지역의 기관장 및 주민들로부터 신축 및 보수공사의 요청을 받아 부대능력 범위내에서 병력과 장비 및 資材를 지원한바 延人員 4,691名(고용인 670名포함)과 車輛 186대를 비롯한 각종 장비와 “시멘트”등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학교교실 2棟을 新築하고 9棟을 보수하였으며 이밖에도 교량과 도로를 위시하여 주택, 사당, 시장 등의 公共시설물을 신축 및 보수하였다.

(다) 醫療지원 : 越南에는 본래 의료시설이 미비한데다가 長期間에 걸친 戰禍로 말미암아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치료할 醫師들의 절대수가 不足하였다.

이에 師團은 派越이래 對民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지원에 열의를 쏟은바 주인들중에는 결핵과 만성위장병 및 호흡기질환등이 많았으므로 이들에 대한 長期치료를 위하여 5個組의 대민진료반을 편성한뒤 Binh Khe—An Nhon—Tuy Phuoc—Phu Cat—Dap Dao에 固定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그밖의 지역에 대하여는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對民치료 약품이 부족하므로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민의료약품 淸구업무를 改定하면서 기간증 도합 29,847名을 진료하였다. 이밖에도 대민진료소에 어른에게는 수건을, 어린이에게는 학용품을 선물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을 互用하였다.

(라) 救護지원 : 주민가운데서 전쟁피해자와 극빈자 및 피난민을 중심으로 구호 대상자를 選別하여 쌀과 밀등의 식량을 지원한바 US AID에서 보급되는 물자이외에 各將兵에게 지급하는 1일 급식량에서 조금씩 절약한 것을 지원하는등 온갖 精誠을 쏟았다. 또한 주민들의 自活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급적 無償급식방법을 보류하고 도로보수공사등의 환경정리 작업에 종사케 하여 그 報酬로서 식량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구호사업은 사단에 대한 이해 및 紐帶증진에 큰 몫을 차지하였는데 사단은 白米 334,880kg과 밀 1,938포 및 食油 3,471 G/L을 비롯하여 副食類, 衣類, 嗜好品, 生必需品등을 分配하였다.

(마) 親善활동 : 越南국민과 友誼를 증대하는데 있어서 前述한바와 같은 각종 지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親善활동이었다. 그리하여 師團은 Qui Nhon에 도착하자 곧 운동경기를 개최하여 정신적인 親密態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즉, 지난해 10월 30일에 Qui Nhon 공설운동장에서 師團대표와 同市대표간에 배구 및 축구시합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기간중에 도합 4회의 친선체육대회를 가졌는데 이러한 대회에는 수많은 住民들이 참가하였으므로 사단에서는 경기가 끝난뒤 태권도시범과 군악연주 및 韓國영화상연등으로 주민들과의 친선을 期하였다.

또한 老人을 공경하는 越南의 良習을 감안하여 地域內의 老人들을 기회있는대로 초청한 바 그 회수는 12회에 達하였는데 특히 越南에서의 老人들의 발언권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敬老會를 통한 친선활동은 韓·越間의 유대강화에 큰 몫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학교나 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 한편 어머니 및 어린이잔치와 주민위안회등을 베풀고 합동예배와 범회 및 친선회의등에 참석하며 환자과 고아원 및 遺家族들에 대한 친선방문을 통하여 韓國軍에 대한 이해와 信望을 드높였다.

(바) 跆拳道지도 : 1964년 9월에 韓國 태권도교관단 10名이 派越하여 越南군사 학교에서 지도함과 아울러 각종 행사때마다 시범을 보임으로써 태권도는 韓國의 대명사처럼 越南국민에게 널리 인식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師團이 Qui Nhon에 주둔하자 이곳의 행정기관에서는 태권도를 지도하여 달라고 懇曲하게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는 교관단을 편성한뒤 각종 시범을 펼치는 한편 민병대와 경찰 그리고 학생과 부락청년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점차 수련생의 數가 증가하자 사단은 道場의 신축을 서두른 결과 1월에는 Binh Khe에 1개소를 개장하였으며 이밖에 Qui Nhon 경찰서와 공설운동장, 그리고 민병대연병장과 학교 강당등을 이용하면서 도합 2,440명을 지도하였는데 특히 Cam Ranh여학교를 빌려 여학생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道服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샤워”場과 운동시설을 설비하여 수련생에게 便宜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태권도 지도는 韓·越間의 정신적인 유대증진은 물론 주민들로 하여금 韓國軍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軍隊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였다.

#### 다. 海兵 第2旅團

戰鬪부대로서 越南에 첫발을 디딘 旅團은 中部 Cam Ranh에 주둔하면서 「Ca Du山 전투」와 「번개 1,2,3호 전투」를 전개하여 VC를 격멸하였으며 12월에는 駐屯地를 Tuy Hoa로 옮겨 「靑龍 1호작전」을 펼치는 한편 추수기인 1월과 2월 사이에는 Tuy Hoa南西部 평야일대에서 住民들의 안전한 추수작업을 위하여 이를 보호경계하는 「靑龍 2호작전」을 전개하였다. 旅團에서는 이러한 軍事작전과 併行하여 住民과 VC를 격리시켜 주민들로 하여금 同團작전에 협조토록 하는데에 主眼을 두고 心理戰과 對民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 (1) 心 理 戰

당초 旅團에는 民事업무를 전담한 참모부가 없으므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채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들과 직접적인 선무활동을 폈으나 越南戰의 특수성에 따른 心理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軍司令部에 건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여단본부에 民事참모부(G-5)를 편성, 설치하였다. 그뒤 다시 이를 증편한바 각대대에 이르기까지 民事참모를 임명함으로써 심리전은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리하여 旅團에서는 「번개 2호」와 「청룡 1호작전」을 전개하면서 美제24심리전과전대와 Tuy Hoa 에 있는 US MAC-V 심리전과전대의 협조아래 I-19 및 U-10機로써 敵지역일대에 각종 전단을 살포한바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연합군 주둔지역에 접근금지

둘째 : VC과 접촉금지

셋째 : VC과 협조시 폭격감행

또한 Tuy Hoa방송과 항공기 및 차량방송을 통하여 韓國軍의 참전意義를 闡明하고 軍事작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VC에 대한 투항 및 귀순을 권고하는 對敵방송을 併行하였는데 도합 220,000枚의 傳單을 살포하고 28회의 放送을 실시하였다.

이밖에 반공영화를 93회에 걸쳐 순회상영하고 홍보용책자를 배포하였으며 포어, “포스타”를 제작, 부착하였다. 特히 새해에는 심리전포어가 기재된 韓國月曆을 주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그 효과를 드높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VC 625명을 歸順케 하였다.

## (2) 對民지원

旅團은 전술책임 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거주자의 50%가 극빈자임이 밝혀졌으며 피난민은 2,500명이었으나 軍事작전을 전개하자 그 數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여러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VC에 同調하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이를 회유하는데 힘을 기우렸다. 즉, 旅團은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VC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軍事작전에 협조케 하여 戰勝과 越南의 평정을 지원하고 대민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기간중에 펼친 분야별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農耕지원 : 지난해 12월부터 Tuy Hoa의 南西部 평야일대를 전술책임 지역으로 말

은 여단은 주민의 대부분이 農業을 生業으로 삼고 있으므로 농경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하여 水路를 만들어 주고 황폐된 農地를 개간하였으며 농기구를 기증하고 양곡을 수송하여 주는등 다각적인 지원을 전개하였다. 특히 1월과 2월의 秋收期에는 VC의 양곡 약탈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龍 2호작전」을 벌였는데 延兵力 5,235명과 2 $\frac{1}{2}$ ton차량 1,150대를 동원하여 양곡 29,132 ton을 추수케 하였다.

(나) 建設지원 : 오랜 戰爭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公共시설물은 파손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보수 및 신축지원요청이 많았으므로 旅團에서는 가능한 限兵力과 장비 및 資材를 지원하였는데 延兵力 1,750명과 차량 280대를 비롯한 각종 장비를 동원하여 650棟에 達하는 家屋을 신축 또는 보수하여 전쟁피해자와 避難민을 입주케 하였다.

또한 寺刹 57棟을 보수하고 학교교실 2棟을 신축하였으며 그밖에 교량 7개소와 도로 58km를 보수 및 확장하는 한편 우물 및 모지보수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便宜를 제



移動진로반의 對民 전로 활동

공하였다.

(다) 醫療지원 : 旅團에서는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주둔지역내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固定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老弱者 및 脆弱지역주민을 위한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마을을 두루 순회하면서 환자들을 보살폈다.

이리하여 약품 및 의료기구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합 532名の 의료요원을 동원하여 주민 7,313名을 진료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防疫활동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救護지원 : 지역내의 주민가운데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갔으므로 남아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老人과 兒女子들이어서 생활이 궁핍한 실정이었으며 孤兒나 전쟁피해자들의 극빈자가 많았다.

이에 旅團은 自體內에서 식량을 절약하는 한편 美國 대외 원조기관의 협조아래 이들에게 구호지원을 전개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이재민과 피난민에게 집중적인 구호활동을 펴므로써 그들이 VC에게 同調치 못하도록 하였는데 白米 48,570kg과 食油 354G/L 및 衣類 2,323점을 비롯하여 취사도구와 日用品, 그리고 기호품과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多樣的 物品을 지원하였다.

(마) 親善활동 : 旅團은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냄으로써 유대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끝에 각종 친선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이리하여 敬老會 3회와 어머니잔치 2회, 그리고 어린이잔치 4회와 주민위안회 2회를 베풀었으며 그밖에 4회의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태권도 및 의장대시범을 보이는 한편 이러한 친선행사가 있을때마다 서로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다수의 住民으로부터 讚辭를 받았다.

(바) 跆拳道지도 : 旅團보다 더 일찍 派越한 韓國 태권도교관단에 의하여 태권도에 대한 越南국민의 인식은 韓國軍만 보면 태권도를 連想하러던차 널리 그리고 깊이 박혀 있었으므로 여단에도 주민들의 태권도지도 요청이 있었다.

이에 旅團은 교관단을 편성한뒤 軍과 警察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하였는데 처음에는 道場이 없으므로 학교강당이나 운동장 및 민병대연병장을 빌려 修練하다가 道場을 마련한 뒤부터 本格化하여 都舍 4,900명을 排出하였다.



# 附 錄 및 附 表

## 附 錄

作戰命令 및 演說文·外交文書

1. 作戰命令
2. 大統領 談話文
3. 韓·美 軍事實務約定書
4. 平壤을 覽習
5. 越盟의 平和 4 條件
6. 南 VIET NAM 解放戰線 綱領
7. 解放戰線 5 原則
8. 越南 軍事停戰 協定文

## 附 表

1. 職位表
2. 殊勳者 名單
3. 戰死者 名單
4. 年 表
5. 人名索引



## 作戰命令 및 演說文·外交文書

### 附錄 제 1 호

사 본 번 호 6/175  
 파월 한국군 사령부  
 서 울 필 동  
 1965. 09. 25.  
 태 양

### 훈령 제 1 호

참조 : 국방부 일반명령 제16호 (1965.9.20)

국방부 지령 제10호 (1965.8.16)

국방부 지령 제12호 (1965.9.21)

한월 군사 실무 약정서 (1965.9.6)

한미 군사 실무 약정서 (1965.9.6)

월남 공화국 촌락 재건 개념과 정의 및 절차

The Concept of Rural Reconstruction and Certain Definitions and Procedures (MACJ332.23 April 1965)

주월 미국군의 운용 및 전술

Tactics Techniques for Employment of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Vietnam (Directive 52 5-4, 17 September 1965)

지도 : 한국 1 : 1,000,000 및 월남 1 : 1,000,000

1. 월남 공화국 및 주월자유 우방국 군대는 계속 월남 공화국의 국가평정 과업 및 재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월남 정세는 부록 “가”를 참조하라.

2. 파월 한국군은 월남 공화국 정부의 요청 (월남 수상의 전투사단 파병요청 서한 : 1965.6.14)에 의하여 월남 공화국의 국가평정 및 피해지역 재건 사업을 원조한다.

3. 파월 한국군 사령부는 전 파월 한국군을 통합 지휘하여 월남공화국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여 월남 공화국의 자유와 안전을 수복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

가. 파월 한국군이 수행할 구체적인 임무 통제체계 및 작전 지역등은 한·월·미국군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유 세계군사 원조정책회의 (FWMAPC)에서 결정 된다.

나. 수도사단 (一) 및 해병제 2여단은 월남으로 이동, 전투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다. 건설 지원단은 파월 한국군 사령부가 월남에서 지휘소를 개소함과 동시에 사령부 지휘 하에 들어가며 피해 지역 재건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4. 기타 사항은 부록을 참조 하라.

수령후 보고

사령관 육군소장 채 명 신

사 본 번 호 6/175

주월 한국군 사령부

서 울 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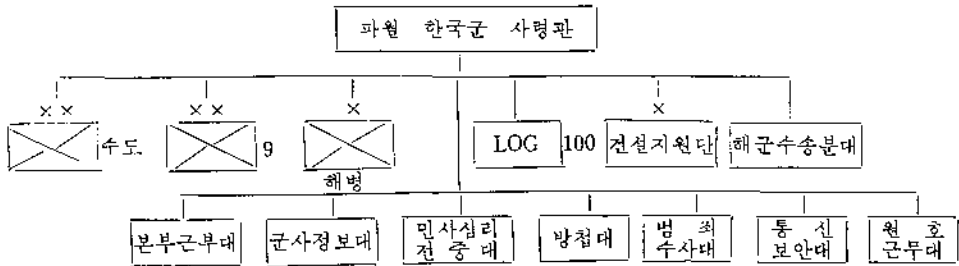
1965. 09. 25.

태 양

훈령 제 1 호. 부록 “라” 지휘권 관계

1. 임무 : 파월 한국군 각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월남 공화국의 존락 재건 사업을 원조한다.  
국방부 일반 명령 제16호)

2. 지휘계통



3. 파월 한국군 사령부의 기능

- 가. 파월 한국군을 대표하며 이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 나. 파월 한국군 및 월남군, 파월 미군원사령부 간에 설정된 자유세계군사 원조 정책회의 (FWMAPC)에 상임 위원 및 사무국 요원을 제공한다.
- 다. 예속 및 배속 부대에 대한 인사 및 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 라. 파월 한국군 군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월남군 및 파월 미군원 사령부와 협조한다.
- 마. 파월 한국군 각 부대와의 통신망을 유지한다.
- 바. 월남 피해지역 재건사업을 원조한다.

4. 국방부 장관으로 부터의 권한 위임사항

가. 인사분야

- (1) 중무, 화당, 인헌훈장 및 상이 기장 배리 수여권 (지령 12호 인사부목)
- (2) 중령급 까지의 장교 임시 계급 수여권 (인사법 33조 국방부령 52호)
- (3) 파월 근무 부적격 장병에 대한 본국 송환권 (지령 12호 인사부목)
- (4) 장군 직위 및 대령급 연대장 참모장을 제외한 사령부 산하 전 보직권 (지령 12호)

나. 정보분야

- (1) 국방부 보안 검사 연 2회 대행권 (6월, 12월 실시) (지령 12호)

다. 작전 분야

- (1) 파월 한국군 부대의 통합 지휘권 (지령 12호)

(2) 파월 전부대의 파월간 교육 권한 (합작교 953-887)

라. 군수 분야

(1) 파월 부대 군수품 부용의 결정권 (지령 12호, 추가 3)

(2) 파월 부대 부용 군수품의 반납권 ( " )

(3) 군수품의 처분권 ( " )

마. 보도 관계

(1) 보도 및 기사검열 권한

수령후 보고

사령관 육군소장      체      병      신

배부: 훈령 제 1 호 본문 참조

주무관      작전참모      박      학      선

(구두 명령과 변동 없음)

附錄 제 2 호

사 본 번 호 8/15  
주월 한국군 사령부  
월남 싸이공 (836911)  
1965. 10. 25.  
비 들 기 1

작전명령 제 2 호

참조: 지도 한국 1 : 250,000 및 월남 1 : 250,000

1. 상황

가. 적군: 부록 "가" 정보

나. 아군:

(1) 월남 공화국의 평정 파업과 피해 지역 재건 사업을 미육군을 위시한 자유 우방국 군대는 계속 지원하고 있다.

(2) 부대배치: 부록 "나" 부대 위치

2. 임무

파월 한국군은 월남 공화국 평정 파업을 원조하기 위하여 일부 부대의 기지지역을 선정 및 확보하고 피해지역 재건 사업을 계속 원조한다.

3. 실시

가. 작전 개념

(1) 수도사단 (一)은 Qui Nhon, Binh Khe 지방에 해병 제 2 여단은 Cam Ranh 지방에 기지를 설치하고 지역내 주요시설을 확보 한다.

(2) 할당된 전술 책임 지역(TAOR) 내의 적을 소탕하고 차후 작전에 대비 한다.

(3) 한·미·월의 3개국 자유 세계군사원조 정책회의의 합의에 따라 전술 책임 지역내에서.

적을 소탕 완료 할때까지 수도사단 (一) 및 해병 2 여단을 파월미 육군 야전구대 사령부 (FFV)의 작전 통제하에 둔다.

나. 수도사단 (一)

- (1) 155mm 곡사포 1개포대, 1개 공병중대 및 자동차중대, 의무치료 중대. 담부트럭 소대, 병기지원 소대, 탄약 소대, 헌병소대, 범죄수사반, 군사정보반, 공병장비 정비반, 통신 지원단, 화학반으로 구성되는 해병군수 지원단을 편성 1965. 9. 25. 00:00부터 해병 제 2 여단에 배속하라.
- (2) Binh Dinh 성 Qui Nhon. Binh Khe 지방에 기지를 설치, 지역내의 주요 시설을 확보하라.
- (3) 전술 책임 지역내의 적을 소탕하라. 부록 "다" 작전 투명도 별지 1참조.
- (4) 차후 단계 작전을 준비하라.

다. 해병 제 2 여단

배속 : 155mm 곡사포 1개포대 1965. 9. 25. 00:00부터

- 사단공병 1개중대
- 해병 군수 지원단
- 자동차 중대
- 의무 치료 중대
- 담부트럭 소대
- 병기 지원 소대
- 탄약 소대
- 헌병 소대
- 범죄 수사반
- 군사 정보반
- 공병 장비 정비반
- 통신 지원반
- 화학반

- (1) Khanh Hoa 성 Cam Ranh 지방에 기지를 설치, 지역내의 주요 시설을 확보 하라.
- (2) 전술 책임 지역내의 적을 소탕하라. 부록 "다" 투작전명도 별지 2참조.
- (3) 차후 단계 작전을 준비하라.

라. 건설 지원단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마. 협조 지시

- (1) 전술 책임 지역 밖에서의 작전은 사전 당사령부의 지시에 의하라.
- (2) 지대 내의 월남군 부대 및 특히 Qui Nhon, Cam Ranh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관제 미군 부대와 협조 하라.

4. 행정 및 군수 : 훈령 제 1호 부록 "나" 행정 및 군수 참조.

5. 지휘 및 통신

가. 통신 : 훈령 제 1호 부록 “다” 통신 참조.

나. 지휘소 : 선정후 보고

수령후 보고

사령관 육군소장 채 명 신

附錄 제 3 호

越南派兵에 즈음한 朴正熙 大統領 談話文

(1965年 1月 26日)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政府는 越南共和國의 追加支援要請에 關하여 憲法의 定하는 바에 따라 國會의 同意를 얻어 約 2,000 名의 國軍을 增派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이 增援軍은 自體警備兵力을 包含한 工兵과 輸送兵의 非戰 關係員으로 構成되었으며, 越南의 後方地域에서 附與된 任務를 遂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越南共和國은 中共의 支援을 받는 것으로 看做되는 越盟계 匪徒軍의 惡質의인 攻擊에 直面하여 힘겨운 反共鬭爭을 遂行하고 있습니다.

越南에 對한 共產勢力의 挑發行爲는 비단 越南 한 나라의 安危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亞細亞의 平和와 安全에 直結된 問題로서 이에 對處하기 爲하여 美國을 비롯한 여러 自由友邦國家들은 이미 越南共和國에 對하여 軍事·經濟 및 多角의인 支援을 繼續 強化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도 없이 自由越南이 共產化하는 경우, 大略 다음의 두가지 可恐할 狀態의 發生을 우리는 豫斷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共產主義者들의 侵略에 對抗하는 自由世界의 커다란 混亂과 蹉跌이 生길것이 確實하다는 것이며, 그 둘째는 東南亞에 대해서 越南을 出口로 하는 共產勢力은 韓半島를 包含하는 全太平洋地域의 自由國家들에 대해서 露骨의이며 急進的인 挑發行爲로 나올 것이 明確하다는 事實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일어서서 막을 것인가를 決定지어야 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 亞細亞를 불사른지도 모를 危險에 對해서 目下 越南을 불태우고 있는 하나의 불씨를 未然에 꺼버리는 데 協力하는 것은 安全을 위한 最上의 길이고 또 우리의 義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韓國政府는 國土의 直接防衛에 支障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可能한 限의 모든 文援을 越南共和國에 提供하기로 決定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政府의 決定은,

첫째, 越南에 對한 우리의 支援은 全亞細亞의 平和와 自由를 守護하기 爲한 集團安全保障에의 道義的 責任의 一環이라는 判斷에 立脚하였고,

둘째, 自由越南에 對한 共產侵略은 곧 韓國의 安全에 對한 重大한 威脅이므로 우리의 越南支援은 바로 우리의 間接的 國家防衛라는 確信에 依한 것이며,

셋째, 過去 16個國 自由友邦의 支援으로 共產侵略을 擊退시킬 수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한

友邦이 共產侵略의 犧牲이 되는 것을 坐視할 수 없다는 韓國民의 正義感과 斷乎한 決意에 따른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親友를 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救援해야 하겠다는 것은 義를 사랑하는 우리 民族의 드높은 氣概이기도 한 것입니다.

親愛하는 國民 여러분!

우리가 越南에서의 自由守護鬪爭에 參與하는 것은 작게는 우리의 自由를 守護하고 우리의 國家安定과 積極인 反共鬪爭을 強化하는 길이며, 크게는 自由世界의 對共防衛戰線을 整備強化하고 自由에 奉仕하여 平和에 寄與하는 榮耀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었던 共產侵略을 自由友邦의 젊은이들의 피로써 함께 물리쳤던 嚴然한 事實을 想起하면서 힘에 겨운 反共鬪爭을 遂行하는 自由友邦에 對하여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떤 民族이냐를 묻기 전에 우선 最善을 다해서 地域上의 侵略行爲로부터 沮止시켜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남의 關與나 도움을 받던 被動的 位置에서 主要國際問題에 對하여 一端의 責任을 질 수 있는 前進的 姿勢를 취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봅니다. 前進的 姿勢로 臨하는 우리가 그 責任을 遂行하는데는 어떠한 負擔과 多少의 犧牲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負擔이 있고 犧牲이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責任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自由友邦들로부터 많은 惠澤을 입어 왔음이 事實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惠澤의 一部를 우리 보다 어려운 處地에 놓여 있는 友邦에 돌려야 할 道義上의 義務도 느끼고 있습니다.

大韓民國은 이 義務를 誠實히 遂行하고 있음을 世界에 向하여 밝혀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自由越南을 可能한 限 支援함으로써 모든 侵略行爲는 斷乎히 沮止되어야 한다는 貴重한 眞理를 再確認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自由와 平和를 守護하기 爲하여 結束되며 前進하는 自由友邦의 正義의 隊列에 參與하여 國際平和와 安全維持에 한층 이바지하게 될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壯途에 오르게 될 國軍將兵들의 武運과 健勝을 祝願하는 바입니다.

## 附錄 제 4 호

### 派越 韓國軍司令官과 派越 美軍援司令官 間의 軍事實務約定書

兩國정부로부터 認定된 權限에 따라 派越韓國軍司令官과 派越美軍援司令官은 다음의 實務約定書에 合意한다.

#### 1. 總 則

越南 共和國의 요청에 應하여 大韓民國정부는 越南內에 자유와 安全을 回復하고 共產主義者들의 使 嚇에 依한 반란 및 侵略을 격퇴함으로써 國際 平和에 寄與하기 위하여 增援부대를 派越한다.

派越韓國軍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부대로서 構成한다.

가. 派越 韓國軍司令部 및 司令部 부대

나. 제 육군 전투부대



- 다. 제 해병 전투부대
- 라. 전투지원 및 행정부대
- 마. 기타 군사부대

## 2. 任 務

派越韓國軍은 越南 共和國內에 있어서 정부의 支配지역 확장 및 國家再建 사업을 援助함에 있어 VC 및 越盟軍에 대한 擊滅作戰을 전개 한다.

## 3. 指揮權

派越 韓國軍 全將兵의 指揮權은 大韓民國 정부가 任命한 派越 韓國軍司令官에게 있다.

## 4. 協 調

派越 韓國軍과 越南軍 및 派越 美軍間의 긴밀한 협조를 維持하고 共同目標 달성을 위한 諸政策을 협의하기 위하여 現存의 自由 세계 軍事 援助政策會議는 派越 韓國軍을 위한 그 機能을 계속한다.

이 會議는 越南統合參謀總長(議長) 派越 韓國軍司令官 및 派越美軍司令官으로 구성되며 이 機關들의 實務者級 대표가 참가한다.

이 會議의 基本 기능은 任務 및 作戰 지역에 관한 方策을 결정함에 있다.

이 會議의 결정은 각己 政府의 대표자에게 相互同意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必要한 경우 韓國軍 越南軍 및 美國軍의 利害에 관한 政策문제도 自由世界 軍事政策會議에 迴附된다.

## 5. 派越韓國軍 航空機 運用

(下記 事項이 合意되었다)

가. 派越 韓國軍司令官은 派越 韓國軍 支援과 관련하여 수종의 航空機의 運用을 필요로 한다.

나. 駐越 韓國軍 航空機는

- (1) 派越美軍援司 空軍 구성군 사령관의 職을 행하는 第7空軍司令官이 발한 美軍 및 기타 自由世界 空軍을 위한 現행 戰術 空軍 통제지시 및
- (2) 民間航空處長이 발한 空路統制에 관한 越南政府 指示에 副應하여 運用된다.

## 6. 補 處

派越 韓國軍에 依하여 逮捕 또는 抑留된 VC 및 容疑者를 포함한 모든 人員은 韓國軍에 依하여 억류되어 있는 동안 1949년의 제네바協定の 諸規定에 따라 취급되며 可及의 신속히 指定된 越南軍 審問所에 또는 시설에 引繼한다.

## 7. 軍紀法 및 秩序

派越 韓國軍의 軍紀法 및 秩序에 관한 事項은 派越 韓國軍司令官의 責任이며 國家의 責임이다.

美軍 憲兵은 韓國軍 人員에 대한 何等의 權限이 없으며 反對로 韓國軍 憲兵도 美軍이나 자유세계 軍의 人員에 대한 權限이 없다.

다만 어느軍의 憲兵이거나 生命과 財産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他軍 構成軍을 일시적으로 抑留할 수 있다.

抑留된 신병의 보호는 可能한 限 신속히 적절한 國家의 기관에 인도되어야 한다.

## 8. 情報 및 保安

情報 및 保安에 관한 事項은 이 約定書의 附錄으로 정한다.

#### 9. 部隊教育

派越 韓國軍司令官은 隸下부대의 越南 도작이전 및 越南國內에 展開期間中 계속적인 부대 교육을 담당한다.

이 教育은 그의 司令部 越南國民과 越南政府間의 親善의 可能한 親善關係를 補償하는 観点에서 越南의 歷史, 習俗 및 傳統 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派越 美軍援司令官은 派越 韓國軍司令官에게 그의 許容범위내에서 教育資料를 제공한다. 이 問題와 관련하여 派越 韓國軍司令官이 적절한 越南軍 당국과 合意한 것이 諒知되어 있다.

#### 10. 公式訪問

派越 韓國軍司令官은 자유세계 軍事援助機構 사무소를 경유하여 派越 美軍援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軍事要員, 新聞記者 및 기타 公式 代表의 越南 방문을 위한 入國 절차를 밝기이전에 派越 美軍援司令官과 接洽한다.

#### 11. 軍需支援

派越 美軍援司는 類似한 美軍부대에 적용되는 同一한 軍需基準에 따라 派越 韓國軍을 支援한다. 軍需支援은 이 約定書의 附錄으로 정한다.

#### 12. 사이공地域 派越韓國軍 支援

派越 美軍援司는 그가 支援키로 同意한 적절한 T O & E 와 支援부대 表에 規定된 兵力 상한내에서 사이공地域 韓國軍을 支援한다.

이 實務約定書에 合意할 당시 美軍에 依하여 제공된 支援施設을 제외한 사이공地域의 派越韓國軍을 위한 事務室, 宿所 및 食堂등 支援시설은 越南軍에 依하여 제공된다. 派越美軍援司는 이러한 시설의 設備를 갖추고 이를 維持한다.

美軍은 派越 韓國軍 出張要員에게 美軍人員에 대한 것과 同一基準에 依據, 宿所 및 食堂시설을 제공한다.

派越韓國軍은 그의 所要를 超過하게 되는 如何한 美軍 提供시설도 이를 派越美軍援司에 통고한다.

派越 美軍援司는 사이공 派越 韓國軍司令部를 支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通信, 輸送, 整備 및 현지 雇傭人等 諸用役을 제공한다. 各個의 지원 요청은 개별적으로 派越美軍援司에 의하여 검토한다.

#### 13. 人事勤務

以下에 美軍 시설을 이용하도록 認定된 派越 韓國軍人員은 美軍에 적용되는 同一한 규정, 法規 및 條件에 따라야 한다.

派越美軍援司는 美軍을 위해서와 同一한 基準條件 및 規定에 依하여 美軍人員에 通常 제공되는 다음의 支援을 派越 韓國軍 人員에게 제공한다.

- 가. 美 娛樂計劃에의 參加
- 나. 美 軍事宗教시설의 사용
- 다. PX 시설의 사용

(1) 125名 或은 그 以上の 韓國軍이 駐紮되어 있는 곳에서는 派越 韓國軍은 이미 PX 支店이 있

지 않는 限, PX를 설치 運營할 수 있다.

(2) 이 PX에서 販賣된 品目은 越南內에서의 PX 運營 責任이 있는 美軍機關에 의해 供給된다.

(3) 派越 美軍援司는 美軍 PX 機關이 10種의 범위내에서 韓國軍의 特有 嗜好品目을 韓國으로부터 購得供給할 것에 同意한다.

라. 食堂, 宿所 및 크럼시설 利用

마. 125名 또는 그 以上の 派越 韓國軍 軍人이 집결되어 있는 地域에서는 韓國自體의 食堂 및 크럼을 설치 運營할 수 있다. 韓國軍 食堂 및 크럼의 運營上 消費性 品目은 辦償方式으로 美補給 源으로부터 供給된다.

바. 美郵便 시설 利用

派越 韓國軍은 지정된 美軍地域 郵便 수집소, 軍事郵便局 및 韓國 서울間에 美國郵票의 貼付없이 公用 郵便物과 個人 郵便物(1種 내지 4種)을 위한 封緘 “파우치”를 이용함을 認定한다.

사. 既設 美軍 버스, 세단, 택시, 航空機 서비스의 利用

아. 葬禮근무, 派越 韓國軍은 적절한 慣習에 따른 遺骸의 처리를 위한 英顯 수집 등록보관소를 설치 運營한다.

英顯處理를 위한 補給은 越南內에 있어서의 補給의 가능성에 따라 派越 美軍援司가 이를 제공한다. 後送후 韓國에서 埋葬해야할 유해를 美軍系統으로 처리된다.

자. 派越 美軍援司司令官은 共同으로 同意된 바에 따라 韓國軍司令官은 臨時 出張方式으로 韓國과 越南間에 위치한 美軍 시설에 美軍後送 계통으로 醫療 후송되는 韓國軍 및 派越 韓國軍將士들과 관련한 連絡 문제를 원조하고 협조하기 위한 連絡將校를 둔다.

派越 美軍援司司令官은 같은 任務에 있는 美軍과 同等한 支援을 이들에게 제공한 것을 同意한다.

차. 韓國軍은 各個人에게 사진과 영역이 있는 身分證을 發給한다. 이 證書를 사용하여 上記한 시설과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다.

카. 派越 美軍援司는 類似한 條件下에 작전하고 있는 美戰鬪兵力에 제공되는 것과 類似한 부대 숙소 건강 및 福利의 기준을 支援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에 同意한다.

타. 派越 美軍援司는 그에 의하여 類似한 美軍부대에 제공되는 것과 同一한 基準의 娯樂시설을 제공할 것에 同意한다.

14. 通 信

派越 韓國軍支援을 위한 通信은 이 約定書의 附錄으로 定한다.

15. 建 設

派越 韓國軍을 위한 건설은 이 約定書의 附錄으로 定한다.

16. 經 理

派越 韓國軍司令官과 派越 美軍援司令官 間의 經理문제는 別途 約定書로 定한다.

17. 安 全

18. 派越 美軍援司令官은 韓國軍부대가 各個의 지역에서 展開를 마칠때까지 割當된 책임지역내의 韓國軍의 安全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19. 現地雇傭人

派越美軍援司는 派越韓國軍에 맡은 바 任務를 수행함에 필요한 現地 雇傭人을 兩軍司令官 共通으로 認可한 범위내에서 제공한다. 그 具體的 節次는 第16項에 언급된 經理約定書에 定한다.

20. 請求權

派越 美軍援司令官과 派越 韓國軍司令官은 越南內에서 各己의 指揮下에 있는 부대 구성원 및 雇傭人에 依하여 惹起된 財産損失, 負傷 및 死亡에 따르는 相對方에 대한 請求權을 상호 拋棄한다. 이 拋棄는 個人의 請求權에는 미치지 않는다.

派越 美軍援司令官과 派越 韓國軍司令官은 越南內에 있어서의 各己의 作戰에서 발생되는 各己의 指揮下의 구성원이 惹起케한 損失 負傷 및 死亡에 따르는 第三者의 請求에 대한 各己裁決과 解決의 責任이 있음을 인정한다.

派越 韓國軍에 대한 越南國內 發生의 非戰鬪請求權 문제는 1966. 6. 20일자 兩軍司令官 間의 補充軍事 實務約定書에 依하여 規定된다.

21. 兵力

派越韓國軍은 派越美軍援司에 FVMAO 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軍別 및 地域別 兵力 상황을 제공한다.

22. 證人과 通譯

兩軍司令官은 各己 軍法會議 및 各軍의 行政 절차상 요구되는 證人 및 通譯等 기타를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할 것에 同意한다.

23. 韓·越 協定書

韓國이 越南 정부로부터 美軍에 1950년의 5者協定の 규정에 따라 附與받은 바 權利, 特權 및 義務, 免除가 韓國에도 附與되었다는 越南정부의 諒知를 받았음을 특히 言及한다.

24. 諸約定書

가. 適法하게 權限이 부여된 將校의 署名과 더불어 이 約定書는 効力を 발생하며 雙方合意에 依한 一般 軍事約定書를 이룬다.

各 當事者는 90일의 猶豫時間을 두고 全部 또는 一部의 再協商을 요구할 수 있다.

나. 韓國軍 移動外科病院에 관한 1964. 9. 5자 兩軍대표자 署名의 군사실무 約定書는 이 約定書로 代置된다.

派越 韓國軍事援助團 先發隊의 대표자, 越南國防省의 代表者 및 派越 美軍援司의 대표자가 1964. 9. 5자로 共同署名한 實務約定書는 계속 유효하다.

다. 韓國軍事援助團에 관한 1965. 2. 8자 兩軍 대표자 署名의 軍事 實務 約定書는 이 約定書로 代치된다.

라. 1965. 9. 6자 兩軍대표자 署名의 軍事實務約定書는 이 約定書에 依하여 代치된다.

마. 이 軍事實務約定書의 附錄에는 軍需, 情報, 建設 및 通信이 있다.

軍事 實務 約定書의 一部가 되며 이 約定書는 署名日로부터 有效하다.

이 約定書는 1969. 4. 30에 署名되었다.

(署名)	(署名)
副司令官	副司令官
大韓民國 陸軍少將	美合衆國 陸軍大將
金容然	(署名)

附錄 제 5 호

부라온 覺書

大韓民國 서울  
1966 년 3월 4일

閣下

閣下께서는 大韓民國정부가 越南共和國 정부로부터 越南共和國에 대한 韓國戰鬪部隊의 增派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였다고 本人에게 통지하였습니다.

閣下께서는 또한 貴國정부가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依據하여 國會的 승인을 받는 대로 1개 聯隊戰鬪團을 4월에 도착시키고 1개 師團兵力을 7월에 도착시키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요청받은 援助를 越南共和國 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陳述하였습니다.

本人은 大韓民國 정부가 越南戰線을 韓國의 安全과 직결된 大韓民國의 第2戰線이라고 看做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大韓民國의 決定이 취하여진 것이라는 貴下의 說明에 留意하였습니다.

本人의 政府는 越南에서 싸우고 있는 自由세계의 軍隊에 대하여 이미 高度로 효과적인 기여를 增強하려는 貴國정부의 決定을 충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大韓民國의 安全과 發展에 있어서의 우리의 共同利益에 비추어 合衆國은 韓國防衛의 安全이 維持되고 강화되어 또한 韓國의 경제적 발전이 더욱 增進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위한 用意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權限을 附與받았습니다.

李 東 元 外務部長官 閣下

서 울

가. 軍需協調

- (1) 韓國에 있는 大韓民國 國軍의 現代化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相當量의 裝備를 供給한다.
- (2) 越南 共和國에 파견되는 追加兵力에 필요한 장비를 供給하며 또한 派越 追加兵力에 따르는 一切의 追加的 元貨 經費를 부담한다.
- (3) 越南共和國에 파견되는 追加兵力을 完全代置하는 補充兵力을 裝備하고 訓練하며 所要財政을 負擔한다.
- (4) 大韓民國의 對間諜활동 能力을 지원하기 위하여 韓·美 合同研究 結果에 따라 兩國정부에 依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要求를 충족시키는데 參與한다.
- (5) 大韓民國에서 彈藥生產을 增加하기 위하여 兵器廠 擴張시설을 供給한다.
- (6) 大韓民國側 專用 통신 시설을 供給할 것이며 그 성격은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合衆國 및 大

韓民國의 關係官에 依하여 合意될 것이다.

本施設은 越南共和國 駐屯 大韓民國部隊와의 通信을 위한 요구를 充足할 것이다.

- (7) 派越 大韓民國 部隊를 支援하기 위하여 大韓民國 空軍에 C-54 航空機 4臺를 제공한다.
- (8) 幕舍 및 獨身將校 宿舍와 취사 食堂 衛生 및 娛樂施設等 部隊福祉를 위한 諸關聯된 시설을 改善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軍事 援助계획 剩餘物資의 賣却代金에서 제공한다.
- (9) 派越 韓國軍 全員에 대하여 1966년 3월 4일 比奇 將軍 및 金聖恩 國防部部長官 間에 合意된 率에 따라 海外勤務手當을 부담한다.
- (10) 越南에서 發生하는 戰死傷者에 대하여 최근 韓·美合同 軍事委員會에서 合意된 額數의 2倍의 比率로 補償金을 支拂한다.

나. 經濟協調

- (1) 이러한 追加兵力이 越南國內에서 1개 豫備師團, 1개 豫備旅團 및 支援부대를 動員維持함에 所 要되는 追加費用의 全額과 同額의 追加 通貨를 韓國豫算을 爲하여 放出한다.
- (2) 相當數의 大韓民國 兵力 즉, 최소한 2개 師團 兵力이 越南共和國에 駐屯하고 있는 동안에는 軍援移管을 中止하며 同時에 1967 美會計年度에는 1966 美會計年度에 中止된 品目과 아울러 1967 美會計年度 계획표에 있는 品目を 韓國에서 조달한다.
- (3) (가) 派越 大韓民國 部隊에 소요되는 補給물자 用役 및 장비를 實行할 수 있는 限度까지 大韓民國에서 購買하며 派越美軍과 越南軍을 위한 物資中 결정된 購買品目を 韓國에 發注한다.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韓國에 生産능력이 있을 경우
  - 2) 韓國이 規格과 納品 豫定期日을 맞출 수 있을 경우
  - 3) 韓國의 物品 價格이 極東의 기타 供給可能地 價格과 비등하다는 것을 合理的으로 認定할 수 있 을 경우
  - 4) 其他 點에 있어서 購買가 合衆國 國防省의 規定과 節次에 符合할 경우
 上記 경우에 配當되는 補給物資, 용역 및 장비는 자연 공급처 表에 記載될 것이며 그 表에 依 하여 非韓國 生産者의 入札을 排除하고 韓國供給處안에 局限하여 購買할 것이다.
  - (나) 合衆國의 供給業者들과만 경쟁하는 원칙하에 AID가 越南共和國에서 농촌건설사업 선무, 구호, 보급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購買하는 物資의 相當한 量을 韓 國이 適時 및 適價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韓國에서 購買한다.
  - (다) 越南共和國에 依하여 許可되는 범위내에서 韓國請負 업자들이 合衆國 政府 및 美國請負 업 자들이 越南共和國에 있어서의 韓國人 民間技術者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用役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4) 輸出振興의 全般部門에 있어서 大韓民國에 대한 技術協調를 강화한다.
- (5) 1965년 5월에 大韓民國에 대하여 이미 約束한 바 있는 1億 5천만 \$ 借款에 追加하여 合衆國 政府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億 5천만 \$ 約束에 適用되는 同一한 精神을 爲하여 大 韓民國의 經濟發展을 支援하기 爲하여 追加借款을 提供한다.

(6) 1966년도 財政安定計劃의 施行結果에 따라 適當한 경우 越南共和國에 대한 輸出의 支援 및 기타 開發目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천 5백만 \$ 의 프로그램 돈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  
閣下에게 本人의 最大의 敬意를 포함합니다.

(署名)

윈드롯 지. 브라운

### 附錄 제 6 호

#### 越盟이 내세운 平和를 위한 4條件

(1965年 4月 8日)

1. 베트남人民의 基本的 民族的 權利 卽 獨立, 主權, 統一 및 領土保全을 尊重하라. 美國府는 제네바 協定에 따라 그 軍隊, 其他 戰爭物資를 南베트남에서 撤收치 않으면 아니된다. 同時에 美國政府는 北베트남에 對한 모든 戰爭行爲를 停止하라.
2. 베트남의 平和的 再統一까지 베트남이 暫定的으로 2個地域으로 分割되어 있는 동안 2個地域은 外國과의 어떠한 軍事同盟에도 加入못하며, 相互의 領土에 어떠한 外國의 軍事基地, 軍事要員도 존재치 못한다.
3. 南베트남의 內部問題는 어떠한 外國의 干涉없이 南베트남民族解放戰線의 綱領에 따라서 南베트남人民 自身에 依하여 解決해야 한다.
4. 베트남의 平和的 再統一의 實現은 外國의 干涉없이 兩地域의 베트남人民 自身에 依하여 解決되어야 한다. 上述한 立場은 베트남問題의 가장 올바른 政治的 解決을 위한 基本인 것이다. 이 基本이 承認되는 境遇에 단 1954年 “제네바” 會議形式의 國際會議의 開催를 檢討하는 것이 可能해질 것이다.

### 附錄 제 7 호

#### 南VIET NAM 民族解放戰線 綱領

1960年 12月 20日

解放戰線은 1965年 12月 20日 結成과 同時에 다음과 같은 綱領을 發表하였다.

1. 美帝國主義의 偽裝된 植民地制度와 美國의 앞잡이인 獨裁政權을 打倒하여 民族民主聯合政府를 樹立한다.
2. 廣範한 進步的 民主主義制度를 實現한다. 言論, 新聞, 集會, 結社, 信仰, 其他의 民主的 自由를 認定하며, 모든 政治犯을 釋放하고 強制收容所를 없애며 非民主的 法律을 破棄한다. 憲法을 廢棄하며 新國會를 選出한다.
3. 獨立, 自主經濟를 建設하고 國民生活을 改善한다. 美國 및 그 앞잡이의 經濟獨占을 없앤다. 國內工業을 獎勵하고 農業을 發展시키며 國產品을 振興한다. 失業問題를 決하며 勞動者 및 公務員의 生活을 改善하여 公正 合理的인 徵稅制度를 採擇한다.
4. 減稅를 實施하며 나아가 農民의 土地問題를 解決하여 耕作者에게 土地를 給與한다.

5. 美國式인 從屬과 墮落의 文化를 一掃하고 民族의 民主的인 文化와 教育을 建設하고 文盲을 없애며 많은 學校를 세워, 科學技術, 醫藥, 衛生事業을 發展시킨다.
6. 祖國을 防衛하고 人民을 守護하는 民族軍隊를 建設한다. 美軍事顧問制度를 廢止하고 國內外國軍基地를 없앤다. 徵兵制度를 廢止한다.
7. 民族의 平等, 男女의 平等, 民族自治의 權利를 實現하며 外國人居住民의 正當한 利益을 保護하며, 海外베트남人의 利益을 守護한다.
8. 平和中立의 外交政策을 實施하고 모든 나라와의 外交關係를 樹立한다.
9. 南北베트남間에 正常한 關係를 確立시키며 다시 나아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한다.
10. 侵略戰爭에 反對하여 積極的으로 世界를 守護한다.

## 附錄 제 8 호

### 南VIET NAM 民族解放戰線의 5原則

(1965年 3月 22日)

1. 美帝國主義는 제네바諸協定の 破壞者이며 가장 破廉恥한 戰爭挑發者 侵略者이며 南베트남人民의 불구蔽天의 敵이다.
2. 南베트남人民은 英雄的인 南베트남人民을 解放하여 獨立, 民主, 平和, 中立의 南베트남을 가져오며 民族再統一에 到達하기 위하여 美帝國主義者를 驅逐할 決意를 굳게 하고 있다.
3. 勇敢한 南베트남人民과 南베트남解放軍은 美帝國主義를 追放하고 南베트남을 解放하여 北베트남을 防衛하는 神聖한 任務를 完全히 遂行할 決意를 굳게 하고 있다.
4. 南베트남人民은 平和와 正義를 願하는 世界人民의 滿腔의 支持에 깊은 感謝의 뜻을 表하며 兵器 其他 軍需物資를 包含하는 모든 援助를 五大洋의 友人으로 부어 받을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5. 全人民을 團結하기 위하여, 全人民을 武裝시키기 위하여 美侵略軍과 베트남의 背反者와 싸우며 이를 打倒할 決意를 굳게 하자.

## 附錄 제 9 호

### 越南 軍事 停戰 協定文

(1954年 7月 20日)

#### 第 1 章 暫定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

- 第 1 條 兩當事國의 軍隊가 撤收後 越南人民軍隊는 北方에, 佛聯邦軍隊는 分界線南方에 集結하도록 一定한 暫定 軍事分界線을 添付된 地圖에 表示된 바와 같이 設定한다. 一定한 緩衝地帶를 形成하여 敵對行爲의 再開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는 事件을 迴避하기 爲하여 軍事分界線 兩側面에 幅 5km 以下の 非武裝地帶를 設定할 것에 또한 合意한다.
- 第 2 條 兩當事國의 全軍隊가 暫定 軍事分界線 雙方의 集結地帶로 移動을 完了할 期間은 本協定發効日부터 300日을 超過치 못한다.



第3條 暫定 軍事分界線이 一定한 水路와 一致할 境遇, 이러한 水路의 通行은 一定 河岸이 一定한 當事國에 依해서 支配되고 他河岸이 他當事國에 依해서 支配됨을 不問하고 兩當事國에 依한 民間 航行을 爲하여 公開되어야 한다. 合同委員會는 問題의 水路範圍를 爲한 航行規則을 規定한다. 各 當事國의 商船 및 其他 民間船舶은 軍事統制下에 있는 陸地에 對하여 無制限한 近接을 할 수 있다

第4條 2個의 最終 集結地帶間의 暫定 軍事分界線은 海岸線과 垂直이 되는 直線에 依해 領海水域까지 延長된다. 이 境界線 以北의 全沿岸島嶼는 越南人民軍에 依해서 撤收된다.

第5條 敵對行爲 再開를 招來할 事件을 迴避키 爲하여 모든 軍事部隊 補給 및 裝備는 本協定發効로부터 25日 以內에 非武裝地帶로부터 撤收되어야 한다.

第6條 軍·民間의 如何한 者도 合同委員會에 依한 特定承認없이 暫定 軍事分界線에 對한 越境이 許容되지 않는다.

第7條 民間行政 또는 救護事業을 遂行하는 者 또는 合同委員會에 依해서 特定한 出入이 許容된 者를 除外하고는 軍民間에 非武裝地帶 出入을 許可치 않는다.

第8條 暫定 軍事分界線 兩方에 놓여 있는 非武裝地帶에 있어서의 民間行政 및 救護事業은 該當地帶에 있는 兩者當事國 總司令官의 責任이다. 兩方으로 부터 民間行政과 救護事業을 遂行키 爲하여 非武裝地帶 出入이 許可되는 軍人 및 民間人의 數는 各各 兩方司令官에 依해서 決定된다. 但 如何한 境遇라도 兩方에서 承認된 總數는 “트링지아” 軍事委員會(Trung Gia Military Commission) 또는 合同委員會에서 決定된 數字를 超過치 못한다. 民間警察官의 數 및 그들의 所持하는 武器는 合同委員會가 決定한다. 如何한 者도 合同委員會의 特定承認없이 武器를 所持할 수 없다.

第9條 本章에서 規定된 어떤 條項도 合同委員會, 合同班, 左記에 指定된 國際委員會에 依해서 非武裝地帶 出入이 特定하게 承認된 人員, 補給物, 或은 裝備等이 非武裝地帶 內外로 移動하는 完全한 自由를 制限하는 것으로 解釋되지 않는다.

非武裝地帶內에 있는 各地點이 非武裝地帶에 完全히 놓여 있는 道路나 水路에 依해서 連結되지 않을 때 各地點을 連結하는 道路나 水路를 따라 雙方 어느 한쪽의 軍事支配下에 있는 領土를 通過할 수 있는 移動의 自由가 許容된다.

## 第2章 本協定施行을 爲한 原則과 節次

第10條 兩方 軍司令官은 即 “인도차이나”의 佛蘭西聯邦軍 總司令官과 越南人民軍 總司令官은 陸海 空軍의 全部隊 및 人員을 包含하여 그들의 指揮下에 있는 全軍隊에 依한 越南에 있어서의 모든 敵對行爲의 完全한 停止를 命令 施行한다.

第11條 “인도차이나” 全域을 통한 一齊停戰의 原則에 依據 交戰行爲의 停止는 越南의 全域을 통하여 모든 交戰地域에 있어서 兩當事國의 全軍隊에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 兩方 戰鬥部隊의 最下級 部隊까지 停戰命令을 傳達하기 爲하여 所要되는 有效時間을 考慮하여 兩當事國은 停戰이 左記와 같이 越南 各地에서 完全하고도 同時에 發効한 것을 合意한다.

北部越南 1954年 7月 27日 午前 8時 (現地時間)

中部越南 1954年 8月 18日 午前 8時 (現地時間)

南部越南 1954年 8月 11日 午前 8時 (現地時間)

北京(中共) 標準時間이 現地時間을 意味한다.

停戰이 北部越南에서 發効하는 時間부터 兩當事國은 印度支那 作戰地域의 一部에서 大規模攻擊 行動을 取하거나 또는 北部 越南基地의 空軍으로 하여금 同地域外에서 作戰하는 것을 禁止한다.

兩當事國은 本協定 發効 25日 以內에 一定 集結地域으로의 移動計劃에 關해서 相互通告한다.

第12條 停戰과 集結에 隨伴하는 모든 作戰과 移動은 安全과 秩序있는 方法에 依해서 實施되어야 한다.

(1) 停戰協定 發効後 “트렁지아” 軍事委員會(The Trung Gia Military Commission)가 現地에서 決定 한 一定時日以內에 各當事國은 地雷(河川用, 水雷 및 機雷를 包含한다), “부비트랩”(Booby Traps) 爆發物 및 雙方이 施設한 其他 危險物질을 除去 또는 處理할 責任이 있다. 指定時日 以內에 除去 및 處理作業을 完了하는 것이 不可能한 境遇 關係當事國은 同場所에 可視表識을 設置함으로써 同地點을 識別케 한다.

部隊撤收後에 設置되는 合同委員會와 移動班員들의 自由行動에 對하여 危險한 爆發物, 地雷 地帶 鐵條網 및 其他 危險物은 各 交戰軍의 司令官에 依해서 合同委員會에 報告되어야 한다.

(2) 停戰後 雙方이 分界線의 兩側에 集結을 完了할 때까지의 期間에는

(가) 各當事國의 部隊는 他當事國이 指定한 暫定 集結地域으로부터 暫定的으로 撤收한다.

(나) 一部 當事國 部隊가 他當事國(第24條 參照)의 領土를 通過하는 “루트”(道路, 鐵市, 水路, 및 海路)에 依해서 撤收할 境遇 他的事國 部隊는 이러한 “루트”의 兩側으로부터 各各 3km씩 暫定的으로 撤收하여야 하지만 民間人의 移動을 妨害하는 것은 迴避하는 方法으로 한다.

第13條 停戰後 一定集結地域으로부터 他集結地域까지 移動完了할 때까지 民間 및 軍事 輸送航空機 等은 한 便으로 軍事分界線 北方에 있는 佛蘭西 聯邦軍에 指定된 臨時 集結地域과 다른 한 便 라 오스 國境과 佛聯邦軍에게 指定된 集結地域間의 空中回廊을 따라야 한다. 空中 回廊의 位置, 回廊의 幅, 南方으로 移動하는 單式 “엔진” 軍事航空機를 爲한 安全 “루트” 및 叢雜中の 航空機를 爲한 搜索 및 救助作業節次는 “트렁지아” 軍事委員會에 依해서 現地에서 決定된다.

第14條 暫定 軍事分界線의 兩方에 있는 集結地域에 있어서의 政治 및 行政의 手段은

(1) 越南의 統一을 招來할 總選舉까지 各集結地域에 있어서의 民間行政의 遂行은 本協定에 依해 同地域에 集結될 軍隊의 該當事國이 掌握한다.

(2) 한 當事國에 依해서 支配되고 앞으로 集結計劃에 依해 各 當事國에 移管될 어떠한 領土라도 移動해야 할 全軍隊가 同領土를 完全히 撤收하고 他當事國에 앞으로 移管될 地域을 開放시킬 때까지 前者 當事國에 依해서 繼續 管理되어야 한다.

行政責任 移管途中 空間이 없도록 節次를 取해야 한다. 이 目的을 爲하여 撤收 當事國은 行政的 責任의 引受準備을 爲하여 特히 行政 또는 警察隊를 派遣시킴으로써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充分한 通知를 해야 한다. 이러한 通知의 範圍은 “트렁지아” 軍事委員會가 決定한다. 移管 節次는 各領域에서 連鎖의 段階에 依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노이市 및 하이퐁의 民間 行政權을 越南民主共和國에 移管하는 것은 軍事移動을 爲하여 第15條에 規定된 各時間 制限以內에 完了 되어야 한다.

(3) 當事國은 敵對行爲時의 그들의 活動에 對하여 個人이나 團體에서 報復行爲 또는 差別을 自制하고 그들의 民主主義的 自由를 保障토록 한다.

(4) 本協定 發効日로부터 軍隊移動이 完了時까지 한 當事國에 依해서 支配되는 地域에 居住하고 他當事國에 移管될 地域으로 가서 居住하기를 希望하는 어떠한 民間人이건 同地域 當局에 依해서 許容되고 援助되어야 한다.

第15條 戰鬪要員의 停戰 軍事兵力, 裝備 및 補給物의 撤收 및 移動은 左記 原則에 依據 實施되어야 한다. 即

(1) 兩當事國의 軍事兵力 裝備 및 補給物의 撤收 및 移動은 本協定 第2條에 規定된 바와 같이 30日 以內에 完了된다.

(2) 各領土內에서는 各地區別, 各地區의 部分別 或은 各州別로 連續 撤收한다. 한 集結地域으로부터 他地域으로의 移動은 移動兵力數에 比例해서 月間 分割的으로 連續 實施한다.

(3) 兩當事國은 本協定目的에 依據 全軍隊 撤收 및 移動을 實施토록 着手하고 敵對行爲을 許容치 않으며 또한 如斯한 撤收 또는 移動을 阻害할 어떠한 節次도 取하지 못한다. 當事國들은 可能한 限 相互 協助하여야 한다.

(4) 兩當事國은 公共財產에 對한 破壞 或은 怠業을 禁止시키고 民間人의 生命과 財產에 對한 損傷을 許容치 않는다. 當事國들은 現地 民間行政에 對한 妨害도 禁止한다.

(5) 合同委員會 및 國際委員會는 撤收 및 移動中의 軍隊를 防衛한 措置를 取하도록 한다.

(6) “트렁지아” 軍事委員會 또는 追後의 合同委員會는 上述한 諸原則의 基礎위에서 다음에 規定된 體制下에서 戰鬪委員의 休戰 또는 部隊撤收 및 移動을 爲한 正確한 節次를 相互合意에 依해 決定한다.

(7) 各種 軍隊의 集結을 包含한 戰鬪委員의 休戰 또한 指定된 暫定集結地域으로의 各當事國의 移動 그리고 同地域으로부터의 他當事國의 暫定的 撤收는 停戰이 發効된 日로부터 15日을 超過하지 않는 期限內에 完了되어야 한다. 暫定的 集結地域에 關한 一般略圖는 本協定附錄 地圖에 表示된, 不詳事를 回避하기 爲하여 暫定 集結地域의 限界를 決定하는 線으로부터 1,500미터 以內의 部隊駐屯을 禁止한다. 移動이 完了될 때까지의 期間中 左記 區劃線 南方에 位置하는 모든 海岸 島嶼은 “파이동” 戰線地區에 包含한다. 即, “게바오”嶼(Kebao)南端의 子午線 “레 로오르”(Lje Rousse) 北部 海岸(島嶼除外)부터 “캄파마인”(Campha Mines)의 子午線까지

(8) 撤收와 移動은 아래 順序와 期限以內(本協定 發効日로부터)에 遂行되어야 한다.

佛蘭西 聯邦軍 하노이 戰區 80日

하이두옹 戰區 100日

하이퐁 戰區 300日

越南人民軍

합단 및 수엔목(Zuyenmoc)州 集結地域 80日

中部越南洲 集結地域 第1段階 100日

푸라인 드콘洲 集結地域 100日

中部越南洲 集結地域 第2段階 100日

포인트 카마우洲 集結地域 200日

中部越南臨時駐屯地域 最終段階 300日

### 第3章 新規部隊 軍事委員 武器 軍需物資導入 및 軍事基地 新設의 禁止

第16條 本協定の 發効日로부터 부의 兵力增強 또는 追加의 軍事委員의 越南投入을 禁止한다. 然이나 單位部隊 또는 委員의 交替, 越南에 出張任務를 가진 個人의 到着, 越南國外로 短時日間 休暇 또는 出張任務를 끝내고 越南으로의 個人的 歸還은 左記에 規定된 條件下에서 許容된다.

(1) 單位部隊 (本條 (3)項에 規定됨)

또는 委員의 交替는 第2條에 規定된 撤收期間中 本協定 第1條에 規定된 暫定軍事分界線北方에 駐屯하고 있는 佛蘭西聯邦軍을 爲하여서는 許容되지 않는다. 然이나 將校를 包含하여 50名을 超過하지 않는 個人資格으로서는 出張任務 或은 越南國外로의 短期休暇 또는 出張後 歸還을 爲하여 暫定 軍事分界線 北方地域에 出入하는 것이 1個月間 許容된다.

(2) 交替한 單位部隊 或은 要員이 同一梯列에 屬하는 他單位 部隊나 또는 海外勤務를 할 目的으로 越南領土內로 到着하는 人員에 依해서 充員되는 것을 말한다.

(3) 交替部隊는 大隊 또는 이에 準하는 空軍 海軍의 梯隊보다 더 크지 못한다.

(4) 交替는 一人對一人의 基準으로서 實施되어야 한다. 但 1分期(3個月)에 어떠한 當事國이라도 交替名目으로 越南에 15,500名 以上을 交替시킬 수 없다.

(5) 交替部隊(本條 (3)項에 規定됨) 및 要員 또는 本條에 記述된 個人은 第20條에 列擧된 入口地點을 經由하여서만 越南을 出入한다.

(6) 各當事國은 越南에 있어서의 或은 越南으로부터의 單位部隊 要員, 個人의 到着 또는 出發에 關해서 最少 2日 以前에 合同委員會 및 國際委員會에 通告하여야 한다. 越南內外로의 單位部隊 要員, 個人의 發着에 關한 報告는 合同委員會에 國際委員會에 每日 提出되어야 한다. 上述한 모든 通告 또는 報告에는 到着 或은 出發場所 및 日字 또는 發着하는 人員數가 表示되어야 한다.

(7) 國際委員會는 그 監視班을 통해서 左記 第20條에 列擧된 入口地點에서 上記와 같이 認可된 單位部隊要員의 交替 또는 個人의 發着을 監視 및 檢閱한다.

第17條 (1) 本協定の 發効日로부터 모든 種類의 武器, 軍需品 또는 戰鬪用 航空機, 海軍艦艇, 兵器物資, 젯트엔진 噴射式武器 또는 裝甲車輛 等과 같은 其他 戰爭物資 等の 形態로서의 越南으로의 兵力 增強을 禁止한다.

(2) 停戰以後 破壞, 損失, 老朽化 또는 使用不能된 戰爭物資 武器 및 軍需品은 同一種類 또는 類似品의 部分對部分의 基準으로서 交替될 수 있다. 이러한 戰爭物資武器 또는 軍需品の 代置는 第2條에 規定된 撤收期間中 本協定 第1條에 規定된 暫定軍事分界線 北方에 駐屯하고 있는 佛蘭西 聯邦軍에게는 許容되지 않는다. 海軍艦艇은 集結地域間의 輸送作業을 遂行할 수 있다.

(3) 本條 (2)項에 規定된 代置目的을 爲한 戰爭物資 武器 또는 軍需品은 左記 第20條에 列擧된 入口地點을 經由하여야만 越南에 導入될 수 있다.

- (4) 本條 (2)項에서 規定된 制限內에서 許容된 代置와는 別途로 追後 組立을 目的으로 組立되지 않은 附屬品의 形態로 되어 있는 모든 種類의 戰爭物資武器 및 軍需品의 導入을 禁止한다.
- (5) 各當事國은 合同委員會 및 國際委員會에 戰爭物資, 武器 및 各種 軍需品의 到着, 出發에 關해서 最少 2日 以前에 通告해야 한다. 交替目的을 爲하여 武器, 軍需品 및 其他戰爭物資(本條 (1)項에 規定된 바와 같이)의 越南 搬入 要請을 立證하기 爲하여 各入港船積에 關한 報告를 合同委員會 및 國際委員會에 提出한다. 이러한 報告書는 交替될 品目的 用途를 明示해야 한다.
- (6) 國際委員會는 同監視班을 通하여 左記 第20條에 列擧된 入口地點에서 本條에서 規定된 情狀 下에서 許容된 交替品을 監視 및 檢閱한다.

**第18條** 本協定の 發効日의 結果 세로운 軍事基地의 設置는 越南全域을 通해서 禁止한다.

**第19條** 本協定の 發効日로부터 外國의 支配下에 있는 如何한 軍事基地도 各當事國의 再編地域內에 設置할 수 없다. 兩當事國은 그들에게 移管地域이 如何한 軍事同盟도 固守하지 않으며 또는 戰爭의 再開 或은 侵略의 政策을 助長하는데 使用되지 않도록 保證해야 한다.

**第20條** 交替兵力 또는 物資代替를 爲한 越南에 있어서의 入國地點은 左記와 같이 決定한다. 卽 暫定軍事分界線 北部地域「이오카이, 탕송, 티엤, 엔, 하이퐁, 민, 동호이, 무응선」暫定軍事分界線 南部地域「투랑, 쉐논, 나트랑, 봉고이, 사이공, 캄, 세인트자키, 단치우」

#### 第4章 戰爭捕虜 및 民間 被抑留者

**第21條** 本協定 發効로 兩當事國의 各者가 抑留하고 있는 모든 戰爭捕虜 및 民間 被抑留者의 釋放 및 送還은 左記 條件下에서 實施되어야 한다.

(1) 軍事作戰 期間中 越南에서 戰爭行爲의 始初以來 或은 其他 戰爭環境下에서 或은 越南領域內에서 捕虜가 된 越南人, 佛蘭西人 또는 其他 同籍人의 모든 捕虜 및 民間 被抑留者는 各戰區에서 停戰이 成立된 日宇부터 30日以內에 釋放되어야 한다.

(2) 民間 被抑留者라는 用語는 兩當事國間의 政治的 및 武力的 鬭爭에 何等의 寄與됨이 없이 加擔하였다는 理由로 逮捕, 戰爭期間中 各當事國에 依해 抑留되었던 모든 者를 意味한다.

(3) 各當事國이 抑留하고 있는 모든 戰爭捕虜 및 民間 被抑留者는 그들의 出生國慣例上의 居留地域은 그들의 選擇地域으로 移動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可能的한 모든 援助를 提供할 他當事國의 適切한 官廳에게 引渡되어야 한다.

#### 第5章 基地事項

**第22條** 兩當事國의 各軍司令官은 本協定の 規約을 違反하는 隸下將兵을 適切히 處罰해야 한다.

**第23條** 埋葬地가 認知되고 基地의 存在가 確認되었을 境遇 兩當事國의 軍司令官들은 停戰協定이 發効한 後 特定期限內에 死亡한 戰爭捕虜의 屍體를 包含하여 死亡한 軍人의 屍體를 發見하고 移葬할 目的으로 基地管理人이 他方의 軍事的 支配下에 있는 地域을 出入하는 것을 許容해야 된다. 合同委員會는 이 任務遂行을 爲한 節次와 時間의 制限을 決定한다. 兩當事國의 各軍司令官은 他當事國 軍人의 埋葬地에 關한 入手하고 있는 모든 情報을 交換하여야 한다.

**第24條** 本協定은 各方 當事局의 全軍部隊에 適用된다. 各當事國의 部隊는 非武裝地帶와 他方 當事

國의 軍事的 支配下에 있는 領土를 尊重하고 他方 當事國에 對抗하는 一切 行動 또는 作戰을 禁止하며 越南에 對한 모든 種類의 封鎖를 禁止한다. 本協定의 目的을 爲하여 領土라는 用語는 領海 및 領空을 包含한다.

第25條 雙方 當事國의 軍司令官은 合同委員會, 國際委員會 및 同監視班에게 本協定에 依據 그들에게 賦與된 機能과 任務遂行에 있어 完全한 保護, 最大의 援助를 提供해야 한다.

第26條 合同委員會 合同班 또는 國際委員會 및 同監視班이 所要되는 經費는 兩當事國이 均一하게 負擔한다.

第27條 本協定의 署名國 및 同機能의 繼承國은 本協定의 諸條件과 條項을 遵守하고 施行하는데 責任이 있다. 雙方 當事國의 軍司令官은 그들의 指揮系統에서 隸下 全部隊 및 將兵이 本項定의 全規約를 完全히 遵守하는데 必要한 모든 節次와 措置를 取한다. 本協定에 規定된 諸節次는 必要할 때마다 雙方 當事國 司令官에 依해서 檢討되고 또는 萬若 必要하다면 合同委員會에 依해서 좀 더 詳細히 規定한다.

#### 第6章 合同委員會 및 越南 監視統制國 委員會

第28條 停戰協定 施行의 責任은 雙方 當事國에 있다.

第29條 國際委員會는 이 協定施行의 統制 및 監視를 한다.

第30條 左記 條件下에서 雙方 當事國에 依한 共同行動에 關한 規約의 施行을 圓滿히 하기 爲하여 越南內에 合同委員會를 設置한다.

第31條 合同委員會는 雙方 當事國의 各司令官을 代表하는 同一數의 委員으로 構成된다.

第32條 合同委員會에 派遣되는 各代表團長은 將星의 階級을 가져야 한다. 合同委員會는 合同班을 設置하며 同班의 數는 兩當事國의 相互合意에 依해서 決定한다. 合同班은 兩當事國으로 부터 同一數의 將校로서 構成한다. 各集結地帶사이의 軍事分界線上에 設置된 그들의 位置는 合同委員會의 權限을 考慮하여 兩當事國에 依해서 決定된다.

第33條 合同委員會는 本停戰協定中 다음과 같은 規約를 施行케 한다.

- (1) 兩當事國의 모든 正規 또는 非正規軍을 爲한 越南內에 있어서의 同時(一齊) 및 一般의 停戰.
- (2) 兩當事國 部隊의 集結
- (3) 集結地域間의 軍事分界線 및 非武裝地帶의 遵守

合同委員會는 그 權限의 範圍內에서 前述한 規約의 施行을 爲하여 各當事國을 助力하고 이러한 規約의 適用을 爲한 諸計劃의 準備 또는 執行을 爲하여 當事國의 連絡을 確保하고 또한 이러한 規約의 施行中 當事國間에 發生하는 異見問題를 解決한다.

第34條 國際委員會는 越南停戰協定의 諸規約를 適用하는데 對한 統制와 監視를 爲하여 設置한다. 合同委員會는 左記 各國代表에 依해서 構成된다. 即 캐나다, 印度 및 폴란드, 同委員會는 印度代表가 議長이 된다.

第35條 國際委員會는 前述 各代表國에 依해서 任命된 同一數의 將校로서 構成되는 固定 또는 移動 監視班을 設置한다. 固定監視班은 左記 地點에 位置한다. 「라오카아, 랑송, 티엔엔, 하이퐁, 빈동호이, 무응센, 퀴는, 나트랑, 방고이, 사이공, 캄센짜페, 탄초우」 이러한 位置는 또 兩當事國中

의 그 — 或은 國際委員會와 關係되는 當事國의 指揮部間의 協議에 依해서 國際委員會 自體의 要請에 依하여 追後變更될 수 있다. 移動班의 行動地帶는 越南의 陸上 및 海上 國境과 接境하는 地域 및 集結地域나 非武裝地帶間의 軍事分界線이다.

이러한 地帶의 限界線以內에서 移動班은 自由行動의 權限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任務(人事規定 監視에 所要되는 文書의 備置, 審議에 必要한 證人의 召喚, 監視班의 安全과 移動, 自由의 確保等等) 遂行에 必要한 모든 便宜를 現地 民間 및 軍當局으로부터 提供받는다. 移動班은 任意로 그들이 所要되는 現代의 手段의 輸送, 觀察 및 通信網을 가진다. 上述에서 規定된 行動地帶外에서는 關係當事國의 各司令部와의 合意에 依해서 本協定에 依據 그들에게 賦與된 任務의 範圍內에서 其他 行動을 遂行할 수 있다.

第36條 國際委員會는 本協定規約에 關하여 各當事國에 依한 適切한 施行을 監視할 責任이 있다. 이 目的을 爲하여 國際委員會는 統制 觀察 檢閱 및 停戰協定의 各條項 適用과 關係되는 調査의 任務을 遂行한다. 또 國際委員會는 特히

- (1) 集結計劃의 體制下에서 兩當事國部隊의 移動統制
- (2) 集結地域과 非武裝地帶間의 軍事分界線 監視
- (3) 戰爭 捕虜 및 民間 被抑留者의 釋放에 關한 作業의 統制
- (4) 越南의 모든 國家뿐만 아니라 港口 및 飛行場에서의 部隊 軍人 또는 모든 種類의 武器, 軍需品 및 戰爭物資의 搬入을 規定한 停戰協定 諸規約의 施行을 監視한다.

第37條 國際委員會는 常委員會의 發議, 合同委員會의 要請, 또는 當事國中 一方의 要請에 依하여 上述한 監視班을 通하여 最短時日內에 文書上 또는 必要한 實地調査를 施行한다.

第38條 監視班은 그들의 監視 또는 觀察의 結果를 國際委員會에 提出한다. 監視班은 그들이 必要하다고 考慮하거나 或은 國際委員 要請에 따라 特別報告書를 作成한다. 監視班內에서의 意見不一致인 境遇 各班員의 結論이 國際委員會에 提出되어야 한다.

第39條 萬若 어떠한 1個의 監視班이 事件을 解決치 못하거나 或은 協定違反 또는 重大한 違反의 威脅이 있다고 思料되었을 境遇 國際委員會에 通告해야 한다. 國際委員會는 監視班의 報告 및 結論을 檢討하고 事件의 解決 또는 違反의 終止 或은 違反 威脅의 除去를 爲하여 取하여질 方策에 關해서 當事國에게 通告한다.

第40條 合同委員會가 어떠한 條項에 加하여질 解釋上 또는 어떠한 事實評價에 있어 合意에 到達하지 못할 境遇 國際委員會는 論爭된 問題에 關해서 通告를 받아야 한다. 國際委員會의 提案을 直接 當事國에 傳達하고 또한 合同委員會에 通告한다.

第41條 國際委員會의 提議는 第42條의 規約에 따라 多數決에 依하여 採擇된다.

萬若 票決이 對立될 境遇 議長의 投票가 決定的인 것이다. 國際委員會는 本協定의 効果의 施行을 爲해서 越南에 있어서 停戰協定 諸規約에 加하여질 修正 또는 追加條項에 關한 建議를 制定할 수 있다. 이러한 建議는 全員一致로 採擇되어야 한다.

第42條 敵對行爲의 再開를 誘發할 可能性이 있는 違反事項 [또는 威脅에 關한 問題를 取扱할 境遇 即,

- (1) 集結 計劃에 依한 移動을 一方當事國 軍隊가 拒否할 境遇
- (2) 一方當事國 軍隊가 他方 當事國의 集結地帶, 領海, 領空을 侵害할 境遇 國際委員會의 決定은 一致되어야 한다.

第43條 當事國中の 하나가 國際委員會의 建議를 實施하기를 拒否할 境遇 關係當事國 또는 國際委員會 自體가 제네바會議의 各會員國에게 通告한다. 萬若 國際委員會가 第43條에 規定된 境遇에 있어서 全員 一致를 이루지 못할 境遇 同委員會는 過半數 報告와 少數 報告中の 하나를 제네바會議 會員國에게 提出한다. 國際委員會는 그의 活動이 妨害되는 모든 事件에 關해서 제네바會員國에 通告한다.

第44條 國際委員會는 第36條에 規定된 任務를 遂行하기 爲해서 印度支那에 있어서 停戰과 同時에 設置한다.

第45條 越南에서의 監視와 統制를 爲한 國際委員會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있어서의 監視와 統制를 爲한 國際委員會와 密接한 協調下에서 行動한다. 3個委員會의 各事務局長은 그들의 事業協調와 相互間의 交渉에 對한 責任을 진다.

第46條 越南의 監視統制國際委員會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監視統制國委員會와 協議하고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있어서의 情勢發展을 參酌한 然後 漸進的으로 그의 活動을 減縮시킬 수 있다. 이러한 決定은 全員 一致로 採擇되어야 한다.

第47條 第12條의 第(나)項을 除外하고는 本協定の 全規約은 1954年 7月 22日 24時 제네바時間을 期해 發効한다. 1954年 7月 20日 24時에 “제네바”에서 佛語 및 越南語로 作成하고 2個 原本은 同一한 効力を 갖는다.



附表 제 1 호

職 位 表

(1) 派越 韓國軍司令部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부임일자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부임일자
파 월 사	사령관	소 장	蔡 命 新	65. 8. 17		경리참모	대 령	洪 大 楯	65. 9. 25
	부사령관	준 장	李 勳 燮	65. 10. 6		법무참모	"	吳 在 玉	65. 9. 25
	참모장	"	李 勳 燮	65. 10. 6		통신참모	"	崔 承 敏	65. 9. 25
	참모부장	해병대령	金 驛 大	65. 9. 25		헌병참모	"	李 龍 基	65. 9. 25
	인사참모	대 령	俞 東 彬	65. 9. 25		본부근무장대	중 령	金 元 教	65. 9. 25
	정보참모	"	盧 仁 成	65. 9. 25		비서실장	소 령	申 鉉 珪	65. 9. 25
	작전참모	"	朴 鶴 善	65. 9. 25		보도실장	"	金 大 維	65. 9. 25
	군수참모	"	安 宗 勳	65. 9. 25		군정대장	중 령	金 鎮 英	65. 8. 30
	기회참모	해군대령	辛 相 大	65. 9. 25		방첩대장	"	李 相 悅	65. 9. 25

(2) 首都師團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부임일자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부임일자
사 령 부	사단장	소 장	蔡 命 新	65. 9. 25		의무참모	"	李 錫 庚	65. 9. 1
	부사단장	준 장	李 南 周	65. 8. 20		병참참모	"	郭 近 哲	65. 9. 1
	참모재	대 령	崔 泳 龜	65. 9. 25		통신참모	"	李 釋 鶴	65. 10. 23
	"	"	李 麟 敳	66. 2. 22		헌병참모	"	李 俊 赫	65. 10. 23
	인사참모	중 령	裴 國 鍾	65. 9. 1		항공참모	소 령	金 圭 泳	65. 8. 28
	정보참모	"	李 大 成	65. 9. 29	제 1 연대	연 대 장	대 령	金 珽 雲	65. 8. 20
	작전참모	"	金 義 香	65. 9. 30		"	"	全 成 珪	66. 2. 5
	"	"	朴 光 億	66. 1. 16		부연대장	중 령	張 泰 玩	65. 8. 28
	군수참모	"	禹 鍾 淋	65. 10. 23		수송대	색 대 위	宋 璇 用	65. 9. 13
	"	"	金 敦 植	66. 3. 11		전투지중대	"	朴 益 淳	65. 9. 10
	민사참모	"	金 在 明	65. 9. 16		1대대장	중 령	裴 貞 信	65. 9. 4
	"	"	崔 成 化	66. 3. 15		1중대장	대 위	李 學 健	65. 9. 2
	부관참모	"	禹 成 煥	65. 10. 23		2중대장	"	李 滿 振	65. 9. 1
	경리참모	"	金 南 壽	65. 8. 28		3중대장	"	張 世 東	65. 8. 28
	정훈참모	"	閔 龍 基	65. 9. 4		4중대장	"	李 哲 浩	65. 9. 2
	공병참모	"	金 一 起	65. 9. 1		2대대장	중 령	李 弼 朝	65. 9. 4
	화학참모	"	石 龍 泳	65. 9. 1		5중대장	대 위	朴 東 達	65. 9. 2

소속	직위	계급	성명	부임일자	소속	직위	계급	성명	부임일자
기갑연대	6중대장	"	丁萬吉	65. 8. 28	포병사령관대령	8중대장	"	李海英	65. 8. 28
	7중대장	"	姜君吉	65. 8. 28		"	"	李鍾九	66. 3. 1
	8중대장	"	鄭鳳律	65. 8. 28		3대대장	중령	崔炳授	65. 8. 28
	3대대장	중령	朴慶錫	65. 9. 4		2중대장	대위	房相喆	65. 9. 6
	9중대장	대위	龍永一	65. 9. 1		"	"	李春根	66. 3. 1
	10중대장	"	李圭鳳	65. 9. 1		10중대장	"	梁在壹	65. 9. 6
	"	"	鄭善教	66. 3. 7		11중대장	"	李寅秀	65. 9. 6
	11중대장	"	李載泰	65. 9. 1		12중대장	"	朴灌秀	65. 9. 2
	"	"	盧英哲	66. 2. 27		"	"	李倫行	66. 3. 1
	12중대장	"	方瑞男	65. 9. 1		60대대장	중령	鄭靈深	65. 9. 1
	연대장	대령	申鉉銖	65. 8. 20		1포대장	대위	鄭基昌	65. 9. 2
	부연대장	중령	鄭振洙	65. 9. 6		2포대장	"	金相賢	65. 9. 2
	수송대	색장	金大憲	65. 9. 6		3포대장	"	韓濟龍	65. 9. 2
	전투대	대위	崔世昌	65. 9. 2		61대대장	중령	梁鷹	65. 8. 28
	중대장	중령	朴漢英	65. 9. 6		1포대장	대위	鄭會慶	65. 9. 7
	1중대장	대위	金大植	65. 9. 5		2포대장	"	張洪烈	65. 9. 7
	"	"	朴一均	65. 12. 7		3포대장	"	金振奎	65. 9. 7
	"	"	金大植	66. 1. 14		628대대장	중령	宋完圭	65. 9. 1
	2중대장	"	金乘圭	65. 9. 6		1중대장	대위	崔基泰	65. 9. 13
	"	"	朴琬洙	66. 3. 1		2포대장	"	韓明熙	65. 9. 2
	3중대장	"	高珍錫	65. 9. 6		3포대장	"	金鍾鎬	65. 9. 2
	"	"	李元洋	65. 10. 8		군수사령관	준장	李範俊	65. 9. 1
	4중대장	"	金秉燦	65. 9. 6		참모장	대령	張瑾	65. 8. 31
	2대대장	중령	金容振	65. 9. 6		6후송대	대령	李圭東	65. 8. 20
	5중대장	대위	李權馥	65. 9. 6		103공병대	중령	梁在祐	65. 9. 1
	6중대장	"	李泰一	65. 9. 8		239공병대	"	崔燾冕	65. 9. 1
	7중대장	"	郭楨玉	65. 9. 2		자대대장	"	姜君鍾	65. 9. 24
	"	"	李鍾九	65. 10. 16		11군수대	"		
"	"	朴鍾聲	66. 3. 16	원대대장	"				

(3) 海兵 第2旅團

여단본부	여단장	준장	李鳳出	65. 9. 20	인사참모	중장	金昶元	65. 9. 20
	참모장	대령	鄭台錫	65. 9. 20	정보참모	"	李炳華	65. 9. 20

소속	직위	계급	성명	부임일자	소속	직위	계급	성명	부임일자
제 1 대대	작전참모	"	金 鍾 大	65. 9. 20	제 2 대대	대 대 장	중 령	呂 允 晉	65. 9. 20
	군수참모	"	朴 得 鎭	65. 9. 20		5 중대장	대 위	姜 仁 秀	65. 9. 20
	보급참모	"	趙 世 衡	65. 9. 20		"	"	康 用 仁	65. 12. 29
	의무참모	"	李 夏 吉	65. 9. 20		6 "	"	張 淳 奎	65. 9. 20
	병기참모	소 령	車 成 模	65. 9. 8		"	"	李 燦 圭	66. 1. 19
	수송참모	"	任 鍾 華	65. 9. 8		7 "	"	李 圭 台	65. 9. 20
	화학참모	"	劉 振 鍾	65. 9. 20		"	"	李 昇 浩	66. 2. 5
	통신참모	"	李 應 彥	65. 9. 8	제 3 대대	대 대 장	중 령	全 政 男	65. 9. 20
	공병참모	"	張 明 仙	65. 9. 20		9 중대장	대 위	成 炳 文	65. 9. 20
	군중참모	"	申 亮 燮	65. 9. 20		10 "	"	韓 國 道	65. 9. 20
	재무참모	대 위	金 容 善	65. 9. 20		11 "	"	劉 南 圭	65. 9. 20
	정훈참모	"	朴 映 旭	65. 9. 20	포병대대	대 대 장	중 령	鄭 永 鎭	65. 9. 20
	법무참모	"	徐 次 洙	65. 9. 20		5 중대장	대 위	尹 奉 植	65. 9. 20
	헌병대장	"	金 河 允	65. 9. 20		6 "	"	吳 愨 烈	65. 9. 20
	보안대장	소 령	梁 柄 燮	65. 9. 20		7 "	"	權 泰 明	65. 9. 20
	대 대 장	중 령	明 益 杓	65. 9. 20	중포중대	중 대 장	소 령	李 昌 秀	65. 9. 20
	1 중대장	대 위	李 奉 熙	65. 9. 20	근무중대	중 대 장	소 령	金 哲 河	65. 9. 20
	2 "	"	白 炳 基	65. 9. 20	항 공 대	대 장	"	金 基 成	65. 9. 20
3 "	"	韓 基 榮	65. 9. 20	경비중대	중 대 장	"	金 鍾 弼	65. 9. 20	

(4) 建設支援團

단 본 부	단 장	준 장	曹 文 煥	65. 1. 27		"	"	康 哲	65. 9. 15
	"	"	崔 泳 龜	66. 3. 15		군수참모	"	權 亨 達	65. 9. 25
	참 모 장	대 령	宋 澤 龜	65. 1. 27	101 경비대	대 대 장	"	李 光 魯	65. 2. 5
	"	"	金 在 明	66. 3. 25		"	"	禹 鍾 湊	66. 3. 21
	인사참모	중 령	金 麟 泰	65. 2. 5	127 공병대	대 대 장	"	姜 俊 彦	65. 2. 1
	"	"	趙 泰 鶴	66. 2. 19		"	"	吳 炳 珠	65. 6. 27
	정보참모	해병중령	李 根 植	65. 2. 5	외과병원	원 장	"	李 亨 洙	64. 8. 30
	"	해병소령	李 永 直	65. 2. 10		"	"	宋 益 薰	65. 10. 1
	작전참모	중 령	金 義 香	65. 2. 5					

(5) 海軍輸送團隊

해 수 대	사 령 관	대 령	李 應 基	65. 7. 9		인사참모	소 령	柳 志 洙	65. 3. 15
	참 모 장	중 령	金 一 龍	65. 3. 15		정보 "	"	白 孟 基	65. 3. 15

912 附錄 및 附表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부임일자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부임일자
	작전 "	"	李 潤 慶	65. 3. 15		L S M 609 합장	"	吳 在 奎	65. 3. 15
	군수 "	"	崔 敬 植	65. 3. 15		L S M 611 합장	"	吳 慶 煥	65. 3. 15
	의무실장	대 위	朱 壽 東	65. 11. 17		L S T 807 합장	중 령	韓 弘 錫	66. 2. 5
	군중실장	"	李 錫 鍾	65. 11. 17		L S T 808 합장	소 령	全 遇 成	66. 2. 5
	경 리 관	"	河 經 鎮	65. 11. 17		L S T 813 합장	중 령	柳 在 春	65. 11. 30
	L S T 812 합장	소 령	金 三 中	65. 3. 15					

附表 제 2 호

殊勲者名單

(1) 首都師團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훈격	수여일자
제 1 연대	본 부	대령	11885	金 珽 雲	忠 武	66. 2. 1
"	제 1 대대	중령	206458	裴 貞 信	"	66. 3. 8
"	제 2 대대	"	208640	李 弼 朝	"	66. 3. 8
"	제 3 대대	"	204807	朴 慶 錫	"	66. 3. 19
"	제 5 중대	대위	47889	朴 東 遠	"	66. 3. 8
"	제 9 중대	"	49437	龍 永 一	"	66. 3. 3
"	제 11 중대	"	49430	李 載 泰	"	66. 3. 19
"	제 9 중대	중위	95941	元 興 太	"	66. 3. 3
"	제 1 중대	소위	96461	金 成 燮	"	66. 3. 3
"	제 5 중대	"	97523	鄭 政 能	"	66. 3. 8
기갑연대	수색중대	하사	11291005	金 昌 郁	"	66. 3. 19
제 1 연대	제 9 중대	일병	11442126	朴 正 男	"	66. 3. 3
기갑연대	제 7 중대	"	11424695	沈 武 男	"	66. 3. 19
제 1 연대	제 1 중대	대위	49493	姜 君 吉	花 郎	66. 2. 18
"	제 2 중대	"	49475	李 滿 振	"	66. 2. 18
기갑연대	제 6 중대	"	32698	李 泰 一	"	65. 12. 17
제 1 연대	제 3 중대	중위	94675	李 永 權	"	66. 2. 18
"	제 5 중대	"	95893	金 柱 天	"	66. 2. 18
"	제 10 중대	"	92731	金 東 完	"	66. 2. 18
기갑연대	수색중대	"	95863	徐 完 秀	"	66. 1. 31
"	"	"	92700	李 三 錫	"	66. 3. 19
"	제 5 중대	"	95943	朴 晟 煥	"	66. 3. 19
제 1 연대	제 1 중대	소위	96399	鄭 豐 田	"	66. 1. 11
"	제 2 중대	"	67286	金 安 勝	"	66. 2. 18
"	제 5 중대	"	97523	鄭 政 能	"	66. 2. 18
"	제 6 중대	"	96457	孫 龍 男	"	66. 2. 18
"	제 7 중대	"	97452	梁 修 一	"	66. 2. 18
"	"	"	96330	權 炳 秀	"	66. 2. 18
"	"	"	96338	金 秀 吉	"	66. 2. 18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훈격	수여일자
"	제 9 중대	소위	96456	孫太浩	"	66. 2. 18
"	"	"	97309	申正雄	"	66. 2. 18
"	제 11 중대	"	96430	權千憲	"	66. 3. 19
기갑연대	제 1 중대	"	97442	金光弘	"	66. 3. 19
"	제 3 중대	"	97535	安富雄	"	66. 1. 31
"	제 5 중대	"	96848	金鉉	"	66. 1. 31
"	제 6 중대	"	96406	金泰熙	"	65. 11. 24
"	제 7 중대	"	96472	姜義英	"	66. 3. 19
제 1 연대	제 5 중대	중사	10539428	安國世	"	66. 2. 18
기갑연대	제 6 중대	"	19927044	張三先	"	65. 11. 24
제 1 연대	제 1 중대	하사	11263012	尹範英	"	65. 11. 19
"	제 5 중대	"	11200651	李正基	"	66. 2. 18
"	제 9 중대	"	10948975	林慶澤	"	66. 2. 18
"	"	"	11383396	俞昌根	"	66. 2. 18
"	제 11 중대	"	11284363	秦帳錄	"	66. 3. 19
기갑연대	수색중대	"	11255495	李盛美	"	66. 3. 19
제 1 연대	제 7 중대	병장	11015615	金九原	"	66. 2. 18
"	제 5 중대	상병	11260931	朴孝男	"	66. 2. 18
"	제 1 중대	일병	51017910	朴遺燮	"	66. 2. 18
"	제 2 중대	"	10431400	尹基源	"	66. 2. 18
"	"	"	11367582	姜明違	"	66. 2. 18
"	제 5 중대	"	31022209	權五周	"	66. 2. 18
"	제 8 중대	"	11203157	鄭吉充	"	66. 2. 18

(2) 海兵 第 2 旅團

단	본부	준장	80302	李鳳出	忠武	66. 3. 24
"	"	대령	80719	鄭台錫	"	66. 3. 24
제 3 대대	대대	중령	60222	全政男	"	66. 3. 8
제 2 대대	대대	중위	62483	李鍾吉	"	66. 2. 14
"	"	중사	7208152	崔永鎬	"	66. 2. 14
"	"	일병	9312245	廉鍾官	"	66. 3. 24
제 3 대대	대대	소령	60528	文喆熔	花郎	66. 3. 8
"	"	대위	83465	成炳文	"	66. 2. 1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훈격	수여일자
제 3 대 대	대 위	61730	韓國道	"	66. 3. 8	
"	소 위	62403	金道泳	"	66. 2. 1	
"	"	62566	李弘吉	"	66. 3. 8	
"	중 사	7212590	劉良培	"	66. 2. 1	
"	하 사	7214706	鄭長生	"	66. 1. 10	
"	"	7216608	李容世	"	66. 2. 14	
"	"	7216922	金富安	"	66. 2. 1	
"	"	7214709	朴泳洙	"	66. 3. 8	
"	"	7216036	金成洙	"	66. 3. 8	
"	"	2175745	徐壽富	"	69. 3. 8	
"	"	7212105	李福基	"	66. 3. 3	
"	"	7215703	金正龍	"	66. 1. 23	
"	"	7216134	金秀吉	"	66. 1. 23	
"	"	7216379	李男務	"	66. 2. 1	
"	"	7211320	毛源教	花郎	66. 3. 8	
"	"	7214889	金圭一	"	66. 3. 8	
"	"	7214681	李康雄	"	66. 3. 8	
"	"	7214780	柳在泰	"	66. 3. 3	
단 본 부	"	7213773	金仁滄	"	66. 3. 8	
제 2 대 대	병 장	9306036	李正一	"	66. 3. 8	
"	상 병	9325735	魯成根	"	66. 1. 10	
"	"	9318790	金石羊	"	66. 1. 23	
제 3 대 대	"	9312306	梁謹玉	"	66. 2. 1	
"	"	9310630	張仁出	"	66. 3. 8	
제 1 대 대	일 병	9322602	姜泰植	"	66. 1. 10	
"	"	9227603	金知業	"	66. 1. 10	
"	"	9327634	禹長雲	"	66. 2. 7	
"	"	9322942	宋昌根	"	66. 2. 7	
제 2 대 대	"	9325075	梁允浩	"	66. 2. 7	
"	"	9322238	姜一模	"	66. 2. 7	
"	"	9328235	張富鎭	"	66. 1. 10	
제 3 대 대	"	9319333	玄德淳	"	66. 3. 8	
"	"	9316989	金錫中	"	66. 3. 8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훈격	수여일자
제 1 대 대	대 대	일 병	9322697	金 基 烈	花 郎	66. 1. 23
"	"	"	9321928	尹 鍾 丸	"	66. 1. 23
"	"	"	9323401	權 寧 眞	"	66. 1. 23
제 2 대 대	대 대	"	9328548	金 海	"	66. 1. 23
"	"	"	9228797	金 璣 台	"	66. 1. 23
제 3 대 대	대 대	"	9325818	金 魯 錫	"	66. 1. 23
"	"	"	9329543	韓 殷 燮	"	66. 1. 10
"	"	"	9329028	沈 相 允	"	66. 2. 7

(3) 建設支援團

단 본 부	준 장	11585	曹 文 煥	忠 武	65. 10. 25
"	대 령	14010	宋 澤 龜	"	66. 2. 9
제 1 외 과 병 원	중 령	213390	李 亨 洙	"	65. 6. 11
"	대 위	228970	金 垠 燮	"	65. 4. 1
단 본 부	중 령	204222	金 義 向	花 郎	65. 9. 10
제 101 경비 대 대	대 위	92379	安 正 泰	"	65. 4. 1
제 1 외 과 병 원	"	228291	李 東 翰	"	65. 4. 1
"	"	111763	安 相 貞	"	65. 4. 1
"	"	228965	金 基 榮	"	65. 4. 1
"	"	229088	宋 昌 燮	"	65. 4. 1
"	"	228415	" " "	"	65. 4. 1
"	"	230922	李 元 浩	"	65. 4. 1
"	중 위	238714	鄭 桃 林	"	65. 4. 1
제 101 경비 대 대	중 사	10887488	魯 雲 奎	"	65. 4. 23
"	하 사	10699305	金 正 男	"	65. 4. 5
제 1 외 과 병 원	"	10991893	金 榮 植	"	65. 6. 1
"	상 병	11218107	尹 鍾 漢	"	65. 6. 11



附表 제 3 호

戰 死 者 名 單

(1) 首都師團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망일자	비	고
사 단	수색중대	대 위	22982	趙 孝 秀	66. 2. 13	순	직
기갑연대	제 1 중대	"	28814	朴 一 均	66. 1. 3	전	사
군 수 사	방 첩 대	"	42519	李 蒼 壽	65. 11. 19	"	"
기 갑 연 대	전 투 지 원 중 대	중 위	92493	鄭 雲 浩	66. 2. 5	순	직
기갑연대	제 1 중대	"	95963	金 頤 泳	66. 1. 13	"	"
"	제 2 중대	"	93376	姜 正 大	66. 3. 2	순	직
"	제 12 중대	"	96386	趙 永 植	65. 11. 18	전	사
제 1 연대	제 5 중대	"	92717	鄭 周 泳	66. 3. 23	"	"
"	제 10 중대	"	96345	金 武 石	66. 3. 23	"	"
"	제 5 중대	소 위	97050	朴 文 圭	66. 3. 23	"	"
"	"	"	97523	鄭 政 能	66. 3. 23	"	"
제 6 1 포 병 대 대	대	중 사	9815675	崔 洛 鎖	65. 12. 15	순	직
방 첩 대	"	"	0775421	權 栽 性	65. 12. 15	"	"
사 단	공병대대	하 사	11063695	林 世 彬	66. 1. 23	"	"
"	제 1 중대	"	11238676	金 日 出	65. 11. 12	전	사
제 1 연대	제 1 중대	"	11263012	尹 範 榮	65. 11. 13	"	"
"	제 2 중대	"	11156535	金 貞 澤	66. 2. 15	"	"
"	제 6 중대	"	10866549	全 錫 崑	66. 3. 23	"	"
"	제 7 중대	"	11242466	鄭 批 榮	66. 2. 20	"	"
"	제 10 중대	"	11319218	童 昌 水	66. 3. 28	"	"
기갑연대	제 1 중대	"	11357170	文 良 孝	66. 2. 26	"	"
"	제 3 중대	"	11263420	吳 泳 斗	66. 3. 19	순	직
"	제 5 중대	"	11374358	金 在 喆	66. 3. 21	전	사
"	제 9 중대	"	11150606	李 福 千	66. 3. 2	순	직
"	제 11 중대	"	10759536	金 洪 珏	66. 3. 24	전	사
"	"	"	11296084	鄭 元 謀	96. 3. 24	"	"
"	"	"	11264276	尹 亨 鍊	66. 3. 25	"	"
제 6 1 포 병 대 대	대	"	10977443	鄭 道 在	66. 1. 29	"	"

소	속	제 급	군 번	성 명	전사망일자	비 고
제 1 연대	수색중대	병 장	11181570	金 繼 中	66. 3. 14	전 사
"	"	"	11289336	徐 春 教	66. 3. 14	"
"	"	"	11447480	李 隆 夫	66. 3. 14	"
"	제 3 중대	"	11367591	金 吉 源	65.12.24	"
"	제 4 중대	"	11163610	孫 廷 基	66. 1. 9	"
"	제 5 중대	"	16339138	金 東 述	66. 1. 9	"
"	"	"	11315838	秦 孟 源	66. 1. 10	"
"	"	"	11315978	宋 玆	66. 1. 9	"
"	"	"	11269104	柳 秀 一	66. 1. 9	"
"	"	"	11232539	蔡 銅 哲	66. 3. 23	"
"	제 6 중대	"	11214438	孫 先 培	66. 3. 23	"
"	제 7 중대	"	11168961	吳 乘 奎	66. 1. 9	"
"	" 9 " "	"	21022369	崔 鉉 根	66. 1. 29	"
기갑연대	본부중대	"	11227347	趙 光 善	66. 2. 26	"
"	수색중대	"	11223619	李 寧 吉	66. 2. 12	"
"	제 2 중대	"	11203483	蔡 圭 春	66. 2. 12	"
"	제 5 중대	"	11224491	林 秀 雄	66. 3. 21	"
"	"	"	11294734	權 忠 助	66. 3. 24	"
"	제 7 중대	"	11169936	金 圭 敏	65.12.22	"
"	제 9 중대	"	11268863	金 泰 遠	66. 2. 6	순 직
"	제 11 중대	"	11197043	張 判 奉	66. 3. 25	전 직
제 1 연대	" 1 " "	상 병	11301355	金 武 男	66. 2. 2	순 직
"	제 2 중대	"	31017187	張 洪 基	65.11. 4	전 직
"	"	"	11197466	尹 賢 錫	65.12. 4	순 직
"	제 5 대대	"	11365003	朴 龍 成	66. 3. 23	전 직
"	"	"	11268764	李 成 萬	66. 3. 23	"
"	"	"	11275363	崔 京 煥	66. 1. 9	"
"	제 6 중대	"	11349801	金 衡 錫	66. 3. 25	"
"	제 7 중대	"	11269857	金 洛 漣	66. 1. 9	"
"	"	"	11267673	李 炳 昌	66. 1. 18	"
"	제 9 중대	"	11327267	車 鍾 賢	66. 1. 26	"
"	제 11 중대	"	11451829	李 相 道	66. 3. 23	"
기갑연대	제 1 중대	"	11216821	朴 東 圭	66. 2. 27	"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전사망일자	비고
기갑연대	제 1 중대	상 병	11264921	鄭 在 潤	66. 2. 27	전 사
"	제 2 중대	"	11211966	金 壽 泰	66. 1. 29	"
"	제 5 중대	"	11187379	林 瑞 榮	65. 12. 19	"
"	"	"	11289919	金 三 秀	66. 2. 12	"
"	제 9 중대	"	11302709	許 亮 洙	66. 3. 2	순 직
"	제 10 중대	"	11357929	劉 炳 錫	66. 3. 23	전 사
"	제 11 중대	"	11326109	李 鼎 求	66. 3. 25	"
"	"	"	11337082	吳 世 鎮	66. 3. 25	"
"	제 12 중대	"	11272752	元 鍾 熙	65. 12. 14	순 직
군수지원사	103공병대	"	11345457	鄭 英 一	65. 12. 4	"
제 1 연대	수색 중대	일 병	11456841	金 鍾 玉	66. 3. 23	전 사
"	본부 중대	"	11325105	金 成 中	66. 2. 21	순 직
"	"	"	51017210	徐 鍾 述	66. 2. 20	전 사
"	의무 중대	"	11301682	金 在 斗	66. 1. 9	"
"	제 1 중대	"	11381436	曹 圭 岩	65. 12. 22	"
"	"	"	11416929	文 龍 鼎	65. 12. 30	"
"	"	"	11463568	朴 光 亡	65. 12. 30	"
"	"	"	11445233	朴 益 奎	66. 1. 13	"
"	제 2 중대	"	11246787	金 政 勝	65. 11. 3	"
"	"	"	11463598	高 相 基	66. 1. 1	"
"	"	"	11431554	金 政 一	66. 1. 9	"
"	"	"	11353669	洪 基 主	66. 1. 10	"
"	제 3 중대	일 병	11351097	柳 宗 坤	65. 11. 28	"
"	제 4 중대	"	11338754	白 忠 次	65. 11. 17	"
"	"	"	11424977	金 禧 喆	65. 11. 30	"
"	제 5 중대	"	11388112	朴 正 基	65. 12. 8	순 직
"	"	"	11437519	吳 富 吉	66. 1. 9	전 사
"	"	"	11443398	李 允 宰	66. 2. 7	"
"	"	"	11439600	金 永 男	66. 3. 18	"
"	"	"	11461122	崔 慶 澤	66. 3. 23	"
"	"	"	11432217	李 正 男	66. 3. 23	"
"	제 7 중대	"	11351680	金 英 一	66. 2. 20	"
"	제 8 중대	"	11328865	金 大 潤	66. 1. 9	"

소	속	제 급	군 번	성 명	전사망일자	비	교
제 1 연대	제 8 중대	일 병	11446565	李 武 男	66. 1. 9	전	사
"	"	"	11399807	李 基 在	66. 1. 16	"	"
"	제 9 중대	"	11345054	朴 成 奎	66. 1. 26	"	"
"	제 10 중대	"	11435313	金 正 浩	65. 12. 1	"	"
"	제 11 중대	"	11336442	李 春 述	66. 2. 20	"	"
기갑연대	수색중대	"	11438250	金 相 鎭	66. 2. 12	"	"
"	"	"	11438955	朱 達 雄	66. 2. 26	"	"
"	"	"	11438995	李 起 三	66. 3. 1	"	"
"	본부중대	"	11313810	李 英 春	65. 11. 10	순	직
"	의무중대	"	11395795	安 光 翺	66. 2. 26	전	사
"	제 1 중대	"	11434177	金 容 三	66. 2. 26	"	"
"	"	"	11446438	張 基 勳	66. 2. 26	"	"
"	제 2 중대	"	11300457	李 圭 奉	65. 12. 8	순	직
"	"	"	11274711	朱 尤 敬	65. 12. 10	전	사
"	"	"	11353079	李 在 熙	66. 1. 9	"	"
"	"	"	11460678	李 宗 善	66. 1. 29	"	"
"	"	"	11341330	李 析 熙	66. 2. 4	"	"
"	"	"	11357105	王 雨 燮	66. 2. 8	"	"
"	"	"	11419367	柳 有 永	66. 2. 12	"	"
"	"	"	11438410	梁 承 元	66. 2. 12	"	"
"	제 3 중대	"	11426677	吳 南 錫	66. 3. 19	순	직
"	"	"	11432801	鄭 忠 浩	66. 3. 19	"	"
"	제 5 중대	"	11266292	李 正 丸	65. 11. 30	"	"
"	"	"	11322879	李 炳 錄	65. 12. 28	"	"
"	제 7 중대	"	11422402	尹 舜 英	66. 2. 29	"	"
"	"	"	11463600	蔡 龍 夫	66. 2. 28	"	"
"	제 8 중대	"	11243159	高 東 弘	65. 11. 30	"	"
"	제 9 중대	"	11285973	鄭 泰 玉	66. 2. 5	순	직
"	"	"	11327109	金 廣 平	65. 11. 1	전	사
"	"	"	11384150	金 光 明	65. 11. 12	"	"
"	"	"	11406584	全 雙 植	65. 11. 12	"	"
"	제 10 중대	"	11341209	林 圭 完	66. 1. 9	"	"
"	제 12 중대	"	11406587	趙 点 奎	65. 11. 18	"	"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전사망일자	비고
기갑연대	제12중대	일병	11441427	崔喆賢	66. 3. 24	전사
"	"	"	11457989	朴世訓	66. 3. 25	"
제60포병대대		"	11377071	丁永煥	65.12.27	순직
"	"	"	51096671	鄭錫堧	65.12.27	"
"	"	"	11412269	孫正男	66. 2. 26	전사
군수지원사 103공병대		"	11395098	洪鍾錫	65.11.28	순직
"	방첩대	"	10582982	李成翼	65.11.19	전사
"	"	"	11414773	朴義學	65.11.19	"
제1연대	제1중대	이병	31026566	李鍾太	65.11.23	"

(2) 海兵 第2旅團

군수지원단	대위	133237	金熙潤	65.11.15	전사
제6중대	중위	62483	李鍾吉	66. 1. 3	"
1	소위	62401	吳英智	66. 2. 24	"
10	"	62535	金辰洙	66. 1. 31	"
1	중사	7210729	金石景	66. 2. 34	"
5	"	7216065	朴龍敞	66. 4. 11	"
7	하사	7215661	金東一	65.11. 4	"
7	"	7208152	崔永鎬	66. 1. 2	"
10	"	7216658	方乙守	66. 1. 8	"
10	"	7216437	鄭誠吉	66. 1. 8	"
5	"	7216171	金正泰	66. 1. 20	"
5	"	7216862	沈東澤	66. 1. 2	"
10	"	7215751	朴仲信	66. 1. 21	"
9	"	7216932	徐哲源	66. 1. 31	"
11	"	7216379	李男務	66. 1. 31	"
5	"	7216503	金成一	66. 2. 17	"
1	"	7214008	張光秀	66. 2. 24	"
3	"	7216361	姜成官	66. 2. 16	"
1	"	7212926	金錫九	66. 3. 4	"
9	병장	9307746	權寧遂	66. 1. 3	"
7	"	9308346	申範萬	66. 1. 3	"
5	"	9308315	金秀東	66. 1. 4	"

소	속	계급	군번	성명	전사망일자	비고
제 9	중대	병장	9308576	李 起 學	66. 1. 5	전 사
10	"	"	9309245	李 基 述	66. 1. 8	"
10	"	"	9311167	吳 炳 哲	66. 1. 8	"
5	"	"	9306187	宋 基 千	66. 1.20	"
5	"	"	9309827	金 相 河	66. 1.20	"
5	"	"	9309929	慶 龍 賢	66. 1.20	"
10	"	"	9309275	金 周 燦	66. 1.31	"
9	"	"	9308312	張 東 煥	66. 1. 31	"
9	"	"	9309860	崔 武 信	66. 1.31	"
10	"	"	9309416	尹 雄 吉	66. 1.31	"
1	"	"	9312087	全 光 好	66. 2.14	"
1	"	"	9307777	韓 南 守	66. 2.24	"
7	"	"	9310406	徐 錫 培	66. 2.24	"
1	"	"	9310592	宋 求 善	66. 3. 4	"
2	"	"	9311428	金 甲 成	66. 3. 9	"
1	"	"	9308637	趙 瓊 點	66. 3.17	"
제 1 대대 본부		"	9309853	尹 明 浩	66. 3.22	"
"		상병	9312163	金 章 永	65.11.19	순 직
제 3 대대		일병	9319321	趙 在 浩	65.11.21	"

(3) 建設支援團

제 101 경비대대	중위	92379	安 正 泰	65. 9.11	전 사
제 101 경비대대	중사	10887488	魯 雲 奎	65. 4.23	"
제 127 공병대대 본부	하사	1100263	高 炳 吉	65.12.27	"
" 제 3 중대	"	11170181	金 宗 龍	65. 8. 6	"
" "	"	11005562	李 炳 允	65. 8. 6	"
" "	"	21010825	張 基 洙	65. 1. 3	순 직
" 수송중대	"	11224475	李 建 二	66. 2. 9	"
제 1 외과병원	"	10352914	金 東 洙	65. 5.16	"
"	"	11250480	張 基 喆	65. 6. 5	전 사
제 101 경비대대	병장	11144128	金 龍 文	65. 6. 5	순 직
제 2 중대	"	11264641	崔 樹 吉	65. 5. 8	전 사
제 4 중대	"	11202695	白 萬 玉	65.11. 9	순 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망일자	비 고
통신대대본부	병 장	2101287	劉 龍 洙	65.12.27	전 사
제 1 외과병원	"	11094178	金 相 鎬	65. 6.20	순 적
해병공병중대	"	9305131	文 昌 鎬	65. 6.25	"
제 101 경비대대	상 병	11338345	李 海 應	66. 3. 1	전 사
제 127 공병대대	"	11344785	金 八 洙	66. 1.18	"
제 1 공병중대	"	31038522	南 孝 仁	65. 5. 6	"
제 2 공병중대	"	9311385	李 滿 鎬	66. 1. 1	순 적

附表 제 4 호

## 年 表

연 월 일	주 요 사 항
64. 7. 15	越南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呼訴文 접수
7. 15	제 1 이등외과병원 창설(서울倉洞)
7. 31	제44회 國會, 國軍 海外과견에 관한 동의안 가결
9. 11	제 1 이등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釜山港 출발
9. 22	제 1 이등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Saigon 도착
9. 25	제 1 이등외과병원 始務式과 國旗계양식 거행(Vung Tau, 越南軍 정양병원)
65. 1. 2	越南정부, 한국정부에 支援증과 요청
1. 26	제47회 國회, 國軍증과 동의안 가결
1. 27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창설
1. 30	파월 한국군 초대 군사원조단장에 裴文煥 준장 취임
2. 5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결단식 거행(경기도 縣里에서, 金聖恩 국방부장관 참석)
2. 9	派越장병 국민환송대회 거행(서울운동장에서, 朴正熙 大統領 참석)
2. 13	파월 한국군사원조단선발대 釜山港 출발
3. 10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본대 仁川港 출발
3. 16	파월 한국군사원조단 Saigon 도착(同日부르 제 1 이등외과병원 同부대에 배속)
3. 28	파월 美軍사령관 Westmoreland 대장 한국군사원조단 방문
4. 1	金聖恩 국방부장관, Westmoreland 대장, 越南 군수참모부장 Nhon 장군 「Di An - 주둔지 간 도로보수공사 기공식」 참석(4. 1~4. 30)
5. 16	越南수상 Nguyen Cao Ky 韓國軍 전투부대 파병요청
8. 13	제52회 國회, 전투사단 파월안 가결
8. 17	파월 한국군사령관에 蔡命新 소장 임명
9. 25	파월 韓國軍사령부 창설(서울 篳洞)
9. 25	파월 한국군사령부 선발대 출발(서울--Saigon)
10. 3	해병 제 2 여단(청동부대 釜山港 출발)
10. 9	해병 제 2 여단 Cam Ranh 상륙
10. 12	파월 전투부대 환송식 거행(여의도에서, 朴正熙 大統領 참석)
10. 16	首都사단 제 1 연대 釜山港 출발
10. 19	해병 제 2 여단 美제 173 공수여단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 인수
10. 22	제 1 연대 Qui Nhon 상륙



연 월 일	주 요 사 항
65. 10. 28	Westmoreland 대장, 越南軍 참모총장 Binh 장군 首都사단 방문
10. 29	제 1연대 제 3 중대 『Phung Son전투』(10. 29~10. 30) 전개
11. 1	제 1 기갑연대 Qui Nhon港 상륙
11. 1	건설지원단(10/372명) 越南공화국 혁명 제 2 주년기념행사 참석
11. 3	제 1 연대, 美제 101공수사단 제 1 여단 및 美해병 제 7 여단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 인수
11. 4	해병 제 2 여단 제 5 중대 『Nui Ca Du(山) 전투』 결행
11. 6	越南국가원수 Thieu 장군, 수상 Ky 장군, Westmoreland 대장 韓國軍환영대회 참석
11. 8	해병 제 2 여단 제 3 대대 『번개 1, 2, 3호 전투』(11. 8~11. 14) 전개
11. 10	육군참모총장 金容培 대장, 越南軍총사령관 Tanh 중장, 건설지원단의 Tu Tiu건설소 기공식 참석
11. 11	제 1 연대 제 1 중대 『Luc Le전투』 전개
11. 13	제 1 연대 제 1 중대 『Binh Lam전투』 전개
11. 14	제 1 기갑연대 제 6 중대 『Kien Thanh전투』(11. 14~11. 20) 감행
11. 15	제 1 기갑연대, 美제 1 공중기갑사단으로부터 전술책임지역 인수
11. 16	제 1 연대 제 6 중대 『Qui Nhon반도 탐색전』(11. 16~11. 17) 전개
12. 4	제 1 연대 제 6 중대 『Luat Chanh전투』(12. 4~12. 5) 결행
12. 7	제 1 연대 제 1 중대 『셋별 3호 전투』 전개
12. 16	해병 제 2 여단 『靑龍 1호 작전』(65. 12. 16. ~66. 1. 16) 감행
12. 18	제 1 기갑연대 제 2 대대 및 제 1, 제 2 중대, 연대수색중대 『前進 1, 2, 3호 전투』(12. 18~12. 30) 추진
12. 19	제 1 연대 제 2 대대 『飛虎 1호 전투』 전개
12. 27	제 1 연대 제 2 대대 『飛虎 2호 전투』 추진
66. 1. 3	제 1 연대 제 1 대대 『飛虎 3호 전투』 전개
1. 7	제 1 연대 제 1 대대 및 제 2 대대, 연대수색중대 『飛虎 5호 전투』 전개
1. 9	제 1 연대 제 1 대대 및 제 2 대대, 연대수색중대 『飛虎 6호 전투』(1. 9~1. 10) 결행
1. 10	제 1 연대 제 11 중대 제 2 소대 『But계곡 기습전』 추진
1. 11	張基榮 부총리 일행 과월군부대 방문(1. 11~1. 12)
1. 18	제 1 연대 제 3 대대 『在求 1호 전투』(1. 19~2. 21) 결행
1. 19	해병 제 2 여단 『靑龍 2호 작전』(1. 19~2. 21) 감행
1. 23	제 1 연대 제 3 대대 및 제 7 중대, 연대수색중대 『在求 2호 전투』(1. 23~3. 12) 전개
2. 5	군사령관 蔡命新 소장 건설지원단에 부대표창 수여
2. 12	제 1 기갑연대 제 2 중대, 연대수색중대 『花郎 2호 전투』 전개

연 월 일	주 요 사 항
66. 2. 15	제 1 연대 제 1 중대 및 제 2 중대 『Nam Tang기습전』 전개
2. 17	민병권 국회국방분과위원장 일행이 파월 한국군부대 방문(2. 17~2. 19)
2. 22	해병 제 2 여단 『再建 1 호작전』(2. 22~3. 24) 전개
2. 25	越南 제 2 군단장, 「飛虎 6 호 작전」 유공자에 대한 越南정부 훈장수여(Qui Nhon 극장 앞)
2. 26	제 1 기갑연대 제 1 대대 및 제 2 대대 『번개 66-3호 작전』(2. 26~2. 28) 감행
3. 7	해병대사령관 孔正植 중장 일행 군사령부 방문, 해병 제 2 여단 순시(3. 8)
3. 14	美태평양지구 육군사령관 Oohn M Waters대장 군사령부 방문
3. 15	해군수송단대, 해군수송분대로 증편, 건설지원단 배속에서 군사령부 적할대로 배속변경)
3. 21	군사령부 『Vung Tau휴양소』 개소식 거행
3. 23	수도사단 『猛虎 5 호 작전』(3. 23~3. 26) 전개
3. 25	해병 제 2 여단 『再建 2 호 작전』 전개
3. 26	제 1 연대 『수복작전』 감행

## 人名索引

## 【7】

- |     |  |     |  |
|-----|--|-----|--|
| 姜君吉 | 455 467 471 481 529 589 618 719<br>730 | 權五周 | 527  |
| 姜君鍾 | 560 804 806 812                        | 權宇憲 | 630 632 635 740                            |
| 姜大珍 | 200                                    | 權準澤 | 594 598 606 608 627 649                    |
| 姜德遠 | 190 227                                | 權泰明 | 291 384 560                                |
| 姜東敏 | 416                                    | 金光洙 | 766  |
| 姜東淳 | 190 200                                | 金廣磨 | 751  |
| 姜明遠 | 511                                    | 金光鉉 | 621  |
| 姜炳會 | 223                                    | 金光雄 | 200  |
| 姜鳳洙 | 637                                    | 金光弘 | 686  |
| 姜錫元 | 192                                    | 金建洙 | 200  |
| 姜聖鎮 | 200 237 244                            | 金建泰 | 200  |
| 姜信九 | 754                                    | 金九源 | 529 531                                    |
| 姜實奎 | 286                                    | 金九原 | 771  |
| 姜容周 | 763                                    | 金圭股 | 565  |
| 姜龍珍 | 765                                    | 金吉夫 | 741 759                                    |
| 姜義英 | 431 437 441 684 696 706                | 金根鎬 | 530 548                                    |
| 姜仁秀 | 280 565                                | 金基成 | 560  |
| 姜在求 | 639                                    | 金基浩 | 221  |
| 姜俊彥 | 190 211                                | 金大植 | 421 432 676 685 702                        |
| 姜熙秀 | 565                                    | 金大連 | 530  |
| 康用仁 | 384 400 560                            | 金大憲 | 347 354 421 448 652 676 680 692<br>698 702 |
| 康龍賢 | 565                                    | 金東培 | 192  |
| 康 哲 | 223                                    | 金東植 | 240  |
| 康龍賢 | 565                                    | 金東述 | 525 544                                    |
| 俱南熙 | 744                                    | 金東完 | 602 604                                    |
| 高光培 | 276                                    | 金東哲 | 513  |
| 高春才 | 244                                    | 金麟培 | 220  |
| 孔文奎 | 249                                    | 金洛連 | 530  |
| 郭正鉉 | 637                                    | 金洛濟 | 806 832                                    |
| 郭周煥 | 192                                    | 金 滿 | 483  |
| 具祥龍 | 412                                    | 金滿鮮 | 806  |
| 權寧大 | 431 441                                | 金明午 | 224  |
| 權炳秀 | 532                                    | 金武石 | 550 555 741 755 758                        |
| 權相集 | 190 200 243 247 249                    | 金早魯 | 225  |
|     |  | 金茂雄 | 341 347 366 655 693                        |
|     |  | 金文吉 | 427 658 689                                |
|     |  | 金炳國 | 763  |

金秉圭	365 427 651 662 676	金勇夫	511
金炳善	761	金龍夫	604
金秉禪	676	金容燮	409
金炳一	565	金龍雄	714 718
金炳泰	533	金容振	326 331 341 347 355 421 434 448 453 676 681 694 700 704
金福壽	116	金容鐸	731 761
金鳳國	579	金雲翰	575
金奉權	167	金유병	483
金三中	847 856	金允信	301
金相吉	467 529	金義培	692
金相烈	327	金仁澤	758
金相株	758	金一起	816 833
金相河	565	金自溶	412
金相憲	806 830	金璋侏	200
金相賢	332 455 471 501 589 719	金在基	190 213 239 250
金石根	664	金在德	757
金錫贊	200	金在斗	510
金成根	794	金在寅	291
金成年	736	金在喆	524 713 718
金成斗	736	金載熙	738
金成燮	380 384 387 391 455	金点淑	738 757
金聖恩	211	金正夫	758
金成鎮	398	金正三	604
金秀吉	380 455 529 548	金正植	785
金秀東	404	金瓊雲	332, 341 370 377 457 472 501 533 678
金秀鍊	192	金政一	519
金允亨	225	金正泰	565
金淳德	772	金正澤	388
金淳學	210 220 247	金貞鎬	511
金安勝	510	金正勳	373 374 771
金然翔	107 116	金宗龍	217
金連泰	764 776	金鍾龍	116
金永吉	696	金鍾培	636
金永麟	116 185 210 223	金鍾世	291
金榮三	754	金鍾玉	742
金榮彥	408	金鍾鎬	415 421 589 670
金영선	224	金周景	427 658 689
金永逸	116	金周敏	437
金英泰	636 761	金周燦	572
金完洙	575	金柱天	478 543 547 745 755 760
金容杰	116		
金容培	220		

金振奎 341 421 676 719  
 金晉燮 543  
 金辰洙 406 412 572  
 金燦福 719 767 783  
 金讚鎬 200  
 金昌郁 707  
 金哲河 560  
 金泰一 754  
 金泰熙 427 430 447  
 金八洙 224 247  
 金平吉 524  
 金原海 708  
 金炫 348 425 443 665 682 694  
 金亨先 248  
 金洪閔 778  
 金弘圭 96 195  
 金興壽 190 200 239 242 251  
 金興玉 559 608 623 771

## 【L】

羅根玉 737  
 羅炳善 738  
 羅義均 200 245  
 南基東 200  
 南泰熙 191  
 盧承 285  
 盧英哲 589 641 643 719 739 761 772  
 盧在佑 572  
 魯雲奎 298

## 【口】

明山玉 427 662 689  
 明益杓 393 560 580  
 閔炳權 833  
 文成三 737  
 文永一 572

## 【日】

朴康夫 357  
 朴慶錫 555 557 589 592 597 618 620 626  
 639 642 650 719 739 761 771 785  
 朴光奎 635 761  
 朴圭宣 200  
 朴金錫 301  
 朴基淳 480 487 738  
 朴良圭 192  
 朴大義 200  
 朴勳錫 492  
 朴東奎 190 212 216 219 221 225 240 243  
 252  
 朴東遠 455 460 471 474 486 517 519 541  
 545 719 732 743 746 760 770 790  
 796  
 朴文圭 476 524 750 756  
 朴敏植 200  
 朴範隣 409  
 朴四蓮 478 485  
 朴相玉 565  
 朴成圭 600  
 朴成福 785  
 朴晨煥 348 358 366 425 665 682 694  
 朴暎旭 587  
 朴英煥 712 713 716 718  
 朴龍成 774  
 朴允錫 759  
 朴應洙 509  
 朴인택 225  
 朴一均 653 689 690  
 朴點鍾 551  
 朴正男 510 603 625  
 朴定秀 574  
 朴鍾坤 560  
 朴鍾勳 192  
 朴重根 639  
 朴仲信 572  
 朴哲 200  
 朴漢英 423 652 685 698 701

朴憲泰	395
朴立午	240
方瑞男	589
方石道	583
方乙洙	421
裴仁基	636
裴貞信(改名：貞道)	274 276 305 316 377 379 380 383 384 488 491 493 496 498 505 507 514 534
裴正雄	200
白秀彥	785
白駿基	190 192
白忠次	477
白炯基	560 583

## 【人】

徐客元	780
徐基鳳	712 713 714 716 717
徐기석	225
徐南植	276
徐道鉉	637 639
徐明珠	200
徐명식	238
徐輔玉	575
徐상주	246
徐相炫	520 746
徐全坦	225
徐完秀	360 656 693 708
徐명현	116
徐哲源	575
徐學原	738
成炳文	291 300 391 402 560
成勳	583
蘇炳敏	192
孫福奎	192
孫先浩	757
孫英男	772
孫龍男	734 751
孫太浩	621
孫鶴植	346

孫熙善	128
宋圭錫	421
宋基千	565
宋斗錫	759
宋斗星	617
宋三龍	572
宋暎用	496 589 619 741
宋元圭	719
宋益薰	190 191 221
宋 玟	527
宋仲鎬	197 200
宋頂基	738
宋正泰	772
宋完圭	680
宋澤龜	96 197
宋惠喆	200
申範萬	398
申尚澈	120 198 205 208 291 212 213 405
申世勳	200
申佑湜	190 238 245 249 251
申佑煥	200
申仁道	491
申武男	696
申龍植	757
申 丁	608 617 632 636
申正雄	596 613 624 785
申鉉鍊	321 341 354 362 421 676 705
沈基哲	90 199 200 241 250
沈南龍	527
沈東澤	565
沈龍仙	604

## 【〇】

安根輝	192
安萬在	398
安富雄	691 765
安閔玉	276 513
安一燮	405 420 574
安正榮	395
安正泰	200 243

- 安鍾燮 781  
 安宗勳 828  
 安昌和 116 253  
 安哲洙 737  
 安泰恒 847  
 安泰憲 860  
 安鉉基 555  
 安賢泰 200  
 安和善 210  
 梁美驅 576  
 梁修一 482 529 531  
 梁珠輝 601  
 梁承權 691  
 梁寶龍 551  
 梁 鷹 421 652 676 680 719  
 梁在祐 806 824  
 梁在一 719 764 781 785  
 楊承權 765  
 魚秀福 116  
 魚在弘 387  
 嚴讚容 190 215 217 219 221 222 224 225  
 嚴大一 629  
 廉鍾宮 402  
 吳慶煥 748  
 吳百煥 806  
 吳秉奎 531  
 吳炳洙 190 214 217 222 223  
 吳炳哲 412  
 吳富吉 532  
 吳世鎮 778  
 吳榮烈 280 384 560  
 吳文煥 763  
 吳允晉 280 281 283 290 344 387 560  
 吳滋瀾 806 829  
 吳長烈 397  
 吳在奎 847 859  
 龍永一 551 557 589 594 602 620 640 646  
 719 739 772 785 793  
 禹卨己 240  
 禹鍾福 412  
 元明澤 552  
 元興太 622 625  
 劉國泰 99  
 劉南奎 291 300 395 560 563  
 劉炳錫 781  
 劉炳壽 565  
 劉鳳洙 806 826  
 劉永大 200  
 劉龍洙 247  
 劉千奎 750  
 劉鍾昊 764  
 劉亨善 192  
 柳寬雄 603  
 柳光錫 638  
 柳南洙 385  
 柳秀一 518  
 柳在春 603 624  
 柳昌根 603 624  
 俞一秀 200  
 尹基源 509 546  
 尹施英 320  
 尹水王 604  
 尹在民 847 861  
 尹泰植 560  
 尹亨連 778  
 殷熙大 575  
 李建永 558  
 李崑洙 348 357 425 445 656 663 682 694  
 李光魯 96 190 195 200 235 238 241 252  
 李權觀 341 348 354 359 366 421 425 436  
 443 447, 453 652 665 667 676 681  
 694 701 712 715 718  
 李圭東 806  
 李圭鳳 550 589 602 611 641 676 680 719  
 741 757  
 李圭台 391 400 569  
 李금호 225  
 李起述 412  
 李起學 406 408  
 李男務 401 405 477 573 577  
 李南周 833  
 李大鎔 120 129  
 李大憲 707

## 932 附錄 吳 附表

李大熙	192	李二男	630
李德坤	719 762 773	李寅秀	354 361 719
李萬述	190	李林春	748
李滿振	488 493 508 510 540	李戴泰	589 592 599 615 633 639 651 793
李陸徽	618	李戴懋	200 238
李範俊	99 802 833	李戴熙	250
李秉達	200	李政基	524
李炳培	773	李正男	751
李秉衡	99	李廷民	200
李鳳出	108 291 384	李正茂	310
李奉熙	560 585	李丁龍	398
李三郎	736	李鍾九	573 421 427 436 441 440 613 624 676 684 697 700 706
李三錫	657	李鍾吉	402
李相權	287 527 744 747 527	李鍾燮	167
李相道	408 762	李鍾哲	573
李相福	806	李重衡	605
李相植	638	李志雄	237
李相浩	200	李燦奎	560 568
李錫燦	761	李昌秀	384 560
李成前	744	李昌煥	515
李世圭	99 167	李昌燮	758
李世鎬	115 179 182	李 清	462 524 541 547 719 732 748 764
李秀雄	714 718	李春根	719 764
李潭天	515	李澤根	220
李승지	192	李太佰	572
李勝昌	781	李大雨	482
李昇浩	560 580	李泰一	321 324 330 355 425 676 683 695 701 719 767
李野介	761	李弼朝	332 455 506 719 730 738 760 770 785 790 795
李永男	778	李夏吉	560
李英燮	200 223	李學健	305 317 492
李永雄	494 514	李秀根	744
李永宰	190 211 215 220 249 251	李翰鍾	583
李要燮	408	李 憲	600 622
李 龍	128	李賢夫	742
李肅求	778	李賢宰	691 765
李龍文	514	李亨洙	190 191 192
李雄俊	760	李洪吉	286
李允宰	476	李 孝	356 680 709
李倫行	719		
李潤鎬	400 573		
李元洋	354 676 698 719 765 782		
李衣熙	200		



李孝祥 213  
 李勳燮 205 235  
 李暉潤 323 426 683  
 林慶澤 624  
 林慶煥 192  
 林錫淳 805 806  
 林永植 766  
 林潤喆 408  
 林青鶴 589 635  
 林亨근 238  
 林恒九 572  
 林鉉哲 742

## 【六】

張 瑾 802 806  
 張基榮 413  
 張基薰 687  
 張東煥 575  
 張三先 327 328 331  
 張相圭 395  
 張相勳 513  
 張錫熙 412  
 張世東 274 488 514  
 張世鉉 623  
 張善台 771  
 張淳奎 384 394 414  
 張亮熙 341 431 684  
 張義夫 532  
 張在植 200  
 張貞九 611  
 張正煥 525 549  
 張志孝 731  
 張昌國 196 640 787  
 張判奉 778  
 張泰漢 527  
 張洪烈 341 676 719  
 全光好 583  
 全相雲 327 328 683  
 全錫崑 737  
 全善九 686 687  
 全成珏 589 719 729 760 762 770 784

全容鎮 511  
 全遇成 847 861 862  
 全政男 291 294 300 393 405 560  
 全清一 530  
 全衡錫 737  
 鄭慶植 412  
 鄭奇烈 308 776 778  
 鄭基昌 471 501 719  
 정덕운 246  
 鄭文基 324  
 鄭鳳律 455 471 719  
 鄭誠吉 412  
 정순도 300  
 鄭永先 192  
 鄭永鎮 384 560  
 鄭永昌 777  
 鄭玉水 572  
 鄭又植 286  
 鄭遇湜 564  
 鄭又鉉 287  
 鄭雲深 471 496 501 507 719  
 鄭元模 779  
 鄭仁亮 237  
 鄭在源 285 391 397  
 鄭載鎬 221  
 鄭政能 465 526 542  
 鄭政浩 743 785  
 鄭宗根 731  
 鄭周泳 521 528 745 749 798  
 鄭志勇 628  
 鄭顯彥 798  
 鄭充吉 532  
 鄭台錫 99 401 404 412  
 鄭臺田 310 391 491 498 515  
 鄭會慶 421 435 438 652 676 719  
 丁萬吉 332 335 339 370 372 377 455 465  
 71 479 501 532 536 719 738 757  
 771  
 丁裕成 284  
 趙圭完 247  
 曹文煥 96 189 190 195 198 205 211 216  
 220 235 240 251 253 412 856

조봉남	225
曹奉植	285
趙成鎮	691
趙永一	285
趙英辰	405 408
趙在根	532
趙漢九	407
朱錫根	284
池成植	405
奏孟源	524
奏帳錄	632 636
陳福一	565

【六】

車根石	782
蔡圭勳	662
蔡銅哲	751
蔡命新	106 372 396 457 459 469 496 640 676 719 779 829 831
蔡熙宣	316 317 318 319
蔡熙雄	398
崔 洸	806
崔경원	246
崔慶擇	754
崔京煥	477 525 549
崔奎莊	237
崔根直	565
崔基泰	291 384 560
崔嫩冕	806
崔東輝	190 192 193
崔武信	575
崔방은	298
崔炳授	355 719 763 767 779
崔誠日	190 212 214
崔午烈	239
崔乘道	398
崔泳德	252 626
崔永泰	773
崔龍鎬	744
崔元在	754

崔仁洙	395
崔喆賢	779
崔賢根	600

【七】

河春雄	398
河致富	762
韓國道	291 302 399 403 560
韓基榮	560 580 582
韓德愚	200
韓萬浩	99
韓明熙	477
韓明熙	332 719
韓相基	630
韓成根	778
韓 信	787
韓亮愚	806
韓濟龍	320 378 488 501 589 623 719
韓弘錫	847 861
咸德善	384 388
許載吉	243
玄錫朱	99
玄英鎭	408
洪淳基	560
洪淳喆	192
洪益杓	398
黃信一	565
黃永時	99 167
黃永鎭	200
黃學模	742

【B】

Bao Dai	31 32 77
Blewett	116 167
Brezhnev	27
Brown	93
Bui Huu Nonh	129
Bulganin	35

## 【C】

Cao Van Vien 418  
 Carr 405  
 Cartis 167 169  
 Casabubu 25  
 Cheris Menlly 642  
 Chompbe 25  
 Coi 646  
 Cook 151  
 Cope 223  
 Crowley 152

## 【D】

Dam 125  
 De Gaulle 23 27 42  
 Demio 605  
 Depuy 152  
 Dian 211 213 219 220 224  
 Diem Ngo Din 135  
 Dong 148  
 Duong Van Minh 34 80 125  
 Durst 167

## 【E】

Erhard Ludwig 24  
 Evans Smith 125

## 【F】

Francis G. Brink 69  
 Fredreik E. Nolting 69  
 Fuan Pan Ton 41

## 【G】

Gibus 25  
 Goldberg 42  
 Green 413

## 【H】

Harriman 42  
 Heinliges 404  
 Ho Chi Minh 31 32 33 36 41 42 7677  
 Howze 90  
 Huang Van Phung 121  
 Humphrey 42 44 254

## 【I】

Iditt 30

## 【J】

Jale 167  
 John F. Kennedy 21 70 89  
 John W. O Daniel 69  
 Johnson 22 26 27 41 44 45 46 70 72

## 【K】

Khrushchev 21 26 27 28 35  
 Khu 223  
 Kimba 25  
 Kosygin 22 27 28 36 37 58

## 【L】

Laekson 169  
 Lai 223  
 Langston 167  
 Le Duan 58  
 Le Juang 36  
 Lisenby 405  
 Loc 605 608 627 646 646

## 【M】

Macdonald 149 167  
 Mang 42

Marcos 42  
 Mcnamara 41  
 Mobutu Joseph 25  
 Morton 150  
 Mulnamba 25

**【N】**

Nasution 30 35  
 Nehru 29 30  
 Ngo Dinh Diem 21 34 60 77 80  
 Nguyen Cao Ky 100  
 Nguyen Gia Vo 62  
 Nguyen Khanh 91  
 Nguyen Van Thieu 156 198 216 226 239  
 481  
 Ngyuen 627  
 Nyon 148

**【P】**

Pan Pani 41  
 Parsous 169  
 Paul 6세 42  
 Pearson 571 578  
 Pham Tang Lam 94  
 Phan Huy Quat 92  
 Phong 152  
 Prange 131

**【R】**

Rarsen 150  
 Rusk 41

**【S】**

Stenly R. Larson 157 292 302 385 400 578  
 Stillwell 125 136

**【U】**

Taylor 261 262  
 Thang 125  
 Thant 72  
 Throckmorton 148  
 Tran Ngoc Tam 182 220 224  
 Tu 627

**【V】**

Vohep 628

**【W】**

Wanh Huy Quat 92  
 William C. Westmoreland 150 167 259 263  
 395 409 810  
 Williams 42  
 Wilson 21 42

### 合同審議會議芳名錄

1977. 11. 1

部 署	職 責	階 級	姓 名	署 名
陸 軍	諮 問 委 員	前 參謀總長 陸軍大將	白 善 燁	백선업
海 軍	"	前 參謀總長 海軍大將	張 志 洙	장지수
空 軍	"	前 參謀總長 空軍大將	金 斗 萬	김두만
慶熙大學校	"	教 授 文學博士	金 成 植	김성식
서울大學校	"	大學院長 文學博士	韓 洵 勛	한두근
台 參	作戰局次長	准 將	梁 昶 植	이종삼
陸 本	軍史研究室長	"	鄭 元 赫	정원혁
國 防 部	政 訓 課 長	書 記 官	玄 昌 基	현창기
海 本	編 制 處 長	大 領	禹 永 濟	우영제
空 本	"	"	金 相 泰	김상태
海 本	海 兵 上 陸 企 副 擔 當	中 領	李 燦 圭	이찬규
國 防 部	情 報 補 佐 官 室	"	尹 正 植	윤정식

執 筆 陣

主 幹		金	洪	玉
編纂委員		沈	方	殷
〃		河	在	松
〃		李	炳	椀
〃		崔	春	影
〃		金	賢	秀
〃		朱		儉
專門委員	陸軍 少領	丁	東	均
〃	海軍 大尉	高	永	喆
〃	空軍 大尉	鄭	浩	永
資料擔當		全	周	錫
製 圖		安	英	五

.....

本 戰史의 執筆陣은 上記와 같으며 이 內容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書面 또는 口頭로 當委員會에 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西紀 1978 年 10 月 1 日 發刊	
印刷業體名	共和出版社 電話 0855
代表者	金 壽 鍾
認可根據	1972. 10. 6 내이 515·2~26211 인가
參與者	所屬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階級 陸軍少領 丁 東 均

## 派越 韓國軍戰史 第1卷 (上) 改訂版

1978 年 9 月 25 日 印刷

1978 年 10 月 1 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 編纂

發行 國 防 部

印刷 共 和 出 版 社

不許 無斷複製